조선 중앙 년감

1963

조선 중앙 통신사

축 하 문

경애하는 김 일성 동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전체 조선 인민과 함께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인 동지의 탄생 50 주년에 제하여 충심으로부터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김 일성 동지! 동지는 일찌기 혁명 투쟁의 길에 들어 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0 여년 동안 오직 조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선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습니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동지는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 인민의 첫 혁명 무장 대오를 조직하였으며 이 대오를 부단히 확대 강화하면서 15 개 성상이나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동지의 령도 밑에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은 민족적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희망을 안겨 주었으며 그들을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 추동하였습니다.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조선 혁명의 튼튼한 공산주의적 령도 핵심이 형성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가 갖추어졌으며 우리 당과 인민의 빛나는 혁명 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후 동지는 진정한 맑스—레닌주의 당인 조선 로동당을 창건하였으며 시종 일관 당과 인민의 선두에 확고히 서서 조국의 통일 독립과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령도하였으며 또 령도하고 있습니다. 동지의 령도 밑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조선의 현실에 능숙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혁명 발전의 매 계단에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인민 대중을 승리에로 확신성 있게 인도하였습니다. 동지는 항상 전 당과 전체 인민을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제때에 전진 도상에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현명한 방도를 제시하면서 추호의 동요도 없이 완강한 투지와 비상한 정열과 무비의 혁명적 전개력을 가지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이 채택한 로선의 관철에로 동원하였으며 그들을 영웅적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조선 인민은 새 생활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 온갖 파란 곡절을 다 겪었으나 당 중앙 위원회와 김 일성 동지의 세련된, 확고 부동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로 하여 언제나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지고 용기 백배하여 투쟁에 떨쳐 일어났으며 모든 풍파를 뚫고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 왔습니다.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자기 수중에 주권을 장악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미제와 그 추구들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전쟁의 혹심한 상처를 가시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동지의 령도 밑에 우리 당은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자기 대렬의 강철 같은 통일을 보장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획득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자기 주위에 굳게 단결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전례 없는 민족적 번영기에 처하여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 맑스

—레닌주의 사상은 전면적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세기적 락후성을 청산하고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진 강력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착취와 빈궁에서 완전히 해방되였으며 날로 륭성하는 조국의 품안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더욱 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광명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김 일성 동지의 정확한 령도를 받들고 남조선 인민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에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동지가 령도하는 조선 로동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세련된 전투 대오로서 혁명적 맑스—레닌주의의 사상과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고 있으며 자기에게 부과된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지의 령도 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자기의 실지 투쟁을 통하여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공동 위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락후하던 우리 사회를 변혁하며 우리 조국의 찬란한 새 력사를 창조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 왔으며 이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달성한 승리와 성과들은 모두가 다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있습니다. 오늘 남녀 로소를 막론하고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번영하는 자기의 조국을 자랑하며 자기들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즐기면서 항상 당의 령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으며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세운 김 일성 동지의 위대한 공훈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영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로 무장되고 인민 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우리 당의 령도가 있으며 절세의 애국자이며 불굴의 혁명 투사이며 탁월한 령도자인 김 일성 동지가 당과 인민의 선두에 확고히 서 있는 한 조선 인민은 자기의 정당한 투쟁에서 백전 백승할 것입니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조선 인민과 함께 우리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조선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김 일성 동지의 만수 무강을 축원합니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1962년 4월 15일

차 례

국 내 편

문 헌

서 술

정 치

경 제

물질 문화 생활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재일 조선 공민

자 료 편

국 제 편

아 세 아 주

구 라 파 주

아 프 리 카 주

미 주

대양주 및 량극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

국제 자료

지 도

국내편

문 헌

김 일성 수상의 신년사

친애하는 동지들!

오늘 우리 인민은 거대한 승리의 해인 1961년을 보내고 더욱 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새 해—1962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 해를 맞이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들과 전체 조선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1961년은 우리 인민의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뜻 깊은 해였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의 커다란 감격과 흥분 속에서, 전 세계의 우리의 친근한 벗들의 일치한 지지와 성원 속에서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를 진행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 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달성한 위대한 승리를 내외에 뚜렷이 시위하였습니다. 대회는 우리 나라를 현대적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휘황한 승리의 앞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높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 대회를 빛나는 로력적 위훈으로 맞이하였으며 대회가 제시한 위대한 전망에 고무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첫 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물질적 및 정신적 준비를 더욱 튼튼히 하였습니다.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토대가 일층 강화되고 경공업 기지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공업 생산은 초보적인 집계에 의하면 중공업 부문에서만 1960년에 비하여 대략 116%로 장성하였습니다.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적인 대 비날론 공장과 염화비닐 공장 건설을 완공하고 청진 및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공업의 튼튼한 원료 기지를 축성하였으며 화학 공업의 전면적인 발전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작년에 벌써 근 100만 톤의 선철과 립철, 1천 100만 톤 이상의 석탄을 생산하였으며 불과 반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황해 제철소 제 2호 용광로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전기 기관차, 6메터 호빙 등 인민 경제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대형 기계들과 정밀 기계들을 제작하여 우리 나라 공업의 위력을 더욱 증대시켰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도 거대한 성과가 달성되였습니다. 협동 조합 농민들은 100만 톤의 알곡을 증산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한 결과 작년에 심한 가물과 풍수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83만 톤의 알곡을 생산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농민들은 풍작을 이룬 1960년보다도 100만 톤 이상의 알곡을 증산하는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웠으며 당이 제기한 전투적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농촌 경리가 자연재해에서 벗어나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고 있으며 확고하게 빠른 속도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지난 해에 우리의 과학, 예술, 교육, 보건 부문 일'군들도 많은 일을 하였으며 문화 혁명 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인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고귀한 과학 연구 사업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문학 예술 작품들이 창작되였고 민족 문화가 더욱 찬란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은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꾸려졌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은 일층 흥겹고 유족하게 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날로 번영하는 자기 조국을 무한히 자랑하며 로동당이 령도하는 우리 시대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은 우리 당 주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단결하였으며 화목하고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다같이 밀며 이끌면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행복한 생활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가 달성한 모든 빛나는 승리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실증하는 것이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나는 1961년을 보내면서 당의 령도 밑에 고상한 애국적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과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거대한 공훈을 세운 우리의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들과 전체

인민에게 충심으로부터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동지들! 우리는 계속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서 새 해를 맞이하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의 참혹한 처지를 잠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날로 격화되여 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억제하고 미국에 처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흉악한 군사 파쑈적 통치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남조선을 더욱더 암흑의 땅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이것은 멸망하여 가는 원수들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남조선 정세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미제와 그 주구들은 더욱더 궁지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의 군사 통치배들은 미제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면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까지 끌어 들여 남조선을 더욱 심한 파산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쑤들의 어떠한 흉책도 결코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은 패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우리 조국이 통일되고 남조선 인민들도 우리와 같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기아와 빈궁과 전대미문의 가혹한 탄압속에서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하여 굴함 없이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동포들에게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며 새 해에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큰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일본에서 민족적 권리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60만 재일 조선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공민들에게 새 해의 축하와 인사를 보내며 조국의 품안에 돌아온 귀국 동포들의 새 살림에서 더욱 큰 행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해에 국제 무대에서는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이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쏘련을 비롯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더욱 장성 강화되였습니다. 오늘 사회주의는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은 도처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괴수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자들은 계속 식민지 략탈 정책과 전쟁 방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평화와 사회주의를 반대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국제 반동 세력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이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새 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1962년은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이며 특히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는 첫 3년 간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 해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모든 힘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할 중심 과업은 알곡 500만 톤, 직물 2억 5천만 메터, 수산물 80만 톤, 주택 건설 20만 세대, 강철 120만 톤, 석탄 1천 500만 톤의 6 개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6개 고지의 점령은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훨씬 더 향상시키며 나라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커다란 전진으로 될 것이며 7개년 계획의 전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될 것입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2차 확대 전원 회의는 금년도 6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기본 방도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전체 인민을 새로운 로력 투쟁에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민 경제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을 계속 급속히 발전시켜야 하며 이미 창설된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그 기술 장비를 더욱 보강 정비함으로써 농업과 경공업 및 건설에 더욱 강력한 지원을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뜨락또르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들과 관개용 설비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며 선박을 비롯하여 수산업의 기술 토대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계 설비들을 다량 생산하여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 설비, 탄광 및 광산 설비, 전기 기계, 건설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이며 각종 기계 설비들과 함께 부속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은 비날론, 스프, 인견사, 염화 비닐 등 섬유 원료를 비롯한 각종 경공업 원료들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며 금년 영농기에 70만 톤의 화학 비료와 살초제, 살충제 등 각종 농약들을 다량 생산 공급하여 농촌 경리의 화학화를 촉진시키는 데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사가 잘 되여야 인민들의 생활도 더욱 풍족하게 될 수 있으며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가 잘 펴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도 농업에 커다란 힘을 돌리며 특히 알곡 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기계화를 계속 강력히 추진시키

며 관개 면적을 확장하고 토지 개간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선진적 집약 농법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500만 톤의 알곡 생산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해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앞에 제기된 과업은 어렵고도 방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민이 더욱 유족하고 더욱 잘 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조국의 무궁한 륭성 발전의 길을 개척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입니다. 우리는 계속 앙양된 혁명적 기세를 견지하고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면서 더 큰 승리를 쟁취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장, 기업소에서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며 생산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기계 설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며 기술적 준비와 예비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켜야 하겠습니다. 한 개의 고지를 점령하고 달성된 성과를 공고화한 후에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는 식으로 생산을 체계적으로 급속히 장성시켜야 하겠습니다.

예비의 커다란 원천은 생산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기업소들에서 기술 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자재 공급 사업과 후방 공급 사업을 정상화하며 각자의 책임 한계와 분공을 더욱 명확하게 하도록 기업 관리 운영 체계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도 일'군들은 생산 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를 줄 것이며 우로부터 책임적으로 사업을 지도하며 사업 조건을 보장하여 주는 지도 체계와 작풍을 철저히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 군적으로 조직되는 농업 협동 조합 경영 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농업 협동 조합들에 대한 우로부터의 지도 사업을 일층 강화하는 동시에 협동 조합들의 기술 력량을 강화하며 관리 위원회들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근로자들 속에서 기술 학습과 기술 보급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킬 것이며, 새 기계를 발명하며 새로운 생산 방법을 창안해 내는 창의 고안 합리화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나라의 자연 부원들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나라에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대용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며 자체의 원료 원천에 기초하여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며 기술 혁명을 촉진시킬 방도를 적극 탐구해 내여야 하겠습니다.

근로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력히 전개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킬 것이며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고도로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당 정책 수행에 이악하게 달라 붙어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며 자력 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전진 도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난관들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사회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전진하며 계속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으로 충만되여 있으며 그들의 혁명적 기세는 충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체 근로자들이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하여 무비의 애국적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앞에 가로 놓인 6 개 고지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할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1962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로 되게 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두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김 일성 수상 《미추 국가 기구 외상 회의》와 관련하여 큐바 신문 《레볼루시온》 편집국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

《레볼루시온》 편집국 앞

나는 큐바 인민을 반대하여 미제가 조작한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와 관련한 당신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미제와 그의 앞잡이 파티스타 독재를 반대하는 혁명 투쟁에서 력사적 승리를 쟁취한 영웅적 큐바 인민은 오늘 피델 카스트로를 수반으로 하는 자기 정부 주위에 더욱더 굳게 단결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며 나라의 륭성 발전을 위하여 들끓는 혁명적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온갖 난관을 용감히 극복하면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작년 4월 미제의 무장 간섭을

승리적으로 물리친 규바 인민은 더욱더 강해졌으며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 특히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들은 규바 인민의 투쟁에서 모범을 찾고 있으며 반미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규바를 반대하는 무력 침공에서 이미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규바 깜빠니야를 발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규바 인민이 선택한 새 생활의 길이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허위 날조하면서 규바 혁명을 말살하기 위하여 온갖 악랄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기의 침략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범죄적 행동에 미주 국가들을 강제적으로 인입하기 위하여 간악한 책동을 다하고 있다.

1월 22일부터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개최된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는 미제의 바로 이러한 흉책을 다시 한 번 폭로하여 주고 있다.

이 회의는 규바에 대한 더욱 더 대규모적인 무장 간섭에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범죄적 목적 밑에 미제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조작된 추악한 산물이다.

미제는 이 회의에서 규바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말살하기 위한 무력 간섭을 정당화하며 침략적인 《집단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로 하여금 규바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하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위한 전례를 만들려고 날뛰고 있다.

지금 미제는 자기의 음흉한 음모를 위하여 규바에 대한 무장 간섭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경제적으로 이 나라들을 매수하려는 술책에 매달리고 있다.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는 미제의 사촉 하에 규바의 자주권과 민족적 독립을 반대하여 감행되는 극악한 침략 책동이며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 된다.

영웅적 규바 인민의 편에 항상 튼튼히 서 있는 전체 조선 인민은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미제의 이와 같은 흉책을 견결히 항의 규탄하고 있으며 영웅적 규바 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명하고 있다.

규바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바로 그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통치는 밑 뿌리채 뒤흔들리고 있으며 조선 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 통일 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조선과 규바는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량국 인민들은 굳게 단결되여 있다. 조선 인민은 규바 인민과 같은 영웅적 인민을 자기의 벗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량국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미제는 불가피적 멸망의 운명을 그 어떠한 발악적 모험이나 추악한 량면 술책으로써도 결코 구출할 수 없으며 인민들의 거세찬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패망하고 말 것이다.

나는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영웅적 규바 인민이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1962년 1월 26일 평양

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결론
1962년 8월 8일

동무들은 약 1 주일 간에 걸쳐 창성과 삭주군의 지방 산업 공장들, 목장과 농업 협동 조합들, 교육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으며 군 소재지와 농촌 및 로동자구 주민들의 생활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에서는 창성군 당 위원장의 보고와 삭주군 당 위원장, 창성 직물 공장 지배인, 창성군 금야리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동무들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현지 견학과 또 이번 련석 회의를 통하여 동무들은 많은 것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창성, 삭주, 벽동군의 모든 사업이 다 잘 되고 결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견학 과정에서 동무들은 창성, 삭주, 벽동과 같은 궁벽한 산촌에서도 농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는 생동한 사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는 경지 면적이 매우 적고 그것도 대단히 척박한 땅입니다. 우리 나라의 다른 산지대 군들, 례를 들면 함북도, 자강도, 량강도의 군들이나 황북도의 신계.곡산 같은 군들도 경지 면적으로 보나 땅의 비옥도로 보아 창성보다 좋으면 좋았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성과 벽동에서 일어난 커다란 변화는 척박한 지대의 인민들도 당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면 평남도 문덕이나 함남도 함주, 황남도의 재령, 신천 등 벌방 지대 사람들보다 결코 못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확고한 결론을 짓게 합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다른 산지대의 군들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 났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빈농민을 퇴치하는 것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한 중농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리겠는가가 문제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되면 부유한 중농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항상 말하는 바와 같이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좋은 의복을 입고 살면 부유한 중농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성군에서는 금년에 호당 알곡 3 톤, 현금 1 ,500원씩 분배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부유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됩니다.

창성이나 벽동 사람들이 산'비탈의 척박한 땅을 다루면서도 다 부유 중농의 수준에 올라 설 수 있으니 다른 데서는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번 련석 회의의 주되는 목적은 이미 달성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땅이 척박한 산지대의 농민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부유 중농의 수준에 끌어 올리며 또한 군 소재지와 로동자구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한 당의 방침을 모든 지방에서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과업의 성과적 해결 여부는 군당 위원회를 비롯하여 군 인민 위원회, 군 농업 협동 조합 경영 위원회 일'군들이 사업을 잘 해서 군내에 있는 협동 조합들과 지방 산업 공장들을 잘 꾸려 나가는가 못 나가는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군당 위원장 동무들은 창성, 삭주, 벽동의 모범을 따라 벌방 지대 사람들은 물론, 산지대에 있는 농민들도 2～3년 내에 다 부유 중농의 수준에 올라 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어제 제일 뒤떨어진 곳인 량템군에서도 금년에는 농민들의 생활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한 량템군 당 위원장의 토론을 들어 보아도 사업을 옳게 조직하고 투쟁만 잘 하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 중농의 수준에 끌어 올리고 군내 로동자, 사무원 가족들이 다 일하게 하여 그들의 세대 당 월 평균 수입을 75～80원 이상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군내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것이며 생산에서 더 큰 혁신을 가져 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 군의 역할에 대하여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과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나 전반적으로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회의에 군 간부들을 많이 참가시킨 리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행정적 조직 체계에는 중앙, 도, 군, 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군은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를 지도하며 농민들과 로동자구 주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 있는 행정적인 말단 지도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과 로동자구의 발전은 군 기관들의 사업에 많이 의존됩니다. 그리고 군이 사업을 잘 하는가 못 하는가에 따라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는가 못 되는가가 크게 좌우됩니다.

군은 리와 로동자구를 지도하는 행정적인 말단 조직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입니다. 모든 농민들이 누구나 다 큰 도시에 가 보지는 못 하지만 군 소재지까지는 다 옵니다. 농민들은 군을 거쳐서 당 정책을 받아 들이며 군을 거쳐서 도시와의 경제적 련계를 실현하고 도시의 문화와 생활 풍습을 배웁니다.

중앙의 정책도, 그에 근거하여 세워지는 도의 방침들도 다 군을 통하여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에 내려 갑니다. 군은 그야 말로 당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는 말단 단위이며 당의 정책을 농촌에 침투시키는 정치적 거점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군은 지방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점이며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 됩니다.

지방 공업도 군을 단위로 하여 발전하며 농촌 경리의 발전도 군이 직접 조직하고 지도합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은 군을 거쳐서 도시에 나가며 도시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업 제품은 군을 거쳐서 농촌에 공급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술 문명은 군을 통하여 농촌에 도입되며 그리 하여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의 실현을 촉진시킵

니다.

사회주의 건설이 더욱 진척되고 도시의 인구가 증대된다 하여도 군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촌과 로동자구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은 될 것입니다. 농촌부락들은 분산되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모든 농촌 리에 공급 기지를 설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주의 하에서도 군이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 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군은 또한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의 기지입니다. 군은 농촌에서 봉건적 잔재와 락후한 생활 풍습을 제거하고 농민들의 사상 의식과 생활 풍습을 개변하며 농촌에 선진적인 사회주의 문화를 들여보내는 거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러하지만 특히 아세아 나라들에서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민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아세아의 락후한 농업 국가들에서 농민 문제 해결은 혁명 승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지금까지 농촌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 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 협동화가 이미 수년 전에 성과 있게 완수되였으며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등 농촌의 기술 혁명 과업도 아주 급속히 진척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농촌에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여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균형적으로 향상시켜야 하며 또한 평지대 농민들이나 산간 지대 농민들이나 다 같이 잘 살게 만들어야 합니다.

군이 제대로 일하지 못 한다면 농촌에서의 이 모든 문제의 성과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군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 사업을 강화하고 군 소재지를 잘 꾸리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을 잘 꾸리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때까지 계속 주력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군이 자기 사업을 잘 해야 군내의 정치, 경제, 문화가 급속히 발전하게 되며 군 소재지를 잘 꾸려야 농촌이 이를 따라 가게 됩니다. 군에서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고 농촌 경리를 옳게 지도해야 하며 상점, 학교, 병원 등을 훌륭히 꾸려 놓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행정적 말단 지도 단위이며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창성군에서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가 급속히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이 향상된 것도 군이 사업을 잘 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성에서는 산열매, 야생 섬유 원료 등을 채취하여 많은 식료품과 일용품을 만들게 되고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또한 산을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지방의 자연 지리적 조건에 맞게 농산과 부업 생산을 발전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생활을 급격히 향상시켰습니다.

군이 일을 잘 하였기 때문에 창성 사람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도 넉넉하고 공부도 마음 대로 할 수 있으며 라지오도 듣고 영화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술 써클도 잘 하며 집도 깨끗이 꾸리고 아이들도 잘 거두며 인사성도 밝습니다.

창성은 비록 산간 벽지이지만 오늘 창성 사람들의 생활은 평양이나 신의주와 같은 도시 사람들의 생활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 부르조아 사회에서는 농촌 사람들을 《촌바우》라고 하면서 업수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성군 간암리에 있는 약수 중학교의 실례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있는 리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 곳을 간암리라고 불러 왔습니다. 정말 간암리는 산과 돌, 물 밖에 없던 무서운 벽촌으로서 이곳 사람들이야 말로 지난날에는 《촌바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간암리에 《촌바우》 냄새 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약수 중학교 학생들은 모두가 다 우등, 최우등생이며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줄 알며 체육도 잘 합니다. 그들은 모두 염화 비닐 가방을 메고 비 올 때에는 비옷을 쓰고 겨울이면 외투를 입고 다닙니다.

사실 오늘 창성 땅의 면모와 창성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군당과 군 인민 위원회, 군 농업 협동 조합 경영 위원회와 군 교육 문화 기관 일'군들이 일을 잘 한다고 하면 군의 지방 공업이 발전하고 농업 생산이 장성하여 군내 인민들이 다 잘 살게 되며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촉진시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더 빨리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최근 년간에 우리의 군 사업은 전반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군들의 사업에는 지방 공업을 조직하고 상업망을 운영하는 데서나, 도시 상품을 농촌에 팔고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매하는 데서나 또한 교육, 문화, 보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결함이 남아 있습니다.

상품 류통 사업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부 군들에서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수매 사업을 기동성 있게 잘 조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시 상품을 농촌에 원만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상품이 체화되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필요한 상품의 부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군에서는 주민들에게 기름을 충족하게 공급하고 맛 있는 간장, 된장과 두부 그리고 우유 제품과 청량 음료 같은 것도 생산 공급하고 있는데 일부 군들에서는 산열매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서 가공하려 하지 않고 다 승냥이나 곰의 밥으로 내버려 두고 있으며 인민들에게 청량 음료 하나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토끼를 많이 길러 고기를 생산하여도 가공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군이 지방 공업과 수매 사업을 잘 조직하지 못한 탓입니다.

이러한 군들에서는 창성이나 삭주군의 경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창성이나 삭주군에서는 자체로 옥수수 가공 공장을 건설해 놓음으로써 농민들의 옥수수를 가공하여 주고 거기에서 배아를 회수하여 기름을 짜서 로동자, 농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통강냉이 대신에 가공한 강냉쌀을 먹게 된 것만 하여도 좋은데 게다가 또 배아 값까지 더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당의 방침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고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 농작물의 배치, 기계화, 수리화, 전기화 등 모든 사업을 군의 실정에 맞게 하여 지방에 있는 유리한 조건들과 예비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 예비는 아직 얼마든지 있습니다. 군이 일을 잘 하면 로동자, 농민들이 기름도 충족하게 공급 받을 수 있고 장도 맛 있는 것을 먹을 수 있으며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청량 음료도 마실 수 있습니다.

일부 농촌들에서 위생 문화 사업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군에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군당 위원장의 책임이 큽니다. 군당 위원장이 일을 잘 하면 농민들과 로동자구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군내 주민들이 잘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군당 위원장의 열성에 달려 있습니다. 성격이 좀 느린 사람도 있고 성격이 매우 급한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성격은 큰 문제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사상입니다. 아직도 우리 일'군들에게 로동자들을 잘 살게 하고 농민들을 잘 살게 하자는 사상이 부족합니다.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창성군 당에서는 군당 위원장이 솔선 앞장에 서서 군중을 이끌고 나가니 일이 대단히 잘 됩니다. 군중들도 당 정책을 집행하는 데서 재미를 붙였으며 자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과업을 주든지 전체 군중이 다 달라붙어서 반드시 그것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딸기를 1,000 톤씩이나 따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무들이 다른 군에 가서 시켜 보십시오! 아마 입을 벌리고 해 볼 생각조차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성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다 해 낼 수 있는 유력한 부대로 되였습니다. 누구부터 해야 하는가? 군당 위원장부터 하고 리당 위원장부터 솔선 앞장 서서 해야 합니다.

어느 군에 가 보아도 농경지의 류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방 같은 것을 잘 쌓은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성에서는 군당 위원장이 솔선하여 나서서 당의 지시를 집행하였습니다. 군당 위원장이 아침 일찌기 일어나 먼저 지게를 지고 나서니 일이 안될 터이 없습니다. 모두다 달라붙어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집도 짓고 축사도 짓고 딸기도 따오고 지방 공업 공장도 건설했습니다.

식료품 공장의 터를 닦아 놓은 다음에 내가 가 보니 장마지면 물이 들어갈 것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 인차 군당 위원장이 사람들을 모아 제방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후 며칠 지나서 홍수가 났지만 공장은 침수되지 않았습니다.

군을 꾸리는 데 별다른 묘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 정책을 제때에 받아 물고 군당 위원장이 이신작칙하여 솔선 군중의 앞장에 서서 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군당 위원장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아침 8시까지 늦잠 자다가 나가게 되면 절대로 군중을 발동시킬 수 없으며 군을 잘 꾸려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련석 회의를 계기로 군 사업에서의 부족점들을 퇴치하고 군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여야 하며 지방 공업, 농촌 경리, 상품 류통, 교육, 문화, 보건 등 모든 부면에 걸쳐 군 사업을 한 계단 더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 토대도 강화되고 생산되는 물건도 많아지고 인민들의 생활이 급격히 향상된 조건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생활 수준은 지난날 죽을 먹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많은 동무들이 토론한 바와 같이

옛날에는 못 살다 보니 부자 간에 한 벌 밖에 없는 바지를 번갈아 입으면서 살던 사람들도 지금은 자기 아들딸들에게 비옷이나 외투까지 사 입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기한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은 기와집에서 살며 배불리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식료품과 일용품, 많은 문화 용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누가 해결하여 주어야 하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군당, 군 인민 위원회, 군 농업 협동 조합 경영 위원회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군중 속에 해설 침투시키고 그 집행을 직접 조직하는 것이 바로 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군당 위원장의 머리에 녹이 쓸고 군 사업이 침체된다면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이 향상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들의 사업에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군은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 다른 군은 더디게 나가는 것이 결함입니다. 빠르고 더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군들이 다 창성이나 삭주와 같이 빨리 전진하여야 하겠습니다.

2. 지방 공업을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하여

지방 공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이미 1958년 당 중앙 위원회 6월 전원 회의에서 많이 토의되였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군이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지방 공업을 가져야 합니다.

군이 지방 공업을 가지고 있으면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제 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농민들과 로동자구 주민들에게 식료품과 일용품들을 많이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생산하는 생산물, 그 중에서도 채소, 육류, 과실, 우유 등을 제 때에 수매하지 않는다면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저하시키며 수매한다 하여도 그것을 제 때에 가공하지 못 한다면 귀중한 농산물이 못 쓰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은 지방 공업을 발전시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과 부업 생산물을 제 때에 수매하여 가공함으로써 소비품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더욱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중앙이 관리하는 큰 공장만 건설한다면 그것은 원료 수송에서나 제품 공급에서 적지 않은 곤난을 조성할 것입니다.

식료 공장, 직물 공장, 제지 공장 등을 도시에만 건설하고 전국 각지에서 원료들을 가져다 기름을 짜고 천을 만들어 다시 소비지에 공급하자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가령 평양에서 장을 만들어 산간 벽지에까지 가져다 주려면 콩을 운반해다가 장을 만들고 그것을 다시 실어다 주자니 결국 2중으로 수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서 나는 원료를 가지고 직접 현지에서 각종 제품을 만들어 그 곳 인민들에게 공급하면 이런 수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료 산지에 접근하고 소비지와 직접 련결되여 있는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주 합리적이며 정확한 방침입니다.

또한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지방에 잠재하고 있는 많은 원료, 자재 기타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충분히 리용할 수 없습니다. 지방 공업은 야생 섬유, 마섬유, 산과실 등 지방에 풍부한 원료들을 리용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줍니다.

그 뿐만 아니라 중소 규모의 지방 공장들은 돈을 적게 들이고도 짧은 기간에 많이 건설할 수 있으며 생산을 빨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공장을 건설하자면 국가 투자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야 합니다. 물론 제철 공업이나 화학 공업과 같은 큰 설비와 높은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자금이 요구되는 것은 중앙에서 운영해야 하지만 간단한 설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 공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키는 것은 합법칙적인 것입니다.

지방 공업은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아주 유리합니다.

우리 나라는 오랜 기간 농업국이였기 때문에 농촌에 많은 인구가 살았습니다. 오늘 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농촌 인구의 비중이 줄어 들고 있으나 우리는 도시에 인구를 너무 집중시키지 않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좋지 못합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전하지 못 하였던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폐단이 나타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장을 도시에만 집중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게 도처에 건설하여야 합니다. 강산이 아름다운 우리 나라의 모든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고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로력 문제를 볼 때에도 우리 나라의 농촌, 읍이나 로동자구에는 아직도 로력의 여유가 많습

니다. 이 여유 로력을 잘 리용한다면 지방 산업 공장들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로동자들을 위한 주택이나 합숙을 따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에 공장을 집중시키고 농촌 로력을 뽑아 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매개 시, 군에 식료, 직물, 제지 등 각종 공장들을 건설함으로써 우리는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 지방의 원료와 로력으로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발전소나 제철소, 철도, 항만 건설에 국가 투자를 더 많이 하여 중공업을 더 빨리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승냥이 같은 적들이 우리를 침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력의 강화는 다만 무력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전시 태세 하에서의 인민들의 경제 생활을 고려하여 생산력을 적당하게 배치하는 것도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도시에만 공장을 집중시켰다가는 일단 유사시에 그것들을 소개하기도 힘들고 적의 공습이나 당하면 한꺼번에 다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도처에다 지방 공장들을 건설하여 놓으면 전시에 도시의 중앙 공업이 파괴되여도 능히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 군마다 간장 공장, 된장 공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장 예비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지방 공장들에서만 장차 1억 5,000만 내지 2억 메터의 직물을 짠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능히 입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 상 큰 힘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 위원회가 1958년 6월 전원 회의를 계기로 하여 지방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게 한 것은 모든 면으로 보아 아주 현명한 방침이였습니다.

이 방침에 근거하여 우리는 짧은 기간에 매개 군에 평균 10 개에 달하는 지방 공장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소비품 생산에서 지방 공업의 생산액은 절반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 공업이 이미 확고한 토대 우에 올라 섰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경공업이 그 만큼 더 장성하였으며 원료 산지와 소비지에 접근되여 있으며 농산물을 비롯한 원료를 더 빨리 가공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에 맞게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군마다에 식료 공장과 직물 공장을 하나씩 다 꾸려 놓았습니다. 농기구 공장과 제지 공장도 거의 매개 군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일부 군들에서는 가구 공장과 로기 공장 및 일용품 공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건물도 괜찮게 꾸려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공업에 대한 우리의 요구도 종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당시에 지방 공업 앞에 나선 과업은 군마다 공장을 건설하고 지방의 유휴 로력을 인입하여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지방 공업의 기초를 닦는 것이였지만 지금은 이미 축성해 놓은 토대에 의거하여 지방 공업을 한 계단 더 발전시켜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여 지방 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울 것인가?

우선 기술 혁명을 촉진시켜 생산 공정을 다 기계화하고 점차 자동화해야 합니다.

지방 공업의 발전에 따라 원료 기지도 더 조성하고 많은 일을 하여야 하겠는데 어떤 군에서는 로력이 부족해서 할 일을 미처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업의 생산 능력이 미약하였던 이전에는 족답기로라도 천을 짜야 했지만 오늘의 사정은 벌써 달라졌습니다.

기술 혁명을 해서 아직까지 수공업적으로 하고 있는 공정을 다 기계화해야 합니다. 지방 공업에서 아직 전반적 공정을 자동화할 수는 없다쳐도 모든 공정을 기계화하는 데로 넘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헐하게 되고 생산 능률도 높아지며 또 많은 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로력으로 지방 공업을 더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도 반드시 기계화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오늘 인민들의 요구 수준은 그 전과는 비할바 없이 높아졌습니다. 정전 직후 물건이 없을 때에는 질이 좀 낮아도 좋다고 사갔으나 지금은 종이 한 장을 사도 더 좋은 것을 요구하며 천도 좋고 고운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량도 더 많이 요구하고 품종도 더 다양한 것을 요구합니다. 장도 이전에는 한가지면 되였지만 지금은 고추장, 깨고추장 등 여러가지 맛이 있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아직 곤난할 때에는 기름이 적어도 참았지만 지금은 기름도 더 먹어야 하고 고기와 우유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요구가 높아졌으니 그 만큼 지방 공업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품을 량적으로 더 많이 만들고 질적으로 더 잘 만들자면 지금 보다도 훨씬 더 많은 품을 들여야 할 것은 뻔한 사실이며 그러자면 아무래도 기계화를 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

다.

인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면 될수록 제품의 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더욱 높아 진다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법칙입니다. 유물론자들인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합법칙적인 변화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우리 당의 사업 방법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장성하는 인민들의 요구에 수응하기 위하여 지금 있는 공장들을 정비 강화하고 부족한 것들을 새로 더 건설해야 하며 기술 혁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생산을 증대시키고 제품의 질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고 하여 농촌 로력을 다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농촌의 기계화를 완성하지 못한 조건 하에서 농촌 로력을 딴 데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설 또는 확장하는 공장의 규모는 군내의 여유 로력과 기존 공장을 기계화하여 나오는 로력의 형편에 알맞게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군들에는 아직도 여유 로력이 많습니다. 어제 수동군 당 위원장이 토론한 바와 같이 탄광 마을이나 광산 기타 큰 기업소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직 부양 가족들을 공장에 다 인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공장을 기계화하는 데서도 많은 로력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도 지방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로력 원천은 많습니다. 군에서는 자체의 로력 원천을 적극 탐구해 내도록 하며 로력을 잘 타산한 기초 우에서 군의 공업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공업의 관리 운영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기간 지방 산업 공장 관리 일'군들은 공장 운영에 대한 일정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전에는 군당이나 군 인민 위원회 일'군들이 독립 채산제가 무엇인지도 똑똑히 몰랐으며 원가 계산도 잘 할 줄 몰랐으나 이제는 채산을 맞추는 것도 알고 부기 검열도 할 줄 알게 되였으며 기술 공정도 알게 되였습니다. 관리 일'군들의 기술 수준도 대단히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기에는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일'군들의 공장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며 종업원들의 기술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지방 공장 일'군들은 모두 다 창성군에서와 같이 통신 대학 또는 통신 고등 기술 학교에 망라되여 2~3년 내에 다 대학이나 고등 기술 학교를 졸업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산업 공장 지배인, 당 위원장, 기사장들이 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나라에는 공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동무들은 나이도 많고 머리도 세였으니 이제 무슨 공부를 하겠는가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모두다 계속 배우고 또 배워서 자체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하겠습니다.

지방 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는 생산 문화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천을 짜도 깨끗이 짜고 짠 다음에는 그것을 해'별에도 쪼이고 풀을 먹이고 다리기도 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공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거두는 것도 아직은 다 정결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옛날에 못 살던 생각만 하고 그전에 비하여 훨씬 향상된 오늘의 수준을 가지고 이만하면 되였다고 만족하는 큰 병'집이 있습니다.

작년에 창성 목장 한 로동자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는 수입이 상당히 높았으나 집을 잘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집을 잘 꾸리고 살지 못 하는가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수상님! 이만하면 이전보다 대단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지만 오늘은 먹는 걱정, 입는 걱정이 없게 되였는데 하필 그전에 비할 까닭이 어데 있겠는가?

최근에 알아 보니 지금은 그 로동자도 집을 잘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전과 대비하면서 오늘의 생활 수준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군당 위원장들 가운데도 군에 그전에 없던 공장을 꾸려 놓았으니 그만하면 된 것처럼 생각하는 동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는 더 전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부 지방 산업 공장은 생산 문화가 아직 낮은 형편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시급히 시정하고 모든 지방 공업 공장들의 생산 문화를 한 계단 높은 수준에 끌어 올려야 하겠습니다.

우선 식료 공장부터 깨끗이 꾸려야 하겠습니다.

공장 전체를 깨끗이 꾸리고 로동자들의 개체 위생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동자들이 일을 헐하게, 문화 위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지방 공업의 튼튼한 원료 기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부 지방 공장들은 공고한 원료 기지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원료 기지가 튼튼하지 못 하고는 생산을 정상화할 수도 없으며 확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 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기계화를 촉진시키며 지도 일'군들과 로동

자, 사무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며 생산 문화를 철저히 확립하며 튼튼한 원료 기지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지방 공업의 각 부문별 과업에 대하여 몇 가지 말하려 합니다.

우선 식료 공업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군 식료 공장은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공장도 그러하지만 특히 식료 공장은 군내의 원료, 로력,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규모를 설정해야 합니다.

장 공장 같은 것은 각 군에 다 있는 것 만큼 자기 군내의 수요 이상으로 생산 규모를 크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장 탕크의 크기도 적당하게 하여 70일 정도의 보관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맞춤할 것입니다.

장은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맛 있게 담가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에게는 커피나 빠다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조선 사람들에게는 간장과 된장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 오는 조선 사람의 식생활에서 장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장 맛이 좋으면 그것을 친 반찬 맛도 다 좋아지고 장 맛이 없으면 반찬 맛이 다 떨어집니다. 간장, 된장을 맛 있게 만들고 육고추장, 깨고추장 같은 것도 많이 담그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내의 로동자, 사무원들과 군 소재지 주변의 농촌에 공급할 수 있는 정도로 두부를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두부는 조선 사람이 좋아하는 부식물입니다.

평양에서 처럼 굉장한 시설을 갖출 필요 없이 간단한 모터르 매'돌을 돌리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삭주 식료 공장에서는 간단한 설비로 두부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동자구나 면 곳을 위하여서는 간단한 분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료 공장에서는 우유도 가공하고 토끼 고기, 게사니 고기 등 육류도 가공할 수 있는 직장을 내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축산이 더욱 발전하고 육류 생산이 증대될 것을 예견하여 육류를 가공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육류 가공 공장이라고 해서 룡성 육류 가공 공장과 같은 큰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설비를 갖추고 가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이 잘 먹는 장졸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유 가공도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짠 우유를 제 때에 수매하고 가공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때에 가공만 해 준다면 농민들은 우유를 더 많이 짤 것이며 근로자들에게 우유 제품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채소도 가공해야 합니다. 무우, 오이, 마늘, 파, 풋고추'잎 등을 졸임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름 공장은 매개 군에 좀 크게 차려 놓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콩기름, 깨기름, 역삼 기름, 옥수수 배아 기름을 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강유도 될수록 많이 짜서 이것으로 세탁 비누를 만들고 콩기름은 식료에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명년에 적어도 1만 톤의 배아 기름을 짜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창성군 같이 작은 군에서도 1년에 30 톤을 짜고 있는 만큼 1만 톤이라는 목표는 잘 하면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군에서의 옥수수 생산량에 따라 기름 생산 과제를 30, 40, 50, 60 톤씩 규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 하여 인구 1인당 10 그람씩, 로동자들에게는 1인 당 20 그람씩의 식용유를 꼭 보장하여야 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기름이 체화되여 팔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더많이 생산할 데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름이 체화되여 곤난할 정도로 되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또한 청량 음료 공장을 건설하여 근로자들이 아무 곳에서나 청량 음료를 다 사 마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떤 군에서는 과실을 가지고 도수가 높은 술만 만드는데 그러지 말고 시롭, 과즙 기타 각종 청량 음료를 많이 만들어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술은 알곡을 쓰지 말고 과실로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식료 공장들에서는 종업원들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여 제품 생산을 문화 위생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료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손을 안 대고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병에 술이나 과즙을 넣는 것도 다 손을 대지 않고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설비를 개조하여 높은 문화 위생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식료를 가공하라고 하면 채소볶음이나 고기볶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이것은 식료 가공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위생상으로 보아도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채소볶음, 고기볶음 같은 것은 식당에서 만들어 파는 것이 좋습니다. 식료 공장에서는 오래 동안 저장해 두어도 변질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식료 공장에서 만들어 낸 제품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식료 공장에 특별히 책임성이 강한 종

은 사람들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위생에 대한 교양을 잘 주어야 합니다.

청량 음료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북청 회의 결정 대로 매개 식료 공장에서 50~100 정보씩의 원료 기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 하여 살구, 딸기, 추리, 앵두 등 과실들을 자체로도 많이 생산하여 원료의 부족을 타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실과가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살구, 복숭아, 사과, 배, 앵두, 딸기 같은 것이 다 잘 됩니다. 창성 같은 데서도 산과실만 리용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실과나무들을 많이 심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나는 과실을 많이 가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실과가 잘 되고 또 그것이 많은 나라인데 아직도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과나무들을 적극적으로 재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나무들을 잘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안이나 중산 같은 데도 숱한 사과나무를 심어 놓았지만 김도 잘 안 매 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밤나무 같은 것은 우리 나라 도처에 있지만 그것을 제 대로 관리하는 데는 적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국가의 자원을 그냥 내버리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는 과수를 심어 놓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것을 잘 가꾸도록 하여야 하며 있는 과수들을 잘 관리하여 모든 지방에서 철을 따라 각가지 과실이 풍부하게 나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직 공업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방직 공장은 매개 군에 하나씩 다 있는데 이것을 잘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방직 공장들에서의 기계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매개 공장마다 직기도 더 늘이고 연사기를 갖추어 실을 가늘게 꼬아 좋은 천을 짜도록 해야 합니다.

방사기는 공장마다 갖추기 곤난하니 지방 공업 경영국 단위로 방사 공장을 한 개씩 설치하여 실을 뽑아서 각 직물 공장에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사 공장은 직물 공장과 별개의 공장으로 차릴 것이 아니라 한 지배인의 관리 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반드시 경영국 소재지의 직물 공장에 방사 공장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로동자구 같은 곳에 있는 직물 공장에 방사 공장을 병설하여 여유 로력을 리용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공장에서는 따로 자체의 방사 직장을 가져도 좋고 또 창성이나 삭주, 벽동 같이 작은 군들에서는 몇 개 군을 합쳐서 하나의 방사 공장을 설치하여도 좋습니다.

지방 산업 직물 공장의 규모는 한 개 군에서 년산 40만~50만 메터, 큰 곳에서는 100만~200만 메터까지 생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 하여 7 개년 계획 말에 가서 전체 지방 공업 공장들에서 1년 동안에 적어도 1억 5,000만 내지 2억 메터는 짜도록 해야 합니다.

명년에 우리는 2억 5,000만 메터 직물 고지를 더 공고히 하고 1964년에 가서는 3억 메터의 직물 고지를 점령하려 하는데 그 때에 지방 공업 공장들에서는 1억 메터의 천을 짜야 합니다.

그러자면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지방 공업 공장들에서의 원료는 50~60% 이상을 지방 원료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료 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명년에 대마를 적어도 매 군에서 300~400 정보씩 심어서 전국적으로 5만~6만 정보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마 재배는 경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길가와 밭머리, 집 주변과 기관, 기업소의 마당에도 다 대마, 피마주 등 섬유 작물을 광범히 심어야 합니다. 창성 식료 공장에 가 보았는데 마당이 너무 넓습니다. 자동차나 한 대 드나들 수 있는 길을 내놓고는 다 섬유 작물을 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리 하여 1만 톤의 섬유 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964년에 지방 공업에서 1억 메터의 직물을 짜는 데 소요되는 섬유 원료의 50~60%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나머지 40~50%의 섬유 원료는 국가에서 스프와 인견사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직물 공장들 앞에 중요하게 나서는 과업은 직물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실을 더 가늘게 뽑고 그것을 꼬아 천을 더 좋게 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원료도 랑비하지 않고 또 보기도 좋습니다. 야생 섬유와 고포, 가위'밥 등 재생 섬유 실은 될 수 있는 대로 잘 꼬아서 외투천이나 동복천을 짜고 아마, 대마로는 좋은 여름철 옷감을 짜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받는 섬유를 가지고는 반드시 고급 직물을 짜야 하며 인견사로써 비단, 채동직을 짜는 것도 좋습니다.

직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백도 잘 하고 방사 공장에서 실을 잘 염색하여 내는 등 가공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염색 시설을 군마다 갖추기는 어려울 터이니 경영국 산하에 염색 시설을 두고 실을 염색하여 노나 주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산업 직물 공장에 피복 공장을 병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큰 데서는 피복 공장을 따로 차려도 좋습니다. 어떻든 매개 군에서 한 개 이상의 피복 공장을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 하여 군내 로동자, 농민들에게 내주는 로동복과 학생

들에게 공급하는 교복, 외투를 군 자체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지 공장에 대하여 몇 가지 말하겠습니다.

7 개년 계획 말에 우리는 년 25만 톤의 종이를 생산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지방 공업에서 적어도 10만 톤을 담당해야 합니다. 평양시와 도 소재지를 내놓고 군에 있는 제지 공장들에서만 7만 내지 8만 톤의 종이를 생산해야 합니다.

금년에 지방 제지 공장들의 생산 계획이 3만 5,000 톤인데 이제부터 설비를 잘 정비해서 가까운 년간에 5만~6만 톤쯤 생산할 것을 목표로 투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지 공장의 규모는 그 군의 원료, 로력 조건을 잘 타산해서 그에 알맞게 규정해야 합니다.

원료는 짚이 많은 곳에서는 짚을 리용하고 산간 지대에서는 쇄목 팔프를 많이 써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 나무나 짚이 없는 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짚 300 톤에서 100 톤의 종이가 나오니 짚 1,000 톤만 있으면 300 톤 이상의 종이를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짚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가성소다가 모자라기 때문에 원료의 70~80% 정도는 쇄목 팔프를 리용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짚이 많은 곳에서는 벼'짚 팔프를 만들어 창성군과 같이 나무가 많은 곳에 보내고 그 대신 쇄목 팔프를 받아다 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쇄목기를 만들기는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창성이나 삭주에서 쓰고 있는 쇄목기 같은 것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도처에서 이런 쇄목기를 만들어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군마다 제지 공업을 발전시키면 지방들에서 학생 노트, 도배지, 장판지, 랭상모판 용지, 포장지등을 다 자체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양시, 함흥시, 신의주시 등 일부 도시에서 련과지, 복사지, 담배지 등 특수 용지들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경공업 위원회가 직접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매 군에서 가구 공장을 하나씩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군에 있는 가구 공장들은 농기구 공장에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농기구나 랭상모판 문짝 생산에만 치중하고 밥상이나 의롱과 같은 가구 생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리시켜 군마다 가구 공장을 따로 가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구 공장에서는 옷장, 이불'장도 만들고 로인들이 앉아서 상을 받을 수 있게 조선식 밥상도 만들고 조선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농짝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걸'상, 책상, 침대 같은 것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구들은 먼 곳에서 만들어 운반해 오느라고 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만들어 농촌에 공급하도록 하며 생산량은 군의 소비를 충족시키는 범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림산 마을 같은 데서는 반제품을 많이 만들어 다른 지방에 내보내여 그 곳에서 조립해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에서는 토기 공장을 건설하고 인민 생활에 필요한 크고 작은 각종 독과 항아리, 단지 등을 만들며 단지도 고추장, 된장 넣는 것 등 여러 가지로 만들어 인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토기 만드는데 적당한 흙이 없어서 토기 공장을 가지지 못하는 군에는 다른 군에서 좀 더 많이 생산하여 보내 주도록 경영국에서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에서 옥수수 가공 공장과 정미 공장을 꾸리며 일용품 공장도 세워 간단한 일용품의 수요는 지방 자체에서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가내 작업반과 농민들의 부업 생산을 조직하여 농립모, 돗자리 등 지방 특산물과 각종 초물 제품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군에서는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 1964년 5.1절까지는 지방 산업 공장들을 철저히 정비 강화하고 확대하여 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읍, 로동자구의 가정 부인들을 다 인입함으로써 로동자, 사무원 가족들의 수입을 세대당 70~80 원으로부터 100 원까지 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 산업 공장들을 정비, 확장 또는 신설하는 데 있어서 동무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조건과 가능성을 잘 타산한 기초 우에서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사업을 추진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 해보자》 하고 자금을 비법적으로 류용하여 재정 규률을 위반하거나 정확한 타산도 없이 공사를 벌려 놓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소요되는 자금과 자재를 정확하게 타산하여 예산서를 지방 공업 지구 경영국에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철재, 목재, 세멘트 같은 자재를 국가에서 보장해 줄 것이며 또 중앙 공업 공장들에서도 지방 공업 공장들에 일정한 방조를 줄 것입니다.

지금 도당 위원장 앞으로 약 5,000 톤의 세멘트 폰드가 있는데 그 중 2,000 톤은 도당 위원장이 직접 쥐고 있고 3,000 톤은 각 군당 위원장들에게 노나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철재, 목재 같은 것도 도당 위원회가 각 군에 조금씩 노나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 같은 것은 중앙 공업 공장에 의뢰하여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 공업 공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지방 공업 공장을 방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격대를 처음 조직하였을 때에는 무기는 물론, 화약을 구할 수 없어서 갖은 고생을 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소 오줌에서 초산을 빼 내고 그것으로 화약을 만들어 싸웠습니다. 지금 큰 공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 공장들을 꾸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도당 위원장들이 일을 잘 해야 합니다. 도당 위원장들이 조직 사업을 잘 하고 간부 사업을 잘 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간부 사업을 잘 하라는 것은 지금 군당 위원장들을 다른 사람들로 갈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군당 위원장들을 잘 교양하여 그들을 적극 발동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군당 위원장들이 무식해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도당 위원장들은 군당 위원장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토요일 쯤 군당 위원장들을 데리고 기차를 타고 떠나서 일요일 날 견학하고 돌아오면 다음 날 일에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제지 공장도 보여 주고 기계 공장, 육류 콤비나트, 황해 제철소, 평양 방직 공장 같은 것을 다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군당 위원장들이 지난날 공장에서 일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발전된 큰 공장들을 보아야 머리가 깹니다.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현실에서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무들이 이번 1주일 동안 창성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운 것과 같이 돌아 다니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도당 위원장들이 군당 위원장들을 잘 발동시키고 군당 위원장이 대중을 잘 발동시키면 지방에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것입니다.

3. 농촌 경리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토의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선 중요한 것은 산간 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 문제입니다. 산간 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는 있는 경지 면적을 잘 리용하여 알곡을 증산하도록 하며 산을 리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농민들의 현금 수입을 높일 수 있고 구비를 많이 받아 알곡을 증산할 수 있으며 또 알곡을 많이 생산하여야 사료 원천이 많아져서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지대 농촌에서는 특히 산을 잘 리용하여 면양, 염소, 송아지, 게사니, 토끼 등 초식 동물들을 많이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산지대 농업 협동 조합마다 적어도 200 마리 정도의 양을 기르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황해남도 신천 같은 벌방 지대에도 산을 낀 조합이 많습니다. 이러한 조합에서도 다 양을 길러야 합니다. 조합마다 농가 호수에 따라 300호면 300마리, 500호면 500마리의 양을 기르도록 해야 합니다.

양은 알곡 사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풀만 가지고 얼마든지 기를 수 있는 수익성이 높은 가축입니다. 양은 싸리'잎도, 개암나무'잎도 잘 먹으며 가둑'잎도 먹습니다. 겨울에는 풀을 베여 말렸다가 분쇄하여 먹이면 됩니다. 양 한 마리가 1년에 150원의 수입을 주니 얼마나 좋은가!

량강도 같은 데서도 양을 잘 기를 수 있는데 양치는 문제를 아주 불만족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량강도에 풀이 모자랄 리는 없습니다. 결국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도나 군에서 조직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며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 탓입니다.

양과 함께 송아지도 많이 길러야 합니다. 송아지는 산'골짜기에서 한 해 여름 풀만 먹이면 70킬로 그람씩 체중이 느는데 이것으로 1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사니도 시험해 보았는데 풀만으로 충분히 기를 수 있습니다. 어미 게사니 한 마리에서 알을 받아 팔고 또 새끼를 깨워서 길러 팔면 70~80원씩 벌 수 있습니다. 게사니는 번식률이 양보다 훨씬 높습니다. 매 조합마다 2~3년 내에 호당 한 마리씩 돌아 갈 정도로 게사니를 기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끼도 많이 기르고 농호마다 두 마리의 돼지를 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로력 조직을 잘 하여 퇴비 생산이나 김매기 같은 영농 작업을 미리 앞당기고 기계화 범위를 확장하여 로력을 적극 절약함으로써 그 로력으로 산과실도 따고 약초도 재배하고 누에도 쳐서 현금 수입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 하여 산지대 농민들의 수입을 농호 당 평균 알곡은 3 톤, 현금은 1,000원 이상 돌아 가게 함으로써 1964년까지 가능하면 전체 농민들, 적어도 80%의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 중농의 수준에 올려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면한 영농 사업과 명년도 농촌 경리 발전의 과업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금년에 기후 조건은 아주 불리하였습니다. 랭해와 병충해가 있었고 혹심한 가물에 뒤'이어 긴 장마가 졌으며 여러 차례나 대홍수가 났습니다. 이번에도 태풍과 홍수의 손해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개 수리 사업과 치산 치수 사업을 예견성 있게 하지 않았더라면 금년 같은 해에 큰 흉년이 졌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유력한 관개 체계가 수립되여 있고 전체 농민들과 근로자들이 일치 단결하여 투쟁한 결과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다 극복하고 금년에 우리는 또다시 대풍작

을 이룩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은 500만 톤 고지를 완전히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동무들은 회의가 끝나고 돌아 가면 반드시 곡식이 바람에 넘어 지지 않도록 새끼줄을 쳐 놓고 배수로를 잘 파 놓는 등 풍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 하며 장마에 곡식이 씻겨 나간 땅에는 채소, 메밀을 심고 또한 후작 옥수수를 잘 가꾸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 잘 여문 다음에 제 때에 거둬 들일 대책도 지금부터 세워야 합니다. 탈곡은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곡식이 충분히 마른 다음에 될수록 땅이 언 겨울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례년보다 년말 결산 분배가 약간 늦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12월 말부터 명년 1월 중순까지 끝내면 됩니다.

명년도의 투쟁 과업은 금년도에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는 기초 우에서 이미 점령한 고지를 공고히 하며 앞으로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농촌 경리 분야에서 앞으로 점령해야 할 새 고지는 1964년도에 가서 60만 정보의 논에 모를 내고 15만 정보 이상 밭벼를 심어 300만 톤 이상의 벼를 수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화국 북반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방대한 과업이지만 잘 투쟁하면 능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금년도에 종자를 얻기 위하여 5천 여 정보의 밭벼를 심었는데 정보 당 2.5~3 톤 정도는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만큼 낸다면 밭벼가 옥수수나 밀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년에는 10만 정보의 밭에 밭벼를 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논 면적도 더 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명년에 약 3만 정보의 논을 새로 풀고 1964년 봄까지 다시 3만 정보를 더 풀어서 1964년도에는 논 면적을 60만 정보로 확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300만 톤의 벼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북반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새 고지를 점령하자면 명년에 준비 사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논 관개 면적도 늘이고 밭 관개 시설도 더 확장하여야 합니다. 밭벼는 가물을 잘 타는 것이 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밭벼를 심자면 가물과 투쟁할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뜨락또르마다 양수기를 달고 관수를 할 수 있도록 6,000~7,000대의 양수기를 농촌에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뜨락또르로 양수기를 돌려 2단 양수, 3단 양수도 함으로써 비탈진 밭에도 관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명년에 기계화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3,000대 이상의 뜨락또르와 1,000대 이상의 화물 자동차를 농촌에 더 보내며 화학 비료, 농약, 살초제도 더 많이 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밭벼를 심으려면 살초제를 많이 써야 합니다. 가물지 않게 물을 제 때에 주고 김을 잘 매주면 밭벼가 결정적으로 유리합니다.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자급 비료 생산을 대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풀 원천이 적은 신천이나 재령 같은 벌방 지대에서는 석탄을 때고 그 대신 벼'짚을 잘게 썰어서 퇴비를 많이 만들며 니탄도 적극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1~2년 동안 계속 알곡 500만 톤 고지를 견지하면서 알곡 생산의 질적 구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을 비롯한 각종 유지 작물을 광범히 재배하여 더 많은 기름을 짤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축산업을 발전시켜 고기도 많이 내야 합니다.

과수원에 대한 비배 관리를 잘 하여 과실도 더 많이 따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문화 주택을 금년에 10만 동, 앞으로 매해 10만 동씩 더 지어 우리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30~40만 세대의 새 주택을 지으면 아마 거의 모든 농민들이 기와집을 쓰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 사람들이 오랜 옛날부터 꿈꾸어 오던 념원, 즉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사는 유족한 생활이 현실로 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의 이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참말로 보람차고 영예로운 투쟁입니다. 우리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우리 앞에 제기된 이 영광스러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4. 교육 문화 사업에 대하여

농촌에서 낡은 것과의 투쟁을 강화하며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학교 교육 사업을 잘 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초중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있고 기술 의무 교육제의 실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에서는 벌써 기술 의무 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군에서 학교들을 잘 운영하며 기술 의무 교육제의 실시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앞으로 다 지방 산업 공장들에도 나가고 농업 협동 조합에도 나갑니다. 그러므로 농촌에서의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의 수행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주느냐 못 주느냐 하는데 크게 달

려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학교를 잘 거두고 깨끗이 꾸려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례절이 밝고 외모도 단정하게 하고 다니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들이 졸업하고 나가서 유식하고 문화적인 새 형의 일'군으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잘 훈련된 동무들은 공공 시설과 주택, 구락부 같은 것도 깨끗이 거둘 것이며 모든 살림살이를 문화적으로 꾸리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학교 학생들은 의복도 단정히 입고 다니지 않고 있으며 모자도 되는 대로 쓰고 소년단 넥타이도 아무렇게나 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군당 위원회와 군 인민 위원회가 학교 사업에 대하여 무관심한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과 생산 로동을 옳게 결합시켜야 합니다. 로동을 너무 많이 시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아동들의 학습에도 지장이 있고 발육에도 좋지 못 합니다. 그러나 적당한 로동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생산 로동은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적당히 시켜야 합니다.

학생들이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어떤 나무가 빨리 자라고 어떤 나무는 무엇에 쓰는가를 배우도록 하며 토끼나 양을 기르면서 가축들의 성질은 어떠하고 그것들이 무엇을 잘 먹는가도 알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교에 논과 밭을 조금씩 주어 학생들이 그것을 가꾸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논모는 어떻게 내고 옥수수는 어떻게 심으며 어떤 땅에는 어떤 비료를 주는가 등등 초보적인 영농 지식을 배우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의 발전과 정서 교양에도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하며 누구나 다 간단한 기계들을 다룰 줄 알도록 기술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 하여 모든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유능한 새 사회의 건설자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군에서는 학교도 더 짓도록 하고 학생들의 생활을 더 잘 돌봐주어야 하겠습니다. 매년 10만 동씩 농촌 문화 주택을 짓고 있는데 왜 학교를 못 짓겠는가? 농촌 주택을 몇 세대 못 짓더라도 학교는 반드시 짓도록 하여야 합니다. 250만의 학생들은 다 귀중한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잘 해 주면 줄수록 좋습니다.

명년에는 염화 비닐을 더 많이 생산하여 모든 학생들이 다 비닐로 만든 구두를 신고 비닐로 만든 가방을 들고 다니게 하여야 하며 비닐로 만든 비옷을 입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모든 군에서 학생들에게 외투를 해 입혀야 하며 명년에 가서는 춘추복까지 다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에서는 병원, 구락부들을 문화 위생적으로 정비하고 군 병원에 소아과 병동과 산원도 증설하며 특히 군 소재지들을 더욱 깨끗이 꾸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명년 8.15까지는 모든 군들이 모범 위생군으로 되도록 군을 문화 위생적으로 잘 꾸려야 하겠습니다.

5. 당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먼저 공업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며 공장당 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금년에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들의 중요한 원인은 당 사업에 있습니다.

이미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의 공업은 그 규모에 있어서나 기술의 발전 정도에 있어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지금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규모가 대단히 커진 우리의 공업을 어떤 상이나 관리국장의 개인적 총명에만 의거해 가지고는 절대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업을 잘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집체적 령도가 필요합니다. 도당 위원회가 공업을 직접 틀어 쥐고 지도해야 하며 공장당 위원회를 발동시키고 전체 당원들을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을 아무리 뜯어 고치고 상이나 관리국장 자리에 아무리 총명한 사람을 갖다 앉혀 놓아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혁명적으로 사업을 하자면 당 조직을 발동시키고 당원들과 혁명적인 로동 계급에 의거해야 합니다.

황해 제철소 같은 데는 평양에서 가깝기 때문에 중앙에서 간부들이 많이 나가 봅니다. 이번에도 금속 관리국장은 계속 황해 제철소에 나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해 제철소에서 1959년에 범한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는 데도 누구 하나 이것을 바로 잡지 못 하였습니다.

공장당 위원회를 발동시키지 않고 어느 개인이 아무리 자주 나가서 지도한다 해도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황해 제철소에서 일이 잘 안 된 것도 공장당 위원회가 사업을 잘 못 한 데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만일 공장당 위원회가 당 정책을 잘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성에서 내려 보내는 옳지 못 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며 제 때에 사태를 바로 잡아 놓았을 것입니다.

레닌은 로동 계급의 당을 구락부화하려는 멘쉐위크들의 책동을 철저히 배격하고 당을 강철 같은 규률을 가진 전투적인 조직적 부대로 만들었으며 당 조직들의 지

도 기관으로 하여금 혁명의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모부가 튼튼치 못해 가지고는 적들과의 가렬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년간에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당내에서 반당 종파 분자들이 청산되고 중앙 위원회가 당에 무한히 충직한 핵심들로 구성되였으며 위원회 내의 단결이 강화되였기 때문입니다.

생산도 하나의 전투입니다. 생산을 잘 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공장의 참모부인 공장당 위원회들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의 가장 커다란 우월성은 당 위원회가 공장 내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장악한 기초 우에서 당 정책을 구체화한 정확한 투쟁 방침을 확립함으로써 키잡이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으며 또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 공장 내의 전체 당 조직들과 당원들, 근로 단체들과 로동자 대중을 충분히 발동시킬 수 있는 데 있습니다.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잘 되여야 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들은 당 정책을 견결히 수호할 수 있으며 공장 내의 중요한 부문들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광범한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핵심들로 구성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 내에는 당 일'군, 행정 관리 일'군, 기술자, 핵심 로동자들이 다 들어 가 있어야 합니다.

황해 제철소에서는 공장당 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잘못되여 있습니다. 당 위원회가 당 핵심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직장들에서 평균주의적으로 뽑아낸 직장 대표들로 구성되였습니다. 그래서 공장당 위원회에 전화 교환수, 진료소 소장 같은 동무들이 위원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동무들이 다 열성적인 좋은 동무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장당 위원회의 이와 같은 위원 구성을 비준한 도당 위원회도 잘못입니다.

생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기대를 직접 다루고 있는 로동자들입니다. 황해 제철소 사업이 잘못되고 있을 때에 로동자들은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도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정당한 의견을 빨리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 위원회가 잘 구성되여 있었고 그것이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었더라면 로동자들의 정당한 의견을 제 때에 접수하고 정확한 대책을 세웠을 것이며 로동자들의 혁명성과 기술자들의 과학적 지식을 원만히 결합시켜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서 하라는 대로 그저 맹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정당한 의견을 제 때에 중앙에 반영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황해 제철소의 공장당 위원회는 키잡이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하였고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창발성을 발동시키는 사업도 잘못했습니다.

1959년에 내가 황해 제철소에 나갔을 때에도 처음에는 사업을 너무 널어 놓았다는 것은 알았으나 결함을 구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조직들을 발동시키고 당원들, 로동자들과 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이 명백하게 되였습니다. 로동자들은 일이 잘 안 되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무 동력 직장 일'군들을 다 다른 건설 사업에 돌리고 평로의 수리를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가스가 부족한데 쓸데 없이 로만 많이 돌리기 때문에 강철 생산이 잘 안 된다는 것 등 엄중한 결함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동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황해 제철소에서의 결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할 대책을 세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생산에 대하여 바로 말을 할 수 있는 로동자들을 당 위원회에 망라하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항상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어야 합니다.

황해 제철소에서 가장 중심적인 고리가 평로 직장인데 여기에서 일하는 핵심 로동자들이 당 위원회에 두 명만 참가한 것은 너무 적습니다. 평로에서 일하는 동무들이 5~6명 당 위원회에 참가하였다면 위원회에서 그들이 자기 의견을 많이 내놓았을 것이며 이것이 당 위원회가 키잡이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으로 되였을 것은 틀림 없습니다.

로동 계급의 혁명성에 의거한다고 해서 인테리들과의 사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장당 위원회가 인테리들과 로동자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지도 사업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인테리들은 기술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좀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동자들은 혁명성은 강하지만 지식이 부족합니다. 공장당 위원회에서는 인테리들과 로동자들 속에 깊이 침투하여 인테리들의 과학적 지식과 로동 계급의 혁명성을 옳게 결합시키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참모부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조절 사업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황해 제철소의 당 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업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업 생산에 대한 도당 위원회의 령도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당의 경제 부서들을 잘 꾸려 주었으며 또 이번 대안 지도 사업을 통하여 공장 당 위원회들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당에서 공장당 위원회를 발동시키고 공장당 위원회는 당 정책을 튼튼히 틀어 쥐고 당 핵심들과 로동 계급에 의거하여 당 정책을 관철하도록 조직 사업을 잘 하였더라면 모든 문제가 다 원만히 해결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 조직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은 하지 않고 몇몇 행정 간부들과만 사업을 하다 보니 일이 틀려졌습니다. 대중의 창발성을 동원하는 유일한 길은 당이 정확한 투쟁 방침을 내세우고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 당 조직을 발동시키며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높이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주인은 공장당 위원회이며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들입니다. 공장의 주인들에 의거하지 않고 사업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지배인이나 기사장 하고만 일해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중공업 위원회에서 련석 회의를 한다고 하면서 지배인과 기사장만 부르고 공장당 위원장들과 열성 로동자들을 부르지 않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공장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장당 위원회를 움직이도록 하여야 하며 공장 내 당원들을 발동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당 위원회가 행정을 대행할 것이 아니라 뒤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더니 생산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모르고 뒤'고방에 앉아서 말'공부만 하고 있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향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당 위원회가 생산을 떠나서 무슨 당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공장당 위원회는 공장에서 최고의 생산 지도부입니다. 생산에 대한 조직 사업과 동원 사업을 당 위원회가 직접 틀어 쥐고 해야 합니다.

공장당 위원회는 생산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정확한 방침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생산 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생산에서 당 정책 관철 정형을 일상적으로 지도 감독해야 하며 당 정책 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 대중을 발동시키는 조직 사업과 동원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서 잔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것은 령도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당 위원회는 지배인, 기사장 하고만 사업할 것이 아니라 당 열성자들과 사업해야 하며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근로 대중과 사업해야 합니다.

지배인과 기사장은 당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

생산을 지도하는 것도 당 위원회이고 생산에 대하여 책임 지는 것도 당 위원회입니다. 당 위원회는 공장 내의 일체 사업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당이 행정을 대행하지 말라는 것은 당 위원회가 생산에서 지배인이나 기사장의 기술적 지도를 대행하지 말라는 것이지 생산에 대한 지도를 그만 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당 위원회의 주되는 과업은 생산을 옳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도당 중공업부에서도 사업 방법을 고쳐야 합니다. 도당 중공업부 지도원 한 사람이 공장 사업을 다 지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장 지도는 오직 공장당 위원회를 통하여서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도당 위원회는 지도원을 통하여 공장에서의 생산 정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며 공장당 위원회에 당 정책을 침투시키며 공장당 위원회를 발동시키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도당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장당 위원회를 틀어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있는 당 조직과 직맹, 민청 등 근로 단체를 발동시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 동원하는 사업을 잘 지도해야 합니다. 도당 위원회가 공업을 틀어 쥐여야 한다는 것은 결국 도당이 공장당 위원회를 잘 발동시켜서 생산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당 위원회가 이런 일을 안 하고 아래에 있는 결함이나 들춰다가 성에 보고하고 성에서 해결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어 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성에서는 주로 기술적 지도와 자재 보장 사업을 책임 지고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와 근로 대중의 동원 사업은 다 도당이 공장당 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업 지도에서 당'적 사업 체계가 잘 수립되지 못 하였습니다. 도당 위원회가 공장 당 위원회를 잘 움직이지 못 하고 있으며 공장 당 위원회가 생산 지도를 위한 참모부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섯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업에 대한 당'적 령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 조직이 잘 발동되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창성에서 일이 잘 되는 것도 당 조직들이 잘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왔을 때에 약수중학교에 가서 학생들이 다 악기를 하나씩 다룰 줄 알게 하라는 과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포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다고 합니다. 세포 회의에서는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는 우선 선생들부터 악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 심각하게 토론되였으며 모든 선생들이 당'적 과업으로서 다 악기 다루는 것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교무 주임부터 밤 시간을 리용하여 피아노를 치는 것을 열심히 배웠으며 전체 선생들이 다 악기를 배우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전체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당 조직이 발동되면 못 할 일이 없습니다.

도당 위원장 동무들은 이번 회의에서 돌아 가면 우선 공장당 위원회의 구성부터 재검토할 것이며 그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안 전기 공장 지도에서 공장당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아직도 대안의 새로운 사업 체계를 도입하지 못 하였습니다. 대안의 사업 체계 대로 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도당 위원장 동무들은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를 확립하도록 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당 위원회의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창성군의 경험은 군내의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기본이 군당 사업을 잘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 붙으면 어떤 일이든지 못 할 일이 없습니다. 당 조직들은 당 정책을 군중 속에 깊이 해설 침투시키고 당 정책 관철에로 군중을 조직하고 동원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이신작칙하면서 항상 군중의 선두에 서서 그들을 끌고 나아가야 합니다.

창성군 당 위원회는 대중 속에 당 정책을 잘 해석 침투시켰으며 군중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였습니다. 창성군 당 위원회나 삭주군 당 위원회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당 조직 정치 사업을 잘 하고 지도 일'군들이 선두에 서면 군중이 다 동원됩니다.

군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군당 위원회에 달려 있습니다.

군당 위원회가 집체적 지도 기관으로서, 군의 참모부로서 군 사업의 모든 전선들, 모든 부문들을 다 장악하고 당 정책을 잘 침투시키고 조직 사업을 잘 하고 간부들이 선두에서 나가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군당 위원회는 농촌 경리를 비롯하여 군내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 지고 조직 지도하며 집행하는 말단 기관입니다. 그리고 군당 위원회는 군내 로동자, 농민들과 전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직접 책임 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당 위원회는 군 인민 위원회와 군 농업 협동 조합 경영 위원회를 잘 지도하고 모든 부문을 잘 움직여 나가야 하며 군중을 당 주위에 묶어 세우고 그들이 다 발동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시작한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강하게 투쟁하여 끝장을 내야 합니다.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일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업의 성패는 결국 군중을 잘 발동시키는가 못 시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당 위원회는 모든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계속 관철시켜 항상 군중 속에 들어 가 군중의 요구를 듣고 해결하며 군중과 상론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항상 승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성한 승리와 성과에 도취하지 말아야 하며 계속 전진하여야 합니다. 안일성과 해이성을 배격하고 검박하게 살며 혁명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동무들이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 군의 정치, 경제, 문화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가져 오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8.15 해방 17 주년 경축연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친애하는 동지들과 벗들!

우리 인민의 민족적 명절인 8. 15 해방 17 주년에 제하여 나는 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여기에 모인 여러 동지들과 전체 조선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우리 인민의 해방자인 위대한 쏘련 인민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장구한 일제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조국의 자유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나라의 모든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경시켰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가진 훌륭한 사회주의 조국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고 보람찬 새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자기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여 더욱 큰 희망과 신심을 가지고 사회주

의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7 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비상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미 첫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금년도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증산과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 계급은 이미 금년도 상반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고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자력 갱생의 정신과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창조적 기풍을 더욱 발휘하여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기술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가 급속히 진척되고 관개 시설들이 계속 신설 확장되여 사회주의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였으며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체 농민 대중의 애국적 열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혹심한 가물에 뒤'이어 수십 년래의 긴 장마가 계속되고 례년에 없는 큰 홍수가 있었으며 또한 태풍이 래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다년간 힘을 경주하여 위력한 관개 체계를 확립하고 치산 치수 사업을 하여 놓은 결과 우리는 금년에 혹심한 가물과 비교적 큰 풍수해를 능히 막아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농민들과 또한 농촌 경리를 지원하여 나선 로동자, 사무원, 학생 등 전체 인민들의 불요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모든 재해가 성과적으로 극복되였으며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대풍작이 확고히 내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과학과 문화는 전면적인 개화기에 들어 섰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많은 새로운 발견과 발명들이 이룩되였으며 아름답고 힘 있는 우리의 민족 예술이 더욱더 찬란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나날이 더욱 즐겁고 흥겨워지고 있으며 대중의 혁명적 기세는 더욱 앙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근로자들이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반드시 금년도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할 것이며 영웅적 조선 인민의 천리마를 타고 진군하는 기상을 다시 한 번 시위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인민이 달성한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실증하는 것이며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의 결과입니다.

나는 해방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조국의 륭성 발전과 우리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하여 모든 정력과 창조적 재능을 다 바쳐 투쟁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계속 위대한 공훈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로동 계급과 협동 조합 농민들, 교육, 과학, 보건, 문학, 예술 부문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우리 혁명의 전취물과 우리 인민의 평화적 로동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는 인민군 장병들과 경비대원, 내무원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미 제국주의자들은 17 년 동안 우리 나라 남반부를 강점하고 남조선 경제를 송두리채 파괴하였으며 남조선을 기아와 빈궁과 폐토와 학살이 지배하는 암흑의 땅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략탈과 탄압을 일층 강화하며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으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군사 파쑈 도당들은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며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의 자유 활동을 탄압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실업과 굶주림과 몽매와 암흑의 구렁텅이에 더욱 깊이 몰아 넣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소위 《경제 원조》를 리용한다는 구실 밑에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팔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과 파쑈 도당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자기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족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의 앞길을 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남북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이 힘을 합하여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할 때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물러나고야 말 것이며 군사 파쑈 독재는 분쇄되고야 말 것이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체 남조선 동포들에게 형제적 인사를 전하며 적들의 가혹한 탄압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의 전체 애국자들과 인민들에게 열렬한 성원을 보냅니다.

나는 또한 이국 땅에서 자기 조국의 통일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민족적 권리와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60만 재일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동포들에게 민족적, 동포애적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동지들!

해방 후 우리 인민은 자기 조국의 자유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형제적 사회주

의 국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아 왔습니다.

위대한 쏘련 인민은 우리 인민을 일본 제국주의 기반에서 해방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중국 인민은 조국 해방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피로써 우리 인민을 도와 주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계속 적극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루마니야, 몽고, 불가리야, 알바니야, 월남 민주 공화국, 웽그리야, 체코슬로바키야, 파란 등 모든 형제 국가 인민들이 우리 인민의 투쟁을 성심 성의 지지 성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인민의 민족적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끊임 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고 있는 모든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은 전쟁과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이 비할 바 없이 장성하였으며 이 진영 국가 인민들은 굳게 단합되여 있습니다. 최근 쏘련에서 또다시 '사람을 태운 우주 비행선들을 련'이어 발사한 것은 쏘련의 불패의 위력과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시위하는 것으로서 전체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을 무한히 기쁘게 하고 있으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여 주고 있습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들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계속 세차게 타 오르고 있으며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과 광범한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이 더욱 앙양되고 있습니다.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그 추종자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날로 쇠퇴 몰락하여 가는 제국주의의 운명을 구원할 수 없으며 평화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모든 책동은 반드시 종국적인 패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이 최대의 경각성을 견지하고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때 제국주의자들의 모든 침략 책동은 제어될 것이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는 수호될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사회주의의 공동 위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발휘하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더욱 큰 승리를 달성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통일 단결을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축배를 들 것을 제의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1962년 10월 23일

대의원 동지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대의원 선거는 거대한 정치적 앙양 속에서, 금년도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장엄한 로력 투쟁의 환경 속에서 승리적으로 실시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열의를 가지고 한결 같이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참가함으로써 우리의 인민 정권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선거의 결과는 로동당과 인민 정권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여 주었으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확고부동한 정치 도덕적 통일을 시위하였습니다.

당과 인민 정권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 우리 사회의 정치 도덕적 통일은 조국의 자유 독립과 새 생활의 건설을 위한 장기 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형성되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공화국 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와 이 제도 하에서의 우리 인민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에 물질적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오랜 동안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자기의 주권을 위하여 영용하게 투쟁하였습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말할 수 없는 간난 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오직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15 개 성상이나 영웅적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외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의 온갖 책동을 물리치고 자기 수중에 주권을 튼튼히 장악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 정권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 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정권이며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위대한 전취물입니다. 우리의 정권은 철저하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있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정권입니다.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령도되며 자기 수중에 주권을 튼튼히 장악한 우리 인민의 힘은 불패의 것입니다.

해방 후 우리 인민은 새 생활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허다한 난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낡은 사회로부터 락후한 경제와 문화를 넘겨 받았으며 더우기 3 년 간의 가렬한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조국이 남북으로 분렬된 조건 하에서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으며 동시에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내외의 온갖 원쑤들이 우리 내부에 분렬을 조성하며 우리의 전진 운동을 방해하려고 끊임 없이 책동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세련된 맑스-레닌주의적 령도에 의하여 그리고 인민 정권의 불패의 생활력에 의거함으로써 모든 난관과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 내고 짧은 력사적 기간에 위대한 혁명 과업과 위대한 건설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훌륭한 새 사회 제도와 새 생활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 자신의 사활적인 투쟁 경험으로부터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인민 정권의 생활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서 자기들의 승리의 앞길을 내다 보고 있으며 당의 령도 밑에 쟁취한 인민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자기들의 자유와 행복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된 천리마 운동은 당을 무한히 신뢰하며 자기의 정권과 사회 제도를 무한히 귀중히 여기며 당과 정부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더욱 광명한 앞날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인민의 충천하는 혁명적 기세와 백절 불굴의 투지와 무궁 무진한 창조력을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힘도 인민 대중 속에서의 우리 당의 확고한 권위와 신망을 허물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의 손에서 인민 정권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빼앗아 낼 수 없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장엄한 전진 운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동지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정확한 정책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최근 4~5 년 간에 우리 사회는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에서 완전히 벗어 났으며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을 이룩하였습니다. 조국의 산천이 달라지고 사회 경제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조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모든 물질 생활과 정신 생활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하게 수립되였습니다. 생활은 우리의 국가 제도와 경제 제도가 우리 나라 발전의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가장 우월한 제도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 주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히 진척됨에 따라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날로 더욱 공고 발전되고 있으며 더욱더 커다란 우월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회 제도를 창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살림살이를 자기의 힘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튼튼한 경제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과거에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였던 우리 나라에서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하는 것은 특별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업이였습니다. 우리는 자력 갱생의 원칙에서 우리 인민의 힘과 국내의 모든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그리고 또한 형제 국가들의 원조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을 공고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업 특히 중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공업 생산은 류례 없이 빠른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공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락후성은 완전히 퇴치되였습니다.

1961년에 우리 공업은 해방후 1946년부터 1955년까지의 10 년간에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업 제품을 단 한 해 동안에 생산하였습니다. 공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으로 말미암아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벌써 1960년에 71%에 달하였습니다.

금속 공업 및 화학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나라의 연료—동력 기지가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자체의 기계 제작 공업이 창설되였습니다.

우리의 중공업은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더욱 확장되였으

며 주로 국내의 자연 부원과 원료 원천에 립각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각종 생산 수단과 기계 설비들에 대한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하는 과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되였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정치 경제적 자립성의 기초로 되며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할 수 있는 현대적 중공업의 튼튼한 골간을 꾸려 놓았습니다.

우리 당은 경공업 부문에서 대규모의 중앙 공업과 중소 규모의 지방 공업을 병진시키는 방침을 실시함으로써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이룩하였습니다.

대규모의 경공업 공장들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그 기술 장비가 더욱 개선되였으며 전국의 모든 시, 군들에 평균 10 여 개의 지방 공업 공장들이 건설되였습니다. 우리의 경공업은 또한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우리는 비록 풍족하지는 못 하나마 소비품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들을 더욱 유족하게 공급할 수 있는 튼튼한 경공업 기지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농업 문제 특히 알곡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농경지가 매우 적으며 그것도 대부분은 심한 경사지이거나 척박한 땅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거의 해마다 한재가 오고 풍수해가 또한 빈번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원래 기술 경제적으로 매우 락후하던 우리의 농촌 경리는 전쟁으로 인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자연을 개조하고 농업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식량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으며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알곡 생산은 해마다 급속히 장성하여 1961년에는 그 전 해보다 100만 톤이나 더 많은 483만 톤에 달하였습니다.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매년 수십만 톤의 알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였지만 이제 와서는 식량을 충분히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야는 관개 수로의 조밀한 그물로 뒤덮여 있으며 농촌 경리는 더욱더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민들은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에서도 벗어 났으며 점차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있습니다.

인민 경제의 발전에서 달성한 이 모든 성과들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일관된 로선의 빛나는 승리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함으로써만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었으며 인민 경제의 전면적 기술 개건을 위한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의 로선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간짧은 기간에 낡은 사회에서 넘겨받은 락후성을 청산하고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킬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유족하게 만들 수 있는 자체의 공고한 경제적 지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문화 혁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락후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하여서는 문화 혁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끊임 없는 배려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문화를 건설하는 데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는 교육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부합되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 체계를 수립하여 놓았습니다.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고 중등 및 고등 기술 전문 학교와 대학이 대대적으로 증설되였습니다. 특히 야간 및 통신 교육망이 확대되고 수 많은 공장 대학과 공산 대학이 창설됨으로써 광범한 근로자들이 생산에서 리탈되지 않고 고등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93 개의 대학을 비롯한 8,900여 개의 각급 학교들에서 260여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그 중 대학생 수만 하여도 20만 9,000 명에 달합니다.

이 밖에도 100만 명 이상의 로동자, 농민들이 근로자 학교와 근로자 중학교들에서 일반 지식을 배우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고 다 발전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과학과 기술의 주인으로, 유식하고 문명한 새 사회의 건설자로 되고 있습니다.

중등 및 고등 기술 교육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이미 16만여 명에 달하는 민족 기술 간부의 대부대가 꾸려졌으며 그 대렬은 해마다 더욱 확대되고 있습

니다.

만일 우리 당과 정부가 해방 직후부터 거대한 힘을 집중하여 인민 교육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전반적 문화 기술 수준을 높이며 민족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는 예견성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도 닦을 수 없었을 것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높은 속도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곤난을 무릅쓰고 교육 사업과 간부 양성 사업을 선행시킴으로써 자기의 힘으로 국가와 경제를 훌륭히 관리하며 우리 사회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을 지어 놓았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도 훌륭한 연구 성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비날론에 대한 연구를 완성한 것을 비롯하여 무연탄 가스화 문제의 해결, 반도체의 연구, 전자 계산기의 제작,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의 비루스 공생균의 발견과 각종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의 발명 등 수 많은 연구 성과들을 달성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경락 실태의 발견은 우리 과학자들이 달성한 위대한 성과입니다.

천리마 시대에 상응하게 우리의 문학과 예술도 전면적 개화기에 들어 섰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과 이에 고무된 작가, 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철저히 인민 대중에게 복무하는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문학과 예술을 즐기고 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이 문예 활동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진실로 인민 대중의 소유물로 되였으며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강력한 무기로 되였습니다.

사회주의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은 더욱 향상되였습니다.

1961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 임금은 1956년에 비하여 2.1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농민들의 현물 및 화폐 수입은 1.6배로 장성하였으며 그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주택 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여 근로자들의 주택 조건은 현저히 개선되였습니다. 1957년부터 1961년까지의 5 년 간에만도 도시에 760만 평방 메터, 농촌에는 580만 평방 메터에 달하는 새로운 주택들이 건설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의식주에 대한 근심 걱정에서 벗어 났으며 모두가 다 안착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민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물질적 및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학교들에서 수업료를 폐지하여 학생들을 무료로 교육하고 있으며 대학 및 전문 학교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동자, 사무원들을 위하여서는 유급 휴가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이 휴양소들에서 국가 비용으로 즐겁게 휴식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무상 치료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및 사회적 비용으로 운영되는 수 많은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설치되여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훌륭히 양육하고 있으며 녀성들에게 사회적 로동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로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무의 무탁한 로인들과 고아들도 다 국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조국을 잃고 주권을 가지지 못 하였던 일제 시기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중 삼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렸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잃고 류랑 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민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우리 근로자들의 생활은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절반 땅에 전체 근로자들이 착취와 빈궁에서 해방되여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번영을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 같이 일하며 다 같이 배우고 있는 바로 그러한 새 생활을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력사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위대한 변혁입니다.

동지들!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는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달성한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고 7 개년 계획의 웅대한 전망 과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전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확고히 축성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새로운 더욱 높은 단계,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 섰습니다.

5 개년 계획 시기까지는 우리의 주되는 과업이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며 우리 나라를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인 사회주의적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키는 것이였습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

를 완성하며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하고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하였습니다.

7 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우리의 중심 과업은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 공업과 현대적 농촌 경리를 가진 사회주의적 공업 국가로 전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철저히 실현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고 발전된 사회주의 사회에 상응하는 생산력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생활을 유족하고 문명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5 개년 계획 기간을 사회주의라는 큰 나무의 뿌리를 깊이 박고 그 줄거리를 튼튼히 자래우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7 개년 계획 기간은 이 나무를 더욱더 자래워 거기에 찬란한 꽃을 피우고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개년 계획이 수행되면 참말로 사회주의의 새 생활이 모든 분야에서 활짝 꽃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업은 다방면적으로 발전되고 더욱더 새로운 기술로 장비될 것이며 각종 생산 수단과 기계 설비들, 질 좋고 다양한 소비 상품들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가 실현됨으로써 알곡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량은 결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농민들은 힘들고 고된 로동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들은 더욱 아름답게 건설될 것이며 우리 인민들은 모두가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북반부 인민들 뿐만 아니라 전 민족의 사활적 리익에 부합됩니다. 7 개년 계획의 수행은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불패의 힘으로 강화할 것이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데 결정적 국면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7 개년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장차 남조선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7 개년 계획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동시에 통일되고 독립된, 부강한 조선을 건설하며 3천만 조선 인민의 장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위대한 민족적 강령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이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상한 혁명적 열의와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체 조선 인민이 이 강령의 실현에 최대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명확히 규정한 바와 같이 우리는 7개년 계획의 상반기에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기초 우에서 농촌 경리와 경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집중할 것이며 하반기에 가서는 중공업 기지를 더욱 확장하고 그 기술 장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인민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7 개년 계획의 상반기 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이미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부름에 항상 충직한 우리 근로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무궁 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7 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61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으며 금년도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도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섯 개 고지를 기본으로 하는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은 공업과 농업 생산의 높은 장성 속도를 예견한 방대하고도 어려운 과업이였습니다.

아직도 년말까지는 2 개월 이상의 시일이 남아 있지만 우리는 벌써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확언할 수 있습니다.

농촌 경리는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농사가 잘 되여야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고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가 잘 펴여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알곡 500만 톤 고지는 여섯 개 고지 중에서도 가장 중심적인 고지입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불리한 기후 조건에서 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혹심한 가물에 뒤'이여 3 개월 이상에 걸치는 긴 장마가 계속되였으며 네 번이나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랭해와 병충해도 있었고 태풍도 래습하였습니다. 참말로 금년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 있어서 가장 엄혹한 자연적 시련의 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는 이 시련을 훌륭히 이겨 내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농촌에서는 알곡 생산이 전년보다 감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 증가하였으며 500만 톤을 초과하는 대풍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최근 년간에 계속 풍작을 이루었고 더우기 금년 같은 해에 또다시 대풍작을 이루게 되였다는 것은 우리의 농업 생산이 기후 변동이나 기타 우연적인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업 생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 법칙에 따라 확고하게, 부단히 장성하고 있다

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농촌 경리에서 달성한 이 빛나는 승리는 우리 당 농업 정책의 승리이며 농촌에서의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의 승리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농촌에 창설된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 제도의 우월성과 우리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공고성, 특히 당과 국가와 전체 인민이 막대한 힘을 들여 건설하여 놓은 관개 체계와 치산 치수 시설의 위력을 뚜렷이 시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 당이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에 따라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농민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강력히 전개하여 그들로 하여금 로동에서 자각적인 열성과 헌신성을 발휘하게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정확히 실시하고 작업반 우대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의 생산 의욕을 물질적으로 자극하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에 얻어진 것입니다.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영농 기술이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농촌에서의 뜨락또르 보유 대수는 15 마력 환산으로 1만 5,000 대에 달하였으며 농업의 기계화 수준은 더욱 제고되였습니다. 관개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3만 정보 더 확장되였으며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113 %로 장성하였습니다.

알곡 생산과 함께 공예 작물 생산, 축산업, 잠업, 과수업 등 농촌 경리의 모든 부문이 다 발전하였습니다.

금년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직물 2억 5,000만 메터의 고지를 점령하는 데 모든 힘이 집중되였습니다.

방직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질 좋은 천을 더 많이 짜 내는 것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입니다. 당이 제기한 직물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궐기한 방직 공업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이미 상반년 직물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초과 수행하였으며 하반년에도 생산을 계속 급속히 장성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형편은 금년에 2억 5,000만 메터의 직물을 능히 생산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에 비하여 30% 이상의 증가로 되며 인구 1인당 직물 생산량이 약 25 메터에 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직물 생산량에서 고급 직물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또한 피복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녀성들의 가정 부담을 덜어 주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의복을 공급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 나라의 경공업 기지는 전반적으로 확대 강화되였습니다. 청진 화학 섬유 공장과 길주 팔프 공장의 확장 공사가 완공되고 기존 방직 공장들에 10만 5,000 추의 설비가 증설되였으며 1만 5,000 추의 방추를 가진 혜산 방직 공장, 2만 톤 능력의 혜산 제지 공장 등 새로운 경공업 공장들의 건설 공사가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습니다. 또한 지방 공업에서 기계화가 강력히 추진되고 모든 지방 공업 공장들이 더욱 아담하게 꾸려졌습니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수산 자원을 적극 개발하는 것은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의 정확한 령도와 국가의 막대한 투자에 의하여 그리고 수산 부문 일'군들의 헌신적 로동에 의하여 전후 시기에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결정적으로 강화되였으며 1961년에는 수산물 생산량이 59만 톤에 달하였습니다.

당과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금년에 80만 톤의 수산물을 생산할 방대한 목표를 제기하고 이 부문에 커다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 정책에 무한히 고무된 우리의 전체 수산 부문 일'군들은 이 방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이미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물론 아직도 11월, 12월의 중요한 성어기가 앞에 남아 있는 만큼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달성한 성과와 현재의 생산 형편으로 보아, 또한 수산 부문 일'군들의 충천하는 기세로 보아 그들이 반드시 80만 톤의 수산물 고지 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택 20만 세대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은 근로자들의 주택 조건을 개선하며 특히 수천년 동안 내려 오던 오막살이 농가들을 헐어 버리고 우리 농촌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입니다.

우리 당 제 4 차 대회는 7 개년 계획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 각각 60만 세대의 문화 주택을 건설할 웅대한 과업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는 금년부터 이 과업의 실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오직 주권과 나라의 모든 재부가 인민의 수중에 장악되고 강력한 경제 토대가 축성된 우리 사회에서만 근로자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방대한 주택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택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지만 금년과 같이 많은 주택을 지어 본 일은 없으며 더우기 농촌에서 한 해 동안에 10만 세대의 주택을 지어 본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설자들은 전체 인민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이 어려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 주택 건설은 물론, 농촌 주택 건설에서도 이미 결정적인 성과가 달성되였으며 지금은 20만 세대를 완전히 채우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건설 투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도시와 농촌에 각각 10만

세대의 문화 주택을 반드시 건설하고야 말 것입니다.

중공업 부문에는 강철 120만 톤 고지와 석탄 1,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며 전체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강력히 지원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부과되여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아 우리의 중공업은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흑색 금속 공업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금년에 선철 및 립철 120만 톤 고지를 점령할 것이며 110만 톤의 강철을 생산할 것입니다. 이것은 강철 생산 목표를 약간 미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년에 비하여 선철 및 립철은 29%, 강철은 40% 이상이나 증산하는 커다란 성과입니다.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당이 수차 강조한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은 결과 큰 장마를 당하게 되자 갱내가 침수되여 채탄 및 운반 작업에서 많은 지장을 받게 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석탄 생산 목표를 현저히 미달하게 되였습니다. 물론 전년에 비하여서는 석탄 채굴량이 10% 정도 증가할 것이 예견되지만 만일 이 부문 일'군들이 당의 요구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였더라면 1,500만 톤 고지도 문제 없이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력 공업, 화학 공업, 기계 제작 공업 부문들에서는 모두다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생산을 훨씬 더 장성시켰습니다. 특히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농촌 경리 및 수산업의 기계화에 필요한 설비들을 비롯하여 야금 설비, 화학 설비, 전력 설비, 탄광 및 광산 설비, 경공업용 설비 등을 다량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기술적 개건을 촉진시키는 데 거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중공업 부문에서는 성진 제강소의 8만 톤 능력의 신중판 압연 직장, 강선 제강소의 3만 톤 능력의 강관 소재 압연 직장, 남포 제련소의 1만2,000 톤 능력의 유색 압연 직장, 1만 2,000 톤 능력의 평양 전선 공장, 5만 톤 능력의 본궁 가성 소다 공장, 문평 제련소의 4만 5,000 톤 능력의 류산 직장 등 수 많은 직장과 공장들이 신설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중공업 공장들에서 기술 장비가 더욱 강화되고 선진적인 생산 방법과 기술 공정이 광범히 도입되였으며 생산 능력이 현저히 장성하였습니다.

이리 하여 우리의 중공업은 더욱 정비되고 보강되였으며 경공업 및 농촌 경리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조국의 가일층의 번영과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한 영광스럽고도 보람찬 투쟁이였으며 우리는 이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동지들!

7개년 계획의 첫 두 해 동안에 달성한 거대한 성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2~3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이 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 전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1963년과 1964년에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1963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금년도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명년에도 농촌 경리와 경공업의 발전에 주력할 것이며 중공업 부문에서는 모든 공장들을 더욱 정비 보강하면서 채취 공업의 발전에 힘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군사 파쑈 도당들의 격화되는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당과 정부는 우리의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릴 것입니다.

채취 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는 것은 명년에 중공업 부문 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채취 공업은 생산의 첫 공정이며 따라서 이 부문을 앞세우지 않고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당과 정부는 가공 공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1963년과 1964년 간에 채취 공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탄광과 광산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할 것이며 각종 광석들과 석탄에 대한 인민 경제의 장성하는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력사적으로 위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광범히 개발하여 리용하여야 합니다. 석탄 공업에서 명년에는 1,500만 톤의 석탄 고지를 반드시 점령하고 앞으로 석탄 채굴량을 계속 장성시켜야 하며 광석 채굴업에서는 흑색 금속 공업에 철광석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동시에 각종 유색 금속, 희유 금속 및 비금속 광물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동, 연, 아연, 니켈 등 유색 금속 광물과 합금 원료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그 제련 가공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강종과 합금 종류를 확대하며 그 생산량을 더욱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중공업의 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 오기 위한 준비 사업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채취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지질 탐사 사업을 선행시켜야 합니다. 지질 탐사 부문의 탐사 력량과 기술 장비를 더욱 강화하여 탐사 사업을 더 광범히 더 심도 있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력 공업에 계속 큰 투자를 하여 이미 건설 중에 있

는 강계 발전소, 운봉 발전소 및 평양 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촉진시키며 예정된 기한에 반드시 조업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 제작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7개년 계획의 전 기간에 걸쳐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우리는 특히 아직도 부족한 대형 기계 제작 공업을 앞으로 1～2년 내에 급속히 확대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 대형 기계 제작 공장들을 확장하고 그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새로운 공장들을 더 건설함으로써 발전소, 탄광, 광산들과 기타 대규모 공장들에 필요한 설비들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기계 공장들에서 설비의 리용률을 백방으로 높이고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 인민 경제에 더 많은 기계 설비들을 생산 공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1～2년 간에 우리의 중공업 기지는 더욱 공고화되였으나 아직도 완전히 정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는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모든 중공업 공장들에서 설비들을 더욱 보강하며 설비의 점검 보수 제도를 철저히 확립하며 필요한 부대 설비들과 부대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도록 하여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들을 생산에 대담하게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모든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생산 공정을 더욱 기계화하고 자동화하며 기술 혁신 운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술 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없는 자재와 원료들을 대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흑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 철콕스, 구단광을 광범히 리용하고 철광석의 품위를 더욱 높이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콕스탄을 훨씬 적게 쓰면서 더 많은 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철, 제강 공정에 산소 취입법을 광범히 도입하며 석탄 가스화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명년에 경공업 부문의 중심 과업은 2억 5,000만 메터의 직물 고지를 확고히 견지하고 더욱 공고화하면서 1964년에 가서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일용품과 식료품의 질을 제고하고 품종을 확대하며 그 생산량을 대대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더욱 강화하며 경공업 공장들의 생산 능력을 현저히 확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2.8 비날론 공장, 청진 화학 섬유 공장, 혜산 방직 공장의 가동을 완전히 정상화하며 경공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방직 공장을 비롯한 모든 경공업 공장들에서 생산 면적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더 많은 기대를 설치할 것이며 설비들을 더욱 정비하고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여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각 시, 군에 분포되여 있는 2,000여 개의 지방 공업 공장들은 인민 소비품 생산을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는 거대한 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964년에 지방 공업에서만 1억 메터의 직물과 7만～8만 톤의 종이를 생산하며 간장, 된장, 기름은 물론 적지 않은 식료 가공품과 일용품에 대한 지방 수요를 지방 자체에서 충족시키도록 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방 공업을 한 계단 더 발전시킨다면 이것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 공업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술적 개건을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입니다. 지방 공업 공장들에서 락후한 수공업적 기술을 퇴치하고 모든 생산 공정을 기계화하고 반자동화하여야 하며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공업에서 원료 기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여 요구되는 원료의 대부분을 자체로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장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하고 생산 문화를 높이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우리의 모든 지방 공업 공장들을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고 주로 지방 원료를 가공하여 지방 수요를 충족시키며 국가와 인민에게 커다란 리익을 주는 아담하고 문화적이고 능률적인 공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명년에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이미 점령한 알곡 500만 톤 고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벼 수확을 더욱 증가시켜 알곡 생산의 질적 구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 주민들에게 충분한 량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일정한 량곡 예비까지 가지게 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로자들에게 식량을 량적으로 충분히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더 좋은 식량을 공급하여 그들이 더 잘 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북반부의 전체 인민이 이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64년에 가서 벼만 300만 톤 이상 생산할 방대한 과업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훌륭한 과업이며 또 능히 실현할 수 있는 과업입니다.

알곡 특히 벼의 수확고를 증가시키기 위하여서는 자연 개조 사업을 계속 전개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약 9만 정보의 면적을 관수하게 될 대규모의 압록강 관개에 힘을 집중하여 그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앞으로는 황해남북도 일대의 10만 여 정보의 논과 밭에 물을 댈 수 있는 례성강의 대 관개 공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관개 시설들의 리용을 개선하고 중 소 관개 공사를 계속 진행하며 서해안 간석지 개간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석지 개간은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간한 4,000 여 정보의 간석지에서 금년에는 벌써 정보당 3 톤 이상의 벼를 수확하였습니다. 앞으로 염분이 더 빠지면 이 논들에서 수확고가 더욱 제고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지금부터 1964년 봄까지의 기간에만 논 면적을 새로 6만 여 정보 더 확장함으로써 1964년에는 60만 정보의 논에 모를 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개 공사와 함께 국토 관리 사업을 잘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금년 경험에 비추어 큰 하천들뿐만 아니라 작은 하천들까지도 일상적으로 잘 관리하고 필요한 곳은 더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산림을 잘 조성하며 모든 하천들의 제방을 더욱 튼튼히 쌓고 하상을 정리하는 등 치산 치수 사업을 계속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금년보다 더 큰 홍수가 나도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밭벼를 대대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벼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알곡 총수확고를 증가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금년에 많은 협동 농장들에서 밭벼를 심어 보았는데 정당 평균 3 톤 이상의 수확을 내였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에 기초하여 1963년에 15만 정보, 1964년에는 30만 정보의 밭에 밭벼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밭벼를 심는 땅에는 반드시 관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존 양수 시설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모든 뜨락또르에 양수기를 달아 2단, 3단 양수까지 실시하여서라도 밭벼 재배지를 관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개 체계만 수립되면 밭벼는 옥수수보다 더 훌륭한 밭곡식으로 될 것입니다.

농촌 경리에서 기계화와 화학화를 촉진시키며 육종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며 모든 영농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국가는 1963년에도 많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기타 각종 현대적 농기계들을 농촌에 공급할 것입니다. 명년에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70만 톤에 달할 것이며 각종 농약과 살초제의 공급량도 훨씬 더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60만 정보의 논과 30만 정보의 밭에 벼를 심고 옥수수와 콩 파종 면적을 더 확대하며 영농 기술을 부단히 발전시켜 그 정당 수확고를 높인다면 우리는 계속 500만 톤 이상의 알곡을 생산하면서 그 중 벼 수확을 능히 300만 톤 이상의 수준에 올려 세울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에 따라 목축업을 급격히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당과 정부는 1964년부터 많은 알곡을 가축 사료로 돌릴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알곡 사료가 급속히 증가될 것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우량 종축을 확보하고 그 두수를 증가시키며 축사와 수의 방역 시설을 정비 확장하는 등 목축업의 토대를 더욱 공고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1964년에는 초식 가축 뿐만 아니라 돼지, 오리 등을 대대적으로 사육함으로써 육류 생산량을 20만 톤에 이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각종 유지 작물과 아마, 대마, 청마 등 섬유 작물의 재배 면적을 확장하고 그 수확고를 증가시키며 과수업, 잠업도 더욱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공업과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계속 강력히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건설자들은 앞으로도 매년 도시와 농촌에 각각 10만 세대의 주택을 어김 없이 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아담하고 아름답고 근로자들의 생활에 편리한 문화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1963년과 1964년에 이 모든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나라의 경제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실로 1964년은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해로 될 것입니다. 1964년에 우리는 300만 톤의 벼와 20만 톤의 육류,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하게 되며 그 해까지 도시와 농촌에 새로 건설되는 문화 주택은 60만 세대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민은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오랜 옛날부터 꿈꾸어 오던 념원을 우리 시대에 와서 실현하는 무한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1964년에 가서는 우리가 이미 준비하여 온 9년제 기술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반적 기술 의무 교육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의 전체 젊은 세대들을 선진 과학과 기술 지식을 소유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육성할 것입니다. 기술 의무 교육의 실시와 함께 고등 교육이 계속 급속히 발전함으로써 1964년 말에는 기술자 및 전문가 총수가 약 42만 명에 달할 것이며 우리 나라 전체 공장, 기업소의 직장

장 이상 간부들이 모두다 기사, 전문가 또는 기수, 중등 전문가의 자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휘황한 전망은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을 무한히 흥분시키고 있으며 그들을 영웅적 로력 투쟁에로 더욱 힘차게 고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근로자들은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자기들의 광명한 앞날을 명확히 내다 보면서 더욱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확신성 있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영웅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반드시 1964년도의 재 고지들을 점령하고야 말 것이며 나아가서는 전체 7 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앞에 제기되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건설의 무기로서의 국가 기관들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와 지도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변천된 새 환경에 맞게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을 개편하고 그 일'군들의 지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특히 청산리에 대한 지도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국가, 경제 기관들의 사업에서는 일대 전환이 일어 났습니다. 지도가 하부에 더욱 접근되게 되였으며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을 도와 주며 일'군들이 군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을 교양하고 개조하고 단결시키며 군중의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혁명적인 사업 방법이 확립되게 되였습니다.

금년에 우리는 인민 경제에 대한 관리 및 지도 사업에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 관리 기구를 개편하며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를 창설하는 새로운 획기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공업과 농촌 경리에 대한 새 관리 체계는 창설된지 오래지 않지만 벌써 자체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 주고 있습니다.

공장 관리 기구가 개편된 결과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밑에 공장을 관리 운영하게 되였으며 공업에 대한 당 기관들의 지도 통제 사업과 로동 계급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또한 공장 내 부서들의 책임 한계와 분공이 명확히 되고 공장에 대한 성, 관리국들의 지도 방조 사업이 더욱 강화되고 설비, 자재, 후방 물자 등을 모두 우로부터 아래로 공급하여 주는 체계가 수립됨으로써 공장의 지도적 간부들이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나 생산 기술 지도에 력량을 집중하며 군중 속에 더욱 깊이 침투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우리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 도 농촌 경리 위원회를 창설하고 여기에 농업 기술자들과 농기계 작업소, 지방 농기구 공장, 관개 사업소 등 농촌 경리에 봉사하는 국가 기업소들을 집중시킴으로써 과거와 같은 행정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기업적 방법에 의하여 농촌 경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되였으며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특히 농촌 기술 혁명의 실현을 더욱 강력히 추동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또한 협동 농장들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물질 기술적 방조가 훨씬 더 개선 강화됨으로써 협동적 소유에 대한 국가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이 더욱 제고되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 간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였으며 로농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고 이 동맹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제고하였습니다.

지방에서의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의 창설은 지방 인민 위원회들의 사업에도 커다란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 시, 군 인민 위원회들이 상업, 건설, 교육, 문화, 보건 사업 등에 힘을 집중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이 부문들의 사업을 더욱 원만히 지도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당에 의하여 창조된 이와 같은 공업 및 농업 관리 체계가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완전히 부합되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새로운 훌륭한 형태이라는 것을 확신성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미 창설된 관리 체계의 우월성에 의거하여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더욱 개선하며 지도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일'군들의 사업 방법은 새로운 관리 체계에 상응하게 완전히 개편되지 못 하였으며 지도가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기세에 따라 서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족점을 시급히 퇴치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대중의 사상 의식을 부단히 높이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 과업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업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당 정책 교양과 결부시켜 강력히 진행하는 동시에 행정 실무 사업과 물질 기술적 보장 사업을 이에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을 계속 확고히 견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를 하부에 더욱 접근시키고 지도 사업의 방법을 더욱 개선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부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에 의거하는 혁명적인 사업 방법과 하부를 진심로 도와 주는 사업 체

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생산과 건설을 직접 진행하는 사람은 로동자, 농민들이며 바로 그들이 누구보다도 현장의 실정을 더 잘 알며 누구보다도 더 많은 창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도 일'군들은 현지에 내려 가서 항상 군중 속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과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군중에게서 지혜를 얻고 문제 해결의 방도를 찾으며 군중을 동원하여 모든 혁명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부 지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부 일'군들을 도와서 나타난 결함들을 시정하고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도 일'군들은 하부에 내려 가서 명령만 하고 독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부 일'군들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며 그들과 힘을 합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 주며 하부 일'군들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조를 주어야 합니다.

이리하여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성을 능숙하게 조직하며 우리 인민 경제에 내재하고 있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의 무궁 무진한 창조력과 재능은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입니다.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더욱 확대 강화함으로써 전체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 개조하여 당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고도로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계속 혁신을 일으키며 계속 빨리 전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간부들과 근로자들은 부화와 안일을 반대하고 검비하게 생활하며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발양하여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뚫고 나아가는 혁명적인 기풍을 더욱 튼튼히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인만큼 반드시 자력 갱생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자체의 힘을 믿지 않게 되고 자기 나라의 내부 원천을 동원하기 위하여 잘 노력하지도 않게 되며 따라서 혁명 위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지지와 원조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지지와 원조는 우리의 승리의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원조만 바라고 자체로 노력하지 않는 것은 혁명가의 태도가 아니며 이러한 태도로써는 혁명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혁명의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우리 자체의 힘입니다. 우리는 주로 자체의 힘으로 우리 나라에 새 사회를 건설하여야 하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도 부합되며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도 우리는 계속 자력 갱생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 기초 우에서 형제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적 협조를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중공업 및 경공업 제품들과 농업 생산물을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며 자체의 공고한 원료 기지를 축성함으로써 모든 부문들이 유기적으로 련결된 하나의 종합적인 경제 체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를 건설함으로써만 국내의 모든 자연 부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할 수 있으며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부단히 향상시킬 수 있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여야만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서 형제 국가들과 경제적으로 유무 상통할 수 있으며 이 나라들과의 호상 협조와 분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은 악전 고투하여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축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형제 국가들과의 호상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 대한 형제 국가들의 부담을 현저히 덜어 줄 수 있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형제 국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조에 대한 우리의 응당한 보답이며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서 우리의 중요한 기여로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자력 갱생의 기치 밑에 자체의 힘과 내부 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립각하여 형제 국가들과의 협조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아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며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당과 정부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하여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면서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전진할 것이며 반드시 7 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

리를 점령할 것입니다.

Ⅱ

대의원 동지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는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작용을 미치고 있으며 조선에서 혁명과 반혁명과의 세력 관계를 혁명 세력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북조선 형제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위대한 승리에 부단히 고무되면서 영웅적 투쟁에 궐기하여 12 년 동안 남조선 인민들의 머리 우에 타고 올라 앉았던 리 승만 정권을 타도하였으며 지금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와 군사 독재를 반대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4월 인민 봉기 이후 남조선에서의 정세 발전은 미 제국주의가 《정권》의 《합법적》 교체로써도, 직접 폭력에 의한 테로적 독재의 수립으로써도 남조선의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를 수습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군사 정권의 류혈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반미 감정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은 점차 장성 강화되고 있습니다.

군사 파쑈 도당들이 집권한 이후 1 년 반 동안에 남조선에서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각화되였습니다. 경제가 더욱 파탄되고 인민 생활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부패와 사회적 무질서는 더욱 심하여지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은 해체되였으며 벌써 1 년 이상이나 계엄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남조선 군사 정권은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에 대한 류례 없는 야만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한편 《자립 경제의 건설》이니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니 《민생을 도탄에서 구출한다.》느니 하면서 인민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도구에 불과한 남조선 군사 정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것이 허공에 뜬 순전한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은 벌써 여지 없이 드러났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있는 남조선 경제는 수습할 수 없는 파국 상태에 처하여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틀어 쥐고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 부속물로 만들었으며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송두리 채 파괴하였습니다.

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의 압박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민족 공업은 완전히 질식 당하였으며 파산 당하였습니다. 원료, 자금 및 판로에 있어서의 더욱 심하여 가는 곤난으로 말미암아 군사 정권이 수립된 후 1 년 동안에만도 공업 생산은 또다시 9% 감소되였습니다.

남조선 농촌 경리도 여지 없이 파괴되였습니다. 광범한 농민 대중은 의연히 봉건적 지주 제도 하에서 가혹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지주들의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 농업은 극도로 쇠퇴하였습니다. 경지 면적과 파종 면적은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농업 생산은 여전히 중세기적인 락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과거에 곡창이였던 남조선은 해마다 400~500만 석의 미국 잉여 곡물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성적 기근 지대로 전변되였습니다.

경제의 전면적인 파산, 미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직업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으며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한 채 기아 선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전체 로동 능력 있는 인구의 60%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실업 및 반 실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민 생활은 극도로 령락하였으나 남조선의 통치자들은 막대한 군사비를 짜 내기 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조세 수탈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960년에 비하여 1962년에 남조선 인민들의 조세 부담은 43%나 증가하였습니다. 군사비의 팽창으로 인한 인플레의 격화로 인하여 물가는 계속 올라 가고 있습니다. 금년 7월 현재로 남조선 물가는 1960년 말에 비하여 20% 이상이나 올라 갔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의 경제 생활을 여지 없이 파괴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뜨렸으며 남조선 천지를 대중적 테로와 폭압이 지배하는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시켰습니다.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미국 강도들에 의하여 항시적으로 위협 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동포 형제 자매들이 침략자들에 의하여 모욕 당하며 학살 당하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아가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매일과 같이 굶어 죽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가 남조선에 가져다 준 결과이며 남조선 통치자들의 매국 정책이 빚어 낸 결과입니다.

남조선의 현 사태를 수습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에서 구출하기 위한 유일한 출로는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조국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달성하지 않고서는 조선 인민은 잠시도 편안히 살 수 없으며 남조

선 인민들은 오늘의 참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조국 통일의 위업을 성취하는 것은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이며 민족 최고의 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일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의 식민지, 군사 기지로 만들고 남조선 사회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는 긴장 상태를 격화시켜 조선에서의 평화를 부단히 위협하고 있으며 온갖 흉책을 다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남조선 사회의 진보와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의 기본적 장애물입니다.

력사 상 외래 침략 군대에 의하여 국토가 강점되고 외세의 간섭이 있는 조건에서 국가의 독립과 통일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습니다.

미국 침략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킴으로써만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식민지적 노예의 처지에서 구출할 수 있으며 분렬된 우리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념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비호하면서 국가의 통일에 대하여 운운하는 자들은 실지에 있어서는 통일을 반대하는 자들이며 제국주의 침략의 앞잡이들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킬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그것을 정당화할 아무런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물러 가야 하며 조선 문제는 조선 인민 자신의 손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남조선에 미국 군대가 주둔하여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허위로써 그 누구도 기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써 조선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습니다.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침략》이라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전 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를 침략하려는 자기들의 흉악한 목적을 가리우기 위하여 만들어 낸 병풍에 불과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조선 사람끼리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전 조선을 침략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조선 문제를 토의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인정합니다. 조선 문제는 뉴욕이나 워싱톤에서 외국 사람들이 론의할 것이 아니라 평양이나 서울에서 조선 사람끼리 토의하여야 합니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이며 오직 조선 사람 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내정에 외국이 간섭할 어떠한 근거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전 조선을 제국주의의 침략에 내여 맡기자는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자기 힘으로 능히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세계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 제국주의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전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을 추구하면서 발광적으로 새 전쟁 도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을 통하여서만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은 남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일련의 중간 걸음들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현되여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북 간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루차 제기하였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왔습니다.

조선 인민은 동족 상쟁을 원치 않으며 국내 전쟁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로동의 열매를 탕진할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군비를 확장할 것이 아니라 무력을 축소하고 긴장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남북 조선이 다 같이 민족 경제의 건설과 인민 생활의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인민들의 고혈을 짜 내여 70만의 고용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이와 같은 방대한 군사력은 민족 보위와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그것은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의 도구로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부담으로 되며 조선에서의 평화에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남북 조선 간의 평화 협정의 체결과 군대의 축소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 인민들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며 남북 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남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 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무력을 축소하는 것은 조국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 걸음으로 될 것입니다.

남북 간에 긴장 상태가 제거되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고 도탄에 빠진 인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 문화적 련계를 실현하고 교류와 협조를 도모하는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북반부 인민들은 영웅적 투쟁을 진행하여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민족 경제의 튼튼한 자립적 토대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북조선에 건설하여 놓은 경제 토대는 전 조선의 민족 경제의 자주적 발전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남북 조선이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여 우리가 북조선에 이룩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리용함으로써만 남조선에서 공업과 농업을 복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 교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대표들로 경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오늘 남조선 당국자들은 조선 인민의 의사를 거역하고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는 데서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는 것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 그것은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더욱더 헤여 나올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며 남조선을 제국주의의 예속에로 더욱더 깊이 밀어 넣을 뿐입니다. 해방 후 17 년 간에 걸친 남조선에 대한 미국 《원조》의 결과가 이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고 북조선의 강력한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우리의 풍부한 국내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한다면 우리 민족은 능히 자기 힘으로 살아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명하고 부강한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호상 협조가 실현되면 우리는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의 초보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초보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이미 제의한 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제의하고 있는 련방제는 남북 조선에 현존하는 사회 정치 제도는 그 대로 두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대한 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최고 민족 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련방제 하에서 남북은 호상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어느 일방이 타방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남북 조선은 각각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할 것이며 오직 련방 기구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한 민족 공동의 리해에 관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의 련방제는 언어와 풍습과 문화가 서로 다른 민족들의 련방과도 달리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같은 언어와 같은 풍습과 같은 문화를 형성하여 온 단일한 민족의 일시적으로 분렬된 두 부분이 련방에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련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는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국내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많은 대외적 분야에 단일 민족으로서 공동으로 진출하는 등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련방제의 실시는 또한 남북 간의 접촉과 호상 리해를 촉진하며 정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고 민족적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 극히 유리한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간 걸음들을 거쳐 조국의 완전한 통일에 도달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도달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정부가 루차 명확히 천명한 바와 같이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 조선 자유 선거에 의하여 남북 조선의 각계 각층을 망라한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일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남북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전 조선 자유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운동에 대한 탄압은 즉시 중지되여야 하며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 및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군사 정권에 의하여 해체된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은 복구되고 그 활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여야 합니다.

남북 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은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구속도 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를 인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이러한 조건이 보장되였

을 때에만 조선 인민은 진정한 자유 선거에 의하여 전 조선 중앙 정부를 수립할 수 있으며 나라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조국 통일에 대한 조선 로동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러한 립장은 전 민족의 리익과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입니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이 실현되면 남조선이 《공산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공산주의의 리상을 실현하고 안 하는 것은 남조선 인민들 자신의 일이며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체의 선진적 사상과 사회 제도는 외부로부터 강요될 수 없으며 그것은 인민들 자신이 자기의 자유 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의 《공산화》를 우려한다는 구실 밑에 조국 통일을 반대하는 것은 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인민의 절실한 념원에 배치되는 것이며 전 민족의 사활적 리익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남조선의 통치자들은 또한 낡아 빠진 《멸공 통일론》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승공》을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힘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소멸하고 전 조선에 식민지 제도를 강요하려는 길은 이미 시험해 보았으며 영원히 실현될 가망이 없습니다. 근 40년에 걸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도 조선에서 공산주의 운동을 말살하지 못 하였습니다. 공산주의를 소멸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운 리 승만 역시 미 제국주의의 힘에 의거해서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자기가 범한 죄과로 하여 인민의 버림을 받고 멸망하였습니다. 반공산주의를 일삼는 남조선의 일부 완고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력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누가 만일 또다시 감히 리 승만의 본을 따르려 한다면 그는 자기 선행자의 운명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누가 먹고 누가 먹히는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본래 통일되고 단일한 민족이 제국주의의 기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민족적 통일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멸공》이나 《승공》이나 하는 허황한 생각은 실현될 가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며 우리 민족을 영원히 분렬시키려는 극히 유해로운 생각입니다.

조국 통일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립장은 론박할 수 없는 가장 합리적인 것이며 정당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며 조국의 장래를 우려하는 모든 사람들은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하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조선 사람들의 숭고한 민족적 의무입니다.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방으로 남북 간의 호상 리해를 도모하며 민족적 화목과 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여 민족적 단결을 이루지 못 하는 것은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할 뿐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민족의 각성과 단결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며 반목을 조성하려고 온갖 흉책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북 조선의 전체 애국적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민족 리간 정책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 밑에, 조국 통일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고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와 정치적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 함께 단결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들도 만일 그들이 외래 침략자들과 결탁하는 민족 반역의 길에서 벗어나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면 우리는 그들과 단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외세에 아부 추종하며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며 나라의 통일을 끝끝내 방해한다면 그들은 전 민족 앞에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며 전체 조선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력량과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전 민족이 굳게 뭉쳐 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병사, 청년, 학생, 지식인 등 각계 각층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를 을 반대하는 구국 투쟁에 용감히 일어 서야 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침략 군대에 대한 일체 협력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우리의 동포 형제 자매들에 대한 미국 군대의 만행을 저지시키며 침략자들을 우리 강토로부터 몰아 내기 위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동시에 그와 결탁한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의 일체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

온 자주적 평화 통일의 기치 밑에 광범한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미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 세력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하며 반동 통치배들에게 부단히 압력을 가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외세에 의존하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피압박 민족들이 용감히 떨쳐 일어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고 있는 민족 해방 혁명의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세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민족 해방의 투쟁 기세는 충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수천 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졌으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이어 받은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민족이 어찌 양키 제국주의의 억압에 굴종할 수 있으며 식민지 노예의 생활을 그냥 참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미 제국주의와 그와 결탁한 반동 통치 세력을 반대하여, 민족의 통일과 조국의 완전 독립을 위하여 힘차게 일떠 서야 하며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전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거세찬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할 때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구축되고야 말 것이며 조국 통일의 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IV

동지들!

우리 당과 정부의 정확한 대외 정책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국제적 지위는 전례 없이 공고화되였습니다.

오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우리 인민의 혁명 위업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이 비할 바 없이 장성하였으며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은 전쟁과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쏘련 인민은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에로의 대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쏘련에서는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복리는 더욱 향상되고 있습니다. 쏘련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세계의 최고봉에 올라 섰으며 이 분야에서 더욱더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건설에서 쏘련 인민이 달성하고 있는 모든 성과들은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여 줍니다.

형제적 중국 인민은 전진 도상에서의 모든 난관들을 용감하게 극복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세계 반동의 온갖 중상 비방에도 불구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은 위대한 사회주의 강국으로서 아세아의 중심부에 튼튼히 서 있으며 그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더 장성하고 있습니다.

구라파와 아세아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개선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은 전 세계 진보적 인류의 희망과 기대를 대표하고 있으며 인류 력사 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전변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 발전은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 붕괴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미 수억의 인민들이 저주로운 식민지 기반에서 벗어나 자주적 발전의 길에 들어 섰으며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타 오르고 있습니다.

남부 월남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계속 영웅적인 무장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인민은 외래 제국주의와 국내 반동의 침략 책동을 분쇄하고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인민은 서부 이리안을 해방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알제리아 인민은 장기간에 걸치는 무장 투쟁을 통하여 자유와 해방을 전취하고 민족적 독립 국가를 창건하였으며 아직도 식민지 예속 하에 있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영웅적 큐바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부단한 침략 책동으로부터 자기들의 혁명의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큐바 인민 혁명의 승리와 그 가일층의 발전은 미 제국주의의 예속 하에 있는 전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에게 거대한 혁명적 작용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등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들에 해방 투쟁의 파도가 급속히 파급되고 있으며 투쟁은 더욱 앙양되고 있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급속한 장성과 식민지 체계의 붕괴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의 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였습니다. 제국주의의 내부 모순이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렬강 호상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내부로부터, 외부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자기 시대를 다 살았습니다. 제국주의가 세계를 지

배하며 제 멋대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며 지구 상의 모든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입니다. 제국주의는 멸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전 세계적 범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를 두목으로 하는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은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하여 보려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세계의 도처에서 피압박 민족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찌또 도당을 대표자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파괴하며 제국주의의 침략 책동을 비호하며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을 마비시키려고 시도하면서 미 제국주의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의 모든 책동은 헛된 것입니다. 세계 사회주의 력량의 가일층의 장성과 인민들의 혁명 투쟁의 부단한 앙양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현 시대의 기본 추세이며 제국주의의 완전한 붕괴와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오늘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군비 경쟁의 강화와 국제 긴장 상태의 격화, 새로운 세계 대전의 도발에서 출로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을 공격하기 위한 군사 기지들과 침략적 군사 뿔럭들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 침략 정책의 집행자인 케네디 행정부는 전면 전쟁과 핵 전쟁을 대대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 국가의 지배층들은 침략적 북대서양 동맹의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고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을 재무장시킴으로써 구라파의 중심부에 위험한 전쟁 발원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카리브 해역에서 새로운 전쟁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큐바에 대한 재침공 기도를 공공연히 선포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긴장 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으며 전반적인 세계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세아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남반부를 계속 강점하고 남조선을 미국의 원자 및 로케트 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미국 침략자들은 남조선 주둔 미군과 괴뢰군을 더욱 증강하고 있으며 남조선에 각종 대량 살륙 무기를 계속 끌어 들이고 있으며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 행위를 끊임 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불가분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장 개석 도당을 사촉하여 인민 중국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침략 행위를 감행하고 있으며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대규모의 침략 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인 미일 군사 조약을 체결하고 일본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그것을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현 정세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 분자들의 전쟁 도발 음모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가지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화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는 위력한 사회주의 진영이 서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 사회 제도의 본성으로부터 평화를 열렬히 지향하며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자기의 대외 정책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확고 부동한 립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군비 철폐, 핵 무기의 생산과 시험의 금지, 랭전의 종식과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 회담의 방법에 의한 국제적 분쟁 문제들의 해결 등 세계 평화를 위한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든 정당한 제의들과 합리적 방안들을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왔으며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평화 애호적 방안들을 실현하며 공고한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전쟁의 근원은 제국주의에 있으며 오늘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도발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어떠한 평화 투쟁에 대하여서도 말할 수 없습니다.

평화는 구걸할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오직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을 부단히 강화하며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며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함으로써만, 모든 평화 력량을 튼튼히 결속하고 온갖 투쟁 방법을 배합하여 도처에서 제국주의 전쟁 방화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타격을 줌으로써만 새로운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공고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극동의 평화를 엄중하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파탄시키며 그들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기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재생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는 오늘 아세아에서 위험한 침략 세력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추동 하에 《한일 회담》을 벌려 놓고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획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선을 끌어 들여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강요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도구에 불과하며 절대로 조선 인민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남조선 군사 정권 간에 어떠한 군사적 및 경제적 협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조선 인민은 결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결정적으로 배격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모든 정치 경제적 문제들은 앞으로 조선에 통일적인 인민의 정부가 수립된 후 응당 다시 제기될 것이며 새롭게 해결되여야 합니다. 조선 인민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략 기도와 그것을 적극 추동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 인민은 대만, 남부 월남, 일본 기타 아세아 지역들에서와 세계 도처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침략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며 다른 나라 령토에 있는 미국 군사 기지들의 철폐와 미국 군대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전체 아세아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며 서부 베를린 정세를 정상화할데 대한 쏘련 정부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반제국주의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며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완강히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높은 경각성을 견지하고 우리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인민 대중을 부단히 혁명 정신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적들의 어떠한 불의의 공격이라도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할 것이며 평화와 사회주의의 동방 초소를 수호할 것입니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은 국제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의 일환이며 평화 유지의 강력한 요인입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것을 자기의 대외 정책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민족적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영웅적 꾸바 인민의 투쟁을 백방으로 지지하며 꾸바를 반대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견결히 규탄합니다. 우리 인민은 외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월남 인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독립, 민주, 평화 및 중립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라오스 인민과 알제리아 인민의 승리를 열렬히 축하하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민족적 억압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할 것이며 모든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 성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 권리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과의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강화하며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대외 정책의 확고 부동한 초석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은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을 파탄시키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당들과 정부들과 인민들의 신성한 국제주의적 의무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관계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 제도의 공통성과 동일한 사상과 투쟁 목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있으며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동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하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관계는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 나라들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며 일방적인 존중과

복종을 요구하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할 것 없이 모두다 완전히 평등하고 자주적이며 호상 간에 서로 존중하며 지지합니다. 이 나라들 사이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그 나라에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표면 상으로는 호상 간의 《친선》과 《단결》을 주장하나 뒤에서는 상대방을 반대하는 파괴 공작을 진행하며 《협조》와 《원조》를 표방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른 나라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며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전우들로서 의식적이고 동지적인 친선과 협조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나라들 사이에서는 서로 음해하거나 표리 부동한 행동을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친선과 단결, 호상 협조가 바로 이러한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실로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으며 불패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인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기 위하여 가장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촉하에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상하고 리간시키며 이 나라들의 당 및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음모 활동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괴 활동에 대하여 높은 경각성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적 규범에 확고히 립각하여 모든 형제 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고수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우리의 위대한 린방들인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과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불패의 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인민과 모든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 간의 친선과 협조는 더욱더 공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앞으로도 전체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 호상 협조를 부단히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의거하여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정상적인 국가적 관계를 설정하며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적 독립 국가들과의 우호적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을 자기의 대외 정책의 일관한 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미 우리 나라와 우호적인 국교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적 독립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아직도 국교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친선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국가적 및 경제 문화적 관계를 설정하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무역과 문화 교류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조선 인민이 수행하고 있는 혁명 투쟁은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일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와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자기에게 부과된 민족적 및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대의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전례 없는 번영의 시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앙양의 일로를 걷고 있으며 과학과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민족 문화가 찬란히 꽃피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와 농촌들은 더욱더 새로운 면모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생활은 행복하고 즐겁고 홍겨운 것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물질적 복리와 문화 수준은 날로 더욱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과 정부의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되고 온 나라가 류례 없는 혁명적 앙양과 창조적 열의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의 불패의 통일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며 인민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를 견지하고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조국의 가일층의 번영과 전 민족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였으며 전체 근로자들이 그 수행에 한결같이 떨쳐 나섰습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북반부 근로자들은 반드시 7 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북반부의 혁명 기지를 철옹성 같이 다질 것이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힘차게 고무 추동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령도 밑에 조선 인민은 반드시 자기 조국의 통일 위업을 성취할 것이며 조선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것입니다.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령도되며 주권을 자기 수중에 튼튼히 장악하고 있으며 위대한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우리 인민은 자기의 정당한 투쟁에서 백전 백승할 것입니다.

모두다 당과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새로운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 * *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성 명

최근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의 조종 하에 벌려 놓은 소위 《한일 회담》의 막후 흥정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을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다.

침략적 야욕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미 남조선 경제의 모든 부문을 좌우할 사실 상의 실권을 장악하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수십 개의 독점 재벌들로써 남조선에 대한 자본 수출과 경제적 략탈을 목적한 《한국 산업 진흥 회사》가 조직되였으며 각이한 명칭의 《조사단》과 《시찰단》이 계속 남조선에 기여 들고 있으며 수 많은 대독점체들의 탐욕의 마수가 벌써 남조선의 중요 산업 분야에 뻗치게 되였다.

수 많은 일본 대독점체들이 삼척과 북한강 등지의 발전 시설 공사와 비료 공장을 비롯한 기타 공장 건설을 《원조》하며 합영 기업을 창설한다는 구실 하에 남조선의 전력 공업, 화학 공업 및 기계 공업 부문에 침투하고 있으며 일부 독점체들은 이미 남조선에 대리점까지 설치하고 있다.

엄연한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일본 침략 계층은 우선 남조선의 동력, 체신, 운수, 화학, 기계 공업 등 기간 산업 부문을 장악하는 데 착수하고 있으며 로후한 기계 설비들을 고가로 처분하면서 남조선 경제 명맥을 틀어 쥐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일본 반동 계층의 이러한 재침략 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고 있으며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또다시 일본 대독점체들의 《지하 자원 조사단》과 《가공 공장 시찰단》이 남조선에 기여 들고 있다.

이것은 소위 《오대산 지구 종합 개발 계획》을 《원조》한다는 미명 하에 3억 딸라의 자금을 투하하여 남조선에서 중석, 철광석, 콕쓰탄, 석회석, 금, 주석 등 귀중한 지하 자원들을 대량적으로 략탈하며 《합영 회사》의 간판 하에 2억 딸라의 자금으로 일본의 자재와 원료를 투입하고 일본인 경영자와 기술자를 배치함으로써 남조선의 일련의 제조 공업 부문을 완전히 독점하려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일본 반동 지배층은 남조선의 전반적 경제 실정을 파악하며 《군사 정권》의 소위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 위하여 외무성, 대장성, 통산성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과 독점 자본가들로 구성된 《경제 시찰단》을 남조선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에 정치 경제적 위기가 심각화되고 괴뢰 정권에 들어 앉은 군사 파쑈 도당이 매국 배족적인 행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는 것을 절호의 기회로 리용하여 남조선을 재침략하려는 일제의 파렴치한 책동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간교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파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남조선 경제를 전면적으로 예속시키고 저렴한 로동력을 무제한으로 착취하며 지하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하며 자기의 판매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탐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남조선측과의 《합영 회사》를 조직한다는 감언리설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 독점 자본이 자금과 자재와 원료를 제공하고 기술자와 경영자까지 배치하는 조건 하에서 《합영 회사》란 남조선 경제 운영권을 명실 상부하게 틀어 쥐기 위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교활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 동자에게도 명백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침략 행위를 호도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원조》하고 《보호》할 그 어떤 《의무》가 있다는듯이 뇌까리면서 《일본이 없이는 한국 경제의 앞날도 없다》는 철면피한 궤변까지 주저없이 늘어 놓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천추에 저주 받을 조선 민족의 반역자이며 극악한 매국노이며 친일 주구인 리용구의 《모범》을 따르라고 설교하는 한편 36년 간에 걸친 조선에 대한 강도적 식민지 통치가 《불가피》한 일이였으며 《유익》한 일이였다고 떠벌리는 것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이 얼마나 철면피한 침략자의 강도적 론리이며 조선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인가!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재침략 책동은 60년 전에 《친선과 보호》의 간판 밑에 조선을 병탐하던 그 시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일제는 바로 60년 전에 경제적 리권을 먼저 탈취하면서 조선에 기여 들어 마침내 전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민족을 식민지 노예의 구렁에 몰아 넣지 않았던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침투는 종주국의 옛 지위를 다시 회복해 보려는 침략적 흉책이며 우리 조국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계속 격화시키려는 간악한 범죄 행위이다.

이것은 조선 인민에 대한 용허할 수 없는 적대 행위이며 극동

과 세계 평화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아세아 침략 계획의 중요한 고리를 이루고 있다.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남조선에 끌어 들임으로써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파멸에 직면한 자기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며 일본 반동 지배층과 남조선의 괴뢰 도당을 야합시켜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미제의 술책에 고무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공존 공영》의 미명 하에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여 보려고 분별 없이 날뛰고 있다.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침략적 책동은 전체 조선 인민은 물론 광범한 일본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의 견결한 항의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미제의 특무이며 일제의 오랜 주구인 박 정희와 그의 일당은 미제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공공연히 끌어 들이고 있으며 그들에게 남조선의 모든 경제 명맥을 내여 맡기고 있다.

박 정희 살인 악당은 남조선 천지를 전대미문의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켜 놓았으며 미제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의사 대로 집행할 것을 맹세하고 자자손손 저주 받을 매국 배족 행위만을 일삼고 있다.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은 조국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발광적으로 반대하고 평화 통일을 주장한 모든 애국적 인사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체포 투옥 학살하고 있으며 기아와 빈궁과 비인간적 무권리 속에서 신음하는 인민 대중을 중세기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또한 아무런 현실성도 없는 소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내들고 자립 경제 건설과 민생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인민 대중을 기만 우롱하고 있으며 《외자 도입》의 구실 하에 외래 침략자들을 끌어 들이는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리 하여 안으로는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애국 력량을 발광적으로 탄압하고 밖으로는 외래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팔아 넘기는 박 정희 도당의 반역 행위로 말미암아 마침내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대거 침략함으로써 남조선은 또다시 일제의 발 밑에 짓밟히게 될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되였다.

바야흐로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자들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2중적인 예속 아래 신음하게 될 그러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의 소행이야말로 리 완용, 송 병준과 같은 매국노들도 오히려 얼굴을 붉힐 천추에 용납 못 할 매국 반역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조선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일제의 굴욕적인 식민지 노예살이를 강요 당하던 지난날의 쓰라린 력사를 결코 되풀이하려 하지 않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통치로 인한 참화가 온 남조선 땅을 짓누르고 있는데 그 우에 일본 침략자들이 우리의 귀중한 재부를 략탈하고 우리 인민의 고혈을 짜 내 가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전체 조선 인민들과 함께 최대의 민족적 분노와 치솟는 격분으로써 남조선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 책동을 항의 규탄하며 매국 배족의 무리 박 정희 도당을 쓸어 버리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에 궐기할 것을 전국의 동포 형제 자매들에게 호소한다.

전체 조선 인민은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간교하고 음흉한 침략 책동을 전 민족적 력량을 다하여 단호히 배격 분쇄하여야 한다.

소위 《한일 회담》을 폭로 파탄시키고 《민간대 민간의 경제 협조》라는 구실 하에 기여 드는 일본 독점체들의 침략적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투쟁하며 각종 《조사단》과 《시찰단》이 다시는 남조선 땅에 발을 붙이지 못 하도록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오늘의 조선 인민은 결코 어제'날의 조선 인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오늘의 조선 인민은 자기 수중에 주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운명을 능히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무진장한 력량과 밑천을 가지고 있는 단결된 불패의 인민이다.

60년 전의 환상에 사로잡혀 철없이 덤벼든다면 격노한 우리 인민들에 의하여 탐욕스러운 침략의 마수를 꺾이우고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하지 못 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더우기 몇몇 군사 깡패 집단에 불과한 매국 배족의 무리 박 정희 도당과의 공모 하에 남조선에 침투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간교한 책동은 모든 것이 무효로 인정되고 수포로 돌아 갈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자기의 범죄적 침략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탐욕의 마수를 당장 걷어 들여야 한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 책동을 분쇄 파탄시키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의 앞잡이로 나서고 있는 박 정희 매국 도당을 처단하여야 한다.

인민 대중으로부터 극도로 고립되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은 지금 자기들의 매국 배족 행위에 대한 대중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하여 파쑈 테로 통치를 강화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박 정희 군사

파쑈 통치를 타도하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9 개월 이상이나 계엄령이 강요되고 있는 암흑 천지에서 어떻게 이 이상 살아 갈 수 있겠는가!

남조선의 파국을 수습하고 민생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외세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외래 침략 세력을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 토대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다.

우리 조국 북반부에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반석 같은 토대가 축성되여 있으며 조국 통일의 강력한 물질 기술적 담보가 마련되여 있다.

우리에게는 17년 간에 걸친 미제의 비인간적 략탈로 인하여 빈사 상태에 놓여 있는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시급히 부흥 발전시키고 도탄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유족한 생활과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여 줄 충분한 력량이 갖추어져 있다.

남조선의 파국을 훌륭하게 수습할 이와 같이 강력한 민족 주체적인 력량을 두어 두고 《반공》의 구실 하에 동족을 적대시하면서 외래 침략 세력을 끌어 들이고 있는 박 정희 도당의 매국 행위를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남조선 인민들은 정견과 사상의 차이와 과거의 여하를 불문하고 박 정희 도당을 타도하는 투쟁에 궐기하여야 할 것이며 자유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위하여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기치 하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에 기여 들고 있으며 박 정희 도당은 미제의 지시 하에 인민 탄압과 매국 배족 행위에 혈안이 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바로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으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장본인도 바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다.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결코 오늘의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없으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도 실현될 수 없다.

전체 조선 인민들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 위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기 위한 전 인민적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더욱 힘차게 투쟁한다면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은 분쇄되고야 말 것이며 우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남조선을 해방하고 자주적인 조국 통일 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민족적 력량을 더욱 굳게 단합시키자!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전체 조선 인민들이 미제의 조종 하에 감행되는 일제의 남조선 재침략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 행위를 단연코 분쇄 파탄시키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1962년 2월 15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남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호소문

남조선 동포 형제 자매들!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은 지난 2월 20일 《해외 이주법》을 공포하고 남조선의 수 많은 인민들을 남북 미주와 동남 아세아 등지에 강제 이주시킬 매국적 《해외 이주 5 개년 계획》을 조작하였으며 이를 집행할 범죄적인 인신 매매 기관들을 이미 창설하였다.

미제의 조종 하에 《이민》 책동에 광분하고 있던 군사 파쑈 도당은 드디여 동족을 해외의 농장주들과 자본가들에게 집단적으로 팔아 넘기는 천추에 용납 못할 《이민》 책동을 실천에 옮기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전고미문의 야만 통치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들은 이제 대양 건너 머나먼 이국 땅에 종신 노예로 팔려 갈 저주로운 운명에 부닥치게 되였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범죄적인 《이민》 책동을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써 규탄 배격하면서 원쑤들의 이 흉악한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 한사람 같이 궐기할 것을 친애하는 당신들에게 열렬히 호소한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범죄적인 《이민》 책동이 마치도 《인구 과잉》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불안정 상태》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는듯이 파렴치하게 떠벌리고 있다.

오늘 남조선 경제가 여지 없이 파탄되고 인민 대중이 아비규환의 생지옥 속에서 신음하는 것이 과연 《인구 과잉》에 원인이 있단 말인가?

아니다! 이러한 허위와 기만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바로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통치와 그 주구들의 매국 통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이 오늘과 같은 파멸적 위기에 봉착하였고 인민 대중은 극도에 달한 민생고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 동자에게도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미제와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의 중세기적 암흑 통치는 문'자 그대로 남조선 천지를 류혈적인 테로와 학살과 가혹한 수탈이 지배하는 류례 없는 인간 생

지옥으로 전락시켰다.

민족 경제는 더욱더 전면적인 파멸의 구렁으로 빠져 들어 가고 수백만의 만성적인 실업 군중과 절량 농민들이 기아와 빈궁과 죽음의 막다른 골목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범죄와 질병과 사회악은 날로 격증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을 이처럼 암담한 형편에 몰아 넣은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은 최근에 와서 우리 민족의 철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또다시 끌어 들여 남조선 땅을 미 일 제국주의자들에게 2중적으로 팔아 먹는 천인공노할 매국 행위를 감행하는 것조차 서슴치 않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이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마침내 동족을 이역 만리 타국에 팔아 넘기는 천추 만대에 저주 받을 동족 매매 행위를 감행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민족적 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국노들의 이러한 책동을 어떻게 수수방관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머나먼 이국 땅에 종신 노예로 팔려 가는 것을 어떻게 좌시 묵과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 동포 형제 자매들!

만일 당신들이 조상의 백골이 묻혀 있는 아름다운 금수 강산에서 우리의 겨레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매국적 《이민》 책동을 단호히 분쇄 파탄시키라!

단 한 사람의 동포도 절대로 《이민》으로 끌려 가지 않게 하라!

《이민》으로 끌려 가는 동포들은 떠날 때부터 걸머지는 막대한 부채에 얽매여 헤여 나지 못할 것이며 산 설고 물 설은 이역 만리에서 원한을 머금고 외로운 고혼이 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고된 로동과 무서운 인종 차별과 탐욕에 눈이 뒤집힌 자본가와 농장주들의 사정 없는 가죽 채찍 뿐이다.

굶주려 쓰러지고 병마에 신음하다 마지막 숨을 거둔들 어느 누가 따끈한 물 한 모금 떠다 주며 억울하고 기막힌 사정을 알아 줄 것인가?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살'길을 찾아 이국 땅을 헤매던 우리의 형제들이 얼마나 무서운 고역에 시달렸는가를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다.

살인적 노예 로동을 강요하는 북해도의 탄광에서, 사람을 우마와 같이 천대하는 하와이와 남미주의 농장에서 꿈'결에도 잊지 못하는 조국 산천을 그리며 피눈물을 머금고 죽어 간 동포 형제들이 그 얼마였던가?

독립된 조국 땅을 다시 밟아 보고 3천만 겨레가 한데 모여 행복하게 살기를 열망하는 애끓는 념원을 가슴 속에 간직한 채 이국의 밤 하늘을 우러러 땅을 치며 통곡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아니였던가?

아직도 원한에 젖은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의 귀'전을 울리거늘 어찌 그러한 비분의 력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유구한 력사를 두고 생사 고락을 같이 해 온 겨레들이며 형제들이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제 나라 제 땅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

자기 조국 강토에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은 자기 운명을 능히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 3천만 동포가 유족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하고 있다.

오늘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축성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실업과 빈곤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의 찬란한 현실이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도탄 속에서 신음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고 해외에 흩어져 있는 동포 형제들을 맞아 들여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마련되여 있다.

이미 일본에서 고생하던 8만 명의 동포들이 오매에도 못 잊던 조국의 품에 돌아 와 희망에 넘치는 새 생활을 즐기고 있다.

해외에 흩어졌던 동포들도 이처럼 조국 땅에 다시 돌아 오고 있는 이 때 남조선 동포들은 무엇 때문에 망망한 바다를 건너 이역 만 리로 떠나 가야 하겠는가?

우리는 예로부터 상부 상조하는 미풍 량속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민족이다.

우리는 비록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같이 먹고 같이 입으며 이 땅에서 함께 살아 가야 할 한 조상의 피를 나눈 혈육이며 동포들이다.

어찌 한 겨레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만리 타국에 팔려 가는 것을 그 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이민》으로 끌려 갈 운명에 놓여 있는 남조선의 형제들이여!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이민》 책동을 단호히 반대 배격하고 당신들에게 새 생활의 길이 약속되여 있는 공화국 북반부로 서슴없이 넘어 오라!

도탄 속에 빠진 남조선 동포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을 숭고한 민족적 의무로 간주하고 있는 공화국 정부는 살'길을 찾아 북반부로 넘어 오는 남조선 동포들에게 그의 희망과 기능에 따라 직업을 알선하고 배움의 길을 열어 주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줄 동포애적 조치를 이미 오래 전부터 취하고 있다.

머나먼 이국 땅으로 당신들을 추방하려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범죄적 《이민》 책동을 분쇄 파탄시키고 여기 행복한 생활과 희망에 따르는 직장과 학교가 문

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에 넘어 오기 위하여 완강하고 견결하게 투쟁하라!

이리하여 실업과 기아와 빈궁의 온갖 고통을 털어 버리고 행복하고 보람찬 새 생활을 찾으라!

《국군》 장병들이여!

《이민》의 명목 하에 해외로 강제 이주 당하는 동포 형제들이 바로 당신들의 부모 처자들이며 친척 친우들이다.

그들을 죽음의 구렁에 몰아 넣기를 원치 않거든 희망을 안고 살'길을 찾아 북반부로 넘어 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 주라!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용허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그들이 북반부로 넘어 올'길을 가로막지 말라!

《국군》 장병들은 북반부로 넘어 오려는 우리 형제들에 대한 미국 침략 군대의 그 어떠한 방해 책동도 결코 용허하지 말라!

남북 미주 및 동남 아세아의 일부 나라들이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들과 흥정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소위 《이민》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용허할 수 없는 비법적 행동이다.

조선 인민은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는 극 소수 군사 파쑈 분자들의 집단이며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되고 있는 매국 역적들인 박 정희 도당들과의 그 어떠한 《이민》 흥정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남조선의 동포 형제 자매들!

강제 추방 당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남조선의 실업자들과 절량 농민들과 제대 군인들이 북반부로 넘어 오도록 백방으로 도와 주라!

단 한 사람도 노예 매매선에 넘겨 주지 말라!

남조선 땅을 피비린내 나는 암흑 천지로 전락시키고 우리 형제들을 집단적으로 머나먼 이국에 추방하려는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을 쓸어 버리기 위한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라!

오늘 당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미국 침략자들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을 조종하는 원흉인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을 더욱 강화하라!

미국 침략자들에게 발 붙일 곳을 주지 말며 놈들이 우리 조국 강토에서 한 모금의 물도 얻어 먹지 못하게 하라!

온 남조선 천지가 반미 구국 투쟁의 노호하는 불'길 속에 휩싸이게 하라!

남조선 인민들이 고통과 불행에서 종국적으로 벗어 나는 유일한 길은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

미제의 철저한 주구이며 극악한 매국노인 리 승만 역도를 릉가하는 매국 반역 무리이며 살인 악당들인 박 정희 도당을 타도하고 미국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하여 우리 민족 최대의 념원인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 민족적 력량을 더욱 굳게 단합하자!

미제와 군사 파쑈 악당의 《이민》 책동을 분쇄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 대중의 단결된 력량을 시위하라!

북반부의 강력한 혁명• 력량에 의거하여 조국의 자주적인 통일을 실현하고 3천만 인민이 행복한 한가정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열망은 반드시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1962년 2월 2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공공연히 감행하는 범죄적 길에 들어 섰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에 이미 수천 명에 달하는 각종 군사 인원과 다량의 현대적 전투 기재를 끌어 들이였으며 소위 《군사 원조 사령부》의 명목 하에 작전 사령부까지 조직하고 남부 월남 인민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무장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장 침략으로 말미암아 남부 월남에서는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으며 이 불'길이 확대될 위험성은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부 월남에서 감행하고 있는 무장 침략을 월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또한 인도지나와 동남 아세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도지나에서의 평화의 회복을 위한 1954년 제네바 회의 그 자체를 파탄시키려고 획책하였으며 월남 인민과 전 세계 인민의 견결한 투쟁과 완강한 노력에 의하여 제네바 협정이 체결되자 그 첫날부터 이를 파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여 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을 자기들의 침략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남부 월남에 느고 딘 디엠 괴뢰 정권을 조작하고 제네바 협정에 예견된 월남에서의 전국적 총 선거의 실시를 파탄시킴으로써 월남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였으며 남부 월남을 탄압과 테로가 횡행하는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식민지 통치 하에서 더는 앉아서 참을 수 없게 된 남부 월남 인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생존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한결 같이 궐기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 인민의 이 애국적 투쟁에 의하여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는 자기들의 주구 느고 딘 디엠 도당의 테로 통치 지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부 월남 인민을 반대하는 군사적 간섭 책동을 부단히 강화하여 왔다.

특히 케네디가 정권에 들어 앉은 이후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군사적 간섭을 각방으로 더욱 확대하여 왔으며 오늘날에는 직접적인 무장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국제 헌병이며 평화와 인류의 극악한 원쑤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에서 감행하고 있는 자기들의 범죄적 침략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파렴치하게도 《공산주의 침략》에 관한 상투적 공담을 또다시 늘어 놓고 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을 감행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떠벌리는 이 낡아 빠진 기만적 술책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

만약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부 월남에 대한 침략이 없었더라면 월남은 벌써 오래 전에 평화적으로 통일되였을 것이며 인도지나 인민들은 평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였을 것이다.

전쟁과 살륙을 일삼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침략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월남 인민을 정복하며 자기의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현대적 무기와 함께 심지어 화학 무기까지 공공연히 사용하는 용서 못 할 범죄적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실생활상 체험을 통하여 극악 무도한 미제의 침략적 본성을 똑똑히 알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조선에 원자 및 유도 무기까지 끌어 들이면서 새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뒤흔들리는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수습하기 위하여 군사 파쑈 독재 제도를 수립하고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인 탄압을 강화하는 동시에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 도당을 사촉하여 아세아 인민을 반대하는 소위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기 위하여 책동하고 있다.

조선과 월남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을 강요하며 조선과 월남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원흉은 다름 아닌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 경험을 통하여 모든 나라 인민들이 굳게 단합하여 견결히 투쟁함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책동을 파탄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는 남부 월남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직접적 무장 침략을 항의 규탄하며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국과 유관 국가 정부들이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무장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이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미제 침략자들이 남부 월남에 대한 무장 침략을 즉시 중지하고 《군사 원조 사령부》를 해산하며 모든 전투 부대와 살인 무기들을 걷어 가지고 남부 월남에서 당장 물러 가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모든 나라 정부와 인민들이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회의의 공동 의장국과 제네바 회의 참가국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무장 침략을 저지시키고 제네바 협정의 엄격한 리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대한 책임을 지체 없이 리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은 인도지나와 아세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위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발악적 책동도 자기 조국의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궐기한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영웅적 항쟁에 궐기한 남부 월남 인민을 놀래우지 못할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 앞에는 오직 수치스러운 패배만이 기다리고 있다.

조선 인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형제적 월남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할 것이며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한 공동 투쟁에서 영원히 월남 인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1962 년 3월 3일 평양

항일 유격대 창건 30주년 기념 평양시 군중 대회에서 한 연설

최 용건

동지들!

오늘 우리들은 혁명 선렬들이

그 기치를 높이 추켜 든 맑스—레닌주의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있는 환경에서, 전체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하여 우리 위업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충천하는 기세로 나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우리 나라 혁명 투쟁 력사에 불멸의 위훈을 남긴 영광스러운 항일 유격대 창건 30주년을 뜻 깊게 기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32년 4월 25일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 속에서 선진적 로동자, 농민 및 애국적 청년들로써 우리 나라의 첫 혁명적 무장력인 항일 유격대를 창건하였습니다.

이 때로부터 조선 인민은 자기 력사상 처음으로 제국주의와 반동 세력에 대항하는 진정한 인민의 혁명 무력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은 더욱 강력한 힘으로 승리적인 전진을 하였습니다.

불패의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 밑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15개 성상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한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불멸의 혁명 전통이 이룩되였으며 오늘의 위대한 승리의 튼튼한 토대가 구축되였습니다.

항일 유격대 창건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체 조선 인민은 일제를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쟁취한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력사적 행로를 무한한 자부심과 높은 긍지를 가지고 돌이켜 보며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한 항일 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와 다함 없는 존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뜻 깊은 혁명의 명절을 맞이하여 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고 그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전체 조선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공통한 목적 하에 함께 전진하고 있으며 조선 인민의 장기간에 걸치는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 주고 있는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전체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에게 열렬한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이 자리에 참가한 형제적 중국 인민의 대표인 팽 진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며 축하하는 바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전후한 시기부터 중단 없이 계속되였으며 위대한 로씨야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 하에 1920년대로부터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대중들의 반일 투쟁은 급속히 발전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대중 투쟁은 정확한 혁명 로선을 가지지 못하고 분산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일제에 의하여 무자비하게 진압당하였습니다.

1920년 말 1930년 초에 이르러 일제의 파쑈적 탄압이 더욱 로골화되고 그에 항거하여 대중의 혁명 투쟁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날 때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의 자유와 영예를 고수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일제 강점자들을 반대하는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추켜 들었습니다.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에 튼튼히 기초하여 선행한 시기의 민족 해방 투쟁이 내포한 제한성과 결함들을 극복하고 이 운동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발전시키였으며 조선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 적극적인 무장 투쟁의 단계에로 올려 세웠습니다.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조직 전개한 항일 무장 투쟁은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었으며 조선의 수 많은 아들딸들을 영웅적인 항일의 길로 불러 일으켰습니다.

항일 유격대는 가장 포악하고 악랄하며 강대한 군사력을 가진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장구한 기간 영용하게 싸웠으며 원쑤들에게 항상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항일 유격대는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정확한 투쟁 방침과 탁월한 작전에 의하여 수량상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야만적인 일제 침략 군대를 무찌르는 간고한 전투들에서 항상 승리하였으며 침략자들을 전률케 하였습니다.

항일 유격대가 승리적으로 진행한 무수한 전투들과 특히는 보천보 전투를 비롯한 수 많은 국내 작전에서의 승리는 조선 인민이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살아서 용감히 싸우고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 주었으며 반드시 일제를 타도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과 신심을 우리 인민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였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 하에 우리 나라 각지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적인 혁명 투쟁은 더욱 광범히,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되였으며 공산주의자들은 지하에서 감옥에서 계속 완강히 싸웠습니다.

항일 유격대는 그 영용한 투쟁으로 조선 인민의 백절불굴의 혁명적 기개를 시위하였으며 일제의 패망을 촉진시켰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은 실로 력사에서 그 류례를 보기 드문 장기적

이고 간고한 유격 투쟁이였습니다.

항일 유격대는 국내외적으로 아무런 무장적 지원과 후방이 없이 적들에게 사면 포위된 환경 속에서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일 유격대는 온갖 간난 신고와 중첩되는 시련을 뚫고 싸웠으며 싸워서 이겼습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원쑤들의 무기를 빼앗아 자체를 무장하고 인민 대중에 확고히 의거하여 부단히 전투 대오를 확대 강화하면서 원쑤들과의 힘에 겨운 싸움에서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였으며 혁명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혁명가의 지조를 끝까지 고수하였습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견실한 혁명 투사들이였으며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혁명의 원쑤, 계급의 원쑤를 증오하고 그와 무자비하게 투쟁한 가장 열렬한 애국자들이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혁명의 리익을 제일 생명으로 알고 혁명 위업의 성취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으며 험난한 준령과 밀림 속에서 풍찬 로숙하면서도 일편단심 조국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원쑤들의 횡포한 발악과 회유와 기만도, 굶주림과 눈보라와 비'바람도, 적들과 싸우면서 혈로를 헤쳐 나간 수천리 행군도, 항일 유격 대원들의 불타는 애국심과 혁명적 의지를 꺾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동요와 실망을 몰랐으며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는 혁명적 기백으로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완강히 투쟁하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인민들에게 의거하였으며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희생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은 유격대를 무한히 사랑하고 지지 원호하였으며 유격대와 인민은 혼연 일체가 되여 싸웠습니다.

조선 인민의 간고한 시기에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항일 유격대원들의 고결한 혁명 정신과 고상한 풍모는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에 혁명 위업에 대한 충실성의 뜨거운 불씨를 안겨 주고 있으며 그것은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사의 불멸의 구감으로 빛날 것입니다.

동지들!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새로운 력사적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김 일성 동지의 령도 하에 이 때로부터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대중의 혁명 투쟁은 유기적으로 결합되게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 투쟁은 비로소 정확한 맑스—레닌주의적 강령과 전략 전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의 불'길 속에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령도 핵심이 형성되였으며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공산주의자들은 종파주의와 온갖 기회주의를 결정적으로 반대하면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였으며 로동자, 농민, 진보적 인테리 청년들을 유격대와 혁명 조직들에 인입하고 그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였으며 실지 투쟁을 통하여 단련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당 창건의 조직적 골간을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계급적 력량 관계를 맑스—레닌주의적으로 분석하고 조선 혁명의 성격과 임무와 명백한 투쟁 방침을 규정하였으며 로농 동맹에 기초한 통일 전선 정책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광범한 애국적 력량은 항일 유격대의 주위에 단결하여 독립되고 자유로운 조국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내다 보면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투쟁하였습니다.

또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을 통하여 인민 정권과 인민 무력 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항일 유격대는 그 간고한 투쟁의 전 기간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제 혁명 운동과의 긴밀한 련계 하에 투쟁하였습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쏘련의 존재와 그 위력의 장성에서 힘을 얻으면서 용기 백배하여 싸웠으며 무장으로 쏘련을 옹호하자는 구호 하에 싸웠습니다.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면서 중국 인민의 혁명 부대들과 어깨를 같이 걸고 함께 싸웠습니다.

이 시련의 시기에 조 중 량국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은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는 성전에서 항일 련군을 조직하고 10 여 성상 생사 고락을 같이하며 싸웠습니다.

원쑤들과의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 유격대원들은 항상 중국 인민과 중국의 전우들의 육친적인 원조와 사랑을 받았으며 서로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 투쟁에서 조 중 량국 인민의 혈연적인 친선이 맺어졌습니다.

간고한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검열되고 승리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서 불타고 있으며 이 불패의 기치는 영원히 조선 인민의 수중에 튼튼히 장악되여 어떠한 풍파도 헤치며 나아갈 것입니다.

동지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룩된 고귀한 혁명 전통과 혁명 업적 투쟁 경험들은 해방 후 우리 당의 공고 발전과 조선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중요한 원천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그의 고귀한 투쟁 경험을 지침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방 후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민들에게 정확한 투쟁 로선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전체 조선 인민을 자기 주위에 굳게 결속시켜 오늘의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해방후 창건된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항일 무장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령도 핵심이 있음으로 하여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짧은 기간 내에 대중적인 맑스—레닌주의 당으로 강화 발전되였으며 조선 혁명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강철의 대오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원칙적이고도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종파를 청산하고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력사적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130 여 만의 당원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하나의 의지와 사상으로 철석 같이 단결된 불패의 당으로 되였으며 전 당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행동하는 생기 발랄한 전투적인 당으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기의 실천적인 활동을 통하여 인민들 속에서 절대한 위신과 신뢰를 쟁취하고 있으며 당과 대중의 통일은 그 어떠한 힘으로써도 허물 수 없는 것으로 공고화 되였습니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고수하며 그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혁명 수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능숙하게 해결하였으며 또 하고 있습니다.

당은 해방 직후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혁명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북반부를 최단 기간 내에 튼튼한 혁명적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제시하고 이를 관철하였습니다. 이 로선은 1930년대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작성된 혁명적 강령의 발전이였으며 조선 혁명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이였습니다.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 인민 정권을 수립하고 민주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항일 유격대의 혁명 투사들을 골간으로 하여 강력한 현대적인 인민 무력을 창건하였습니다.

조선 인민은 당의 령도 하에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다짐으로써 이에 의거하여 미제 침략자들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고수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 초소를 수호하였습니다.

3년 간의 조선 전쟁은 항일 무장 투쟁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과 인민과 인민 군대의 무궁무진한 힘을 시위하였습니다.

조선 인민과 그 군대는 당의 령도 하에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16 개 제국주의 국가 무력 침공자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였으며 과거 항일 유격대원들이 끝까지 싸워 이긴 것처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침략자들을 격파하였습니다.

또한 조선 전쟁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대한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은 우리 정의의 투쟁을 물심 량면으로 지지 성원하였으며 특히 형제적 중국 인민은 지원군을 파견하여 우리의 정의의 투쟁을 피로써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 당은 전후의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대중을 동원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 북반부에는 혁명 선렬들이 그것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주의 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가진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적 기계 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와 경공업 기지를 가지고 있으며 농촌 경리도 강력한 물질 기술적 토대 우에서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민족 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 발전하고 있으며 기술 문명으로부터 멀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과학과 기술의 위력한 주인으로 지식 있고 문명한 새 사회의 건설자로 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과 현명한 령도, 장구한 혁명 투쟁 과정에서 세련된 당의 군중 로선의 철저한 관철은 대중들 속에서 비상한 열성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안 전기 공장과 숙천군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의 정신은 모든 사업 분야에서 빛나게 구현되고 있으며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은 더욱 철저히 관철되고 있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은 더욱 보람찬 래일을 확신성 있게 내다보면서 락관에 충만되여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근로자들은 항일 투사들의 혁명 정신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혁명 선렬들의 고상한 모범을 따라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투쟁하는 혁명가적 기풍이 우리 사회와 우리 인민의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혁명 선렬들의 영웅적 투쟁 업적과 숭고한 혁명 정신에서 새로운 힘과 신심을 얻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비상한 애국적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재'더미만 남았던 이땅에 인민을 이끌어 오늘의 전변을 가져 온 우리 당의 강철같은 의지 속에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이기면서 애국적 로력 투쟁을 전개한 우리 인민의 혁명적 열정 속에 항일 투사들의 혁명 정신이 맥맥히 흐르고 있으며 웅대한 공장과 풍요한 농촌에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속에 항일 투사들이 품고 있던 구상이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긍지 높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백절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 북반부는 강력한 혁명적 기지로 되였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튼튼한 토대로 되고 있습니다.

북반부에서의 장성 강화되고 있는 혁명 력량은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무한히 고무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민족적 사회적 해방을 위하여 온갖 탄압을 박차고 계속 완강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군사 파쑈 도당들의 야수적인 테로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기세는 계속 높아 가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는 날로 심각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조선의 장성되는 혁명 력량은 반동의 발악을 분쇄하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을 시작한 때로부터 지난 30년 간 우리 인민은 실로 영광스러운 투쟁 행로를 걸어 왔습니다.

조선 인민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달성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 투쟁에서 력사적인 승리들을 쟁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혁명을 완수하지 못하였으며 우리 앞에는 더욱 크고 어려운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은 아직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 당하고 있으며 우리 조국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재 전쟁 도발을 위한 군사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의 결과 남조선 민족 경제는 파산되고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고는 극도에 달하였으며 류혈적인 테로와 학살과 략탈이 도처에서 감행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은 심각하여 가는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려고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도발적인 음모를 더욱더 로골적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은 살인 장군들과 호전광들을 남조선에 련달아 파견하고 있으며 발광적인 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을 야수적으로 략탈하며 학살하던 불구 대천의 원쑤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남조선에 끌어 들이며 《한일 회담》을 통하여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도당을 야합시킴으로써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우리 조국에 또다시 기여 들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하여 민족적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오늘의 조선 인민에 대하여서와 아세아에 도래한 새 시대를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며 지난 날의 력사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국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며 조선에서 평화의 흉악한 교란자이며 조선 인민의 흉악한 원쑤입니다.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우리 조국은 통일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불행은 제거될 수 없습니다.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민족의 지상의 과업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에게는 계속 간고 분투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급속히 촉진시키며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혁명 임무가 부과되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항일 무장 투쟁 시기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항일 유격대원들이 들었던 혁명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 들고 어떠한 난관과 시련이라도 뚫고 나가 이 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쟁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녘 땅에 침략의 둥지를 틀고 앉아 있는 미제의 기반하에서 기아와 무권리에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한시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항일 유격대원들이 15개 성상 간고한 무장 투쟁을 전개한 것도, 우리 인민이 전후 허리띠를 졸라 매고 푼전을 아껴 가면서 사회주의를 건설한 것도 북반부 인민들만 잘 살자고 한 것이 아니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 독립을 실현하고 3천 만 인민이 다 같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속히 달성하며 남북 조선이 다 같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북반부의 민주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인 당의 통일을 더욱 강화하며 당과 인민과의 통일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되고 단결된 우리 당의 주위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쳐 왕성한 혁명적 기세로 전진할 때 우리는 어떠한 풍파와 난관도 다 물리치고 모든 투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화국 북반부에 확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우리의 인민 정권과 국방력을 계속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전취물들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우리 인민 군대를 항일 투사들의 혁명 정신과 현대적 기술로 무장된 불패의 간부 군대로 더 튼튼히 꾸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우리 민족 경제와 과학 문화를 더욱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금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7개년 계획의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인민은 맑스—레닌주의 사상, 항일 유격대의 혁명 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안일성과 해이성을 배격하고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할 것이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더욱 높이 발양하여 만난을 돌파하고 계속 혁신을 일으키며 계속 전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정신은 항일 유격대원들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찾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겪으면서 싸우던 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남조선 인민들은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몰아 내기 위하여 더욱 완강히 투쟁하며 군사 파쑈 도당들을 쓸어 버리기 위한 대중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은 더욱 굳게 단합하여 반미 구국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조선 인민의 혁명 력량은 어느 때보다 강대하며 투쟁의 전도는 명백합니다.

지난 날 항일 유격대원들은 우리 조국 강토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완전히 강점 당하고 우리 혁명 력량이 아직 미약하였을 때에도 혁명의 최후 승리를 굳게 믿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세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적수 공권으로 발톱까지 무장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대항하여 유격 투쟁을 개시하던 그 때에 비하여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일 무장 투쟁의 불멸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혁명의 불'길 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는 백전 백승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 조선 로동당이 있고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투쟁하는 통일되고 단결된 인민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주권을 튼튼히 틀어 쥐고 있으며 나라의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수 많은 민족 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침범하는 어떠한 원쑤라도 능히 격파할 수 있는 강유력한 인민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전 인민적인 방위 조직인 믿음직한 로농 적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대한 혁명 력량은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 국제 정세도 우리의 투쟁에 매우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 력량은 더욱 강대해지고 있으며 제국주의는 결정적으로 약화되였습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더욱 앙양되고 있으며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혁명 투쟁은 더욱 적극화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자들은 도처에서 각성된 인민들의 단호한 반격을 받고 그들의 침략 정책은 파탄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몰락하여 가는 자기들의 처지를 수습하며 끊어져 가는 여명을 유지하려고 타국에 대한 침략과 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부 윁남과 라오스에 대한 공개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하고 있으며 꾸바 혁명을 말살하려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침략과 전쟁 도발에 광분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며 자기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사회적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전 세계 로동 계급과 평화 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인 담보입니다.

조선 인민은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전 세계 인민들의 공동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며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조선 인민은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의 단결을 더욱 굳게 하고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할 것입니다.

동지들!

조선 인민은 지난 30년 간의 혁명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투쟁의 선두에는 절세의 애국자이며 조선 인민의 영명한 수령인 김 일성 동지가 서 있었습니다.

과거 준엄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있어서나 해방 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나 조선 인민은 김 일성 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모두다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그 령도를 높이 받들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광스러운 항일 유격대 창건 30 주년 만세!

조선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 로동당 만세!

통일된 조선 인민 만세!

(1962년 4월 25일)

성 토 문

《군사 정변》 이후 미제와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이 감행한 죄악을 폭로 단죄하여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해방을 위한 대중의 한결 같은 지향을 총칼로 짓누르고 군사 파쑈 폭압이 온 남조선 땅에 무겁게 내리 덮인 때로부터 1 년이 지나 갔다.

군사 정변 후 남조선에서 지난 1 년 간은 해방 후 17 년간 미제가 감행해 온 파쑈적 폭압이 절정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군사 파쑈의 폭압 밑에서 인간의 존귀한 모든 것은 무참히 짓밟히고 《민주주의》와 《자유》의 마지막 흔적마저 여지 없이 말살되였다.

남조선에서 활개치는 것은 미제 침략자들의 전횡과 군사 파쑈 도당의 총칼 뿐이고 민족적인 것, 애국적인 것, 진보적인 것, 아름다운 기여의 모든 것이 탄압되고 질식되였다.

사람들은 사회 정치적 활동은 고사하고 사사로운 모임과 거리에서의 보행의 자유마저 박탈 당하였다.

자유가 없이 못 살겠다는 젊은이들의 한탄도 빈궁을 견딜 수 없어 세상을 저주하는 실업자들의 울화도 자제들의 진학의 길을 열어 달라는 어머니들의 단순한 소원도 그 모든 것이 가혹한 형벌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하여 교수형과 중형을 받은 애국자들 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남조선은 하나의 커다란 감옥으로, 공포의 도가니로 전변되였다.

경제적 파국은 더욱 심화되였으며 민생고는 가중되였다.

남조선에는 그 누구에게도 더는 안식처가 없게 되였으며 모든 계층이 불안과 울분에 잠겨 있다.

오늘에 와서 군사 정변이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되였다.

모든 사실들은 남조선의 군사 정변이 오직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팽배히 일어 나는 남북 평화 통일의 기운을 압살하며 남조선에서 뒤흔들리는 자기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수습하기 위한 미제의 최후 발악적 음모 책동이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 1 년 간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그의 17 년 간의 피비린 침략사에 더욱 피비린 범죄의 자욱을 기록하였다.

우리는 미제 침략자들과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이 감행한 천인 공노할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 단죄하며 전 민족 앞에서 성토한다.

(I)

1961년 5월 16일 이른 새벽 살기 어린 총'소리와 함께 남조선 땅은 가장 횡포하고 광란적인 군사 파쑈 통치의 검은 철제 하에 짓눌리게 되였다.

삼엄한 계엄령은 모든 사람들을 질식 상태에 몰아 넣었다. 살벌한 총검과 몽둥이가 온갖 질서를 대신하고 한 장의 포고령이 수천 수만의 애국적 인사들과 무고한 주민들을 감옥으로, 교수대로 끌어 갔다.

일체의 정당, 사회 단체들은 해산되고 언론, 출판 기관들은 폐쇄되였으며 식민지 통치 기구를 장식하는 도구에 불과하던 괴뢰 국회마저 해체되였다.

이리 하여 남조선은 미친듯한 《반공》 소동과 무제한한 살인 테로 행위 만이 란무하는 전대미문의 암흑의 천지로 전변되였다.

4월 인민 봉기 후 남조선 인민들은 머리 우에 드리운 암운을 쓸어버리고 광명한 새날을 맞이할 유일한 길은 오직 외세를 배제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통일만이 살'길이다》,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 통일 이룩하자!》는 구호 하에 장엄한 투쟁의 길에 나섰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전 조선 인민의 심장을 격동시키면서 온 강산에 메아리친 이 거족적인 웨침은 마침내 군사 분계선의 녹쓴 철조망을 무너뜨리고 남북이 소통할 력사적인 시각을 재촉하였다. 이에 당황 망조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온갖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군사 정변의 모험적 수단

에 매여 달리는 마지막 길에 들어 섰다.

지난 1 년간 미제와 군사 파쑈 분자들은 군대,경찰,감옥 등 파쑈적 폭압 기구를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하였으며 남조선 천지를 독기서린 첩보망의 그물로 뒤덮어 놓았다.

민주주의의 초보적 규범들인 언론,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 및 사상의 자유는 흔적도 없이 말살되였다.

그들은 군사 정변 후 불과 10 개월 간에 무려 2천 여 건의 각종 악법을 조작하였으며 자유와 민주주의와 생존을 위한 남조선 인민 대중의 초보적 요구마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불과 1 주일 간에 23 개의 정당들과 238 개의 사회 단체들을 강제 해산시켰으며 2천 300 개 이상의 언론, 출판 기관들을 폐쇄하고 수십만의 주민들을 검거 투옥하였다.

다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리유로 수천 수만의 애국 인사들을 체포 투옥하였으며 《사회당》 위원장 최 근우, 《통일 사회당》 정치 위원 리 훈구를 비롯한 수 많은 인사들을 감옥 안에서 야수적으로 학살하였으며 《사회당》 조직 부장 최 백근과 《민족 일보》 사장 조 용수를 비롯한 수다한 애국자들을 교수형에 처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일체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고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집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과 5~6 명이 동행하여 길을 걷는 것도 《집회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

동서 고금에 그 례를 볼 수 없는 이러한 암담한 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단 한시인들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는가!

언론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심하다. 《군사 정권》에 대한 사소한 의견은 고사하고 남조선에 창궐하고 있는 사회악의 일단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도 가혹한 형벌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 언론인들을 각종 부당한 구실을 붙여 탄압하였으며 소위 《언론 정화》의 구실 하에 량심적인 기자들을 몰아 내기 위한 언론 기관의 소위 《자가 숙청》을 계속 강요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교통 규칙 위반이라는 《죄명》으로만도 매일 수천명에 달하는 주민들을 처벌하고 있으며 각종 포고령 위반이라는 구실 하에 극장,영화관, 식당, 려관, 리발소, 유흥장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매일 매시간 수 많은 주민들과 업주들을 검거 처벌하고 있다.

심지어 조상때부터 내려 오는 관혼 상제의 의식까지도 소위 《국민 의례 규정》대로 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일제 말기의 본때 그대로 옷 모양도 마음 대로 하지 못하게 하며 가슴에 명패를 달고 다닐 것까지 강요하고 있다.

이리 하여 군사 파쑈 도당은 제멋대로 조작해 낸 각종 《법령》과 《포고》를 휘두르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그 누구를 막론하고 체포 투옥하고 있으며 모든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

남조선 검찰에서는 단지 8 개월 간에 14만 여 건의 《범죄》 건수를 취급하고 23만 여 명의 주민을·체포하였다. 이것은 8 개월 간에 남조선 주민 100 명 중 1 명을 처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만일 수 많은 수사 기관과 정보 기관과 경찰 기관에서 취급한 각종 범죄를 집계한다면 남조선 주민 중 군사 파쑈 도당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는가!

군사 파쑈 도당은 이처럼 남조선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하면서 《무더기 재판》,《속결 심판》 등의 파쑈적 방법으로 1일 900건, 30 초에 1 건씩을 처리하는 전무 후무한 속결 재판 기록을 자랑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이 범죄적 군사 파쑈 테로 통치를 《반공》의 구실로써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지난 날 미제는 바로 《반공》을 위하여 남조선을 《자유의 보루》로 《민주주의의 진렬장》으로 만든다고 떠들면서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엄폐하려 하였다.

오늘날 미제는 바로 《반공》을 위하여 남조선에 군사 파쑈 통치가 필요하다고 뇌까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런 새로운 것도 아니다.

히틀러도 무쏘리니도 도조도 자기들의 침략 행위를 엄폐하려 할 때는 언제나 《반공》의 구호를 내흔들었으며 이러한 자들은 례외 없이 멸망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리 승만 파쑈 통치의 10 여 년 간의 체험에 의해서 《반공》의 나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너무도 똑똑히 알고 있다.

미제는 그의 식민지 통치 지반이 뒤흔들리는 도처에서 남부 월남에서, 타이에서, 아르젠틴에서 《반공》의 구실 하에 가장 악랄한 침략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저주 받을 매국 역적 박 정희 일당은 자기의 정체를 은폐하려는 흉계 밑에 가증스럽게도 군사 정변이 《4월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듯이 떠벌리고 있다.

이 얼마나 철면피한 수작인가?

1960년 4월의 용사들은 바로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에 신음하게 하던 독재 정치를 반대하여 피흘려 싸웠다.

4월의 용사들은 외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진출하였다.

그런데 박 정희 도당은 미제에 예속된 남조선에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 들이기 위하여 온갖 매국 배족적 책동을 다하고 있다.

4월의 용사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를

요구하여 나섰다. 그런데 박 정희 도당은 바로 조국의 평화 통일을 주장한 모든 사람들을 가장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4월의 용사들은 자유와 민주주의,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하여 청춘의 피를 바쳤다. 그런데 박 정희 도당은 이러한 애국자들을 학살하고 검거 투옥하였다.

4월의 광장에서 피흘려 싸운 애국적 청년 학생들을 철창 속에 가두어 넣고 있는 살인 악당들이 4월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그것부터가 4월의 용사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박 정희 도당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과 같은 파쑈 테로 통치가 필요하다는듯이 떠벌리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온갖 형틀조차 남김 없이 파괴 유린한 것이 어떻게《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말하는《민주주의》란 바로 파쑈적 폭압의 연장을 의미할 뿐이다.

미제와 그의 주구들의 살인적 군사 파쑈 통치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미증유의 고통과 재화를 끼치고 있다.

군사 파쑈 통치 하의 남조선 인민들은 오늘 어느 한 계층도 앞날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여 있으며 무한정한 노예적 굴종만을 강요 당하고 있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이 감옥과 같은 암흑 통치를 연장해 나가려고 더욱 추악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들이 떠벌리고 있는 소위 《민정 이양》이란 왼 손에서 오른 손으로 정권을 넘겨 쥐는 기만극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벌써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일제 말기의 《국민 총력 련맹》의 재판인 소위 《국가 재건 국민 운동》을 통하여 장기 집권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발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헌법》도, 《선거법》도 기타 모든 통치 기구도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들어 내려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되는 일체 세력을 총검으로 억눌러 버리려 하고 있다.

최근에 조작된 또 하나의 파쑈적 악법인 소위 《정치 활동 정화법》은 일체 애국자들과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민정 이양》의 간판 뒤에서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 입고 파쑈 테로 통치를 계속하려는 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남조선 인민들은 군사 파쑈 통치 하에서의 지난 1 년 간의 체험을 통하여 명백한 결론을 짓고 있다.

미제의 광란적 군사 파쑈 독재는 그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이 강화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약화되였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발악적 탄압이 격심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인민 대중의 반발은 그만치 더욱 커질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오늘의 고통과 무권리를 언제까지나 참으려 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미제와 그 주구들의 군사 파쑈 통치를 전복하고야 말 것이다.

인민을 등진 자들은 노도와 같은 인민의 힘에 의하여 추상 같은 처단을 받고야 말 것이다.

그 어떤 가혹한 군사 파쑈 통치로써도 평화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을 꺾을 수 없다.

무너져 가는 식민지 통치를 구원해 보려는 미제의 범죄적 책동은 불피코 참패를 면치 못할 운명에 처하여 있다.

(Ⅱ)

군사 파쑈 통치의 지난 1 년간 남조선 경제는 더욱 빈사의 위기에 빠져 들어 갔으며 대중적 기아와 빈궁이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다.

생산과 류통, 재정과 금융의 전반에 걸쳐 경제적 파국은 극도에 달하였다.

군사 정권의 가혹한 언론 탄압 밑에서 발간되는 남조선 출판물들도 《경제는 침체 상태 속에서 헤매여 왔고 1 년이 다 가도록 끝내 침체에서 벗어 나지 못한 채 막을 내리고 말았다》고 쓰고 있다.

서울 방송은 오늘의 남조선을 가리켜 《직업을 잃고 헤매는 자가 많고 물가가 올라 주부가 울고 곡가가 떨어져 농민이 우는 이러한 사회가 되였다》고 통탄하였다.

남조선 기업체의 97%를 차지하는 중소 기업은 군사 파쑈 도당의 각종 억압 수탈로 인한 원료난, 동력난, 자금난, 판매난으로 인하여 시시 각각으로 문을 닫고 있다.

금년에 들어 와서만 1천 378개의 중소 기업이 페쇄되였으며 식료, 직물, 화학, 요업, 금속 등의 남조선 공업 생산액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 기업체들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외에도 1만 5천 여 개의 점포와 접객업체들은 강제 철거 당하였거나 영업권을 박탈 당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가동 중인 공장은 전체 공장의 10～20%, 광산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남조선 신문들이 전하는 데 의하여도 경인 지구, 부산, 대구 등 남조선의 《공업 지구》는 《죽은듯이 잠자고 있》으며 공장 시설은 《녹쓸고》 있다.

일제 시기의 3 분의 2에 불과한 공업 생산은 군사 정변 이후 작년 말까지에 다시 10%나 감소되였으며 금년에 들어 와서도 계속 하강 일로를 걷고 있다.

기간 공업은 군사 정변 당시의 보잘 것 없는 생산 지수에 비하여도 지난 해에 이미 8.3%나 저

하되였으며 그 중 광업은 62%, 전력 공업은 24.6%, 가공 공업은 2.3%가 감소되였다.

남조선의 농촌 경리는 더욱더 황폐화되였다.

작년도의 알곡 생산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75%에 불과하며 남조선 전역에 걸쳐 심각한 식량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이 감행한 소위 《농어촌 고리채 정리》는 령세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비참한 처지에 빠뜨렸다.

방대한 군사 경찰비 지출을 위한 군사 정권의 지폐 람발로 이미 작년 말 현재 최고 기록에 달하였던 화폐 발행고는 금년 3월에 다시 200억 환이나 증가하여 3천 500억 환에 달하였다.

한 서방 기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남조선은 《종이보다 지폐가 많은 나라》로 되였다.

철도, 전기 료금 등 공공 료금은 대폭 인상되고 전반적 물가는 작년 1 년 동안에 20%나 앙등하였다. 그러나 로임은 《동결》되고 미가는 생산비 이하에 억제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구매력은 3 분의 1 내지 2 분의 1로 격감되였다.

발광적으로 횡행하는 파쑈적 폭압과 더욱 심화되는 경제 파국으로 인하여 민생고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남조선의 모든 계층이 생활 방도를 잃게 되였으며 기아와 빈궁의 도탄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남조선 사회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는 실업자 문제는 군사 정변 후 더욱 악화되였다.

《실업자는 줄지 않고 대중의 생계 부담은 늘고 있으니 민생고는 매한가지다》라고 남조선 신문들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이 그의 사설에서 군사 정권이 《국토 개발 요원 기타로 실직자를 탐구하기에 힘 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으나 마치 원수(遠水)가 근화(近火)를 끄지 못 하듯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것은 우연치 않다.

춘궁기에 접어 든 농민들의 생활 상태도 한심하기 그지 없다.

절량과 기아가 호남과 령남의 곡창 지대를 휩쓸고 있는 오늘 동해의 연변과 울릉도, 제주도의 섬 사람들의 처지는 과연 어떠하겠는가? 《군사 정권》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자에 의하더라도 지금 남조선에는 당장 구호를 요하는 절량 농민이 34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오는 6월에는 절량 인구가 1 천만 명에 달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 기아의 땅에서 살'길이 어디 있겠는가? 남조선 출판물들은 다음과 같이 절망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춘궁기의 농촌에서는 초근 목피로 연명한다는 것으로 그 참상을 표현하거니와 도시의 극빈민으로는 그 초근 목피조차 얻을 수 없다는 데서 전가 자살이라는 극단의 비극을 빚어 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먹을래야 먹을 수 없고 살래야 살 수 없게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스스로 제 목숨을 끊는 자살 참극은 련일 꼬리를 물고 도처에서 속출하고 있다.

생활고를 비관한 어머니가 나어린 세 남매와 함께 음독 자살한 서울시 창신동에서의 사건, 남편이 직업을 구하러 나간 틈에 어린 세 자식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고 어머니 자신도 자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 와 이 광경을 본 남편도 목을 매여 죽고 만 대구에서의 사건 등 이런 참극이 평범한 일로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남조선이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서울 시내에서 자살을 기도하고 음독하여 시내 7 개 종합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자의 수만 하여도 129 명이나 된다.

생활고로 인하여 일어 나고 있는 기타 각종 참극들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다.

남편이 실직으로 아사에 직면한 11 식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생후 42 일째 되는 유아를 길'가에 내버린 어머니의 그 심정이 얼마나 애절하였겠는가? 생활고로 인하여 창녀로 굴러 떨어진 5 남매의 자녀를 가진 40대의 어머니와 일곱 식구의 가족을 먹여 살릴 길이 없어 자신을 노예로 팔 것을 광고하여 나선 제대 군인의 가슴은 또한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는가!

이 수 많은 비통한 사실들은 듣는 사람의 애를 끊고 폐부를 어인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의 가중하는 생활고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 나려고 낡아빠진 《인구 과잉》론까지 또다시 내흔들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이 《원조》의 미명 하에 계속 감행되는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발광적인 군비 확장 정책, 이에 추종하는 군사 파쑈 도당의 매국 배족 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은 무엇으로서도 감출 수 없다.

이것은 군사 파쑈 도당이 그 무슨 《자립 경제 수립》과 《빈곤 추방》을 운운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경제 재건 5 개년 계획》의 기만적 정책에서도 명백히 폭로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앞으로 5 년 동안에 남조선의 경제가 40.7% 성장될 것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으며 이것을 구실로 인민들로부터의 세금 수탈은 현재보다 배나 더 증가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조선 일보》도 《5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대로 소득 증가률보다 국민들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말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조세 부담 문제는 념두에 두지 않고 국민 소득 자체의 장성 비률만을 따져 본다 하여도 일반 대중에게는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절대적 소득액의 뚜렷한 감소가 계획되여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5개년 간에 국민 소득이 41.4% 증대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의 압도적 부분은 외국 자본가와 예속 자본가들의 손에 들어 갈 것이 예견되여 있다.

로동자들의 소득 장성은 다만 1.66 배를 계획하고 있으나 계획에는 또한 이 기간 광공업, 운수, 상업 부문의 취업 로동자는 1.64 배 증가할 것이 포함되여 있다.

로동자의 개인 소득은 사실상 그 어떤 증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는가?

농어민, 령세 상공업자의 전체 소득도 1.15 배 증가할 것이 예견되여 있으나 5 개년 간에 이 부문 인구가 농민만 하여도 1.26 배 증가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은 결국 매개인 별 소득은 현재보다 더 축감된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이 제반 사실들은 설사《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수행된다하여도 인민 대중에게는 보다 더한 참혹한 생활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출판물들도 《더욱더 파국이 격화되는 <계획>을 손수 수립하고 있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 자신들이 5 개년 후에도 인민들은 계속《내핍 생활》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리유 없는 일이 아니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진짜 목적은 그 어떤《복지 사회》건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침략과 전쟁 음모를 위한 인민 대중의 가혹한 수탈에 있다. 5 개년 계획의 총 투자액 중 절반 이상이 경제 건설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기간 공업보다도 철도, 체신, 항만, 도로 공사와 같은 군사적 잠재력을 일층 강화하는 데 중점이 돌려 지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를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당군사 파쑈 도당들 자신이 《5개년 계획은 군사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실토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이《외자 도입은 5 개년 계획 성패의 관건》이라고 떠벌리고 있는 것은 또한 이 계획의 망국 배족적 성격을 그대로 말하여 준다.

군사 파쑈 도당은 지금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서독, 이태리 등 자본주의 제 국가들로부터 약 14 억 딸라에 달하는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외국 자본가에게 온갖 특권을 다 보장해 줄 것을 규정한 세계에 류례 없는 더 굴욕적인 매국적《외자 도입 촉진법》까지 조작해 냈다.

미제는 일본 독점 자본을 남조선에 끌어 들이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고 발광하고 있다.

군사 통치배들이 떠들고 있는 《5 개년 계획》이란 철두 철미 군사적 계획이며, 예속의 계획이며, 인민 수탈의 계획이며 아무런 담보와 밑천도 없는 허황한 계획에 불과하다.

탐욕적인 외국 독점 세력에게 남조선을 2중 3중으로 제물로 바쳐 뜯어 먹게 하고서 무엇을 남겨 놓겠단 말인가?

홍콩에서 발간되는 잡지《이스튼 호라이즌》이《남조선의 현재의 실정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장래는 그보다 더 암담하다는 것이 일반의 견해》라고 지적한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다.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 하에서 17 년 간이나 황폐화된 남조선 경제를 아무런 밑천도 능력도 없고 다만 총칼 밖에 모르는 군사 깡패의 무리들이 무엇으로써 바로 잡을 수 있겠는가! 미국 상전의 소매에 매여 달려 있는 자들이 전날 우리 민족을 악착하게 억압, 착취, 략탈한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외래 독점 자본까지 끌어 들여《5 개년 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실로 가소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 한 그 괴뢰로서 누가 등장하건 사태는 결코 달라질 수 없으며 고통 받는 인민들의 처지는 악화 일로를 걷게 될 뿐이다.

(Ⅲ)

군사 정변 이후 남조선 사회에서 더욱 급격히 만연하고 있는 것은 오직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극도의 사회악과 무서운 각종 질병 뿐이다.

정치 경제적 위기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민생고가 절정에 달한 오늘 남조선에서 사회악은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는 세기말적 풍조로서 구석구석에까지 흘러 넘치고 있다.

조상 전래의 미풍 량속이란 흔적도 찾아 보기 힘들게 되였으며 살인, 강도, 절도, 폭행, 사기, 횡령, 패륜, 패덕, 매관, 매직 각종 수회만이 사회 생활을 지배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부정 부패의 시정》과《구악의 일소》에 대하여 떠들어 댔으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구정권》시기 보다도《부정 부패》는 더욱 우심하다. 고관들은 인민의 고혈을 짜낸《국고금》을 탕진하여 배를 불리고 헌병, 경찰들은《범법자》를 날조하여 재물을 탈취하고 교통순경은 운전수의 푼돈을 긁어 먹고 법무, 세무 관리들은 령세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내고 있다.

이《부정 부패》의 탁류 속에서 버림 받은 10 대 소년들이 소매치기, 날치기, 절도단 행세라도 하지 않고서는 살아 갈 길이 없으며 굶어 죽게 된 늙은 부모를 구하기 위하여 14 세의 소녀가 륜락의 길에 굴러 떨어져 양키들의 롱락물이 되고 마는 목불인견의 통탄할 참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깡패 소

을 운운했으나 깡패는 근절되지 않았으며 일반 범죄 건수는 더욱 증대 일로를 걷고 있다.

부정 축재자를 처벌하겠다고 떠들던 군사 파쑈 도당이 부정 축재자들을 《특사》로 《고문》으로 등용하고 있다.

《빈곤 추방》이나 《민생고 해결》은 고사하고 도시 미관을 운운하면서 '판자'집 철거를 강행하는 군사 파쑈 도당의 횡포로 하여 사람들은 '판자'집에서 마저 쫓겨 나서 몸 둘 곳이 없게 되였다.

애당초 하나의 거대한 《부정 부패》 행위의 조직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군사 깡패의 집단이 그 어떤 《부정 부패》를 시정할 수 있겠는가?

군사 파쑈 도당은 이 모든 진상이 폭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최근에는 《불모의 언덕》으로 불리우고 있는 서울시 성북구 삼양동 천막촌에서 한 로인이 굶어 죽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동아 일보》사 기자를 체포 투옥하였으며 깡패들이 여전히 발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하여 《리적 행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씌워 《한국 일보》 기자를 《고등 군법 회의》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이런 폭압으로써도 군사 파쑈 도당은 남조선 땅에 차고 넘친 참상과 부정 부패의 진상을 가리울 수는 없다.

《군사 정권》 자신이 공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금년 1월 남조선 전역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만 하여도 6천 49 건에 달하며 기타 형사범의 수는 1만 3천 713 건을 헤아리고 있다.

2월 한 달 동안에 남조선 각지에서 검거된 소매치기, 날치기는 8천 857 명에 달하였다.

《서울 신문》은 《봄철에 접어들면서 도적 날치기들이 부쩍 늘어 가고 있다. 특히 10 대 소년들의 범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썼다.

《한국 일보》에 의하면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의 200 여 호 주민들은 작년 봄 이래 근 100 회나 도적을 맞았다.

《지금 이 마을 주민들은 방문, 벽장, 장농, 부엌에 이르기까지 안팎에 큼직한 자물쇠를 채우고 밤에는 자가 방위대를 편성하고 식구가 교대로 몽둥이를 들고 밤을 새우며 해가 기울자 무섭게 문이란 문은 모두 잠울쇠를 채우》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한국 일보》는 사설에서 《생각만 해도 부끄럽게 몸서리치는 것은 우리 한국이 도적의 나라라는 불명예스러운 혹평을 받아 왔다고하는 어느 외국 기자의 소감을 들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는 점이다》라고 개탄하였다.

남조선에서 사람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들은 물론 이것만이 아니다.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그칠 없이 일어 나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교통 사고, 화재 사고 등 각종 사고는 어느 하루 어느 시각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있으며 불상사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마음 놓고 길을 거닐거나 차를 탈 수도 없고 운동장이나 극장에도 갈 수 없게 하고 있다.

1961년 1년 간에 교통 사고만도 5천 736 건에 사상자 8천 298 명이란 해방 후 최고의 '수'자에 달하였다. 인간 최하층의 생활에 보건 시책이 전무하므로 각종 무서운 질병은 창궐 일로를 걷고 있다.

결핵 감염자 수가 전체 인구의 70%인 1천 750만 명에 달하며 그 중 당장 치료를 요하는 위급한 환자만도 80만 명이나 된다.

남조선 기생충 학회는 남조선 전 인구인 41%가 지스토마 환자이며 전 국민의 90%가 회충 환자이며 전 국민의 40% 이상이 12지장충 환자라고 발표하였다.

실로 오늘 남조선은 사람들이 호흡조차 마음 놓고 할 수 없으며 불안과 공포 없이는 살아 갈 수 없는 암흑의 천지로 되였다.

바로 이러한 암담한 형편이니 지금 남조선에 30만 명의 정신병 환자와 200만 명의 신경 과민 환자가 있다는 것이 어찌 리유 없는 일이겠는가?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군사 파쑈 도당은 이와 같이 격심한 민생고와 말세기적 양상을 눈 앞에 두고서도 그 무슨 《업적》에 대하여 운운하며 《사회가 명랑》해졌다고 떠벌리고 있다.

남조선에서 각종 사회악과 세기말적 풍조가 더욱 창궐하게 된 것도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 통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며 계획적으로 빚어 낸 정책적 산물이다.

지난 1년 간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인간 개조》니 《정신 혁명》이니 하는 구호 하에 인민들 속에서 허무주의와 굴종의 사상을 고취하며 민족적 자부심과 투쟁 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각 방면으로 더욱 강화하였다.

발악적으로 감행되는 그들의 식민지 몽매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난 1 년 간 대학만도 21 개 폐쇄되였으며 10만 여 명의 대학생이 축감되였다.

강제적으로 단행된 《대학 정비》의 후과로서 남아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도 심각한 운영난에 빠지게 되였으며 교직원을 대폭적으로 해임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지난 3월 5일 《서울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국립 대학》이란 《서울 대학교》까지도 《강사급의 전원 해임 군 집단 소집 등으로 강의를 계속 하지 못할 만큼 심한 타격을 받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국민 학교와 중고등 학교의 실태는 더욱 한심하다.

《군사 정권》 자신이 발표한 바

에 의하더라도 1961년도 국민 학교 교실 수의 절대 부족 량은 3만 5천 여 교실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 신문들이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이라고 개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심각한 교실 난에 부닥친 국민 학교들은 60 명 정원의 교실에 120 명을 수용하는 것이 보통 현상으로 되고 있으며 한 걸상에 5명의 학생이 앉아서 공부하는 학교, 천막을 교실로 대용하며, 운동장을 교실로 대용하는 학교 심지어 의자와 흑판조차도 없이 맨땅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교 등이 허다하다.

교실이 무너 앉아 수라장을 이루고 기둥이 썩어져 나가 보목을 대고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 바람 소리만 나도 수업하다 말고 밖으로 내달려야 하는 학교가 얼마든지 있다.

이러한 학교 아닌 학교나마 가지 못하는 학령 아동만도 무려 80만을 헤아리고 있으며 설혹 학교에 간다 하여도 교과서도 없고 교원도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군사 정변 후 과학계도 더욱 침체 상태에 빠져 들어 갔다.

과학 연구 기관들은 연구 시설과 연구비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아무런 국가적 보장도 없는 조건에서 개별적 과학자들이 고심 참담하여 만들어 낸 발명 창안들도 버림 받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이 강요하는 파쑈적 규률 하에서 과학자들은 이제 와서 연구의 자유마저 완전히 박탈 당하였다.

우리의 전통적인 민족 문화 예술과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슬기로운 모든 것이 퇴폐적인 양키 문화에 짓밟혀 말살되고 있으며 고귀한 문화 유산은 계속 파괴 략탈되고 있다.

문학 예술인들에게는 오직 《반공》 선전에 동원될 것만이 집요하게 강요되고 있으며 외세에 대한 굴종과 인간 증오 사상을 설교하고 부패 타락과 색정주의와 전쟁을 선동하며 죽음과 염세주의를 례찬하는 것만이 허용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천문대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인 경주 첨성대는 기울어져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으며 세계적 문화 유산인 석굴암과 서울 남대문은 얼마 전 대보수한다는 허울 좋은 명목 하에 되는대로 해체되여 그 원상을 회복하기 곤난한 뼈아픈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교육 문화 과학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이러한 파괴적 정책의 결과에 과학 문화인들과 교육자들의 생활고는 날로 더욱 격심하여지고 있다.

《경향 신문》은 《생활이 안되니 …교수들이 가방을 끼고 행상처럼 여러 학교를 뛰여 다녀야 한다는 것은 한국적인 특색》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군사 파쑈 도당은 이것마저 금지함으로써 대학 교수들을 더욱 큰 곤경에 몰아 넣고 있으며 정년 퇴직 당한 100 여 명의 학자, 교수들은 형언하기 어려운 생활고를 겪고 있다.

비교적 많은 작품을 쓴다는 작가들도 병이 나도 치료비가 없고 집세를 못내 셋'집에서 쫓겨나고 있는 형편이며 이름 있는 배우들이 생계를 위하여 륜락의 밤'거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이 모든 참상들은 량심 있는 모든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통분을 금할 수 없게 하며 미제와 그 주구 박 정희 일당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일층 격발시키고 있다.

(Ⅳ)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한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 막기 위한 최후 발악적 수단으로서 군사 파쑈 정변을 조작하고 동족 상잔의 새 전쟁 도발을 위한 발광적인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군사 정변 후 남조선에서의 지난 1년 간은 몸서리치는 테로와 학살의 1 년이였으며 화약 냄새 풍기는 범죄적 침략 전쟁 준비의 나날이였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은 대대적으로 증강되고 신형 장비로 계속 보강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머리 우에는 전쟁의 검은 구름이 무겁게 떠돌고 있다.

작년에만도 신형 무기로 장비한 4 개의 미군 전투단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군사 분계선 근방에 배치하였다.

공장은 문을 닫고 산업은 파괴되였으며 농토는 황폐화되였으나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비행장을 건설하고 항만을 수축하며 군사 도로를 닦고 군수 창고를 세우는 등 군사 시설 확장에만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다.

피리를 불고 남조선에 기여 드는 미제의 호전 장군들은 미친듯 《림전 태세의 완비》를 부르짖고 있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청장년들을 대대적으로 괴뢰군에 강제 징집하고 있으며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도발적인 군사 소동을 끊임 없이 감행하고 있다.

작년 8월 미제는 동해안 일대에서 미 제 7 함대의 주동 하에 《원자전 가상》하의 륙 해 공 군 합동 《상륙 작전》을 감행하였다.

또한 10월에는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원자전 가상》 하의 《림진강 도하 작전 연습》을 진행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7만 5천 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공화국 북반부 《공격》을 목표로 하는 미군 및 괴뢰군 《합동 기동 연습》을 벌려 놓았다.

미 륙군 참모 총장 덱거는 조선에서의 정전은 《단순한 휴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림전 태세》를 완비해야 한다고 떠벌렸으며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관 멜로이는 《전쟁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 미군과 괴뢰군의 《작전 계획을 재 검토》하고 만단의 전투 태세를 갖추는 데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통일을 실력으로 전취》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호전적인 망발을 늘어 놓고 있으며 동족 상쟁의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미국 침략자들은 괴뢰군 통수 체계를 침략 전쟁에 적응하게 정비 강화하고 괴뢰 상층 장교들을 호전적인 친미 주구로 교체하였으며 괴뢰군의 장비를 각종 신형 무기로써 《현대화》하고 있다.

박 정희 도당은 금년에만도 30만 명을 《징병 대상》으로 설정하고 닥치는 대로 청장년들을 끌어 내고 있으며 제대 장병들을 모조리 《예비군》에 망라시켜 군사 훈련장에 내몰고 있다.

지난 4월 남조선에 기여든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렘니쩌는 《남조선에서처럼 그러한 높은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가 그렇게 부단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고 공언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이 실업자 구제를 운운하며 내놓은 소위 《국토 건설단》도 기실은 군사 시설과 군수 산업 건설에 인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미제 침략자들은 군사 정변 후 더욱 빈번히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전쟁 준비 책동이 얼마나 광란적인 것인가 하는 것은 그들이 지난 해 극동에 배당한 군사 《원조》비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2억 8천 144만 딸라를 남조선에 제공하였으며 금년도 해외 군사 기지 건설비의 25%를 남조선에 배당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찾아 볼 수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자기들의 음흉한 침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며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에 묶어 세우려고 서두르고 있다.

근 반 세기 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조선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지금 공공연히 일본의 《방위》를 위하여 남조선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침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우리 조국에서 또다시 동족 상잔의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범죄적 책동을 용서할 수 없다.

무엇 때문에 하나의 혈통을 이어 받은 우리 민족이 동족끼리 서로 싸우겠는가?

미 제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은 이 모든 범죄적 책동도 상투적인 《반공》의 구실하에 감행하고 있다.

과연 공화국 북반부로부터 어떤 위협이 존재한단 말인가?

인민의 세기적 숙망을 해결하는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락원의 건설이 과연 미국에 대한 《침략》으로 된단 말인가?

우리의 공장과 기업소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계들과 꽃무늬 비단천이, 전야에서 무르익은 오곡백과가 과연 그 어떤 《위협》으로 된단 말인가?

북으로부터의 《위협》이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주구들이 만들어 낸 가소로운 헛소리이며 그들의 남조선 강점과 전 조선 침략 기도를 은페하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방패에 불과하다.

엄연한 력사적 사실은 누가 우리 조국의 인공적 분렬을 제거하고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누가 이를 반대하였는가를 똑똑히 말하여 주고 있다.

해방 후 첫날부터 조선 인민은 통일된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를 방해하고 우리 조국의 분렬과 식민지화를 꾀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시종 일관 노력하였고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에 대하여 류혈적 침략 전쟁으로까지 대답하였다.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의 방해 책동이 아니였다면 우리 조국은 이미 오래 전에 통일되였을 것이며 남조선 인민은 오늘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되였을 것이다.

박 정희 일당은 《국군》의 이름으로 군사 정변을 일으켰으나 그 결과 지금 《국군》 장병들 앞에 차례진 것은 무엇인가.

《국군》 장병들을 더욱 큰 범죄와 죽음의 구렁으로 몰아 넣으려는 것 밖에 없다.

군사 파쑈 도당은 《국군》 장병들에게 굶주림과 빈궁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 자신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탄압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동족을 반대하는 새 전쟁에 내몰려 하고 있다.

이 극악한 반역자들은 지금 미제의 침략적 대포'밥으로서 《국군》 장병들을 남부 월남의 밀림 지대에까지 파견하여 개죽음을 당하게 하려 하고 있다.

미제와 그의 주구 군사 파쑈 도당의 발광적인 전쟁 도발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욱 헤여 날 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려는 범죄 행위이며 극동과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 *

남조선에서의 극악한 군사 파쑈의 통치의 1 년은 해방 후 17 년간의 제반 력사적 사실과 함께 미제 침략자들이야말로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침략자이며 가장 야수적인 살인 강도들이며 가장 탐욕적인 략탈자이며 남조선을 오늘과 같은 기아와 빈궁과 무권리의 암흑 천지로 전변시킨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한 첫날부터 우리의 금수 강산을 조선 인민의 원한 어린 피로 물들였으며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슭거로운 모든 것들을 닥치는 대로 파괴 유린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포, 형제들이 미국 야수들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되고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모욕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모·처자들이 재산을 략탈 당하고 억울하게 쓰러졌던가!

미국 침략자들은 백주에 우리의 민가를 집단적으로 습격하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사격 련습의 과녁으로 삼아 쏘아 눕히고 나물 뜯는 소녀들을 꿩이라고 쏘아 죽이고 우리 녀성들의 머리채를 깎아 버리고 하반신에 뼁끼칠을 하여 거리에 내쫓으며 재물을 략탈하고 부녀자를 릉욕하는 등 온갖 귀축 같은 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바로 이 저주 받을 원쑤들이 박 정희 살인 악당을 부추기고 있으며 바로 이 간악한 침략자의 비호 밑에 박 정희 일당은 광란적으로 군사 파쑈 통치의 피묻은 총칼을 휘두르고 있다.

박 정희 일당이야말로 리 완용 리 승만을 릉가하는 가장 철면피하고 흉악한 민족 반역자이며 무지막지한 인간 도살자이며 조선 인민의 극악한 원쑤이다.

박 정희는 과거 일제가 길러낸 특무로서 일제에게 온갖 충성을 다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미제를 새로운 상전으로 섬기고 그의 첩보 기관에 충성을 맹세한 타기할 매국노이며 인간 쓰레기이다.

박 정희는 그의 이 추악한 정체를 이미 온 세상 앞에 여지 없이 드러내 놓았다.

이 매국 주구는 지난 가을 일본의 옛 주인을 찾아 갔을 때 수치도 모르고 자기는 《명치 유신때의 근왕파》와 같은 정신으로 투쟁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치를 배워 달라》고 아양을 떨었다.

재생한 일본 군국주의 자들은 지금 자기의 이 손때 묻은 옛 주구를 길잡이로 남조선에 새로운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 있다.

미국에 불려 가서 이 매국노는 케네디로부터 남조선을 류혈적인 테로와 전쟁 준비 소동에 몰아 넣을 데 대한 새로운 지지를 받고 《미국의 번영을 위하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으며 미국이 《한국을 령도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신에 감사를 드린다》고까지 매국적인 본심을 토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정희 도당은 처음부터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의 증오와 배격을 받아 철저히 고립되여 왔으며 어느 한 계층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다.

군부 내에서도 날로 우심해 가는 군사 깡패들의 횡포와 추악한 권력 다툼에 대한 불평 불만이 높아 가고 있다.

박 정희 살인 악당들의 군사 파쑈 통치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들은 오직 미제의 총검의 비호 하에서만 여명을 부지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박 정희 도당의 반인민적 군사 파쑈 통치를 유지 연장하기 위하여 단말마의 발악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원쑤들은 어떠한 방법으로써도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는 반동 통치의 붕괴를 막아낼 수 없다.

폭압은 다만 인민의 분노를 더욱 격발시킬 뿐이다.

반간년의 기나 긴 력사를 두고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애국적 투쟁과 학정을 반대하는 줄기찬 항쟁을 거쳐 단련된 우리 조선 민족의 슬기롭고 용감한 백절 불굴의 기개를 꺾을 힘은 없다.

을지 문덕, 강 감찬, 리 순신 장군들의 자랑스러운 이름과 더불어 우리의 유구한 력사는 빛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의 심장 마다에 애국 선렬들의 이 고귀한 정신이 맥박 치고 있다.

간악한 일제의 야수적 폭압 하에서도 전인민적 3.1 봉기와 광주 학생 운동을 비롯하여 일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영웅적인 반일 투쟁은 어느 한 때도 그치지 않고 계속되였다.

특히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김 일성 원수를 위시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백두의 밀림과 만주 벌판에서 15 개 성상의 장구한 세월 백절 불굴의 혁명 정신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여 일제의 멸망을 촉진시켰으며 우리 민족의 영웅적 기개를 온 세상에 떨쳤다.

조선 민족은 일찌기 미국이 이 세상에 생기기도 전에 이미 찬란한 문화 전통을 빛내인 민족이다.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오만 무례한 전횡과 비인간적 학대와 민족적 멸시를 우리는 더는 참을 수 없다.

남조선 인민들은 살인과 강도 행위로 치부한 해적의 후예들인 미국 침략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조만간 민족적 해방을 위한 전 인민적 항쟁에 떨쳐 나서고야 말 것이다.

리조 봉건 통치의 폭압 속에서도 전 봉준과 같은 우리의 애국 선렬들은 학정을 반대하는 영용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하물며 오늘 나라의 북쪽 절반땅에 부강한 조국 건설의 위대한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세계의 대세도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식민지가 해방되며 제국주의가 멸망하여 가는 조건 하에서 어찌 남조선 인민들이 언제까지나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우리는 남조선 인민들이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고 극악한 살인 악당인 박 정희 도당을 타도하며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 인민적 반미 구국 투쟁의 성스러운 투쟁에 결연히 궐기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리 승만 파쑈 통치의 아성을 하루 아침에 전복하고 만 4월 인민 봉기의 영웅적 기개는 오늘도 남조선 인민들의 가슴 속에 생생히 살아 있다.

남조선 인민들의 첫째가는 투쟁 대상은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로동자도, 농민도, 청년 학생도, 군인도, 중소 상공업자도 모든 계층의 인민들은 한결 같이 단결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결정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양키들에게 한 알의 쌀도, 한 모금의 물도 주지 말고 놈들로 하여금 발 붙일 곳이 없게 하라!

박 정희 도당을 쓸어 버리고 남조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서라!

남조선에서 계엄령은 즉시 철폐되여야 하며 모든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 등 민주주의적 자유가 실현되여야 하며, 체포 투옥된 일체 애국적 인사들과 무고한 주민들은 무조건 석방되여야 한다.

남조선 로동자들에게 일자리가 보장되여야 하며, 8 시간 로동제와 최저 임금제가 실현되고, 국가 및 기업주 부담에 의한 사회 보험제가 실시되여야 한다.

미제와 예속 자본가, 친미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인 공장, 광산, 철도, 운수 및 은행은 국유화되여야 하며 중소 상공업자들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과 가렴 잡세가 폐지되고 민족 경제를 발전시킬 실질적 대책이 수립되여야 한다.

일체 봉건적 소작 제도는 청산되여야 하며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원칙에 의한 토지 개혁이 실시되여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의 소유로 되여야 한다.

강제 징발된 토지는 농민들에게 반환되여야 하며 량곡에 대한 강제 수탈이 금지되고 절량 농민들과 리농민들에 대한 실제적인 구호 대책이 수립되여야 한다.

민주주의적 민주 교육과 국가 부담에 의한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여야 하며 학원의 모리화와 군사화가 근절되고 졸업생들의 완전 취업이 보장되여야 하며 청년 학생들에 대한 강제 징소집이 폐지되여야 한다.

부패한 양키 문화와 미국식 생활 양식을 반대하고,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며, 학술 연구와 창작 활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이 이 모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혁명적인 당을 가져야 하며 정견과 신앙, 과거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다 반미 구국 통일 전선의 기치 하에 단결하여야 한다.

《국군》 장병들은 더는 미제의 고용병이 되지 말고 군사 통수권을 탈환하여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족의 군대로, 인민의 군대로 되여야 한다.

북조선에는 《국군》의 원쑤가 없다.

《국군》 장병들은 동족 상잔을 고취하는 미제 침략자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라!

미제의 흉악한 주구인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을 때려 부시라!

땅크도, 대포도, 군함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굳게 단결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의 우렁찬 전진을 가로 막을 수 없다.

미제 침략자들은 수치스러운 참패의 운명에서 결코 구원될 수 없다.

미제 침략자들이 남아 있는 한, 우리 조국의 통일 독립이 실현되지 않는 한 우리 인민은 투쟁에서 물러 서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신성한 조국 강토에는 어떠한 외적도 남아 있을 자리가 없다.

조선은 하나이며 조선은 영원히 조선 인민의 것이다.

통일된 조선 인민 만세!

1962년 5월 15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조선 직업 총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농민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문학 예술 총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조선 학생 위원회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1차 회의에서 한 보고

최 용건

대의원 여러분!

최근 남조선에서는 빈발하는 미군의 야수적인 폭행을 항의 규탄하는 청년 학생들의 반미 투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안하 무인격으로 살인과 폭행을 자행하는 미제 침략자들은 또다시 지난 5월 29일 파주에서 조선 사람에 대하여 악독한 《린치》를 감행하였으며 그 후에도 살인과 폭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과 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미군의 만행은 전체 조선 인민의 격분을 자아 내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에 대한 미군의 치욕적인 만행에 분개한 고려 대학교, 서울 대학교, 대구 대학 학생등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항의 대회를 열고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시위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

와 출판물들이 미군의 살인 폭행을 단죄하며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나섰습니다.

금번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 투쟁은 침략자들의 참을 수 없는 모욕과 학대에 대한 민족적 의분의 폭발이며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항거하는 애국적 투쟁입니다.

남조선 인민들의 앙양되는 반미 투쟁에 당황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자기들의 죄행을 은폐하며 대중의 분노를 무마하려고 간교한 술책을 꾸미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조선 주둔 미군 당국자들은 적반하장격으로 조선인 피해자가 《도적》이였으며 미군의 폭행은 사실이 과장된 것이라고까지 뻔뻔스럽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평화적 주민을 함부로 살해하며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도 범죄자인 미군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죄 없는 피해자인 조선 사람이 《도적》이라고 하는 이 악랄한 언행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을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내 놓은 것이며 조선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멸시와 모욕의 표시로서 전 민족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군의 죄행을 규탄하며,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 투쟁을 지지하는 대중 투쟁의 파도는 오늘 전국에 확대되고 있으며 멀리 해외에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공화국 북반부 청년 학생들과 로동자, 농민 각계층 인민들은 물론 재일본 조선 청년 학생들과 공민들도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지원하여 나섰으며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며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 군대가 당장 물러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파주에서 있은 것과 같은 미국 침략 군대의 만행은 비단 어제 오늘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남조선을 식민지로 예속화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노예화하기 위한 침략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탐욕스러운 미국 독점 자본가들의 침략 도구이며 그 돈'주머니를 지키는 번견인 미국 군대는 남조선에 기여든 그 때로부터 폭군으로 군림하였으며 그 조상들이 미주 대륙을 정복하기 위하여 원주민들을 사냥하던 습성 그대로 남조선 인민들을 탄압 학살하였으며 천대 멸시하였습니다.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의 전 기간은 폭압과 류혈, 파괴와 략탈로 일관되여 있습니다.

전쟁 전 1949년까지의 기간에만도 남조선에서는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고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활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 죄로 되여 25만 여 명의 애국적 인민들이 미군의 사촉 하에 살륙 당하였으며 제주도에서는 1948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에 그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 여 명이 학살되였으며 남해의 이 섬은 인민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특히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가 지난 조선 전쟁 기간에 감행한 죄악적인 만행은 력사상 가장 악랄한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공장, 기업소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병원, 주택들을 무차별적으로 파괴 소각하였으며 화학 무기와 세균 무기까지 동원하여 평화적 주민을 살해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빚어 내였습니다.

미국 살인귀들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 로인들과 부녀자들을 가리지 않고 조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총살하거나 창고에 감금하여 휘발유를 치고 태워 죽였습니다.

1951년 9월 15일 미국의 유피 통신이 보도한 데 의하더라도 그 때까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학살 당한 주민 수는 100만에 달합니다.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는 그가 일시적으로 강점한 불과 1 개월여의 기간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수 십만의 인민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들은 황해도에서만도 10여만의 주민들을 학살하였으며 그 중 신천군에서는 주민의 3분의 1에 달하는 3만 5천여명을 살륙하였습니다. 인간의 리성으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이 모든 만행들은 조선 민족을 말살하려는 미국 통치배들의 계획에 따라 미군 사령부에 의하여 직접 조직되고 집행된 것입니다. 조선 전쟁 시기 미 제 8 군 사령부는 명령서에서 자기 병사들에게 어린애나 로인들이라 할지라도 주저 없이 죽여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 《유엔군 병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미 제 5 공군 사령부는 비행사들에게 《군복을 입었거나 일반 시민의 복장을 하였거나 할 것 없이 조선인 무리를 사살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군의 침략성과 야수성을 증시하는 것으로서 이미 세상에 폭로된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조직된 살인자의 집단인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는 전후 남조선에서 계속 갖은 악행을 다하고 있으며 도시와 마을을 살륙이 횡행하는 암흑의 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을 심심풀이로 사살하며 사격 연습의 과녁으로 삼으며 돌격 훈련의 대상물로 삼고 있습니다.

1955년 10월 22일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간상리에서 미 공군 소속 비행기는 밭에서 보리 파종을 하던 농민들을 《공격 훈련 목표》로 삼고 폭탄을 투하하여 학살하였으며 1956년 12월 28일 렬차를 타고 가던 미군은 충청남도 조치원역에서 조선 로무자를 차에 끌어 올린 후 총으로 쏘아 죽이고

달리는 렬차에서 내려뜨렸습니다.

1957년 7월 6일 인천시 송의동 부근에서 송유관 경비를 하던 미군 병사는 세살난 어린애를 휘발유 《도적》이라고 사살하였으며 1960년 5월 15일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백련리에서 미 제 9 기갑련대 소속 병사는 부락 주민에게 신분증을 보일 것을 요구한 후 그의 안면에 권총을 발사하여 즉사케 하였습니다.

이상의 것들은 엄격한 보도 관제 하에서도 새여 나온 수 많은 사실 중에서 일부 실례에 불과합니다.

동물적인 본능에 사로잡힌 미군들은 산에서 나무하는 조선 농민을 《꿩》이라고 쏘아 죽이며 들에서 노는 아이들을 《오리》라고 쏘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녀자들을 감금하고 총창으로 찌르며 군견을 풀어 물어뜯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도전하며 인류의 량심과 문명을 짓밟는 미제 침략 군대의 만행은 흉악한 인민 도살자인 히틀러 군대의 야수성을 릉가합니다.

제 나라 제 땅에서 우리 동포가 외적의 무리에게 매일과 같이 참혹하게 학살 당하는 이 비극적인 사실은 조선 사람으로서 그 누구나 치솟는 격분을 금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열렬한 동포애와 불굴의 민족적 기개를 가졌으며 정의와 민족의 영예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언제나 용감한 우리 인민이 어찌 자기 부모 형제들이 양키 군대의 사냥의 희생물로 되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민은 침략자들의 만행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는 조선 사람들을 함부로 살해할 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을 모욕하며 그들에게 갖은 행패를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전쟁 시기 금천에서 수 많은 부녀자들을 총칼의 위협으로 끌어 내여 릉욕하고는 철도 굴 속에 몰아 넣고 굴을 폭파시켜 학살하였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오늘 남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54년 8월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미 제 19 보급 부대 병사 20명은 지나가는 조선 녀인에게 떼를 지여 달려 들어 구타한 후 집단적으로 모욕하였으며 1958년 6월 9일 충청남도 서대전에서는 《주한 미 군사 고문단》 대전 파견대 소속 미군 하사가 조선 로파를 모욕하고 목을 졸라 죽인 후 부근 가옥들에까지 방화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인간의 륜리를 완전히 저버린 이 패덕한의 무리들은 이처럼 도처에서 소녀와 로파들까지 모욕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그들에게 갖은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1954년 11월 4일 인천시 신흥동에 자리잡은 미군 병사들이 지나 가는 조선 녀인을 랍치하여 무수히 구타하였으며 옷을 벗기고 전신에 뼁끼칠을 한 후 노끈으로 목을 매여 끌고 다닌 그런 굴욕적인 사실이 남조선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예로부터 동방 례의지국의 녀성으로서 고결한 품성과 깨끗한 절개를 자랑한 우리 나라 녀성들이 지금 남조선에서 미군들의 희롱물로 모욕 당하고 있으며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혼혈아만도 5천 200 여명이나 되는 치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고와 미제 침략자들의 강압과 황금의 예속으로 인하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마다에는 수 많은 조선 녀성들이 《미군 위안부》라는 굴욕적인 명색을 띠고 인간의 생활과는 하직한 역경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는 남조선에서 살인자로, 패덕한의 무리로 행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강도단으로서 야수적인 횡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의 가택과 점포를 습격하여 재물을 략탈하며 무고한 주민들을 구금하고 폭행을 가하며 민가에 불을 지르며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는 악랄한 행동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일대는 그들의 무수한 살인, 강도, 방화, 폭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공포의 지대로 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무엇을 말하여 줍니까?

이는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 내에서 조선 인민을 《렬등 민족》으로 멸시하며 미국인들이 세계를 지배하여야 한다는 인종주의 사상과 악독한 인간 증오 사상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잔인성과 포악성, 패덕과 방종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줍니다.

미국 잡지 《뉴욕 타임스 마가진》이 《병사란 무엇이야》라는 글에서 《국가는 너를 위하여 3만 딸라를 지불하고 있다. 너는 이 지불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너는 너에게 차례진 인간을 죽이는 것으로 이를 보상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이라든지 악명 높은 미국 장군 클라크가 1950년 8월 5일에 젊은 병사의 교육에 관하여 말하면서 《우리는 이 병사들을 용감하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준엄한 병사로 만들 것이다》라고 한 사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장병들에게 인종주의 사상과 인간 증오 사상을 계통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에 대한 학살과 폭행, 략탈 행위를 고용병들의 《사기》를 《고취》하는 자극적인 수단으로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맥아더가 명령서에서 자기 병사들에게 《서울을 점령하면 너

회들은 3일간 서울의 부녀자들과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 사실은 세인이 다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바로 남조선에 기여든 미 제국주의 군대는 상관들의 고무 하에 동물적인 《쾌락》을 위하여 조선 인민을 학살하며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민족을 멸시하며 타국을 침략하고 그 나라 인민들을 략탈하며 학살하며 모욕하는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이며 정책입니다.

또한 이것은 멸망하여 가는 미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정치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살인 폭행을 감행하고 있는 미군을 《친선》의 군대로 묘사하며 그가 조선 인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주둔하고 있는 듯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남조선에 어떠한 《독립》과 《자유》가 있습니까?

미제의 강점으로 남조선 인민들은 주권을 말살 당하고 식민지 노예의 운명에 처하여 있으며 민주주의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박탈 당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투쟁은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으며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들은 해산 당하고 수 많은 언론, 출판 기관들은 폐쇄되였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이 마치도 《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듯이 꾸며 대려고 각방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술책으로도 남조선에서 모든 권력을 미 제국주의자들이 틀어 쥐고 있으며 그들이 실제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은폐할 수 없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통수권을 미 제국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어떤 《자주권》에 대하여 말할 여지가 있으며 미제 침략 군대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판국에서 무슨 《독립》의 여부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대한 민국》이란 명색뿐이지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미국 잡지 《만스리 레뷰》까지도 《한국과 같이 타국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인형 조종사가 줄을 당기고 있다》고 쓴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절박한 민족적 요구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악랄하게 방해 하고 있으며 남북의 모든 교류를 단절시키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 력량의 단결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분할하여 통치하며 나아가서 조선 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전 조선을 침략하기 위하여 남조선 군대를 확장하고 각종 대량 살륙 무기들을 반입하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조선 군대가 미군보다 재정적으로 값싸게 먹는 《눅거리 군대》라 하여 남조선 청장년들을 강제 동원하여 미군의 총알받이로 삼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큰 밑천을 넘어서 남조선을 도와 주고 있는 듯이 떠들고 있으나 그들의 예속화 정책과 군사화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 경제는 파괴 몰락하고 있으며 민생고는 날을 따라 격심하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원조》를 통하여 남조선 경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군사적 예속물로 전락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막대한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고 있습니다.

미제는 《한 딸라의 원조를 받는 나라로 하여금 5 딸라의 군사비를 지출케 하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원조》를 미끼로 남조선의 생산, 류통, 분배 뿐만 아니라 공장, 기업소의 자금, 원료, 물동까지 틀어 쥐고 모든 물력과 재력을 팽창하는 군사비 지출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잉여 물자를 국제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강매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남조선 시장을 독점하고 민족 산업을 질식시키고 있으며 남조선 자원을 략탈하여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조선에서 딸라 환률을 계속 인상하며 세금과 각종 관영 료금을 인상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들씌우고 있습니다.

미제의 이러한 침략 정책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 공업은 총파산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생산은 감퇴하고 기업 파산은 계속 격증하여 현재 가동하는 공장은 전체 공장 수의 10~20%에 불과합니다.

공장이 련이어 폐쇄되여 중요한 공업 지대가 죽은듯이 고요하며 점포들도 영업을 그만두어 상가는 한적하기만 합니다.

미제의 반동적인 농업 정책과 미국 잉여 농산물의 강매로 인하여 농촌 경리도 쇠퇴하고 있습니다.

경지 면적은 계속 축소되고 농토는 피폐하여 지고 있으며 치산 치수와 관개 사업을 전혀 돌보지 않은 결과 하루만 비가 와도 홍수가 나고 이틀만 가물어도 한재가 듭니다.

남조선 출판물의 보도에 의하더라도 수 많은 농토가 모래에 덮여 백사장이 되였으며 금년 봄 정도의 가물에도 총 논 면적의 23%에 달하는 논에는 조, 대두, 기장 등을 대파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농업 생산은 일제 시기의 3분의 2로 감소되였으며 농민들의 생활은 여지 없이 령락되여 패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업과 농업은 쇠퇴하여 가나 군사비는 계속 증대되며 세금과 물가는 올라만 갑니다.

전후 8년 간에만 남조선에서 주민들의 세금 부담은 10배나 증가하였으며 금년에 또다시 세금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였습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통화 개혁》이 실시되였는데 이로 인하여 경제적 혼란은 더욱 심하여졌으며 부진한 경제 활동은 더욱더 마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여도 300만의 완전 실업자가 있으며 이외에 농촌의 잠재적인 실업자는 400만에 달합니다.

해마다 100만 호를 헤아리던 절량 농가가 금년 보리'고개에는 130만 호에 달하리라 하며 근 1천만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절량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살'길이 없어 남부 녀대하고 고향을 등지는 리농민들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 하여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날마다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20 여만의 류랑 고아들이 문전 걸식을 하고 있으며 각종 병마는 만연되나 아무런 보건 시책도 없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그날 그날의 호구지책도 막연하고 살래야 살'길이 없으며 앞날은 더욱더 캄캄할 뿐입니다.

무슨 까닭에 남조선에서는 공장이 계속 문을 닫고 수백만 실업자와 걸식 아동들이 거리를 방황하며 사람들이 기한에 떨고 있습니까?

무슨 까닭에 량전 옥답을 자랑하던 남조선이 불모의 땅으로 되였으며 수 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의 결과이며 략탈 정책의 결과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를 통하여 겉으로는 《은혜》를 베푸는 척 하며 안속으로는 조선 인민의 고혈을 짜 내고 있습니다.

남조선 출판물도 미국 《원조》를 가리켜 《남조선 인민들의 막대한 피와 재산. 파괴의 대'가로서 미국의 리익을 위주로 하는 원조》라고 비난하였으며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남조선의 하급 장교, 병사, 로동자, 농민들의 참담한 생활이 미국 《원조》의 결과라고 지탄하였습니다.

《죽어 가는 땅》, 《암흑의 땅》이라고 세인이 말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미제의 강점 하에서 2천만 동포가 살고 있는 남조선의 실정입니다.

남조선에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 문화 정책에 의하여 민족 문화가 말살 당하고 있으며 부패하고 타락한 미국식 생활 양식이 조상 전래의 미풍 량속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숭미 반공 사상과 민족 허무주의 등 각종 반동 사상을 류포하면서 굴종과 인내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우리의 문화 예술과 우리 인민의 탁월한 재능을 자랑하는 수 많은 문화 유물들을 훔쳐 간 현대의 야만들인 미제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우리의 우수한 문화 유산이 모독을 당하고 있으며 유린 당하고 있습니다.

인류 도덕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세기적인 풍조가 휩쓸고 있어 뜻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개탄을 금치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계속 페쇄되고 수 많은 청년 학생들이 각종 부과금으로 인하여 추방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제의 식민지 통치 17년 간에 남조선에 남은 것이 무엇이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차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남조선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고 현실을 통탄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한 신문은 《우리에게 남은 것은 지금 절량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웬 말이냐,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농촌과 어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바람과 비에 맡겨진 원시적인 생계 밖에 없다고들 하니 웬 말인가》고 한탄하였습니다.

실로 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남조선에 남은 것은 파산과 궁핍, 혼란과 악덕 뿐이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차례진 것은 학대와 무권리, 빈궁과 기아 뿐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미국 침략 군대의 남조선 주둔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파국과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나라의 통일 독립을 가로 막는 기본적인 장애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 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 경제를 송두리채 파괴하고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 류혈과 폭압의 생지옥에 몰아 넣었습니다.

미국 침략자들은 조선에서의 평화를 부단히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백방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는 남조선 인민들의 첫째 가는 투쟁 대상이며 전체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미국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조선에서의 공고한 평화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미 제국주의 군대의 남조선 주둔과 그의 침략 정책이 계속되는 한 남조선에서의 민족 경제의 발전도, 인민 생활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은 오늘의 비참하고 굴욕적인 처지에서 벗어 날 수 없습니다.

17 년 간에 걸치는 미 제국주

의의 남조선 지배의 력사가 이것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 당국자들은 《자주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며 《민족적 정기를 발양》시켜야 한다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조선 경제를 여지 없이 파괴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식민지적 략탈과 군사 침략적 목적에 완전히 종속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기아와 빈궁에 몰아 넣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지 않고 과연 그 어떠한 《자립 경제의 건설》이나 《민생 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모든 민족적인 것을 멸시하고 유린하며 조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략탈하고 모욕하는 미국 침략 군대를 몰아 내지 않고 과연 그 어떠한 《민족적 정기의 발양》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실로 남조선에서 민족 경제를 복구하고 민족 문화를 발전시키며 절박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 침략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몰아 내야 하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미국과 남조선 간의 소위 《행정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면서 마치도 이러한 《협정》만 체결되면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만행이 저지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히 그릇된 생각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도대체 남조선 당국과 《행정 협정》을 체결할 의사조차 가지고 있지 않거니와 설사 이러한 《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은 미국보다 법적 기준이 낮다거니 미국 병사들을 조선 사람들의 《재판》에 넘길 수 없다거니 하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렬등 민족》으로 멸시하며 조선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협정》이나 체결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미국 군대는 발톱까지 무장한 침략 군대이며 인종 차별과 인간 증오의 사상으로 가득찬 가장 반동적인 군대이며 인간의 탈을 쓰고 온갖 악행을 다 감행하는 야수적인 군대입니다. 전체 조선 인민, 특히 남조선 인민들은 뼈에 사무친 자기들의 체험을 통하여 미국 군대의 이와 같은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협정이나 체결된다고 하여 침략적이고 반동적이고 야수적인 미국 군대가 평화 애호적이며 인도주의적인 군대로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령이나 협정으로써는 결코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비인간적 만행을 저지시킬 수 없습니다. 미국 군대의 침략의 력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오늘 미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세계 모든 나라의 현실이 이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행정 협정》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할 것 없이 미국 군대가 발 붙이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류혈과 혼란, 부패와 타락이 지배하고 있으며 침략자들의 전횡으로 하여 인민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의 침략 행위와 온갖 만행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우리 강토로부터 완전히 몰아 내야 합니다. 미국 군대를 몰아 냄으로써만 남조선 인민들은 식민지적 략탈과 예속에서 벗어 날 수 있으며 민족적 억압과 학대와 모욕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은 극도에 달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을 무마하고 날로 앙양되는 인민 대중의 반미 투쟁을 약화시키며 미국 군대의 남조선 주둔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공산주의의 위협》, 《남침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 계속 주둔하여야 한다고 떠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허위로써 결코 조선 인민과 세계의 사회 여론을 기만할 수 없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시종일관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조선의 경제, 문화 교류를 실시하며 남북 조선 인민들의 서신 거래와 자유로운 래왕을 보장하며 남북 간의 협상을 실현할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남북 조선의 군대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데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것을 수차 제의하였으며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남침》의 의도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으며 남조선 측으로부터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무장 침공이 감행되지 않는 한 우리 측으로부터는 결코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의 이름으로 남북 간에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데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미국 군대가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하는 조건 하에서 남북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시킬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를 조선 사람들끼리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들 사이에 사상과 정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 만 그것은 조국 통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지장으로 될 수 없으며 더우기 동족 상잔의 원인으로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 남북으로 분렬되여 서로 적대시하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유리 뿐입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들은 모두 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 군대의 남조선 주둔과 전 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 기도를 은폐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허위적인 간판에 불과합니다.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의 격화와 새 전쟁 발발의 근원은 공산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 군대의 남조선 강점에 있습니다.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침략》을 막는다는 구실 밑에 우리 민족을 분렬시켜 서로 반목질시케 하며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며 남조선 인민들을 동족 상잔에로 내몰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 침략자들의 이와 같은 음흉한 책동을 철저히 폭로 분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지금 공화국 북반부에는 어떠한 외국 군대도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다.

쏘련 군대가 자기의 해방의 사명을 끝마치고 북조선 지역으로부터 완전히 철거한 지는 벌써 14년이나 됩니다.

조선 인민을 피로써 도와 준 중국 인민 지원군은 이미 1958년 10월에 북반부로부터 완전히 철거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마치 북조선에도 외국 군대가 있고 북 선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듯이 허무맹랑한 소리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을 강점하고 온갖 만행을 다 감행하며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도와 주는 것입니다.

만일 공화국 북반부에 외국 군대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들은 실지로 북반부에 와서 자기 눈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이나, 정치 사회계 인사들이나, 어떠한 사람들에게나 공화국 북반부에 와서 모든 곳을 자유롭게 돌아 다녀 볼 수 있는 온갖 편리와 조건을 보장하여 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공화국 북반부에 와서 외국 군대를 찾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북반부에는 어떠한 외국 군대도 없기 때문입니다. 북반부 인민들은 평화적 건설에 전념하고 있으며 조국의 륭성 발전과 3천만 조선 동포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민족 경제의 튼튼한 터전을 닦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대는 그 어떠한 《침략》으로부터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미 제국주의자들 자신의 침략적 목적을 추구하여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 진의도는 남조선을 미국의 영구한 식민지로 만들며 나아가서 전 조선을 침략하고 조선 인민을 노예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남조선을 자기들의 군사 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그것을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 침략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리용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들의 침략 정책을 은폐하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들을 꾸며 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 주둔할 그 어떠한 근거도 구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침략 군대는 자기들의 온갖 살인 무기를 걷어 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당장 물러 가야 합니다.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되면 될수록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파국은 더욱 심화되고 인민들은 더욱 큰 불행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더욱더 지연될 것입니다. 미국 강도들이 하루라도 남녘 땅에 더 머물러 있으면 있을 수록 그 만큼 더 많은 우리의 겨레들이 피를 흘리게 되며 더 많은 우리의 자매들이 모욕 당하고 유린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국 강도 군대의 남조선 강점을 참을 수 없으며 그들의 략탈과 학살 만행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며 미군을 우리 강토로부터 몰아 내기 위한 반미 구국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청년들은 강제 징집을 반대하고 로동자들은 태업과 파업을 조직하여 군수 생산과 군수 물자 수송을 파탄시키며 전체 남조선 인민들은 군사 시설들과 군사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남조선 《국군》 장병들은 미군 지휘관들과 군사 고문들의 일체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들로부터 《국군》의 통수권을 탈취하여야 합니다. 《국군》 장병들은 《국군》을 동족 상잔에로 내몰려고 하는 미국 침략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인민들의 편에 돌아서야 하며 인민들과 함께 외적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들고 일어 나서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고 저지시켜야 하며 침략자들로 하여금 격분한 인민들의 항쟁 앞에서 공포에 떨게 하며 함부로 날뛰지 못 하게 하여야 합니다. 미국 침략 군대에 대한 온갖 협력을 거부하며 그들에게 한 알의 쌀도, 한 방울의 물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리 하여 침략자들이 우리 강토에 발 붙일 곳이 없게 하며 그들을 남조선으로부터 완전히 몰아 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니 철거시키는 것은 전 민족 앞에 나선 가장 선차적인 과업입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민족적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미국 군대의 남조선 주둔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며 응당 그들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만들을 기만하면서 미군을 남조선에 두어 두는 것은 전 민족 앞에 엄중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정치 사회 활동가들과 각계 각층 인사들에게 미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공동와 투쟁 대책에 대하여 우리와 함께 협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판문점에서나 또는 평양이나 서울에서라도 남북 조선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미군을 철거시키고 남북 간에 서로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데 대한 문제, 남북 조선의 무력을 각각 축소할 데 대한 문제,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향상시킬 데 대한 문제들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민족의 장래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선 사람끼리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를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앉아 협의 못 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판문점에서 양키 제국주의자들과도 담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조선 사람들끼리 무엇 때문에 제 나라 제 땅에서 자기 나라 문제를 가지고 마주 앉아 협의하지 못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체 없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야 하며 민족의 사활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남북 조선 대표들의 접촉과 협상이 실현되면 전 민족 앞에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사이의 리해와 접근을 촉진시킴으로써 조국의 통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조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이 정당한 제의를 지지할 것입니다.

남조선의 현 사태는 조금도 지체할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엄숙한 시각에 만일 남조선 당국자들이 미군을 철거시키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절박한 대책을 수립하는 데 응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전 민족 앞에서 남조선의 비참한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것이며 후손 만대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를 론하며 사상이나 정견의 차이를 가지고 시비할 때가 아닙니다.

외래 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의 절반 땅이 암흑의 천지로 되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이 학살 당하고 있으며 유린 당하고 있는 이때에 어찌 우리가 합심하여 구국 대책을 세우지 않고 호상 간에 과거를 따지며 시비를 가리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겨레가 힘을 합쳐 투쟁하여야 하며 모든 것을 이 성스러운 투쟁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이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조선 사람들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의 자유로운 남북 조선 총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합니다. 조국 통일 문제에 관한 조선 로동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 립장은 확고 부동한 것이며 그것은 전민족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따라서 전체 조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전체 조선 인민이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절박한 요구이며 우리는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간에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호상 리해가 안 되고 있는 형편에서 또한 남조선 당국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와 협의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차후에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남조선에서 미국 침략 군대를 철거시키고 우리의 겨레들을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구출할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군대만 철거시킨다면 남북 간의 리해와 접근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광범한 가능성이 조성될 것이며 우리 민족은 자기의 내부 문제를 협상을 통하여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에 관계 없이 미국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여 나서는 남조선의 모든 정치 사회 활동가들, 각계 각층 인사들과 힘을 합쳐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과거에 조국과 민족 앞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 미국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미군의 철거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와 굳게 손 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파국과 남조선 인민들의 처참한 처지를 조금이라도 우려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용감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체 남조선 인민들은 미국 군대의 만행을 반대하며 그들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기 위하여, 남북 간의 협상과 경제, 문화 교류를 실현하며 자유로운 래왕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남북 조선의 전체 애국적 인민들이 일치 단결하여 결정적인 반미 구국 투쟁을 전개할 때 미국 침략자들은 남조선에 배겨 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강토에서 쫓겨 나고야 말 것입니다.

대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는 시대, 모든 민족들이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날까지 외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억압 당하고 천대 받고 멸시되여 온 수억의 인민들이 저주로운 식민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광활한 력사의 무대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국주의의 억압 하에 있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이 자주 독립의 기치를 높이 들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의 청산은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시대의 조류입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어찌 20 세기의 야만인 양키들의 지배에 굴종할 수 있으며 민족적 억압과 학대와 멸시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조선 인민은 외적의 침입을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한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장구한 식민지 통치 하에서도 조선 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으며 말할 수 없이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영용하게 싸웠습니다.

3. 1 운동, 6. 10 만세 사건, 광주 학생 사건을 비롯하여 인민 대중의 반일 투쟁은 그칠 때가 없었으며 이러한 투쟁들은 억압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들은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말할 수 없는 간난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오직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15 성상이나 피어린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과거에도 수천 수만의 애국 선렬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피 흘려 싸웠고 온 겨레가 외적의 억압에 항거하여 나섰거늘 어찌 오늘에 와서 그의 피'줄을 이어 받은 우리 세대가 조국의 절반 땅을 양키 제국주의자들에게 강점 당하고 유린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유구한 력사와 문화, 영광스러운 투쟁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남조선의 전체 애국적 인민들에게 미국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영웅적 항쟁에 궐기할 것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정치 사회 활동가들과 애국적 인사들에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민족의 긍지와 영예를 위하여, 우리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용감하게 반미 구국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전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 일어날 때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아성이라도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장성하였습니다. 우리는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능히 외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할 수 있으며 통일된 조국 강토에 전체 조선 인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 생활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이미 자기의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었으며 새 생활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북반부의 근로자들은 극히 어려운 형편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고 악전 고투하여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닦아 놓았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는 강력한 중공업 기지가 축성되고 경공업 기지가 창설되였습니다. 1961년에 북반부의 공업 생산은 일제 시기인 1944년에 비하여 8. 7 배로 장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업은 100억 키로 왓트시의 전력, 약 1천 200 만 톤의 석탄, 93만 톤의 선철과 립철, 근 80만 톤의 강철, 약 70 만 톤의 화학 비료, 230만 톤의 세멘트, 약 1억 9천만 메터의 직물을 생산하였습니다.

일제 시기에는 우리 나라에 기계 제작 공업이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매년 3 천~4천 대씩의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공작 기계, 중공업 및 경공업 설비, 현대적 농기계, 불도젤, 엑쓰까와또르 등 건설 기계, 무궤도 전차, 화차, 선박 등 운수 설비들을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체의 기계 설비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의 힘으로 발전소, 야금 공장, 화학 공장 등 대규모의 현대적 공장들을 건설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이미 많은 것을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북반부의 농촌에서는 관개 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여 농촌 경리는 한재와 수재에서 벗어 났

습니다.

거의 모든 농촌 마을에 전기가 들어 갔고 농촌 경리는 더욱더 새로운 기계와 기술로 장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북반부에서의 알곡 총 수확고는 일제 시기보다 2배나 더 많은 483만 톤에 달하였습니다.

공화국 북반부에 건설된 민족 경제의 강력한 토대는 북반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조국이 통일된 후 전체 조선 인민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튼튼한 밑천으로 됩니다.

북반부의 근로자들은 자기들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남조선 인민들의 암담한 처지를 생각하면서 3천만 겨레들의 장래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건설하였습니다.

북반부 인민들은 자기들의 헌신적 로동에 의하여 얻어진 모든 재부를 항상 전 민족의 재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반부에 창조된 이 민족적 재부가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여지 없이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며 도탄에 빠진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리용되기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반부 인민들은 자기들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루 속히 남조선 형제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을 절실히 원하고 있습니다.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 토대에 의거함으로써만 파괴된 남조선 인민의 공업과 농촌 경리를 복구할 수 있으며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수습하며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출하는 다른 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외국 자본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오늘에 와서는 일본 자본까지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미국 독점 자본에 예속되여 여지 없이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더욱더 헤여 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 몰아 넣는 결과밖에 가져 올 것이 없습니다. 외국 독점 자본에 의존하는 것은 예속의 길이며 파산의 길입니다.

우리는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여야 하며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제 토대와 우리의 자원,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민족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며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김 일성 동지가 말씀한 바와 같이 《사실에 있어서 3천만 인민의 힘을 합치고 북반부의 중공업을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원을 통일적으로 개발하며 민족 경제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북반부의 전체 근로자들은 3천만 조선 민족의 행복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민족 경제의 터전을 더욱 튼튼히 닦기 위하여, 우리의 최대의 민족적 과업인 조국 통일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경제 문화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비상한 로력적 열의와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매일 같이 새로운 더욱 큰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탄압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은 더욱 장성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계속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이 정치적으로 급속히 각성하고 있으며 그들 속에서 미국 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더욱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삼엄한 계엄령 하에서도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광범한 대중이 생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여 롱성,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시위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총검의 탄압으로도, 어떠한 기만적 술책으로도 격화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을 억누를 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 투쟁의 장성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전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미국 침략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구축되고야 말 것이며 우리 조국의 통일 위업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남북 조선의 전체 인민은 우리 강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굳게 단결하여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1962년 6월 12일 평양)

대한 민국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및 남조선 사회 정치 활동가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

대한 민국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 및 위원 제씨들!

남조선 정치 활동가들과 사회계 인사들!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군인, 지식인, 상인, 기업가, 종교인들!

남조선 동포 형제 자매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미제 침략군의 포악무도한 전횡으로 인하여 남

조선 인민들의 재난과 고통이 극도에 달한 이 위급한 시각에 당신들의 민족적 량심에 호소하여 이 서한을 보낸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의 광란적인 살인 만행과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모욕 행위는 날이 갈 수록 더욱 우심하여 가고 있다.

우리 인민들에 대한 미군의 계속되는 야수적 만행에 분개한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마침내 분연히 반미 시위에 궐기하여 용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 투쟁은 미제 침략자들에 대한 전체 인민의 민족적 분노의 폭발이며 민족의 영예와 권리를 고수하기 위한 정의롭고 애국적인 투쟁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 날부터 우리 동포들을 살상, 릉욕하지 않은 때가 없으며 폭행과 강도 행위를 감행하지 않은 때가 없다.

이 살인 강도의 무리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멸족시키던 야수적인 수법 그대로 우리 인민들을 악착하게 살해하고 있으며 백주에 우리의 주민 부락을 집단적으로 습격하고 재물을 파괴 략탈하며 부녀자들을 릉욕하는 등 온갖 귀축 같은 만행을 서슴 없이 감행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동포 형제들이 미국 양키들의 손에 무참히 학살 당하고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부모 처자들이 재산을 략탈 당하고 모욕을 당했던가!

실로 미제 침략자들에 의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은 조선 인민의 원한 어린 피로 물들여졌으며 미국 양키들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원성은 하늘에 사무치고 있다.

남조선을 저들의 식민지 군사기지로 전변시킨 미제 침략자들은 《박애》의 탈을 쓰고 《원조》의 미명 하에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에 대한 지배와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제멋대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우리의 귀중한 모든 것을 파괴 략탈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모든 것을 유린 말살하였으며 남조선 땅을 처절한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시켰다.

공장은 문을 닫고 탄광은 무너지고 농촌은 황폐화되였다.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류랑 고아들은 떼를 지어 문전 걸식하고 있으며 수백만 절량 농민들은 초근 목피를 찾아 거치른 산야를 헤매고 있다.

피를 팔고 몸을 팔아도 먹고 살 수 없어 온 가족이 목숨을 끊는 목불인견의 집단 자살 참극은 날이 갈 수록 격증하여 사람들의 간장을 에여 내고 있으며 대중적인 기아와 창궐하는 병마와 빈발하는 재해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속에 몰아 넣고 있다.

말세기적이며 퇴폐적인 양키식 생활 풍조와 그칠줄 모르는 패덕 패륜 행위는 뜻 있는 사람들의 비분과 통탄을 자아 내고 있다.

수천 수만의 우리의 녀성들이 미국 양키들의 롱락물로 되고 수천명의 혼혈아가 이 땅에서 생겨났으니 이 전대미문의 민족적 치욕을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유구한 력사의 갈피갈피를 더듬어 본들 이 나라 이 땅에서 언제 어느 때 오늘 남조선에서와 같이 그처럼 무참하게 우리의 민족적 긍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여지 없이 짓밟혀 본 적이 있었던가!

이 공전 절후한 사회적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례의 동방의 자랑으로 되였던 우리 나라의 그 전통적인 미풍과 고상한 륜리 도덕도 그처럼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다.

차라리 꺾일지언정 굽힐 줄 모르는 굳은 절개를 송죽에 비기던 우리 녀성들의 그 고결한 품성도 또한 그처럼 참혹하게 모독되고 있다.

모든 것이 짓밟히고 억눌리고 썩어 버린 땅, 몸부림치고 있는 인민들의 아우성 소리가 강산을 뒤덮고 있는 암흑의 천지 남조선 땅에 과연 살'길은 어디 있으며 남아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남조선에는 우리 민족을 전멸시키고 우리 강토를 초토화하려는 미국 침략자들의 땅크와 대포와 대량 살륙 무기들과 미국 양키들의 무제한한 전횡이 있을 뿐이다.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파산과 궁핍, 혼란과 악덕, 학대와 무권리 뿐이며 인내와 굴종과 무저항을 강요 당하는 식민지 노예의 저주로운 운명만이 있을 뿐이다.

민족적 량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운 남조선의 이 참경을 어떻게 좌시할 수 있으며 개탄만 할 수 있겠는가?

망국 연후에 《시일야 방성 대곡》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망국 연후에 또 무슨 정치를 론할 것이 있겠는가?

남조선 당국자들과 사회 정치 활동가 제씨들!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군인, 지식인, 상인, 기업가, 종교인들!

남조선 동포 형제 자매들!

백척 간두에 놓여 있는 현하의 남조선 사태는 겨레의 운명을 근심하는 모든 조선 사람들이 힘과 지혜와 재능을 총 동원하여 이 조성된 난국을 지체 없이 타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민족 지상의 명령 앞에 누가 감히 외면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전 민족이 합심하여 미군을 철거시키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를 철폐하며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고 남조선 인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자기 수중에 튼튼히 틀어 쥐도록 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궐기하여야 할 것이다.

미제 침략자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한, 남조선 인민들은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불행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17년간의 력사적 경험이 명백하게 보여 주고 있다.

미군을 철거시키고 남조선 인민들을 재난과 고통에서 구원하며 분렬된 국토를 통일하는 문제는 현 시기 우리 민족 앞에 제기된 가장 절박한 초미의 과업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3천만 동포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시종 일관 성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아직도 남조선 당국의 응당한 리해를 받지 못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남조선 당국이 지금 당장 우리와 통일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는 통일 문제는 호상 리해가 접근되는 차제로 해결하더라도 우선 모든 문제 해결의 선결 조건인 미군 철거를 위한 투쟁에 전 민족적 력량을 단합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 나라 력사에는 각이한 당파 간에도 일단 외적의 침습을 받았을 때에는 호상 쟁론을 그치고 일심 합력하여 조국의 독립을 고수한 사실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는 주의 주장의 차이와 과거의 여하, 신앙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민족 력량을 반미 구국 통일 전선에 총 망라할 것을 주장한다.

설사 어제까지 조국과 민족 앞에 엄중한 죄과를 범한 사람이라 하드라도 그가 만일 과거를 뉘우치고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기만 한다면 누가 그와 즐겁게 손잡고 함께 나아가기를 꺼려할 것인 ?

지금 남조선의 일부 인사들 《행정 협정》체결로써 미제 침략자들의 횡포와 만행이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법령이나 협정으로써 반동적이며 야수적인 미제 침략군의 본성을 변경시킬 수는 없으며 그들의 비인간적 만행과 민족적 멸시를 저지시킬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 당국은 《행정 협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미국 침략자들에 대한 어떤 환상도 가지지 말아야 하며 미군의 남조선 강점 그 자체를 반대하고 온갖 후환을 뿌리 뽑기 위한 투쟁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

미국 침략자들은 소위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날조된 구실을 들고 남조선 강점을 정당화하려고 어리석게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남조선을 자기들의 영원한 식민지 군사 기지로 만들고 전반적인 침략 전쟁의 발판으로 리용하며 남조선 인민들을 동족 상쟁의 범죄적 전쟁에 내몰려는 흉계를 은폐하기 위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과연 거레의 행복한 앞날을 위하여 평화적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북조선으로부터 그 어떤 《위협》이 존재한단 말인가?

우리의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계들과 흘러 나오는 비단들과 기름진 전야에서 무르익는 오곡 백과들이 과연 그 어떤 《위협》으로 된단 말인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남침》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남조선 측으로부터 먼저 공격하여 오지 않는 한 결코 무력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남북 조선 정권 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조건 하에서 남북 조선 군대를 각각 10만명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의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 조선 정권 당국이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무력 행사도 하지 않을 데 대하여 의무를 지며 남북 조선 군대를 각각 최소한으로 축소할 것을 루차 제의한 바 있다.

남조선의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북조선에 그 어떤 외국 군대가 남아 있다는 듯이 떠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허위 선전에 기만 당하고 있다.

북조선에서 1948년에 쏘련 군대가 철거하고 1958년에 중국 인민 지원군이 완전히 철거하였다는 것은 만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북조선에 외국 군대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이 북조선에 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를 우리는 희망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곳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온갖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오늘 미국 침략 군대는 남조선에 남아 있을 하등의 리유와 구실도 없으며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

만일 미군의 남조선 강점이 계속된다면 남조선 인민들이 미국 양키들에게 매일 매시각 학살 당하고 억압 당하고 모욕 당하는 민족적 재난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인민 대중을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미군 철거 문제를 반드시 책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남북 조선 당국이 호상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 행사를 하지 말며 미군을 철거시키고 쌍방의 군대를 축소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민족의 장래 문제에 대한 리해를 접근시키기 위하여 판문점이나

평양 혹은 서울에서 협상할 것을 제의한다.

우리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들을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조선 사람끼리 남북 조선 당국자들 간에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판문점에서 미국 양키들과도 마주 앉아 담판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동족끼리 우리 령토 안에서 협상하지 못 할 리유가 어디 있겠는가?

이러한 접촉 과정에 호상 리해가 접근될 것이며 미군을 철거시키고 남북 조선 군대를 축소한다면 남조선 인민 대중을 과중한 군사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북조선 인민들도 생활상 도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통일 문제에 대한 리해의 촉진에도 또한 유리한 전제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제의는 불행과 고통의 절정에서 허덕이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체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전 민족의 력량을 미군 철거를 위한 거족적 투쟁에 동원하자는 숭고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만일 우국충정에 넘치는 우리의 이 제의에 응하지 않고 《반공》을 방패로 삼아 미국 침략 군대를 남조선에 그대로 두어 둠으로써 우리 동포들을 양키 침략자들의 식민지 노예의 처지에 얽매여 두고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계속 받게 한다면 이에 대한 진'적인 책임에서 결코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며 조국과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엄중한 죄과를 저지르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은 미국 침략자들의 야수적 만행과 오만 무례한 전횡을 절대로 용허하지 말아야 하며 포악성과 잔인성, 패덕과 락탈이 그 본성으로 된 극악무도한 양키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 인민적 항쟁에 떨쳐 나서야 한다.

청년 학생들에 대한 강제 징소집을 반대하고 군수 생산과 군수 물자 수송을 파탄시키며 전체 남조선 인민들이 군사 시설과 군사 기지 건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국군》 장병들은 미군 지휘관들과 군사 고문들의 일체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양키들의 손으로부터 《국군》의 통수권을 탈환하여야 하며 인민의 편으로 돌아와 인민 대중과 함께 미국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는 원흉이며 우리 민족의、불구대천의 원쑤인 미국 침략자들에게 한 모금의 물도, 한 알의 쌀도 주지 말아야 하며 그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내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남조선 전체 인민들은 또한 남북 간의 접촉과 협상 및 경제, 문화적 교류와 자유로운 래왕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남조선 당국자들과 사회 정치 활동가 제씨들!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군인, 지식인, 상인, 기업가, 종교인들!

남조선 동포 형제 자매들!

당신들이 만일 조국과 민족의 장래가 귀중하고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망국의 설음을 물려 주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겨레들을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결연히 궐기하여야 할 엄숙한 순간은 드디여 왔다.

아직도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원조》에 기대를 거는 인사가 있다면 과거를 돌이켜 보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을 내다 보고 새로운 길에 들어서야 할 것이다.

자고 이래로 외국 침략 세력을 들여 놓고 독립한 나라가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사심없는 원조를 준 실례가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 남겨 두고 그 무슨 자주를 말할 수 있으며 나라의 통수권을 빼앗기고 그 무슨 독립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무엇 때문에 침략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며 치욕스러운 구걸을 일삼아야 하겠는가?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찌기 미국이 이 세상에 생겨 나기 오래 전에 벌써 찬란한 문화를 창조한 슬기로운 민족이다.

우리의 심장에는 외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고수한 선조들의 고매한 애국 정신이 맥박치고 있다.

선조들의 백골이 묻혀 있는 우리의 자랑 높은 강토가 한갖 해적의 후예들인 미국 양키들의 피묻은 군화 밑에 짓밟히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 ?

총명하고 용감한 불굴의 기상과 애국심에 불타는 민족 정기를 타고 난 우리의 동포들이 어떻게 미국 침략자들의 식민지 노예의 운명에서 벗어 나지 않고 더 견딜 수 있겠는가?

하물며 나라의 북쪽 절반 땅에 부강한 조국 건설의 반석 같은 밑천이 마련되여 있는 오늘에 있어서이랴!

우리 북반부 인민들은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 푼전을 아껴 가며 허리띠를 졸라 매고 폐허 우에 현대적 시설을 갖춘 수백 수천의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였으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확고한 토대를 닦아 놓았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생산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규모적인 공장이라도 우리 손으로 건설할 수 있고 어떠한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라도 능히 우리의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가지게 되였다.

북반부에 건설된 이 강유력한 물질적 력량은 후손 만대를 두고 우리 민족 전체가 다 같이 혜택을 입게 될 전 민족적 재부라고 우리는 인정한다.

우리는 결코 북반부 인민들만 잘 먹고 잘 살자고 이것을 건설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여도 이것을 전 민족의 장래 번영을 위하여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고상한 민족적 의무로 간주하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축적된 이 민족적 재부가 미제에 의하여 파괴된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소생시키고 령락된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리용되기를 진심으로 념원하고 있다.

자기 민족 내부에 자립 경제 건설의 이러한 훌륭한 토대와 풍부한 밑천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리용하지 않고 하필 외국 독점 자본을 끌어 들여야 하겠는가?

외래 침략자들의 수중에 경제 명맥을 예속시켜 놓고 자주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만일 남북 조선의 전 민족적 력량을 합치기만 한다면 우리 민족 자체로 능히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할 수 있으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고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오늘 우리들은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가 붕괴되는 시대, 모든 민족들이 해방과 독립을 달성하는 위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제국주의 예속 하에 있는 모든 곳에서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 오르고 있다.

이 장엄한 투쟁에는 아세아의 민족주의자들도, 아프리카의 종교인들도, 라틴 아메리카의 상인들과 기업가들도 광범하게 참가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추세는 바로 이러하거늘 어찌 우리 조국의 남쪽 절반 땅만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하겠는가?

온 남조선을 미군 철거를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의 불'길로 뒤덮어야 할 것이며 그 분노의 불'길에 싸여 미제 침략자들이 더는 배겨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온 겨레가 굳게 단합하여 궐기한다면 어떠한 원쑤도 조선 인민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 조국 력사 우에 다시는 치욕의 오'점을 남겨 놓지 않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첫째가는 원쑤인 미군의 철거를 위하여 우리의 력량을 단합하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대한 민국 국가 재건 최고 회의와 남조선 사회 정치 활동가들이 우리의 제의를 심중히 연구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대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며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이 우리의 이 제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1962년 6월 21일 평양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

세계 각국의 국회 의원 제씨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장구한 민족 분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조선의 통일을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일관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1959년 세계 각국 국회들에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 때로부터 근 3년이 경과한 지금도 미군은 계속 남조선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남조선에는 날로 더욱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또다시 이 서한을 각국 국회들에 보낸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무고한 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미군의 비인도적 만행에 항의하는 학생 청년들과 인민들의 반미 투쟁이 강화되고 있다.

이것은 미군의 상시적인 민족적 멸시와 인간 이하의 학대 속에서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전체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 같은 민족적 의분의 표시이다.

미군은 해방된 남조선 땅에 상륙한 첫날부터 가혹한 식민지 통치를 실시하고 무고한 남조선 주민들에게 살상과 략탈, 습격과 방화, 폭행과 모욕 등 갖은 행패와 만행을 다 감행하여 왔다.

미군에 의한 민족적 멸시와 폭행이 횡행하는 조건 하에서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고 평온한 잠을 이룰 수도 없다.

바로 미군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국토 량단은 벌써 17년 간이나 계속되고 있다.

남조선은 완전히 미국의 군사 전략 기지로, 식민지 상품 시장으로 전락되였으며 민족 산업은 파탄되고 농촌 경리는 황폐화되였다.

수백만의 실업자, 수백만의 절량 농민, 수십만의 걸식 아동들이 거리와 마을을 뒤덮고 있는 오늘의 남조선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혹심한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다.

미군의 계속적인 남조선 점령은 또한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 원자 및 유도 무기까지 끌어 들였으며 조선에서 또다시 동족 상잔의 내란을 일으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오늘 남조선에서 미군을 하루 속히 철거시켜야 하며 이것을 해결함이 없이는 남조선 인민이 오늘의 참담한 처지

에서 벗어 날 수도 없으며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도, 극동에서 전쟁의 화근이 제거될 수도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할 것을 강경히 주장하여 왔다.

미국 당국자들은 미군의 남조선 장기 주둔을 합리화하기 위한 유일한 구실로써 있지도 않는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위협》을 항상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위협》이란 없으며 또 있어 본 적도 없다.

그것은 남조선을 미국의 영구한 식민지 군사 기지로 만들어 전 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 침략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 리용하려는 책동을 은폐하는 기만 술책에 불과하다.

세계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전 민족의 한결 같은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종 일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화적 제안들의 실현을 완강히 방해한 것은 다름아닌 남조선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이였다.

오늘 미군은 남조선에 머물러 있을 어떠한 리유와 근거도 없다.

현하 남조선에 조성된 위급한 사태는 미군이 지체 없이 물러 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금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남북 조선 쌍방이 호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약에 조인하며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조건하에서 쌍방의 무력을 최소한도로 축소할 것을 또다시 남조선 정권 당국에 제의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과 기타 민족적으로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 조선 당국자들 간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또한 제의하였다.

조선의 통일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역시 그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남조선 당국이 아직 이에 대한 리해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그것은 쌍방의 리해가 접근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우선 긴절하게 제기되는 민족적 과업부터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제안을 발기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이 평화적 제의가 우리 민족의 당면한 과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조선과 극동에서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북조선에는 어떠한 외국 군대도 없다.

미국은 무력으로써 조선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버려야 하며 응당 지체 없이 남조선에서 그의 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

세계 각국 국회 의원 제씨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

평화를 위하여서는 세계 만민이 평등하여야 한다.

우리 조선 인민은 응당 남조선에서 일체 외국 군대가 철거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해결할 완전한 민족적 권리가 보장될 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각국 국회들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 인민의 정당하고 절박한 념원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남조선에 자기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의 국회들에서는 자기 나라 군대를 소환할 데 대하여 심의하며 정부들로 하여금 즉시 남조선에서 군대를 철거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 유엔의 기'발 하에 남조선에 계속 주둔하면서 미군이 감행하고 있는 각종 비인도적 만행과 그의 루적된 침략적 죄행은 유엔 헌장의 고상한 목적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는 것이 더욱더 명백히 되였다.

우리는 유엔이 조선에 관한 모든 비법적 《결의》들을 철회하며 남조선에서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시킬 데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가 되였다고 인정한다.

조선은 조선 인민의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킨 후 조선 인민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평화적으로 훌륭히 해결할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세계 모든 나라 국회 의원들과 사회 정치 활동가들과 전체 평화 애호 인민들이 조선 인민의 이 민족적 념원의 실현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을 호소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1962년 6월 21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12년 전 1950년 6월 25일 미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다.

전 세계 인민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선 전쟁은 류례 없이 가렬 처

절하였다.

3 년 간이나 계속된 이 전쟁에 미국은 자기의 15 개 추종 국가 병력까지 총 동원하였으나 조선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으며 결국 전쟁을 도발하였던 그 자리에 주저 앉아서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전이 실현된 후 9 년이 경과하였다.

이 기간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가시였으며 오늘은 확고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가진 공업—농업 국가로 되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의 숙망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아직 실현되지 못 하였다.

이것은 조선에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침략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미국은 정전 후 에도 부단히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각방으로 방해하여 왔다.

최근 미국은 조선에서 재 전쟁을 도발하려는 책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은 오랜 력사적 근원을 가지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 행위를 개괄하여 각국 정부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알리면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는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방도를 재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1,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은 100 여 년 전부터 시작되였다

19 세기 후반기에 구미 자본주의 렬강은 식민지 획득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동방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고 있었다.

풍부한 자연 부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선도 그 때에 구미 렬강의 침략 대상으로 되였었다.

1840～1850 년대에 동방에 진출하기 시작한 미국은 1860 년대부터 조선을 장차 극동 침략을 위한 군사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꾸몄다.

미국인 티•덴넷트는 자기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서반아 전쟁(1898년)이 있기 30 여 년 전부터 미국인 특히 해군 당국자들 중에는 미국이 극동에 해군 기지라도 소유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조선의 항구들은 이와 관련하여 종종 론의되였다…》 (티•덴넷트 《루즈벨트와 로일 전쟁》 뉴욕 1925년, 108 페지)

미국 자본가들이 조선에 대한 직접적 첫 침략 행위는 무장선 《제네랄 샤만호》의 침입으로부터 시작되였다.

1866년 미국인 프레스톤 일당은 대포 2문과 기타 다수의 무기로 무장한 《제네랄 샤만호》를 타고 서해로부터 조선의 대동강에 불법 침입하였다.

그들은 조선 지방 관헌들의 거듭되는 항의를 무시하고 《통상》을 운운하면서 평양 주변에까지 침입하여 인민들의 재물을 강탈하며 부녀자들을 릉욕하며 또 함부로 발포하여 무고한 주민들을 살상하는 등 각종 만행을 계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지방 관헌들이 즉시 철거를 요구한 데 대하여 도리여 쌀 1천 석과 거액의 금, 은, 인삼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이 끝없는 강도적 행위에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조선 군민은 마침내 그들을 공격하여 섬멸하였다.

조선을 침입한 미국의 첫 해적선은 응당한 징벌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 침략자들은 조선 침략을 단념하지 않았다.

그들은 《제네랄 샤만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을 더욱 강화하였다. 1867년에는 군함 《와츄셋트호》를, 1868년에는 군함 《시난도아호》를 파견하여 조선 정부를 위협하였다.

특히 1868년에 상해 주재 미국 총 령사 조지 시워드의 지원 하에 젠킨스 일당이 무장선 《챠이나호》를 몰고 와서 감행한 분묘 도굴 사건은 그 류례 드문 비렬한 강도 행위였다.

그들은 당시 조선의 집권자인 대원군의 부친 남연군의 묘를 파헤치고 그 속에 있는 보물들을 략취할 뿐만 아니라 남연군의 유골을 훔쳐 내였다가 그의 《반환 조건》으로 또다시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 내며 《개항》을 비롯한 각종 침략 조건을 강요할 것을 타산하고 대해적단을 조직하여 충청도 아산만을 거쳐 덕산군에 침입하여 분묘 도굴을 개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도굴 행위도 격분한 부근 인민들의 완강한 반항에 직면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 침략자들은 그 후 더욱 본격적이고 대규모적인 무력 침공을 계획하였다.

1871년 5월 미국 아세아 함대 사령관 로쟈스와 청국 주재 미국 공사 로우는 5 척의 군함(함포 85문, 해병 1,230명)을 기간으로 하는 원정 함대를 편성하여 가지고 또다시 조선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개시하였다.

그들은 《동방 정부나 인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관대성을 가질 때 그것은 정책 상의 오유로 된다.》(《미국 대외 관계 문헌집》 워싱톤 1871～1872년, 121 페지)고까지 공언하였다.

1871년 6월 10일 미국 침략 군대는 함포 사격의 엄호 밑에 강화도에 상륙하여 주요 요새 지대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이 때도 조선 군대와 인민들의 영웅적 항전에 직면하여 미국 군대는 심대한 타격을

받고 1871년 7월 3일 패주하였다.

당시 로우는 미국 정부에 보낸 자기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 인민들은 결사적으로 투쟁할 것을 결심하였다. 그들의 용감성은 일찌기 볼 수 없었던 것으로 세계 어느 민족도 조선 인민들의 용감성을 따를 수는 없을 것이다.》 (죤 포스터, 《동방에 있어서 미국의 외교》 보스톤, 1903년, 315 페지)

무력 침공에서 거듭 실패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서구 렬강들의 집단적 무장 간섭을 조직하려고 기도하였다. 이것도 뜻 대로 되지 않자 미국은 조선 침략의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신흥 자본주의 침략 국가인 일본을 추동하여 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침략의 길을 닦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고무밑에 1875년 일본 침략자들은 침략의 구실을 조작하기 위하여 조선에 대한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1876년 초 대함대를 파견하여 조선 정부를 위압하고 예속적인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다.

그 후 1880년 4월 미국은 제독 슈펠트를 조선에 파견하여 《통상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1882년 5월에 슈펠트는 드디여 군함을 몰고 와서 예속적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강압적으로 체결하였다.

미국은 이 《조약》에서 1 조에 《원조자》로 가장한 한 구절을 삽입하고는 치외법권을 비롯하여 통상을 위한 항구의 개방, 미국 상인들의 무제한한 통상과 그 보호, 미국 공민의 거류권, 토지 조차와 건물 건축권, 조선 근해에서 미국 선박에 대한 조선 정부의 보호 책임. 미국 상품에 대한 특별한 저률 관세 등 여러 가지 침략적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조약》은 조약이 조선에 대하여는 일방적인 의무만을, 미국에 대하여서는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는 완전한 불평등 《조약》 이였다. 이 《조약》이 체결된 후 미국은 서울에 공사를 주재시켰고 그 뒤를 이어 수 많은 미국 상인들과 《선교사》, 《의사》, 《교원》의 신분을 가진 침략의 《사도》들이 조선에 몰려들기 시작하였다.

미국 자본가들과 상인들은 미국으로부터 석유, 담배, 사탕 등의 잉여 상품을 조선에 강매하고 조선으로부터는 금, 은을 비롯한 귀금속들을 략탈하여 갔다. 그들은 또한 각종 수단을 다하여 수 많은 리권을 탈취하였다.

갑산 고진동 광산, 수안 홀동 광산, 운산 금광 등 당시 굴지의 광산들을 비롯하여 서울—인천 간의 철도 부설권, 서울의 전차, 전화, 수도 시설 경영권 등은 모두 미국인의 손에 장악되였다.

《선교사》, 《의사》, 《교원》 등의 신분으로 조선에 들어 온 미국인들은 소위 《자선 사업》등을 통하여 장차 조선 침략의 앞잡이로 리용할 친미파를 양성하며 조선 인민들 속에서 숭미 사상을 부식하는데 몰두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은 조선에서 날로 그의 침략 지반과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을 지배하고 략탈하려는 여러 제국주의 렬강들의 대립과 모순이 날로 격화되는 환경에서 아직 미국은 조선을 자기의 지배 하에 넣기는 곤난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렬강의 대립 투쟁에 부대끼는 조선에 대한 《동정자》, 《원조자》로 가장하여 나서서 조선을 점차 침식하며 동시에 싸우는 렬강들 간에 서서 어부지리를 취하려는 간교한 계책을 썼다. 그리하여 미국은 힘에 있어서 자기보다 약하고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는 일제를 내세워 조선과 만주에서 기타 렬강들의 세력을 견제케 하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일제의 남방 진출을 단념케 할 것을 타산하였다.

그것은 조선을 둘러 싸고 벌어졌던 1894~1895년 간의 청일 전쟁 시기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고 그의 조선 침략을 고무하고 지지한 것으로써도 설명된다.

1894년에 일제가 청국과의 전쟁을 도발하며 조선을 강점하기 위하여 대량적인 병력을 조선에 출동시켰을 때 미 국무 장관 그레샴은 《미국 정부의 방침은…일본에 대하여 그 어떤 수단을 강구하게 될 때에는 오직 우의적 한도에 있어서만 행할 수 있고 결코 다른 렬강들과 합세하여 간섭할 수 없다.》 (《미국 대외 관계 문헌집》, 워싱톤 1894년, 부록 137페지)고 함으로써 일본을 공공연히 지지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로일 전쟁 시기에 더욱 로골화되였다. 일본이 로씨야를 반대하는 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일본은 우리가 꾸민 연극을 놀고 있다.》 (1904년 2월 10일 루즈벨트가 자기 아들에게 보낸 서한—에이취. 프린글, 《테오돌 루즈벨트》 자서전, 뉴욕, 1931년, 375페지) 고하였다.

또한 루즈벨트는 1905년 1월 국무 장관 헤이에게 보낸 편지에서 《일본을 반대하는 조선인들을 옹호하여 미국은 간섭할 수 없다》고 하였다.

1905년 6월 일본이 미국 정부에 대하여 로일 간의 강화 조약 체결의 중재자가 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강화 조약 초안을 제출하였을 때 루즈벨트는 륙군 장관 타프트에게 《일본인들이 로일 강화 조약 내에 일본의 조선 통치권을 포함시킨 것을 나는 진심으로 동의한다》 고 언명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1905년 7월 륙군 장관 타프트를 직접 일본에 파견하여 일본 내각 총리 대신 가쯔라와 회담하고 《조선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가쯔라—타프트 비밀 협정》을 체결하였

다. 이 협정에서 미국은 일본의 조선 강점을 인정하였고 그 대신 일본은 미국이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리권을 계속 침해하지 말 것과 특히 미국의 식민지인 비률빈을 침해하지 않을 것 등을 호상 약정하였으며 당시 타프트는 일제에 의한 조선 강점은 《현 전쟁(로일 전쟁)의 론리적 결과》(티. 덴넷트. 《루즈벨트와 로일 전쟁》, 뉴욕 1925년 123～124 페지)라고 하였다.

로일 강화 조약 체결이 끝나고 일본 대표 고무라가 미국을 떠나면서 루즈벨트를 마지막으로 방문하고 《일본은 조선을 합병할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의사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통령 루즈벨트는 〈좋소, 알겠소〉라고 말하였다.》 (하야시 곤노스께 《나의 70년을 말한다》, 218 페지)

1905년 11월 조선을 실질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시킨 《을사보호 조약》을 일제가 강압적으로 조작했을 때 미국 정부는 이를 공개적으로 찬동하였으며 서울에서 자기 공사관을 어느 나라보다 먼저 철수하였다.

1910년 8월 일제가 조선을 완전히 합병하였을 때 루즈벨트는 《조선의 합병에 대하여서는 각국이 모두 다른 의견이 없을 것이다》, 《…나의 견해에 의한다면 일본은 무엇보다도 조선을 독립적 주권 국가로 더는 되돌아가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주저없이 단언한다》 (에이. 이. 그라즈단체바. 《조선》, 147 페지)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미제는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적극 추동하고 찬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기간 중 일제가 조선 인민에게 감행한 야수적 만행을 비호하였다.

1919년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며 독립을 요구하여 거족적으로 궐기하였던 조선 인민의 전 인민적인 3.1 봉기를 일제가 야수적으로 탄압한 데 대하여 미국무성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조선 문제에 대하여서는 영국이 그 식민지 문제에 대하는 것과 꼭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조선 문제는 순전히 일본의 내정 문제인 만큼 우리의 비률빈에 폭동이 일어 난 것과 동일하다.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취한 태도에 관한 어떠 가지 보도는 의심할 점이 있으며…일본이 극히 잔인하고 혹독한 방법을 취하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크리스찬 싸이언스 모니터》, 1919년 4월 21일)

미국은 그 후에도 조선에서 일제의 식민지 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그들과 야합하여 공동 행동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일제의 대륙 침략을 적극 지지하고 방조하였다.

그러는 일방 미제는 조선에 대한 본래의 식민지화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에 계속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이러한 준비 사업에 있어서 이미 조선에 침투시켜 놓은 미국인 《선교사》, 《의사》, 《교원》들을 통하여 부단히 진행하여 온 숭미 사상의 고취와 미국 내에서 직접 진행한 리 승만과 같은 자기 앞잡이의 양성은 가장 큰 역할을 놀았다.

2 차 대전에서 쏘련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파쑈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의 패망이 확정시되자 조선에 대한 미 제국주의자들의 오래 전부터의 침략적 야욕은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미국 대통령 프랑크링 루즈벨트가 카이로 회담에서 조선은 《약 40 년 간의 신탁 통치에 의한 정치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트루맨 회상기》, 뉴욕, 1956년, 2권, 316～317 페지)고 언명한 사실은 이를 가장 전형적으로 실증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선의 해방 후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계속 감행하고 있는 모든 범죄적 침략 행위의 력사적 근원을 잘 보여 준다.

2.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식민지 통치 제도의 수립

남조선에서의 미국 군정

1945년 8월 15일 조선은 쏘련 군대에 의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해방된 조선 인민은 무한한 감격과 흥분 속에서 새 생활 건설의 길에 들어 섰다. 남북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인민들은 자신의 창의에 의하여 인민의 정권 기관인 인민 위원회를 창설하였으며 자유롭고 부강한 자주 독립 국가의 건설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45년 9월 미군의 남조선 상륙은 조선 인민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미군은 해방의 감격에 들끓는 조선 인민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으며 태평양 지역 미 륙군 사령관 맥아더의 이름으로 남조선 지역에 군정의 실시를 선포하였다.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의 포고문 제 1호는 다음과 같이 횡포한 것이였다.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 륙군의 최고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정함.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좌기와 여히 포고함.

조선의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함.

주민은 본관 및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표한 명령에 즉속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 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군정 기간 중 영어를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공용어로 함.》

이것은 북조선에 진주한 첫날에

쏘련군 사령관이 《조선 인민들이여! …조선은 자유국이 되였다.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당신들은 자유와 해방을 찾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죄다 당신들에게 맡겨졌다…》고 선언 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였다. 본래 미군의 남조선 진주는 련합국간의 결정에 의하여 조선의 38 도선 이남에서 일본 군대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데 그 임무가 있었다. 따라서 해방된 남조선 땅에 군정을 실시할 하등의 리유와 근거도 없는 것이였다.

미제는 일본의 항복 후 자기 군대의 남조선 진주를 오래 전부터 기도하여 온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의 음모를 실현하는 기회로 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기자 마크 게인은 그의 저서 《일본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 우리들은 점령하기 위해서 조선인이 항복 조건에 복종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서 달려 간 것이다. 우리는 상륙 첫날부터 조선인의 적으로서 행동하였다.》

남조선에 상륙한 미군이 선차적으로 착수한 것은 인민들 자신에 의하여 창설되였고 인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민 정권 기관인 인민 위원회들을 탄압하고 해산한 것이였다.

마크 게인은 미군이 인민 위원회를 《지하에 몰아 넣기 위하여만 2개월 간 다른 것은 아무 것도 못하였다.》 (마크 게인, 《일본 일기》 뉴욕, 1948년)고 지적하였다.

1945년 9월 11일 미 점령군은 종전의 일제 《총독부》 자리에 《미 군정청》의 간판을 내걸고 그 기구와 인원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미 점령군은 조선 인민의 저주받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미국의 식민지 통치에 적합하게 정비 개편하는 데 광분하였다.

그들은 해방과 함께 자기들의 저지른 죄과로 하여 겁에 질려 숨도 크게 못 쉬고 배겨 있던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다시 끌어내여 군정 기관에 등용하며 식민지 통치의 지주로 규합하였다. 미제는 이러한 매국 주구들의 두목으로 미국에서 오래 동안 길러낸 리 승만을 남조선에 실어 왔다.

조선 인민을 탄압한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의 법령들은 그 대로 존속되였다.

1945년 11월에 발표된 군정 법령 21호는 《종래의 모든 법령들, 또는 구조선 정부 (즉 일제의 조선 총독부)가 발표하고 법령적 효력을 가진 규칙 명령 고시 기타 문서로써 1945년 8월 9일 실행 중인 것은…군정부의 특수 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전 효력을 존속》한다고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미 군정은 수다한 파쑈적 악법들을 조작하여 공포하였다.

《정당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미 군정 법령 55호는 《…어떤 형식으로나 정치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로 된 3 인 이상의 각 단체는…정당으로 등록할 것》이며 《단체 또는 협회의 행동이… 정부의 정책, 대외 관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을 때에는 정치적 활동》이 된다(미 군정 법령 55호, 1946년 2월 23일)고 규정하였다.

미 군정 법령 제 72 호는 《주둔군의 리익에 반하는 단체 운동을 지지, 협력하는 행동 및 지도 행위 또는 그 조직에의 참가, 여사한 행동을 원조하는 인쇄물, 서적의 발행, 류포 또는 상기 행동을 선전 류포하는 문건의 소지 …허가 없는 일반 집회, 행렬 또는 시위 운동의 조직 조장, 원조 또는 참가…미국 국민에 대한… 무례한 행위…주둔군, 련합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하여…불손하고 …불평 불쾌를 조장하는 인쇄물 서적의 발행, 류포…》등은 모두 《범죄》로 된다고 규정하였다. (미 군정 법령 72 호, 1조, 1946년 5월 4일)

미 군정 법령 제 55 호와 제 72 호에 의하면 세 사람 이상만 모여 앉아도 정당 활동이며 조선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이건 미 군정의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무조건 처단할 수 있게 되여 있다.

미 군정이 남조선에서 조작한 이와 같은 파쑈적 악법과 그가 계승한 일제 시기의 악법들은 500 여 건에 달하였다.

미 군정은 식민지 통치 기구를 정비한 데 기초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 활동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가혹하게 말살하며 남조선을 본격적으로 식민지 군사 기지화하는 길에 들어 섰다.

가혹한 탄압과 테로가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에 가해졌으며 그들의 활동은 완전히 봉쇄당하였다.

백주에 횡행하는 테로 행위에 의하여 1946년 9월부터 1947년 8월까지의 사이에 습격 파괴된 언론 출판 기관만도 11 개소에 달하였다.

미군은 또한 남조선에 상륙하자 《1945년 8월 9일 이후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어서 일본인에게 소속되였던 공, 사재산의 리권을 직접 또는 간접이거나 일부 또는 전부이거나 그 형태와 내용 여하를 불문하고 1945년 9월 25일부로 미 군정청에서 그 소유권을 접수한다》 (미 군정청 명령 제 2 호, 1945년 9월 25일)는 한 장의 포고문으로써 남조선 경제의 지도적 부문을 점탈하였다.

《적산》이란 명목 하에 미 군정이 점탈한 일본인 재산은 당시 미국 정부가 발표한 데 의하더라도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남조선의 총 자산의 약 80%에 달하는 것이였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장, 광산—2천 690건, 동산 3천 924건, 선박 225건, 창고 2천 818 건, 점포 9천 96 건, 농지 32만 4천 404 정보, 대지 15만 827 건,

주택 4만 8천 476 건, 림야 7만 39건, 과수원 2천 383건 (남조선 신문《서울 신문》, 1955년 1월 23일)이것은 일제가 조선 인민의 고혈을 짜 내여 이루어 놓은 것으로서 북조선에서 실시된 바와 같이 응당 조선 인민에게 반환 되여야 할 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은 이를 강탈한 다음 공장, 기업소들을 조직적으로 해체 파괴 불하하여 남조선 경제를 파괴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남조선을 용이하게 미국의 상품 판매 시장으로 식민지 원료 공급지로 전변시켰다.

이와 함께 1946년 2월 미 군정은 일제의 토지 및 량곡 수탈 기구였던 《동양 척식 회사》를 《신한 공사》로 명칭만 바꾸어 가지고 그에 속했던 남조선 경지 면적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 전부를 점탈하였다.

이렇게 미군은 남조선의 모든 경제 명맥을 장악하였다.

미국은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상륙시키자 곧 38 연선에서의 진지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군사 도로와 비행장, 항만의 신설 확장 공사를 추진시켰으며 1945년11월에 벌써 괴뢰군 육성을 개시하였다.

미국이 지닌 국제 공약 상 의무 즉 북위 38도 이남 지역에서 일본 군대의 무장을 해제할 데 대한 것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이와 같은 모든 행동들은 처음부터 미국이 조선에서 침략적 야욕을 추구하였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식민지 통치의 기반을 닦는 한편 38 선을 경계로 한 조선의 림시적 분렬을 고정시키며 조선이 자주적인 통일 독립 국가로 발전되는 것을 백방으로 방해하였다.

1945년 12월 모쓰크바에서 열린 쏘, 미, 영 3개국 외상 회의에서 조선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도를 토의하였을 때 미국 대표는 조선 인민 자신의 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이 장기간의 군정 실시에 뒤'이어 다시 10년 이상의 국제 신탁 통치를 예견한 식민지화의 방안을 제출하였다.

미국 정부의 이 제안은 쏘련 정부의 정당한 주장에 의하여 철회되였고 회의에서는 조선 인민 자신의 통일적 림시 정부를 수립할 데 대한 쏘련 정부의 제안이 채택되게 되였다.

미국 정부는 모쓰크바 3 상 회의 결정에 부득불 서명은 하였으나 이것이 자기들의 식민지화 계획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 결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소집되였던 쏘 미 공동 위원회 앞에 각방으로 인공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그를 파탄에로 이끌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쏘련 대표단은 조선 문제 해결의 궁극적 길은 조선 문제를 조선 인민 자신에게 맡기는 데 있다고 인정하고 조선으로부터 쏘, 미 량군을 동시에 철거시킬 것을 제의하였으며 쏘련은 1948년 말까지 북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일방적으로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정당한 제의도 거부하고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끌고 갔다.

이 시기 (1947년 7~9월)에 남조선에서의 미국 군사 기지화 계획 진척 정형을 조사한 미국 대통령 특사 웨드마이어가 그의 보고에서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전반적인 리익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는 통일 독립된 민주주의 조선의 출현을 불허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점령을 계속하여야 하며 또 앞으로 전 조선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1951년 5월 2일 미 국무 장관 애치슨은 미 상원 외교 및 군사 합동 위원회에서 미국 정부가 웨드마이어의 이 비밀 보고에서 제기된 건의 전부를 실천하였다고 증언하였다. (1951년 5월 2일 미 상원 외교 및 군사 합동 위원회에서 한 미 국무 장관 애치슨의 증언)

이와 같이 미제는 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자주적 통일 독립 국가를 건설하려는 조선 인민의 지향과 그의 모든 가능성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서 점령 제도를 실시하고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 섰다.

리 승만 괴뢰 정부의 날조

1947년 미국 정부는 유엔 총회 제 2 차 회의에 조선 문제를 상정 토의케 하고 거수 기계를 발동하여 남북 조선에서의 《선거 실시》를 《감시》할 《유엔 림시 조선 위원단》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유엔의 헌장과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행동이였다.

첫째 유엔 헌장 107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선 문제와 같은 전후 처리 문제는 유엔에서 토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유엔 헌장 2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엔은 어떠한 나라의 내정에도 간섭할 수 없다.

유엔에서의 조선 문제의 토의는 이 두 가지 기본 원칙을 모두 위반한 것이다.

당시 유엔 불란서 대표 꾸브제뮤르빌까지도 《조선 문제의 총회 상정은 조리에 합당치 않으며 전후 조정 문제의 심의는 회의 권한에 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세째로 또한 지적할 것은 만약 유엔이 조선 문제를 토의한다고 하면 한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서는 그 민족의 대표를 참가시켜야 한다는 유엔의 원칙에 립각하여 조선 인민의 대표를 응당 참가시켜야 할 것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원칙도 유린되였다.

미국이 유엔의 목적과 원칙을 철두철미 유린하면서 조선 문제

의 로의를 유엔에 강요한 것은 바로 그의 침략 정책을 유엔의 이름으로 조선 인민에게 강요하려는 흉책이였다.

미국 신문 《뉴욕 저널 앤드 아메리칸》지는 미 국무성으로부터 입수한 《보고》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조선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킨 목적이 《38 도선 이북에 놓여 있는 조선 절반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획득하려는 기도에 있어서 미국의 후원을 받게 될 남조선 정부를 수립》(《뉴욕 저널 앤드 아메리칸》, 1947년 9월 17일)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침략 도구로서 조작되여 조선에 파견된 《유엔 림시 조선 위원단》은 조선 인민의 일치한 배격을 받았다.

그렇게 되자 1948년 2월 미국 정부는 조급히 날조한 유엔 《소총회》에서 이른바 《가능한》 지역 즉 미군의 점령 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만 《선거》를 실시할 데 대한 《결의안》을 조작해 냈다.

소위 《유엔 소총회》 자체가 유엔의 헌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비법적 기구였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거니와 이 비법적인 기구에서 《가능한》 지역에서만 단독 《선거》를 실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우선 총검의 탄압이 가능한 남조선에서만이라도 그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할 괴뢰 정권을 날조하려는 데 있었다.

남조선에서 단독 《선거》를 실시할 데 대한 계획이 얼마나 황당한 것이였는가 하는 것은 지어 이 계획의 집행을 담당한 미제의 도구였던 《유엔 림시 조선 위원단》까지도 그에 의문을 표시했으며 그 성원국 대표 8 명 중 4 명이 이에 반대하거나 또는 기권한 사실에서도 명백하였다.

이 《위원단》의 단장이였던 인도 대표 케이.피.에스.메논은 《동 위원단의 전체 성원들이 조선의 일부에서만 총회의 결의를 수행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의심하였던 것이다…

또한 동 위원단의 전체 성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또는 진정한 국가 정부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를 근심하였다》 (《유엔 림시 조선 위원단》 보고서, 1948년 10월 15일)고 하였다.

사실 상 조선의 남쪽 절반 땅에서만 단독 《선거》를 해야 할 하등의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미국의 침략 군대가 주둔하는 조건하에서 그 어떤 《자유 선거》에 대하여 운운할 수 조차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은 남조선에서의 괴뢰 정부 수립에 의한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위기를 반대하여 거족적으로 궐기하였다. 《유엔 위원단 철거》, 《미군 즉시 철퇴》, 《망국 단선 반대》를 웨치는 전 조선 인민의 목소리는 온 강산에 울려 퍼졌다.

1948년 2월 7일 로동자들의 총파업에 호응하여 남조선 각지에서는 200만 명 이상이 망국 단선을 반대하는 구국 투쟁에 궐기하였다.

4월에 제주도에서는 전 도민이 항쟁에 일떠섰다.

미제가 강요하는 남조선에서의 단독 《선거》 음모를 남북 조선 인민들이 얼마나 일치하게 반대하여 나섰는가 하는 것은 이 민족 분렬의 위기를 앞두고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련석 회의에 남조선의 우익 정당들까지를 포함한 남북 조선의 56 개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회의에서 남조선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외국의 간섭이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전 조선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한결 같이 결의한 데서도 여실히 실증되였다.

남북 조선 제 정당, 사회 단체 대표자 련석 회의에서 시위된 거대한 민족적 단결에 대하여 미국인 존 간자도 다음과 같이 썼다.

《이와 같이 많은 남조선 사람들이 출석하였다는 것은, 사정은 여하튼 간에, 조국 통일에 대한 그들의 본능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존 간자, 《맥아더의 수수께끼》)

당시 이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오직 미제의 충복 리 승만 일당 뿐이였다.

불란서 신문 《콩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투표가 있기 닷새 전에 다 같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자로 알려져 있는 우익 보수주의자인 김구와 온건한 자유주의자인 김 규식의 두 정치 지도자들은 평양에서 북쪽 수뇌자들과의 회담을 끝마치고 수도로 돌아 왔었다. 그들은 모두 유리한 조건에서 조선을 통일할 수 있는 협정을 북쪽의 정치 지도자들과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리 승만은 그 모든 것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콩바》, 1956년 6월 2일)

당시의 이러한 정형에 대하여서는 미국 기자 조지 막큔도 그의 저서 《오늘의 조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남조선 대표들은 4월 말과 5월 초에 돌아오자 북조선 지도자들이 온건한 견해와 의심할 바 없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공공연히 찬동하였으며 북조선 형편에 대하여서도 호의적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미군 사령관 하지 장군은 남조선 인민에게 그들의 충고를 듣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아 넘은 소경들이라고 시사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남북 조선 지도자들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류산되고 말았다. 》(조지 막큔, 《오늘의 조선》 뉴욕, 1950년)

남북 조선 인민들의 일치한 거

족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그의 기정 방침 대로 1948 년 5월 10일 미 점령군과 남조선 경찰 및 리 승만 테로단이 총 동원된 살인적 폭압 속에서 소위 《유엔 감시 하의》 단독 《선거》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선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였다.

《선거》를 앞두고 미 군정 당국은 《특별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점령군을 《2 주일 동안에 약 50% 가량 증가》(워싱톤 1948 년 5월 3일 발 《유피》)시켰으며 비행기, 땅크, 함선까지 출동시켰다.

남조선 경찰은 3만 5천 명으로부터 5만 명으로 확장되였으며 그의 보조 기관으로서 《향보단》이란 테로단이 조직되였다.

《선거》는 문'자 그 대로 란장판이였다.

미제 침략군과 리 승만 테로단은 《선거》를 결사 배격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총칼과 몽둥이로 억지로 《선거장》에 끌어 냈다.

서울에서의 《선거》 광경에 대하여 미국 《유피》 통신사 특파원 제임스 로이퍼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군 정찰기는 상공을 비행하였으며 선거장이 있는 곳에는 야구용 타봉을 가진 <향보단>에 의하여 엄중히 경호되여 있었으며 서울에서는 수천 명의 경관과 특임된 민간인이 미국 군대의 지원 하에 각 요소와 교차장에 바리케트를 설치했으며 각 골목 입구에는 경비대가 배치되여 있었다.

민간 경비대원은 도끼'자루, 야구용 타봉, 곤봉들을 휴대하고 있었고 조선 경비대는 미국 카빙총으로 무장하였다. 분위기는 계엄령 하의 도시와 같았다.》

사실 상 그것은 《선거》가 아니였다.

그것은 유엔의 간판을 둘러멘 미제 침략자들과 조국의 분렬을 반대하며, 식민지 예속화를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요구하는 조선 인민과의 공개적 격투였다.

《유엔 림시 조선 위원단》이 유엔에 제출한 문건에 의하더라도 《선거》준비와 《선거》 실시 기간에 416 명의 인민들이 살해되었으며 858 명이 부상 당하였다.

《선거》는 사실 상 파탄되였다.

소위 《선거 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더라도 경상 남북도에서는 유권자의 겨우 10~20%가 강압에 못이겨 《선거》에 참가하였을 뿐이며 《선거》가 진행된지 10 여 일을 경과한 후에도 30 개 선거구의 《투표 결과》는 발표되지 못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림시 조선 위원단》은 《선거》가 《자유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였다고 유엔에 보고하였으며 이에 기초하여 미국은 남조선 괴뢰 《국회》를 날조하고 리 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민족 반역자들의 규합체인 괴뢰 단독 정권을 조작했다.

그리고 유엔 총회 제 3 차 회의에서는 리 승만 괴뢰 정부를 《선거자들의 자유 의사의 정당한 표현인 선거에 근거한 정부》라고 한 《결의안》을 강압 통과시켰다.

이 모든 것은 얼마나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강도적 사기 협잡 행위인가. (유엔의 간판을 더럽힌 이 사기 협잡의 정체는 1960년 4월 리 승만 괴뢰 정권이 남조선 인민의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에 의하여 타도되였을 때 더 론의할 여지 없이 전 세계 앞에 드러났다.)

조선 인민은 미제 침략자들의 총검으로 날조된 리 승만 괴뢰 정권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다.

리 승만 괴뢰 정권은 사실 상 미 군정의 연장이며 미국 식민지 정책 수행의 도구에 불과하였다. 《유엔 한국 재건단》 계획관으로 남조선에 와 있었던 카나다인 제이. 젠킨스도 자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쓴 수기 《남조선의 진상》에서 《미군이 남조선의 실제 정권》이라고 인정하였다.

리 승만 괴뢰 정부는 1948년 9월의 《한미 재정 및 재산 이양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미 군정청 또는 남조선 과도 정부의 일체 현행 법률, 법령 및 규칙들을 전'적으로 계속 시행》할 의무를 졌다.

동년 12월에 체결된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은 남조선 경제와 무역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관리권을 규정하였다.

1948년 8월의 《한미 군사 협정》에 의하여 미군은 계속 남조선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장악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이 남조선에서 조작한 이른바 《자유 독립 정부》란 결국 미제의 식민지 통치 기구라는 것이 명백하다.

인민 탄압

남조선 인민들에게 강요된 미국의 식민지 통치는 그의 첫 출발부터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치게 되였다.

미제는 식민지 통치 기구를 강화하며 북조선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을 탄압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진출을 압살하기에 광분하였다.

유엔 총회 제 5 차 회의에 제출된 《유엔 조선 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더라도 미국과 리 승만 도당이 조작한 파쑈적 악법인 《국가 보안법》에 의하여 1949년 한 해 동안에만 14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11만 8천 621 명의 남조선 인민들이 체포, 투옥되였다. (《유엔 조선 위원단》의 보고서, 1950년 9월 5일)

민족 분렬 정책과 파쑈 테로 통치를 반대한다고 하여 미제는 미국 군사 고문 단장 로버트의

직접적인 지휘 밑에 1948년 4월부터 10 개월 간에 제주도에서만 3만 5천 여 명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1만 여 호에 달하는 민가를 소각하였으며 1950년까지에는 제주도 총 인구의 4 분의 1에 해당하는 7만 여 명의 주민들을 학살하였다.

1948년 10월 려수와 순천에서 제주도 인민들에 대한 토벌 작전을 반대하여 남조선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미군은 비행기, 땅크, 군함까지 동원하여 5천 여 호의 가옥을 소각하고, 6천 여 명의 인민을 학살하였다.

순천에서는 폭동군을 도와 주었다는 리유로 120 여 명의 녀학생을 잡아다가 인간 리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야수적 방법으로 고문 학살하였다.

이러한 대량적인 살륙 행위는 남조선 도처에서 감행되였다.

1949년 1년 동안에만 10만 9천 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이 학살되였으며 1949년 1월부터 1950년 2월까지에 20만호의 농가가 소각되여 100 여 만의 농민이 집을 잃었다.

일체의 민주주의적 출판물들은 폐간되고 일체의 민주주의 정당, 사회 단체의 활동이 금지되였는바 1949년 9월～10월 간에 132개의 정당, 사회 단체들이 강제 해산되였다.

남조선에서는 세계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쑈 테로가 지배하였다.

그러나 인민은 굴하지 않았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여 계속 완강히 투쟁하였다.

리 승만 일당의 참패로 끝난 1950년 5월 《국회》 선거의 결과는 남조선의 《정치적 장래는 혼돈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서울 1950년 6월 1일 발《로이터》)으로 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괴뢰 통치의 파산에 직면한 미국과 리 승만 도당은 조성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북조선을 반대하는 전쟁 도발에서 찾으려고 더욱 광분하였다.

남조선에서 격화되는 《북진》 소동에도 불구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국을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데 대한 전 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 방안을 거듭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다.

북조선측은 1949년 6월과 1950년 6월에 남북 조선을 통한 자유로운 총 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 최고 립법 기관을 창설하고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이 제의의 실현을 방해하였다.

1950년 6월 19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와 남조선 국회를 전 조선 립법 기관으로 련합하는 방법으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할 것을 남조선 국회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이 거듭되는 평화적 제의들에 대하여 끝내 전쟁의 도발로써 대답하였다.

3. 조선 인민을 반대한 미국의 침략 전쟁

전쟁 범죄자의 정체

1950년 6월 25일 미 제국주의자들은 전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할 목적으로 리 승만 도당으로 하여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케 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리 승만 도당이 38 선 전역에 걸쳐 무력 침공을 도발하였을 때 어디까지나 동족 상잔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략자들이 무모한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침략자들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군사 행동을 확대하여 나섰다.

조성된 정세 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더는 참을 수 없어 침략자들을 격퇴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 인민군의 영웅적 반격에 직면하여 《전격전》의 방법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단숨에 삼켜 보려던 계획이 파탄되자 미국은 소위 《경찰 자위 행동》이란 구실 밑에 자기의 륙해공군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무력 침공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100년 이상이나 음흉하게 지속하여 온 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이 가장 야수적이고 류혈적인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아세아 대륙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처음부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각방으로 방해하여 왔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무력 침공을 준비하였었다.

미국이 이 전쟁을 오래 동안 용의 주도하게 준비하여 왔다는 것은 리 승만 도당이 《북벌》에 대하여 계속 떠들어 온 사실과 더불어 6.25 전쟁 개시 오래 전부터 38 연선에 집중시킨 병력 배치와 빈번히 계속된 38 선 충돌 사건의 도발과 또한 서울 해방 시에 조선 인민군이 리 승만의 비밀 문서고에서 입수한 많은 비밀 문건들과 리 승만 괴뢰 정부 요인들의 자백과 기타 허다한 사실들에서 실증되였다.

1949년 4월 10일 리 승만은 소위 자기의 특사 조 병옥에게 보낸 비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는 당신이 이 사정을 국련과 북미 합중국 요인들과 절대 비밀리에서 흉금을 털어 놓고 토

의하여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상 우리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통일할 수 있게 준비되였습니다.

그 한 가지 관계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기와 탄약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이 전투 행동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8천 톤 급의 군함 2 척이 요구되며 압록강과 두만강을 방어하기 위하여 18 인치 구경을 가진 대포들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는 공산주의적 지하 운동을 반대하며 해안선을 수호하기 위한 쾌속도 경비정들이 요구됩니다.

우리에게는 북방 국경을 수비하기 위한 잘 조직되고 훈련된 20만의 군대가 요구됩니다.

우리에게는 비행기들과 고사포들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즉시 요구됩니다.》

1949년 9월 30일 리 승만이 미국인 로벨트 오리벨에게 보낸 비밀 서한에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나는 당신의 서한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서한을 보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는 우리 환경에 대하여 당신에게 간단히라도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이 공격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방어선이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되게 될 그 때에는 우리의 처지가 100%로 좋게 될 것입니다.

강과 백두산을 계선으로 자연적 방어선은 만일 상당한 수효의 비행기와 이 두 강의 하구에 2～3개 의 쾌속정과 또는 해안과 제주도를 방어할 전투 비행기들을 가지게 된다면 불가침의 방어선으로 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만일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을 허락하여 준다면 가장 가까운 시간에 해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조선 인민군이 서울 해방시 리 승만의 비밀 문서고에서 입수한 비밀 문건들 중에서)

실지 미국은 조선 전쟁 도발 직전까지 남조선 군대 증강에 전력을 다하였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은 1949년 한 해 동안에 남조선에 1억 9천만 딸라에 해당하는 무기를 제공하였다.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1950년 1월 26일 미국은 리 승만 정부와 소위 《한미 호상 방위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조선 전쟁을 도발하기 얼마 전인 1950년 5월 9일 《이씨에이》한국 원조 처장 존슨은 미 하원 세출 위원회에서 《미국의 무장으로 장비되고 미국인에 의하여 훈련된 10만 명의 남조선 군대 장병들은 자기의 준비를 끝마쳤으며 임의의 순간에도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다.

미국의 전쟁 도발 준비는 1950년 상반년에 아주 급속도로 진척되였다.

1950년 2월 리 승만은 일본에 있던 미 극동 사령부를 방문하여 맥아더로부터 동년 7월 이전으로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무력 침공을 개시할 데 대한 구체적 지시를 받고 돌아 왔다. (미 군정시 씨아이씨 고문이였으며 리 승만의 정치 고문이던 문학봉의 고백에서)

조선 전쟁을 도발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중순 미 국방 장관 존슨과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브래들리는 도꾜에 와서 미 극동 총 사령관 맥아더와 더불어 특별 비밀 회의를 련일 진행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악명 높은 전쟁 상인 덜레스는 전쟁 도화선에 불을 지를 사명을 지니고 1950년 6월 17일 직접 남조선에 날아 들었다.

덜레스는 6월 18일 38 선 일대를 시찰하면서 전호 속에서 《북벌》 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남조선에 물심 량면의 원조를 주기 위하여 준비되여 있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북조선에 있어서의 지배를 상실할 것이다.》(서울 1950년 6월 19일 발 《유피》) 라고 떠벌렸다.

그 후에 있은 일련의 사실들은 이 때 덜레스가 리 승만에게 최종적으로 전쟁 도발을 지시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38 선에서 서울에 돌아 가자 덜레스는 리 승만에게 《시기가 성숙되였으니 북한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하여 공격을 개시하라… 만약 2 주일만 견디여 낸다면 이 동안에 미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서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 해 공군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여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지시하였다. (리 승만 괴뢰 정부의 전 《내무부 장관》 김 효석의 증언에서)

그리고 6월 20일 리 승만에게 보낸 작별 편지에서 덜레스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대한 연극에서 당신의 나라가 놀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에 대하여 나는 극히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고무하였다. (조선 인민군이 서울 해방시 리 승만의 비밀 문서고에서 입수한 문건 중에서)

남조선에서 일본으로 돌아 간 덜레스는 1950년 6월 22일 맥아더와의 장시간에 걸친 회담 끝에 미국이 《극동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미국 신문 《뉴욕 타임스》, 1950년 6월 22). 덜레스가 말하는 이 《적극적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였는가 하는 데 대하여 미국 기자 아이. 에프. 스톤은 그의 저서 《조선 전쟁 비밀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것은 6월 22일의 일이였다. 그에 뒤'이어 일어난 《적극적 행동》은 6월 25일 조선 전쟁의 발발

과 6월 27일 미국 정부가 내린 태평양 지역의 공산주의에 대한 대규모적 간섭의 결정이였다.》(아이.에프.스톤《조선 전쟁 비밀사》, 뉴욕 1952년)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미리 예정하였던 대로 자기들의 흉악한 범죄 행위를 엄폐하기 위하여 전쟁이 북으로부터의 《불의의 기습》에 의하여 일어 난듯이 모든 선전 수단을 총 발동하여 요란하게 떠들어 댔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파렴치한 허위 소동인가하는 것은 우에서 지적한 사실들, 이외에도 그 후 날이 갈수록 드러난 여러 가지 사실들에 의하여 반증되였다.

사실 상 미국과 리 승만 도당은 이 전쟁을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하였었다.

그들은 《북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수천 회나 38 선 이북 지역을 침범하여 주민들을 랍치하여 가며 농가에 방화하며 그들의 재산을 략탈하며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1949년도에만도 이러한 무장 칩습 사건은 1,836 회나 감행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오직 동족 상잔의 참극을 피하기 위하여 거듭 경고를 주며 38 선 충돌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강의한 인내성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아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드디여 전면적 침공을 감행하고서는 북으로부터 먼저 《공격》이 있은 것처럼 떠들어 댄 것이야 말로 완전히 적반하장격이였다.

미국은 북으로부터의 소위 《불의의 기습》에 대하여 떠들었지만 1951년 6월 5일 미 상원 세출 위원회에서 진행된 국무성 예산에 관한 토의 행정에서는 미 국무성이 전쟁이 일어 나기도 전부터 벌써 유엔에 제출할 《조선 전쟁》에 관한 《결의안》까지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추악한 사실이 탄로되였다.

즉 이 날 당시의 유엔 담당 국무 차관보 죤 히카슨은 퍼기슨 상원 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조선에서 미국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공격》을 받았었다고 하였었으나 질의 응답이 심화되는 과정에 그것이 거짓말이였다는 것이 밝여지자 사실인즉 조선 전쟁이 일어 나기 전에 벌써 국무성은 이 《문제》를 《유엔에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정해 있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토하였다.

《어떤 것을 이야기할 것인가 하는것도 개략적으로는 정하여 있었》으며 《결의안의 골자만은 작성하여 두었다.》 (아이.에프.스톤 《조선 전쟁 비밀사》, 뉴욕 1952년)

이 밖에 침략자들이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수많이 있다.

레컨대 인도 신문 《크로스 로트》 (1950년 12월 22일 부)는 조선 전쟁 발발 당시 맥아더 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이란 주재 미 군사 고문으로 전임한 헤이다 대좌가 이란의 참모 대표 및 이란 륙군 대학생들과의 회담 등에서 조선 전쟁은 일본에 있는 미군 총 사령부의 직접적 명령에 의하여 한국군이 개시하였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자랑 삼아 이야기하였다는 것을 보도하였다.

미국 잡지 《라이프》는 또한 《우리는 우리 력사의 전 기간을 통해서 이 전쟁이 시작될 때처럼 그러한 정도로 준비되여 있은 례를 이때까지의 그 어떤 전쟁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썼다. (《라이프》 1950년 8월 호)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미제의 범죄적 정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엄폐할 수 없다.

도용 당한 유엔의 기'발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기정 계획 대로 그들의 죄악을 유엔의 기'발로 엄폐하기 위한 음모 책동으로서 6월 25일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를 소집케 하고 덮어 놓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비법적인 《결정》을 강압 통과시켰으며 뒤'이어 6월 27일에는 미국과 그의 추종국들이 조선에서 직접 무력 간섭을 감행할 데 대한 《결정》을 비법적으로 통과시켰다.

이것이 얼마나 허황한 날조였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로서도 명백히 실증되였다.

첫째로, 그것은 38선상에서의 전쟁 발발에 관한 그 어떤 과학적 자료나 증거도 없이 오직 미국의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기초로 조급히 날조되였다는 사실이다.

미국이 조선 전쟁을 도발하기 전부터 유엔에 제출할 《결의안의 골자》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우에서 지적한 바이거니와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 토의의 기초로 내놓은 유일한 자료는 오직 《주한 미국 대사》와 미제의 침략 도구인 《유엔 조선 위원단》이 날조하여 보낸 전보문 뿐이였다.

이것이 《증거》의 전부였으며 그밖의 아무런 증거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었으며 또 제출할 수도 없었다. 이 전보문의 진실 여부에 대한 검증도 물론 없었다.

그리고서도 감히 《침략자》에 대한 규정을 함부로 내렸으니 이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파렴치한 일인가!

원래 유엔 헌장 제 2 조 7 항은 어떠한 국가의 내정에 대하여도 유엔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리 승만 도당이 침공을 개시하였을 때 미국이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 조선 문제에 관한 토의를 강요한 자체가 이 면에 있어서 유엔 헌장을 란폭하게 위반한

것이거니와 일단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토의하는 이상에는 분쟁 당사국이 유엔 성원국이건 아니건을 막론하고 분쟁 문제의 토의에 참가시키기로 되여 있는 유엔 헌장 제 32 조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를 응당 참가시켜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유엔 미국 대표는 응당히 하여야 하며 또 하게 되여 있는 이러한 초보적인 절차조차도 실행하지 못 하게 하면서 조급하게 비법적인 《결정》을 채택케 하는 데만 급급하였다.

그것은 바로 현지 조사나 증언 청취가 진행된다면 미국의 전쟁 도발 행동의 진상이 모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였다.

둘째로, 미국이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 강요한 조선 전쟁에 관한 《결정》이 협잡판이였다는 것은 그것이 리사회의 결정은 5 개 상임 리사국 일치 가결에 기초해서만 채택될 수 있다는 헌장 제 27 조 3 항을 완전히 유린하고 제멋대로 조작된 데 있다.

즉 이 《결정》들은 상임 리사국인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참가 없이 날조되였던 것이다.

세째로, 그것은 유엔의 이름으로 무력 간섭을 감행할 데 대한 6 월 27일의 《결의》가 이미 미군이 무력 침략을 개시한 다음에 기정 사실을 승인하는 식으로 채택된 데 있다.

미국 대통령 트루맨이 미 공군과 해군에게 리 승만 괴뢰군을 《지원하도록 명령》한 것은 1950년 6월 27일 12시였는데 무장 간섭에 관한 《결의》를 비법적으로 채택한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는 같은 날 오후 3시 15분에 개최되였다.

미국이 소위 《유엔의 경찰 행동》이라고 빙자하면서 조선에서 감행한 무력 간섭의 내막은 이렇다.

맥아더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 군대는 유엔 결정이 있기 12시간 전에 행동하고 있었다.》 (1951년 미 상원 공청회에서 한 맥아더의 증언) 1950년 7월 7일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미국은 조선 침략에 참가한 미군과 그의 추종 국가 군대들을 《유엔군》으로 부를 데 대한 비법적 《결정》을 채택케 하고 맥아더를 《유엔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이 모든 것이 곧 미국이 유엔을 그의 편리한 침략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것을 의미한 데 불과하다는 것은 《유엔군 사령관》으로 행세한 맥아더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나와 유엔과의 관계는 전혀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내가 한 모든 것은 합동 참모 본부의 전면적인 통제를 받고 있었다…일상적으로 내가 작성하는 보고까지도 미 국무성 및 국방성의 검열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요컨대 무슨 형식을 취하건 나는 유엔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나의 통신은 전부 워싱톤의 미군 사령부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1951년 미국 상원에서 한 맥아더의 증언)

전쟁사 상 류례 없는 만행

조선에서 전쟁을 본격화하면서 미국은 조선 사태를 평화적으로 조정할 데 대한 쏘련을 비롯한 기타 평화 애호 국가들의 모든 성의 있는 발기들을 일체 거부하여 나섰다.

미국이 조선 사태를 평화적으로 조정할 데 대한 모든 제의들을 무조건 거부하여 나서는 것은 그들이 전쟁 도발자들이며 평화의 원쑤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 주었다.

미국은 전 조선을 강점하기 위한 전쟁을 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황에 직면한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하여 전쟁이 계속 확대될 것을 원하였다.

미국 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는 월가 전쟁 상인들의 이러한 진의도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 전쟁은 새로운 앙양의 시기를 열어 놓았다. 구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는 정세가 조성되였다.

조선 전쟁은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래 미국 기업가들을 집요하게 뒤따라 다닌 공황의 유령을 없애 버렸다. 전도에는 긴 앙양의 시기가 놓여 있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1951년 8월)

조선에 출동한 미 제 8 군 사령관이였던 밴 프리트는 《조선 전쟁은 하나의 축복이였다.

이 곳에서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계의 어느 곳에서 조선이 없어서는 안 되였다》 (《뉴욕 저널 앤드 '아메리칸》 1959년 1월 19일)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은 미제 침략자들의 타산 대로는 되여 가지 않았다. 미국은 최신 기술로 무장한 자기의 병력으로써 조선 인민을 쉽게 정복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침략자를 반대하여 궐기한 조선 인민의 영웅적 항전에 직면하여 이 타산이 파탄되고 조선에서 패배를 거듭하게 되자 미 제국주의자들은 그의 야수적 본성을 더욱 적라라하게 드러내 놓았다. 소위 《유엔의 경찰 행동》을 운운하던 그들은 조선에서 전례 없는 파괴적 전쟁을 전개하였다. 전쟁 법규에 관한 국제 협정들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미국 무력 침공자들은 평화적인 도시와 농촌에 야만적인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며 평화적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학살하며 경제를 파괴하고 국토를 황폐화하는 것으로써 조선 인민을 놀래우며 굴복시켜 보려고 시도하였다.

조선의 평화적 주민 지대들에 대한 미군 공군 부대들의 무차별 폭격은 1950년 6월 26일부터 이미 개시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조선 인민군의 반공격에 의하여 남으로 패주하게 되자 남조선의 도처에서 살인, 방화, 파괴 행위를 자행하였다. 초보적으로 판명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그들은 수원에서 1, 146 명, 충주에서 2,060 여 명, 공주와 평택에서 각각 600 여 명, 부여와 청주에서 각각 2, 000 여 명, 대전에서 8천 644 명, 전주에서 4,000 여 명,군산과 안양에서 각각 400 여 명, 통영에서 800 여 명을 학살한 것을 위시하여 대소 도시 촌락들에서 무수한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1951년 9월 15일 미국의 《유피》 통신이 보도한 데 의하더라도 그때까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학살 당한 주민 수는 100만에 달하였다. 미국 침략자들은 북조선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시기에 더욱 참혹한 학살, 략탈, 파괴의 각종 만행을 감행하였다.

미 제 8 군 사령부는 그의 병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

《닥치는 대로 죽이라. 설사 그대들 앞에 나타난 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고 할지라도 손이 떨려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조선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미국 시민으로서의 임무를 다하라.》

미국 침략군이 조선 인민군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인민들을 학살한 각 지방의 수'자는 전시에 초보적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막대한 수에 달하고 있다.

안악—19, 072 명, 신천—35, 383 명, 송화— 5, 545 명, 은률—13,000 여명, 평산—5,290 여명, 해주— 2, 700 여명, 평양—15, 000 여명, 남포—1, 511 명, 강서— 1,561 명, 안주— 5, 000 여 명, 선천— 1,400 여 명,철원— 1, 560 여 명, 양양— 25,300 여 명, 개천— 1,342 명, 박천—1, 400 여명,

이상에 지적한 지역 이외의 강점 지역의 대소 도시와 부락들에서도 동일한 학살 만행이 감행되였다.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서의 수많은 대중 학살 사건 중 황해도 신천군에서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례로 된다.

신천군에서는 미군이 강점한 약 45 일 간에 3만 5천 383 명의 인민들이 학살 당하였는바 이는 군내 전 인구의 약 25%에 해당한다.

신천군에서 학살된 주민들 중에는 어린이와 로인, 부녀자들이 16, 200 여 명이나 포함되여 있다.

미국 강점자들은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함에 있어서 총살, 타살, 교살, 생매장 등의 방법과 함께 귀를 꿰여 끌고 다니다가 죽이며 눈알을 뽑고 유방을 잘라 죽이며 머리가죽이나 몸가죽을 벗겨서 죽이며 입술을 도려 내고 혀를 잘라 죽이며 사지를 각을 떠서 죽이며 끓는 물에 삶아 죽이며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며 톱으로 토막을 내여 죽이며 휘발유와 장작 낟가리 우에서 불태워 죽이며 땅크로 깔아 죽이는 등 짐승도 낯을 돌릴 갖은 간악한 방법을 다 썼다.

사실 상 이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류례가 없는 가장 야만적이고 대규모적인 만행이였다. 전쟁 중 조선을 방문하였던 국제 민주 녀성 련맹 조사단은 그의 보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 야만적 행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 군대와 리 승만 군대가 림시로 점령한 지역들에서 감행한 대중적 학살과 대중적 고문들은 히틀러 나치스들이 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구라파에서 감행한 만행보다 더 혹심한 것이다.》 (미제 침략군과 리 승만 괴뢰군이 감행한 만행에 대한 국제 민주 녀성 련맹 조사단의 1951년 5월 28일 부 보고서)

미국 침략자들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야수적 학살 만행으로써도 조선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자 인류 도덕과 국제 협약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화학 및 세균 무기까지 사용하는 데 이르렀다.

미군은 1952년 1월~3월 간에만도 북조선의 400 개소 이상의 지역에 700 여 회나 세균탄과 살인용 미생물을 보유한 각종 물체를 투하하였다.

세균전을 직접 집행하다가 포로된 미 공군 인원 19명중 미 해군 륙전대 대좌 프랑크 에취 쉐버의 진술에 의하면 《조선에서의 세균전 계획 전체는 미국 합동 참모 본부에서 1951년 10월에 지시한 것이다. 1952년 5월에 세균전은 제 5 공군의 지시에 의하여 더욱 확대되였다.》 (조선 전쟁에서 포로된 미국 해군 륙전대 대좌 프랑크 에취 쉐버의 1952년 12월 6일 부 진술서)

투하된 세균탄에는 파리, 벼룩, 거미, 빈대, 모기, 이, 딱정벌레, 귀뚜라미 등 유해 곤충이 무수히 들어 있었으며 그것들에는 코레라, 페스트, 티프스 등 가장 악질적인 전염병균들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이와 같은 세균전 만행도 조선 인민의 전 인민적 반세균 투쟁에 의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였으며 투하된 세균 매개체들은 대부분 효과를 발생하기 전에 전멸되였다.

세균전에서 실패한 미제는 북반부 전 지역에 대한 야만적 무차별 폭격을 더욱 발광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이미 미군의 발광적인 폭격으로 1951년도 말까지 평양을 비롯한 북반부의 각 도 소재지는 물론 각 시, 군 소재지들까지도 폐허가 되다싶이 파괴되였다.

1952년 8월에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북반부 78 개 도시를 《지도 우에서 없애 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무차별 초토화 폭격을 더 한층 강화하였다.

도시는 물론 농촌, 어촌, 산간 유곡에 이르기까지 폭격의 대상으로 되지 않은 곳은 없다.

미군은 실로 1952년 1년 동안에만도 우리의 평화적 도시와 농촌에 20 여 만 개의 대, 중 폭탄을 투하하였으며 5억 여만 발의 탄약과 약 40 여 만 개의 로케트포탄, 1,500 여 만 발의 나팜탄을 투하 또는 발사하였다.

1952년 6월 하순에 클라크는 미 합동 참모 본부의 직접적 명령에 의하여 수풍 발전소에 대한 대거 폭격을 감행하였으며 뒤이어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의 여러 발전소들과 또한 각지의 관개용 저수지들을 폭격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전쟁 기간에 미국 침략자들은 북조선에서만도 8,700 여 동의 공장과 생산 시설, 60만 호의 주택, 5천 여 개소의 학교를 비롯하여 기타 수천 개소의 보건 문화 후생 시설들을 파괴 소각하였다.

미국 침략자들은 우리측 전쟁 포로들에 대하여 또한 형용할 수 없는 각종 만행을 다 하였다.

그들은 전쟁 포로 대우에 관한 국제 협정들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우리측 포로들을 일상적으로 박해하며 비인도적으로 대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각종 실험 대상으로 삼았으며 닥치는 대로 학살, 고문, 구타하고 참을 수 없는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

거제도, 제주도, 봉암도의 포로 수용소들에서 미군이 우리측 포로들에 대하여 감행한 전률할 만행은 당시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미국은 정전 담판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날조해 냈던 포로들의 소위 《자원 송환》에 관한 황당한 주장을 관철시켜 보려고 우리측 포로들에게 가한 야수적 폭행으로써만도 3만 3, 600 여 명의 우리측 포로들을 학살하였다.

그들은 우리측 포로들이 송환을 거부한 데 대한 자기들의 강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수공권의 포로들에게 가스탄을 뿌리고 기관총 사격을 가하여 집단적으로 학살하기도 하고 생매장하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며 또한 굶겨 죽이고 얼궈죽이고 개로 하여금 물어 뜯어 죽이게 하였으며 녀성 포로들에 대하여서는 강간 륜간 끝에 학살하는 등 갖은 잔인한 행동을 다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우리측 포로들을 대량 살륙 무기의 실험과 기타 각종 실험의 대상으로 리용하였는바 세균 무기를 실험 공급하는 미국 함선 《1 091 호》는 거제도 해상에 와서 우리측 포로들을 상대로 매일 3,000 여 회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조선 침략 전쟁 시기에 미제가 감행한 전률할 비인도적 만행은 전 인류의 이름과 량립될 수 없는 것이 였다.

침략자의 참패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전쟁에서 인류의 극악한 원쑤로서의 그의 야수적 정체를 여지 없이 전 세계 앞에 드러내 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발악적인 만행으로써도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 궐기한 조선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

3 년 간의 가렬한 전쟁 끝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드디여 자기들이 침략 전쟁을 도발하였던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전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조선 전쟁에 미 륙군의 3 분의 1, 공군의 5 분의 1, 함대의 중요 부분을 총 동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15 개의 추종 국가 군대들과 리 승만 괴뢰군 등 도합 200 수십 만 명의 대 병력과 막대한 전투 기술 기재를 동원하였었다.

미국은 조선 전쟁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소모한 군수 물자의 11 배에 해당하는 7,300만 톤의 군수 물자를 투입하였으며 200억 딸라의 군사비를 탕진하였다.

조선 인민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괴수로 한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침공을 반대하여 피로써 자기 조국의 촌토를 사수하였으며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끝까지 고수하였다.

조선 인민은 다시는 식민지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침략자를 반대하는 투쟁에 바쳤다.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은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았다.

특히 중국 인민은 《항미 원조》의 기치 하에 지원군을 보내여 조선 인민을 피로써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의 백절 불굴의 영웅적 투쟁은 마침내 침략자들을 타승하였다.

3 년 간의 전쟁에서 미국은 미군 39만 7,000 여 명을 포함한 109만 3,800 여 명을 살상 포로당하였으며 1만 20,00 여 대의 비행기, 560 여 척의 함선, 3,000 여 대의 땅크를 비롯한 방대한 전투 기재를 소멸 손상 당하였다.

조선 전쟁에서의 참패—이는 미 제국주의의 침략 력사 상 처음으로 되는 가장 큰 패배였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은 미국의 《만능》에 관한 신화를 여지 없이 분쇄하였으며 미국식 《민주주의》의 흉악한 정체를 낱낱이 폭로하였다.

조선 전쟁의 경험은 제국주의자들이 동방에서 인민들을 마음대로 정복 략탈하며 행세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4, 미국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 막고 있다

남조선 영구 강점의 책동

조선 정전의 성립은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조선 정전 협정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조선 정전 협정 서문)할 목적으로 체결되였으며 체약 쌍방은 《정전 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 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 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조선 정전 협정 제 4 조 60 항) 의무를 부담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정전 협정을 충실히 준수하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침략 전쟁에서 패배를 당하여 부득불 정전 협정에 조인하고 난 미국은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욕을 버리지 않고 처음부터 자신이 서명한 정전 협정의 정신과 협정에서 부과된 자기 의무를 유린하는 길에 들어 섰다.

1953 년 8월 8일 미국은 남조선 괴뢰 도당과 《한 미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미 합중국의 륙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 민국의 령토 내와 그 부근에 배비하는 권리를》 《무기한으로》 허여하였다. 이와 함께 《조약》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무제한으로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였다.

이 《조약》은 미군의 남조선 영구 강점을 공공연히 규정한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것이였다.

바로 이것은 일체 외국 군대를 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선 정전 협정을 미국측이 비렬하게 배신하는 행동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후 1953 년 12월 미국측은 정전 협정에 예견된 정치 회의 소집을 위한 판문점에서의 쌍방 예비 회담을 일방적으로 파탄시키고 정치 회의의 소집 자체를 거부하고 말았다.

이것은 정전 후 미국이 파산에 직면한 자기의 침략 정책을 수습하고 조선 통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저애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며 남조선을 새 전쟁 도발의 군사 전략 기지로 영구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보여 주었다.

조선에서 정전이 성립되였을 때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가졌던 기대는 미국측에 의하여 하나하나 계통적으로 유린되였다.

정치 회의 소집을 파탄시킨 미국측은 뒤'이어 정전 협정 51 항과 《중립국 송환 위원회 직권의 범위》를 파기하고 1954년 1월 《중립국 송환 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환해야 할 우리측 포로 21,000 여 명을 또다시 강제 억류하여 리 승만 군대와 장 개석 도당에게 넘겨 주었다. 이에 앞서 1953년 6월 18일 전쟁 포로 송환에 관한 협정이 쌍방 간에 조인된지 불과 10 일 밖에 안 되는 때에 벌써 미제는 리 승만을 사촉하여 27,000 여 명의 우리측 포로 인원을 강제 억류하였다.

미국측은 군사 인원의 증강과 증원되는 작전 물자의 반입을 금지한 정전 협정 제 13 항을 각방으로 위반하고 남조선에서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기 시작하였으며 남조선 군대의 병력을 정전 당시의 16 개 사단으로부터 31 개 사단의 70 여 만 명으로 증강하였다. 조선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 물자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정전 협정 13 항 ㄹ목을 정전 후 첫날부터 계속 위반하면서 군사력 증강에 광분하여 온 미국측은 1956년 6월 정전 협정 제 42 항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한 출입항에서 《본 정전 협정 제 13 항 ㄷ 목, 제 13 항 ㄹ목에 규정한 감독과 시찰을 진행》할 임무를 가진 중립국 시찰 소조를 남조선에서 축출하는 폭행을 감행하였으며 1957년 6월에는 정전 협정 13 항 ㄹ 목의 일방적 폐기를 공공연히 선언하였다.

1957년 5월 당시의 미 국무 장관 덜레스는 미국이 남조선에 《보다 현대화되고 효능이 좋은 여러 무기를 도입시킬 것을 고려중》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정전 협정을 유린하고 전쟁 준비를 강화할 데 대한 본심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정전 협정은 현실적인 태도로 해석되여야 한다. 그것이 작성된 것은 근 5 년 전이며 생각컨대 짧은 기간을 위한 것이였다. 그런데 5 년이란 세월이 지나 간 오늘 날…똑 같은 것끼리 바꾼다는 것(정전 협정을 그 대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은 실제적이 못된다》. (워싱톤 1957년 5월 15일발 《에이피》)

정전 협정 제 61 항에는 《본 정전 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호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정전 협정 조항의 일방적 파기를 공공연히 선언하는 것은 가장 파렴치한 강도적 행위이다.

정전 협정 13 항 ㄹ 목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한 후 미국은 로골적으로 남조선을 원자 및 유도탄 기지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1957년 7~8월 간에 남조선 주둔 미군 사단을 원자 사단으로 개편하였으며 동년 10월에는 일본에 있던 미 제 1 기갑 사단을 남조선에 끌어 들여 원자 사단으로 개편하였다. 그 후 1957년 말부터

1958년 8월에 결쳐 《오네스트 존》 로케트 및 280 미리 원자포 대대와 유도탄 《마타돌》 전대를 남조선에 끌어 들였고 1959년에는 또 다시 남조선에 《나이크 헤르큘레스》 및 《호크》 유도탄을 반입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측은 우리측 지역에 대한 군사적 도발 행위와 침습 행위를 부단히 감행하였다.

미국측의 이러한 침략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조선 정전은 계속 불안정 상태에 빠졌으며 조선에서 긴장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나아가서 극동과 세계의 평화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새 전쟁 준비를 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모든 책동을 다하였다.

정전 협정에 예견되였던 정치 회의 소집을 파탄시킨 미국은 조선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하여 소집되였던 1954년의 제네바 회의에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제의를 반대하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제네바 회의가 파탄된 후에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 있게 노력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의 무력을 최소한도로 축소하며 남북 조선 당국이 일체 무력 행사를 하지 않을데 대하여 선포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그에 대한 실천적인 모범으로 8만 명의 무력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킨 후에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나라의 통일을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 조선 자유 선거를 실시할 데 대하여 거듭 제의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또한 이 평화적 조국 통일 방안의 실현을 촉진시키며 남북 조선을 가로막은 불신임의 장벽을 깨뜨리기 위하여 남북 조선 간의 광범한 경제 및 문화 교류와 서신 거래 및 평화적 주민들의 자유로운 래왕을 실현하며 이 모든 문제들을 합의하기 위한 남북 조선 간의 협상을 진행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하였다.

1958년 2월 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다시 한번 전 세계 앞에 천명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제의에 호응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1958년 10월까지 북조선 지역으로부터 주동적으로 중국 인민 지원군을 전부 철거시켰다.

이리하여 조선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더욱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그러나 미 제국주의자들은 여전히 남조선에서 그의 군대를 철거시키지 않고 식민지 통치를 강화하며 조선의 통일을 완강히 방해하면서 조선 분렬의 영구화를 획책하였다.

미국 군대는 군사 분계선을 총칼로써 가로 막고 남북 조선 간의 어떠한 접촉도 방해하고 있다.

오늘 조선의 인공적인 분렬이 지속되고 있는 책임은 전적으로 미제 침략자들에게 있다.

폭압, 수탈, 착취의 강화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며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려는 미국은 정전 후 자기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강화하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미국의 식민지 통치 기구인 리승만 정권은 정전 후 더욱더 인민들로부터 고립 배격되고 그의 지반은 뒤흔들리였다.

미국은 리 승만의 전제 폭정과 파쑈적 군사 경찰 통치를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초보적 규범마저 말살하는 것으로써 이 위기를 수습해 보려고 하였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폭정하에서 남조선 전역은 날이 갈수록 숨막히는 하나의 식민지 감옥으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에는 그 어떤 법도 도덕의 기준도 존재하지 않게 되였으며 오직 무법과 전횡만이 지배하게 되였다. 남조선 신문들까지도 《종래에는 6 법이 있었는데 요즘은 무법과 불법이 횡행 첨가되여 8 법으로 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6년 4월 16일)고 지적하게 되였다.

미국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에 거슬리는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은 계속 탄압 해산되였으며 진실을 말하는 출판물들은 정간 또는 폐간 당하였다. 남조선의 《진보당》은 다만 그가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한 가지 리유로 해산 당하였으며 그의 위원장 조봉암은 사형을 당하였다. 1958년 12월에는 야당파 의원들을 국회 의사당 지하실에 감금한 다음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모조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게 만든 희세의 파쑈적 악법인 《신국가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생존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사소한 표현도 무자비하게 억압되였다. 남조선 출판물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55~1959년 간에 남조선에서는 무려 81 만 1,700 여 명의 인민들이 검거 투옥되였다. 1959년 한해에만도 24만 7,000 여 명이 검거 투옥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정치적 폭압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위 《원조》의 간판 하에 전후 남조선 경제에 대한 파괴, 략탈, 착취를 더

욱 강화하였다. 이미 1948년 12월 10일에 미국은 리승만 괴뢰 정부와 체결한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을 통하여 남조선에서의 자원의 처리와 생산 및 배급의 통제, 외화의 거래와 일체 수출입에 대한 통제, 미곡의 강제 수집과 량곡 배급에 이르기까지의 경제 생활 전반에 걸친 통제 관리권을 장악하였다. 미국은 1953년 12월에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을 조작하고 미국측 대표가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 미 합동 경제 위원회》를 통하여 남조선 화폐의 교환률 제정, 시장 물가 조정, 《원조》 물자의 구매, 반입 및 배정권과 심지어 남조선 경제가 남조선에서의 《유엔군 사령부의 군사 행동에 최대한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반적 계획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 민국의 경제와 계획의 모든 사항을 검토》(《대한 민국과 유엔군 사령부간의 경제 조정에 관한 협정》 제 1 조 4 항) 하며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장악 하였다. 이에 의하여 남조선 괴뢰 정권은 독자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없음은 물론 예산 편성과 세금 징수안에 이르기까지도 이 기관의 승인이 없이는 할 수 없게 되였다.

1956년 12월에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제한한 식미지적 지배권을 완전히 성문화한 예속적 조약인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이 조작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국 자본은 남조선에서 《모든 종류의 상업, 공업, 금융업 및 기타 영리 활동》에 《합법적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였으며 이것을 위하여 《지점》, 《대리점》, 《사무소》, 《공장》 기타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였다.

이 《조약》은 또한 미국 자본들에 토지, 건물 기타 부동산을 《취득하고 점유》할 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모든 미국인들과 그 략탈 기관에 치외 법권적 특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 남조선에서 범죄 행위를 감행하여도 남조선 당국은 그것을 독자적으로 취급할 수 없고 세금 부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여 있다.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과 기타 미국이 남조선에 강요한 수 많은 《협정》들과 《조약》들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강요하였던 《을사 보호 조약》을 릉가하는 침략의 문건이였다.

미국이 말하는 이른바 《원조》라는 것은 바로 미국이 남조선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였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945년 8월 15일 이후 미국이 남조선에 제공한 소위 《원조》 총액은 100억 딸라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총 《원조》 액 중 74. 5%는 직접적 《군사 원조》 비(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0년 6호) 이며 《경제 원조》라고 하는 것도 그의 물자 판매 대금 중 78. 6%는 남조선 군대 유지비에 사용되였다.

미국 재무 장관 딜론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원조의 대부분은 군대와 공군력을 지원하는 데 필요했다.》 따라서 《원조는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 하였다》(서울 1961년 6월 7일 발 《동양》)고 자인했다.

미국은 《원조》의 명목 하에 자기들의 잉여 상품을 끌어 들여 남조선 민족 산업을 파탄시키고 그를 남조선 인민들에게 고'가로 강매하여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며 판매 대금을 군사비로 지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미끼로 재정 금융 및 중요 공장 등 남조선의 경제 명맥을 장악하였다.

미국의 《원조》 물자로써 남조선에 제공되는 석탄, 석유, 비료 등과 같은 중요 상품 가격은 보통 국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으며 략탈적이다. 실례로 국제 시장에서 1955년에 톤당 15 딸라의 석탄이 남조선에 대하여는 30 딸라 80 쎈트로, 1956년에 톤당 105 딸라의 원당이 170 딸라로 강매되였다. 이러한 공개적인 사기 행위는 남조선에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 괴뢰 정부 예산을 비롯하여 남조선 경제의 모든 환절에 《원조》 물자의 판매 대금으로 되는 《대충 자금》을 침투시켜 놓고 남조선의 경제 생활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미국측 대표 화레이는 남조선 예산의 근 절반이 《미국이 운영하는 대충 자금이므로 내정 간섭은 무방할 것이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0년 7월 2일)라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일본 출판물들도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다만 원조 자금의 분배 위원회에 지나지 않았다. 주한 미 경제 협조처가 한국의 막뒤에 숨어 있는 정부》라고 썼다. (일본 잡지 《휴오교론》, 1962년 2월호)

미국은 군사비로서 남조선 인민들로부터 《원조》 액의 몇 곱절이나 되는 금액을 출혈적으로 수탈하였다.

공식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직접적 군사비는 1953년의 391억 8, 500만 환으로부터 1960년에는 1, 897억 8, 800만 환이라는 천문학적 수'자로 팽창되고 있다.

같은 기간에 남조선 인민들로부터의 조세 수탈은 209억 6, 250만 환으로부터 약 12 배에 달하는 2, 404억 3, 580만 환으로 격증하였다. (남조선 《경제 년감》 1955, 1956, 1959년 판 통계편, 《경제 통계 년보》 1960년, 《산업 은행 월보》 1961년)

미국의 《원조》는 남조선에서

민족 경제의 완전한 파탄과 경제의 미국에의 예속을 초래하였다.

남조선 공업은 어느 한 부분도 주요 원료와 시설재를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돌아 갈 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 제조 공업의 생산 지수는 1946년 수준에 비하여 1958년에도 3분의 2가 되지 못 하였다.

남조선의 알곡 생산량은 1936～1940년 5년 간의 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955～1959년 간에는 89만 5천 톤이나 감소되였으며 (남조선 《경제 년감》 1959년판) 특히 면화 생산량은 약 5분의 1로 격감되였다. 해방 전에는 수백만 석의 알곡을 수출하던 남조선은 오늘에 와서 매년 수백만 석의 외곡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만성적 기근 지대로 전락되였다.

식민지 략탈의 강화와 경제의 파국은 남조선 인민들을 극도의 생활고에 빠뜨렸다.

로동자들은 최저 생활비의 3분의 1도 못 되는 기아 임금을 받으면서 10～18 시간의 고역을 당하고 있으며 (서울 1961년 8월 24일 발 《동양》,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0년 3월 호) 600만 이상의 실업자 및 반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일본 잡지 《도요 게이자이》, 1961년 12월 9일)

남조선 농촌에서는 매년 100만 호 이상의 절량 농가가 생기고 있으며 초근 목피로도 연명할 길이 없어 류리 걸식의 길을 떠나고 있다. (서울 1960년 9월 14일 발 《동양》)

수백만 명을 헤아리는 각종 질병 환자들은 돈이 없어 병원 문전에도 가 보지 못 하고 신음하고 있다.

중소 상기업가들도 자금난, 원료난, 판매난으로 날로 파산 몰락되여 실업자 대렬에 들어 서고 있다.

청년 학생들은 자유로운 배움의 길을 빼앗기고 괴뢰 군대에 강제 징모되고 있으며 설사 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취직할 길이 막혀 허덕이고 있다.

문'자 그대로 남조선은 암흑의 땅으로 전변되였다.

남조선 사람들은 이것을 《4,000 년래의 민생고》라고 부르고 있다.

《실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들의 생활 현실이 미국의 원조의 결과》이라고 남조선 잡지 《재정》 (1961년 3월 호)은 지적하였다.

경제적 파탄이 날로 더욱 우심해 가는 환경에서 기아와 빈궁, 무권리에 허덕이는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식민지 정책과 리 승만 도당의 반동적 통치에 대한 불만과 울분을 참을 수 없게 되였다.

리 승만 괴뢰 정권의 붕괴, 식민지 통치 체계의 위기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리 승만 괴뢰 정부의 매국적 반동 통치 하에서 기아와 빈궁, 무권리에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남조선 인민들은 1960년 4월 다년간에 걸쳐 쌓이고 쌓인 울분을 드디여 폭발시켜 전 인민적 항쟁에 궐기하였다.

이 폭발은 미국과 리 승만 도당이 1960년 3월 15일 상례에 따라 《유엔의 감시》하에 강행한 살인적 협잡 《선거》를 계기로 하여 일어 났다.

항쟁에 궐기한 남조선 인민들은 새 생활, 새 정치를 요구하여 노도와 같이 남조선 도처에서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서울에서는 리승만의 본거지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원한의 《주한 미 경제 협조처》, 《주한 미 경제 조정관실》 등을 습격 파괴하였으며 조선 인민을 수 많이 살상한 악명 높은 맥아더의 동상을 허물어 버리려 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울분의 폭발의 결과에 미국은 12 년 간을 두고 총검으로 비호하여 오던 리 승만을 미국으로 소환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남조선에서 4월 인민 봉기는 미국이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여 총검으로 리 승만 괴뢰 정권을 날조하고 남조선에서 감행하여 온 모든 용서할 수 없는 침략적 범죄를 전 세계의 면전에서 단죄한 력사의 준엄한 심판으로 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피로써 미제의 침략적 죄행을 결산하였으며 지난 시기 미국과 그의 침략 도구로서 남조선에 파견되였던 《유엔 위원단》이 떠들어 댄 모든 것은 전'적으로 허위였다는 것을 더 론의할 여지 없이 실증하였다.

《유엔 위원단》은 1948년 5월 이래 남조선에서 류혈적인 테로 폭압 하에 진행된 모든 협잡 《선거》들을 례외 없이 《공정한 자유 선거》로서 묘사하여 왔으며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하여 떠들어 왔다.

이러한 허위 보고들에 근거하여 유엔 총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 대표는 《대한 민국은 그 정부의 대의제 성격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그 곳에서는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있었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보고에는 이것이 확인되여 왔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 가고 있다는 진보적인 사실이 뚜렷이 계속되여 왔다고 한 동 위원단의 보고를 읽고 용기를 얻었다》(유엔 총회 제 11 차 회의에서의 미국 대표 그린 바움의 발언에서) 고 위선적으로 떠벌리군 하였다.

1960년 4월의 인민 봉기 직전에도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유엔 총회 제 14 차 회의에 제출한 《보고》에서 남조선에서의 《대의제 정치》에 관하여 운운하면서 《총화 년간에 민정의 실효성이 더욱 확대되였으며 전반적 경제 조건은 개선되였다》 (동

위원단의 1959년 제 9 차 년례 보고)고 하였다.

이처럼 10여 년을 두고 《자유롭고》, 《공정한》, 《유엔 감시 하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제 정부》로 묘사하여 오던 그 정권이 인민들의 봉기에 의하여 붕괴되였으니 미국과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지난날에 떠든 파렴치한 위선과 허위 날조는 오직 치욕적 범죄의 기록으로서만 남게 되였다.

지난 시기 미국은 또한 남조선에 수립된 그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미화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민주주의의 진렬장》, 《자유의 보루》 등으로 불러 왔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진렬장》과 《자유의 보루》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대폭동이 일어 났으니 미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세계 인민의 면전에서 여지 없이 폭로되였다.

지난 시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감행된 미국의 침략적 죄행과 그의 참담한 후과에 대하여 또한 미국의 침략 도구인 《유엔 위원단》의 위선적 행동들에 대하여 부단히 폭로 지적하였으며 조선 문제의 정당한 해결 방책을 거듭 제기하였다. 이것은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존중하는 전 세계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미국과 그의 추종자들만이 그때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주장을 도리여 《선전》이라고 운운하면서 자기의 침략적 정체를 엄폐 변명하려고 부질없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력사는 과연 누가 정당하였으며 진실하였는가 하는 것을 판정하였다.

미국과 그의 사환'군들인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떠들어 댄 남조선에서의 소위 《자유》와 《민주주의》란 삶을 위한 인간의 초보적 권리마저 유린하고 인민들을 류혈적으로 탄압하는 파쑈 폭정이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누구의 의심도 자아낼 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에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유엔의 간판으로 엄폐하던 미국의 책동은 파산을 고하였으며 미국의 식민지 통치는 그 밑뿌리부터 뒤흔들리게 되였다.

그러나 미제는 이미 당한 패배와 수치에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려고 발악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간섭을 더욱 강화하여 나섰다.

미국은 과거 리 승만 괴뢰 정권을 날조하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장 면 괴뢰 정권을 또다시 날조해 냈다.

그리고 지난 시기의 침략적 죄행과 그의 참담한 후과에 대한 자기의 모든 책임을 모면하려고 책동하면서 장 면 《정권》을 추켜세우기에 급급하였다.

1960년 10월 11일 미 국무성은 그의 성명에서 자신의 죄행을 엄폐하고 남조선 인민들에게는 호령하면서 다음과 같이 파렴치하게 떠벌리였다.

《남조선의 현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리 승만 정권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이며 쉽사리 그리고 당장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현 정부에 대하여서와 그리고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곤난한 문제들을 처리할 그 능력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 한국의 현 정부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만하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유와 해방, 새 정치와 새 생활을 위하여 일떠서 피흘려 싸웠으나 결국 그들의 절박한 요구는 아무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남조선 인민들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남조선에 미군이 계속 주저앉아 있는 한 그 누가 《정권》에 들어 앉아도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남조선 인민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한 줄기 희망의 시선을 북반부 인민들이 달성한 민족 경제 건설의 빛나는 성과에 돌리게 되였으며 자기들이 겪고 있는 기아와 빈궁 및 무권리로부터의 출로를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서 찾게 되였다.

이미 1960년 8월과 11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민족 지상의 념원인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남북 조선 련방제를 포함한 새로운 구체적 통일 방안과 남북 조선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데 대한 방안을 제기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만약 남조선 당국이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의 실시를 아직 접수할 용의가 없다면 우선 파국에 처한 남조선의 민족 경제를 바로잡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여야 할 민족적인 긴급한 문제부터라도 해결하기 위한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 조선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하였던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 새로운 통일 방안은 광범한 국내외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남조선 인민들은 《통일 없이는 이 겨레가 살 수도 번영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이를 열렬히 지지하였다.

자주적인 평화 통일과 남북 간의 협상 및 교류를 절박하게 요구하여 급격히 앙양되는 인민 운동의 강력한 압력 하에서 남조선의 일부 지배층 내에서도 부득불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까지 사태는 바꾸어지게 되였다.

또한 1960년 12월 27일 서울에서는 민족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 각 정당, 사회 단체 대표들과 민주 인사들이 모여 민족 자주 통일 중앙 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동 협의회는 그의 발족 대회에서 《어떠한 외세에도 의존치 말고 우리끼리 살아야 한다》는 결의 밑에 《민족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국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 자주 력량을 총 집결》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이 통일에 대한 자기들의 요구 관철을 위하여 날로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나섰다.

11월 5일 부산 대학교 법대 학생들은 《통일만이 살'길이다》, 《실'속 없는 통일 방안을 유엔에 상정하지 말라!》 등의 플랑카트를 들고 시위를 단행하였다. (서울 1960년 11월 5일 발 《합동》)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급격히 앙양되는 통일을 위한 운동을 가로막기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은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유피아이》 통신은 통일을 위한 운동에 《남조선 정부가…끌려들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군 사령부가 자기의 영향력을 사용》 (1960년 11월 23일 발 《유피아이》)하고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압력 하에 장 면은 리승만과 마찬가지로 남북 협상에 의한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반대하며 《현재와 같이 분렬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낫다》 (서울 1961년 4월 20일 발 《동양》) 고까지 공언하였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책동하면서 이 시기에 미국은 남조선에서 식민지적 지배와 략탈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였다. 1961년 2월 1일 미국은 남조선에서 추가적 략탈을 강화할 목적으로 딸라 대 남조선 화폐의 환률을 1 대 650으로부터 1대 1,000으로 인상한지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1대 1,300으로 인상하였다. 뒤'이어 2월 8일에 장 면 《정권》에게 철두철미 예속적이며 략탈적인 소위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의 체결을 강요하였다.

미국의 이 략탈적 조치들은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미제에 대한 커다란 분격을 불러 일으켰다.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이 체결되였다는 것이 발표되자 한국에서는 폭동과 같은 항의의 목소리가 일어 났다.》 (서울 1961년 2월 26일 발 《유피아이》)

미국의 무제한한 식민지 략탈 행위의 일방적 강요는 남조선 전역에서 《양키는 물러 가라》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더 세차게 울려 나오게 하였다. (서울 1961년 2월 15일 발 《합동》)

남조선에서는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여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며, 기아와 빈궁에서 벗어날 것과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각 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였다.

3월 22일 서울에서는 2만 여 명의 각계 각층 시민들이 《리정권의 재판인 장 정권을 타도하라!》, 《미군 나가라!》 등의 구호를 높이 웨치며 경찰의 탄압을 무릅쓰고 미국 대사관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서울 1961년 3월 22일 발 《합동》, 서울 1961년 3월 23일 발 《동양》)

1961년 4월 19일 서울에서는 약 10만 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4. 19 1주년 기념식》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남이 먹다 남은 잉여 농산물만으로 살 수는 없다》고 미국의 략탈 정책을 배격하면서 《민족 자활의 길을 타개》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서울 1961년 4월 19일 발 《동화》)

같은 날 서울에서 서울 대학교 내 11 개 대학 남녀 학생 3천여 명은 《외국 세력을 규탄하는 대회》를 개최하고 선언문과 결의문을 채택한 후 《4월의 피는 절규한다. 외세는 물러 가라!》,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다》, 《남북 학생 판문점에서 만나자!》, 《믿지 말라 미국놈, 일본놈 일어 난다. 조선 사람 조심하라》, 《남북 서신 교류,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 하느냐!》 등 내용이 쓰인 200 여 개의 플랑카드를 들고 《우리는 통일 독립된 조국을 원한다》고 웨치면서 시가 행진을 하였다. (서울 1961년 4월 19일 발 《동화》, 《합동》, 《동양》, 《로이터》)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이와 같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은 마침내 남북 학생 회담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남조선 학생들의 이 제의는 북조선 청년 학생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으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고무된 남조선 17개 대학과 1개 고등 학교 학생들은 5월 5일 《민족 통일 전국 학생 련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북조선 청년 학생들이 남북 학생 회담의 개최에 동의한 서한을 지지 환영하면서 《남북한 학생 회담》을 5월 이내로 열기로 결정하였다.

5월 13일 서울에서는 시민 1만여 명이 참집한 가운데에 《남북 학생 회담 환영 및 민족 통일 촉진 궐기 대회》를 진행하고 대회 후 시민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통일을 반대 말라》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하였다. (서울 1961년 5월 13 일 발 《동화》)

조선에서 남북 간의 교류와 협상을 통하여 갈망하던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실현하며 16년 간 가로막혔던 저주로운 인공적 장벽을 허물어 버릴 데 대한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여 갔다.

이에 극도로 당황 망조한 미제 침략자들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궐기한 남조선 인민들

의 반미 구국 투쟁을 압살하며 파국적 위기에 처한 식민지 통치 지반을 수습하기 위하여 공공연한 군사 파쑈 통치에로 넘어갔다.

미국이 《유엔 감시 하의 선거》에 의한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고 추켜 세우던 식민지 통치의 가면마저 집어 던지게 되였다는 것은 그들이 식민지 통치 지반의 유지를 위하여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 준다.

미국의 최후 발악적 탄압에 의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던 남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은 또다시 무참하게 유린되였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 주었다.

5. 미국에 의한 새 전쟁 도발 책동의 격화

참담한 현실

미제는 남조선에서 공공연한 군사 파쑈 통치에로 넘어 간 이후 인민들에게 류례 없이 가혹한 탄압을 가하면서 새 전쟁 준비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있으며 남조선을 더욱 정치 경제적 파국에로 몰아 넣고 있다.

벌써 1년 이상이나 살벌한 계엄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자유》는 그의 마지막 흔적마저도 여지 없이 말살 당하였으나 남조선은 더욱 무시무시한 공포와 암흑의 천지로 전변되였다.

모든 정당, 사회 단체는 해산되였으며 수 많은 언론 출판 기관들은 페쇄되였다.

지난 1년 동안 미제는 남조선에서 군대, 경찰, 감옥 등 폭압 기구를 대대적으로 신설 확장하였으며 남조선 천지를 첩보망으로 뒤덮어 놓았다.

미제는 다만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리유만으로 수많은 애국적 인사들을 사형과 극형에 처하게 하였으며 나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다.

군사 파쑈의 폭압 하에서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그 어떤 정치적 활동은 고사하고 사사로운 모임이나 거리에서의 보행의 자유마저 봉쇄 당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 인민의 가장 절박한 민족적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하여는 말조차 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민족 분렬을 영구화하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군사 파쑈 통치 하에 있는 오늘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은 날로 더욱 심화되고 민생고는 가중되고 있다.

미국 신문들까지도 남조선의 《경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지난 1년 동안은 조선 전쟁이 끝난 후 제일 나쁜 해였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뉴욕 타임스》 1962년 1월) 생산은 감소되고 기업의 파산은 계속 격증되여 가동하는 공장은 전체 공장 수의 10~20%에 불과하게 되였다.

남조선 농촌 경리도 더욱 황폐화되였다.

1961년도의 알곡 생산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75%에 불과하였다.

남조선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금년 2월 남조선에서는 당장 구호를 요하는 절량 농민이 340만 명에 달하였으며 (서울 1962년 2월 22일 발 《동양》) 6월에는 절량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할 것이 예견된다고 하였다. (1962년 3월 9일 《서울 방송》)

오늘 남조선의 경제는 수입이 수출을 14.8 배나 초과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1년 4월호)하며 1 인당 년간 소득액이 60딸라 미만으로서 세계 최하급의 수준에 있으면서도 미국의 대포'밥으로서 70 여 만이나 되는 군대를 유지하여야 하며 년간 총 생산액의 3 분의 1 이상을 군사비로 소비하여야 하는 미국의 완전한 군사적 예속물의 처지에 전락하였다.

최근에 실시된 《통화 개혁》 이후 남조선의 경제적 혼란은 도리여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동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통화 개혁》이 실시된 이후 10일 동안에 《한국 중소 기업체들의 약 65%가 휴업 상태》에 빠져 들어 갔다. (서울 1962년 6월 20일 발 《에이피》)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극심하여졌다.

실로 남조선 인민들은 《숨이 붙었기에 살고 있》을 따름이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1년 12월 26일)

미국의 식민지 략탈 정책에 의한 정치 경제적 파국과 또한 퇴폐한 미국식 생활 양식 및 양키 문화의 침습으로 남조선에서 사회적 혼란도 극도에 달하였다.

살인, 강도, 절도, 폭행, 사기, 횡령, 패륜, 패덕 등 이러한 범죄 행위는 년 평균 30만 건에 달하고 있다.

남조선은 문'자 그대로 수백만 인민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잠들 곳 없어 끊임 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인간 생지옥으로 화하였다.

광란적 전쟁 준비

미국은 오늘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그 어느 때보다도 광분하고 있다.

그들은 조선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남조선 주둔 미군 부대를 계속 증강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군사 징집과 군비 확장을 더욱 큰 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미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렘니쩌가 남조선 주둔 미군 병력 수를 밝힌 바에 의하더라도 1961년에 그것은 1만 5천 명이 더 증강되였다. (워싱톤 1961년 6월 14일 발 《에이피》)

남조선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완전히 틀어 쥐고 있는 미국은 1962년에 30만 명의 남조선 청장년들을 새로 징집하여 대포'밥으로 충당할 것을 계획하고 추진시키고 있다. (서울 1962년 4 월 2일 발《동양》)

미국은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자기 군대에 대한 장비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시키는 동시에 남조선 군대에도 부단히 신형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들은 1962년 3월 28일과 4월 6일에도 4척의 상륙용 주정을 비롯한 6척의 전투함을 남조선에 끌어 들였다. (서울 1962년 4월 16일 발 《동양》)

미국이 남조선에서 얼마나 대규모적으로 전쟁 준비를 추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 해 극동에 배당한 그의 군사 《원조》비 중에서 31%에 해당하는 2억 8천 144만 딸라를 남조선에 제공하였으며 또한 비행장, 항만, 군사 도로, 보급 기지 등 군사 기지 체계를 강화하면서 금년도 해외 군사 기지 건설비의 25%를 남조선에 배정 (워싱톤 1962년 4월 9일 발 《유피아이》)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 호전 장군들은 련속 군사 분계선 일대에 나타나 《림전 태세의 완비》를 부르짖으며 부단히 전쟁 분위기와 긴장 상태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4월 남조선에 왔던 렘니쩌는 《남조선에서처럼 그러한 높은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가 그렇게 부단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고 공언하였다. (워싱톤 1962년 4월 4일 발 《유피아이》)

대대적인 무력 증강과 함께 미군 사령부는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근방에서 계속 부단히 도발적인 군사 연습의 소동을 벌려 놓고 있다.

미군 사령부 당국이 발표한 것만을 초보적으로 집계한 바에 의하더라도 1961년 1년 동안에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가상한 34건 이상의 각종 대규모적 군사 《연습》을 진행하였다. 1961년 10월 13일 남조선 주둔 미군 사령관 메로이는 미군과 남조선 군대의 사령관들을 모아 놓고 《전쟁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 즉시 각자의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서울 1961년 10월 13일 발 《유피아이》)

금년에 들어 와서도 미제는 계속 대대적인 군사 연습 소동을 벌려 놓고 있다.

1962년 1월 15일부터 4 일간 미제 8군이 비무장 지대 남방에서 대규모의 동기 작전 《연습》을 한 데 뒤'이어 2월 6일부터는 7만 5천 명의 참가 밑에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전후 최대 규모》의 동기 《군사 연습》을 감행하였다. (서울 1962년 2월 4일발 《에이에프피》)

6월 22일부터는 포항에서 《황소》라고 불리는 상륙 작전 《연습》을 개시하였다. (서울 1962년 6월 22일 발 《합동》)

발광적인 전쟁 준비와 함께 미국측은 륙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 행위를 부단히 감행하고 있다.

미국측이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공화국 북반부에 대하여 감행한 각종 도발적 침범 행위는 1953년 7월 27일 이후 1962년 5월 말까지 조선 군사 정전 위원회에 제기된 것만하여도 199 건의 함선 침범 사건, 672 건의 비행기 침입 사건 등을 포함하여 총 3,913 건에 달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 정전을 계속 불안정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뒤흔들리는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수습하기 위한 궁여 지책의 하나로서 지금 그의 옛 동료이며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있다.

미국은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핵심으로 하여 남조선을 포함한 침략적 군사 뿔럭인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기 위하여 《한일 회담》을 적극 조종하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 세력은 그 전날과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을 등에 업고 남조선에 재침의 발을 들여 놓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오늘 미 일 침략자들의 2중적인 식민지로 전락될 위험 하에 놓여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제의 전쟁 준비 책동은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서 그것은 극동과 세계의 평화에 큰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미제는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완전한 식민지 폭군으로 행세하면서 인민들에게 정치적 무권리, 경제적 빈궁과 기아, 사회적 혼란 등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으며 또한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살인, 폭행, 강간, 재물 략탈 등 만행을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하게 자행하고 있다.

미군이 남조선을 점령한 그 때부터 조선의 아름다운 땅은 민족적 멸시와 인종 차별에 눈이 어두운 그들의 총칼에 학살 당한 무고한 주민들의 원한 많은 피로 물들여지기 시작하였으며, 미군의 그림자가 비치는 모든 곳에서 인민들은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날이 없었다.

아무 리유도 없이 매일과 같이 미군에 의하여 민족적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상 당한 수 많은 조선 사람들의 수효는 오늘 일일이 헤아릴 수 조차 없다.

조선 전쟁 전과 조선 전쟁 시기에 감행한 그들의 만행에 대하여는 이미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정전 후에도 미군은 남조선에서 련일 수 없이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폭행과 살상, 만행을 일삼고 있다.

미군은 조선 사람을 심심풀이로 사살하며 사격 연습의 과녁으로 삼으며 심지어 군사 훈련의 목표물로까지 삼고 있다.

1955년 10월 22일 미 공군 소속 비행기는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간상리에서 보리 파종을 하는 농민들을 《공격 훈련 목표》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여 박 문선(27세)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5년 10월 24일)

1956년 12월 16일 미 제 183 수송 부대 렬차 승무원으로 편승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동 부근을 통과하던 미 제 728 헌병대 소속 칼톤 에이. 밀케는 길 가는 박 경득(17 세)을 엽총으로 사격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6년 12월 18일)

미군은 조선 사람을 사살하는 것을 하나의 도락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과 행패를 부리고 길 가는 사람에게 군견을 풀어 놓아 물어 뜯게 하고 강도, 략탈 행위를 일삼는 등 보통 사람의 상상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각종 잔인한 만행들을 태연하게 감행하고 있다.

1957년 7월 6일 인천에서 미군 경비병은 세 살 난 어린아이 김 영호를 《가출린 도적》이라고 쏘아 죽였으며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7년 7월 15일)

1954년 10월 22일 경상북도 영천군 호당동에 나타난 미군 2명은 들판에서 벼를 베고 있는 농민 최 복원을 백주에 《꿩》이라고 하면서 렵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으며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4년 10월 31일)

1958년 2월 25일 미 제 8군 항공기 수리소 소장인 토마스. 지. 제임스(미군 소령)일당은 자기들의 숙소에 구두 닦기 소년 김 춘일(14세)을 불법 감금하고 5~6시간에 걸쳐 곤봉과 가죽 채찍으로 간악하게 구타하며 칼로 무수히 찌르고 뻰찌로 두 발톱과 머리칼을 잡아 뜯고 머리와 얼굴에 골탄칠을 한 후 나무 상자에 넣어 못을 치고 헤리콥터에 실어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에 있는 미 제 1군단 비행장에 내버렸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8 년 3월 4일)

1957년 4월 16일 파주에서는 미 제 24사단 헌병대 중대장 스미스가 자기 대원 80명을 총 동원하여 부근 부락을 불법 포위하고 집단적 강탈 행위를 하였는바 185 세대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보자기, 밥그릇까지도 모조리 군수품이라고 규정하고 총 2, 324 점의 재물을 략탈하였으며 동 부락 주민 70 명을 불법 구속하고 수일 후 또다시 600 명의 주민을 불량배라는 루명을 씌워 강제 추방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조선 일보》 1957년 4월 23일)

미제 침략군이 조선 부녀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각종 폭행, 살상과 모욕 행위는 또한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다. 1954년 8월 24일 밤 9시경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미군 20여명은 길 가는 리 인순 녀성을 때려 눕히고 륜간한 후 하수도에 처 넣었으며 (남조선 신문《평화 신문》 1954년 8월 27일) 1958년 6월 9일 충남 서대전에 있는 미군 하사는 50 세의 녀인을 야수적으로 강간한 후 잔인하게도 그의 목을 졸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근 주민들인 류 판향, 서 명준, 고 재윤의 집과 창고동에 방화까지 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8 년 6월 11일)

1959년 12월 31일 미 제 7 사단 40 전차 대대 소속 중대장 토마스 일당은 막사의 근처를 지나 가던 조선 녀성 2 명을 캄캄한 창고에 몰아 넣고 가죽채로 무수히 때린 다음 그들의 옷을 벗기고 등과 하반신에 황색 뼁끼칠을 하여 부대 밖으로 내쫓았으며(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0년 1월 19일)

뒤'이어 1960년 1월 2일 같은 부대 소속의 미국 장교 일당은 조선 녀성들의 머리를 몽땅 깎아 버리고 거리에 내쫓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0년 1월 5일)

금년에 들어 와서도 미군은 1월 2일 림진강 얼음 우에서 낚시질을 하는 어부에게 렵총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힌 것을 비롯하여 4일 후인 1월 6일에는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뒤'산에서 미 제 1기갑 사단 8련대 디 중대 소속 하사 토너 외 수십 명의 미군이 40 여명의 나무'군들을 《포위하여… 흡사 오리 사냥》 하듯 렵총으로 마구 사격하여 그중 황 광길(25세), 류 기용(28세)을 학살한 것 등 계속 도처에서 살인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2월 10일, 2월 11일)

5월 29일 경기도 파주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씨 중대 소속 미륙군 장교인 중위 토마스 엠. 월드와 중위 데이비드 더블유. 스윈슨은 동 중대 주변에서 일하고 있던 리 일룡을 아무런 리유 없이 붙들어다가 굵은 로프로 목을 졸라 매고 몽둥이로 갈겨 실신케 하고서도 부족하여 그를 또다시 벌거 벗겨 전주에 꺼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질, 구두발질을 하여 피를 토하게 하고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서울 1962년 6월 1일 발 《동양》)

5월 30일에는 오산의 미 공군 기지 근처에서 동 기지 소속 헌병 페머슨이 신 덕선이란 50 세의 농민을 무터대고 붙잡아다 군견을 시켜 30 여 차나 물어 뜯게 한 다음 피투성이가 된 그를 다시 거리로 끌고 다니였다. (서울 1962년 6월 7일 발 《유피아이》)

보는 바와 같이 미군은 남조선에서 피에 주린 침략자의 행세를 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를《선정된 우월 민족》으로 자처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민을 살륙한 그 야만성과 노예 매매를 일삼던 그 잔인성, 오늘도 미국 내에서 성황하고 있는 인종 차별의 그 악습을 그대로 남조선에 재현시켜 남조선 인민들에게 어떤 폭행과 전횡을 일삼아도 그것은 자기들에게 죄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당국은 그의 휘하 장병들의 만행에 대하여 그 어떤 도의 상 책임이나 한 쪼각 량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고사하고 그것을 당연한 일로 알며 도리여 참혹한 희생을 당한 조선 사람들에게 《도적》의 누명까지 들씌우는 것을 상례로 삼고 있다.

미국 군대가 남조선 인민들에게 감행하고 있는 만행들은 전 인류의 도덕과 영예를 완전히 유린한 것이며 국제법의 제 원칙을 란폭하게 무시한 극악한 범죄 행동이다.

대양을 건너 와 남의 땅을 강점하고 로략질과 폭압을 일삼고 있는 미군은 언제나 《정당 방위자》이고 미군의 만행과 전횡이 횡행하는 가운데서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고 평온한 잠을 이룰 수도 없는 주인인 남조선 인민은 언제나 《도적》의 누명을 써야만 하는 그런 사태는 이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미제 침략군의 만행은 오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분노의 불'길을 질러 놓고 있다.

6월 6일 이래 서울과 대구에서는 미군의 비인도적 만행에 항의하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반미 투쟁이 벌어졌다.

투쟁에 궐기한 그들은 《후진 약소 민족의 악조건 하에서이지만 인간의 최소한의 긍지마저 압살당해 버린 채 견딜 수는 없다. 천하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가해진 미국인의 살인, 린치 폭행에 대해서 이 이상 참을 수는 없다》고 울부짖었다. (서울 1962년 6월 8일 발 《합동》)

이것은 미군의 상시적인 민족적 멸시와 폭행, 인간 이하의 학대 속에서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남조선 인민들의 누적된 민족적 울분의 폭발이였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실시하여 온 식민지 략탈 정책의 모든 후과에 대한 전 민족적 분노의 표시이다.

바로 미군의 남조선 강점으로 말미암아 유구한 력사를 두고 단일 민족의 한가정 형제로서 화목하게 살아 온 조선 인민은 이미 17년 간이나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비운을 겪고 있다.

남조선에서 사람들은 이 이상 견딜 수 없는 암담한 처지에 빠졌다.

실로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 침략자들의 군화 밑에서 모든 것을 짓밟혔다.

민족의 영예도,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조상 전래의 고유한 미풍 량속도 다 무참히 짓밟혔으며 남은 것은 없다.

오직 만연된 것은 눈 뜨고 볼 수 없는 극도의 사회악과 무서운 각종 질병 뿐이다.

이것으로써도 부족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조선에서 침략 전쟁을 다시 도발하려고 발악적으로 무모하게 책동하고 있다.

* *

100 여 년 전부터 미국이 조선에 대하여 감행하여 온 침략 행위는 미제야말로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며 평화와 인류의 극악한 원쑤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오늘 조선 인민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바로 미제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모든 사실은 남조선에 미군이 계속 머물러 있는 한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참담한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 날 수도 없으며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도, 극동에서 전쟁의 화근이 제거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다.

사실 상 오늘 미군이 남조선에 이 이상 머물러 있을 어떠한 리유와 근거도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경히 주장하여 왔다.

미국 당국자들은 미군이 남조선 장기 주둔을 합리화하기 위한 유일한 구실로써 항상 있지도 않는 북조선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위협》을 운운하고 있다.

그러나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위협》이란 없으며 또 있어 본 적도 없다. 그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 조선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아세아 대륙을 침략하려는 자기들의 전반적 침략 계획 수행의 발판으로 남조선을 영구히 확보하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작해 낸 기만적 술책에 불과하다.

이미 모든 것이 명백히 된 바와 같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전 민족의 한결 같은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종 일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화적 제안들의 실현을 완강히 방해한 것은 다름 아닌 남조선의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는 미국이였다.

미제의 강점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에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는 오늘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가 이 이상 지체되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는 것—이것은 오늘 조선 인민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6월 20~2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남북 조선 쌍방이 호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남

조선에서 미국 군대가 완전히 철거한 조건하에서 남북 조선의 무력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 등을 또다시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이 문제들과 기타 민족적인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당국자들 간에 협상을 진행할 것을 또한 제의하였다.

조선의 통일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자유로운 남북 총 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써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확고 부동한 원칙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이 아직 이에 대한 리해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금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는 통일 문제는 쌍방의 리해가 접근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더라도 우선 긴절하게 제기되는 민족적 과업부터 공동으로 해결할 것을 발기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의 이 합리적인 제안은 조선 인민의 당면한 민족적 과업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는 데도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써 벌써 국내외의 광범한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종식시키며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조선 인민의 정당한 위업이 각국 정부들과 전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조선은 조선 인민의 것이다.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킨 후 조선 인민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평화적으로 훌륭히 해결할 것이다.

1962년 6월 2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제 1 장 선거의 일반적 원칙

제 1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전 지역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 조에 근거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실시한다.

제 2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일반적이다. 즉 만 18세 이상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성분, 신앙, 거주 기간, 재산, 지식 정도의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조선 인민군 (경비대 포함)에 복무하는 공민도 다른 공민과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3조 만 18 세 이상의 녀자는 남자와 동등하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 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1. 재판소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을 박탈 당한 자.
2. 따로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행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정신병자.
3. 검찰소의 결정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구금중에 있는 자.

제 5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지역 내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6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평등적이다.

즉 선거권을 가진 매개 공민은 투표에서 1인 1표이며 평등한 기초에서 선거에 참가한다.

제 7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직접적이다.

즉 모든 선거자들이 직접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거한다.

제 8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을 선거할 때의 투표는 절대 비밀이다.

제 2 장 선거자 명부

제 9조 선거자 명부에는 그를 작성할 당시에 해당 시 (구역), 군, 리(읍, 로동자구)의 지역 내에 거주 또는 체류하며 선거일에 이르러 선거권을 가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은 전부 등록된다.

선거자는 선거자 명부에 단 한 번만 등록된다. 본 규정 제 4 조 및 제 5 조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자 명부에 등록되지 못한다.

제 10조 선거자 명부는 시(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가 선거 분구별로 작성하며 조선 인민군 부대(경비대 포함) 내에서는 해당 군 부대장이 작성한다.

제 11조 선거자 명부는 중앙 선거 위원회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인민반별로 작성하고 그를 작성한 인민 위원회 위원장과 서기장이 서명한다.

제 12조 분구 선거 위원회는 선거일에 이르기 20일 전에 선거자 명부를 선거 분구 지역 내에 반드시 공시하여야 한다.

제 13조 선거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성명 또는 기타가 오기 되였거나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그릇 등록되는 등 선거자 명부에 오유가 있을 경우 선거자

들은 그 명부를 작성한 인민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인민 위원회는 그 청원을 지체없이 심의하고 선거자 명부에 필요한 정정을 가하거나 그 청원을 거절하는 근거를 5일 이내에 청원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 청원자는 자기 청원에 대한 인민 위원회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민 재판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 재판소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지체 없이 판정 결과를 신청자와 해당 인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5조 시(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는 선거자가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때로부터 선거일에 이르는 기간 내에 등록된 자기 주소를 변경하거나 혹은 타 지역에 림시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앙 선거 위원회가 재정한 양식에 의한 《선거권 증명서》를 교부하고 선거자 명부에 《전출》 이라고 기입한다.

전출하는 선거자는 새 거주지 인민 위원회에 《선거권 증명서》와 그의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선거자 명부에 새로 등록된다.

제 16조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선거자가 사망되였을 경우에는 그를 선거자 명부에서 제명하고 《사망》 이라고 기입한다.

제 3 장 선거구와 선거 분구

제 17조 선거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5조에 근거하여 인구 3만 명에 한 개의 비률로 조직한다.

선거구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조직한다.

제 18조 선거자들의 투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 500~3000 명 범위 내에서 선거 분구를 조직한다. 선거 분구는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가 조직한다.

조선 인민군 부대 (경비대 포함)내 선거 분구는 따로 조직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 인민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구 500명 미만 되는 지역에도 선거 분구를 조직할 수 있다.

선거권을 가진 환자 25 명 이상 있는 병원, 료양소 및 철도의 주요 역 기타 이와 류사한 기관에는 특별 선거 분구를 조직할 수 있다.

제 4 장 선거 위원회

제 19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조직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중앙 선거 위원회
2. 도(직할 시) 선거 위원회
3. 구 선거 위원회
4. 분구 선거 위원회

제 20조 각급 선거 위원회 위원들은 제 정당, 사회 단체 및 협동 단체 대표로써 구성한다.

1. 중앙 선거 위원회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60일 전에 19~21 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2~3명,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2. 도(직할 시) 선거 위원회는 도(직할 시) 인민 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55일 전에 15~17 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1~2명,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3. 구 선거 위원회는 도(직할 시) 인민 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50일 전에 13~15 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1~2명,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4. 분구 선거 위원회는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40일 전에 5~7명으로 조직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21조 중앙 선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을 조직하며 본 선거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 검열한다.
2. 도(직할 시) 선거 위원회와 구 및 분구 선거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신소를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3. 투표함의 규격, 선거표의 양식, 구 및 분구 선거 위원회 회의록 양식, 선거자 명부, 선거권 증명서, 당선 증명서 양식 및 선거 위원회들의 인장을 제정 배포한다.
4. 선거 사업과 관련된 예산안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각급 선거 위원회에 배정한다.
5. 선거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 물자를 각 선거 위원회에 분배한다.
6. 구 선거 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선거 결과를 확정하며 이를 공포한다.

제 22조 도(직할 시) 선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구 및 분구 선거 위원회에서 선거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지도 방조한다.
2. 구 및 분구 선거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선거 사업과 관련된 비용과 물자들을 중앙 선거 위원회로부터 받아 도내 각 선거 위원회에 배정한다.
4. 구 선거 위원회의 보고를 종합하여 중앙 선거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23조 구 선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선거 규정 제 5장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를 등록

한다.

2. 분구 선거 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신소를 심의 해결한다.
3. 분구 선거 위원회 회의록에 근거하여 선거구 내의 투표 수를 계산하며 선거 결과를 확정한다.
4. 선거구에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피선된 당선자에게 당선 증명서를 내여준다.

제 24조 분구 선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자 명부의 정확 여부를 확인한다.
2. 선거자들에게 선거 절차를 해설한다.
3. 선거실을 장식하며 투표함을 준비한다.
4. 선거일에 이르기 15일 전에 선거일과 선거 장소를 공시한다.
5. 선거자들의 투표를 보장하며 매 후보자가 받은 투표 수를 계산한다.

제 25조 각급 선거 위원회에서 토의되는 모든 문제는 거수 방법으로 다수 가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장 후보자 추천 절차

제 26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은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각 기관, 기업소 종업원 회의, 각 협동 단체 조합원 회의, 주민 회의 및 군무자 회의에서 할 수 있다.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는 추천 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한다.

제 정당, 사회 단체는 공동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 27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 회의에 참가한 선거자들은 추천된 후보자가 적당한가, 적당치 못한가에 대하여 자유로 토론할 수 있다.

선거자들의 토론이 끝난 다음 후보자 추천에 대한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한다.

제 28조 본 선거 규정에 의하여 추천 받은 후보자는 선거일에 이르기 30일 전에 해당 구 선거 위원회에 반드시 등록되여야 한다.

후보자는 단 한 개 구 선거 위원회에만 등록된다.

구 및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들은 자기 선거구의 대의원 후보자로 될 수 없다.

제 29조 후보자를 추천한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각 기관, 기업소 종업원 회의, 각 협동 단체 조합원 회의, 주민 회의 및 군무자 회의는 회의록과 후보자의 승낙서를 구 선거 위원회에 제출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보자를 추천한 회의 명칭
2. 후보자 추천 시일 및 장소
3. 후보자의 성명, 성별, 년령, 정당 또는 소속 단체명 및 직장 직위
4. 회의 의장 및 서기의 서명

제 30조 구 선거 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등록된 날부터 그들의 성명 성별, 년령, 정당 또는 소속 단체명 및 직장 직위를 라지오, 출판물 기타 방법을 통하여 선거자들에게 반드시 공포하여야 한다.

제 31조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매개 선거자들은 각종 형식과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하여 자유로 선전 선동할 수 있다.

제 6 장 선거일과 투표 절차

제 32조 선거일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선거일에 이르기 60일 전에 정한다.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선거일 6시부터 24시까지 실시한다.

제 33조 선거일 6시에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과 같이 투표함과 선거자 명부를 검열하고 투표함을 선거 위원회 인장으로 봉인한 후 선거자들에게 투표할 것을 선언한다.

제 34조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한다.

선거자들은 선거 장소에 가서 자기의 공민증 혹은 신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하여 선거자 명부와 대조한 다음에 선거표를 받아 가지고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제 35조 선거일에 선거자가 질병 또는 로쇠 기타 신체적 불구로 인하여 선거 장소에 나오지 못할 경우에 그는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들이 선거표와 투표함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분구 선거 위원회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 36조 각 선거구에서는 다만 1 명의 대의원 만이 선거되며 매개 선거자들은 한 선거구에서 1 명의 후보자를 찬성하며 한 번만 투표한다. 신체 불구로 인하여 자기 의사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선거자는 자기 측근자를 선정하여 자기 립회 하에 투표를 대행시킬 수 있다.

제 37조 투표가 진행될 때에 투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선전 선동을 금지한다.

제 7 장 선거 결과 확정

제 38조 분구 선거 위원회는 선거 시간이 끝나면 투표가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고 투표함을 개함한 다음 투표한 투표 수와 선거자 명부에 의하여 선거표를 받은 선거자 수와 대조한 후 그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한다.

제 39조 규정된 양식, 규격 및 색갈과 틀린 선거표는 무효로 한다.

선거표의 정확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때에는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들이 거수 방법으로 다수 가결에 의하여 해결하고 이에 대하여 회의록에 기입한다.

제 40조 분구 선거 위원회가 투표 수를 계산하는 장소에는 상급 선거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정당, 사회 단체 대표 및 출판 보도 기관 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다.

제 41조 분구 선거 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 결과를 찬성과 반대로서 계산한다.

제 42조 분구 선거 위원회는 종

앙 선거 위원회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투표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2 부 작성한다. 회의록에는 분구 선거 위원회 위원들이 서명하고 분구 선거 위원회의 인장을 찍는다.

분구 선거 위원회에서 작성한 회의록 1 부는 투표가 끝난 때로부터 12 시간 이내로 특사로서 구 선거 위원회에 보낸다. 남은 회의록 1 부와 일체 선거표는 시(구역), 군 인민 위원회에 보낸다.

제 43조 구 선거 위원회에서 투표 수의 계산은 분구 선거 위원회가 작성한 투표에 관한 회의록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구 선거 위원회는 후보자에게 투표한 투표 수를 확정한 후 중앙 선거 위원회가 규정한 양식에 의하여 회의록 2 부를 작성한다.

회의록에는 구 선거 위원회 위원들이 서명하고 구 선거 위원회 인장을 찍는다.

작성한 회의록 1 부는 투표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도(직할 시) 선거 위원회에 특사로서 보낸다.

남은 회의록의 1 부는 도(직할 시) 인민 위원회에 보낸다.

제 44조 도(직할 시) 선거 위원회는 구 선거 위원회들의 회의록을 종합하여 투표가 끝난 때로부터 48 시간 이내에 중앙 선거 위원회에 특사로서 보낸다.

제 45조 선거는 해당 선거구의 전 선거자의 과반 수가 참가하여야만 유효하며 최고 찬성 투표 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된 자로 인정하는바 그 찬성 투표 수는 해당 선거구의 전 선거자의 과반 수가 되여야 한다.

제 46조 만일 본 선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선거구의 전 선거자의 과반 수가 선거에 참가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후보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과반 수의 찬성 투표 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구 선거 위원회는 이 사실을 회의록에 특별히 지적하여 중앙 선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 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거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본 선거 규정에 의하여 다시 선거를 실시한다.

부 칙

제 47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중 사망, 소환, 기타로 인하여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해당 선거구에서 보충 선거를 실시한다.

보충 선거는 본 규정에 준한다.

제 48조 공민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본 선거 규정을 위반한 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진다.

제 49조 선거와 관련된 일체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출한다.

1962년 8월 8일

중앙 선거 위원회 보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 선거 위원회는 1962년 10월 8일에 진행된 선거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전체 인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정치적 열의와 들끓는 환희 속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에 엄밀히 립각하여 승리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제 3 장 제 17조에 의하여 조직된 383 개의 선거구들에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100%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선거자의 100%가 각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각각 찬성 투표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 선거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제 7 장 제 44조에 의하여 각 선거구 위원회가 제출한 회의록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전체 선거구에 등록된 383 명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제 7 장 제 45조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각각 당선되였음을 인증한다. (당선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명단은 생략)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중앙 선거 위원회
1962년 10월 10일

정 령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구성법을 개정함에 관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구성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구성법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제 58 조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은 수상, 제 1 부수상, 부수상들, 상들, 위원회 위원장들과 그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제 3 조

내각은 전원 회의와 상무 회의를 가진다.

내각 전원 회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하며 내각 상무 회의는 수상, 제 1 부수상, 부수상들로 구성한다.

제 4 조

내각에는 그의 부문적 집행 기관인 성 및 위원회를 설치한다.

성 및 위원회의 설치, 폐지 또는 병합, 분리는 최고 인민 회의가 결정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결정하고 다음 번 최고 인민 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조

내각은 필요에 따라 그 직속으로 일정한 국가 관리 부문을 관할하는 기관들을 설치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 6 조

내각은 국가 기관, 기업소 및 협동 단체들에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결정 지시의 신속 정확한 집행을 지도 통제 감독하며 내각의 일체 사무를 처리하는 자기의 보좌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 원 장 최 용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서기장 박 문규
1962년 10월 18일
평 양 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

10월 22일 미국 케네디 정부는 쿠바에 대한 전면적 무력 봉쇄 조치를 선포하고 쿠바를 향하여 가는 일체 선박들을 저지시키고 《검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격침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 미국 정부는 쿠바 주변에 대규모의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쿠바 령토 상에 있는 미군 기지 관타나모에 새로운 증원 부대를 파견하고 있다.

미국 본토와 세계 각지에 주둔하고 있는 미 륙해공군 부대들은 전투 태세에 들어 갔다.

이리하여 쿠바 혁명과 쿠바 인민을 반대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이 오래 동안 감행하여 온 침략적 행동은 가장 로골적이고 파렴치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세계 평화는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였다.

쿠바를 무력으로 봉쇄할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금번의 조치는 공해 상에서의 야만적 해적 행위이며 평화를 유린하고 세계 전쟁을 직접 도발하려는 범죄 행위이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 대한 횡포한 도전 행위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 인민은 미제의 이 저주로운 범죄적 침략 행위에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쿠바 혁명이 승리한 첫날부터 그를 압살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및 외교의 모든 측면에서 침략 책동을 부단히 감행하여 왔다.

작년 4월 케네디 정부는 그의 고용병들로써 무력 침공까지 감행하였으나 그것은 쿠바 인민들의 영웅적인 반격에 직면하여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소탕되였다.

미제는 이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한 후 더욱 악랄하게 쿠바 인민을 반대하는 각종 음모 책동을 감행하여 왔으며 이제는 직접 쿠바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 전쟁 도발 행위에 나섰다.

전쟁 방화자 케네디는 그의 이 횡포무도한 침략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마치도 쿠바가 미국을 《공격》하려 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듯이 떠벌리고 있다.

도대체 오늘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있단 말인가?

세계 반동의 원흉이며 제국주의의 두목으로서 세계 제패를 위하여 온갖 종류의 대량 살륙 무기로 발끝까지 무장하고 있는 미제에 대하여 바로 얼마 전에 미제의 식민지 기반에서 해방되여 새 생활을 건설하고 있는 쿠바가 과연 어떻게 《위협》이 되겠는가?

전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쿠바 인민은 오직 미 제국주의자들의 끊임 없는 악랄한 침략 위협으로부터 자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방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쿠바가 자기의 주권을 수호하며 혁명적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기 령토 내에서 어떠한 방위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쿠바 인민 자신의 내정 문제이다.

그 누구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직 자기들의 침략적 야망에 쿠바가 굴종하지 않는다고 하여 쿠바로부터의 《위협》을 운운하면서 그를 무력으로써 정복하려 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 도처에서 이런 파렴치한 침략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남쪽 절반 땅을 강점한 것이 《방위》를 위한 것이라고 하며 중국 령토 대만을 강점한 것이나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침략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것도 모두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케네디 정부의 흉악한 위선적 정체와 강도적 본성은 더욱 여지없이 드러났다.

모든 사실은 미제야말로 전쟁과 침략의 원흉이며 민족 해방 혁명을 교살하는 국제 헌병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인류의 극악한 원쑤이라는 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 준다.

큐바 인민을 반대하는 미제의 새로운 전쟁 도발 행위는 결코 용허될 수 없다.

매개 민족은 자기의 주권과 령토 완정에 대한 불가침의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큐바 인민에게 다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식민지 노예의 멍에를 들씌우려는 미제의 강도적 행위는 단호히 저지되여야 한다.

미제의 침략에 직면한 큐바 인민은 지금 전 인민적 항쟁 태세에 궐기하였다.

큐바 인민은 피델 카스트로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큐바 혁명 정부의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단결되였으며 침략자들을 격퇴할 전투적 기세를 더욱 높이고 있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큐바는 고립되여 있지 않다.

큐바 인민의 편에는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이 견결히 서 있다.

미제의 그 어떤 위협도 봉쇄도 무력 침공도 자기의 주권과 혁명적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손에 무장을 튼튼히 틀어 쥐고 일어난 영웅적 큐바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다. 큐바 혁명, 큐바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필승 불패이다.

만약 미 제국주의자들이 감히 큐바를 침공하는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는 그 불 속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미제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의 원쑤이며 조선 인민과 큐바 인민의 공동의 흉악한 원쑤이다.

조선 인민은 미제 침략으로부터 조국과 혁명적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큐바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전투적 련대성을 표시하며 그에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낸다.

조선 인민은 공동의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큐바 인민과 함께 서 있을 것이며 그와 굳게 단결하여 큐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전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국가 정부들과 인민들은 큐바에 대한 미제의 야만적 침략 행위를 저지시키며 위험에 직면한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치 단결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62년 10월 25일
평 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

1962년 11월 21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인 국경 분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인도 측의 침범 및 도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국경 분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목적 밑에 10월 24일 인도 측에 제기한 3 개 제안의 실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국 국경 경비대가 1962년 11월 22일 0시부터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선 전반에서 사격을 중지하며 1959년 11월 7일에 중국과 인도 간에 존재한 실제적 통제선에서 1962년 12월 1일부터 주동적으로 20 키로메터 철수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와 함께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국경 지역들에서 공식 대표들의 회담을 열며 또한 량국 수상들이 회담을 개시할 것을 제의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중인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 주동적이며 평화 애호적 발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금번 조치는 중인 국경 문제를 어데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진지한 념원과 성의 있는 립장을 다시 한 번 뚜렷이 전 세계 인민들에게 보여 준다.

이것은 중국 인민과 인도 인민의 근본적 리익 뿐만 아니라 아세아 인민의 리익과 세계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중화 인민 공화국의 평화 애호적 정책의 명백한 표시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중인 국경 문제는 중국과 인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이 남겨 놓은 유물이며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미해결 문제이다.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 미해결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모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국경 충돌을 피하기 위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합리적이며 공정한 제의들을 거부하고 무장 충돌을 계속하여 오던 끝에 최근에 와서는 대규모적인 전면적 무장 공격을 전개함으로써 중인 국경 지대에서 엄중한 사태를 조성하였다.

인도 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우선 인도 인민 자신의 리익에 배치되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의 리익에 배치되는 것이며 오직 제국주의자들의 리익에만 부합되는 것이다.

사실 상 지금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중인 국경 분쟁을 자기들의 침략 목적 달성에 리용하기 위하여 갖은 흉악한 책동을 다 꾸미고 있다.

10월 24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충돌의 불'길이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며 중인 국경 문

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세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인도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이 제의도 거부하고 국경 충돌을 더욱 확대하며 사태를 가일층 악화시키는 길에 들어 섰다.

금번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솔선 정화하고 자기 군대를 철거시킬 데 대한 주동적 조치를 취한 것은 중인 국경 문제를 자기들의 침략 목적에 리용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파탄시키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데 커다란 기여로 된다.

인도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금번의 공명 정당한 제안을 접수하여야 한다.

중인 국경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도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중인 국경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중국과 인도 두 나라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하며 또 능히 해결될 수 있다.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지금 인도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인도 정부가 금번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제의와 조치에 지체 없이 응함으로써 국경 문제가 반둥의 정신에서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할 것을 희망하며 중인 량국이 화목한 린방으로 될 것을 념원한다.

1962년 11월 23일
평 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비망록

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10월 21일 소위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제 17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제 12차 《년례 보고》를 발표하였다.

이 《년례 보고》는 상례에 따라 허위와 날조로 가득 차 있으며 조선의 현실을 완전히 외곡하였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유엔 헌장 그 자체를 유린하고 조선 침략을 위한 도구로서 미국이 조작해 낸 사기한들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의 면전에서 여지 없이 폭로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미 루차에 걸친 그의 비망록들을 통하여 이에 대한 진상을 거듭 실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 도구로서의 정체가 드러날 대로 드러난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응당 이미 오래 전에 해체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위원단》이 아직도 남조선 땅에서 계속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그 무슨 《년례 보고》를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소위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미국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년례 보고》의 허위적 정체를 다시 한 번 폭로하며 조선 통일 문제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재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1

남조선은 벌써 17 년 이상이나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그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다.

미국은 남조선 인민들의 봉기에 의하여 리 승만 괴뢰 정권이 타도된 이후 위기에 직면한 그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수습하기 위한 최후 발악적인 모험으로서 남조선에 가장 야만적인 군사 독재까지 수립하였다.

미국은 군사 정변 조작 후 벌써 1년 반이나 계엄령을 지속하면서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류혈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은 완전히 민주주의적 자유의 마지막 흔적마저 말살된 암흑 천지로 전변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반미 감정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생존의 권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은 장성 강화되고 있다.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은 날로 심각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식민지 통치 지반은 더욱 뒤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천하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남조선이 지난 기간 《비교적 안정》되였다고 하면서 류혈적 군사 테로 통치를 엄폐하며 그를 미화 분식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 파쑈 통치를 《능률적》이고 《활동적》이라고 찬미하면서 자기들이 《한국의 대의제 정부 발전에 대한 감시와 협의에 계속 역할을 놀았다》고까지 망발을 하였다.

오늘 남조선에 그 어떤 선거된 합법적인 국가 기구도 없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대의제 정부》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대의제 정부의 발전을 관찰》하였다고 하니 과연 이것은 희극 중의 희극이다.

이 허위를 어떻게 해서라도 합리화하여 보려고 《년례 보고》는 남조선에서 미국이 조작한 군사 정변을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고통스러운 외'과 수술이였음을 확인》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행정적 민주주의》란 새로운 술어까지 조작해 가지고 군사 파쑈 통치를 《행정적 민주주의》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그들이 얼마나 후안 무치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더욱 드러내 놓을 뿐이다. 오늘 미국이 남조선에 수립한 살벌한 군사 파쑈 통치를

《진정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외'과 수술》이라고 한다면 지난날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극구 찬미하여 마지 않던 리 승만과 장 면 괴뢰 정권 시기의 《민주주의》는 무슨 《민주주의》였단 말인가?

유엔의 문서고에 쌓여 있는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열 한 권의 《년례 보고》들을 다시 볼 것도 없을 것이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10여 년을 두고 미국이 총칼의 위협 하에 날조하여 남조선 인민에게 강요한 리 승만 파쑈 통치를 《대의제 정치의 교무적 모범》으로 묘사하여 왔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이러한 허위 보고에 근거하여 무슨 연극이 연출되였던가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례를 들면 유엔 총회 제 11차 회의 정치 위원회에서 《조선 문제》를 토의할 때 미국 대표 그린바움은 다음과 같이 위선적으로 떠벌리였다.

《대한 민국은 그 정부의 대의제 성격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그 곳에서는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있었다……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보고에는 이것이 확인되여 왔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이 박혀져 가고 있다는 진보적인 사실이 뚜렷이 계속되여 왔다고 한 동 위원단의 보고를 읽고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 소위 《대의제 정부》는 남조선 인민의 봉기에 의하여 타도되였다. 미국이 파산 당한 이 기만극을 수습하기 위하여 장 면 괴뢰 정권을 조작해 내자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또다시 그에 장단을 맞추어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만족스러운》 《대의제 정부》라고 떠들었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1961년 제 11 차 《년례 보고》에서 장 면 정권의 시기는 《조선 사람들의 모든 생활 분야에서의 완전한 자유에 의하여 특징지어졌다》고까지 하였다.

그러던 것이 이제' 와서는 이 모든 것이 가짜였으며 군사 독재 정권이야 말로 《진짜 민주주의》의 길을 밟고 있다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무엇이건 미국 상전이 시키는 대로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엄폐하고 분식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운운하며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보이려 한다 하더라도 남조선에 수립된 미제의 군사 파쑈 통치의 흉악한 정체를 감출 수는 없다.

지난 년간에도 남조선에서 미제의 야만적 군사 테로 통치는 더욱 횡포하게 인민들을 탄압하였다.

일본 교도 통신도 지난 5월 군사 정변 1 주년을 평하면서 《사람들의 존엄과 자유라는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항상 희생되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도꾜 1962년 5월 15일 발 《교도》)고 하였다.

군사 정변 초기의 단 1 주일간에 23개의 정당들과 238 개의 사회 단체를 강제 해산시킨 (서울 1961년 5월 23일 《에이피》)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그 후에도 계속 일체의 정치 활동을 발악적으로 봉쇄하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파업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초보적 규범을 완전히 말살하였다.

1961년 12월에는 《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림시 특별법》이란 파쑈적 살인 악법에 《정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에게 전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를 류포한 자》를 또한 가혹하게 처형할 데 대한 조항까지 첨부함으로써 인민들이 정치적 활동은 고사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사소한 의견마저도 입밖에 낼 수 없게 하였다.

그리하여 금년 4월에만 하여도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의 기자는 《도정 감사 준비로 일반 사무 중단 상태》라는 보도 기사를 썼다고 하여 소위 《정부에 대한 명예 훼손 죄》로 체포 투옥되였으며 《한국 일보》 기자 2명은 《쫓겨 난 판광》이란 제목으로 깡패들이 놀이터에서 인민들에게 행패를 가한 사실을 보도하였다고 하여 소위 《리적 행위》란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4월 25일)

군사 정변 직후에 76개의 일간 신문, 452개의 주간 잡지, 305개의 통신사를 강제 폐쇄하고 200여 명의 기자들을 체포한(서울 1962년 6월 2일 발 《유피아이》)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지난 6월과 7월에 소위 《언론 정책》과 그의 《시행 세칙》을 발표하고 간신이 남아 있는 언론, 출판 기관들마저 또다시 각종 구실을 붙여서 대량적으로 폐쇄하며 탄압을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 탄압에 대하여 남조선 신문은 《오늘 한국 출판물이 말하고저 하는 바를 말할 수 없으며 언론인들이 용기를 상실하였다는 것은 국내외에 주지된 사실》이라고 썼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7월 21일)

오늘 남조선에서는 《교통 규칙 위반》이라는 죄명만으로도 매일 수천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처벌 당하고 있으며 각종 《포고령 위반》이라는 구실 하에 극장, 영화관, 식당, 려관, 리발소, 유흥장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매일 매시각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이 검거, 처벌 당하고 있다.

미제와 그의 주구 군사 파쑈 도당은 이처럼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 투옥 처벌하면서 《무테기 재판》, 《즉결 재판》 등의 파쑈적 방법으로 지난 6월 4일에는 《하루 동안에 5, 196 명을—(즉 평균 16 초 동안에 한 사람씩)—심판함으로써 즉결 재판사상 최고의 기록을 올렸다.》 (서울 1962년 6월 5일 발 남조선 통신 《합동》)

이 야만적 폭압 속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순시의 안식도 기대할 수 없으며 어느 때 어떻게 검거망에 걸려 들지 모른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검거 투옥이 얼마나 격심하게 또 닥치는 대로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대법원》이 공포한 통계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8월까지의 8개월 간에 아무 죄 없이 《구속명장》에 의하여 체포 구금된 사람들만도 무려 4만 9, 791 건에 달하였다는 사실이 그 대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서울 1962년 9월 19일 발 남조선 통신 《합동》)

이 뿐만 아니라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군사 정변 후 불과 3개월 간에만도 《병역 기피자》라하여 24만 1천 여 명의 청년들과 16만 4천 명의 《군무 소집 기피자》들을 체포하였다. (남조선 신문 《전남 일보》 1961년 8월 7일, 서울 1961년 9월 8일 발 남조선 통신 《합동》)

이 체포된 자들 중의 많은 부분이 소위 《국토 건설단》에 편입되여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남조선 신문에 의하면 이 《국토 건설단》에 해당한 장정들은 10 여 만 명을 헤아린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10월 13일)

그들은 굶주림과 피곤과 고역에 시달리다 못해 련일 쓰러지고 있는바 례컨대 《국토 건설단 제 1 분단 7전대》 소속 안 정기(31세)는 지난 8월 27일 작업을 마치고 《천막에 들어와 〈정말 고되구나〉 라는 말과 함께 비통을 올린지 30 분만에 절명》하였다.(서울 1962년 9월 7일 발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지사)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능률적》이며 《활동적》이라고 묘사한 소위 《행정적 민주주의》의 진짜 내용은 이런 것이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남조선에 수립된 미제의 류혈적 군사 테로 통치를 분식하는데 급급하면서 소위 《재건 국민 운동》까지도 극구 찬양하여 마지 않았다.

소위 《재건 국민 운동》이란 과거 일제 식민지 통치의 말기에 일제가 조선 인민을 더욱 가혹하게 탄압하며 파쑈적 규률을 강요하기 위하여 벌려 놓았던 《국민 총력 운동》을 미제가 그대로 재생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8월 6일에도 《전라남도 령암군 삼호면 재건 국민 운동 촉진회 부회장을 비롯한 이 촉진회 성원들은 회의를 열고………》 다만 《청소 행동이 나쁘다던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리유로 《다섯 사람을 때려 죽였다.》(남조선 신문 《전남 일보》 1962년 8월 11일)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오늘 남조선에서 례상사와 같이 감행되고 있는 이런 야만적인 행동들에 대하여서는 물론 모르는척 한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년례 보고》에서 지금 미국이 남조선에서 꾸며 내고 있는 또 하나의 기만극인 소위 《민정 이양》에 관한 계획을 크게 내세움으로써 남조선에서의 파쑈적 암흑 통치의 모든 측면을 감싸 보려고 또한 시도하였다.

그러나 오늘 미제가 조작하고 있는 남조선에서의 《민정 이양》 놀음이 소위 《대의제 정부에로의 복귀》라는 간판 밑에 현 군사 독재 제도를 그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벌써 뻔히 드러났다.

남조선 군사 정권이 미국에 의하여 조작된 식민지 통치의 대리점으로서 군대, 경찰의 폭압과 첩보망의 그물로 남조선 전역을 뒤덮어 놓은, 어느 선임 괴뢰 정권보다도 더 포악하고 광란적인 파쑈 테로 정권이라는 것은 이미 온 세상 앞에 폭로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엄폐하기 위하여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앞에 《민정》의 간판을 내걸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 특무인 남조선 《중앙 정보 부장》 김 종필은 지난 10월 워싱톤에 가서 《민정 이양》 연극에 관한 최종적 지시를 받은 다음 《현 군사 지배층이 적어도 4년 간 더 집권할 작정》이며 박 정희가 《차기 〈선거된 대통령〉으로서 국가 수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떠벌렸다. (서울 1962년 10월 29일 발 《에이에프피》)

워싱톤의 최종 지시에 따라 11월 7일 박 정희는 1963년에 《민정 이양》이 되더라도 현 군사 정권 성원들은 그 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공포하였다. (강릉 1962년 11월 7일 발 남조선 통신 《동양》)

즉 《민정 이양》이란 미제가 현 군사 파쑈 도당에게 군복 대신에 사복을 갈아 입히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미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내세운 자기들의 특무인 현 군사 파쑈 도당 이외에는 누구도 《민정 이양》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미 금년 3월 《정치 활동 정화법》이라는 전고 미문의 파쑈적 악법을 조작하고 일체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세력은 물론 지어 구 정객들의 정치 활동까지도 모두 봉쇄하였다. 소위 《민정 이양》이 되더라도 남조선에 수립된 군사 독재 제도가 조금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은 금번 미제가 직접 조작하여 발표한 《헌법 개

정안》에 의하더라도 극히 명백하다.

워싱톤의 지시 하에 미국 《헌법 전문가》라는 하바드 대학 교수 러퍼트 에머슨과 뉴욕 대학 교수 후란쓰가 직접 남조선에 와서 만들어 낸 (도꾜 1962년 10월 13일 발 《데페아》, 서울 1962년 11월 5일 발 남조선 통신 《동양》) 《헌법 개정안》은 공민의 기본권을 탄압할 데 대하여 공공연히 규정하고 있으며 군사 독재 정권 시기에 공포된 모든 파쑈적 살인 악법들이 그 대로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였다.

미제는 이 파쑈적 《헌법 개정안》을 계엄령도 해제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소위 《국민 투표》를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에게 강요하려 하고 있는바 군사 파쑈 도당은 《계엄령을 풀지 않더라도 투표의 자유 분위기는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투표를 전후해서 계엄령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서울 1962년 10월 12일 발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계엄령 하에서의 자유 분위기》 (?!)— 바로 이런 것이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유》의 척도이다.

이제 미제 침략자들은 과거 리승만 괴뢰 정권을 날조하던 수법 그 대로 총칼의 탄압 밑에 진행하는 《국민 투표》요, 《선거》요 하는 것으로서 군사 파쑈 도당의 《당선》을 날조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강점 하에서 괴뢰 정권에 그 누가 들어 앉아도 자기들이 오늘 겪고 있는 불행과 고통은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민정 이양》의 값싼 소동에 속지 않으며 그를 배척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잡지는 《유권자 대중의 압도적인 다수가……누가 정권의 왕좌를 차지하건 간에 국민 대중의 빈곤과 생활고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어 투표에 참가해야 할 흥미도, 필요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남조선 잡지 《사상계》 1962년 5월 호)

그 어떤 분식과 미봉으로써도 미제가 뒤흔들리는 자기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수습하기 위한 최후 발악적인 모험으로서 남조선에서 조작해 낸 군사 독재의 극악한 정체를 가리울 수 없으며 또한 그 어떤 발악과 기만적 술책으로써도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오래 유지할 수 없다.

2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언제나 하던 수법 그 대로 금번 《년례 보고》에서도 남조선의 경제적 파국을 엄폐하는 데 급급하였다.

《년례 보고》는 미제가 군사 독재를 수립한 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통적 노력》이 있었고 《옳은 방향에서》 《개조》와 《개혁》의 조치들이 취하여졌기 때문에 앞으로 《유익한 결과》들이 나타나리라는 등 거짓말을 늘어 놓으면서 허위적인 수'자들을 수다히 라렬함으로써 마치도 남조선 경제 형편이 호전되여 가는듯 한 인상을 조성하려고 헛되게 시도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술책으로써도 오늘 남조선 경제가 비참한 파국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실을 감출 수 없다.

오늘 남조선 경제 형편은 《계속되는》 몰락과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 문제는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우》고 있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8월 6일)

군사 정권은 인민 대중을 기만하기 위하여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한다고 하면서 《자립 경제의 건설》이니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이니 하고 떠들었으나 그것이 허공에 뜬 순전한 빈말에 불과하다는 것은 벌써 여지 없이 드러났다.

미국의 탐욕적인 식민지 략탈 정책에 의하여 여지 없이 파괴된 남조선 민족 공업의 생산량은 군사 정변후 1년 동안에만도 9% 감소되였다.

군사 정권이 공포한 《경제 백서》에 의하더라도 1961년에 남조선의 《제조업은 2.9%의 생산 감퇴》를 가져 왔다. (서울 1962년 8월 14일 발 남조선 통신 《합동》)

남조선의 《공업 지구는 죽은듯이 잠자고 있》으며 공업 시설은 《녹쓸고》있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62년 3월 5일)

황폐화된 남조선의 농촌 경리도 날로 더욱 한심한 처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

미국 잉여 농산물의 강매, 미제 침략군의 농토 징발, 농업 시설의 파괴 등으로 인하여 남조선의 경지 면적은 일제 말기에 비하여 20만 정보, 파종 면적은 40만 정보나 감소되였다. 그리하여 과거 수백만 석의 미곡을 수출하던 남조선이 《매년……400만 석 내지 500만석의 외곡을 도입해야 하는》(《서울 방송》 1962년 11월 9일) 만성적 기근 지대로 전락되였다.

금년도에도 곳곳에서 《50년래의 대 흉작》(전주 1962년 10월 15일 남조선 통신 《합동》)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으며 《미곡이 작년도보다 300만 석이나 감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명년도에는 어차피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식량의 도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라는 것이다. (《서울 방송》 1962년 11월 9일)

경제는 파괴되고 남조선의 전체 로동 능력 있는 인구의 60%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실업 및 반실업 상태에 있는데 《지난 1 년간 일반 물가는 약 16%가 올랐다.》(《서울 방송》 1962년 10월 11일)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허위 주장과는 정반대로 군사

정변 후 남조선에서 그 어떤 경제 시책도 실천된 것이 없으며 또 실천될 수도 없었다.

미국이 설계하여 주었고 군사파쑈 도당이 《목숨을 걸고》 한다고 떠들던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이미 암담한 실패의 양상을 로출시키고 있》으며 군사 정권은 《이러한 실패에 전혀 속수 무책》이다. (서울 1962년 9월 20일 《에이에프피》)

원래 미제의 강점과 식민지 통치가 지속되는 조건 하에서 아무런 밑천과 능력도 없이 그 무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운운하는 자체가 어이 없는 일이였다. 그리고 이 《5개년 계획》이 설사 그대로 실현된다 하여도 남조선 경제는 바로 잡을 수 없으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아무런 《혜택》도 돌아 올 것이 없는 것이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5개년 계획에 의하면 5년 동안에 우리 나라의 경제가 40.7% 성장하지만 국민의 조세 부담액은 갑절이나 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것은 5 개년 계획이 실시되는 대로 국민의 소득이 많아지지만 소득 증가률보다 국민들은 더 많이 내야한다는 말이 된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3월 27일) 즉 《5 개년 계획》은 수행되는 그만치 도리여 인민들에게 더욱 참혹한 생활을 강요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5 개년 계획》은 또한 그것이 수행되여도 《목표 년도인 1966년의 실업 인구를 170만으로 예상》 (서울 1962년 8월 14일 발 남조선 통신 《합동》)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의 한 신문은 《이 계획대로 되여도 다행한 일이지만 과연 이 어둡고 만성화된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을런지?》라고 탄식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8월 10일)

실패에 직면한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념출하려는 궁여지책으로서 미제와 군사 정권이 지난 6월에 돌연 강압적으로 실시한 《통화 개혁》조치도 비참한 실패로써 끝나고 말았다.

이 무모한 《통화 개혁》조치로 말미암아 《남조선의 경제는 공장들의 절반이 자금난으로 문을 닫고 구매력이 전례 없이 저하됨으로써 사실 상의 정체 상태에 함입하였던 것이다》. (서울 1962년 7월 14일 발 《에이에프피》)

미제와 군사 정권이 소위 《중농 정책》을 운운하면서 농촌에 대하여 실시한 《개혁》 조치들도 하등의 개변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소위 《농어촌 고리채 정리》와 기타 조치들은 령세 농민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다.

오늘 황폐화되고 령세화된 남조선 농촌 실태를 보면 전 인구의 60～70%를 차지하는 농민의 42%가 5 반보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령세 빈농민이며 그들의 년간 총 수입은 《실로 새발의 피와 같은 미미한 것》이다.

《이러한 빈농이 약 반수를 차지하는 우리 농촌이 일조 일석에 일어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들 빈농의 실정이 이렇고 보매 해마다 봄철에 접어 들면 절량 농가가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들에게 량곡을 대여하는 등 구호의 손을 뻗쳐 본댓자 그것은 홍로 점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남조선 신문 《매일 신문》 1962년 4월 10일)

공업과 농업 할 것 없이 경제는 파괴될 대로 파괴되고 일'자리는 없고 실업자만 나날이 늘어가는 조건에서 오늘 남조선에서 《년간 일인당 국민 소득은 단 65딸라 밖에 안 되》 (남조선 신문 《민국 일보》 1962년 1월 1일)는 세계 최하층의 수준이며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

홍콩 잡지 《이스턴 호라이즌》의 기자는 지난 겨울 남조선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 방문에서 받은 인상을 다음과 같이 썼다.

《다 무너져 가는 오막살이와 판자'집이 어데 가나 많이 있다. 정월의 태양은 불행한 사람들의 생활을 백일 하에 드러내 놓았다.

길'가에나 오막살이 곁에서는 형언할 수 없이 헌 누더기를 걸친 년령이 각이한 남자들이 모여서 부들 부들 떨고 있었고 녀성들의 얼굴에서는 말 못 할 비애에 잠긴 두 눈만이 주목을 끌었다…

우리의 자동차가 진창에 빠져서 멎어 서기만 하면 어느듯 어린 것들이 우르르 쓸어 와서 동냥을 내라고 여윈 손을 내미는 것이였다.》

일본 잡지 《에코노미스트》의 이전 서울 특파원은 다음과 같이 썼다.

《눈을 감으면 한국의 비참한 모습이 꼬리를 물고 지나 간다. …경제 재건 5개년 계획도 뒤덮고 있는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불안에서 한국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에코노미스트》 1962년 9월 3일 호)

소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형편도 상상 이하로 비참하다.

서울시 경공업 부문 로동자들은 하루 24 시간 중 취침 시간 5～6 시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한 시간의 몸 쉴 틈도 없이 혹사 당》하고 있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62년 3월 8일)

이렇게 혹사를 당하면서도 로동자들은 로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로임은 평균 3～4개월씩이나 밀려‥이것이 심한 곳에는 1년전의 로임조차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있다.》(남조선 신문《한국 일보》 1962년 3월 21일)

하급 공무원들도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봉급액을 가지고 까

니를 이어 가》고 있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1년 12월 5일)

오늘 서울시에서만 하여도 《서울 인구의 45.8%에 해당하는 시민이 집이 없》이 살고 있다.(《서울 기독교 방송》 1962년 10월 9일)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한 마지막 방도로서 할 수 없이 륜락의 길에 떨어져서 《방황하고 있는 녀성들이 물경 30여 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62년 5월 26일)

극도의 생활고에 빠져 살래야 살수 없게 된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그들 스스로 제 목숨을 끊거나 전 가족이 집단 자살하는 목불인견의 참상이 련일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 있다.

《살고 또 살아 보았자 희망이 없다 광명도 이내 보이질 않는다. 갈 수록태산, 보이느니 고해—… 해결할 도리가 없다는 데서 집단 자살의 흉극을 빚어 내고 있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7월 6일)

그리하여 오늘 《한국의 자살 비률은 세계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1962년 10월 9일 발 《에이에프피》)

인간 최하층의 생활에 보건 시책이 또한 전무한 데서 오늘 남조선에서는 각종 질병이 한없이 창궐하고 있다.

《한국에는 50만 명의 중환자를 포함하여 80만 명이란 상심할 만한 페결핵 환자가 있》으며 페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세계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남조선 신문 《코리안 리퍼블릭》1962년 7월 16일)

《대한 기생충 학회》의 발표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기생충 보유자가 전 국민의 90%에 달한다》 (서울 1962년 7월 16일 발 남조선 통신 《합동》)

남조선 군사 정권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페지스토마 환자가 150만, 간지스토마 환자가 450만명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법은 물론 치료법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있다.》(서울 1962년 11월 7일 발 남조선 통신 《합동》)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이 모든 비참한 상태는 바로 미제의 17년간에 걸친 식민지 통치의 직접적 결과이다.

원래 남조선 민족 경제는 극히 빈약한 것이였다.

이것이 해방 후 미국의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여지 없이 파괴됨으로써 공업과 농업의 생산량은 모두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의 3분의 2에도 달하지 못하게 되였다.

그런데 남아 있는 것마저도 미제의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되였으며 남조선에서의 년간 총 생산의 3 분의 1 이상은 군사적 목적에 충당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 경제는 미국의 식민지적 지배가 지속되고 그의 군사화 정책이 강화되는 조건 하에서 수습할래야 할 수 없는 파국적 지경에 놓여 있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가 《식량 자급을 기할 만한 농업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업 국가도 아닌… 지금 정도의 생산 가동을 보장할 만한 전력 공급도 부족한 터에 자금만 공급해 준다고 생산이 잘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나마 제품에 대한 얕은 수요 (실업 및 저임금 소득)를 가지고서야 확대 균형은 커녕 축소 재생산 마저 어려울 것이 오히려 당연한 실정인 것이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7월 16일)라고 지적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의 범죄적 진상을 엄페하기 위하여 이번에도 미국의 소위 《원조》에 대하여 운운하였다.

그러나 바로 미국의 《원조》야 말로 남조선을 예속화하는 미끼였으며 수단이였다는 것은 오늘 계엄령 하에 있는 남조선 출판물도 광범히 인정하고 있다.

《한국 일보》는 《…우리는 이제까지의 미국 원조에 대하여 회의적인 점이 한두 가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우리는 어째서 과거 15년 이상이나 시간을 가졌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과를 가져 온》 것인가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의 안전 보장과 결부된… 동기에서 이루어진…원조들이 오늘 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률적 성장의 조건을 상실케 하고 예속적인 외존도를 보다 높이는 결과를 점점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역 조건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지극히 어려운 일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식민주의> 라는 말도 요즘은 흔히 쓴다.

체질이 약화되여 가는 후진국 경제의 일반적 양상을 볼 때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새로운 개념에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갖게 된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1년 8월 10일)

《산업 경제 신문》은 《원조를 받으면서도 전력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 하였》고 《디젤 발전기를 사 들여 이로써 응급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형편이니 《지난 9년 동안의 원조 사업은 너무나도 실망적이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외국 원조란 결국 그런 것》 이라고 비난하였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62년 9월 19일)

남조선 신문들은 《어느 정도 자급 자족할 수 있던 것도》 예속적 상태에 빠지게 되였다고 하며 그의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 국내 방적 (직) 업의 소요 원료 90% 이상이 미국 원면임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국산 면화 재배가 거의 완전 쇠퇴 상태에 빠진 것만도 명백한 현상이다. 그러나 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들여 오게 된 것이 라기보다는 미국 원조가 그것을 반 강제하다 싶이 했으므로 부득이 그것을 들여 올

수 밖에 없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쉽사리 그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든 것도 미국측이 아니였던가》. (남조선 신문《한국 일보》1962년 10월 2일)

미국은 《원조》의 미명 하에 남조선에서 귀중한 자원들을 마음 대로 략탈하고 남조선 민족 경제를 송두리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민족 문화를 여지 없이 말살하였다.

퇴폐적인 양키 문화의 침습에 의하여 조선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 예술과 고유한 미풍 량속은 말살되고 고귀한 문화 유산은 계속 파괴 략탈되고 있다.

《해방이 되면서 밀려 들어 온 미국 문화는 황폐한 땅에 잡초 우거지듯 제멋 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8월 11일)으며 정치 경제적 위기가 더욱 심각화되고 민생고가 절정에 달한 조건 하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의 전파는 남조선에서 사회악을 또한 질병과 같이 더욱 만연시켰다.

오늘 남조선은 《극도의 도덕적 퇴폐 하에 있는 사회》(남조선 신문 《전남 일보》 1962년 4월 7일)로 되였으며 살인, 강도, 절도, 폭행, 사기, 횡령, 패륜, 패덕이 사회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군사 독재 수립 이후《국민 도의를 바로 잡는다》느니 《구악 일소》니 《깡패 소탕》이니 하는 소리가 수다히 울려 나왔지만 그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악화라도 되여 가는 사태》이다. (남조선 신문《국제 신보》 1962년 4월 29일)

남조선에서 1961년 1 년 동안에 각종 범죄 행위는 71만 5,600 여건이 발생하였다. (서울 1962년 1월 22일 발 남조선 통신《동화》)

남조선 당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금년 들어 지난 7월까지의 7개월 간에만도 남조선에서 강력범의 수는 무려 46만 2, 820건에 달하였는바 이는《례년보다 배에 가까운 증가》이다. (서울 1962년 10월 12일 발 남조선 통신《합동》)

오늘 남조선은 《모든 정의와 모든 법률이 거꾸로 서고 짓밟혀버린 소름 끼치는 세상》으로 《불안한 지대로》화하였다. (남조선 《기독교 방송》 1962년 2월 7일)

서방 출판물들까지도 남조선을 가리켜 《죽음의 땅》, 《죽어 가는 땅》, 《암흑의 땅》, 《생지옥》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응당하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이 모든 비참한 정경을 감추어 보려는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시도는 너무나도 헛된 일이며 마치 그것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워 보려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3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엄중한 정치 경제적 파국과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바로 미국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지배권을 틀어 쥐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소위 《대한 민국 정부》라는 것은 미국 식민지 통치를 부식하는 장식물에 불과하며 모든 권력은 미국 《대사관》, 《주한 미 경제 협조처》, 《유엔군》의 간판을 가진 미군 사령부 등으로 구성되여 있는 식민지 통치 기구에 집중되여 있다.

미국 《대사관》은 사실상의 미국 《총독부》이며 《유엔군 사령부》는 미국이 남조선 괴뢰군을 통솔하는 미제 침략군의 집단이며 《주한 미 경제 협조처》는 남조선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출판물도 《…한국 정부는 다만 원조 자금 분배 위원회에 지나지 않았다. 주한 미 경제 협조처가 한국의 막뒤에 숨어 있는 정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잡지 《츄오 고롱》 1962년 2월 호)

미국과 남조선 괴뢰 정부 간의 주종 관계는 그들 간에 조작된 수다한 《조약》과 《협정》들에도 공공연히 밝혀져 있다.

일찌기 1948년 12월 10일에 체결된 《한미 경제 원조 협정》은 남조선에서의 자원의 처리와 생산 및 배급의 통제, 일체 수출입에 대한 통제, 미곡의 강제 수입과 량곡 배급에 이르기 까지의 경제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 관리 권을 미국이 장악하도록 규정하였다.

1953년 12월에 체결된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 계획에 관한 한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 1956년 11월에 체결된《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 1961년 2월에 체결된《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등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경제 관리권은 물론 남조선 괴뢰 정권의 예산 편성과 세금 징수안까지 모든 것을 틀어 쥐고 완전히 통제할 것과 치외 법권을 행사할 데 대하여 공공연히 규정하고 있다.

1950년 7월 미국과 남조선 당국 간에 체결된《통수권 이양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미국은 정식으로 남조선 군대에 대한 명령 지휘권을 틀어 쥐고 있으며 미군사 《고문》들은《남조선 정부》의 《국방부》에서부터 《군단》,《사단》, 《련대》, 《대대》,《훈련소》에 이르기까지 배치되여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부로서 미 제 8 군 사령관의 지휘 하에 있고 그의 허가 없이는 마음 대로 움직일 수 없다.》(일본 잡지

《슈깐 신죠》 1961년 5월 20일)

이와 관련하여 또한 남조선 주둔 미군의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서 1950년 7월 미국과 남조선 당국 간에 체결된 소위 《대전 협정》은 《미군의 배타적인 전속 관할권만 인정》하였는바 《미 군인에 의한 범죄는 미군 당국만이 재판하며 그 수사 체포도 한국은 참여할 수 없게 되여 있》으며 《미군인에 의한 한국인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인명 살해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미국의 일방적 통고로써……처리》하게 되여 있으며 《미군은 한국의 외국인 출입 및 등록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여 있으며 《미군은 면세로써 물자를 자유로이 들여올 수 있으며 군사 우편을 리용하여 필수 물품들을 수입하되 한국 세관은 검사 조치조차 못 하》게 되여 있다. (남조선 잡지 《신사조》 1962년 4월 호)

바로 이것은 식민지 강점군의 전횡을 그 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 무제한의 지배권을 틀어쥔 미제 침략자들은 인민들에게 정치적 무권리, 경제적 빈궁, 사회적 혼란 등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또한 남조선 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를 가하면서 살인, 폭행, 강간, 재물 략탈 등 갖은 만행을 다하고 있다.

인종 차별에 눈이 어두운 미군은 벌써 남조선을 점령한 첫날부터 조선 인민들에 대한 살상 폭행을 일상사로 삼아 왔다.

아무 리유 없이 미군에 의하여 민족적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살상 당한 조선 사람들의 수효는 오늘 일일이 헤아릴 수 조차 없다.

한 남조선 잡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선 뚜렷이 기억되는 것만으로도 여섯살 난 어린애를 쏘아 죽인 사건, 소년의 온 몸에 콜탈을 칠해 궤짝에 넣어 <린치> 한 사건, 동두천 녀인 삭발 사건, 파주 집단 수색 사건, 군산 소녀 총격 사건, 마산 소년 총격 사건, 포천 녀인 페인트칠 사건, 후암동 총격 사건, 옥천 한국인 총격 사건 등 민족 감정에 오'점을 찍어 놓은 사건이 많았다》. (남조선 잡지 《신사조》 1962년 4월호)

남조선 주둔 미군은 조선 사람을 쏘아 죽이거나 그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하나의 도락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을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1962년에 들어 와서만 보더라도 미군은 1월 2일 림진강 얼음우에서 낚시질을 하는 어부에게 렵총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힌 사건을 필두로 해서 그가 발 붙이고 있는 남조선의 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잔인한 살인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상기 총격 사건이 있은 지 4일 후인 1월 6일에는 경기도 장단군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8련대 디 중대 소속 하사 로너 외 수십 명의 미군이 40 여 명의 나무'군들을 《포위하여……흡사 오리 사냥》하듯 렵총으로 마구 사격하여 2 명을 학살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2월 10일)

2월에 들어 와서도 2월 12일에 남조선 청년이 미군에게 사살 당한 사건, 2월 15일에 또 다른 남조선 청년이 미군의 총격에 의하여 중상을 입은 사건, 2월 18일에 임신 5 개월의 조선 녀성이 미군에게 폭행을 당하여 락태까지 한 사실 등 미군의 만행은 련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미군의 이러한 살상 행위들은 또한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성과 야수성을 가지고 감행되고 있다.

5월 29일 경기도 파주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씨 중대 소속 미 륙군 중위 토마스 엘 월드와 중위 데이비드 더불유 스웬슨이 동 중대 주변을 걸어 가고 있던 리일용이란 조선 사람에게 아무런 리유 없이 폭행을 가하여 빈사 지경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에 있는 《한국 인권 옹호 협회》가 발표한 진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 리씨는……씨 중대 철조망 밖을 거닐었다. 때마침 찦차에 타고 나오던 미 군인이 움직이면 죽인다고 고함쳤다……미 군인들은 돌을 던지며 권총을 겨누며 도망 가면 쏜다고 했다.

붙들리면 애매한 봉변을 당할가 두려워 도망쳤다. 약 1키로까지 추격하여 민간 변소에서 끌려 갔다. ……중위는 권총으로, 하사 한명은 곤봉으로, 병사들은 주먹과 구두로 사정 없이 때려 실신하였다. 미 군인 7~8명은 찦차에 짐짝 같이 싣고 올라 타서 때리며 중대 사무실로 옮겨 갔다. 그 곳에서 세멘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구두'발로 가슴과 손을 내리 밟았다. 그때 졸도하여 15 분간 의식이 없었다. 미 중위 등은 로프로 목을 매여 중대 사무실 문지방에 매달고 흡각목 권총으로 후려 갈겼다. 이 때 한인 종업원들을 강제로 불러다 목격시켰다. 또다시 실신하였다. 모진 매에도 부족한 지 그들은 발가 벗겨 꺼꾸로 전주에 매달고 얼굴과 배에 본 게자 같은 것을 발랐다. 땅에 닿아 아픔을 참노라고 흙을 움켜 잡으니 손 밑에 돌을 깔고 손이 아직 부러지지 않았다고 하여 발'굽으로 내려 찍었다. 상오 10시 40분……피를 한사발 반 토하였다.》(서울 1962년 6월 1일 발 남조선 통신 《동양》)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시기(5월 30일)오산의 미 공군 기지 근처에서 동 기지 소속 헌병 페러슨이 심 덕선이란 52세의 농민을 무러대고 군견으로 하여금 물어 뜯게 하여 파투

성이로 만든 사건에 대하여 남조선 신문은 《개마저 물어 뜯은 인권》이란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이 그 진상을 전하였다.

《넓은 오산 미국 비행장을 마주 바라 보며 살아 가는 평택군 송탄면 신장리 남산 부락 사람들은 미군이 풀어 놓은 세퍼드 때문에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먹구름'장 같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다 ……걸핏하면 논'일하는 농사'군이나 아침 청소를 하던……청년들이 사나운 세퍼드의 독아의 습격을 받기가 일수라고 동리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이런 비극 중의 하나가 지난 30일 있었던 심 덕선씨의 개물림 사건이였다……그는 이 날 낮 논에 나가 모'자리의 피사리를 하고 점심을 먹으려 집으로 돌아 오는 길이였다. 약 300 여 메터 떨어진 비행장 초소로부터… 미 헌병이 세퍼드를 몰고 뒤쫓고 있었다…개에 물릴 위험을 느껴 바로 집으로 달렸다.

가쁜 숨을 몰아 쉬며 부엌으로 뛰여 들었는데 사나운 세퍼드는 마당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안집 아주머니를 물어 넘어뜨리고 또 어린애에게 달려들어 기절을 시켰다. 세퍼드는 그 대로 부엌 안으로 뛰여 들어 심씨 허벅다리를 물어 뜯기 시작하였다. <캐치 캐치(물어라 물어라)> 미 헌병 페러손 일등병은 큰 소리를 질렀다. 부엌 안에서 개에게 물리며 쫓기던 심씨는 개에게 끌려 마당으로 나왔다. 량쪽 허벅다리를 비롯해서 엉덩이, 팔 등 무려 30 여 군데서 피가 줄줄 흘렀다.

이러기를 약 20분—옷은 갈기 갈기 찢기여 벗겨졌다. 멀리서 쳐다보던 10여 명의 동리 아낙네들은 울분이 터져 <저놈의 개 때려 잡아라> 고 발을 굴렀다. 기진 맥진한 심씨는 자기 방어에 마지막 안'간힘을 들여 두 손으로 개의 두 귀를 움켜 쥐였다. 바로 이때 세퍼드를 풀어 놓았던 페러손 일등병은 방망이로 심씨의 두 팔을 힘껏 후려쳤다. 발'길로는 그의 엉덩이를 걷어 찼다. 정신을 잃은 심씨는 개에게 허벅지를 물린채 다시 집 밖으로 끌려 나왔다. 마당에는 피'자국에 얼룩이져 있었다.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자 페러손 일등병은 그의 머리채를 낚아 채였다. 밖에 나와서 다시 10여 분간 심씨는 넋을 잃은 채 물어 뜯는 개에게 몸을 맡겼다. 목격자 10 여 명의 말에 의하면 이때 심씨는 피투성이가 된 전신 라체의 몸이였다. 심씨는 미 병사 한 사람이 또 합세하여 량 팔을 붙잡힌 채 스리코터가 대기하고 있는 200메터 떨어진 동리 앞 길까지 30 여 명의 부인들이 보는 앞을 질질 끌려 갔다.

그는 빤쯔라도 입고 가자고 몸시늉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 맞아 코피조차 흘리고 있었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6월 8일).

아메리카 대륙에서 무자비하게 토착민을 살륙한 그 야만성과 노예 매매를 일삼던 그 잔인성과 오늘도 미국 내에서 성행하고 있는 인종 차별의 악습을 그 대로 남조선에 재현시키고 있는 미국 침략자들은 이러한 전률할 만행도 극히 당연한 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있다.

지어 그들은 이 야수적 행위를 《정상적 공무 집행》이라고까지 공언하고 있다.

이것이 《문명》과 《원조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진면모이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는 《우리 민족은 미군의 학대를 이 이상 참아야 하는가?》라는 표제의 사설에서 《빈번한 미군의 만행 사태는……전 국민의 원성과 규탄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유린 행위와 오만 불손한 민족적 우월감의 표악은 근래에 더 예상치 못 했던 행위이다》라고 하면서 미군이 감행하고 있는 폭행은 《신판 <나치스> 행위를 방불케》 한다고 규탄하였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62년 3월 8일)

미군의 상시적인 민족적 멸시와 인간 이하의 학대 속에서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남조선 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은 지난 6월 루적된 민족적 울분을 폭발시켜 강력한 반미 시위를 전개하였다.

투쟁에 궐기한 그들은 《후진 약소 민족의 악조건 하에서이지만 인간의 최소한의 긍지마저 압살 당해 버린 채 견딜 수 없다. 천하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가해진 미국인의 살인, 린치, 폭행에 대해서 이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고 울부짖으며 미국 대사관으로 육박하였다.(서울 1962년 6월 8일 남조선 통신 《동양》)

이 투쟁은 미군의 만행에 대한 반항이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식민지 략탈 정책 전반에 대한 거족적 분노의 표시였다.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의 이 투쟁을 군사 정권으로 하여금 총칼로 가혹하게 탄압하게 하였다.

그러나 미제 침략자들의 갖은 횡포와 탄압과 모욕과 멸시를 다 겪어 온 남조선 인민들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반미 감정의 불'길은 그 무엇으로써도 억제할 수 없다.

날로 더욱 심각화되고 있는 남조선에서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은 한편으로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탄압과 회유 기만 정책을 더욱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 준비 소동과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 군사 정권은 조선 정전 협정을 계속 란폭하게 위반하고 군비 확장과 군사 징집

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 행위를 빈번히 감행하고 있다.

남조선에 부단히 신형 장비를 반입하고 있는 미국은 금년에 들어 와서 새로 《라크로스 유도탄》을 《한국 전선》에 배치하였다.(서울 1962년 10월 1일 발 남조선 통신 《동양》)

남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군인 야영소》로 전변시킨 미국은 금년에 군사 정권으로 하여금 30만 명의 남조선 청년들을 새로 강제 징집케 하였다. (서울 1962년 4월 2일 발 남조선 통신 《동양》)

그들은 군사 도로와 항만들을 대대적으로 보수 및 신설하고 있으며 광주 근방에 또다시 전투기와 수송기용 공군 기지를 새로 건설하였다. (서울 1962년 4월 14일 발 남조선 통신 《동양》)

미국의 호전 장군들은 련속 남조선에 들어와 군사 분계선 일대를 《시찰》하며 군사 정권과 밀의를 거듭하고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며 《림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분망하였다.

1962년 4월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렘니쩌는 남조선에 찾아 와서 《남조선서 처럼 그러한 높은 수준의 전투 준비 태세가 그렇게 부단히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없다》고 공언하면서 전쟁 준비를 더욱 고취하였다. (《도꾜》 1962년 4월 4일 발 《유피아이》)

이러한 전쟁 준비의 적극적 추진에 발맞추어 미군 사령부는 군사 분계선 근방에서와 기타 남조선의 도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침공할 것을 가상한 도발적인 군사 연습 소동들을 계속 벌려 놓고 있다.

미군과 남조선 군사 정권 당국이 공포한 것을 집계한 바에 의하더라도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30 여 차에 걸쳐 각종 군사 연습들이 진행되였다.

최근 월간에만 하여도 1962년 8월에는 《원자전 가상 하에 <7 대양 상륙 작전>이라고 불리우는 미 륙해공군 대규모 상륙 작전》(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8월 11일)이 진행되였으며 9월에는 《건군이래 최대급의 보, 전, 포, 공 협동 시범 훈련》(《서울 방송》 1962년 9월 30일)이 실시되였다. 10월에는 2일부터 《미 제 7함대 소속 함선들과 한국 해군의 함선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미 해군 연습》(서울 1962년 10월 2일 발 《에이에프피》), 12일부터는 군사 분계선 일대의 남한강 중류에서 《핵 전쟁 상황 아래 <진격>이라고 불리우는 추계 대기동 훈련》(서울 1962년 10월 26일 발 남조선 통신 《동양》) 등이 꼬리를 물고 진행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 침략자들은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륙상, 해상, 공중으로부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도발 행위를 계속 빈번히 감행하였다.

조선 정전 이래 1962년 10월말 현재까지의 기간에 미국 측이 정전 협정을 위반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여 감행한 도발 행위는 군사 정전 위원회에 정식 제기된 것만 하여도 682건의 비행기 침입 사건, 208 건의 함선 침입 사건과 수많은 지상에서의 도발 사건을 포함하여 총 4,592건에 달하고 있다.

오늘 미국은 남조선에서 뒤흔들리는 그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유지하며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리용하기 위하여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자들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고 있다.

미국은 조선 인민에게 근 40년 간이나 류혈적 식민지 통치를 강요하였던 일본 군국주의 도당을 남조선 군사 정권과 결탁시킴으로써 군사 정권의 붕괴를 가로막으며 일본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침략적 군사 뿔럭인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하기 위하여 지금 《한일 회담》의 진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민지 통치자로서 미국이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이 모든 엄중한 죄행을 그 어떠한 술책으로써도 엄폐할 수 없으며 변명할 수도 없다. 세계 인민은 지난 17년 간 미국의 지배하에서 남조선이 민족적 주권을 완전히 말살 당한 식민지 군사 기지로 전변되였고 그 식민지 통치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이 류례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리고 미국의 침략 정책에 의하여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 저애되고 조선과 극동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 사실을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다.

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모든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년례 보고》는 적반하장격으로 이 번에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전가시켜 보려고 헛되이 시도하였다.

《년례 보고》는 소위 《한국에 대한 확정된 유엔의 목적》과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통일 문제 해결에 《전진》이 없었다는듯이 또다시 떠벌렸다.

도대체 미국과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잠꼬대처럼 운운하는 《한국에 대한 유엔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유엔은 애당초 그의 헌장에 비추어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어데까지나 조선 인민 자신의 내정 문제이며 이에 유엔이 간섭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조선 통일 문제에 대한 《유엔의 목적》이니 《감시》니 하는 문제는 원래 제기조차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유엔이 《조선 문제》를 토의하여 온 것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음모와 강요에 의한 것이며 그 자체가 유엔 헌장을 란폭하게 유린한 비법적 행동이다.

유엔에서 《조선 문제》를 토의한 것은 유엔 헌장 제 107조와 제 2조 7항을 직접 유린한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유엔에서 《조선 문제》에 관한 모든 《결의》를 당사자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의 참가도 없이 제멋대로 조작하였다.

이러한 《결정》이 그 어떤 효력조차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미국이 유엔 헌장을 횡포하게 유린하면서 《조선 문제》를 유엔의 《토의》에 상정시킨 것은 오직 유엔의 간판을 병풍으로 삼아 조선에 대한 그 침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남조선에서 실시된 소위 《유엔 감시 하의 선거》란 미국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할 괴뢰 정권을 미제 강점군의 총칼의 탄압 밑에 날조해 내는 수단에 불과하였다.

조선 인민은 이 범죄적 흉계를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또 배격할 것이다.

소위 《유엔의 목적》에 부합되게 《유엔 감시 하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제 정부》라던 리승만 정권을 남조선 인민들이 대중적 봉기로써 타도한 사실은 소위 《유엔의 목적》을 남조선 인민들이 피로써 부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미제와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에 대한 이보다 더 명백하고 강력한 대답은 없다.

이제 와서 어떻게 또다시 《유엔 감시 하의 선거》에 대하여 감히 운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미국이 유엔의 간판 하에 남조선에 대하여 식민지 통치를 계속하여 전 조선을 강제 병탄하기 위한 음흉한 책동인 것이다.

미국 정부가 소위 《유엔의 목적》(즉 미국의 침략 목적)이 달성되기 전에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사실 자체가 이것을 또한 확증하여 주고 있다.

미국이 남의 나라 절반 땅에 강점군을 주둔시켜 놓고 그 무슨 《유엔의 원칙》이니 《자유 선거》니 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며, 유엔의 원칙 그 자체를 모독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더우기 미제에 의하여 그의 기'발이 도용 당함으로써 조선에서 교전 일방의 지위에 전락된 유엔은 조선 통일 문제에 대하여 운운할 도의적 권능마저 상실한지 오래다.

오늘 조선의 분렬이 장기화되고 통일이 지연되고 있는 모든 근원은 바로 유엔의 기'발을 도용한 16개 제국주의 련합 세력의 무력 침공으로써 달성할 수 없었던 전 조선 침략의 목적을 계속 힘에 의한 일방적 강요의 방도로써 실현하여 보려고 꿈꾸고 있는 미제의 침략 책동에 있다.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년례 보고》는 이 사실을 엄폐하기 위하여 또한 남조선 군사 정권이 그 어떤 《평화 통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듯이 꾸며냈다.

그러나 이에 속을 사람은 없다.

남조선 군사 정권은 생겨 나는 그 첫 순간부터 우선 누구보다도 먼저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그를 위한 남북 간의 협상 및 교류를 주장한 사람들에게 가장 피비린 탄압의 손'길을 뻗쳤다.

남조선 전 《참의원》 의원이며 《통일 사회당》 지도자였던 리 훈구와 《사회당》 위원장이였던 최근우는 평화 통일을 주장하였다는 리유로 재판도 없이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에 의하여 무참히 학살 당하였다.

같은 리유로 그들은 《민족 일보》 사장이였던 조 용수와 《사회당》 조직 부장이였던 최 백근을 군사 재판에서 사형에 처하였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남북 학생 회담을 주장한 서울 대학교의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최고 무기 징역까지의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다.

그런데 《년례 보고》는 상기 사형 집행 사건에 대하여는 그의 《죄목은 엄중한 것》이였다고 하면서 미제와 군사 정권의 야만적 교형리 행위를 적극 비호하여 나섰다.

만약 남조선 군사 정권이 조금이라도 조선의 《평화 통일》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어떻게 평화 통일을 주장한 그렇듯 수 많은 사람들을 검거 투옥하고 학살하였으며 오늘 남조선에서 평화 통일이란 말조차 입 밖에 낼 수 없게 발악적으로 탄압을 가강하고 있는가?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허위 보증과는 정반대로 남조선 군사 정권은 미국의 사촉 하에 지금도 계속 《멸공 통일》을 《국시》로 내세우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무력 통일》을 고창하고 있으며 《임전 태세》의 확립에 발악적으로 날뛰고 있다.

지난 5월 16일에도 박 정희는 다음과 같이 공공연히 떠들었다.

《정부의 노력은 공산주의와 대결하여 국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데 집중하여야 하였다.

우리가 6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러한 실력을 이루는 것이다.》(《서울 방송》 1962년 5월 16일)

미국과 그의 충실한 괴뢰인 남조선 군사 정권의 진짜 목적이 바로 《무력 통일》에 있다는 것은 아무 비밀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만적으로나마 《평화 통일》을 운운할 때에도 《유엔 감

시 하의 선거》에 의한 통일이라는 외마디 공식 밖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한 일이 없으며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모든 성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하여는 무조건 방해와 반대만 하고 있다.

세계에 주지된 바와 같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선 통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시종 일관 백방의 노력을 다하였다.

정전 후에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남조선 당국에 제의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항상 조선의 통일 문제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선 인민 자신의 손으로 실시되는 전 조선 자유 선거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남조선 당국이 이에 대한 리해를 표시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통일 문제는 쌍방의 리해가 접근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더라도 우선 긴절하게 제기되는 민족적 과업부터라도 공동으로 해결할 것을 또한 거듭 제의하여 왔다.

그러나 이 성의 있는 합리적인 제안들은 모두 거부 당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최소한도 남북 조선 주민들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서신 거래라도 실현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제의도 거부되였다.

이 때문에 남북 조선에 헤여져 사는 부모, 처자, 친척, 친우들은 17년 동안이나 생사의 안부조차 전할 수 없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또한 미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겪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 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하여 동포애적 원조 물자를 제공할 데 대하여도 여러번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구원의 손'길마저도 거부 당하였다.

남조선에서의 1960년 4월 인민 봉기 이후 1960년 8월과 11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새로이 제기한 조국의 평화 통일 방안이 남북 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서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불러 일으키고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이 더욱 앙양되자 당황한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며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 발악적 수단으로서 군사 파쑈 통치를 수립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에서 돌아간 미국 경제 학자 마이껠 뭉그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당시 한국에서는 통일 운동이 급격히 높아지고 이에 대하여 장 면 내각은 완전히 무력하였다. 이런 관계로 미국은 군사 위원회를 지지하였다. 이 결정은 기근과 분렬에 골몰하는 한국과 급속히 발전하며 단결되여 있는 북조선을 접촉시켜서는 안 되리라는 절대적인 필요에서 내린 전술적 결정이였는데 여기로부터 미국은 한국 정치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우익 독재 체제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일본 잡지 《세까이》 1962년 5월 호).

조선의 평화적 통일이 장구한 기간 지연되고 있는 근원이 바로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침략 정책에 있다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모든 사실은 미제 침략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전 조선과 아세아에 대한 침략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발광적으로 새 전쟁 도발 음모를 꾸미고 있는 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다.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오늘 미국 군대는 남조선에 이 이상 머물러 있을 어떠한 근거도 없다.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은 령토 완정과 자주권의 존중 및 내정 불간섭에 관한 공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한 침략 행위이다.

미국 군대의 남조선 강점은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미군을 철거시키지 않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참담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없다.

미국은 소위 《유엔 결정》에 빙자하여 남조선 강점과 조선에 대한 침략 행위를 합리화하려 하고 있으나 그가 유엔의 기'발을 조선 침략의 엄폐물로 도용한 수치스러운 내막은 이미 만천하에 여지 없이 폭로되였다. (이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이미 1962년 6월 24일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에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은 북으로부터의 《공산주의 위협》, 《남침의 위협》으로부터 남조선을 《방위》하기 위하여 미군이 남조선에 장기 주둔하고 있는듯이 변명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파렴치하고 허무 맹랑한 구실에 불과하다. 《공산주의 위협》, 《남침의 위협》이란 없으며 또 있어 본 적도 없다.

이것은 미제가 전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며 나아가서는 아세아 대륙을 침략하는 군사 교두보로 남조선을 영구히 확보하려는 자기의 침략적 기도를 은페하기 위하여 날조한 상투적인 기만 술책이다.

우리에게는 남진할 의도가 없으며 무력으로써 조선의 통일 문

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에 대하여 거듭 명백히 천명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제기한 여러 평화 애호적인 제안들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실현되지 못 하도록 항상 로골적으로 방해하면서도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하여 떠들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침략자의 검은 배'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미군은 그가 서명한 조선 정전 협정에 비추어 보아도 남조선에 이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조선 정전 협정 제 4조 60항은 정전 이후 《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거 및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실현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미국 측의 고의적인 파괴 책동 때문이다.

오늘 북조선 지역에는 그 어떤 외국 군대도 없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하면 조선 통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타 모든 고리들이 풀려 나갈 것이다.

지난 10월 23일 김 일성 수상은 새로 선거된 최고 인민 회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연설하면서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남조선에서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일련의 중간 걸음들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현할 데 대한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나라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남북 간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다.

남조선에서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 조선 간에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군대를 축소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남조선 인민들의 무거운 군사비 부담을 덜어 주게 될 것이며 남북 간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호상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 하여 이것은 조국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서 중요한 첫 걸음으로 될 것이다.

남북 간에 긴장 상태가 제거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 문화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지 없이 파괴된 남조선 경제를 복구하고 도탄에 빠진 인민 생활을 개선하는 것은 절박한 문제이다.

남북 간의 경제 문화적 련계를 실현하고 교류와 협조를 도모하는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길은 없다.

오늘 북조선 인민들은 영웅적 투쟁을 진행하여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건설하여 놓았으며 조선 인민의 력사에서 볼 수 없었던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고 있다.

남북 조선이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여 이미 북조선에 이룩하여 놓은 경제 토대를 리용함으로써만 남조선에서 공업과 농업을 복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수백만의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남북 교류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남북 대표들로 경제 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남북 간의 교류와 호상 협조가 실현되면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의 초보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초보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이미 제의한 련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련방제는 남북 조선에 현존하는 사회 정치 제도를 그 대로 두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대한 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두 정부의 대표들로 최고 민족 위원회를 조직하여 민족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련방제 하에서 남북은 호상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어느 일방이 타방에 자기 의사를 강요할 수 없다. 남북 조선은 각각 자기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자유로이 행동할 것이며 오직 련방 기구를 통하여 합의에 도달한 민족 공동의 리해에 관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것이다.

남북의 련방제를 실시하게 되면 민족 경제와 민족 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키며 국내의 모든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며 많은 대외적 분야에 단일 민족으로서 공동으로 진출하는 등 조국의 번영과 민족의 리익을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련방제의 실시는 또한 남북 간의 접촉과 호상 리해를 촉진하며 정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하고 민족적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국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 데 극히 유익한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루차 명확히 천명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 조선 자유 선거에 의하여 남북 조선의 각계 각층을 망라한 통일적인 중

앙 정부를 수립하여야 한다.

일체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조선 인민들의 자유로운 래왕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전 남북 조선 자유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애국적 민주주의적 운동에 대한 탄압은 즉시 중지되여야 하며 언론, 출판, 결사, 집회, 시위 및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군사 정권에 의하여 해체된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은 복구되고 그 활동의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여야 한다.

남북 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 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은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구속도 없이 자기들의 정치적 견해를 인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조건이 보장되였을 때에만 조선 인민은 진정한 자유 선거에 의하여 전 조선 중앙 정부를 수립할 수 있으며 나라의 완전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재천명한 조국 통일에 관한 상술한 방안은 전 민족의 리익과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오늘 전체 조선 인민은 이 방안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조선의 평화적 통일 문제는 오직 이러한 길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5

유엔은 제 2 차 총회 이래 해마다 《조선 문제》를 토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 하였으며 도리여 사태를 더욱 복잡화하고 악화시켰다.

그것은 유엔에서의 《조선 문제》의 토의가 처음부터 미국의 음모와 강요에 의하여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전'적으로 위반되게 취급되였기 때문이다.

유엔은 그의 헌장에 의하여 부과된 사명을 수행할 것이 아니라 미제 침략자들에 의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의 도구로 악용된 것이다.

오늘 미국 군대가 유엔의 기'발 하에 남조선에 계속 주둔하면서 감행하고 있는 침략적 죄행과 비인도적 만행이 유엔 헌장의 고상한 목적과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또한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이 남조선에서 미국 침략 정책 수행의 추악한 사환'군 노릇을 하면서 유엔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명백하다.

유엔은 이로부터 응당한 결론을 찾아야 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유엔이 그의 훼손된 권위를 회복하며 헌장에 의하여 부과된 사명을 정당하게 수행하려 한다면 조선에 관한 종전의 모든 《결정》들을 철회하고 남조선에서 유엔의 간판을 도용하고 있는 미군과 기타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켜야 하며 소위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즉시 해체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17 차 유엔 총회가 미국의 강요에 의하여 또다시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년례 보고》를 토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미국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조작된 침략 도구에 불과한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년례 보고》들이 모두 수치스러운 사기 문건들이라는 것이 완전히 폭로된 오늘 그의 《년례 보고》를 또다시 토의한다는 것은 미국에 의하여 유엔 헌장의 원칙이 계속 유린되고 유엔이 그의 침략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유엔은 진정 그의 헌장에 의하여 부과된 사명을 정당히 수행하려 한다면 미제 침략자들에게 더는 우롱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제 강점군을 즉시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유엔은 더는 조선 문제에 간섭하지 말고 손을 떼야 한다

조선은 조선 사람의 것이다.

조선 문제는 뉴욕이나 워싱톤에서 외국 사람들에 의하여 론의될 것이 아니라 평양이나 서울에서 조선 사람끼리 토의하여야 한다.

매개 민족은 다 같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해결할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이나 기타 어떠한 국제 기구, 어떠한 외부 세력도 이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인 조선 통일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간섭할 어떠한 근거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조선 민족 내부의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조선 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능히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통일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군대를 철거시켜야 한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전체 피압박 인민의 투쟁 및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세계 인민들의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정당한 주장과 립장이 평화를 애호하는 전세계 각국 정부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1962년 11월 24일

조선에서 감행한 미군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미제 침략 군대는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며 가장 흉악한 범죄자이다

1945년 9월 8일 미국 군대가 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이미 17년이 지나 갔다.

이 기간은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서 식민지 강점군으로 행세하면서 조선 인민들에게 감행한 흉악 무도한 범죄적 기록으로써 가득 차 있다.

미국 군대는 남조선에 상륙한 첫날부터 조선 인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유린하고 식민지 통치 제도를 수립하였으며 조선의 민주주의적 통일 독립 국가 건설을 적극 방해하여 나섰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완전히 말살 당하고 있다.

미제는 《원조》의 미명 하에 남조선의 민족 경제 발전을 억제하고 그를 자기들의 군사적 부속물로 전락시켰으며 더는 수습할 여지가 없는 파국 상태에 몰아 넣었다.

남조선 공업 생산은 극히 락후하였던 일제 통치 시기에 비하여 3분의 2로 감소되였으며 남조선 공업의 절대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체 중소 기업 중 80% 이상이 휴업하거나 조업을 단축하고 있다.

공업의 파산과 함께 농촌 경리도 여지 없이 파괴되였다. 해방전에 비하여 경지 면적은 20만 정보가 축소되였으며 파종 면적은 40만 정보나 감소되였다.

농업 생산력의 파괴와 침체는 생산의 심한 쇠퇴를 가져 왔으며 1961년도에만 하더라도 알곡 생산량은 1937년에 비하여 3분의 2로 축소되였다.

남조선에서는 600만 이상의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먹을 것과 일'자리를 요구하여 아우성치고 있으며 해마다 1,000만 명 이상의 절량 농민들이 초근 목피를 찾아 산야를 헤매고 있다.

이 밖에 버림 받은 20 여 만의 류랑 고아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가고 있다.

이것이 17년 간에 걸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결과이다.

미군의 남조선 강점과 그의 새 전쟁 준비 책동은 조선과 극동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이 1950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여 도발하였던 침략 전쟁이 전 인류 앞에 얼마나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였던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다.

미국은 전후에도 그 자신이 서명한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남조선에서 새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으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남조선을 원자 및 유도 무기 기지로까지 전변시켰다.

이에 발맞추어 미국은 지상, 해상, 공중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대 행위를 날로 더욱 빈번히 감행하고 있다.

정전이 실현된 1953년 7월부터 1962년 10월 말 현재 미국측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감행한 조선 정전 협정 위반 행위는 우리측이 군사 정전 위원회에서 항의한 것만 하여도 4,592 건이나 된다.

미군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과 극동 지역에서 전쟁의 위험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전쟁 준비 책동을 강화하고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한사코 방해하고 있다.

미제는 분렬된 조선을 평화적으로, 자주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시종 일관한 모든 성의 있는 조치의 실행을 방해하면서 총칼로써 군사 분계선을 가로 막고 17년 간이나 남북으로 갈라진 부모 처자 친우들 간에 안부조차 전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금 미제는 남조선에서 군사 파쑈 통치를 강화하면서 인민들이 《평화 통일》이란 말조차 할 수 없게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감행된 미제의 범죄 행위는 결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조국을 분렬시키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면서 미제는 또한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살인과 폭행, 파괴와 략탈 등 각종 야수적 만행을 자행하였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남조선 인민들은 상시적으로 횡행하는 미군의 살인 만행과 폭행 및 혹독한 민족적 멸시로 말미암아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었다.

이미 조선 전쟁전 1949년 한 해 동안에만도 남조선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 독립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무려 10만 9,000 여 명의 애국적 인민들이 미제의 명령에 의하여 학살 당하였다.

제주도에서는 1948년부터 1950년 사이에 총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 여명의 주민들이 학살 당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에서 감행한 극악한 만행의 정체는 조선 전쟁 시기에 더욱 여지 없이 세계 인민의 면전에 드러났다.

미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서 일찌기 력사상 류례 드문 각종 야만적 전쟁 범죄 행위를 다 감행하였다.

북조선 지역을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불과 수십일 기간에만도 미군은 평양에서 1만 5,000 여 명, 황해도에서 10만 여 명을 집단 학살한 것을 비롯하여 산간

벽지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적 주민들에 대한 대중적 학살 행위를 감행하였다.

황해도 신천군에서만도 미군에 의하여 총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000 여명이 참혹하게 학살 당하였는데 그 중에는 만 6,200 여명의 부녀자들과 수 많은 유아와 로인이 포함되여 있다.

미군은 사람의 손과 귀와 코를 쇠줄로 꿰고 그의 이마에 못을 박아 죽였으며 생사람의 눈알을 뽑고 생가죽을 벗기여 죽였다.

미군은 젊은 녀성의 머리채를 나무에 비끌어 매고 젖가슴을 도려 내였으며 몸에 기름을 부어 불태워 죽이였다.

미군은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생매장하였으며 바다로 끌고 나가 산채로 수장하였다.

전쟁 중 미제는 남조선에서도 수다한 평화적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였다.

1951년 9월 15일 미국의 유피 통신이 보도한 데 의하더라도 그때까지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학살 당한 주민 수는 100만에 달하였다.

부산 앞바다에서는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매일 수십 트럭씩 무고한 사람들을 실어다가 하나의 철쇠로 묶어 산채로 바다에 집어 던졌다.

경상남도 거창, 함양, 산청군들에서 있은 바와 같이 미 제국주의자들은 수천명의 한개 부락 주민들을 몽땅 집합시켜 한꺼번에 학살하고 휘발유를 끼얹어 소각하는 만행을 례사로 감행하였다.

전쟁중 미군은 야만적 초토화 전술로써 북조선의 모든 도시와 농촌을 페허로 만들었으며 군사 시설이 아닌 8,700 여동의 공장 제조소 건물과 생산 설비들, 60만 여호의 주택, 5,000 여 개의 학교, 1,000 여 개의 병원 및 진료소, 260여개소의 극장 및 영화관, 수천개의 문화 후생 시설들과 그리고 수백 개의 교회 및 사찰들을 파괴 소각하였을 뿐만아니라 화학 무기와 세균 무기까지 동원하여 평화적 주민들을 살해하였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피비린내 나는 참극을 빚어 내였다.

전후에도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계속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갖은 만행을 끊임 없이 악랄하게 자행하고 있다.

미군의 간행에 의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피는 계속 흐르고 있다.

정전 이후 1952년 10월 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미군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만행들 중 미국 및 남조선 신문들과 통신들에서 보도된 일부 사건들만 보아도 다음과 같다.

1

전후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각종 방법으로 무고한 주민들을 살상하고 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 도처에서 인민들을 쏘아 죽이고 때려 죽이고, 목을 졸라 죽이고, 찔러 죽이고, 깔아 죽이는 등 각종 방법으로 무서운 범죄를 감행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 인민들을 사격 련습과 야수적 렵기심을 충족시키는 심심풀이의 대상으로 보면서 살인 만행을 일상사로 삼고 있다.

1954년 1월 24일 오후 3시경 미군은 경기도 고양군 중면 일산리 로상에서 조선인 정 한영(45세)을 리유 없이 권총으로 사살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4년 1월 27일).

1954년 2월 15일 새벽 3시 35분경 트럭을 몰던 미군은 부산 북방 500 메터 지점에 있는 일신 려관을 들이 받아 동 려관을 전파하였으며 류숙중이던 려객 3명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4년 2월 18일).

1954년 4월 9일 오후 7시경 미제 72 헌병대 소속 하사 딕슨은 서울시 청량리역 운전 사무소 앞에서 동 사무소 근무 려 경섭(29세)과 장난삼아 씨름을 하다가 그에게 자자 분풀이로 권총을 발사하여 전기 려 경섭에게 부부 관통상을 입혀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평화 신문》 1954년 4월 12일).

1954년 4월 30일부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에 의하면 부산 미 제 7항만 사령부는 조선인 로동자들이 최저 생활비의 10분의 1도 못 되는 기아 임금을 반대하여 대우 개선을 요구한다 하여 수석 검수 로무자 1명을 총살하였고 1 명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4년 4월 30일).

1954년 5월 3일 오전 9시 40분경 트럭을 타고 질주하던 미군 1 명은 앞서가는 대학생 류 용봉(29세)의 모자를 뒤에서 잡아 채여 동 학생이 그 트럭에 치여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평화 신문》 1954년 5월 5일).

1954년 5월 21일 밤 2시 5분경 부산시 부산진역 구내에 있는 미제 772 헌병대는 상기 역의 조차수로 근무하는 정 기조가 교역에 시달린 나머지 약 10분 간 늦게 일어 났다 하여 그를 동 헌병대 휴계실에 끌어다 폭행을 가하여 절명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자유 신보》 1954년 5월 24일).

1954년 7월 2일 낮 12시 35분경 미 해병대 소속 지.엠. 씨 운전수 1등병 알트 엘. 스티워드(25세)는 서울시 서대문구 갈현동에서 조선 청년을 권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중앙 신문》, 《서울 신문》 1954년 7월 4일).

1954년 7월 15일 낮 12시 10분경 부산시 부전동에 있는 성북 국민 학교 부근에서 미군 공병대는 석재를 채취한다고 다이나마이트를 마구 폭파시켜 32키로나 되는 돌이 교실에 날아 들어

공부하고 있던 동교 2학년생들인 정 진영 (9세)은 머리가 산산이 깨여져 즉사케 하고 조 을제(9세)는 배가 터져서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4년 7월 18일).

1954년 7월 28일 오후 9시경 미군 1 명은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29번지에 거주하는 김 영순 (19세) 처녀가 어린애를 업고 대문을 나오는 것을 무터 대고 단도로 가슴과 머리를 란자하여 살해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4년 8월 1일).

1954년 7월 31일 밤 8시 30분경 미 제 21 륙군 병원 소속 미군 1 명은 부산시 대연동 371번지 김 준식의 집에 침입하여 식도로 김 영자(20세)와 박 숙자(24세)를 란자하여 김 영자를 사망케하고 박 숙자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계속하여 길 가는 윤 준호(44세)에게 중상을 입혔을 뿐간 아니라 김 삼만의 집에 또다시 침입하여 김 삼만과 그의 처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4년 8월 3일).

1954년 9월 1일 오전 11시경 미군 경비병은 부산역 구내에 들어간 임신 5개월 가량의 조선 부인에게 발포하여 그를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민주 신보》 1954년 9월 3일).

1954년 9월 10일 오전 10시 40분경 부산시 중앙동 4가에서 시속 40마일 속도로 찝차를 몰던 미군은 인도로 걸어가던 통행인들을 들이 받아 조선 녀성 1 명을 즉사케 하고 박 성춘(48세) 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54년 9월 11일).

1954년 10월 22일 낮 12시경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호당동에 나타난 미군 2 명은 문앞 들판에서 벼를 베고 있는 농민 최 복원을 백주에 《꿩》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렵총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4년 10월 31일).

1954년 11월 1일 오전 11시 10분경 미 제 24사 포병단 소속 미군 트럭 운전수 하사 도널은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앞 도로에서 고속도로 질주하다 길'가에 피해 서 있는 행인들을 고의로 치여 송 덕운을 절명케 하고 그 밖에 7 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4년 11월 3일).

1954년 11월 2일 부산시 부산진역 구내 석탄 적재소에서 미군 헌병은 동 구내에서 근무 중이던 김 일렬 (부산역 구내 부두 운전 사무소 소속, 30세)에게 무터대고 총질을 하여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민주 신보》 1954년 11월 4일).

1954년 12월 1일 오후 9시 10분경 미 제 296수송대 소속 2등병 조셉 스스콘은 트럭을 몰고 부산시 대청동 1가 미국 공보원 근방 로상을 달리다가 그곳을 지나던 《자유 민보사》 인쇄부장 황 대윤(42세)의 복부를 《장난삼아》 카빈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54년 12월 3일, 12월 6일).

1954년 12월 11일 인천시 부평동의 미군 부대 병사는 그 근처를 통행하는 한 조선 청년을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4년 12월 16일).

1955년 1월 14일 《대한 해운 공사 부산 지점》앞에서 미군 운전수 도날드 이. 후리쿨은 고속도로 차를 몰다가 인도상에 있던 서 병근 외 5명을 깔아 죽이고 다른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조선 일보》 1955년 2월 11일).

1955년 1월 14일 서울시 동대문구 리문동에서 미군 경비원은 박 성학의 둘째 딸 안 인숙(14세)을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조선 일보》 1955년 1월 15일).

1955년 2월 16일 밤 7시경 서울역 구내에서 미군은 리 창희(36세)외 2명에게 렵총 3발을 발사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5년 2월 18일).

1955년 3월 4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금파리에 있던 미 제 24 사단 21련대 소속 미군은 《통행 금지 구역에 접근하였다》는 《리유》로 그 부근에 거주하는 녀성들인 리 용수(19세), 김 옥순(29세), 리 용순(21세), 김 일남(30세), 정 상복 (24세) 등에게 카빈총을 발사하여 그들 전부를 살해하였다(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5년 3월 8일).

1955년 4월 6일 낮 12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던 미 제 501공병대 미군 보초병은 점심 시간이 되여 부대 정문을 나가는 자기 부대 소속 조선인 로무자 리 영순 (26세)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두부 관통의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평화 신문》 1955년 4월 8일).

1955년 4월 23일 오후 3시 30분경 청량리 발 룡산행 1001호 려객 렬차를 타고 가던 미군은 동 렬차가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부근에서 정차하자 부근에서 놀고 있던 20 여명의 학생들에게 권총 사격을 가하여 그 중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이선리에 사는 오 택규(8세)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5년 4월 27일).

1955년 4월 25일 오전 5시 40분경 경기도 양주군 로해면 월계리 전야에서 미군은 논을 갈고 있던 조 선한(25세,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33 거주)을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5년 4월 28일, 《조선 일보》 1955년 4월 29일).

1955년 5월 18일 오전 9시경 경상북도 금릉군 아포면 대신역에서 미 제 54렬차에 타고 있던 미군은 전야 작업을 하러 온 어머니 리 용단 (26세)을 따라와 밭에서 놀고 있는 천진란만한 인 영자(8세)와 그의 동무 서 후률(7세)을 카빈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

다(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5년 5월 22일).

1955년 6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에서 미군 기중기차 운전수는 자동차를 보고 도로 밖으로 피한 김 갈망(60세, 군산시 해망동 거주) 외 2명의 부녀자들을 고의로 기중기 《쟈크》로 치여 죽이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중앙 일보》 1955년 6월 18일).

1955년 6월 15일 대구시 칠성동에서 미군 중사 부라웅은 시내 침산동 3구 27번지에 사는 추교태의 아우 추 교득(17세)을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령남 일보》 1955년 6월 17일).

1955년 6월 19일 인천에서 권총 사격 련습을 하던 미군 1명은 인천 사범 학교 녀학생 송 옥분(18세)의 머리를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5년 7월 28일).

1955년 7월 24일 오후 5시경 미 제 6173부대 소속 미군은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원정리에 거주하는 천진란만한 어린 소년 고 두기 (8세)가 부대 근방을 배회한다고 하여 그를 권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5년 8월 6일).

1955년 8월 12일 미군 초계정은 인천 월미도 앞바다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어부들에게 리유 없이 발포하여 1명(신 한균 33세)을 즉사케 하고 2명(김 근환 27세, 고 복렬 21세)에게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1955년 8월 13일).

1955년 9월 20일 밤 9시 30분경 미군 2명은 부산시 부전동 앞길에서 부전동 59번지에 사는 소년 김 승수(17세)를 권총으로 련발 사격하여 흉부 관통상을 입혀 쓰러지게 하였다(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부산 일보》 1955년 9월 22일).

1955년 10월 17일 오후 3시경 미 공군 헌병은 경상북도 달성군 동촌면 검사동 2구에 거주하는 8세의 소년 민 빼러 (민 이윤의 3남)가 포탄 탄피를 줏고 있는 것을 보고 《도적》이라고 그를 렵총으로 쏘아 수십 발의 탄환을 명중시켰다(남조선 신문 《대구 일보》 1955년 10월 19일).

1955년 10월 22일 오전 8시 30분경 미 공군 소속 비행기는 경상북도 상주군 중동면 간상리에서 보리 파종을 하는 농민들을 《공격 훈련 목표》로 삼아 폭탄을 투하하여 박 문선 (27세)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5년 10월 24일).

1955년 11월 30일 오후 3시 5분경 서울 미 제 55부대 소속 1등병 트리스나피는 스리코타를 몰고 가다가 서울시 세종로 거리에서 아현동에 거주하는 민 윤식을 권총으로 쏘아 죽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동아 일보》 1955년 12월 1일).

1955년 12월 1일 오후 9시 10분경 미 제 7사단 소속 미군 병사 안텀스는 서울 한강 인도교 야간 공사를 하고 있는 로동자 박 순진 (42세,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2가 거주)을 엠완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5년 12월 3일).

1955년 12월 4일 오전 10시경 서울시 동대문구 리문동 미 제 8191 송유관 보급 중대 소속 1등병 버질 에이. 수피 (22세)는 동 보급 중대 앞을 지나가는 김 병권 (38세)을 총으로 쏘아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평화 신문》 1955년 12월 5일, 《산업 경제 신문》 1955년 12월 9일).

1955년 12월 7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시에 있는 미제 142보급창 소속 2등병 하스 겟와드(21세)는 18세 가량되는 조선 소년을 카빈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5년 12월 13일).

1955년 12월 25일 7시경 미 제 6비행장 (평택 비행장)에서 근무하는 미군 운전수는 시속 약 60 마일의 속도로 트럭을 마구 몰다가 평택 중앙 국민 학교 옆에 있는 림 재성의 집을 들이받아 가옥을 파괴하고 그의 처 리 암, 딸 림 군자(2세)와 이웃집에서 놀러 왔던 녀자 고 해석을 깔아 죽이고 기타 4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5년 12월 31일).

1956년 1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 미군 제 10포병대 소속 1등병 보갈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00번지 앞 로상에서 장 갑준을 권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6년 1월 13일, 《경향 신문》 1956년 1월 14일).

1956년 1월 21일 오전 3시경 부산항에서 미 제 863 수송대 소속 미군 2명은 어선 《덕신호》외 1척에 《신호에 불응한다》 고 무조건 사격을 가하여 부산시 동상동에 사는 김 창식(32세)을 즉사케 하고 신 수복(31세)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6년 1월 22일).

1956년 3월 1일 오전 10시 15분경 서울로부터 인천 방면으로 가는 미 제 36 보급 중대 소속의 트럭에 탔던 미군은 서울시 영등포동에서 통행 중인 영등포 녀중 1학년생 류 춘자(17세)를 카빈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6년 3월 3일).

1956년 4월 23일 미 제 505부대에 종사하고 있던 김 박(17세, 서울시 영등포구 중앙동 거주)은 미군 총에 맞아 절명하였는데 미군 부대는 시체도 돌려 주지 않았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6년 4월 26일).

1956년 7월 18일 김포 비행장 미군 부대 소속 하사 단스(21세)는 물건을 사준다고 꾀여서 동 부대 로무자 손 세웅(16세) 소년으로부터 50딸라를 사취하였는데 동 소년이 그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권총 3발을 발사하여 살해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6년 7월 20일).

1956년 8월 9일 오후 9시 20분경 미 제 34련대 중포 중대 소속 미군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 가던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 146번지에 거주하는 윤 명구가 보초선 근처를 지나간다고 무조건 그를 사살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6년 8월 18일).

1956년 9월 24일 오후 6시 30분경 부산시 대연동 미 통신 부대 소속 미그벨 에이. 출로는 시내 범전동에 거주하는 고학생 김 종술과 동 부대 소속 중사 하린수 간에 물건 흥정 중 가격 차이로 언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자 소지했던 권총으로 김 종술의 복부를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6년 9월 27일).

1956년 9월 24일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문산리 미 제 24사단 소속 1등병 홀벨 (27세)은 서울 사범 대학생 김 은검과 농민 우원환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우원환을 즉사케 하고 김 은검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6년 9월 6일).

1956년 10월 1일 오후 3시 10분경 인천시 미 수송대 소속 미군은 인도로 걸어 가는 영화 고등학교 학생 민 중돈(18세)을 무턱대고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6년 10월 4일).

1956년 10월 11일 밤 8시 40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암면 소장리 미 제 5공군 비행대 소속 미군은 지나가는 김 성하(23세, 송암면 [illegible]천리 거주)를 무턱대고 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6년 10월 17일).

1956년 10월 13일 오전 6시 25분경 김포 미 제 6167부대 소속 미 헌병 2등병 사오피 헤데이는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류리에 거주하는 리 성렬과 김 재철, 김 일만에게 카빈총을 발사하여 리 성렬과 김 일만을 사살하고 김 재철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6년 10월 15일, 《동아 일보》 1956년 10월 17일).

1956년 12월 8일 오후 5시경 미 제 7사단 37련대 소속 1등병 케이오는 부산시 범일동에서 저녁을 먹고 밖에 나와 놀고 있는 16세의 소년 우 덕룡을 리유 없이 엠완총으로 사격하여 복부 관통으로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56년 12월 10일).

1956년 12월 16일 오전 10시경 미 제 183 수송 부대 렬차 승무원으로 편승하여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동 부근을 통과하던 미 제 728 헌병대 소속 칼톤 에이. 밀케(39세)는 길 가는 소년 박 경득(17세)을 렵총으로 사격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6년 12월 18일).

1956년 12월 16일 오후 6시경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덕포리 앞 락동강변에서 미군 2명은 오리 한 마리를 쏘았으나 그 오리를 찾지 못하자 때마침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수십 명의 아동들에 의심을 품고 약 100메터 떨어진 곳에서 아동들의 집단을 향하여 렵총을 발사하여 그 중 황 백관 (15세), 박 동주(15세) 소년의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56년 12월 18일).

1956년 12월 28일 오후 8시경 124 렬차에 탑승하고 있던 미군 1명은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에 사는 김 상원을 조치원 역에서 동 렬차에 끌어 들인 다음 조치원 역으로부터 약 4키로메터 떨어진 전동면에 이르러 권총으로 쏘아 죽이고 달리는 렬차에서 차 내려뜨렸다(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1957년 1월 4일).

1957년 1월 14일 오전 6시 40분경 인천시 만석동 67번지 앞을 지나 가던 미군 수송 렬차에 타고 있던 미군 2명은 총기를 란사하여 부근에 살고 있는 리 방배(16세)소녀에게 흉부 관통상을 입혀 절명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7년 1월 16일).

1957년 1월 16일 인천시 룡현동에서 미군 1등병 와이 틸 홈은 자기 집 문전을 나서는 소녀 윤 여금에게 엠완총 2발을 발사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인천 신보》 1957년 1월 18일).

1957년 2월 1일 미 제 8208 부대 소속 짚차 운전수 2등병 헨리는 몰고 가던 짚차로 부산시 대교동(2가 20번지) 자기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 10세의 박 금자 소녀를 깔아 즉사케 하고 계속 상기 박 금자의 집을 들이 받아 파괴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1957년 2월 7일).

1957년 2월 17일 인천시 산곡동에서 미 제 565 부대 공병 대대 54 중대 하사 찰스써. 크라인(19세)은 인천시 부평동 16번지에 사는 소년 리 성근과 김 영식을 카빈총으로 쏘아 리 성근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7년 2월 21일).

1957년 3월 4일 오후 8시 15분경 부산시 범일동에서 미 제 124 헌병대 소속 경비병은 상기 지점 선로상을 지나 가는 조선인을 카빈총으로 쏘아 하복부 관통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민주 신보》 1957년 3월 6일).

1957년 3월 29일 오후 10시경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미 제 55 유류 보급창 소속 1등 중사 빌레존은 동 부락에 거주하는 장 상근(17세)외 2명이 유류 보급창 앞길을 지나가는 것을 카빈총으로 란사하여 장 상근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1957년 3월 31일).

1957년 5월 12일 오후 7시경 미 제 7사단 31련대 3대대 3중대 소속 미 륙군 하사 나울은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앞 도상에서 주례리 872 번지에 사

는 박 상근과 김 재란(녀자 41세)을 카빈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민주 신보》, 《부산 일보》 1957년 5월 15일).

1957년 6월 28일 오후 3시경 문산역 구내에서 미 헌병 1명은 문산역에서 입환 작업을 하고 있는 기관 조사 김 량표에게 《차를 태워 달라》고 강요하다가 입환 작업이 끝나야 떠난다고 대답하자 카빈총을 발사하여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산업 경제 신문》 1957년 7월 7일).

1957년 7월 6일 오후 8시 3분경 인천시 숭의동 부근에서 송유관을 경비하던 인천항 미군 경비 분대 소속 1등병 로날드 이. 파셋트는 송유관 부근에서 놀고 있는 세 살난 어린이 김 영호(김 창진의 차남)를 《가솔린 도적》이라고 하면서 카빈총으로 쏘아 죽였다 (남조선 신문《한국 일보》 1957년 7월 15일,《련합 신문》 1957년 8월 11일).

1957년 7월 16일 오전 8시경 대전시 성남동 미 제 728 헌병대 소속 로버트 테푼은 화차 옆에서 떨어진 얼음을 줏는 소년들을 카빈총으로 쏘아 그 중 류 정복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한국 일보》 1957년 7월 19일).

1957년 7월 26일 오후 7시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에 있는 미 제 13 야포 대대 소속 미군은 동면 률곡리에 사는 김 동환(50세) 로인이 부락 뒤'산으로 나무하려 가는 것을 카빈총으로 쏘아 흉부 관통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조선 일보》 1957년 7월 31일).

1957년 8월 2일 오후 5시경 미군 인천 항만 사령부 소속 2등병 로드그리스(22세)는 인천시 옥련동 미군 송유관 제 3 초소에서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산 1번지에 거주하는 시계 상인 리 경희(29세)의 시계를 헐값으로 사려다가 그가 이에 불응하자 엠완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7년 8월 4일).

1957년 8월 13일 오후 9시 30분경 찦차를 몰고 가던 미군은 부산시 문현동에서 엿장사를 하여 연명하여 가는 40세 난 남자를 깔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상이 폭로될가 두려워서 시체를 싣고 수영 방면으로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국제 신보》 1957년 8월 15일).

1957년 8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미군 사령부 인천항 경비대 소속 1등병 마틴 밀스는 인천시 룡현동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수명의 어린이들에게 돌을 던져 물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후 엠완총을 발사하여 인천시 숭의동에 사는 조 병길(18세)을 절명케 하였다(남조선 신문《동아 일보》,《한국 일보》,《인천 신문》 1957년 8월 27일).

1957년 8월 31일 미군 2명은 부산항 제 3 부두에서 김 형태(14세)와 최 봉학(17세) 두 소년에게 생트집을 잡아 언쟁을 전후 총을 쏘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7년 9월 1일).

1957년 9월 4일 경상남도 창원군 운천면 제덕리에서 진해 미 해군 항공대 소속 1등병 조 제임스 이. 잔비용(26세)외 1명은 나무를 하는 오 경아(46세)를 엠총으로 쏘아 허리에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경향 신문》 1957년 9월 7일).

1957년 9월 4일 오후 4시경 부산시 범전동(151번지)앞 로상에서 미 제 8192 병참 송유관 중대 소속 미군 1등병 핸드빌리제이는 군화를 수리하고 구두닦기 소년 한 심(14세)이 수리비를 요구한다 하여 그를 카빈총으로 쏘아 죽이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련합 신문》 1957년 9월 8일, 《동아 일보》1957년 9월 14일).

1957년 9월 10일 부산시 범전동 미군 하야리야 부대 소속 미군 1등병 테리 엠. 셀서론은 동부대 부근에서 김 복희(20세)외 1명의 녀성을 카빈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경향 신문》 1957년 9월 12일).

1957년 9월 15일 오전 11시경 전라북도 군산 비행장 부근에서 미 공군 1등병 캐롤비. 테일러(26세)와 미 공군 2등병 에드워드 타 영은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하제리에 거주하는 강 금순(17세)외 6명의 소녀들이 비행장 부근에서 풀을 베고 있는 것을 카빈총으로 사격하여 그들 중 강 금순에게 중상을 입히고 김 영희를 절명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동아 일보》 1957년 9월 21일, 《한국 일보》1957년 9월 20일,《조선 일보》1957년 11월 26일).

1957년 10월 3일 오전 8시 30분경 미 제 728부대 비 중대 소속 상사 레이몬드 엘. 베이리는 경상북도 김천역 구내에서 화물렬차(미 군용 제 126 호)를 경비중 등교 중인 금릉 중학교 3학년생 송 준원(16세)외 4명에게 무터대고 총을 발사하여 송 준원 학생을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련합 신문》 1957년 10월 5일,《대구 매일 신문》 1957년 12월 25일).

1957년 10월 3일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률곡리 뒤'산에서 꿩사냥을 하고 있던 미 제 24사단 34련대 3대대 케이 중대 소속 2등 중사 조셉이. 우딘(31세) 외 1명은 동 지점에서 도토리를 줏고 있던 김 호희(녀자 60 세)로파를 향하여 엽총을 발사하여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인천 신보》 1957년 10월 6일).

1957년 10월 5일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보산리에서 미 제 7사단 13공병대 비 중대 소속 2등병 로날드 스미스는 부대 밖 15메터 떨어진 지점에서 나무 쪼각을 줏는 리 정순(21세, 이담면 보산리 거주)과 정 옥순(녀자 50세, 이담면 생연리 거주)을 엠완총으로 련발 사격하여 리 정순을

즉사케 하고 정 옥순에게는 심한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1957년 10월 6일).

1957년 10월 16일 낮 1시 30분경 인천시 월미도 서북방 100메터 해상에서 미 군수 물자 수송선에 탑승하였던 미군 한 명은 이 수송선 부근에서 표류하는 나무 쪼각을 줏고 있던 리 동현(38세, 인천시 송림동 거주)에게 카빈총을 란사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1957년 10월 17일).

1957년 10월 22일 오후 5시경 강원도 강릉 근교에서 미 제 623 전투 공군 사령부 소속 중사 윌리암 콤멘은 꿩 사냥을 하다가 그 부근에 있던 김 창식(18세)에게 총질을 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7년 10월 25일).

1957년 10월 24일 오전 11시경 《주한 미국 대사관》 수위 미군 중사 로버트 더블류.윌코크(23세)는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도리리 뒤'산에서 꿩 사냥을 하다가 부근에서 놀고 있던 정 청희 (동군 팔단면 가세리 54번지 거주)의 2남 정 재경(9세)에게 총질을 하여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7년 10월 26일, 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7년 10월 28일).

1957년 11월 5일 12시경 김포군 대곶면 대능리 누동 부락 뒤'산에서 사냥하던 미 제 74병기 대대 34중대 소속 미군 2명은 부근에 있는 최 은행(18세, 대능리 469번지 최 병득의 장남)을 쏘아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7년 11월 7일).

1957년 11월 24일 오전 10시경 울산군 삼남면 하방 부락 앞산에서 사냥을 하던 부산 중앙 부두 에이.오.피 소속 미군 데위 브레스 델조오(군 번호 01924524) 외 미군 5명은 소년 리 학수(11세)를 총으로 쏘아 가슴, 다리, 어깨 등 7개처에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7년 11월 26일, 《서울 신문》 1957년 11월 27일).

1958년 5월 25일 오후 6시 10분경 조선 청년 최 현기는 미 제 19보병대 씨 중대 소속 미군 상사 레리비.스츄아트가 쏜 권총에 맞아 절명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8년 5월 29일).

1958년 6월 2일 새벽 2시경 서울 북방 15마일 지점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눌로리 미 제 1기갑 사단 12기갑 부대 소속 1등병 로렌스 더블류. 추라한은 동 부대 철조망 근처에서 류 치선 (20세, 파주군 적성면 무건리 거주)에게 여섯 발의 카빈총을 발사하여 살해하였다 (남조선 신문《조선 일보》,《한국 일보》 1958년 6월 3일,《서울 신문》1958년 6월 4일).

1958년 9월 8일 오후 5시경 미 제 8군단 장거리 통신단 씨 중대 소속 운전수 1등병 픽크프 그리인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 앞 토상에서 권 초만의 장남 권 봉석(6세)을 트럭 차 바퀴에 끼우게 한채 100 메터나 그대로 달려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58년 9월 13일).

1958년 9월 26일 아침에 미 제 7사단 소속 트럭 운전수 시오드 엠•네스(26세)는 의정부읍 축석령 고개에서 인 재남(36세), 료 영판(26세), 김 한옥 등 3명에게 총질을 하여 인 재남을 즉사케 하고 료 영판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8년 9월 27일, 《국도 신문》 1958년 9월 28일).

1958년 11월 12일에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에 있는 미 제 1 기갑 사단 20 포대대 본부 소속 1등병 하지스 챠이지는 세탁소 부근에 있는 조선 청년 3명에게 카빈총을 발사하여 그중 권 오원 (25세)을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경향 신문》 1958년 11월 14일).

1958년 12월 14일 밤 11시 미 제 8군 사령부 제 21재무대 소속 하사 찰스 피.리엘(24세)과 병장 존스 에스•레이모스(20세)는 울시 중구 충무로 2가 100번지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출입구 창문 유리를 까 부시고 이를 말리려던 종업원들을 구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홀 밖에 나와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하였는바 리엘은 충무로 2가 23번지에 있는 《상아탑》 다방 앞길에서 자기의 친우와 말하고 있는 주 현식 (19세, 충무로 1가 39번지 거주)을 단도로 찔러 그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레이모스는 충무로 2가 190번지 앞에서 61세 나는 로인 심 진택(충무로 3가 36번지 거주)의 가슴을 단도로 찔러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1958년 12월 15일, 《평화신문》, 《자유 신문》 1958년 12월 16일).

1958년 12월 29일 미군 제 1기갑 사단 12 기갑 련대 2 전투단 디 중대 소속 2등병 로날드 제이 스팽글리(24세)는 김 경식 (20세)을 총으로 쏘아 부상을 입혔다(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8년 12월 31일).

1958년 12월 30일 미 제 8 공병대 소속 미군 1등병 웨이몬드 지. 미첼(24세)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에서 조선 청년 1명을 엠완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9년 1월 1일, 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9년 1월 1일).

1959년 1월 28일 미 제 1 기갑 사단 19 포병 련대 제 2 곡사포 대대 소속 미군 2등병 칼 비. 믹크는 김 택녀(18세, 경기도 리천군 거주)외 1명의 조선 청년에게 련발 사격을 가하여 전기 김 택녀에게 중상을 입히고 다른 1명을 사망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9년 1월 29일, 《한국 일보》 1959년 1월 30일).

1959년 2월 7일 오전 3시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걸산리에서 미 제 7 사단 소속 상사 쩨민 웨이는 서울시 합동 28번지에 사는

신 민식(27세)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복부 관통의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조선 일보》 1959년 2월 8일).

1959년 2월 8일 서울시 영등포구 동동 71번지 앞 로상에서 미군 사자 부대 운전수 에노소리는 몰고 가던 자동차로 10세 가량되는 어린 소년을 깔아 즉사케 한 후 시체까지 차에 실어 가지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9년 2월 9일).

1959년 3월 28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도 김포 미 제 14 비행장 소속 1등병 제임스는 김포 비행장 제 8호 문 부근에서 산재 매몰되여 있는 알루미늄 쪼각을 줏고 있던 리 우영 외 10명의 조선 소년들에게 렵총을 란사하여 리 우영 소년에게 전신에 무려 30 여개소의 총상을 입혔으며 리 수일 소년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9년 3월 29일, 《한국 경제 신문》 1959년 3월 30일).

1959년 3월 30일 오후 1시경 미 제 8군 소속 하사 제임스 마홈은 미 제 8군 서울 지구 사령부 권총 사격장 부근에서 미군의 사격 훈련을 구경하고 있던 심 태명 외 3명의 소년들에게 권총을 발사하여 심 태명 소년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동아 일보》 1959년 4월 1일).

1959년 4월 5일 오후 4시경 대구시 태평로 1가 24번지에서 미 제 8군 대구 아르. 티. 오 (미군 철도 수송 사령부) 소속 미군 윌리암 에이. 맥코이 외 2명은 대구시 범어동에 사는 리 돈상의 자전거를 파괴한 후 그를 칼로 찔러 부상을 입히고 카빈총으로 쏘았는데 그 총탄이 대구시 교동 20번지에 사는 배 찬명의 2남 태덕(5세)에게 맞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59년 4월 8일, 미군 신문《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9년 4월 8일).

1959년 4월 24일 경기도 화성군 오산 미 제 8군 서울 지구 사령부 오산 분견대 소속 미군 상등병 로버트 더블류. 재멘은 조선 소년들에게 총을 쏘아 그 중 리 군철(14세)에게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동아 일보》1959년 4월 26일).

1959년 5월 10일 오전 10시 5분경 충주시 목행리에 있는 남한강 상류 강반에서 권총 사격 련습을 하고 있던 충주 비료 공장 발전소 근무 미국인 기술자 조지 더블류. 크렌은 전방 28메터 거리에서 밭을 갈고 있던 송 성학(녀자, 26세)을 권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9년 5월 11일).

1959년 5월 17일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미 제 7사단 공병 보급 부대 부근에서 미군 헌병은 2명의 주민을 사격하여 김 철수에게 부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9년 5월 20일).

1959년 6월 17일 미 제 4 기갑 련대 제 2 전투단 디 중대 소속 1등병 윌리암 이. 위트(21세)는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에 거주하는 김 용수(22세)를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9년 6월 19일).

1959년 7월 24일 새벽 4시 25분경 서울시 룡산구 삼각 지대 로상에서 미 서울 지구 사령부 교통과 소속 짚차 운전수 1등병 로버트 제이. 쉬미드린은 자동차 4대가 달릴 수 있는 대 도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김 용남(50세) 로인을 치워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9년 7월 25일).

1959년 8월 19일 아침 미 제 7 사단 포병단 본부 중대 소속 미군 상등병 벤톤 에이. 바틀러(23세)는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근방에서 박 천태(16세, 이금면 금곡리 거주)소년을 총으로 쏘아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9년 8월 19일).

1959년 9월 26일 경기도 포천군 동두천 미 제 7사단 에이 15 비행장 부근에서 미군은 조선 소년 조 인원(17세)을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9년 9월 29일, 《경인 일보》 1959년 10월 1일).

1959년 10월 2일 미 제 7보병 사단 13 공병 대대 씨 중대 소속 2등 상사 와트랜드 (24세)는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에 사는 장 동부(25세)외 5명에게 총을 쏘아 그 중 장 동부를 중상케 하였다(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9년 10월 5일).

1959년 10월 7일 미 제 1군단 포병 사령부 소속 1등병 세일 프니역은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고소성리에서 청년 리 광옥을 카빈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서울 신문》, 《자유 신문》 1959년 10월 8일).

1959년 10월 31일 오후 5시 55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서정리에서 미 제 5공군 1314보급 중대 소속 1등병 마호니 에취. 엘(19세)은 기중기차를 마구 몰다가 전기 서정리 로변에 있는 정 봉헌(14세)의 집을 들이받아 동 주택 내에 있던 10세 나는 김 기성 소년을 즉사케 하고 박 종환(31세) 외 5명에게 중상을 입혔으며 동 주택을 파괴하였다(남조선 신문 《기호 일보》 1959년 11월 2일).

1960년 1월 23일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미 제 13 보급 대대 본부 중대 1등병 죤 씨. 바우어(22세)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에 거주하는 김 룡일을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미군 신문《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0년 1월 27일).

1960년 2월 4일 오전 8시경 미 제 1 기갑 사단 9기갑 련대 소속 1등병 프란씨스 엑스. 맥큔 (18세)과 2등병 마이클 이. 불라싱게입

(18세)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장산리에서 얼음 우로 림진강을 건너가고 있는 박 원봉(44세) 농민에게 총을 쏘아 그를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동아 일보》 1960년 2월 5일, 미군 신문《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0년 2월 7일).

1960년 2월 10일 오후 5시경 미제 7사단 127통신대 비 중대 소속 미군 1등병 원타 유리사드 에이는 상기 중대 부근에서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생연리에 거주하는 정 경형(17세)에게 총을 발사하여 다리에 관통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경인 일보》 1960년 2월 14일).

1960년 2월 27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 부근 미 제 7사단 3련대 2전투단 비 중대 미군 토즈비. 비손(20세)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대회산리에 거주하는 박 영빈(22세)을 카빈총으로 쏘아 절명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0년 2월 29일, 《기호 일보》 1960년 3월 2일).

1960년 4월 20일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에서 조선 녀성 류 정자(21세)는 미 제 7사단 제 40땅크 부대 소속 상사 허만 제이. 톡웰이 《장난 삼아》쏜 권총에 맞아 목에 중상을 입었다(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60년 5월 6일).

1960년 4월 25일 미 제 4 유도탄 사령부 19보병 대대 씨 중대 1등병 로버트 엘. 합엘은 리 종룡(35세)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0년 4월 3일).

1960년 4월 29일 림진강 북방 미 제 1 기갑 사단 8기갑 련대 비 중대 중사 에드와드 제이. 노블은 카빈총으로 김 창식(22세)과 리 진대(30세)를 쏘아 중상을 입혔다(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0년 5월 2일).

1960년 5월 14일 오전 미 제 1 기갑 사단 8련대 1전투단 보수 공장 지역에서 동 부대 소속 미군 중사 하워드 엘. 호일은 조선인 1명을 쏘아 그의 목에 관통상을 입혀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0년 5월 16일).

1960년 5월 15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장단군 군내면 백련리 미 제 9 기갑 련대 1 수색 대대 씨 중대 소속 2등병 존은 파주군 광탄면 방축리에 거주하는 리 종훈이 변소에서 손을 닦고 있을 때 신분증을 보자고 하므로 조선어로 씌여진 증명서를 보이자 무조건 그의 안면에 대고 4.5미리 구경 권총을 발사하여 현장에서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0년 5월 18일).

1960년 5월 25일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소속 중사 체스터 비. 테일러는 오 연유(63세)를 쏘아 중상을 입혔다(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0년 5월 27일).

1960년 6월 5일 오후 5시경 경기도 파주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8 공병대 1등병 리벡 이. 노알드는 길을 걸어가는 조선 녀성 최 뎌기(26세)의 가슴과 하퇴부에 대고 각각 총을 한 방씩 쏘아 그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기호 일보》 1960년 6월 16일).

1960년 6월 9일 오후 3시 5분경 서울시 영등포동 (2가 342번지) 앞 로상에서 미 제 728 헌병대 소속 2등병 알란 씨. 커티스는 조선 청년 김 현식(29세)을 카빈총으로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0년 6월 10일).

1960년 7월 9일 서울 북쪽 미 제 1 기갑 사단 구역 근처에서 미군 장교 1명은 조선인 김 경덕(21세)에게 총을 쏘아 왼팔에 부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민국 일보》 1960년 7월 13일).

1960년 7월 16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에서 미 제 7사단 32련대 소속 미군은 찝차를 몰고 가다가 지나가는 농민 황 길성(54세, 양주군 회천면 덕정리 거주)의 모자를 잡아 채여 그의 머리가 차체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그를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한국 경제 신문》 1960년 7월 19일, 《동아 일보》 1960년 7월 18일).

1960년 8월 22일 경기도 파주군에서 미 제 1 기갑 사단 소속 조스엔, 자라밀로 및 로버트 비•윌슨은 자유교를 지나가는 합 원연 외 1명에게 총질을 하여 합 원연에게 중상을 입혔다(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0년 8월 25일).

1960년 8월 31일 오전 6시 30분경 김포 비행장에 있는 미 제 6167 부대 근방에서 동 부대 소속 헌병 병장 와이트 썬브드(25세)는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에 거주하는 리 영근(17세)과 최 창기(23세)를 렵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경기 매일 신문》 1960년 9월 2일).

1960년 10월 10일 미 제 8군 304 통신 대대 소속 상사 이얼 에스. 위트니(32세)는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서 김 동윤(35세), 류 준석(29세), 리 수완(27세) 등 3명을 총으로 쏘아 김 동윤을 즉사케 하고 기타 2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조선 일보》 1960년 10월 10일).

1960년 10월 25일 밤 11시 반경 미 제 8군 728 헌병대 소속 헌병들은 서울시 룡산구 원효로 1가 58번지 앞길에서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 가고 있던 강 복희를 강제로 랍치하여 스리코타에 싣고 도주하다가 질주하는 차문이 열리는 바람에 강 복희가 차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는데 출혈이 심한 그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절명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60년 10월 26일).

1960년 11월 6일 오후 9시

40분경 인천시 청천동 미제 8군 형무소 앞을 통과하던 행인은 미군 보초병 1등병 매스 렉스의 권총 탄환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0년 11월 11일).

1960년 11월 9일 오후 10시경 미군 모스큐우지 캄파니 소속 하사 콜프스는 경기도 신흥군 동면 안양리 석수동 16번지에 사는 박순자를 단도로 찔러 죽이려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두 손으로 목을 졸라 빈사 상태에 빠지게 하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경인 일보》 1960년 11월 14일, 《조선 일보》 1960년 11월 15일).

1960년 11월 13일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제 304 통신 대대 소속 1등병 제임스 비. 앤더스는 리민형 외 2명에게 총질을 하여 리민형에게 중상을 입혔다(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0년 11월 16일).

1960년 11월 17일 미 제 1 기갑 사단 제 8 련대 씨 중대 소속 대비드 에취. 웰슈는 김 석환(27세)외 1명을 총으로 쏘아 김 석환에게 부상을 입혔다 (미군 신문《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0년 11월 20일).

1960년 11월 20일 새벽 서울시 룡산구 한강로 3가 40의 106번지에 거주하는 김 옥초 녀성은 《미군사 고문단》 문관 죠지 월터가 발사한 렵총 탄환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민국 일보》1960년 11월 20일).

1960년 12월 2일 오후 5시 30분경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산봉리에서 미군이 해안에서 놀고 있던 김 충기(19세, 산봉리 거주)를 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삼남 일보》 1960년 12월 5일).

1960년 12월 25일 오후 1시 10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신장리 부근에서 미 공군 헌병 6414 중대 소속 하사 제레미' 저지와 병장 킨엘빈 및 6929 이동 통신대 소속 병장 벨마이어 버치는 동 리 거주 조선인 박 기환에게 총을 발사하여 그를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0년 12월 26일).

1960년 12월 31일 오후 8시 10분경 대구시 칠성동 앞 대도로에서 미군 대구 지구 공병대 소속 운전수 윌리암 이암은 자동차를 미친듯 몰아 대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우편물 배달부 김 룡억(55세, 신암동 2구)을 들이 받아 즉사시켰다 (남조선 신문 《대구 일보》 1961년 1월 3일).

1961년 2월 13일 오후 1시 30분경 충청북도 서산군 태안면 삭선리 토상에서 태안면 주재 미군 부대 소속 1등병 켄랜 도날드(26세)는 화물 자동차를 몰고 질주하다가 자전차를 타고 가던 배수현(24세)을 깔아 두개골을 파렬시켜 죽이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1년 2월 16일).

1961년 1월 28일 미 제 1 기갑 사단 19 포병 련대 소속 미군은 동 부대 주변에서 조선 소년들에게 총을 함부로 란사하여 조선 소년 1명을 즉사시키고 1명에게는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2월 23일).

1961년 3월 9일 낮 12시경 경기도 룡인군 기흥면 신갈리 앞 토상에서 미군 화물 자동차는 길옆으로 걸어 가고 있던 국민 학교 2학년 학생들인 손 원자(9세)와 염 영순(9세)을 깔아 죽이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3월 14일,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1년 3월 12일).

1961년 3월 10일 오후 3시 45분경 영등포구 도림교 우에서 경기도 의정부 주둔 미 38부대 소속 중사 후랭크 엘 심포손은 《스리코타》를 몰고 가다가 다리를 건너 가고 있던 조선인 우 상을(27세)을 권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61년 3월 12일, 남조선 신문《민국 일보》 1961년 3월 11일).

1961년 3월 16일 《주한 미 륙군 고문단》 소속 하사 허바트 엘 파손즈는 미 제 1군단 지역인 창학리 마을 길'가에서 놀고 있던 어린 애기 리 학룡(4세)을 보고도 그대로 차를 몰아 압살하였다 (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1년 3월 17일).

1961년 3월 24일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걸산리에서 미 제 7사단 102 병기 대대 소속 2등병 페이워드 지리치는 산에서 나무를 줏고 있던 김 진평(16세)을 무턱대고 <엠원>총으로 쏘아 대퇴부와 국부에 관통상을 입혀 즉사시키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3월 28일,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1년 3월 26일,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1년 3월 25일,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1년 3월 28일).

1961년 3월 25일 경기도 평택군에서 미 제 1기갑 사단 소속 2등병 콘스탄티너는 동 지대에 있는 K—6 비행장 부근을 지나가던 최 용소(37세) 외 2명을 겨누고 총을 란사하여 그 중 1명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1년 3월 27일).

1961년 3월 26일 오전 9시경 미군의 한 운전수는 미군 특수 운반차를 과속으로 몰아 대다가 전라북도 정읍군 신태인읍에 사는 김 정일의 둘째 아들 김 갑술(9세)을 깔아 죽이였다 (남조선 방송 《전주 방송》 1961년 3월 27일).

1961년 3월 28일 12시경 경남 울산군 하상면 남외리 앞길에서 미 6314 공군 부대 제 2 파견대 화물 자동차 운전수 우포(18세)는 소녀 김 금화(13세)를 들이받아 허벅다리를 부러뜨려 절명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61년 3월 29일).

1961년 3월 28일 오후 1시경 충청남도 천안군 북면 상동리 석담 부락 앞 토상에서 미 8군 소속 1등병 랜드리는 도로 연변에

서 놀고 있던 김 기천(7세)을 깔아 륙살시켰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1년 3월 30일).

1961년 4월 7일 오후 미 제 1기갑 사단 9련대 씨 중대 소속 헌병 중사 후레드릭 씨. 웨베는 동 부대 지역 부근을 지나 가고 있던 김 정옥(22세)과 리 병섭(29세)에게 45구경 권총을 란사하여 전기 김 정옥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1년 4월 8일,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4월 9일, 남조선 신문 《민국 일보》 1961년 4월 9일).

1961년 5월 3일 오후 8시 40분경 미 제 1기갑 사단 제 12기갑 련대 비 중대 소속 일등병 조셉 에프 브랜드는 깡통 맥주 2상자를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덕천리에서 강매하려고 남 홍우(27세)와 흥정하다가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그를 권총으로 쏘아 죽이였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61년 5월 4일,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61년 5월 4일,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1년 5월 5일).

1961년 5월 27일 경기도 평택 근방의 영천에서 평택 비행장 주둔 미 제 581통신 중대 소속 일등병 조지. 이. 웬젤은 길 옆에서 놀고 있던 오 순이(5세)를 《스리코타》로 깔아 죽이였다 (남조선 신문 《서울 일일 신문》 1961년 5월 30일).

1961년 6월 5일 오후 3시 45분경 미 제 44공병대 디 중대 소속 제 7호 차를 운전하던 미군은 차를 고속도로 몰아대다가 칠곡군 왜관읍 삼천동 도로 옆변에서 놀고 있던 지 영준(6세)을 들이 받아서 머리를 파렬시켜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대구 일보》 1961년 6월 7일, 남조선 신문 《령남 일보》 1961년 6월 7일).

1961년 7월 5일 오전 8시 20분경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에서 미 제 43호 호송대 소속 미 군용차는 박 선녀(12세)를 깔아 죽이였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1년 7월 9일).

1961년 7월 5일 오전 미 제 1기갑 사단 제 8 기갑 련대 소속 미군은 동 부대 주둔 지역 부근을 지나 가던 리 길연(30세), 김 소연(23세), 김 광지(22세)에게 총을 란사하여 그들에게 모두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1년 7월 7일).

1961년 7월 7일 오후 오산 비행장 소속 미국 문관 니콜 엠 폼은 경기도 안성군 만정리에서 사냥을 하다가 《뜸뿌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마구 총질하여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로파 리 잡성(56세)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1년 7월 10일).

1961년 7월 8일 오산 공군 기지의 미군 헌병들은 동 지역의 오물 적재장 부근을 지나 가던 10명의 주민들에게 총을 란사하여 그중 4명을 중상시켰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7월 11일).

1961년 8월 20일 서울 북방에 있는 미 제 7보병 사단 31포병 1곡사포 대대 본부의 미군들은 조선인 로동자들에게 폭발물 있는 장소에 들어 가 일할 것을 강요하던 중 폭발하여 그들 중 2명이 즉사하고 4명이 치명상을 입게 하였다 (남조선 신문 《령남 일보》 1961년 8월 23일, 서울발 1961년 8월 22일 《국제 신보 지사》).

1961년 8월 31일 서울시 룡산 관내에서 미 제 192 병기 대대 82병기 중대 소속 기술병 잭크 와이 돈은 차를 몰고 가다가 무고한 조선 녀성을 심심풀이로 륵살하였다 (남조선 신문 《서울 일일 신문》 1961년 9월 1일).

1961년 9월 16일 오전 9시 30분경 경기도 인천시 청천동 로상에서 미 제 69대대 702 중대 소속의 미군 화물 자동차는 인도에 있던 유 만호(7세)를 들이 받아서 두개골을 파렬시켜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1년 9월 18일).

1961년 10월 16일 미 제 8공병대대 본부 중대의 미군은 부대 주변을 지나 가고 있던 조선인 3명에게 총을 발사하여 그 중 1명에게 심한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서울 일일 신문》1961년 10월 19일).

1961년 10월 9일 부산시 동래구 중동 1394번지 앞 로상에서 미군 부대 소속 《스리코타》 614호 운전수 미군 하사 챠므스는 길옆으로 걸어 가고 있던 조 금석(33세)을 깔아 죽였다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61년 10월 9일).

1961년 10월 12일 오후 4시경 한 미군 운전수는 자동차를 고속도로 몰다가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산차리 앞 로상에서 어린애를 업고 가던 로파 김 기배(69세)를 깔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삼남 일보》1961년 10월 14일).

1961년 12월 6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미 제 1군단 51통신 대대 소속 1등병 안토니 제이. 모라노는 화물 자동차로 안 무희(6세)를 륵살하였다 (남조선 신문《서울 일일 신문》 1961년 12월 8일).

1962년 1월 3일 오후 2시 10분경 충청북도 옥천읍 옥각리에서 미 제 7군 사령부 장거리 통신 대대 씨 중대 소속 중사 바비. 에취. 윈담과 중사 어열. 제이 환함은 정류소에서 뻐스를 기다리고 있던 《국군》 병사 금 영유(25세)에게 엽총을 발사하여 쓰러뜨린 후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1월 5일,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1월 6일).

1962년 1월 6일 경기도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 뒤'산에서 미 제 1기갑 사단 8련대 디 중대 소속 하사 토니 외 수십 명의 미군은 40 여 명의 나무'군들을 《포위하여…흡사 오리 사냥》하듯 엽총으로 마구 사격하여 그 중 황 광길(25세), 류 기용(28세)을 학살하

였다.

이 곳의 미군들은 이에 앞서 1월 2일에도 장단군 진동면 하포리에서 산에 나무하려 갔던 김 부성(28세)과 강 정수(30세)를 렵총으로 쏘아 치명적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2월 10일, 2월 11일,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2월 9일).

1962년 2월 9일 오전 10시 30분경 미 제 7보병 사단 31보병련대의 한 미군은 조선 청년 1명을 《엠원》총으로 쏘아 죽이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2월 12일,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2월 12일).

1962년 2월 15일 오후 8시 30분경 미 제 7사단 본부 소속 미군들은 동 부대 주변을 지나 가던 조선인 5명에게 총을 란사하여 양주군 이담면 생연리에 거주하는 박 윤태(24세)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2월 17일,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2월 17일).

1962년 3월 16일 8시경 미군 승용차의 한 운전수는 서울 시내 룡산구 한강로 1가 16번지 앞 로상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 가고 있던 임신 4개월인 조선 녀성 조 정구(28세)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3월 17일).

1962년 4월 1일 오후 3시경 미군은 전라북도 옥구군 성산면 공복리 봉산동 뒤'산으로 조선 녀성 3명을 강제로 끌고 올라 가다가 그를 발견한 린근 주민들인 조 서언(21세)과 문 진예(30세)에게 총을 란사하여 조 서언에게 관통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4월 4일, 남조선 신문 《전북 일보》 1962년 4월 10일).

1962년 4월 12일 낮 12시경 서울시 중구 동자동 24번지 앞 로상에서 미 제 7군수 기지 사령부 소속 미군 조셉 나산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국민 학교 2년생인 최 윤희를 깔아 죽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4월 21일,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4월 13일).

1962년 5월 6일 서울 동자동에서 미 유도탄 사령부 226통신대 소속 하워드 거든은 《국군》 하사 리 창식을 무터대고 단도로 찔러 사살하였으며 김 봉현을 역시 단도로 찔러 사경에 처하게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8월 1일).

1962년 5월 6일 미군 통신대 소속 2등병 하워드 고든(22세)은 서울시 내 중구 동자동에 있는 《경흥 려관》에서 자기 비위에 맞지 않는다 하여 조선 청년 2명과 《약 3분 동안 언쟁》을 하다가 그들을 칼로 찔러 죽이였다 (서울발 1962년 5월 6일 《동화》 통신).

1962년 5월 30일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포천리에서 미 제 1기갑 사단 본부 소속 13통신대 에이 중대 1등병 제르지 웰링(21세)은 케이 에스 씨 로무자 엄 세준(29세)을 카빈총으로 쏘아 즉사시켰다 (서울발 1962년 5월 30일 《동화》 통신).

1962년 5월 29일 경기도 파주에서 미 제 1기갑 사단 씨 중대 소속 미 륙군 중위 토마스 엠 월드(35세)와 중위 데이비드 더블유 스웬슨(29세)은 동 중대 주변에서 일하고 있던 리 일룡을 아무 리유 없이 붙들어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혹심하게 구타하여 3차에 걸쳐 기절한 그에게 찬물까지 끼얹고 정신이 들면 또다시 몽둥이로 때려 리 일룡으로 하여금 빈사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서울 발 1962년 6월 1일 《동양 통신》).

1962년 6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1명은 자동차를 몰고 의정부 읍 내를 미친듯이 질주하다가 조선 소년 김 복규(당년 6세)를 깔아 죽이고 도망쳤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6월 30일).

1962년 7월 3일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법원리에서 미 제 71포병대대 소속 미군 한 놈은 자동차로 조선 청년 한 칠용(당년 33세)을 들이 받아 즉사시켰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7월 7일).

1962년 7월 27일 경상남도 동래군 구포읍 본동에서 미친듯이 자동차를 몰고 달리던 미군 한 명은 조선 청년 김 성순(당년 31세)을 깔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62년 7월 28일).

1962년 8월 23일 미 공병단 소속의 미군 1명은 경기도 화성군 일왕면 고천리 앞길에서 남조선 주민 2명을 자동차로 떠받아 중상을 입히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8월 24일).

1962년 8월 31일 미 제 7 군수 기지 소속의 미군 한 명은 스쿠터를 몰고 미친듯이 달리다가 대구 시내 봉산동 2구앞 도로 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청년 김 창원(26세)을 떠받아 심한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9월 17일).

1962년 9월 16일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앞길로 트럭을 몰고 가던 미 제 763공병대 소속 미군 고드메란자는 동 부락의 조선 어린이 김 용만(당년 6세)을 깔아 죽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9월 17일).

2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조선의 부녀자들에 대하여 야수적인 각종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인간 살륙과 략탈과 패덕에 습성이 된 미제 침략자들은 민가에 강도적으로 침입하여 부녀자들을 닥치는 대로 강간하며 길가는 부

녀자들을 위협 랍치하여 릉욕하며 수십 명씩 작당하여 조선 녀성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제 침략자들은 각종 범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할 뿐만 아니라 그의 소지품까지 략취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이 감행한 온갖 추잡한 만행들은 실로 금수도 낯을 붉히고 외면할 지경이다.

1954년 6월 14일 밤 9시경 4명의 미군은 인천시 롱현동 3구 2반에 거주하는 김 희자(21세)의 주택에 침입하여 동 녀성을 약 500메터 떨어진 산으로 끌고 가서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만행을 《경찰》에 련락하려던 동리에 거주하는 조 모를 무수히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인천 일보》 1954년 6월 16일).

1954년 6월 23일 오전 3시경 미 철도 수송 사령부 아르.티.오 소속 미군 3명은 인천시 북성동 2가 2번지에 거주하는 김 모의 처 함 신숙(31세)을 강제로 끌어다가 린근 하인천역 구내에 있는 화물차 내에서 륜간하였다 (남조선 신문 《자유 신보》 1954년 6월 25일).

1954년 8월 24일 밤 9시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미 제 19 보급 부대 앞에서 미군 20 여명은 그곳을 지나가는 리 인순 녀성에게 추잡한 요구에 응할 것을 강요하고 그에 불응하자 폭행과 협박으로 동 부대 담 옆에 그를 쓰러뜨리고 륜간한 후 하수도에 처넣고 무수한 폭행을 가하였으며 또한 동 지점에서 같은 시각에 미군 10여 명이 19세 가량되는 다른 처녀를 륜간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평화 신문》 1954년 8월 27일).

1954년 11월 6일 오후 5시경 미 공군 소속 팔찌존지 외 2 명의 미군은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역 구내를 통과하던 군산시 을지로에 거주하는 안 복순(19세)에게 카빈총을 발사하여 위협 정지시킨 후 부근에 있는 빈 화물 차 속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륜간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동아 일보》 1954년 11월 11일).

1954년 11월 6일 오후 10시경 미 제 72공병 대대 소속 미군 12 명은 무리를 지어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거주하는 리 례범의 집에 침입하여 《색시를 내라》고 리 례범을 닥치는 대로 구타하여 그의 이'발 일곱 개를 부러뜨리고 팔과 다리에 절골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4년 11월 10일).

1954년 11월 13일 오전 4시경 강원도 춘천시 미군 보급 부대 병사 워카는 춘천시 산홍동에 거주하는 오 만성 녀성이 자기의 추잡한 요구에 불응한다 하여 그의 집에 불을 질러 린근 가옥 11 동을 전소시켰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조선 일보》 1954년 11월 17일).

1954년 12월 23일 미군 6 명은 초량역 구내에서 석탄을 줏고 있는 무고한 조선 녀성 김 영옥(26세) 과 소녀 리 금순 (14세)을 사무실로 끌고 간 후 목욕탕에 몰아 넣고 옷을 벗긴 다음 갖은 희롱을 다하였다(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4년 12월 29일).

1955년 1월 30일 오전 1시경 미군 2 명은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 갈산리 김 양옥(44세)의 집에 침입하여 《색시》를 내놓으라고 강요하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상기 김 양옥의 주택에 방화하여 주택과 가구 일체를 불태워 버렸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동아 일보》 1955년 2월 3일).

1955년 7월 16일 밤 12시경 미 제 728 헌병대 소속 1등병 뮤린스 테웨일은 취침 중에 있는 13 세의 소녀 리 모(인천시 일신동 거주)의 방에 무단 침입한 것을 그의 부모들이 제지하자 테웨일은 그들을 권총으로 구타하여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5년 7월 18일).

1956년 1월 22일 오후 10시 40 분경 미군 2 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에서 영화 구경을 하고 돌아 오는 최 금임(19세)을 강간하려다가 응하지 않는다 하여 권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동아 일보》 1956년 1월 24일).

1957년 1월 7일 오후 6시 30분경 미군 하사 1 명은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에 거주하는 리 영숙(42세)에게 젊은 녀자를 내라고 강요하다가 거부 당하자 총으로 그의 복부를 쏘아 즉사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인천 신보》 1957년 1월 11일).

1957년 3월 11일 오후 2시경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덕천리 미 제 24사단 48야포대 소속 미군 윌리암 예취 제임스 알레이 (26세)는 적성면 식현리 앞 개울에서 빨래하고 있는 리 애돌(43세), 최 순희(59세) 두 녀인을 발견하자 그들에게 덤벼들어 강간하려다가 수욕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카빈총을 란사하여 전기 리 애돌을 사살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7년 3월 13일, 《인천 신보》 1957년 3월 14일, 《련합 신문》 1957년 3월 13일).

1957년 4월 17일 밤 10시경 파주군 주내면 소재지에서 미 헌병 4 명은 민가에 침입하여 손 영자와 리 경자라는 두 처녀를 릉욕하려고 행패하다가 그 마을에 사는 청년 김 기성(21세)이 이를 말린다 하여 그에게 달려들어 란타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비판 신문》 1957년 4월 29일).

1957년 4월 26일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 뒤'산에서 미 제 8군 사령부 소속 미군 하사는 선유리 칠정동에 거주하는 조선 녀성 송 현숙(20세)을 강간한 다음 때려 죽이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7년 4월 29일, 1957년 4월 30일, 《동

아 일보》 1957년 5월 1일).

1957년 8월 10일 오후 11시 반경 미 제 3련대 보급 대대 소속 미군 체알코마크 외 1 명은 서울시 중구 북창동에서 송 순옥 외 3 명의 녀성들을 릉욕하려다가 실패하자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집 유리 창문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였다 (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1957년 8월 12일).

1957년 11월 23일 오후 3시경 인천시 동춘동에서 미 제 50포대대 소속 미군 1등병 엘키스 외 1명은 김 룡자를 릉욕하려다 이에 불응하자 마구 란타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7년 11월 27일).

1958년 4월 1일 오후 8시 45분경 부산시 제 1 부두에서 미군 1등병 리챠드 티 맥티니는 부근을 지나 가는 17～18세 가량의 조선 소녀를 릉욕하고 카빈총으로 쏘아 흉부 관통상을 입혀 즉사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8년 4월 3일).

1958년 5월 17일 미국 선박 《빅토리》호 선원 한 명은 부산시 초량동에서 조선 녀성 박 모를 롱락하려다가 불응하자 그를 구타하고 그의 집에 방화까지 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경제 신문》 1958년 5월 19일).

1958년 6월 9일 오전 6시경 충청남도 서대전에 있는 《주한 미군사 고문단》 대전 파견대 소속 미군 하사 윌리암 지. 메프트(24세)는 대전시 중동(10번지)에 거주하는 우 순이(50세) 로파를 그 집 근처에 있는 빈터로 끌고 가서 야수적으로 강간한 후 잔인하게도 그의 목을 졸라 죽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근 주민들인 류 관향, 서 병준, 공 재윤의 집과 창고 등에 방화까지 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1958년 6월 11일,《한국 일보》 1958년 6월 12일,《대전 일보》 1958년 6월 11일, 1958년 6월 12일).

1958년 6월 17일 오후 9시경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미 제 6147 부대 소속 미군 1등병 해맨 아이벨은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56번지에 사는 장 모의 집에 침입하여 녀성 김 순수 (24세)를 릉욕한 후 라이타로 침실 카텐에 불을 놓아 가장집물 일체와 가옥을 소각하였다(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8년 6월 20일).

1958년 9월 17일 미 제 304통신 대대 2등병 대렬 더블류 그레이(23세)는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룡산 고등 학교 앞 로상에서 지나 가던 처녀 리 용주(20세)를 희롱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분풀이로 그의 복부를 단도로 찔러 깊이 10센치메터의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평화 신문》 1958년 9월 20일, 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8년 9월 20일).

1959년 1월 12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걸산리에서 미 제 7사단 본부 2등병 로버트 베리 외 1 명의 미군은 정 상률에게 녀자를 내라고 하다 거부당하자 정 상률과 그 외 1 명의 주민을 장작으로 란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9년 1월 14일).

1959년 1월 29일 오후 6시 30분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지산리 좌동 뒤'산에서 미군 1 명은 동 지산리에 거주하는 김 국자(28세)를 전기 지점까지 유인한 후 강간하고 소지했던 단도로 두부와 안면을 무수히 찔러 살해한 다음 그의 금반지(시'가 2만 5천환)를 강탈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9년 1월 31일).

1959년 2월 초순경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리 306번지에 사는 미국인 에리는 식모로 고용하고 있던 충북 중원군 동량면 대전리에 사는 14세의 소녀 리 정순을 강간하여 심한 상처를 입혔으며 이 소녀가 탈출하기까지 17일 간 자기 집에 감금하여 두고 있었다 (남조선 신문 《시사 일보》 1959년 8월 11일).

1959년 3월 28일 오후 8시경 미 제 7사단 소속 미군 1등병은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의 산중에서 동면 동두천리에 거주하는 김 춘자(34세)를 칼로 협박 강간한 후 김 춘자의 흉부를 란자하여 부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인천 신보》 1959년 3월 31일).

1959년 6월 7일 새벽 1시경 《유엔군》 사령부 소속 2등병 하라칼 아스칼(35세)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에서 15세의 소녀 김 매자를 꾀여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끌고 가 강간하여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9년 6월 8일).

1959년 9월 8일 오전 3시 30분경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동두천리 창받 부락에서 미 제 7사단 31련대 소속 2등병 기미엘 쿤슨(20세)은 귀가 중이던 안흥리 거주 리 정순(32세)과 김 남순(33세)을 강간하려다 불응하자 삽으로 김 남순을 란타하여 중상을 입힌 후 다시 리 정순을 삽으로 구타하여 길 우에 쓰러뜨리고 강간 치상케 하였다(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9년 9월 10일).

1959년 11월 14일 밤 8시경 미 제 633 공병 중대 소속 미군 1등병 리챠드 엔. 아데네티 (24세)는 경기도 양주군 별내면 고산리 166번지에 사는 로파 리 소요(69세)의 집에 침입하여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강간한 후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9년 11월 23일,《서울 신문》 1960년 1월 5일).

1960년 1월 23일 오후 9시 30분경 서울 남산 산봉숲 속에서 미제 7사단 10 기갑 련대 2대대 본부 중대 소속 상병 홀리 페터엠은 룡산구 리태원동 72번지에 사는 조선 녀성 백 현자(23세)를 단도로 위협하여 강간하였고 또한 그로부터 현금 5천 환을 강탈

하였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60년 1월 25일).

1960년 3월 14일 부산시 기독교 방송 선교회 미국인 선교사 브이.알렉스 빌스 (39세) 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녀성 김 옥녀 (25세,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거주)가 퇴근하는 시간을 리용하여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꾀여 자기 승용차에 태운 후 동래구 거제동에 있는 수원지에 끌고 가 강간하였다.

이 미국 선교사 알렉스 빌스는 또한 1960년 12월 24일 부산시 방송국 크리스마스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동 방송국 직원 정 모라는 처녀를 꾀여 자기 승용차에 태운 후 부산진구 부전동 호텔에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부산 1961년 2월 16일발《동화》).

1960년 4월 3일 인천시에서 미국 《스테이 스마린 기선 회사》 《로빈모 부테이 호》의 선원인 쫀 아바다는 윤 남순 녀성을 릉욕하려다 실패하자 그를 잔인하게 구타하여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기호 일보》 1960년 4월 6일).

1960년 5월 1일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 부근에서 미 제 7보병 사단 13공병 대대 소속 특과 상등병 가르길도 쫀슨(48세) 은 강간 행위를 제지하였다 하여 조선 청년 윤 홍룡 (28세) 의 안면을 총창으로 란자하여 중상을 입혔다 (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60년 5월 6일).

1960년 6월 17일부 남조선 신문 《기호 일보》에 의하면 경기도 강화에서 미군 3명은 조선 녀성을 강제 릉욕하려는 자기들을 백 광운 (25세) 이 제지하였다 하여 그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여 심한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기호 일보》 1960년 6월 17일).

1960년 7월 20일 미 제 39 보급소 중대장 월리암은 고 명순 (26세, 의정부 하금오리 거주) 을 자기 차에 싣고 의정부 하금오리 토상에까지 와서 입을 틀어막고 전신을 못 쓰게 구타 릉욕한 후 실신한 고 명순을 차 밖으로 내 던졌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0년 8월 6일).

1960년 12월 11일 밤 미군 병사는 인천시 십정동 176번지에 사는 김 순갑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15세나는 그의 딸 김 옥애의 방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부근 사람들과 란투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0년 12월 14일).

1960년 12월 26일 경기도 인천시 부평동에서 미 제 728 헌병대 소속 미군 1등병 구리레스는 조선 녀성 리 국자 (21세)를 붙들고 수욕을 채우려하다가 실패하자 술'병으로 그를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던 정 경자(19세)에 대해서까지 폭행을 가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0년 12월 30일).

1961년 2월 2일 밤 미군 55 헌병 중대 병장 윌리암 에취 태프트 (32세)는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가릉리에서 조선 녀성 표 정순을 아무 리유도 없이 란타하여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1년 2월 4일).

1961년 2월 6일 밤 1시 30분경 미 7사단 24련대 병장 레쓰고 이라우는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광암리에 있는 김 순덕의 집에 침입하여 조선 녀성 최 종석을 롱락하려다 그가 항거하자 침구에 불을 질러 가옥 1동을 전소시켰다(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1년 2월 12일).

1961년 1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미군 하사 빈(33세)은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 있는 홍 모의 집에 뛰여 들어 12세의 소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목을 졸라 실신시킨 다음 옷을 벗기다가 주민들에게 발각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1월 4일).

1961년 3월 31일 오후 8시 20분경 미군 6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장 봉욱의 집에 침입하여 유부녀를 롱락하려다가 실패하자 가옥과 가장집물을 마구 들부신 후 이웃집까지 파괴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민족 일보》 1961년 4월 1일).

1961년 4월 2일 밤 1시경 미군 1명은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가릉리에 있는 조 종일 (45세)의 집에 침입하여 조선 녀성 하 진옥 (25세)을 릉욕하려다 그 녀자가 피신하자 그 집에 방화하여 시'가 100만 환에 해당한 벽돌집 6간을 전소시켰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1년 4월 3일).

1961년 5월 4일 오후 8시경 강원도 양양군 속초 주둔 미군 통신 수색 중대 미 파견대 소속 하사 졸스이 뻘렌(25세)은 속초읍 4구에 있는 황 기호의 집에 침입하여 조선 녀성 도 경자 (25세)를 계속 릉욕하려다 이에 불응하자 그 녀자를 발가 벗긴 다음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목을 잘라 매고 하복부를 강타하여 살해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1년 5월 14일).

1962년 2월 18일 오후 7시경 미 제 1 기갑 사단 공병대 소속 상병 윌리암 그리(30세)는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가야리에 있는 윤 장석의 집에 달려 들어 임신 5개월의 신 영숙 (25세)을 릉욕한 후 방문을 잠그고 구두'발로 마구 차서 치명상을 입혀 락태시켰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2년 2월 2일).

1962년 4월 18일 오후 5시경 미 제 1 기병 사단 5련대 2대대 에이 중대 소속 상등병 제트는 경기도 파주군 능담면 천현리에 사는 강 모라는 조선 녀성을 이 마을 뒤'산까지 유인하여 녀자가 구두 끈과 새끼줄로 그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틀어 막은 다음 란타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2년 4월 22일).

1962년 5월 17일 밤 령시 45분경 미 제 833 경기 중대 소속 1등병 쫀슨은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장동리에서 조선 녀성 유 춘자 (22세)를 릉욕하고 아무런 리

유 없이 45구경 권총 2발을 쏘아 살해하였다 (서울발 1962년 5월 17일 《동화》 통신).

1962년 6월 29일 밤 미군 제 55 공군 대대 비 중대 소속 미군 1명은 경상북도 왜관읍 석전동에 거주하는 리 순박 녀성에게 달려들어 단도로 마구 찔러 심한 중상을 입혔다 (서울 발 1962년 6월 30일 《동화》 통신).

1962년 8월 29일 부산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선박 선원 프란시스 스로비야는 당년 26세의 조선 녀성 강 옥자에게 수욕을 채우려다가 거절 당하자 이 녀성의 몸을 단도로 찔러 치명상을 입혔으며 강 옥자 녀성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당년 21세의 염 춘희 녀성에게도 달려들어 단도로 찔러 심한 중상을 입혔다 (부산발 1962년 8월 30일 《동화 통신》).

3

미제 침략군은 무고한 주민들에 대하여 리유 없이 폭행을 가하고 인권을 유린하며 민족적 모독을 가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은 길 가는 사람을 자동차에서 사격하거나 곤봉으로 후려 갈기며 달리는 렬차에서 사람들을 굴려 떨어뜨리며 군견을 추겨 사람을 물어 뜯어 기절케 하며 발가 벗겨 거꾸로 매달아 놓고 구타한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도 료금 지불을 요구하는 운전수를 구타하며 료정 출입을 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각종 폭행을 감행하고 있다.

실로 미제 침략군은 력사상 그 류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무제한의 치외 법권을 남조선 전역에서 행사하고 있다.

1954년 2월 15일 오전 9시경 대전발 부산행 135 화물 렬차 승무 미군 772 헌병대 비 중대 소속 상사 부라운 외 1명은 기차가 고모—경산 간을 달릴 때 동렬차에 편승한 《교통부》 직원 리 종근을 발견하고 권총으로 그를 무수히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차하겠다는 그를 강제로 끌고 가면서 계속 구타하여 타박상을 입혔으며 또 그것도 부족하여 량손과 량발을 묶은 다음 질주하는 렬차 밖으로 차 내려뜨렸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4년 3월 19일, 《서울 신문》 1954년 3월 21일).

1954년 7월 5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51번지 앞 로상에서 미군 30 여명은 동 지점을 통행하는 리 경훈 (33세) 외 2명에게 무조건 집단적인 폭행을 감행하여 전기 리 경훈을 현지에서 졸도케 하고 나머지 2명에게 중상을 입힌 다음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서울 신문》 1954년 7월 7일).

1954년 11월 4일 낮 12시 30분경 인천시 신흥동에 자리잡고 있던 미군은 동 부대 앞을 지나 가는 조선 소년 김 홍옥 (15세, 인천시 도원동 41번지 거주) 을 강제로 병영 내로 끌어 들여 그를 구타하는 한편 옷을 벗겨 발가숭이로 만든 후 전신에 뼁끼칠을 하고 노끈으로 목을 매여 끌고 다니였다 (남조선 신문 《인천 신보》 1954년 11월 6일).

1954년 11월 24일 오후 9시경 부산시 감만동에서 미 제 226 병기대 소속 미군 1명은 길 가던 라 기출 (35세)을 단도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4년 12월 2일).

1955년 1월 17일 부산에서 미군 15명이 작당하여 집단적 살인 강도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들은 부산시 대청동 3가 2번지 우 만수(36세)의 상점에 침입하여 우 만수를 집단 구타한 후 칼로 목을 찌르고 동 상점의 상품을 략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청동 로상에서 통행 중이던 김 덕림(35세)의 잔등을 칼로 란자하였으며 또다시 박 재우(37세)를 집단 구타하고 칼로 얼굴을 무수히 찔러 중상을 입힌 다음 수명의 녀성을 곤봉으로 집단 구타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5년 1월 19일, 《동아 일보》 1955년 1월 23일).

1955년 5월 31일 부산시 영주동에서 미 제 772 헌병대 부산 제 2중대 소속 미군 2등 상사 악셀엔지 외 1명은 동 동에 거주하는 리 만우(48세)와 김 덕술(25세)을 곤봉으로 란타하여 실신 상태에 빠뜨려 놓은 후 김 덕술의 집 유리창을 파괴하였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55년 6월 2일).

1955년 9월 5일 오후 5시경 짚차를 타고 가던 미군은 일동에서 서울로 오던 경향 려객 뻐스 (제 167호) 가 신북 지점을 통과할 때 동뻐스에 돌을 던져 승객 김 승오 (21세)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평화 신문》 1955년 9월 9일

1955년 9월 6일 밤 11 시 경 서울시 영등포 역전에서 미 제 728헌병대 소속 하사 하부사리 (21세)는 5명의 어린 소년들을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지하려는 서울시 중구 산림동에 거주하는 장 기철(27세)을 고무호스로 무수히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중앙 일보》 1955년 9월 8일).

1955년 12월 19일 오후 8시경 미군 2명은 리 명규 (32세)가 운전하는 《경남 11, 945호》 영업차를 타고 부산역에서 초량동 제 4 부두 《해상 수로국》 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차 료금을 지불할 대신 료금 지불을 요구하는 상기 운전수를 구타한 후 칼로 온 몸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55년 12월 21일, 《경향 신문》 1955년 12월 22일).

1956년 8월 9일 오후 11시 40 분경 미 제 32련대 비 중대 2등병 밀러 제일스와 중사 맥돈 오후로 마스는 인천시 《인천 한국 금광 산업 주식 회사》의 경비실에서 동 회사원들인 인천시 송현동에 거주하는 정 명근(50세), 최 성준 (46세) 및 최 인호 (42

세) 등이 한담하고 있을 때 이들을 무조건 학익동 400번지 앞 토상에 끌어 내여 총탁으로 란타하여 모두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6년 8월 13일).

1956년 9월 7일 오후 3시경 서울의 《주한 미 경제 조정관》 숙소와 미국 대사관의 주택 및 창고의 경비 임무를 담당한 《맥 패든 보호사》 사장 리챠드 에취. 맥패든은 동 회사에 고용된 조 동광 등 수십 명의 로무자들이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였다 하여 조 동광을 자기 집에 감금하고 닥치는 대로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6년 9월 9일).

1956년 12월 2일 오후 5시 5분경 오 치환 (2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부산시 초량동에서 내린 미 8군 소속 2등병 로바트 엘마샬 외 2명은 료금을 요구한 운전수에게 집단적인 폭행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참상을 보고 제지하려던 조 상호와 홍 룡근에게 달려 들어 단도로써 치명상을 입혔으며 그 후 또 다시 운전수 오 치환을 단도로 마구 찔러 그에게 치명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56년 12월 4일).

1957년 3월 31일 오전 11시경 인천시에서 미군 한 명은 옥련동에 거주하는 리 근호를 무수히 구타하여 쓰러지게 하고 또 송도 정미소에 들어 와 작업하고 있는 리 중혁한테 뭐라고 말한즉 언어가 안 통하는 관계로 모른다는 표현을 하자 구타하고 또 밖에 나와서 지나가는 엿장사를 발'길로 차는 등 갖은 폭행을 다하여 란장판을 이루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 부근 주민들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문밖 출입조차 두려워하게 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7년 4월 3일).

1957년 4월 14일 경기도 파주에서 미 헌병 2명이 경향 뻐스를 무단 정지시키고 승객의 소지품을 검색하는 등으로 뻐스를 40~50분씩 지연시켰으며 심지어 부녀자의 몸까지 조사하는 불법 행위를 감행하는 한편 동일주내 다방에까지 침습하여 물건을 파괴하였다 (남조선 신문 《비판 신문》 1957년 4월 15일).

1957년 4월 16일 오전 11시 40분경 인천시 학익동에서 미군 병사 1명은 근처에 있는 《용진 농장》에 불법 침입하여 동 농장 조 정필(29세)의 뺨을 무조건 치며 총가목으로 가슴을 강타하는 등 폭행을 가하는 한편 주택을 향하여 마구 총탄을 퍼부었다(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7년 4월 19일).

1957년 4월 18일 낮 12시에 미 제 24사단 2대대 2중대 상사 크르크 데풀은 파주군 파평면 두포리 뒤'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 천 승우와 송 태철에게 엠완총을 란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놀라 도주하던 그들을 추격 체포하여 부대 초소 안으로 끌고 들어 간 후 낫을 보고 《무기를 불법 휴대》 했다는 생트집을 걸어 괭이 자루로 두부, 안면 등 닥치는 대로 구타함으로써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련합 신문》 1957년 4월 27일).

1957년 4월 25일 군산 비행장에서 미군 감시병은 비행장 부근을 지나 가는 린근 주민들에게 군견을 풀어 놓아 그들을 물어 뜯게 하여 그 중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옥경리에 거주하는 홍 순남(35세)에게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전북 일보》 1957년 5월 2일).

1957년 4월 27일 오후 8시 40분경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 룡주동 부락에서 잡화상 강 대성(33세)의 집에 미 제 24사단 34련대 3대대 소속 미군 5명이 들어와 맥주를 요구하므로 강 대성은 맥주 한 병을 주고 대금을 요구하였던바 전원이 합세하여 그를 엎어뜨린 다음 무조건 구타하여 두개골 파렬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7년 4월 30일).

1957년 4월 27일 오후 8시 30분경 파주군 주내면 룡풍리에 있는 하천 부근을 지나 가던 림 창룡 (35세), 리 순봉 (29세), 홍 봉균 (33세) 등 세 사람은 뒤에서 질주해 오던 미 화물차에서 뛰여 내린 미군 3명에게 구타 당하여 중상을 입었다.

미군은 그 후 부상 당한 이들을 높이 4메터 되는 하천 교량에서 떨어뜨리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7년 4월 30일).

1957년 4월 27일 밤 10시 40분경 미군 트럭에서 하차한 미군 1명은 파주군 광탄면 신산리 미 제 32공병대 앞 토상을 지나 가던 농민 황 종학(49세)을 비루'병으로 두부를 강타하여 부상을 입혔다. 그 후 전기한 미군은 동 트럭을 몰고 신산리 최 경천의 집 앞 토상에 이르러 그 곳을 지나 가던 류 명환(27세)을 보자 다시 하차하여 소지하였던 단도로 그의 좌측 어깨에 깊이 10센치메터의 자상을 입혔으며 계속하여 동 미군은 신산리 토상에서 지나가던 농민 라 홍선 (21세)을 마구 때려 부상을 입혔다.

이 자는 그 후에 또 파주 비행장 앞길을 지나 가던 농민 최 원경(26세), 최 수증(26세)을 만나자 하차하여 소지한 단도로 전기 량인의 안부에 깊은 자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경인 일보》 1957년 4월 30일).

1957년 5월 5일 오후 9시경 미 제 24사단 3 공병대 소속 2등병 존수원(20세)은 파주군 조리면 오산동에 사는 박 동순(40세)을 권총 자루로 무수히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7년 5월 8일).

1957년 5월 21일 남조선 신문 《인천 신보》에 의하면 인천시 신생동에서 미 헌병대 소속 미군은 연극 관람을 가는 리 봉룡(35

세)과 그의 처 우 모(29세)를 무조건 구타하여 졸도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려는 리봉룡의 제수 주 정해(24세)까지 란타하여 눈과 안면에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인천 신보》 1957년 5월 21일).

1957년 5월 25일 오후 5시 10분경 미 제 304 통신대 소속 미군 40 여명은 경기도 양주군 로해면에 있는 도봉산에 놀이를 간 김병군 외 10여명을 집단적으로 구타하여 김 병군 외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7년 5월 27일).

1957년 5월 26일 오후 6시 20분경 미군은 축현역으로부터 송도(미군 군무처 포부대)까지 택시(경기영 1121호)를 타고 가서 료금을 요구한다 하여 운전수를 단도로 위협 공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미군 소속 부대 정문 앞에서 보초를 서던 미군 1명과 합세하여 폭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 신문《경인 일보》 1957년 5월 29일).

1957년 7월 15일 미군 728 헌병대 소속 1등병 로버트 비. 홀과 미 수송단 소속 1등병 허워드 지. 스완스 및 루이기 엘. 말라떼스타 등은 부산 발 서울행 미군 렬차 내에서 지 상철(20세, 경주 고교 3년생)을 곤봉으로 무수히 란타하여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변소에 감금하였다가 왜관역 부근에서 차 밖으로 떨어뜨려 치명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서울 신문》, 《경향 신문》 1957년 7월 18일).

1957년 7월 29일 오후 5시경 서울 미 제 19 보급 부대 소속 미군 중사 큐엔터 로이스는 동 부대에 고용된 조선인 로무자 천 태칠(25세) 외 4명을 부대 내 변소 에 끌어다 감금하고 생트집을 하면서 2시간 반이나 마구 때려 그들에게 심한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조선 일보》 1957년 8월 1일).

1957년 8월 15일 오후 11시 20분경 미군 하야리야 부대 소속 헌병 하사 토리 (24세)는 부산시 부전동 골목에서 길을 비껴 서는 서 태진(34세)을 돌로 면상을 때린다음 다시 단도로 몸을 찔러 빈사 상태에 빠뜨렸다 (남조선 신문《국제 신보》 1957년 8월 17일).

1957년 9월 4일 오후 11시 30분경 김 만복(36세)이 운전하는 택시(서울영 425호)를 서울《반도 호텔》로부터 시내 서대문구 행촌동까지 타고 온 미군은 료금을 요구하는 운전수를 무참히 구타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히는 폭행을 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동아 일보》 1957년 9월 6일).

1957년 9월 18일 오전 11시경 군산 비행장 미군들은 비행장 주변 부락인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선연리에 거주하는 김 행두(60세)가 근처에서 퇴비풀을 베고 있는 것을 보고 군견을 풀어놓아 물어 뜯게 하여 무수한 상처를 입혔다 (남조선 신문《서울 신문》, 《련합 신문》 1957년 9월 23일).

1957년 9월 23일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로상을 지나 가던 미군 1명은 조선 청년 최 인준(33세)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동아 일보》 1957년 9월 24일).

1957년 10월 3일 오후 1시 30분경 대구시 신암동 미 제 16병기 중대 소속 1등병 쁘터매이와 헨리는 신암동 4구 1196번지 세기사 세탁소 앞에 세워 놓은 자전거를 아무 리유 없이 하수구에 처 넣으므로 동 세탁소에 있던 윤 영혁(26세)이 자전거를 훔치는 줄 알고 밖으로 뛰여 나오자 상기 미군 2명 중 한 명은 단도를 빼여 들고 덮어 놓고 그의 얼굴을 찔러 심한 상처를 입혔다.

그 후 그들은 이것도 부족하여 다시 동료 한명을 데리고 와서 상기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리 삼룡(신암동 4구 거주, 35세)에게 달려 들어 그의 이마, 코, 턱 등을 단도로 사정 없이 란자하였으며 발'길로 차서 그의 전신에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련합 신문》, 《경향 신문》 1957년 10월 6일, 《련합 신문》 1957년 10월 7일).

1957년 10월 14일 밤 10시 30분경 인천시 부평동 장 귀남의 집 앞 로상에서 미 제 55 부대 소속 미군 2 명은 동 부락에 거주하는 안 명복 외 3명을 무참히 란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조선 일보》 1957년 10월 16일).

1957년 10월 27일 밤 10시 반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의 오. 이. 씨. 《주한 미 경제 조정관실》 건물 앞에서 동 오. 이. 씨. 장교 구락부 소속 미군 2등병 부릭크월 외 1명은 앞을 걸어 가던 조선 녀성 김 순자를 무조건 무수히 구타하여 오른편 다리를 부러뜨렸다 (남조선 신문《동아 일보》 1957년 10월 29일, 《국제 신보》 1957년 10월 30일).

1957년 11월 2일 오후 9시 20분경 월미도에 있는 미군 68 포부대 비중대 소속 1등 중사 골스틀 이암은 인천시 해안동 미군 소방소 앞 로상에서 인천시 신생동(11번지)에 거주하는 김 영애(23세) 녀성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경인 일보》 1957년 11월 7일).

1957년 11월 7일 오전 9시경 경기도 의정부 읍에 있는 미 제 38 병기 중대 소속 2등 상사 베니스 시벨롱(32세)은 동 부대에서 일하는 자동차 기술공 한 국빈(24세)을 목공소에 감금하고 약 30분 간에 걸쳐 로쁘로 목을 졸라 매고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경향 신문》 1957년 11월 9일, 《동아 일보》 1957년 11월 10일).

1957년 12월 20일 오후 8시경 미 공군 하사 엠손 로날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미군 구락부 앞길에서 통행하는 최 길자(녀자 32세) 외 1명을 무조건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산업 경제 신문》 1957년 12월 22일).

1958년 2월 2일 경기도 화성군에서 미 제277통신 소대 소속 미군 1등병 무스 외 3명은 주민 부락에 침입하여 왕 진원(38세), 류 진용(38세), 황 해순 (녀자) 김 영희(녀자)를 무조건 란타하여 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평화 신문》, 《자유 신문》 1958년 2월 3일).

1958년 2월 25일 인천시 부평 미 제8군 항공기 수리소 소장인 토마스 지. 제임스(미군 소령)의 지휘 하에 동 소속 마빈 이. 캠프(미군 대위)와 로버트 이. 웨이든 사울(미군 상사) 등은 자기들의 장교 숙소에 구두 닦기 소년 김 춘일 (14세)을 불법 감금하고 5~6시간에 걸쳐 곤봉과 가죽 채찍으로 간악하게 구타하며 칼로 무수히 찌르고 뻰찌로 두 발톱과 머리칼을 잡아 뜯고 전기 리발기로 그의 머리를 깎은 후 머리와 얼굴에 골탈칠을 하여 나무 상자에 넣어 못을 치고 헤리콥터 (H19)에 실어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에 있는 미 제1군단 비행장에 운반하여다가 버리는 귀축 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8년 3월 2일, 《동아 일보》 1958년 3월 4일, 《서울 신문》 1958년 3월 5일).

1958년 3월 8일 오후 1시경 김포에 있는 미 공군 제 6147부대 소속 미군 중사 에드몬드 제이. 쿠차즈크, 1등병 케네트엘. 페이지, 중사 펜덜아르. 허츠, 상사 지미 에프. 허퍼는 밭에 거름을 내고 집으로 돌아 가는 리 경표 (63세,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곡리 거주)를 상기 부대 사무실로 끌고 들어 가 약 1시간에 걸쳐 곤봉으로 집단 폭행을 가함으로써 우측 륵골 2개를 부러뜨리고 얼굴, 가슴, 목, 복부 할 것 없이 전신에 중상을 입혀 실신 상태에 빠지게 한 후 철조망 밖으로 내던졌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8년 3월 13일, 《서울 신문》 1958년 3월 21일).

1958년 4월 16일 밤 11시 40분경 미 제304통신 대대 소속 미군 10여명은 서울시 룡산구 갈월동에 있는 김 모의 집에 침입하여 판자담을 파괴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집 주인의 장남 김 동철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8년 4월 8일).

1958년 4월 18일 오후 9시 30분경 미군 장거리 통신대 소속 병사 베탁 월타 외 수명의 미군은 부산시 룡호동에서 엿장사 김 판대 (31세)의 엿 1천 500환분을 먹은 다음 대금을 요구하는 그를 폭력으로 높이 20메터의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서울 신문》 1958년 4월 22일).

1958년 4월 19일 오후 8시경 인천시 학익동에 있는 미 제532부대 병사 짠스는 동 부대 구락부 밖에서 동 학익동 255번지에 거주하는 김 명순 (24세)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8년 4월 22일).

1958년 4월 24일 오후 6시 5분경 군산 미군 비행장 경비 미군 헌병들은 부근 자기 논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 가려는 김 두성(56세, 전라북도 옥구군 옥구면 선록리 거주) 로인을 아무 리유 없이 손짓으로 자기들 있는 곳으로 들어 오라고 해 놓고는 그가 접근하자 군견을 풀어 그를 물어 뜯게 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8년 4월 29일).

1958년 6월 16일 오전 11시 15분경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미 륙군 탄약 처리소에서 미군은 소형 무기 탄약을 폭발시켜 근처에 있던 6명의 민간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서울 발 1958년 6월 16일 《세계》 통신).

1958년 7월 13일부 남조선 신문《자유 신문》에 의하면 미군 사령부 소속 부평 지구 제 8057 부대 소속군 직영 상점 지배인 데일러는 조선인 종업원들에게 갖은 학대를 가하였는바 변소 용수를 음료수로 사용할 것을 강요하며 3인 이상이 모여 앉아 담화해도 이를 금지시키며 미 헌병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제멋대로 사형을 감행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1958년 7월 13일).

1959년 1월 21일 인천시 송도에서 미군 후로싸정은 조선인 조 경수 외 11명을 한데 모아 놓고 무수히 구타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9년 2월 20일).

1959년 3월 8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정류장에서 합승 택시(서울영 352호)를 탄 미군 3명은 문래동(300번지) 미 제570 부대 앞에 이르러 료금도 내지 않고 내림으로 조수 강 영길이 료금을 내라고 요구하자 그 중 미군 1명이 돌연 단도로 강 영길의 좌측 대퇴부를 찔러 중상을 입히고 모두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9년 3월 9일).

1959년 3월 16일 오후 11시 30분경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에서 미 제183 병기 대대 경비 중대 소속 미군 1명은 동 리에 있는 변 연금 외 6명의 점포와 민가에 돌을 던져 문과 유리창을 파괴하는 등 폭행을 감행하여 2만 여환의 손해를 입힌 다음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9년 3월 20일).

1959년 3월 18일 오후 11시 30분경 양주군 이담면 광암리에서 미 제7사단 34련대 소속 미군 하사 에이카는 동 부대 정문 앞을 지나 가던 18세의 녀자 최 경자를 강제로 경비실로 끌고 들어가 가위로 머리칼을 30센치메터 가량 잘라 버렸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9년 3월 22일).

1959년 4월 9일 오후 11시경 미군 304통신 부대 어니알 파카 (1등병, 23세), 아더 더블류. 벨(19세), 빌리힐빈 (1등병, 19세)및 죠

셉바릴로(상등병, 18세) 등 미군 4 명은 작당하여 서울시 룡산구 갈월동 로상에서 통행 중이던 림 희순과 임신 8개월인 그의 처 박 경자 (22세)를 구타하고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금품을 강탈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려던 김 영자를 발'길로 차서 하수도에 빠뜨려 중상을 입혔다. 그후 또다시 부근을 지나 가는 석 점만을 구타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평화 신문》 1959년 4월 11일, 미군 신문《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9년 4월 12일).

1959년 4월 14일 오산 미 공군 비행 려단 헌병대에서 공군 2등병 에미르 지.엘리스 (19세) 와 드날드 비. 다미스는 지게에 양철을 지고 가는 조선인 류 광렬(37세)을 무수히 구타한 다음 다시 군견을 시켜 물어 뜯게 하여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미군 신문 《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 1959년 4월 15일).

1959년 4월 25일 대구시 대봉동 광신 리발관 앞길에서 《주한 미 군사 고문단》 소속 미군은 지. 엠. 씨. 트럭을 타고 가면서 지나 가던 김 효석(36세)의 뒤'골을 곤봉으로 때려 파렬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대구 매일 신문》 1959년 4월 28일).

1959년 4월 27일 오후 10시 30분경 미군 하사 베튼은 조선 녀성 2명을 데리고 동인천 발 학익동행 합승 택시에 탔는바 옆에 탄 인하 공대 학생 림 서규, 리 회진 등이 이를 보았다 하여 종점인 학익동 430번지 앞길에 이르자 거기에 있는 미군 4명을 불러 내여 5명이 합세하여 두 학생을 집단 구타하였다. 그들은 두 학생에게 중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려던 리 성재와 리 기승도 구타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인천 신보》 1959년 5월 1일).

1959년 5월 13일 밤 11시 30분경 미군 5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미 제 728 헌병대 앞 로상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택시 (서울영 5 464)에 침입하여 운전수 김 달수(36세) 와 조수 황 순영 (20세) 외 승객 2명을 집단적으로 구타하여 그들에게 부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평화 신문》 1959년 5월 15일).

1959년 5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양주군 로해면 도봉리에서 미군 20명은 길 가던 조선인들이 자기들을 쳐다 본다고 집단 폭행을 감행하여 그 중 구 회익(39세), 김 종만 (33세), 조 재근 (25세)등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동아 일보》 1959년 5월 31일).

1959년 6월 14일 오전 9시 반경 인천 외항 해상에 정박 중이던 미 수송선 하와이안 후리시멘호에 《공무 집행차》로 올라간 제 7호 통선 선장 석 정운을 본 동선 승무 미국인 싸알이스 앤더슨 (28세)은 무조건 가라고 호통을 치면서 식도로 석 정운의 손목을 내려쳐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인천 신보》 1959년 6월 16일).

1959년 6월 17일 밤 10시 30분경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에서 미제 8군 17포대 비 중대 중대장 오리보 외 6명의 미군은 자기 부대 1등병 천 들로를 시켜 군용 목재를 절취 매각하려다 발각되자 이는 부락민들의 밀고에 의한 것이라고 생트집을 걸어 그곳 주민 김 진득 외 7명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한편 부근 주택을 파괴하였다(남조선 신문《자유 신문》 1959년 6월 19일).

1959년 6월 23일 오후 5시 30분경 미 제 1기갑 사단 헌병 중대 하사 스케 플조(30세) 외 6명은 리 운춘 (40세,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금곡리 거주)의 집에 몰려가 제멋대로 가택 수색을 하려는 것을 주인이 《한국 경찰》과 같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서 수색에 불응하자 그를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인천 신보》 1959년 6월 25일, 《평화 신문》 1959년 6월 26일).

1959년 7월 21일 오후 10시 10분경 경부선 구포역을 떠나 사상으로 달리고 있던 제 62 렬차 (미군 화물 렬차) 승무 미군 경비병은 철'길 옆을 걷고 있던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면 사두리에 사는 김 종판 (33세)에게 돌을 던져 안면에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9년 7월 23일).

1959년 8월 1일 오후 5시 반경 트럭(지. 엠. 씨.)을 타고 가던 미군은 경기도 시흥군 동면에서 논으로 일하러 가는 강 룡환(54세)을 보자 차를 세우고 하차한 다음 그를 무조건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9년 8월 2일).

1959년 8월 1일부터 13일 간에 충청남도 천안군 성환면에 있는 미군 탄약창 소속 미군은 천안군 직산면 판정리 주민 지역에 탄약 폭발장을 설치하고 폭탄을 폭발시킴으로써 류 인현(18세, 천안군 립장면 흑암리 거주) 외 수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대전 일보》 1959년 8월 23일).

1959면 8월 4일 오후 4시경 미 제 1기갑 사단 19 야포 2중대 소속 미군 중사 마빈 안토니 (33세)는 경기도 파주군 당속리에서 임신 8개월의 조선 녀자 박 애주 (24세)를 닥치는 대로 구타하여 락태시키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9년 8월 7일, 《서울 신문》 1959년 8월 8일).

1959년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조선 녀성을 릉욕할 목적으로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 안정리 일대를 싸다니던 미 케이 6 비행장(평택 비행장) 소속 미군 1등병 죠지 씨.시나베리와 1등병 노리스 이. 맥크렌은 김 경임(32세)의 주택에 방화하여 동 주택과 린근 주택 3동을 전소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경

인 일보》 1959년 9월 1일).

1959년 9월 20일 오전 10시 20분경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문산리를 떠나 서울을 향하여 달리던 제 194 려객 렬차에서 미 제 1 사단 소속 미군 헌병 칼넷(19세)은 돌연 기관차에 뛰여 들어 기관사에게 권총 8발을 발사 위협하여 문산으로 되돌리게 하였으며 이 렬차를 20분 간 강제로 정차시켰다 (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1959년 9월 21일, 《서울 신문》 1959년 9월 22일).

1959년 10월 9일 오전 9시 45분경 미 제 44 공병대 소속 미군 2명은 인천시 도원동에 거주하는 박 동식이 운전하는 택시 (경기영 42호)에 타고 목적지인 인천시 산곡동에 있는 미 제 44 공병대 8057 부대 앞 로상에 이르자 동 택시 운전수를 무수히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서울 신문》 1959년 10월 11일).

1959년 10월 10일 밤 미 제 4 유도탄 사령부 소속 1등병 대리엘 스나이더는 춘천시 소양로 박 찬식의 상점에 침입하여 칼로 그를 찔러 중상을 입히고 점포 내에 있는 린근 주민들을 협박하였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1959년 10월 13일, 《동아 일보》 1959년 10월 14일).

1959년 10월 19일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 (55번지) 앞 로상에서 미군 크트민트이로 (34세)는 조선 녀성 김 춘자 (29세)를 무조건 구타하였으며 이를 목격하고 폭행을 제지한 리모까지 구타하여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9년 10월 20일).

1959년 11월 21일 오후 1시 50분경 경상남도 김해군 록산면 신양리 앞 로상에서 찦차를 몰고 질주하던 미군 2명은 학교에서 돌아 오는 허 금순 (11세)과 최 명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혀 쓰러지게 한 후 실신 상태에 빠진 소녀들을 길 옆에 끌어다 내던지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59년 11월 22일, 《한국 경제 신문》 1959년 11월 23일).

1959년 12월 31일 밤 10시경 미 제 7 사단 40 전차 대대 2중대 중대장 토마스 에취. 존 대위는 하사관 2명으로 하여금 막사의 철조망 근처를 지나가던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가릉리 고동'골에 거주하는 박 화자(20세)와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생연리에 거주하는 윤 순자 (25세) 량인을 유인하여 캄캄한 창고에 몰아 넣게 하고 가죽채가 부러지도록 때린 다음 녀자의 옷을 벗기고 동과 하반신에 황색 뼁끼칠을 하여 밤 11시 반경에 부대 밖으로 내쫓았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0년 1월 19일).

1960년 1월 2일에는 미 제 7사단 2 중형 땅크 대대 씨 중대장 존 더블유. 맥케너리 대위 (37세)와 그의 일당은 동두천에 거주하는 김 순애(30세)와 김 정자(22세)의 두 녀성을 병사에 유인하고 그들의 머리를 몽땅 깍아 버렸다.

이때 미제 침략군 10명은 무리를 지어 이 참경을 보고 희희락락거리며 그 녀성들을 희롱하던 끝에 그대로 거리에 내쫓았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0년 1월 5일).

1960년 1월 21일 밤 1시경 미 제 1기갑 사단 부근 《매매조리》 부락에서 미군 3명은 박 주봉 (31세)과 윤 기만(27세)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여 두부와 안면에 파렬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0년 1월 23일).

1960년 2월 9일 밤 8시 30분경 최 석정(28세)이 운전하는 택시 (경남영 1336호)에 타고 하야리야 미군 부대 앞에서 중앙 국민학교 앞까지 온 미군 3명은 승차료를 내기는 고사하고 뒤'골목까지 차를 강제로 몰게 한 다음 운전수에게 무조건 집단 폭행을 가하였으며 차 유리 2매까지 파괴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60년 2월 12일).

1960년 2월 12일 밤 10시 30분경부터 13일 량일 간에 걸쳐 미 제 44 공병 부대 비 중대 소속 미군 윌리암 제이. 리, 잔 엠. 로렌츠, 프란시스 제이. 트로스틀 리챠드디. 화이트, 로렌스 로즈므스, 죠지 아이. 웨인 퍼트네 등 7명은 부산시 중앙동 3가 26 번지에 거주하는 공 진수, 최 영희, 진 덕수, 문 응렬, 김 영택, 로 팔수, 유 호박 등을 부당하게 체포하여 칠곡군 왜관동 미군 부대 경내에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잔혹한 폭행을 가하였다. 미제 침략군 일당은 체포한 조선 사람들을 추운 날 발가 벗긴 후 열자나 넘는 구덩이에다 몰아 넣고 총탁과 몽둥이로 때려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어 정신이 회복되게 하고 또 란타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피해자들이 소지했던 손목시계를 비롯하여 현금 1만2,000환과 의복 및 기타 물품을 전부 빼앗고 라체로 바깥에 추방하였다(남조선 신문《세계 일보》 1960년 2월 24일, 1960년 2월 26일, 《서울 신문》 1960년 2월 24일, 3월 1일).

1960년 2월 20일 오전 10시경 경상북도 금릉군 농소면 립석동에서 미 제 5 자동차 수송 대대 공군 1등병 마이클 이. 매크버스는 고속도로 트럭을 몰고 달리다가 20여 명의 승객을 태운 《경북영 1282호》 뻐스를 뒤로부터 들이받아 높이 5메터되는 곳에서 전복 추락시켜 승객 최 순이(55세) 외 7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4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대구 일보》 1960년 2월 21일, 《조선 일보》 1960년 2월 23일).

1960년 2월 25일 오후 9시 40분경 미군 프리스(22세)와 웰크스 (21세)는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77번지) 앞길에서 지게'군 최 두식(34세)과 설 기환(64세)을 까닭없이 구타하여 실신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60년 2월 26일).

1960년 2월 26일 밤 9시경 왜관에서 미 제 44 공병 부대 비 중대 (상술한 2월 12일 사건을

발생시킨 부대) 소속 미군 병사 4명은 왜관 미군 린치 사건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같은 방법으로 같은 장소에서 만행을 감행하였는바 미군 병사들은 왜관읍 8구 8반에 거주하는 도 원희(19세)와 동 리에 거주하는 문 태랑(28세), 권 시섭(20세), 고 재원(19세) 등이 도 원희의 집에서 놀고 있는 것을 강제로 부대 내에 끌어다가 빈 통조림통 버리는 구덩이에 밀어 넣고 벌거 벗긴채 찬물을 끼얹고 구두'발로 차는 등 잔인하게 집단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세계 일보》 1960년 3월 13일).

1960년 3월 16일 오전 6시 반경 미 제 8군 320병기 중대 소속 미군들은 교량의 부하 능력도 고려하지 않고 50톤급 땅크를 실은 대형 트럭을 몰고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동 구로교를 지나 가다가 다리를 파괴하였으며 이때 다리를 건너 가고 있던 택시까지 추락시켜 운전수 박 창규 외 승객 6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련합 신문》, 《조선 일보》 1960년 3월 16일).

1960년 4월 3일 미군 상사 1명은 인천시 산곡동 2통 2반에 거주하는 리 종업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에서 세'방살이를 하고 있는 임신 3개월된 박 영숙을 무조건 구타하고 그것도 부족하여 길'가로 끌고 나와 다시 구타하여 실신 졸도케 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경인 일보》 1960년 4월 6일).

1960년 5월 14일 밤 11시 30분경 미 제 802 부대 소속 스미스 게리 (군번 1962986) 외 4~5명의 미군은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세리 네거리에서 지나가는 김 석룡(31세)과 그의 친구 김 모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후 무수히 구타하여 륵골을 부러뜨리고 실신케 하는 치명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미화 111딸라와 손시계를 비롯한 거액의 금품을 강탈하였다(남조선 신문 《평화 신문》 1960년 5월 25일).

1960년 6월 30일 인천 미 항만 사령부 소속 선박 부대 엘. 씨. 유. 1255 선장 미군 중사 도마트는 동 선박 종업원 리 남종이 자기 봉급이 적게 나왔기에 문의한즉 그를 선장실로 끌고 들어가 무수히 구타 치상케 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0년 7월 1일).

1960년 7월 12일 오후 4시 10분경 인천시 문학동 미 공병 부대 병사들이 주민 부락 부근에서 고성능 폭발물을 폭파시킨 결과 폭발물이 문학동 산 25번지에 있는 리 전종(28세)의 집 지붕을 뚫고 들어 가 그의 처 박 정례의 안면에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0년 7월 17일).

1960년 7월 28일 오후 10시경 경기도 평택군 송탄면 지산리 좌동에 있는 사진관 앞 토상에서 케이 55 기지 사령부 6314 헌병대 소속 상등병 레이는 길 가는 임신부 박 정순(29세, 지압동 거주)을 란타하여 많은 상처를 입혔으며 류산까지 하게 하였다(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1960년 8월 5일).

1960년 9월 3일 밤 12시부터 4일 새벽까지에 걸쳐 미 제 97 공병 보급소 소속 미군 40 여명은 인천시 산곡동 조선인 부락에 불의에 침입하여 가옥을 파괴하는 등으로써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산곡동 1번지에 거주하는 리 상구 (28세)와 산곡동 2통 15반에 거주하는 김 애란(27세)에게 칼과 맥주병으로 전치 1개월 여의 중상을 입혔으며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기 매일 신문》 1960년 9월 7일).

1960년 9월 26일 경기도 평택군 서정리 미 제 55 기지 로무자 박 길상(33세)은 이날 오후 2시경 점심 식사를 끝내고 작업장으로 가는 도중 미 헌병이 뒤'문에 세워 있는 차를 치워 달라고 하기에 동 트럭을 운전하여 정문에다 정차시켰는데 미군 헌병대 조사계장 상사 맨티스는 교통 규칙 위반이라고 그를 련행 류치 감금하고 무수히 구타하여 타박 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1960년 10월 26일).

1960년 10월 16일 오후 4시 30분경 군산 지구 미 공군 파견대 조사계장 알빙은 군산시 금동 6번지 자기 집 앞 토상에 세워둔 자동차 주변에서 놀았다는 리유로 같은 동에 거주하는 리 롱희의 장남 리 장근(7세) 어린이를 란타하여 왼팔을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60년 11월 5일).

1960년 10월 29일 미 해군 병사 3명은 부산시 초량동에서 길 가는 조선 청년 박 경식을 구타하여 얼굴에 심한 부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60년 10월 30일).

1960년 10월 31일 오전 9시경 미 제 54 공병대 소속 1등병 곽스 외 30 여명의 미군은 인천시 부평동에 있는 백마 당구장에 침입하여 당구를 놀던 고 세택 (35세, 산곡동 거주)을 비롯한 10 여명에게 무조건 집단 폭행을 가하여 그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0년 11월 2일).

1960년 12월 8일 오후 9시 10분경 미 해병 3명은 부산시 초량동 《텍사스》 골목으로부터 해운대까지 택시 (경남 영 1839호)를 타고 가서 운전수 강 창준(35세)과 조수 김 홍동(21세)이 승차 료금을 요구하자 료금을 지불할 대신 준비하였던 쇠몽치로 그들을 무수히 구타하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부산 일보》 1960년 12월 9일).

1961년 2월 27일 오후 1시 45분경 미 공군 장교 외 3명은 김포 비행장에 취재하러 간 《코리안 리퍼브릭》 신문사 기자 김 근택을 사무실로 끌고 들어 가서 사진기를 빼앗고 카빈총으로 위협하여 량 손을 들고 벽을 향해 돌아

서게 한 다음 집단 구타하여 중태에 빠뜨렸으며 그의 옷까지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남조선 신문《한국 일보》 1961년 3월 28일).

1961년 4월 2일 오후 2시 반경 미 공군 802 공병대 씨 중대 소속 하바드 웰링은 군산시 금호동 공회당 앞 로상에서 김제군 김제읍에 거주하는 박 광희(26세)를 릉욕하려고 강제로 끌고 가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 가던 리 병희에게 저지 당하자 그의 안면을 란타하여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삼남 일보》 1961년 4월 4일).

1961년 4월 27일 오전 4시 15분경 서울발 부산행 제 61 렬차가 경상남도 밀양군 삼랑진 역에 도착하였을 때 이 렬차에 탔던 미군 헌병 제 728부대 소속 중사 스코트는 환차 작업에서 충격이 심하다는 터무니 없는 트집을 잡아 기관사 리 진춘(31세)에게 달려 들어 곤봉으로 무조건 두부를 구타하여 파렬상을 입혔고 동 렬차를 3시간 이상 연발케 하였다(남조선 신문《경향 신문》 1961년 4월 28일).

1961년 5월 1일 오후 10시경 미군 제 16병기 중대 소속 1등병 리차드 엘 벨과 미군 대구 지구 헌병대 소속 1등병 비티는 대구 시내 향촌동《대륙 당구장》 앞 로상에서 행인 김 순일(25세)에게 달려 들어 단도로 그의 허리를 마구 찌르고 깨여진 맥주병으로 머리를 후려 갈겨 치명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령남 일보》 1961년 5월 3일).

1961년 8월 28일 미군 제 51 통신 대대 소속 1등병 해리. 이. 우드는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에 있는 한 상점에 들어 가서 상품을 탈취하려다가 상점 점원 박 홍연에게 저지 당하자 도리여 그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조선 일보》 1961년 8월 30일).

1962년 3월 4일 오전 11시 40분경 미군 2명은 경기도 시흥군 동면 덕산리에서 길가던 김 재권(35세)에게 미친듯이 달려 들어 란타하여 치명상을 입힌 다음 정신 잃은 그를 하수도 구멍에 처넣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경향신문》1962년3월 6일).

1962년 5월 30일 경기도 평택 지구에서 남조선 강점 미군 페리슨은 군용견을 추겨 평택군 송탄면 신장리에 거주하는 조선 농민 신 덕선을 30 여개소나 물어 뜯게 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62년 6월 8일).

1962년 6월 6일 밤 11시 30분경 미군 제 32 포대 소속 중사 그랜드(34세)는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마산리에서 자기가 이미 약속한 차량 도색 공사 청부 알선 리행을 요구한다 하여 조선 녀성 박 정희(33세)를 구두'발로 짓밟아 치명상을 입혔다(서울발 1962년 6월 7일 《동양》 통신).

1962년 7월 15일 서울시 룡산구 남영동에서 미군 한 명은 당지에 거주하는 리 모 녀성의 집에 침입하여 그에게 란행을 감행하려다가 항거에 부딪치자 무조건 때린 후 2층에서 내던져 전신에 타박상을 입히였다(남조선 신문《동아 일보》1962년 7월 16일).

1962년 8월 3일 경기도 부평에 있는 미 제 8057 부대 소속 미군 5명은 지나가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이르자 택시 료금 지불을 요구하는 운전수 리 인석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경향 신문》 1962년 8월 3일).

1962년 9월 15일 부산 지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스티븐슨이란 자는 저들의 부대에 고용되여 있는 윤 병갑을 무조건 감금해놓고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62년 9월 19일).

4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상시적으로 인민들의 재산 및 재물을 략탈하며 파괴하고 있다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부락을 포위하고 가장 집물을 략탈하는 한편 백주에 상점에 침입하여 상품을 강탈하고 도주하며 민가에 습격하여 재물을 략탈하며 로상에서 행인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탈하는 등 각종 범죄 행위를 꺼리낌 없이 감행하고 있다.

1953년 9월 27일 오후 7시 40분경 서울시 종로 4가 83번지에 거주하는 남 상일 (82세)의 시계포에 3명의 미군이 찝차를 타고 와서 점포 진렬장을 파괴하고 시계 두개를 강탈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3년 9월 29일).

1953년 11월 22일 오후 7시 15분경 서울에서 부평까지 류 태옥 (49세)의 택시 (서울 2016호)를 타고 가던 미군은 로타리에서 돌연 단도를 빼들고 운전수를 협박한 후 그를 차창 밖으로 밀어 던지고 택시를 강탈하여 영등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3년 11월 24일).

1954년 2월 5일 오후 6시경 부산시 북방 6키로 700메터 지점 철도 연선에 부설되여 있는 미군 송유관에서 발화하여 방적 기재 109대를 비롯하여 다량의 전기 시설 부속품과 된장 등을 만재한 화물 렬차가 소각되였는바 그의 피해액은 약 1억 환에 달하였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4년 2월 8일).

1954년 4월 21일부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에 의하면 미 제 5 공군 당국은 남조선의 대 어장의 하나인 칠산 어장의 한 가운데 있는 대소형 제도에 폭격 연습장을 설치하고 어로 작업을 금지시킴으로써 수만 명에 달하는 이 부근 어민들의 생활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4년 4월 21일).

1954년 7월 15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원곡리에 설치된 미군 송유관에서 류출된 휘발유에서 발화하여 김 국진 외

2명이 소사되였으며 부근 전답 4천 800 여평의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다 (남조선 신문《한국 일보》, 《평화 신문》 1954년 7월 18일).

1954년 8월 4일부 남조선 신문 《민주 신보》에 의하면 경상남도 김해군 대저면 덕두리에서 미 제 503 공병 기지 사령부 소속 미군이 살포한 독약에 의하여 20 여 정보의 벼가 전멸 상태에 이르게 되였으며 주민 20 여명이 심하게 중독되였다 (남조선 신문 《민주 신보》 1954년 8월 4일).

1954년 10월 9일 오후 10시경 미군은 서울시 성동구 신당동에 있는 채 규선의 상점에 침입하여 채 규선을 쇠절구로 란타하여 사망케 한 후 담배 11갑과 현금 150 환을 략탈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4년 10월 12일).

1954년 11월 4일 오전 7시 40 분경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천촌 간 지점에서 철도 연선에 부설해 놓은 미군 송유관이 폭발하여 동 지점을 통과하던 제 872 렬차에 인화됨으로써 동 렬차의 객차 3량이 소실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 대학교 공과 대학 학생 리 준원 외 2명이 소사되고 3 명의 기관차 승무원이 중상을 입었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경향 신문》 1954년 11월 6일).

1955년 1월 28일 밤 2시경 미군 2명은 부산시 동구 범일동 8통 2방 홍 순정 (녀자, 31세)의 집에 침입하여 라이타로 주택에 불을 질러 막대한 피해를 준 후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민주 신보》 1955년 1월 30일, 《평화 신문》 1955년 2월 6일).

1955년 2월 15일 낮 12시 20분경 서울시 룡산구 동이촌동 296 번지에 있는 미군 송유관에 미군 2명이 화재를 일으킴으로써 삽시간에 부근 주택 5동을 전소케 하고 김 원남 (남자, 2세), 김 기남 (녀자, 5세), 로 상원 (남자, 7세), 한 도익 (녀자, 16세) 등 4명의 어린이가 불에 타 죽고 박 순안 (녀자, 30세) 등 5명이 심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55년 2월 16일, 《경향 신문》 1955년 2월 17일).

1955년 3월 13일부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에 의하면 미군은 1952년 8월 전라남도 광산군 서창면 농민들의 농토 80 여 정보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군용지》로 강제 징발한 후 1955년 3월 현재까지 이 농토를 황폐화시키면서도 반환하지 않았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5년 3월 13일).

1955년 5월 1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미 414 부대 소속 1등병 라니하지상은 부산시 초량동 400 번지에 사는 김 길자(녀자, 25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실신케 한 후 라지오를 비롯한 금품을 강탈하여 가지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민주 신보》 1955년 5월 4일).

1955년 5월 19일 오전 11시 40 분경 부산시 동구 좌천동 철도 연선에 설치된 미군 송유관의 파렬로 인한 화재로 린근 주택 7동이 전소되고 2동이 반소되였으며 3명의 사망자와 2명의 중상자를 내였다 (남조선 신문 《민주 신보》 1955년 5월 20일).

1955년 7월 20일 오후 3시 30 분경 부산시 전포동 철교 토상에서 미 제 24 사단 19 련대 소속 미군 1명은 토상에서 양담배를 팔고 있는 리 창성에게 양담배를 팔겠다고 하면서 달려 들어 미화 2딸라를 탈취하여 가지고 뛰다가 동 철교상을 걸어 가는 정 인석(양정동 거주)을 언덕으로 떨어 뜨려 즉사케 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5년 7월 27일).

1955년 8월 9일 오후 11시 40 분경 미군은 부산시 범전동에 있는 성지 국민 학교에 섬광탄과 음성탄을 발사하여 동교 교사를 전소시킴으로써 1천 500 여만 환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5년 6월 11일).

1956년 4월 1일 새벽 4시경 미군 1명은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내정 부락 김 영혜(56세)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6만 6, 500환과 의복류 15점을 강탈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조선 일보》, 《중앙 일보》 1956년 4월 3일).

1956년 7월 27일 미군 병사 모리스 긴조라는 인천시 숭의동 438번지에 거주하는 장 성권(42세)의 집에 침입하여 부엌에다 휘발유를 들이 부어 방화하였다.

그로 인해 가옥이 전소되였으며 방에서 자고 있던 장 성권의 모친 김 선하(72세)와 장녀 금례 (11세), 차녀 금선 (7세), 4녀 금만(2세)은 소사되고 장 성권의 처와 그의 3녀가 중화상을 입었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6년 7월 28일).

1956년 8월 7일 미군 3명은 경기도 김포군 양동면 신당리에 있는 고 인길의 집에 침입하여 고 인길을 구타하고 중상을 입혀 쓰러지게 하였으며 그의 처도 구타 위협한 다음 현금을 비롯한 금품 일체를 략탈하여 가지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6년 8월 10일).

1956년 8월 11일 오후 4시 30 분경 《36 지피 547 이》의 표식을 단 6대의 트럭에 분승한 미군 70 여명은 경기도 양주군 로해면 도봉리 도봉산에 이르자 부근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잡화 상점들과 주택들에 침입하여 잡화상의 물건 거의 전부를 트럭에 싣고 도주하는 집단적 강도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6년 8월 13일).

1956년 9월 18일 밤 12시경 백색 복면을 하고 단도를 든 미군 1명은 경기도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에 거주하는 리 병성의 집에 침입하여 옆방에서 자고 있는 녀성 명 심순 (25세) 의 가슴에 칼을 대고 떠들면 찌르겠다고 위협한 다음 금품들을 강탈하여 가지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56년 9월 20일).

1956년 11월 5일 오후 11시 40분경 대구시 교동에 거주하는 리 강덕이 운전하는 짚차를 타고 가던 미군 1명은 전기 리 강덕 운전수가 대구시 교동에 이르러 자기 누이집 앞에 차를 멈추고 잠간 들렸다 나오는 기회를 리용하여 동 짚차를 몰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대구 일보》 1956년 11월 7일).

1956년 11월 7일부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에 의하면 서울시 중구 소공동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무역상 알.더블류.히킨스는 《대한 산업》서 홍석에게 미국제 각종 자동차 엔징 84대를 매도해 준다고 꾀여 가지고 그 대금을 략취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6년 11월 7일).

1956년 11월 16일 오후 6시 반경 미군 2명은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08번지의 2에 거주하는 리 종천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시 영등포구 로량진동 25번지까지 와서 차비를 줄 대신 도리여 권총으로 그를 협박하고 현금 1만 500환을 강탈하였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56년 11월 18일).

1956년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경 미 제 7 사단 32 련대 소속 2등병 다레스오일 (20세) 과 1등병 왓슌 에아니스트 (20세) 는 리 석락 (47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서울시 영등포구 대방동 영등포 중학교 부근 로상에 이르렀을 때 돌연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리 석락의 얼굴을 란타하여 치명상을 입힌 후 현금 4,800환을 강탈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6년 11월 21일, 《한국 일보》 1956년 11월 19일).

1956년 12월 2일 오후 6시 45분경 미 제 501 통신 대대 소속 미군 3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347 번지에서 라지오상을 경영하는 김 현상 (32세) 의 집에 침입하여 라지오를 팔겠다고 하고 110 딸라를 받아 가진 후 주인을 무수히 구타하고 돈과 라지오를 다 가지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6년 12월 4일).

1957년 4월 12일 오후 9시 30분경 미 제 728 헌병대 소속 헌병 상사 죤피.월슨은 미군 피.엑스 (미군 직영 상점) 물자 수송 렬차의 호송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을 기회로 서울시 중구 동자동에 거주하는 리 강식 외 수명에게 물품을 팔기로 하고 우선 그들이 소지하였던 《한화》 40만 환과 미화 100딸라를 받아 먹고 상기 물자를 수송 렬차에서 절취하여 내주고는 그것이 탄로될 위험이 있게되자 상기 리 강식 외 수명에게 렬차를 습격한 강도의 누명을 들씌워 전부 죽여 버림으로써 자기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그들을 쏘아 리 강식을 즉사케 하고 김 유도, 유 승현에게 중상 (다른 수명에게도 사격했으나 명중되지 않았다)을 입혔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7년 4월 19일, 1957년 4월 20일, 1957년 4월 21일, 《동아 일보》 1957년 4월 19일, 1957년 4월 21일).

1957년 4월 14일 오후 10시 30분경 미 제 812 보급 중대 헬 난데드와 크락이클 등 미군 3명은 택시 경남 영 1946호 차를 타고 가다가 부산시 대연동 《유엔군 묘지》 앞에 이르자 차를 멈추게 한 다음 갑자기 운전수 김 종만(29세) 에게 덤벼 들어 그의 목을 졸라 매서 차 밖으로 밀어 뜨리고 현금 3,000환과 택시를 강탈하여 가지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7년 4월 17일, 《동아 일보》 1957년 4월 19일).

1957년 4월 16일 오후 7시경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서 미 제 24사단 헌병대 소속 하사 게레스는 연풍리 룡주동에 거주하는 구두닦기 소년 윤 복룡 외 3명으로부터 양담배 두 보루를 사 주기로 약속하고 5딸라를 받아 횡취하였다.

그 후 전기 소년들이 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적반하장격으로 마구 구타하여 중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중대장 스미스는 자기 대원 80명을 총 동원하여 룡주동 부락을 불법 포위한 후 185세대를 일제 수색하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 보자기, 밥그릇까지도 모조리 군수품이라고 규정하고 총 2,324점의 재물을 략탈하는 강도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동 부락 주민 70명을 불법 구속하였으며 수일 후 또다시 600명의 주민을 불량배라는 루명을 씌워 강제 추방하는 천인 공노할 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조선 일보》 1957년 4월 23일).

1957년 4월 16일 오후 10시 40분경 미 제 19 병기 부대 소속 미군 3명은 인천시 산곡동에서 곽 하렬 (30세) 의 점포를 비롯하여 4동의 집을 무조건 파괴하는 한편 곽 하렬과 임신 만삭된 김 분이를 구타하여 치명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1957년 4월 20일).

1957년 4월 22일 오후 6시 30분경 파주군 림진면 선유리에서 미 제 24사단 소속 미군 7명이 작당하여 윤 재용이 경영하는 시계점을 습격하고 진렬장 유리창을 파손 한 다음 녀자용 시계 3개와 남자용 시계 8개를 강탈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련합 신문》 1957년 4월 25일).

1957년 4월 24일 밤 12시경 경상북도 청도 역에서 미 군용 제 124 렬차를 호송하던 미군 헌병 1명은 부산에서 거주하는 정 승표, 배 승천, 박 칠성 외 2명에게 치명상을 입힌 후 정 승표가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 일체와 현금 1만 2,000환을 강탈하였다 (남조선 신문 《대구 일보》 1957년 4월 26일, 《련합 신문》, 《국제 신보》 1957년 4월 27일).

1957년 4월 26일 밤 9시 반경 파주에서 미 제 24사단 헌병 글

로 (20세) 와 동 사단 직영 상점 (피 엑스) 소속 코피 (19세)는 심심풀이로 《서울 리발관》에 돌팔매질을 하고 유리창들을 발로 차서 파괴하는 등 행패를 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7년 4월 28일).

1957년 4월 26일 밤 10시경 파주군 주내면 연풍리에서 미 제24사단 헌병 중대 소속 트러우외 1명은 김 기석의 점포에 침입하여 진렬장을 발'길로 차서 파괴한 후 녀자용 뿌로치 2개를 강탈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련합 신문》 1957년 4월 29일).

1957년 5월 27일, 29일부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에 의하면 경기도 파주군에서 미군은 파주군 적성면 서부 일대의 500 여 정보에 달하는 농경지를 작전상 필요하다는 구실 하에 강제 징발함으로써 1, 300 여명 (300세대)의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7년 5월 27일, 1957년 5월 29일).

1957년 6월 23일 오전 10시 15분경 부산시 수정동 78번지에 있는 미군 송유관의 발화에 의하여 부근 민가 150 여세대가 전소되고 권 정숙 (녀자, 5세), 김 영출 (남자, 27세) 등 37명이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30 여명의 중화상자와 2,000명의 리재민을 내였다 (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 1957년 6월 26일, 《동아 일보》 1957년 6월 25일).

1957년 8월 23일 오후 9시 반경 송유관을 경비하던 케이 보안 경비대 소속 미군 2등병 개입스 소니비 (22세) 와 론도르 바비제이 (18세) 는 인천시 중외동 (425번지) 에 사는 왕 명수(33세)의 상점에 불의 침입하여 엠완총과 대검으로 왕 명수를 위협하고 돈 5, 000환과 다량의 물품을 략취하였다(남조선 신문 《자유 신문》 1957년 8월 26일, 《인천 신보》 1957년 8월 25일).

1957년 8월 29일 오후 2시 40분경 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산정리 부근에 설치된 미군 송유관이 파렬 발화하여 부근 가옥 1동이 전소되고 1동이 반소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 종철(4세)외 2명이 소사되고 2명이 중화상을 입었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자유 신보》 1957년 8월 31일).

1957년 9월 20일 군산 비행장 미군들은 린근 주민 김 순래(63세)가 미군이 자기 집 소를 끌고 가므로 소를 돌려 달라고 하자 군견을 풀어 물게 하여 상처를 입혔다(남조선 신문《동아 일보》, 《경향 신문》 1957년 9월 24일).

1957년 10월 20일경 아르. 후러드 에프. 드빼안트 (33세)와 빼이너(25세)의 2명은 미국 은행 하와이 지점 보증 수표 용지로써 도합 1만 9, 400딸라의 위조 수표를 만들어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에 거주하는 손 문선(32세)과 《한화》 1 천 695만 4,000환을 교환하여 가지고 도주하는 사기 행위를 감행하였다(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57년 11월 12일).

1957년 10월 24일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미 제 1기갑 사단 19련대 에이 중대 소속 2등 상사 배러케이 톡가(31세)와 2등병 에뻴로 아르. 쏘스만(25세)은 빈깡통 10개에 밀'가루를 넣어 《커피》라고 가장하여 주민 조 신억(27세, 파주군 월현면 법원리 거주)으로부터 미화 100 딸라, 《한화》 16만 환을 받고 팔아 먹는 사기 행위를 감행하였다(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7년 11월 9일).

1957년 10월 28일 오후 9시경 경기도 파주 미 제 1기갑 사단 20야포 대대 2중대 소속 1등병 비키스데이는 양담배 빈갑 속에 밀'가루를 넣어서 양담배라고 속이고 박 영규 (47세, 파주군 주내면 파주리 260번지 거주)에게 팔아 먹었다. 그 후 박 영규가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오히려 그를 무참히 구타하여 웃'이 4개를 부러뜨리고 머리에 타박상을 입혔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7년 11월 3일).

1957년 11월 3일 오후 인천시 부평 지구 산동 부락에 침입한 미군 강도 2명은 유 경선(37세)을 살해하고 현금 5, 200환을 강탈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경향 신문》 1957년 11월 6일).

1957년 11월 29일 오후 5시경 인천시 옥련동 일대를 싸다니던 미군 3명은 심 정섭의 집 나무낟가리에 신호탄을 던져 불을 지르고 도주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인천시 옥련동에서 렵총을 가지고 싸다니던 미군 수명이 거리에서 총질을 하여 닭을 잡아 가지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57년 12월 4일).

1957년 12월 13일부 남조선 신문 《련합 신문》에 의하면 서울 반도 호텔에 잠복하고 있던 미국인 윌리암 헨리 레이노와 레이몬드 에이. 랜드너, 윌리암 에드워드 레드윅, 알프레드 부라이언드, 헨리 에프. 코베트 등은 약 20만 딸라의 미국 은행 보증 수표와 미국 국제 은행 보증 수표를 위조하여 딸라 암시장에서 사기 판매함으로써 거액의 폭리를 취하였다 (남조선 신문 《련합 신문》 1957년 12월 13일).

1958년 1월 10일 오전11시 40분경에 한 미군은 부산시 범일동 미금당 시계점에 침입하여 백주에 시계를 절취해 가지고 도주하다가 시계점 주인 림 상기가 추격해 오자 오히려 그를 란타하여 머리와 허리에 중상을 입히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국제 신보》1958년 1월 12일).

1958년 1월 28일 오전 9시경 미 제 8군 사령부 장거리 통신 가설대 씨 중대에 근무하는 미군 1등 중사 란즈 외 3명은 전라북도 리리 전신 전화 건설 관리국 관할 전선(동선) 1, 700메터 (시가 약 20만환)를 절취하였다 (남조선 신문 《전북 일보》 1958년 1월 30일).

1958년 5월 27일 오후 9시경

미 제 20병기 중대 소속 아렌 (22세) 외 1명의 미군은 서울시 룡산구 리태원동(22번지) 앞 로상에서 통행 중이던 행상 박 경옥 녀성에게 달려 들어 현금 6만환을 강탈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동아 일보》1958년 5월 30일).

1958년 6월 16일부 남조선 신문《대구 매일 신문》에 의하면 대구시 동명 비행장 남쪽 10만평 가까운 부지에《미국인 촌》을 건설하는 관계로 대명 1구와 6구의 원주민 약 3천 700명은 집과 논밭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였을 뿐만 아니라《미국인 촌》건설로 말미암아 저수지로부터 흘러 나오는 수로가 막혀 40만 평의 논이 가물의 위협을 받게 되였으며 안동'벌과 마내'벌은 완전히 천수답으로 화하였다 (남조선 신문《대구 매일 신문》1958년 6월 16일).

1958년 10월 26일 미군인 조세프 버커는 미군 대위와 공모하여《감정하여 준다》는 구실 하에《고려 엑쓰 광선 주식 회사》사장 박 량규의 소유인 라디움 43개(시가 1천 720만환)을 가지고 갔다가 그 후 가짜 라디움을 돌려 주는 사기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 신문《련합 신문》1959년 2월 18일,《한국 일보》1959년 5월 22일).

1959년 1월 6일 강원도•원주《미 군사 고문단》원주 파견대 탄약 창고에서 폭발된 화재로 인하여 동 창고 부근에 있던 강 갑춘(54세)과 김 기선(24세)의 주택들과 현금 7만 5,000환, 쌀 14가마니, 의류, 가구 등 40 여만환분과 주변의 조선인 경영 식당 한 채가 전소되고 조선인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남조선 신문《동아 일보》1959년 1월 7일,《산업 경제 신문》1959년 1월 8일,《한국 경제 신문》1959년 1월 9일).

1959년 2월 18일 오전 1시경 미 제 508 통신 중대 소속 미군 1등병 베니스 엘. 토위디(19세)와 1등병 듀이 이 오델(21세)은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료정 청수장을 찦차로 들이 받아 문을 파괴하고 침입하여 술과 녀성을 강요하다가 거절 당하자 동 청수장 종업원들을 구타한 다음 그들의 이불까지 강탈하였으며 또다시 부근 모 상점에 침입하여 수다한 금품을 략탈하였다.

이들은 략탈한 물품을 찦차에 싣고 다시 정릉동《파출소》에 침입하여 전화기를 비롯한 일체 시설을 파괴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한국 일보》1959년 2월 18일, 1959년 2월 19일,《산업 경제 신문》1959년 2월 20일).

1959년 4월 2일 오후 9시 30분경 인천시 부평동 미군 통신대 소속 미군 1등병 포리 제임스엘(19세) 및 2등병 웨브스터 프랭크린(21세) 등은 강 필이(녀자)의 집 문을 파괴하고 침입하여 라지오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였다 (남조선 신문《인천 신보》1959년 4월 6일).

1959년 4월 3일 오후 8시 15분경 서울시 룡산구 한남동 로상에서 택시 운전수 전 창로(43세)는 미군 1등병 워커, 3등병 마틴 및 1등병 쿠리를 태우고 그들이 요구하는 지점까지 간 후 료금을 요구하자 그들은 료금 지불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상기 운전수 전 창로를 위협하고 현금 8,300환을 강탈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한국 일보》1959년 4월 5일).

1959년 4월 9일 저녁 미군 서울 지구 사령부 소속 병사들인 로날드 지.스막크 (19세), 로베트 이.워커 (23세), 토마스 에프웨일리(18세), 제임스 이. 쿨리(18세) 등 미군 4명은 서울 역전에서 택시(서울영 4589호) 를 타고 김포 비행장으로 가자고 요구하여 그 곳으로 향하던 중 비행장 동쪽 약 10마일 지점에 이르자 운전수 류 금세를 단도로 위협한 후 목을 졸라 매고 그가 소지한 금품과 신분증을 강탈 도주하였다 (미군 신문《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1959년 4월 9일, 남조선 신문《련합 신문》,《동아 일보》1959년 4월 7일).

1959년 4월 17일 오전 11시 40분경 미군은 인천시 부평동에 사는 리 례복(녀자 32세)을 구타하여 집에서 내쫓고 그 집에 있는 라지오를 강탈하였다 (남조선 신문《인천 신보》1959년 4월 21일).

1959년 5월 8일 오전 미 공군 6176기지 전대 제 1파견대 소속 1등병들인 제임스 브이. 데이비스(20세)와 레러 더블류. 컬멘(19세) 및 2등병 다니엘 지. 비라펠 (23세) 등은 대구 부근에서 조선인 상점에 침입하여 계란 꾸러미를 탈취한 후 이를 제지하는 주인 김 용길(47세)을 무수히 구타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한국 일보》1959년 5월 9일,《한국 경제 신문》1959년 5월 10일).

1959년 5월 30일 오후 11시 30분경 미 제 1기갑 사단 소속 2등병들인 로버트 디. 니콜(24세), 조셉발(19세) 및 케이. 엔.캐리(22세) 등 3명은 서울시 서대문구 대조동 120번지 앞 로상에서 리 전상(33세) 이 운전하는 찦차를 자기들이 몰고 온 찦차로 가로막고 딸라를 내라고 협박하고 무조건 구타한 끝에 8만 환의 보증수표 한장과 현금 1,500환 및 시민증과 운전 면허증을 강탈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서울 신문》1959년. 6월 1일, 미군 신문《스타스 앤드 스트라이프스》1959년 6월 3일).

1959년 5월 31일 오후 11시경 미군 화학품 창고 부대 소속 병장 토마스 이. 메도우즈(28세) 외 3명은 경기도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156번지에 사는 문 창식(31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는데 그들은 경기도 부천군 오정면 오정리 앞길에 이르러 승차 료금을 요구하는 동 운전수를 단도로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59년 6월 1일, 《인천 신보》 1959년 6월 4일).

1959년 6월 3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있는 미 극동 지구 공병대 헌병부장 프란시스 폭스 소령 등 '미군 헌병들은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에 거주하는 녀성 정 진숙의 집을 전후 수차에 걸쳐 비법 수색하여 백 여 딸라나 되는 물품을 강탈하였으며 정 진숙을 헌병대 사무실에 끌고 가 라체로 하여 수색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59년 6월 12일).

1959년 6월 7일 새벽 파주 남방의 미 제 1 기갑 사단 헌병대장은 미 헌병대와 남조선 《경찰》들을 동원 지휘하여 미 제 1 기갑 사단 본부 린근 3개 마을을 불법 수색한 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던 목조 침대, 침구, 선풍기 등과 의복 다수를 《미군 물자》 라고 략탈하는 강도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9년 6월 8일).

1959년 6월 23일 오후 11시 30분경 미군 1등병 외 2명은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김 영구가 경영하는 술'집에서 1,500환 분의 술을 마시고 값을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의 기물들을 파괴한 후 택시로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련합 신문》 1959년 6월 24일).

1959년 7월 1일부 남조선 신문 《인천 신보》에 의하면 미군 당국은 인천시에 신설된 승의역 주위의 넓은 지역에 걸쳐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로와 음료수 운반로를 차단하여 2만 여명의 이 지역 주민들과 3개 학교의 1,000 여명의 학생들에게 심대한 생활상 타격을 주었다 (남조선 신문 《인천 신보》 1959년 7월 1일).

1959년 8월 2일 인천 미 제 532 병참 중대 소속 미군 1등병 스티픈 아르. 개부러스는 조선 녀자 강 옥자(22세)를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손시계와 팔목 가락지를 강탈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59년 8월 4일).

1959년 11월 미 서울 지구 사령부 본부 파견대 소속 미군 2등병 토마스 에프. 웨이터(19세)는 홍 숙자(룡산구 리태원동 거주)의 집에 침입하여 《트랜지스타》 라지오(시가 1만 6,000환)를 절취하였다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60년 1월 13일).

1959년 12월 14일경 미군 아렉플 스태벨휠드는 대구시 향천동에 있는 화월 호텔에서 1주일 간이나 숙박하고도 숙박비 3만 7,700환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쳤다(남조선 신문 《령남 일보》 1959년 12월 25일).

1960년 2월 6일 오후 8시 30분경 미 공군 병사 1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26번지 《대한 무선 라지오 상점》에 침입하여 라지오 2개(시가 8만 7,000환)를 강탈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세계 일보》 1960년 2월 7일).

1960년 2월 24일 밤 11시 10분경 미군 5명은 공모 작당하여 인천시 신생동 《소리사》 라지오점에 불법 침입하여 라지오 2대를 략취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0년 2월 26일).

1960년 3월 12일 밤 미 제 7사단 소속 1등병 지미 아르. 하렐(19세)은 경기도 양주군 아담면 동두천리 부근에서 5명의 조선인을 단도로 위협하고 금품을 략취하였다(남조선 신문 《세계 일보》 1960년 3월 15일).

1960년 6월 13일 밤 10시경 미군 3명은 강원도 춘천시 봉의 국민학교 뒤'산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지방 법원》《급사》 한 규석(20세)에게 달려들어 그의 목을 조르고 손목 시계(시가 2만 환)를 비롯한 소지품을 강탈하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강원 일보》 1960년 6월 16일).

1960년 8월 10일 오후 미 제 8군 서울 기지 사령부 소속 미군 병사 2명은 담배'갑 크기만한 나무 토막을 양담배로 가장하여 서울시 룡산구 후암동 5롱 2반에 거주하는 리 상문(30세) 녀성에게 팔아 10딸라를 사취하였다(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0년 8월 11일).

1960년 9월 28일 밤 10시 50분경 전라북도 김제군 황산면 황산리에서 당지 미 군수 기지 공병단 소속 미군 7명은 시계 수리업을 하고 있는 정 헌승(26세)의 집을 집단 습격하여 정 헌승을 마구 때려 실신케 한 후 손목 시계와 회중 시계 15개를 강탈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삼남 일보》 1960년 9월 30일).

1960년 10월 6일 오후 9시 55분경 미 제 7사단 32련대 본부 중대 소속 2등병 프랭크 무바크(18세)와 아이라 케이. 프랭크(18세)는 홍 학수가 운전하는 택시 (서울 영 6255호)를 타고 가다가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27번지 중앙 산업 앞 로상에 이르러 운전수의 목을 조르고 무수히 구타한 후 현금 1만 2,000환을 강탈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0년 10월 7일).

1960년 10월 15일 밤 11시 30분경 미 제 1군단 소속 미군 2명은 정 태식이 운전하는 택시 (서울 영 6062호)를 타고 서울시 룡산구 갈월동을 출발하여 경기도 양주군 의정부읍 신곡리 송산 앞길에 이르자 운전수의 목을 조르고 현금 1만 5,700환을 강탈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한국 일보》 1960년 10월 17일, 《상공 일보》 1960년 10월 18일).

1960년 10월 26일부 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에 의하면 미군 제 150 수송 파견대 소속 2등병 조지 아르. 토마스는 조선인 점포에 침입하여 현금 2만 600 환을 강탈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서울 신문》 1960년 10월 26일).

1960년 11월 1일 밤 10시 50분경 미군 2명은 서울시 중구 예관동 8번지 앞길에서 택시를 탄 다

음 운전수 홍 순화를 돌로 강타하여 치명상을 입혀 차에서 내던지고 택시를 강탈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경향 신문》 1960년 11월 2일).

1960년 11월 12일 밤 11시경 미 제 304 통신 대대 소속 1등병 마타스 죠셉과 미 제 8군 소속 1등병 바브 카민스키는 서울시 룡산구 남 영동 성남 극장 앞에서 택시(서울 영 7080호)를 타고 신당동 청구 국민 학교 뒤'골목에 이르자 운전수 강 진우에게 단도를 꺼내 들고 금품을 강요하는 강도 행위를 감행하였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 1960년 11월 13일, 《한국 경제 신문》 1960년 11월 14일).

1960년 12월 25일 오전 6시 30분경 미 제 7사단 34련대 본부 중대 소속 미군 1등병은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도산리에 있는 박 정호(56세)의 집에 방화하여 약 80만환의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산업 경제 신문》 1960년 12월 30일).

1961년 1월 3일 명시경 미 제 82 야포대 소속 1등병 외 3명은 택시 《서울 자—2250호)를 타고 가다가 경기도 파주군 적성면 무건리 앞 로상에 이르러 동 택시 운전수 손 석만을 집단 구타하여 중태에 빠뜨리고 현금 6딸라를 탈취하였을 뿐가 아니라 자동차 엔징까지 파괴하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1년 1월 7일).

1961년 3월 15일 오후 9시 30분경 미 제 532부대 소속 미군 2명은 경기도 인천시 학익동 최조이의 집 대문을 까부시고 불법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심 한섭(29세)외 4명을 란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가장 집물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여 약 2만 환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남조선 신문 《경인 일보》 1961년 3월 30일).

1961년 3월 13일 10시 5분경 미 8군 728 헌병 대대 씨 중대 2등병 에드.야푸. 노피이스와 단. 헤덴은 서울시내 동자동 뻐스 정류소에서 택시(서울 영 4143호)를 불러 탄 후 룡산 중학교 앞 로상에 이르러 운전수 최 창우를 목을 졸라 실신케 한 다음 그를 차밖으로 내 던지고 택시를 강탈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1년 3월 14일).

1961년 8월 4일 오후 9시경 미 8군 고문단 병기과 소속 로메로(39세)는 리 병목의 집에 침입하여 리유 없이 선풍기, 랭장고등 가장 집물을 닥치는 대로 파손하고 도주하였다(남조선 신문 《대구 매일》 1961년 8월 6일).

1962년 1월 19일 오후 11시 30분경 미군 4명은 서울시 영등포역전 로타리에서 운전수 리 홍우가 몰고 다니던 택시(서울 영—6704호)를 로변에 처 박아 넣고 6,500환을 탈취하여 가지고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1월 21일).

1962년 3월 20일 밤 충청남도 서산군 태안면에 주둔한 미군 부대 씨 중대 소속 1등병 루라벌제이. 대그이 외 5명은 동군 산선리 리 동익의 집에 침입하여 라이타로 초가 지붕에 불을 지른 후 리 의용이 경영하는 땐스홀을 파괴하였으며 이웃 김 정원의 상점에 들어 가 닥치는 대로 상품을 파손하는 등 약 40분 동안 주민들의 재물을 파괴하다가 도주하였다 (남조선 신문 《조선 일보》 1962년 3월 24일).

* * *

미국 침략 군대가 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만행들은 인간의 기본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제법의 초보적 규범마저 란폭하게 유린하는 엄중한 범죄 행동이다.

모든 사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가장 야만적이고 악독한 침략자이며 강도적 략탈자이며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더욱 우심하여 가는 미군의 야수적인 폭행에 항의하여 궐기한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투쟁이 더욱 높아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투쟁은 미제 침략자들의 참을 수 없는 모욕과 학대에 대한 민족적 의분의 폭발이며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항거하는 애국적 투쟁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총검의 탄압으로도 어떠한 기만적 술책으로도 격화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투쟁을 억누를 수 없다.

오늘 남조선에 미국 군대가 이 이상 주둔할 근거도 구실도 있을 수 없다.

미제의 남조선 강점은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파국과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이것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미국 침략 군대는 자기들의 온갖 살인 무기를 걷어 가지고 남조선으로부터 당장 물러 가야한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 군대가 철거함이 없이는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양키들의 학살 만행과 민족적 멸시로부터 벗어 날 수 없으며 조선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도 없으며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화근도 제거될 수 없다.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적 인민들과 정부들은 미제가 남조선을 비법 강점하고 남조선 인민들에게 가하고 있는 모든 야수적 만행들이 바로 그들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도용되고 있는 유엔의 간판하에 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전 세계 각국 정부들과 인민들은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군의 야수적 만행과 새 전쟁 도발 책동을 저지시키고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킬 데 대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1962년 11월 25일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성 명

미제와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이 소위 《헌법 개정안》을 조작 공포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은 소위 《헌법 개정안》이라는 비법적이며 사기적인 문건을 조작 공포하고 오는 17일 이것을 《국민 투표》에 붙일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다.

이 희대의 사기적인 문건의 조작은 《민정 이양》의 간판 하에 현 군사 파쑈 통치 제도를 무한정 연장할 목적으로 그들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적이며 파렴치한 책동의 일환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조선에 군사 파쑈 통치 질서를 수립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사소한 흔적도 남김 없이 유린 말살한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이 류혈적인 전대미문의 폭압 통치를 계속하기 위한 음모를 오래 전부터 꾸며 왔다.

그것은 바로 오늘과 같은 야만적인 횡포와 중세기적 탄압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할 수 없으며 군사 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야욕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 제국주의자들은 《헌법 개정안》을 조작하는 첫 순간부터 어용 학자 후란쯔와 에머슨 등을 직접 남조선에 파견하여 군사 파쑈 분자들의 테로 독재를 연장하는 방향에서 괴뢰 《헌법》을 개악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케 하였으며 미 국무 장관 러스크는 미제의 특무인 김종필을 불러다 놓고 《신정권》의 《권력 구조》와 《새 내각 성원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이리하여 미제와 군사 파쑈 분자들이 소위 《헌법》을 참칭하여 공포한 금번 《개정안》은 철두 철미 현 군사 파쑈 독재 통치 질서를 합법화하고 박 정희 도당이 군복 대신 사복을 갈아 입고 계속 파쑈 독재를 감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의 도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것은 비법적으로 날조된 《헌법 개정안》의 가장 파쑈적이며 반인민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명백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1)

소위 《헌법 개정안》은 악명 높은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의 연장이며 재판일 뿐 아니라 《군사 정변》 이후 수 없이 란발한 각종 살인적인 포고문과 회세의 악법들을 한테 긁어 모아 법문화한 극악한 반동 문건이다.

《헌법 개정안》은 리 승만 시기의 괴뢰 《헌법》을 더욱 개악하는 방법으로 소위 《3권 분립주의》에 기초한 《대의제》 정치를 표방하고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은 부르조아 독재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3권 분립주의》도 다만 형식만을 갖추었을 뿐 마치 봉건 제왕을 방불케 하는 1인 독재 통치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것은 소위 《헌법 개정안》 제3장 《통치 기구》의 제 조항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은 물론 립법, 사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을 대통령의 손에 철저히 집중시키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 정부 수반으로서 국무 총리, 국무 위원, 각부 장관, 검사 총장, 국립 대학 총장, 각 군 참모장, 대공사, 고위 《공무원》, 직할 기업체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마음 대로 임면할 수 있게 되여 있다.

그들은 또한 《국무 회의》를 의결권도 없는 하나의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국무원》을 《대통령》에게 완전히 종속된 보잘 것 없는 허수아비 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나마 《국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케 했던 리 승만 시기의 《헌법》보다도 더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를 대통령의 전횡을 분식하는 가장물로 만들고 있는 사실이다.

《헌법 개정안》은 본래의 《헌법》에서 형식적이나마 《국회》가 《국무원》이나 개별적 《국무 위원》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권한마저 제거하여 버렸으며 《국정 감사권》조차 삭제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국무 위원》은 《국회》의 신임 여하에 관계 없이 오직 대통령의 의사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소위 《의회 정치》의 《특징》이라고 하는 행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국회》도 역시 대통령의 종속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안》 제49조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회》를 완전히 무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더우기 《헌법 개정》 절차를 규정한 《헌법 개정안》 제5장의 제 조항에서 《국회》는 다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만 함으로써 《국회》로부터 《헌법 개정》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또한 《헌법 개정안》 제73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라는 구실을 붙여 어느 때든지 《국회》를 젖혀 놓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 상 립법권까지 행사할 완전한 권한을 가지게 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에서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법 기관》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을 직접 임명할 뿐만 아니라 기타 《법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된 《법관 추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모든 《법관》들을 대통령의 의사 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대통령은 《사법권》까지 완전히 자기 수중에 틀어 쥐게 되여 있다.

이 밖에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 조약 비준권, 선전 포고와 강화에 대한 권한, 계엄 선포권 등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은 군사 파쑈 독재권을 제멋 대로 행사하고 있는 현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의 변신에 불과하며 봉건 전제 군주와 다름 없는 독재자로 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그 통치 형태와 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그 통치 수법과 체계에 있어서도 현 군사 통치의 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것은 특히 《헌법 개정안》 제 87조에서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 정책 군사 정책과 국내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국가 안전 보장 회의》를 둔다고 규정한 데서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소위 《국가 안전 보장 회의》에서는 정보 및 수사의 기능과 중요 정책 립안의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중앙 정보부》가 주동적 역할을 놀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군사 파쑈 도당들이 《민정 이양》 후에도 현재와 다름 없는 《중앙 정보부》 중심의 방대한 특무 첩보 력량을 유지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욱 강화하고 살벌한 특무 통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예산의 수입 지출과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수행할 광범한 권한을 가진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제 92조) 경제와 과학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 기관》으로 《경제 과학 심의 회의》(제 118조)를 설치한다는 규정에서도 넉넉히 찾아 볼 수 있다.

더우기 그들은 부칙 제 3조에서 《군사 정변》 이후에 공포한 수백 수천 개의 악법들의 효력을 그대로 지속시키게 함으로써 남조선의 현 군사 파쑈 통치 질서와 《법 질서》를 《민정 이양》 후에도 계속 답습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부칙 제 6조에서 군사 정권에 복무하는 공무원과 기업체 《임원》들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게 한 것은 현역 군인으로 구성되여 있는 군사 독재 기구를 하부 말단 통치 기관에 이르기까지 《민정 이양》 후에도 그 대로 유지하려는 음모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헌법 개정안》은 《민정 이양》의 간판 하에 파쑈적인 현 군사 통치 질서를 유지 연장할 뿐 아니라 정비 강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군사 파쑈 도당들은 바로 그러한 기초 우에서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 입고 모든 권력을 계속 독차지하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명년 봄에 그들이 실시하겠다고 하는 《선거》에 군사 파쑈 도당 이외의 모든 세력들이 참가할 수 없도록 온갖 술책을 다하고 있는 데서 명백히 되고 있다.

일례로 《헌법 개정안》 제 36조 및 제 46조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이것은 무소속의 참정권 박탈을 의미하며 설혹 정당에 소속되여 있다 하더라도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으면 립후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군사 파쑈 도당은 이미 군정 초기에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을 강제 해산시키고 이여의 모든 세력들의 정치 활동을 일체 엄금하여 왔다. 그러나 자기들만은 《국가 재건 국민 운동》을 비롯한 각이한 명목으로 정치적 기반을 닦기에 광분하였으며 사실 상 정당 조직 활동을 맹렬히 진행하여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준비 공작을 감행해 온 군사 파쑈 도당은 《참신하고 량심적인 민간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넘겨 주겠다》던 《공약》을 헌 신짝 같이 내던지고 이제 와서는 로골적으로 소위 《혁명 주체 세력》이 하나도 빠짐 없이 《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으며 소위 《여당》 결성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다만 현 군사 파쑈 도당과 그 추종자들에게만 정당을 조직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일체 반대 세력에게는 사실 상 정당 조직도 허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천 립후보를 추천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헌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목적이 현 군사 파쑈 통치 질서의 완전한 연장과 박 정희 도당의 무제한한 독재의 지속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하고 있다.

(2)

군사 파쑈 통치를 그 대로 연장하려는 그들의 흉계는 소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 개정안》 제 2장의 제 조항에서 더욱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다.

《헌법 개정안》에는 《국가는 국

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그럴듯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각종 제한과 보류 조건들을 덧붙여 놓음으로써 형식 상으로 선포한 권리마저 란폭하게 유린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 하에서 그 어떤 권리에 대하여 상상인들 할 수 있겠는가?

《헌법 개정안》 제 1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은 《장기 3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는 《사후에 령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실 하에 《령장 제도》 조차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수만 명의 죄 없는 인사들을 구속 령장도 없이 검거 투옥하고 있으며 다만 《교통 규칙 위반》이라는 죄명만으로도 매일 수천 명을 처벌하고 각종 《포고령》과 《법령 위반》이라는 구실 하에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적으로 체포 구금하며 《무더기 재판》, 《즉결 재판》 등의 방법으로 《하루 동안에 5천 196 명을심판》하는 따위의 야만적 폭압을 계속하겠다는 수작이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마음 대로 체포 구금하는 중세기적 폭압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사전에 그가 반드시 《3 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며 따라서 체포하려는 자는 아무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인》으로 알았다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들이 소위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에 저촉되는 자들을 《구속 령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희세의 악법인 《인신 구속 등에 관한 림시 특례법》을 그 대로 연장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신체의 자유》에 대하여 늘어 놓은 미사려구가 하나도 빠짐 없이 인민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허위에 불과하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들이 소위 《적부 심사 청구권》이요, 《형사 보상 청구권》이요 하는 따위의 사기적인 조항들을 설정한 사실부터가 벌써 《구속 령장》 없는 불법적인 체포 구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 개정안》은 또한 인민들의 일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여지없이 말살 유린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헌법 개정안》 제 18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허울 좋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보장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항도 《헌법 개정안》에는 규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각종 제한 조건들을 선포함으로써 앞서의 규정을 즉석에서 뒤엎어 놓고 있다. 언론 조항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신문이나 통신의 발행 시설 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첨부하고 있다.

그들이 《신문이나 통신의 발행 시설 기준》에서 출판물 발행에 필요한 현대적 륜전기, 연판 주조, 사진 제판 같은 일체 인쇄 시설들을 완전히 구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오늘 남조선 경제 형편으로 보아 매개 언론 기관들이 이러한 시설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로동자, 농민들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소위 《시설 기준》을 구실로 군사 파쑈 도당 이외의 모든 세력들의 언론 활동을 그 시초부터 봉쇄하려는 것이며, 군사 정변 직후에 이미 76 개의 일간 신문, 452 개의 주간 잡지,305 개의 통신사를 강제 폐쇄하고 지난 6월과 7월에는 겨우 남아 있는 언론 출판 기관들마저 또 다시 대량적으로 폐쇄하며, 탄압한 소위 《언론 정책》을 합법화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에서 어떠한 파시스트들도 언론 출판에 대한 이러한 폭거는 감히 《헌법》에 기록한 전례가 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 개정안》 제 18조 5 항은 《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림시 특례법》 제 3 조 3항을 그대로 연장할 목적으로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륜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은 자기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명예 훼손》이니, 《사회 륜리의 침해》니 하는 터무니 없는 트집을 잡아 마음 대로 탄압하자는 데 있다. 그리하여 단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주장하였다 하여 《민족 일보사》를 강제 폐쇄하고 그 사장 조 용수 씨를 사형에 처하였으며 금년 7월에만 하여도 《도정 감사 준비로 일반 사무 중단 상태》라는 보도 기사를 썼다 하여 《조선 일보》사 기자를 《정부에 대한 명예 훼손 죄》로 체포 투옥하였으며 괴뢰 관리들이 놀이터에서 인민들에게 행패를 가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하여 《한국 일보》 기자를 《리적 행위》라는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하였으며 최근에만 하여도 바로 군사 파쑈 도당이 자기들의 정당으로서 《사회 로동당》을 조직하려 한다는 기사를 썼다 하여 《정부 비방, 허위 보도》 등의 황당무계한 죄명으로 《한국 일보》 사장을 비롯한 4 명의 기자 편집인들을 체포 구금하고 신문의 정간을 강요한 것과 같은 전고미문의 폭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오직 자기들에게 아부 굴종하는 기사와 론평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진정한 인민의

의사를 완전히 봉쇄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결국 그들은 몇몇 개의 어용 출판 기관만을 남기고 자기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이외에 그 어떤 언론 활동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언론 자유》의 정체이다.

그들이 떠들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 제 18 조 4 항은 《옥외 집회에 대하여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그 본질에 있어서 악명 높은 《집회에 관한 림시 조치법》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 《시간과 장소》를 규제한다는 명목 하에 《옥외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오직 자기들에게 유리한 집회만을 허용하고 이여의 일체 집회 활동은 시간과 장소를 구실로 봉쇄하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

고유한 의미에서 의집회의 자유란 반인민적이며 매국적인 정부 정책을 폭로 규탄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무제한한 자유를 의미한다.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인민 대중이 자기의 의사를 집단적이며 공개적으로 표시할 수 있겠는가?

4.19의 용사들이 집회의 시간과 장소와 그 목적에 대하여 리승만에게 허가 받는 경우를 상상인들 할 수 있겠는가?

만일 진정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한다면 인민 대중은 응당 시위와 파업, 대중적 집회의 각종 방법으로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는 정책을 강요하는 집권자들에게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로써 정권을 교체할 온갖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 파쑈 도당은 바로 이것을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겁내고 있으며 그를 금지하려고 발광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옥내 집회는 《허용》할 듯이 가장하고 있으나 학교 강당 하나라도 집권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는 유리한 조건을 악용하여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 얼마든지 집회 장소를 빌려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니 옥내 집회도 역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헌법 개정안》은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또한 그럴듯한 감언리설을 늘어 놓고 있다.

《헌법 개정안》 제 7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목 제 2 항에는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여야》한다고 규정하였고 제 3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대법원의 판결로서 그 정당은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하루 아침에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을 무조건 해산시킨 그러한 질서를 의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였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사회당》 위원장 최 근우, 《통일 사회당》 정치 위원 리 훈구 씨 등을 재판도 없이 감옥에서 학살하고 《사회당》 조직 부장 최 백근 씨를 교수형에 처한 그러한 살륙의 질서를 의미한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들의 비위에만 맞지 않기만 하면 어느 때든지 《민주적》이 아니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 된다는 딱지를 붙여 어떠한 정당이든지 임의로 해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은 말로만 《복수 정당제를 보장》할 뿐이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혁명적 정당은 물론이고 보수 정당에 이르기까지 일체 반대 당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으며 그 정치 활동을 억압하겠다는 오만무례한 선고에 틀림 없다.

두말할 것 없이 정당이란 자기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정권 담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 집권자의 비위나 맞추는 정당만을 허용하고 그 밖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로 해산시킨다면 어떻게 《야당》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특히 정당이란 그 조직 당시에는 극히 적은 인원으로 출발하는 것이 상례이며 점차 그 정강 정책과 조직 활동에 공감하는 인사들이 집결됨으로써 비로소 대중화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삽입 함으로써 새로운 정당 조직과 그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정당들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못 된다는 구실 하에 선거에 참가하는 길을 봉쇄하려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소속 정당의 추천》이 없으면 국회 의원이나 대통령 선거에 립후보조차 할 수 없다는 전무 후무한 파쑈적 규정과 련관시켜 볼 때 더욱 그 저의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이 최근 매개 정당들의 《리념》, 《정치 자료의 출처》, 《립후보 공천 방법》 등과 같은 당내 문제를 철저히 밝히는 《등록제》를 실시할 것을 예견하는 소위 《정당법》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흑심을 더욱 뚜렷이 밝혀 주고 있다.

모든 정당들을 완전히 집권자의 통제와 감독 하에 두려 하는 여기에 어떻게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가 존재할 수 있겠는

가?

반대 당의 조직과 활동을 봉쇄하면서 무소속의 립후보까지 금지하려는 이 모든 책동의 기저에는 명년에 진행하기로 된 대통령과 국회 의원 《선거》에서 자파 세력만의 《당선》 날조를 합법화하려는 간악한 흉계가 놓여 있다.

여기에는 또한 아무런 정당 조직의 기초도 없고 명년 봄부터 정당 조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미 전국적으로 사실 상의 그 조직을 갖춘 군사 파쑈 도당의 소위 《여당》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그들이 말하는 《국민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갖지 못 하게 되리라는 타산과 군소 정당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특히 《정치 활동 정화법》과 같은 천하의 악법으로 혁신 세력은 물론 보수 세력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정치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군사 독재의 폭압 하에서 군사 파쑈 도당과 그 추종자들 이외의 재야 인사들의 정당 결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

바로 이 틈을 리용하여 그들은 《선거》를 실시하고 《당선》을 날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선거 관리 위원회》의 감시와 《선거 공영제》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군사 독재 하의 관제 선거인 조건 하에서 군사 파쑈 도당 이외에 과연 누가 《당선》은 고사하고 립후보인들 할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거》에서 《비례 대표제》와 《다수 대표제》를 배합하여 실시할 것을 예견하는 《선거법》을 만들어 내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이란 아직 그 명칭조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남조선에서 반동적인 《비례 대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군사 파쑈 도당이 리 승만 보다 더한 온갖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자기들의 《당선》을 날조하고 이여의 세력의 진출을 저지시키려는 흉계에 불과하다. 그들은 설사 반대파들이 국회 의원에 당선되거나 자기 당 내에서 반대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헌법 개정안》 제 7 조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구실을 붙여 대법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소속 정당을 언제든지 임의로 해산시키고 《국회 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리탈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제 38 조를 적용하여 마음 대로 의원 자격을 박탈할 것을 타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토대 우에서 《국회》 내에까지 어느 때나 오직 자파 세력만 남아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란 바로 이러하다.

《헌법 개정안》은 또한 제 29 조에서 마치 근로자들에게 그 어떤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준다는듯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여지없이 박탈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자유를 행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질서 유지》라는 구실하에 파업과 시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심지어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남조선 근로자들의 투쟁마저 가혹하게 탄압하는 현재의 폭압 질서를 계속 유지 연장하려는 그들의 흉계를 은폐하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특히 그들은 《공무원인 근로자》라는 구실 하에 수 많은 근로자들에게 다만 명목 상으로 규정한 그러한 허위적인 권리조차 주지 않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또한 제 28 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느니, 제 27 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느니, 제 3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느니 하는 허위와 기만에 가득 찬 공담을 늘어 놓고 있다.

도대체 수백만의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고 일할래야 일할 곳이 없어서 생활의 전도가 막힌 수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암담한 사회를 저주하고 매일 매 시각 도처에서 집단 자살을 하고 있는 형편에 어디에 과연 《근로의 권리》가 존재한단 말인가?

수십 수백만의 청소년들이 훌륭한 재능과 포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만 과중한 학비를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만 류랑 고아들과 백만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이 있는 조건 하에서 과연 어느 곳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인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어린이에게 초등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자들이 《의무 교육은 무상》이라는 것은 또 무슨 철면피한 수작인가?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들에 대한 의무 교육의 책임은 누가 진다는 것인가?

로동자, 사무원들은 최저 생활비의 3 분의 1도 못 되는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 하면서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고 백만 호의 농가가 매년 절량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시에만 하여도 인구의 45.8%가 집 없이 살고있고 남조선 전체 주민의 절대 다수가 각종 질병에 신음하고 있고 무려 30여만 명의 녀성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여 륜락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매일 매 시각 무고한 주민들이 미국 침략군에 의하여 사살, 린치, 릉욕 당하고 있고 1 년 동안에 도처에서 70 여 만 건의 범죄 행위가 발생되고 있으며 자살자의 비률이 세계 제 1 위를 차지하는 《죽음의 땅》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란 또 무슨 당치

않은 잠꼬대인가?

그들이 말하는 자유란 소수 특권 계급의 자유를 의미할 뿐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일반 대중은 실업과 절량의 자유, 기아와 빈궁에 시달리다 굶어 죽는 자유 밖에 아무 것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 개정안》의 정체이다.

특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헌법 개정안》부칙 제 3조, 제 4 조 및 제 5조 등의 규정이다. 이 조항들은 군사 통치 기간에 날조된 수백 수천 자지 악법들의 《효력을 지속》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박아 놓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군정 기간의 소위 《법령》들이란 모두가 몇몇 군사 깡패들이 만들어 낸 비법적인 것들이며 인민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있는 악법들이다.

《헌법 개정안》에 아무리 수 많은 권리와 자유에 대하여 늘어놓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 한 조목의 부칙 규정으로 그 모든 것을 남김 없이 뒤엎고 무제한한 군사 파쑈적 폭압을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과연 어느 곳에 민주주의적 권리의 흔적이 있으며 소위 《주권 재민》의 원칙이 있단 말인가?

인민 대중의 권리를 여지 없이 유린 말살하고 모든 권리를 자기들이 독점하려 하면서 군사 파쑈 도당은 뻔뻔스럽게도 남조선은 《민주 공화국》이니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느니 하고 빈소리를 늘어 놓고 있다.

(3)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이 조작한 《헌법 개정안》의 반동적 본질은 소위 경제 조항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들은 《헌법 개정안》 경제 조항에서 《자유 경제》와 《통제 경제》를 배합하는 이른바 《혼합 경제》 체계라는 간판 하에 인민들에 대한 약수적인 수탈을 감행하며 남조선 경제를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무제한한 전횡에 내맡기고 있는 현재의 매국 배족적인 경제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강요하겠다는 것을 재 확인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바로 이와 같은 《혼합 경제》의 간판 하에 《자립 경제 건설》이니 《5개년 계획》이니 하면서 남조선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위기에 몰아 넣었으며 남조선 천지를 기아와 빈궁이 지배하는 암흑의 천지로, 인간 생지옥으로 더욱 깊이 전락시켰다.

오늘 남조선의 공업 생산이 군사 정변 후 1 년 간에만도 9%나 감소되고 물가는 금년 9월에 1960년 말에 비하여 20% 이상 등귀되고 실업자는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농업 생산은 50 년래의 대흉이라는 참혹한 상태에 놓이게 된 이 모든 것이 바로 남조선 경제를 외래 침략자들에게 내맡긴 결과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력사는 외래 독점 자본에 의거하여 자립 경제를 건설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례외 없이 예속과 파멸을 가져 왔을 뿐이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 자원 수력과 경제 상 리용할 수 있는 자연력》의 《채취 개발 또는 리용》을 《특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나라의 자연 부원을 외국 자본의 무제한한 략탈에 계속 내맡기려 하고 있다. 그들은 전 세계에 류례가 없는 매국 배족적 《외자 도입 촉진법》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으며 소위 《5 개년 계획》의 구실 하에 더욱 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한 악랄한 책동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이 《외자 도입》을 서두르면서 지금 《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 짓고 일본 독점 자본을 끌어 들임으로써 남조선 경제를 미 일 제국주의자들의 이중적 예속 아래 몰아 넣으려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은 아니다.

경제에 대한 이러한 매국 배족적인 《규제와 조정》이 다만 남조선의 경제 형편을 가일층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지나 온 경험이 너무도 명백히 말하여 주고 있다.

그들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떠벌리고 있으나 이것은 오직 극소수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소유에 대한 국가적 보장을 의미할 따름이다. 또한 그들은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고 선포하고 있으나 이것은 곧 지주, 예속 자본가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무제한한 착취의 자유를 허용함을 의미할 뿐이다.

《헌법 개정안》 제 113 조는 《농지의 소작 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지된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농지는 농민에게 분여한다》고 하고서도 허위적인 《농지 개혁》으로 봉건적 지주 제도를 그 대로 존속시킨 리 승만 역도보다 더 한층 인민 대중을 기만 우롱하는 공담에 불과하다.

도대체 지주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함이 없이 어떻게 소작 제도를 금할 수 있단 말인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이 조작한 이 《헌법 개정안》은 철두철미 남조선에서 극악한 군사 파쑈 통치 제도를 연장 강화하며 박 정희 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흉악한 책동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가장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기적 문건이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이와 같은 《헌법 개정안》을 그 어떤 《립법 기관》도 아니며 극소수 군사 깡패들의 집단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에서 비법적으로 날조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범죄 행동을 다소나마 엄페하고 《헌법 개정안》에 그 어떤 《민의》라도 반영된듯이 가장하려는 목적 밑에 소위 《공청회》 놀음을 조작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공청회》란 군사 파쑈 도당들이 선발 훈련한 심복들의 서투른 합창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였다.

지금 그들은 소위 《국민 투표》로서 민주주의를 가장하며 이 구역질 나는 사기 문건에 그 어떤 합법성을 부여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응당 국회에서 축조 심의를 거쳐야 할 《헌법》을 《국민 투표》에 내걸고 수백 조항을 일괄 투표로 결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부터가 횡포한 강압이며 인민 대중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롱락이다.

더우기 그들은 이 비법적인 《국민 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날조하는 것으로써 《채택》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개정안》이 유권자의 다만 25%의 《찬성》이라도 날조되기만 한다면 《통과》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전도된 론리가 아니라면 누가 과연 이러한 현대판 《민주주의》를 고안할 수 있겠는가?

25%의 다수란 일찌기 4사 5입의 계산법을 고안한 리 승만 역도를 몇 배나 능가하는 새로운 계산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고 있는 그들은 이러한 횡포로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국민 투표법》을 조작함에 있어서 《투표 위반자》가 나왔을 때에는 《최고 10 년까지의 처형》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헌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할 것을 로골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미제와 군사 불한당들이 범죄적인 《헌법 개정안》을 《국민 투표》 놀음을 통하여 강제로 통과시킴으로써 군사 파쑈 테로 통치 제도와 박 정희 일당의 극악한 파쑈 독재를 연장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만일 동서 고금에 류례 없는 사기적 문건인 이 《헌법 개정안》의 《통과》가 날조된다면 그것은 바로 흉악한 살인자에게 칼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가공할 후과를 초래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남조선에서의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파쑈적 독재 통치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체 조선 인민의 일치한 민족적 념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단말마적으로 방해할 것이며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욱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억압과 전대미문의 류혈적인 학살 만행이 더욱 강화되는 조건 하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보다 혹심한 무권리와 질식 상태에서 헤매게 될 것이며 가중되는 실업과 빈궁과 기아의 참경 속에서 더욱더 고통 받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남조선 천지는 오늘보다 더 무서운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될 것이다.

민족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법질서를 옹호하며 인간의 권리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주 법률가들은 남조선 동포들의 장래를 깊이 우려하면서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들이 조작한 《헌법 개정안》의 반동적 본질과 그 강제 《통과》를 위한 그들의 비법적인 《국민 투표》 놀음을 전 세계에 단죄하며 전체 조선 인민의 이름으로 그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

남조선의 전체 법조계 인사들과 인민들은 범죄적인 《헌법 개정안》을 분노의 불'길 속에 철저히 불살라 버리며 비법적인 《국민 투표》를 단호히 거부 파탄시켜야 할 것이다.

전체 남조선 인민들은 《헌법 개정안》의 직접적 조작자이며 군정 연장의 지휘자이며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 침략자들을 몰아 내며 그 주구 박 정희 군사 파쑈 《정권》을 쓸어 버리며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반미 구국 투쟁에 더욱 용감히 떨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귀중히 여기며 자유를 옹호하여 투쟁하는 전 세계 법률가들과 평화 애호 인민들이 남조선 인민들의 머리 우에 들씌워지고 있는 전대미문의 파쑈적 폭압을 반대하여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호소한다.

1962년 12월 6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성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에서 또다시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유엔은 15 년 이상이나 《조선 문제》를 토의하여 왔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 하였으며 또 줄 수도 없다.

그것은 애당초 미제가 조선 문제를 유엔에 끌고 간 것부터 유엔 헌장을 유린한 비법적 행위였으며 그 토의 과정 역시 미제의 강요와 음모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진행되였기 때문이다.

원래 유엔은 그의 헌장과 원칙에 비추어 《조선 문제》를 토의할 권리가 없다.

조선 통일 문제는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이며 이에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더우기 유엔은 미제에 의하여 조선 침략 전쟁에 그의 기'발을 도용 당함으로써 조선 통일 문제에 관여할 도의적 권위마저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자들이 금번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년례 보고》를 강압적으로 토의케 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독이며 유엔을 계속 침략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음모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금번 유엔 총회에서도 《조선 문제》의 토의에 당사자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가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문제 토의에 당사자가 참가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자기 대표의 참가 없이 조선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제멋대로 조작되는 어떠한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유엔이 그의 헌장에 따라 본래의 사명을 수행하려거든 조선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하며 《조선 문제》에 관한 종전의 모든 《결정》들을 철회하고 《유엔군》의 간판을 도용한 미제 침략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시켜야 하며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962년 12월 8일 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 부 성 명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미제의 사촉하에 소위 《한 일 회담》을 벌려 놓고 조 일 량국 간의 관계에서 력사적으로 루적된 중대한 미해결 문제들과 전 조선 인민의 리익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들을 남조선 괴뢰 정권과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려는 것과 관련하여 본 성명을 발표한다.

1

19 세기 말 20 세기 초에 걸쳐 제국주의적 팽창의 길에 들어 선 일본은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병탄함으로써 조 일 량국 간의 관계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기록을 남겨 놓았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는 조선 인민의 력사에서 가장 암담하고 참혹한 시기로 되였다.

일제는 근 반 세기에 걸쳐 조선 인민을 무자비하게 탄압 살륙하고 무제한의 착취와 략탈을 감행하였다.

식민지 통치의 말기에 이르러 일제는 유구한 력사와 문화 전통을 가진 조선 민족을 영원히 말살하려고 조선어와 조선 문'자의 사용까지 금지하고 조선 인민의 고유한 모든 생활 양식을 파괴하려고 발악하였으며 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침략 전쟁 수행에로 총 동원하였다.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 통치의 결과에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강산은 우리 인민의 원한 많은 피로써 물들었으며 황폐화되였다.

1945년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되였을 때에 조 일 량국 간에는 공인된 국제법의 제 원칙에 따라 과거의 이 모든 문제가 정당하게 처리되고 새로운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였어야 할 것이였다.

그러나 미제의 남조선 강점으로 조선이 분렬되고 그의 통일 독립이 지연되였으며 다른 한편 패전한 일본도 역시 미제에 의하여 강점되고 그의 예속 상태에 놓이게된 조건 하에서 또한 일본 지배층의 비우호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조 일 량국 간의 관계는 정상화되지 못 하였다.

그리하여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결과에 력사적으로 산생된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지 못 하고 오늘날까지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오래 전부터 《한 일 회담》을 통하여 남조선 당국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시도하여 오던 끝에 오늘에 와서 그 어떤 최종적인 《합의》를 조작해 내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허할 수 없는 비법적 행위이다.

우선 오늘 조선이 아직도 분렬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일본 정부는 조 일 량국 간의 관계에서 력사적으로 형성되였고 량국 인민의 전반적 리익에 관련되는 극히 신중히 다루어야 할 그 중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남조선 당국 일방만을 상대하여 해결할 수 있겠는가.

오늘 조 일 량국 인민들이 다 같이 념원하는 것은 쓰라린 과거의 력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 일 량국 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평화와 우의에 기초하여 정상화되는 것이다.

이것은 남조선 당국 일방만을 상대로 하는 비법적인 공모의 방법으로써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더우기 남조선 《정권》은 조선 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는 미제의 괴뢰이며 침략 도구이다.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이 헌법도 없고 국회도 없으며 어떠한 합법적 국가 기구도 없는, 인민 대중들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사기 협잡배들의 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과연 일본 정부는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상대로 하여 감히 전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관계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조선에는 전체 조선

인민의 진정한 리익을 대표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조 일 량국 간에 관계된 중대한 문제들을 진정으로 공명 정대하게, 조 일 량국 인민의 리익에 다 같이 부합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는 응당 조선이 통일된 후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일본 정부가 현 시기에서라도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원한다면 마땅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래도 정당한 일일 것이다.

조 일 량국 간의 미해결 문제들은 《한일 회담》 같은데서 론의될 수도 없으며 또 해결될 수도 없다.

2

조 일 량국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지난 날의 불행한 력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우의에 립각한 새로운 정상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과거 식민지 통치 시기 특히 전쟁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공정한 배상을 하는 문제이다.

전패국이 자기가 범한 침략적 죄행의 후과에 대한 배상을 지불하는 것은 응당한 의무로 되여 있으며 또 실지로 지금 일본은 그가 침략하였던 수 많은 나라들에 대하여 협정에 의한 배상을 지불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강점 전 기간을 통하여 전대 미문의 포악한 식민지적 략탈 정책을 감행하여 조선 인민에게 끼친 피해는 실로 헤아릴 수 없이 막대하다.

그들은 조선을 식민지화한 첫날부터 토지 략탈을 비롯하여 조선 인민의 모든 주요 생산 수단을 강탈하였다.

일제는 조선의 옥답 전부를 독점하였으며 조선의 모든 산림을 략취하였으며 조선의 풍부한 지하 자원을 모두 략탈하여 갔다.

일제는 조선을 원료 공급지로, 독점적 상품 시장으로 전변시키고 나아가서는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로 만들었으며 조선 인민의 고혈을 짜낼 대로 짜내였다.

일제는 조선인 로동자들에게 하루 12～14 시간의 가혹한 로동을 강요하면서도 최저 생활비 마저도 주지 않았다.

일제는 대륙 침략 전쟁을 확대하고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던 시기에 이르러서는 《전시 공출제》를 실시하고 조선 인민의 모든 재산과 자원을 닥치는 대로 빼앗아 갔다.

이 시기에 일제의 미곡 수탈만 하여도 년간 최고 1천만 석에까지 달하였다.

조선 인민에게는 오직 대두박만을 먹을 것을 강요하였으며 심지어 나중에는 조선 인민의 놋그릇과 숟가락까지 략탈하여 갔다.

일제가 《전시 공출》이라는 구실하에 략탈하여 간 축우만도 40 여 만 두에 달하였다.

일제는 또한 조선 인민의 반일 투쟁을 진압하면서 끊임 없이 애국자들을 검거 투옥하고 대중적 학살을 조직하고 촌락을 불사르고 가구 재산을 파괴 략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조선의 고귀한 력사적인 문화 유물들을 수 없이 략취하여 갔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에게 끼친 방대한 물질적 피해는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세인이 다 아는 바이다.

일제가 조선 강점 기간에 직접 략탈하여 간 재물만을 패망 당시에 그들이 남기고 간 일부 자료에 의하여 계산하더라도 그것은 수백 톤에 달하는 금, 은, 보화를 비롯하여 지하 자원과 기타 생산물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만 점의 력사적 유물들과 수만권의 귀중한 서적 등 현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화폐 가격으로서 수천억 원에 달한다.

이 뿐만 아니라 패망 당시 일제는 조선 인민의 고혈을 짜 내여 만들어 놓은 공장, 기업소들과 탄광, 발전소, 철도 운수 수단들마저 모조리 파괴하고 달아났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국제법의 공인된 제 원칙과 국제 관계에 비추어 일제 침략자들이 조선 인민에게 입힌 모든 피해에 대하여 일본 당국에 배상을 요구할 응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당국은 이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다.

일본 정부가 지금 《한일 회담》에서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흥정을 하고 있는 소위 《재산 청구권》 문제인즉 바로 과거 36 년간 일제가 조선 인민에게 끼친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이다. 이 문제를 일본 정부는 지금 조선 인민을 대표할 수 없는 남조선 《군사 정권》의 협잡배들에게 비밀 흥정을 통하여 단 몇 억 딸라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처리해 버리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것은 언어 도단이다.

근 반 세기 동안의 략탈과 파괴에 대한 책임을 감히 이런 방법으로써 모면할 수 있는가?

조선 인민을 대표한 적도 없으며 또 대표할 수도 없는 사기 협잡군의 집단인 남조선 괴뢰 도당은 저들의 일시적이며 탐욕적인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전 조선 인민의 리익을 단 몇 억 딸라에 팔아 먹으려 하며 그것마저 일본 상전 앞에 엎드려 구걸하고 있다.

이것은 추악한 매국 배족 행위이다.

조선 인민은 누구도 그를 용인하지 않는다. 설사 일본 정부가 대일 배상 청구에 관한 조선 인민의 당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그 어떤 흥정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 간의 사'적 금전 거래에 불과할 것이다.

배상 문제는 어데까지나 량국 인민들의 리익에 다 같이 부합되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

그럴수록 이 문제는 그 어떤 공모의 방법에 의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모든 관계자들 간의 진지한 협상과 협조의 정신에 립각해서 신중히 토의되는 경우에만 이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3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의 결과에 남겨 놓은 또하나의 엄중한 유산은 일본에 거주하는 60 여 만의 조선 공민에 관한 문제이다.

재일 조선 공민은 지난날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에 의하여 강제 로동에 끌려 갔거나 또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하에서 살'길을 잃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 일본에서 류랑한 사람들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고율의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 내며 강도적 략탈과 착취의 방법으로 조선 인민들의 생존 수단을 박탈하였다.

생활 방도를 잃은 조선 사람들은 일본 독점 자본의 상시적인 값싼 로동력의 원천으로 되였다.

일제는 조선 강점 전 기간을 통하여 살'길을 찾아 헤매는 조선 사람들을 대량적으로 일본으로 끌어 갔다.

특히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 시기에 일제는 전시 로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에 전시 징용 제도를 실시하고 수 많은 남녀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하여 전선 로무자로 투입하였거나 일본으로 끌어 갔는바 그 수는 무려 334만 여 명에 달한다.

일제는 침략 전쟁 시기에 조선 사람을 징발하는 데 있어서도 야밤에 농가를 습격하며 백주에 트럭을 대고 밭에서 일하는 조선의 청장년들을 닥치는 대로 랍치하여 가는 등 흡사 전세기 노예 매매주를 방불케 하는 야만적인 방법을 다 감행하였다.

일제는 이와 같이 끌고 간 조선 사람들을 례외 없이 탄광, 광산 등 가장 힘들고 고된 로동 부문에 투입하였다.

일본의 공식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로동 재해가 가장 심하던 일본 탄광들에서만 하여도 노예 로동을 강요 당한 조선의 로무자들의 수는 40만 명에 달한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강제로 끌고 간 조선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우마와 같이 혹사하면서도 그들에게 최저 생활비마저 보장하지 않았으며 갖은 민족적 멸시와 학대를 다 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수십 년 간 헤아릴 수 없이 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서 고역에 지치고 빈궁에 시달리고 기한에 떨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일제는 조선 사람들에 대한 대량 학살 사건을 두차에 걸쳐 조직하였다.

1923년 9월에만 하여도 일제는 일본 각지에서 6천 여 명의 조선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학살하였다.

또한 군수 공장 건설과 군사 기지 공사 등에 동원되였던 조선인 로무자들을 《비밀 보장》을 위해서라고 하여 집단적으로 학살한 사건도 부지기수다.

오늘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인들은 바로 일제의 이러한 악독한 민족적 멸시와 학대 속에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이다.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가 조선 공민들에게 끼친 그 죄악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법의 제 원칙에 비추어 응당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합법적인 권리와 대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제가 패망하고 조선이 해방된 후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처지는 개변되지 못하였다.

재일 조선 공민들은 국제법에 규정된 외국인으로서의 응당한 대우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민족적 멸시와 박해, 빈궁과 무권리 속에서 불안정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을 법적 보호 밖에 두고 있으며 그들에게 취업의 권리, 완전한 민족 교육의 권리,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권리 기타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 정부는 《한일 회담》에서 소위 《재일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를 운운하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의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며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선별》 함으로써 더욱 박해를 가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이것을 국제법과 인도주의의 제 원칙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또하나의 엄중한 범죄적 행위로써 단호히 규탄한다. 오늘 재일 조선인의 절대 다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이다.

조 일 량국 적십자 단체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근 8만 명의 재일 조선 공민들이 행복한 새 살림이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자기 조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돌아 왔다. 공화국 국적을 가진 재일 조선 공민에 관한 문제는 직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에 관계되는 문제이다. 일본 정부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민에 관한 문제를 소위 《한일 회담》에서 남조선의

협잡배들과 론의할 아무러한 법적, 도의적 권한도 없다.

일본 정부는 모든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국제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으로서의 대우를 하며 그들에게 조국에로의 래왕의 자유를 포함한 온갖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면 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그 어떤 흥정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의 협의 없이 또 절대 다수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그 누구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한일 회담》에서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그 어떤 협잡 문건을 조작해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비법적이며 무효이다.

일본 정부는 《어업 협정 문제》 등 조선과 관계되는 기타 문제들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참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4

일본 정부가 조 일 량국 간의 관계에서 력사적으로 내려 온 이상과 같은 중대한 미해결 문제들을 비법적인 《한일 회담》과 같은 공모 장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타산한다면 그것은 엄중한 착오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대일 배상 청구 문제를 비롯한 조 일 량국 간의 력사적인 미해결 문제들을 진정 조 일 량국 인민들의 리익에 다 같이 부합되게 또 극동과 아세아의 평화의 리익에 부합되게 정당하게 해결하려면 앞으로 조선이 통일되고 통일적인 인민의 정부가 수립된 후에 토의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이 정당한 주장을 접수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전체 조선 인민의 리익 뿐만 아니라 일본 인민의 리익을 다 같이 엄중히 침해하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한일 회담》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한일 회담》의 주모자가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은 조선 통일을 방해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며 남조선에서 파국에 처한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는 데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끌어 들여 리용하며 나아가서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을 아세아 대륙 침략의 《돌격대》로 내세울 것을 목적한 《동북 아세아 동맹》을 하루 속히 결성하기 위하여 《한일 회담》을 발악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만일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침략 전쟁의 앞잡이로 나서는 대'가로 조선과 아세아 제패의 옛꿈을 재현시켜 보려고 망상한다면 그것은 이미 력사의 판결을 받은 수치스러운 범죄의 길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으로 될 뿐일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지금 《한일 회담》을 통하여 우선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의 길을 개척하면서 남조선에 일본 군대를 주둔시킬 데 대해서까지 흉책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의 조선이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며 오늘의 조선 인민이 50년 전의 조선 인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전체 조선 인민은 《한일 회담》을 통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 음모를 분쇄하며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자를 몰아 내고 군사 파쑈 통치를 종식시키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도 광범한 계층의 인민들이 일본의 민족적 리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한일 회담》을 반대하여 견결히 진출하고 있다.

이것은 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 회담》에서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어떠한 경제적 및 군사적 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1962년 12월 13일 평양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5차 전원 회의에 관한 보도

12월 10일～14일까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사회 하에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에는 당 중앙 위원회 위원 및 후보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 중앙 검사 위원회 위원들, 당 중앙 및 지방 당 일'군들, 성 및 중앙 기관 책임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 의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상정되였다.

1)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2) 1962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총화와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많은 동지들이 상정된 문제들의 토의에 참가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중요 발언이 있었다.

전원 회의는 먼저 의정 첫째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오늘 전반적 국내외 정세가 조선 인민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력량이 급격히 장성하며 그것이 조국 통일의 결정적 요인으로 되고 있는 반면에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통치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또한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사회주의 력량은 전쟁과 제국주의 세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인민 대중의 혁명 력량은 반동 세력을 압도하고 있으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은 비할바 없이 강화되였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는 인류 력사 발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전환되였으며 그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더 장성하고 있다.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그의 영향 하에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투쟁의 불'길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으며 수억만 인민들이 이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로동 운동과 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전 세계적 범위에서 앙양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결코 자진하여 력사 무대에서 물러가지 않으며 미제를 괴수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는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해 보려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고 전원 회의는 지적하였다.

오늘 미 제국주의는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전쟁 도발 책동을 더욱더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길에 들어 서고 있다.

최근 케네디 정부의 도발에 의하여 조성된 큐바에서의 엄중한 사태는 미 제국주의의 강도적 본성을 가장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다. 전원 회의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침략 책동을 좌절시키며 자기 조국의 영예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큐바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수행한 큐바 인민들이 전 세계 인민들의 지원 하에 굳게 단결하여 자체의 힘으로 능히 큐바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위업을 끝까지 고수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전쟁 및 침략 책동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에 깊은 주목을 돌렸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오늘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확대하며 대만을 강점하고 반중국 소동을 계속 강화하며 최근에는 인도 반동 지배층을 사촉하여 중인 국경 지역에서 군사 충돌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전원 회의는 중인 국경 분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노력과 최근에 취한 주동적 조치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또한 미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자기들의 원자 및 로케트 기지로 전변시키고 남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재생 재무장시키고 그들을 남조선과 아세아 침략을 위한 《돌격대》로 내몰려고 하는 한편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들을 결탁시킬 목적으로 그들을 추동하여 《한일 회담》을 기어코 성사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주목을 돌렸다.

이 모든 사실은 제국주의에 대한 어떠한 환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최근 국제 분야에서의 일련의 사태 발전은 제국주의 침략 앞에서 타협할 때에 침략자들이 더욱 거만해지고 횡포해 지며 더욱더 평화를 위협한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평화를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할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 민족 해방 투쟁, 자본주의 국가 내 로동 운동, 평화 옹호 투쟁 등 모든 반제국주의 력량과 평화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고 결속하여야 한다고 전원 회의는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미 제국주의가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수이며 첫째가는 투쟁 대상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남조선에서의 그들의 전쟁 및 침략 책동을 파탄시키며 미국 침략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몰아 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완강하게 투쟁할 데 대한 견결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며 앞으로도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모든 피압박 민족들과 피착취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면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 데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립장을 전'적으로 찬동하였다.

전원 회의는 조성된 정세와 적들의 침략 책동에 대처하여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전원 회의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대치되여 있으며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으로 인하여 오늘 정세가 더욱더 긴장되여 있는 조건에서 적들의 책동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견지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나 우리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준비되여 있을 것을 강조하였다.

《오직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강화하고 우리가 항상 동원된 태세에 있을 때에만 적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며 또 설사 그들이 분별 없는 모험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승리를 쟁취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전원 회의 결정에는 지적되여 있다.

전원 회의는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강화하며 우리의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진지로 전변시킬 데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인민 군대를 간부 군대로 육성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군 대렬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거리와 마을, 우리의 사랑하는 향토를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욱 성과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는 국방력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자력 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의 경제 정책을 받들고 모든 분야에서 증산하고 절약하며 부단한 혁신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당 대렬의 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며 당과 인민의 통일을 가일층 강화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혁명 위업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며 온갖 해이성과 권태증을 반대하고 항상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며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사업 질서와 혁명적 생활 기풍을 확립할 것을 지적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전쟁 및 침략 정책을 실현시킴에 있어서 수정주의자들을 리용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에 로골적으로 복무하면서 맑스—레닌주의 혁명 정신을 거세하고 인민 대중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며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각방으로 비호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파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전원 회의는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르죠아 사상의 침입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 더욱더 굳게 단결하며 모든 공산당, 로동당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은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제 인민의 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확고히 수호하며 이 통일을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행위와도 견결히 투쟁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암담한 시기에 포악 무도한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15개 성상에 걸쳐 백절불굴의 투쟁을 전개한 항일 무장 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15개 추종국가 군대의 강도적 침공을 반대하는 가혹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조선 인민의 힘이 오늘 비할바 없이 장성되였으며 강화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우리에게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130만의 당원이 한몸 같이 결속된 강철의 당이 있고 당 주위에 굳게 단결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과 강력한 자립적 경제 토대가 있다. 우리에게는 또한 불패의 인민 군대와 전 인민적 무장이 있다. 당과 인민의 강철같은 통일, 자기 조국을 보위하며 혁명 위업을 완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결심과 충천하는 혁명적 기세—바로 이것이 어떠한 원자 무기나 로케트 무기보다도 강력하며 어떠한 침략자라도 격멸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라고 전원 회의는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계속하여 의정 둘째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에 앞서 당, 국가 및 경제 지도 기관 일'군들, 생산 기업소, 협동 농장 일'군들과 전문가들의 광범한 참가 하에 본 문제에 관한 부문별 분과 회의들이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금년도 계획 실행 정형을 총화하고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예비적 총화에 의하면 알곡 500만 톤 고지를 비롯하여 당이 제기한 6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 수준이 현저하게 장성하였다.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인민 경제의 전면적 기술 개건이 촉진되고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 기지가 더욱 정비 보강되였으며 경공업 기지가 확대 강화되였다.

농촌 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가 가일층 촉진되였으며 1962년 9월 말 현재 경지 100 정보당 뜨락또르(15 마력으로 환산)의 대수는 0.73 대에 달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 생활은 더욱 향상되고 교육, 보

건, 문화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커다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당 조직들의 령도적 역할이 더욱 제고되고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사업 체계와 사업 방법이 개선되였으며 근로자들의 정신 도덕적 풍모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전원 회의는 금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실행함으로써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의 과업 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을 이룩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2~3년 내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광활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수립된 공업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지도 체계는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나라 현실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사회주의 경제 관리의 가장 훌륭한 형태이라고 지적하면서 새 지도 체계는 생산에서의 대중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고도로 발양시키고 나라의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킴에 있어서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된 이 모든 성과들은 자력갱생의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 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다시 한 번 실증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 수행 행정에서 발로된 일부 결함들과 부족점들을 지적하고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요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7개년 계획의 상반기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1963년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7개년 계획의 상반기 기본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금년도 6 개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전원 회의는 명년에도 중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들을 더욱 정비 보강하면서 농촌 경리와 경공업 발전에 주력할 것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명년도 계획의 기본 과업에 확고히 립각하여 1962년에 공업 총 생산액은 1962년 예정 실적에 비하여 111%,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113%, 소비재 생산은 108%로 각각 장성시킬 것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중공업 부문 앞에 나선 중심 과업은 계속 중공업의 골간에 살을 붙이고 생산을 철저히 정상화하며 채취 공업에 력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전력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킬 데 대하여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전력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력 공업에 계속 큰 투자를 하여 중요 발전소 건설을 촉진시키며 중소용량 발전소 건설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전력 생산량을 장성시킬 과업을 제기하였다.

채취 공업을 발전시킬 데 대한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원 회의는 석탄 공업 부문에서 투자를 집중하며 갱구당, 채탄장당 생산량을 더욱 제고하고 탄광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며 굴진을 전망성있게 선행시키며 석탄 채굴에서 계절적 제약성을 극복하고 생산을 정상화할 것과 광업 부문에서 철광석 생산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대규모 광산들과 중 소 규모 광산들을 개발하여 유색 금속, 희유 금속 및 비금속 광물 생산을 더욱 증대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철 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의 기본 고리는 현존 제철, 제강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기계 제작 공업을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는 경공업 부문 앞에 나서고 있는 중요 과업은 2억 5천만 메터 직물 고지를 확고히 견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1964년도에 가서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준비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원 회의는 섬유 생산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섬유 원료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특히 전원 회의는 지방 공업 발전이 가지는 거대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강조하고 매개 시, 군들과 경제 문화적으로 뒤떨어 졌던 산간 지대들에서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지방 공업 공장들을 더 잘 꾸리며 협동 농장들을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더욱 공고화하며 주민들의 생활을 일층 개선할 것을 중요하게 제기하였다.

알곡 생산에 계속 력량을 집중할 데 대하여 전원 회의는 중요한 주목을 돌렸다.

전원 회의는 명년에 농촌 경리 발전에 계속 주력할 데 대한 기본 방침으로부터 출발하여 이미 점령한 알곡 500만톤 고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벼 수확을 더욱 증가시켜 알곡 생산의 질적 구성을 높이며 특히 밭벼 면적을 확장하여 명년에는 15만 정보, 1964년에는 30만 정보에 도달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수산 부문에서 수산물 80만 톤 고지를 공고 발전시키며 물고기의 비중을 더욱 높일 데 대해서와 운수, 체신 부문 앞에 나선 과업들을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1963년 계획의 중심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채취 공업을 비롯한 산업 건설과 주택, 문화 후생 시설 건설에 력량을 집중할 것을 규정하였다.

전원 회의는 명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기본 방도로서 다음과 같은 10대 과업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성 및 관리국들과 경제 기관들이 생산에 대한 지도, 자재 공급, 업무 행정에 대한 지도에서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우에서 아래를 도와 줄 데 대한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계속 관철시킴으로써 생산 지도에서와 기업 관리 운영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철저히 극복할 것이며 모든 사업에서 당 조직들과 군중에 의거하는 기풍을 더욱 확립하고 우리 당의 군중 로선을 철저히 관철시켜야 한다.

둘째로, 각급 당 위원회들이 집체적 령도 기능을 제고하며 생산 지도에서 키잡이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며 당원들의 당 조직 생활을 정상화함으로써 당 정책 관철에서와 당원들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 사업에서 계속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로,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기본 요구인 계획화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월별, 분기별 전투 계획을 생산자 대중과 토의하여 작성하며 작성된 계획은 반드시 당 조직을 통하여 생산자 대중 속에 침투시켜 그들 자신의 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네째로, 모든 생산 단위들에서 협동 생산을 정확히 조직하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체 기관 본위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계획 수행에서 법적 규률을 더욱 강화하며 매개 단위에서 책임적으로 자기 맡은 과제를 제때에 어김 없이 집행함으로써 련계된 부문의 완제품 생산을 정확히 보장하며 사회주의적 협동 생산의 우월성이 남김 없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예비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키고 점검 보수 체계를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기계 설비들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며 그의 리용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관개 시설, 항만 시설, 토지 등 제반 시설에 대한 보호 관리 사업을 철저히 하고 그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여섯째로, 모든 부문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현 시대는 기술 혁명의 시대이며 증산과 절약의 중요 예비는 바로 기술 혁명의 수행에 있다.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촉진하며 특히 농촌 경리 분야에서 기경, 파종, 제초, 수확, 탈곡에 이르는 농산 작업의 종합적 기계화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기술 혁신 운동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과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없는 것은 만들어 내며 부족한 것은 여유 있게 하여야 하며 모든 자재와 원료를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일곱째로, 모든 부문에서 로동 행정 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절약하며 로력 랑비 현상과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전원 회의는 농업 생산을 계속 급속히 장성시킬 데 대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농촌 로동 행정 사업에 심중한 주목을 돌렸으며 그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였다.

여덟째로, 기본 건설에서 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선후차를 옳게 가려 중요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는 당의 일관한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건설 및 설계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체계를 확립하고 건설 계획을 엄격히 집행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아홉째로, 매개 지도 일'군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후방 공급 사업을 정치 사업의 일부로서 잘 이 인식하고 부식물 공급을 비롯한 후방 공급 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하며 공장 및 농촌 주택들과 합숙들을 더 잘 꾸리며 편의 시설망을 확대하며 문화 후생 시설들을 더 잘 정비하며 후방 경리 일'군들에 대한 교양 훈련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끝으로 기술 학습, 실무 학습, 정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전당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모든 일'군들의 정치, 기술 실무 수준을 제고하며 당이 제기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

이상과 같은 10대 과업을 제기하면서 전원 회의는 명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은 공화국 북반부의 혁명적 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일층 반석 같이 다지게 하고 조국 통일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가능성을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명년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1964년에 가서 3억 메터의 직물, 300만 톤의 벼, 20만 톤의 육류를 생산하며 새로 건설되는 문화 주택을 60만 세대에 도달시킬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원 회의는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전체 당 조직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고도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를 발휘하여 전원 회의가 제기한 10대 과업을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1963년도 계획을 반드시 초과 수행하고 우리

나라의 위력을 가일층 강화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전원 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에서 미국은 미리 꾸며진 흉책에 따라 유엔 헌장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례년과 같이 《조선 문제》에 관한 진부한 《결정》을 또다시 강압 통과시켰다.

애당초 《조선 문제》를 토의할 권리도 없는 유엔에서 그 무슨 《결정》을 반복하여 채택케 하는 것부터 가소로운 일이다.

미제는 강압 통과시킨 《조선 문제》에 관한 금번의 《결정》에서도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식민지 군사 기지로 확보할 데 대한 침략적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 놓았다.

이것은 미제야말로 조선에 대한 횡포한 침략자이며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이며 유엔을 그의 침략 정책 수행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범죄자이라는 것을 더욱 자체 폭로하였을 뿐이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가 이미 성명한 바와 같이 미국이 제멋 대로 조작해 낸 《조선 문제》에 관한 그 어떤 유엔의 《결정》도 하등의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유엔은 이 이상 미제의 침략 도구로 악용되지 말아야 하며 《조선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한다.

전체 조선 인민은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자기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1962년 12월 20일 평양

서 울

지 리

자연 조건

【위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은 아세아 대륙의 동안 중앙부에 남북으로 뻗은 조선 반도와 그 근해에 산재한 3,300 여 개의 도서들로 구성되여 있다.

우리 나라의 극북은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의 북단 (북위 43°0′ 36″)이고 극남은 제주도의 서남쪽에 있는 마라도의 남단 (북위 33°6′ 40″)이며 극서는 평안북도 룡천군의 신도 서쪽에 있는 마안도의 서단 (동경 124° 11′0″)이고 극동은 울릉도 동북쪽에 있는 독도의 동단(동경131° 51′20″)이다.

우리 나라는 기후대적으로 북온대의 중앙부에 속함으로 4 계절의 교체가 명료하며 사람들의 활동에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가 가지는 특성은 우리 나라의 지체가 남북으로 길며 기후가 다양하고 지형, 지질이 복잡한 것과 결합되여 우리 나라의 자연계를 더욱 다종다양하게 하며 또 각종 자연 부원을 풍부하게 한다.

【면적】 령토의 총 면적은 22만 791평방 키로메터로서 세계 전 륙지 면적의 약 676분의 1에 해당한다. 남북의 최장 거리 (중강—해남 반도 남단)는 840 키로메터, 동서의 최장폭 (장산곶—양양) 은 354 키로메터이다.

우리 나라의 국토와 풍부한 자연 부원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서 유력한 물질적 담보로 된다.

【경계】 우리 나라는 해양 국가임으로 바다 경계선이 전 국경선의 87 %에 달하며 (약 8,700키로메터, 도서를 제외),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약 1,300키로메터 (전 국경선의 13%) 구간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동북 지방과 쏘련의 연해주 지방(두만강 하구 약 16.5 키로메터 구간)과 접하고 있다.

【지질】 우리 나라는 지체 구조상으로 동부 아세아의 대구조대들 사이에 놓여 있는바 대부분 지역은 조중 륙대 (하부 원생대)의 동쪽 연변부에 속하며 북동부 지역은 씨호떼알린 지향사대의 일부인 상부 고생대 습곡대, 남동부 지역은 환 태평양 습곡대에 속하는 중생대 습곡대의 일부 지역으로 구성되여 있다.

륙대의 결정 기반이 전 령토 면적의 46%를 차지하며 중생대의 관입암, 기타 암석들이 약 24%, 신기 분출암이 8%, 퇴적암이 약 22%에 달한다. 우리 나라는 안정된 륙대로서 화산 활동도 국한되여 진행되였고 현재 활동 중의 화산은 없고 약간의 약진과 미진이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에는 지질 작용과 관련 되여 근 60 여 개의 광천들이 있다.

【지형】 우리 나라는 산지가 많은 나라로서 전 령토의 근 80% 가 산지로 되여 있으며 평지는 20%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나라의 평균 고도는 482 메터로서 전 세계 륙지의 평균 고도 875 메터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우리 나라는 산악국이라고 하지만 그의 약 65%가 500메터 이하로서 구릉성 또는 저산성 산지가 대부분이고 고산이라고 볼 수 있는 2,000메터 이상의 산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극히 좁다 (0.45%). 1,000 메터 이상되는 산지는 전 령역의 15%이다. 우리 나라의 산지는 북부와 동부에 치우쳐 있고 서해안으로 가면서 점차 완만하게 경사되여 저평한 지대로 되여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평야들은 서해안에 주로 분포되여 있으며 이것이 곧 하계의 배렬에 반영되고 있다.

하천들도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이 많으며 이 하천들의 류역에는 넓은 충적 평야들이 전개되여 있다.

동해로 흐르는 하천들은 모두 짧고 그리고 류속이 빠르고 락차가 크므로 수력 자원이 풍부하다.

평야—평야들은 주로 서해안과 동해안 및 남해안의 주요 하천 류역과 해안 지대에 전개되여 있다. 평야들이 차지하는 면적은 비록 20% 정도이나 토양은 비옥하며 농경지 특히는 논이 집중되여 있어 우리 나라 농업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다.

서해안의 중요 평야들로는 룡천 평야, 운전 평야, 안주 평야들과 평양 준평원, 재령 평야, 연백 평야, 김포 평야, 평택 평야, 내포 평야, 호남 평야, 전남 평야 등이 있으며 남해안에는 진주 평야, 김해 평야가 있다. 동해안에는 수성 평야, 길주 평야, 함흥 평야, 영흥 평야 등이 있다.

이 평야들 중 가장 큰 평야는 호남 평야, 재령 평야, 평양 준평원 등이며 그 면적은 각각 500 평방 키로메터 정도이며 그 다음은 300 평방 키로메터 정도의 연백 평야, 함흥 평야이다. 이 평야들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농업 지대로 되여 있다.

산지—우리 나라의 산지는 일정한 몇 개의 방향으로 배렬되여 있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남남동 방향으로 마천령 산맥이 동해안까지 달리고 있으며 이 산맥에

는 2,000메터 이상의 고산들이 련달아 솟아 있다. 이 마천령 산맥의 거의 중앙에서 북동 방향으로 함경 산맥이 뻗어 있고 반대 쪽에는 서남서 방향의 부전령 산맥이 뻗어 있다. 함경 산맥에는 2,000메터 이상되는 산봉들이 수 많이 솟아 있으며 그의 최고봉인 관모봉은 2,541 메터로서 우리 나라에서 백두산 다음가는 높은 산이다. 함경 산맥과 부전령 산맥의 동사면은 급경사를 이루며 배면은 비교적 완만한 개마 고원과 백무 고원이 전개되여 있다. 개마 고원의 서부에는 마천령 산맥에 병행하여 랑림 산맥이 뻗어 있다. 랑림 산맥 이서 지역에는 강남 산맥과 적유령 산맥이 점차 낮아지면서 서해안으로 뻗고 있다.

동해안을 따라 우리 나라의 척량 산맥인 태백 산맥이 남북 방향으로 뻗고 있다. 동사면은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서사면은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고원상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 산맥에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 (1,638 메터), 1211고지, 설악산 (1,708메터) 과 오대산 (1,563 메터), 태백산 (1,561 메터) 등의 명산이 솟아 있어 아름답고도 장엄한 산악 경관을 이루고 있다.

태백 산맥의 서쪽에는 광주 산맥, 중부에 차령 산맥, 남쪽에 로령 산맥과 소백 산맥이 남동 방향으로 뻗어 있다. 대부분이 500～1,000 메터까지의 산지로 되여 있다.

【기후】 우리 나라 기후는 비교적 온난한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계절풍의 영향으로 기온의 년 교차가 크며 겨울철의 건조기와 여름철의 우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년 평균 기온은 일부 내륙 고원 지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 지방들에서 6°C이상 되며 남해안 일대에서는 13.0°C 이상에 달한다.

우리 나라는 강수량도 많은바 년 총 강수량에서 동해안 북부 및 내륙 고원 지대 (500～700미리메터)를 제외하면 대부분 지방들에서 900 미리메터 이상 1,500 미리메터 정도에까지 달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기후에서의 특징의 하나는 지리적 위치 및 자연 지리적 제 조건과 관련하여 대기 순환이 주로 계절풍적 성격을 띠므로 겨울철에는 대륙 고기압의 발달과 관련된 대륙성 계절풍이 지배적이며 여름철에는 반대로 태평양 고기압의 발달로 해양성 계절풍의 지배를 받게 된다.

따라서 겨울철은 한랭 건조하고 여름철은 고온 다습하며 6,7, 8월에 년 총 강수량의 50～60%가 내린다. 봄철과 가을철은 계절풍의 교체기로서 바다나 륙지의 영향이 현저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로 따뜻한 개인 날씨가 많다.

봄철에 기온은 급격히 상승하며 이에 따라 증발량도 급격히 증대되는 관계로 이 시기가 년중을 통하여 가장 건조한 시기로 된다.

가을철은 일반적으로 개인 날씨가 많고 온난한 편이며 년중을 통하여 가장 날씨가 좋은 시기로 된다. 그러나 이 시기에 대륙으로부터 불어 오는 바람으로 인하여 기온이 급격히 낮아 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군 한다.

기온—우리 나라의 년 평균 기온은 10°C이며 북부에서 4°C, 중부에서는 10°C, 남부 해안 지대와 남부 해상의 도서들에서는 14°C이다. 남해안 및 남부 해상 도서들에서 1월 평균 기온은 3°C 내외이다. 동해안과 서해안의 기온을 대비하면 여름을 제외하고 동해안이 약 2°C 내외로 높다.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기온의 차이는 겨울에 특히 심하고 여름에는 그 차가 매우 적다.

대체로 가장 더운 7월 또는 8월의 평균 기온은 26°C 내외로 되여 있으나 동부 산지대 고원 지방은 20°C 정도이다.

1월 평균 기온은 남부 해안에서 약 2°C이고 북부의 내륙 지방에서는 령하 21°C 이하로 내려간다. 우리 나라의 최고 기온 극은 1932년 8월 1일 40.3°C (일부 북부 내륙 지방에서 7월에 40°C까지 되는 날도 있다)이며 최저 기온극은 1933년 1월 12일 중강에서 령하 43.6°C로 관측되였다.

강수량—눈은 북부 산지에서는 10월 하순부터 다음 해 4월까지, 기타 지방에서는 11월 초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사이에 내린다.

비는 어느 지방이나 6월부터 8월까지의 3개월 간에 년 총 강수량의 50～60%가 내린다. 년 총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800～1,000 미리메터 내외이고 가장 많은 남부 해안 지대에서는 1,400미리메터를 초과하며 가장 적은 두만강 류역에서는 500 미리메터 이하되는 곳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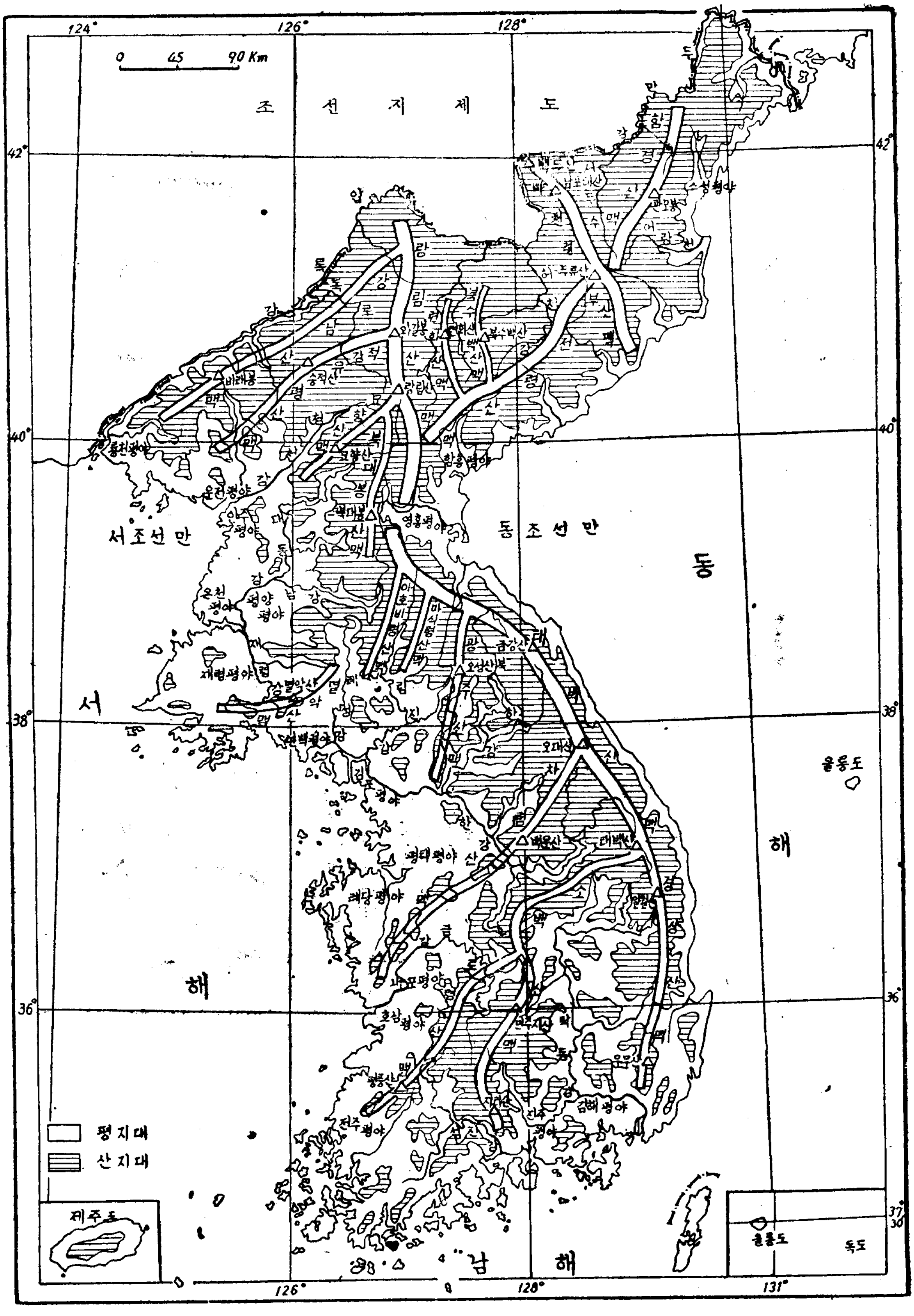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비가 많이 내리는 지대는 남부 해안 지대와 서부 산지대의 청천강과 대령강 상류 지방과 추가령 지구대의 림진강 류역이며 제주도와 울릉도는 1,400 미리메터 전후이다. 강우량이 적은 지대는 백무 고원, 동해안의 북부, 대동강 하류 류역이며 이 지대의 강수량은 600～700 미리메터이다. 우리 나라에서 년 강수량이 제일 많은 기록은 1954 년 장진의 3,150.3미리메터이다.

【하천 및 호소】 우리 나라의 하천은 전체적으로 보아 서해 사면으로 흐르는 하천, 동해 사면으로 흐르는 하천, 남해 사면으로 흐르는 하천으로 구분된다.

서해 사면과 남해 사면으로 지형이 완만하므로 압록강, 대동강, 청천강, 한강, 금강, 섬진강, 락동강 등의 큰 강들이 흐르고 있으며 반면에 동해 사면으로는 항상 경사가 급하므로 두만강을 제외하고는 긴 강이란 찾아 볼 수 없다.

우리 나라에는 천지를 비롯한 수 많은 자연 호수들과 저수지들이 있다.

【바다】 우리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해양국이다.



조 선 지 제 도
0 45 90 Km
124°
126°
128°
131°
42°
40°
38°
36°
서조선만
동조선만
서
해
동
해
남
해
울릉도
독도
제주도
평지대
산지대
영흥평야
함흥평야
평양 평야
재령평야
연백평야
김포평야
평택평야
예당평야
호남평야
김해평야
전주평야
금강산
오대산
태백산
묘향산
지리산

우리 나라의 바다들 중에서 가장 넓고 깊은 바다는 동해인바 동해의 면적은 약 100만 평방 키로메터이고 그 평균 깊이는 약 1,700 메터이며 가장 깊은 곳은 3 650메터이다. 해안선 (두만강 하구—부산 동쪽) 의 총 연장은 7,600키로메터로서 서해와 남해에 비하여 단조하며 섬들도 적다. 수온은 여름에 표면에서 25°C ~28°C까지 되며 겨울에는 1°C 정도로 된다.

동해의 염분은 34.5%이고 조석 간만의 차는 극히 적고(0.2 메터) 해류는 난류인 대마 해류가 남쪽의 조선 해협을 지나서 흘러 들고 북쪽으로부터 한류인 리만 해류가 흘러 든다.

서해의 면적은 약 52만 평방키로메터이며 해안선의 총 연장은 4,719 키로메터이다. 바다의 평균 깊이는 약 40메터이며 가장 깊은 곳이라 하여도 106메터 정도에 불과하다. 수온은 겨울에 령도 내외로 내려가며 여름에는 23°C 이상으로 올라간다. 염분은 대체로 33.0% 미만이다.

서해의 중앙부에는 태평양의 구로시오로부터 갈라져 나온 서조선 해류가 흐른다. 서해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인천항 10메터, 아산만 8.2메터) 수심이 얕으므로 해안에는 50만 정보(공화국 북반부에만도 약 30만 정보)의 넓은 간석지가 있다. 이것은 중요한 농경지로, 묘초전과 제염업 기지로, 수산물 양식장으로도 리용될 전망이 크다.

남해의 면적은 약 10만 평방키로메터이며 해안선의 총 연장은 2,246 키로메터이다. 평균 깊이는 약 120 메터이고 가장 깊은 곳은 167 메터이다. 수온은 여름에 표면에서 28°~30°C, 겨울에는 13°C까지 되며 염분은 약 34.0%이다.

조석 간만의 차는 2 메터 내외이며 해안에는 약 20만 정보의 간석지가 있다. 남해안에는 제주도, 거제도, 남해도를 비롯한 2,200 여 개의 섬들이 있으며 세계적인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동, 식물계】 동 식물계는 우리 나라 자연 지리적 조건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매우 풍부하며 다양하다. 오늘까지 조사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식물은 3,600 여 종에 달하는데 그것은 160과 880속 3,059종 546변종으로 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는 북부 고지대의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린네풀 등을 비롯한 한대성 식물들과 남부 지대의 북가시나무, 참가시나무, 동백나무 등의 아열대 식물, 우리 나라 고유 식물을 비롯한 온대성 식물 등 실로 다종 다양한 식물들이 분포되여 하나의 대자연 식물원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는 그 지리학적 발전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산 식물이 많은 것으로 세계에 유명하다. 금강산의 금강초롱꽃, 세계 1속 1종 밖에 없는 충청북도 진천군의 미선나무, 검산령의 검산초롱, 장수산의 장수만리화, 금강산의 금강국수나무 등은 그의 한 실례로 된다.

우리 나라의 동물상도 역시 매우 풍부하며 다양하다.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척추 동물에 속하는 것만도 대략 1,088종이며 그중 포유 동물은 40속 87종, 조류는 419종, 파충류는 27종, 량서류는 15종, 어류는 522종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와 지리적 위치, 면적 등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아주 많은 수'자이다. 또한 동물에 있어서도 특산종이 많다.

우리 나라 특산속 포유 동물인 복작노루를 비롯하여 특산종인 유명한 클락새 (개성, 평산, 강릉 이남 지역에 분포), 특산 아종인 산토끼 등 100 여종의 특산 동물이 있다. 이 외에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에 의하여 노루까,은흑색 여우 등 외국산 동물들을 풍토 순화시킴으로써 우리 나라 동물상은 날로 풍부화되고 있다.

【토양】 우리 나라에는 다종 다양한 토양이 분포되여 있다.

우리 나라 북부의 비교적 높은 산악 지대에는 분비, 가문비를 비롯한 침엽 수림의 영향 하에서 산악 포드졸토가 발달되고 산림 한계선 이상의 산정 부근에서는 산악 습초원토가 분포되여 있다.

비교적 한랭한 중부의 산악 지대에서는 침엽 수림과 침활 혼성림의 영향 하에 산악 산림 갈색토가 분포되고 그의 하부 침활 혼성림과 활엽 수림이 성장하는 지역에서는 산림 갈색토가 발달하고 있는바 이 토양은 밭 작물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토양이다.

중부 온대 남부 활엽 수림이 생육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저산 및 평지대에서는 산악 산림 적갈색토와 산림 적갈색토가 발달하고 있다.

이 토양들은 남부의 적색토와 북부 및 부분적으로 중부에 분포된 산림 갈색토의 중간적 위치인 점이 지대에서 형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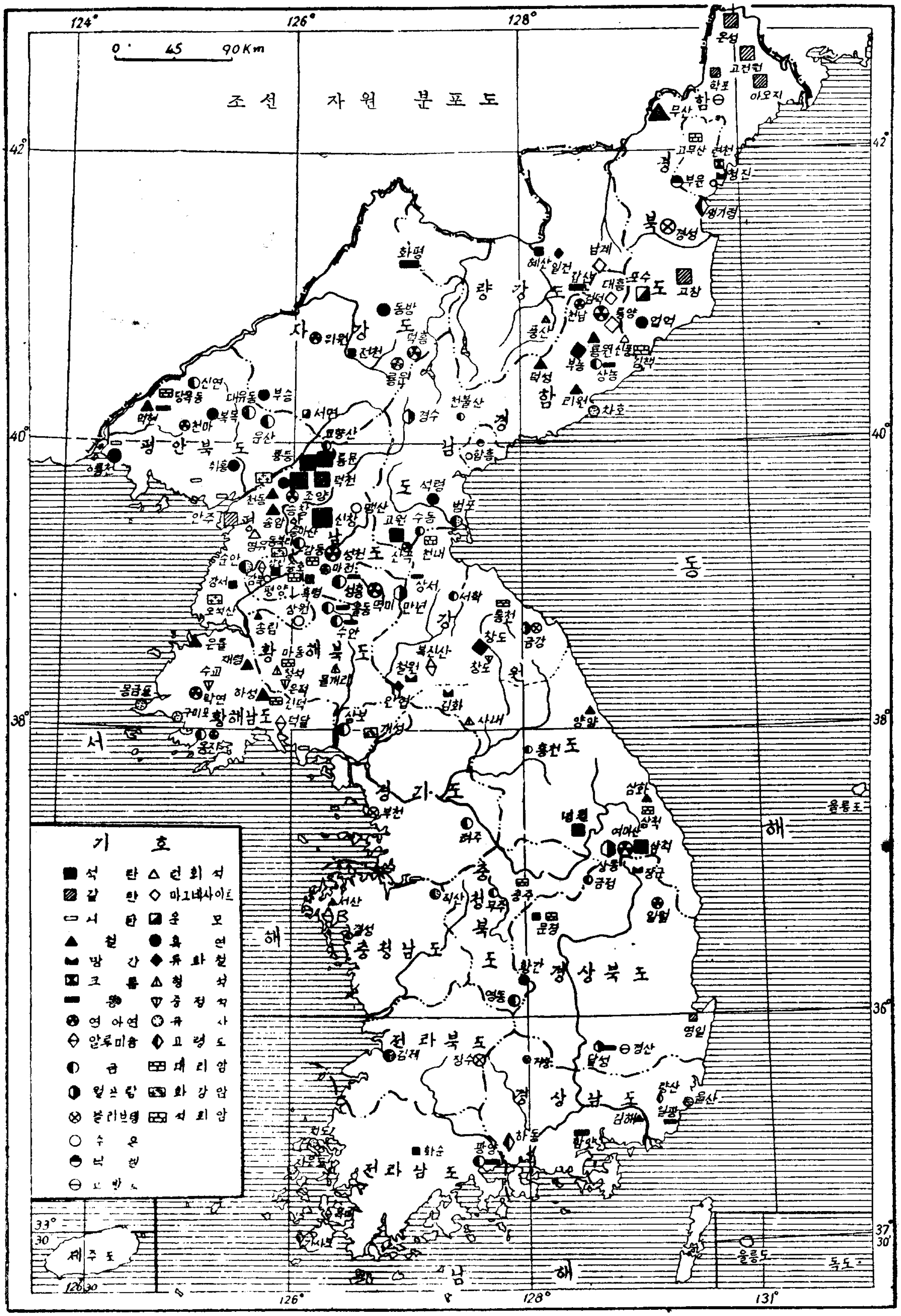
남부 해안 지대에는 아열대성 기후와 동백나무를 비롯한 상록 활엽 수림을 포함한 아열대림의 영향 하에서 적색토 또는 황색토가 발달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 분포된 비대적인 토양으로서는 논토양, 충적토, 간석지 토양, 소택토들이다.

우리 나라 평야 지대 각 곳에 분포되여 있는 논토양은 농업의 발전과 밀접히 련결된 문화적 토양이며 우리 나라 알곡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토양이다.

간석지 토양은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한 우리 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분포되여 있는바 자연 개조의 중요한 대상으로 된다.

충적토는 하천의 범람과 과거의 충적지였던 하안 단구들에 발달하고 있다. 충적토의 면적은 그리 넓지 못 하나 이 토양의 대부분은 인간의 경제적 활동에 의하여 현재에 와서는 대부분이 논토양으로 변화되였다.



조 선 자 원 분 포 도
0 45 90Km
기 호
석 탄
갈 탄
철
망 간
흑 연
유 화 철
금
수 은
마그네사이트
운 모
고 령 도
대 리 암
화 강 암
석 회 암
평 안 북 도
평 안 남 도
자 강 도
량 강 도
함 경 북 도
함 경 남 도
황 해 북 도
황해남도
강 원 도
경 기 도
충 청 북 도
충청남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제 주 도
동 해
서 해
남 해
울릉도
독도

소택토는 비교적 높은 산악 지대에서 현무암 대지와 같이 평탄한 지역에서 물의 투수성이 불량하며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대에서 고위 소택초가 형성되며 하안지대의 비교적 습한 곳에서는 저위 소택초가 발달되고 있다.

자연 부원

【지하 자원】 우리 나라는 지하자원이 다양하고 풍부한 것으로 세계에서 유명하다.

현재까지 300 여 종의 광물이 발견되였는데 그중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광물은 약 200종이나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금, 탕그스텐, 몰리브덴, 흑연, 마그네사이트, 석회석, 운모, 중정석, 형석 등은 매장량에서나 채취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10위 이내에 든다.

또한 우리 나라에는 무산을 비롯한 많은 철광, 석탄, 연, 아연, 동, 알루미늄, 린회석, 내화재료, 각종 희유 원소 광물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이 밖에 망간, 니켈, 활석, 규사, 고령토, 석면, 화강암, 대리석 등 여러가지 유용 광물이 많다.

【수력 자원】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수력 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현재까지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800만 키로왓트 이상의 출력에 해당하는 수력 자원 (서구라파에서 풍부한 수력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불란서의 580만 키로왓트보다 훨씬 많다)을 가지고 있다.

그중 공화국 북반부에 약 600만 키로왓트에 해당하는 수력 자원이 있다.

하천별로 수력 자원을 보면 압록강 수계, 두만강 수계에 가장 풍부하며 대동강 수계, 청천강 수계, 그리고 림진강 수계, 한강 수계, 금강 수계, 락동강 수계에도 풍부하다.

또한 우리 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풍부한 조력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실로 수백만 키로왓트에 달한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면 서해안에서만도 최소 400억 키로왓트시 이상의 발전 가능량을 가지고 있다.

【산림 자원】 우리 나라는 산림 면적의 비중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 면적은 1,600만 정보로서 이는 전 국토의 73%에 해당된다.

산림 면적의 58.6%는 북반부에 있고 나머지 41.4%는 남반부에 있다.

우리 나라 산림 식물은 1,100 여 종이나 되며 그중 교목만 하여도 침엽수가 19종, 활엽수가 136종이나 된다. 우리 나라의 산림에는 700 여종의 약용 식물, 700~800 여종의 산채류, 450 여종의 공업용 식물 등을 비롯한 경제적으로 유용한 식물이 풍부하다.

산림 내에 있는 유용 식물들 중 중요한 것만 들면 다음과 같다. 섬유 및 제지 식물로서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황철나무, 닥나무, 노박덩굴, 유지 식물로서는 잣나무, 가래나무, 호두나무, 초피나무 등이 있다. 산과실로서는 밤나무, 돌배나무, 들죽나무, 살구나무, 머루, 다래, 산딸기, 매지나무, 염료식물로서 시닥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특수 용재의 수종으로서 참대, 오동나무, 황경피나무 및 기타 등이 있다.

우리 당은 최근 5~6년 내에 30만 정보의 섬유 제지림과 20만 정보의 유지림을 조성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이 완수되면 우리 나라의 산림은 황금산으로 전변될 것이다.

【수산 자원】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해양국으로서 수산 자원이 세계적으로 풍부한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동해안은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는 지역이므로 한류성 어족과 난류성 어족들이 모여 오는 세계 3대 어장의 일부에 속한다.

우리 나라 수산 자원은 650 여 종에 달하며 그중 530 여종은 바다에, 120 여종은 호소, 저수지, 하천 등에 분포되여 있다. 이 중에서 자원의 량과 리용 가치로 보아 수산업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어류 75종을 비롯하여 120 여종에 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을 들면 서해에서는 조기, 새우, 민어, 도미, 삼치, 갈치, 바스레기, 대합조개, 김, 굴, 미역 등이며 동해에서는 명태, 고등어, 청어, 대구, 가재미, 방어 등이며 남해에서는 도미, 고등어, 갈치, 새우 등이다.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북반부이고 그중에서도 함경남도 해안에서는 전 조선 어획고의 40% 이상이 생산된다. 우리 나라는 7개년 계획 말에 100만~120만 톤에 달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국 내 정 세

조선 로동당은 7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1962년에 여섯 개 고지 점령을 기본으로 하는 방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전체 근로자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당이 제기한 전투적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특히 이 해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후 처음으로 자기의 최고 주권 기관인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령도를 받는 천리마 조선 인민의 기상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떨치였다.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 밑에 줄기차게 전개된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부강 발전과 조국 통일의 강력한 물질적 담보로 되는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는 더 한층 튼튼히 다져졌다.

부단히 발전 강화되는 공화국 북반부의 정치 경제적 위력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더욱 힘차게 고무하였으며 미제와 그의 주구 군사 파쑈 도당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최고 인민 회의 제 3기 대의원 선거

1962년 10월 8일 조선 인민은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대의원 선거를 하였다.

금번의 최고 주권 기관 선거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전면적으로 승리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로서 조선 인민의 정치 생활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였다.

지난 선거 총화 기간은 우리 인민이 조선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 하에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면서 하루를 10년 맞잡이로 내 달리여 우리 나라에서 세기적 변혁을 이룩한 력사적 전환의 시기였다.

이 기간에 전체 근로자들은 당 내에 잠입했던 반당 종파 분자들을 폭로 분쇄하고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을 옹호했으며 국제 반동들의 《반공》 깜빠니야와 그 앞잡이인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물리치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었다. 조선 인민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푼전을 아껴 쓰면서 사회주의 건설에 박차를 한층 더 가하였으며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지난 날의 락후한 식민지 농업 국가의 처지에 있었던 조국을 튼튼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농업 국가로, 《세계 최고봉의 예술》을 가진 인민의 나라로 일궈 세웠다.

실로 이 기간에 우리 인민은 수 천년의 조선 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 륭성기, 일대 번영기에 들어 섰으며 천리마 나래치는 조선 로동당 시대, 기쁨과 희망과 흥분으로 생활이 약동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였고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위대한 전취물인 인민 정권을 더욱 튼튼히 다지려는 비등된 정치적 열의와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장엄한 로력 투쟁의 환경 속에서 승리적으로 진행되였다.

선거는 이미 당일 정오 현재로 전체 유권자가 100% 참가하여 등록된 후보자에게 100% 찬성 투표함으로써 동서 고금의 선거 사상에서 그 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기념비적 사변을 기록하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비등된 정치적 열의를 가지고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한결 같이 참가함으로써 우리 인민 정권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 발전시키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당선된 대의원들은 조선 로동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조선 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하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장기간 몸 바쳐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고 오늘은 나라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조선 인민의 선두에서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 투사들, 그리고 해방 후 당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싸웠고 간고한 혁명적 시련을 통하여 검열된 우수한 애국자들이다.

이러한 대의원들로 구성된 《우리의 정권은 철저하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있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고 광범한 인민 대중을 국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이며 가장 공고한 정권》(김 일성) 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시하여 주었다.

선거 결과가 보여준 바와 같이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인민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표시하였으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하는 전체 인민의 확고 부동한 정치 도덕적 통일을 남김 없이 시위하였다.

공업 관리 및 농업 지도 체계의 개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2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여섯 개 고지를 중심으로 하는 1962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기본 과업을 규정하고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하여 경제 관리 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 운영 수준을 높이며 각급 당 위원회들의 경제 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촉진시킴으로써 잠재하는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하여 계획에 예견된 높은 생산의 장성을 달성할 것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호소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확대 회의가 있은 직후 김 일성 동지는 당의 방침을 근로자들 속에 침투 관철시키기 위하여 대안 전기 공장과 숙천군을 현지 지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일성 동지는 발전된 생산력에 적응한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와 농업 지도 체계를 창조하여 청산리 정신과 청산리 방법을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경제 발전의 새로운 앙양의 길을 개척하였다.

【공업 관리 체계의 개편】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가 있은 이후 공업 분야에서 청산리 방법이 들어 가게 됨에 따라 관리 지도 사업이 더욱 개선되였으며 생산이 급속하게 발전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현대 기술로 장비된 대 규모적 공업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각 부문 호상 간과 공장, 기업소들 내에서의 각 부서들 간의 생산적 련계가 확대되고 긴밀하고 복잡하게 되였으며 공업 생산의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고 기술 공정이 복잡해졌으며 로동자들의 정치적 열의와 기술 문화 수준이 제고된 것 등은 관리 운영에서 당적 령도를 강화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통일적이며 조직적인 지도를 요구하게 되였다. 또한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는 내부 예비를 동원함에 있어서도 관리에서 조직 지도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여 공업 관리 운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대안 전기 공장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를 창조하여 우리 나라 공업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당면하게는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하며 나아가서 7개년 계획의 전망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기본 내용은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 지도 체계, 자재를 우로부터 직접 현물을 책임지고 현장의 기대 옆까지 날라다 주는 자재 공급 체계,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후방 공급 체계, 생산에 대한 당적 령도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 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대안의 사업 체계의 확립은 공장 관리 운영에서 생산 지도와 기술 지도가 분리되여 있었던 폐단을 일소하게 하였으며 자재 공급 면에서도 관리국에서 기업소, 기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공급 체계 밑에 원활성이 보장되게 하였다. 특히 공업 관리에 대한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가 강화됨으로 하여 생산자 대중이 광범히 기업 관리에 인입되였으며 따라서 우로부터 아래로 깊이 침투하는 국가적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발적 지혜와 적극성이 배합되여 관리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협조하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적 생활 원칙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기업 관리에서 공산주의적 요소를 풍부하게 하였다.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는 개편된지 불과 1년 어간에 그의 우월성을 발휘하여 1962년에 가일층의 생산적 앙양을 가져왔다.

【사회주의 농업 지도 체계의 개편】 우리 나라에서 농촌 기술 혁명이 전면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대 규모화된 사회주의 협동 농장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더욱 급격히 강화되였으며 농업 생산 과정 역시 복잡한 기술 공정으로 전환되였다. 이러한 조건들은 농업 생산에 대한 행정적 지도 대신에 현대적 기술 수단들을 충분히 갖추고 기술에 정통한 집단에 의하여 책임적으로 지도할 것을 요구하게 되였다. 또한 7개년 계획 기간에 농촌 경리의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 수리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농민들을 고된 로동으로부터 해방시키며 당면한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 농업 생산력을 보다 과학적인 경종 체계에 기초하여 기술과 생산이 맞물리게 계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였다.

우리 농업 발전의 이 객관적 요구는 김 일성 동지의 창의에 의한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개편으로서 능숙하게 해결되였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기본 내용은 협동적 소유를 다치지 않고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조직, 도 인민 위원회로부터 농업 지도 기능을 분리하여 농촌 경리 발전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도 농촌 경리 위원회의 창설, 농업성의 농업 위원회로의 개편 등이다.

농업 지도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경영 위원회는 군내에 있는 농기계 작업소, 농기계 공장, 관개 관리소, 자재 공급소, 가축 방역소 등 물질 기술적 수단들을 장악하고 협동 농장 생산 발전에 더 잘 복무하게 하였으며, 협동 농장들의 계획화 사업을 비롯하여 육종, 시비, 경종에서 선진적 기술 도입과 영농 사업, 그리고 로동 행정과 재정 부기 사

업에 이르기까지 책임적으로 지도 검열하며 농장 운영을 정상적으로 지도하게 하였다.

또한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보장 및 농산물과 제품의 수송을 보장하게 하였으며 농업 발전에 대한 군의 전망 계획을 작성하여 농촌 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토지의 개간, 정리와 농촌 건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게 함으로써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며 문화 혁명과 공산주의 교양을 적극 추진시킬 수 있게 하였다.

도 농촌 경리 위원회는 도 내 농촌 경리의 발전 전망을 타산하여 건설, 기술 발전 등을 촉진시키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지도 통제하며 종전에 농업성에서 하던 사업을 도적 범위에서 집행하게 되였으며 농업 위원회는 전국적 범위에서 농촌 경리의 발전 전망을 타산하면서 농업 전반을 지도하며 농업 과학 연구 및 보급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게 되였다. 이리 하여 우리 나라에는 1962년에 중앙으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되였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농업 부문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심화 발전시킨 것으로서 새 지도 체계가 확립됨으로 하여 우리 나라 농촌 경리 지도에서 당의 령도적 역할이 제고되였다.

새로운 지도 체계에 의하여 국가는 농업 생산에 복무하는 물질 기술적 수단과 기술 력량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협동적 소유에 기초한 농촌 경리를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이 분야에서 전 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국가적 방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동시에 새로운 지도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며 농민 대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기업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시켜 계속 생산의 앙양을 보장할 수 있게 되였다.

새로운 공업 관리 및 농업 지도 체계는 위대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전국적으로 구현함으로써 공업과 농업 관리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구체적 조건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모범으로 된다.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해서 창조된 새로운 선진적인 공업 관리 및 농업 지도 체계는 1962년에 전체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계속 생산적 앙양을 가져오게 하였으며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보다 높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되였다.

창성 련석 회의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지도 밑에 1962년 8월 7~8일 량일 간에 걸쳐 평북도 창성군 창성읍에서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련석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약 1주일 간에 걸쳐 지방 당 및 경제 일'군들에게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 발전에서 모범을 보인 창성과 삭주 지구를 견학시킨 뒤를 이어 진행되였다.

련석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창성군의 성과와 경험을 전국에 일반화하여 모든 군들이 자기의 역할을 높여 지방 공업을 한 계단 더 높이 발전시키며 농촌 경리를 다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였다.

지방 공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8년 6월 전원 회의 결정이 있은 후 지방 공업은 급속히 발전되여 이미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기술 장비도 현저히 강화되였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도 특히 청산리 교시가 있은 후 계속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조직은 농촌 경리를 더욱 급속히 발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리 하여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한 계단 더 끌어 올릴 수 있는 물질 기술적 조건이 마련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요구에 비추어 보나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의 과업을 더 잘, 더 빨리 실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면에서 보나 모든 군들에서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더욱 밀접히 련결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긴절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이 긴절한 요구를 적시에 포착하여 김 일성 동지는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 공업 및 농촌 경리를 더욱 밀접히 련결시켜 발전시킴으로써 앞으로 2~3년 내에 전국의 모든 군을 창성과 삭주의 수준에까지 끌어 올릴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현 시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를 강구하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헌 참조)

김 일성 동지가 결론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군은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를 지도하며 농민들과 로동자구 주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 있는 행정적 말단 지도 단위》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 이다.

김 일성 동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현 단계에서의 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앞으로 점차 도시와 농촌 간의 본질적 차이를 소멸하는 데 있어서의 군의 역할과 공산주의 하에서의 군의 위치에 대하여 리론적인 결론을 지었다.

《군 사업을 강화하고 군 소재지를 잘 꾸리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나

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공산주의 사회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모든 농촌 리에 공급 기지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공산주의 하에서도 군이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경제적 거점으로, 농촌에 대한 공급 기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김 일성 동지는 도시와 농촌 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애는 데 있어서의 거점에 관한 문제, 앞으로 공산주의 하에서의 경제적 거점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였는 바 이는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또 하나의 모범으로 된다.

련석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결론은 청산리 교시, 대안 교시와 더불어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여섯 개 고지의 성과적 점령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2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의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1962년에 알곡 500만 톤, 직물 2억 5천만 메터, 수산물 80만 톤, 주택 건설 20만 세대(그중 농촌 문화 주택 10만 동), 강철 120만 톤, 석탄 1,500만 톤의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할 데 대한 어렵고도 방대한 과업을 전체 근로자들 앞에 제기하였다.

6개 고지의 점령—이것은 우리 인민이 더욱 유족하고 더욱 잘 살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조국의 무궁한 륭성 발전의 길을 개척하는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과업이 어려웠고 방대하였으나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투쟁이기에 전체 근로자들은 불요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여 만난을 극복하고 여섯 개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는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이 위대한 승리는 항상 정확한 투쟁 목표와 그 수행 방도를 명시하고 전체 인민을 승리에로 이끌어 온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세련된 령도가 있으므로 하여 가능하였으며 당 주위에 철석 같이 단결된 우리 인민의 굴할 줄 모르는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2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투쟁 계획을 작성하고 그의 수행 방도를 명시하였으며 뒤'이어 제 3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적 기능을 높이고 당 조직들의 전투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를 포치한 후 뒤'이어 대안 전기 공장과 숙천군을 현지 지도하고 공업과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리 운영 체계를 몸소 창조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일'군들의 손에 승리의 열쇠를 튼튼히 쥐여 주었다.

대안의 사업 체계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가일층 심화시키고 당의 군중 로선을 전면적으로 관철시키게 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와 교시에 고무된 전체 근로자들은 생산 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한 《20일 전투》를 성과적으로 끝내고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전투에로 나아갔다.

새해 첫 전투부터 승리의 개가를 올린 대안 전기 공장 로동자들은 1월 10일 종업원 회의를 가지고 전년도 실적에 비해 2배로 장성된 1962년 생산 과제를 2개월 앞당겨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에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하였다. 대안에서 오른 사회주의 경쟁의 첫 봉화는 삽시간에 각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 농장들을 휩쓸었으며 전국은 여섯 개 고지를 기어코 점령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로 들끓었다.

2월 12~14일에 진행된 전국 수산 부문 열성자 대회는 300일 출어를 보장하여 80만 톤 수산물 고지를 점령할 결의를 다지였으며 4월 9일에는 전국 농촌 문화 주택 건설 부문 일'군 회의가 진행되였다.

김 일성 동지는 8월 말에 황해 제철소를 현지 지도하고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최후 돌격전인 《120일 전투》를 조직 전개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체 근로자들은 바로 당과 수령의 이러한 세련된 령도를 받는다는 긍지와 영예로 하여, 혁명의 시대에 산다는 높은 책임감으로 하여 부닥치는 난관들을 맞받아 나아가면서 계속 혁신을 일으켜 여섯 개 고지에로 육박하여 갔다.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 전 인민적 지원 운동이 조직되였으며 사회주의 경쟁이 광범히 전개되였으며 봄철에 40 여일 간이나 계속된 왕가물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극복하기 위한 《15일간 전투》가 진행되였다.

우리의 협동 농민들은 강력한 공업과 전 인민적 지원에 고무되여 수십년래의 가물과 긴 장마, 례년에 없는 큰 홍수와 태풍의 래습 등 겹치는 자연 재해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알곡 500만 톤 고지 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였다.

방직공들의 불꽃 튀는 증산 투쟁에 의하여 12월 21일 정오 현재 2억 5천만 메터의 직물 고지가 점령되고 1964년에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구축되였다. 1962년 직물 생산량은 1961년의 137%로, 1956년의 321%로 장성되였다.

붉은 어로 전사들은 례년에 없이 불리한 해류 조건 하에서도

낙지 10만톤 생산을 위한 《60일 전투》, 명태 30만 톤 생산을 위한 동기 어로전 등을 전개하여 12월 15일 현재 80만 4천 톤을 생산함으로써 수산물 고지를 빛나게 점령하였다.

1962년에 수산물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42%로, 1956년에 비하면 207%로 장성되였으며 7개년 계획에서 예견된 1963년 생산 수준을 릉가하였다.

건설 부문 로동자들은 계속 건설 속도를 높여 새해 벽두의 《1인 4세대 운동》으로부터 5월에는 1인 5.7 세대, 6월에는 1인 6세대 수준에 도달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건설자들은 12월 19일 주택 고지를 점령하는 승리의 개가를 올리였다.

수령의 현지 지도를 받고 감격과 흥분으로 들끓은 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은 이 해에 5호 평로 개조 공사 및 2호 평로의 확장 공사를 끝내였으며 전국의 용해공들은 로 단위 경쟁을 통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였다. 항상 당에 충실한 붉은 용해공들은 12월 28일에 선철 및 립철 120만톤 고지를 점령하여 승리의 붉은 기'발을 쟁취하였고 강철 생산을 전년에 비해 136%로, 1956년에 비하면 실로 553%로 장성시켰다. 이 해에 44종의 강종과 55종의 규격 강재가 새로 생산되였고 2차 가공 제품의 생산이 급속히 장성되였다.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전례 없는 긴 장마에 의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하여 112%로, 1956년에 비하면 338%로 장성된 1,32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이리하여 당과 조국에 충실한 전체 근로자들은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인민 경제의 가장 중심적인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승리로 말미암아 인민 경제 모든 부문이 전반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전면적 기술 개건이 일층 촉진되였다.

1962년에 공업 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 체계의 발원지인 대안 전기 공장에서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을 2개월 앞당겨 완수하는 력사적 성과를 달성한 것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굴지의 대규모 기업소들을 포함한 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을 정상화하고 매월, 매분기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의 공업 총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20%로 장성(7개년 계획에서 예견한 년평균 장성률은 18%)하였으며 해방전 1944년에 비하면 10.2배로, 1949년에 비하여서는 8.5배로 장성하였다. 우리 나라 공업은 1962년 한 해 동안에 해방후 첫 10년간 (1946~1955년)에 생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공업 총 생산액 중 전년에 비하여 생산 수단 생산은 121%로, 소비재 생산은 118%로 장성함으로써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이 확고히 관철되였다.

1962년에 지방 공업 총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26%로 장성되였으며 경공업 제품 생산에서 지방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에 달함으로써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이 계속 관철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공업은 1957년부터 1962년까지의 6년간에 매년 평균 25.1%의 높은 속도로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전후 기간(1954~1962)에는 년 평균 33.6%의 높은 속도로 발전하였다.

1962년에 공업 생산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공업 부문들에서 다면성과 자주성이 일층 강화되였으며 부문 구조가 가일층 완비되고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였다. 기술 혁명의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기계 제작 공업은 1962년에 전체 공업 생산에서 23%를 차지하였으며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의 생산액은 해방 초기인 1946년에 비하여 145배에 달하였다.

생산 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예비 부속품 생산을 선행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기계 설비 및 예비 부속품들을 다량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기술 혁명을 위하여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전년에 비하여 야금 설비 부속품은 946%, 광산 및 탄광 설비 부속품은 217%, 선박 설비 부속품은 149%, 공작 기계 부속품은 635%나 더 생산 공급함으로써 기계 설비의 운전을 정상화하고 설비 리용률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62년에 생산 조건이 제때에 보장되고 후방 공급이 개선되였으며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제고되고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이 강화된 결과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보다 4% 더 증가되였으며 그 중 금속 화학 공업성은 103%, 기계 공업성은 108%, 경공업 총국은 112%, 수산성은 107%로 각각 장성되였다.

공업 부문 구조의 가일층의 완비와 기계 제작 공업의 강화는 자립적 공업 체계 확립에로 한걸음 더 전진하게 하였다.

1962년에 농업 부문에서도 큰 성과가 달성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개편된 사회주의적 농업 지도 체계는 협동 농장원들의 생산적 열의를 비상히 높이였으며 농업 생산력을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서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다.

1962년에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가일층 강화되였다. 1962년에 농업 기계화의 촉진을 위하여 새로 27개의 농기계 작업소가 증설되였다. 전야 작업에 참가한 뜨락또르는 1만 5,700대(15 마력 환산), 경지 100 정보당 뜨락또르는 0.78대(년말 현재)에

달하였다.

1962년에 청단 관개 제 1계단 공사와 기양 관개 확장 공사를 비롯한 대소 관개 공사들이 완공되였고 관개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3만 정보나 더 확장되였다.

화학 비료는 그 생산이 77만 9천 톤에 도달함으로서 전년보다 13%나 더 많이 공급되였으며 자급 비료도 12%나 더 많이 시비 되였다.

축산, 과수, 잠업 등 기타 농업 부문에서도 생산적 앙양이 일어났으며 물질 생산적 토대도 가일층 강화되였다.

운수 체신 부문은 인민 경제 발전 및 6개 고지 점령을 위하여 성과적으로 복무하였다.

1962년에 국가는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77.2%를 생산적 건설에 돌렸으며 그 중 74.%를 공업 건설에 투자하였고 중공업 건설에는 공업 건설 투자액의 59%를 지출하였다. 경공업 부문에 지출된 자금도 전년의 1.2배로 증가되였다.

건설에서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고 중요 건설 대상에 력량을 집중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데 계속 심중한 주목이 돌려졌다.

1962년에 우리의 로동 계급은 우리의 설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년간 3만 톤의 화학 섬유 원료를 생산하는 청진 화학 섬유 공장을 준공시킨 것을 비롯하여 수 많은 공장, 기업소, 직장의 건설을 끝내였다.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서의 계획의 성과적 수행과 특히는 설비 리용률, 로동 생산 능률이 제고되고 원가가 저하된 결과 국민 소득은 1961년에 비하여 약 1.1배로 장성되였다.

국가 수중에 집중된 예산 수입은 1962년에 28억 9,636만 원에 달하였으며 전년보다 16.7%가 더 증가하였다. 예산 수입 중 거의 전부가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이였다. 1957년부터 1962년까지의 6년 간에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은 매년 평균 25.1%로 급속히 장성 하였다. 그리하여 매년 요구되는 방대한 지출을 보장하고도 국가 예산에서 1957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지출에 대한 수입 초과로 축적된 예비는 1949년 예산의 약 3.8배에 달하였다. 이는 축적과 소비와의 호상 관계를 옳게 설정하며 국가의 재정적 토대를 공고화할 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정확성을 실증해 주고 있다.

당은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의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1962년에도 인민 생활 향상에 가장 심중한 관심을 돌렸다.

1962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101%로 장성되였으며 특히 어떤 로동자들의 평균 로임은 23%나 제고되였다. 국가는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1962년에 산간 지대에 위치하는 469개의 협동 농장들의 농업 현물세를 전액 면제하여 주었으며 창성과 삭주군의 모범을 따라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는 다각적 경리를 발전시킴으로써 산간 지대 농민들의 생활 수준을 현저히 높이였다.

소비품 생산의 확대와 인민들의 구매력의 장성에 상응하게 상품 공급을 장성시키는 것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직물을 제외하고도 의류 상품의 생산은 1962년에 다음과 같이 급속히 증가되였다.

품명	1962년 생산량	1962/1961 %
내의류	2,065만 4천 매	135
외투류	224만 벌	159
모자류	485만 8천 개	117
양말	2,942만 8천 켤레	103
신발류	2,371만 켤레	119

알곡 500만 톤이 생산되여 주식물과 식료품 가공 원료에 대한 공급과 예비가 풍부히 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부식물의 공급이 급속히 증가되였다.

우리 나라 로동자, 사무원들은 전년보다 1.7배나 더 많은 311만 평방 메터의 새 주택을 받았으며 농민들도 세기적으로 물려 받은 오막살이를 헐어 버리고 전년에 비하여 8.2배나 되는 302만 평방 메터의 문화 주택에 집들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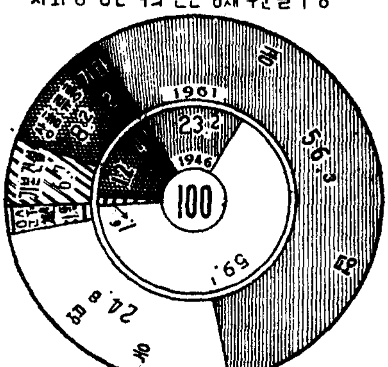
국가 예산에서 전년보다 23.3%나 더 많은 자금이 사회 문화 시책비로 지출되여 근로자들에게 추가적 혜택을 주었다. 전년에 비하여 교육 문화에는 29.5%, 보건에는 21.5%의 자금이 국가로부터 더 공급되여 문화 혁명의 급속한 촉진에 기여하였다.

그리 하여 1962년에 인민 생활의 획기적 향상에 중점을 둘 데 대한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의 중심 과업이 많은 부문에서 성과적으로 해결되였다.

1962년에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 당이 제시한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우리 당 주위에 한 뜻으로 단결하여 난관을 박차고 자립적 경제 건설을 추진시킨 결과 달성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자력 갱생의 원칙 하에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없는 것을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을 만들어 내며 모르는 것을 알아 내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사회 총 생산액의 인민 경제 부문별 구성



그 결과 기계 제작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이 가일층 정비 강화되고 기계 설비의 국내 자급률은 92%에 달하였다. 이 모든 것은 승리한 사회주의 제도에 의거하여 전면적 기술 개건과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7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한 계단 더 전진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2년에 우리 나라에서 김 일성 동지의 발기에 의하여 창조적으로 개편된 공업 관리 체계와 농업 지도 체계는 계획 수행 과정에서 이미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으며 7개년 계획의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위치와 역할에 관한 창성 련석 회의 결론과 함께 앞으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앞당길 수 있는 광활한 대로를 열어 놓았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

1962년에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였다. 특히 공업 관리 및 농업 지도에서 새로운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생산에서 당의 령도적 기능이 비할바 없이 강화되여 기업 관리에 생산자 대중이 직접 참가하게 되고 공산주의 및 혁명 전통 교양이 강화됨으로 해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작업반의 범위를 벗어나 천리마 직장 운동, 천리마 공장 운동으로 확대 심화 발전되였다. 뿐만 아니라 천리마 운동은 가두 인민반들에까지 확대되여 공화국 북반부는 도시와 농촌, 생산 직장 및 기관과 가두 인민반을 포괄한 하나의 집단주의 대 가정으로 단합되였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의 높은 단계로의 발전은 근로자들 속에서 예비 탐구와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운동을 더 한층 발양시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2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방도로서 제시한 설비 리용률의 제고, 생산의 정상화를 관철하게 함으로써 1962년에도 계속 높은 생산적 앙양을 견지하게 하였다.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적 앙양을 위한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투쟁 정신과 공산주의 집단주의의 고상한 도덕과 미풍은 오늘날 공화국 전체 인민들의 사회 정치 생활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되여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다함없는 애국심에서, 혁명적 동지애에서, 끓어 넘치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에서 발현되고 있다.

1962년 말 현재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는 279만 216명 (그중 로동자, 사무원 100만 7,125명, 협동 농장원 117만 7,837명, 학생 60만 5,254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그중 36만 5,271명을 망라한 1만 2,743개 작업반 및 직장이 천리마 칭호를 받았다. 1961년에 비하여 1962년에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받은 작업반 수는 149%로, 인원수는 177%로 장성하였다. 1963년 상반년 현재로 천리마 직장은 17개에 달하였으며 특히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대안 전기 공장이 천리마 공장 칭호를 받았다.

1962년에 우리 당의 붉은 전사인 천리마 기수들은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기술 혁신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사람들을 고된 로동에서 해방시킬 데 대한 혁명 과업 수행에서 훌륭한 업적들을 쌓아 올리였으며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높이였다.

우리 당에 의한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이 더욱 강화되고 긍정적 모범으로 인간을 개조하는 사업이 꾸준히 진행된 결과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생활하는 새로운 도덕적 풍모가 대중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천리마 기수들은 경제 및 기업 관리에 자각적으로 참가하여 직일 반장제, 자체 검사제, 자체 정량제를 도입하면서 자기 스스로 생산을 조직하고 계산하며 부기원과 정량원이 없이 자체로 검사하고 통제하며 원가를 저하시키고 제품의 질을 높이였다.

천리마 기수들은 혁명 선배들의 고상한 혁명 정신을 배우며 자신을 공산주의자로 준비하면서 전 집단을 하나의 사상 의지로, 단합된 붉은 유기체로 꾸려 나가고 있다. 이리하여 집단의 힘으로 어제'날의 락후 분자가 선진 분자로, 소극 분자가 적극 분자로 교양 개조되고 있으며 우리 시대의 참된 공산주의자들이 도처에서 속출되고 있다.

1962년 한해 동안에만 하여도 고상한 자기 희생성을 발휘하여 생명이 위급하게 된 어린이들을 구출한 공화국 영웅 김 정순 동무를 위시하여 숭고한 공산주의적 미거가 도처에서 무수히 꽃피였다. 어로 작업 중에 불의의 태풍을 만나 5일 간이나 표류하면서도 오직 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믿고 심한 추위, 사나운 파도와 싸워 끝내 이를 이겨 낸 가진 수산 사업소 민청호 558호 저예망선 선원들, 자기 희생적 투쟁으로 조난 당한 동지들을 구원해낸 민청호 557호 저예망선 선원들—바다의 불사조, 가진의 영웅들이 발휘한 강의한 조국애와 공산주의적 정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얼음 구멍 속에 뛰여들어 세 아동을 구원한 공화국 영웅 백 중기 학생, 쾌속도로 달려오는 기차 앞에서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철교와 철도에서 아이들을 구원한 방 금순, 전 신자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가지의 모범적 사실들과 미담들이 헤아릴 수 없이 속출되였다.

이들은 바로 우리 사회주의 제도의 풍만한 토양 우에 활짝 피여난 붉은 꽃송이들이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귀중한 재부이며, 우리 당이 공산주의 교양에서 거둔 빛나는 열매들이다.

이 아름다운 소행의 근저에는 공산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을 밀접히 결합할 데 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방침이 놓여 있으며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명심하고 항일 빨찌산들처럼 살려는 우리 청소년들의 꾸준한 노력이 안받침되여 있다.

이리 하여 오늘 우리 사회는 당의 사상, 당의 의지로 숨 쉬고 행동하는 하나의 전일체로 화하였으며 화목한 대 가정으로 꾸려졌다.

전체 조선 인민은 1962년을 승리의 한 해로 총화하고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차 전원 회의가 제기한 길을 따라 한 손에는 무기를,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10대 과업 관철에로 궐기하였다.

자주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김 일성 수상은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 (1962년 10월 22~23일) 에서 하신 력사적 연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에서 세계 제국주의의 두목인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극동과 아세아에서 새 전쟁 도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조건 하에서 조국 통일 위업은 간고하고 장기적인 투쟁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은 남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일련의 중간 걸음들을 거쳐 점차적으로 실현되여야 합니다.》 라고 교시하였다.

조국 통일의 점차적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과 민족 리간 책동에 의하여 남북 간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우선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킨 다음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데 대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며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실현할 것이며 다음에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라의 초보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과기적인 조치로서 이미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제의한 련방제를 실시할 것을 재 천명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이러한 중간 걸음을 거친 다음에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 조선 자유 선거에 의하여 남북 조선의 각계 각층 대표를 망라한 통일적 중앙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나라의 완전 통일을 실현할 것을 제시하였다.

김 일성 수상의 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제기는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조선 인민을 더욱더 힘차게 고무 추동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반미 구국 투쟁의 불'길을 한층 더 높이게 하였다.

1962년 6월 20~21일에 진행된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차 회의는 전 민족적 투쟁으로써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남조선 인민들을 암흑의 생지옥에서 구원하며 분렬된 조국을 통일시킬 데 대한 구국 대책을 토의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조국 통일의 숭고한 민족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견의 차이와 신앙의 유무, 그리고 과거 지사를 가릴 때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남북 조선의 모든 애국적 력량이 일치 단합하여 투쟁하여야 하며 미제 침략 군대에 한 알의 쌀, 한 방울의 물도 주지 말고 침략자들이 우리 강토에 발 붙일 곳이 없게 하여야 하며 온 겨레가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투쟁한다면 미제 침략자들이 우리 조국 강토에서 더는 견디여 배길 수 없게 될 것이며 조국 통일 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대한 민국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및 남조선 사회 정치 활동가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과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이상 문헌 참조)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에 뒤'이어 6월 24일 공화국 외무성에서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 행위를 력사적으로 개괄하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저애하는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방도를 재천명하는 비망록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 (문헌 참조) 를 발표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1 차 회의의 호소에 한결 같이 호응 궐기한 전체 조선 인민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 즉시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과 관련하여 군중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고 미 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6월 27일에는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 군대를 철거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며 극동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의 호소를 관철할 제반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 해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기 위한 거족적 투쟁과 함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과 그를 유엔의 간판으로써 은폐하며 합리화하려는 미제 침략자들의 파렴치한 책동을 걸음 마다 폭로 분쇄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에 제출한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년례 보고》가 발표된 것과 관련하여 11월 24일 비망록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문헌 참조)를, 공화국 외무성은 11월 26일 문건 《조선에서

감행한 미군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문헌 참조)를 발표하였다.

12월 8일 공화국 외무성은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에서 또다시 《조선 문제》가 비법적으로 토의되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공화국 정부 대표의 참가 없이 조선 인민의 리익에 배치되게 조작되는 어떠한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는 동시에 유엔은 그 헌장에 따라 조선 문제에서 손을 떼야 하며 《조선 문제》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철회하고 《유엔군》의 간판을 도용한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시키며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2월 20일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에서 미제의 책동으로 또다시 강압 통과된 《조선 문제》에 관한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특히 이 해 전체 조선 인민은 미제의 로골적인 조종 밑에 범죄적인 《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지으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의 책동과 남조선 동포들을 《이민》이라는 명목 하에 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팔아 먹는 군사 파쑈 도당의 천추에 용서 못할 매국 배족적 범죄 행위를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였다.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1962년 2월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의 지시 밑에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한일 회담》의 막후 흥정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 침략을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는 것을 폭로 규탄하였으며 2월 25일에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미제의 조종 하에 군사 파쑈 도당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적 《이민》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 한 사람 같이 궐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공화국 각지에서는 범죄적 《한일 회담》과 일제의 남조선 재침을 반대 배격하며 군사 파쑈 도당의 매국 배족적 범죄 행위를 폭로 규탄하는 군중 집회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대회와 집회들에서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 도당의 재침략 음모를 철저히 파탄시키기 위하여 더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전체 조선 인민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조종 하에 일본 정부가 《한일 회담》의 막뒤에서 조 일 두 나라 관계에서 력사적으로 누적된 중대한 문제들과 전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에 직접 관련된 문제들을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려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12월 13일 성명 (문헌 참조)을 발표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성명에서 이 범죄적 음모를 강력히 반대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 회담》에서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어떠한 경제적 및 군사적 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한편 1962년 5월 15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를 비롯한 조선 직업 총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농민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문학 예술 총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조선 학생 위원회는 공동 명의로 《군사 정변》 이후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이 감행한 죄악을 전 민족 앞에 폭로 단죄하는 성토문을 발표하였으며 (문헌 참조) 12월 6일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는 성명 (문헌 참조)을 발표하여 군사 파쑈 도당이 조작해 낸 《개정 헌법》의 반동적 내용과 그 본질을 폭로 규탄하고 이를 철저히 반대 배격할 것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62년에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은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도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평화적 조국 통일을 위하여 반미 구국 투쟁에 궐기한 남반부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다.

1962년 6월 6일 고려 대학교 학생들이 미제 야수들의 만행을 반대하여 반미 투쟁에 궐기한 뒤를 이어 서울 대학과 대구 대학 학생들이 전개한 반미 투쟁을 지지하여 민주 수도 평양시를 비롯하여 공화국 북반부 각지의 공장, 농촌, 기관, 학교들에서는 그를 지지하는 군중 대회와 집회들이 열리였다. 집회들에서는 남녘 땅 동포 형제들에게 가하고 있는 미군 야수들의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모욕 행위와 살인 만행을 규탄하면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애국적인 반미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편지와 호소문들이 채택되였다.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는 1962년 4월 23일과 12월 1일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언론 탄압 조치를 규탄하였다. 동시에 남조선 언론인들에게 정의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의 예속화 정책과 군사 통치배들의 매국 배족 정책을 철저히 폭로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동포애적 조치】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미제 강점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반부 동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또 기울이고 있다.

1962년 1월 12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산 협회 중앙 위원회는 풍랑으로 인하여 류례 없는 참변을 당하고 있는 속초, 명주, 고성, 울진 등 동해안 일대 리재 어민들에게 백미 1천석, 직

물 1만 메터, 신발 5천 켤레의 구호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날 공화국 수산 협회 중앙 위원회 위원장은 남조선 대한 적십자사 총재 최 두선에게 전문을 보내여 이를 알리는 동시에 판문점이나 기타 지점에서 구호 물자를 대한 적십자사 대표를 통해서 즉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인수 절차와 일자에 대한 시급한 회답을 요망하였다.

1962년 8월 8일 공화국 인민군 해병들과 어로 로동자들은 황해남도의 연안 도서들과 해상에서 사나운 바람과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조난 당한 남조선 어민들 중 143명을 구원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구원된 남반부 어민들 중 환자들에게 모든 치료 대책을 강구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으며 매개 어민들에게 새 외복과 내의, 신발을 비롯하여 기타 일체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여 주었으며 1천 메터의 와이야 로프, 7천 메터의 마 로프, 800메터의 범포척, 560 메터의 그물, 그리고 많은 목재와 철선, 유류등 남조선 화폐로 환산한다면 400여 만원에 해당하는 자재를 들여 그들의 선박을 수리해 주었고 어구들을 보충해 주었다.

조난 당한 남조선 어민들은 공화국 정부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료양하였고 공화국 해당 기관은 이들에게 선박을 비롯한 일체 소지품과 함께 귀향에 필요한 식량과 생활 필수품까지 지참시켜 8월 26일부터 해주항에서 자기 집으로 돌려 보냈다.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 지지】

전 민족적 투쟁으로써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은 형제적 사회주의 진영 국가 인민들을 비롯하여 전 세계 평화 애호 국가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1차 회의 제안과 세계 각국 국회들에 보낸 편지를 지지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6전의 성명, 27건의 결의, 35건의 전문, 1건의 호소문이 발표되였으며 북경과 하노이, 하바나를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군중 집회들이 진행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서한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 국회들의 회답 서한과 결의문들에서는 미군의 남조선 강점이 남조선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커다란 장애로 될 뿐만 아니라 극동과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된다고 강조하고 미군이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할 것을 일치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결의문과 서한들에서는 최고 인민 회의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면서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항상 조선 인민과 함께 서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일련의 나라들도 최고 인민 회의 보고와 서한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접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지지 성원을 보내였다.

또한 비르마 민족 통일 전선과 비르마 인민 청년 련맹의 공동 성명을 비롯하여 세계의 광범한 진보적 단체들과 출판물들이 최고 인민 회의 제안을 지지하여 자기의 목소리를 합치였다.

세계 직련 서기국 및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의 성명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민주 단체들에서 7건의 성명 및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일련의 국제 기구들과 세계 각국의 사회 단체들이 6.25 12주년을 계기로 최고 인민 회의 제안과 조치를 적극 지지하였다.

한편 세계 민주 청년 련맹과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 국제 녀성 련맹 서기국을 비롯하여 24 개에 달하는 각국 사회 단체들이 최고 인민 회의 제안과 조치를 지지하여 우리 나라의 해당한 사회 단체들에 편지와 전문을 보내왔다.

1962년 12월 11~18일 간에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강압으로 《조선 문제》가 비법적으로 토의 되였을 때 사회주의 국가들과 일련의 평화 애호 국가 대표들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들의 즉시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미제의 침략 도구인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을 존속시킬 데 대한 미국의 결의안에 반대 투표하였다.

1962년에 자주적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더욱더 많은 국제적 지지와 공명을 받았으며 미제는 세계 각국 인민들로부터 강력한 규탄을 받아 더욱 고립되였다. 이리하여 1962년에 국내 국제 정세는 우리 혁명 발전에 더욱더 유리하게 발전되였다.

1962년에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하에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미제의 침략 정책을 걸음 마다 폭로 분쇄함으로써 극동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정 치

국 가 기 관

최고 주권 기관

【최고 인민 회의】 최고 인민 회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립법권은 오직 최고 인민 회의 만이 행사한다.

최고 인민 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최고 인민 회의는 국가 최고 권력을 행사한다.

최고 인민 회의는 정기 회의 및 림시 회의를 가진다. 정기 회의는 1년에 2차 소집하며 림시 회의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 한다.

현 최고 인민 회의는 제 3 기로서 1962년 10월 8일에 실시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383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최고 인민 회의 휴회 중에 있어서 최고 주권 기관은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이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자기 사업 활동에 있어서 최고 인민 회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위원장 최용건
부위원장 박정애
홍명희
강량욱
백남운
박금철
서기장 림춘추
위원 리효순
하앙천
현무광
박신덕
최 현
리영호
김왈룡
김옥순
로의명
김창덕
송 영
리만규
리면상
계응상
리재복
도유호

최고 인민 회의
의장 최원택
부의장 리기열
김득란

◇최고 인민 회의 상설 위원회

법제 위원회
위원장 김의선
위원 허봉학 김봉규
최기철 리재영
김히준 로의명
김국훈 김시중

예산 위원회
위원장 림계철
위원 강희원 정성언
오제룡 리찬선
정준기 장윤필
리창복 김무회
박승흡 주원생
지창건 윤련환
전경화 리석심

외교 위원회
위원장 박용국
위원 김왈룡 허석선
유건양 정광룡
김옥순 최학선

【제 3 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1962년 8월 8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헌법 제45조에 의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1962년 10월 8일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전 지역에서 실시할 데 관한 정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발표 하였으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사업을 조직 지도하기 위하여 제 정당, 사회 단체 및 기타 대표들로써 중앙 선거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뒤이어 8월 11일 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383개) 조직에 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8월 23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1962년 8월 27일부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제 정당, 사회 단체들과 각 기관, 기업소 종업원 회의 각 협동 단체 종업원 회의, 주민 회의 및 군무자 회의들에서 진행되였다.

8월 27일에 진행된 강선 선거구 강선 제강소 종업원 회의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집회들에서는 열렬한 지지 찬동 속에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제 3 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하였다.

또한 각 선거구 선거자들의 집회들에서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의 우수한 대표들을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후보자 추천 사업에 이어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 등록 사업이 진행되였다.

9월 5일 김 일성 수상은 등록에 앞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를 받은 각 선거구 선거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였다.

공개 서한

금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공장, 기업소 종업원 회의, 협동 조합 종업원 회의, 주민 회의 및 군무자 회의들에서 나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하여 준 데 대하여 선거자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립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제 5 장 제 28 조에 의하여 대의원 후보자는 단 한 개의 선거구에만 등록되게 되였으므로 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 56 호 강선 선거구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것을 승낙하면서 이를 선거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헌신적인 투쟁으로써 선거자 여러분들이 나에게 표시한 두터운 신임에 보답할 것입니다.

금년도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로력 투쟁에서 선거자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김 일성

1962년 9월 5일 평양시

9월 5일 강선 선거구 선거자들의 요청을 승낙하여 보낸 김 일성동지의 서한에 접한 강선 선거구 선거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무한한 감격과 환희 속에서 김 일성 수상을 강선 선거구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것을 만장 일치로 결정하였다.

9월 5일부터 개시된 대의원 후보자 등록 사업은 9월 8일까지 전국 383개 선거구 선거 위원회들에서 끝났다.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 제 2장 제 12조에 의하여 전국 각 분구 선거 위원회들에서는 9월 18일 일제히 선거자 명부를 공시하였다.

한편 각지에서 대의원 후보자들과 선거자들과의 상봉 모임이 진행되였다.

9월 16일 김 일성 동지는 강선 선거구 선거자들과 상봉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강선 선거구에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해 준 데 대하여 선거구의 전체 선거자들에게 사의를 표시한 다음 우리 나라의 자랑 높은 야금 기지인 강선 제강소의 전후 발전 면모에 대하여 그리고 강서군의 농업 발전 전모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 하면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발전 전망과 공업, 농업, 건설을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 앞에 제기되는 당면 과업들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하였다. 수상 동지는 지난 시기 강선 제강소가 당 정책 집행에서 언제나 제일 앞장 섰고 천리마 운동에서도 봉화를 들었던 곳인 만큼 앞으로의 모든 사업에서 전국의 모범이 되라고 교시하였다.

각지 선거자들과의 상봉 모임에서 대의원 후보자들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하에 우리 인민 정권이 이루워 놓은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였다. 그리고 우리 앞에 제기된 위대한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뭉치여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각지 선거자들과 대의원 립후보자들과의 상봉 모임은 9월 하순 까지 진행되였다.

이리하여 1962년 10월8일 아침 6시부터 전체 인민들의 고도로 앙양된 정치적 열의가 들끓는 환경 속에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였다.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에 엄밀히 립각하여 진행되였다.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제 56호 강선 선거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 선거구들에서 이 날 12시 (정오) 현재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투표에 참가하였다.

10월 10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중앙 선거 위원회 보도가 발표되였다. 전국 383개의 선거구들에서 선거자 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100%가 선거에 참가 하였으며 선거자의 100%가 각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각각 찬성 투표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선거구에 등록된 383명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들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였다.

이리하여 제 3 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는 세계 선거 력사 상 있어보지 못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 승리는 조선 로동당과 수령에 대한 전체 인민의 열렬한 신뢰의 확고한 표시이며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위대한 통일의 강력한 시위이며 우리 혁명 위업의 필승 불패에 대한 시위이다.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중에는 34명의 항일 빨찌산 투사들을 비롯하여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온 혁명 활동가들이 80 여명이나 된다. 대의원 중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

는 조선 로동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을 비롯하여 각 정당, 사회 단체에 복무하는 일'군들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우고 있는 혁신자들, 협동 농장, 생산 협동 조합 일'군들, 과학 기술 일'군, 교육 및 보건 일'군, 문학 예술인 등 각 부문의 우수한 일'군들이 망라되여 있다.

대의원들 중에는 해방 후 남반부에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일'군들도 적지 않다.

대의원들 중에는 공화국 영웅 7명, 로력 영웅 62명, 인민상 계관인 6명, 공훈 광부 17명, 공훈 사양공 1명, 공훈 교원 2명, 인민 배우 및 인민 예술가 3명, 천리마 작업반장 23명이 있으며 각종 훈장과 메달을 수여 받은 대의원은 무려 352명에 달한다.

당선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들은 각 정당, 사회 단체, 무소속 인사들을 망라한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들로써 선출되였으며 제 2 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112 명이 재선되였다.

당선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의원들의 계층별 구성**

대의원 총수	383
(그중 녀자)	35
로동자 대표	215
농민 대표	62
사무원, 지식인 대표	101
기타	5

◇ **대의원들의 년령별 구성**

18~29세	12
30~39세	99
40~49세	181
50~59세	71
60세 이상	20

◇ **대의원들의 지식 정도별 구성**

대학 졸업 정도	101
전문 고중 졸업 정도	26
중학 졸업 정도	256

【1962년도 주요 사업】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0 차 회의

시일 1962년 4월 5일

의안 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1961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2년 국가 예산에 관하여 ②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에 관하여

회의는 1961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하고 1962년 국가 예산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9차 회의와 제 10 차 회의 기간에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채택한 정령들을 승인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

시일 1962년 6월 20~21일

의안 ①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하여 ②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에 대하여

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한 최용건 동지의 보고를 청취하고 토의한 후 대한 민국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및 남조선 사회 정치 활동가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과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만장 일치로 채택(6월 21일)하였다 (문헌 참조). 회의는 또한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0 차 회의와 제 11 차 회의 기간에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가 채택한 정령들을 승인하고 해당한 법령 및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

시 일 1962년 10월 22~23일

선거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는 선거된 전체 대의원 383 명 중 380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최고 인민 회의 의장, 부의장의 선거가 있은 후 의안이 채택되였다.

의안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자격 심사 위원회 조직 ②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설 위원회 조직 ③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 ④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선거 ⑤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조직 ⑥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검사 총장 임명 ⑦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소장 선거

회의는 의사 일정에 따라 최 용건 대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6명으로되는 대의원 자격 심사 위원회를 조직한 다음 공화국 헌법 제 42 조와 제 43 조에 의하여 최고 인민 회의 상설 위원회로서 법제 위원회, 예산 위원회, 외교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어 회의는 의안 제 3 항을 토의하고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1 차 회의와 제 3 기 제 1차 회의 기간에 채택된 정령들을 승인하는 해당한 법령과 결정들을 채택 하였다.

1962년 10월 22일 회의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내각 조직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게 됨과 관련하여 현 내각은 자기 임무 수행이 끝났다고 인정하면서 최고 인민 회의 앞에 자기의 전체 권한을 바칠 데 대한 김 일성 수상의 성명이 전달되였다.

이 성명과 관련하여 김 창만 대의원을 비롯하여 많은 대의원들의 연설이 있었다.

김 창만 대의원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위임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와 조국의 륭성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공헌으로 하여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으며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조선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에게 새 내각을 구성하여 본 회의 심의에 제출하도록 위임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본 회의가 공화국의 새 내각을 승인할 때까지 자기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현 내각에 위임할 데 대한 제안을 동시에 제출하였다.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 참가자들은 이 제의를 열렬히 지지 찬동하고 이에 대한 결정서를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자격 심사 위원회 위원장 최 용진 대의원의 보고를 청취하고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전체 383 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들의 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1962년 10월 23일 회의에서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선거에 관한 의안을 토의하고 최 용건 동지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5명, 서기장 그리고 위원 16명으로 되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를 선거하였다.

다음으로 회의에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조직에 대한 의안이 상정되였다.

회의는 내각 수상 김 일성 동지가 제출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조직안을 만장 일치로 승인하였다.

뒤이어 회의는 박 세창 동지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검사 총장으로 임명하였으며 김 익선 동지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소 소장으로 선거하였다.

내각 수상 김 일성 동지는 회의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문헌 참조)

【헌법 개정】 1962년 10월 22일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제 57 조, 제 58 조, 제 59 조를 수정 보충하고 헌법 제 61 조를 폐지할데 관한 1962년 10월 18일부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을 승인하는 법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제 35 조에 수정을 가할 데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국가 중앙 집행 기관

【내각】 내각은 국가 주권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내각은 헌법 및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 및 명령을 공포할 수 있으며 공포한 결정 및 명령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령토 안에서 의무적으로 집행된다.

내각은 각 성 및 직속 기관의 사업 활동을 통할하며 지도한다. 내각은 자기 사업 활동에 있어서 최고 인민 회의에 복종하며 그 휴회 중에는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내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구성법을 개정함에 관하여》 (1962년 10월 22일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에 의하여 수상, 제 1 부수상, 부수상들, 상들, 위원회 위원장들과 그외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내각은 전원 회의와 상무 회의를 가지는바 내각 전원 회의는 내각 성원들로 구성하며 내각 상무 회의는 수상, 제 1 부수상, 부수상들로 구성한다.

내각은 1962년에 내각 구성법 제 5 조에 근거하여 일부 직속 기관들의 기구를 개편하였으며 수개의 직속 기관들을 설치하였다.

1962년에 내각의 부분적 집행 기관으로서 수매 량정성, 도시 경영성,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1962년 7월 11일 정령), 금속 화학 공업성, 전기 석탄 공업성, 기계 공업성이 설치되고 중공업 위원회가 폐지되였다 (1962년 8월 19일 정령).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1963년 1월 8일)에 의하여 도시 및 산업 건설성, 농촌 건설성이 폐지되고 건재 공업성이 설치되였다.

현 내각은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차 회의 (1962년 10월 23일)에서 조직되였다.

◇ 내각 성원(1963년 3월말 현재)

수 상	김 일성
제 1 부수상	김 일
부 수상	김 광협, 김 창만, 정 일룡, 남 일, 리 종옥, 리 주연, 정 준택
민족 보위상	김 창봉
사회 안전상	석 산
외무상	박 성철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정 준택
국가 건설 위원회 위원장	김 두삼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위원장	오 동욱
경공업 위원회 위원장	박 룡성
농업 위원회 위원장	김 만금
금속 화학 공업상	리 종옥
전기 석탄 공업상	정 일룡
기계 공업상	조 동섭
수 산 상	강 점구
림 업 상	정 동철
건재 공업상	김 병식
교 통 상	김 회일
체 신 상	박 영순
재 정 상	한 상두
상 업 상	김 세봉
수매 량정상	한 대영
무 역 상	리 일경
로 동 상	백 선일
내 무 상	박 문규
도시 경영상	렴 태준
고등 교육상	김 종항
보통 교육상	윤 기복
문 화 상	박 웅걸
보 건 상	최 창석
국가 건설 위원회 제 1 부위원장	김 응상
평양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강 희원
과학원 원장	강 영창
내각 제 1 사무국장	최 재우
내각 제 5 사무국장	오 태봉
설비 및 물자 총 국장	김 양률
경공업 총 국장	리 광숙

지방 주권 기관

【각급 인민 회의】 지방 주권 기관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지방 주권 기관 구성법》 (1954년 10월 30일)에 의하여 구성된다.

도 (직할 시),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에 있어서 지방 주권 기관은 해당 인민 회의이다.

각급 인민 회의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임기에 있어서 도 인민 회의는 4년, 시, 군(구역) 및 리 (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는 2년이다.

각급 인민 회의는 정기 회의 또는 림시 회의를 가지는바 도, 시, 군(구역) 인민 회의 정기 회

의는 6개월에 1차씩,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 정기 회의는 3개월에 1 차씩 소집한다. 각급 인민 회의는 해당 인민 위원회가 소집한다.

각급 인민 회의는 자기 활동에 있어서 법령, 정령, 내각 및 상급 기관의 결정, 명령, 지시에 의거하여 그 집행을 보장한다.

상급 인민 회의는 하급 인민 회의 및 인민 위원회의 결정, 지시를 페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현 도 인민 회의는 1956년 11월 27일에 선거되였으며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 회의는 1959년 2월 28일에 선거되였다.

【각급 인민 위원회】 도, 시, 군(구역), 리(읍, 로동자구) 인민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의 집행 기관이며 지방의 국가 행정 기관이다.

모든 인민 위원회는 내각의 통일적 지도를 받으며 그에 복종한다.

각급 인민 위원회는 해당 인민 회의와 상급 기관의 결정, 지시에 의거하여 자기 관할 지역 내에서 모든 국가 행정 사업을 수행하며 자기 사업 활동에 있어서 해당 인민 회의 및 상급 인민 위원회와 내각 앞에 책임진다.

상급 인민 위원회는 하급 인민 위원회의 결정, 지시를 페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하급 인민 회의 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

각급 인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및 위원들로 구성한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에 적응하게 지방 정권 기관들의 사업 체계를 개선하며 그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였다.

1961년 12월 22일 내각 결정 제 157호로서 군(구역)인민 위원회로부터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 기능을 분리하여 그를 전문적으로 담당 지도하는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시, 군(구역) 인민 위원회로 하여금 지방 정권 기관으로서의 경제 조직자적,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더욱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도 체계를 현실 발전에 적응하게 개편하였다.

또한 도내의 농업 생산을 책임적으로 지도하는 도 농촌 경리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특히 1962년 8월 7~8일에 있은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군은 리와 로동자구를 지도하는 행정적인 말단 조직일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이라고 하시면서 《군 사업을 강화하고 군 소재지를 잘 꾸리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도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군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화국 내각은 1962년 1월 31일 지방 정권 기관에 부과된 임무를 더욱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의 지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결정 제2호로써 시, 군(구역) 인민 위원회 기구를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농촌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며 농업 생산을 가일층 발전시킴과 동시에 지방 정권 기관들로 하여금 문화 혁명을 수행하며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기의 력량을 집중시키며 지방 정권 기관의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게 하였다.

재판소 및 검찰소

【재판소】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재판은 헌법 제 82 조에 의하여 최고 재판소, 도 재판소, 시, 군 인민 재판소 및 특별 재판소에서 수행한다.

재판의 임무는 모든 기관, 단체, 공무원 및 공민이 국가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실행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재판소는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바 최고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최고 인민 회의에서 선거하며 도 재판소는 3년 임기로, 시, 군 재판소는 2년 임기로 해당 도, 시, 군 인민 회의에서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거한다. 선거권을 가진 일체 공민은 판사 또는 참심원이 될 수 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재판 기관인 최고 재판소는 모든 재판 사업을 감독한다.

최고 재판소 소장 **김 익선**

【검찰소】 검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제 90 조 및 제 91 조에 의하여 각 성 및 그 소속 기관, 단체, 공무원 및 일체 공민이 법령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준수하며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며 각 성의 성명, 규칙 및 지방 주권 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법령 및 내각의 결정, 명령에 적응한가를 감시한다.

검찰소의 수위는 최고 인민 회의에서 임명하는 최고 검찰소 검사 총장이다. 도, 시, 군 검사는 검사 총장이 임명한다.

검사는 지방 주권 기관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임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최고 검찰소 검사 총장 **박 세창**

정당, 사회 단체

조선 로동당

조선 로동당의 전신은 조선 공산당이다. 조선 공산당은 1945년 10월 10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항일 무장 투쟁에서 육성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맑스—레닌

주의 당으로 창건되였다.

조선 공산당은 그후 나라의 객관적 혁명 정세 발전의 요구에 순응하여 조선 로동당으로 발전하였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의 리익을 대표한다.

조선 로동당은 로동자, 농민, 지식인 등 모든 근로자들 가운데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선진적 투사들로서 조직한다.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으며 그의 일반적 원리를 조선 혁명의 실천 활동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며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의 온갖 표현들을 반대하며 조선 혁명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국제 공산주의 및 로동 운동에서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한다.

조선 로동당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에서 이룩한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다.

조선 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주의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조선 로동당은 남북 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자기의 주위에 튼튼히 단결시키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전 조선의 각계, 각층 애국적 민주 력량들과의 통일 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나라 남반부를 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강점과 그 주구들의 반동 통치로부터 해방하고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당원수 131만 1, 563 명, 그중 정당원 116만 6, 359 명, 후보당원 14만 5, 204 명 (1961년 8월 1일 현재)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위원

김 일성,	최 용건,	김 일,
박 금철,	김 창만,	리 효순,
박 정애,	김 광협,	정 일룡,
남 일,	리 종옥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후보 위원

김 익선,	리 주연,	하 앙천,
한 상두,	현 무광	

◇ 당 중앙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김 일성

부위원장 최 용건, 김 일, 박 금철, 김 창만, 리 효순, 김 광협

◇ 당 중앙 위원회 검열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김 익선

부위원장 황 원보, 김 창덕, 박 춘혁

◇ 당 중앙 검사 위원회

위원장 김 려중

부위원장 리 호혁

【1962년도의 주요 사업】 제 4 기 제 3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1962년 3월 6~8일) 회의에서는 《청산리와 강서군 당 지도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실천을 위한 황해남도 당 조직들의 사업 정형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청산리와 강서군 당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가 있은 이후 황해남도내 당 사업에서 달성된 성과와 부족점들을 지적하면서 각급 당 위원회들과 당 일'군들이 당 조직 지도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각급 당 위원회들이 당 사업에 력량을 집중함으로써 당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하며 청산리와 강서군에 대한 지도 정신에 립각하여 당 사업 체계를 새 환경에 적응하게 철저히 개선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각급 당 위원회들과 당 조직들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근로 단체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며 일'군들의 사업 방법을 부단히 개선할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또한 각급 당 위원회들이 당 사상 사업을 제 1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당내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사상 교양 사업을 현실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계급적 각성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심중한 주목을 돌렸다.

전원 회의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중요 발언이 있었다.

전원 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 (1962년 12월 10~14일) 전원 회의는 1,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2, 1962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총화와 1963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의정 첫째 문제에서 전반적 국내외 정세를 신중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을 다시금 명확히 천명하였으며 나라의 독립과 사회주의 전취물을 원수들의 어떠한 침해로부터도 굳건히 수호하며 그것을 더욱 철옹성 같이 강화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 회의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대치되여 있으며 미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으로 인하여 정세가 더욱더 긴장되여 있는 조건에서 적들의 책동에 대하여 최대의 경각성을 견지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나 우리 조국의 독립과 영예를 수호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준비되여 있을 것을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전체 인민이 무장하고 우리의 방위력을 철벽같이 강화하며 우리의 온 강토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진지로 전변시킬 데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인민 군대를 간부 군대로 육성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군 대렬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 결정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낫과 마치를 들고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우리의 거리와 마을, 우리의 사랑하는 향토를 믿음직하게 보위하면서 사회주의를 더욱 성과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전원 회의는 국방력의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하여 전체 근로자들이 자력 갱생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당의 경제 정책을 받들고 모든 분야에서 증산하고 절약하며 부단한 혁신을 일으킬 것을 강조하면서 인민 경제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 회의는 당 대렬의 통일을 더욱 공고히 하며 당과 인민의 통일을 가일층 강화하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 혁명 위업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발하여 전원 회의는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르죠아 사상의 침입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하며 사회주의 진영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단결을 강화할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 회의는 의정 둘째 문제를 토의하였다. 전원 회의는 1962년도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총화하고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을 규정하였다.

전원 회의는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은 7개년 계획의 상반기 기본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1962년도 6개 고지 점령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새로운 더욱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1963년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기본 방도로서 10대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중요 발언이 있었다.

전원 회의는 취급된 문제들에 대한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형제 당들과의 련계】 조선 로동당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과 더욱더 굳게 단결하며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종 일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62년 12월 10～14일까지에 진행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5 차 전원 회의는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확고히 수호하며 이 통일을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행위와도 견결히 투쟁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1962년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는 불가리야 공산당 제 8 차 대회(1962. 11)에 당 중앙 위원회 위원 김 종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웽그리야 사회로동당 제 8 차 대회(1962.11)에 당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후보 위원이며 당 중앙 위원회 검열 위원회 위원장인 김 익선 동지를 단장으로하는 대표단을,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제 12 차 대회 (1962.12)에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후보 위원이며 내각 부수상인 리 주연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또한 당 중앙 위원회는 카나다 공산당 제 17 차 대회 (1.8), 싸이프러스 근로 인민 진보당 제 10 차 대회 (3.7), 칠리 공산당 제 12 차 대회 (3.17), 튜니샤 공산당 제 7 차 대회 (3.24), 인도네시아 공산당 림시 제 7 차 대회(4.24), 덴마크 공산당 제 21 차 대회 (5.30), 우루과이 공산당 제 18 차 대회 (6.28), 이태리 공산당 제 10 차 대회 (11.29)에 각각 축전을 보내였다 (괄호 안의 수'자는 축전을 보낸 날'자).

그리고 파란 통일 로동당 창건 20주년 (1.18), 카나다 공산당 창건 40주년 (2.21), 브라질 공산당 창건 40주년 (3.24), 일본 공산당 창립 40주년 (7.13) 에 제하여 각각 축전을 보내였다 (괄호안의 수'자는 축전을 보낸 날'자).

1962년 1월 27일 당 중앙 위원회는 미국 공산당과 당원들에 대한 케네디 정부의 파쑈적 탄압 조치를 견결히 규탄하는 전문을 미국 공산당 전국 위원회에 보내였다.

북조선 민주당

창립 1945년 11월 3일
위원장 강 량욱

천도교 청우당

창립 1946년 2월 8일
위원장 박 신덕

민주 독립당

창립 1947년 10월 10일
위원장 홍 명희

근로 인민당

창립 1947년 5월 24일
위원장 리 만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1949년 6월 25일부터 28일에 걸쳐 남북 조선 71개 애국적 정당, 사회 단체 대표 700여 명의 참가하에 진행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결성 대회에서 성립되였다.

【1962년도 주요 사업】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1962년에 1차의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와 3차의 의장단 회의를 진행하였다.

1962년 8월 23일에 진행된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제 49 차 회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 추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조선 인민

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1962년 2월 14일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미제의 조종하에 벌려 놓은 소위 《한일 회담》의 막후 흥정을 통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 침략을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 침략 책동을 폭로 규탄하면서 전국의 동포 형제 자매들에게 매국 배족의 박 정희 도당들을 쓸어 버리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에 궐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1962년 2월 25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미제의 조종하에 박 정희 일당이 꾸미고 있는 범죄적 《이민》 책동과 관련하여 남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범죄적 《이민》 책동을 치솟는 민족적 격분으로써 규탄 배격하고 원쑤들의 흉악한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한 사람 같이 궐기할 것을 남조선 동포들에게 호소하였다.

조선 직업 총 동맹

1945년 11월 30일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북조선 직업 총 동맹이 창립되였다.(당시 맹원 수 19만 900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3차 전원 회의 결정에 의하여 1951년 1월 20～22일에 소집된 남북 조선 직업 총 동맹 련합 중앙 위원회 회의는 북조선 직업 총 동맹과 조선 로동 조합 전국 평의회를 단일한 조선 직업 총 동맹으로 통합하였다.(당시 맹원 수 59만 3,978명).

조선 직업 총 동맹은 우리 나라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자원적 원칙에 기초한 대중적 조직이다. 조선 직업 총 동맹은 조선 로동당의 믿음직한 옹호자이며 당과 로동 계급의 련계를 보장하는 인전대로서 당의 령도 하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전개하며 당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조선 직업 총 동맹은 1947년 5월 22일에 세계 직련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세계 직련 총 리사회와 집행 위원회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맹원 수 172만 1천 여명(1962년 말 현재)

위원장 김 왈룡

【산별 중앙 기구】

조선 금속 화학 공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전기 석탄 공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기계 공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경공업 상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건설 림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체신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수산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농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교통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조선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1962년도 주요 사업】 1962년 직총 중앙 위원회 앞에 제기된 중심 과업은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가 직업 동맹 앞에 제시한 임무를 철저히 관철하며 그를 집행하기 위한 행동 방침을 수립하는 문제,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2차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대안의 교시를 철저히 침투 관철하여 1962년도 6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사업과 특히 《120일 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제 조직 지도 사업,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결정과 김 일성 동지의 결론 정신에 근거하여 동맹 사업 체계를 확립하며 사업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 직업 동맹 대렬을 정비 강화하며 특히 동맹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정치 실무 수준을 제고하는 문제 등이였다.

1962년에 직총 중앙 위원회는 이상의 중심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차의 전원 회의와 25차의 상무 위원회 및 13차의 조직 위원회를 진행하였다.

1월 24일부터 3일 간에 걸쳐 진행된 직총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에서는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1962년도 직업 동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직업 동맹의 본신 임무를 확고히 견지하고 그것을 책임성 있게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체계를 철저히 확립할 데 대하여서와 6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직업 동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전원 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직총 중앙 위원회는 각 부서, 산별, 도(직할시) 위원회들의 직능과 직맹 단체들의 행동 규범을 작성 시달하였으며 문평 제련소와 황해 제철소를 비롯한 59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집중 지도하였다.

1962년에 진행된 직총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들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3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을 비롯하여 동맹 사업을 가일층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1,741개의 천리마 작업반, 20개의 2중 천리마 작업반, 1개의 천리마 직장 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대외 교류】 1962년에 조선 직업 총 동맹은 사회주의 진영 나라의 428개의 단체와 37명의 인사, 101개의 자본주의 국가와 식민지 및 반 식민지 나라 852개 단체와 259명의 인사, 19개의 국제 기구 단체와 37명의 인사들과의 친선적 교류를 진행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 직맹 대표

단들이 세계 직련 집행 위원회 제 25차 회의 (5월), 제 2차 국제 방직 피복 및 피혁 로동자 대회 (5월), 제 4차 국제 금속 및 기계 로동자 대회(10월), 제 4차 국제 농업 로동자 대회(10월), 몽고 직맹 제 8차 대회(4월), 칠리 근로자 통일 중앙 대회(8월), 파란 직맹 제 5차 대회(11월), 사회주의 국가 사회 보험 대표자 회의 (8월)와 쏘련, 중국, 큐바, 말리 등 나라의 5.1절 기념 행사에 각각 파견되였다.

한편 우리 나라 직업 총 동맹 중앙 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세계 직련 대표단(6월), 쏘련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5.1절 대표단 및 휴양단(8월), 쏘련 문화 의료 일, 군 직맹 대표단(11월), 중화 전국 총 공회 5.1절 대표단 및 견학단 (8월), 몽고 직맹 휴양단 (6월), 혁명 큐바 근로자 중앙 5.1절 대표단 및 큐바 전국 사탕 산업 로조 대표단 (7월), 일본 총평 5.1절 대표단 및 화학 산별 대표단 (6월), 전국 일본 의료 기관 련합회 대표단 (10월), 전 인도네시아 로동 조합 중앙 5.1절 대표단 및 전 인도네시아 로동 조합 중앙 대표단(6월), 쎄일론 로동 조합 총 련맹 5.1절 대표단, 기니아 근로자 전국 총 련맹 5.1절 대표단, 말리 근로자 전국 동맹 5.1절 대표단, 가나 로동 조합 콩그레스 5.1절 대표단, 잔지바르 진보 로동 조합 련맹 5.1절 대표단, 싸이프러스 로동 총 련맹 5.1절 대표단, 아르젠틴 로동 조합 통일 및 협조 운동 5.1절 대표단, 칠리 근로자 통일 중앙 5.1절 대표단, 브라질 로동자 5.1절 대표단, 케니아 차 재배 로조 대표단 (1월)들이 각각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2년 5월 15일 조선 직업 총 동맹과 5.1절에 제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11개 로조 대표단들의 공동 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공동 콤뮤니케에는 조선 직업 총 동맹 중앙 위원회, 쎄일론 로동 조합 총 련맹, 전 인도네시아 로동 조합 중앙 조직, 일본 로동 조합 총 평의회, 기니아 로동자 전국 총 련맹, 가나 로동 조합 콩그레스, 말리 로동자 전국 동맹, 잔지바르 진보 로동 조합 련맹, 혁명 큐바 로동자 총 련맹, 브라질 로동 조합 대표단, 아르젠틴 로동 조합 통일 및 협조 운동, 칠리 로동자 통일 중앙 등 대표단이 서명하였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북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1946년 1월 17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에 의하여 창립되였다(창립 당시 맹원 24만 6천명).

1951년 1월 17일에 소집된 남북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련합 회의는 남북 조선 민청을 조선 민주 청년 동맹으로 통합하였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우리 나라의 광범한 청년들을 자원성에 기초하여 망라한 대중적 민주주의적 조직이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직업과 신앙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각계 각층 청년들로서 조직된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의 강령은 민청 제 1 차 대회 (1946년 1월)에서, 규약은 제 2차 대회 (1946년 9월)에서 채택되였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1946년 6월 24일에 세계 민주 청년 련맹에 가입하였으며 1949년 9월 15일에는 국제 학생 동맹에 가입하였다.

민청 맹원 수 250 여만명(1962년 12월 말 현재)

위원장 홍 순권

◇ 조선 소년단

창립 1946년 6월 6일

산하 단체 수 4,142개

소년 단원 수 160만여명

【1962년도 주요 사업】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민주 청년 동맹 앞에 제시한 과업— 청년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장 긴요한 부문을 솔선 담당하여 수행할 데 대하여서와 청년들을 지 덕 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육성할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1962년에 2차의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와 20차의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1962년 1월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는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민주 청년 동맹 앞에 준 강령적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1962년도 과업에 대하여》 로의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민주 청년 동맹 앞에 제시한 기본 과업—청년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교양 육성할 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며 7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 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1962년도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민청 단체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1962년 7월 2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진행된 중앙 위원회 제 14 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3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 집행을 위한 민청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각급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을 당적 사상 체계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간부 교양 사업 체계와 민청 생활 체계 및 민청 생활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방법을 일층 개선할 데 대한 구체적 대책들이 제기되였다. 그리고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당의 결 관철을 위한 조직 정치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전체 청년들을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조직 동원할 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1962년 5월 3일《청소년 교양 사업에 대하여》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 대책이 강구되였다.

1962년 10월에 평북도 창성군에서 진행된 전국 소년단 지도일'군 협의회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실행을 통하여 약수 중학교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배우며 널리 일반화 함으로써 교시를 계속 철저히 관철할 대책들이 강구되였다.

1962년에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인 152개의 민청 단체와 2만 5,757명의 민청원들이 민청 중앙 위원회 영예의 등록장에 등록되였으며 56 개의 민청 단체와 112명의 민청원들이《민청 창립 10주년 기념 청년의 영예상》을 수여받았다. 1962년에 77명의 소년들이《조선 소년의 영예상》을 수여 받았다.

【대외 교류】 1962년에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쏘련과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의 26개 단체와 자본주의 국가 및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 83개국의 321개 단체와 친선적 교류를 진행하였다.

민청 중앙 위원회는 1962년에 세계 민청 제 6 차 대회 및 국제 학생 동맹 제 7 차 대회를 비롯한 3개의 국제 기구 회의와 몽고 혁명 청년 동맹 제 14 차 대회(3월 7일), 큐바 청년 봉기자 협회 제 1 차 전국 대회 (3월 21일), 쏘련 레닌 공청 제 14 차 대회 (4월 21일)에 자기 대표단 또는 대표를 파견하였다.(괄호 안은 출발한 날'자)

한편 민청 중앙 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10 개국의 10개 단체 대표단 또는 대표 28명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 민주 녀성 동맹

북조선 민주 녀성 동맹은 1945년 11월 18일 창립되였다.

1951년 1월 19~20일에 걸쳐 소집된 남북 조선 녀성 동맹 합동 중앙 위원회 회의는 남북 조선 녀맹을 조선 민주 녀성 동맹으로 합동하였다.

1946년 10월 16일 조선 민주 녀성 동맹은 국제 민주 녀성 련맹에 가입하였다.

맹원 수 250만 ,767 명 (1962년 말 현재)

위원장 박 정애

【1962년도 주요 사업】 1962년에 조선 민주 녀성 동맹은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녀맹 단체 앞에 준 과업과 전국 어머니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의 교시에 근거하여 자기의 기본 임무인 녀맹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자기의 조직을 부단히 정비 강화함으로써 녀맹 사업의 밑천을 마련하며 녀성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그들의 정치 의식과 문화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녀성들로 하여금 자라나는 후대들을 앞날의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교양 육성하도록 하며 녀성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1962년 4월 23~26일 간에 걸쳐 진행된 중앙 위원회 제 9 차 전원 회의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3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동맹 단체들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회의는 녀맹 단체의 기본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들과의 사업을, 녀성들 속에서 교양 사업 특히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에 근거하여 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며 사업 방법과 사업 작풍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였다.

1962년에 녀성 동맹은 3만 5,306개에 달하는 어머니 학교와 광범하게 조직되여 있는 독서반을 재정비하고 어머니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는 사업과 동시에 녀성들의 정치 문화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녀성들로 하여금 자라나는 후대들을 훌륭한 공산주의자로 육성하도록 녀성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녀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로력적 위훈을 발휘하도록 적극적인 지도 방조 사업을 진행하였다.

결과 1962년에 42만 8,000 여 명의 가정 부인들이 사회에 진출하였으며 10 명의 녀성 로력 영웅, 2,164명의 각종 수훈자와 3,500 여 명의 녀성 천리마 기수들을 비롯한 수 많은 모범 녀성들이 배출되였다.

【대외 교류】 1961년 말 현재 조선 민주 녀성 동맹은 국제 녀성 련맹을 비롯하여 75개 나라 174개 단체(그중 사회주의 국가 11개국의 50개 단체, 자본주의 국가 및 식민지, 반 식민지 나라 64개 국의 124개 단체)와 233명의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저명한 녀성 활동가들과 련계를 가지였다.

1962년에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중앙 위원회는 루마니야 전국 녀성 대회 (6월), 큐바 녀성 련맹 제 1차 전국 대회 (9월), 국제 민주 녀성 련맹 리사회 회의(12월)에 자기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창립 1961년 5월 13일

위원장 홍 명희

조선 농민 동맹

창립 1946년 1월 31일

위원장 로 익명

조선 기자 동맹

창립 1946년 3월 10일

위원장 정 준기

조선 문학 예술 총 동맹

창립 1961년 3월 2일

위원장 박 웅걸

★ 문예총 산하 각 부문 동맹들

조선 작가 동맹
창립 1953년 8월 28일
위원장 천 세봉

조선 음악가 동맹
창립 1961년 1월 20일
위원장 리 면상

조선 미술가 동맹
창립 1953년 10월 1일
위원장 정 관철

조선 연극인 동맹
창립 1961년 1월 19일
위원장 리 재덕

조선 영화인 동맹
창립 1961년 1월 17일
위원장 리 종순

조선 무용가 동맹
창립 1961년 1월 18일
위원장 김 제홍

조선 사진가 동맹
창립 1961년 1월 22일
위원장 고 철진

조선 적십자회
창립 1946년 10월 18일
위원장 박 신덕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창립 1949년 3월 24일
위원장 강 량욱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창립 1956년 5월 31일
위원장 김 왈룡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
창립 1956년 4월 3일
위원장 서 철

조 쏘 친선 협회
창립 1945년 11월 11일
위원장 리 기영

조 중 친선 협회
창립 1953년 10월 3일
위원장 하 앙천

조 몽 친선 협회
창립 1961년 7월 7일
위원장 박 웅걸

조선 인도 문화 협회
창립 1957년 5월 8일

조선 불란서 친선 협회
창립 1958년 6월 20일

조선 인도네시아 친선협회
창립 1958년 11월 10일
위원장 송 영

조선 네팔 친선 협회
창립 1959년 11월 9일
위원장 리 면상

조선 큐바 단결 위원회
창립 1962년 12월 26일
위원장 박 세창

조선 공업 기술 총 련맹
창립 1946년 4월 14일
위원장 김 두삼

조선 농림 기술 총 련맹
창립 1946년 12월 1일

조선 자연 보호 협회
창립 1959년 6월 25일
위원장 리 주연

조선 건축가 동맹
창립 1954년 3월 26일
위원장 김 정희

조선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위원장 김 종항

조선 민주 과학자 협회
창립 1956년 4월 10일
위원장 백 남운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
창립 1954년 11월 30일
위원장 박 세창

조선 불교도 련맹
창립 1945년 12월 26일
위원장 안 숭용

건 민 회
창립 1946년 6월 7일
회장 리 극로

산업 건설 협회
창립 1947년 2월 25일
회장 리 종만

남조선 기독교 련맹
창립 1947년 2월 24일
김 욱

대 외 관 계

1962년에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극동 및 아세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의 강화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와함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나라 인민들의 반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의 원칙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을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켰다.

제국주의자를 반대하며 평화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것—이 것은 우리 나라의 대외 정책에서 견지하고 있는 확고 부동한 립장이다.

1962년에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반제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책동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음모를 걸음마다 분쇄하면서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몰아 내고 나라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계속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 (1962년 10월 23일) 에서 김 일성 수상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한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 정부의 대외 정책을 천명하였으며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방안을 재천명하였다. 이에 앞서 1962년 6월 20~21일 간에 진행된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들과 함께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 해에 공화국 정부는 비망록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 행위에 대하여》(6월 24일),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11월 24일)와 외무성 성명 (유엔 총회에서 《조선 문제》의 비법적 토의와 관련한 12월 8일 성명,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에서 《조선 문제》에 관한 비법적《결정》 채택과 관련한 12월 20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미 제국주의 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도발 책동을 철저히 폭로 규탄하였다.

또한 1962년에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큐바에 대한 침략 책동,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 중인 국경 지대에서 분쟁 문제를 확대하기 위한 책동을 단호히 폭로 규탄하였으며 일본 군국주의와 서부 독일 복수주의자들의 재생을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 기지 철폐와 미국 침략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를 철저히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은 사회주의 진영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은 우리 당의 조국 통일 방안과 조치를 지지하여 12 건의 정부적 성격을 띤 성명, 결의문, 서한들을 발표하였으며 각국의 여러 사회 단체들은 81 건의 성명 및 전문을 보내왔다.

아세아, 아프리카의 민족적 독립 국가들에서는 8 회의 군중 집회들이 진행되였으며 인도네시아와 캄보쟈의 국가 지도자들은 최고 인민 회의의 조치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각종 국제 기구들에서도 12 건의 결정과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롯한 일련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은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침략 군대의 철거와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해체를 요구하여 투쟁하였다(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란 참조).

1962년에 공화국 정부는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통일과 친선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종일관 노력하였으며 특히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쏘련 인민이 전면적 공산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진심으로 축하하였으며 세계 평화를 위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모든 정당한 제의들과 합리적 방안들을 지지하였다.

조선 인민은 중화 인민 공화국의 신성 불가침의 령토인 대만을 해방하며 미제의 사촉과 지지 밑에 중국 본토에 대한 장 개석 도당의 무모한 군사적 침공을 반대하는 중국 인민의 정의의 투쟁과 중인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중국 정부의 제안과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 군사 대표단의 쏘련 방문,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과 중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의 호상 방문, 조선 로동당 대표단의 불가리야, 웽그리야, 체코슬로바키야 방문을 비롯한 수 많은 각종 대표단들이 호상 래왕하였다. 이와 함께 경제, 문화 교류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조도 진행되였다.

공화국 정부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통한 처지로부터 출발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과의 반제 통일 전선을 강화하며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고수하기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경제 문화 교류와 우호적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였다.

조선 인민은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월남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남부 월남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내였다.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서부 이리안을 회복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으며 알제리아, 우간다, 루안다, 부룬디의 독립을 열렬히 축하하였다.

우리 나라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적 독립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교류와 실무적 관계도 강화 발전되였다.

특히 1962년에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및 무역 대표단의 쎄일론, 캄보쟈, 네팔, 로고, 튜니샤, 알제리아, 수단, 소말리의 방문은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우리 나라는 알제리아와 외교 관계를, 캄보쟈와는 령사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로고, 쎄일론 및 소말리와는 무역 대표부를 교환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1962년 초에 우리 나라는 쎄일론과 무역 협정을, 기니아 및 말리와는 1962～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를, 아랍 련합 공화국과는 방송 협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조선 인민은 민족적 독립과 평화와 중립을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12월 13일 미제의 추동하에 일본 군국주의 자들과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 간에 진행되는 《한일회담》을 반대 배격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 정부의 성명은 광범한 일본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공화국 정부의 꾸준하고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을 파탄시키려던 일본 반동 계층의 책동은 분쇄되고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협정은 1년간 더 무수정 연장되였다. 그리고 조 일 간의 민간 무역을 정상화하며 그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이께다 정부로하여금 공화국에 대한 강제 바타제를 11월 1일부터 철폐케 하였으며 11월 19일부터는 일본과의 정기적 무역 항로가 개설되였다.

공화국 정부는 조 일 량국 인민들 간의 친선 관계의 발전과 일조 협회의 청원을 고려하여 평안북도 룡천군 신도앞 해상에서 공화국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한 일본 선박 《제 11 다이안 마루》와 《제 12 다이안 마루》 및 그의 선원을 관대히 용서하여 귀국시켰다. 이에대한 공화국 내무성 보도가 10월 1일 발표되였다.

또한 10월 20일 공화국 내무성은 흥남항에 입항하여 우리 나라 국가 기밀을 탐지하기 위하여 간첩 행위를 감행한 《다산》 주식회사 소속《꽁고 마루》의 선원들이 자기들의 죄과를 인정한 사실과 귀국을 고대하는 가족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선박과 함께 전체 선원을 석방 귀국시키기로 결정한 보도를 발표하였다.

경제 및 문화적 련계도 발전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 대표단들은 각종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적 위신을 크게 제고시켰다. 우리 나라 대표단은 79 건의 각종 국제 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와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광범히 소개 선전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획득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 국제 륙상 경기 련맹에 새로 가입하였다.

특히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가입을 추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제 59 차 국제 올림픽 위원회 총회에서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의 가입과 남북 조선의 유일팀을 구성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케 하였으며 5 건의 체육 련맹 총회들에서도 유일팀 구성을 촉구케하였다.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중화 인민 공화국 방문

박 금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이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주 덕 위원장의 초청에 의하여 6월 15일부터 7월 2일 까지의 기간에 중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대표단은 모 택동 주석을 비롯하여 류 소기, 주 은래, 주 덕 등 중국 지도자들의 접견을 받았으며 북경시와 상해시의 환영 군중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표단은 북경을 비롯하여 무한, 상해, 항주, 천진, 심양 등 도시들을 방문하였으며 이 도시들에 있는 공장, 기업소, 인민 공사,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다.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국 인민의 친선의 정이 끓어 넘치는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중국 방문 일정을 끝마치고 7월 2일 귀국하였다.

7월 14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박 금철 동지는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 중 량국 인민의 친선 단결은 영원불멸할 것이다》 라는 귀환 보고를 하였다.

박 금철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중국 인민이 중국 공산당과 모 택동 동지의 령도하에 총 로선, 대약진, 인민 공사의 세 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현대적 공업과 농업, 현대적 과학과 문화를 가진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와 온갖 난관을 뚫고 더욱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중국 로동자, 농민, 기술자들의 강의한 영웅적 투쟁 모습을 보고 커다란 고무를 받았으며 그들의 고귀한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중국 방문은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함께 피로써 맺어진 조 중 량국 인민 간의 전통적인 친선 단결을 가일층 강화하였으며 량국 인민의 단결된 불패의 위력을 시위하였다고 하면서 《어떠한 힘도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낸 조 중 량국의 친

선 단결을 깨뜨릴 수 없으며 그것은 압록강과 양자강의 흐름과 더불어 영생 불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팽 진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이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 하였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간 동 대표단은 김 일성 수상,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 용건 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접견을 받았으며 평양시와 함흥시 환영 군중 대회 및 항일 무장 투쟁 개시 30 주년 평양시 기념 군중 대회에 참석하였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에 조선 인민의 따뜻한 환대와 환영을 받으면서 평양시, 함흥시를 방문하였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 관개 시설, 문화 기관들을 참관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조 중 량국 인민의 친선과 항미 원조 운동에서 세운 팽 진 동지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국기 훈장 제 1 급을 수여하였다.

5월 8일 동 대표단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귀국하였다.

5월 14일 제 2 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 54 차 (확대) 회의에서 팽 진 동지는 《피로써 맺어진 중조 인민들 간의 친선 만세》라는 귀환 보고를 진술하였다.

팽 진 동지는 자기 보고에서 조선 인민이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의 령도하에 천리마의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가는 곳 마다에서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로선, 방침 및 정책을 느끼게 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진리를 조선의 현실에 적용시킴으로써 발휘된 위력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자를 몰아내고 조선 인민 자신이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데 대한 조선 로동당의 조국 통일 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리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간고한 공동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 중 량국 간의 친선을 공고화하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는 사업에 기여한 우리 당의 적극적인 활동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견결한 투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 중 두 나라 인민들의 전통적인 친선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과 단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재생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 기도를 반대하여

1962년에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추동하에 《한일 회담》을 벌려놓고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재침략을 획책하였으며 남조선을 끌어 들여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려고 발광하여 나섰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김 일성 수상은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1 차 회의에서 조선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인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에 대한 재침략 기도와 그것을 적극 추동하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범죄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와 미제의 침략 도구에 불과한 남조선 군사 정권 간에 체결되는 그 어떤 군사적 및 경제적 협약도 인정하지 않으며 결정적으로 배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동시에 《일본과의 모든 정치 경제적 문제들은 앞으로 조선에 통일적인 인민의 정부가 수립된 후 응당 다시 제기될 것이며 새롭게 해결》되여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또한 12월 13일 공화국 정부는 《한일 회담》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공화국 정부는 미제의 사촉하에 《한일 회담》을 벌려 놓고 조 일 량국 간의 관계에서 력사적으로 루적된 문제들과 전 조선 인민의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조선 인민의 그 누구도 대표할 수 없는 남조선 괴뢰 정권과 공모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일본 정부의 범죄적 행위를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조 일 량국 간에 관계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공명 정대하게 량국 인민의 리익에 다같이 부합되게 해결하려고 한다면 응당 조선이 통일되고 통일적인 인민의 정부가 수립된 후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현 시기에서라도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원한다면 마땅히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와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3자 회담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그래도 정당한 일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성명은 조 일 량국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지난 날의 불행한 력사를 청산하고 정상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우선 해결 하여야 할 문제는 과거 식민지 통치 시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 인민에게 끼친 막대한 피해에 대하여 일본 정부가 공정한 배상을 하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대일 배상 청구권에 대한 조선 인민의 당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일본 정부가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그 어떤 흥정을 맺는다 하여도 그것으로써 조선 인민 앞에 진 국제법상의 의무와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엄숙히 지적하였다. 또한 성명에서 공화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재일 조선 공민들의 법적 지위》를 운운하면서

《한일 회담》에서 재일 조선 인민들을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의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리용하며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며 그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하는 부당한 책동을 규탄하고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국제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으로서의 대우를 하며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을 포함한 온갖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성명은 일본 정부는 우리의 이 정당한 주장을 접수하고 범죄적인 《한일 회담》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미제의 조종하에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어떠한 경제적 및 군사적 협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앞서 1962년 2월 15일에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남조선을 재침략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최대의 민족적 분노로써 규탄하고 전 인민적 력량을 단합하여 이를 단호히 배격 분쇄할 것을 전체 조선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한일 회담》을 조속히 타결함으로써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 들이려는 미제의 음흉한 책동을 규탄하며 《한일 회담》과 《일본 경제 사절단》들의 남조선 입국을 반대 배격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2월 16일, 10월 13일)를 비롯하여 각 도 소재지들에서 군중 대회들이 진행되였다.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협정 기한 연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1962년도에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념원을 계속 실현시켜주기 위하여 시종일관 관심을 돌리였다.

1962년 6월 22일 공화국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는 수 많은 재일 조선 공민들이 계속 귀국을 신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1962년 11월 12일로 그 기한이 만료되는 귀국 협정을 그대로 1년간 무수정 연장할 것을 일본 적십자사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미제의 사촉하에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사업을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의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려고 하면서 귀국 협정의 기한 만료 (1962년 11월 12일)를 계기로 귀국 사업을 파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6월 6일 소위 《한일 회담》 일본측 수석 대표 스기는 《일본 정부로서는 이 이상 귀국 협정을 갱신할 의향이 없다》고 공언하였으며 6월 14일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정상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일한 회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협정이 연장되여야 한다는 제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을 《한일 회담》의 정치적 미끼로 삼으려는 흉악한 의도를 로골적으로 들어내 놓았다.

7월 6일에 일본 정부 각료 회의는 귀국 사업에 관한 《현행 협정은 이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느니 조선 공민들의 《귀국 사업에 관여할 단계가 지나갔다》느니 하는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들고 나오면서 귀국 협정을 11월 12일로 페기할 것과 그 이후의 귀국 사업에 대해서는 조 일 량 적십자 간의 새로운 《소규모적인 협정을 체결하며 <개별적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일본 정부의 방침에 따라 7월 19일 일본 적십자사는 우리 측의 7월 12일부 제의에 대한 회답으로 되는 《합의서 초안》을 보내여 왔다. 회답에서 일본 측은 귀국 사업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부당한 론거 밑에 현행 귀국 협정을 페기하고 소규모적인 협정으로 개정할 것을 제기하였다. 이것은 결국 귀국 사업을 파탄시키려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였으며 우리측이 결코 접수할 수 없는 부당한 것이였다.

우리 나라 적십자회는 8월 5일 일본 적십자사에 보낸 전문에서와 제 93 차(10월 2일), 제 99 차 (10월 18일) 귀국선 승선 대표단을 통하여 진행한 일본측과의 회담들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사업을 파괴시키려는 일본 적십자사의 부당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고 현행 협정을 그대로 1년간 더 연장할 것을 완강히 주장하였다.

우리 측의 시종 일관한 정당한 주장과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실현을 위한 투쟁, 일본의 광범한 사회 여론의 압력에 의하여 일본 당국은 11월 8일 니이가다에서 진행된 조 일 량 적십자 대표 간의 회담에서 우리 측의 주장대로 귀국 협정을 1년간 무수정 연장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리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은 1962년 11월 13일부터 1963년 11월 12일까지 그대로 1년간 연장되게 되였으며 귀국 협정 제 5 조 3 항에 근거하여 귀국선의 배선은 월 1~2회로, 매차의 귀국 인원 수는 약200명으로 하는데 합의를 보았다.

◇**귀국 협정의 체결 및 그 연장**(1959년 8월 13일 인도 칼커타에서 체결).

제 1 차 연장(1960년 10월 27일 니이가다에서 1961년 11월 12일까지 칼커타 협정을 무수정 연장).

제 2 차 연장(1961년 7월 31일 현행 칼커타 협정을 1962년 11월 12일까지 무수정 연장).

제 3 차 연장(1962년 11월 8일 니이가다에서 1963월 11월 12일까지 칼커타 협정을 무수정 연장).

중 인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여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중

인 국경 지대에서 미제의 사촉하에 인도 반동 계층들이 국경 분쟁 문제를 확대하려는 책동을 규탄하고 중 인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정당한 제안과 시종 일관한 노력을 지지하였다.

12월 8일 김 일성 수상은 중 인 국경 분쟁에 관한 중화 인민 공화국 국무원 총리 주 은래의 11월 15일부 서한과 관련하여 회답 서한을 보내였다.

김 일성 수상은 자기 서한에서 중 인 국경 분쟁 문제를 중인 량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공명한 기초 우에서 해결할 데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시종 일관한 성의와 진지한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11월 21일 중 인 국경 지역에서 출선 정화하고 자기 군대를 철거시킬 데 대한 발기와 그를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현 조건 하에서 이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가장 훌륭한 방도로 된다고 지지하였다. 또한 이 조치는 중인 국경 문제를 자기들의 침략적 목적에 리용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파탄시키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하면서 공화국 정부는 인도 정부가 하루 속히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제의를 접수하고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에 나서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끝으로 김 일성 수상은 중 인 량국이 반둥의 정신에서 중 인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화목한 린방으로 되도록 할 것을 바라면서 앞으로도 공화국 정부는 중 인 국경 문제에 대한 중화 인민 공화국의 정당한 립장을 계속 견결히 지지할 것이며 그의 평화적 해결의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23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11월 21일 인도 측의 침범 및 도발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중 인 국경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주동적이며 평화 애호적 발기를 제기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부 월남, 라오스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외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월남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962년 3월 3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상은 남부 월남 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 침략 전쟁을 규탄하며 2월 18일부 월남 민주 공화국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공화국 정부는 미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부 월남에서 감행하고 있는 무장 침략을 월남 민주 공화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또한 인도지나와 동남 아세아, 나아가서는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엄중한 도전 행위로서 단호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2월 18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미제 침략자들이 남부 월남에 대한 무장 침략을 즉시 중지 하고 <군사 원조 사령부>를 해산하며 모든 전투 부대와 살인 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남부 월남에서 당장 물러가야 한다》고 강경히 주장하고 월남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 하였다.

11월 24일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및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와 우리 나라를 방문(11월 13일~24일) 한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은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공동 콤뮤니케에서 우리 측은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인 침략 행위를 단호히 규탄하고 《남부 월남 문제는 인도지나에 관한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부합되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남부 월남 인민 자신에 의하여 해결되여야》하며 《조선 인민은 미제와 느고 딘 디엠 도당의 식민지 파쑈 통치로부터 남부 월남을 해방시키고 남부 월남에서 독립, 민주주의, 생활 개선, 평화, 중립을 실현시키고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의 10대 행동 강령과 당면 주장들은 남부 월남 인민의 정당한 념원을 반영하였으며 남부 월남에 조성된 현 정세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였다.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은 조선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하여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할 데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시종 일관한 주장과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김 일성 수상이 천명한 조선의 평화적인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조성된 정세하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며 남부 월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평양시 군중 대회(7월 19일), 평양시 청년 학생 집회(6월 16일)를 비롯하여 공화국 각지에서 군중 집회가 진행되였으며 민청 중앙 위원회, 직총 중앙 위원회, 녀맹 중앙 위원회 등 우리 나라 사회 단체들에서 월남의 해당 사회 단체들에 편지를 보냈다.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승리와 독립을 공고화하기 위한 라오스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미제 침략을 반대하는 쿠바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공화국 정부와 조선 인민은 민

족적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미제국주의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는 영웅적 큐바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1962년 1월 26일 김 일성 수상은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와 관련하여 큐바 신문 《레볼루시온》 편집국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을 보내였다.

답변에서 김 일성 수상은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는 《큐바에 대한 더욱더 대규모적인 무장 간섭에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을 끌어 들이기 위한 범죄적 목적 밑에 미제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조작된 추악한 산물》이며 큐바의 자주권과 민족적 독립을 반대하여 감행되는 극악한 침략 책동이며 전 세계 자유 애호 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김 일성 수상은 《영웅적 큐바 인민의 편에 항상 튼튼히 서 있는 전체 조선 인민은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미제의 이와같은 흉책을 견결히 항의 규탄하고 있으며 영웅적 큐바 인민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굳은 련대성을 표명하고 있다.》 고 언명하였다.

끝으로 김 일성 수상은 영웅적 큐바 인민이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10월 2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큐바에 대한 전면적 무력 봉쇄 조치를 선포한 미국 정부의 침략 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성명에서 《큐바 혁명과 큐바 인민을 반대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이 오래 동안 감행하여 온 침략적 행동은 가장 로골적이고 파렴치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세계 평화는 엄중한 위협에 직면하였다.》고 지적하고 큐바를 무력으로 봉쇄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공해상에서의 야간적 해적 행위이며 평화를 유린하고 세계 전쟁을 직접 도발하려는 범죄 행위이며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 대한 횡포한 도전 행위》라고 단호히 규탄하였다.

성명은 《큐바가 자기의 주권을 수호하며 혁명적 전취물을 고수하기 위하여 자기 령토내에서 어떠한 방위 조치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큐바 인민 자신의 내정 문제》이며 그 누구도 이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큐바 인민에게 다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식민지 노예의 운명을 들씌우려는 미제의 강도적 행위는 단호히 저지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성명은 계속하여 조선 인민의 큐바 인민에 대한 가장 열렬한 전투적 련대성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큐바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평양시 군중 대회 (1월 30일, 10월 26일)를 비롯하여 공화국 각지에서 82회의 집회들과 6 차의 기념 보고회들이 진행되였으며 9 개의 사회 단체 책임자들의 담화가 발표되였다.

군중 대회들과 기념 보고회들에서는 일치하게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기 위한 큐바 혁명 정부의 5 개 조항을 지지하고 큐바 인민들에게 전투적인 련대성과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미제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였다. 또한 외무성은 2 건의 각서를 큐바 정부에 보내였다.

대표단의 왕래

◇정부 대표단

(방문) ▶1962년 3월 4일부터 3월 13일 기간에 라이프치히에서 열리는 춘기 시장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이라크를 친선 방문 (7월8일~7월 28일)하였다. 방문 기간에 대표단은 이라크 혁명 4주년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 ▶알제리아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알제리아를 방문(10월 28일~11월 5일)하였다.

(래방)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원조 종결 및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준공식에 참가 하기 위하여 독일 사회 통일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후보 위원인 루이제 에르미쉬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 (9월 1일~18일)하였다. 방문 기간 동 대표단은 평양과 함흥시를 참관하였으며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경제 대표단

(방문)▶우리 나라 경제 대표단이 네팔을 방문 (3월 6일~3월 16일) 하였으며 조선 네팔 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우리 나라 정부 경제 대표단이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 (6월 29일~8월 28일)하였다.8월 20일 쁘라가에서 량국간에 동 광산 건설에서 경제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무역 통상 대표단

(방문)▶우리 나라 통상 대표단이 루마니야 무역성의 초청으로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월 17일 부카레스트에 도착) 2월 15일 부카레스트에서 조선과 루마니야 량국 간의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우리 나라 정부 및 친선 대표단이 쎄일론을 친선 방문 (1961년 12월 26일~1962년 2월 20일)하였다.2월 21일 콜롬보에서 량국간에 통상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무역 대표부를 교환할 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이 2월 22일 바마코에 도착하였다.3월 6일 량국 대표단은 리해,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리 주연 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 (9월 26일～10월 9일)하였다.▶수단과 소말리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 무역 대표단이 이 나라들을 방문(11월 7일～12월 15일) 하였다. 방문 기간에 소말리와 우리 나라 간에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무역 대표부를 교환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우리 나라 통상 대표단이 월남 민주 공화국의 초청으로 월남을 방문 (11월 30일～12월 9일) 하였다. 방문 기간 량국 간에 1963년도 통상 의정서가 조인되였고 통상 항행 협정이 체결되였다.

(래방)▶1962년 조 중 통상 의정서 체결을 위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대외 무역 부장 엽 계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정부 통상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월 5일 평양 도착). 1월 8일 평양에서 조 중 량국 간의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와셀 까떠를 단장으로 하는 알바니야 정부 통상 대표단이 1월 19일 평양에 도착하였다.1월 23일 평양에서 량국 간에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대내외 무역성 제 1부상 휴멘다우호 윌리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정부 통상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1월 23일～2월 7일) 하였다. 2월 5일 평양에서 조 독 량국 간에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쏘련 대외 무역상 엔.에쓰.바똘리체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정부 통상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 (2월 20일)하였다. 량국 간의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가 평양에서 조인되였다.▶웽그리야 무역성 동방 국장 까딸리 미꿀쉬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야 통상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3월 12일 평양에서 조 웽 량국 간에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우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한 나라

국 가 명	국교 설정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1948. 10. 12
몽고 인민 공화국	1948. 10. 15
파란 인민 공화국	1948. 10. 16
체코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	1948. 10. 21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1948. 11. 3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1948. 11. 11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1948. 11. 29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1949. 5. 17
중화 인민 공화국	1949. 10. 6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949. 11. 7
월남 민주 공화국	1950. 1. 31
기니아 공화국	1958. 10. 8
큐바 공화국	1960. 8. 29
말리 공화국	1960. 10. 31

우리 나라가 외국과 체결한 협정 및 문건(1962년)

협정 및 문건 명칭	조인 날자	조인 장소
◇쏘련		
1961～1962년 간의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협정에 의한 의정서 2호	1962. 2. 26	평양
1962년도 문화 및 과학 협조 계획서	1962. 5. 7	모쓰크바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12차 회의 의정서	1962. 6. 6 (12차)	모쓰크바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13차 회의 의정서	1962. 10. 29(13차)	평양
조 쏘 국경 철도 공동 위원회 의정서	1962. 10. 11	주을
◇중화 인민 공화국		
1962년도 상품 교류에 관한 의정서	1962. 1. 8	평양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4. 30	북경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4차 의정서	1962. 9. 22	북경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	1962. 11. 5	북경
1963～1967년간 중요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협정	1962. 11. 5	북경
1963년도 상품 류통에 관한 의정서	1962. 11. 5	북경
중국이 조선에 설비를 납입하며 기술 원조를 제공할 데 관한 협정을 집행하기 위한 의정서 제2호,3호	1962. 11. 5	북경
조선—중국 국경 철도 공동 위원회 의정서	1962. 9. 11	심양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62. 2. 4	평양
1962도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4. 18	평양
◇루마니야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62. 2. 16	부카레스트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4. 18	부카레스트
◇몽고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3. 24	평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2차 회의 의정서	1962. 6. 26	울란바또르

◇불가리야

1962~1965년간의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62. 1. 5	쏘피야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관한 의정서	1962. 1. 5	쏘피야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5. 11	쏘피야
기술 협조 위원회 5차 회의 의정서	1962 9. 18	평 양

◇알바니아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1962. 1. 23	평 양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3. 30	평 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5 차 회의 의정서	1962. 1. 23	평 양

◇웽그리아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62. 3. 12	평 양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4. 11	부다페스트

◇월남 민주 공화국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8. 8	평 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 차 회의 의정서	1962. 7. 23	평 양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와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간의 공동 콤뮤니케	1962. 11. 24	평 양

◇체코슬로바키아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62. 4. 26	평 양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4. 10	평 양
동 광산 건설에서 경제적 협조에 관한 협정	1962. 8. 20	쁘라가
상품 납입 일반 조헌에 관한 의정서	1962. 11. 17	평 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7 차 회의 의정서	1962. 10. 13	평 양

◇파란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4. 11	평 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4 차 회의 의정서	1962. 8. 13	평 양

◇큐바

1962년도 통상에 관한 의정서	1962. 1. 30	하바나

◇기니아

1962~1963년도 문화 교류에 관한 계획서		
1962년도 무역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1962. 2. 20	코나크리

◇말리

1962년도 무역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1962. 3. 7	바마코
1962~1963년 문화 교류 계획서	1962. 3. 7	바마코

◇아랍 련합 공화국

량국 방송 위원회 간의 방송 분야에서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	1962. 11. 12	카이로

◇인도

령사 관계 설정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1962. 3. 1	평 양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크라이차 카렐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하는 체코슬로바키야 정부 통상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 (4월 18일~28일)하였다. 4월 26일 평양에서 량국 간에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몽고 무역성 부상 간조르라호를 단장으로 하는 몽고 정부 무역 대표단이 1963년도 량국 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 (11월)하였다. ▶조선 국제 무역 촉진 위원회 초청으로 일본 무역회 상임 리사 나이가와 리이찌로를 단장으로 하는 일조 무역 협회 무역 대표단이 12월 10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친선 대표단

(방문) ▶큐바 공화국의 초청으로 작가 동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 대표단이 큐바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다 (1월 23일 귀국).대표단은 체류 기간 큐바 혁명 승리 3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 ▶큐바 공화국 정부의 초청으로 최고 검찰소 박세창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대표단이 큐바를 방문 (7월 25일~8월12일)하였다. 대표단은 큐바 7. 26 무장 봉기 9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토고 정부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토고를 친선 방무 (5월 2일~14일)하였다. ▶튜니샤 공화국의 초청으로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대표단이 튜니샤를 친선 방문 (6월 4일~10일)하였다.최 창석 보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 중 친선 대표단이 중국을 친선 방문 (9월 29일~10월 20일)하였다.체류 기간 대표단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경절 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쏘련 변방 쏘베트 초청으로 함경북도 조쏘 친선 대표단이 쏘련을 친선 방문(11월 3~11일)하였다. ▶서전-조선 친선 협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4월 24일~5월 16일)방문하였다.

(래방)▶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변방 쏘베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 변강 쏘 조 친선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 (8월9~17일)하였다.▶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당 생활자 주필인 예.이.브가예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 조 친선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8월 14일~9월 5일)하였다. 대표단은8.15 해방 17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하였다. ▶일 조 협회 상임 리사이며 사회당 집행 위원회 위원이며 중의원 의원인 호즈미 시찌로를 단장으로 하는 일 조 협회 친선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 (10월 9~25일)하였다. 10월 25일 대외 문화 련락 협회와 일 조 협회 친선 대표단은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네팔—조선 친선 협회 위원장 비하드르 깐자칼을 단장으로 하는 네팔-조선 친선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0월 13일 평양 도착). ▶칠리—조선 친선 문학 협회 위원장이며 칠리 국회 위원인 까를로쓰 모라데스 아바르조아를 단장으로 하는 칠리-조선 친선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 (11월 1일~15일)하였다.

◇군사 대표단

(방문)▶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부수상인 김 광협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군사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11월 29일~12월 5일)하였다.

(래방)▶라오스 군사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 (6월 8일~10일)하였다.

정전 관계

공화국 정부는 1962년도에 있어서도 정전 협정의 모든 조항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정전 협정을 유린하고, 파괴하려는 미 제국주의 자들의 범죄적 행동을 반대하여 시종일관 노력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이 해도 정전 협정 제 13항 ㄹ목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라크로스 유도탄》을 비롯한 원자 및 신형 작전 무기와 장비들을 남조선에 계속 끌어 들이는 동시에 군사 분계선 근방과 남조선 도처에서 광란적인 군사 연습을 벌려 놓았으며 공중, 해상, 지상으로부터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범 사건과 도발적인 각종 범죄 행위를 끊임 없이 감행하였다.

1962년에만도 미제는 《유—2》 간첩 비행기를 공화국 북반부 령공 깊이 침입시킨 사건을 비롯한 1,487 건의 해상 및 지상 위반 사건을 도발하였다. 그리하여 1953년 정전 이래 1962년 10월 말까지의 기간에 미제가 감행한 각종 도발 행위는 우리측이 군사 정전 위원회에 정식 제기한 것만 하여도 도합 4,592 건에 달하였는바 그중에는 682건의 비행기에 의한 침범 사건, 208 건의 함선 침입 사건이 포함되여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이와같은 계속적인 도발 책동은 조선 정전을 계속 불안정 상태에 빠뜨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극동과 세계 평화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1962년에 진행된 14 차의 군사 정전 위원회 회의와 12 차의 비서장 회의 및 여러 차례의 쌍방 경무관 회의들에서 우리 측은 미국 측의 각종 정전 협정 위반 행위와 새 전쟁 도발 책동을 철저히 폭로 규탄하였으며 남조선 인민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군사 정전 위원회 회의】

제148차 회의 1962년 1월 6일—우리 측은 적측이 1961년 12월 13일 미국 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서 4척의 구잠함을 남조선 괴뢰군에 넘겨준데 대하여서와 1962년 1월 1일과 2일에 해군 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도발 행동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남조선에로의 해군 함선 반입을 중지하며 이미 비법 반입한 살인 무기들과 작전 장비들을 즉시 조선 경외로 내여가고 그 결과를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

제 149 차 회의 1962년 1월 2일—우리 측은 적측이 1962년 1월 17일 2 차에 걸쳐 해군 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도발적인 적대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항의하고 정전 협정의 모든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데 대한 실제적인 보증을 제출할 것과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 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제 150 차 회의 1962년 4월 3일—우리 측은 적측이 정전 협정 서언과 정전 협정 제 13항 ㄹ목, 제17항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3척의 해군 함선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강력히 항의한 다음

1, 증원하는 해군 함선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범죄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

2, 이미 남조선에 비법 반입된 모든 신형 무기들과 작전 장비를 즉시 조선 경외로 내여가고 그 결과를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보고할 것.

3, 정전 협정 제 13 항 ㄹ목을 위반하고 증원하는 해군 함선들을 남조선에 반입하는 범죄자들을 정전 협정 제 13 항 ㅁ목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

4, 비법적인 무력 증강 행위를 다시는 감행하지 않을 데 대하여 보증할 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제 151 차 회의1962년 4월 28

일—우리 측은 정전 협정 제13항 ㄹ목과 정전 협정 서언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적측이 또다시 6척의 해군 함선을 남조선에 비법 반입하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금번 반입한 해군 함선들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비법 반입한 모든 신형 무기들과 작전 장비들을 즉시 조선 경외로 내여가며 비법적인 무력 증강 행위를 다시는 감행하지 않을 데 대하여 보증할 것을 적측에 요구.

우리측은 또한 적측이 정전 협정 서언 및 정전 협정 제6, 10, 12, 14항과 쌍방간의 합의를 위반하고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의 기간에 비무장 지대에서 9차에 걸쳐 우리 측을 향하여 근 700발의 총탄을 발사한 적대 행위와 4월 25일 해군 함선을 우리측 연해에 비법 침입시킨 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

제 152차 회의 1962년 5월 25일—우리측은 적측이 또다시 2척의 해군 함선과 1개의 직승 비행기 중대를 남조선에 비법 반입한 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면서 발광적인 무력 증강 행위를 당장 중지하며 비법 반입한 모든 신형 무기들과 작전 장비들을 조선 경외로 반출하고 그 결과를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보고하며 정전 협정 제 13항 ㄹ목을 위반하지 않을 데 대하여 보증할 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우리측은 또한 1962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의 기간에 4차에 걸쳐 해군 함선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적대 행위와 5월 15일 적측 무장 인원들이 비무장 지대에서 우리측을 향하여 17발의 총탄을 발사한 도발 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항의하고 상술한 사건들에 가담한 모든 인원들을 처벌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적측에 요구.

제 153차 회의 1962년 7월 10일—우리측은 적측이 1962년 6월 26일 구축함 707호를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어로 작업 중에 있던 우리측 어선과 어민들을 강제 랍치하여다 계속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하여 항의하고 우리측 어민 전원과 일체 소지품들을 지체 없이 돌려 보낼 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계속하여 우리측은 비무장 지대 상공에 기구를 설치하고 우리측에 대한 정찰과 《반공 선전》을 감행하는 도발적인 적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적측에 항의.

제 154차 회의 1962년 7월 20일—우리측은 적측이 1962년 6월 26일 강제 랍치하여 간 우리측 어민을 《기상 조건》에 빙자하면서 계속 억류하고 있는 적측의 범죄 행위를 규탄하고 우리측 어민 전원을 지체 없이 돌려 보낼 것을 강력히 요구. 또한 우리 측은 7월 10일 감행한 2건의 해상 침범 사건에 대하여 적측에 강력히 항의.

제 155차 회의 1962년 8월 29일—우리측은 1962년 8월 7일 적측 군용 쾌속정 1척이 우리측 연해 도서인 강화도로부터 0.8마일 북위 37도 45분 15초, 동경 125도 57분 03초 부근 해상에서 우리측 어민들을 강제 랍치하여다가 계속 억류하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하여 규탄하고 우리측 어민들을 즉시 돌려 보낼 것을 적측에 요구. 또한 우리측은 8월 15일 3차에 걸쳐 군용 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켰으며 8월 21일에는 2척의 군용 선박을 한강 하구 수역에 침입시킨 적측의 적대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

제 156차 회의 1962년 9월 27일—우리 측은 1962년 9월 5일 17명의 미국측 무장 집단이 군사 분계 선상에서 우리측 민사 행정 경찰 성원들을 살해 또는 랍치하여 가는 도발적 무장 공격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본 회의에 앞서 2차의 서한을 통하여 강력한 항의와 강제 억류하고 있는 2명의 우리측 인원들을 돌려 보낼 것을 요구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우리측의 요구를 리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답 조차 하지 않는 미제의 강도적 립장을 준렬히 폭로 규탄하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즉각적으로 리행할 것을 미국측에 강경히 요구. 1, 조선 정전의 기초를 파괴하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 2, 금번의 흉악한 무장 공격 행위를 조작한 주모자들과 그에 가담한 모든 인원들을 정전 협정 제 13 항 ㅁ목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 3, 공동 감시 소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며 그의 임무 수행 도상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한 공동 감시 소조 제 4 조 미국측 성원들을 엄중히 규탄할 것 4, 군사 분계선이 통과하고 있는 군사 분계선 표식물 제 0979 호로부터 제0982 호 사이의 도로 북쪽 가에 비법적으로 늘어 놓은 철선을 제거하며 도로상에 불법적으로 설치해 놓은 《안전 통로》를 도로 남쪽으로 이동할 것 5, 미국측이 강제 랍치하여다가 부당 억류하고 있는 우리측 인원 2명을 즉시 돌려 보낼 것.

이날 회의에서 우리 측은 또한 9월 17일 적 함선 1척이 동해의 우리측 작도 부근 해상에 불법 침입하여 적대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적측에 엄중히 항의.

제 157차 회의 1962년 10월 5일—회의에서는 지난 9월 5일 미국측이 정상적인 순찰 임무를 수행하던 우리측 인원들을 습격 랍치하여다가 계속 불법 억류하고 있는 비인도적인 행위와 관련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미국측이 자신의 언약대로 강제 랍치하여다가 계속 억류하고 있는 우리측 인원 2명을 즉시 돌려 보낼 것을 재차 강력히 요구. 우리측은 또한 1962년 9월 27일 2대의 군용 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불법 침입시켜 도발적

인 정찰 행위를 감행한 미국측의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

제 158 차 회의 1962년 10월 17일—우리측은 적측이 또다시 《싸이드 와인더》를 장치한 제트 전투기들과 핵 탄두 발사를 위한 새로운 유도 무기 《라크로스》를 비롯하여 엠 47, 엠 48 신형 중땅크들과 대전차 유도탄들을 남조선에 비법 반입한 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

1. 비법 반입한 신형 무기들과 무장 장비들을 즉시 조선 경외로 반출하고 그 결과를 군사 정전 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보고할 것.

2. 정전 협정 전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데 대하여 보증할 것.

3. 남조선에서의 발광적인 새 전쟁 도발 준비 책동을 즉시 금지할 것.

제 159 차 회의 1962년 11월 21일—회의에서 우리측은 11월 7일 한강 하구 지역에서의 적측 무장 함선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항의 규탄하였으며 특히 이날 회의에서 조난 당한 남조선 어민들에게 동포애의 지극한 배려를 돌린 공화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조치를 비방 중상하는 적측의 철면피한 모략 행위를 여지없이 폭로 규탄하였다. 우리측은 1962년 8월 태풍으로 조난 당한 남조선 어민들을 구출하였으며 조난으로 부상 당했거나 병에 걸린 어민들을 치료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날의 생계를 념려하여 많은 자재들을 지출하여 조난 당시 파괴 류실된 그들의 어구, 어선들을 수리 정비 또는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으며 매개 어민들에게 피복을 비롯한 일체 필수품까지 공급하여 아무런 걱정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조난 당하였던 남조선 어민들에 대한 공화국 정부의 동포애적이며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훼손 비방하기 위하여 김 춘복의 유해와 파손된 배, 그리고 침몰된 《신성호》의 비품을 돌려보낼 것을 《어민들의 요구》라고 날조하여 가지고 제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미국측이 추구하고 있는 파렴치한 정치적 목적을 폭로 규탄하고 만약 김 춘복의 미망인의 요구라면 조선 민족의 고유한 풍속과 조상 관례에 따라 고인의 가족이 현지까지 와서 유해를 가져갈 수 있게 들여 보내며 그리고 어부들이 진정으로 요구한다면 그들이 우리가 준 배를 가지고 와서 반환하고 파손된 배를 가져 가라고 답변. 또한 침몰된 어선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본 일이 없는 조건 하에서 침몰 현장에서 찾아 가라고 답변.

제 160 차 회의 1962년 11월 29일—우리측은 무근거한 《사건》을 조작해 가지고 《반공 선전》 깜빠니야를 벌리고 있는 적측의 사기 협잡 행위를 철저히 폭로하면서

1. 남조선에서 발광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새로운 침략 전쟁 도발 책동을 당장 중지할 것.

2. 자신의 음흉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금번의《사건》을 조작해 낸 주모자와 련루자들을 정전 협정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

3. 무근거한 사건을 날조해 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중상 비난하는 사기 협잡 행위를 즉시 중지하며 지금까지 류포한 보도가 허위였다는 것을 선포하며 그를 당장 취소할 것.

4. 군사 정전 위원회를 더러운 군사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무대로 악용하려는 비렬한 책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 것을 적측에 요구하고 이상의 우리측 요구를 즉각적으로 리행하고 그 결과를 군사 정전 위원회에 보고할 것.

계속하여 우리측은 1962년 11월 24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에 군용 비행기의 엄호 하에 1척의 미국 구축함을 비롯한 23 척의 대소 각종 해군 함선들을 동해 우리측 연해에 불법 침입시켜 대규모적 침략 행위와 해적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이와 같은 침략 행위를 중지하며 범죄자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을 강경히 요구.

끝으로 우리측은 미국 측이 11월 21일과 26일 및 27일의 3 차에 걸쳐 땅크포와 저격 무기로써 우리측을 향하여 사격을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측에 강경히 항의.

제 161 차 회의 1962년 12월 22일—우리측은 미국측이 정전 협정 서언과 정전 협정 제 12, 16, 17 항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1962년 12월 6일 대연평도 방향으로부터 미국 《유-2》 간첩 비행기를 공화국 북반부 령공 깊이 침입시킨 로골적인 도전 행위에 대하여 적측에 강력히 항의한 다음 1, 금번 공화국 북반부에 《유-2》 간첩 비행기를 파견한 자들과 직접 우리측 지역에 침입한 범죄자들을 정전 협정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 2, 공화국 북반부에 대하여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 있는 일체 도발적인 적대 행위와 범죄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 3, 남조선에서 발광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는 새로운 침략 전쟁 도발 책동을 당장 중지할 것 4, 정전 협정의 전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다시는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와 범죄 행위를 감행하지 않을 데 대하여 보증할 것

5. 이상의 우리측 요구를 즉시 리행하고 그 결과를 군사 정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적측에 강경히 요구.

계속하여 우리측은 1962년 12월 18일, 19일, 21일에 각종 무장 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적측에 강경히 항의.

제 162 차 회의 1962년 12월 28일—우리 측은 적 측이 1962년 12월 23일 미국 해적선 1척을 우리 측 해상에 불법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그리고 12월 26일 한강 하구 남쪽에서 우리측 지역인 북위 37도 49분 30초, 동경 126도 39분 58초 부근

을 향하여 불의로 총사격을 감행한 도발적인 무장 공격 행위 등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 1, 우리측 연해에 해적선을 침입시켜 우리에 대하여 불의적인 사격을 감행하는 것과 같은 흉악한 무장 공격 행위를 당장 중지할 것 2, 금번의 적대적인 도발 행위를 조작하였으며 이에 가담한 모든 범죄자들을 정전 협정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것 3, 조선 정전의 기초를 엄격히 유린하는 이와 같은 도발적인 적대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책임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 4, 자신의 침략 행위를 엄폐하며 세상 사람들을 기만할 목적 밑에 조작하여 류포한 모든 허위 보도를 취소할 것 5, 우리 측에 감행한 적대 행위가 자주권을 존중할 데 대한 공인된 국제법의 제원칙과 정전 협정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였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 측에 사과할 것 6, 우리 측의 이 모든 요구를 리행하고 그 결과를 군사 정전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 우리 측은 또한 1962년 12월 25일 중형 상륙함 제 39호를 동해의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켜 적대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미국측에 항의.

【군사 정전 위원회 비서장 회의】

제 240 차 회의 1962년 1월 16일—우리 측은 적 측이 1962년 1월 6일부터 1월 11일까지 기간에 5차에 걸쳐 중형 상륙함을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켜 감행한 적대적 도발 행동과 1월 9일 군용 제트 비행기 2대를 우리측 군사 통제 지역인 북위 38도 32분 0초, 동경 128도 30분 00초 부근 상공에 침입시켜 적대 행동을 감행한 데 대하여 항의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정전 협정 위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적 측에 강경히 요구.

제 241 차 회의 1962년 2월 7일—우리 측은 1962년 1월 7일 에스 씨 47형 군용 비행기 1대를 우리 측 령공에 침입시킨 적측의 도발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원들을 처벌하며 이와 류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적 측에 강경히 요구.

제 242 차 회의 1962년 2월 28일—우리 측은 1962년 2월 22일 적측 무장 인원 8명이 비 무장 지대 우리 측 부분인 북위 38도 19분 00초, 동경 127도 48분 24초 부근에서 우리 측 민사 행정 경찰 성원들에 대하여 사격을 감행한 도발 행위와 비무장 지대에서 폭발물을 폭발시키며 민사 행정 경찰 성원들에게 자동 무기를 휴대시키며 적측 인원들과 차량들에 해당한 식별 표식을 붙이지 않는 등 79건의 각종 위반 사건에 대하여 적 측에 강경히 항의.

제 243 차 회의 1962년 3월 20일—우리 측은 적 측이 1962년 3월 16일 군용 제트 비행기 2대를 우리 측 지역 상공에 침입시킨 적대 행위와 1962년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기간에 비 무장 지대에서 도발한 50건의 정전 협정 및 합의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적 측에 강경히 항의.

제 244 차 회의 1962년 5월 8일—우리측은 적측이 1962년 4월 26일과 5월 2일에 해군 함선을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킨 도발 행위와 4월 3일 적측 군사 인원 1명이 비무장 지대 우리측 부분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고 도주한 사건, 4월 9일 무장한 미군 5명이 군사 분계선 우리측 지역에 침입한 사건 등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제 245 차 회의 1962년 6월 12일—우리 측은 1962년 5월 25일 적측 군사 인원 6명이 군사 분계선 표식물 0779호 부근에 이르러 4명을 그곳에 매복시킨 후 2명을 우리 측 지역에 침입시켜 감시하다가 도주한 사건과 같은 날 적측 군사 인원 5명이 우리 측 지역에 침입하여 적대 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그리고 10명의 적 측 인원과 2명의 사민을 비 무장 지대에 들여놓은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적 측에 강경히 항의하고 금번 도발 행위들에 가담한 모든 인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적 측에 강경히 요구.

제 246 차 회의 1962년 7월 3일—우리측은 적측이 1962년 6월 25일과 26일 비무장 지대에서 3차에 걸쳐 140발의 총탄을 발사한 적대 행위와 6월 30일 엘 19형 군용 비행기 1대를 비무장 지대 우리 측 목판동 및 유정리 부근 상공에 침입시킨 도발 행위에 대하여 엄중 항의. 또한 6월 23일 이후부터 비무장 지대에 기구를 설치하고 우리측 지역에 대한 정찰과 《반공 선전》을 감행한 비렬한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비무장 지대 상공에 설치한 기구들을 즉시 철거하며 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적 측에 강경히 요구.

제 247 차 회의 1962년 7월 31일—우리 측은 적측이 1962년 7월 24일 2대의 에프 86형 군용 제트 비행기로 우리측 령공에 침입한 사건과 비무장 지대 우리측 부근인 북위 38도 19분 40초, 동경 157도 48분 40초 부근을 향하여 10여 발의 총탄을 발사한 도발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규탄하고 1, 엄중한 후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시 중지할 것 2, 금번의 도발 행위를 조직 지휘하였으며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한 모든 인원들을 엄격히 처벌할 것 3, 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적 측에 요구.

제 248 차 회의 1962년 8월 7일—우리 측은 1962년 8월 1일 적측이 또다시 에프 86형 군용 제트 비행기 2대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킨 적대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

第 249 차 회의 1962년 8월 14일—우리 측은 적 측이 1962년 7월 25일 간첩 허 선량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킨 적대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우리 측에 대한 정탐 파괴 행위를 즉시 중지하며 남조선에 설치한 모든 간첩 기관들을 즉시 해체하며 공동 감시 소조의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을 더는 되풀이 하지말 것 등 6개 항목에 달하는 요구를 적 측에 제기. 이날 회의에서 또한 우리측은 적측이 1962년 8월19일 비무장 지대에서 우리측 민사 행정 경찰 성원들을 향하여 수차에 걸쳐 도합 14발의 총탄을 발사하는 적대 행위와 8월 7일 적측 해군 함선들이 우리측 어민들을 강제 랍치하여 간 해적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는 동시에 그들을 그들의 어선 및 화물과 함께 즉시 돌려 보낼 것을 적측에 강경히 요구.

第 250 차 회의 1962년 9월 12일—우리 측은 적 측이 1962년 9월 12일 군용 비행기를 우리 측 지역 령공에 침입시킨 적대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금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인원들을 엄격히 처벌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적 측에 강경히 요구.

第 251 차 회의 1962년 10월 27일—우리 측은 적 측이 정전 협정 제 16항을 위반하고 1962년 10월 26일 에프 86형 군용 비행기 2대를 우리측 군사 통제 지역인 판산(북위 37도 47분 15초, 동경 126도 39분 00초)및 군장산 (북위 47도 53분 12초, 동경 126도 38분 00초)부근 상공에 침입시켜 정찰 행동을 감행한 데 대하여와 10월 19일, 20일, 22일에 각각 해군 함선을 동해의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도발 행동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또한 우리측은 적측이 10월 10일과 12일 비무장 지대에서 우리 측 민사 행정 경찰 성원들에 대한 사격 행위와 1962년 9월 11일~10월 20일 간에 비무장 지대에서 감행한 195건의 정전 협정 및 합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상기 사건과 관련된 적측의 모든 인원들을 정전 협정의 요구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며 앞으로 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第 252 차 회의 1962년 12월 11일—우리 측은 미국 측이 1962년 11월 30일 ~12월 9일 간에 6차에 걸쳐 해군 함선들을 우리측 연해에 침입시킨 적대 행위와 12월 5일 에프 86형 군용 비행기를 우리 측 기촌리 북쪽 무명 고지 부근 상공에 침입시켜 정찰 행동을 감행케한 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미국 측에 강경히 요구.

군사 정전 위원회 명단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측
- 수석 위원 장 정환 (조선 인민군 소장)
- 위 원 임 영 (중국 인민 지원군 소장)
- 위원 연 상기 (조선 인민군 소장)
- 위 원 박 세현 (조선 인민군 소장)
- 위 원 김 원석 (조선 인민군 대좌)

조선 인민군 및 중국 인민 지원군측 비서장 한 주경 (조선 인민군 상좌)

◇적 측
- 수석 위원 죠세프 이. 길 (미국 공군 소장)
- 위원 죤 엠. 앨포드 (미국 해군 소장)
- 위원 씨. 엠. 엠. 맨 (영국 륙군 준장)
- 위원 현 시학 (괴뢰군 소장)

중립국 감독 위원회 위원 명단
- 체코슬로바키야 위원 올드리흐 휠레(소장)
- 파란 위원 프란치세크 므르쓰 (소장)
- 서전 위원 칼 클링쉐나 (소장)
- 서서 위원 마크셀 루이 (참사)

경 제

공 업

전력 공업

우리 나라 전력 공업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동력 기지로서 자체의 전기 기계 제작 공업과 수 많은 우수한 기술 력량을 소유한 튼튼한 자립적인 공업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1962년 1월 1일 현재 우리 나라 발전 설비의 총 능력은 해방 전에 비하여 114.4%, 1957년 1월 1일 현재에 비하여 170.6%로 장성된 194만 7천 여 키로 볼트 암페아에 달하였다.

1962년 현재 발전 설비의 총 능력에서 수력이 94.8%, 화력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전력 공업 부문의 기술 력량이 급속히 장성되였다. 1962년에 기술자, 전문가 수는 1953년에 비하여 616%로, 1961년에 비하여 114%로 장성하였다.

발전 설비 총 능력의 구성

	1956	1960	1962
총 계	100	100	100
수력 발전소	98.1	95.4	94.8
화력 발전소	1.9	4.6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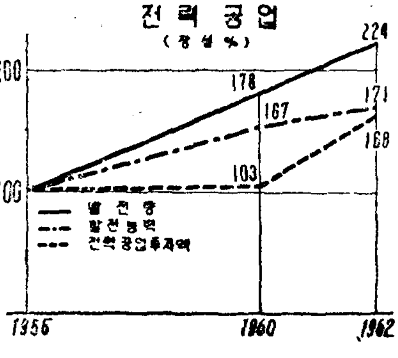
현대적인 전기 기계 제작 공업이 창설되고 기술 력량이 질 량적으로 장성됨에 따라 발전 공업은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있는바 우리 나라 동력 기지의 거점인 수풍 발전소를 비롯하여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 부령 발전소들과 기타 많은 발전소들이 원방 조종에 의한 종합적인 자동화 체계에로 이행할 수 있는 기초를 축성하여 놓았다.

조선 로동당은 기술 진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나라의 전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력 공업의 발전을 다른 부문에 선행시키고 있다.

전력 공업 발전에서 조선 로동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의 풍부한 수력 자원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계속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동시에 화력 발전소들의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시키는 것이다.

이 방침에 따라 7개년 계획 기간 (1961～1967)에 전력 공업 부문에서는 대규모적인 수력 발전소들과 함께 새로 많은 화력 발전소들을 건설하여 200만 키로왓트 이상의 발전 능력을 더 조성함으로써 총 발전 능력을 330만～350만 키로왓트로 확장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7개년 계획 말에 가서 전력 생산량은 160억～170억 키로왓트시에 달하게 될 것이며 총 발전 능력에서 화력의 비중은 32%에 달하게 될 것이다.

7개년 계획의 둘째 해인 1962년에 조선 로동당은 6개 고지를 중심으로 한 인민 경제 발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전력의 증산과 함께 절약 투쟁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급격히 증대되는 전력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특히 대안의 사업 체계의 확립은 전력 공업 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열성을 적극 발양시켰으며 전력 공업 발전을 강력히 추진시켰다.

발전 부문 일'군들은 수력 발전소들에서 수차 효률을 높이고 물 관리 사업을 개선하였으며 화력 및 중소 규모 발전소들을 정비 운영하여 전년도 보다 14억 500만 키로왓트시나 더 많은 114억 4,500만 키로왓트시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특히 수풍, 장진강, 허천강 발전소를 비롯한 수력 발전소들에서 기대들의 기술적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하고 랭각 조건의 개선 대책과 설비의 보수 및 점검 사업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과거의 낡은 공칭 능력을 타파하고 전력 증산의 거대한 예비를 찾아내였다. 이리하여 발전 설비의 리용률은 해방 전에 비하여 119.3%나 제고되였다.

화력 발전소 일'군들은 화력 발전 설비들을 보강하는 사업을 가일층 강화하고 기술 관리 사업을 개선함으로써 화력 발전량을 전해에 비하여 122.8%로 급격히 장성시켰다.

송배전 부문 일'군들은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장진강—평양간 송전선 선로의 전압 154키로볼트를 220키로볼트로 높이는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우리 나라 동서 간의 전력 계통의 융통 능력을 140%로 제고시키고 2,500키로왓트의 도중 손실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운산 변전소의 전압을 높이는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우리 나라 동서부 간의 전력 융통 능력을 훨씬 더 제고하여 동부 송전 계통에 전력을 원만히 공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년간 1,400 여만 키로왓트시의 전력 도중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미 설치되여 있던 축전기를 합리적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30여만 KVAR에 해당한 축전기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전력 공급에서 도중 손실을 전년에 비하여 3.1% 감소시켰으며 력률을 4%나 더 높이였다.

전력 공업의 기술 발전에서도 빛나는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전력 계통에 대한 자동 재투입 장치의 도입, 발전기의 기동 정지의 자동화, 수차 과속도 계전기 장치, 거리 계전기 등 수다한 선진 기술이 광범히 도입됨으로써 전력 계통의 기술적 장비가 더욱 강화되고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가일층 높이였다. 전력 공업 부문에서 달성된 이 모든 성과들은 급격히 증대된 전력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6개 고지를 비롯한 1962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초과 수행하는데 훌륭히 이바지 하였다. 1962년에 전력 공업 총 생산액 계획 (전기 석탄 공업성 전력 공업 관리국)은 108%로 수행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하여 124%로, 1956년에 비하여 332%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전력 생산량의 증대와 함께 각 성 (국)들의 소비 전력 량도 급격히 증대되였다.

전력 생산 량의 장성

	1956	1960	1961	1962
Ⅰ 전력 생산량 (100 만 KWH)	5 120	9 139	10 040	11 445
Ⅱ 전력 생산량의 장성률 (%)				
수력	100	176.5	194.7	221.6
화력	100	367.4	367.4	451.2

1962년에 인구 1인당 전력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110.4%로, 1956년에 비해서는 1.7배 이상으로 장성되였다.

생산된 전력을 극력 절약하며 그를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큰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2 차 전원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모든 사람들이 전기 일반에 관한 지식을 높이고 전기 절약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교시하였다. 특히 최근 시기 조선 로동당은 전력을 많이 쓰는 일부 공업 부문들에서 전력을 적게 쓰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기술 공정으로 개편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를 적극 추진시켜 왔다.

이 방침과 교시에 따라 전체 근로자들은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와 소극성을 타파하고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하여 제품 단위당 전력 소비 기준을 저하시켰다.

흥남 비료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암모니아 생산 공정에 선진 기술을 도입하고 중크롬산을 주입하는 등으로 전해조의 욕전압을 저하시키는 한편 전류 효률과 가스 효률을 제고함으로써 암모니아 톤당 전력 소비 기준을 1959년에 비하여 95.2%로 저하시켰다. 또한 성진 제강소와 강선 제강소 일'군들은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제강 행정에 산소 취입법을 비롯한 새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강철 톤당 전력 소비 기준을 1959년에 비하여 68.5%로 저하시켰으며 부령 야금 공장에서는 규소철 생산에서 전력 소비 기준을 1959년에 비하여 94.2%로 저하시켰다.

전력 소비 기준의 저하
(단위 KWH/톤)

	비 률	
	1962/1959	1962/1957
암모니아	95.2	95
카바이드	83.5	84.1
전기로강	76.4	73.6
Fe—w	88.1	76
Fe—Si	94.2	—
전기 아연	71.6	—
전기연	59	48.2
전기동	98	87.6

이와 같이 제품 단위당 전력 소비 기준이 체계적으로 저하됨으로써 상기 8개 지표에서만도 1962년에는 1959년에 비하여 약 4억 키로왓트시 이상의 전력을 절약하였는바 이는 독로강 발전소 보다 더 큰 발전소를 거저 얻어낸 것으로 된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전력 소비 총 량중 기술 공정용 전력 소비와 동력용 전력 소비 간의 비중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전력 소비 총 량에 대한
용도별 구성(%)

	1949	1960	1961	1962
전력 소비 총 량중				
기술 공정용	73	47.5	45.7	44.6
동력용	25	49	51	52.4

이것은 기술 공정용 전력 소비에 편중된 우리 나라 전력 소비 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전기화를 더욱 촉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이 성과적으로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나라의 전기화가 촉진됨에 따라 로동의 전력 장비도도 가일층 제고되였다. 1962년에 공업 부문 종업원 1명당 전력 소비량은 전년에 비하여 103%, 1960년에 비하여서는 112.8%로 각각 장성되였다.

국가는 전력 공업의 발전을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선행시키기 위하여 현존 동력 기지를 가일층 공고히 하며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절약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전력 소비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력 공업 건설에 계속 많은 자금을 투하 하였다. 1962년에 전체 공업 건설 투자액의 14.6%에 해당한 국가 자금이 전력 공업 건설에 투하되였다.

이리하여 전력 공업 부문에서는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동시에 화력 발전소들의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24만 6천 키로 볼트 암페아 능력의 강계 청년 발전소, 40만 키로왓트의 운봉 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였으며 40만 키로왓트 능

력의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고 관개용 저수지와 강하천을 리용하여 수 많은 중소 규모 발전소들이 건설되였고 1만 키로볼트 암빼아의 능력을 가진 장진강 5호 발전소를 비롯하여 립원, 풍산, 생리 발전소 등 수 많은 발전소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발전소 건설과 함께 고압 송전선과 배전선 공사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1962년에 송전 선로의 총 긍장은 1960년에 비하여 102.1%로, 1956 년에 비하여서는 119.6%로 장성되였으며 배전 선로의 총 긍장은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1%와 177.1%로 각각 장성되였다.

변전 시설들도 정비 및 신설 확장 되였다. 1962년에 변전소 수는 1960년에 비하여 38 개소나 확장되였으며 변압기 용량은 117%로 장성되였다.

이와 같이 1962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현존 동력 기지가 가일층 정비 강화되고 새 조업 개시에 의한 발전 및 송전 능력이 새로 보충됨으로써 동력 기지가 가일층 공고화 되였다.

석탄 공업

1962년에 석탄 공업은 1,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강력한 연료 기지로서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새로운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석탄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해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매장량이 풍부하고 전망성이 큰 탄광들에 력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중소 규모 탄광 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는 1962 년에 전해에 비하여 근 110%에 달하는 자금을 투하하였다.

또한 70 여 대의 전차, 400 여대의 첸 콘베아를 비롯한 각종 탄광 기계 설비들을 공급하였으며 많은 기술자들을 보충함으로써 이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1962년 현재 석탄 공업 부문에서의 설비 총 마력수는 1956년에 비하여 255%로 장성하였으며 그 중 전차는 석탄 1,000 톤당 5.15대, 탄차는 톤당 0.57대, 유연탄광에서 채탄장당 첸 콘베아는 6대로 증가되였다.

기술자 대렬은 근 5,000명에 달하였다.

한편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2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과 대안 전기 공장 및 안주 탄광에 대한 현지 지도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의 교시를 받들고 새 환경에 적응하게 기업 관리 체계와 생산 지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석탄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게 하였다.

례년에 드문 긴 장마로 인한 불리한 조건이였으나 1962년의 석탄 생산량은 1961년에 비하여 112%로, 1956년에 비하여는 338%로 장성된 1,32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였다.

중소 규모의 탄광을 개발할 데 대한 방침에 따라 최근 년간에 중소 지방 공업 기업소들에서 석탄 생산이 급속히 장성되고 있는바 1962년도의 그 생산량은 전해에 비하여 135.6%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 석탄 총 생산량 중에서 중앙 공업 기업소들이 생산한 석탄 생산량의 비중은 82.9%, 지방 공업 기업소들에서 생산한 석탄 생산량의 비중은 17.1%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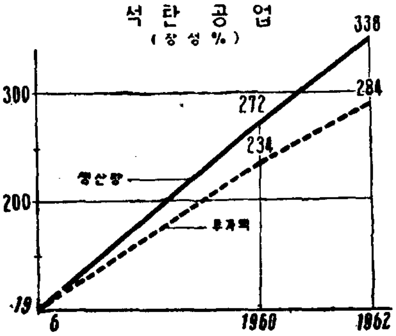
1962년에 석탄 공업은 해방 직후인 1946년 한해 동안에 생산한 석탄을 1개월 남짓한 동안에 생산해 내고 있으며 특히 인구 1인당 석탄 생산량은 1,171키로 그람에 달하고 있다.

석탄 생산의 계속적인 장성은 조선 로동당의 방침에 따라 주요 갱과 구역 단위에 력량을 집중하고 고속도 굴진 운동의 강화, 기본 굴진과 준비 굴진을 채탄에 선행시킴으로써 이루어 졌다.

1962년에 있어서도 각지 탄광들, 특히 안주, 룡동, 고원, 아오지, 고건원, 조양 탄광들과 신창 지구 종합 청년 탄광 등 대규모 탄광들에서 계속 주요 갱과 구역 단위들에 생산을 집중함으로써 석탄 증산에서 혁신적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집중적 생산 조직 정형

	기업소 수의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1956	1959	1962	1956	1959	1962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50만 톤 이상	—	18.4	26.6	—	48	52.5
25~50만 톤	21.1	23.8	36.6	31.1	30.8	35.5
10~25만 톤	33.3	28.9	23.3	48.2	17.2	9.9
10만 톤 이하	45.6	28.9	13.5	20.7	4	2.1



석탄 생산의 집중화를 위한 투쟁 행정을 통하여 신창 탄광을 비롯한 수 많은 탄광들이 100 만 톤 이상의 현대적인 대규모 탄광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아오지, 온성 탄광의 수직갱 건설이 촉진되였다.

또한 무연탄 부문에서는 분산된 룡동 갱들을 벨트 콘베아화한 사갱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운반 계통의 집중화가 진행 되였다.

석탄 공업 부문 로동자들은 석탄 증산의 기본고리인 굴진을 채탄에 선행시키기 위하여 줄기찬 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들은 전망이 크고 매장량이 많은 주요 탄광의 전차갱, 편도 올리굴들에서 고속도 굴진 대렬을 확대하고 선진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마구리 당 굴진 속도를 계속 높이였다.

1962년에 마구리 당 월 평균 굴진 속도는 1960년에 비하여 209.8%로, 1956년에 비하여 224.3%로 장성하였다.

갱도의 영구화 사업이 또한 적극 추진되였다.

갱도의 영구화를 위하여 석탄 공업 부문에서는 로천 부재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갱도 영구화용 블로크 생산을 확대하여 각 탄광 기계 공장들에서 가축성 철재 동발, 이동 철재 동발 등을 집중 생산하였다.

1962년에 아오지, 고건원, 학포, 고참 등 중요 유연 탄광을 비롯하여 각 탄광들에서 갱도 영구화가 적극 추진된 결과 1962년에 영구화된 갱도의 총 연장은 1956년에 비하여 13배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기본 갱도, 운반 계통, 채탄장들을 전망성 있게 꾸리는 동시에 갱내 운반 작업의 기계화와 채탄 및 굴진 막장에서 종합적 기계화가 활발히 전개되였다.

1962년 말 현재 기계화 수준에서 채탄장 운반 작업은 1956년의 11%로부터 56.2%로, 굴진 막장 작업은 1956년의 3%로부터 26.1%로, 갱내 운반 작업은 1956년의 14.4%로부터 74.5%로 각각 장성되였다.

탄광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2년에 현존 평양 탄광 기계 공장과 회령 탄광 기계 공장을 튼튼히 꾸려 그 능력을 제고 하였으며 특수 설비를 제외하고는 자체로 설비 부속을 생산할 수 있는 수리 기지를 조성하여 놓았고 또 대규모 탄광들을 중심으로 지역 별 수리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하였다.

1962년에 지구별로 진행된 석탄 공업 부문의 열성자 회의와 협의회를 계기로 각지 탄광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 혁신의 불'길을 더욱 높이면서 탄광의 지질 조건에 맞는 각종 선진 채탄 방법을 도입 일반화하였다.

무연탄 부문에서 현동 탄광 로동자들이 이 해 7월에 도입한 암석 장벽 침하식 채탄 방법은 종전의 경사 분층식 채탄 방법에 비하여 채취률을 9% 더 높이고 종업원 1 인당 석탄 생산량을 1.2배로 높이면서 갱목 소비량을 70%로 낮추게 하였다.

신창 지구 종합 탄광에서는 지질 조건을 고려하여 조선 인민군 창건 10 주년 기념 탄광에는 암석 장벽 침하식 채탄법을, 송남 청년 탄광에는 전면 단주식 채탄법을 전반적으로 도입 일반화하여 석탄 채취률을 90%로, 중요 채탄장당 월 평균 석탄 생산량을 1.3배 이상으로 높이였다.

유연탄 부문에서 가장 많이 도입되고 있는 장벽식 채탄법은 1962년 현재 선진 채탄법 도입 비중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연탄 부문에서는 붕괴식 채탄법 도입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채탄장의 기술 관리 사업과 그의 기계화 수준이 제고됨으로써 채탄장 부하률은 1956년에 비하여 유연탄광은 2.56배로, 무연 탄광은 2.69배로 장성하였다.

1962년에 용도별 수요에 적합하게 석탄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며 석탄의 종합적 리용을 위한 과학 연구 사업에서도 일련의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한편 석탄 절약을 위한 투쟁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여 막대한 량의 석탄을 절약하였다.

1962년에 석탄 공업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경제 지표들이 달성되였다.

전년에 비하여 굴진 개소당 월 평균 굴진 속도 (수평 굴진)에서 유연탄은 102%로, 무연탄은 101.1%로 장성되였으며 가행 탄층에 대한 채취률에서 유연탄은 79%, 무연탄은 76.3%에 달하였다.

1962년에 석탄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에 비하여 119%로 장성되였으며 원가는 전년도 평균 원가에 비하여 2.3% 저하되였다.

광 업

1962년에 광업 부문 앞에는 철광석을 비롯한 각종 흑색 금속 광물을 다량 생산하여 흑색 야금 공업의 생산을 정상화하며 금, 은, 동, 연, 아연, 등 유색 금속 광물 개발을 더욱 촉진 시킬 과업이 제기되였다.

또한 나라의 기계 제작 공업과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그 설비 제작에 필요한 특수 및 합금 원소 광물 생산을 확대하며 외화 획득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광물 생산량을 일층 제고할 전투적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광업 부문에서는 박토와 갱 건설을 앞세워 광산을 전망성 있게 개발하며 광산에 일부 남아 있는 손로동을 기계화하고 갱내외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며 정광 품위와 선광 실수률을 각방으로 제고하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조선 로동당과 정부에서는 광업 부문 일'군들의 사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고 막힌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주었으며 안주 탄광에 대한 김 일성 동지의 현지 교시 정신에 립각하여 광산의 말단 전투 단위인 갱을 강화하고 지도를 하부에 접근 시키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의 많은 부분을 광업 부문에 돌려 기존 광산들의 기술 장비를 개선하고 많은 새로운 광산들을 개발케 하였다.

1962년에는 특히 유색 금속 광산들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가 급격히 증대되였다.

국가 기본 건설 투자에 의하여 1962년에 광업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믿음직한 철광석 기지인 무산 광산의 19만 5천 톤 능력의 선광장 확장 공사, 대유동 광산의 수직갱 및 선광장 건설 공사, 룡운 광산의 선광장 건설 공사 등 많은 건설 대상들이 완공 되였다.

또한 1961년에 비하여 3만 여 메터 더 많은 탄광 굴진과 2만 6천 여메터 더 많은 채굴 준비 굴진 작업이 각각 수행되였으며 약 1만 메터의 현대적 갱도가 한해 동안에 새로 건설되였다.

무산 광산, 룡양 광산, 재령 광산을 비롯하여 로천 광산들에서의 박토량은 517만 5,000여 립방 메터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전년에 비하여 40% 이상의 장성으로 된다.

굴진 및 박토가 선행되고 채광 및 선광 능력이 제고됨과 함께 광물 증산을 위한 광부들의 로력적 열의가 고도로 앙양됨으로써 검덕 광산, 만덕 광산, 동방 광산, 덕현 광산을 비롯하여 대부분 광산들에서 국가 계획을 훌륭히 초과 실행하였다.

1962년에 광업 부문 공업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15배로, 1956년에 비하여 274%로 장성하였다.

중요 현물 생산 계획이 또한 성과 있게 실행됨으로써 광물 생산량이 현저히 장성되였다.

1962년에 광업 부문에서는 채굴 및 적재 운반 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그 결과 채광, 운광 및 선광 설비들이 현저히 보충 갱신됨으로써 이 부문의 기술 장비가 일층 정비 확장되였다.

1962년에 광산들에서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1961년에 비하여 갱내 채굴 막장 운반 작업에서 14%, 갱내의 운반 작업에서 8%가 각각 제고되였다.

광부들은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협동 밑에 1962년에 2,900 여건의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을 완성하여 생산에 도입하였다.

이것은 년간을 통하여 38만 7,000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였다.

창의 고안, 합리화 안이 광범히 도입된 결과 선광 부문의 조쇄, 중쇄 계통의 자동화, 갱내 펌프 및 콘베아의 원방 조종 등 기계화 자동화가 광범히 실현되였으며 이 부문의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들이 일층 갱신되였다.

특히 월 200~250메터의 굴진을 목표로 고속도 굴진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굴진공들은 천공, 발파, 적재 등 각 공정에 7~8건의 선진 기계 기술을 도입 일반화하여 개소 당 월 평균 굴진 속도를 전년에 비하여 3% 이상 더 높였으며 채광 부문 로동자들은 선진적인 련속 천공 종합 발파법 등 규격 채굴 방법을 대대적으로 도입 일반화하여 착암기 대당 락광량을 14%나 더 높였다.

선광 부문 일'군들은 조쇄, 중쇄, 마광 공정에서의 광석 처리량을 증대시키며 특히 정광 품위와 실수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62년에 선광 실수률에서 1961년 보다 중석은 4.2%, 린상 흑연은 8%, 류화철은 7.4% 정광 품위에서 중석은 2.2%, 자철광은 0.4% 각각 더 높아졌다.

설비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성 광산을 비롯한 많은 광산들에서 자체의 공무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예비 부속품 생산을 앞세웠으며 설비들을 계획적으로 예방 보수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 중요 광산 설비들의 력일 시간 리용률을 전년에 비하여 공기 압축기는 0.7%, 권양기는 2.3%, 엑쓰까와또르는 1.8%, 불도젤은 3.3% 각각 더 높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생산 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들을 갱신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과 함께 로동자 호상간, 로동자와 기술자들 간의 협조를 강화한 결과 광업 부문 로동자들의 기능 급수는 전년에 비하여 0.3급 더 올라갔다.

각지 광산 로동자들은 특히 로력과 자재, 자금을 덜 들이면서 광물을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한 결과 1962년에 전년보다 생산물의 단위당 원가를 현저히 저하시켰는데 례하면 동 생산에서만도 5.9%나 더 낮아졌다.

1962년에 지질 탐사 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이루어졌다. 지질 탐사 부문 일'군들은 1961년 지질 탐사 부문 일'군 협의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현존 광산들의 심부와 주변에 대한 탐사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또한 북부 내륙 지대를 비롯하여 광대한 처녀지 탐사를 진행하였으며 각종 축척의 지질도 작성 사업을 계속 활발히 추진시켰다. 탐사 사업에는 전문 탐사 일'군들을 도와 전국의 로동자, 협동 농장 농민, 학생 등 광범한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그 결과 1962년에 현존 광산들과 탄광들의 예비 매장량이 일층 증대되였으며 많은 개발 후보지들이 새로 탐사 확정되였다.

금속 공업

금속 공업은 1962년에 례년에 드문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몇해 전까지만도 년간 40만~50만 톤의 선철 및 립철을 생산하는 데 불과하던 이 부문에서는 1962년 한해 동안에 120만 톤 이상의 선철과 립철을 생산하였다. 강철 생산량은 예정대로 120만 톤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전년에 비하여 136%로 장성하였다.

조선 로동당은 1962년에 금속 공업 부문 앞에 방대한 전투 과업을 제시함에 있어서 생산 장성의 많은 비중을 설비 리용률의 제고와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예견하였다.

금속 공장들에서 야금로들의

리용률을 제고하며 새로운 높은 기술 지표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1962년에 한편에 있어서는 설비의 일상적인 점검과 예방 보수 사업을 강화하며 새로운 작업 방법을 부단히 도입함으로써 모든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하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부대 설비의 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이미 꾸려진 기본 설비들을 보충 완비하고 생산 공정의 일부 불합리성을 퇴치함으로써 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일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에서는 1962년에 많은 기본 건설 자금을 이 부문에 배당하였는바 특히 유색 금속 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의 2.7배에 달하였다.

국가 기본 건설 투자에 의하여 이 부문에서는 금속 공업 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성진 제강소의 년산 8만 톤 능력의 신중관 압연 직장, 강선 제강소의 3만 톤 능력의 강관 소재 압연 직장, 남포 제련소의 1만 2천 톤 능력의 유색 금속 압연 직장들이 신설되였으며 기타 많은 시설들의 확장 개건 공사가 진행되였다.

결과 제철 제강 부문의 부대 설비와 기술 장비가 한층 완비되고 새로운 흑색 및 유색 압연 직장들이 건설됨으로써 제철, 제강 능력에 상응하게 압연 능력이 제고되여 강관류와 유색 금속 압연 제품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였다.

특히 이 해에 당이 금속 공업 앞에 제기한 전투적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 결정적 담보로 된 것은 김 일성 동지의 이 부문에 대한 현지 지도와 그의 교시이다.

김 일성 동지는 1962년에 황해 제철소, 강선 제강소, 성진 제강소, 김책 제철소 등 주요 야금 기업소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철, 강재 증산을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걸린 문제들을 직접 풀어 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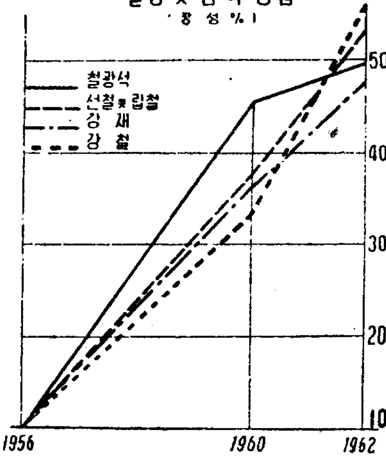
1962년 8월 김 일성 동지는 황해 제철소를 현지 지도하시고 성, 국들의 지도 사업을 개선하며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 그리고 당 위원회의 집체적 지도 기능을 제고하며 당 사업 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120일 전투》를 전개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받들고 강철 고지에서는 물론 6개 고지의 모든 전선에서 《120일 전투》가 줄기차게 전개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높은 생산적 앙양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1962년에 금속 공업 부문 로동자들은 전년에 비하여 28만 2천 톤의 선철 및 립철과 27만 5천 톤의 강철을 증산하는 혁신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2년에 선철 및 립철 생산 계획이 102.5%로 넘쳐 수행된 것을 비롯하여 이 부문의 중요 현물 생산 계획이 성과 있게 수행된 결과 금속 제품 생산량은 그 전년에 비하여 급속히 장성되였다.

금속 제품 생산량과 그 장성

	생 산 량 (단위--천 톤)	1962/1961	1962/1956
선철, 립철	1 213	130	525
강 철	1 050	136	553
강 재	633	118	477

철광 및 금속 공업



1962년에는 내산 내열성 강재를 비롯한 도합 44종의 강종과 55종의 규격 강재가 새로 생산되였으며 특히 2차 가공 제품 생산량이 급격히 제고되였다. 전년에 비하여 단접 강관은 153%, 인발 강관은 179%, 와이야 로프는 157%로 각각 그 생산량이 장성하였다. 1962년 금속 공업 총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19%로, 그중 흑색 금속 공업은 125%로 제고되였다.

이 해 생산 과제의 많은 비중을 설비 리용률 제고로서 해결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이 부문 로동자, 기술자, 지도일'군들은 대안의 사업 체계를 적극 도입하여 생산 준비, 설비의 예방 보수의 강화, 설비 관리 및 기술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흑색 및 유색 야금 설비의 리용률 제고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였다.

전년에 비하여 중요 야금 설비 및 압연 기대들의 력일 시간 리용률은 흑색 용광로에서 2%, 립철 회전로에서 6%, 대형 압연기에서 3%, 중형 압연기에서 9%, 분괴 압연기에서 3%, 박판 압연기에서 29%, 후판 압연기에서 8% 제고되였으며 유색 금속 부문의 설비 리용률도 현저히 개선되였다. 또한 이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 공정을 적극 기계화, 자동화하며 선진적인 기술 공정을 도입하기 위한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야금 부문의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들을 갱신하였다.

1962년에 그들은 3,670 여 건의 발명 및 창의 고안, 합리화안을 생산에 도입하였다. 철 콕스에 의한 제철법, 산소 취입법의 도입 범위는 더욱 확대되였으며 우리 나라 원료 조건에 적응한 2중 용해 방법과 반복 제련법 등 많은 선진적 작업 방법들이 새로 연구 도입되였다.

그 결과 흑색 용광로의 유효 용적당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8.2% 더 올라갔으며 전기로에서의 차지당 제강 시간은 7% 단

축되였다. 같은 기간에 평로의 로저 면적 평방 메터당 1주야 강철 생산량이 또한 7% 증가되였으며 압연기의 시간당 생산량은 대형 압연기에서 10%, 후판 압연기에서 30%, 중판 압연기에서 11% 제고되였다. 유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아연 종합 실수률은 1%, 니켈 종합 실수률은 6% 제고되였으며 아연 전해조당 하루 생산량은 104%로 장성되였다.

전면적 기술 혁신 운동과 함께 기술 기능 전습 사업이 활발히 전개된 결과 금속 공업 로동자들의 평균 기능 급수는 전년보다 0.4급 더 높아졌다.

금속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각종 원자재 소비 기준을 저하시키며 원가를 낮추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전개하였다. 그 결과 선철 톤당 철 콕스 소비량을 전년에 비하여 240 키로그람 저하시킨 것을 비롯해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1962년에 이 부문의 총 생산물 원가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되였으며 생산물의 단위당 원가도 전년보다 선철은 4.2%, 강철은 19.6%, 럽철은 7%, 박판은 1.2%, 후판은 20.4%, 전기 니켈은 19.2%, 전기 아연은 8.6%로 각각 낮아졌다.

그 결과 1962년에 금속 공업은 인민 경제의 골간으로 되는 중공업을 더욱 튼튼히 정비 보강하며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포함한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또한 금속 공업이 7개년 계획 말에 도달하여야 할 전망 과업을 실현함에 있어서 커다란 전진으로 된다.

기계 공업

중공업의 핵심인 우리 나라 기계 제작 공업은 기계 설비의 국내 수요를 기본상 자체로 충당하는 자립적 기간 공업으로 발전되였다.

과거에 극히 적은 설비의 부속품 마저도 생산할 수 없었던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오늘 3천 톤 프레스, 8메터 타닝반, 6메터 대형 호빙, 160 미리메터 대형 보링, 22만 볼트급 대형 변압기, 3천 톤급의 선박, 75 톤급의 대형 기중기, 75마력의 무한 궤도식 뜨락또르 등 최신 기술과 정밀성을 요하는 대형 정밀 기계 설비들을 훌륭히 생산해 내고 있다.

4 차 당 대회가 제시한 기술 혁명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천리마를 탄 기세로 발전하여 온 기계 공업은 1962년에도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 부문 일'군들은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의 과업을 해결하는 데서 결정적 해로 되는 1962년의 6개 고지 점령을 성과 있게 지원함으로써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계획을 넘쳐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62년에 기계 제작 공업 부문 앞에는 농촌 경리와 수산업의 기계화에 필요한 기계 설비들과 화학 설비 및 탄광 설비, 야금 설비들의 생산에 중심을 두면서 기계 설비들에 대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키며 그 부속품의 생산을 결정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현존 기계 공장들을 보충 완비하여 그 생산 면적과 설비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물 소재 생산에서 선진 작업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제관 단조 작업에서 프레스화, 형단조 비중을 높이며 기계 설비의 가공 및 조립에 흐름선, 자동선을 도입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하였다.

또한 현존 기계 공장들을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 체계에 망라하는 원칙에서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협동 생산을 강화하며 설비로부터 가공, 조립에 이르기까지 검사 제도를 강화하고 제품의 질을 제고하는 데 력량을 집중하였다.

1962년에 7개년 계획 수행의 관건으로 되는 기술 혁명의 촉진을 위하여 기계 제작 공업 부문을 더욱 정비 보강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였는바 공업 부문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총 투자액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1962년에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는 자동화 및 반 자동화된 최신형 설비를 갖춘 년산 2만 톤 능력의 평양 전선 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룡성 기계 공장의 대형 조기 직장을 비롯하여 북중 기계 공장의 1천 톤 프레스, 남포 통신 기계 공장의 조립 직장, 평양 전구 공장의 전구 직장 등 수 많은 공장, 직장들의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기계 공업 기지가 더욱 보강되였다.

기계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을 강화함으로써 드릴 생산의 자동선, 시린다 블로크 가공과 뜨락또르 조립의 흐름선을 비롯하여 수 많은 제품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안을 완성하였으며 6메터 만능 치절반, 160미리 메터 대형 보링 등 30 여종의 새 기계들을 비롯한 3,800 여대의 기계 설비들을 새로 제작 설치함으로써 기계 공업 부문의 기술 장비를 더욱 강화하였다.

천리마 대안 전기 공장을 비롯한 각 기계 공장들에서는 김 일성 수상의 교시를 받들고 대안의 사업 체계와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을 구현하여 생산 지도와 기업 관리 운영 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잠재하는 내부 예비를 남김 없이 탐구 동원함으로써 어렵고 방대한 국가 과제를 훨씬 앞당겨 완수 및 초과 완수하였다.

결과 1962년도에 기계 공업성적으로 공업 총 생산액 계획은 103%로 넘쳐 수행되였다.

1962년 기계 공업 부문 총 생산액은 1949년에 비하여 27배로, 1956년에 비하여 681%로, 1961년에 비하여 125%로 장성되였다.

1962년의 공업 총 생산액에서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방전 1944년의 1.6%로부터 1949년에는 8.1%, 1956년에는 17.3%, 1962년에는 23%로 체계적으로 장성되였다.

기계 제작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의 기계 설비들의 자급률은 1956년의 17.3%로부터 1960년에는 90.6%로, 1962년에는 92%로 제고되여 거의 모든 기계 설비들을 국내 생산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였다.

현대적 공장의 종합적 설비 생산에로 이행한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1962년 한 해 동안에 농촌 경리와 수산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2,500대 (천리마 28호)의 뜨락또르, 1,400 여 대의 벼 수확기, 1,500 여 대의 벼 종합 탈곡기, 1,100 여 대의 옥수수 탈곡기, 5만 3,000여 대의 논 제초기와 선박 등을 생산 공급하였으며 8,100 여 대의 착암기, 430 여 대의 공기 압축기, 2 천 여 대의 송풍기, 480여 대의 부선기, 근 4 천대의 감속기 등 수 많은 채취 공업 설비들을 생산 공급하였다.

또한 청진 화학 섬유 공장, 길주 팔프 공장과 본궁 가성 소다 공장 설비들, 그리고 각종 야금 설비들과 발전기, 수력 타빙 및 발전 설비들, 수천대의 공작 기계들과 각종 부속품들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여섯개 고지 점령과 기술 혁신을 위하여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1962년에 주요 기계 설비 제품의 년간 계획을 보일라는 108%로, 변압기는 118%로, 금속 절삭 공작 기계는 130%로 (그중 에쓰 유 50형 선반은 102%로, 볼반은 135%로), 부선기는 147%로, 착암기 및 뜨락또르는 각각 100%로, 공기 압축기는 157%로, 송풍기는 153%로, 휴갈 펌프는 119%로, 원심 분리기는 134%로, 감속기는 111%로 각각 완수 및 초과 완수하였다.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또한 기계 설비들의 예비 부속품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하여 부속품 생산에 력량을 집중한 결과 1962년에 부속품 생산량은 급속히 장성되였는데 그중 자동차 및 뜨락또르 부속품은 전년에 비하여 143%로, 탄광 및 광산 설비 부속품은 217%로, 야금 설비 부속품은 946%로, 선박 설비 부속품은 149%로, 공작 기계 부속품은 635%로 각각 높아졌다.

1962년에 기계 공업성적으로 금형 주조법, 조형에 의한 정밀 주조법, 압력 주조법, 원심 주조법 등 8,800 여 건의 창의 고안, 합리화안이 생산 공정에 도입되여 년 85만 5,000 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고 485 만 여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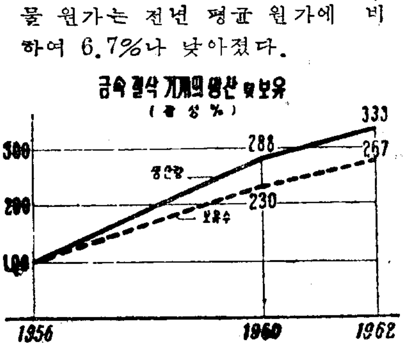
기계 공장들에서의 공작 기계의 총 력일 시간 폰드 리용률은 전해에 비하여 선반에서 약 1% 더 제고되였다.

주물 직장 평방메터 당 생산량은 1961년에 비하여 2%, 주강 실수률은 1% 각각 증가되였다.

특히 선진 바이트와 고속도 절삭 방법이 광범하게 도입되여 공작 기계 대당 생산량은 1962년에 전해에 비하여 1% 더 제고되였다.

1962년 기계 공업성의 총 상품 생산물 원가는 계획보다 훨씬 저하되였는데 특히 대비 상품 생산물 원가는 전년 평균 원가에 비하여 6.7%나 낮아졌다.

금속 절삭 기계의 생산 및 보유



화학 공업

과거 무기 화학 공업 밖에 없던 우리 나라에는 최근 년간에 유기 합성 화학 공업이 창설됨으로써 완전히 우리의 원료 원천에 립각하여 각종 화학 비료, 농약, 의약품은 물론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등 화학 공업의 모든 부문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축성되였다.

이에 기초하여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7개년 계획 (1961~1967년) 기간에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조성하며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화학 공업, 그 중에서도 유기 합성 공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1962년에도 화학 공업 부문에는 방대한 규모의 기본 건설 자금이 투하 되였다. 결과 5만톤 능력의 본궁 가성 소다 공장과 문평 제련소의 4만 5,000 톤 능력의 류산 직장, 년산 10만 톤 능력의 남포 제련소, 룡성 린비료 직장, 년산 1,500 톤의 수교 광산 농약 직장, 년산 750 톤 능력의 본궁 농약(디디티) 직장, 년산 3천톤 능력의 본궁 부다놀 직장, 년산 150 톤 능력의 청수 화학 공장 과산화 소다 직장, 년산 1천 톤 능력의 본궁 초산 에질 직장, 년산 300 톤 능력의 영안 화학 공장 페밤 직장 등 많은 공장과 직장들이 신설되였으며 년산 1만 8,000 톤 능력의 아오지 화학 공장 메타놀 계통이 복구되였으며 년산 4,500 톤 능력의 영안 화학 공장 포르마링 직장, 년산 5천 톤 능력의 스프와 2만 5천 톤의 인견사를 생산할 수 있는 청진 화학 섬유 공장들이 더욱 확장되였다.

이 외에도 황해 제철소와 김책 제철소의 화학 직장 건설을 비롯하여 수 많은 화학 시설 공사들이 진행되였으며 기존 화학 공업 기지들을 정비 보강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이리하여 유기 및 무기 합성 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화학 공업의 기본 원료 계통인 산 알카리 공업이 급속히 발전되였다.

생산 설비의 확장 및 그의 기술적 토대의 강화, 이 부문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로력 투쟁에 의하여 1962년도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12만 톤이나 더 많은 화학 비료를 생산하였으며 영농기 전으로 62만 2,000톤의 화학 비료와 많은 농약을 농촌에 공급함으로써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성과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각종 화학 섬유 생산량을 전년도의 195%로 장성시킴으로써 직물 고지 점령을 힘있게 지원하였다.

1962년에 화학 공업 제품 생산량을 일제 말기인 1944년과 대비하여 보면 화학 비료는 1.5배 그 중 질안 비료는 24배로, 가성소다는 2.8배로, 카바이드는 1.2배로 각각 장성되였으며 1961년도 생산 실적보다 화학 비료는 11만 8,000 톤, 가성 소다는 7,000 톤, 카바이드는 3만 8,000 여톤, 화학 섬유는 8,000 톤, 염화 비닐은 3,000톤, 비누는 9,000톤이나 더 생산되였다.

또한 각종 염료, 도료, 안료들과 시약류의 생산이 일층 증가되였다. 1962년에 의약품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37%로 장성되였고 그 품종이 확대되였으며 페니시린을 비롯한 항생소 의약품 생산이 현저히 장성되였다.

주요 화학 제품 생산량의 장성(%)

	1962/1946	1962/1949	1 962/1956	1962/1960
화학 비료	501	194	400	139
류 산	293	104	289	124
가성 소다	976	351	530	132
화학 섬유	—	—	—	127
콕 스	2 580 배	442	607	143
비 누	237	235	457	345
카 바 이 드	423	131	181	143

1962년에 디시안 디아미드 비산 칼슘 등 각종 농약과 페놀 수지제 성형분 및 뇨소 수지제 성형분 등 다양한 합성 수지 제품이 새로 생산되였다.

1962년에 화학 공업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24배로, 의약품 공업 생산액은 346배로 장성되였다. 1962년 현재 우리 나라 의약품 공업은 일제 말기인 1944년도 생산액을 불과 1개월 동안에 생산해 내고 있다.

화학 공업 부문 생산액의 장성 (%)

	1962/1946	1962/1949	1962/1953	1962/1956	1962/1960	1962/1961
화학 공업	24배	760	35배	819	183	143
의약품 공업	346배	33배	23배	12배	117	115

화학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1962년에 공업 총 생산액에서 화학 공업의 비중은 1956년의 4.7%로부터 7%로 제고되였으며 의약품 공업은 1.5%로부터 2.5%로 제고되였다. 많은 기계 설비들이 확장되고 생산 공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1962년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특히 2.8 비날론 공장, 청진 화학 섬유 공장, 흥남 비료 공장, 염화 비닐 공장, 염료 공장, 청수 및 영안 화학 공장들의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더욱 제고되였다.

기계화, 자동화 수준이 더욱 높아지고 선진 과학 기술의 연구 성과들이 생산에 도입됨으로써 1962년에 질화로 매당 시간당 생산량은 1956년에 비하여 138%로, 1960년에 비하여 105%로, 1961년에 비하여 102%로 제고되였으며 카바이드 전기로 대당 시간당 생산량은 1956년에 비하여 184%로, 전해조당 시간당 생산량은 1956년에 비하여 222%로, 1960년에 비하여 117%로, 1961년에 비하여 109%로 각각 제고되였다.

1962년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의 설비 리용률도 현저히 제고되였는바 질화로는 87.4%, 카바이드 전기로는 74.6%, 암모니야 합성탑은 93.1%였다.

1961년에 비하여 1962년에 주요 화학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류안 비료에서 1%, 질안 비료에서 4.9%, 염안 비료에서 14.6%, 염화비닐에서 69.7%, 암모니야에서 9.5%, 세탁비누에서 13.1% 저하되였다.

건재 공업

1962년에 건재 공업의 물질 기술적 장비가 일층 강화되였으며 각종 건재 및 전구류 생산이 더욱 장성되였다.

6개 고지 점령을 적극 지원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건재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는 1962년에 세멘트 공업 부문에 217만 5,000원, 부재 공업 부문에 279만 7,000원의 기본 건설 자금을 각각 투하하였다. 그리하여 이 해에 년간 3,600 톤의 류마 세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락랑 건재 공장 수직로, 년간 10만 8,000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석회로 (황북도), 년간 3,600 톤 능력의 룡원 광산 석회로, 년간 4,500톤 생산 능력의 소석회 공장 (황남도), 년간 1만 800 톤 생산 능력의 석회로 (함북도), 년간 1,200 톤 생산 능력의 구장 건재 공장이 각각 신설되였다. 또한 원산 블로크 공장을 비롯한 14개 공장에서 도합 27만

3,000 립방메터의 블로크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들이 신설 확장되였으며 평안북도 기와 공장을 비롯한 10개 공장에서 도합 300만 매의 기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새로 조성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 세멘트의 생산 능력은 1956년에 비하여 4배나 증가되였다.

특히 조립식 건설에로의 전면적인 이행과 관련하여 각종 부재 생산의 공업화를 위하여 블로크 공장들이 신설 확장되고 지방 건재 공장들이 새로 조직되였다. 결과에 그 생산 능력이 현저히 장성되였으며 부재 생산에서 공업화 비중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이에 따라 1962년에는 1960년 보다 35%나 더 많은 112만 5천 립방 메터의 각종 부재가 생산되였다.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재, 부석, 천연 스레트, 석비레 등 자원들과 석탄재와 광재들이 건재품 생산에 광범히 동원 리용되였다.

1962년에 건재 공업 총 생산액은 1961년에 비하여 117%로, 1956년에 비하여서는 514%로 장성되였으며 전쟁전 1949년에 비하면 18배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 건재 공업은 일제 말기인 1944년도 한해 동안에 생산하던 것을 불과 15일 간에 생산해 내였다.

주요 건재품 생산량의 장성

	1962/1946	1962/1956	1962/1960
세멘트	23배	398	104
석회	41배	425	144
벽돌	127배	…	…
기와	—	—	124
인조스레트	—	131	109
판유리	—	383	104

주요 건재 공장들의 1962년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정형은 다음과 같다.

기업소명	계획 수행률(%)
승호리 세멘트 공장	113
천내리 세멘트 공장	102
고원 석회 공장	101
청진 스레트 공장	104
강남 벽돌 공장	113
서천 벽돌 공장	113
박충 벽돌 공장	109
대성 요업 공장	111
성진 요업 공장	117
흥상 요업 공장	109
함흥 목재 가구 공장	107
길주 종합 목공장	102
길주 합판 공장	103
김책 대리석 공장	113
평양 건재 공장	107
평양 건설 기계 공장	113
함흥 홈관 공장	114
함흥 위생 자기 공장	116

1962년에 건재 공업 부문의 기계화 수준도 현저히 높아졌다. 건재 부문에서 토천 채굴의 종합적 기계화 비중은 94%, 세멘트 부문의 구내 운반 작업의 기계화 비중은 95%로서 거의 전부 기계화되였으며 건재 부문에서 사람 작업의 38%가 기계화되였다.

건재 공업 부문에서 기술 장비의 강화, 설비에 대한 예방 보수 체계의 확립과 예비 부속품 생산의 선행, 선진 기술과 선진 작업 방법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기술 경제적 기준 지표들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1962년에 세멘트 소성로 대당 시간당 생산량은 1956년에 비하여 1.3배로, 1961년에 비하여 11배로 장성 되였으며, 설비 리용률에 있어서 1962년에 유리 인상기는 1956년의 55%로부터 75%로, 세멘트 소성로는 72%로부터 77%로, 벽돌 소성로는 87%로부터 88%로 각각 제고되였다.

1962년에 건재 공업 부문 근로자들은 928건에 달하는 창의 고안을 생산에 도입하여 년간적으로 7만 4천 공수의 로력과 91만 원의 막대한 자금을 절약하였다.

1962년에 건재품의 단위당 원가는 1961년에 비하여 일반 건재품은 13%, 세멘트는 2% (그중 스라크 세멘트는 4%, 특수 세멘트는 3%), 벽 타일은 26% 각각 저하되였다.

경 공 업

1962년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을 병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계속 견지하면서 2억 5,000만 메터 직물 고지를 10일 간이나 앞당겨 성과적으로 점령하였으며 인민 소비품 생산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의 중심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이 해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는 경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방대하고 영예로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부문에 방대한 국가 자금을 투하하는 동시에 생산 지도 체계를 확립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및 조직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특히 이해 방직 공업 부문 로동자들은 직물 2억 5,000만 메터 생산에 들어서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를 받았다.

1962년 1월 6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진행된 평양 방직 공장 초급당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성, 관리국들의 조직 지도 수준을 높이며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그리고 경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과 공장 초급당 위원회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지도와 교시에 고무된 경공업 부문 일'군들은 사업 체계를 대안의 사업 체계로 개편하고 청산리 방법에 립각하여 생산 기술 지도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였다.

이 해 국가는 경공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장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공업 부문에 투하된 국가 투자액의 36.6%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출 하였다.

특히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하여 방직 공업 부문에는 전해에 비하여 2배로 증가된 국가 자금이 지출되였다.

지출된 방대한 국가 자금에 의하여 1962년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년간 3만톤 능력의 청진 화학 섬유 공장 및 길주 팔프 공장의 신설 확장 공사가 끝났으며 또한 현대적 장비를 갖춘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대규모적인 혜산 제지 공장, 혜산 방직 공장 등 신설 공사가 추진되였다.

또한 평양 방직 기계 부속품 공장, 평양 형타 공장을 비롯한 새로운 중앙 경공업 기계 기지들이 신설되고 현존 공무 동력 직장들에 최신식 공작 기계와 기타 막대한 기계 설비들이 증설 되였다.

특히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 이후 지방 공업 부문에는 수 많은 기계 설비들이 도입되여 기계화 수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자체의 원료 기지가 확장되였으며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급속히 제고되였다.

이 해에 지방 공업 부문에서는 46개의 새로운 공장들이 신설되고 2만 4,000 립방 메터의 장 저장 땅크가 새로 확장되였으며 3,300 여 대의 려직기, 1만 4,000 추의 정방기, 271대의 착유기 등 수많은 기계 설비들이 보강되였다.

한편 전국 경공업 공장에서는 5,700 여 정보의 원료 기지를 새로 조성하였다.

경공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가일층의 강화와 함께 이 부문 로동자, 기술자들의 증산 투쟁에 의하여 이해 경공업 총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현저히 장성되였다.

경공업 위원회 중앙 공업 부문 총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24.9%로, 지방 공업은 122.3%로 각각 제고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 우리 나라 방직 공업은 1956년에 비하여 480%로, 문화 용품 및 일용품 공업은 11배로,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은 581%로 각각 장성되였다.

지방 공업의 물질 기술적 장비가 일층 강화되고 2만 1,000 여 톤의 각종 섬유 원료, 5만 4,000 여 톤의 제지 원료, 8,000 여 톤의 유지 원료, 2만 6,000 여 톤의 산과실류를 비롯한 각종 지방 원료 원천들이 적극 동원 리용 되였다. 지방 원료 기지가 강화되고 보다 많은 지방 원료 원천들이 적극 동원 리용됨으로써 지방 공업 제품 총 생산량 중 지방 원료 원천에 의한 생산량이 또한 증대되였다.

이 해에 경공업 부문에서는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간의 합작을 강화하고 군중적인 기술 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생산의 기계화 및 합리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많은 로력을 절약하고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1962년에 경공업 부문에서 제기된 기술 혁신안은 1만 5,709건이며 그중 생산에 도입된 건수는 1만 2,300여건에 달하였다.

결과 절약된 로력 공수는 262만 9,000여 공수, 국가에 준 리익은 1,080만 4,000원에 달하였다.

1962년에 경공업 위원회적으로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에 비하여 109% 이상 그중 중앙 공업은 109.2%, 지방 공업은 109.3%로 각각 제고되였다.

총 원가는 3.3% 저하되였는바 계획에 비하여 그중 중앙 공업 총 원가는 2.3%, 지방 공업 총 원가는 3.8%가 각각 저하되였다.

【방직 및 피복 공업】 1962년에 방직 공업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직물 2억 5,000만 메터 고지를 12월 21일에 승리적으로 점령하고 년말까지 600만 메터를 더 생산하였다.

이리하여 질 좋은 옷감을 인민들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당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62년의 직물 총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6,800만 메터나 더 증가 되였으며 1944년에 비하여서는 실로 186배로 장성되였다.

그중 전년에 비하여 캬바진은 1.5배, 포플린은 19.3배, 견직물은 1.8배, 모직물은 2.1배로 각각 장성되였다.

같은 기간에 내의류는 1.4배, 외투류는 1.6배, 모자류는 1.2배, 양말은 103%로 증가되였다.

직물 생산량의 장성(%)

	1962/1944	1962/1956	1962/1961
직물류	186배	321	137
그중 면및 스프 직물	100배	336	100.2
견직물	145배	16배	175
모직물	—	15배	212

직물 총 생산량 중에서 지방 공업 방직 공장들은 7,639만 7,000 메터를 생산하였는데 이는 전년에 비하여 1.7배의 장성으로 된다. 그중 면 및 스프 직물은 3.4배, 견직물은 2.2배, 모직물은 2.6배, 내의류는 1.2배(그중 겨울 내의류는 1.7배), 양말류는 1.5배로 장성되였다. 같은 기간에 외투류는 1.6배, 학생복은 1.3배, 솜 동복은 2.3배에 달하였다.

특히 1962년에 직물 고지 점령에서 가장 긴장된 섬유 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년 8만 톤 능력의 길주 팔프 공장과 년 3만 톤 능력의 청진 화학 섬유 공장을 신설 확장하고 2.8 비날론 공장의 기술 공정을 보다 새로운 과학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부단히 개선하였다. 결과 1962년에 화학 섬유 생산량은 전해에 비하여 195%로, 그중 인견사 생산량은 2.5배로, 스프 생산량은 1.4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화학 섬유의 생산이 증대된 결

과 1962년에 국내 섬유 원료 가운데서 화학 섬유의 비중은 40%에 달하였다.

섬유 원료 기지의 조성과 함께 현존 방직 공장들의 기술적 개선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였다.

1962년에 대규모의 중앙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는 불과 4~5개월 동안에 전반적인 생산 공정을 재 검토하고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도합 20여만추에 달하는 방대한 정방기들을 신설 또는 이설하여 일부 불합리한 생산 공정들을 제거하고 공정을 흐름식으로 개편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는 현존 방직 공장들에 해방전 전체 방적 설비 대수의 근 8배에 달하는 10만 6천추 이상의 방추를 비롯하여 1만 1천추의 연사기, 130 여대의 직기와 기타 소면기, 련조기, 합사기 등을 더 설치하였다.

이 해에 지방 공업 방직 공장들에는 1만 4천추 이상의 정방기와 2만 1,700 여추의 화방기 그리고 아마제섬기, 련조기, 소면기 등 수천 대의 최신식 방직 설비들이 더 설치되였다.

각 방직 공장들에서는 또한 3개월 분의 예비 부속품을 예견성 있게 확보하고 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 보수를 철저히 하면서 기술 관리 사업을 개선한 결과 방직 설비와 직포 설비들의 대당 생산량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1962년에 전년에 비하여 정방기 추당 시간 당 생산량은 6% 장성하였으며 직기 대당 시간당 평균 생산량은 면 력직기에서나 견력직기에서나 스프 방사기들에서 다 같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특히 새로운 기업 관리·운영 체계에 의하여 로동자와 기술자들의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기술 혁신 운동이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됨으로써 중앙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는 년간 3만 5천 여 공수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자동 직기 위장기를 비롯한 1천 여 건의 기술 혁신안들이 완성되여 생산에 도입되였다.

이 해에 지방 공업 방직 공장들에서는 종전의 것보다 8배 이상의 능률을 내는 고속도 태환기를 창안한 것을 비롯하여 연사, 호부, 정경, 경통 작업의 기계화가 급속히 촉진 되였으며 2,000 여대의 수직기가 력직기로 교체되였다. 이 결과 지방 공업 방직 공장들의 기계화 수준은 1962년 말 현재 62.7%에 달하였다.

특히 날로 장성하는 직물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그들의 기호에 알맞는 고급 직물의 생산량을 급격히 증가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계속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직물의 질적 구성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각 방직 공장들에서는 화학 섬유의 다량 생산에 기초하여 질좋은 혼방 직물 생산에 계속 력량을 집중하면서 고번수 방사 설비와 연사 설비들을 더욱 증가시켜 직물 총량 중에서 연사 직물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년에 비하여 11%나 더 높였다.

그리고 6,000만 메터의 능력을 가진 신의주 방직 공장, 염색 직장 건설을 촉진시키고 도 단위로 소형 염색 공장들을 설치함으로써 직물 후처리 설비 능력을 더욱 높이였다.

결과 1962년에 가공 직물의 생산량은 총 직물 생산량의 77.5%에 달하였다.

특히 주민들의 의복 문제를 공업적 방법으로 해결하며 맵시 있고 몸매에 맞게 의복 제도를 개명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피복 공업이 또한 현저히 발전하였다.

1962년 중앙과 지방에 피복 연구소들이 신설 확장되고 피복 가공 공업의 기계화, 자동화가 광범히 실현 되였다. 이와함께 122개의 지방 공업 방직 공장들에 피복 공장을 병설하여 의복 생산을 공업화함으로써 562만 벌의 학생복과 아동복, 224만 벌의 외투와 기타 막대한 량의 기성복과 작업복 등을 생산 공급하였다.

【식료 공업】 식료 공업 부문에서는 최근 시기에 기름, 두부, 장, 채소, 수산물 가공 제품을 비롯한 부식물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킴으로써 날로 장성하는 부식물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7개년 계획 기간에 식료 가공품 생산을 3.2배, 그중 육류 가공품은 4.8배, 과실 가공품은 12배, 청량 음료는 9배로 장성시키기 위하여 식료 공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장비의 강화에 많은 력량이 돌려졌다.

1962년에 8개의 옥수수 가공 공장, 27개의 식료품 가공 공장, 6개의 제유 공장들이 신설되였다. 또한 기존 식료 공장들에 2만 4,000 립방 메터의 장 저장 땅크들이 신설 되였으며 평양 맥주 공장, 평양 랭천 사이다 공장을 비롯한 수 많은 식료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가 개선 확장되였다.

이와함께 현존 식료 원료 기지들이 더욱 더 실속 있게 꾸려졌으며 새로운 원료 기지들이 조성되였다.

특히 간장, 된장, 두부 공장과 옥수수를 비롯한 량곡의 가공 시설이 확장됨으로써 농민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수요를 공업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였다.

1962년에 간장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12%로 증가된 11만 5,900 키로리터, 된장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11%로 장성된 13만 4,000톤에 달하였으며 두부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80%로 장성하였다.

식용유에 대한 주민들의 장성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62년에 전국 각지에서는 유지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옥수수 눈, 쌀겨, 아마씨를 비롯한 각종

유지 원료들을 광범히 탐구 리용하였다. 한편 제유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침출식 착유기와 스크류 착유기 그리고 새로운 콩 연화, 압연 건조 설비들을 더 장비하고 선진 착유 방법을 광범히 도입함으로써 기름 실수률을 현저히 제고시켰다. 결과 식물성유 생산량은 1962년에 1961년에 비하여 124%로, 그중 콩기름은 105%로 증가되였다.

또한 채소, 과실, 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자철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식료 공장 들의 랭동 및 건조 능력을 확장하는 한편 소형 통조림 및 병조림 직장을 광범히 조직 운영함으로써 1962년에 전년에 비하여 145%로 장성된 각종 통조림을 생산하였다. 그중 어류 통조림 생산량은 104%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각도의 중형 옥수수 가공 공장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야생 과실을 비롯한 각종 과실류가 합리적으로 리용됨으로써 당과류, 과자류, 청량 음료, 술, 옥수수 가공 제품 생산량이 현저히 장성 되였으며 그 품종도 확대되였다. 경공업 위원회의 식료 공장들에서만 하여도 전년에 비하여 1.6배로 장성된 당과류와 100.4%로 장성된 과자류가 생산되였다.

1962년에 '지방 공업 식료 공장들에서는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 결정에 립각하여 군내의 원료, 로력 수요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공장의 규모를 설정하고 매개 식료 공장들에서 자체의 원료 기지를 가꾸었다. 한편 모든 식료 공장들에서 우유, 육류, 채소류, 과자, 사탕, 과실즙 그리고 사이다, 술 등을 가공 할 수 있는 직장들을 장 생산 직장들과 분리하여 신설 확장하고 탈피, 절단, 교반, 압착, 운반 공정을 비롯한 전반적 생산 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를 추진시켰다.

식료 공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1962년에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 총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17배로, 1956년에 비하여 581%로, 1961년에 비해서 132%로 장성되였다.

【일용품 공업】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는 중앙 공업과 지방 공업의 일용품 생산 수단들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종이와 각종 합성 수지 제품, 철제품, 목제품, 초물 등 인민 생활에 요구되는 다양한 일용품을 더 많이 생산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시켜 날로 장성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고 있다.

1962년에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는 신의주 화학 섬유 공장, 신의주 팔프 공장, 길주 팔프 공장 그리고 평양 일용품 종합 공장 등 팔프 및 제지 공장들과 일용품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가 더욱 개선되고 년산 2만 톤 능력의 혜산 제지 공장, 강계 제지 공장을 비롯한 5개의 지방 제지 공장과 기타 일용품 공장들이 신설되였다.

1962년에 문방 용품 및 일용품 공업 총 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11배, 전년에 비해서는 120%로 증가되였다.

특히 문화 혁명의 요구에 상응하게 신문지, 크라프트지, 판지, 가공지의 증산에 많은 력량이 계속 집중되였다. 이와 함께 갈 밭을 새로 개간하고 팔프 용재림을 조성하는 한편 지방 제지 원료 원천을 적극 탐구 동원하며 채목 팔프의 생산량을 점차 증가시켜 종이 생산에서 그 리용 비중을 일층 제고하였다.

1962년에 종이 생산량은 1956년에 비하여는 2.5배, 1961년에 비해서는 109%로 장성되였다.

한편 각지 수지 제품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가 더욱 완비되고 각종 합성 수지 공업이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연질 및 경질 수지 일용품의 생산량이 현저히 증대되였다. 1962년에 각종 신발류 생산량은 2,371만 켤레에 달하였는바 이는 1956년의 135%, 1961년의 119%에 해당된다. 특히 1962년에 학용품과 아동 용품 생산에 수많은 수지 원료들이 돌려지고 모든 일용품 공장들에서 아동 용품 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전체 아동들에게 신발, 비닐 비옷, 가방류 그리고 노트, 연필, 만년필, 샤프를 비롯한 일체 학용품과 완구류, 악기 및 체육 기자재들을 보다 충족히 공급하였다.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는 또한 중공업 부문 기계 공장들에서의 철제품 생산이 더욱 장성되고 각 공장, 기업소 간의 협동 생산 규률이 강화된 결과 전년에 비하여 재봉기 생산량은 119%, 자전거는 125%, 시계는 189%로 증가되였다.

1962년에 도자기 및 유리 공업 부문에서는 지질 탐사 사업을 선행시켜 새로운 원료 원천 탐구 사업을 광범히 진행하였으며 생산 공정의 실험 분석 사업을 일층 강화 하였다. 또한 생산 공정에 선진 기술을 광범히 도입하였다. 결과에 1962년에 중앙 공업 도자기 및 유리 공업 총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09%로 장성하였다.

특히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는 최근 수년 내에 제품의 품종을 2만종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이 계속 줄기차게 전개되였다. 1962년에 일용품의 품종은 전년에 비하여 2,000 여 종이 더 증가되였으며 그 질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한편 1962년에 지방 일용품 공업 부문에서는 일용품의 업종이 정비되고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가 더욱 발전되였으며 모체 공장 관리 운영 체계가 더욱 강화되였다. 특히 매개 시, 군들에서는 1개 이상의 가구 공장들을 꾸리며 로기 공장, 초물 제품 생산 설비들을 신설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협동 단체 공업

1962년에 협동 단체 공업 부문

에서는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부단히 개선하면서 지방 원료 원천에 튼튼히 립각하여 소비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그의 질을 제고 하는데 력량을 돌렸다.

특히 국가에서는 경공업 위원회와 상업성 및 수산성과 각 도의 협동 단체 공업 지도부의 지도 력량을 우수한 일'군들로 보충 강화하고 생산 활동에서 제기되는 제반 기술적 문제들을 적극 해결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원료, 자재, 설비들을 주어 생산량을 계통적으로 높이도록 도와 주었다.

경공업 위원회 및 각 도 지방 산업 총국 산하의 협동 단체 공업 기업소들에서는 1962년에 자체의 공동 축적 폰드에 의하여 공장의 규모와 설비, 로력을 보충 보강하였는바 그중 일부 생산 협동 조합에서는 조합 가입 당시에 제출된 조합원들의 개인 재산을 전부 보상하고 그들의 총의에 의하여 국영 기업소에 편입되였다.

1962년 말 현재 협동 단체 공업 기업소 수는 556개에 달하였다. 그중 생산 협동 조합수는 385개, 수산 협동 조합 수는 171개이다. 협동 단체 공업 부문에 종사하는 조합원 수는 1962년에 6만 6천여 명에 달하였다.

특히 협동 단체 공업 기업소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부단한 갱신과 함께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및 고급 기능공들의 대렬도 현저히 장성되였다.

1962년 말 현재 협동 단체 공업 기업소들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102%에 달하는 도합 57[illegible]명의 기술자, 전문가들이 일하였다.

국영 공업 기업소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체의 기술 력량의 동원에 의하여 능률 높은 방사기, 편직기, 직기, 각종 식료품 가공 설비 및 어선, 어구들이 제작 설치되고 생산 공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생산량이 계통적으로 증가되였다.

1962년에 협동 단체 공업 부문 근로자들은 공업 총 생산 액 계획을 104%로, 그중 생산 협동 조합들에서는 110%로 초과 실행하였다.

1962년 협동 단체 공업 총 생산액은 1956년에 비하여 6.4배로, 1960년에 비하여 149%로, 전년에 비하면 117%로 장성하였다.

또한 1962년도 생산 협동 조합 공업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01%로 증가하였다.

특히 1962년에 협동 단체 공업 기업소들에서는 각 도 지방 산업 총국 공업 총생산액의 25%에 달하는 소비품을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공고한 지방 원료 기지를 더욱 튼튼히 조성하며 폐기, 폐잔물을 광범히 동원 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1962년에 지방 공업 총 생산액에서 지방 원료 원천에 의한 생산액 비중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그중 평양시는 65.3%, 평남도는 31%, 평북도는 43.5%, 자강도는 47.2%, 황남도는 33.5%, 황북도는 39.5%, 강원도는 48.8%, 함남도는 45.7%, 함북도는 41%, 량강도는 48.9%, 개성시는 76.2%를 차지하였다.

림 업

과거 원목 생산과 제재를 위주로 하던 우리 나라 림업은 최근 년간에 현대적인 목재 가공 및 목재 화학 공업을 겸비한 튼튼한 자립적 공업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1962년에 림업 부문 앞에 나선 과업은 판개 공사용 목재, 탱상모판 용재, 갱목, 건축 용재, 송탄유, 건구, 가구 제품들을 생산 보장함으로써 6개 고지 점령을 적극 지원하는 데 있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림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가일층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하여졌다. 특히 1962년 8월 17일과 9월 15일에 림업 부문 앞에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현실에 적응하게 성의 지도 체계를 개편하고 이 부문의 기계화와 목재 화학 공업 발전에 필요한 림철 관리국, 자동차 사업소, 기계 수리 기지 그리고 성 직속 림업 과학 위원회들을 설치하는 한편 우수한 기술자들을 양성 또는 파견하였다.

1962년에 림업 부문에서는 새로운 벌목 지구와 류벌 시설들이 확장 공사와 길주 합판 공장을 비롯한 목재 가공 공장과 목재 화학 공업 시설을 정비 확장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각지 림산 사업소들에서는 산판 작업을 집중화하고 벌구를 줄이여 로력과 설비들을 집중적으로 리용하는 동시에 순환식 채벌 방법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자기 앞에 제기된 년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였다. 1962년 8월 28일 현재로 년간 류벌 계획을 101%로 완수하고 년말까지에는 년간 생산 계획을 119%로 초과 완수한 덕천 림산 사업소를 비롯하여 대관 림산 사업소는 117%, 장진 림산 사업소는 114%, 심양 림산 사업소는 111%, 연사 림산 사업소는 119%, 강계 림산 사업소는 105%, 부전 림산 사업소는 109%, 풍서 림산 사업소는 115%, 남중 림산 사업소는 109%, 무산 제재 공장은 114%, 만포 제재 공장은 101%, 유평 제재 공장은 105%로 각각 자기의 년간 계획을 빛나게 초과 완수하였다.

1962년 림업 공업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2배로 장성되였다.

이리하여 이해 원목 총 생산량은 일제 말기인 1944년에 비하여 1.4배로, 제재는 1.5배로 각각 장성되였다.

1962년에 벌목과 제재에서 실수

률을 높이며 목재의 종합적 리용을 위한 투쟁이 강화된 결과 전년에 비하여 원목 실수률은 5.2%, 조재 실수률은 1.2% 제고되였다.

이 해에 량강도, 함북도, 자강도 등 주요 림업 지구에 기계 수리 기지가 조직되였으며 6천톤 프레스, 300톤급의 랭압 프레스, 섬유 선별기 등 많은 기계 설비들을 제작 리용함으로써 생산의 기계화를 촉진시켰다.

1962년에 림업 부문의 많은 공장들이 종합적 기계화로 넘어갔으며 특히 목재 가공 공장들에서는 점차 자동화에로 이행하고 있다. 원목 생산에서는 채벌로부터 최종 운재까지의 생산 공정이 하나의 기계화 선으로 이루어졌다.

1962년에 채벌 작업의 기계화 비중은 1961년의 31%로부터 50%로, 중간 운재 작업의 기계화는 같은 기간에 31%로부터 42%로 제고되였다.

1962년도 로동 생산 능률 계획은 림업성적으로 103%로 초과 수행되였으며 1961년 실적보다 5% 더 제고되였다. 이 해에 691건의 창의 고안이 생산 공정에 도입된 결과 년간적으로 11만 9천 공수의 로력과 32만 4천 원의 자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수 산 업

조선 로동당은 1962년에 수산 부문 앞에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한편 과학적 어로 체계를 확립하고 심해 및 원해 어업과 연해 어업을 배합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수산물 80만 톤 고지를 점령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제시하고 이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전 당적 전 인민적 관심을 집중하였다.

당 중앙 위원회는 1962년 2월 (12~14일)에 전국 수산 부문 열성자 대회를 소집하고 수산 부문에서 조성된 새 환경에 적응하게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를 구현하여 80만톤 수산물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였다. 또한 해양 조건과 어군의 회유 상태의 변동으로 춘하기 어로 계획 수행에서 일시적 긴장성이 조성되였을 때 당은 수산부문에서 《60일 전투》를 전개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년간 수산물 생산 계획 수행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동기 어로전을 앞두고 전체 수산 부문 일'군들에게 정확한 어로 전투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여 주었다.

또한 국가에서는 수산 부문 일'군들의 영예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어부절(매년 3월 22일)과 《공훈 어부 칭호》를 제정(1962년 5월 22일 정령)하였다.

이와 함께 어로 로동자들의 임금을 평균 23%나 높이였으며 로동 보호 물자 공급 기준을 개정하여 더 많은 물자를 공급하는 동시에 전반적인 로동 보호 물자 공급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고무 공장, 피복 공장들을 수산 부문에 이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2년에 국가에서는 수산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수산업을 현대적 과학 기술의 토대 우에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0년에 비하여 350%로 장성된 막대한 자금을 투하하였다.

1962년에 수산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현저히 정비 강화되였다.

조선소들과 선박 수리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가 더욱 보충 정비됨으로써 선박 건조와 수리에서 급속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선박 건조 부문 로동자들은 현대적 기계 설비들과 최신 어로 탐색 및 통신 수단들로 장비되고 문화 후생 시설을 갖춘 300~500 톤 급의 트랄선을 비롯한 만능선, 전착선, 2척 기선 저예망선 등 각종 중 소형 철조 어선들을 건조하여 공급하였다.

결과 1962년 말 현재 선박 보유 척수는 전년에 비하여 128.6%로, 그중 기관선은 138.2%로 장성되였다.

특히 어군 탐지기, 무선 통신 수단들이 더 많은 선박들에 설치되여 과학적이며 기동적인 어로 생산 지휘를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였다.

1962년에 기계화된 어선 수가 전년에 비하여 123%로 장성된 결과 그물 치기, 그물 걷기, 줄 사리기 등 어로 작업의 기계화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또한 1962년에 수산 부문에서는 318건의 창의 고안이 생산에 도입되고 어로 및 수산물 가공에 수많은 선진 기술이 도입되였다.

1962년에 선박 수리 기지가 일층 정비 강화되고 예비 부속품과 예비 기관이 상시적으로 준비된 결과 선박 수리 일수는 전년에 비하여 평균 4일이 단축되였다.

조선 로동당은 수산업의 중요 생산 수단인 어망, 로프를 비롯한 각종 어구들과 어로 및 가공 기계들을 생산하는 수산 부문 자체의 공업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커다란 주의를 돌렸다. 1962년에 제망, 로프, 고무, 종합 기계 등 설비 및 어구 자재 생산 공장들이 일층 정비 강화되여 설비 및 어구 자재에 대한 장성하는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게 되였다. 1962년에 수산성에서의 어망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10%로 장성되였으며 각종 어로 생산 수단들이 많이 생산되였다.

우리 나라 수산업에서 지도적 력량이며 튼튼한 수산 기지로 되고 있는 국영 수산업은 1962년말 현재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수백 개의 어선대를 가진 35개의 수산 사업소들과 20개의 천해 양식 사업소, 수십 개의 양어장을 가

저고 있다.

국영 수산업과 함께 수산 협동 조합이 현저히 장성되였다.

수산 협동 조합 수는 1962년에 전년에 비하여 114.8%로 장성되였으며 그의 선박 보유 척수는 같은 기간에 136.7%로 장성되였다.

국가에서는 수산업을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산 부문에 수 많은 기술 인재들을 양성 배치하였는바 1962년 말 현재 수산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수는 1960년에 비하여 146.5%로, 1961년에 비하여 132.5%로 장성되였다.

수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산 부문의 종업원 수도 장성되여 1962년 말 현재 수산성 공업 부문 재적 종업원 수는 전년에 비하여 125.3%로, 수산 협동 조합원 수는 107.5%로 각각 장성되였다.

김 일성 동지의 부름에 따라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바다에 진출한 결과 1962년말 현재 어로 일'군들 중 청장년의 비중은 86%에 달하였다.

1962년에 수산 부문에서는 수산물 80만톤 고지의 성과적 점령을 위하여 과학적인 어로 체계를 확립하고 다각적이며 적극적인 어로전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였다.

여기에 따라 중요 어장에 현지 지휘부를 설치하고 유일적인 계획에 의하여 탐색선들을 직접 틀어 쥐고 어군의 회유 상태를 일상적으로 료해 장악하였으며 어로 조직에서는 중요한 어구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동시에 2~3종의 어로를 진행하였다.

특히 명태, 도루묵 등 어로에서 다각적이며 적극적인 어로전을 전개함으로써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1962년에 동 서해에서는 중소 어업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적은 자재와 자금으로 큰 어업에 못지 않게 많은 물'고기를 생산했다.

1962년에 중소 어업에 의한 어획고는 전년에 비하여 156%로 급격히 장성되였고 총 어류 생산량에서 50%를 차지하였다.

1962년에 원양 어업이 보다 발전하였는바 원양 어로 선단은 1961년에 첫 길을 개척한 경험에 기초하여 3차에 걸쳐 조국으로부터 6천여리나 떨어진 대평양 서북부의 공해 어장에까지 나가서 적극적인 어로전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 원양 어업에 의한 어획고는 전년에 비하여 6배로 급속히 장성되였으며 우리 나라 원양 어업의 광활한 발전 전망을 열어 놓았다.

선박의 기계화와 선진 어로 방법의 광범한 도입, 선진 어구들의 보장으로 인하여 1962년에 어구 전당 어획량은 전년에 비하여 뜨랄 어업에서 118%, 심해 기선 저예망 어업에서 114%, 대형 기선 저예망 어업에서 139%, 2척 기선 저예망 어업에서 189%로 각각 장성되였다.

중요 선박들의 척당 생산에 있어서도 뜨랄선은 115.6%로, 저예망선과 정착선은 134%로, 자망선은 230%로, 서해 2척 기선 저예망선은 211.7%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에 출어 일수는 139%로 높아졌으며 300일 이상 출어한 선박 수는 223%로 장성되였다.

담수 양어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1962년에 수산성에서 업지고기 확보 계획은 102%로 초과 수행되였으며 새끼 고기 방류 계획은 138.8%로 초과 수행되였다.

수산성 국영 양어장들에서는 전년보다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며 협동 농장 양어장들에서 물'고기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32%로 장성되였다.

천해 양식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1962년에 곤포 채묘 투석 계획은 123.5%로, 미역 채묘 투석 계획은 133%로, 미역 바위 닦기 계획은 112.7%로, 김 떼식 계획은 101%로 각각 초과 수행되였다.

1962년에 수산 부문 로동자들은 수산물 80만톤 고지를 기한을 앞당겨 12월 15일에 승리적으로 점령하였으며 년말까지에는 전년보다 25만톤이나 더 많은 84만톤의 수산물을 생산하였다. 중요 지표별 생산에 있어서 물'고기는 146.5%, 패류는 184%, 해초류는 168%로 장성되였다.

수산물 생산량의 장성 (%)

	1960	1961	1962
수산물	100	127	181

어로 로동자 1인당 어획고는 전년에 비하여 139.7%의 높은 장성을 가져왔다.

1962년 수산 부문 공업 총 생산액은 1946년에 비하여 21배로, 1956년에 비하여 287%로, 1961년에 비하여 124%로 장성되였다.

수산 부문 주요 기업소 별 1962년 공업 총 생산액 계획 수행률

기업소명	계획 수행률
가진 수산 사업소	115
서호 〃	107
퇴조 〃	103
전진 〃	120
양화 〃	118
신창 〃	107
차호 〃	105
단천 〃	121
원산 〃	111
문천 〃	115
청진 〃	101
와우도 〃	104
신포 통조림 공장	107

주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하여 랭동 시설들이 더 많이 신설 확장됨으로써 1962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랭동품 생산량은 103%로, 그중 기계 랭동품은 107%로 각각 장성되였다.

농 업

1962년에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되였고 농업 생산에 대한 기업적 지도가 보장됨으로써

협동 경리 제도가 공고화되고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가일층 강화되였다.

1961년 12월 김 일성 동지는 농촌 경리 분야에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게 군 단위로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발기하시고 평남도 숙천군에서 직접 그 조직 사업을 지도 하시였다.

이에 기초하여 채택된 내각 결정 제157호(1961년 12월 22일)에 의하여 군 인민 위원회로부터 농업 지도 기능을 분리하여 협동 농장을 기업적 방법으로 지도하는 전문적인 농업 지도 기관인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창설되였다.

그리고 도에는 도내 농업 생산을 책임적으로 지도하는 농촌 경리 위원회가, 중앙에는 농업 기술 발전 대책의 연구, 현행 계획 실행의 감독, 농업 전망 계획에 대한 의견 제기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농업 위원회가 각각 조직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으로부터 군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 농업 지도 체계가 확립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 대한 국가적 지도에서 혁명적 변혁을 일으킨 력사적 조치로서 농촌 경리를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광활한 길을 열어 놓았다.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는 창설된지 불과 1년 동안에 이미 거대한 우월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나라 농촌 경리 발전과 협동 농장 농민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전변을 가져오고 있다.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959년 12월 확대 전원 회의 후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서도 중공업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1962년에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해 농촌 경리 부문에는 2,500여대의 뜨락또르, 1,400 여대의 벼 수확기, 1,500 여 대의 벼 종합 탈곡기, 1.100 대의 옥수수 탈곡기, 5만 3천여대의 논 제초기들을 비롯한 수 많은 선진 농기계 및 농기구들이 공급되였다. 특히 농촌 경리 기계화의 거점인 농기계 작업소가 27 개소나 새로 설치되였다.

이리하여 1962년에 전야 작업에 참가한 뜨락또르 대 수는 1만 5,700대 (15마력 환산)에 달하였으며 1962년 말 현재 경지 100정보 당 뜨락또르(15마력 환산)대수는 0.78 대였다. 또한 동력용 수확기는 1961년에 비하여 194%로, 뜨락또르용 중경 제초기는 121%로, 뜨락또르용 뿌라우는 132%로 장성하였다.

농기계 작업소 및 뜨락또르 대수

	단위	1953	1956	1960	1962
농기계 작업소	개소	15	48	89	144
뜨락또르 대수(15 마력 환산)	대	764	2 561	12 500	15 692
그중 농기계 작업소	〃	500	2 072	8 882	12 879
총작업 면적 (연경 환산)	천정보	127	677	9 869	9 862
총 경지 면적 중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률(춘경)	%	2.6	10.5	36	46
경지 100 정보당 뜨락또르대수(15마력 환산)	대	0.038	0.13	0.65	0.78

1962년에 작업반을 중대, 소대로 개편한 전국 각지 농기계 작업소들에서는 이 해에 기대에 대한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하고 그 수리 사업을 개선하였으며 뜨락또르 운전수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제고하였다. 결과 뜨락또르의 가동률은 전년에 비하여 4%나 제고되였다.

이에 따라 1962년에 뜨락또르에 의한 총 작업량은 전년에 비하여 135%, 그중 기경은 118%로, 정지는 113%로, 파종은 124%로, 중경 제초는 133%로, 추수는 230%로, 수송은 163%로 각각 제고되였다.

이해에 뜨락또르 운전수들의 창의로 뜨락또르에 의한 옥수수 밭과 논'벼의 중경 제초 작업 및 그의 수확 그리고 살초제 살포 작업이 실시되였다.

1962년에 수리화에서는 이미 달성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관개 건설과 치산 치수 사업을 계속 추진시키고 현존 관개 시설을 더 잘 리용하는 데 심중한 주의가 돌려졌다.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1천리의 수로, 40리가 넘는 23개의 굴을 비롯하여 1천 500 여 개의 각종 구조물을 설치한 황남도 청단 관개 제 1계단 공사와 평남도 기양 관개 확장 공사를 비롯한 대소 관개 공사들이 완공된 결과 관개 면적은 1961년에 비하여 3만 정보가 더 확장되였다.

동시에 5천 여 정미의 저수량을 가지는 3개의 대 저수지와 수천 리의 수로, 방대한 구축물 건설을 예견하는 평북도 압록강 지구 관개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의 전야를 조밀한 그물과 같이 뒤덮고 있는 관개 수로의 총 연장은 7만 여리에 달하



고 있다.

1962년에는 또한 순화강, 대동강, 청천강, 룡흥강, 길주 남대천 등의 하천 정리 및 제방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고 이밖에 670 개의 양수장, 360 여 개의 보가 새로 설치되였다.

1962년에 농촌 경리의 전기화에서도 큰 전진이 있었다.

우리 나라 전력 공업의 발전에 따라 전력에 의한 농촌 건설 및 농산 작업의 범위가 확대되였으며 그 작업량도 현저히 증가되였다.

1961년 6월말 현재 전체 농촌 리 중에서 전기가 들어간 리의 비중은 1958년의 67%로부터 92.1%로, 전체 농호 수 중에서 전등을 사용하는 농호 수의 비중은 49%로부터 62%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농촌 경리의 화학화가 또한 급속히 추진되였다.

이 해에 77만 9,000 톤의 화학 비료가 생산됨으로써 1962 시비 년도에는 전년에 비하여 13%나 더 많은 화학 비료가 포전들에 살포되였다.

그리하여 경지 정보당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전년에 비하여 총체적으로는 113%로 장성된 281 키로그람, 그중 논은 104%로 장성된 400 키로그람, 밭은 245 키로 그람에 각각 달하였다.

화학 비료 시비량의 장성

	1949	1956	1960	1962
시비 총량	100	83	118	218
1정보당 시비량	100	86	122	215

특히 1962년에 10만 정보의 면적에 각종 살초제가 살포되였다.

그리하여 국영 연안 농장, 평안남도 강서, 숙천군을 비롯한 각지 농목장 및 협동 농장들에서 살초제를 뿌리지 않은 논밭에 비하여 살초제를 뿌린 논 밭에서는 김매기 로력을 3분의 1이나 절약하고도 단위당 수확고는 10~15%나 더 높았다.

1962년에 국영 경리에는 전년에 비해 10개소가 증설된 182 개소의 국영 농목장들과 27개소가 증설된 144 개소의 농기계 작업소들이 있었다. 특히 내각 결정 제 157호 (1961년 12월)에 의하여 새로 조직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들은 군내의 농기계 작업소, 농기계 공장, 관개 관리소, 자재 공급소, 가축 방역소 등을 이관받아 그들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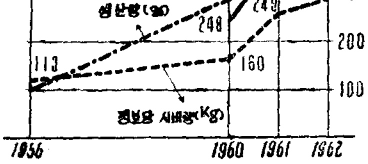
국영 농업 경리의 발전

—	1949	1956	1960	1961	1962
국영 농목장(개소)	37	188	169	172	182
그중 농업 위원회 직속 농목장	37	49	39	41	31
농촌 경리 위원회 직속 농목장	—	139	130	131	151
농기계 작업소 개소	—	48	89	117	144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강화와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확립은 농업 생산력을 강력히 추동하였다. 그리하여 1962 년에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혹심한 가물과 3개월 이상 계속된 장마, 4차에 걸친 대홍수와 태풍, 병해충 등 혹심한 자연 재해를 이겨내고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였으며 과수, 잠업, 축산, 공예 및 유지 작물 생산에서도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알곡 500만 톤 고지의 점령은 나라의 식량 문제를 더욱 원만히

화악 비료생산량 및 시비량



해결하며 농촌 경리에서 보다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농업에서 해마다 높고 안정한 수확을 계속 거두고 있는 이 거대한 성과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기본 로선을 튼튼히 틀어 쥐고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를 기본 내용으로하는 농촌 기술 혁명을 강력히 추진시켜 온 조선 로동당 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모든 사업에 정치 사업을 선행시키고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시킴으로써 전체 협동 농장 농민들의 생산 열의를 고도로 발양시키게 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이 가져다준 빛나는 결실이다.

농 산

1962년에 알곡 증산을 위하여 각지 농촌들에서는 있는 땅을 더 잘 다루기 위한 토지 개량 사업과 그의 비옥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군중적 운동으로 광범히 진행되였다.

토지 개량을 위하여 전년 보다 47만 톤 더 많은 83만 톤의 소석회, 28만 톤 더 많은 149만 톤의 카바이드재와 석탄재가 산성화된 땅에 뿌려졌다. 결과 토지의 비옥도는 현저히 제고되였다.

토지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 전작과 맥류 후작 및 간혼작 그리고 목화, 담배, 고구마 밭 전작이 광범히 도입되였다.

1962년도 농작물 파종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알곡은 101%, 그중 논'벼는 104%, 옥수수는 102%, 콩은 111%, 그리고 채소는 104%, 아마는 106%, 담배는 110%, 유지 작물은 165%로 각각 증가되였다. 다수확 작물의 재배 면적을 계속 확장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전년에 비해 논'벼의 이앙 면적은 2만 여 정보, 발벼 재배 면적은 4,500 여 정보, 옥수수 파

종 면적은 2만 여 정보가 각각 더 증가되였다.

특히 1962년에 그 어느 때 보다도 광범히 도입된 발벼 재배에서의 고귀한 경험과 높은 성과들은 앞으로 발벼 재배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 놓았다. 이 해에 농산 부문에서는 새로 창설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기술적 지도로 말미암아 선진 영농 방법이 더욱 광범히 도입되였고 농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 해에 룡성 1 호 벼 종자를 비롯한 옥수수의 1 대 교잡종 등 지대, 토질, 기후 조건에 적합한 우량 종자들이 심어졌으며 기계화에 적응한 경종법이 도입되였다.

이와 함께 종자에 대한 각종 세균 비료의 접종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였는바 그 면적은 1961년의 30 여 만 정보로부터 1962년에는 70 여 만 정보로 급격히 증가되였다. 또한 논 면적의 52%에 랭상모가 도입되였고 목화 영양단지 가식법이 전면적으로 실시되였다.

토지 비옥도의 제고, 기경에서 새로운 삼경 체계의 확립, 다수확 작물의 재배 면적의 확장, 파종 및 이앙의 적기 보장, 전면적인 토양 조사에 근거한 과학적 시비 체계의 확립, 새로운 물 관리 체계의 확립, 선진 영농 방법의 광범한 도입 등에 기초하여 1962년에 농산물의 단위 당 수확고는 현저한 장성을 가져왔다.

실례로 평양시 승호 구역 리현 협동 농장에서는 새로 푼 105 정보의 논에서만도 정당 평균 6 톤의 벼를 수확하였으며 숙천군 칠리 협동 농장에서는 800 정보의 논에서 전년 보다 정당 1 톤 더 많은 5.5톤, 전 경지 면적의 92%가 논인 평북도 룡천군 전진 협동 농장에서는 1960년에 비해 1톤 더 많은 정당 평균 6 톤, 최고 8 톤의 벼를 거두었다.

황남도 신천군 새날 협동 농장에서는 처음으로 발벼 농사를 지어 옥수수 농사를 할 때 보다 1 톤이나 더 많은 3 톤의 발벼를 수확함으로써 발벼가 다수확 작물임을 실증하였다.

이리하여 1962년에 알곡 생산량은 일제 시기 최고 수확량의 2 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로써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할 데 대한 전투적 과업은 영예롭게 수행되였다. 1962년에는 또한 알곡 생산에서 만이 아니라 채소, 공예 및 유지 작물 생산에서도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과 수 업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는 7개년 계획 기간에 산 경사지를 개간하여 새로 25만 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함으로써 과수 면적을 35 만 정보로 확장하며 결과 면적을 급속히 증대시켜 1967년에 가서는 50 만 톤의 과실을 생산하여 주민들에게 사철 다양한 과실을 공급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1961년 4월에 있은 북청 회의 이후 해마다 과수원 조성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여 온 각지 농촌에서는 4 차 당 대회가 제시한 전망 과업에 더욱 고무되면서 경사지, 무림목지, 방목지, 다박솔밭, 잡관목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수 적지 개간 사업에 보다 큰 력량을 경주하였다.

이리하여 1962년 한해 동안에 만도 6 천 여 정보의 과수원이 새로 조성되였으며 과수 럼목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104%로, 그중 사과는 102%로, 배는 112%로, 복숭아는 108%로 각각 확장되였다.

또한 과수 유목원에 대한 비배 관리 사업이 개선되여 과수 결과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107%로, 그중 복숭아 결과 면적은 130%로 확장되였다.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과수원이 계통적으로 확장됨과 함께 과수의 수종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과수원에 대한 비배 관리가 과학 기술적으로 보장됨으로써 1962년에 과실 총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7배, 그중 사과는 169%, 배는 140%, 복숭아와 포도는 각각 200%로 장성되였다.

축 산 업

협동 농장들에서는 공동 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농장원들의 부업 축산업을 병행하여 발전시킬 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1962년에는 주로 종축을 확보하고 사료 기지를 더 조성하며 축사를 설치하는 등 축산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보다 튼튼히 꾸리는 데 주력하였다.

이해에 종축 개량 사업의 믿음직한 거점인 국가 종축장과 축산 시험 목장 및 국영 농목장 종축 작업반들에서는 협동 농장들에 돼지 13만 3,000 마리, 양 1만 2,500 여 마리, 토끼 52만 2,000 여 마리를 비롯한 각종 우량 종축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종축의 질적 구성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게 하였다. 결과에 매개 시, 군들에 조직되여 있는 종축 생산 전문 협동 농장들의 종축 토대가 튼튼히 닦아졌다.

공동 축산의 종축 토대에 의거하여 협동 농장원들의 개인 축산을 발전시키는 데서도 큰 성과가 달성되였다.

구역적으로 농호 당 평균 돼지 3.4 마리, 토끼 36 마리씩 길러낸 평양시 승호 구역을 비롯하여 많은 시, 군들과 협동 농장들에서는 돼지 두 마리, 토끼 15~30 마리 이상 기르기 운동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1962년에 축산업 발전에서 선차적 의의를 가지는 공고한 사료 기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계속 꾸준히 진행되였다. 각지 협동 농장들에서는 칡산, 아까시아산, 싸

려산, 달맞이꽃 발 등을 조성하고 각종 거친 사료들의 원천을 더욱 확대하며 사료의 화학화를 실현하여 거친 사료의 리용 범위를 적극 확대하는데 힘썼다.

또한 축사 시설과 사료 분쇄 시설, 각종 축산 작업의 기계화를 비롯한 축산업의 물질적 토대도 계속 강화되였다.

1963년에 육류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101%, 우유 생산량은 107%, 란류 생산량은 110%, 양털 생산량은 108%, 꿀 생산량은 118%로 각각 장성되였다.

잠 업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에서는 잠업 부문 앞에 산 경사지를 개간하여 새로 4만 정보의 뽕밭을 조성함으로써 뽕밭 면적을 10만 정보에 달하도록 하며 뽕나무의 비배 관리를 개선하여 정당 수엽량과 산견량을 더 높이는 것과 함께 작잠림과 피마주 재배 면적을 확장하고 선진적 사육 방법을 광범히 도입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적지를 계속 구하면서 각지에서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뽕밭 면적과 작잠 사육 면적을 보다 늘구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결과 1962년에 뽕밭 면적만 해도 4천여 정보가 더 늘어났다.

각지 협동 농장들의 잠업 작업반 또는 분조들에서는 뽕밭 비배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그의 정당 수엽량을 높이는 한편 가잠에서 합사육 및 가지뽕 사육, 작잠에서 수삽식 사육 등 선진적 사육 방법들을 광범히 도입하였다.

1962년에는 협동 농장들에서뿐만 아니라 함흥시, 신의주시, 덕천읍을 비롯한 각지 도시 및 로동자 지구들에서 가정 부인들에 의한 가잠 및 피마잠 사육이 또한 활발히 전개되였다.

결과 전년에 비하여 1962년에 가잠 한장당 생산량은 103%로, 잠견 총 생산량은 103%(그중 가잠 생산량은 115%)로 장성되였다.

산림 경영

1962년에 총 16만 정보의 산림에 식수 사업이 진행되였으며 12만 정보의 경제림이 새로 조성되였다. 이 경제림 중에서 섬유 및 제지림은 6만 5, 900 여 정보, 유지림은 5만 3, 700 여 정보이다. 특히 경제림 조성 사업은 각 기관, 기업소, 협동 농장, 학교 등에 의하여 전 군중적 운동으로 진행되였다.

양묘 생산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특히 양묘 생산 분야에서는 평야 지대의 비옥한 포전에 설치되여 있는 묘포전들을 산 속으로 점차 옮기는 사업이 시작되였다. 결과 적지 않은 알곡 파종 면적을 얻어 내였다.

1962년에 양묘 생산 부문 일'군들은 1960년도 실적보다 1억 1,508만 7,000여 그루나 더 많은 4억 1, 157만 2, 000 여 그루의 각종 묘목을 생산 공급하였다.

묘목 생산량의 장성

	1958	1960	1962
묘포 면적 (정보)	522.9	927.2	1 304
성묘 생산 (천본)	309 891	296 485	411 572

치산 치수를 위한 사방, 야계 공사가 또한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1962년에 4차에 걸친 대홍수 속에서도 수 천 정보의 농토를 보호하였다.

림상을 질적으로 개선하며 나무의 성장을 촉진하며 단위당 생산성을 일층 제고하기 위한 산림 관리 사업도 광범히 진행되였다.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 정신에 립각하여 산의 종합적 리용률을 일층 제고하기 위한 군중적 투쟁이 전개된 결과 림목 종자를 비롯하여 산과실류, 산채류, 버섯류, 약초류, 수지 및 유지류 등의 산림 부산물 원천이 현저히 증대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채취량도 증가되였다.

1962년에 4만 5,480 여 톤의 산림 부산물이 채취되였다.

식수 조림 동태

	단위	1956	1958	1960	1962
식수 조림 면적	(정보)	52 451	85 748	158 846	160 000
조림 본수	(천본)	257 998	375 639	472 987	442 134

식수 조림 중 경제림 및 산파실림 조성 동태
(단위=면적은 정보, 본수는 천본)

	1960	1961	1962
경제림			
총 조성 면적	37 328	68 919	120 000
총 식수 본수	122 299	235 938	327 512
그중			
섬유 및 제지림 면적	15 685	45 601	65 912
식수 본수	80 344	195 245	234 650
유지림 면적	21 643	23 318	53 785
식수 본수	41 955	40 693	92 862
산파실림 면적	25 178	12 166	7 400
식수 본수	15 794	7 789	5 931

운 수

1962년에 교통 운수 부문에서는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2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하여 운수 수단의 기술적 장비를 보다 강화하고 그의

리용률을 제고하며 《리 만성 운동》, 《김 득찬 운동》을 강화하여 제도와 규률을 확립함으로써 급속히 증대되는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수송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1962년에 전년에 비하여 철도 화물 순환은 100.4%, 철도 화물 수송량은 107%, 자동차 화물 순환은 113%, 자동차 화물 수송량은 119%, 선박 화물 순환은 125%, 선박 화물 수송량은 103%로 장성되였다.

운수 형태별 화물 순환 및 수송량의 장성

	1956	1960	1962
화물 순환			
철 도	100	212	231
자동차	100	428	488
하천 및 해상	100	456	672
화물 수송량			
철 도	100	211	239
자동차	100	958	975
하천 및 해상	100	306	353

운수 형태별 화물 순환 비중

	1956	1960	1962
화물 순환	100	100	100
철 도	96.0	92.7	92.1
자동차	2.9	5.6	5.9
하천 및 해상	0.7	1.4	1.9
기 타	0.4	0.3	0.1

【철도 운수】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2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철도 운수 부문에서 1962년에 증대된 수송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철도의 전기화를 추진시키며 측선들을 증설하며 협궤를 광궤로 교체하는 동시에 운수 수단의 리용을 개선하고 수송 조직을 더욱 합리화하여 철도 운수의 통과 능력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교시에 따라 철도 운수 부문에서 철도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 전개된 결과 1962년에 철도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공고화되였다.

1962년에 철도 전기화 공사가 계속 추진되여 42 키로메터에 달하는 김책—단천 간의 철도가 전기화되였다.

1962년에 33키로메터에 달하는 은파—신천 간의 협궤가 광궤로 교체되였으며 청진—라진 간의 철도 신설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척되였다.

1962년에 철도 공장들에서 전기 기관차와 화차의 생산이 강화되였다.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 로동자들은 《붉은기》호 전기 기관차를 전년 보다 더 많이 생산해 냄으로써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 전기 기관차 대수는 전년에 비하여 119%로 증가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 말 현재 철도 운수 부문의 기관차 총 대수는 전년에 비하여 104%로, 화차의 총 수는 115%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철도 운수 부문 일'군들은 철도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현존 운수 수단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였다.

운전 부문 일'군들은 검수 보수 사업을 강화하여 기관차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선진적인 기관차 운영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고 규률과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1962년에 기관차의 실동률을 전년보다 1.6% 더 높이였다.

화차 1량당 평균 적재 능력도 현저히 제고되였는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60톤급 화차의 도입과 적재 방법의 개선에 의하여 1962년의 화차 적재 화중은 1956년에 비하여 124%로 제고되였다.

화차 회귀 일수의 단축, 화차 적재 중량의 증가에 의하여 화차 1량당 년간 평균 화물 수송량은 1956년에 비하여 1962년에는 127%로 장성되였다.

철도 운수의 기술 장비가 강화되고 륜전 기재의 리용이 개선된 결과 철도 화물 수송량이 장성되였다. 1962년에 전년 보다 철도 화물 순환은 100.4%로, 화물 수송량은 107%로 각각 장성되였다.

철도 화물 순환 및 수송량의 장성(%)

	1962/1946	1962/1956	1962/1961
화물 순환	15배	231	100.4
화물 수송량	13배	239	107

특히 1962년에 철도 운수 부문에서는 수송이 더욱 합리적으로 조직되고 여섯 개 고지 점령과 관련한 화물 수송에 력량이 집중된 결과 석탄, 광석, 흑색 및 유색 금속, 세멘트 및 기타 중요 화물들의 수송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중요 제품 화물 수송량의 장성률 (1956=100)

	1960	1961	1962
석탄	232	252	280
광석	344	412	459
흑색 및 유색 금속	211	230	271
세멘트	358	353	360

【자동차 운수】 1962년에 자동차 운수 부문에서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자동차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계속 전개되였다.

1962년에 자동차의 수송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 및 교량의 복구 사업이 추진되여 67개소의 도로 및 교량이 복구되였다.

또한 자동차가 많이 달리는 구간의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되여 평양시 주변 (14만 4천 평방메터의 도로 포장)을 비롯한 많은 구간의 도로가 포장되였다.

7개년 계획 기간에 화물 자동차 대수를 1.9배로 장성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의하여 1962년에 자동차 운수 부문에 2천여 대의 자동차가 생산 공급되였다.

1962년 말 현재 자동차 대수는 전년에 비하여 117%로 장성되였다.

자동차 대수의 장성
(1956=100)

	1960	1961	1962
자동차 총계	196	230	269
화물 자동차	199	231	278
뻐스	387	468	542

1962년에 자동차 운수 부문에는 2교대제에 의한 수송 제도와 련결차 운행을 보다 강화하였으며 자동차의 선진 운영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고 자동차의 수송 조직을 보다 합리화하여 자동차의 공차 주행을 적극 방지하였다. 그리하여 전년에 비하여 화물 자동차의 적차 주행률은 2% 더 높아졌다.

1962년에 자동차 운수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보다 강화되고 자동차의 리용률이 보다 높아진 결과 전년에 비하여 자동차 화물 수송량은 119%로, 자동차 화물 순환은 113%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자동차에 의한 려객 수송도 한층 개선되였다.

특히 평양시에서는 무궤도 전차의 개통과 함께 1962년에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무궤도 전차가 운영되였다.

자동차의 려객 수송의 장성
(1956=100)

	1960	1961	1962
려객 수송 인원	373	433	502
려객 순환	321	364	430

【수상 운수】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는 철도 운수의 긴장성을 풀며 인민 경제의 화물 수송을 더욱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7개년 계획 기간에 수상 운수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과업을 제시하였다.

7개년 계획의 과업에 따라 수상 운수 부문에서는 1962년에 우리 나라 동서 해안의 항만 부두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며 수송선을 건조하고 선박의 리용률을 높여 수송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해상 운수 부문에서 흥남항을 비롯한 동서 해안의 중요 항만 부두 시설들이 보다 정비되였으며 각종 선박들이 건조되여 그의 수송 능력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한편 선박 운행이 개선되고 상하선 작업의 기계화가 추진되여 선박의 가동률은 전년보다 1962년에 2% 더 제고되였다.

또한 해상 운수에서 철도와의 련대 수송을 확대하기 위하여 1962년에 라진—흥남, 라진—청진 간에서 해상 떼에 의한 원목 수송이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전년보다 1962년에 선박 화물 수송량은 103%로 장성되였다.

선박 화물 순환 및 수송량의 장성(%)

	1962 / 1946	1962 / 1956	1962 / 1961
선박 화물 수송량	12배	353	103
선박 화물 순환	839	672	125

1962년에 선박에 의한 려객 수송도 장성되였는바 1956년을 100으로 하여 1960년에는 199%로 1961년에는 245%로, 1962년에는 246%로 장성되였다.

체 신

1962년에 체신 부문에서는 증가되는 산업 통신 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존 선로들을 정비하고 적극 다중화하며 군—리 간의 직통 전화망을 확장하며 방송국들의 출력을 증대하고 유선 방송 시설을 계속 확장하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전신 전화 통신망의 기술 수준은 현저히 개선 강화되였다.

이해 이 부문 일'군들은 기술 혁신 운동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2,398건의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을 제기하였으며 그중 159건을 직접 생산 공정에 도입함으로써 전신 전화 통신의 기술 수준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 96만 4,000 원의 리익을 주었으며 8만 5,000 공수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하였다.

6개 고지 점령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체신 부문 일'군들의 헌신적인 로력 투쟁에 의하여 1962년도 체신 총 생산액 계획은 110.4%로 초과 수행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하면 118.1%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체신 시설의 장성 (1956=100)

	1960	1961	1962
우편국 수	158	191	168
시외 전신 전화 총연장	174	195	203
시내 전화 교환기 능력	160	17.1	172
전화 가입구 수	193	220	223
무선 방송 출력	185	229	355
유선 방송 출력	14배	16배	16배

우편 통신의 장성
(156=100)

	1960	1961	1952
통상 우편 접수	161	184	202
소포 우편 접수	412	560	598
우편 송금 접수	260	278	303
정기 간행물 취급	142	132	139
전보 접수	166	220	125
시외 전화 접수	135	159	198

【우편 통신】 1962년에 우편 통신 부문에서는 34 개소의 우편국이 신설되였고 20여 개소의 우편국이 조절 배치되였다. 또한 34 개소의 무집배 우편국이 집배 우편국으로 개편되였다. 기동 수단에 의한 집배 및 체송이 강화된 결과 1962년에 로력의 증가 없이도 전년보다 110%로 장성된 통신 우편물, 106%로 장성된 소포 우편물, 182%로 장성된 우편 송금 사업이 원만히 수행되였다.

1962년에 총 66종에 달하는 8,100만 매의 우표가 출판되여 현업에 공급되였다.

【유선 통신】 최근 년간 유선 통신 부문에서는 날로 장성하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통신 수요를 더욱 원만히 측진시키기 위하여 통신 선로의 다중화, 회선의

확장과 그의 리용률을 높이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특히 체신 발전의 물질 기술적 토대로 되는 통신 기자재 생산 기지를 튼튼히 꾸려 놓음으로써 산업 통신을 비롯한 통신망의 확장과 정비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속품들을 기본적으로 국내산으로 충족시키고 있다.

1962년도에 평양—청진, 평양—강계 간에 12통화로 반송 전화기가 설치되였으며 국내에서 생산한 3 통화로 및 1 통화로 반송 전화기가 도—군, 군—리 간에 설치되였다. 이리하여 중앙과 도 간에는 2～3 회선으로부터 5～6 회선으로, 도—군 간에는 0.8 회선으로부터 1.3 회선으로 증가되여 국가 및 인민들의 날로 장성하는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1962년에 5,678 키로메터의 선로가 통합되여 직선화되였으며 선로들이 도로 주변으로부터 안전 지대로 이설되였다. 선로의 통합 또는 직선화를 통하여 3,680여 본의 전주와 30 여 톤의 철선을 얻어 내였으며 농경지로부터 약 6,700 여 본의 전주를 철수함으로써 많은 농경지를 얻어 내였고 영농 작업의 기계화에 편리하게 하였다.

시내 통신 부문에서도 기술적 장비를 일층 강화하고 교환 능력을 현저히 높임으로써 통신의 질이 더욱 개선되였을 뿐만 아니라 증대되는 시내 전화 통신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게 되였다. 1962년에 평양 시내에서는 자동 교환기의 5단위 수'자를 4 단위로 개조함으로써 전화 사용을 간편하게 하고 추가적 투자 없이 2천 여 가입자를 더 수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94만 여 원의 리익을 국가에 주었다.

특히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김 일성 동지의 창성 교시가 있은 이후 지방 산업 지도에 대한 군의 역할이 일층 제고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게 중앙으로부터 산업 기업소에 이르기까지의 산업 지휘 통신망과 지역적 및 부문별 산업 통신망 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며 그의 운영을 강화하는 데 심중한 주의가 돌려졌다.

1962년에 군급 이하 통신망 정비에도 력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황해 제철소, 김 책 제철소 등 중요 산업 기업소의 생산 지휘 통신망을 적극 정비함으로써 생산 보장에 기여하였다.

【무선 통신】 1962년에 무선 통신 부문에서는 무선 통신의 출력을 높이여 그의 기술적 장비를 개선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졌다. 무선 방송기의 병렬 운전 체계가 도입되고 철탑 안테나 교환대의 자동화가 추진되였다. 또한 방송의 질 제고를 위한 도—군 간 유선 중계가 도입되고 있다.

1962년에 대출력 방송기의 조립 및 그의 설치 사업이 진행되였고 대출력 방송 및 무선 전신국 건설 공사가 완공되였다.

1962년 말 현재 무선 방송 출력은 전년에 비하여 155%로, 1956년에 비하여는 355%로 장성되였다.

한편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농촌의 모든 전야와 매 가정들에서 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과업의 성과적 추진을 위하여 1962년에 체신성 통신 기계 제작소에서는 10여 만 대의 고성기를 생산하였다.

1962년도에 유선 방송기의 출력을 전년에 비하여 106%로 높이고 920 키로메터의 유선 방송 선로를 가설하였다. 이해 공화국적으로 고성기 수는 13만 6,000대가 새로 설치되여 총 75만 3,000여 대에 달하였으며 라지오 수신기는 전년에 비하여 138%로 증가되였다. 방송 청취자 수는 1956년을 100으로 할때 1960년에는 11배, 1961년에는 12배, 1962년에는 14배로 계속 장성되였다.

체신 분야에서 국제적 련계도 더욱 확장되고 있는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이미 체결된 체신 협정에 의하여 각종 통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962년부터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을 비롯하여 아세아와 구라파의 일부 국가들을 포함한 15개 국가들과 전보 교환이 새로이 시작되였다. 1962년 4월부터 평양—모쓰크바 간 무선 통신 회선이 새로 구성되였다.

기본 건설

1962년에 기본 건설 부문 앞에는 7개년 계획의 첫 3년 간에 인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생산적 건설과 20만 세대의 주택 건설에 력량을 집중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국가에서는 기본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막대한 국가 기본 건설 자금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투하하고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데 심중한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1962년의 국가 기본 건설 총 투자액은 1961년에 비하여 110%로, 1960년에 비하여 115%로, 1956년에 비하여 185%로 장성되였으며 5개년 계획 기간의 년 평균 투자액에 비하여 130%로 장성되였다. 그중 생산적 건설에 돌려진 투자액은 전년에 비하여 101%로, 1960년에 비하여 124%로, 1956년에 비하여서는 185%로 장성되였다. 비생산적 건설에는 전년에 비하여 145%로 장성된 자금이 투하되였다.

1962년 국가 기본 건설 투자는 여섯 개 고지 점령을 위한 생산적 건설과 주택 건설에 집중되였는바 기본 건설 총투자액 중에서 생산적 건설에 73%, 비 생산적 건설에 27%가 투하되였다.

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 총액 중에서 공업 건설에 74%, 공업 건설 투자액 중에서 중공업 건설에는 63.7%, 경공업 건설에는 36.3%가 투하되였으며 비생산적 건설 투자액 중에서 주택 건설에는 51%가 투하되였다.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

	장성 (%)			투자액의 구성 비률 (%)			
	1962 / 1949	1962 / 1957~1960	1962 / 1961	1949	1957~1960	1961	1962
기본 건설 총 투자액	734	130	110	100	100	100	100
그중 생산적 건설	771	132	101	70	72	80	73
비 생산적 건설	649	124	145	30	28	20	27

1962년에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조선 로동당 제 4기 제 2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 정신에 철저히 립각하여 건설에서 설계를 시공에 선행시키며 건설의 선후차를 엄격히 규정하고 이미 착공한 중요 건설 대상들에 투자를 집중하며 더 빨리 조업 개시할 수 있는 대상들부터 순차적으로 시공하는 방향에서 건설을 진행하였다.

1962년에 생산적 건설 대상에 력량이 집중된 결과 수 많은 산업 건설 대상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공업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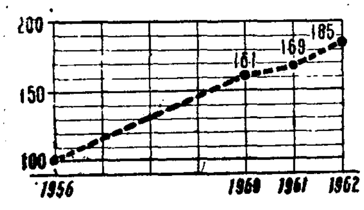
	1956	1960	1961	1962
공업 건설 투자액	100	100	100	100
A, 중공업 건설	83.3	80.6	69.7	63.7
그중 발전 공업	14.8	11.1	11.1	12.9
석탄 공업	6.7	11.4	9.9	9.9
광 업	8.6	23.9	16.3	15.7
금속 공업	7.7	5.7	6.2	5.0
기계 및 선박 공업	6.3	11.2	9.1	7.4
화학 공업	10.0	8.6	10.9	6.3
건재 공업	5.9	1.9	2.8	1.0
림 업	2.5	2.1	1.9	1.7
B, 경공업 건설	16.7	19.4	30.3	36.3
그중 방직 공업	4.0	4.6	3.7	7.2
식료 공업	2.3	4.0	5.2	5.0
수 산 업	6.5	6.3	11.3	15.5

전력 부문에서는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는 동시에 화력 발전소들의 건설을 병행하여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24만 키로 볼트 암페아 능력의 강계 청년 발전소, 40만 키로 볼트 암페아 능력의 운봉 발전소, 40만 키로 왓트 능력의 평양 화력 발전소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척되였으며 관개용 저수지와 강 하천들을 리용하여 수 많은 중소 규모 발전소들이 건설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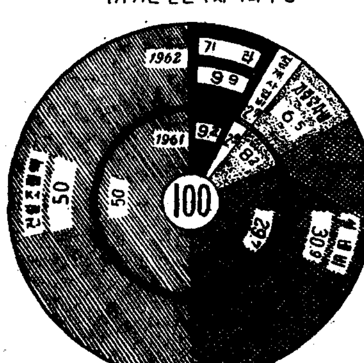
광업 부문에서는 우리 나라의 믿음직한 철광석 기지인 무산 광산의 19만 5천 톤 능력의 선광장 확장 공사, 대유동 광산의 수직갱 및 선광장 건설 공사, 룡운 광산의 선광장 건설 공사들이 완공되였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성진 제강소의 8만 톤 능력의 신중판 압연 직장, 강선 제강소의 3만 톤 능력의 강관 소재 압연 직장, 남포 제련소의 1만 2천 톤 능력의 유색 금속 압연 직장, 1만 2천 톤 능력의 평양 전선 공장 등 수 많은 공장과 직장들이 신설되였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5만 톤 능력의 본궁 가성 소다 공장과 문평 제련소의 4만 5천 톤 능력의 류산 직장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청진 화학 섬유 공장과 길주 팔프 공장의 신설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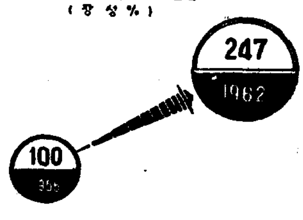
기본 건설 투자의 장성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구성



국가 자금에 의한 주택 건설
(장 성 %)



장 공사, 아오지 화학 공장의 1만 8천 톤 능력의 메타놀 직장 복구 공사, 영안 화학 공장의 4,500 톤 능력의 포르말린 직장 확장 공사 등을 비롯한 수 많은 대상들이 완공되였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방직 공업의 능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1만 5천 추의 방추를 가진 혜산 방직 공장 건설이 진행되였으며 평양 방직 공장에 4만 2천 추, 신의주 방직 공장에 4만 9천 추, 구성 방직 공장에 1만 5천 추의 방추가 생산 면적의 확장 없이 증설되였다. 그리고 2만 톤 능력의 혜산 제지 공장을 비롯하여 5개의 지방 제지 공장, 8개의 옥수수 가공 공장, 27개의 식료품 가공 공장, 6개의 제유 공장들이 신설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 중요 생산물들의 생산 능력은 1961년에 비하여 전력에서 100.4%, 금, 은, 동 선광장 처리량에서 102%, 철광석 사별 처리량에서 101%, 압연 강재에서 110%, 가성 소다에서 468%, 류산에서 115%, 스프 및 인견사에서 135%, 면사에서 148%로 각각 장성하였다.

1962년에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수리화에서 달성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관개 건설과 치산 치수 사업이 계속 촉진되였다.

1962년에 농촌 경리의 수리화를 위한 관개 및 하천 건설 투자액은 전년에 비하여 113.6%로 장성되였다.

농촌 경리 부문 기본 건설 투자의 구성 (%)

	1956	1961	1962
농촌 건설 투자액	100	100	100
그중 관개 및 하천	67.4	41.5	51.3
농기계화	3.9	12.0	25.9

농촌 경리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에 의하여 1962년에 총 연장 1천 리에 달하는 수로, 40 리가 넘는 23개의 굴을 비롯하여 1,500 여개의 각종 구조물을 설치한 청단 관개 제 1 계단 공사, 기양 관개 확장 공사를 비롯한 대 소 관개 공사와 33개소의 저수지, 670 개소의 양수장, 360 여개의 보가 완공되였다. 이로써 관개 면적은 1961년에 비하여 3만 정보가 더 확장되였다. 또한 순화강, 대동강, 청천강, 진주 남대천을 비롯한 485개소의 하천 정리 및 제방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척되였다.

이 밖에 협동 농장들의 자체 자금으로 111개소의 양수장, 800 여개소의 보, 기타 시설들이 설치되였으며 1,221 동의 축사, 363개소의 잎담배 건조실과 잠실, 280 개소의 창고 및 저장고와 온실, 157개 소의 수리 공장 등 시설들이 건설되였다.

1962년에 도시 건설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수도 건설자들에 의하여 평양시에서는 김 일성 종합 대학 앞 도로 확장 공사를 비롯하여 14만 4천 평방 메터의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되였으며 평양 화물 자동차 수리 공장과 평양 기술 시설 트레스트 로동자, 기술자들의 로력에 의하여 무궤도 전차가 개통되였다. 또한 각 도 및 군 소재지들을 문화적이고 아담한 도시로 꾸리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1962년에 교육 문화 보건 및 후생 부문에는 비 생산적 건설에 대한 투자액 중에서 48%의 자금이 투하되였다. 그리하여 675개소의 학교, 507 개소의 유치원, 827 개소의 탁아소, 29개소의 병원, 241 개소의 진료소, 538개소의 목욕탕, 111개소의 상점들이 건설되였다.

1962년에 건설자들은 20만 세대의 주택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주택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1962년에 전년보다 121.3%로 장성한 거액의 국가 투자를 하였으며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을 위한 막대한 대부적 방조를 주었다.

특히 조선 로동당은 농촌 문화 주택 건설에 심중한 관심을 돌리고 농촌 건설대를 조직하고 그를 물질 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 한편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할 것을 전체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건설자들은 중앙 및 각 도, 시, 군에 새로 창설된 주택 건설 지도 위원회의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지도하에 주택 건설을 흐름식으로 진행하면서 《1인 4 세대》, 《1인 5 세대》 운동의 불'길을 추켜들고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였다.

전국의 농촌 건설대에서는 500 여 대의 석비레 블로크 성형기를 비롯한 2,150 여대의 기계 설비를 자체로 만들어 도처에 부재 공장을 꾸리고 총 98만 1천 여 립방메터의 석비레 블로크를 생산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 24만 4,313 세대의 도시 및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이 착공되였고 그중 년말까지 18만 333 세대가 완공되였으며 마지막 완공 단계에 있은 것이 2만 3,700 여세대에 달하였다.

1962년에 건설된 주택의 규모는 전후부터 1960년 말까지의 년 평균 주택 건설의 1.9배에 해당하며 1961년에 비하여서는 2.8배에 달하였다.

주택 건설의 장성 (단위 천m^2)

	1953하반년~1960 합계	1953하반년~1960 평균 (ㄱ)	1961 (ㄴ)	1962 (ㄷ)	ㄷ/ㄱ (%)	ㄷ/ㄴ (%)
건설한 주택 총 면적	24 648	3 286	2 196	6 129	187	279
그중 도시에 건설한 것	12 312	1 641	1 394	3 113	190	223
농촌에 건설한 것	12 336	1 645	802	3 016	183	376

주택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1962년에 도시 로동자 사무원들은 311만 평방 메터의 주택을 새로 받았으며 협동 농장 농민들은 세기적으로 물려 받은 오막살이에서 벗어나 생활에 편리하고 아담한 302만 평방 메터의 문화 주택을 받았다.

1962년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조업을 개시한 고정 재산은 1961년에 비하여 9천 500만원이 더 많은 123.4%로 장성되였으며 고정 재산 조업 개시 총액 중에서 생산적 고정 재산은 101%, 비 생산적 고정 재산은 128%로 각각 늘었다.

1962년에 기본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조선 로동당의 건설 공업화 정책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과 기술 혁신 운동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였다.

건설의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재 생산 기지를 축성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립각하여 건설 부문에서는 1962년에 15개의 블로크 공장이 신설되였으며 현존 부재 공장의 기술적 장비가 보다 강화되였다.

부재의 대형화,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설자들은 도처에서 능률적인 수직식 부재 생산 설비들을 자체로 갖추고 대형 부재 생산을 급격히 확대하였다.

1962년에 조립 부재의 대형화와 경량화의 적용 범위가 보다 확대된 결과 조립 부재의 적용 비률은 1961년에 비하여 17.6%가 장성하였다.

1962년에 조립식 건설이 광범히 도입되여 그의 비중은 1961년에 비하여 18%, 그중 주택 건설에서 4%, 공공 건물 건설에서 9%가 각각 제고되였다.

조립식 건설의 비중 (%)

	1957	1961	1962
전체에서 조립식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	18.1	36.2	53.8
주택 건설	32.4	68.4	72.6
공공 건설	32.2	44.1	50.7

기본 건설 부문 근로자들은 모든 건설에서 토공, 운반, 상하차 작업을 비롯한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들을 전반적으로 기계화하며 굴착, 콩크리트 혼합, 골재 채취 등 주요한 작업들에서 종합적 기계화를 적극 도입하기 위하여 대중적 창의 고안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결과 1962년에 3,700여건의 기술 혁신안이 시공에 도입되여 119만 1천여 공수의 로력과 수 많은 자금이 절약되였다.

1962년 건설 작업의 기계화 수준은 전년에 비하여 적재 적하 작업에서 2%, 수직 운반 작업에서 1%, 콩크리트 혼합 작업에서 9%가 각각 제고되였다.

건설 작업의 기계화 비중(%)

	1957	1961	1962
적재 적하 작업	16.7	51.8	55.8
수직 운반 작업	77.5	91.0	91.6
콩크리트 혼합작업	60.2	70.8	79.1

건설 작업의 기계화와 함께 1962년에 기본 건설 부문에서 설비의 점검 보수 체계가 보다 확립된 결과 중요 건설 기재들의 려일 시간 리용률은 1961년에 비하여 엑스까와또르에서 0.2%, 자동차 기중기에서 2%, 탑식 기중기에서 6% 제고되였다.

또한 1962년에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과 설비 리용률의 제고, 절약 투쟁의 강화와 내부 채산제의 광범한 도입에 의하여 건설 조립 작업 가치(건설 원가)는 6.8%가 저하되였다.

상 업

1962년에 상업 부문 일'군들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2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결정과 특히 이해 8월 22일과 9월 3~4일에 주신 김 일성 수상의 강령적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의 급격한 장성과 증대되는 근로자들의 구매 능력에 상응하게 상업망을 합리적으로 포치하고 도매 기관들의 역할을 제고하며 상품 주문제를 강화하는 한편 이동 판매, 야간 판매 등을 비롯한 각종 판매 방법을 광범히 실시함으로써 1962년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 계획을 103.2%로, 그중 중앙 상업은 110%로, 지방 상업은 102.6%로 넘쳐 실행하였다.

결과 1961년에 비하여 1962년에 식료품은 112%, 비 식료 상품은 112.2%로 그 류통액이 각각 장성되였다.

국영 및 협동 단체 소매 상품 류통액의 장성

(해당 년도 가격)

	1962/1949	1962/1956	1962/1959	1962/1961
소매 상품 류통 총액	621.2	296.5	133.5	112.2
국영 및 협동 단체	1253.4	369.6	132.9	112.2
국영 상업	2107.1	548.3	142.5	115.0
협동 단체 상업	430.5	145.6	100.7	100.7

상품 류통액에서 식료 상품과 비 식료 상품의 구성

(사회 급양 제외)

	1949	1953	1956	1959	1961	1962
상품 류통 총액	100	100	100	100	100	100
식료 상품	45.8	53.9	39.9	31.2	30.9	32.7
비 식료 상품	54.2	46.1	60.1	68.8	69.1	67.3

생활의 향상에 따르는 인민들의 지불 능력 있는 구매력의 장성, 상업 활동의 개선 강화에 의하여 1962년에 각종 인민 소비품의 류통량이 현저히 증대되였다.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중요 품종별 류통량의 장성

	1962/1956	1962/1959	1962/1961
식료품	329	149	112
간 장	428	191	112
된 장	245	202	117
식용유	1 142	247	161
육 류	546	120	118
수산물	137	129	127
채 소	683	200	115
과자류	594	202	100
과 실	360	122	162
비식료품	388	119.6	112
기성복	1 426	194	131
내의류	717	186	113
양 말	240	165	109
신발류	182	115	103
비 누	428	168	154
담 배	232	132	104
재봉기	—	255	113

1962년에 상업 부문에서는 인민들에게 식료품을 더 많이 공급하는데 자기 력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이해 8월에 김 일성 수상은 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식료 상업이라고 교시하면서 상업망들에서 주민들의 구미에 맞는 다종 다양한 식료품을 자체로 가공하는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 교시 관철을 위하여 1962년에 상업 부문에서는 식료품 상점을 주민 지역에 더욱 접근시키는 한편 771개소에 달하는 식료품 가공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식료품에 대한 자체 가공 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부식물 가내 작업반 수를 1961년에 비하여 305%로 확장하였다.

1962년에 식료품 자체 가공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1.5배로 증가되였고 그 품종 수는 2배로 확대되였다. 식료품 공급 사업이 개선된 결과 1962년에 주요 식료품의 1 인당 판매량은 1961년에 비하여 간장은 109%, 된장은 113%, 식용유는 155%, 두부는 167%, 수산물은 124%, 육류는 114%로 각각 장성되였다.

특히 도시 및 로동자 지구 근로자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 사업이 계속 강화되였다. 1962년에 도시 및 로동자 지구에 대한 식료품 공급량은 전해에 비하여 116.6%로, 그중 수산물은 192.4%, 식용유는 169.7%, 두부는 171.4%, 간장은 121.4%, 된장은 127.9%, 당과류는 136.8%, 과실류는 197%로 각각 장성되였다.

이해 식료품 공급량이 증대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질적 구성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식료품 공급량에서 식용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의 4.4%로부터 1962년에는 8%로, 육류는 2.5%로부터 4.1%로, 두부는 1.4%로부터 2.5%로, 수산물은 10.8%로부터 12.1%로 급격히 증대되였다.

1962년에 공업 상품의 공급 사업도 일층 개선되였다. 상업 부문에서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백방으로 도모하며 그들의 기호에 맞는 기성복의 가공 판매 비중을 계속 높이였다. 이해 직물 총 판매량 중에서 기성복의 가공 판매 비중은 52%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1961년에 비하여 15.6%나 높아진 것이다. 또한 맵시 있고 다종 다양한 각종 구두류의 판매 비중이 급속히 제고되였다.

1961년에 비하여 1962년에 신발류의 판매량은 103.2%로 장성되였는데 그중 비닐 신발 및 구두류의 판매량은 2.4배로 장성되였다. 그리하여 신발류의 판매량에서 비닐 신발 및 구두류의 판매 비중은 1961년의 3.7%로부터 1962년에는 8.5%로 제고되였다.

겨울용 상품과 아동용 상품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1962년에 전년도 공급 실적의 1.6배로 장성된 겨울 상품이 공급되였는바 그중 외투는 184.7%로, 겨울 내의는 155.3%로 장성되였다. 이외에 방한모, 겨울 양복천, 세타등이 다량 공급되였다. 또한 아동용 상품 공급도 훨씬 증대되였으며 이를 위하여 각 도 소재지에는 새로 아동용품 상점들이 설치되였다.

1962년에 농촌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량도 현저히 증가되였는바 기성복은 전해에 비하여 136.5%, 양말은 103.1%, 화장 비누는 118%, 빨래 비누는 245.1%, 시계는 160.7%로 각각 장성되였다.

1962년에 사회 급양망에 의한 류통액은 전년에 비하여 114.9%로 장성되였다. 사회 급양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중 식당과 전문 식당들을 정비 확대하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을 가진 식사와 료리를 발전시킴으로써 사회 급양망들에서의 자체 제품 판매액은 1961년에 비하여 113.8%로 장성되였다. 또한 사이다, 맥주, 과즙을 비롯한 다양한 청량 음료들이 더 많이 공급되였다.

1962년에 도매 상업 기업소들에서는 주문에 의한 상품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상품 통로를 정비함으로써 직송 류통 비중을 높이며 '지역간 상품 교류 조직 사업을 기동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생산에 대한 상업의 반작용의 기능과 역할이 현저히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도매 상품 류통액은 전년에 비하여 105.6%로 장성하였다.

이와 함께 상업 일'군들 속에서 국가 및 사회 재산과 물자를 극력 애호 절약하고 기업 관리 수준을 부단히 높인 결과 상업 류통비 수준이 계통적으로 저하되였다.

1962년에 상업 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각종 상업망 및 편의 시설 망들이 신설 확장되고 선진 상업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더욱 개선 강화되였으며 상업의 문화성과 봉사성이 가일층 제고되였다. 이해 각종 상업망과 편의 시설망들에서는 상품 류통의 장성에 상응하게 창고, 저장고 및 랭장고 등을 확장 및 신설하였으며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작업의 기계화, 자동화를 적극 추진시켰다. 그리하여 권양, 운반, 적하차, 판매, 절단, 세척, 랭각, 건조 등 일련의 작업들이 기계화, 자동화되였다.

1962년에 상업 부문에서 붉은 녀성 상업 일'군 대렬이 더욱 장성되였다. 상업 일'군 종업원 총수 중에서 녀성 종업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의 68.1%로부터 1962년에는 70.4%로 증가하였다.

무 역

1962년에 우리 나라 무역액은 1961년에 비하여 108%로 장성되였다.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로 하여 최근 년간 우리 나라 무역의 구조 특히 수출품의 구조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 났다. 즉 우리 나라 수출에서 원료 상품의 비중은 현저히 감소되고 야금 공업 제품, 기계류, 화학 공업 제품, 경공업 상품 등의 가공품의 비중이 급속한 속도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는 기계류들과 함께 일용 잡화를 비롯한 일련의 경공업 상품 등 많은 새로운 상품들이 우리 나라 수출품으로서 등장하게 되였으며 일련의 공업 설비 일식을 수출하게 되였다.

수출품의 구성 (%)

	1956	1960	1961	1962
총 계	100	100	100	100
그중 기계 및 설비	0.3	5.3	1.6	7.5
광물류	54.3	12.8	11.7	11.2
흑색 및 유색 금속	30.9	43.7	47.2	48.5
화학 공업 제품	5.9	12.1	8.9	8.8
농 부산물	3.6	10.2	5.6	4.1
식료품 및 기호품	1.3	6.3	3.7	7.3

수입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지 못하거나 적게 생산되는 원자재와 기계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년간 우리 나라의 무역 대상 지역은 현저히 확대되였다. 우리 나라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물론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나라들과도 무역 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왔다.

1962년에 우리 나라는 적지 않은 나라들과 새로이 무역 관계를 맺게 되였는바 1962년말 현재 우리 나라는 40여개 나라들과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 각국 간의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이다.

우리 나라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대외 경제 관계를 맺고 이를 부단히 발전시키고 있다. 1962년에 우리 나라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1961년에 비하여 111%로, 그중 쏘련과의 무역액은 112%로, 중국과의 무역은 103%로, 구라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은 117%로 각각 장성되였다. 특히 우리 나라와 꾸바 공화국 간의 무역은 최근 2~3년 간에 급격히 발전되였는바 1962년에 꾸바와의 무역액은 전년에 비하여 3배로 장성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수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고속도강, 탄소 공구강 등의 흑색 금속 제품, 흑색 금속 압연 제품, 유색 금속 및 마그네샤크링카를 비롯한 각종 광물류 등이다. 다음으로서는 선반, 전기 기자재 등의 기계류, 공구류, 건재, 화학 제품, 일용 잡화, 홍삼을 비롯한 약재, 잎담배, 과실 등 농산물 및 농산 제품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기계 설비, 원유 제품, 고무, 면화, 콕스탄, 간압철, 린회석, 양모, 사탕 기타 공업 원료 상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또한 민족적 독립과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들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립각하여 무역 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왔는바 현재 우리 나라는 인도, 인도네시아, 비르마, 쎄일론, 아랍 련합 공화국, 이라크, 예멘, 기니아, 말리 등과는 정부급의 무역 협정에 기초하여 무역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밖에 많은 나라들의 개별적 민간 상사들과 적지 않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나라들로부터 그들의 전통적인 수출품을 수입하고 그 대신 기계류, 흑색 및 유색 금속, 카바이드, 판유리, 일용 잡화, 인삼, 약초류, 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 즉 일본, 영국, 서서, 서부 독일, 불란서, 화란, 이태리 등과도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재 정

국가 예산

우리 나라의 재정은 조선 로동당 정책에 철저히 립각하여 나라의 경제 문화 생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 생활의 체계적인 향상을 보장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가 예산 체계는 중앙 예산과 지방 예산으로 구성되여 있다.

최근 년간 지방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방 예산은 부단히 확대되여 왔다.

1962년 국가 예산은 6개 고지를 기본으로 하는 방대한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인 수행에 기초하여 원만히 집행되였으며 1962년에 조선 로동당이 제기한 경제 문화 발전의 모든 시책을 재

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 2 기 제 10 차 회의에서 채택된 1962년 국가 예산은 그후 도매 가격의 변동에 따라 수입은 28억 575만 원, 지출은 28억 116만 원으로 재계산되였다(당초 예산 수입 28억 1,605만 원, 지출 28억 1,072만 원).

1962년도에 국가 예산 수입은 28억 9,636만 원으로 예산에 비하여 103.2%로, 지출은 27억 2,876만 원으로 예산에 비하여 97.4%로 집행됨으로써 1억 6,760만 원에 달하는 지출에 대한 수입 초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1961년도에 비하여 수입은 120.7%, 지출은 116.7%의 장성으로 된다.

국가 예산의 장성

	1956	1959	1960	1961	1962
국가 예산 수입 총액	100	172	203	241.7	291.8
국가 예산 지출 총액	100	172	205	244.5	285.4

국가 예산 수입에서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장성, 공업 생산물 원가의 체계적인 저하로 사회주의적 축적은 부단히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 수입에서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은 부단히 증대되고 그와 반면에 주민들로 부터의 세금 수입은 매년 감소되였다.

국가 예산 수입 총액에서 사회주의 경리로 부터의 수입 비중은 1956년의 74.7%로부터 1962년에는 97.9%로 장성되였으며 주민들로 부터의 세금 수입은 1956년의 8.8%로부터 1962년에는 2.1%로 감소되였다.

국가 예산 수입에서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 비중

	1956	1959	1960	1961	1962
국가 예산 수입 총액	100	100	100	100	100
그중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수입	74.7	92.9	95.9	97.9	97.9

국가 예산 지출은 주로 인민 경제의 발전과 사회 문화 시책을 위하여 지출되고 있는바 1962년에 이 부문에 대한 지출은 예산 지출 총액의 95.1%에 달한다.

국가 예산 지출에서 인민 경제와 사회 문화 시책비가 차지하는 비중

	1956	1959	1960	1961	1962
예산 지출 총액	100	100	100	100	100
그중 인민 경제와 사회 문화 시책비가 차지하는 비중	87.0	92.0	93.7	94.4	95.1

이 방대한 자금은 기본 건설 투자, 생산의 장성과 관련한 류동 자금의 보충, 인민 경제와 사회 문화 시책을 비롯한 각종 사업비로 지출되여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리용되였다. 1962년 인민 경제에 대한 지출은 전년에 비하여 115.7%로 장성되였다.

인민 경제에 대한 지출의 장성
(1953=100)

	1956	1959	1960	1962
장성률	296	473	568	825.3

국가에서는 사회 문화 시책을 위하여 1962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123.3%로 장성된 많은 자금을 국가 예산에서 지출하였다. 그중 교육 문화 사업비는 129.5%로, 보건 사업비는 121.5%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국가는 교육 문화 사업비와 보건 사업비의 9.4%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어린이들을 위하여 유치원과 탁아소에 지출하였다.

우리 나라 예산은 1962년에 방대한 자금을 보장하고도 1억 6,760만 원의 지출에 대한 수입 초과를 가져왔으며 1957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축적된 예비자하여도 1949년 예산의 약 3.5 배에 달하였다.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예산은 우리 나라의 사회 제도의 우월성과 재정 경제적 토대의 공고성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지방 예산】 지방 공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방 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그의 재정 경제적 토대가 확고히 구축되였다.

국가 예산에서 지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3년에 10.3%였다면 1962년에는 39.5%로 장성되였으며 지방 예산은 자체 수입으로서 지출을 보장하고도 수입 초과를 가져오고 있다.

1962년 지방 예산은 1961년에 비하여 수입은 130.3%로, 지출은 121.5%로 장성되였다.

지방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인민 경제와 사회 문화 시책을 위하여 지출되였다. 1962년에 지방 예산은 주로 지방 공업의 확대 발전과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촉진시키는 데 돌려졌으며 교육, 문화, 보건 등 사회 문화 시책에는 예산 지출 총액의 36%가 지출되였다.

이와 같이 지방 예산은 그 자주성을 계속 강화하면서 지방 경

국가 예산의 비중 대비표 (실적)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국가 예산 총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중앙 예산 총액	89.7	90	84	75.6	65	63.4	60.5
지방 예산 총액	10.3	10	16	24.4	35	36.6	39.5

권 기관들 앞에 나서고 있는 경제 문화 건설의 과업들을 재정적으로 확고히 보장하고 있다.

국가 보험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 보험에는 재산 보험(재산 보험, 가축 보험, 어선 보험), 인체 보험, 의무 려객 보험, 대외 보험(화물 및 해상 운수 보험)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인체 보험은 혼합 보험의 형태로서 자원적 원칙에 의하여 가입하며 가입 대상은 만 16세~55세 (로동 능력 상실 제 1 류 제외)에 해당한 근로자들이다. 인체 보험료는 근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저 100원으로부터 계약자들의 희망과 요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200원 이하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인체 보험 가입 대상자 총수의 83.2%가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한 근로자들이 인체 보험에 참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초과 보험료률이란 찾아 볼 수 없으며 인체 보험료률은 1954년부터 1962년까지에만도 평균 7.4% 저하되여 피 보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 보험료 수입의 장성(1954=100)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재산 보험	273	448	1 094	1 173	1 281	1 331	1 526
인체 보험	387	627	1 267	2 008	3 477	4 648	5 019
려객 보험	157	182	186	241	239	296	402
대외 보험	—	100	127	3 147	6 782	4 901	5 444
계	254	388	834	1 012	1 375	1 669	1 870

금 융

1962년에 우리 나라 은행 기관들은 인민 경제 각 부문 기업소 기관들에서 장성하는 자금적 수요을 원만히 보장하였으며 《원》에 의한 통제적 기능을 통하여 내부 예비를 동원하며 절약 제도와 류탐 재산제를 강화하고 류동 자금의 회전을 촉진하도록 자극함으로써 6개 고지 점령을 적극 지원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62년 2월 12일 내각 전원 회의에서 인민 경제의 내부 축적을 증대하며 생산과 건설의 앙양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재정 금융 기관들의 재정적 통제와 감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은행 통제를 강화할 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이 교시에 립각하여 은행 기관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현실적 요구에 상응하게 인민 경제에 대한 《원》에 의한 통제를 일층 개선 강화하였다. 또한 대안의 사업 체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원》에 의한 통제가 생산 현지에 더욱 들어가게 되였으며 기업소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 주며 아래를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사업 기풍이 점차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대 부】 중앙 은행은 6 개 고지 점령을 기본으로 하는 1962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중심 과업을 보장하는 데 중심을 두고 인민 경제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거액의 융자를 실시하였다.

1962년에 중앙 은행은 6개 고지와 관련된 탄광, 광산, 제철, 수산, 직물 부문을 비롯한 중앙 공업 기업소들에 대한 대부적 통제와 지도 방조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자재의 공급 규률과 협동 생산 규률의 준수, 자금, 로력의 합리적 리용과 수익성의 제고를 자극하며, 경리 운영을 개선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또한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연석 회의의 과업에 따라 지방 공업 기업소들에서의 원료 기지의 조성과 제품의 실현을 촉진하며 재정 경영 활동을 개선하도록 대부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1962년에 중앙 은행은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 국가 농목장들과 농기계 작업소들에서 기업 관리 운영을 개선하며 새로 조직된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와의 긴밀한 련계 밑에 협동 농장들에서의 증대되는 기본 투자 및 생산비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온갖 내부 예비를 동원 리용하여 재정 부기 규률을 확립하기 위한 지도 통제 사업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의 기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협동 농장들에서의 기계화의 촉진, 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에 거액의 자금을 대부하였으며 결산 분배 사업에 대한 지도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협동 농장들에서의 물질적 및 재정적 토대를 가일층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중앙 은행은 상품 류통의 급격한 장성에 적응하게 주민들에 대한 상품 공급 사업을 개선하도록 자극 통제하기 위하여 도매 상업 기관, 협동 농장 상점들에 대한 지도 사업을 조직하였으며 수매 상점들에서의 수매 자금의 합리적 리용과 수매 및 공급 계획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현지 통제 사업을 개선 강화하였다.

조선 로동당의 명확한 정책과 공고한 국가 재정에 기초하여 1962년에 중앙 은행의 대부 자원 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105.4%로 장성되였다.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대부 자원의 증대에 기초하여 1962년에 인민 경제에 대한 중앙 은행의 대부금 잔고 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106%로 장성되였다. 그 중 중공업 부문은 전년에 비하여 104.6%에 달하였다.

자재 공급 체계의 개편, 상품 류통의 장성, 완제품 실현의 촉진 등

으로 인한 인민 경제에서의 물자 운동의 장성에 따라 1962년 말에 중앙 은행의 결제 대부금 잔고는 급격히 장성되였고 상품 물자 재산과 생산 비용에 대한 단기 대부금 잔고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98.9%로 감소 되였다.

건설 자금 은행은 전년에 비하여 1962년에 105.6%로 장성된 기본 건설에 대한 자금 공급을 보장하였다. 그중 농촌 문화 주택 건설에 대한 자금 공급은 같은 기간에 약 6.3배로 장성하였다.

또한 대부 부기 결제를 통한 원에 의한 통제 사업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1962년에 전년보다 158%로 장성된 대부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1962년에 협동 농장 신용부는 업무 활동을 개선함으로써 농촌에서 유휴 화폐 자금을 회수하여 농장원들의 부업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과 생활상 요구되는 자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지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제】 공업과 농업 생산의 급격한 장성, 상품 류통의 확대 등은 인민 경제 부문간 또는 부문 내부 간의 결제 거래를 급속히 증대시켰다. 1962년에 은행을 통한 상품—물자 재산의 대금 결제 (기발 수체) 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132.7%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중앙 은행은 결제의 중추 기관으로서 자재 공급 체계의 개편에 상응하게 대금 결제 방법을 개선하고 기업소, 기관들의 계약 규률과 지불 규률을 강화하기 위한 결제적 통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와함께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류동 자금의 회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 차에 걸쳐 전국적인 상쇄 결제를 조직 실시함으로써 기업소, 기관의 재정 상태 개선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으며, 평양시를 제외한 각 도 (시) 소재지들에서 새로운 결제 방식인 지불 행표 제도를 시험적으로 도입 실시하였다.

우리 나라 대외 무역이 확대되고 많은 나라들과의 경제 문화적 련계가 더욱 발전됨에 따라 중앙 은행의 외국 은행들과의 거래 범위는 급속히 증대되였으며 무역 및 비무역 결제 업무가 훨씬 장성되였다.

건설 자금 은행이 1962년에 접수한 기발 수체의 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105.5%로, 피기발 수체의 총액은 114%로 각각 장성하였으며 피기발 수체의 평균 보유 일수는 전년에 비하여 10.4일이 축감되였다.

이와 같이 건설 자금 은행은 1962년 기본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함과 함께 원에 의한 통제적 기능을 개선 강화함으로써 건설에서 절약 제도를 가일층 강화하고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였으며 결제 및 계획 규률 강화에 기여하였다.

【화폐 류통】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발전과 국가 재정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1962년에 나라의 화폐 류통은 더욱더 공고화되였다.

공화국 내각에서는 사회주의 농촌 경리에서 일어나는 생산적 앙양과 화폐 류통의 확대에 따르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내각 결정 제 30호 《1962년 2.4분기 대부 및 현금 계획에 관하여》 (1962년 4월 23일) 로서 1962년 7월 1일부터 협동 농장들에 현금 계획화 체계를 도입 실시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여 협동 농장들은 중앙 은행의 분기별 현금 계획에 따라 자체의 모든 현금 수입을 전액 은행에 입금시키고 현금 지불 자금은 은행에서 지불 받아 사용하도록 되였다.

이리하여 중앙 은행은 현금 류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 농촌에서 무현금 결제 범위를 더욱 확대하며 협동 농장들의 재정 및 현금 계획 규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통제를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중앙 은행은 1962년에 발권 규률을 강화하며 기관, 기업소에 대한 기관 판매에 대한 통제를 개선하는 한편 재정 및 현금 계획 규률과 로임 자금 지불에 대한 통제 사업을 일층 강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였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현금 수요가 현저히 장성된 조건 하에서도 상품 판매 수입의 장성에 기초한 현금 총 수입이 증가되고 주민들 속에 산재되여 있는 유휴 화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이 강구된 결과 보다 적은 현금으로서 이를 완전히 지불 보장 하고도 오히려 지출에 대한 수입 초과를 가져 왔으며 원의 구매력은 가일층 제고되였다.

특히 1962년에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수행과 관련하여 로임 자금 지불이 전년에 비하여 109.6%로 장성되였으나 현금 수입을 정확히 동원 리용함으로써 이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또한 인민 경제 각 부문 기업소, 기관들의 계획 수행률에 상응하게 로임 자금 지불에 대한 통제를 개선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분배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였다.

1962년에 중앙 은행의 현금 류통에서 전년에 비하여 현금 총 수입은 108.5%로, 그중 상업 기관의 상품 판매 수입은 112.3%로, 현금 총 지출은 101%, 그중 로임 자금 지불은 109.6%로 각각 장성되였다.

【저 금】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더욱 향상됨에 따라 주민들 속에서 저금 열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앙 은행은 이에 상응하게 1962년에 주민들이 밀집한 가두에 저금망을 합리적으로 조절 포치하는 동시에 은행 지점 및 저금소가 없는 지구 내의 기관 기업소들에 저금 대리소를 설치하는 등 저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광범한 주민들의 저금상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였으며 저금 취급 기관들의 사업을 인민들의 실생활 속에 더욱 접근 시킬 수 있게되였다.

1962년에 공화국적인 저금 잔

고는 1956년에 비하여 570.6%로 1960년에 비하여 112.8%로 장성되였다. 특히 중앙 은행의 1962년 말 저금 잔고는 전년에 비하여 103.8%로 장성하였다.

로 동

【로력 조직】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종업원 수는 현저히 증가되였다. 1962년 말 현재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재적 종업원 수는 186만 5,000명 (평균 재적 종업원수 173만 9,000명)에 달하였는바 이는 전년에 비하여 25만 6,000명의 증가로 된다.

인민 경제 부문별 종업원 수의 장성 (1953=100)

	1956	1960	1962
총 계	141	254	405
그중			
공업	178	425	498.7
건설	146	186	208.8
운수 체신	111	141	148.3

종업원 수의 장성과 함께 종업원 구성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사무를 간소화하고 비생산 부문 로력을 극력 축소하며 생산 부문 그중에서도 기본 생산 부문의 로력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에서 로력 조직을 개선한 결과 직접 생산 부문의 로력 비중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또한 1962년에 녀성 로력을 인민 경제 각 부문에 광범히 진출시키며 녀성들이 일할 수 있는 부문에 배치된 청장년들은 녀성 로력으로 교체하여 중로동 부문에 진출 시키기 위한 남녀 로력 교체 사업이 진행되였다. 이 사업에 의하여 약 4만 명에 달하는 청장년 남성 로력이 경로동 부문에서 6개 고지 점령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로동 부문으로 조절 배치되였다.

그리하여 탄광, 광산, 수산, 림업 부문의 종업원 구성에서 청장년 남성 로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제고되였다.

경로동 부문에 녀성 로력이 광범히 인입된 결과 종업원 총수에서 녀성 로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의 32.4%로 부터 1962년에는 34.9%로 제고되였다.

이와 함께 내각 결정 제 53호 《로력 원천을 일제히 조사할 데 관하여》 (1962년 10월 15일)에 의하여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에 걸쳐 로력 원천 조사 사업이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나라의 로력 원천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를 사회주의 건설에 계획적으로 인입할 수 있게 되였다.

【로동의 기준화】 내각 결정 제 33호 《1961년 및 1962년 1.4분기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 총화에 관하여》 (1962년 5월 10일)에서는 로동 정량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며 불합리한 로동 기준량을 재사정할 데 대한 방침이 취해졌다.

그리하여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안의 도입과 일'군들의 기술 수준의 제고에 의하여 현실에 맞지않게된 불합리한 로동 기준량들을 재사정하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1962년 1년간에 공업 부문에서는 23만 8,554건,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6만 건의 로동 기준량이 새로운 로동 기준량으로 개정되였다.

이와 함께 동일한 직종의 로임에서 불균형을 시정하고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국가 유일 로동 기준량 제정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결과 1962년에 국가 유일 로동 기준량 제정 총 건수는 7만 4,825건 (기계 공업 부문 3만 4,665건, 지방 공업 부문 4,734건, 관개 하천 부문 3만 509건, 도시 경영 부문 4,742건 농촌 문화 주택 건설 부문 175건)에 달하는바 이것은 1961년 제정 총 건수의 3배 이상에 해당된다. 이리하여 유일 로동 기준량 중 국가 유일 로동 기준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6.2%로 제고 되였다.

또한 1962년에는 내각 결정 제 34호 《도시 경영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1962년 5월 10일)에 의하여 건물, 상하수도 시설, 원림등의 유지 관리 및 보수와 도시 청소에 대한 로동 기준량 제정 사업이 진행되였다.

로동 기준화 사업이 일층 개선되고 생산 조직이 훨씬 째여짐으로써 도급제 참가률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1962년 말 현재 머리수에 의한 도급제 참가률은 공업 부문에서 71.2%, 기본 건설 부문에서 82.5%에 달하며 인시수에 의한 도급제 참가률은 공업 부문에서 56.4%, 기본 건설 부문에서 65%에 달하였다.

【로동 임금】 국가에서는 인민 경제 각 부문 간 직종 간에 임금에서의 균형을 보장하며 중로동 부문 일'군들에게 물질적 자극을 더 주는 방향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따라 로동 임금을 체계적으로 높여 왔다.

1962년에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국민 소득의 체계적인 증대에 기초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전년에 비하여 101%로 장성되였다.

한편 국가에서는 현실 발전의 요구에 상응하게 로동 보수 형태를 부단히 개선 발전시켜왔다.

1962년에는 내각 비준 제 428호 《수산 어로 부문 일'군들의 임금을 개선할 데 관하여》에 의하여 수산 어로 부문의 임금 및 상금제가 개정되였는바 어로 로동자들에게 월에는 로동 기준량 수행률에 따라 도급 로동 임금을 지불하며 분기에는 어구별로 인민 경제적 중요성과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초과 수행률에 따르는 루진적인 계획 초과 상금을 적용하기로 되였다. 또한 출어한 사람에게는 도급 로동 임금 외에 기능 급수에는 관계 없이 동일한 금액의 출항 가급금을 지불하기로 되였다.

1962년에는 설계 일'군들에 대한 급수별 임금이 새로 설정되고

공업 기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철도 인입선에서 철도 운영 부문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로동자들에 대한 근속 년한 가급금이 새로 설정되였으며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일'군들에 대한 가급금제가 개정되였다.

【기술 기능 향상】 새 환경의 요구에 상응하게 직장 기술 기능 학습 체계가 더욱 정비 확장됨으로써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학습반이 기본 생산 부문 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 사무 부문, 후방 부문에 이르기까지 조직되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에 망라되게 되였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직장 기술 기능 학습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신입 로동자들에게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한 3~6개월을 기간으로 하는 단기 기능 전습반

2), 현존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을 고급 기능공의 수준에까지 높이기 위한 2년제 기능 전습반

3), 기능 전습반 수료자들과 고급 기능공들의 기술 자격 검정 시험 응시에 방조를 주기 위한 3년제 기술 학습반(기사반, 기수반으로 구분됨)

직장 기술 기능 학습 체계는 근로자들을 생산과 직무에서 리탈시킴이 없이 무기능공으로부터 고급 기능공으로 나아가서는 기수, 기사로 양성하기 위한 유일적인 기술 기능 학습 체계이다.

내각 비준 제 424 호(1962년 6월 11일)에 의하여 3급 기업소 이상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는 기술 기능 향상 사업을 직접 담당 수행하는 기술 기능 향상 지도원들이 배치되였다.

기술 기능 학습반과 그에 망라된 인원수
(1962년 말 현재)

	학습반 수	망라된 인원수
단기 기능 전습반	2 599	42 336
기능 전습반	19 666	459 281
기술 학습반	1 686	24 047
그중 기수반	1 293	19 229
기사반	393	4 818
합 계	23 951	525 664

주; 기술 학습반에 망라될 고급 기능공들이 공장 대학에 광범히 입입 되였으므로 동 학습반과 인원수는 1961년에 비하여 감소되였음.

직장 기술 기능 학습반 사업이 강화된 결과 수 많은 기능공들과 기술자들이 양성되였으며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1962년에 기술 학습반에서 양성한 기사 및 기수는 2,082 명(그중 기사는 326명)이나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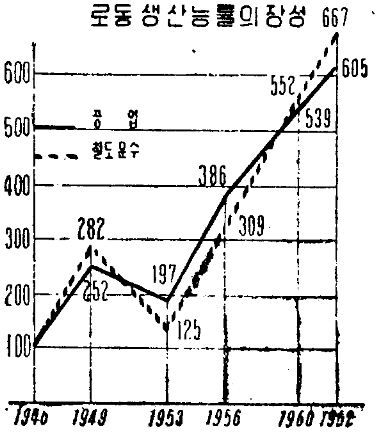
상설 교육 기관과 직장 기술학습반에서의 기술 인재 양성 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결과 1962 년 말 현재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 총 수는 18만 3천 명에 달하였다.

기능 전습의 방법으로 양성한 기능공 수는 31만 8,765명이나 되며 로동자들의 평균 기능 급수는 전년에 비하여 공업 부문에서 0.1 급, 그중 석탄 공업 부문에서 0.2 급, 광업 부문에서 0.3급, 금속 공업 부문에서 0.4급,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 0.1급이 각각 제고되였다.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더욱 제고되고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창조적 협조가 일층 강화된 결과 기술 혁신과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운동에서 많은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1962년에 공업 부문에서는 4만 1천여건, 기본 건설 부문에서는 3,700 여건의 발명 및 합리화안이

로동생산능률의 장성



생산에 도입되였다.

로동 행정 사업이 더욱 개선 강화되고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적 기술 혁신 운동이 강력히 추진된 결과 로동 생산 능률이 현저히 제고 되였다. 1962년에 공업 부문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에 비하여 104%로 제고되였는바 그중 금속 화학 공업성은 103%, 기계 공업성은 108%, 경공업 총국은 112%, 수산성은 107%에 달하였다.

【로동 보호】 내각 결정 제 46 호 《로동 보호 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 (1962년 8월 7일)와 내각 결정 제 33호에 의하여 로동 보호 사업을 계획화하며 일체 불비한 로동 보호 시설을 개선 완비함으로써 각종 로동 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데 대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가 강구되였다.

탄광, 광산들에서 철 아치 및 철근 콩크리트에 의한 기본 갱도들의 영구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였으며 운반 계통의 기계화가 촉진되고 통기 체계가 기본적으로 확립되였다. 또한 중요 갱도들에 인차가 설치되고 사갱과 수갱에서의 입출갱은 완전히 인차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였다.

특히 가스 탄광들에서는 내폭 설비 체계가 더욱 정비 강화되였다.

금속 공장들에서 고열 방지를 위한 수막 장치를 비롯하여 일련의 로동 보호 대책들이 도입되였으며 화학 및 경공업 공장들에서 유해 가스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환기 시설이 선진적 체계로 개편되였다.

산업 및 주택 건설과 관개 건설 부문에서 운반 작업, 굴착 작업 및 조립 작업의 기계화가 촉진됨으로써 작업 공정의 기계화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1962년에는 1961년에 비하여 각종 안전 시설이 123%로 증설되였으며 2만 4,890 여 개소의 환기 시설, 채광, 방음, 방광, 방한 시설을 비롯한 각종 로동 위생 시설들이 개조되고 1만 7,500 여 개소의 목욕탕, 녀성 위생 시설, 산업

탁아소 등 보조 위생 시설이 운영됨으로써 근로자들의 로동 조건은 더욱 안전하고 문화 위생적으로 개선되였다.

국가에서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녀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바 각 직장 마다 갖추어져 있는 녀성 위생실을 보다 문화 위생적으로 꾸렸으며 탁아소,유치원들을 새롭게 정비 확장하였으며 각종 편의 봉사 시설을 증설함으로써 그들이 안착하여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녀성들에게는 77일 간의 산전 산후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바 1962년에만 하여도 8만 9,238명의 녀성들이 이 혜택을 받았다.

1962년에 모든 로동자, 사무원들이 정기적 휴가를 받았으며 7만 5,514명의 로동자들이 보충적 휴가를 받았다.

1962년에 정휴양소망이 확대됨으로써 전년에 비하여 4만 5천여 명이 더 많은 44만 여 명의 근로자들이 국가 부담에 의한 정휴양의 혜택을 받았다.

국가에서는 이 외에도 근로자들의 로동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40 여 종류에 달하는 로동 보호 용구,작업 필수품과 식용유,육류,어물,간유,사탕,과실, 우유 등을 비롯한 각종 영양제를 무상으로 급여하고 있는바 1962년에만 하여도 근로자들은 5,500여 만원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았다.

물질 문화 생활

1962년에 여섯 개 고지의 점령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달성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앞으로 2~3년 내에 인민 생활 향상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 놓았다.

생산의 거대한 앙양에 기초하여 1962년에 국민 소득은 전년에 비하여 약 1.1배로 장성되였다.

축적과 소비를 옳게 결합시키며 축적의 부단한 증가를 보장하면서 국민 소득의 많은 몫을 인민 소비에 충당할 데 대한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1962년에 국민 소득의 4분의 3 이상이 인민 소비에 충당되였다.

1962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평균 임금은 1961년에 비하여 101%로 장성되였다.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종업원 수가 현저히 증가됨과 함께 가정 부인들로써 조직된 가내 작업반을 통하여 수득된 현금 수입이 급격히 증가된 결과 근로자들의 세대당 현금 수입은 전년에 비하여 3% 더 증가되였다.

종업원 1 명당 평균 임금의 장성

1946	1960	1962
100	386	400
	100	104

화폐 임금의 부단한 장성과 함께 1962년에 당과류, 자전거를 비롯한 대중 소비품의 가격이 계속 인하된 결과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이 현저히 장성되였다.

농촌 경리 부문에서는 례년에 드문 불리한 자연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농업 정책과 협동 농장 농민들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1962년에 알곡 500만 톤 고지가 성과적으로 점령됨으로써 농호 당 현물 및 현금 분배 수입이 장성되였다.

특히 각이한 지대 농민들의 수입을 고르게 장성시킬데 대한 방침에 의하여 1962년에 산간 지대 469개의 협동 농장들이 농업 현물세를 전액 면제 받았으며 산간 지대의 군들이 창성군과 삭주군의 모범을 따라 농산과 축산을 옳게 배합하고 산을 합리적으로 리용한 결과 산 지대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급속히 향상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 농민들의 생활은 전반적으로 중농 또는 부유 중농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근로자들의 수입이 증대되고 인민 소비품 생산이 장성됨에 따라 1962년에 소매 상품 류통액은 전년에 비하여 113%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는 질 좋은 각종 직물류, 기성복, 내의류, 가방, 시계, 라지오, 재봉기 등 일용 필수품과 식용유, 수산물, 육류, 란류, 두부 등 영양가 높은 부식물들이 더 많이 공급되였으며 편의 봉사 시설망이 확장되였다. 1962년에 20만 세대의 주택.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가 달성된 결과 근로자들의 주택 조건은 일층 개선되였다. 도시의 로동자, 사무원들은 311만 평방메터의 주택을 새로 받았으며 협동 농장 농민들도 302만 평방 메터의 문화 주택을 새로 받았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세기적으로 물려 받은 낡은 초가집을 헐어 버리고 기와집에서 살려는 농민들의 숙망이 실현되고 있다.

국가는 문화 혁명의 수행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국가 축적의 많은 부분을 사회 문화 시책비로 지출하고 있다. 1962년에는 전년보다 23.3%나 더 많은 사회 문화 시책비가 지출되였는바 그중 교육 문화 사업비는 129.5%, 보건 사업비는 121.5%로 증가되였다.

사회 문화 시책비의 장성(%)

1953	1956	1960	1962
100	217	862	11배
	100	397	504
		100	127

1962년에 교육 부문에서는 많

은 학교가 신설되였으며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위한 준비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 학교 및 대학생들은 국가로부터 매월 거액의 장학금까지 받고 있다. 또한 1962년에만 하여도 전체 학생들이 3,2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적 부담으로 학생복과 의류를 눅은 값으로 공급 받았다.

1962년에 많은 치료 기관들이 증설되였으며 모성 및 유아 보호를 위해 수 많은 탁아소, 유치원들이 신설 확장되였다. 1962년에도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전국 각지의 리, 동들에까지 포치된 보건 기관망을 통해 모두가 다 무상 치료의 혜택을 받았으며 로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무의 무탁한 로인들과 고아들도 다 국가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았다.

1962년에 국가에서는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휴식을 위하여 정, 휴양소망을 확장함으로써 1961년 보다 4만 5,000여 명이나 더 많은 44만 여 명의 로동자, 사무원들과 수 많은 협동 농장 농민들이 국가의 부담으로 정양 또는 휴양의 혜택을 받았다.

또한 국가에서는 인민들의 문화 생활을 보다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 후생 시설들을 계속 신설 확장하고 있는바 1962년에는 95 개소의 극장, 영화관이 신설 확장되였다.

이밖에도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거의 무료나 다름 없는 식량 공급, 주택 사용료, 전등료, 수도 사용료, 연료비, 교통비 등을 통하여 막대한 추가적 혜택을 받았다.

근로자들의 물질 문화 생활이 급격히 향상된 결과 1962년에 출생자 수는 전년에 비하여 15% 증가된 반면에 사망자 수는 3% 감소되였다. 이리하여 인구의 자연 증가률은 일제 통치 시기에 비하여 거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0년이나 연장되였다.

교 육

1962년에 교육 분야에서는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과업 즉 학교를 실 생활과 더욱 밀접히 결부시키며 청소년 학생들을 과학 문화의 최신 성과들과 공산주의 세계관으로 교육 교양함으로써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하며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에서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특히 후대들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들과 내각 결정 제 59 호 《보통 교육 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62년 10월 26일) 는 교육 부문 사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청소년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62년 5월 3일에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각급 학교들에서는 청소년 학생들속에서 확고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당 정책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함과 함께 그들의 년령, 심리 및 정서적 특성에 알맞게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과외 및 교외 교양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이에 있어서 특히 웅변 대회, 작문 짓기 대회, 과학 토론회, 설계 대회, 예'말 발표회, 시 랑송 모임, 예술 경연 대회, 연극 및 영화 감상 발표회, 미술 작품 전람회, 체육 대회 등이 중앙 및 도, 시 (구역), 군들과 각 급 학교 단위에서 광범히 진행되였으며 혁명 전적지 및 명승 고적지 답사, 등산, 원족, 견학, 수학 려행, 대렬 행진 등도 조직되였다.

이리하여 청소년 학생들로 하여금 선진 과학 리론을 배우면서 자기들의 소질과 재능을 더욱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주의 애국주의 정신을 배양하게 하였다.

1962년 8월에 있은 지방 당,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는 학교가 농촌의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 수행에서 거점이 되여야 하며 학교들에서 교육과 생산 로동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결합하며 육체 교양과 정서 교양을 강화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사회주의 건설자로 육성할 데 대하여 교시하였다.

이 교시를 집행하기 위하여 창성군과 약수 중학교가 달성한 성과와 경험을 전국에 보급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광범히 조직 진행되였으며 교육 사업에 대한 군 인민 위원회의 지도가 강화되였다.

각급 교육 행정 일'군들과 교원들이 모든 군을 창성군의 수준에로, 모든 학교를 약수 중 학교의 수준에로 시급한 시일내에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적지 않은 학교들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농촌의 기술 및 문화 혁명의 거점으로서의 각급 학교들의 역할이 일층 제고되였다.

특히 교육과 생산 로동을 지대적 특성에 맞게 결합시키기 위한 행정에서 각급 학교들의 물리, 화학, 생물 실험실과 각종 연구실, 목공실, 철공실 및 실습지가 더욱 잘 정비되였다.

보통 교육 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내각 결정 제 59 호에 의하여 각급 학교들에서는 교수 교양 사업에서 일부 잔존하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뿌리 뽑고 교수 내용의 과학 사상성을 일층 제고하며 교수 사업을 우리 나라의 생동한 현실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교육 방법 연구회, 과목 위원회 (분과 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직 운영, 직관 교수와 실험 실습의 광범한 도입, 계발식 교수를 비롯한 선진적 교수 방법의 적극적인 일반화 과정을 통하여 각급 학교들의 교수

방법이 개선되였다.

학교와 사회 및 가정의 유기적 련계가 더욱 강화되고 각 기관 기업소 협동 단체들에서의 학교 후원 사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게 되였다.

또한 내각 결정 제59호에 의하여 매년 10월 1일이 학생절로 제정되였으며 각급 학교들에서는 이 날을 휴일로 하고 각종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되였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실시하게 될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대책과 각급 교육 행정 기관들에서는 교육 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졌다.

1962년에 각급 학교 교과서들을 발전된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개작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였으며 이에 따라 과정안 및 교수 요강이 일부 개작되였다.

즉 기초 과학 과목과 함께 예능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이 배당되였으며 생산 실습 시간이 각급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절되였다.

7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과 천리마의 속도로 전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 발전의 성숙된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각급 학교망 특히 각종 기술 교육망이 대대적으로 확장되였다.

내각 결정 제 20호로 채택된 《국가 및 사회 협동 단체, 기관, 기업소 관리 일'군들과 재직 간부들에게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할 데 관하여》 (1962년 3월 2일)에 의하여 일부 대학과 고등 기술 학교들에 통신 재직 간부반이 각각 새로 설치되였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각종 형태의 교육 사업 특히 통신 교육에 대한 지도 사업에 각별한 주목이 돌려졌다.

각급 학교들의 학기 구분을 변경할 데 관한 1961년 4월 27일 내각 결정 제 83호에 의하여 대학, 중등 전문 학교 및 로동 학원은 1962년 7월 1일부터, 기타 학교들은 1962년 4월 1일부터 각각 신학년도가 시작되였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서는 교육 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였다.

1962년에 국가 자금에 의하여 675 개의 학교, 507 개의 유치원이 건설되였는바 보통 교육성 산하에서는 3천 여개의 교실이, 고등 교육성 산하에서도 수 많은 교실이 각각 건설되였다. 1962 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97개의 대학을 포함한 8,957개의 각급 학교들에 263만 8천 여명의 학생들이 망라되여 배우고 있다.

1962년에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3천 2백 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 부담으로 학생복과 외투가 공급되였다.

또한 국가에서는 내각 결정 제 59 호로써 교원들에 대한 사회적 대우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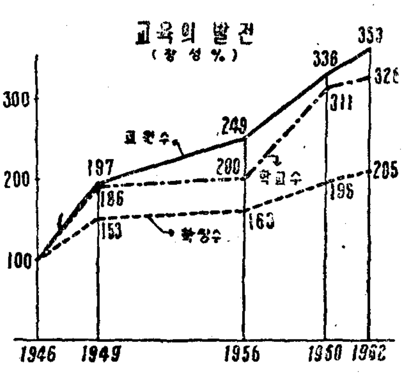
【보통 교육】 1962년에 197개의 중학교가 증가되였으며 이에 해당한 교원이 보충되였다.

인민 학교, 중학교 수 및 학생 수
(1962년 4월 현재)

	학교수(개소)	학생 수 (1,000명)
인민학교	4 112	911
중학교	3 036	938

보통 교육 부문 각급 학교들에서 더 많은 직관물과 교편물이 제작되고 계발식 교수를 비롯한 선진적 교수 방법이 적극 도입된 결과 교수 교양 사업이 가일층 발전되였다. 이리하여 우등, 최우등생 대렬과 우등, 최우등 학급 수가 부단히 증가되였다.

청소년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1962년 5월 3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립각하여 보통 교육 부문 학교들에서의 음악, 미술, 체육 등 예능 과목에 대한 수업 시간이 인민 학교에서는 약 2배, 중학교에서는 1.5배로 증가되였으며 그 교수의 질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년령, 심리적 특성에 알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과외 및 교외 교양 사업이 조직되였으며 누구나 한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루고 한 종목 이상의 체육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였다. 교육과 실생활이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 학생들은 일반 과목 지식과 함께 공업과 농업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일정한 기능을 소유하게 되였으며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되고 있다.

보통 교육 부문의 특수 교육 기관으로서의 맹아 학교와 롱아 학교 (각각 7년제)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반 지식과 함께 직업 교육을 주고 있다.

국가에서는 그들의 취학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 내에 기숙사, 식당, 리발실, 목욕탕, 세탁장, 재봉실과 의무실 등 모든 시설들을 갖추어 주고 있다.

1962년에 학교전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교양 사업도 일층 강화 발전되였다.

녀성들의 광범한 사회적 진출과 관련하여 1962년에 기관, 기업소, 가두, 농촌 등에 새로 808개의 유치원이 설치되여 1962년 말 현재 유치원 총 수는 5,121 개소에 달하였으며 이에는 47만 6천 여 명의 어린이들이 망라되여 있다.

【기술 교육】 국가에서는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 실시를 위한 준비 사업을 계속 활발히 추진시켰다.

1962년에 153개의 각종 기술 학교와 359 개의 고등 기술 학교 및 수 많은 공장 기술 학교가 더 설치되였다. 이와 함께 기술 학교 및 고등 기술

학교들에 있는 재직반 및 통신반이 확장되였다.

1962년에 중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 물리 화학 학교 (4년제)가 평양과 함흥에 각각 설립되여 650 여명의 학생들을 받아 들였다.

학교망의 확장에 따라 기술 교육을 받는 학생 수도 현저히 증가되였다.

각급 기술 학교 수 및 학생 수
(1962년 4월 현재, 재직, 야간, 통신, 공장 포함)

	학교수 (개소)	학생 수 (천명)
기술 학교	1 008	400
고등 기술 학교	459	87
중등 전문 학교	120	52

1962년에 1만 4,700 여명이 중등 전문 학교를 졸업하였다.

각급 기술 학교 과정안이 현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절되였다. 기술 학교에서는 일반 과목 특히 자연과 학 부문 학과에, 고등 기술 학교에서는 기술 과목과 전공 실습에 더 많은 시간이 배당되였다.

1962년에 기술 학교 및 고등 기술 학교 학생들의 생산 실습을 정확히 보장할 데 대한 조치가 강구되여 기술 학교 학생들이 보다 실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였다.

【고등 교육】 1962년에 일하며 공부하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본궁 공업 대학과 평양 극장 예술 대학이 신설되였으며 각급 통신 교육망이 확장되였다.

이리하여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97개의 대학에 20 만 9 천여명의 대학생이 망라되여 있는바 이는 전 학년도에 비하여 대학은 5개, 대학생 수는 2만 7천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기술 인재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양성할 데 대한 새로운 요구에 상응하게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형태의 하나인 공장 대학이 창설된 후 계속 확대 발전되였다.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공장 대학 수는 37 개로, 일하며 배우는 대학생 수는 14만 여명에 달하게 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주요 공장 기업소들은 생산의 기지일 뿐만 아니라 기술 인재 양성의 강력한 기지로 전환되였다.

고등 교육의 발전
(단위—학교 수는 개소, 학생 수는 천명)

	1956~1957	1960~1961	1961~1962	1962~1963
대학 수	19	76	92	97
그중 공장 대학 수		24	37	37
대학생 수	22	97	182	209
그중 일하면서 공부하는 대학생 수	6	49	124	140

1962~1963 학년도에 각급 대학들에서는 교수 교양 사업에서 일부 남아 있는 교조주의와 형식주의 잔재를 없애고 주체를 확립하고 교육 내용의 과학 사상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 계속 강력히 진행되였다.

각 대학들에서 교육과 생산 로동, 리론과 실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 학생들의 학과 실력이 높아지고 전공 기술 지식이 더욱 공고화되였다.

일하며 배우는 학생들은 1962년에 배운 리론에 토대하여 1천 700 여 건의 가치있는 발명, 기술 혁신안 및 합리화안을 생산 활동에 적극 도입하여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일하며 배우는 교육 체계의 우월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 주었다.

1962년에 고등 교육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학생 수는 9,746명인바 그중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 졸업생은 2,646명에 달하였다.

과학 교육 간부 대렬이 확장되고 교원들의 과학 리론적 자질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1962년에 교원, 학생들 속에서의 과학 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특히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 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에서 혁신적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대학 교원들 속에서는 우리 나라에 창설된 새로운 공업 관리 체계와 농업 지도 체계에 관한 과학 연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이를 정치 경제학을 비롯한 부문 경제학 교과서들과 기타 해당 과목의 교수에 반영시키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졌다.

【사범 교육】 9년제 기술 의무 교육제의 실시를 위하여 대량적으로 소요되는 각종 기술 학교 교원들을 양성하며 현직 기술 학교 교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이 1962년에도 계속 광범히 진행되였다.

새로운 사범 교육 체계에 의하여 1961년에 창설된 11 개의 교원 대학과 8개의 사범 대학은 주간, 재직 및 통신의 방법으로 유치원 교양원으로부터 고등 기술 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 교원들을 양성하고 있다.

1962년에 여기에는 4만 7천 여 명이 망라되여 있었으며 그의 졸업생 수는 1만 여 명에 달하였다.

사범 대학과 교원 대학은 그외에 1년제 기술 학교 교원 양성반, 인민 학교 교원 양성반(4개월간)을 설치하고 수천 명의 교원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인민 학교, 중학교의 예능 과목 교원들을 위한 3개월간 강습을 2차에 걸쳐 진행함과 함께 기술 학교 교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단기 강습도 4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리하여 각급 학교 교원들이 수 많이 보충되고 자질이 현저히 제고되였다.

교원 자질 향상 사업을 새 환경에 적응하게 더욱 개선 강화할 목적으로 중앙 교육 간부 학

교와 각 도 교육 간부 학교들을 폐지하고 중앙 교육 간부 학교는 평양 사범 대학에, 각 도 교육 간부 학교는 해당 도에 설치된 사범 대학 및 교원 대학에 각각 통합하였다.

【통신 교육】 1962년에 각급 학교 통신 교육망이 대대적으로 확장되였다.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각지 근로자들이 현직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을수 있는 통신 교육망이 50개의 대학과 365개의 기술 학교, 고등 기술 학교 및 중등 전문·학교에 설치되여 있다.

그 밖에 내각 결정 제 20호 《국가 및 사회 협동 단체, 기관, 기업소 관리 일'군들과 재직 간부들에게 전문 기술 교육을 실시할 데 관하여》 (1962년 3월 2일)에 의하여 15개의 대학과 138개의 고등 기술 학교에 재직 간부반이 각각 더 설치되여 1만 1천 여명의 첫 신입생을 받아 들였다.

대학에 설치된 4년제 통신 재직 간부반과 고등 기술 학교에 설치된 3년제 재직 간부반(입학생들의 지역적 분포 정형에 따라 통신 혹은 공장 고등 기술학교의 방법으로 교육한다.) 졸업생들에게는 해당 학과 지표의 기사, 전문가 및 기수, 중등 전문가의 자격을 부여한다.

1962년에 각급 통신 교육망에서는 13만 3천 여명이 공부하고 있었으며 1만 3천 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통신 교육망의 급속한 확장에 따라 1961년 말에 고등 교육성에 설치된 통신 교육 지도국과 보통 교육성에 설치된 공장 및 통신 교육국이 1962년부터 자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 대학에도 통신 학생 지도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통신 교무부가 생겼다. 그리고 통신 학생들의 교종 및 지역적 분포 정형에 따라 학습반들이 재 정비되였다. 이리하여 새로운 현실에 맞게 통신 교육 지도 체계가 확립되였다.

통신 학생들의 자체 학습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교재를 렴가로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외에 해당 성들에서는 교재 안내서로서 구체적인 학습 지도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었다.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년 2회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외에 교원들을 직접 현지에 파견하여 지구별로 강의 또는 질의 응답을 조직하면서 그들의 학습을 정상적으로 지도 방조하였다.

이에 있어서 특히 함흥 의학 대학 교원들이 통신 대학생 현지 학습 지도를 위하여 휴대용 실험 교편물을 제작한 것은 통신 교육 사업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였다.

【성인 교육】 1958년 12월 1일부터 개교된 근로자 학교와 근로자 중학교는 각 기관, 기업소, 가두 및 협동 농장들에서 계속 광범히 조직 운영되고 있다.

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학교는 2년 간에 인민 학교 졸업 정도에 이르게 하며 근로자 중학교는 3년 간에 중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한다.

7개년 계획 기간에 전체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의 수준에까지 높임으로써 기술 및 문화 혁명을 더욱 촉진 시킬 데 대한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1962년에 성인 교육 사업은 보다 강화되였다.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8천 여 개의 근로자 학교, 4천 여개의 근로자 중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89만 6천 여 명의 근로자들이 망라되여 야간 또는 교대 별로 일하면서 공부하고 있으며 7,700 여 명의 우수한 교원들이 그들의 교수 교양 사업을 지도하고 있다. 1962년에 약 12만 명의 근로자들이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내각 명령 제 18호 《성인 교육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1962년 3월 17일)에 의하여 보통 교육성은 성인 교육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 성인 교육 사업을 전 사회적 운동으로 강력히 조직 전개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 체계가 더욱 확립되였으며 근로자 학교 및 근로자 중학교들의 물질적 토대도 더욱 튼튼히 꾸려졌다.

【교육 도서의 출판】 1962년에 각급 학교 교과서들을 급속히 전진하는 우리 나라 현실 발전의 객관적 요구에 맞게 편찬하는 사업이 계속 강력히 추진되였다.

고등 교육 부문에서는 1961년에 350 종의 대학 교과서를 편찬한 데 뒤'이어 1962년에는 666 종을 편찬하고 290 종에 걸쳐 220만 부를 출판하였다.

1962년에 편찬한 고등 교육 부문 교과서들 중 사회 과학 138 종, 자연 과학 216 종, 기타는 기술 과학 부문 교과서이다.

이밖에 대학 통신학부 학생용 교과서 230 종이 집필 및 출판되였다.

보통 교육 부문에서도 수 많은 교과서들이 새롭게 편찬되였거나 개작되여 출판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의 생동한 현실과 세계 과학의 최신 성과들을 담은 각급 학교 교과서들은 그 체계가 더욱 째여지고 과학 사상성이 일층 제고되였다.

문학 예술

1962년에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실천하는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문학 예술인들은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데 일차적 창작 방향을 돌리고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수 많이 창작하였다.

1962년에 문학 예술 분야에서 달성한 풍만한 창작적 결실은 작

가 예술인들이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문예 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조선 로동당의 문예 정책과 문예 분야에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강령적인 교시들에 철두 철미 립각하여 창작 실천에 구현시킴으로써만 이룩될 수 있었다.

이 해에 작가 예술가들은 창작 사업에서 인민 생활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현실 속으로 깊이 침투하여 생활을 전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주제와 천리마의 새 생활이 낳는 공산주의적 새 형의 인간을 작품에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당성, 계급성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수정주의, 복고주의 등 일체 낡은 부르죠아 미학 사상의 영향과 침습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그와 견결히 투쟁하였으며 우리의 문학 예술의 전투성을 가일층 제고하였다.

또한 문학 예술 분야에서는 창작 실천에서의 현대성, 민족적 특성의 구현, 서정성의 제고, 다양한 예술 형식의 창조에서 보다 전진을 이룩하였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공산주의적 당성의 표현은 작가 예술가들이 당이 제시한 당면한 혁명 과업의 수행에 일차적으로 필봉을 돌리고 당 정책을 무조건 지지 옹호하는 견결한 립장에서 볼 수 있는바 1962년도 문학 예술 작품에서 현실 주제 특히 6 개고지 점령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을 반영한 작품이 수많이 창작된 것은 그의 뚜렷한 례증으로 된다.

농촌 천리마 기수의 투쟁을 형상한 영화 《붉은 선동원》, 장막극 《지평선》, 장막극 수산물 고지의 영웅들을 형상한 경희극 《청춘의 활무대》, 직물 고지의 녀주인공들을 보여 준 중편 소설 《산새들》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합창곡과 관현악곡 《천리마 진군》, 《전설의 노래》를 비롯하여 기타 무용, 미술 분야에서도 허다한 현실 주제 작품이 창작되였다.

현실 주제 작품들에 일관된 주요 특징의 하나는 창작가들이 벅찬 천리마적 생활 현실과 그 속에서 성장 발전하는 새 형의 인간 전형들을 높은 창조적 격정으로 확인하고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 《붉은 선동원》, 경희극 《청춘의 활무대》, 중편 소설 《산새들》, 기타 일련의 작품들의 주인공들의 성격 형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욱 좋으리라는 미래에 대한 락관주의적 지향이 진한 색조로 그려지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바로 공화국 북반부의 발전하는 혁명적 현실이 문학 예술에 사실주의적으로 반영된 필연적 결과이다.

또한 현실 주제 작품에서 공통적인 다른 하나의 특징은 긍정적 주인공들의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는 혁명적 열정과 생활의 능동적인 조직자로서의 영웅주의적 기백이 낡고 진부한 것, 보수적인 것과 반동적인 것을 무자비하게 쓸어 버리며 부단히 새롭고 아름다운 것을 더 좋고 더 훌륭하게 창조하는 혁명성과 전투성이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철저히 증오하며 그의 앞잡이 지주, 자본가들을 반대하고 피로써 쟁취한 자기의 인민 주권과 조국 혁명의 모든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려는 로동 계급의 철석 같은 계급적 립장과 혁명 정신의 진실한 반영이다.

1962년도 문학 예술의 중요한 성과의 또하나는 1930년대의 공산주의 투사들의 빛나는 전형을 각 예술 형태를 통하여 훌륭히 창조한 것이다.

장편 서사시 《밀림의 력사》, 유화 《조국 광복을 위하여》, 조각 《인민 영웅탑》 (4분의 1 축소 원형), 장막극 《청년 시절》, 영화 《돈화의 수림 속에서》, 인민상 계관 작품 무용극 《붉은 기'발》 등은 1930년대 항일 혁명 투사들의 전형 창조에서 대표적 작품들이다.

이상 작품들은 력사적 인물과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주인공들의 성격 속에 체현되여 있는 혁명적 락관주의를 투철하게 밝혀냄으로써 그들의 투쟁 정신과 업적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련계되여 있는 혁명 전통의 계승성을 진실하게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혁명 전통 주제 작품들의 사상 예술적 의의는 공산주의 투사들의 고매한 혁명 정신으로 독자, 관중들을 교양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자—천리마 기수들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항일 혁명 전통의 직접적인 계승자이라는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고도로 자각케 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하게 된 데 있다.

영광스러운 항일 혁명 전통이 오늘의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승 발전되고 있는가를 전면적으로 폭 넓게 보여 주려는 작가, 예술가들의 창조적 지향은 1962년도에 커다란 결실을 이룩하였다.

인민상 계관 작품 음악 무용극 《밝은 태양 아래》와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 제 1부는 그의 대표작들이다. 이러한 작품들의 중심에는 항일 혁명 투사들이 서 있으며 구성상에서 과거와 현재의 련계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막론하고 주인공들의 혁명 정신과 생활 실천에는 철두 철미 항일 혁명 전통의 고매한 혁명 정신과 투쟁 업적이 계승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62년도 문학 예술 분야에서 일보 전진을 이룩한 뚜렷한 표징의 하나는 작품의 전투성과 서정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예술적 형상성을 제고한 점이다.

이것은 우리의 당적 문학 예술이 시대 정신을 체현하며 동시대인의 미학적 욕구를 해결함에 있어서 달성한 커다란 성과이다.

우리 문학 예술의 강한 전투성은 우선 반영 대상인 천리마 현실의 시대 정신에 의하여 규정될 뿐만 아니라 창작가들의 혁명적 세계관, 당적 립장으로부터 규정지여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투성은 《딱딱

한 것》, 《무미건조하고 생경한 것》과는 인연이 없는바 우리 문학 예술의 전투성은 풍만한 서정성과 융합되여 호상 침투되는 관계에 있다.

우리 문학 예술이 보여 준 이러한 높은 전투성과 서정성의 융합은 수정주의자들과 타락한 부르죠아 문사들이 소위 《초 계급적인 전 인류적인 예술》, 《흥미 있는 문학》, 《쾌락을 주는 예술》을 제창하며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 예술의 당성과 전투성을 비방하고 거세하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창작 실천을 통하여 분쇄한 데서 커다란 모범으로 되였다.

특히 《예술성으로 더욱 강하여진 고상한 사상성》을 어떠한 작품을 평가함에 있어서든지 준칙으로 삼는 우리 문학 예술의 형상성이 더욱 제고된 사실은 작품의 높은 사상성을 담보하는 기초로 되였다.

가극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와 동명의 음악 영화는 피로써 쟁취한 인민 주권과 땅, 자유와 행복을 무한히 귀중히 여기는 인민들이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향토와 부모, 처자, 조국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백절 불굴의 투쟁 정신과 고상한 애국주의, 원쑤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높은 격정 속에 보여 주면서 시종 일관 그 기저에 서정적인 연조 조명을 비쳐 주고 있다.

이러한 형상 속에서 강하게 울려나오는 혁명적 락관주의는 심히 전투적인 동시에 높은 서정성을 띠게 되였다.

1962년도 문학 예술은 유산 계승에서 복고주의를 반대 배격하고 계승과 혁신의 맑스—레닌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데서도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고전적 력사물 창조에서의 현대성의 구현, 전통적인 민족 예술 형식에의 사회주의적인 새로운 내용의 반영, 민족적 바탕에 기초한 현대인의 미감에 맞는 성격의 태와 새로운 선률과 률동의 창조는 1962년도 문학 예술 창조에서 주요한 투쟁 목표로 되였으며 또 이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력사물 주제 취급에서 장막극 《연암 박 지원》과 장막극 《두만강》은 인물과 사건을 력사적 구체성 속에서 묘사하면서도 주제 사상과 인물 성격을 현대성의 견지에서 제시함으로써 높은 인식 교양적 의의를 획득할 수 있었다.

작가, 예술가들은 김 일성 동지의 1962년 3월 11일 교시를 받들고 새로운 천리마의 벅찬 현실을 전통적인 민족 예술에 담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가극《붉게 피는 꽃》과 조선화 분야에서 전통적인 혁명 전통 주제와 천리마 현실 주제의 해결 그리고 음악 분야에서 민족적 선률에 기초한 격정 높은 음악의 창조와 조선악기의 개량에 의한 전투적인 음악 연주의 길의 개척과 민족 관현악 구성의 기초 축성은 그러한 성과와 일례로 된다.

특히 무용극 형식은 고전적 력사물 주제 령역에 머물러 있었던 지난 시기의 제약성으로부터 멀리 벗어났는바 《밝은 태양 아래》, 《붉은 기'발》, 《유격대의 딸》 등은 무용극 또는 음악 무용극의 새로운 예술 형식을 창조하면서 혁명적이고 사회주의적 내용을 성과 있게 반영하였다.

1962년도 문학 예술 발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주제의 령역이 비상히 확대되고 다양한 예술 형식이 창조된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현실 주제 작품 특히 로동 계급을 취급한 작품과 혁명 전통 주제 작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게 된 긍정적 추이는 또한 력사물 주제나 군사물 기타 령역에로의 주제 확대를 제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주제 작품의 촉발, 그의 배합으로 하여 이채를 띠웠다.

그리고 주제 령역 즉 문학 예술이 담아야 할 내용의 다양화는 필연코 예술 형식의 다양화를 자극하면서 커다란 요구성을 제기하게 되였는바 작가, 예술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생활적 욕구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다.

문 학

1962년도에 문학 분야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루어졌다.

소설가, 시인, 극작가들은 김 일성 동지의 1960년 11월 27일 교시를 받들고 인민 생활 속으로 보다 깊이 침투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서 제기되는 초미의 문제를 적극적이고도 예리하게 반영하였다. 여기서 특히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천리마 기수들의 증산 투쟁에 일차적 주목이 돌려지고 주제 령역을 훨씬 넓히였다.

현실 주제 작품들에서의 생산 공정이나 기술 문제에 대한 피상적 라렬을 훨씬 극복하고 생활을 창조하는 인간들의 정신 세계의 폭넓은 개방, 그들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새것과 낡은것 간의 충돌의 사회적 의의를 높은 예술적 형상 속에 천명하려는 추향이 보다 뚜렷하여졌다. 뿐만 아니라 작가들이 현실 침투 과정에 당 정책을 심장으로 파악하고 생활을 깊이 통찰 함으로써 생활 형식에 기초한 고상한 예술적 기교를 보여 주었다.

【소설 문학】 이 해의 소설 창작에서 커다란 성과작의 하나는 장편 소설 《대하는 흐른다》 제 1부(천 세봉 작)이다.

《대하는 흐른다》에 그려진 생활은 8.15 해방으로부터 그 이듬해 3월 토지 개혁까지의 반년 남짓한 기간이다. 그러나 이 기간에 일제 잔재의 숙청, 인민 정권의 수립, 당과 사회 단체들의 조직, 민족 간부 양성, 농민들의 3.7제 투쟁과 토지 개혁 등 실로 거대한 력사적 위업들이 성취되였는바 작가는 이 기간의 거대한 력사적 위업의 수행 과정을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진실하게 모

사하였다.

각이한 계급과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 성격의 형상, 구성과 슈제트 설정에서의 첨예성, 급속도로 줄기차게 전진하는 혁명 정세의 정황 속에서의 각이한 인간들의 준엄한 시련 등으로 하여 작품은 사회 계급 투쟁의 전모를 혁명 투쟁의 가장 복잡하고 결정적인 단계에서 폭 넓게 보여 주었다.

중편 소설 《산새들》(리 정숙 작)은 방직공 처녀들의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천리마 기수들의 높은 정신 세계와 고상한 도덕적 풍모를 감명 깊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우리의 현실에서 흔히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보통 처녀들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들이 로동에 대한 진지성과 높은 사회적 자각, 집단과 동지를 위한 무한한 헌신성, 조국의 미래를 꿈꾸는 리상의 아름다움으로 하여 결코 보통 인간들이 아니며 우리 시대—천리마 시대가 낳은 참다운 새 형의 인간들이라는 것을 진실하게 묘사하였다.

1962년도에 소설 분야에서는 특히 전투적 형식으로 되는 단편 소설 창작이 그 어느때 보다도 왕성하게 진행되였는바 주제 령역의 확충, 시대 정신을 체현한 새 형의 인간들의 적극적인 등장, 작가들의 각양한 스찔의 개화로써 특징지어 진다.

석 윤기의 《폭풍우》, 김 현국의 《잠수 견습공》, 현 희균의 《아침 노을》, 김 홍무의 《청년들》, 김 병훈의 《궁지》, 김 북향의 《기약》, 류 도희의 《행복한 날에》, 최 학수의 《궤도를 따라》, 박 종모의 《녀 차장과 청년》, 고 동온의 《벗》 등은 그중 성과적인 작품들이다.

단편 소설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년중 계속 활발하게 진행된 이 쟌르의 창작 문제와 관련한 리론적 토론들이 실천적 도움을 주었다.

【시 문학】 시 창작 분야에서는 수많은 서정시들이 창작되였는바 그중 박 세영의 《보천보의 홰'불》, 백 인준의 《대동강에 흐르는 이야기》, 김 상훈의 《인계》, 양 운한의 《첫 기둥을 세우고》, 장 건식의 《그 어느 곳에서도》, 홍 창원의 《수리개가 사는 곳》, 전 천례의 《바다》, 일심의 《그 웃음, 그 사랑 영원하리》, 원 진관의 《나의 보도》, 정 동찬의 《먼 바다 우에서》, 안 성수의 《일어나라 샤오메이》, 동 승태의 《간물상 장수 바위에서》, 리 맥의 《카리브해에 태양이 솟아 오른다》, 정 서촌의 《조국의 해와 달과 별을 두고 생각할 때》, 박 팔양, 리 맥, 허 우연 합작인 《인민은 노래한다》, 리 효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박 산운의 《호박 대가리》 등은 성과적인 작품들이다.

서정 서사시와 서사시들도 활발히 창작되였는바 박 세영의 서사시 《밀림의 력사》를 비롯하여 백 하의 서정 서사시 《장군의 어머니》, 안 충모의 《연풍 호반에서》등은 혁명 전통과 수령을 노래한 작품들로서 성과작들이였다.

1930년대에 항일 빨찌산들이 쌓아 올린 불멸의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서사시 《밀림의 력사》는 김 일성 동지께서 친히 인솔한 영웅적 빨찌산의 한 부대의 력사를 가장 전형적인 력사적 사건에서 보여 주면서 주인공의 위대한 업적을 우리 인민의 력사와 련결 시키고 있으며 수령의 높은 덕성과 인민과 동지에 대한 사랑, 열렬한 애국주의 사상, 탁월한 령군술 등이 소박한 필치로서 훌륭히 형상화되였다.

【극문학】 극문학 분야에서는 천리마 기수들을 형상화한 지 재룡의 경희극 《청춘의 활무대》, 오 철순, 김 광익 합작인 《지평선》과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한 태천의 희곡 《청년 시절》, 김 승구의 씨나리오 《돈화의 수림 속에서》 등이 창작되였으며 력사적 주제인 송 영의 《연암 박 지원》등 성과작들이 창작되였다.

【아동 문학】 아동 문학 부문에서는 1930년대에 《아동단》에 망라된 어린이들이 유격대를 도와서 싸우는 슬기로운 모습을 묘사한 김 근오의 중편 소설 《소북하마을 소년들》을 비롯하여 조국 해방 전쟁 시기 후방 소년들의 영웅성을 이야기한 김 병훈의 단편 소설 《꼬마 사령관》과 알곡 5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을 동화화한 김 신복의 동화 《가장 귀중한 것》, 공산주의 도덕 교양을 주제로 한 우 봉준의 동화 《조고만 화분》들과 동요, 동시들인 리 원우의 《내 고향 자랑》, 《원수님과 함께》, 윤 복진의 《작고도 큰 우리 골목》, 윤 동향의 《진달래야 진달래야》, 《쌀방아 떡방아》 등 성과 작들이 창작되였다.

【외국 문학】 외국 문학 부문에서도 고리끼의 소설들인 《어머니》, 《여름》, 기행문 《아메리카에 대하여》와 파제예브의 장편 소설 《우데게족의 마지막 사람들》 (조 맹연 역), 빤표로브의 장편 소설 《부르쓰끼》(박 정원 역)와 양 말의 장편 소설 《청춘의 노래》 (백 준선 역)를 비롯하여 중국의 많은 단편 소설과 시 편들 그리고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민족 해방 투쟁에 궐기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작가들의 단편 소설 및 서정시 200여편이 번역 출판되였다.

【문학 평론】 문학 평론 분야에서는 우리 당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우리 나라에서 창조적으로 구현 발전된 맑스—레닌주의 문예 리론을 심도 있게 체계화하고 일반화 한 론문집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 문예 리론의 창조적 발전》을 내놓았으며 고전 문학 유산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18 세기 우리 나라 실학 사상의 거장인 약용 정 다산의 창작 유산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고전 연구가들의 저작집 《정 다산과 그의 문학》을 출판하였다.

음 악

1962년도 음악 예술 분야에서는 음악 창작에서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을 구현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1962년 3월 11일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커다란 성과가 달성되였다.

1962년에 민족적 바탕에 기초한 현대인의 미감에 맞는 다양한 형식의 음악 작품이 수 많이 창작되였으며 음악에서의 전투성, 락천성, 서정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경지에서 구현되였다.

특히 이해에 음악 예술 분야에서 달성한 혁신적 성과의 하나는 극 음악의 왕성한 창작이다.

인민상 계관 작품 음악 무용극 《밝은 태양 아래》(조 명출 대본, 집체 작곡)를 비롯하여 가극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위 장혁, 박 근 작, 황 순현, 전 두철 작곡), 민요극 《붉게 피는 꽃》 (백 인준 작, 집체 작곡), 가극 《어머니 품》 (전 종길, 장 락희 작곡), 그리고 중국의 고전 작품을 번역 각색한 창극 《홍루몽》 (인민상 계관인 인민 예술가 리 면상, 공훈 예술가 신 영철 곡) 등 일련의 성과작들을 들 수 있다.

이 작품들의 혁신적 성과는 민족적인 가극 전통에 기초하여 새로운 주제 사상적 내용에 상응한 현대적 미감에 맞는 훌륭한 음악 형식을 창조한 데 있다.

특히 음악 무용극 《밝은 태양 아래》에서 음악이 성공한 기본 요인은 작품의 쟌르상 특성을 옳게 타산하고 주인공들에게 부여된 주도적 동기를 그들의 생활에 기초하여 론리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음악의 극성을 훌륭히 살린 데 있다.

창작가들은 이 작품의 음악 형상에서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을 더욱 부각하기 위하여 1930년대의 혁명 가요들의 음조적 특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가장 대중적이며 생기있는 민요 음악의 선률들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리용하였고 현대가요 창작에서 달성한 경험들과 특징을 창조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주인공들의 모찌브 음악을 비롯하여 그들의 심리—서정 토로와 군중적인 합창, 중창, 기타 일련의 음악 장면들에서 두드러지게 표현되였다.

또한 1962년도에 관현악, 합창, 중창, 병창, 군중 가요 창작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가져왔다.

그중에서 관현악곡으로된 민요조곡 (공훈 예술가 리 정언 곡), 경축 서곡 (김 윤봉 곡)과 합창과 관현악곡으로 된 《천리마 진군》 (조 길석 곡), 《건설의 노래》(김 준도 곡), 《번영하라 조국이여!》 (모 영일, 김 재선, 허 재복 곡), 중창곡《황금 나무 능금 나무》(김 옥성곡), 《빨찌산의 뻐국새》 (김 시영 곡)등 우수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당 문예 정책을 받들고 투쟁한 음악가들이 거둔 풍만한 결실은 민족 악기 개량 사업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시대적 미감, 특히 음악의 전투성과 서정성을 제고함에 있어서 민족 악기가 가지고 있던 일부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곡가, 연주가들은 악기들의 음의 폭과 량을 높이여 표현 기능을 가일층 제고하였다.

그리하여 전투적인 현실 주제 작품과 혁명 가요 창작에서 민족 악기들의 역할이 제고 되였으며 민족 악기로써 관현악 편성을 높은 경지에서 완성할 수 있는 토대를 축성하였다.

미 술

1962년도에 미술가들은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을 창작하는 한편 1963년도에 개최될 국가 미술 전람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사업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이 창작 과업의 중심에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 천리마 기수들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과 동시에 1930년대의 항일 혁명 투사들의 불멸의 위훈을 화폭 속에 진실하게 형상하는 문제가 놓여 있었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술가들은 집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현실에 깊이 침투하고 생산 현장과 농 어촌에 직접 창작 기지를 설정하고 창작 활동을 진행하였다.

미술 분야에서의 창작적 성과는 《영광스러운 항일 무장 투쟁 회상 전람회》를 비롯하여 《풍경화(명승지)전람회》, 《도자기 및 산업 미술 전람회》와 《정 관철, 문학수 항일 무장 투쟁 전적지 답사 회화 작품 전람회》 등에 여실히 반영되였다.

집체작인 유화 《조국 광복을 위하여》와 보천보에 건립된 조각 《김 일성 원수 동상》, 혜산에 건립된 조각 《인민 영웅탑》 (4분의 1 축소 원형)은 우리 인민의 영명한 수령 김 일성 동지에 대한 전체 조선 인민의 다함 없는 신뢰의 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였는바 이 작품들은 조형 예술 발전에서 그의 높은 주제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으로 하여 새로운 모범으로 되였다.

이와 함께 1930년대의 항일 빨찌산들을 형상한 작품들인 유화 《그이는 우리를 당의 아들로 이렇게 키워 주셨다》 (양 재혁 작), 유화 《첫 행군의 날에》 (홍 성천 작), 유화 《김 명화 어머니의 초상》 (김 덕조 작), 조선화 《구시 물동》(리 길남 작), 조선화《대홍산 전투》 (안 상묵 작) 등은 주인공들의 높은 혁명 정신과 백절 불굴의 투지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박력 있는 필치로써 묘사하였다.

특히 조선화 분야에서 이전 시기에 흔히 자연 풍물의 묘사 령역에 그치던 편향을 극복하면서 적극적인 주제를 반영하며 그의 예술적 형상화에서 현대인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묘사 기법의 개척, 인물 군상의 동적 구사, 전투적 기백의 충만 등의 긍정적 추향

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미술 분야에서 선조들이 이룩한 우수한 민족 미술 유산을 계승 발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진일보로 된다.

뿐만 아니라 서정적 주제 작품의 창작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이 나왔는바 명승 고적들을 반영한 유화 《모란봉》(황 헌영 작), 조선화 《박연 폭포》(리 근화 작), 조선화 《백무 고원》(황 영준 작) 등을 들 수 있다.

자수와 공예 미술도 발전 하였는바 특히 목조 상감 병풍《1,211 고지의 용사들》은 화폭에 충만된 높은 전투적 기백과 정교한 기교로 하여 공예 제작 분야에서 일보 전진을 가져온 작품이다.

무대 미술과 산업 미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는바 그중 산업 미술은 이전 시기에 비하여 매우 활발하게 창작되였고 주제 령역도 훨씬 확대되였다.

무 용

1962년에 무용 예술 분야에서는 장막 또는 중막 무용극을 비롯한 각종 주제와 형식의 무용 소품들이 수 많이 창작되였다. 이 해에 무용 창작에서 나타난 뚜렷한 성과는 민족 무용극 발전에서 대형식의 무용 작품 창작으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놓은 것이다.

특히 음악 무용극 인민상 계관작품 《밝은 태양 아래》(국립 예술 극장 창조), 무용극 인민상 계관작품 《붉은 기'발》 (평양 예술 대학 창조), 무용극 《유격대의 딸》 (국립 무용 극장 창조)과 같은 작품들은 사상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였다.

이 작품들의 혁신적 의의는 무용 예술 분야에서 혁명 전통 주제와 현실 주제의 령역을 일층 확대하였을 뿐만아니라 그의 예술적 형상화에서 높은 경지를 개척한 사실이다.

인민상 계관 작품 음악 무용극 《밝은 태양 아래》의 무용 형상에서의 특징은 시대의 서사시적 화폭을 전개하면서 주인공들의 내면 세계를 심오하게 파고 들며 극의 전반에 약동하는 기백을 충만시킨 점이다. 이 작품에는 만경대의 아침을 상징하는 해'살춤, 꽃봉오리들의 씩씩하고 명랑한 춤, 민족적 정서가 그윽한 추석 놀이춤, 빨찌산들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혁명적 기백을 격조 높이 보여준 전투 무용, 청년 건설자들의 락관적인 춤, 홍수와 싸우는 건설자들의 영웅적인 춤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환희와 기쁨을 그 에 상응한 형식으로 묘사한 서정적이며 화려한 대군무등 10 여개의 무용이 있다. 이러한 무용들은 전체적으로 극 발전의 매 계기마다에서 효과적으로 리용되면서 극을 전진시키거나 정서적 운치를 더하여 주면서 전일적인 활달한 률동의 흐름속에 융합되고 있다.

무용 창작가들은 이 작품이 포괄하는 시대적 배경과 주제의 진폭을 원만히 구사하기 위하여 무용 예술의 모든 형상 수단과 표현 형식들을 능숙하게 리용하면서 작품의 초과제와 주인공의 관통 행동과 성격 발전, 그리고 시대적 정황들을 진실하고 격조 높이 형상화하였다. 인민상 계관 작품 무용극 《붉은 기'발》은 주인공 최 병훈과 그의 딸 복순의 고매한 정신 세계를 민족 무용 형식과 형상 수단에 기초하여 박력있고 예리한 행동 언어로써 훌륭하게 보여 주었는바 특히 혁명적 락관주의로 충만된 복순의 환상 장면의 처리에서 행동 언어의 새로운 표현성을 탐구한 것으로써 리론 실천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

무용 소품 창작에서는 주제 령역이 확대되였고 형상 수법이 다양하여졌으며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 구현에서 진일보의 전진을 보여준 작품들이 다수 창조되였다. 그중에서도 3인무 《사당춤》, 독무 《북춤》, 군무 《지상 락원》등은 주제의 생신성과 기교와 섬세성으로 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집약되고 간결한 동작과 률동 속에서도 조선 인민의 락천적이고 근면하며 강의한 성격적 기질과 아름다운 리상을 감명 깊게 보여 주면서 우리 시대 인민들의 환희에 찬 행복한 생활 감정을 생동하게 구현하였다.

연 극

1962년도에 중앙과 지방의 연극 무대들에서는 장막, 중막, 단막 연극 수십편이 창조 상연되였다.

이해의 연극 창조 사업의 성과는 8.15 해방 17 주년 기념 전국 연극 축전 무대에서 여실히 과시되였다.

창작품 중에서 절대적 비중이 현실 주제 작품이였으며 형상화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현실의 기록적 라렬, 갈등의 인위적 과장과 도식적 해결등의 편향이 극복되였다. 그 중에서도 장막극 《지평선》 (남포 연극 극장 공연)과 장막 경희극 《청춘의 활무대》 (원산 연극 극장 공연)는 이 해의 무대극 창조에서 성과를 거둔 대표작들이다.

경희극 《청춘의 활무대》는 전진 도상에서의 새 것과 낡은 것의 투쟁을 매우 감명 깊게 형상하고 있는바 긍정적인 것에 대한 명쾌한 웃음 속에서의 확인, 낡고 보수적인 것에 대한 가벼운 웃음으로써의 비판은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의 각이한 성격 창조에서 섬세한 서정성을 동반케 하였다.

1962년도에 연극 예술 분야에서 달성한 또 하나의 큰 성과는 항일 혁명 선렬들의 우수한 전형을 창조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청년 시절》(혜산 연극 극장 공연) 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김 일성 동지의 충직한 전우이며 백절 불굴의 혁명 투사인 박 달 동지가 국내에서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을 조직하고 청년들을 혁명 투사로 육성 단련하는 과정을 진실하게 보여 주었다. 창조자들은 력사적 인물의

형상화에서 지난 시기 기록성 일면에 치우침으로써 개성을 보여주지 못하던 결함을 극복하면서 력사적 구체성 속에서 전형적 성격을 진실하게 창조하였다.

력사물 창조에서 현대성을 옳게 구현한 다른 성과작의 하나는 봉건 량반 통치 계급의 부패 타락과 가렴 주구를 반대하여 일떠서기 시작한 농민 투쟁의 시대적 폭풍 속에서 실사구시와 리용 후생의 진보적 사상을 집대성화한 18세기의 탁월한 사상가인 연암 박지원을 형상한 장막극 《연암 박지원》 (국립 연극 극장 공연) 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의 창조자들은 예술 창작에서 계승과 혁신, 현대성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미학 원칙을 심오하게 천명하여 주신 김 일성 동지의 1962년 3월 11일 교시에 철두 철미 의거함으로써 현대인의 지향과 미학적 요구에 부합되는 우수한 작품을 내 놓을 수 있었다.

영 화

1962년도에 영화 예술 분야에서는 김 일성 동지의 1960년 11월 27일 교시를 계속 관철하는 길에서 사상 예술적으로 우수한 일련의 영화들이 창조되였다.

예술 영화 《붉은 선동원》 (씨나리오 조 백령, 연출 인민 배우 박 학) 은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청산리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 새롭게 성장 발전하는 공산주의적 인간 성격의 매혹적인 형상을 보여주었다.

이 영화는 변모되는 위대한 천리마 현실 속에서 새 것과 낡은 것 간의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며 거기서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 교양 방법인 긍정을 통한 부정의 감화 교양이 얼마나 거대한 열매를 이룩하는가를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바 작품의 중심에 서 있는 붉은 선동원 리 신자는 집단과 동지를 위하여 능히 자기의 청춘과 모든 힘을 서슴 없이 바칠 줄 아는 새 형의 공산주의적 인간 전형이다.

영화 창조자들은 작품의 높은 주제 사상을 예술적 형상 속에서 천명함에 있어서 독특한 영화적 형상을 창조하였다. 특히 이 작품에서 교훈을 주는것은 영화적 형상 수단과 수법에 의한 인간 심리 세계의 섬세한 개방, 전투성과 서정성의 구현에서 그의 통일적 융합을 우수하게 해결한 점이다. 그 모든 것들은 조형적 언어, 음향 언어 그리고 배우 연기를 통한 성격의 본질적 측면의 개방에서 해결되고 있다. 그리하여 자연 풍물을 수록한 화면의 삽입이나 대사로서의 설명보다 구체적 형상을 통한 생동한 성격 창조가 그의 모법으로 되고 있다.

음악 영화 《이것은 전설이 아니다》 (원작 위 장혁, 박 근, 연출 오 병초) 는 지난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의 어려운 조건 하에서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인민 주권—혁명의 모든 고귀한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하여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한 참다운 로동당원의 형상을 보여 준 작품이다.

이 영화는 종전에 음악 영화 창작에서 걸리고 있던 일련의 리론 실천적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한 모범으로 되는바 특히 주인공의 고매한 정신 세계를 가극적 언어와 영화 언어의 유기적 배합 속에서 우수하게 보여 주었으며 시적 랑만과 전투적 기백을 함축되고 간결한 화면 형상으로 박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화면의 조형성, 동적이며 박력 있는 구도, 섬세한 조명 등은 음악 영화에서 특히 아리야 장면의 단조로운 한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보다 심오하고 아름다운 정서 세계의 개방에로 돌입하고 있다.

예술 영화 《돈화의 수림 속에서》 (김 승구 씨나리오, 손 무표 연출)는 항일 빨찌산 투사 김 명화 어머니의 강인한 혁명가적 투지와 높은 혁명 정신을 감명 깊게 보여 주었다.

기록 영화 분야에서도 《위대한 승리》 (김 영상 씨나리오 및 연출), 《당의 말》, 《우리 어머니》 등 일련의 성과작들을 창조하였는바 이 작품들도 우리 주인공들의 고매한 정신적 높이와 성격의 미에 의해서만 아니라 그에 대한 창작가들의 개성적인 예술 형식의 창조로 하여 우리 생활과 혁명 동지들에 대한 사랑과 애착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고 있다.

과학 영화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성과들이 달성되였는바 기술 혁명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천리마 기수들의 새로운 성과를 널리 소개 일반화하기 위한 《기술 시보》가 정기적으로 제작되였으며 기타 과학 영화들이 수 많이 제작되였다.

만화 인형 영화 분야에서도 량적으로 장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성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는바 만화 영화 《알곡 500만톤》도 그러한 작품중의 하나이다.

군중 문화

【구락부 및 민주 선전실】 1962년 1월 31일 내각 결정 제 6호 《군중 문화 사업과 대중 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가 하달된 후 구락부 및 민주 선전실 사업은 일층 개선 발전되였다.

1962년 말 현재 공화국 각지에서 623개의 구락부와 2만7,835개의 민주 선전실이 정비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였다. 특히 민주 선전실은 사상 교양 사업의 거점인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바 작업반 민주 선전실은 1961년의 2만 1,441 개로부터 2만 3,481개로 증가되였다.

구락부, 민주 선전실에는 도서, 영사기, 오락 기구, 라지오, 악기들이 갖추어져 있다.

1962년에 구락부 및 민주 선전실들에서는 근로자들의 문화 사업 조직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였

다. 그리하여 구락부 및 민주 선전실은 매시기 제기되는 당 정책을 해설 선전하며 조선 로동당의 빛나는 혁명 전통과 공산주의 사상으로 대중을 교양하는 대중 교양의 중심처로 되고 있다.

【도서관】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국립 중앙 도서관을 비롯하여 12개의 도 (직할시)립 도서관과 178개의 시, 군 (구역)도서관, 37개의 아동 도서관 등 총 228개의 군중 도서관이 설치되여 있으며 각 도서관들의 장서 수는 588만 4천부에 달하였다.

이 밖에 우리 나라에는 500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공장 도서관(도서실)들이 설치되여 있다.

1962년에 도서관 시설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여 많은 도서관들이 질적으로 꾸려졌으며 3차에 걸치는 신입 도서관 일'군들을 위한 강습을 통하여 도서관 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 수 있게 하였다.

1962년에 각급 도서관들에서는 항일 무장 투쟁 개시 30주년을 기념하여 4~6월까지를 혁명 전통 주제의 독서 월간으로 정하고 대중적 독서 운동을 진행하였으며 6월에는 량강도 보천군에서 전국적인 독서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박물관】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조선 혁명 박물관, 국립 중앙 력사 박물관, 국립 중앙 미술 박물관, 국립 중앙 민속 박물관 등 중앙급 박물관들과 보천보 전적지 기념 박물관, 신천 박물관, 묘향산 박물관 등 특수 박물관들이 있으며 각 도 소재지 (평남도 제외) 에 력사 박물관들이 있다. 이외에 조국 해방 전쟁 기념관(평양시)과 중강진 기념관들이 있다.

1962년에 박물관들은 과학 문화 대중 교양 기관으로서의 면모와 내용에서 적지 않은 전진을 가져 왔다. 총 건평 2,800 여 평방메터의 보천보 박물관 건설 공사가 진행되였으며 신천 박물관이 그 규모를 확장하고 내용을 보충하였다.

전국 각 박물관들에서는 진렬 내용을 확충하기 위하여 유물 수집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여 년간을 통해 12만 여점이 수집되였다.

그리하여 조선 혁명 박물관을 비롯한 각 박물관들에서 진렬 체계를 재 정비하고 전시 내용을 개선 함으로써 인민 대중들에 대한 혁명 전통 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에 기여하였다. 1962년에 전국 박물관들에서의 관람자 수는 220만 여명에 달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 각지 박물관들에서는 혁명 투사들과의 상봉 모임을 비롯한 550 여 회의 각종 군중 행사들이 조직되였으며 국립 중앙 력사 박물관에서의 《정 다산 전람회》를 비롯하여 350 여 회의 박물관내 전람회 및 이동 전람회가 조직 되였다.

【혁명 전적지 정비】 항일 빨찌산들의 고상한 혁명 정신과 그들의 투쟁 업적을 배우려는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의 열의가 앙양됨에 따라 1962년에 량강도와 함경북도 일대의 혁명 전적지의 건설 및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보천보 전투 승리 25주년을 계기로 보천보에 김 일성 동지의 동상이 새로 건립되였으며 인민 영웅탑 건설 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답사자들을 위하여 무두봉에서 백두산 산정까지의 답사 도로가 새로 완비되였고 청봉—삼지연 간의 도로 공사가 성과적으로 진척되였다.

또한 3,000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혜산 숙영소와 곤장덕 기슭에 2개의 숙영소가 설치되였고 소년단 야영소가 새로 건설되였다.

이밖에 량강도, 함경북도 일대의 혁명 전적지의 유적 및 기념물들의 보수 정비 사업이 진행되였으며 현지 답사 사업이 진행되였다.

【문화 유물 보존 사업】 1962년에 문화 유물에 대한 새로운 조사 사업이 진행되였다. 평북도내의 문화 유물, 명승지 및 천연 기념물에 대한 조사 사업으로 근 700개 대상이 재조사 등록되였다.

또한 문화 유물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이 진행되였는바 평양 보통문, 평남도 성천 방원루의 개축 공사와 금강산 표훈사, 개성 류수영 문루 등의 대보수가 진행되였으며 개성 추궁, 강계 인풍루, 함남 자혜사 등이 아름답게 단청 정비되였다.

【극장 및 영화관】 1962년에 95개소의 극장, 영화관이 신설 확장되였다.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19개소의 극장과 531개소의 영화관이 운영되였으며 극장, 영화관 좌석 수는 27만 555석 (그중 극장 좌석 수는 2만 6,620석)으로서 1961년에 비하여 107%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 각 영화관에서의 영화 상영 회수는 전년보다 2만 4,465회나 더 많은 41만 1,328회, 그의 관람자 수는 1억 4,269만 명에 달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 예술 발전의 현실에 맞게 각 도의 도립 예술 극장들을 가무단과 연극단으로 분리하는 사업이 진행되여 10개의 전문 예술 단체가 더 증가되였으며 무대 예술인 대렬도 1954년의 2배로 장성되였다. 그리하여 각 극장들에서는 연 1만 1, 355회의 공연 활동이 진행되여 889만 2,000 여명이 이를 관람하였다. 1962년에 극장, 영화관들에서의 관람자 총 수는 1961년에 비하여 102%로 장성되였다.

【전람관】 1962년 말 현재 상설 전람관으로서 평양에 공업 및 농업 전람관, 건설 전람관, 어머니 전람관들이 있다.

◇공업 및 농업 전람관 (1956년 9월 27일 창설)은 1961년 조선 로동당 제 4차 대회를 맞으면서 6,600종에 달하는 1만900 여점의 전시품들을 전시한 후 1962년에 여섯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달

성한 성과를 보여주는 수많은 전시품들이 새로 보충되였으며 야외 진열장에 과학 영화 상영 시설이 새로 설치 되였다. 공업 및 농업 전람관은 제 1 관, 제 2 관, 제 3 관 등 3개의 기본관과 야외 진렬장으로 구성되여 있다. 1962년에 동 전람관의 관람자 총 수는 전년에 비하여 117%로 장성되였다.

◇건설 전람관 (1961년 7월 14일 내각 결정 제 24호에 의하여 창설)은 2층으로 된 본관(건평 2,271 평방메터)과 기계 설비 및 부재의 야외 전시장으로 구성되여 있고 총 건평은 2만 4,790 평방메터에 달한다.

1962년에 건설 전람관은 20만 세대의 주택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된 성과들을 보여주는 1,300 여점의 사진, 도표, 사판, 모형 등 새로운 품종들을 보충하였는바 1962년 말 현재 전시품 총 수는 6, 500 여 종에 달한다.

본관은 종합관, 산업관, 설계관, 건구관으로 구분 되여 7개년 계획의 전망을 보여 주는 각종 도표들과 산업 건물 건설 모형, 각종 산업 설계 시안들, 각종 건구류들이 전시 되여 있다. 야외 전시장은 부재 전시장, 기계 전시장으로 구분되여 200 여 종의 각종 건설 기계들과 대형 경량 부재, 포물선형 산업 건물 구조 등 각종 부재들이 전시 되여 있다. 건설 전람관 관람자 수는 1962년에 4만 1천 여 명에 달하였다.

◇어머니 전람관 (1961년 전국 어머니 대회가 있은 후 1961년 11월 17일 상설 전람관으로 창설)은 전국 어머니 대회(1961년 11월 15일) 에서 공산주의 어머니가 되여 자녀들을 더 훌륭히 양육할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실천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꾸려졌는바 제 1관(종합 자료 및 탁아소 시기까지의 어린이 양육), 제 2관(유치원—초중시기 까지의 어린이 교양), 제 3 관 (어머니 교양) 으로 구분되여 있으며 총 건평은 1,500 평방메터이다.

1962년에 어머니 전람관에는 190 여점의 새로운 전시품들이 보충되여 사진, 그림, 모형들을 위주로 한 697점의 전시품들이 진렬되여 있다. 어머니 전람관의 관람자 수는 개관 당시의 1961년에 일 평균 600 여명이 였다면 1962년에는 일 평균 1,300 여명에 달하였다.

이밖에 평북도, 자강도, 황남도, 함남도, 함북도에도 공업 및 농업 전람관(상설 전람관)들이 있다.

【예술 써클】 군중 문화 예술 사업을 활발히 전개할 데 대하여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1962년에 근로자들 속에서는 군중 예술 활동이 보다 광범히 전개되였다.

국가에서는 군중 예술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454명의 전문 예술인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농촌 써클 지도자 강습 (1961.12 ～1962.2)을 각 시, 군들에서 조직 진행하였다. 이 강습을 통하여 1만 7,500 여명의 새 써클 핵심들이 육성되여 농촌 예술 써클 사업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게 되였다.

이밖에 각 도에 설치된 써클 지도자 양성소를 통해 1,125명의 새로운 써클 지도자들이 양성되였다.

전국 각지의 생산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된 각종 예술 써클 수는 1961년의 8만 5,400 여개로 부터 1962년 말 현재 9만 3,900 여개로 확대되여 운영되였으며 3만 3,000 여개의 기동 예술 선동대가 조직되여 생산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였다.

근로자들의 창작 열의도 앙양되여 수 많은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1962년에 진행된 6개 고지 점령과 관련된 문예 작품 현상 모집에는 1,300 여편에 달하는 창작품을 근로자들이 투고하였는바 그중 많은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중 예술 발전의 성과들은 1962년에 진행된 전국 예술 축전 농촌 부문 써클 공연,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경연, 전국 혁명 학원 및 초등 학원 예술 써클축전, 전국 소년 예술 써클 축전, 조선 인민군 제 11 차 군무자 예술 경연 대회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표현 되였다.

예술 축전

【전국 예술 축전 농촌 부문 써클 공연】 1962년 1월 8일부터 1월 23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전국 예술 축전 농촌 부문 써클 경연에는 전국 각지 176개의 협동 농장들에서 2,700 여명의 써클원들이 참가하였다,

두번째로 진행된 1962년도 농촌 부문 써클 경연 무대는 써클의 예술적 수준이 전년보다 일층 발전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축전 무대는 우리 문학 예술이 광범한 대중 속에 깊이 침투되여 그들의 소유로 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 속에서 대중적 창작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는바 무대에 오른 총 246편의 작품 중에서 77%에 달하는 190편은 써클원들 자신이 창작한 작품들이였으며 연기술에 있어서도 써클원들은 높은 기교를 보였다.

무대에 오른 작품들은 과거와 오늘의 생활을 대비하면서 더 없이 행복한 오늘의 생활을 마련하여 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의 정을 노래하였으며 1962년도 500만 톤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야 말 굳은 결의가 넘쳐 있었다.

1962년도 축전에는 전년에 비하여 촌극, 재담, 희극 등 소품 쟌르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되였으며 구연, 인형극, 복화술 등 새로운 쟌르와 형식들이 도입되고 가족 써클도 무대에 출연하였다. 또한 민족 기악 합주, 민족 기악 중주, 독주들에서는 민족 음악의 선률에 새시대의 혁명적 기백을

담아 고유한 민족적 정서가 풍기게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14편에 달하는 민요들과 민간 무용을 발굴 정리하여 무대에 내놓음으로써 민족문화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 하였다.

경연에서는 11개 써클 단체 중에서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 황해북도가 우수한 성적을 보여 주었다. 민요 제창 《수상님 덕분에 잘 살게 되였네》(황북도 봉산군 미곡 협동 농장 써클), 가무 《꽃피는 4월에 수상님 뵈려 가세》(황북도 황주군 황주읍 협동 농장 써클), 구연 《한 공화국기'발에 깃든 이야기》 (함남도 신창군 속후 협동 농장 써클), 경악극《500만 톤의 새봄》(황남도 배천군 조 옥희 협동 농장 써클), 연극 《새 봄을 앞당기는 사람들》(황남도 린산군 기림 협동 농장 써클), 가족 써클 《우리는 행복합니다》 (황남도 신천군 새날 협동 농장 써클), 촌극 《금방망이》(강원도 고성군 삼일포 협동 농장 써클)등 많은 작품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경연】 1962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전국 로동자 예술 써클 경연에는 14개 써클 단체 (각 도, 시, 교통성)에서 150 여개의 공장, 기업소를 망라한 3,826명의 써클원들이 참가하였다.

경연 무대에 오른 306편의 다종 다양한 작품들은 모두가 행복한 오늘을 마련하여 준 조선 로동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이에 보답하기 위한 로동 계급의 끓어 넘치는 혁명적 열의를 생동한 예술적 화폭 속에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매개 작품들의 사상 예술적 수준도 전년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다.

1962년 로동자 예술 써클 경연에서 특징적인 것은 경연 무대에 혁명 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함께 6개 고지 점령에 떨쳐 나선 로동 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집단적 혁신 운동 및 대중적 영웅주의를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들과 조국 남녘땅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우리 인민의 념원을 담은 작품들이 수 많이 오르게 되였으며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고귀한 문화 유산들이 옳게 계승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예술 창작 사업에서 새로운 쟌르와 형식이 많이 개척되고 발전 보급됨으로써 경연 무대를 더욱 다채롭게 장식했으며 광범한 로동 계급 속에서 우리 문학 예술 발전을 위한 대중적 창작 사업이 더욱 앙양되였음을 보여 주었다. 경연 무대에 오른 작품들 중 근 80%에 달하는 260 여 편의 작품들은 로동자 써클원들에 의하여 창작되였다.

경연에서 합창 《수령님께 맹세드리네》 (황해 제철소 써클), 가무 병창 《수상님 모시고 만수절을 노래하네》(신포 조선소 써클), 가야금 병창《4월의 노래》(2.8마동 세멘트 공장 써클), 연극《비단 짜는 마음》 (신의주 방직 공장 써클), 군무《무산령의 북소리》 (무산 광산 써클), 가무 《수저타령》 (평강 제지 공장 써클) 등 많은 작품들이 높이 평가되였으며 평북도 종합 예술단과 량강도 유평 림산 사업소 써클 단체가 순회 우승기를 수여 받았다.

【전국 학교 부문 예술 써클 축전】 1962년에 전국 혁명 학원 및 초등 학원 예술 써클 축전과 전국 소년 예술 써클 축전이 진행되였다.

전국 혁명 학원 및 초등 학원 예술 써클 축전(7.15~7.21)에는 3,100 여명이 128개 종목을 가지고 출연하였으며 전국 소년 예술 써클 축전(8.3~8.12)에는 4,600 여명이 195개 종목을 가지고 출연하였는바 축전은 그 규모와 종목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물론 그 사상 예술성에 있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 주었다.

축전 참가자들은 조선 로동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혁명 전통을 제마로 한 작품들, 미제와 계급적 원쑤들을 폭로하고 불타는 적개심을 길러 주는 작품들, 교육과 생산 로동의 결합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소년단 생활의 여러 측면을 다양한 형식 속에 담은 작품들을 가지고 출연하였다.

축전에서 발표된 작품들은 소년단원들의 구체적인 생활 감정을 진실하게 그린것이 특징적이였는바 아동들의 정서 세계와 동심 세계에 알맞는 동화극, 경악극, 노래 이야기, 아동 인형극등 생활적 이야기 줄거리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경연 무대를 장식하였다.

축전에서는 연극 《오누이》 (강원도 안변 중학교), 음악 동화극 《영철이의 작문》 (함북 경원 초등 학원), 민족 기악 합주 《무지개 비낀 만경대》 (평북 신의주시 남송 중학교), 가무 《만경대로 날아라》 (량강도 혜산시 성후 중학교), 군무《군사 유희》 (함흥 혁명 학원), 음악 스케치 《최 영옥의 이야기》 (평양 초등 학원) 등 37개의 작품들이 특등상을 받았다.

【군무자 예술 경연 대회】 조선 인민군 제 11 차 군무자 예술 경연 대회(5.21~6.10) 에는 213편의 음악, 무용, 극 작품 및 기타 종목들이 무대에 올랐다.

경연 대회 참가자들은 조선 로동당의 강력한 무장력으로서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고 있는 조선 인민군 군인들의 전투적이며 락천적인 생활을 폭넓은 예술적 화폭 속에 형상하였다.

1960년 11월 27일 작가 예술인들에게 주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심장으로 접수한 군인들은 천리마 시대가 요구하는 창작적 과업과 방향을 옳게 파악하고 예술 창조 사업에서의 신비성을 대담하게 마스면서 인민 군대에 부과된 정치, 군사적 과업과 결부된 생신하고 박력 있는 현대적 주제의 작품들을 성과적으로 창조하였다.

특히 무용 부문에서는 무용 창작에서의 주제 령역을 훨씬 넓혔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무용 언어와 표현 수단들을 창조함으로써 군인들의 생활을 폭 넓게 진실하게 형상하는 데 새로운 기여를 하였으며 합창, 관현악, 민족 기악 합주, 중주, 경음악, 양금, 단소, 첼로 독주 등 소품에 이르는 음악 작품들의 예술적 수준도 전반적으로 제고되였다.

경연 대회는 군무자들 속에서 꽃피는 군중 문화 예술의 발전 면모를 뚜렷이 과시하였으며 조선 로동당과 수령 앞에 무한히 충직한 인민군 장병들의 예술적 재능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합창 《붉은기 중대 기'발 휘날린다》, 민족 기악 합주 《출항의 기쁨》, 노래 이야기《인민의 참된 딸들》, 현악 합주《간호원의 자랑》 단막극《불'길은 계속 타 오른다》, 재담 《동해 초병의 노래》등 작품들과 남성 군무 《례성강반에 붉은 신호탄이 오른다》, 기악과 노래 이야기 《박달령》, 연극《녀성 고사총수들》은 우수한 작품들이였다.

특히 무대에 오른 작품들은 번영하는 조국과 인민들의 행복을 목숨으로 보위한다는 영예감과 함께 미제 원쑤들이 분별 없이 날뛴다면 원쑤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가할 불굴의 투지와 밀접히 결부되여 있어 한결 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였다.

경연 대회를 통하여 높은 창작적 성과와 예술성을 발휘한 상사리 종호 외 7명에게 내각 수상 표창장과 상품이 수여되였으며 박인갑 소속 군부대를 포함한 6개의 종합 써클 집단들에 단체상이 수여되였다.

제 8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우리 나라 예술단은 헬싱키(분란 수도)에서 진행된 제 8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예술 콩클(1962년 7월 31일~8월 4일)에 참가하였다.

축전 기간에 120명으로 구성된 우리 나라 예술단은 87개 종목을 가지고 19회에 걸쳐 공연 하였는 7만 7,900 여명에 달하는 분란 인민들이 우리 나라 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우리 나라 예술인들은 독창, 경음악, 현악, 무용 등 여러 부문의 콩클에 참가하여 그 모든 종목에 걸쳐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는바 51개의 메달(금메달 3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0개)을 쟁취하는 특출한 성과를 올렸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예술인 들은 콩클에 참가한 37개국 예술단들 (1천여명 참가)가운데서 가장 많은 메달을 쟁취함으로써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에 의하여 찬란하게 개화 발전하고 있는 천리마 시대의 조선 예술의 진가를 온 세계에 과시하였다(입상한 부문별 성과는 자료편 참조).

한편 이해에 우리 나라와 쏘련, 중국 간에 예술단, 협주단 교환이 진행되였다.

우리나라 국립 예술 극장 배우들 (150명)은 1962년 6월 13일부터 40 여일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5개 도시에서 25회에 걸쳐 연 10만 여명의 중국 근로자들 앞에서 공연하였다.

조선 인민군 협주단 배우들이 1962년 8월 2일부터 쏘련을 방문하여 모쓰크바, 레닌그라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꼴호즈들에서 20 여회의 예술 공연을 진행하였다.

한편 185명으로 구성된 쏘련 군대 붉은기 협주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10월 26일~11월 17일)하여 평양을 비롯한 몇개 지방들에서 공연하였다.

이밖에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에 의하여 일련의 문화 교류 사업이 진행되였다.

보 건

1962년에 국가는 인민 보건 사업에 전년보다 21.5%나 더 많은 자금을 지출하여 병원, 진료소, 산업 치료 기관 등 의료 시설의 확장 정비 사업을 비롯하여 인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취하였다.

보건 부문 일'군들은 전국 보건 일'군 열성자 대회 (1961년 6월 7일)에서 보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성이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병을 보기전에 먼저 사람—혁명 동지를 보며 환자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피와 살, 뼈까지도 서슴 없이 바치는 고상한 공산주의적 품성을 소유하기에 노력하였다.

1962년에 인민 보건 사업이 대중 속에 더욱 깊이 침투되면서 의료 방조의 질적 내용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각급 치료 예방 기관들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전문과적 의료 방조를 계속 확대하고 그 질을 더욱 높였다.

또한 예방 의학적 방향에 근거하여 위생 문화 사업과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모성 유아 보호 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의학 과학 연구 사업에서는 주체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경락 실태의 발견을 비롯한 수 많은 과학 기술적 성과들이 속출되였다.

또한 제약 및 의료 기구 공업이 급속히 발전되고 온천, 약수의 개발 리용 체계가 보다 확립되였으며 료양 시설망도 현저히 장성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사망률은 계속 저하되고 평균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인구의 출생, 사망 및 자연 증가률 (인구 천명당)

	1944	1956	1961	1962
출생률	31.3	31.0	36.7	41.1
사망률	20.8	17.6	11 5	10.8
자연증가률	10.5	13.4	25.2	30.3

【보건 시설】. 1962년도에 보건 시설망이 계속 신설 확장되였으며 병원 및 진료소, 산업 치료 기관들이 보다 정비 강화 되였다.

1962년에 기본 건설에 의하여 29개의 병원, 241개의 진료소가 새로 건설되였다. 1962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입원 치료 기관 수는 31개소, 외래 치료 기관 수는 138개소가 증가되였으며 침대 총 수는 6천 600 여대가 증가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 말 현재 치료 예방기관 총 수는 전년에 비하여 103.4%, 그의 침대 총 수는 118.9%로 각각 장성되였다.

1962년에 827개소의 탁아소가 새로 건설되여 탁아소의 좌석 수는 전년에 비하여 127.3%로 장성되였다.

또한 1962년에 보건성 산하 료양 기관 수도 전년에 비하여 225%로 장성되였다.

우리 나라에서의 산업의 발전에 따라 1962년 말 현재 산업 치료 예방 기관 수는 전년에 비하여 106.6%로, 그의 침대 수는 136.7%로 장성되였다.

우리 나라의 모든 농촌 리마다 이미 설치되여 있는 진료소는 1962년에 그 시설망이 계속 정비 확장되였다. 1962년에 협동 농장 진료소 수는 전년에 비하여 101.6%로 장성되였다. 특히 모든 병원에 소아과 병동을 건설할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관철을 위하여 많은 군들에서 소아과 병동이 계속 건설되였는바 소아과 침대 수는 1960년에 비하여 1961년에는 154.3%로, 1962년에는 222.9%로 장성 되였다.

보건 시설망의 장성 (1953년=100)

	1956	1961	1962
입원 치료 기관수	95.1	146	156.8
침대 수	130.9	277.3	289.5
외래치료기관수	169.7	566 2	583.6
까비네트	167.0	512.5	558.1
탁아소 수	350.0	109배	103.7배
좌석 수	301.9	182배	2688배
인민 약국 수	427.5	12.2배	775.9

【치료 예방 및 모성 유아보호】 1962년에 보건 부문에서는 선진적 의료 봉사 제도인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사업이 진행되였으며 이 과정에 주민들에 대한 의료 방조는 숙련되고 전문화되여가는 형태로 인민들 속에 더욱 접근되였다.

1962년에 주민들에 대한 입원 방조는 전년에 비하여 113%로 장성되였으며 주민 1인당 외래 방조 회수는 1960년의 6.2회로부터 1961년에는 8.4회, 1962년에는 8.9회로 장성 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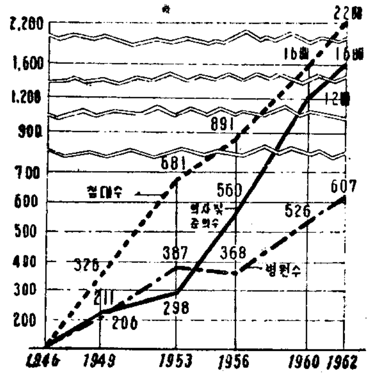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전체 군 병원들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 부인과를 기본으로 하는 전문과들이 설치되여 있으며 동의학적인 치료 방법들을 배합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의료상 방조를 주고 있다.

1962년 말 현재의 전문과 수는 1961년에 비하여 125%로, 그의 침대수는 121.4%로 장성되였다.

전문과 의사들은 환자들을 찾아내여 치료하여 주는 적극적인 의료 활동을 전개하여 1961년 한 해동안에만 하여도 2,857명의 맹인, 4,829명의 난청 환자 및 귀머어리, 3만 4,495명의 무치악 환자들을 없앴다.

우리 나라의 전통 의학인 동의학을 발전시키며 민간 료법을 연구하여 리론적으로 체계화할데 대한 조선 로동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최근 년간 동의학은 급속히 발전되고 있다. 1962년 말 현재 각급 치료 예방 기관들에 825개의 동의과가 설치되여 있으며 고혈압증, 위 및 12지장 궤양성 질환, 림파선 및 골관절 결핵, 시신경염과 시신경 위축, 백혈구 감소, 만성 중이염 등 일련의 난치의 병들의 치료 사업에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다.

보건의 발전



녀성들이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 정치 생활에 더욱 광범히 참가하게 됨에 따라 모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 사업이 강화되였다.

1962년에 모성들의 건강 보호 증진을 위하여 모든 임신부들을 등록하고 산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건강을 일상적으로 돌봐 줄뿐만 아니라 무료로 해산 방조를 주었다. 해산 방조 비률은 1960년에 비하여 1961년에는 114%로, 1962 년에는 전년보다 109.9%로 제고되였다.

임신한 모든 녀성 로동자 사무원들은 77일간의 산전 산후 유급 휴가를 받고 있는바 1962년에 그 수는 8만 9,238명에 달하였다.

근로 녀성들을 위하여 탁아소망도 계속 확장 되였는바 1962년 말 현재 탁아소 총 수는 6,638개소로서 그중 도시 및 산업 탁아소 좌석수는 22만 933대, 농촌 탁아소 좌석 수는 36만 1,031대에 달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을 건강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육원 대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속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교시(함남도 조양 협동 농장에서, 1961년 8월 5일)에 따라 1962년에도 보육원들을 초 고중 졸업생들로 교체하는 사업이 계속되였다.

또한 1962년 9월 28일부 최고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으로 《공훈 보육원》칭호를 제정함으로써 보육원들의 창조적 열성을 더한층 제고케 하였다.

【위생 방역 사업】 예방 의학적 방향에 립각하여 1962년에도 위생 문화 사업이 계속 강력히 전개 되였다.

1962년에 로동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전인

민적인 투쟁으로 전개되여 전반적 위생 상태는 보다 개선되였다. 인민들 속에서 위생 문화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 위생문화 사업 체계가 개편 되였는바 내각 결정 제 58호(1962년 10월 15일)에 의하여 위생 지도 위원회 체계를 페지하고 위생 문화사업은 인민 보건 사업의 불가 분리의 일부분으로서 보건성 산하에 이관되였다. 위생 모범군 창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는데 1962년 말 현재 위생 모범 군 수는 48개에 달하였다.

보건 일'군들은 주민들 속에 깊이 들어 가서 주민 20명 당 1 명의 위생 열성 일'군을 양성 배치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였다.

위생 방역 일'군들은 급성 전염병 특히 소아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홍역 능동 면역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 받은 만성 질환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는바 국내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비, 씨, 지로서 1961년에는 100만 명의 어린이에게, 1962년에는 다시 130만 명의 어린이들에게 결핵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으며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등록 장악하고 재 접종을 실시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장내성 전염병을 비롯한 급성 전염병의 리병률이 현저히 격감되였다.

【사회 보장 및 료양 사업】 1962년 한 해 동안에 사회 보장 및 사회 보험을 위하여 7,500만 원의 방대한 국가 예산이 배당되였다.

사회 보장 환자들에 대한 국가적 혜택을 정확히 받게하며 그들을 하루 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매개 군들에서 자체 료양소들을 조직하였는데 1962년 말 현재 그 수는 653개소에 달하였다.

사회 보장 환자들은 국가로 부터 생활 보장을 받으면서 자체 료양소 또는 해당 보건 기관의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들의 문화적 휴식을 위한 수 많은 휴양소, 야영소 외에 보건성 산하에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료양소 체계가 있으며 로인들을 위한 양로원이 있다.

1962년도에 우리 나라에 풍부한 온천, 약수 자원들을 탐사하고 연구함으로써 인민 보건에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더욱 광범히 전개되였다. 그리하여 분출량에서나 수온 및 그 성분 구성에서 유명한 석탕 온천이 개발 되였고 150 여대의 침대를 가진 석탕 온천 료양소가 신설되였다.

또한 150 여대의 침대를 가진 룡강 료양소와 송홍, 온수평 료양소들이 개소되였다.

내각 비준 제 536호로서(1962년 7월 13일)옥호동, 삼방, 갈산, 창성 료양소들이 보건성에 이관되였다. 이리하여 1962년도에 보건성 산하 11개의 료양소에서만도 전년 보다 2,600 여대의 침대가 더 늘었다.

【보건 일'군 양성】 의사 담당 구역제를 실시할 데 대한 전망 계획에 의하여 보건 일'군 양성 사업이 강화되였다. 1960년에 대학 및 전문 학교에서 1,000 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하였다면 1962 년도에는 의학 대학에서만 1,298 명이 졸업하였다. 또한 1,226명의 재직 의사 및 준의들이 재교육을 받았다. 그리하여 1961년에 비하여 의사 수는 129.5%로, 중등 보건 일'군 수는 104.7%로 각각 장성되였으며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의 의사 및 준의 수는 1만5,874명에 달하였다.

1962년 말 현재 의학 대학에서 1만 7,025명, 고등 의학 학교에서 3,820명, 의학 학교에서 2만 2,296명의 학생들이 각각 공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등 보건 일'군 양성을 위한 수 많은 양성소들과 동의사 강습소들에서 의사 및 중등 보건 일'군들이 양성되고 있다.

【의약품, 의료 기구의 생산 및 공급】 1962년도에 제약 및 의료 기계 공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보건성 제약 의료 기구 총국이 새로 창설되였다. 1962년도에 총국 산하의 의약품 및 의료 기구 공업 총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07.6%로, 그중 의약품 생산은 102%로, 의료 기계 생산은 142%로 각각 장성되였다. 1962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품종 수에서 의약품은 110%로, 의료 기계는 133%로 장성되였다. 특히 1962년도에 페니시린 공장이 조업을 개시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총국 산하에서 약초 재배 면적은 1960년의 2.8배, 약초의 품종은 110%로, 약초 생산량은 122.7 %로, 생약 품종 수는 1.8배로 각각 장성하였다.

총국 산하 외에 중공업 위원회와 경공업 위원회를 비롯한 각 성 산하 공장, 기업소들에 설치된 의료 기계 직장들과 제약설비들, 각 도 및 지방 제약 공장들에서도 많은 의약품 및 의료 기계들이 생산되였다.

또한 의약품의 질적 구성에서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는바 항생제를 비롯한 합성 약품, 생약 특히 각종 장기 제제들을 다량 생산할 수 있게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의약품과 의료 기계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충족하게 되였으며 가까운 장래에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 기술적 토대가 구축되였다.

체 육

1962년에 우리 나라 체육은 보다 대중화되였고 체육 기술 수준도 현저히 제고되였다.

1962년 5월 3일 청소년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가 있은 후 군중 체육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학교 체육 사업은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으며 인민

체력 검정을 비롯한 각종 군중 체육 활동도 더욱 광범히 전개되였다.

체육의 대중적 발전에 기초하여 체육 기술 수준이 급속히 제고되여 1962년에 일련의 국내 국제 경기들에서 세계 체육계를 경탄케 한 새로운 기록들이 수립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체육의 국제적 지위를 크게 강화하였다.

【체육 시설 및 체육 단체】 1962년에 체육 시설이 증설되였고 기존 체육 시설들이 보다 훌륭히 정비되였다.

유서 깊은 혁명 전적지인 삼지연에 총연장 54키로메터의 스키장이 설치되였으며 수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동 궁전 체육관이 신축되였다. 1962년 말 현재 우리 나라에는 14개의 체육관을 비롯한 수 많은 경기장 (축구장 3,177개, 롱구장 4,600개, 배구장 3, 608개, 정구장 1,399개, 탁구장 3, 647개, 씨름장 6, 035개)들과 1, 535개의 간이 및 정규 수영장, 121개의 체육실이 있다.

사회적 체육 단체로서 수십개의 1급 선수단과 구기 종목을 비롯한 17개의 종목에 걸치는 590개의 2급 선수단들과 각 공장, 기업소 기관들에 조직된 수백개의 3급 선수단들이 있으며 이에는 수만명의 우수한 젊은 체육인들이 망라되여 있다.

군중 체육 발전의 기층 조직인 초급 체육 단체는 9, 097개 있으며 여기에는 137만 690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망라되여 있다.

【군중 체육】 1962년에 우리 나라 인민들의 특성에 맞는 각종 군중 체육 활동이 더욱 대중적으로 발전되었다.

1962년 5월 3일 청소년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가 있은 후 학교 체육 사업에서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각급 학교들에서는 체육 수업과 과외 체육 사업이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과 재능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진행되였으며 륙상, 체조, 수영 등 체육 단련의 기본 종목과 함께 각종 구기, 민족 체육, 국방 체육 등이 전례 없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한편 각급 학교들에서는 녀학생들에게 예술 체조와 체육 무용을 보급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조직하였는바 이에는 수십 만명의 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학교 체육 사업이 활발히 전개된 결과 학생들 속에서 수 많은 재능 있는 선수 후비들이 배출되였다. 1962년에 열린 전국 고등 기술 학교 체육 대회와 전국 대학생 체육 축전에서는 근 5,000 명의 선수들 중 그의 대다수가 3급 선수 이상의 기준을 돌파하였다.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 집단적 달리기, 혁명 전적지에로의 체육 려행을 비롯한 각종 군중 체육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였다.

1962년에 혁명 전적지에로의 체육 려행과 집단적 달리기에는 수만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사상 예술적으로 좋고 체육적으로도 훌륭한 집단 체조를 광범히 발전시킬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집단 체조는 보다 심오한 내용과 기교를 갖추면서 급격히 발전하였다.

1962년에 집단 체조는 보다 대중화되여 각 도들에서는 물론 시, 군들과 많은 학교들에서도 자립적으로 창작 출연하였는바 전국적으로 101개의 시, 군들에서 55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이에 참가하였다.

그중에서도 9월 9일 청진 화학섬유 공장 준공 및 공화국 창건 14주년을 기념하여 청진시에서 창작 출연한 집단 체조 《빛나는 우리 조국》 (2만 7천 여명 참가)은 1961 년에 중앙에서 출연한 《로동당 시대》에 못지 않는 훌륭한 작품이였다.

집단 체조는 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발전하였는바 8월 27일 함경남도 (신포시) 에서는 해양 집단 체조 《바다는 청년들을 부른다》 (3천 명 참가)를, 항일 무장 투쟁 개시 30주년을 기념하여 함경남도 (장진군)에서는 스키 집단 체조 《보천보의 홰'불》 (1,400 여명 참가)을 창작 출연하였다.

1962년에 창작 발표된 집단 체조는 우리 나라 집단 체조의 급속한 발전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1962년에 우리 나라 체육 교양 체계의 기본인 인민 체력 검정 사업에는 보다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인민 체력 검정 참가자 합격자 장성
(단위—명)

	1961	1962
참가자 수	1 080 479	1 532 770
합격자 수	699 420	924 015

특히 합격률에서 소년급 합격자 수는 전년에 비하여 143%로 장성하였다.

1962년에 생산 체육 경기는 여섯개 고지 점령에 중심 방향을 두고 보다 광범히 조직되였으며 전국적인 범위로 경기 체계가 확립되였다.

생산 체육 경기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직업적 특성과 육체적 조건에 적응하게 다양한 방법과 형식으로 진행되여 근로자들의 체력을 증진시킴과 함께 새로운 로동 기준량을 창조하고 선진 작업 방법의 도입과 창의 고안 운동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체육 간부, 선수 후비 양성】 체육 선수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는 평양 체육 대학, 각 도 체육 간부 양성소들과 각 사범 대학, 교

원 대학들에 체육과가 설치되여 체육 교원, 훈련 지도원 및 선수들을 양성하고 있다.

1962년에 평양 체육 대학 및 각 도 체육 간부 양성소들에서 4,500 여 명의 체육 간부들이 새로 양성 또는 재교육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 유급 선수 양성 사업은 전년에 비하여 161%로 그중 명수급 기준 돌파자 양성은 252%로, 1급 선수 등급 기준 돌파자 수는 127%로 장성되였다.

또한 1962년에 도, 시, 군, 심판원들은 전년에 비하여 19%가 더 많이 양성되였다.

선수 후비 양성 기관인 청소년 체육 학교는 시, 군, 소재지에는 물론 공장, 기업소, 학교들에 까지 조직 되여 있다. 청소년 체육학교 수는 1962년에 1960년도에 비하여 8.3배로 확장되였으며 이에는 수십만 명의 청소년 학생들이 망라되여 있다. 이 외에 각 도 소재지와 중요 산업 지대에 설치된 사격, 해양, 통신, 항공, 자동차 뜨락또르 등 각종 구락부, 크루쇼크에 수만 명의 청소년들이 망라되여 선수 후비로 자라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체육인들에게 그들의 체육 기술과 재능에 따라 《공훈 체육인》, 《체육 명수》 칭호를 수여하고 있는바 1962년에 새로 12명의 체육인들이 공훈 체육인 칭호를 수여 받았으며 체육 명수 대렬은 전년에 비하여 1.1배로 장성하였다.

【체육 기술의 발전】 1962년에 체육의 대중적 발전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체육 기술은 현저히 발전되였다.

체육인들 속에서는 체육 기술 수준을 모든 종목에 걸쳐 세계적 수준에 확고히 올려 세우기 위한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체육인들은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릴데 대한 당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교수 훈련 목표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훈련을 목적 지향성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동기간에도 훈련을 계속하여 교수 훈련을 년중 중단함이 없이 계속 진행하였다.

마라손, 권투, 체조, 탁구, 력기, 빙상 등을 비롯한 일련의 종목들에서 우리 선수들의 특성에 맞는 교수 훈련 방법과 기술 및 전술 체계를 창안 도입함으로써 선수들이 높은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게 하였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주체성 있는 교수 훈련 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낡은 기록들이 계속 갱신되고 수 많은 새 기록들이 수립되였다. 1958년에 66명의 선수들이 116회에 걸쳐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다면 1961년에는 221 명이 289회, 1962년에는 264 명의 선수들이 무려 498회나 공화국 기록을 갱신하였다. 또한 1962년에 진행된 체육 경기들을 통하여 축구, 권투, 체조, 탁구, 롱구 등 일련의 종목들에서 그 기술 수준이 현저히 발전되였다.

특히 1962년에는 10명의 선수들이 17회에 걸쳐 세계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나라 체육 기술의 위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1962년 6~7월에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륙상 경기 대회에서 신 금단 선수는 녀자 400메터와 800메터에서 세계 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세계 륙상계의 제 일인 자로 계속 나서게 되였다.

또한 1962년에 제 38 차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우리 나라 선수들은 특별상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금, 은, 동 메달을 쟁취하였으며 국제 사격 통신 경기 대회에서는 종합 성적에서 제 1 위를 쟁취하는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다.

1963년에 들어서면서 우리 체육인들은 우리 나라 체육 기술의 위력을 국제 경기를 통해 계속 과시하고 있다.

1963년도 남 녀 속도 빙상 세계 선수권 대회(2.20~2.24, 일본 가루이자와)에 참가한 우리 나라 선수들은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온 세계에 떨쳤으며 부카레스트에서 진행된 국제 탁구 경기 대회 (1963. 3.)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남자 단체전에서 1등을 쟁취하여 우승컵과 5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모쓰크바상》 쟁탈을 위한 제 6차 국제 력기 대회 (1963.3.15)에 참가한 우리 나라 리 홍천 력기 선수는 세계 신 기록을 수립 하였다.

1963년 3월 비르마, 인도네시아를 친선 방문한 우리 나라 평양 축구단은 비르마에서 5전 3승, 인도네시아에서 5전 5승 하는 훌륭한 성과를 보였다.

【경 기】 1962년에는 체육 경기 체계를 보다 확립하고 각종 경기를 계획적으로 진행하였다.

1962년에 진행된 주요 경기는 다음과 같다.

전국 대회

경기 명칭	시 일	참가자	장 소
전국 로동자 빙상 경기 대회	1. 26~ 1. 30	250	정주 특설 빙상 경기장
민청 창립 16주년 기념 전국 빙상 경기 대회	2. 6~ 2. 14	625	혜산 특설 빙상 경기장
전국 대학생 스키 경기 대회	2. 3~ 2. 7	200	삼지연 스키장
전국 스키 선수권 대회	2. 25~ 3. 1	150	〃
항일 무장 투쟁 개시 30주년 기념 대학생 체육 대회	4. 15~ 4. 21	1 400	동평양 경기장
전국 해양 체육 대회	8. 15~ 8. 19	320	월 산 서

전국 고등 기술 학교 학생 체육 대회	9.27~10.3	2,800	동평양, 모란봉 경기장
전국 제 2 차 체육 학교 체육 대회	9.20~9.22	400	신의주 시
제 1 차 전국 대학생 체육 축전	10.14~10.20	1,300	동평양, 모란봉 경기장

전국 대회와 함께 1962년에 축구, 롱구, 배구, 탁구, 투구, 송구, 체조, 륙상, 자전거, 권투, 력기, 레스링, 궁술, 예술 체조 등 15개 종목에 걸치는 1급 선수단의 체육 대회들이 진행되였으며 이에는 연 4,656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각도와 115개의 시, 군들에서 연 2,257회의 각종 경기가 진행되였고 이에는 4만 2,857개의 선수단, 127만 1,142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국제 교류】 1962년에 우리 나라 륙상 협회가 국제 아마추어 륙상 련맹에 새로 가입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말 현재 우리 나라는 축구, 롱구, 배구, 탁구, 체조, 자전거, 력기, 권투, 레스링, 사격, 항공, 빙상, 륙상, 궁술 등 14개 종목에 걸쳐 국제 체육 련맹에 가입하고 있다.

특히 1962년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59 차 총회에서는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를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성원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조선에서 유일팀 구성을 남조선 측이 계속 반대한다면 우리 체육 선수들을 조선을 대표하여 제 18 차 국제 올림픽 경기 대회(일본 도꾜)에 참가 시킬 것을 결정 하였다 (우리 나라의 주동적 노력에 의하여 남 북 조선 유일팀 구성 문제는 1956년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56 차 총회에 제기 되였으나 남조선 측의 거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는 조선 유일팀 구성에 대한 민족적 념원과 고상한 올림픽 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1962년에 4 차에 걸쳐 남조선 측에 유일팀 구성을 위한 실무적 문제의 토의를 제기하였다.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1963년 1월 24일 로잔느에서 진행된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의 회담에서는 남북 조선 유일팀 구성에 관한 일부 중요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그후 남조선 측의 무성의와 계통적인 반대로 말미암아 조선 유일 팀 구성 문제는 실현 되지 못 하고 남북 조선이 각각 독자적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게 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 선수들이 참가한 국제 경기 대회 및 친선 경기는 다음과 같다.

◇조선—체코슬로바키야 궁술 통신 경기 대회 (5.8~5.9).

◇사회주의 진영 국가 통신 사격 경기 대회 (6.27~6.29).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륙상 경기 대회 (6.30~7.1).

◇제 15 차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 (7.3~7.8 쁘라가).

◇세계 남녀 배구 선수권 대회 (10.12~10.16, 쏘련).

◇제 38 차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10, 11~10, 22, 카이로).

◇조선—중국 축구 친선 경기 (11. 4~11.18. 평양, 함흥에서 우리 나라 중앙 강습소팀, 2.8팀, 기관차팀, 평양팀과 4 차에 걸쳐 경기 진행).

출판 보도

【통 신】 조선 중앙 통신사는 일간≪조선 중앙 통신≫, 일간≪사진 통신≫, 일간≪영문 통신≫, 순간 ≪조선 소식≫(로문, 영문), 그리고 ≪조선 중앙 년감≫을 발행하고 있다.

조선 중앙 통신사는 쏘련의≪따쓰 통신≫, 중화 인민 공화국의 ≪신화 통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통신을 수신 보도하는 동시에 대외 방송과 공화국 각 지방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외 방송—방향별 영문 텔레타이프 방송과 대일 모사 방송, 사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방향	텔레타이프 방송시간	사진방송 시간
아세아	14시~16시	21시~22시30분
	19 시~21 시	
	1시~3시	
아프리카	17시~19시	6시~7시
	23시~24시30분	
	4시~5시30분	
구라파	14시30분~16시	23시 30분~24시30분
	21시, 30분~23시	
	1시 30분~3시	
미주	16시 30분~18시	9시 30분~10시 30분
	19시 30분~21시	
	7시~9시	
대일 모사 방송		
	10시~13시	
	16시~19시	
	21시~24시	
지방 송신 (각도 대상)		
	10시~14시	
	16시~20시	

【방 송】 1962년 11월 12일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와 아랍 련합 공화국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간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 분야에서 호상 협조할 데 관한 협정이 카이로에서 체결되였다.

조선 중앙 방송 위원회는 쏘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국가 방송 위원회들과 정기적인 교환 방송, 문예, 음악, 보도, 선전물 등 자료들을 교환하고 있으며 일본, 인도네시아, 가나, 부란을 비롯한 기타 아세아, 아프리카의 일련의 국가 방송 단체들과도 방송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방송 시간과 주파수

방송별	대상	언어	시간 조선 시간	주파수
조선 중앙 방송	국내	조선말	아침 5시~심야 2시	중파 758KC 단파 2850KC 6195KC
평양 방송	남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방송	조선말	아침 5시~심야 2시	중파 585KC, 660KC, 685KC 800KC 620KC 1080KC 단파 3320KC, 6250KC, 6350KC
조선 중앙 방송	재일 동포 들에게 보내는 방송	조선말	아침 7시30분~8시 19시30분~20시	중파 820KC, 1080KC 단파 6250KC 중파 785KC 단파 2850KC, 6195KC
대외 방송	대외	일본말	13시30분~14시30분 17시30분~19시30분 20시30분~0 시30분	단파 7225KC 9752KC 〃 7225KC 6141KC 〃 5044KC 6141KC
대외 방송	재외 동포 들에게 보내는 방송	조선말	6시~8시 11시~13시 15시~16시	중파 820KC 단파 7225KC 9752KC 중파 820KC 단파 15240KC 중파 820KC 단파 15240KC 9752KC
대외 방송	대외	중국말	16시~17시 20시~21시	중파 820KC 단파 15240KC, 9752KC 중파 820KC 단파 5044KC, 9752KC
대외 방송	대외	영어	5시~6시 12시~13시	중파 820KC 단파 7225KC, 9752KC 중파 820KC 단파 15240KC, 9752KC
대외 방송	대외	로어	4시30분~5시 21시30분~22시	단파 7225KC 9752KC 11720KC 7150KC 5044KC 단파 7225KC 9752KC

각도 방송국들의 방송 주파수

방송국 명	주파수
평북도 신의주	860KC
자강도 강계	13[illegible]5KC
황남도 해주	1045KC
황북도 사리원	725KC
강원도 원산	850KC
함남도 함흥	1000KC
함북도 청진	1275KC
량강도 혜산	1285KC
개성시 개성	605KC

【신문】 우리 나라에는 로동 신문과 민주 조선을 비롯하여 29종의 신문이 있는바 1962년에 그의 발행 총 부수는 2억 4,585만 2,000여부에 달하였다. 이외에 각 생산 기업소들과 국영 농목장들에서 발행되는 475종의 직장 신문들이 있다.

1963년 1월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중요 신문들은 다음과 같다.

《로동 신문》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로동 신문사 발행.

《민주 조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민주 조선사 발행.

《평양 신문》 평양 신문사 발행.

《민주 청년》, **《소년 신문》**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민주 청년사, 민청 출판사 발행.

《로동자 신문》 조선 직업 총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로동자 신문사 발행.

《교원 신문》 보통 교육성, 조선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교원 신문사 발행.

《문학 신문》 조선 작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문학 신문사 발행.

《조국 통일》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기관지, 조국 통일사 발행.

《조쏘 친선》 조쏘 친선 협회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쏘 출판사 발행.

이밖에 **《평남 일보》**, **《평북 일보》**, **《자강 일보》**, **《함북 일보》**, **《함남 일보》**, **《강원 일보》**, **《황북 일보》**, **《황남 일보》**, **《량강 일보》**,

《개성 신문》이 각도 (개성 시)에서 발간되고 있다.

【잡지】 1962년에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를 비롯한 정치 시사 잡지, 《천리마》를 비롯한 종합 잡지, 《과학원 통보》를 비롯한 과학 리론 및 학술 잡지, 《인민 교육》을 비롯한 교육 문화 예술 잡지들과 대외 선전용 잡지등 도합 79종에 걸쳐 3,926만 3,000부가 발행되였다.

1963년 1월 말 현재 발간되고 있는 주요 잡지들은 다음과 같다.

정치 및 시사 잡지

▶ 근로자 (반월간),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근로자사 발행.

▶ 평화와 사회주의 제문제(월간),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리론 및 보도 잡지 (조선 문판), 근로자사 발행.

▶ 선동원 (반월간), 선동원사 발행.

▶ 정치 지식 (반월간),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 선동원 수첩(반월간), 교통성 기관지, 교통 출판사 발행.

▶ 국제 생활(반월간), 국제 생활사 발행.

▶ 화살(월간 만화 잡지), 선동원사 발행.

종합 잡지

▶ 천리마(월간), 군중 문화 출판사 발행.

▶ 로동자 (월간), 조선 직업 총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직업 동맹 출판사 발행.

▶ 조선 녀성(월간),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선 녀성사 발행.

▶ 청년 생활(월간),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민청 출판사 발행.

▶ 소년단(월간), 새세대(월간)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민청 출판사 발행.

▶ 조선(화보, 월간), 조선 화보사 발행.

▶ 협동 농민(월간), 농업 출판사 발행.

경제 기술 잡지

▶ 경제 지식(월간), 조선 로동당 출판사 발행.

▶ 전력(월간), 석탄 공업(월간), 전기 ▶ 석탄 공업성 기관 잡지, 중공업 출판사 발행.

▶ 금속 공업(월간), ▶ 화학 공업(월간), 금속 화학 공업성 기관 잡지, 중공업 출판사 발행.

▶ 기계 공업(월간), 기계 공업 위원회 기관잡지, 중공업 출판사 발행.

▶ 림업 (월간), 림업성 기관지, 림업 출판사 발행.

▶ 건축과 건설(월간), 국가 건설 위원회 및 조선 건축가 동맹 기관 잡지, 건설 출판 사발행.

▶ 방직 공업(월간), 경공업 위원회 기관지, 경공업 출판사 발행.

▶ 조선 수산(월간), 수산성 기관 잡지, 수산 출판사 발행.

▶ 농업 기술(월간), 수의 ▶ 축산(월간)농업 위원회 기관 잡지 농업 출판사 발행.

▶ 교통 운수(월간), 교통성 기관 잡지 교통 출판사 발행.

▶ 체신(월간), 체신성 기관지, 체신 출판사 발행.

▶ 상업(월간), 상업성 수매량정성 및 경공업, 상업 로동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상업성 발행.

▶ 재정 금융 (월간), 재정성 기관지, 재정성 발행.

▶ 지질 및 광업(월간), 금속 화학 공업성 및 내각 지질 총국 기관지, 중공업 출판사 발행.

▶ 식료 공업 (월간), 경공업 위원회 기관지, 경공업 출판사 발행.

과학 리론 및 기술 잡지

▶ 과학원 통보 (격월간), 과학원 출판사 발행.

▶ 력사 과학(격월간), 과학원 력사 연구소 기관지, 과학원 출판사 발행.

▶ 조선 어학(분기간),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기관지, 과학원 출판사 발행.

▶ 경제 연구 (분기간), 과학원 경제 법학 연구소 기관지, 과학원 출판사 발행.

▶ 생물학(분기간), 과학원 생물학 연구소 기관지, 과학원 출판사 발행.

▶ 기술 과학(분기간), 과학원 공학 연구소, 중앙 기계 공학 및 자동화 연구소 기관지, 과학원 출판사 발행.

▶ 금속 (분기간), 과학원 중앙 금속 연구소 기관지, 과학원 출판사 발행.

▶ 화학과 화학 공업(격월간), 과학원 함흥 분원 기관지, 과학원 출판사 발행.

▶ 조선 의학(월간) 보건성 기관지, 조선 의학 출판사 발행.

교육 문화 예술 잡지

▶ 인민 교육(월간), ▶기술 교육(월간), ▶ 유치원(월간), 보통 교육성 및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교원 신문사 발행.

▶ 고등 교육 (월간), 고등 교육성 및 교육 문화, 보건 및 공무원 직업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고등 교육 도서 출판사 발행.

▶ 체육(월간), 체육 지도 위원회 기관지, 체육 출판사 발행.

▶ 대중 과학 (월간)과학 지식 보급 협회 중앙 위원회 기관지, 과학 지식 보급 출판사 발행.

▶ 조선 우표 (격월간), 체신 출판사 발행.

▶ 조선 문학(월간), ▶ 청년 문학 (월간), ▶ 아동 문학 (월간), 조선작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문예 총 출판사 발행.

▶ 조쏘 문화(월간), 조쏘 친선협회 중앙 위원회 기관지, 조쏘 친선 출판사 발행.

▶ 조선 미술(분기간), 조선 미술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문예총 출판사 발행.

▶ 조선음악 (격월간), 조선 음악가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문예총 출판사 발행.

▶ 조선 예술(월간)조선 연극인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문예총 출판사 발행.

▶ 조선 영화(월간), 조선 영화인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지, 문예총 출판사 발행.

▶ 써클원 문예(월간), 군중 문화 출판사 발행.

대외 선전용 잡지

▶ 오늘의 조선 (월간), 일문, 영문, 불문판, ▶새 조선(월간), 로문, 중문판, ▶조선 (월간 화보) 일문, 로문, 중문, 영문, 불문

판, 국립 외국문 출판사 발행.

이외에 각 출판사들과 성 기관들에서 여러 종의 잡지들이 발행되고 있다.

【도서】 1962년에 6개 고지 점령과 관련된 도서를 비롯하여 혁명 전통 교양 자료, 기술 혁명 수행에 필요한 도서, 민족 고전 등 도합 843종, 1, 783만 8천여 부의 도서가 발행되였다.

3만 4,700부에 달한다.

1962년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 로동당의 혁명 전통과 당 정책으로 무장시킴에 필요한'《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1,2집 40만부), 《인민들 속에서》 (1,2,3집) 60만부를 비롯하여 김 일성 동지 탄생 50주년과 항일 무장 투쟁 개시 30주년을 계기로 많은 교양 자료들이 출판되였다.

또한 6개 고지의 점령과 기술 혁명 수행에 필요한 서적 발행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는바 공업 기술 도서와 과학 부문 도서의 발행 종수는 288종에 달하였다.

특히 김 일성 동지의 1962년 5월 3일 교시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육성함에 필요한 도서 발행 사업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목민 심서》, 《동의 보감》 을 비롯한 민족 고전 도서들과 조선말 사전 4,5, 6권,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높임에 필요되는 다종 다양한 서적들이 수많이 출판 되였는바 일반 도서는 567종, 대중 통속 도서는 210종 발행 되였다. 이밖에 맑스—레닌주의 고전 도서들의 번역 출판 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우리 나라의 중요 출판사들

조선 로동당 출판사 맑스—레닌주의 고전, 조선 로동당의 문헌, 김 일성 동지의 로작, 당 건설, 철학, 정치 경제학, 남조선 관계 서적, 당원들을 위한 교양 자료 등과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형제 국가 당원들의 사업 경험을 소개하는 서적들을 출판한다.

【과학원 출판사】《과학원 통보》 《력사 과학》을 비롯한 잡지들과 과학원 각 연구소들의 연구 성과들에 기초한 리론 서적과 민족 고전을 출판 한다.

【민청 출판사】 민청, 소년단 사업과 관련한 《청년 생활》, 《새 세대》, 《소년단》 등 잡지와 사회 정치 도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산주의 교양 도서들을 출판한다.

【직업 동맹 출판사】 잡지 《로동자》와 직맹 일'군들을 위한 참고 자료,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관한 서적들과 사회 보험 및 로동 보호에 대한 서적들을 출판한다.

【국립 외국문 출판사】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중요 문헌,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분야에서 달성한 성과와 우리 나라 력사, 문화와 저명한 저작에 대한 대외 선전용 출판물을 로, 중, 영, 일, 불문으로 번역 출판한다.

【조선 녀성사】 잡지《조선 녀성》과 녀성들을 위한 학습 자료, 아동 교양 및 가사에 관한 서적들을 출판한다.

【조선 문학 예술 총 동맹 출판사】 우리 나라의 고대 및 현대 문학, 음악, 미술 작품들과 사진 작품,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들과 기타 모든 나라들의 진보적 문학 예술 작품들을 번역 출판한다.

【선동원사】 잡지《선동원》과 선동원들을 위한 교양 자료와 각종 선전 재료들을 출판한다.

【조쏘 친선 출판사】 신문《조쏘 친선》, 잡지《조쏘 문화》와 로어 보급 도서, 쏘련을 소개하는 서적, 자료 등을 출판한다.

【중공업 출판사】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공업, 지질 및 광업 잡지와 이 분야의 기술 리론 도서 및 대중 생산 기술 보급 도서를 출판한다.

【경공업 출판사】 잡지 《방직 공업》, 《식료 공업》 과 경공업 분야의 기술 속보 등을 발행한다.

【국립 농업 출판사】 《농업 기술》, 《수의 축산》등 잡지들과 협동 농장 관리 운영, 기타 농촌 경리 운영에 관한 각종 리론 도서와 통속 도서를 출판한다.

【국립 건설 출판사】《건축과 건설》을 비롯한 잡지들과 건설 시공, 설계 기준, 건재 및 도시 경영에 관한 기술 리론 및 대중 기술 보급 서적과 직관물을 출판한다.

【교통 출판사】 교통 운수 분야의 기술 리론 도서 및 대중 통속 도서와 교통 운수 일'군들을위한 선동 자료와 직관물을 출판한다.

【조선 의학 서적 출판사】 의학, 약학, 보건에 관한 리론 서적을 출판한다.

【군중 문화 출판사】 잡지 《천리마》, 《써클원 문예》와 실화를 묶은 도서, 포스타, 사진 전람 화보 등을 출판한다.

【과학 지식 보급 출판사】 잡지 《대중 과학》과 근로자들 속에 과학 지식을 보급 선전하는 각종 도서와 직관물을 출판한다.

【아동 도서 출판사】 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 도서들을 출판한다.

【당 학교 교재 출판사】 각급 당 학교들의 교재를 출판한다.

【고등 교육 도서 출판사】 고등 교육 부문 교과서를 출판 한다.

【교육 도서 출판사】 보통 교육 부문 교과서와 교재들을 출판한다.

【사진 전람 출판사】 단매, 련속 화보를 비롯한 중앙 및 각 도들에서 진행되는 사진 전람회에 출품하는 사진들을 제작한다.

【체신 출판사】 잡지 《체신》,《조선 우표》와 체신 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 도서를 출판한다.

【림업 출판사】 잡지 《림업》 과 림업 부문 일'군들을 위한 각종 기술 도서들을 출판한다.

【대외 무역 출판사】 잡지 《조선의 무역》과 각종 상품 까다로그, 대외 선전 포스타를 출판한다.

【국가 규격 출판사】 잡지 《기상과 수문》, 《창의 고안 공고》, 《국가 규격 통보》 를 발행한다.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

정 치

1962년에 군사 《정권》은 미제의 방침에 따라 《반공》을 모든 정책의 기초로 삼고 파쑈 테로 통치 체제와 류혈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장기 집권을 위한 이른바 《민정 이양》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또한 남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한편 범죄적인 《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지으려고 발광하면서 남조선을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략에 내맡기려는 매국 배족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의 강화와 군사 《정권》의 파쑈 통치에 의하여 1962년에 남조선에서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파탄은 더욱 심화되고 인민 생활은 계속 악화되였으며 부패와 사회적 무질서는 보다 심하여졌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가혹한 류혈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반미 반《정부》 감정은 더욱 격화되였으며 애국적 민주주의적 력량은 점차 강화되였다.

《반공》 파쑈 통치 체제의 정비 강화

1962년에 군사 파쑈 도당은 하루'밤 사이에 탈취한 《정권》을 유지하며 나아가서는 장기 집권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파쑈적 통치 체제와 류혈적 탄압을 강화하기에 날뛰였다.

《반공 태세의 강화》를 1962년 시정 방침의 첫 자리에 내세운 군사 《정권》은 《질서를 확립》하고 《부패 구악을 일소》한다는 미명하에 폭압 기구의 정비 강화, 《관기 확립》, 파쑈적 《법 체제의 완비》, 《반공 리념의 수호와 선양》을 위한 《범 국민적 운동》에 모든 력량을 집중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파쑈 폭압 기구를 정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비밀 경찰 기구이며 파쑈 모략 통치의 중심인 《중앙 정보부》를 8천명의 기간 성원과 5만~6만명의 정보원을 가진 방대한 기구로 확장하는 동시에 그의 말단 보조 기관으로서 각 직장과 리, 동에 이르기까지 《방범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다. 또한 괴뢰 경찰의 요직과 대렬을 현역 군인들과 자기의 심복들로 보충 정비하고 경찰 기구 체계를 정비 강화하였으며 10개의 도 경찰 학교와 1개의 형사 학교를 신설하였다. 특히 괴뢰 경찰의 사상 감시망의 기능을 강화하며 정보 형사 경찰 력량을 정비 확장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3월 21일에는 로동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목적으로 《청원 경찰법》을 조작하고 3천 여명의 《청원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하였다. (《청원 경찰》이란 주요 산업 시설 또는 중요 사업장의 경영자와 남조선 주재 외국 기관들의 요구에 의하여 배치되는 경비 경찰로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한다). 그리하여 괴뢰 경찰관 수는 일제 말기의 2배 이상에 달하고 있다.

군사 《정권》은 《법 체제의 완비》라는 명목 밑에 1962년 5월 1일부터 년말까지의 기간에만도 1,189 건의 각종 파쑈 악법을 조작 또는 개악하였다 (《합동 통신》 1963년 1월 23일).

군사 파쑈 도당은 1962년 9월 12일 악명 높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개악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재범》하면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정치 활동 정화법》, 《개정 헌법》, 《정당법》,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등 수다한 악법들을 조작하였다.

이와 같이 파쑈적 폭압 체제를 정비 강화한 군사 《정권》은 《반공》의 구호 하에 우선 평화적 조국 통일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 막으려고 애국적 민주 인사들에게 공격의 예봉을 돌리여 그들을 가혹하게 탄압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애국적 민주 력량을 압살하며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반미 구국 투쟁에서 물러서게 하려 하였다.

군사 《정권》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2년에 남조선에서 구속 령장에 의하여 검거된 건수만도 무려 9만 7천여 건에 달하였으며 남북 협상과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주장한 혁신계 인사들과 청년 학생들을 비롯한 수 많은 애국적 인사들이 처형 학살되였다. 매국 배족적인 군사 파쑈 도당은 미제 야수들의 학살 만행과 민족적 모욕 그리고 군사 《정권》의 《대학 정비령》과 《학사 고시제》를 반대하여 애국적인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 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체포 구금하였으며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지어 1월 19일에는 학급 증설을 위해 6명의 가정 부인들이 함께 길을 걸은 것이 《집회에 관한 림시 조치법 위반》이라 하여 《립건》 하였다.

군사 《정권》은 파쑈적 폭압에 대한 인민들의 항거를 억압하며 그의 진상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언론, 출판에 대한 탄압과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군사 정변》이후 1962년 1월 31일까지 1,229개의 간행물을 폐간한 군사 《정권》은 1962년 2월 22일에만도 《출판 실적이 없다》는 구실로 254개의 출판사를

강제 폐간시켰으며 언론 기관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6월 28일에 이른바 《언론 정책》을, 7월 31일에는 그 《시행 세칙》을 조작 발표하였다.

군사 《정권》은 이른바 《언론 정책》에서 시설 기준을 높이고 그를 구실로 하여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대다수의 언론 출판 기관들을 대폭 축소하여 몇 개의 언론 기관만을 남겨 놓고 용자를 미끼로 그를 경제적으로 예속시켜 어용화하며 《언론 정화》를 통하여 언론계에서 구 정치 세력과 그 지지자들을 몰아 내고 자기들의 충복으로 교체하며 《보도 편중의 현 신문 체제에서 탈피하고…일대 혁신을 기》한다는 구실 밑에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군사 《정권》의 매국 배족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한 인민들의 생활 참상을 폭로하는 기사들의 게재를 억제하고 신문을 오락지화함으로써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더욱 마비시키려 하였다.

이 《정책》이 발표된 후 《민국 일보》, 《민주 신보》를 비롯한 신문들이 기준 미달로 《자진》 폐간하였으며 수 많은 언론인들이 체포 처형 당하였다.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사적 질서를 강요하고 있는 군사 파쑈 도당은 인민들에게서 보행의 자유마저도 박탈하고 있는바 《군사 정변》후 1962년 10월 20일까지의 기간에 《교통 규칙》을 위반했다는 리유만으로도 28만 3천 여 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검거되였으며 그중 적지 않은 인민들이 《재판》에 회부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는 《판사》 1명이 매일 1천 여 건을 처리하여 《평균 30초 마다 한건씩을 언도하는 숨가쁜》 (《동양 통신》 1962년 2월 22일) 《무데기 재판》이 서슴 없이 감행되였다. 검거 선풍은 장기 집권 책동이 로골화된 10월 이후 더욱 강화되여 《사법 사상 류례 없는 구속 령장 발부》의 사태를 연출하였다 (《국제 신보 》1962년 10월 19일).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찬란한 성과에 무한히 고무되여 날로 앙양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투쟁을 제압하고 그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며 그들 속에 《반공》 의식과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적대 사상을 주입시키기에 광분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일체의 용공 세력의 분쇄》, 《반공 리념의 수호》를 요란히 고창하면서 신문, 방송을 통한 체계적인 《반공》 선전과 함께 도처에서 《반공 전시회》, 《반공 강연회》, 《승공 웅변 대회》 등을 쉴새 없이 벌리였다.

특히 반미 구국 투쟁을 전 민족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한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1차 회의 호소의 거대한 영향력이 남조선 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에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급급하면서 《반공》 깜빠니야를 더욱 요란히 벌리는 한편 긴장 상태의 격화에 날뛰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11월 19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을 《전국 방첩 기간》으로 설정해 놓고 11월 21일에는 《전국 대학생 반공 토론 대회》를, 동 23일에는 《반공 학생의 날 기념식》을, 동 24일에는 《전국 승공 토론 대회》를 벌리는 등 발광적인 반공 소동을 감행하면서 《공산주의에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 》을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남조선 각급 학교들에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반공 도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과서들을 《반공》 일색으로 재편찬함과 함께 《반공 교과서》를 새로 발행하였으며 《특별 강좌》를 조직하였다. 또한 《인간 개조》를 운운하면서 《반공》과 《도의 앙양》, 《민족성》을 설교함으로써 남조선 인민들의 계급 의식을 말살하고 노예적 굴종을 강요하는 반동 정책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장기 집권을 위한 《민정 이양》 책동

군사 파쑈 통치의 류혈적 방법이 아니고서는 무너져 가는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미제와 군사 《정권》은 1962년에 군사 파쑈 통치를 무한정 연장하기 위한 《민정 이양》 놀음을 파렴치하고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군사 파쑈 통치배들은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항과 국제적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1961년 8월 12일 성명을 통하여 1963년 8월까지 《참신하고 량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이라고 떠들어 댔다.

미제는 군사 파쑈 도당을 통하여 발표한 이 《성명》을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 회복에 고무적인 것》이라고 지껄이면서 군사 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책동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1961년 11월에는 박 정희를 직접 워싱톤에 불러다가 《민정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1962년에 들어서면서 군사 파쑈 도당은 《민정 복귀 후에는 정권을 이양하겠다》느니, 《군 본연의 자태로 돌아가겠다》느니 하던 기만마저 완전히 벗어던지고 《혁명 정부의 군인들 제대를 하여…민정에 참여하는 것이 공약 위반이 아니》며 박 정희의 《대통령 출마는 내외 정세로 보아 부득히 한 것》이라고 떠벌리면서 저들의 장기 집권 의욕을 로골적으로 들어 내놓았으며 12월 29일에는 저들이 《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 제 4조 1항을 개정하였다.

미제는 11월에 자기들의 륙무 김 종필을 워싱톤에 불러다가 《현 군사 정부를 신뢰》한다느니, 《혁명 정신을 계승할 민정을 환영한다》느니 하면서. 군사 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책동을

적극 비호해 주었다.

상전의 비호에 고무된 군사 파쑈 도당은 장기 집권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파쑈 통치 체제를 정비 강화하고 저들의 사회 정치적 지반을 꾸리기에 광분하는 한편 정치적 반대파의 진출을 가로 막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사회 정치적 지반을 꾸리기 위한 책동】 아무런 사회 정치적 기반도 없는 군사 파쑈 도당은 하루'밤 사이에 탈취한 《정권》을 유지하며 나아가서는 장기 집권을 위한 자기의 지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회유 기만 책동을 교활하게 감행하였다. 일체 반대파 세력을 대량적으로 축출하고 자파 세력으로 괴뢰 통치 기구를 꾸려 온 군사 파쑈 도당은 1962년 3월 22일 군사 《정권》의 합법성을 가장하기 위하여 남겨 놓았던 구 정치 세력으로서의 유일한 존재였던 윤 보선을 추방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탈취하였으며 6월 16일에는 송 요찬을 《내각 수반》직에서 축출하였다. 그들은 《공무원》들을 저들의 정치적 지주로 삼기 위하여 《관기 확립》이란 명목 밑에 《공무원 정리》 사업을 계속하였다. 1962년 1월 4일 《비위 공무원 조사 위원회》를 조직하였고 6월과 9월에 실시한 《국정 감사》를 통해 군사 《정권》은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공무원》들을 《부정》, 《부패》, 《무능》등의 구실 밑에 대량적으로 축출하고 《고급 공무원》으로부터 하부 말단의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을 제대 군인을 중심으로 한 저들의 추종자들로 교체하였다. 그들은《반공 리념》을 주입하기 위하여《공무원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있을 《민정 이양》 이후의 보복을 위구하는 《공무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민정 이양 후 혁명 정부에 충실했던 공무원들을 탄압하는 정당은 용납할 수 없》 (《동양 통신》 1962년 2월 16일)다고 떠벌리면서 그들을 저들의 반동 정책 수행에 효과적으로 동원하려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괴뢰군 내에서도 자기의 지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계속 반대파를 대량 숙청하고 자기의 심복들을 등용 배치하였다. 1962년 3월에도 군사 파쑈 도당은 반대파의 《장성급》 20여명을 파면 조동시키고 새로 35명의 《장성》을 비롯하여 179명의 장교를 승진 등용시켜 그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였다.

한편 사회적 지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어용 단체들을 정비 강화하였다. 일제 말기의 《국민 총 동원 운동》의 재판인 《재건 국민 운동》을 일층 강화하려고 1962년에 시, 군에 《향토 재건 훈련소》라는 것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말단 조직인 《청년회》와 《부녀회》를 정비하였으며 1962년 11월 2일에는 이를 더욱 관제화하기 위하여 《본부 및 각급 지부의 직원을 국가 공무원으로》 취급하기로 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재건 국민 운동》에 남조선 인민들을 강제로 인입시켜 《국민 총 단결》, 《향토 재건》이란 미명 하에 《반공》, 《숭미》 사상을 주입시켜 군사 《정권》에 순종시키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판만 바꾸어 달면 곧 여당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제대 군인들을 강제로 편입한 《재향 군인회》를 재 조직하고 간부들을 자기들의 심복들로 꾸려 놓았다.

특히 군사 파쑈 도당은 과거의 위정자들과는 달리 마치 인민 생활에 큰 《관심》이나 가지고 있으며 《선정》을 베푸는듯한 환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간교한 회유 기만 책동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울산 지구 종합 개발 계획》이요 《기공식》 이요 하면서 《5개년 계획》에 따르는 경제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듯이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였다.

그러나 아무런 재정적 뒤'받침도 없는 《5개년 계획》은 《중앙 정보 부장》이란 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은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못하였》 (일본 《지지 통신》 1962년 11월 23일)으며 《착수 이래 9개월에 이미 암담한 실패의 양상을 로출》시켰을 뿐이다 (《에이에프피 통신》 1962년 7월 18일).

군사 파쑈 도당은 농민들 속에 저들의 지반을 구축하여 보려고 《농촌 고리채 정리》요, 《중농 정책》이요 하면서 도시와 농촌 간의 《결연 운동》, 《모범 부락 창조 운동》등을 벌리고 그것을 통하여 농민들을 《구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요란스럽게 선전하였다.

《고리채 정리》에 의하여 빈농민들은 오히려 돈을 빌려 쓸 길조차 막히게 되여 더욱 곤경에 빠지게 되였으며 농민들은 《중농 정책》으로 생활이 《안정》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였다.

《농지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비료 가격의 인상으로만도 농민들의 부담은 전년에 비하여 47억원이나 증대되였으며 량곡 수탈 계획량은 정전후 최고 기록인 520여만석에 달하였다.

군사 파쑈 통치배들은 저들에 대한 환상을 조성하려고 《국정 감사》니 《민정 시찰》이니 하는 연극을 꾸며 빈번히 지방을 돌아다니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의 통치 기구를 강화함으로써 자기들의 지반을 닦아보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정치적 반대파의 진출을 가로 막기 위한 책동】 력대 괴뢰들 중 가장 취약한 군사 파쑈 도당은 장기 집권하기 위하여 《반공》의 구호 밑에 수다한 애국적 인사들을 체포 처형하는 한편 정치적 반대파의 진출을 각방으로 가로 막으려고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 없이 감행하였다. 즉 그들은《정치 활동 정화법》, 《헌법》 개악, 《정당법》 및 《선거법》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민정 이양》에서 계속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하여 놓았다.

《정치 활동 정화법》의 조작… 군사 《정권》은 1962년 3월 16일

《참신한 정치 도의의 확립》이란 미명 하에 《정치 활동 정화법》을 조작하여 혁신 세력과 앞으로 《선거전》에서 주요 경쟁자로 될 수 있는 기성 보수 정객들 및 이와 결탁할 수 있는 이전 괴뢰 정부 관리들과 경제계 인물들을 정치 활동 제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그중 3천 여명에 대하여 1968년 8월 15일까지 6년간 일체 《선거》의 립후보 및 《선거 연설》, 정당 사회 단체의 조직 및 가입, 타 정당, 사회 단체에 대한 원조, 정치적 집회 조직 및 연설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동 《법》제 8조).

상기 《대상자》 들이 정치적 활동을 하고저 할 때에는 《정치 정화 위원회》의 《적격 심판》을 받게 되여 있다 (동 《법》 제4조). 그러나 《정화 위원회》의 결정을 번경할 수 있는 권한을 《최고 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적격 심판》은 박 정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하여 진행되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 뿐만 아니라 《적격 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은 일체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여 있다 (동 《법》제 10, 11조).

다른 한편 구 정치 세력의 반항에 부딪치고 있는 군사 파쑈 도당은 자기들에게 굴종하여 충실히 복무한다면 《그 정치적 행동의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제 9조 1항)고 규정해 놓음으로써 구 정치인들을 포섭 리용해 보려는 간교한 목적도 추구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 파쑈 도당은 오직 자기들만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일체 애국적인 력량과 기성 보수 세력의 진출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민정 이양》에서 계속 집권하기 위한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여당 조직을 위한 책동과 《정당법》의 조작… 《군사 정변》후 일체의 정당, 사회 단체를 강제 해산시키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군사 파쑈 도당은 관권과 어용 단체 조직을 리용하여 차기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여당 조직 준비를 진행하였다.

정당 조직 임무를 맡아 나선 《중앙 정보 부장》 김 종필은 미제와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얻어낸 돈과 《증권 파동 사건》, 《새 나라 자동차》 사건, 《빠찡고》 (회전 당구) 수입, 《워커힐》 (미군 유흥장) 건설 등을 통한 각종 부정 행위로 취득한 막대한 정치 자금을 물쓰듯하면서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수 만명의 《정보 부원》들과 그와 결탁한 졸개들을 동원하여 《재건 국민 운동》 조직과 《재향 군인회》 등 어용 단체를 토대로 소위 《주체 세력》과 예비역 군인 및 일부 구 정치인들을 포섭하여 앞으로 조직될 여당의 하부 조직을 계통적으로 꾸미였다. 특히 5월에 《정치 활동 정화법 해당자에 대한 적격 판정》을 끝내고 자기들이 포섭 리용할 인물 선택을 마친 이후에 와서는 이러한 《준비 작업》이 일층 로골화되였다. 그리하여 앞으로 《헌법》과 《선거법》에 의하여 제정될 120 여개의 《지역 선거구》 마다에 설치될 지방 조직을 끝내고 (《조선 일보》 1962 년 11월 10일) 7월 초부터는 《반공》과 《자유 민주주의 정치 경제 체계》를 《정강 정책》으로 한 《범국민적인》 《재건당》이 만들어 질 것이라는 것을 어용 출판물을 통해 공공연히 선전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의 여당 조직 책동은 11월에 김 종필이 미국 상전으로부터 《정부》 및 정당 조직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온 이후에 더욱 본격화되였다. 그리하여 정치 활동이 허용되기 두 달 전부터 이들은 《최고 회의 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정당의 《륜곽》과 그 성격을 밝히면서 중앙당과 도당 위원장급은 《최고 위원, 정부 각료 기타 정계에 파견되여 있는 군인 등 혁명 주체 세력》이 되며 《핵심 당부》 위원장급에는 《재건 국민 운동》 기구와 《재향 군인회》 등의 군급 간부들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부 구 정치인들이 망라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였다.

11월 초부터는 《최고 위원 및 일부 각료》들이 개별적으로 박 정희와 《민정 참여》 문제를 놓고 밀담들을 진행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최고 위원》들과 김 종필이 정당 조직 문제를 놓고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 (《국제 신보 지사》 1962년 12월 21일). 이렇게 하여 군사 파쑈 도당은 1963년 1월 정치 활동이 개시되면 일제히 중앙당 조직 기구와 지방당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전히 해 놓았다.

한편 군사 파쑈 도당은 온갖 방법으로 《혁신》 세력과 구 정치인들의 규합을 방해하면서 압력을 가하여 오다가 정치 활동 개시 바루 전날인 12월 31일에 《정당 란립을 방지》 한다는 구실 밑에 《정당법》을 조작 공포함으로써 사실상 저들이 조직하는 여당과 1~2개의 정당을 제외하고는 《혁신》 정당은 물론 기성 보수 세력의 정당 조직마저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당법》에 의하면 새로 조직되는 정당은 《선거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는바 이에 등록되려면 《지역 선거구》 총수의 3분의 1에 해당한 40 개의 《핵심 당부》 (당원 80 명 이상)를 가져야 하며 그것은 5개의 서울시, 직할시 및 도에 분포되여 있어야 한다.

과거에도 혁신 정당들은 물론 일부 보수 정당들도 처음부터 이러한 방대한 조직과 력량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런데 1년 반 이상이나 정치 활동이 금지되여 있었고 《정치 활동 정화법》으로 3천 여 명의 구 정치인들이 정치 활동을 금지 당한 형편에서 실제상 군소 정당의 조직은 불가능한 형편에 있다.

이 밖에도 정당 발기의 목적,

정당의 명칭, 그 대표자 및 회계 책임자까지 군사 《정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사 정식 《등록》되였다 해도 당원 수는 년 2회, 당의 전반적 조직 활동은 년 1회씩 보고하며 《정부는 감독상 필요》에 따라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언제나 해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정당의 재정 활동에 대하여도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정당법》은 그 내용 자체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근로 대중의 결사와 혁신 정당의 금지는 물론 보수적인 군소 정당마저 임의대로 금지 탄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 파쑈 독재 정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극악한 파쑈 악법이다.

《헌법》의 개악…군사 파쑈 도당은 1962년 12월 26일 《민정 이양》 책동의 일환으로서 전문 5장 121조, 부칙 9조로 되는 《개정 헌법》을 공포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미제의 지시하에 7월에 립법 기관도 아니고 《제헌 의회》도 아닌 극소수의 군사 파쑈 분자들의 집단인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내에 《헌법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3개월 여의 기간에 《헌법 개정안》을 날조하였다.

미제는 《헌법 개정안》을 조작하는 첫 순간부터 어용 학자들인 뉴욕 대학 교수 후란츠와 하바드 대학 교수 에머슨 등을 직접 남조선에 파견하여 군사 파쑈 분자들의 테로 독재를 연장하는 방향에서 《헌법》을 개악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케 하였으며 1962년 10월에 미 국무 장관 러스크는 미제의 특무인 김 종필을 불러다 놓고 《신 정권》의 《권력 구조》와 《새 내각 성원의 구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주었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저들의 이러한 범죄 행동을 다소나마 엄페하고 《헌법 개정안》에 그 어떤 《민의》라도 반영된듯이 가장하려는 목적 밑에 8월 말에 《공청회》라는 연극을 꾸미였으며 12월에는 《국민 투표》 놀음을 벌려 놓았다.

군사 파쑈 도당은 만일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면 군정을 연장하겠다고 위협하였으며 《투표》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것이라고 공갈하면서 《국민 투표》가 있기 1주일 전부터 남조선 전역에 《정 비상 경계》를 펴고 특무, 첩보 분자, 어용 단체들을 총발동하여 강압적으로 《지지표》를 날조하기에 발광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이 조작 공포한 바에 의하더라도 《유권자》총 수의 32.7%가 《개헌안》에 반대 투표하였거나 투표 참가를 거부하였다. 강원도 홍천군, 서울시의 룡산구와 서대문구를 비롯한 일련의 지역들에서는 기권, 반대, 무효 투표의 비률이 50~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조작된 《헌법》에 남조선 인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리 만무하며 따라서 그것은 철두 철미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것으로 일관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개정 헌법》은 리 승만 시기의 《헌법》을 더욱 개악하는 방법으로 소위 《3권 분립주의》에 기초한 《대의제》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부르죠아 독재의 본질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3권 분립주의》도 다만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제에 있어서는 1인 독재 통치 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그것은 《개정 헌법》제 3장《통치 기구》의 제 조항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권은 물론 립법, 사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을 《대통령》의 손에 철저히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국무 회의》를 의결권도 없는 하나의 《심의 기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국무원》을 《대통령》에게 완전히 종속된 허수아비 기관으로 만들어 놓았다.

《개정 헌법》은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도 《대통령》의 종속물로 만들고 있다. 본래의 《헌법》에서 형식적이나마 《국회》가 《국무원》이나 개별적 《국무 위원》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권한 마저 제거하여 버렸으며 《국정 감사권》조차 삭제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국무 위원》은 《국회》의 신임 여하에 관계 없이 오직 《대통령》의 의사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개정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 49조 2항) 《국회》를 완전히 무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제 5장에서《국회》는 다만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만 함으로써 《국회》로부터 《헌법 개정》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내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라는 구실 밑에 어느 때든지 《국회》를 젖혀 놓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립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였다.

《개정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사법 기관》에 대한 강한 통제권을 가지게 되였다.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들을 직접 임명할 뿐만 아니라 기타 《법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성원들로 구성되는 《법관 추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모든 《법관》들을 대통령의 의사대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 《조약 비준권》, 《선전 포고와 강화》에 관한 권한, 《계엄 선포권》 및 기타의 주요 《국책》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정 헌법》은 부칙 제 3조에서 군사 《정권》이 조작한 《특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한 각종 악법과 조약들이 《민정 이양》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며 부칙 제 6조에서 군사 《정권》에 복무하던 《공무원》과 기업체의 《임원》들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게 함으로써 민정 이양》 후에도 통치 기구의 말단에 이르기까지 자파 세력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개정 헌법》은 《민정 이양》의 간판 밑에 군사 파쑈 통치 질서를 유지 연장할 뿐만 아니라 정비 강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으며 군사 파쑈 도당은 바로 그러한 기초 우에서 군복을 사복으로 갈아 입고 모든 권력을 계속 독차지 하려 하고 있다.

《개정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제 2장의 제 조항에서 인민들의 기본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파쑈 통치를 그대로 연장하려는 흉계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놓고 있다.

《개정 헌법》에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그럴듯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각종 제한과 보류 조건들을 덧붙여 놓음으로써 형식상으로 선포한 권리마저 란폭하게 유린하고 있다.

《개정 헌법》 제 1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에 대하여서는 《사후에 령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실하에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들을 《구속 령장》 없이 언제든지 제 마음대로 체포 구금할 수 있게 만들었다.

《개정 헌법》은 또한 인민들의 일체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여지없이 말살하고 있다. 《개정 헌법》 제 18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를 보장하기 위한 그 어떠한 조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종 제한 조건들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앞서의 규정을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언론 조항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신문이나 통신의 발행 시설 기준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조건을 첨부하여 놓음으로써 《시설 기준》을 구실로 군사 파쑈 도당 이외의 모든 세력의 언론 활동을 봉쇄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개정 헌법》 제 18조 5항에서는 《특별 범죄 처벌에 관한 림시 특례법》 제 3조 3항을 그대로 연장하여 자기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명예 훼손》이니 《사회 륜리의 침해》니 하는 터무니 없는 트집을 잡아 마음 대로 탄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개정 헌법》 제 18조 4항에는 《옥외 집회에 대하여서는 그 시간과 장소에 관한 규제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여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군사 파쑈 도당은 12월 31일 소위 《정치 활동의 재개》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한다는 전문 18조 부칙으로된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안》을 조작 공포하였다. 이 악법은 금지하는 집회와 시위부터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에 의해 해산된 정당 또는 예속 단체》의 집회와 시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와 시위, 《규정》과 군사 파쑈 통치의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으며 삐라를 살포하거나 선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 허용한다는 집회나 시위도 그 목적과 날자, 시간, 장소, 참가 인원, 주최자의 주소, 성명, 지어는 시위 방법까지 적어 넣은 신청서를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게 되여 있다. 설사 허가를 받은 집회나 시위라 하더라도 관청이나 미국 대사관 또는 《관저》, 《공관》이나 《외국인 사절》의 숙소 근방에서는 일체 할수 없으며 해가 뜨기 전 또는 해가 진 후, 그리고 《공무원들의 출퇴근 전후》에도 할 수 없게 되여 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악명 높은 《집회에 관한 림시 조치법》의 연장으로서 관제 시위나 집회 그리고 관혼상제 외에는 어떠한 집회나 시위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헌법》 제 7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라고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조목 2항에는 《정당은 그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여야》한다고 규정하였고 3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대법원의 판결로서 그 정당은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란 하루 아침에 모든 정당, 사회 단체를 해산한 그런 질서를 의미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요구하였다는 단 한 가지 리유로 혁신 정당의 간부들을 학살한 그런 질서를 의미한다. 이것이야 말로 저들의 비위에 맞지 않기만 하면 어느 때든지 《민주적》이 아니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구실 밑에 어떠한 정당이든지 마음대로 해산하겠다는 위협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군사 파쑈 도당은 《소속 정당 추천》이 있어야 《국회 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 립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 (제 36조, 46조) 함으로써 무소속 인사의 선거 출마를 금지하여 놓았다.

군사 파쑈 도당은 설사 반대파들이 《국회 의원》에 당선되거나 자기 당 내에서 반대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개정 헌법》 제 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들의 소속 정당을 언제든지 임의로 해산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며 《국회 의원 임기 중 당적을 리탈하거나 변경할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는 제 38조를 적용하여 마음대로 의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 파쑈 도당은 1963년에 있을 《대통령》과 《국회 의원》 《선거》에서 자파 세력의 《승리》를 날조하려 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개정 헌법》 제 28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느니, 제 27조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느니, 제 3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느니 하는 허위와 기만에 가득찬 빈말을 늘어 놓고 있다. 일할래야 일할 곳이 없어 수 백만의 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남조선 형편에서 어디에 과연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수 백만의 청소년들이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만 과중한 학비를 부담할 길이 없어 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 하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겠는가? 무고한 주민들이 미제 야수들에 의하여 매일과 같이 학살, 통욕을 당하고 있으며 극심한 생활고로 30 여만의 녀성들이 륜락의 길에 떨어져 있고 자살자의 비률이 세계 제 1위인 《죽음의 땅》에서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기만에 불과하며 인민들을 우롱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개정 헌법》 부칙 제 3조, 제 4조 및 제 5조에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란폭하게 유린하기 위하여 군사 파쑈 통치 기간에 날조된 수 백, 수천 가지 악법들의 《효력을 지속》 시키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고 박아놓았다. 이 부칙으로서도 그들은 《개정 헌법》에 형식적으로나마 규정한 권리와 자유를 말살하고 무제한한 군사 파쑈적 폭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외에도 《개정 헌법》 제 4장 경제 조항에서는 《자유 경제》와 《통제 경제》를 배합하는 이른바 《혼합 경제》의 간판 하에 인민들에 대한 약수적 수탈을 강화하며 남조선 경제를 외래 제국주의자들에게 통채로 내 맡기고 있는 군사 《정권》의 반인민적인 현 경제 체계를 그대로 연장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비와 같이 미제와 군사 파쑈 분자들이 공포한 《개정 헌법》은 철두 철미 현 군사 파쑈 독재 통치 질서를 합법화하고 박 정희 도당이 군복 대신 사복으로 갈아 입고 계속 파쑈 독재를 감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법적이며 사기적인 문건이다. 또한 그것은 악명 높은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의 연장이며 재판일 뿐만 아니라 군사 《정권》이 란발한 살인적인 포고문과 악법들을 한데 긁어 모아 법문화한 극악한 반동 문건이다.

기만적인 《선거법》 조작…오래 전부터 선거 지반 구축과 여당 사전 조직을 진행하고 헌법까지 개악한 군사 파쑈 도당은 또한 1963년 《선거》에서 《대통령》과 《국회 의원》을 독차지하기 위한 책동의 하나로서 《선거법》을 조작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선거법》을 통해 광범한 근로 대중의 진출은 물론 정치적 반대파의 출마도 극력 억제하고 있다.

이들은 《정당법》을 조작하여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의 정당은 물론 혁실 정당과 보수 군소 정당의 출현까지도 금지한 조건에서 《정당 본위제 선거》로 무소속의 출마를 금지함으로써 로동 계급을 비롯한 인민 대중의 정계에로의 진출과 구 정치인들의 진로를 막아 놓았다. 또한 《선거 공영제》라는 미명 하에 야당들의 《선거》 운동을 극력 제한하였으며 타당 립후보자에 대한 지지 운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일련의 야당들이 단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군사 파쑈 도당에 대항하려는 현실적인 움직임을 봉쇄하였다.

인민들로부터 극도로 고립되고 《선거》 지반이 없어 종래와 같은 개별 경쟁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군사 파쑈 도당은 《선거법》에서《국회 의원 선거》를《다수 대표제》 (인물 본위로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투표 방식)와 《비례 대표제》 (정당 본위로 득표한 비례에 의하여 국회 의원의 의석 수를 안분하는 방식) 의 혼합식 투표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국회》 의석 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비례 대표제》 의석의 대부분을 저들이 독차지하려는 흉계에 불과하다.

또한 군사 파쑈 도당은 《대통령 선거》를 《국회 의원 선거》에 앞서 진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반대파들에 정당을 조직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조건을 리용하여 박 정희를 《대통령》 으로 만들고 그의 독재권을 리용하여 《국회 의원 선거》에서 자파의 당선을 용이하게 날조하려는 것이다.

매국 배족 행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유지 강화하며 극동에서의 반공 전략 체제를 재편성하기 위한 미제의 방침에 따라 군사 《정권》은 《자유 우방과의 정치 군사적 뉴대의 강화》, 《외자 도입의 장려》를 1962년도의 《시정 방침》으로 내놓고 극동에서의 미제의 집단적 침략 체제에 남조선을 철저히 예속시키며 남조선 자연 부원을 외래 독점 자본의 제물로 내맡기는 매국 배족 행위를 더욱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박 정희는 9월 8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제 침략군이 계속 남조선을 강점할 것을 애걸하였으며 (《동양 통신》 1962년 9월 18일) 상전의 호출을 받아 미국을 방문한 미제의 때문은 특무 김 종필은 군사 《정권》의 정치, 경제, 군사 정세와 첩보 활동 정형을 보고하는 동시에 《한일 회담》 타결 문제, 경제 《원조》문제 특히는 《민정 이양》과 관련된 문제들을 로의하고 구체적 지시를 받았으며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또는 어디에서든지 미국과 손잡고 나가겠다》고 상전 앞에 맹세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동북 아세아 동맹》을 조작하기 위하여 《한일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며 남부월남, 라오스, 대만, 비률빈 등 미제의 괴뢰들과의 군사적 결탁을 서두르기 위해 광분하였다. 2월 3~24일 간에《반공 체제의 강화》, 《우방과의 군사적 뉴대의 강화》를 위하여 동남 아세아의 《반공》 괴뢰 국가들을 방문한 미제의 특무 김 종필은 방코크에서 《군사 동맹》의 기반으로 될 《아세아 반공 쎈터》의 조작을 제의(도꾜 1962년 2월 20일 《동양 통신》) 하였으며 타이, 말라이, 남부 월남, 비률빈의 괴뢰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모의를 하고 《합의》를 보았다. 5월 10일부터 6일간 미국 상원 의원 돗드라는 자의 감독하에 서울에서 진행된 《아세아 반공 련맹 림시 총회》에서는 이 《반공 쎈터》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사 파쑈 분자들은 미제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군사 동맹》 조작을 위한 전제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제넘게도 타이가 위협을 당하면 《타이를 원조하겠다. 그 원조는 군대를 의미한다》(《방코크 포스트》 1962년 2월 8일) 느니 《남부 월남이 요청만 한다면 남조선은 언제든지 군대를 파견하겠다》(《에이피》1962년 2월 19일 및 3월 4일) 고 수차 떠벌렸으며 5월 11일에는 《남부 월남에서의 게리라전을 원조》한다는 구실 밑에 10 여명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하였다.

군사 《정권》은 그들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매국적인 예속의 길에서 계속 찾으면서 남조선을 외국 독점 자본의 침략에 내맡기였다. 그들은 미제의 침략적 《원조》의 증액을 애걸하는 한편 외국 자본의 남조선 침투를 촉진시키려고 1962년 8월에는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안》을 조작하여 외국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군사 《정권》이 보증하는 매국적 조치까지 취하였다. 그리하여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국 독점 자본의 대표들이 남조선을 제집 드나들듯 하면서 경제적 침략에 날뛰였다.

【《한일 회담》의 속결을 위한 책동】 1962년에 《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 짓기 위한 미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공모가 더욱 로골화되였으며 군사 《정권》의 친일 매국 책동이 보다 적극화되였다.

미제가 《한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서두르게 된 것은 일본의 《협조》에 의거하여 남조선에서의 자기의 식민지 통치의 위기를 수습하며 남조선에 대한 《원조》를 일본에 분담시켜 자기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 보려는데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에 편승하여 남조선에 대한 재침 야욕을 실현하려하고 있다.

한편 남조선 군사 《정권》은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며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무런 밑천도 없이 조작한 《5개년 계획》 실현을 위한 자금을 해결해 보려고 《한일 회담》의 속결을 서둘렀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고위 정치 회담에 의한 일괄 해결》, 막후에서의 비밀 교섭 및 《국교 정상화 전의 민간급 경제 협력》 등 파렴치하고 모략적인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

집권 직후부터 《정치적 절충》으로서 모든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려는 군사 파쑈 분자들은 1961년 11월에 있은 이께다와의 회담에서 박 정희의 굴종으로 내막적으로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 《합의》를 보았다. 즉 《재산 청구권》 문제는 소위 《법적 근거가 확실한 것》에 국한하고 그 대신 《경제 원조》를 본격적으로 받으며 《리 승만 라인》문제는 일본에 남조선 연해 어업권을 부여하는 《어업 협정》의 체결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를 《정치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일괄 해결》하자는 데 《합의》하였었다.

박 정희—이께다 회담 후 실무자급 회담은 급속도로 진척되였으며 1962년 1월 25일 《한일 회담》의 《수석 대표 회담》에서는 《3월 초에 정치 회담을 열고 1개월 이내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여 5월 중에는 국교 정상화 협정의 가조인을 마친다.》(일본 《마이니찌 신붕》 1962년 4월 11일) 는 내용의 《비밀 문서》까지 교환되였다.

그리하여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은 력대 괴뢰 도당이 내걸었던 주장까지도 포기해 가면서 조일 량국 인민의 강력한 반대에 의하여 10 여년 간이나 끌어 온 《한일 회담》을 《정치 협상》으로 《일괄 해결》하려고 서둘렀다.

한편 미제는 《아세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문제는 월남과 라오스에서의 문제라기보다 일한 회담의 결과》(《유피아이》 1962년 1월) 라고 하면서 미 국제 개발 처장 해밀톤, 이전 국무 장관 애치슨, 법무 장관 로버트 등을 일본과 남조선에 파견하여 《한일 회담》을 결속 짓는 방향에서 량측을 조종하였으며 1월 15일 주일 미국 대사 라이샤워를 이께다에게 《한일 회담》을 결속 짓기 위한 《정치 협상》으로 하루 속히 넘어가라고 공공연히 압력을 가하였다.

미제의 조종에 고무된 군사 파쑈 도당은 미제의 특무 김 종필을 일본에 보내여 《정치 회담》을 조속히 벌리도록 이께다에게 애원하였다.

그리하여 3월 12~17일 간에 걸쳐 도꾜에서 《한일 정치 회담》이 《외상급》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은 당시 남조선과 일본을 방문한 미 국무성 극동 담당 차관보 해리맨과 케네디의 고문인 바울스의 직접 조종 하에 진행되였으나 조일 량국 인민의 강력한

반대로 《어로 협정》을 체결하는 《원칙》에 합의(도꾜 1962년 3월 17일 《유피아이》) 하였을 뿐 별다른 결실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

《한일 외상 회담》 이 실패한 후 《2차 정치 회담》 개최 문제, 일본 외교관의 서울 장기 주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남조선 군사 《정권》 과 이께다 정부 간의 알륵이 표면화되고 따라서 《한일 협상》 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회담》 을 타개하려고 미제는 일본에 대한 압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5월 3일 케네디는 직접 일본 군국주의 두목의 하나인 요시다를 워싱톤에 불러들여 《한일 문제의 조속한 타결》 을 요구하였으며 일본 주재 미국 대사 라이샤워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가 극동에서 가장 긴요한 문제》 라고 이께다 정부에 압력을 가하면서 《한일 회담》 의 재개를 강요하였다. 특히 미제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을 적극 촉구하였는바 6월 초에 남조선과 일본에 기여들었던 미 국제 개발처 극동 담당 차관 쟈노우란 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 원조 계획에 일본이 참가할 것을 원하고 있다》 (《꾜도》 1962년 6월 8일)고 공언하였다.

7월에 있은 자유 민주당 총재 공선과 참의원 선거 결과 재집권하게된 이께다는 미제의 압력과 추동하에 《한일 회담》 재개 음모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군사 《정권》 의 약점을 리용하여 《한일 국교 정상화는 한국의 사활적 문제》 임으로 남조선측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서울 1962년 7월 25일 《동화 통신》) 한다고 군사 《정권》에 대하여 로골적으로 굴종을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8월 21일부터 《2차 한일 정치 회담》 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회담》 이 재개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정치 경제적 위기가 날로 심각해 지고 《민정 이양》 이 가까와 옴에 따라 《한일 회담》 을 년내에 결속 지어 보려고 발광적으로 책동하면서 더욱 더 일본에 굴종하였다.

박 정희는 친일 매국노의 본성을 로골적으로 드러 내여 《과거의 감정에 구애됨이 없이 장래를 내다 보》 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서라도 한일 회담을 성공시켜야 한다》 (서울 1962년 9월 15일 《동화 통신》)고 떠벌리면서 《현안 문제가 타결된 연후에 국교를 정상화하》 겠다던 《시정 방침》 까지 집어 던지고 《재산 청구권 문제》 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찬성》 하였다.

상전의 호출을 받아 미국 방문 도중 10월 20일부터 3일간 일본에 들린 김 종필은 박 정희의 《친서》 를 이께다에게 전달하는 한편 《한일 회담》 의 최종 타결을 위한 막후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12월 10일에는 이께다의 《전권 특사》 로서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가 《한일 회담의 속결 방침》을 모의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기여들어 김 종필과 밀담하였다.

이 밀담에서 군사 파쑈 도당은 종래 주장하던 6억 딸라의 《재산 청구권》 마저 포기하고 3억 딸라의 《무상 공여》 와 2억 딸라의 차관을 10 년 간에 지불 받는데 《합의》 하였다.

그러나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전체 조선 인민들과 일본 인민들, 그리고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한결 같은 규탄을 받고 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한일 회담》 의 막 뒤에서 남조선에 대한 경제, 군사적 침투를 적극적으로 추진시켰다. 그들은 《남조선 시장을 일본에 내맡기라》고 공공연히 요구하면서 《경제 사절단》 이니 《조사단》 이니 하는 명목으로 빈번히 남조선을 드나들었으며 남조선의 예속 자본가들과 일련의 경제적 《협정》까지 체결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38선은 한국의 방위선으로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일본의 방위선으로 된다》 고 떠벌리면서 《한일 공동 방위론》 까지 들고 나왔으며 (《에코노미스트》 1962년 1월 2일호) 일본 《방위청》은 남조선 《정세가 불안한 데 주목》 하며 조선에서 《국지 전쟁이 가능》 하다는 타산 밑에 《국교 정상화》 가 실현되는 차제로 《방위 주재관》을 남조선에 주재시킬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면에서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한일 군사 협력》 계획까지 작성하고 있다.

【동족 매매 책동】 군사 파쑈 도당은 저들의 파쑈 테로 통치가 빚어낸 악독한 후과로 절정에 달한 남조선의 민생고가 마치도 《인구 과잉》에 있는듯이 사태를 외곡 전도하면서 경제적 파탄과 절망적 상태에 다달은 빈궁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산아 제한》 과 《해외 이민》을 《실현》 하고 《적정 인구》 를 유지해야 한다고 인민들을 기만 우롱하려 하였다.

군사 《정권》은 《빈곤을 타파한다》 는 허울 좋은 구호 하에 1962년을 《산아 제한》 의 첫 해로 규정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가족 계획》 을 추진시키기에 광분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괴뢰 《정권》의 《보건 사회부》 에 《가족 계획 심의 위원회》 까지 만들고 1961년 12월 5일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법령》 으로 발표하였다. 남조선 각지에 수백개소의 《피임 상담소》 를 설치하고 수천명의 《요원》 들을 훈련 파견하여 피임법을 설교하는 일방 《국가 재건 국민 운동 본부》 를 비롯하여 《대한 가족 협회, 《대한 어머니회》, 《대한 인구 문제 연구소》 등 수다한 반동 단체를 조작 인입하여 《산아 제한》 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부화한 미국식 생활 양식과 인간 증오 사상을 주입하기에 미쳐 날뛰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산아 제한》 과 함께 실업자들과 제대 군인들을 비롯한 남조선 인민들을

미주와 동남 아세아 제국의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의 종신 노예로 팔아먹는 배족적 책동까지도 서슴 없이 감행하였다.

이들은 1961년 12월과 1962년 3월 2차에 걸쳐 브라질에 《이민 교섭단》을 파견하여 동족 매매 흥정을 벌려 놓았다. 1962년 2월 20일에는 《해외 이주법》과 소위 《해외 이주 5개년 계획》을 조작하여 앞으로 5년 간에 2만 150 세대의 《이민》을 예견하고 우선 1962년에 550 세대를 브라질에 강제 이주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실업 상태에 있는 제대 군인들을 미국 농장주들에게 팔아먹을 책동도 감행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이러한 배족적인 《이민》 책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1962년 2월에는 《이주자》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해외 이주 위원회》를 《보건 사회부 장관》의 《자문 기관》으로 설치하고 《이민》에 대한 알선 및 그 업무를 담당할 한국 개발 주식 회사》라는 인신 매매 상사까지 창설하였다 (《동양 통신》 1962년 2월 20일).

군사 파쑈 도당은 1962년 12월 18일 30 세대 273명을 브라질에 제 1차로 팔아 넘기고 계속 이를 추진시키려고 책동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의 이러한 책동은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의 일치한 규탄을 불러 일으켰다.

《한국 일보》까지도 《인구 문제는 빈곤의 원인이 아니라……정치 빈곤의 악 결과》라고 규탄하였으며 잡지 《사상계》는 《이민은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으로서는 가장 우책에 속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조선 사회계와 언론계는 《산아 제한 따위를 생각하는 당국자》들을 비난하면서 《아무리 립법 만능의 시대라 하더라도》 산아를 인공적으로 막는 것까지 《법률 령역으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군사 파쑈 도당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규탄하였다.

지배층 내부의 알륵의 심화

1962년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 대중으로부터의 철저한 고립과 괴뢰 정권을 탈취하려는 구 정치 세력의 반발에 의하여 더욱 궁지에 빠지게 되였다.

구 정치인들은 군사 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책동을 적극 반대하면서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에 편승하여 군사 《정권》을 전복하고 저들이 재 집권하기 위한 음모를 부단히 꾸몄다.

1962년에 구 정치 세력에 의한 무력 쿠데타 음모 사건만도 《민주당》계의 《신흥 외렬단 반정부 음모 사건》 (1월), 《한독당》계의 《정부 전복 및 요인 암살 사건》 (1월), 《구 민주당 계렬 반정부 음모 사건》 (5월), 《구 민주당계 및 이주당계 반정부 음모 사건》 (6월) 등이 적발되였다. 이 《반정부음모 사건》들은 구 정당 중요 간부들과 전 괴뢰군 장교들, 학자들과 학생들의 련계 하에 계획되였고 비교적 규모도 컸다.

《구 민주당 계렬 반정부 음모 사건》에는 전 《민주당》의 중요 인물들이 직접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괴뢰 군대내 박 정희 반대파 세력들과 련계 하에 괴뢰군 5개 련대와 고사포 대대 병력을 동원하고 5월 11일에 군사 《정권》을 전복하며 그 요인들을 암살할 예정이였으며 거사 후의 《정부 형태》까지 사전에 결정하고 있었다.

전《민주당》 및《이주당》계의 구 정치인들은 괴뢰 군부와의 련계 하에 전방 5개 련대와 후방 고사포 1개 대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군사 《정권》을 전복하고 괴뢰 정권을 탈취하려고 기도하였다(《동양 통신》 1962년 6월 17일).

한편 구 정치인들은 정치 활동이 금지되고 정치 사찰이 삼엄한 조건 하에서도 군사 《정권》이 조작한 《정치 활동 정화법》을 배격하면서 뒤에서 은밀히 기존 조직들을 정비하며 《선거》에 대비할 준비를 진행하였다.

구 보수 세력들의 움직임은 박 정희 자신도 1962년 3월 16일 발표한 《특별 담화》에서 《구 정치인들은 여전히 자기 또는 자파의 정치 세력 부식을 일삼고 정치 무대에서 재기를 몽상하는 후안 무치한들이 허다하다》고 한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과 대결하기 위한 구 정치인들의 이러한 음모는 1963년 정치 활동 개시일이 다가 옴에 따라 일층 강화되였다.

《정치 활동 정화법》을 반대하여 《대통령》 직에서 사임한 윤 보선은 12월 21일 또다시 《정치 활동 정화법》의 철회와 감금된 구 정치인의 석방을 요구하고 《범 야당을 형성》하여 군사 파쑈 도당의 재집권 책동과 대결할 것을 제창하였는바 이는 많은 구 정치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정치 활동 개시와 함께 련합 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를 로골적으로 진행하는데 이르렀다.

《군사 정변》후 외국으로 도망간 《신민당》,《민주당》계 구 정치인들도 군사 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책동을 반대하면서 공동으로 대 《정부》 전선을 형성할 것을 호소하였다.

인민들의 반독재 기세를 리용하여 1963년 1월의 정치 활동 금지 《해제》를 앞두고 저들의 재집권을 보장하려는 구 정치 세력의 이러한 움직임은 남조선 정계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렸으며 군사파쑈 도당을 궁지에 몰아 넣었다.

《군사 정변》 직후부터 대립되여 오던 군사 통치 집단 내부의 알륵도 더욱더 심화되였다. 박 정희파는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위하여 일시 리용한 장 도영이가 점차 자파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반을 꾸리려고 책동하자 그를 《군부 반혁명 사건》으로 몰아 제거

해 버렸다. 또한 박 정희파와 송 요찬파 간의 알륵도 심화되였다. 《대미 외교》를 강화할 목적으로 《내각 수반》으로 일시 등용된 송 요찬이 《국방부 장관》과 《륙군 참모 총장》을 비롯한 요직을 자파로 꾸리면서 세력을 확장하기에 급급하자 박 정희는 이를 견제하고 그 마저 축출하려고 책동하였다.

이리하여 박 정희파의 부단한 압력 밑에서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던 송 요찬은 6월 박 정희 파의 《통화 개혁》 실패를 공격하고 《내각 수반》 직을 사임하였다.

군사 통치 집단 내부에서의 알륵은 박 정희—김 종필 파와 리 주일—김 동하 파의 대립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리 주일—김 동하 파의 세력을 인입하여 《군사 정변》을 일으킨 박 정희—김 종필 파는 《정권》 독점의 야욕으로부터 출발하여 리 주일—김 동하 파의 세력 확장을 우려하면서 정보망을 통해 엄탐해 오다가 1961년 9월 25일 당시 리 주일이 《위원장》으로 있던 《부정 축재 처리 위원회》의 횡령 사건을 계기로 40여명에 달하는 그의 추종자들을 체포하고 리 주일까지 체포하려 하였다. 그러나 리 주일 파의 반항을 우려하여 당시 그를 체포하지는 못하고 괴뢰군의 실권 계통에서 그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앞으로 나올 《민정》의 요직에서 리 주일 파를 제외하려 하였다.

이에 분개한 리 주일—김 동하 파는 김포 주둔 괴뢰군 《해병 제1려단》을 동원시켜 《중앙 정보부》를 포위 공격하고 김 종필을 추방하려고까지 하였으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1962년 7월 10일 《통화 개혁》 실패와 관련한 인사 이동을 계기로 자파인 《최고 위원》들을 사촉하여 《최고 상임 위원회》에서 김 종필을 《중앙 정보부장》직으로부터 파면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자 김 종필은 완전 무장한 《중앙 정보부원》을 출동시켜 《최고 회의》를 포위하고 이 결정을 취소시켰다.

이들 간의 이러한 대립은 《민정 이양》 후 차기 《정권》 장악과 소위 여당의 주도권 쟁탈을 둘러싸고 더욱 심해졌다.

김 종필은 여당을 부르조아 당 조직의 일반적 원칙인 《원내 (국회 의원) 중심제》를 무시하고 《당 우위제》로 조직함으로써 자파로 꾸려진 《사무 당원》을 통해 당의 실질적 운영, 통제권을 독차지하려 하였다.

김 종필의 이러한 책동은 리 주일, 김 동하를 비롯한 최고 위원들의 심각한 불만을 야기시켰으며 마침내는 공개적으로 도전하여 나오게까지 되였다. 김 동하는 (당시 《최고 외무 국방 위원장》과 《공화당 발기 위원》) 1963년 1월 21일 《민주 공화당》은 김 종필의 사당에 불과하다고 비난하면서 현 군사 집권자들의 《원대 복귀》와 《중앙 정보부》의 개편, 여당 조직 책임자인 김 종필의 해외로의 추방 등을 주장하고 일체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성명》하였다.

김 동하의 이러한 행동은 리 주일을 비롯한 다른 《최고 위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연히 박 정희, 김 종필을 반대하는 데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군사 통치 집단은 일대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리하여 량파의 대립은 마침내 《중앙 정보부》와 군대, 경찰을 동원하는 《실력에 의한 대결》의 직전에까지 다다르게 되였으며 결국 1963년 1월 25일에 이르러 김 종필이 당직에서 물러날 것을 성명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실권 쟁탈을 위한 군사 통치 집단 내에서의 개싸움은 《민정 이양》이 가까와 옴에 따라 더욱 격화되였으며 군사 깡패의 본질을 더욱더 들어 내놓고 있다. 바로 군사 《정권》이란 력대의 괴뢰 정권과 다름 없는 집권욕에 혈안이 된 추악한 매국 배족 무리들로 꾸려진 가장 취약하고 불안정한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 인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모든 권력을 틀어 쥔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군정》이건 《과도 정부》건 《민정》이건 미제의 침략 도구로서의 본질은 달라질 수 없으며 그 어떤 자가 《정권》에 들어 앉는다 하여도 남조선의 파국적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경 제

《군사 정변》 후 2년 째로 접어든 1962년도 남조선 경제 형편은 더욱더 수습할 수 없는 파멸적 국면에 이르렀다.

생산의 전면적 파탄 특히는 농업에서의 대 흉작과 인플레의 가일층의 심화, 《군사 정권》의 재정 및 외화 사정의 악화 등은 전반적 경제 형편을 심한 불안과 혼란에 몰아 넣었으며 경제 파탄의 악영향 하에 인민 생활도 급속히 악화되고 제반 사회 경제적 모순이 더 한층 첨예화되였다. 이것이 1962년도 남조선 경제 정세의 기본 추세이며 특징이다.

남조선 경제의 이러한 파국적 위기는 전적으로 이해에 더욱 악랄화된 미제 침략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박 정희 도당의 매국 배족적인 경제 정책에 근원을 두고 있다.

자국 내에서 날로 격화되는 경제 위기 특히는 《딸라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로골적인 전쟁 정책과 《후진국》과 식민지 예속국에 대한 침략과 략탈을 강화하는 데서 찾으려는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대하여도 보다 적은 딸라의 지출로 보다 철저한 예속과 보다 많은 략탈을 자행할 것을 타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1962년도에 남조선에 대한 《원조》를 전년에 비하여 8천 여 만 딸라 (32%)나 축감하고 저들의 지배 하에 있는 일본, 서독 등 제국주의 독

점 자본을 남조선에 밀어 넣는 한편 《군사 정권》에 대해서는 《경제 개혁》들을 실시하여 식민지 수탈 체계를 더욱 정비 강화케 하고 《장기 개발 계획》을 수탈케하여 남조선 자체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략탈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1962년도 《군사 정권》의 경제 정책은 전'적으로 미제의 이러한 요구에 복종되였는바 박 정희 도당은 이 해에 반동적인 《5개년 계획 제 1 차 년도 사업》에 착수하는 길에 들어 섰으며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류례없이 강화하여 나섰다.

그들은 《빈곤은 피와 땀으로 막을 수 있다》라는 파쑈적 구호하에 남조선 인민들에게 《내핍》과 《절약》을 강요하는 한편 《세제 개혁》을 실시하여 세금을 전년도의 32%나 더 많이 부과 강탈 하였으며 《저금》이라는 미명하에 도합 84억 원의 자금을 민간으로부터 털어 냈다.

그들은 농민들에 대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근 11%나 더 많은 500 여 만 석의 량곡을 강탈하여 《정전 후 최고 기록》을 올렸으며 비료 판매 가격도 2배로 끌어 올려 농민들에게 늘씌웠다.

그들은 또한 이 해 한 해 동안에 근 20억 원에 달하는 불환 지페를 람발하여 인민들에 대한 추가적 수탈을 자행하였으며 증권 시장을 통하여도 1천 수 백만 딸라의 자금을 긁어 모았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이 자들은 이 해 6월 10일에는 불시에 《통화 개혁》을 단행하여 당시 전체 통화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6억 원이라는 거액의 민간 자금을 하루 밤 사이에 동결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이와함께 외자 조달을 위한 박 정희 도당의 매국적인 외국 자자본 도입 책동도 적극화되였는바 그것은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로골적으로 표현되였다. 그들은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기 전에는 일본의 민간 자본을 받아들일수 없다》던 종전의 가면 마저벗어 던지고 그 이전이라도 일본 독점 자본이 남조선에 무제한하게 침투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국민의 어떠한 비난이 있더라도 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짓겠다》고 공언하기까지 하였다.

매국적인 《외자 도입 촉진법》을 개악한 그들은 이 해 7월에 다시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남조선에 진출하는 외국 자본의 원리금 상환을 군사 《정권》이 직접 보증하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이리 하여 이 해 일본 독점 자본의 남조선 침투는 어느 때 보다도 적극화되였는바 《일본 경제 단체 련합회 부회장》 우에무라를 단장으로 하는 《일본 경제 사절단》의 남조선 방문을 필두로 하여 일본의 유력한 재벌들로 구성된 《시찰단》이 전후 5 차에 걸쳐 련달아 남조선에 기여 들었다.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에 진출하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과 그의 길잡이로 나선 예속 자본가에게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해 줄 목적으로 남조선 로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동결하여 대기업의 《민영화》와 《통합》, 중소 기업에 대한 대량적인 《기업 정비》를 강행하였다.

이 모든 경제 정책은 례외없이 가혹한 폭압과 총검의 위협하에 강행되였는바 이것은 남조선 경제를 더욱더 수습할 수 없는 파멸의 구렁 속에 밀어 넣었다.

1, 공업 생산은 전면적으로 갑퇴되였으며 기업 경영 조건은 일층 악화되였다.

《원조》의 축감과 외화의 부족으로 수입 원료 가격은 폭등하여 생산 기업체들의 원료난은 가일층 심각화되였다.

이 해 10월 현재 수입 원료 가격은 《군사 정변》 이전인 1961년 1월에 비하여 23%나 뛰여 올랐으며 그 이후 시기에도 계속 앙동하였다.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의 무제한한 군사비 및 군사적 목적을 위한 비생산적 지출의 증대는 악성 인플레를 더욱 심화시키고 산업 부문의 자금난을 한층 더 증대시켰다. 결과에 전체 기업의 75%까지가 년 60%에 달하는 고리 사채에 얽매이게 되였다.

여기에 6월에 있은 《군사 정권》의 날강도적인 《통화 개혁》은 남조선 전체 생산 기업체 및 인민 생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모든 경제 활동을 일시 질식 상태에 빠뜨렸다.

생산 조건의 전면적 악화로 말미암아 공업 생산은 더욱더 저하되고 이것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1962년 제조 공업 순 생산액은 전년도 보다 13%나 저하되였다. 그 중 면직물은 6%, 세탁 비누는 8%, 메리야스는 13%, 양말은 15%, 신발류는 25%나 각각 떨어졌으며 소금 생산은 약 3분의 1로 축감되였다.

외국 독점 자본과 예속 자본가의 압력과 《군사 정권》의 파쑈적인 《기업 정비》 정책 및 경영 조건의 전면적 악화로 인하여 기업체들의 파산 몰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극심하였다.

전체 기업에서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중소 기업의 가동률은 《전후 최악의 상태》라던 《군사 정변》 전의 56%로부터 다시 40%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교적 큰 기업체들 가운데서도 휴업과 페문 현상이 속출하였다. 남조선의 유일한 제철 공장인 《삼화 제철》은 이 해에 단 한 톤의 선철도 생산하지 못하고 운휴 상태에 있었으며 《북삼 화학》, 《한국 칼슘》 등도 계속 페문 휴업하고 있었다.

2,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의 가혹한 수탈과 《50년 래의 흉작》을 겪은 농촌 경리의 파국도 심각하였다. 극심한 식량 위기가 변중 남조선의 도시와 농촌을 휩쓸었다.

1962년도의 알곡 생산은 전해에 비하여 780 만 석 (27%)이나 축감된 2,100 만 석에 불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사 정권》 자신

이 추산한 데 의하더라도 1962년도 식량의 절대 부족량은 약 570만 석, 1963년에는 약 1천만 석이라는 류례 없는 규모로 증대되였다. 절량 농가는 춘궁기에 남조선 전체 농가 호수의 절반 이상에 달하였으며 도시에로의 쌀 반입이 두절되여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는 《쌀 소동》이 끊임 없이 벌어졌다.

3, 증대되는 군비 지출과 재정 수입의 부족으로 악성 인플레는 첨예화되고 재정 형편은 더욱 악화되였다.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전면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하여 격화되는 인플레를 수습하려 하였으나 1962년 1년 동안에 통화량은 62억 원(20%)이나 증대하였으며 그 대외적 가치는 절반으로 떨어졌다. 생산의 파탄과 통화의 팽창으로 물가도 계속 올라 이 해에 또다시 13.4%나 등귀하였으며 그 중 주요 소비품 가격은 20%, 곡물을 비롯한 식료품 가격은 30~40%나 등귀하였다.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은 부족되는 물자를 확보할 목적으로 이 해에 약 9천 여 만 딸라의 《정부 보유불》을 방출하였다. 결과에 1962년도 말 현재 《군사 정권》의 가용 외화 보유고는 3천만 딸라로 떨어지고 외화 사정은 매우 긴박하게 되였다.

4, 군사 《정권》의 재정난과 인플레의 심화, 외화의 고갈 등으로 박 정희 도당이 《목숨을 걸고》 해 보겠다던 《5개년 계획》도 첫 걸음부터 파탄에 직면하였다.

1962년도에 실시하기로 예견된 33건의 중요 건설 대상들은 자금 조달책이 없어 대부분이 착수도 못한 채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착공하였다는 불과 몇 건의 공사도 《기공식》만 올렸을 뿐 사실상 포기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하여 소위 《5개년 계획》은 외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착수 후 6개월 만에 막다른 골목에 빠졌으며》 《암담한 실패의 양상만을 로출시켰다》, 남조선 신문 《동아 일보》는 《5개년 계획의 제 1차 년도》인 1962년 사업이 문'자 그대로 《쑥밭이 되였다》고 썼다.

궁지에 빠진 군사 통치배들은 《5개년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길에 들어 섰으며 이 해 8월경부터 모든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성장》으로부터 당면한 경제 파국을 《수습》하기 위한 《안정》에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5, 경제의 전반적 파탄과 수탈의 강화로 실업과 절량이 증대되고 인민 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경제 활동의 전면적 후퇴와 광범한 중소 기업의 파탄, 《5개년 계획》의 실패 등으로 실업자와 반실업자 수는 더욱 격증하여 총 가동 인구의 3분의 2에 달하였다.

물가는 등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계속 동결된 결과 취업 로동자들의 형편도 더 한층 악화되였다. 그들의 임금 수준은 실지 생계비의 3분의 1,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지어 6분의 1밖에 안되였다.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의 농촌 수탈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농업 생산이 현저히 줄어들므로서 농민들의 생활도 가일층 악화되였다. 1962년 6월 현재 그들의 생계비는 물가 등귀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하여 20%나 증대되였으나 그들의 소비 수준은 도리여 10%나 떨어졌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춘궁은 예년보다 훨씬 빨리 다가 왔으며 집단적인 절량과 리농 사태가 속출하였다.

군사 통치배들의 폭압과 략탈 하에서 도시 령세 주민들의 생활도 심히 악화되였다. 군사 《정권》은 각종 부당한 구실을 붙여 이 해 10월 말까지의 기간에만도 도합 1만 2,800여 개의 도시 중소 상공업자들의 영업권을 박탈하였으며 1년 동안에 무려 2만 5천 여 개의 판자집을 헐어 버렸다.

이리하여 외국 기자도 평한 바와 같이 1962년도 남조선 《경제는 림종에 가까워 가고》 있었으며 인민들은 《림종의 괴로움에 지나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경제와 인민 생활의 이러한 파멸적 사태는 남조선의 정치 사회적 위기를 더욱 촉진시키고 미제와 식민지 통치에 전반적인 위기를 더하여 그의 종국적 파멸을 촉진 시켰다.

1962년도 남조선 경제 정세는 미제의 강점과 그의 식민지 경제 정책이 지속되는 한 그 누구도 남조선의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없으며 파국은 더욱 격화될 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보여 주었다.

산 업

1962년 남조선 경제에서 가장 혹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민족 산업이였다. 그것은 군사 통치배들이 소위 《산업 혁명》이니 《자립 경제 건설》이니 하는 기만적 구호 하에 경제에 대한 파쑈적 통제와 략탈의 예봉을 경제의 가장 가동적인 부문인 산업에 집중시킨 사정과 관련된다.

【매국 배족적인 산업 정책】 이 해 군사 통치배들은 주제넘게도 《5개년 계획을 착수》하여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댔다.

그러나 아무런 밑천도 토대도 없는 그들은 외래 독점 자본에게 민족 산업의 명맥을 떠맡기는 《대'가》로 이것을 실현하려고 타산하였다.

이 해 7월에 그들은 외국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안》을 조작하여 남조선에 투입되는 외국 자본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직접 보증하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외자 도입 촉진》을 위한 일련의 매국적 조치를 취하였다.

미제의 적극적인 조종 하에 감행된 《군사 정권》의 이러한 매국적인 외자 도입 정책으로 말미암아 미제를 위시한 일본, 서독

독점 자본의 진출 기도가 이 해에 철저히 강화되였다.

이리하여 1962년 9월 현재 《5개년 계획》에 예견된 중요 건설 대상 중 13 건이 외국 독점 자본의 촉수에 걸려들었으며 전력, 제철, 비료, 광업 등 중공업 부문과 방직, 식료 등 경공업 부문에 걸친 남조선 산업의 전반적 령역이 그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 되였다.

또한 군사 통치배들은 이 해에 《5 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내자(남조선 자금)조달》을 위하여 인민 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예속 자본가들을 더욱 로골적으로 비호하며 남조선 민족 산업의 주체적 력량인 광범한 중소 기업소에 대해서는 가혹한 말살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광업 개발 조성법》(1962년 5월), 《자동차 공업 보호법》(1962년 5월), 《수출 진흥법》(1962년 3월) 등을 조작하며 《중소 기업 협동 조합법 시행령》(1962년 2월), 《건설업법 시행령》(1962년 2월), 《무역법시행령》(1962년 5월)등을개악하고 소위《시설 기준 미달》, 《자격 상실》 등의 명목으로 남조선 중소 기업소들을 대량적으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파쑈적인 《기업 정비》 조치에 의하여 《군사 정변》 이후 1962년 8월 4일까지의 약 1년 3개월 동안에만도 강제 폐쇄 또는 철거 당한 중소 기업 (령세 점포 포함) 의 수는 무려 3만 1,122 개에 달하였다.

남아 있는 생산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군사 통치배들은 가혹한 략탈을 자행하였다.

일반 기업가들에게 부과되는 《관세》 및 《물품세》는 《자유당》 때에 비하여 1.5～2배로 끌어 올렸으며 그것도 지정한 납기를 어기게 되면 세액의 50%를 가산 징수하며 《재산 차압》, 《영업 정지》를 닥치는 대로 감행하였다.

1962년 6월 10일에는 불시에 《통화 개혁》을 단행하여 중소 기업의 소유 재산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30～40억 원의 자금을 하루 밤 사이에 강제 동결시킴으로써 그의 경영 활동을 《완전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선행자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날강도적인 략탈이였다.

국제 국내 반동파의 공공연한 경제적 결탁, 중소 기업에 대한 파쑈적 통제와 가혹한 략탈 등 1962년에 집중적으로 강행된 이 모든 매국 배족적 산업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산업의 식민지 예속성은 심화되였으며 산업 기업체들의 경영 조건은 악화되고 그 파산과 몰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반적 산업 실태】 산업의 식민지적 락후성과 편파성의 심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산업은 미국 경제의 한낱 부속물로 전락되고 그 생산 수준은 일제 말기인 1940년의 90%에 불과하였다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1963년 4월호).

산업의 식민지적 락후성은 민족 자본의 심한 령세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남조선 민족 자본의 대표적 기업인 중소 기업은 전체 제조 공업 기업체 수의 97.5%, 채취 공업 기업체 수의 89.5%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경제 기술적 수준도 극히 뒤떨어져 있다.

중소 기업의 위치

	기업체 수에 있어서	종업원 수에 있어서
제조 공업 (종업원5～99명까지)	97.5%	66.7%
채취 공업 종업원5～199명까지	89.5%	38.9%

· 자료 출처; 《산업 은행》《1958년도 광공업 센사스 보고서》,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1년 7월호.

산업의 구조상 편파성도 심화되고 그 자립적 토대는 완전히 말살되였다. 제조 공업의 부문별 구성을 보더라도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로 되여야 할 기계, 금속, 화학 공업의 비중은 극히 적고 식료품 및 섬유 공업 생산이 위주로 되여 있다. 1959년에 제조 공업에서 금속 공업은 6.6%, 기계 공업은 5.5%, 화학 공업은 17.1%, 요업은 7.8%, 섬유 공업은 28.4%, 식료품 공업은 23%, 기타는 11.6%를 차지하였다.

1960년 이후 시기에 와서 남조선 제조 공업 구성에서 중공업 그 중에서도 기계 및 금속 공업의 비중은 원래 락후하였던 일제 말기에 비해서도 1.6%나 더 떨어졌으며 반면에 방직 및 식료 공업의 비중은 8.9%나 더 높아졌다 (《합동 통신》, 《동화 통신》1961년 12월 26일).

남조선에서 《대표적인 공업》으로서 기업체 수에 있어서나 생산액에 있어서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방직 및 식료 공업 등도 주로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의 군수 물자를 생산하거나 미국 잉여 농산물을 가공 처리하는 전형적인 식민지 《하청 (下請) 공업》으로 되여 있다.

산업의 이러한 예속성은 공업 제품의 자급률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군사 정권》이 발표한 1962년도 《물자 수급 계획》을 보더라도 총 공급 물자 중 소위 《국내 생산 공급》분이 겨우 13.8%에 불과한 바 (《합동 통신》1962년 4월 9일) 이것은 1952년 당시에 비하더라도 실로 3분의 1로 떨어진 것이다.

이러하여 공업 내 부문 호상간과 공업, 농업 간에는 유기적 련계가 없으며 주요 공업 원료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결과에 남조선 산업은 미국으로부터 원료 공급이 두절되면 그 생산 기능은 전면적 마비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여 있다. 례컨대 《년간 2,900만 딸라의 원면이 안 들어 오면 방직 공장들이 문을 닫아야 하며 2천만 딸라의 인견사와 소모사가 도입 안되면 이 공장들이 쉬게 된다.

이만이 아니다. 600만 딸라의 원당이 안들어오면 제당 공장도 가

계를 세워야 하며 2천만 딸라의 원맥이 없으면 제분 공장들도 팔을 늘어뜨리지 않을수 없게된다》 (《한국 일보》1962 년 8월 10일).

이것은 남조선 산업의 식민지적 예속성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례증이다.

이러한 남조선의 공장들마저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의 가중하는 략탈하에서 1962년에 경영 조건은 가일층 악화되고 기업 파탄이 혹심하였다.

경영 조건의 가일층의 악화; 군사 《정권》 자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은 《자금면에서 운전 자금의 부족과 과중한 사채 부담》, 《원료면에서 가격고와 물자 수급의 결여》, 《판로면에서 심한 불경기와 지나친 경쟁》으로 항상 불안전한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이러한 경영난이 《군사 정변》 이후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경영난 요인별 비률 (%)

	1961년	1962년 6~7월	1963년 3월
	전체 기업체	기업체 부산시내	기업체 대구시내
자금난	37	45	50
판로난	21	25	30
원료난	14	15	20
기타	28	15	——
계	100	100	100

자료 출처; 남조선《경제 통신》1961년 11월 14일, 《매일 신문》 1962년 6월 7일, 《령남일보》 1963년 3월 12일.

이에서 자금난이 첫째가는 요인으로 되고 있는 것은 군사 통치배들의 강압적인 《통화 개혁》으로 인한 타격과 《긴축 정책》에 의한 자금 지출의 억제, 세금 수탈의 강화, 그리고 기업 리윤의 저률성과 자금 회수의 지연, 고리채 부담의 루적 등에 기인된다.

특히 중소 기업의 자금난이 극심하다. 남조선 《대한 상공 회의소》 조사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 전체 중소 기업의 75%이상 (지방에 따라서는 82%이상) 이 월리 10~30%의 고리 부채를 걸머지고 있다 (《부산 일보》 1962 년 5월 18일).

여기에 군사 통치배들은 《개인 영업세》 등의 세금을 《군사 정변》이전에 비하여 최고 46%나 증대 부과시킴으로써 업자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켰다.

특히 6월에는 불의에 《통화 개혁》을 단행하여 모든 기업체의 운전 자금의 거의 전부를 강제 동결함으로써 그들의 생산 기능을 완전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자금난과 함께 미제의 비싼 《미국 상품 강매 정책》의 적용과 예속 자본가들의 원료 독점과 가격 롱간 등으로 인한 원료 가격의 부단한 앙등 및 구득난으로 업자들은 심한 원료난을 겪고 있다.

1961년 1월~1962년 10월까지의 기간에 주요 수입 원료 가격은 평균 25%나 뛰여 올랐으며 그 이후 시기에 와서는 더욱 급격한 속도로 등귀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 기업체들의 원료 보유량도 격감되였는바 정상적인 기준에 비하여 1962년 상반년에는 75%, 하반년에는 59%로 떨어졌다.

수입 원료 가격의 앙등과 그의 결핍은 소요 원료의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남조선 생산 기업체들은 《군사 정권》 의《송전 제한》 및 석탄 공급 억제 등으로 인한 동력난과 연료난 등 여러가지 경영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하여 겨우 생산한 제품을 시장에 출하한 후에는 또한 극심한 판로난에 맞다드리기 마련이다.

이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남조선 시장에 범람하는 미국 잉여 상품의 압력과 대기업의 독점 투매, 주민들의 구매력의 감퇴 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매 실적을 100으로 할때 1962년 상반년의 판매량은 82%, 하반년에는 다시 59%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제품 체화량은 계속 증대되였는데 1962년 6월 초순을 100으로 할때 하순에는 122%, 8월 상순에는 150%로 격증하였다.

생산 조건의 이러한 전면적 악화로 말미암아 이 해에 기업체들의 조업 단축과 장기 휴업 상태가 지속되였으며 전반적인 공업 생산은 극도로 위축되였다.

1962년에 남조선 각지를 답사하고 돌아간 일본의 한 평론가는 남조선 공장들의 경영 실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서울—부산 간 400 키로메터의 철도 연선에서 한 두개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전혀 공장에서 연기를 볼 수 없었다.》 (《도꾜 해외 방송》 1962년 5월 23일) 또한 한 서방 통신도 최근 년간 남조선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이 《정변이후 최악의 상태로 굴러 떨어졌다》고 썼다.

특히 6월에 있은 《통화 개혁》으로 인한 타격은 모든 생산 기업체들의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여 그의 파산 몰락을 더욱 촉진시켰다. 이때 약 8,500 여개의 남조선 중소 기업이 일시에 문을 닫았거나 휴업 상태에 빠져 들었으며(《에이에프피》 1962년 6월 22일) 남조선에서의 공장 집중 지대인 대구 지방의 기업체들은 거의 《공백 상태》를 이루었다.

총체적으로 남조선 기업체 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기업의 가동률은 《군사 정변》 전의 56%라는 보잘것 없는 수준으로부터 1962년 6월에는 다시 약 40%로 떨어졌으며 부문에 따라서는 2~7%라는 《전멸 상태》에 빠진 것도 적지 않다.

경영 위기는 비단 중소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비교적 형편이 낫다는 일부 대기업에까지도 급속히 확대되였다.

공장, 기업소들의 경영이 《전면

적 파탄 상태》에 빠지게 되자 생산도 더욱 급격히 줄어들었다.

공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2년의 남조선 제조 공업의 순 생산 지수는 보잘 것 없던 1960년에 비하여 다시 10%나 더 떨어졌다.

이러한 생산 감퇴는 류통, 소비 부문에도 즉각적인 악영향을 미치여 경제 활동 전반의 위기를 더욱 첨예화시켰다.

【부문별 산업 실태】 1, 제조 공업 남조선 전체 산업 생산액의 80.5%라는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 공업은 특히 식민지적 락후성과 예속성이 강하며 따라서 이 부문 기업의 경영은 항상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기계 기구 공업; 남조선 전체 제조 공업 생산액에서 기계 기구 공업은 5.5%를 차지하는 극히 미미한 존재이다. 이름이 기계 공업이지 기계 수리와 간단한 부속품 제조 및 소농기구 생산 등이 주되는 것이다. 단지 부산, 경인 지방에 조선, 자전거 제조, 전기기기 생산 시설이 약간 있으나 부산에 있는 《대한 조선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중소 규모의 시설들이다.

1962년도 남조선 조선 공업은 《조선 시설의 빈약과 로후, 자본의 령세성으로 말미암아 극히 부진한 운영 상태》에 있었으며 《선박 건조 및 수리 실적도 보잘 것 없는 자체 능력의 9.1%라는 한심한 실정이였다》 (《서울 경제 신문》 1963년 3월 20일).

자전거 제조 공업이라는 것도 주요 부속품은 수입하고 있으며 《대개가 1~2대의 선반기 또는 용접기를 가동》하는 소규모 기업들이다. 이나마 주민 생활 령락으로 인한 구매력 감퇴로 자체 시설의 절반 이상을 놀리고 있다 (《서울 경제 신문》 1963년 3월 24일).

남조선에서 소농기구류의 태반을 만들어 낸다는 경상남도 진주의 《대동 공업》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페문 상태》에 있었으며 기타 지방들의 같은 종류의 공장들의 경영도 《모두 한심한 상태》였다.

특히 《통화 개혁》 직후 부산시내 각종 중소 기계 공장들은 자금난, 판로난 등으로 《생산 활동을 지탱할 수 없어 휴업》하고 말았다.

자동차 조립 및 수리 부문에서는 가동률이 6월 15일 현재 36.1%로 떨어졌으며 자동차 스프링 및 피스톤 등 부분품의 생산량은 이해에 각각 약 절반으로 떨어졌다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4월호).

금속 공업; 전체 제조 공업 생산에서 금속 공업은 겨우 6.6%를 차지한다. 남조선 금속 공업의 현존 시설로는 년간 겨우 2만 8천 톤의 제철 생산 능력의 《삼화 제철소》와 5만 톤 능력의 《대한 중공업》 제강 시설 그리고 제련 시설로서 《장항 제련소》가 각각 하나씩 있으며 이밖에 소규모의 철강 주물 공장들이 있으나 그 생산 능력은 보잘 것이 없다. 8.15 후 미제의 식민지 산업 정책에 의하여 이 일제 유물들마저 혹심하게 파괴 쇠퇴하고 남아 있는 현 시설도 단 한번도 제 능력을 다 발휘해 본 일이 없다.

중소 공장들까지 모두 합친 전체 금속 공업 기업체들중 제철, 제강, 시설은 약 15%정도이며 나머지 85%의 대부분은 주물, 압연, 철강 신선업 등이다(《서울 경제 신문》 1963년 8월 9일). 따라서 그 제품도 못, 아연도 철판, 철선, 전선 등이 주되는 것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의 금속 공업은 기업 및 제품 구성의 락후성과 함께 작업의 일관성과 부문 호상 간의 유기적 련계가 결여되여 있다.

즉 《삼화 제철소》에서 생산되는 선철은 남조선 내 제강 공장에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약 90%가 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며 《대한 중공업》은 제강 원료로서 고철을 수집하여 충당하고 있다. 또한 《삼화 제철소》는 《소형 구식의 용광로와 로후한 시설》로 제품 원가가 더욱 고등하여 수출조차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년중 휴업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1962년도의 선철 생산은 단 한톤도 없었다.

한편 《대한 중공업》도 원료인 고철 부족과 그 가격고로 인한 수지 파탄으로 가동을 대폭 축감하였다. 이로 인하여 《군사 정권》의 《직할 기업체》인 이 공장으로부터 강재를 공급 받고 있던 남조선 각지의 중소 철강 가공 공장들은 심한 원료난에 봉착하여 총 파탄 상태에 빠졌다.

례하면 남조선 《철강 공업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있는 중소 철강 공장들은 《대한 중공업》으로부터 강재를 수요의 3분의 1도 공급 받지 못 하여 《최대의 경영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것마저 《군사 정권》이 《상품 가격과 동일한 액의 보증금을 선불하여야 하며 강재 공급량과 같은 중량의 고철을 납품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요구》 때문에 대부분의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고 말았다. 주물 공장 역시 원료난으로 그 《기능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총체적으로 1962년 6월 15일 현재 남조선 금속 및 비금속 공업 시설의 가동률은 각각 53.6%와 40%에 불과하였다.

화학 공업; 전체 제조 공업 생산에서 화학 공업의 비중은 17.1%이다. 그러나 카바이드, 가성소다 등을 생산하는 남조선 유일의 기초 화학 공업 시설인 《북삼 화학 공장》은 이 해에도 계속 휴업 상태에 빠져 《아까운 시설이 녹쓸고》 있었다. 나머지는 고무, 제지, 비누, 화장품, 제혁, 제약, 성냥 등 소비품 제조업들이다.

원료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며 생산 공정은 극히 수공업적이다. 원료의 대외 의존도는 생고무, 동물성 유지, 가성소다, 염소산 가리 등의 경우에는 100%에 달한다. 미제는 이 부문 기업

의 소요 원료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공급 시기와 가격을 농간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원료난이 첫째가는 애로로 되고 있다.

제약 공장들은 모두가 다 외국 원료를 소분(小分) 재포장하거나 또는 약간의 가공을 함에 불과하다. 이것은 시설이 빈약하고 기술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자체의 기초 화학 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경제 신문》 1963년 2월 24일).

현재 제약 원료는 약 446 종에 달하고 있으나 남조선 내에서 조달하고 있는 것은 일부 생약을 제외하고는 단 11개 품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 부문의 시설은 약 50% 밖에 가동하지 못 하고 있다.

비누 공업은 수입품인 소기름과 가성소다, 향료 등을 원료로 하여 생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1962년도 이래 악랄하여진 미제의 원료 모리 행위로 비누 원료 가격이 폭등되고 구매력이 격감되여 비누 공장들의 《대부분이 운휴 상태》에 있었다(《서울 경제 신문》1963년 2월 23일). 이에 따라 1962년도 남조선 비누 공장의 평균 가동률은 불과 20%였다.

1962년에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공업의 가동률은 약 14% 내외였으며 그나마 체화와 경영 적자가 누증하여 심한 경영난에 빠졌다.

이 부문 기업의 원료인 동물성유는 거의 100%, 식물성유는 90% 까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가격 폭등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 (자료 출처는 상기와 같음).

제지 공업에서는 남조선에서 비교적 큰 제지 시설인 《삼풍 제지》 및 《고려 제지》 공장들이 원료난으로 극심한 조업 불안 상태에 빠졌다.

이 공장들은 자체 팔프 공업이 없음으로 원료인 팔프 소요량의 3분의 2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데 수입 팔프의 가격이 비싸고 원목 수송이 원할하지 못하여 극도의 원료 고갈 상태에 빠져 있다.

제혁 공업은 《간단한 탕크 하나와 순수한 수공업적 방식에 의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영세 기업》으로서 그 수효가 많으나 원피 구득난과 수요 감퇴로 이 해의 가동률은 54.1%의 부진 상태였으며 생산도 《위축 일로》에 있었다 (《서울 경제 신문》1963년 2월 13일).

또한 남조선 각지에 산재해 있는 성냥 공장들도 례외 없이 영세 기업으로서 《통화 개혁》에 의한 자금상 타격과 주요 원료인 염소산 가리의 매점 매석 행위의 성행으로 《총 파탄의 위기에 빠졌었다》. 1962년 6월 현재 남조선 성냥 공장들의 가동 실적은 시설 능력의 49%에 불과했다.

건재 공업 및 요업; 이 부문에 속하는 시설로서는 일제가 남겨 놓은 《동양 세멘트》와 《문경 세멘트》의 두 공장이 있고 인천에 판유리 공장과 중소 규모의 벽돌 및 도자기 공장들이 있다.

세멘트 및 유리 공장은 관권의 비호를 받는 일부 대 기업가의 독점 기업으로서 판매 가격을 통한 모리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문 역시 년간 100만 딸라 내외에 달하는 수입 세멘트의 압력과 구매력 감퇴 등으로 그 경영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1962년도 세멘트의 인구 1인당 생산량은 공화국 북반부에 비하여 8분의 1에 불과하였다.

유리 제조업에 있어서 광석 원료인 규사, 백운석 등 광산물은 자체내에서 해결하고 있으나 화학 제품 원료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시설의 빈약성과 자금난 등으로 유리 공업 발전도 극히 미미》(《서울 경제 신문》 1963년 3월 3일)한 존재로 되고 있다.

1962년도 남조선의 유리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판유리는 5만 여 상자, 기타 유리 제품은 3천 여톤이나 줄어 들었다.

1962년도 그 시설 리용률은 자체 생산 능력에 비하여 판유리는 53%, 기타는 16%에 불과하였다(《서울 경제 신문》 1963년 3월 1일,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4월호). 《전근대적인 시설》을 가진 벽돌 공장들은 생산성이 심히 낮으며 연료를 비싼 수입 유연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높게 먹어 수지 파탄에 빠져 있다. 이 해의 벽돌 생산량은 자체 능력의 17분의 1에 불과하였다 (자료 출처는 상기와 같음).

또한 남조선 도자기 공장의 97%까지가 극히 비 능률적인 재래식 시설을 가지고 있고 연료비(유연탄 또는 나무)가 비싼 (제품 생산 원가의 태반을 차지한다) 관계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1962년도 가동률을 보면 타일류는 자체 시설의 약 3분의 1, 식기류는 약 4분의 2에 불과하였다.

남조선은 《고령토를 비롯한 수십종의 양질 령가한 원료를 보유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자기 공업은 자금난, 판로난으로 막다른 골목에 부닥치고 있다》 (《서울 경제 신문》 1963년 3월 5일).

섬유 공업; 남조선 전체 제조공업 생산에서 28.4%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 공업은 식료품 공업과 함께 남조선의 《대표적인 공업》의 하나이다. 이 부문은 미제와 군사 《정권》의 군수 피복지의 공급 원천으로 되고 있으며 일부 예속 자본가들이 큰 기업체들을 독점하고 있다.

원면, 원모, 스프사, 인견사 등 원료는 거의 전적으로 미국, 일본 등지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섬유 공업 중에서 자본 및 시설 규모가 제일 큰 것은 면방직 공업이다. 그러나 현존 시설의 약 3분의 1은 8.15 이전의 구식 기계거나 전시에 파괴 손상된 것들이며 부대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번수사의 생산 및 제품의 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해 남조선 면방직 공업은 극심한 원료난을 겪었다. 미제는 원면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하여 그 공급 시기를 농간하여 시장에 원면 고갈 상태를 조성하고 가격을 끌어 올렸으며 군사 통치배들은 부족되는 원료를 군피복지 등 군수용으로 독점하였다.

결과에 12월 현재 서울 시내 면방직 공장들은 소요 원료의 5분의 1, 부산에서는 6분의 1, 대구에서는 10분의 1 밖에 공급을 받지 못 하고 심각한 원료난에 부닥쳤다. 그리하여 서울 및 대구 지방의 면방직 공장들은 원래부터 축소해온 시설 가동률을 다시 50~60%로 줄였으며 부산에서도 조업을 중단하는 현상이 속출하였다 (《산업 경제 신문》 1962년 11월 9일, 《대구 일보》 1962년 12월 8일).

또한 내의 장갑 등을 생산하는 편직물 공장들의 《대부분은 몇대의 낡은 수동 편직기를 가지고 있는 령세 기업들이다. 이 공장들은 주 원료인 면사를 몇몇 큰 방적 공장과의 매매 계약에 의하여 공급 받거나 매일 매일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실정》(《서울 경제 신문》 1963년 2월 5일,) 이므로 항상 비싼 원료를 사 쓰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다가 얼마 안 되는 제품마저 주민들의 구매력 감퇴로 체화되기가 일수여서 가동을 대폭 축감하고 있었다. 특히 《통화 개혁》 직후인 6월 중순경에는 가동률 19%라는 참담한 지경에 빠졌다. 그후 4.4분기에 들어서서는 군사 통치배들의 군수용 내의 조달을 위한 원사 독점으로 인한 원료난까지 덮씌워져 《전면적 조업 중단 위기》에 빠졌다.

일례로 면직물 공장들이 집중되고 있는 대구 시내 양말 공장들은 11월 하순 현재 가동률이 단 10%로 떨어졌으며 나머지 공장들도 《원사 구입난으로 모두 허둥지둥하고 있었으며》(《령남 일보》 1962년 11월 28일) 경상남도 내 전체 면직물 공장들도 같은 형편이였다.

이밖의 섬유 공업으로서 본견직 및 인견직 시설이 있으나 그 대부분은 수동 또는 족답식 구식 기계들이다. 남조선 자체 내에서 생산되는 본견직물은 수입 화학 섬유류에 밀리여 심한 판로난을 겪고 있다. 견직 생산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인견직 공장들도 시설 미비로 직접 인견사를 수입해다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데 생산비가 높게 먹고 제품의 질이 보장되지 않아 공장들은 심한 경영난에 빠졌다. 이 해에 인견직 공장들의 가동률은 평균 60%였으며 페업하는 공장들이 속출하였다.

고리 사채에 얽매인 일부 공장들은 《중간 상인들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그들로부터 저렴한 가공료만 받고 시설을 움직이는 순 임가공업자의 지위로 전락되였다》(《서울 경제 신문》1963년 2월 1일)

식료 공업; 《섬유 공업 다음가는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 공업은 미국의 잉여 원맥과 원당 등을 가공 처리하는 식민지 하청 공업이다.

이 부문에서는 기업 집중 현상이 특히 현저하다. 남조선 전체 제분, 제당 시설의 약 70% 이상이 4개의 제분 업자와 3개의 제당 업자에 집중되고 있으며 나머지 공장들은 대체로 중소 규모에 속한다. 제분, 제당 공업은 방직 공업과 함께 남조선에서 경영 조건이 제일 낫다는 기업으로서 한때는 소위《삼백 경기(三白 景氣)를 구가》하였었다. 그러나 미제의《거듭되는 환률 인상과 곡가 저락이라는 풍랑에 부딪쳐 걷잡을 수 없는 출혈을 빚어 낸 끝에 오늘에 이르러서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다》(《서울 경제 신문》 1963년 1월 16일).

례하면 남조선 제분 공장들은 생산비의 90%까지가 원료비인데 원료의 100%를 미국 잉여 농산물인 원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미제의 모리 행위로 원료난이 심한 데다가 밀가루의 수요마저 줄어들어 1962년도의 시설 가동률은 약 4분의 1에 불과하였다 (《서울 경제 신문》 1963년 1월 16일).

제당 공장들도 1962년 4월 현재 7개 중 4개가 휴업하고 나머지 3개만이 겨우 가동을 유지하고 있었는 데 이것들도 《출혈 생산으로 난경에 처》해 있었다 (《서울 경제 신문》 1963년 1월 17일). 이밖에 이 해 6월 15일 현재 남조선 간장 공장들도 심한 원료난, 판로난 등으로 가동률은 34.4%, 제유업은 13.3%, 제과업은 단 2%라는 《참담한 실정》에 놓여 있었다.

2. **전력 공업**; 남조선의 전력 공업은 6개의 수력 발전소와 5개의 화력 발전 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 능력은 36만 4,810키로 왓트이다.

1962년 발전량

	발전 실적 100만KWH	발전량 비중(%)
총 계	1 978	100.0
1. 수력 계	702	35.4
그중 청평 발전소	218	
섬진강 〃	58	
보성강 〃	18	
운암 〃	9	
화천 〃	391	
괴산 〃	8	
2. 화력 계	1 017	51.4
그중 영월 발전소	268	
당인리 제1, 제 2 발전소	56	
당인리 제 3 〃	184	
마산 〃	334	
삼척 〃	175	
3. 발전선	182	
4. 디젤 발전	75	
5. 기타	3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4호.

1962년도 총 발전량은 19억 7,810 만 키로왓트시이며 인구 1인당 생산량은 공화국 북반부에 비하여 15분의 1에 불과하였다.

이 해 전체 발전소의 평균 출력은 22만 5,800 키로왓트였다. 이에

서 약 40%에 달하는 도중 손실을 고려하면 실지 공급량은 약 13억 5,400 여 키로왓트 정도에 불과한바 이것은 남조선의 최소한도의 전력 수요의 3분의 1도 안된다.

시설 로후로 인한 설비 리용률 및 부하률의 이러한 저하와 값 비싼 수입 연료(유연탄 또는 중유)비의 고등, 감가 상각비의 증대 등은 기업으로서의 전력 공업의 경영난을 조성하는 근원으로 된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극 소규모의 자가 발전 시설을 제외하고는 발전업이 전'적으로 군사 《정권》의 독점적인 《직할 기업》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지 결손은 전기 료금 징수를 통한 인민 수탈에 의하여 보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남조선에서 강제 징수되고 있는 전기 료금의 기준인 1 키로왓트 당 3원 55전은 《세계적으로도 류례 없이 높은 것이다》(《서울 경제 신문》 1963년 1월 8일).

미제와 군사 《정권》은 저들이 사용하는 《군수 및 관수》용 전력과 일부 예속 자본가들에게 공급되는 군수품 생산용 전력은 발전 원가 이하의 《특정 료금》으로 공급하고 여기에서의 결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민들로부터는 기준보다 훨씬 높은 전기 료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마저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은 발전 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월동 시기와 같이 전력 수요가 증대하는 때에는 《제한 송전》을 강행하여 일반 가정용 전등과 중소 기업용 전력 소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1962년 6, 7월에도 가물로 인하여 발전량이 감소되자 군사 《정권》은 이른바 《초 비상 전력 수급 계획》을 세워 사실상 정전과 다름이 없는 《제한 송전》을 단행하여 인민들을 암흑 세계로 몰아넣었으며 수 많은 중소 공장들의 조업을 멈추게 하였다 (《동양 통신》 1962년 7월 3일).

현재 남조선 농촌 주민의 88%가 《전기'불 구경을 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으며 비교적 낫다는 서울 같은 데서도 시민의 3분의 1 이상인 17만호에는 전기 가설이 없다》(《산업 경제 신문》 1962년 7월 4일).

3. 채굴 공업 남조선에는 중석을 비롯한 다종 다양한 지하 자원들이 비교적 풍부히 매장되여 있다. 그러나 8.15 후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공업 정책으로 말미암아 기간 산업이 극도로 억제된 결과 지하 자원도 극히 소규모적으로 개발되고 있을 뿐이며 어떤 자원들은 전혀 개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채굴되고 있는 자원들도 원광석대로 외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전략 광물은 원시적 방법에 의하여 란굴되여 미제에 략취 당하고 있다.

중요 광물 매장량

품 종 별	단위	추정 매장량	자료 출처
철	만톤	14 000	《동아 일보》 1962년 4월 18일
망간	〃	20	1956년 추정
연	〃	50(금속 함유량)	《상공 행정 개관》(1959년도)
아연	〃	80 (금속 함유량)	〃
동	〃	100 (정광)	〃
중석	〃	750	《한국의 산업》 (1958년도)
몰리부덴	〃	6(정광)	《상공 행정 개관》(1959년도)
금	톤	500(순금)	〃
흑연	만톤	460 (린상 및 토상 포함)	〃
형석	〃	180	《비지네스》 1962년 5월호
석탄	〃	47 000	1952년 《네이산 보고서》

주; 석탄 매장량은 괴뢰 정부 직영 기업체 《대한 석탄 공사》 산하 탄광분

중요 광물 생산 실적

광종	단위	일제 시기 최고 생산(ㄱ)	1961	1962(ㄴ)	(ㄴ)/(ㄱ) %
금	키로그람	10 287	2 599	3 355	32.3
은	〃	38 175	14 321	12 843	30.9
철	톤	441 941	504 800	470 700	106.5
동	〃	—	5 296	10 726	—
중석	〃	2 963	6 303	5 797	195.6
수연	〃	570	59	138	24.2
망간	〃	23 979	1 377	1 002	4.1
린상흑연	〃	—	1 224	1 216	—
토상흑연	〃	—	88 459	183 879	—
활석	〃	6 000	27 932	28 368	472.8
석면	〃	3 186	309	1 209	37.9
탐석	〃	—	23 985	18 112	—
형석	〃	59 429	27 932	32 970	55.4

자료 출처; 남조선 《경제 년감》 1948년판,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4월호

수출 총액에서 중요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

	수출 총액	그중 중요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		수출 총액	그중 중요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
1957	100	43.8	1960	100	37.3
1958	100	46.4	1961	100	32.6
1959	100	44.2	1962	100	25.3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9년 3월호, 1960년 3월호, 1961년 3월호, 1962년 5월호, 1963년 4월호.

광물 총 생산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1960	1961	1962
철 광	59.6	88.0	77.2
연	100.4	92.7	51.0
중 석	81.3	94.0	81.2
형 석	151.1	119.3	71.6
활 석	44.2	67.1	83.4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1년 5월호 1962년 5월호 1963년 4월호

전체 채굴 기업체의 경영 실태를 보면 약 90%까지가 령세한 자본과 시설을 가진 중소 기업들이다.

광업 기업체들의 규모별 비중(1958.4~1959.3)

규모별	비중
5~19명	29.7
20~49명	31.1
50~199명	28.7
200명 이상	10.5

자료 출처; 남조선 《경제 통계 년보》 1960년, 《재계》 1961년 35호.

채굴 공업 부문의 가동률은 평균 30% 정도에 불과하며 특히 이 해 6월의 《통화 개혁》 이후 자금상 심한 타격을 받고 휴광 및 폐광 사태가 속출하였다. 례컨대 경상남도 내 전체 광구 수의 93.5%까지가 10월 현재 모두 휴광하고 있었다.

이러한 휴광률은 8월 말 당시에 비하여 27%나 더 증대된 것이다 (《국제 신보》 1962년 11월 1일). 경상북도에서도 《통화 개혁》이후 전체 광구의 86%가 휴광 또는 폐광하고 나머지 14%의 광구들도 제대로 조업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속 공업; 남조선 주요 금속 광물에는 철, 망간, 연, 아연, 동, 알루미늄, 중석, 몰리브덴, 니켈, 코발트, 석, 금, 은과 방사성 금속인 우란, 라디움, 토륨, 딴탈, 니오븀 등이 있다.

철은 남조선 강원도의 양양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들에 적지 않게 분포되여 있다. 철 광석의 개발은 8.15 이후 1950년까지는 전무한 형편이였다. 그후 자본주의 시장에서 철의 수요가 증대되자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생산은 1961년 경 부터서야 겨우 일제 시기 수준을 릉가하게 되였다. 그러나 생산된 철광은 제철 시설의 불비와 경영난으로 남조선에서 가공되지 못 하고 대부분이 해외에 반출되고 있다.

채굴 시설과 선광 방식은 대체로 일제 시기 그대로의 원시적 상태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채광 도구도 인력을 위주로 하는 구식 기계들이며 선광은 수선이 위주이다. 철광 생산비에서 로무비가 47.1%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은 이 부문 시설의 락후성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서울 경제 신문》 1963년 1월 10일).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에서의 철강재 과잉으로 철광석의 대일 수출 가격이 저락 일로에 있는 데 반하여 남조선에서 철광석의 생산 원가가 날로 고등하고 있는 관계로 그 경영 전망은 더욱 악화될 추세에 있다.

망간은 남조선 강원도, 경상 남북도 등에 널리 분포되여 있다. 그러나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장군 광산》과 《삼풍, 만원 광산》 두개 뿐인데 자금 및 판로난 등으로 그 생산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금, 은, 동과 함께 산출되는 연, 아연은 남조선에 널리 분포되고 있다. 생산된 광석은 남조선에서 제련되지 못 하고 주로 외국에 수출되고 있다. 현재 주요 광산의 대부분이 휴광 중에 있으며 가동 중인 경상북도 봉화군의 《다덕 광산》도 생산이 해마다 축감되고 있다.

동은 주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채굴되는 동 전부가 해외에 반출되며 그 수출액은 년간 약 30만 딸라에 달한다. 동광산의 가동률은 1961년도에 17%였으며 1962년에 들어와서도 회복되지 않았다 (남조선 《경제 통계 년보》 1962년판). 나머지 광산들은 거의나 폐광되였다.

남조선에는 알루미늄 산지가 비교적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은 거의나 진행되지 않고있다. 소요 알루미늄 금속류는 수입해서 쓰고 있다.

중요 전략 광물인 중석은 남조선 강원도를 비롯하여 각지에 널리 분포되고 있다. 그 매장량은 대단히 풍부하며 질도 훌륭하여 세계적 순위를 차지한다.

여기에 눈독을 들인 미제는 소위 《전략 물자 매상 계획》(1951~1956년 간)에 의한 자국내 소요 중석 구입량의 40%까지를 남조선에서 반출해 간 중석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후 《한미 중석 협정》에 의하여 남조선의 중석을 생산비도 안 되는 헐값으로 략탈하여 갔다. 따라서 남조선의 중석은 전부 수출되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식민지 략탈하에서 남조선 중석 광산들은 모두 격심한 수지 파탄에 봉착하고 있으며 심한 불안전 조업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몰리브덴은 전라북도 장수군을 비롯하여 남조선 각지에 분포되여 있다. 특히 《장수 광산》은 동양 제 2위의 몰리브덴 광산으로서 8.15 전만 하여도 수천명의 로동자들이 고용되여 대대적인 채굴이 진행되였었다. 그러나 현재 이 광산은 심한 자금난으로 계속 폐광 상태에 있다.

니켈은 남조선 강원도 금화군과 기타 지방에 매장되여 있다. 8.15 이후 미개발 상태에 있다가 1952년도부터 겨우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생산은 1953년을 고비로 (일제 말기에 비하면 17%에 불과)하여 또다시 하강선을 긋고 있다. 생산된 니켈광은 원광대로 대부분이 해외에 수출되고 있다. 코발트는 남조선 동해에 연한 지방에 널리 분포되고 있다. 7개의 등록 광구 중 1개만이 겨우 움직이고 있다.

석은 남조선 강원도 울진군에 있는 《울진 광산》에서 유일하게 생산된다. 남조선 야금 공업의

파탄으로 그 수요도 긴요하게 제기되지 않고 있다.

1960년까지 가동 광산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 후에도 사태는 같다.

우리 나라의 금 산지는 대부분이 북반부에 집중되고 있으나 남조선에도 적지 않다. 특히 충청남도 청양군의 《구봉 광산》과 충청북도 음성군 《무극 광산》의 두 광산에서 채굴되는 산금량은 남조선 전체 생산량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남조선의 금,은 광구수는 다른 광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 그러나 1961년 말 현재 금광에 있어서 전체 등록 광구 중 가동하고 있는 것은 44.2%에 불과하며 그 규모와 생산량도 극히 미소하다. 남조선의 금 생산량은 최근에 약 년간 겨우 2~3톤 수준에 도달하였는바 이것은 일제 시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한다.

비금속 광업; 흑연은 남조선의 대부분 지역에 분포되고 있다.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판로를 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채굴 시설은 대부분이 《근대 이전의 기술적 락후성과 저생산성을 지니는 수굴 수선(手掘手選)에 의존한다》(《서울 경제 신문》 1963년 1월 13일). 그 가동률은 최근 년간에 약 30%에 불과하였다.

남조선은 양질의 고령토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자기를 대량 생산하지 못 하고 채굴된 고령토는 대부분이 원광대로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최근 년간 등록 광구수에 대한 가동 광구수의 비률은 4대 1로서 미개발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활석은 충주 지방을 비롯하여 원주, 서산 등지에 분포되고 있다. 가동률은 50% 미만이다. 생산은 해외 수출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시세에 많이 좌우되며 심히 비정상적이다.

형석은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되고 있다. 90% 이상이 일본에 수출되고 있다. 가동률은 시설의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8.15 후 최고라는 1962년도 생산량은 3만 2천 여톤으로서 아직도 일제 말기의 55%에 불과했다.

석면은 충청남북도를 중심으로 하여 매장되고 있다. 석면 광산의 가동률은 약 30%에 불과하며 많지 못 한 운모 광산의 9분의 8까지가 휴광하고 있다.

석탄; 남조선에는 유연탄 및 무연탄광이 있으며 토탄이 부분적으로 산출된다. 그러나 역청탄은 매우 적으며 다만 갈탄이 생산될 뿐이다. 그중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은 남조선 강원도 삼척, 녕월 지방과 경상북도 문경, 전라남도 화순 등지에 분포되여 있다. 남조선의 석탄 생산은 군사 《정권》의 《직할 기업체》인 《대한 석탄 공사》 산하 탄광들과 민영 탄광의 두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생산량은 대략 절반씩이다.

남조선 석탄 매장량은 우리 나라 전체 매장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채굴 시설은 《석탄 공사》 산하의 몇몇 탄광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가 로천굴이 아니면 《인력에 의한 탄층 상부 채굴》에 그치고 있으며 자금과 기술 부족으로 심부 채굴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영 탄광들은 동력과 운반 및 하역 시설들을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남조선의 석탄 공업은 동력 공업으로 중요성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은 심히 락후한 처지에 놓여 있다.

1962년도 남조선 석탄 생산량은 740만톤이며 인구 1인당 생산량은 0.28톤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의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공화국 북반부의 인구 1인당 생산량에 비하면 약 4분의 1 밖에 안 된다.

남조선의 석탄 생산량은 수요의 절반도 충족하지 못하고 해마다 다량의 석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가동 탄광들의 경영 실태를 보면 최근 년간 그 가동 실적은 약 20%에 불과하다. 경영 규모도 매우 령세한바 종업원 100명 이상의 탄광 수는 전체 가동 탄광 수의 44%에 불과하다.

그런데 군사 통치배들은 중소 탄광들을 육성할 대신에 1962년 6월에는 소위 《광업 개발 조성법》이라는 악법을 조작하고 민영 탄광들에 대한 파쑈적 통제와 《정비》를 강화하고 있다.

【《5개년 계획》의 파탄】 1962년도 남조선 산업의 전면적 위축과 함께 군사 《정권》의 소위 《5개년 계획》도 볼꼴 없이 파탄되였다.

군사 통치배들은 1962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며 《공업화의 기반을 조성》하며 《자립 경제를 수립》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댔다.

그들은 《5개년 계획》 기간에 총액 3,200억원 (약 24억 6천만 딸라)를 투자하여 생산을 40.8% 장성시킬 것을 타산하였었다.

군사 통치배들은 특히 1962년을 《5개년 계획의 기초 축성의 해》로 정하고 이 해에 전체 투자액의 42.7%에 해당하는 211억원의 자금을 공업 부문에 투자하여 19개의 공장과 10개의 발전 시설을 확장 또는 건설하며 공업 생산을 11.1% 증대시키려고 몽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 기초인 자금 계획부터가 가공적인 것이였으므로 착수한지 1년도 못 되여 그의 파탄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선 2억 8,200만 딸라의 외자 도입 계획은 미국의 년례적인 《원조》 외에는 이 해 말까지 단 한 딸라도 실현하지 못 했다. 미국 《원조》는 그 70~80%가 군사비에 지출되고 실지 《5개년 계획》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은 불과 4천만 딸라 정도 밖에 안 되였었다.

126억원의 국내 자금 동원 계획도 파탄되였다. 일례로 34억원의 목표로 계획되였던 《국민 저축》은 이해 말까지 단 3억원(9%)밖

에 달성하지 못 했으며 부정 축재자들로부터 받기로한 《출자금》도 목표액을 훨씬 미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5개년 계획》의 핵심을 이루는 울산 지구의 공업화 계획도 파탄되였다. 1962년 9월에 착공할 예정이였던 《울산 정유 공장》은 자금난으로 《정부 보유불》로 건설하기로 하였는 데 그 후 외화 사정의 악화로 공사는 중단 상태에 빠졌다. 6월에 착공하여 년내에 완공하기로 한 《제 3 비료 공장》도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형식적인 《착공식》을 올렸을 뿐 이 공사도 중단되였다.

이리하여 《5개년 계획》은 첫 걸음에 《암담한 실패의 양상을 로출》(《한국 일보》)시키고 말았다. 더우기 이 해 6월에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행한 《통화 개혁》도 완전히 실패하여 국내 자금 념출의 최종적 방도마저 막히고 말았다.

궁지에 빠진 군사 통치배들은 미제의 지시에 의하여 종전의 《기간 산업 우선주의》로부터 《경제 안정 제 1주의》로 《정책을 전환》하고 《안정을 우선하고 그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 건설을 억제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또한 외국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을 완전히 중단하였다.

설상 가상으로 군사 《정권》의 《5개년 계획 》은 농업 생산의 혹심한 흉작과 외화의 부족, 재정 적자의 증대 등으로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였는바 이에 대하여 박 정희까지도 《5개년 계획》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사실상 전면적 중단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농 업

군사 파쑈 도당은 소위 《개간지 조성》, 《농촌 고리채 정리》, 《농산물의 적정 가격의 유지》, 《영농 자금 방출》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중농 정책》을 내걸고 이를 《강력히 추진》시킬 것이라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1962년 군사 통치배들의 반동적 농업 정책의 결과는 남조선 농업의 파국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소위 《중농 정책》이라는 것이 장기 집권을 위하여 인민들을 기만하며 남조선 농민 대중 속에 파쑈적 정치 지반을 구축하며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하려는 악랄한 수작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저들의 략탈적인 농업 정책의 정체를 은폐하고 농민들 속에 반공 숭미 사상을 주입시켜 그들의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1962년 3월에 이른바 《농촌 진흥법》을 공포하였으며 군사 《정권》 《농림부》의 《지역 사회국》과 《농사원》을 통합하여 《농촌 진흥청》을 내 놓았다(《국제 신보》1962년 3월 9일). 이것은 장 면 집권 시기에 미국 농업 독점 자본의 리익을 보장하며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여 착취할 목적 밑에 실시하던 《농촌 교도》, 《지역 사회 개발》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기만적이며 략탈적인 《중농 정책》】 1962년에 군사 파쑈 도당은 소위 《중농 정책》이라는 허울좋은 간판 하에 미제의 식민지 군사 기지화 정책과 경제적 략탈 정책에 추종하여 농촌에서 지주적 소유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며 봉건적 및 식민지적 착취와 략탈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조선 농촌 경리와 농민 생활을 파산 몰락의 심연 속에 더욱 깊이 밀어 넣었다.

토지 정책…남조선 농민 문제의 기본인 토지 문제에 있어서 군사 파쑈 도당은 《현 단계로서는 토지 개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미제 식민지 통치와 군사 통치배들의 정치적 기반의 하나인 지주, 부농 계층의 지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남조선 농촌에서의 현존 지주 토지 소유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조선 농촌에서는 반동적인 《농지 개혁》을 통하여 8.15 당시의 소작지 면적의 약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 57만 정보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였으나 그 중 49%는 이미 전매되였고 15~20%는 또다시 소작지로 변경되였다.

그런데 《군사 정변》 직후에 소위 《분배 농지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을 공포하여 이미 전매된 토지에 대한 지주, 부농들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정해 준 군사 통치배들은 이 해 2월과 3월에 《개간 촉진법》 및 그 《시행령》을 또 조작 공포하여 《국유지》 및 미개간지를 새로 《불하》하는 방법으로 지주, 부농들의 수중에로의 토지 집중을 더욱 촉진시켰다.

1962년 말 현재 군사 《정권》이 1천 40 여명의 농민들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더라도 그 중 49%가 소작 또는 자작겸 소작 농가이며 그 비중은 《군사 정변》이전 시기에 비하여 훨씬 높아졌다.

토지를 재집중한 《신흥 지주》들은 《군사 정변》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을 《반타작》, 《어우리》, 《행랑답》, 《산지기답》, 《머슴답》, 《고지》 등 각종 형태의 소작 제도에 얽어매 놓고 혹독한 착취를 자행하고 있다.

세금 및 기타 현금 수탈…1962년에 군사 파쑈 도당은 미제의 식민지 농업 정책에 추종하여 조세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현금 수탈을 강화하였다.

그들은 1962년에 《농지세》의 징수액을 1960년 보다 평균 15%나 높였으며 1962년도 예산에서 간접세를 123억 4천 만원으로 증가 책정하고 그중 70~80억원을 농민들에게 전가하였다. 이 밖에도 소위 《저축》이라는 명목 하에 이 해 한 해 동안에 41억원의 자금을 농촌으로부터 긁어 갔다.

현물 략탈 및 농산물 가격 정책…군사 통치배들은 종전의 《토지 수득세》(물납세)가 금납제로 바꾸어짐에 따라 부족되는 현물을 보충하며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물 략탈도 강화하였다.

1962년에 군사 파쑈 도당은 1961년부터 다시 실시한 소위 《량곡 매상제》에 의하여 200만석, 《담보 융자》, 《농지 대'가 상환곡》, 《비료 교환곡》 등 도합 520만석의 량곡을 강탈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것은 장면 집권 시기에 비하여도 2배를 훨씬 넘는 방대한 것이다.

량곡 수탈 정형(단위=천석)

	매 상	담보 융자	농지 대'가 상 환 곡	비 료 교환곡	기타	계
1960	888.8	1 174.0	27.5	—	378.7	2 469.0
1961	2 640.0	1 000.0	50.0	723.0	305.0	4 718.0
1962 (계획)	2 000.0	1 500.0	270.0	1 423.0	34.0	5 227.0

주; 1960년 매상은 《토지 수득세》에 의한 수탈 실적이다. 1961년 5월부터《매상》이 재 실시되였다.

군사 통치배들은 또한 량곡 략탈의 일환책으로서 농촌에서 《거국적인 식량 소비 절약 운동》을 벌렸다. 례하면 충청남도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가정들에서 《매달 5일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을 절미의 날로 정하고 이날의 점심 또는 저녁을 면류로 대치》하며 《식사 때마다 한술씩의 절미 저축을 려행케 하였다》(《대전 방송》1962년 11월 18일). 군사 통치배들은 또한 미제의 식민지적 저미가 정책에 추종하여 《농산물 가격 유지법》, 《물가 조절에 관한 림시 특별 조치법》 등을 조작 공포하고 《매상》 및 《담보 융자》 등에 의한 농산물 략탈을 생산비 이하의 헐 값으로 강행함으로써 농민들에 대한 수탈을 가중하였다. 지어 그들은 량곡 가격을 《군사 정변》직전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 하게 동결하는 횡포까지 감행하였다.

1962년도에 생산된 미곡의 《매상 가격》은 이 해 미곡의 실지 생산비보다 약 40%, 《담보 융자액》은 50%나 낮게 설정 되였다.

량곡 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억제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 비료를 비롯한 공업품 가격은 계속 앙등함으로써 농민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였다.

비료 가격과 곡물 가격의 변동 정형

	가격 지수		대비
	비료(ㄱ)	곡물(ㄴ)	ㄴ/ㄱ
1955	100	100	100.0
1957	313	183	58.5
1961	455	195	42.8
1962	546	207	37.9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4호.

한편 미제 침략자들은 이 해에도 잉여 농산물과 비료, 농약 등의 무매량을 대폭 증대시켜 남조선 농업 생산력을 파괴하고 곡가를 억제하여 농민들을 혹독하게 착취하였다.

미 잉여 농산물 투입 정형 (단위=천딸라)

	투입액	증가 정형
1959	11 436	100
1960	19 913	174
1961	44 926	393
1962	67 308	581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4호.

화학 비료 수입 정형 (단위=천딸라)

	화학 비료	증가 비률(%)
1960	55 375	100
1961	40 289	73
1962	62 310	112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4호

미제는 남조선 농민들에게 국제 시세에 비하여 보통 30～40%나 더 비싼 가격으로 화학 비료를 강매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남조선 농민들은 각종 명목의 잡부금을 강탈 당하고 있는바 충청남도 내에는 도에 19개, 군에 18개, 리, 동에 12개의 각종 잡부금 징수 기관이 있어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고있다.(서울《기독교 방송》 1962년 3월 1일).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이와 같은 식민지적 착취와 봉건적 질곡 하에서 남조선 농촌의 물질 기술적 토대는 더욱 혹심하게 파괴되고 농업 생산은 축감되여 이 해에 극심한 식량 위기가 조성되였다.

【농업 생산력의 쇠퇴와 식량 위기】 경지 면적의 축감…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과 군사 통치배들의 반동적 토지 농업 정책 하에서 1962년에 토지를 비롯하여 관개 시설 및 산림, 하천은 더욱 더 황폐화되였으며 혹심한 자연 재해까지 입어 농업 생산은 《50년 래의 대흉작》이였다.

1962년 말 현재 농가 1호당 경지 면적은 1945년에 비하여 0.23 정보나 적은 0.84 정보로 축감되였다 (《전남 일보》 1963년 4월 14일).

경지 면적의 감소 (단위=만 정보)

	경 지			1945년에 비한 감소 면적		
	논	밭	계	논	밭	계
1945	128	104	232	—	—	—
1949	123	84	207	5	20	25
1960	122	82	204	6	22	28
1962	123	84	207	5	20	25

자료 출처; 남조선 《조선 경제 년보》 1955 년판, 《대한 민국 통계 월보》 1949 년판, 《동화 통신》 1961년 6월 21일,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5호.

농가 1호당 경지 면적
(단위=정보)

년도	논	밭	계	감소 비률
1944	0.62	0.49	1.11	100
1945	0.60	0.46	1.07	96.7
1946	0.56	0.43	0.99	89.4
1960	0.51	0.35	0.86	78.0
1962	—	—	0.84	75.6

자료 출처; 남조선 《경제 년보》 1948년판, 《농업 년감》 1958년판,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9년 7호, 《농업 은행 조사 월보》 1960년 9호, 《동화 통신》 1961년 6월 21일, 《전남 일보》 1963년 4월 14일.

또한 미제 침략군의 고의적인 농로 파괴와 거듭되는 자연 재해, 미국 화학 비료의 일방적인 시비로 인한 토지의 산성화 등으로 말미암아 농경지는 혹심하게 황폐화되였으며 복구 개량을 요하는 농토는 전체 경지 면적의 65%인 130만 여 정보에 달하고 있다. 해마다 수십만 정보에 달하는 농토가 풍수해를 받고 있는바 특히 1962년 8~9월 간의 홍수로 인한 피해 면적은 전라남도 한개 도에서만도 14만 정보에 달했으며 1961~1962년 간 홍수로 인한 량곡 감수량은 300만 석이나 되였다.

군사 《정권》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현재 남조선에서 하천이 범람하면 곧 폐경지로 될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토지는 무려 60만 정보 (전체 경지 면적의 약 27%), 홍수의 위험을 받고 있는 농가는 70만호 (전체 농가의 34%)에 달한다.

농기구 및 역축 보유 정형… 남조선의 영농은 의연히 중세기적 손로동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축력조차 보잘 것이 없다.

삽과 낫은 농가 1호당 평균 1개 정도이며, 인력 탈곡기는 13호당 1개, 인력 제초기는 14호 당 1개, 쟁기는 9호당 1개, 가래는 4호당 1개가 겨우 차례지고 있다.

농경에서 주요한 생산 수단으로 되고 있는 소와 말도 락후하던 일제 시기에 비하여 27%와 47%가 각각 더 줄었으며 전체 농가에서 역축이 없는 농가가 70%를 넘는다.

1962년에 와서도 이러한 영농 기술 장비의 락후성은 우심하였다. 이 해 남조선 농민들의 소액의 영농경비 중 농기구 구입비가 단 1.3% 밖에 안되며 년간 전체 작업 시간 중 축력에 의한 것이 4%에 불과하였다 (《전남 일보》 1963년 1월 16일). 이것은 남조선 농민들이 호미와 낫과 같은 원시적인 농기구 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작업 시간의 96%라는 압도적인 부분을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 자금 사정의 악화…1962년도 남조선 농촌의 자금 사정은 농산물 수입의 감퇴와 물가 폭등 및 군사 《정권》의 강압적인 자금 회수 정책에 의하여 어느 해 보다도 악화되였다.

군사 통치배들은 이 해 4.4분기 동안에만도 영농 자금 43억원과 비료 대금 34억원, 기타 등으로 도합 86억원을 회수하였는바 이것은 1961년도까지 영농 자금의 명목으로 그들이 대부한 자금 총액 80 여 억원을 총검의 힘으로 일시에 다 회수한 것으로 된다.

이외에 군사 통치배들은 농민들로부터 고리채의 반환과 《농지세》의 납부 등에 의하여 수십 억원을 략탈하였으며 강제 《저축》의 명목으로 41억원을 농촌에서 긁어갔다.

이리하여 이 해 남조선 농촌에서는 군사 통치배들의 기만적인 《농촌 고리채 정리》 때문에 자금 융통의 길이 막힌데다가 이상과 같은 막대한 자금이 농촌에서 빠져 나가게 됨으로써 농가의 자금 소통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농업 생산의 감소와 식량 위기… 농업 생산력의 파괴와 농민들의 영농 조건의 악화 등으로 말미암아 1962년에 남조선 농업생산은 전례 없이 격감되였다.

남조선 출판물들에 의하면 그곳 농민들과 농업 전문가들은 1962년의 미곡 생산이 전년의 그것에 비하여 20~30%가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곳에 따라서는 평년작의 30~40%, 지어는 50~60%나 감소되였다. 도'적으로 종합된 자료의 일부를 실례로 들어보아도 곡창 지대로 이름이 있던 전라 남북도에서 미곡 생산은 평년작에 비하여 30%가 감소되였다. 이상의 제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1962년도의 실제 알곡 총 생산량은 2,100만 석에 불과하다. 이는 일제 시기인 1937년에 비해 57%로 감소된 것이며 흉년이였던 1960년에 비해서도 380만석 (18%)이나 감소된 것이다.

특히 미곡 생산에 있어서 남조선 농민들은 이해에 《50년 래의 대흉작》을 겪었다.

알곡 생산의 감소로 인하여 심각한 식량 위기가 조성되였다. 군사 《정권》이 추산한 데 의하여도 식량 부족량은 1962년에 570만석에 달하였으며 1963년에는 최소한 1천 만석에 달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식량의 자급률은 1961 량곡 년도의 81.1%로부터 1963 량곡 년도에는 68.5%로 감퇴되였다.

식량 수급 정형 (단위=천만석)

량곡 년도	총 수요량	생산량	부족량	자급률
1961	31 338	25 442	5 896	81.1
1962	32 390	27 726	5 506	83.4
1963	33 683	23 088	10 595	68.5

주; 량곡 년도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0월 말까지 이다.

【농가 소득의 감소와 농민 생활의 령락】 1962년에 농산물 수확의 감퇴와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의 2중 3중의 착취와 략탈로하여 남조선 농민들의 수입은 격감되고 그들의 생활은 가일층 령락되였다.

군사 《정권》의 공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1958~1960년 간을 통하여 0.5 정보 미만의 극빈농층(일부 고농 포함)의 년 평균 농업 소득은 소요 생계비의 41~50% 밖에 안되며 중농 상층에 속하는 1.5~2 정보의 경지를 가진 농가들의 농업 소득도 소요 생계비의 85~90%에 불과하였다. 농업 경영에서 수지를 맞추는 계층은 다만 전체 농가 호수의 6.3% (약 14만 8천호) 밖에 안 되는 부농(2정보 이상의 경지를 가진 자)들 뿐이다.

동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 농민들의 가족 1인당 수입은 도시 로동자들에 비하여 80.3%에 불과하다.

1962년 상반년 간의 남조선 농가 수지는 군사 《정권》의 반동적 농업 정책에 의한 수탈의 강화, 물가 앙등에 의한 자금 지출의 증대와 농산물 수확 감소 및 부업 수입의 감소 등으로 매달 평균 4[illegible]8원씩의 적자를 나타내였다(《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2년 9호). 총체적으로 볼 때 남조선 농민들의 소득은 1962년 한 해 동안에 20%나 더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남조선 농민들의 소비 수준도 감퇴하였는바 군사 《정권》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1년 (1~9월간 평균)에 비하여 1962년 같은 기간에는 7.7%나 떨어졌다.

남조선 농민들의 소비수준

년도	농가 호당 월 평균 생계비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 수준
1961 (1~9)	4 664	100	100	100
1962 (1~9)	4 501	96.7	104.7	92.3

농촌 경리가 파탄되고 농민 생활이 령락됨에 따라 농촌에서의 계급 분화도 더욱 촉진되였다. 1962년에 남조선에서는 전년에 비하여 경영 규모 0.5 정보 미만의 극빈농가가 6만 6,646호나 격증하였으며 1~3 정보의 경영 규모를 가진 중농층은 2,086호나 감소되였다(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1963년 5호). 이리하여 1945~1962년간에 경영 규모 0.5정보 미만의 극빈농가 수가 남조선 농가 총 호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8%로부터 47.4%로 증가되였으며 1~2정보의 경영 규모를 가진 중농층은 22.2%로부터 20.5%로 감소되였다.

그런데 군사 《정변》 이후 극심한 절량과 군사 통치배들의 강화되는 략탈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몰락은 더욱 우심하였다. 일부 중농층까지도 채무 상환을 위하여 토지와 가산을 방매하고 빈농으로 전락되였다.

군사 《정권》이 경상북도 내 400 여 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바에 의하더라도 조사 대상 농가 중 4분의 1(100호)이 군사 통치배들의 《영농 자금》등의 강제 회수 등에 못 이겨 있는 가축들을 헐 값으로 방매하고 무축 농가로 되였다. 농민들의 토지 방매와 군사 《정권》의 토지 불하 등에 의하여 지주들의 수중에는 더욱 많은 토지가 집중되였다.

이리하여 농촌에서의 계급적 모순은 일층 첨예화되고 절대 다수의 농민들은 이전보다 《더 살기 어려워지고 더 못 하다》고 공공연히 불만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군사 《정권》 자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조사 대상 농가의 약 3분의 2가 생활이 《군사 정변》 이전보다 더 나빠지거나 전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다 (《동아 일보》 1962년 6월 23일).

심각한 식량 위기와 농가 수지의 파탄으로 1962년에도 절량 농가 수는 춘궁기에 100만호를 헤아렸으며 당장 손을 써야 할 《요구호 절량 농가》 수만도 이 해 정초에 벌써 340 만명을 넘었다. (《서울 방송》 1962년 3월 9일).

농촌의 주택 사정은 전체 농가의 97%에 해당하는 213만 여 호가 낡은 오막살이 초가집 또는 움막에서 살고 있으며 최소한의 침구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먹을래야 먹을 것이 없고 살래야 살 수 없게 된 남조선 농민들 속에서는 이 해에도 정든 고향과 땅을 등지고 정처 없이 류랑의 길을 떠나는 현상이 속출하였다. 1962년에 경상북도 한개 도에서만도 리농한 농가수는 6만 570호에 달하였으며 도내 봉화군 현동면 림기리에서는 70 세대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자리를 떴다.

수산업

남조선의 수산업은 미제 침략자들의 군사 기지화 정책과 군사 통치배들의 반인민적 수산 정책으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있다.

남조선의 중요 어장들은 미제 침략자들의 빈번한 해상 군사 연습장으로 탈취 당하고 있으며 주요 어항은 미제의 해군 기지로 전변되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서 주되는 어장이란 동해의 속초, 거진, 주문진, 죽변리, 방어진 앞바다의 일부와 남해의 일부 해수면 그리고 서해의 연평도, 덕적도, 울도, 굴업도와 위도를 련결하는 극히 제한된 해수면이다. 여기서도 어선들은 약 20 해리까지 밖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어장 마저 일반 어민들은 군사 통치배들의 《어로 금지 구역》이니 《무허가, 무면허 어업》이니 하는 《단속》 때문에 제대로 리용하지 못하고 주로 연해 및 근해에서 어로 작업을 하는데 불과하다.

연해 및 근해의 어장들도 관권을 업은 일부 특권자들에 의하여 독점되고 있으므로 어민들의 어

로 활동은 2중 3중의 제한을 받고 있다.

남조선 어업 인구는 1960 년말 현재 84만 8,275명 (19만 8,687호)으로서 남조선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수효는 전후 기간에 만도 1.6배 이상으로 격증한 것이다. 수산업의 파탄으로 리어민의 수효가 해마다 증가되고 그 시설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시와 농촌에서 몰락된 주민들이 어촌으로 보다 많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남조선 수산업의 령세성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바 이는 어민 구성과 업종별 구성에서도 여실히 찾아 볼수 있다.

어민 구성을 보면 어로업이 57만 명(67%), 천해 양식업이 23만 6천명 (28%), 제조 가공업이 3만 9천명(5%)을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어민 구성

	전업자	겸업자	피고용자
1959	28.2	48.2	23.6
1960	21.5	47.3	31.2

자료 출처; 남조선 《민국 일보》 (1962년 1월 9일)

주; 전업자란 3~4척 혹은 1~2척의 어선을 소유하고 고용 로동자들을 착취하는 근해 어업자들이다. 겸업자의 대부분은 반농 반어업 또는 기타 직업을 겸한 령세 어업자들이다.

【어로 시설과 그의 경제 기술적 락후성】락후하던 남조선 수산업의 경제 기술적 장비는 더욱 보잘 것 없이 되였으며 그나마 해마다 감소되고 있다.

1960년 현재 총 보유 어선수는 일제 통치 말기인 1944년 당시에 비하여 29%, 어선 총 톤수는 30%나 축감되였다.

보유 어선 중 대부분은 8.15 전에 건조된 것이며 그의 약 60%는 소정 선령을 경과한 것들이여서 폐선또는 대수리를 요하는 로후한 것들이다. 어선들의 규모 및 기술적 장비도 락후한바 어선 총수의 84.6%는 5톤급 이하의 소규모적인 어선들이며 90%는 무동력선이다.

어구들도 대부분 원시적인 것들이며 어망은 소요량의 60%내외, 수산용 유류 공급량은 수요량의 50% 내외에 불과하다.

【어민들에 대한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의 강화】미제는 남조선 수산업 시설의 락후성을 기화로 자국의 어선, 어구들을 국제 시장 가격에 비해 40%나 비싼 값으로 팔아 먹고 있으며 유류 공급을 독점하고 성어기에 그 공급을 중단하는 악랄한 방법으로 유류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

한편 군사 통치배들은 수산 부문에 대한 자금 지출을 극도로 억제하는 반면에 각종 세금과 잡부금 등을 들씌워 어민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다.

1962년도 군사 《정부》의 《투융자 예산》에서 수산 부문에 대한 지출은 단 3%에도 미달하였는바 이것마저 《수산물 수출 장려비》, 《수산물 수집 자금》 등의 명목으로 무역 업자들과 일부 수산 자본가에게 대부분을 돌리고 일반 령세 어민들에게는 《상환 능력이 없다》는 리유로 《빚만 비치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업세》, 《소득세》, 《호별세》, 《교육세》와 《입 출 항료》, 《군경 원조비》 등 잡다한 명목으로 어민들을 수탈하고 있다.

군사 통치배들은 또한 어용 기관인 《어업 조합》의 《위탁 판매》를 통하여 어민들의 어물 판매량의 5~12%를 착취하고 있다.

남조선 어민들에게는 또한 봉건적 수탈이 가해지고 있다. 어민들은 고기'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로부터 소위 《3.7제》, 《4.6제》에 의하여 어획물의 60~70%를 빼앗기고 있다. 미역 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곽전주》들은 해녀들로부터 《어장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채취물의 70~90%까지를 강탈하고 있다.

객주업자와 상인들은 어민들의 손에 들어 온 얼마 안 되는 어물마저 시가의 10~20%나 낮은 헐값으로 빼앗아가며 어선, 어구들을 선대해 주는《대'가》를 월 20%까지의 살인적인 고률 리자를 붙쳐 짜내고 있다.

【수산물 생산의 감소】 군사 《정변》 후 수산물 생산은 더욱 급격하게 감소되였다.

1962년도 어획량은 일제 시기인 1938년에 비하여 53.6%로 떨어졌으며 어업 인구 1인당 어획량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바 1960년 현재 그것은 1946년의 약 60%에 불과하였다.

남조선 인구 1인당 어획량은 공화국 북반부에 비해 약 4분의 1, 어업 인구 1인당 생산량은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종류별 어획량의 감소

	총 계	그 중	
		어 류	조 개 류
1938	838 347	720 811	19 988
1959	382 125	266 181	12 661
1962	450 500	297 200	20 100

자료 출처; 남조선 《경제 년감》 1949 년판,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4월호.

수산물 생산의 감소와 함께 가공 시설의 불비로 수산물 가공품도 감소되였다. 1959년 수산물 가공량은 6만 2,213톤으로서 일제 시기인 1938년의 약 33.7%에 불과하였다.

재 정

【1962년 괴뢰 정부 예산 및 집행 실적】《반공 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과업》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한다는 구실 하에 68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자에 달하였던 군사 통치배들의 1962년도

당초 《예산》은 그 집행 과정에 세번씩이나 뜯어 고쳐서 또다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새로 추가되였다.

1962년 4월 30일 군사 통치배들의 《최고 회의》에서 《춘궁기 절량민의 당면 구호 대책》을 강구한다는 명목으로 조작된 《제 1회 추가 경정 예산》은 명목상 당초 《예산》보다 순 5억 7천만원이 더 증대되였다.

그런데 군사 통치배들은 세출 《예산》에서 내용상 8억 7천만원의 자금을 증액하여 놓고 《절량민 구제》라는 허울 좋은 구실 하에 인민들로부터 세금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세무 행정의 보강을 위한 경비》로 1억 1천만원, 직접적인 국방비로 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는 등 3억 3천만원의 자금을 파쑈 테로 통치 기구의 유지비로 새로 추가하였다.

반면에 《절량민에 대한 구호 대책비》로는 2억 4천만원을 계상하는데 불과하였다.

또한 군사 파쑈 도당은 표면상 《울산 공업 쎈터 건설 사업비》와 《치수 사업비》로 각각 1억 5천만원의 자금을 새로 추가하였다.

8억 7천만원이나 새로 증대된 《추가 경정 예산》의 세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 통치배들은 당초 《예산》에 《재정 투융자》로 계상되였던 평창 댐 건설비》 1억 5천만원과 《관광 사업비》1억 5천만원을 삭감하여 장부상 대체키로 하는 한편 순 증가 5억 7천만원의 자금 확보를 위해 입장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수탈의 강화와 담배 값 인상에 의한 《전매 익금》 수입의 대폭 증대를 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파쑈 테로 통치 기구의 유지비를 염출하기 위한 군사 통치배들의 이러한 발악적 책동들은 재정 위기를 수습하기는커녕 더욱 격화시켰으며 특히 1962년 6월 중에 단행된 략탈적인 《통화 개혁》으로 남조선 경제 파국은 수습할 수 없는 엄중한 국면에 다달았다.

군사 통치배들은 경제적인 혼란과 파국을 수습하고 악성 인플레를 억제한다는 미명 하에 또다시 《예산》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7월 24일 군사 통치배들에 의해 공포된 《제 2 회 추가 경정 예산》은 1회 경정 《예산》에서 추가된 자금의 8배 이상에 달하는 46억 1천만원의 자금이 새로 추가되여 일반 재정 총 규모는 1962년 당초 《예산》보다 52억 8천만원이 많은 741억 9천만원에 달하였다.

군사 통치배들은 남조선에 조성된 악성 인플레와 경제 파국이 마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1차년도 과업》이 너무 《의욕》적인데로부터 자금 지출이 과다하게 되여 초래된 것 같이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하기에 날뛰면서 종래의 《경제 성장 제일주의》란 표방을 버리고 《경제 안정》의 구호 하에 가일층의 《재정 금융 긴축 정책》으로 《예산》의 《성격을 전환》시켰다.

《경제 안정》이란 새로운 표방하에 군사 통치배들은 기정《예산》에 계상되였던 남강, 소양강 댐 건설비, 종합 제철 공장 건설비, 개간 사업비, 산림 록화비 등 《투융자금》 5억원을 축감함으로써 《5 개년 계획》을 사실상 《백지로 환원》하는 한편《국방비》를 무려 10억 3천여만원이나 추가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 통치배들은 군사 《정권》의 《행정 경비》를 비롯한 파쑈 통치 기구 유지비를 12억 9천만원이나 추가하였으며 《수출 보상금》,《군납 대책비》를 1억 5천만원이나 증대시켜 남조선에서 그 대부분이 예속 자본가들로 구성되여 있는 무역 업자들과 군납 업자들에 대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자기들의 반동적 통치 지반을 강화해 보려고 책동하였다. 반면에 《민생의 안정》을 위한다는 《절량민 구호 대책비》는 금번 《예산》에서 새로 추가된 《고리채 정리 자금》과 사실상 농촌의 지주, 부농들을 위한 《비료 보상비》 9억 6천만원의 4분의 1도 안 되는 2억 2천만원 밖에 계상하지 않았다.

《경제 안정》의 구실 하에 이처럼 악랄하게 편성된 금번 《예산》의 세출 재원은 전적으로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수탈로서 메꾸어지고 있다.

군사 《정권》은 팽창된 세출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저들이 독점 판매하는 담배 가격에 대한 인상을 또다시 단행함으로써 5억원의 《전매 익금》과 남조선 인민들이 부담할 물품세 16억 1천만원을 추가하였다.

군사 통치배들은 엄청나게 팽창된 세출 자금의 확보를 위해 통화 람발을 전제로 하는 6억 6,000만원의 《국채》와 《산업 부흥 국채》의 발행과 차입금 13억 7,000만원 등 도합 20억 3,000만 원의 적자 요인을 또한 새로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제 2회 추가 경정 예산》에서 새로 추가된 총 자금 규모의 40%에 달하는 엄청난 것으로 군사 통치배들의 재정 위기가 얼마나 극심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증시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 요인들은 기정 《예산》에 계상되여 있던 최소한 40억원의 적자 요인들과 겹쳐 남조선에서 군사 《정권》의 재정 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궁지에 빠진 군사 통치배들은 한해 《예산》의 회기 마감 날을 2개월 앞둔 11월 8일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을 조작하고 자기들의 군사 테로 통치의 연장을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의 《국민 투표 관리비》와 기타 파쑈 통치 기구의 유지비를 짜내려고 발광하였다.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는 상기 《국민 투표 관리비》 이외에도 파쑈 통치의 지반으로 되고 있는 예속 자본가들에 지불될 《수출 보상금》과 엄청난 국방비가 또다시 추가되였으며

1962년 9월 중에 있은 순천에서의 홍수 피해 복구비가 약간 계상되였다. 그리하여 한해 동안에 3회나 뜯어 고쳐진 군사 《정권》의 1962년 《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6억원이나 팽창된 775억원에 달하게 되였다.

군사 통치배들은 이처럼 팽창시킨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남조선 인민들에게 당초 《예산》보다 37억원이나 많은 세금을 더 들씌웠으며 《산업 부흥 국채》와 《건국 국채》를 13억원이나 더 발행하였다.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이자들은 통화의 람발을 전제로 하는 은행 차입금을 20억원이나 더 추가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였던 엄청난 적자들과 겹쳐 군사 《정권》의 재정 위기와 인플레를 격파시킴으로써 남조선 경제를 수습할 수 없는 파국에로 더욱 몰아 넣었다. 그런데 군사 통치배들은 1962년 중에 단행된 《통화 개혁》으로 인한 재정 금융 체계의 혼란과 그의 파탄을 은폐하기 위해 가속돕게도 1962년도 《예산》이 《건전》하게 집행되기나 한듯이 지껄이고 있으나 남조선의 발권 은행인 《한국 은행》에서 집계한 재정 자금 수불 통계는 군사 통치배들이 1962년 한해 동안에 그 전해의 배나 되는 69억원의 재정 적자를 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에서 《경제 성장 우선 정책》이건, 《경제 안정 정책》이건 재정 예산을 골백번 뜯어 고쳐봐도 미제의 식민지 통치가 청산되지 않는 한 파국적인 재정 위기가 수습될 수 없으며 날을 따라 더욱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1963년도 《예산》】 1963년 《예산》은 예년의 《예산》에 비하여 더욱 초조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 회계 년도의 마감을 1개월이나 앞둔 1962년 11월 14일 공포되였다.

장기 집권을 노리는 군사 통치배들은 이 《예산》을 통하여 1963년 중에 실현할 것이라는 《민정 이양》을 앞두고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초조해 하면서 장시간의 《마술》적 계수 조작 과정을 거치게 되였던 것이다.

군사 통치배들은 1963년도 《예산》을 공포하면서 금번 《예산》이 마치 민생고와 경제 파국을 해결하고 6.4%의 경제 성장률을 재정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한 《경제 안정 예산》이나 되는 것처럼 떠들었다. 그러나 1963년도 《예산》의 세출입 항목들의 구체적 내용들은 군사 파쑈 분자들이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날조를 위해 국방력과 파쑈 테로 통치 기구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 안정》의 표방 하에 파렴치한 인민 수탈을 자행하려는 이자들의 반동적 정책을 여지 없이 폭로하여 주고 있다.

총 규모 768억 7천만원에 달하는 군사 《정권》의 1963년도 일반 재정 《예산》은 표면상 1962년도 당초 《예산》보다 79억원이 증가되였으나 3회에 걸치는 추가 경정 《예산》까지 포함한 최종 《예산》에 비하면 오히려 6억 8천만원이 감소되였다.

이는 군사 《정권》의 《예산》중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 경찰비의 증가를 남조선 인민들에게 더 많이 들씌우기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이 재정 자금으로 공급해 온 《원조 자금》을 대폭 축감한데 그 원인이 있다.

1963년도 일반 재정 《예산》

(단위=억원)

	1963년	1962년(최종예산)	증(+)감(−)
=세입=			
조세	281.0	248.3	+37.7
전매 익금	42.6	42.3	+ 0.3
세외 잡수입	119.5	83.3	+36.2
부정 축재	2.5	14.0	−11.5
귀재 전입	9.3	12.4	− 3.1
조월 전입	1.1	—	+ 1.1
국 채	13.0	11.0	+ 2.0
산업 부흥 국채	28.4	28.7	− 0.3
차 입 금	—	30.9	−30.9
대충 자금	253.6	274.1	−20.5
불 자 배	8.6	21.2	−12.6
《기술 원조》	9.1	9.1	—)
계	768.7	775.5	− 6.8
=세 출=			
일반 경비	303.7	301.7	+ 7.0
국 방 비	212.5	207.2	+ 5.3
투 융 자	233.6	248.9	−15.3
기 타	4.8	8.6	− 3.8
《기술 원조》	9.1	9.1	—
계	768.7	775.5	− 6.8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2년 12월호.

군사 통치배들의 세출 예산에서는 의연히 군사, 경찰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정 이양》을 위한 선거 매수비 같은 것은 지난 해보다도 증가되였다.

60만 괴뢰군의 직접적 군사비는 1933년 당초 《예산》보다 37억 4천만원, 최종 《예산》에 비해 5억 3천만원이나 격증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형 무기와 기타 장비 등의 도입을 위한 엄청난 자금 지출이 제외되여 있다.

이와 함께 군사 통치배는 파쑈 테로 기구의 유지와 《민정 이양》의 날조를 위해 거의 대부분의 자금이 소비될 《일반 경비》도 1962년도 당초 예산보다 33억 7천만원, 최종 《예산》보다 7억원을 증대시켰다.

이리하여 308억 7천만원의 《일반 경비》와 212억 5천만원의 직접적 《국방비》는 군사 《정권》의 일반 재정 《예산》에서 근 70%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군사 《정권》의 일반 재정 세출 《예산》 항목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투융자》는 1962년도 최종 《예산》 보다 15억 3천만원이 축감되였다.

군사 통치배들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2차년도 《과업》을 《경제 안정의 기초 우에서 추진》한다는 구실 하에 《투융자》를 축감하는 것으로써 《외원 수입》의

감소로 인한 세입 결손을 전'적으로 메꾸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들은 《재정 투융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인플레의 억제와 《경제 안정》을 운운하면서 군사적 목적 이외의 경제 부문에 대한 자금 배정을 극도로 삭감하였다. 이로 인하여 《투융자》 자금 중에서도 특히 군사력 증강에 경제적인 안받침을 할 수 있는 전력, 항공 시설, 항간, 통신 부문에 대한 투자액은 1962년도 최종 《예산》보다도 39억 9천만원이나 증대된 반면에 《제 1차 산업》인 농 어촌들에 대한 투자는 11억 2천만원이나 대폭 축감되였다.

결국 군사 통치배들은 절량과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는 농 어민들에게는 《민정 이양》을 위한 기만책으로 《중농 정책》을 말로만 떠들어 대고 실제에 있어서는 농촌을 주요한 수탈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외원 수입 격감》에 의한 세입 부족을 이 부문에 대한 자금 지출의 억제로써 메꾸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출 내용을 다시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치안 대책비》, 《행정 관리비》를 기본으로 하는 《일반 경비》와 지방 행정 기관들에 대한 《재정 보조》라는 명목 밑에 주로 군사 통치배들의 장기 집권을 위한 《선거》 날조에 소비될 《기타 경비》가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다.

1962년 최종 《예산》에서 《일반 경비》와 《기타 경비》의 비중은 37%, 7.3% 였는데 1963년에는 38.9%, 7.8%로 각기 증대되였다.

그러나 《경제적 경비》는 1962년 최종 《예산》보다 15억 1천만원이나 격감되였다.

이상과 같은 군사 《정권》의 1963년도 《예산》 지출의 내용은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전쟁 도발 정책의 강화에 따르는 군사력 증강과 파쑈 통치 체계의 강화에 전'적으로 복종되고 있으며 민생 관계 지출이 극도로 억제되고 있는 가장 반인민적이며 침략적인 예산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963년도 일반 재정 《예산》의 세입 규모는 768억 7천만원에 달하는 세출 총액을 보장하기 위해 표면상으로는 수지 《균형》이 이루어진 것처럼 되여 있다.

이것을 재원별로 본다면 주로 인민 들로부터의 세금 수탈로 채워지는 《국내 재원》이 497억 4천만원으로서 1961년도에 비하여 5.6%가 증대되였으며 미국의 《원조》 물자 판매 대금으로 이루어지는 《대충 자금》은 271억 3천만원으로 10.9%가 축감되였다. 이에 따라 《예산》세입 총액중 《국내 재원》의 비중은 1961년의 31.3%로부터 1962년에는 35.3%로 증대된 반면에 《외부 원조 재원》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68.7%로부터 64.7%로 감소되였다.

미제 침략자들은 팽창하는 군사비의 중하를 남조선 인민들의 어깨에 들씌우려고 책동하면서 《대충 자금》의 지출을 대폭 억제하고 있다. 이 《예산》 세입에는 271억 3천만원의 《대충 자금》 수입이 예견되고 있으나 이는 미국 《원조》 수입이 2억 3천만 딸라에 달할 것을 전제로 추산된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잉여 농산물을 포함한 1963년도 《원조》 수입 총액은 최대한 그 도입이 가능한 품목까지 합쳐 겨우 1억 3천만 딸라에 불과할 것이 확실하여 짐으로써 군사 《정권》의 《예산》 세입은 제아무리 《마술》적인 계수 조작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집행 과정에 엄청난 규모의 재정 적자가 들어날 것이 당초부터 예견되고 있다.

《외부 원조 재원》에 의한 세입 규모가 이처럼 대폭 격감되고 이것마저 그 세입이 확고치 못한 형편에서 엄청나게 증대된 군사 경찰비의 중하는 자연 남조선 인민들의 어깨에 들씌워지고 있다.

군사 통치배들은 1963년 《예산》 편성 과정에 벌써 인민들에 대한 세금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세, 물품세, 법인세를 비롯한 6개 종류의 세법들을 더욱 악랄하게 개악하였으며 《납기내 세금 수납》자와 《중간 예납자》에게 주던 명목상의 10% 《공제 은전》마저 폐지하여 버렸다. 그리하여 1963년 《예산》중 《조세》와 《전매 익금》등 세금 수입은 1962년 최종 《예산》 보다 38억원이 격증하였다. 이로 인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무려 376억 8천만원 (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걸머지게 되였는데 그 세금 부담률은 1962년보다 13.4%나 증대되였다. 조세 세입의 구성 정형을 보면 직접세가 1962년 최종 《예산》보다 16억 5천만원이나 격증하여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접세는 11억 7천만원이 불어나 72.1%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 《예산》에서보다 직접세의 비중이 3.5%나 증대된 것은 군사 통치배들이 세금 수탈을 강화하기 위해 주로 직접세률을 대폭적으로 끌어 올린데 기인하고 있다. 이처럼 발광적인 세금 수탈 강화 책동에도 불구하고 군사 통치배들은 1963년도 《예산》에서 엄청난 재정 적자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표면상 나타난 재정 적자만도 1963년도 《예산》에서는 무려 66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 통치배들은 이러한 재정 적자를 전년도 이월금 1억 9천만원과 1963년도에 발행될 《전국 국채》 13억원과 《산업 부흥 국채》 28억 4천만원, 전화 채권 2억 5천만원 등 인민 수탈의 강화로써 충당하려 하는 한편 《정부》 차관 11억 4,000만원과 미국 《원조》 차관 10억 9,000만원, 《국제 개발 차관》 4,000만원 도합 22억 7,000만원의 외국 차관 도입으로 메꾸려하고 있다.

그런데 상기 산업 부흥 국채 28억 4,0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억 9,000만원은 군사 《정권》의 발권 은행인 《한국 은행》이 소화할 것을 전제로 하고 편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산》에 표면상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30억 3천만원의 통화 증발 요인이 계상되여 있다. 이는 《경제 안정》을 떠들어대고 있는 군사 통치배들의 표방과는 반대로 남조선에서 군비의 지출을 위해 또다시 엄청난 통화가 람발되여 악성 인플레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외래재원으로 재정 적자를 충당하려고 책동 하고 있는 군사 통치배들의 무모한 책동은 남조선의 예속을 더욱 심화시킬 따름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금 융

남조선의 금융 체계는 인민 대중으로부터 방대한 군사 경찰비와 파쑈 테로 통치의 유지비를 짜내며 미제의 식민지적인 략탈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수탈의 공간으로 리용되고 있다.

1962년에 군사 통치배들은 년초부터 표방하여 온 반동적인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재원을 념출하며 파쑈 테로 통치 기금을 짜내려고 전례 없이 악랄한 인플레 정책에 매여 달렸다.

년초부터 군사 통치배들은 방대한 군사 경찰비와 자기들의 파쑈 통치 기구 유지비의 지출을 보장하기 위해 불환 지페를 무제한하게 람발함으로써 1962년 5월 말 현재 남조선의 통화량을 무려 3,398억환으로 팽창시켰다. 이것은 1960년 말 현재의 2,191억환에 비해 볼 때 1년 반 동안에 155%로 팽창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군사 통치배들은 남조선에서 통화를 람발하여 인플레를 인위적으로 조장함으로써 저들의 《5개년 계획》의 자금을 빼내는 한편 저축과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민간 자본을 동원해 보려고 어리석게 타산하였다. 이를 위하여 남조선에서는 군사《정권》의 《재무부 장관》이란 자가 지껄인 것 처럼 은행들의 《대출 한도를 철폐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은행 자금을 산업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금융 정책을 전환》할 음모가 꾸며졌다. 군사 통치배들은 우선 남조선의 모든 은행들이 저들의 인플레 정책에 순응하여 자금 지출을 증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산업 은행법》을 개정하여 《산업 은행》이 《한국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일반 《은행법》을 전반적으로 개정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10배 이내의 범위에서 밖에 대출할 수 없던 종래의 대출 한도를 15배 이내로 대폭 증대하고 은행들의 유가 증권에 대한 투자 억제책도 완화하였다.

이리하여 군사 통치배들은 남조선의 금융 기관들이 저들의 각종 유가 증권을 무제한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플레 억제책의 하나로 종래 설정되였던 은행들의 자금 대출 한도 외에도 군사 《정권》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대출할 수 있게 하여 놓았다.

소위 《금융 개혁》으로 불리워지는 이러한 조치들은 특히 류동되지 않고 퇴장되여 있는 방대한 량의 자금을 동원해 보려는 파렴치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군사 정변》이후 남조선에서는 환률과 료금의 계통적인 인상과 원료 가격의 등귀, 세금의 인상, 인민들의 구매력의 혹심한 감퇴 및 심각한 정치적 불안 등으로 1962년 중에만도 전체 통화량의 근 50%에 달하는 800억환의 자금이 민간에 퇴장되여 있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은 군사《정권》의 예금 리자률 인상 조치로 그 일부가 금융 기관에 예금되여 《유휴 자금》으로 존재하였으며 나머지 압도적 대부분은 일획 천금의 폭리를 노리고 부동하였다. 이로부터 군사 통치배들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책정된 년 평균 2,340억환의 내자를 투자와 저축으로 강제 동원하기 위해 《내핍 생활》의 구호 하에 남조선 인민들에게 각종 저축을 강요하는 한편 증권 거래소를 통하여 투기화된 부동 자금을 긁어 모으려고 《증권 거래법》을 개정하여 증권 거래소를 주식 회사로 개편하고 직할 기업체들의 리익 배당제를 실시하며 기업들의 재산 재평가와 은행법의 개정 등을 통해 직할 기업체들의 주가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법》으로써 조작하였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조작된 《증권 경기》에 의해 남조선에서는 1월에 비해 6월 초에는 주가가 최고 308배나 껑충 뛰여 오르는 《주가의 기적적인 폭등》 현상이 발생되였으며 5월 한달 동안의 증권 거래액은 무려 2,520억 9,000만환으로서 전후 6년간 총 증권 거래액을 배나 초과하는 등 시중의 모든 자금이 증권 시장으로 《대이동》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군사 통치배들의 사기와 모리 장소로 전락된 이러한 인위적인 《증권 경기》는 오래 계속되기는 고사하고 5월을 고비로 《증권 파동》이라는 전례 없는 금융 체계의 대혼란과 파국적 상태가 일어났다.

《증권 파동》의 결과 군사 통치배들은 최소한 들어난 것만도 1천 수백만 딸라에 달하는 협잡 리득을 본 반면에 《증권경기》시에 기만과 협잡에 속아 비싼 가격으 주식을 구입하였던 령세 주식 투자가들은 전면적으로 파산되였으며 《증권 시장》을 통하여 2천억환의 내자를 동원하려던 당초의 《계획》은 백지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리하여 남조선 금융 체계는 군사 통치배들의 무제한 한 불환 지페의 람발로 인한 악성 인플레의 격화와 《증권 파동》등으로 대 혼란만이 계속되고 민간에 류동되는 유휴 자금은 더욱더 투기화되여 나갔다.

이로부터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

은 남조선에서 격화되고 있는 악성 인플레의 위기를 일단 수습하고 강제적인 방법으로 민간에 류동되고 있는 통화를 흡수할 목적밑에 최후 발악적 수단의 하나로 《통화 개혁》을 단행하기에 이르렀다(《통화 개혁》 참조).

그러나 6월 10일에 실시된 《통화 개혁》은 엉망진창으로 된 금융 체계의 혼란을 수습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의 마비와 생산 기업들의 전면적인 파국적 상태를 심화시켰다.

략탈적인 《통화 개혁》을 전후하여 미제 침략자들은 《경제 안정》의 표방하에 가일층의 《재정 금융 긴축 정책》을 강행하여 남조선 경제의 파국적 상태를 타개해 보려고 발광하였다. 군사 통치배들은 《통화 개혁》 이후 《종합 경제 시책》과 《경제 안정 및 물가 대책》 등을 련이어 발표하고 《안정 제 1주의》를 표방하면서 재정 금융 《긴축》과 저물가 정책을 일층 악랄하게 자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통화 개혁》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종래의 략탈적 인플레 정책으로 인한 자금 조달 책동마저 전면적으로 파산 당한 군사 통치배들은 생산 기업들에 대한 자금 방출을 대폭 억제하며 《5개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투자 대상들을 대폭 삭감하는 한편 방대한 군사 경찰비의 지출을 위해 《세입내 세출》을 떠들면서 인민들에 대한 더욱 악랄한 재정 수탈에 발광하였다.

우선 이자들은 《통화 개혁》 이후의 파국적 상태를 수습한다는 구실하에 조작한 《추가 경정 예산》에서 담배값을 20% 인상하여 년간 5억원 이상을 인민들로부터 추가적으로 더 짜내는 한편 당초 《예산》에 예견하였던 생산 기업들에 대한 자금 융자 조차 대폭 축감하였으며 물가의 전반적인 동결 조치를 취하였다.

군사 《정권》의 이러한 《안정 제 1주의》 정책은 재정 금융의 《긴축》과 물가 억제를 통하여 경제 활동을 마비시키고 생산을 더욱 더 침체 상태에 빠뜨리고 인민 생활을 도탄에 빠지게 함으로써 남조선의 경제 형편을 일층 악화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군사 《정권》의 《안정화》 정책에 의하여 경영 자금의 70%를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기업자들은 자금 융자를 사실상 거의 받을 수 없게 되였으며 더욱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게 되였다. 특히 이들은 군사 통치배들의 물가 동결 조치가 소매 가격에만 국한하게 됨으로써 경영상 막대한 타격을 받게 되였는바 그들은 원료 가격이 6월 9일 가격보다 등귀되여 제품의 원가는 높아졌으나 그의 소매 가격은 6월 9일 동결 가격선에 억제 되게 됨으로써 거대한 경영 적자를 낼 수 밖에 없게 되였던 것이다. 또한 《긴축 정책》의 한 부분으로 세원을 확대하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을 강화하며 강제 저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들에 의해 인민들은 더 많은 조세 수탈을 강요 당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군사 《정권》의 《안정 제 1주의》 정책은 실시 직후 부터 경제의 파산과 사회적 모순만을 더욱 첨예화 시켰으며 그의 파탄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통화 개혁

1953년 2월 이후 두번째로 되는 《통화 개혁》이 군사 통치배들에 의해 1962년 6월 10일 단행 되였다.

군사 《정권》은 6월 9일 《긴급 통화 조치법》을 공포하고 6월 16일에는 재차 《긴급 금융 조치법》을 발표하였다.

《긴급 통화 조치법》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1962년 6월 10일부터 종래의 화폐인 환화 (圜貨)의 류통과 거래가 금지되고 낡은 화폐인 환화 10환과 새로운 화폐 단위인 원화 1원과 교환되여 통용 되게되였다.

그런데 군사 통치배들은 일체의 구화폐와 통화성 예금들을 6월 17일까지 금융 기관들에 예입하도록 하여 놓고 이를 가지고 자기들의 략탈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획책하였다.

6월 16일 공포된 《긴급 금융 조치법》은 군사 깡패들에 의해 이처럼 강제로 각 금융 기관들에 신고 예입된 자금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 《정권》은 상기 《법》에 의하여 신고 예입된 자금이 3만원 미만일 때에는 전액을 지불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금액의 규모에 따라 루진적인 동결 비률을 적용하여 금융 기관에 동결시키도록 하였다. 동결된 자금은 일부 세금 납부에 충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액을 무기한으로 동결하여 앞으로 설립될 《산업 개발 공사》의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예입자는 다만 년간 15%의 리자만을 지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금의 동결 조치는 1953년 2월에 있었던 《화폐 개혁》 당시보다 그 방법과 정도에서 수탈적 성격이 더 강한 것이 특징적이다.

즉 《긴급 금융 조치법》에 의해 동결 대상 한도액은 1 차 《화폐 개혁》 당시의 5 만원보다 2만원이나 낮은 3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신고 예입된 자금에 대한 동결률의 적용에 있어서도 소액의 자금일 수록 더욱 높이 설정함으로써 소액의 자금 소유자들에게 보다 많은 희생을 강요하였다. 그것은 규모에 따른 자금 동결률이 1차 《화폐 개혁》 시에는 5~25만 원에 25%, 25~50만원에 50%, 50~100만원에는 75%, 100만원 이상에는 100%였다면 이번에는 3~5만원에 20%, 5~10만원에 30%, 10~50만원에 50%, 50~100만원에 65%, 100~1천 만원까지는 85~95%를 동결하며 1 천만원 이상부터는 100%를 동결하기로 규정 되여 있는 데서도 알수 있다.

금번《통화 개혁》의 략탈적 성격의 또한 측면은 자금의 처리 방법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

고 있는데 1차 《화폐 개혁》시에는 동결된 자금들이 일정하게 설정된 기한에 따라 그 전액 지불을 전제로 하였다면 이번에는 앞으로 설립될 《산업 개발 공사》의 주식으로 대체하며 이 주식에 대하여 앞으로 년 15%의 리익 배당금을 《보장》한다는 것 뿐이고 자금의 동결 기간이 특별히 설정되여 있지도 않으며 동결된 자금의지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규정도 없다.

군사 《정권》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년 15%의 리익 배당 자체도 그 보장이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동결된 자금의 소유자들이 자기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을 완전히 박탈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군사 깡패들의 날강도적인 《긴급 금융 조치법》의 강행에 의하여 5월 말 현재 남조선 전체 통화량의 3분의 1에 달하는 116억원의 방대한 자금이 강제로 동결되였다.

이것은 박 정희 일당이 로골적으로 지껄여댄 것처럼 《통화 개혁》이 남조선에서 유동하는 방대한 규모의 《음성 자금을 장기 저축으로 일소하여 이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반동적인 《5개년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는 략탈적 목적에서 출발한 강도적 조치였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이러한 략탈적 《통화 개혁》으로 40억원 이상에 달하는 자금을 동결 당한 남조선의 중소 기업가들은 더욱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그 경영이 질식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자금의 동결로 남조선 금융 기관들의 거래는 사실상 두절되고 공업 생산은 《통화 개혁》 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경제적 파국과 마비 상태는 날을 따라 심화되였으며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극심하여 갔다.

그리하여 일반 인민들은 물론 중소 기업가들과 지어는 일부 예속적인 대 자본가들까지도 《통화 개혁》에 의한 자금 동결을 극력 반대하면서 전반적인 《자금 동결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다.

형편이 이렇게 되자 군사 《정권》은 당초 《통화 개혁》에서 목적했던 선으로부터 점차 후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군사 깡패들은 6월 16일 《긴급 융자 대책》이라고 하여 소시민층과 중소 기업자들에 대하여 동결 자금의 50% 범위 내에서 융자하도록 《허용》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긴급 융자 요령 특례 조치》로서 《5개년 계획》 수행과 관련한 건설업자, 무역 업자, 중소 기업자들 중 《상공부 장관》의 추천과 《승인》이 있는 것에 한하여 동결 자금의 100%까지를 융자하기로 하고 이미 동결한 자금 116억원을 70억원으로 감소하기로 하였다.

군사《정권》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경제 생활에서는 의연히 심각한 침체와 파국적 상태만이 더욱 심화되였으며 수습할 수 없는 경제적 혼란과 파국적 사태는 드디여 군사 《정권》의 분렬을 표면화시켰다. 그리하여 소위 《내각 수반》과 《재무부 장관》이 《통화 개혁》에 관한 의견 대립을 직접적 계기로 경질되는 추태까지 벌어지게 되였다.

이러한 사태는 동결 자금을 담보로 한 일부 자금의 융자 정도로써 해결될수 없으며 날이 경과함에 따라 군사 《정권》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에 이르게 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군사 《정권》은 《통화 개혁》을 실시한지 33일만인 7월 13일 드디여 《긴급 통화 조치법에 의한 봉쇄 예금에 대한 특별 조치법》을 발표하고 동결자금 중 3분의 1은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1년 기간의 특별 정기 예금으로 하되 그것도 예금주가 반환을 요구할 때는 리자 없이 즉시 지불 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동결을 사실상 해제하였다. 이리하여 《통화 개혁》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물 가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의 무모한 경제 정책의 엄중한 후과들은 《종합적 경제 지표》들 중의 하나인 물가 추세에서 단적으로 들어나고 있다.

1961년 중에 미제에 의해 1월과 2월에 두차례나 일방적으로 단행된 환률 인상과 군사 《정권》의 각종 세금 및 료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으로《폭등 일로》에 있던 남조선의 물가는 1962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기승을 부려 5월 중순 현재에는 전해 말보다 13%나 뛰여 올랐다.

1962년에 남조선에서의 물가 등귀는 전반적인 물가 구성 요소중 41.8%의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이 1961년 평균 수준보다 18.2%나 폭등하게 됨으로써 더욱 심화되였다.

이와 함께 외화의 부족을 메꾸어 보려던 군사 깡패들의 《수출 진흥책》과 《수입 억제책》은 무역 결손을 축감시키기는 고사하고 당장 필요한 원자재 수입에 수속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수수료를 엄청나게 늘어나게 하는 한편 그 도입 기간만 지연시켜 물자의 기근과 가격의 등귀를 재촉하였다.

그런데 미제 침략자들은 《미국 상품 우선 구매 정책》을 떠들면서 국제 시세보다 10～30%나 비싼 미국 상품의 수입만을 강요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물자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리용하여 수입 상품 가격을 계통적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물가 등귀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이러한 내외적 요인들에 의한 물가의 폭등 추세는 6월 중에 단행된 략탈적 《통화 개혁》의 부작용으로 공업 생산이 전례 없이 격감된 것과 농업에서의 흉작으로하여 더욱 격화되였다. 물자의 결핍으로 인한 물가의 등귀는

《품종별 계주 경기나 벌어진 듯》 남조선에서 련'이어 계속되였는데 특히 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품절 상태》가 조성되였던 목재를 비롯한 건축 재료의 가격은 1962년에 무려 27.6%, 화학 제품의 가격은 11.1%나 각각 등귀하였다. 이처럼 《물자의 품귀》 상태가 년중 계속되는 속에서도 군사 《정권》은 방대한 군사 경찰비와 파쑈 통치 기구 유지비의 지출을 위해 1962년에 불환 지폐를 26억 6천만원이나 추가 발행함으로써 남조선에서의 통화량을 1961년 말 보다 54억 8천만원이나 팽창하게 하였다.

통화의 팽창과 물가의 계속되는 폭등으로 남조선에서의 악성 인플레는 6월의 《통화 개혁》이후에도 계속 격화되여 군사 《정권》으로 하여금 더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엄중한 국면에 빠져들게 하였다.

이리하여 악성 인플레를 수습하고 《경제 안정》을 이룩한다던 군사 《정권》의 《경제 안정화 정책》은 완전한 실패로 돌아가고 물가는 군사 통치배의 무능을 비웃듯이 올라만 갔다.

물가 등귀 (1955년=100)

	총 지수	그 중					
		곡 물	곡물 이외의 전체 상품	생산재	소비재	수출 상품	수입 상품
1958	143.3	150.0	141.1	156.1	138.1	133.3	163.7
1959	146.7	131.4	151.6	173.9	135.1	151.8	189.6
1960	162.5	157.4	164.2	192.3	149.7	164.1	212.7
1961	192.3	195.3	191.2	231.4	174.8	184.6	280.9
1962	218.0	207.6	221.5	258.3	199.9	201.2	308.2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5월호.

상품별 도매 물가의 등귀 정형

	1961년 평균	1962년 평균	등락률 (%)	총 지수에 대한 기여률
총지수	192.3	218.0	13.4	13.4
식료품	188.2	222.5	18.2	7.5
연료, 전력	247.1	285.2	15.2	1.3
광산품	186.2	177.6	− 4.6	0.0
금속 제품 및 기계	200.8	210.0	4.6	0.3
건축 재료	212.4	271.0	27.6	1.7
섬유 및 섬유 제품	166.0	178.5	7.5	1.4
화학 제품	284.6	316.1	11.1	0.9
종이류	188.9	195.6	3.5	0.0
생고무, 고무 제품	158.8	150.2	− 5.4	0.2
잡품	166.7	182.9	9.7	0.5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2월호.

통화 및 화폐 발행고의 증대 (단위=백만원)

	통화량		화폐 발행고	
	액 수	1955=100	액 수	1955=100
1958	19 255	206	11 632	186
1959	20 990	224	13 217	212
1960	21 908	234	14 630	234
1961	31 224	334	18 063	289
1962	36 707	392	20 723	332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5호.

《원 조》

1962년에 남조선에 강요된 미국의 《원조》는 어느 해보다도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미끼로 리용되였으며 파렴치한 식민지 초과 리윤을 더욱 혹독하게 짜내기 위한 도구로 복무하였다.

1962년에 있어서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원조》는 1961년 2월에 체결된 예속적인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과 《군사 정변》 이후 군사 《정권》에 대한 처음으로 되는 《원조》이며 케네디 정부의 집권 후 최초의 해외 《원조》이다.

이러한 《원조》는 지금까지 미제 침략자들이 추진시켜 온 해외 《원조》에서의 새로운 정책 《전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제 침략자들은 자기들의 1962년 해외 《원조》 계획을 공포하면서 종래까지 《경제 원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던 《방위 지지 원조》를 대폭 축감하였으며 이에 의한 시설재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자들은 무상 《원조》이던 종래의 《잉여 농산물 원조》까지 그 모두를 《차관》으로 전화시킴으로써 《경제 원조》 중에서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을 1961년의 19%로부터 42%로 증대시켰다.

케네디의 집권을 계기로 이처럼 급격히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 《원조》 정책 집행 상의 변화는 발광적인 군비경쟁과 자본주의 시장 내에서의 제국주의 렬강 간의 치렬한 경쟁의 결과로 미제가 봉착하게 된 심각한 경제 위기와 그의 직접적 산물인 《딸라 위기》를 배경으로 발생한 미제의 전반적 해외 팽창 정책 상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보다 적은 딸라로써 보다 많은 리윤을 짜낼 것을 목적으로 남조선의 괴뢰들과 1961

년 2월에 체결한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의 략탈적 목적에도 《부합》되고 있다.

1962년에 미제는 1961년 수준과 거의 동일한 규모인 약 2억 8천만 딸라의 직접적 군사 원조와 그 전해의 1억 6천 5백만 딸라에서 7천 5백만 딸라나 감소된 《방위 지지 원조》(무상) 및 그 전해의 7천 6백만 딸라로부터 380만 딸라로 격감된 《잉여 농산물 원조》(차관)를 남조선에 할당하였다. 이와 함께 당초에 이자들은 《개발 증여》로 명칭이 바꾸어진 종래의 《기술 원조》(무상)를 그 전해의 650만딸라로부터 800만 딸라로 증액하였으며 부산 감천 화력 발전소 건설 자금으로 《개발 차관 기금》 2천 90만 딸라를 남조선에 할당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 배정된 당초 《원조》 총 규모는 1961년 당시의 5억 5천만 딸라보다 무려 1억 딸라가 격감된 4억 5천만 딸라였다.

미제는 《원조》를 대폭 축감시켜 놓고는 식민지적 지배를 종전처럼 유지해 보려고 《원조의 효률적 리용》이니 《수원국의 자립적 조치들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남조선에서 그들의 식민지적 수탈을 일층 악랄하게 강화하였다.

미제는 이미 장면 괴뢰 정권 시기에 《딜론 각서》로 강요한 환률의 인상 세금, 료금 등의 계속되는 대폭적인 인상으로도 부족하여 군사 파쑈 독재를 리용하여 1962년 중에 또다시 조세 체계를 간접세 중심으로 개편하는 《세제 개혁》을 단행케 하여 세금을 32%나 증대시켰으며 국제 시장 가격보다 15~20%나 더 비싼 미국 잉여 상품을 더 많이 강요함과 동시에 일부 《원조》 물자 가격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료, 원면, 원당, 설탕, 밀가루 등 중요 수입 물자들의 가격을 대폭 등귀케 하였다.

한편 이자들은 1961년에 2차에 걸쳐 강행한 환률 인상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남조선에서의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 국내산 물자 가격의 억제와 임금 동결을 강행함으로써 저임금, 저미'가에 의한 그들의 수탈을 강화하고 격화 일로에 있는 인플레의 부담을 남조선 인민 대중에게 들씌웠다.

또한 미제 침략자들은 《원조》 규모는 축감하면서도 남조선에서 현존 군사력의 유지를 위한 군사비의 지출을 더 많이 강요함으로써 엄청난 군사비의 중하를 남조선 인민들에게 들씌우는 한편 축감된 《원조》에 해당하는 자금을 일본 군국주의자들과의 결탁에 의해 《해결》하도록 남조선에 강요하였다.

《원조》를 미끼로 남조선에 강요되는 미제 침략자들의 이러한 《부대 조건》들과 파렴치한 수탈 책동은 남조선 인민들의 응당한 격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데 잡지 《신사조》 1963년 5월호에 투고한 남조선의 한 필자도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의 대한 원조는 그것이 미국의 리익에 일치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기대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은 점차 까다로운 조건 하에 규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그것은 원조 규모의 감소와 무상 공여로부터 차관으로의 전환과 같은 원조 형태의 배경으로 나타나는 외에 이와 같이 공여된 원조 자금의 사용면에서 더욱 까다로운 조건 즉 미국 상품 우선 구매 정책(바이 아메리칸 정책)의 강화, 대충 자금 사용면에서의 미측 발언권의 강화등을 결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케네디가 제시한 미 대외 원조와 관련한 교서의 6개 항목의 구체적인 적용을 뜻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미제 침략자들은 이처럼 《까다로운 부대 조건》이 붙은 《원조》마저 배정액대로 남조선에 주지 않음으로써 2억 5천만 딸라의 《경제 원조》 획득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였던 군사 《정권》에 일대 혼란을 주었으며 이자들의 재정 및 외화 위기를 일층 격화시켰다.

1962년 중에 남조선에 실지 도입된 《원조》의 구성 정형을 보면 1억 6천 2백만 딸라의 《미 국제 개발 원조》와 6천 7백만 딸라의 《잉여 농산물 원조》, 도합 2억 2,900만 딸라(직접적 군사 원조는 제외)로 되여있다. 《미 국제 개발 원조》는 그 내용에서 《방위 지지 원조》9 250만 딸라와 《재정 안정 기금》조로 2천만 딸라, 《개발 차관》조로 650만 딸라 및 1961년도 국제 협조처《원조》 자금에 의한 이월 도입액 4,270만 딸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1962년 중에 남조선에 도입된 《원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구분하여 보면 시설 사업비로는 불과 1,220만 딸라에 지나지 않으며 1억 4,510만 딸라에 달하는 압도적인 자금이 판매용 민수 물자 도입에 충당되였다. 그리고 남조선 경제에 대한 기술적 예속과 지배를 강화하는 데 충당된 《기술 협조 부문》에는 440만 딸라가 투하되였다.

이것을 1961년도 당시와 비교하여 보면 《시설 사업 부문》과 《기술 원조 부문》에 대한 자금 투하가 대폭 격감되고 있는 반면에 판매용 민수 물자의 비중이 현저히 증대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적 군사 원조를 제외하고 2억 2,900만 딸라에 달하는 《원조》 물자들의 수입은 남조선에서의 해외 물자 수입 총액(무역 및 외자 도입에 의한 물자 도입과 원조 도입액 포함) 4억 2천 8백만 딸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상업, 류통, 금융 부문 등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의 소득까지를 포함한 과장된 《국민 총 생산액》 중에서도 근 11%를 차지하고 있다.

미제는 이러한 《원조》를 리용하여 남조선 경제 명맥을 틀어쥐고 있으며 더욱 파렴치한 자기들의 식민지 략탈 정책을 남조선에 강요하였다.

1962년에 들어서면서 실천에 착수된 미제의 《원조》 정책의 전환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미국 《원조》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정체를 더욱 명백히 실증하여 주고 있으며 이들을 예속과 략탈을 반대 배격하는 투쟁에로 불러 일으키고 있다.

외국 독점 자본의 침투

1962년에 군사 《정권》은 외국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한 매국 책동을 그 어느때 보다도 강화하였다.

군사 《정권》은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아무런 밑천도 없이 《5개년 계획》을 만들어 놓고는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돈이건 서독, 이태리 같은 구주 제국의 돈이건…일본의 투자이건》 닥치는 대로 끌어 들일 것이라고 하면서 남조선 경제를 외국 독점 자본에 내맡기였다.

군사 파쑈 통치배들은 이미 1961년에 《외자 도입 촉진법》(8월)과 《관세법》 (11월)을 개악하여 외국 자본의 무제한한 투자와 외국 자본에 대한 8년 간의 세금 감면을 허용하였고 《외자 도입국》과 《외자 도입 안내소》를 설치하는 등 외국 자본이 마음대로 침투할 수 있도록 온갖 매국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새로운 예속 기구를 만들어 놓았다.

1962년 7월에는 외국 자본의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하기로 한 매국적인 《차관에 대한 지불 보증에 관한 법률안》을 조작하고 독점 재벌을 끌어 들이기 위한 법죄적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남조선 경제를 송두리채 외국 독점 자본에 내맡기려는 군사 파쑈 도당의 매국 배족적 행위는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더욱 로골적으로 표현되였는바 군사 파쑈 도당은 《국민의 비난이 있더라도 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 짓겠다고 서두르는 한편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을 고창하면서 《국교 정상화 전이라도 일본의 민간 자본을 받아 들일》것이라고 일본 재벌의 침투 의욕을 돋구어 줌과 함께 몇푼의 차관을 얻기에 급급하였다.

한편 외래 독점 자본들은 종래에 남조선의 극심한 사회 경제적 불안과 관련하여 남조선 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면서 주로 투자한 자본을 단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 분야에 침투하였었는데 군사 《정변》 이후에는 남조선 공업 부문에 직접 투하하는 방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남조선 시장 쟁탈을 위해 서로 유리한 투자 대상을 찾아 경쟁적으로 남조선에 기여 들고 있다. 특히는 《한일 회담의 조속한 타결》을 전제로 일제 재벌들의 남조선 침투 책동이 그 어느때 보다도 더욱 로골화하였다.

군사 파쑈 통치배들은 온갖 매국 흥정 노름을 벌려가면서 1962년 10월 현재까지에 외국 자본들과 도합 108건, 3억 1,623만 딸라에 달하는 투자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바 그중 미국은 33건에 8,450만 딸라, 서독은 25건에 9,213만 딸라, 일본은 39건에 9 308만 딸라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1962년 말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기로 《합의》를 본 것은 군사 《정권》의 《5개년 계획》에서 예견한 외자 도입액의 불과 1%인 98만 딸라(1건) 였다. 그러나 《차관 교섭》, 《착수금》, 《선불금》 등으로 군사 《정권》이 지불한 금액은 133만 6천 딸라로서 오히려 적자를 내였다. 이에 따라 외국 자본을 도입하여 그것을 유일한 밑천으로 하여 실시해 보려던 《5개년 계획》은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미국—미국 독점 회사들은 주로 남조선의 무역, 운수, 건설 부문에 침투하여 자국 정부의 침략적 《원조》 및 《차관》 자금에 의한 거래의 중개, 건설 청부, 물자 수송과 보험업 등을 통하여 남조선 인민들을 수탈하여 왔다.

그러나 케네디의 《후진국 개발》 정책이 강화되고 또 서독과 일본 독점들의 남조선에 대한 침투 공작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1962년도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남조선 침입 책동은 더욱 적극적이여서 남조선 공업 생산 부문에도 직접 투자하려하고 있다. 1962년 5월 에는 밴플리트를 단장으로 하고 부르녹스 회사(제철), 아모아 회사(비료), 코퍼스 회사 (제철), 웨스팅 하우스 전기 회사, 캠멕스 회사 (인견사), 스탠다드 회사 (제분, 식료), 파곤 스위저 회사 (팔프 제지), 미국 은행, 뉴욕 제 1 은행 등 17개의 대회사 및 은행 대표 28명으로 구성된 실업인단이 남조선에 기여 들었다.

그후 밴플리트는 7월 7일과 7월 30일의 2 차에 걸쳐 또다시 남조선에 드나들면서 울산의 종합 제철 공장, 팔프 공장 건설에 관하여 군사 《정권》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6일에는 부르녹스, 웨스팅 하우스, 코퍼스, 국제 투자 회사 등 대 독점체의 대표들이 또다시 남조선에 기여들어 종합 제철 공장에 대한 투자 조건들에 관하여 협의하고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민간 자본으로서 남조선에 투자하거나 차관을 제공하기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직 1건도 없으며 다만 미국 국가 자본인 《국제 개발처》(에이아이디) 차관과 그리고《국제 개발 협회》(아이디에이) 차관이 있을 뿐이다.

미국 독점들은 남조선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25%는 남조선 실업인들과 합작 투자하며 나머지 75%는 미국의 《국제 개발처》 차관에 의하여 충당할 것을 기본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괴뢰 《상공부》와 미국의 유, 오, 피, 회사 간에 외화 7만 5천 딸라에 달하는 《울산 정유 공장 예비 조사 기술 용역 계약》 체결(《경제 통신》 1962년 4월 3일).

▶《한국 전력 주식 회사》와 미국

아이 지 이 회사간에 부산 강천 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 (《동양 통신》 1962년 4월 10일). ▶《인터내슈널 제네랄》 전기 회사가 부산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2,500만 딸라의 계약 체결 (《에이 피》 1962년 5월 20일). ▶남조선의 민간 자본과 미국 민간 자본 간에 종합 제철, 피 브이 씨 비료, 벼'짚 팔프 공장 등에 관한 가 계약 체결 (《합동 통신》 1962년 5월 21일). ▶미국의 엘라이드 화학 회사가 남조선의 충주 비료 공장에 유효기간을 2년으로하고 기술 및 경영상의 《방조》를 제공하기로 한 계약을 군사《정권》 및 미 국무성의 국제 기구를 상대로 체결(《합동 통신》 1962년 6월 14일). ▶《한국 전력 주식 회사》와 공사 담당 회사인 미국 비른 회사 간에 마산 화력 발전소의 전기 집전기 시설 공사 계약 체결 (《서울 방송》 1962년 8월 8일). ▶《대한 항공 공사》와 미국인 피 떠블유 에이 회사 간에 국제 항공로에 대한 《협정》을 체결(《합동 통신》 1962년 9월 7일). ▶남조선의 《벼'짚 팔프 공업 주식 회사》와 미국의 파슨즈 앤드 휘모아 회사 간에 년간 1만 5천톤 규모의 벼'짚 팔프 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 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 (《동양 통신》 1962년 12월 13일).

일본—이미 오래전부터 남조선 재침 기회를 노려 오던 일본 독점 재벌은 미제의 사촉과 군사 《정권》의 친일 정책에 고무되여 《군사 정변》 이후 공공연히 남조선에 기여 들기 시작하였다.

그의 침투 대상은 남조선의 전력, 광업, 경공업, 수산업 등 거의 모든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침투 방향은 대체로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자국의 고정 자본 갱신과 관련하여 낡은 기계를 비싼 값으로 처분하여 남조선에 대한 자국 잉여 상품들의 판로를 확대하며 이를 토대로 하여 본격적인 자본 침투를 기도하고 있다.

둘째로 남조선 지하 자원 《개발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여 석탄, 철광, 중석, 석회석 등 중요 광물을 략탈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세째로 현재 폐쇄 또는 운휴중에 있는 남조선의 공장들에 자금을 투입하여 《합자 회사》라는 간판하에 그 경영권을 장악하고 자기들의 반제품을 가공케 하여 판매하며 《군납》 또는 재 수출하려는 《보세 가공 무역》의 형식으로 침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침투 계획에는 《미쯔이》, 《미쯔비시》, 《스미도모》, 《후루까와》, 《노무라》 등 일본의 대독점 재벌들과 그들의 련합체들인 《일본 경제 단체 련합회》, 《일본 상공 회의소》 등이 달라 붙고 있다.

군사 《정권》은 1962년에 종전의 《주장》마저 집어 치우고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에라도 민간 자본》을 끌어 들인다는 방침 밑에 《일본 상공 회의소》와 《일본 경제 단체 련합회》에 오대산 지구 《개발》을 《협력》해 줄 것을 애걸하고 《조사단》을 파견하도록 요청함과 함께 400 여 개의 남조선 유휴 기업체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관세법》을 개정하여 일본 독점 재벌들이 《보세 가공 무역》의 형태로 남조선에 적극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한편 일본 재벌들은 군사 《정권》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리용하여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 침략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적극적으로 날뛰였다.

1962년에 일본 독점 재벌의 《거물급》으로 구성된 《광공업 보세 가공 조사단》 (3월), 《제1차 경제 사절단》 (9월), 《제 2차 경제 사절단》 (12월)을 비롯하여 988 명이 경제적 침투를 위하여 남조선에 기여 들었다.

《제 1 차'경제 사절단》은 남조선의 일반적 정치, 경제 형편을 료해하며 특히는 《한일 회담》 타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데 중요 목적이 있었다면 《제 2차 사절단》은 《한일 회담》 타결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는 정세에 비추어 동 《회담》 타결 후 곧 본격적인 경제적 침투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적 타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닛산 자동차 회사는 남조선의 《새나라 자동차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고 자동차 부분품과 기술을 팔아 먹었으며 히다찌 제작소는 《한국 전력 주식 회사》와 련계를 맺고 《삼척 화력 발전소》확장 공사에 필요한 설비와 기술을 팔아 먹고 있다.

그리고 일본 통운 주식 회사 (일본의 화물 수송량의 85%를 점유)는 미국 《알. 이. 에이》 회사를 중개로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남조선의 미곡 창고 주식 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 하였다.

특히 미쯔이, 미쯔비시, 닛산 등 일본의 유명한 대 독점들은 남조선에 자기들의 대표자들을 주둔시킴으로써 사실상 이미 남조선에 발판을 잡고 있다.

물론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 조건에서 일본 독점들은 아직 투자나 차관에 의한 전면적인 침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대대적인 침입을 실현할 것을 기도하면서 그들은 현재 일본 당국의 남조선에 대한 약 3억 딸라의 소위 《배상》과 《무상 공여》와 3억 딸라의 차관 제공을 미끼로 오대산 지구와 《울산 공업 지구》 개발등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닛산 자동차 회사가 남조선의 자동차 조립 회사와 기술 및 자재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동양 통신》1962년 2월 13일). ▶남조선 《경성 방직 회사》가 일본 나고야의 한 공업 회사와 방직기 수입 계약 체결 (《에이 에프피》 1962년 2월 17일) ▶《한국 통산 공업 회사》와 일본의 후지 전기 회사 간에 《적산 전력계 제작에 관한 기술 원

조 계약》에 가조인 (《합동 통신》 1962년 4월 24일). ▶일본의 《닛산 고교 신붕》은 일본 닛산 자동차 회사가 남조선에《불루버드》(푸른새) 세단형 자동차 400대를 출하하였다고 발표(《에이 에프 피》1962년 5월4일). ▶일본의 《이와다미 산업 회사》와 남조선의 《가스 산업 회사》 간에 약 2억 5천 만원에 달하는 액화 석유 가스 저장 시설을 남조선에 수출할 데 대한 계약 체결(《로이터》 1962년 5월 7일). ▶일본 미쯔비시 상사와 남조선의 《대교 주식 회사》 간에 세타, 목도리의 보세 가공 계약 체결(《동양 통신》 1962년 5월 20일). ▶ 《한국 전력 회사》와 일본 오사까《후지 차량 회사》 간에 남조선 철광석과 일본 전차 80대를 바타 무역할 데 대한 계약 체결(《동양 통신》 1962년 8월 7일). ▶일본의 미쯔비시 중공업 회사와 미쯔비시 전기 회사가 86만 1천 딸라 분의 수력 발전 시설을 남조선에 수출할 데 대한 계약 체결(《데페아》 1962년 10월 11일). ▶군사《정권》의 《건설부》와 일본 《공영 회사》간의 설계 용역 계약에 의하여 《소양강 땜》건설 실시(《동양 통신》1962년 11월 14일).

서독 —서독 사자본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남조선에 대한 건설 청부, 상품 및 기술의 판매 등의 형태로 침투하였으나 《군사 정변》 후에는 남조선에 대한 시장 확대와 직접적인 투자 특히는 남조선 지하 자원 략탈에 적극적인 진출을 기도하고 있다.

서독의 독점들도 《울산 공업 지구》의 종합 제철, 비료 공장 건설 등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대한 중공업의 평로 건설과 라주 비료 공장 건설을 청부하여 이미 남조선에 일정한 발판을 가지고 있는 서독의 대 독점들은 1961년말 서독을 방문한 군사 《정권》의 《정부 경제 시찰단》과 울산의《종합 제철 공장》과 《제 3 비료 공장 건설》에 투자할 데 대하여 일정한 합의(가계약 체결)를 보았으며 동 공장 건설 자금으로서 우선 7,500만 마르크(1,875만 딸라)의 차관을 제공할 데 대하여도 구체적인 약속을 하였다.

이러한 약속과 동시에 1962년 1월 서독 독점들은 남조선에 대한 집단적인 침투를 위하여 《씨멘스》, 《루무기》, 《데마그》, 《크루프》등 10개의 대독점 회사들로써 《투자 협동체》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미국 독점체들이 1962년 5월 남조선 측과 울산의 중요 공장 건설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서 서독 독점들의 울산 지구 투자 계획은 일단 좌절되게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국 독점들이 투자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에는《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투자에 참가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서독측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 독점 자본의 침투 책동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당초에 약속한 1억 5천만 마르크(서독 정부 재정 차관 7천 500만 마르크, 투자 협동체의 상업 차관 7,500만 마르크) 대신에 2억 마르크를 투자할 것이라고 남조선 측에 제기하였으며 1962년 12월에는 《경제 고문단》을 남조선에 주둔시키고 경제적 침투 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케 하고 있다.

◇ 남조선과 서독 상사간에 전기 기기 및 통신 기재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한 민간 차관 계약 조인(《동양 통신》 1962년 2월 21일). ▶《최고 회의》에서 남조선과 서부 독일 간에 《경제 및 기술 협조 의정서》를 사후 승인하고 이에 따르는 《독일인 탄광 기술자 대우에 관한 협정을 승인》(《합동 통신》 1962년 3월 2일). ▶ 남조선의 《대한 양회》, 《동양 세멘트》, 《극동 해운》, 《대한 산업》, 《전주 방직》 등으로 구성된 《투자 공동체》와 서독의 데마크 회사, 쿠르프 회사, 지에취 에취 회사 간에 《종합 제철 공장 건설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 (《합동 통신》 1962년 4월 10일). ▶남조선의 《중앙 제분 공급 회사》와 서독 상사 《미아그》 간에 528만 딸라의 차관 계약 체결(《에이 에프 피》 1962년 4월 28일). ▶ 서울시내 방직 공장들과 서독의 콘타노카르사 회사 간에 30만 마르크 분의 방직 기계 및 가공기의 도입 계약 체결(《경제 통신》 1962년 5월 29일).

기타 나라—영국의 리스론드 혼스비 주식 회사 산하 린컨 엔징 회사가 남조선에 근 50만 영 파운드의 디젤 엔징 공급 계약 체결 (《에이 에프 피》 1962년 2월 14일). ▶ 서서의 《아스베스로스 세멘트 엔지니어링사》와 남조선의 《고려 석면 고무 공업사》간에 민간 차관 계약 체결(차관액 48만 3,080딸라, 년리 7%로 1968년까지 6년간에 균등 분할 상환 (《합동 통신》 1962년 3월 10일). ▶ 남조선 《심양사》 대표와 서서 쮸리히시에 있는 《엣세르브스 회사》 도꾜 지점장 간에 23만 딸라의 차관 도입 계약 체결 (《합동 통신》 1962년 4월 20일).

무 역

1962년도부터 반동적인 《5개년 계획》 실행의 길에 들어선 군사 통치배들은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외화 자원을 획득할 방책의 하나로서 수출을 대폭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보다 파쑈적이며 예속적인 무역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1962년도의 수출 목표액을 전년도 실적 보다 약 50%나 많은 6,590만 딸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여 보려고 우선 이해 3월 5일에 《수출 진흥법》이라는 것을 조작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군사 《정권》은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는 무역업자에 한하여 일정한 비률에 의한 수입을 허용하는 이른바 《수출 링크제》

를 강행하였으며 약 70억 환의 《수출 장려 보조금》을 일부 예속 무역업자들에게 집중 공급하였다.

6월 21일에는 《대한 무역 진흥 공사》를 설립하여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시장 조사 개척 및 수출입 거래의 알선역을 담당》케 하였으며 외국에 《무역 상무관》을 주재시키며 구라파 지역에 소위 《통상 사절단》도 파견하였다.

한편 그들은 일제와의 무역 확장에 광분하면서 일제의 요구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도 심히 부족되는 쌀을 약 6만 톤이나 헐값으로 기아 수출하는 배족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나 군사 통치배들의 이러한 기도는 남조선 대외 무역을 한낱 자국 잉여 상품 판매를 위한 공간으로 삼고 예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남조선 수출 산업 자체의 취약성, 그리고 중소 무역업자들의 파산 등으로 말미암아 여지 없이 파탄되였다. 즉 년간 6,590만 딸라의 수출을 실현하려던 당초의 목표는 17%나 미달한 5,481만 딸라에 그쳤고 반면에 수입은 전년도 보다 31%나 더 많은 4억 1,523만 딸라로 급격히 늘어났다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7호).

이 해 무역 결손은 전년도의 2억 7,526만 딸라로부터 3억 6,042만 딸라로 격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군사 《정권》의 외화 보유액은 년말 현재 약 4천만 딸라나 대폭 축감되였다 (자료 상기와 같음).

이로써 《5개년 계획》을 위한 《수출 진흥》과 외화 수입 증대를 실현하려던 군사 《정권》의 당초의 기도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남조선 대외 무역 구성에서의 예속적이며 편파적인 성격만이 더욱 강화되였다.

【남조선 대외 무역의 식민지 예속성의 심화】 1962년도 남조선 수입 총액 4억 1,728만 딸라 중에서 미제의 《원조》 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1.4%에 달하였다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3년 7호). 이것은 남조선의 대외 무역이 미제의 완전한 종속물로 되여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상품 구성에서 볼 때 그의 약 90%라는 압도적 부분이 농산물과 수산물, 광산물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해의 쌀, 팥, 과일 등과 각종 어물, 생돼지 등의 수출량은 전해의 2.4배, 그중 쌀은 약 20배에 달하였다(자료 상기와 같음).

수입 상품 중 압도적인 비중(약 80%)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을 위시한 일본, 서독 등지의 잉여 소비재와 원자재들이고 기계 및 운반용 기기류는 16%에 불과하다 (자료 상기와 같음). 이것도 주로 군수용 기자재들인 제신, 운수용 기계 및 기구들과 전기 시설 용품류, 기계 부속품 등이다. 남조선 대외 무역의 식민지적 예속성은 수출입 대상국 별 분포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1962년도 남조선 수출 총액에서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64.6%, 수입에서는 77.7%였다. 또한 대상국 별 수출에서 제 1위는 일본이며 ,수입에서의 제 1위는 미국이였다.

특히 무역을 통한 일본 독점 자본의 진출이 현저히 강화되여 남조선 무역의 예속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1962년도 남조선 대외 무역에서 일본에로의 수출은 1959년에 비하여 1.8배로 증대한 반면에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은 3.3배로 급속히 증대하였다. 이해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액은 수출액의 실로 4.5배에 달하였다.

일본과의 수출입 정형 (단위=천딸라)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	%	일본에 대한 수출	%
1959	32 372	100	12680	100
1961	69 212	214	19397	153
1962	109 171	337	24483	185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1년 6호 및 1963년 7호.

또한 군사 《정권》은 일부 예속적 무역 업자들을 시켜 일본, 미국과의 소위 《보세 가공 무역》을 개시케 하고 일본 보다 3분의 2나 눅은 남조선 로동력으로 외래 원자재를 가공 제품화하여 이것을 재 수출 또는 남조선 시장 내에 범람시켰으며 《구상 무역》(물물 교역의 뜻)이니 《연불제》니 하는 명목 하에 일본으로부터 화학 비료 등의 잉여 상품을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대신 남조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등을 시가에도 훨씬 미달하는 헐값으로 일본에 반출하였다.

【중소 무역업의 파탄과 밀무역의 성행】 군사 《정권》의 《수출 진흥법》에 의한 《수출 링크제》의 전면적 적용과 《무역법 시행령》의 개악에 의한 업자 자격 기준의 강화 그리고 수출 상품의 고갈과 수출 가격의 저렴 등 가중하는 악조건 하에서 자본 토대가 취약한 일반 중소 무역업자들은 대량적으로 파산 몰락하였다.

남조선 출판물들이 전한 극히 단편적인 자료를 집계한 바에 의하더라도 군사 《정변》 이후 1962년 10월 말까지의 기간에 군사 《정권》으로부터 소위 《무실적 업자》로 락인되여 무역권을 박탈당한 업자 수는 최소한 374개에 달하였다.

겨우 강제 《정비》를 면한 업자들도 극도의 수지 파탄에 빠졌다. 례하면 남조선의 수산물 수출업자들은 1962년에 《삼치 홍어》로 그의 구입 가격이 앙등하고 있는데 반하여 유일한 수출 대상인 일본 상사들이 가격을 고의적으로 떨군 결과 《한번 수출하는데 30만원 씩의 결손을 내

고 있다》.

그러나 업자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수출 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무실적 업자로 되여》 무역권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출혈 수출을 하였다》(《산업 경제 신문》 1962년 11월 2일).

특히 이 해 6월에 군사 통치배들이 강행한 략탈적인 《통화 개혁》으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운영 자금을 일시에 《동결》 당한 남조선의 무역업자들은 물자의 《선적, 통관, 수송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그들의 무역 행위는 《한때 전면적 마비 상태》에 빠졌었다(《동양 통신》 1962년 6월 11일).

다른 한편으로 남조선에서 날로 심화되는 정치 경제적 위기의 심화와 중소 무역업자들의 대량적 파산 등 제반 요인으로부터 산생되는 무역 질서의 혼란상을 반영하여 밀 무역 행위가 이 해에 들어와서 더욱 성행하였다.

밀 무역의 증대 정형

년도	건수(건)	인원수(명)	금 액 (백만원)
1960	1 691	2 337	136
1961	8 091	8 679	…
1962	16 665	17 359	219

주; 《군사 정권》 각 《세관》등에 직접 검거 된 것에 한한다.

자료 출처; 남조선 《동화 통신》 1963년 1월 12일.

군 사

1962년에 남조선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 책동은 케네디의 《신 전략》에 립각하여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는 아세아에서 저들의 식민지 체계가 급속히 붕괴되자 이 지역에서 《반공 국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극동 전략 체계를 《신 전략 구상》에 적응하게 재편성하여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국부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광분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남조선은 미제의 대 아세아 《정책》에서 첫째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61년 11월에 있은 《하꼬네 회담》(더스크—이께다 회담)에서 미 국무장관 러스크는 《솔직히 말해서 아세아에서 중심 문제는 한국 문제이다. 이것은 미국의 대 아세아 정책의 큰 과제로되여 있다. …한국에서 주저 앉는 것은 미국의 위신에도 관련된다》고 지껄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부터 출발하여 미제는 남조선 강점 미군과 괴뢰군들을 《전면 전쟁》 뿐만 아니라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에 적응한 체계로 병력과 장비를 강화하여 《게리라 작전》을 비롯한 대규모적 군사 소동을 쉴사이 없이 벌리는 등 새 전쟁 도발 준비에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미 강점군과 괴뢰군의 병력 및 장비 증강

【병력 증강】 1962년 4월 11일 남조선에 기여든 미 륙군 장관 스타는 현 미 행정부의 국방 정책이 남조선 괴뢰 《륙군의 게리라전에 크게 치중하게 되였다》고 떠들었으며(《부산 일보》 1962년 4월 12일), 태평양 지구 미국 대잠수함 전대 사령관 데체(해군 중장)란 자는 《한국에서 국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합동 통신》 1962년 6월 2일 에이피) 남조선 강점 미군 부대를 특별히 훈련된 부대들로 증강하여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미제는 남조선 강점 미군을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 체계로 개편 강화하는 한편 《군사 정변》 이후에 미국 본토로부터 《특수전 훈련》을 받은 4개의 전투단들을 끌어들여 군사 분계선 린접 지대에 배치하였으며 미군의 게리라 훈련소 소장이였던 우톤(소장)을 남조선 주둔 미 군사 고문 단장으로 임명하였다.

1962년 7월 12일과 24일에는 남조선 강점 《유엔군》 소속 타이 및 토이기 부대들을 새로 훈련된 부대들로 교체 보강하였다(《합동 통신》 1962년 7월 12일, 《동양 통신》 1962년 7월 24일).

이와 함께 괴뢰군의 유생 력량도 새로운 전략적 요구에 적응하게 개편 강화하고 있다. 미제와 괴뢰 도당은 현 상비군 수준을 계속 유지 강화하면서 새 전쟁 도발에 요구되는 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62년에만해도 30만의 남조선 청장년들을 징집할 것을 예견하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을 항시적인 군사적 동원 체계에 얽어매 놓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그 대책의 하나로 9월 12일 《병역법》을 개악하였는바 개악된 《병역법》에 의하면 종전의 재학생을 포함한 일부 징병 대상자들에 대하여 실시하던 현역 단기 복무제를 폐지하고 새로 《보충역》이라는 병역제를 신설하여 병역 의무 년한을 5년간 더 연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병무 행정을 《내무부》로부터 《국방부》로 이관하였으며 징병에 응하지 않거나 현역에 복무하지 않는 징병 대상자들로부터는 《과태료》와 《병역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자를 방지하고 현역병을 언제든지 최대한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군사 파쑈 도당은 병역 원천을 다량적으로 확보하며 전투시 예비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 의무자 특별 조치 법안》을 작성하여 18세에 해당 한 청년은 물론 종전까지 《징집 유예》로 되고 있던 《병종》에 해당하는 불구자들까지 강제로 입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합동 통신》 1962년 9월 10일).

한편 군사 《정권》은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벌벌 백제》의 방침 밑에 《군, 경, 검 합동 수사

반》까지 동원하여 병역 기피자들을 색출하기에 미쳐 날뛰였다.

그러하여 《군사 정변》이후 1962년말까지 1년 7개월 간에만도 무려 40 여 만명에 달하는 청장년들을 괴뢰군에 강제 징집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1년 12월 27일에 공포한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기초하여 괴뢰군 창설 이후 제대된 180 여만명의 예비역 군인들에 대한 재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역종의 재 평가, 거주지 확인 등을 통해 상비 병력으로 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조사 사업을 전반적으로 진행하였다.

【장비 증강】 1962년도에 미제는 《신 방위 계획》에 근거하여 남조선 강점 미군과 괴뢰군의 지상군에 중점을 두고 핵 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들과 《게리라 전》에 필요한 장비를 더욱 정비 보강하였다 (《부산 일보》 1962년 4월 12일).

1962년도 《업적》 이라고 하여 《유엔군 사령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제는 신형 엠 88형 수선차와 엠 47, 엠 48형 중 땅크 및 대전차 유도탄들을 비롯하여 두 종류의 신형 《헤리 콥터》, 《싸이드 와인더》를 장치한 제트 전투기, 핵탄두 발사를 위한 새로운 유도 무기 《라크로스》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체 미군 전투원들을 신형 저격 무기로 무장시키고 전투용 짚차의 70% 이상을 신형으로 교체하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소위 《신 작전》을 운운하면서 괴뢰군에 대하여도 《싸이드 와인더》를 비롯한 일부 전술적 유도 무기를 공급하였다.

미제의 사촉하에 군사 파쑈 도당은 장비의 《현대화》를 운운하면서 장비 증강 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1962년도 《국방비》는 1,963억 환에 달하였는바 이는 1961년도에 비해 307억환이 증가된 것이다.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이러한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 중전차, 대포 등 괴뢰 륙군의 화력 기재를 새로 보충하였으며 약 2만대의 륙군 가소링 엔징 자동차들을 일본제 디젤 엔징 자동차로 교체하였다.

괴뢰 해군에서는 1962년 2월 2일 군함 《도봉호》 1척을 포함하여 3월 28일과 4월 6일에 4척의 상륙용 주정을 비롯한 6척의 전투함과 현대적 장비를 갖춘 함선들을 다량 도입하였으며 (《동양 통신》 1962년 2월 16일, 4월 16일, 《동화 통신》 5월 14일) 괴뢰 공군에서는《싸이드 와인더》를 장치한 최신 전투기, 고도의 성능을 가진 초음속 제트 전투기 《에프—100》을 비롯한 신형 비행기들을 도입하였다.

6월 12일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한미 호상 방위 조약》에 관한 1961년도 《년례 보고서》에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원조는 한국군에 대한 전천후(全天候) 전투기, 공중대 공중 유도탄, 최신형 전차 및 보다 우수한 함선》 등을 공급하는데 돌려졌다고 떠 벌리였다 (《동아 일보》1962년 6월 13일).

미제와 괴뢰 도당의 군사 기지화 책동

1962년도 남조선에서 미제의 군사 기지화 책동은 비행기, 땅크, 자동차 등의 수리 정비를 직접 남조선에서 할 수 있도록 보수 기지들을 확장하며 군 보급 기지들을 신설하고 전후방의 수송로들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였다.

미제는《군사 정변》후 남조선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 미 8군에 대한 병참 지원 태세를 강화할 목적》밑에 제 7 병참 사령부를 서울로 부터 왜관—대구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1962년도에는 해외 군사 기지 건설비의 25%를 남조선에 배정하여 군사 기지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미제는 부산—대구—대전을 련결하는 보급 거점를 형성하기 위하여 왜관 지역에 미군 《보급창》을 건설하고 있으며 1962년 10월부터 1964년 10월 까지의 계획으로 전라남도 광수 지역에 최신 제트 전투기 및 수송기 리착륙용 비행장(케이—57)을 건설하고 있다.

한편 군수 공장들도 계속 신설 확장하였는바 5월 29일에는 《항공기의 재생, 보관, 정비 등을 자체로 할 수 있》는 대구 《항공창》 건설을 완공하였고 대전과 부산, 거제에 있는 조병창, 통신기 지창 등 군수 공장들을 새로 확장 보충하였다.

미제의 사촉하에 군사 《정권》은 《국토 건설단》이란 것을 조작하여 서울—춘천간 (76키로메터), 춘천—홍천간(40여키로메터), 군용 도로 포장및 확장 공사를 비롯하여 괴뢰군 제 1군 산하 전방지대에서만도 198 키로메터에 달하는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진행하였다. (《합동 통신》 1962년 2월 10일).

긴장 상태 격화와 도발적인 군사 연습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남조선에서 전쟁 도발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항시적으로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긴장 상태를 격화시킴으로써 남조선에 조성된 정치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을 은페하며 격화된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 기세를 억누르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1962년 한해 동안에 이전 미 합동 본부 의장 렘니쩌, 미 륙군 장관 스타, 미국 대통령 특별 고문(현 미 합동 본부 의장) 테일러를 비롯한 수급 호전광들을 50 여 차나 남조선에 파견하여 전후방의 군사 시설과 진지들을 《시찰》하고 《공산주의 남침》과 《한국의 안전》을 지껄여대면서 남조선에서 새 전쟁 준비를 갖추며 전쟁 분위기를 돋우게 하였다.

상전의 이러한 소동에 발맞추

어 박 정희 일당 역시 《공산주의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무기와 힘》(《동양 통신》 1962년 11월 7일)이라고 떠들어 대면서 전연과 후방에서 전쟁 동원 상태를 유지하기에 광분하였다. 6월 26일에는 《국가 비상 대책 위원회》를 열고 《일단 유사시 취해야 할 사태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전쟁을 도발하는 경우 군사 분계선 린접 지대인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 철수 계획을 세우기까지 하였다.

또한 미 8 군 사령관 멜로이는 7월 12일 소위 《한 미 고위 지휘관 회의》를 열고 《군사 정세의 진전 상황을 검토》한 후 남조선 주둔 미군과 괴뢰군의 전 부대들에 비상 대기 명령을, 10월 23일에는 큐바 혁명을 교살할 목적으로 감행한 케네디의 《국가 긴급 비상 사태 선포》와 때를 같이하여 남조선 강점 《유엔군》에 《모든 사태에 대비할 완전한 태세를 갖추도록 비상 경계 태세》를 명령하는 등 긴장 상태 격화를 위한 소동을 계속 벌렸다(《합동 통신》 1962년 10월 23일).

또한 미제는 대규모적인 훈련만도 이해에 50 여차나 감행함으로써 미군과 괴뢰군의 전쟁 동원 상태를 유지하며 남조선 인민들 속에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획책하였다.

미제는 1월 12일과 15일, 2월 15일에 군사 분계선과 동해안 일대에서 《북진》을 가상한 도발적인 전연 돌파 작전, 상륙 작전, 해상 보급 작전 훈련을 감행하였으며 2월 5일부터 8일까지에는 미 제 1 군단장 해리스 (중장)의 지휘하에 미군과 괴뢰군 및 타이, 토이기 고용병 등 도합 7만 5천명의 병력과 각종 장비들을 끌어내여 《최대 규모》의 《동기 작전 훈련》 (우박 2호) 을 벌리였다(《유 피 아이 통신》 1962년 2월 5일). 10월 27일에는 태평양 지구 미 제 7함대 소속의 대잠수함까지 끌고 들어와 남해안 일대에서 《대잠수함 연습 작전 훈련》을 벌렸으며 26일에는 남한강 중류의 광범한 지구에서 6만 여 명의 병력과 《유도탄 사령부》, 미군 제트기 편대 등 90 여 개의 부대들이 참가한 《제 1 야전군 추계 대기동 훈련》을 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제와 괴뢰 도당은 《전투 훈련 검열》이니, 《전투 효능 측정》이니 하면서 각종 신형 장비들과 유도 무기들을 끌어 내여 《로케트 시험 발사 연습》과 《화, 생, 방 시범 훈련》, 《대규모의 보, 전, 포, 공 훈련》등 실탄 사격 훈련을 전례 없이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특히 미제는 케네디의 민족 해방 투쟁 압살 정책에 따라 남조선에서 《특수 훈련》을 더욱 강화하였는바 4월 28일에는 서부 전선 일대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 기간에는 경상남도 동래군 지구에서 《북으로 부터의 게리라 부대의 남침》을 가상한 《게리라 소탕 훈련》과 《가상적 침입에 대한 소규모 전투 훈련》을 자행한 것을 비롯하여 도처에서 《반게리라 훈련》을 감행하였다.

괴뢰군 장병들의 동향

【사병들 속에서의 불평 불만의 증대】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새 전쟁 도발 책동과 《내핍》을 구실로 한 략탈 행위로 말미암아 괴뢰군의 최하층으로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병사 대중은 《군사 정변》 이후에 더욱 심한 궁핍과 고역, 중세기적 폭압과 무권리 상태에 처하게 되였다.

사병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각종 훈련과 진지 공사, 군용 도로 공사 등 힘든 일에 혹사당하고 있다. 또한 병사들 속에서는 무단 외출, 근무태만 등 심한 무규률 상태가 조성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외국 출판물까지도 《일시 잠잠했던 군인들의 탈선 행위는 쿠데타 정권 출현 이래 급자기 빈번하게되여 최근에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은 자기들의 처지와 부모 처자들의 생활이 극도로 악화된데 불만을 품고 있다. 또한 괴뢰 군대 내에서 《중앙 정보부》와 《방첩대》 등 폭압 기구의 활동이 강화되고 《군 형법》, 《군법 회의법》을 비롯한 모든 악법들이 더욱 개악되였으며 《상관》의 《기합》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사병들은 《철창 없는 감옥 살이》를 하고 있다.

장기간 울적되여 온 병사들의 불만은 남반부 인민들의 반미 반정부적 투쟁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더욱 증대되고 있는바 그들의 불만은 상관에 대한 반항, 보복, 도피, 군사 파쑈 정권에 대한 불신, 공화국 북반부에대한 동경과 지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병사들은 《지옥과 같은 국군살이 하루가 10년 같다》, 《우리는 사병(士兵)이 아니라 죽을사자 사병(死兵)이다》라고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치욕스러운 국군살이에서 벗어 나려 하고 있으며 근래에 와서는 집단적인 도주 사건까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리하여 1963년 1월 31일 괴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데 의하더라도 괴뢰군 내에서 도망병은 약 6만명에 달하고 있는바 이 수자는 괴뢰군 4개 사단의 병력 수에 해당한다.

《군사 정권 덕분에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혁명을 이렇게 한번만 더 하다가는 우리만 죽겠다》고 하면서 《박 정희 정치는 왜정말 정치와 같은 악정》이라고 군사 《정권》에 대한 반감을 공공연히 표시하고 있다.

괴뢰군 내에서 미군에 대한 반감도 일층 표면화되였다. 괴뢰군 하급 장교들과 병사들은 미 《고문》이 《시찰》 또는 《검열》하려 오면 《양키놈들이 또 무엇을 얻어 먹으려 오는가》고 하면서 랭대하고 있으며 미군들의 오만 무례한 행동에 대하여 증오하고 있다.

1962년 10월 8일 경기도 파주에서 《간첩 침투 방지 훈련》을 지휘하고 있던 미 제 1기갑 사단

소속 《장교》 한놈을 괴뢰군 순찰병이 총으로 쏘아 죽인 사실까지 있었다.

괴뢰군 사병들 속에서는 썩어버린 남조선 사회 제도에 대한 환멸을 느끼며 날로 번영하는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동경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사병들 속에서는 《박 정희 정권은 망하고 북에 의해서만 통일 된다》, 《못 살 곳은 남한이다》, 《월북해야 살'길이 열린다》고 하면서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기회만 있으면 공화국 북반부에로의 의거를 기도하고 있는바 1962년도에도 수십건의 월북 기도 사건이 있었다.

【장교들 속에서의 불만과 동요의 증대】 괴뢰군 하급 장교들은 박 정희 도당의 대대적인 숙청과 삼엄한 감시 조직, 사병들의 압력 등에 봉착하여 심히 불안 동요하고 있다. 이들 대다수는 《군대에 있어야 밑에 주지도 않고 발전할 길도 없다》고 하면서 제대를 요구하며 군무에 태만하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또한 일부 하층 장교들은 울분에 찬 사병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 하고 있으며 전투 훈련시에도 상부의 불의 검열에 대비하여 보초까지 세워 놓고 휴식시키는 등 되도록 부하● 사병들에게 잘 보이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대내에서 《중앙 정보부》와 《방첩대》의 전횡이 강화되고 군사 통치 집단 내에서 실권 쟁탈을 위한 추잡한 파벌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장교들 특히 젊은 장교들 속에서는 박 정희 도당을《추잡한 놈》들이라고 증오하며 반대하는 기세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외국 출판물까지도 《제 1 선의 장병 특히 대위급을 정점으로 하는》 자들의 반 《정부》및 반 관료적 감정은 《확실》하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론평하였다 (일본 잡지 《자유》 1962년 7월호).

사 회

《군사 정변》 후 더욱 악랄하여진 미제의 식민지 략탈 정책과 군사 《정권》의 파쑈 테로 통치로 말미암은 경제적 파탄으로 1962년에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남조선 각 계층 인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빈궁 속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극심한 정치적 및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반영하여 사회적 부패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과 왜풍의 만연 등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과 미풍 량속은 여지 없이 유린 말살되고 있다.

군사 《정권》은 《부패와 구악의 일소》니 《민생고의 해결》이니 《새로운 문화의 창조》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 댔다. 그러나 1962년에 남조선에서 《부패와 구악》은 일소 되기는 고사하고 더욱 격증되였다. 기아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 많은 인명이 쓰러졌으며 녀성들이 상품으로 매매되는 참을 수 없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사기 협잡과 매관 매직이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으며 각종 범죄와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깡패들과 살인 강도들이 백주에 네 활개를 치면서 횡행하고 있다. 글자 그대로 남조선은 암흑의 천지로,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의 《서울 기독교 방송》 (1962년 2월 7일) 까지도 오늘의 남조선을 가리켜 《말세상, 그것도 모든 정의와 모든 법률이 거꾸러 서고 짓밟혀 버린 소름끼치는 세상》으로, 《도적의 발호에 떠는 불안한 지대로》 화하였다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로동자】 군사 파쑈 도당은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할 목적으로 《군사 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19일에 《경제의 침체 회복에 관한 특별 성명》으로써 로동자들의 로임을 1961년 5월 15일 수준으로 동결시켰다. 뒤'이어 1961년 9월 1일과 22일에는 《정부 관리 기업체 직원 보수 통제에 관한 특별 조치법》과 그 《시행령》을 조작 공포하여 《국영 기업체》 로동자들의 임금을 10~30%나 삭감함으로써 기타 기업체들에서도 전반적으로 로임을 삭감하도록 강요하였다. 이리하여 광업 부문과 제조 부문 로동자들의 임금은 1961년 말에 비하여 1962년 2월에 와서는 12%나 저하되였다. 1962년 10월 현재 1960년에 비하여 물가가 38%, 집세가 20~30%나 등귀한 것을 고려한다면 실질 임금은 《군사 정변》 이후 급격한 저하를 가져왔다. 특히 녀성 로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잘것 없는 남성 로동자의 로동 임금에 비해서 절반도 못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1962년 건설 부문 녀성 로동자들은 남성 로동자의 40%, 로공 녀성 로동자들은 남성 로동자의 35% 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기아 임금 마저도 제대로 지불해 주지 않고 있으며 체불 현상은 만성화되여 가고 있다. 군사 《정권》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의 《한국 전력 주식 회사》, 《삼화 제철》 등 19개의 대 기업체에서 체불한 6개월간의 로임만도 6천만 원에 달하며 (《국제 신보 지사》 1962년 12월 1일) 《운수 로조》산하에서는 1961년 10월부터 1962년 1월까지 기간에 10억 8천 여만 원에 달하는 로임을 체불하였다. (《조선일보》 1962년 2월 25일).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은 《경영 합리화》를 운운 하면서 로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한편 현역 괴뢰군 장교들을 기업체 《관리자》로 배치하고 《근로 기준법》을 더욱 개악하여 로동자들을 군사적 로동 관리 체계하에 얽어매 놓았다. 이리하여 로동자들은 인간으로서는 감수하기 힘든 가혹한 로동

조건 하에서 로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로동자들은 하루에 보통 12~18시간의 작업을 강요 당하고 있는데 경공업 부문 로동자들은 18~19시간, 자동차 운수 로동자들은 12~18시간, 토공 로동자들은 12~13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으며 뻐스 차장들은 《새벽 4시에 차를 타면 밤 12시까지 20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산업 경제 신문》1962년 9월 10일).

로동자들은 작업 시간내에 휴식 시간이란 전혀 없고 심지어 점심 시간 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 《낮에 먹는 아침이나 저녁에 먹는 점심도 3~4분 내에 후닥닥 먹어야 하는 바쁘고 고달픈 생활》을 그날 그날 되풀이 하고 있다.

로동자들의 혹사와 로동 안전 시설의 불비로 인하여 로동 재해와 로동자들의 질병은 《군사 정변》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1961년 9월~1962년 8월까지의 1년간에 발생한 로동 재해 건수는 그 전년 동기 보다 3,783건이나 많은 1만 2,067건에 달하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3명, 부상자수는 1만 3,917명이나 되였다(《한국 일보》1963년 2월 1일).

1962년에 질병자 수도 전년에 비해 50%나 증대되였으며 리병률은 1960년의 20%로 부터 1962년에 30%로 증가하였다 (《한국 일보》 1963년 1월 30일).

【농민】 군사 《정권》은 1962년도에 소위《중농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농민들에 대한 략탈 정책을 강행해 나섰다. 《농지세》는 이해에 1960년에 비해 115%로 증대시켰으며 현물 수탈은 전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520여만 석을 생산비 보다 40%나 낮은 가격으로 강탈하는 외에 협상 가격에 의한 농민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1962년에 호당 경지 면적은 1960년에 비해 0.02정보, 1945년에 비해 0.23정보가 감소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정변》후 농토는 심히 파괴되여 복구 개량을 요하는 면적은 전 경지 면적의 65%에 달하는 130여만 정보로 확대 되였다.

게다가 거듭되는 수재와 한재로 매해 수십만 정보의 농경지가 재해를 입고 있다.

1962년에 수재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30~50억원, 한발로 인한 량곡 감수량은 200만 석 이상에 달하였다.

1962년에 남조선 알곡 총 생산은 전년에 비해 근 30%나 감소되였다.

농업 수입도 1962년 한해 동안에 20%나 격감되였다. 따라서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농호 수는 총 농가 호수의 93.5%로부터 93.7%로 증대되였다. 농민들의 소비수준도 1961년 (1~9월간 평균)에 비하여 1962년의 같은 기간에는 7.7%가 감소되였다.

더우기나 남조선에 특유한 각종 형태의 소작 제도에 의한 봉건적 착취가 성행되고 있다.

해마다 가중되여 가는 군사 봉건 지배층들의 략탈과 농업 생산의 감퇴에다가 1962년에는 《50년래의 대흉작》까지 겪어 군사 《정권》당국이 발표한 《식량 수급 계획》에 의하더라도 1963년 식량 부족량은 1962년의 550만 석으로부터 그의 약 2배인 1,059만 석으로 증대된 것만으로도 《사회적 문제》로 되여 온 남조선 절량 상태는 최절정에 달하였다.

1962년 정월 초에 《절량 농가로서 요구호 대상 인구가 340만명》이나 되였다 (《서울 방송》 1962년 3월 9일).

1962년 3월 21일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전체 농민의 근 60%에 해당하는 14만 5,646호, 73만 명 이상의 농민들이 절량 상태에 빠졌으며 경상남도에서는 78만 여명의 농민들이 절량되였고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백사리 부락에서는 60호의 농가중 《조반 석죽이나마 굴뚝에서 연기를 올리는 집은 세 집뿐》이라는 비참한 형편이였다 (동양 《통신》 1962년 3월 2일).

절량 농가의 증대 정형
(단위=만호)

	절량 농호수	증가 비률
1954.4	45	100
1956.4	65	144
1957.3	98	218
1961.1	100	222
1962	130	289

자료출처: 《조선 일보》 1954년 5월 26일, 《산업 경제 신문》 1956년 5월 1일, 《합동 통신》 1961년 2월 2일, 《서울 방송》 1962년 3월 9일.

이리하여 남조선 《농촌은 곧 빈곤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절망의 지대로 화하였으며 배고파 우는 어린애들의 울음 소리와 부황증으로 앓아 누운 로인들의 신음 소리로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참상》을 이루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조선의 대부분 빈농민들은 자녀 교육 같은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농촌은 무지와 몽매, 미신 등으로 뒤덮인 중세기적 암흑 상태에 처하여 있다.

남조선 농민들의 주택 사정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바 전체 농가의 97%에 해당하는 213만 여호가 다 쓸어져 가는 오막살이 초가에서 살고 있다.

절량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농민들 속에서는 견디다 못해 《농토를 버리고 문전 걸식의 길을 떠나》는 수가 날로 늘어 가고있다.

경상북도에서만도 리농가 수는 1962년에 그 전해보다 6,578호나 더 늘었으며 도내 월성군 산내면 감상리 같은 곳에서는 전체 150호 중 그의 3분의 1인 50호가 리농한 형편이였다 (《경향 신문》 1963년 5월 20일).

【녀성】 남조선 전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녀성들은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식민지 봉건적인 억압과 착취 그리고 극심한 남녀 차별 정책으로 인하여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완전히 말살 당하고 있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경제의 파국으로 실업자가 홍수처럼 밀리는 형편에서 이들 녀성

들에게 있어 제일 고통거리로 되고 있는 것은 극심한 취업난이다.

서울 연세 대학 부속 병원에서 13명의 안내원을 모집하는데 녀자 대학생 70명을 비롯하여 2,500여명의 녀성들이 몰려 들었다는 한가지 실례만 가지고도 녀성들이 직업을 얻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능히 알수 있다. 이러하여 남조선에서는 로동 능력있는 녀성들이 겨우 5%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형편인데 이러한 《일'자리》도 매우 불안하거나 사실상 직업이라 할 수 없는 식모, 기생, 잡부, 녀급 등이 대부분이다.

이들 직업 녀성들은 보통 16~20시간의 고역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바 방직 부문 녀성 로동자들은 하루 17~18시간, 접대원들은 16~18시간, 뻐스 차장들은 20시간의 혹독한 로동을 하고 있다.

장시간의 노예 로동을 하면서도 받는 임금이란 최저 생활비의 3분의 1도 못되는 남성 로동자들의 임금의 절반 밖에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산전 산후 휴가란 생각 조차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고가 두려워 만삭의 몸을 숨기면서까지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특히 《군사 정변》 이후에 군사 파쑈 도당은 종래 월 1회의 휴식일 마저도 없애고 《년중 무휴로 종업원들을 혹사》함으로서 《이들의 건강은 말이 아니》다 (《국제 신보》 1962년 3월 6일).

농어촌 녀성들의 처지도 물론 다를리 없다. 그들은 《가죽이 붙어서 사람이지 먹는 것은 있는 집 개만도 못》한 형편이며 《삶의 값어치도 없고 자기의 권리도 주장해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뼈저린 학대와 천대 속에서》 고역을 당하고 있다 (《국제 신보》 1962년 3월 25일).

50 여 만명에 달하는 미망인들의 생활은 더욱 한심한 처지에 있다. 전체 미망인 중 74%에 달하는 37만 여 명은 《절망적인 기아속에서 헤매는 요구호 대상》으로 되여 있으나 아무런 보호 대책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망인들은 하는 수 없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 가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군사 파쑈 도당들은 《군사 정변》 직후 사치와 부패를 일소하며 륜락 녀성들을 《선도》 한다고 하면서 《땐스 홀》과 《캬바레》 등의 영업을 폐지하며 《륜락 행위 방지법》 등을 조작 《공포》하는 기만적인 술책을 벌렸으나 도리여 《공창》 《사창》은 《공공연히 존재하》여 30 여만을 헤아리는 녀성들이 륜락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으며 각종 유흥장은 더욱 범람하고 중세기적인 《인신 매매》 행위가 성행되고 있다.

【어린이】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학정하에서 남조선 어린이들은 더욱더 《가난과 학대 속에서 시들어 가고 있으며 사회의 희생물 처럼 망각과 랭대와 고독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군사 《정권》은 어린이들의 복리 향상을 운운하면서 《아동 복리법》이라는 것을 조작하였으나 이러한 《아동 복리법》이란 《허울 좋은 간판》 (《국제 신보》 1962년 2월 14일)에 불과하며 깡통을 차고 《찬 바람 속에서 외로움과 추위에 떨》면서 문전 걸식을 하는 어린이는 남조선 전역에 50만을 넘는다. (《동아 일보》 1962년 1월 24일).

설사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문전엔 가 보지도 못 하고 뼈도 채 굳기전인 어린 나이에 《삼복 폭염속을 헤매면서 몇 푼 안 되는 생계를 보태기 위하여 행상 구걸을 하고 다니》 (《한국 일보》 1962년 8월 10일)거나 구두 닦기, 넝마 주이, 신문 팔기 아니면 《몸둥이 보다 큰 아이스케기 통을 메고 거리를 헤매》 (《령남 일보》 1962년 5월 6일) 고 있다. 서울 시에만 해도 이런 《직업 소년》이 2만 6천명에 달한다 (《조선 일보》 1962년 1월 13일). 또한 남조선 전역을 휩쓸고 있는 대중적 기아와 빈궁속에서 《국민 학교》 결식 아동도 계속 증가하여 1962년도에는 1961년보다 6만명이 증가한 126만명에 달하였다 (《국제 신보》 지사 1963년 4월 9일).

인간 생지옥으로 전락된 남조선에서는 가중되여가는 생활고로 견디다 못해 자기의 혈육을 내버리는 수가 하루에도 평균 18명을 넘는다 (《부산 일보》 1962년 1월 2일). 1962년 한해 동안에 경상북도에서만도 1,146명의 어린이들이 길'가에 버려졌다 (《전남 일보》 1963년 2월 3일).

【실업】 군사 《정권》은 《5개년 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취업률을 증대시키고 실업자를 경감시키겠다고 떠들어 댔으나 경기의 전면적인 후퇴와 중소 기업의 광범한 파산으로 말미암아 실업자 수는 오히려 더욱 증대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중소 기업 《정비 정책》을 강행하여 1962년 초에만도 1,300여 기업 체를 폐쇄하였으며 5월에는 또다시 800 여 개의 건설 기업체를 《정비》라는 미명하에 강제 폐쇄하여 버렸다. 기타 석탄, 운수, 보험, 제약 부문에서도 대량적인 《정비》가 강행되였다. 설사 남은 공장들도 3일 가동 10일 휴업의 상태에 있는바 제조 공업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 기업의 가동률은 40~50% 수준에 있으며 소비품 생산 부문은 20~30% 수준으로 떨어졌다. 군사 《정권》은 1962년에 11개의 《국영 기업체》에서만도 3,359명의 로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이리하여 수 많은 로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1962년도에 남조선에서의 실업자 및 반실업자 수는 총 가동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700만명 이상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50년래의 대흉작으로 추수 직후부터 절량과 아사의 위협에 직면한 농민들 속에서 집단적인 리농 현상이 격증

하여 도시 실업군을 부단히 증대시키고 있다.

도시로 밀려든 이러한 리농민들은 일터는커녕 거처할 곳 조차 없어 《땅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하루 이틀》지내면서 《아침 저녁 끼니를 구하러 남의 집 대문을 두들기》는 형편이다.

그런가 하면 이 비참한 사람들은 《실오리 같은 숨결로 목숨을 이어가는 자기의 피를 팔아서 굶주리고 있는 부모 처자와 자기의 창자를 달래고》 (《사상계》 1962년 4월호) 있으며 3년 이상이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아사 선상을 헤매다 못해 3일에 한번씩 녀달 동안에 39회나 피를 뽑은 결과 《앙상한 뼈만》 남은 사람도 있다. 지어는 먹고 살'길이 전혀 없어 창창을 자원하는 《참아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상》들까지 속출하고 있다.

실업자 및 반실업자의 증가
(단위=천명)

	실업자 및 반실업자 수	증가비률
1949.3	895	100.0
1952.3	1 097	122.5
1955.2	2 000	223.4
1956.12	3 600	402.2
1958.4	4 286	478.8
1959.1	5 350	597.7
1962.	7 000	782.1

자료 출처; 《자유 신문》 1954년10월 4일, 《서울 신문》 1955년 2월 10일, 《동아 일보》1956년 2월 1일, 《서울 신문》 1958년 5월 13일, 《조선 일보》 1959년 5월 30일, 《한국 일보》 1963년 2월 23일.

【부패】 남조선 군사 《정권》은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며 《청신한 기풍을 진작》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어 댔다. 그러나 이는 모두 남조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허울 좋은 빈 구호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군사 정권의 부정 부패는 자유당 정권의 몇 10배나 되》고 있다 (《동화 통신》 1963년 2월 16일).

군사 파쑈 통치배들이 증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등귀 혹은 폭락시키는 사기적 방법으로 천 수백만 딸라 (1962년 4월에 있은 《증권 파동 사건》)의 폭리를 얻은 부정 행위를 비롯하여 미제 침략군의 유흥 시설인 《워커힐》 건설을 둘러 싸고 150만 딸라, 일본의 《닛산 블루버드》 (자동차 명정)의 수입과 판매를 통하여 약 60만딸라, 일본으로부터의 《빠찡꼬》 (회전 당구) 수입으로 수십만 딸라를 협잡해 먹은 것 등 세칭《4대 의혹 사건》에서 들어난 것만 해도 약 2천만 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부정 취득하여 저들의 방탕과 장기 집권을 위한 여당 조직과 기타 각종 음모에 탕진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빙산의 일각》으로서《이따금 흑막 속에서 드러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이의 몇 배에 달한다 (일본 신문 《아까하다》 1963년 3월 10일).

이와같이 군사 파쑈 분자들의 두목들이 부정 부패를 일삼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의 졸개 속에서도 《군사 정부를 배경으로 한 부정 부패》가 더욱 우심해졌다.

군사《정권》의 《감찰 위원회》가 94개의 괴뢰 중앙급 기관을 《감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군사 정변》이후 1963년 3월 8일까지 기간에 《공무원》만의 각종 부정 사건이 3,901건에 달하였는바 그중 《최고 회의》와 군사 《내각》에서 차지한 것이 63%에 달하며 부정 금액은 총 250여원이나 된다 (《한국 일보》1962년 3월 19일).

1962년 5월 괴뢰군 인사 참모 《소령》 천 모가 《유령 병력서》를 조작하여 사병들에게 공급되는 봉급,급식비 등 1억환을 횡취한 것을 비롯하여 괴뢰군 장교들도 각종 사기와 협잡 횡령과 수뢰 행위 등으로 개인 치부에 혈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범죄 증가 정형

	범죄자수(명)	증가비률
1960	2 740	100
1961	3 370	123
1962	5 184	189

자료 출처; 《민국 일보》 1961년 4월 2일, 《동화 통신》 1963년 2월 21일.

이밖에도 괴뢰 경찰들 중 인민들을 로략질 해 먹거나 뢰물을 받아 먹다가 걸린자만도 1961년 10월부터 1962년 9월 말까지의 1년간에 5,309명이나 된다.

때문에 남조선의 신문《대한일보》까지도 《신악의 무성은 구악을 빰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니 남조선 집권자란 모두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범죄】 《깡패》와 《부패》를 일소하겠다던 군사 깡패들의 구호는 완전히 공담으로 돌아가고 《미국식 생활 양식》과 《깽 문화》의 본을 딴 각종 범죄가 날을 따라 늘어 가고 있다.

군사 《정권》의 《치안국》이 발표한바에 의하면 1962년에 발생한 범죄 건수는 72만 3,985건으로 1961년에 비하여 3,800여건이나 더 늘었다.

이 밖에 괴뢰 정부 《검찰》에서 《범법 용의자》로 취급한 건수는 1961년도에 비하여 30%나 증가한 42만 5,917명에 달한다.

범죄 건수의 증가

	발생 건수	증가률
1959	185 218	100
1960	325 531	175
1961	715 675	386
1962	723 985	390

자료 출처 《조선 일보》 1962년 1월 23일 《합동 통신》, 《국제 신보》 서울 지사 1962년 10월 12일, 《대한일보》 1963년 3월 12일.

1962년에 서울 《지방 검찰청》이 《수리 처결》한 범죄 사건만 해도 16만 8,754건으로 1961년도의 4만 9,599건에 비해 4.5배나 증가되였다 (《동양 통신》 1963년 2월 2일).

이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살인, 강도, 강간, 사기, 횡령 등 패륜 패덕 행위가 보통 현상으로 된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불안한 지대》로 되였다. 례하면 미국 영화에서 나오는 《깽》단을

본딴 《해뜨기파》 라는 《깽》단은 1962년 1월 27일과 2월 2일에 렬차 안에서 승객을 협박하여 78만원의 금품을 강탈했고, 6월 22일 홍 모라는 자는 서울 성동구 행웅동에 사는 자기 친구를 칼로 베군데나 찌르고 현금 98만원을 강탈해 가지고 도주하였으며, 8월 3일 부산 《국민 은행》 지점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깽》단은 은행원 16명을 《카비네트》 속에 가두고 현금 600만원을 강탈해갔다.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같은데서는 1년간에 동네 총 205세대중 200세대가 도적을 맞았다. (《서울 기독교 방송》 1962년 2월 7일).

특히 격증하는 소년 범죄는 남조선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1962년에 발생한 각종 소년 범죄는 7만 2,897건에 달하였는바 이는 《해방 후 최고 기록》이라던 1961년도에 비하여도 174%로 증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들의 범죄 행위는 《군사 정변》 후에 더욱 《조직화》되여 서울 시내에만도 174개의 《소년 범죄 단체》가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까지도《양성화된게 이토록 어마 어마한 현상이니 음성적인 사고까지 합하면 몇만이 넘을지 모를일》이라고 하면서 성행하는 소년 범죄로하여《눈앞이 캄캄해지고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령남일보》 1962년 12월 28일)

이 밖에도 사회적 혼란과 군사 파쑈 도당의 무제한한 강권 행사와 인민들에 대한 토략질의 기회를 리용하여 성행하는《가짜 형사, 가짜 정보원, 가짜 세관원, 가짜 검사, 가짜 최고 위원이 가짜 부관까지 대동》하고 활보하면서 무시로 금품을 략취하고 있음으로 남조선 인민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

1962년 2월 9일 《중앙 정보원》으로 가장한 홍 모, 구 모등은 버젓이 서울 각처로 돌아 다니며 10여 명의 기업주들로부터 70 여만환을 횡취하였고 6월 27일 서울시 내수동에 거주하는 박 모라는 자는 취직을 미끼로 《입사 보증금》 100 여만원을 사취해 먹었다. 또한 9월 4일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에 사는 리 모는 박 정희의 아들로 가장하고 해남 《군수》를 찾아가 금품을 요구하였다.

【질병】 미제의 예속 하에서 군사 파쑈 도당의 반 인민적인 《보건 정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 천지는 질병이 창궐하는 《병마의 소굴》로 화하였다.

괴뢰 당국이 극히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폐결핵에 감염된 환자는 전체 주민의 70%나되며 당장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 수만 하여도 80만명이나 된다. 그리고 해마다 20만명의 새 환자가 발생하고 (《산업 경제 신문》 1962년 4월 14일) 년간에 사망자는 4만명에 달하여 하루에 111명, 매 시간마다 4~5명이 죽는다. 이리하여 폐결핵 사망률은 10만명당 160명으로서 《세계에서 제 1 위를 차지하고》있다. (《코리안 리퍼블릭》 1962년 7월 16일).

지스토마 리환자는 전체 인구의 41%에 달하며 농촌 인구의 50% 이상이 12지장충에 걸려있다 (《한국 일보》 1962년 3월 29일). 이밖에 20만명의 문둥'병 환자, 60만명의 성병 환자, 30만명의 정신병 환자, 240만명의 신경 노이로제 환자 (《국제 신보》 지사 1962년 4월 11일)가 있으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기생충 보유자이다.

1962년에 소아 마비 환자는 1958년에 비하여 294%로 격증하였다(《한국일보》1963년 3월 5일).

장기 질병과 함께 괴뢰 도당의 형식적인 방역 대책으로 인하여 해마다 장티브스, 파라티브스, 뇌염, 리질, 코레라, 독감 등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 갔다. 괴뢰 《보건사회부》 집계에 의하면 1962년 3월 2일부터 19일간만에도 153만 6천여명이 독감에 걸렸고 1962년 10월 11일 현재 뇌염 환자는 1,257명에 달하였는데 그중 사망자는 335명으로서 1953년의 3.4배에 달하였다.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파쑈 도당은 군사 경찰비에는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면서도 《보건 사업비》는 1962년도 전체 《예산》(년초 예산)의 0.4%에 불과 하였는바 (《의사 시보》 1962년 2월 26일)이는 《새발의 피만도 못》하였던 장 면 괴뢰 통치 시기 보다도 비률상으로 50% 이상, 금액상으로는 2억환이나 감소된 것이다. 이얼마 안 되는 《예산》 마저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적지 않게 타부문에 류용되기 때문에 《국립》 및 《도립》 병원들과 《보건소》 들이라는 것은 명색뿐이고 자금이 없어 계속 운영난에 빠져 있다.

경상북도 대구 《시립 병원》에서는 산소 호흡기 하나 없어 응급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도 《제주 시립 보건소》는 운영 자금이 없어 약품하나 구입하지 못해서 환자들을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다(《대구 일보》 1962년 6월 10일, 《제주 신보》 1962년 5월 11일).

진주 《도립 병원》 같은 곳은 《내과 의사 1명인 한심한 실정인데 서부 경남 지구의 도립 병원이라고는 이 진주 <도립 병원> 하나 뿐》이다.

이와 같이 약품과 시설, 의사 부족으로 하여 《관영》 병원들이란 것이 보잘 것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 통치배들은 사설 병원마저 《시설 기준》을 높이 설정하고 각종 구실로 계속 폐쇄해버리고 있다. 대구에서만도 총 430개 의원중 《국민 의료법 시행 세칙》에 제시된 《시설 기준》 미달과 기타 사항 《위반》으로 247개 의원을 폐쇄하였다. (《대구 일보》 1962년 7월 31일).

군사 파쑈 도당들은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국민 의료 균점의 확립》, 《무의면 일소》를 떠들었으나 오히려 무의면은 더욱

증가되였다.

1961년도에 남조선의 무의면은 전체 면의 43.1%에 해당하는 607개 면이였다면 1962년에는 49.7%에 달하는 700개로 늘어났다(《동화 통신》 1962년 1월 11일, 1962년 3월 29일).

무의면 수의 증가

	무의 면수	면총수에 대한비률	무의면 증가률
1955	551	36.8	100.0
1960	564	40.1	102.3
1961	607	43.1	110.1
1962	700	49.7	127.0

자료 출처;《동화 통신》 1960년 11월 5일, 1962년 1월 11일, 3월 29일, 《한국 년감》 1961년판.

반대로 의료업자들의 도시 집중 현상은 더욱 심하여졌다.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군사 정변》이후 1962년 3월까지에만도 570 여개가 더 증가되였다(《의사 시보》 1962년 4월 5일》).

이러한 페로부터 대다수 농촌 지방 주민들은 병에 걸려도 약 한첩 써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

남조선에서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19.8명으로서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세 미만의 아동 사망률은 무려 42~45%에 달하고 있다.

이리하여 평균 수명은 일제 시기 보다도 10년 이상이나 줄어든 33세에 불과하다.

【종교, 미신】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에게 《숭미》, 《반공》 사상을 주입시키며 남조선 인민 대중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각종 종교와 미신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 결과 오늘 남조선에는 종교중 가장 우세한 기독교를 비롯하여 천주교, 불교, 유교, 대종교, 천도교 등의 《포교소》가 남조선 각처에 6,036개나 분포되여 있으며 그 신자는 약 600만명에 달한다.

1962년초에 신도 수는 1954년에 비하여 3.8배, 《포교소》수는 25.5배로 증가되였다.

특히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를 받고 있는 기독교는 현재 17개의 교파가 활동하고 있고 20 여개에 달하는 외국 《선교단》이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다.

한편 미신도 성행하고 있는데 《정감록》이니 《토정 비결》이니 하는 미신 서적들이 다량적으로 간행 류포되고 있으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굿을 하며 동네를 소란케하는 일이 허다》하다. 1960년 현재 남조선에는 2만 1,900명의 각종 미신업자들이 있었다. 1962년 말에 서울시내에는 무당, 점쟁이, 관상쟁이, 독경등 9종의 미신업자가 1,229명(그중 녀자는 899명)이나 있었다. 이것은 1961년말 보다 129명이나 증가했는데 실제로 《뜨내기》까지 합치면 근 2,000명이나 된다(《한국 일보》 1963년 5월 19일, 《국제 신보》 지사, 1963년 2월 22일).

【재해】 수해; 미제와 력대 괴뢰 도당이 치산 치수 사업을 방임한 관계로 《천재 아닌 인재》인 홍수 피해는 1962년에도 막심했다.

특히 8월 27일 저녁에 내린 비로 남강의 제방이 무너지는 바람에 순천시의 3분의 2가 삽시간에 물에 휩쓸려 페허로된 참변을 비롯하여 전라남도에서의 피해는 막심하였는바 9월 1일 현재 드러난 것만하더라도 이 도내의 리재민 수는 1만 848명이나 되며 사망자는 260명, 부상자는 217명, 행방불명이된 자는 48명에 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내 경지 면적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13만 3천 여정보의 전답이 침수, 류실, 매몰되였고 가축 1만 3,420두, 가옥피해 4,688동, 철도, 도로, 교량 파괴 255개소 등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같은 날 경상남도 합천, 의령, 진양, 창녕, 하동, 산청등지에서도 막심한 수해를 입었다 (《동화 통신》, 《국제 신보》지사 1962년 9월 1일).

군사 《정권》 당국이 축소해서 발표한 데 의하더라도 8월 28일을 전후하여 남조선 전역에서는 수해로 757명의 인명 피해와 1만 8,662명의 리재민을 내였다. 또한 건물 피해 1만 142동, 철도, 도로, 교량, 제방 파괴 3,541개소를 비롯하여 십여만 정보의 농경지와 가축, 선박 등 총 10억 5,743만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태풍; 8월 초순과 중순에 남조선의 거의 전역을 휩쓴 태풍 《노라호》와 《오팔호》로 인하여 서해안의 경기도 인천 주변 도서들과 경상남도 일대는 《40년래에 처음》 보는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괴뢰 정권이 발표한 태풍 《노라호》와 《오팔호》에 의한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인명 피해 (명) 사망 26, 부상 5, 행방 불명 156 계 187 △건물 피해(동) 982 △선박 피해 (척) 275 △경작지 피해(정보) 밭 4,261.82, 논 3,946, 계 8,207.82 △총 피해액 7,593만 597원 (《동화 통신》 1962년 8월 4, 8, 16일, 《동양 통신》 1962년 8월 17일).

화재; 사회의 혼란상을 반영하여 화재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1962년에 화재 발생 건수는 2,200건이였으며 그 피해액은 2억 여원에 달하였다(《한국 문화 방송》 1963년 7월 14일).

【각종 사고】 혼란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남조선에서 그칠사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교통 사고로 인하여 인민들은 매일과 같이 귀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있으며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군사 《정권》의 《치안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통계에 의하더라도 1962년 한해 동안에 자동차 사고만해도 5,150건이 발생하여 1,152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6,486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는 매일 평균 14건의 자동차 사고로 3명이 죽고 18명이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말한다(《전남 일

보≫ 1963년 3월 14일).

남조선에서 빈발하는 이러한 교통 사고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 침략자들이 제멋대로 날치며 미친듯이 자동차를 몰아대는 판에 더 가중되고 있다.

8월 한달 동안에 경기도 내에서 만도 123건의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미국놈들이 저지른 사고는 34건(27.5%)에 달하였다.

한편 운행 질서가 문란한데다가 수십년썩된 낡은 륜전 기재들을 그냥 사용함으로써 철도 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1962년에 2,549건의 철도 사고가 발생하여 830 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그 피해액은 3천만 원에 달하였다(≪전남 일보≫1963년 3월 14일).

륙지에서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각종 사고가 련'이어 일어나고 있다. 1962년에 1,000 여 건의 해상 사고가 발생하여 350 여명의 사망자를 내였고 그 피해액은 륙지에서 일어난 사고의 4배에 달하였다(≪전남 일보≫1963년 3월 14일).

특히 1월 1~12일 기간에 동해안 일대에서 일어난 풍랑 피해는 전례 없는 것으로서 선박만 해도 206척의 피해를 입었고 58명이 생명을 잃었다.

미제와 괴뢰 도당들의 발광적인 전쟁 도발 소동으로 인한 각종 폭발물 사고도 빈발하였다.

괴뢰 ≪치안국≫발표에 의하면 1962년 1월~7월 기간에 만도 192건의 폭발물 사고로 339명의 사상자를 내였다. (≪부산 일보≫ 1962년 8월 21일). 경기도 내에서는 1962년 1~11월 기간에 244건의 폭발물 사고로 257명이 사망하였고 183억원의 피해를 내였다(≪경향 신문≫1962년 12월 19일).

익사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1962년 1~7월까지 기간에 만도 익사자는 528명에 달하였다(≪부산 일보≫ 1962년 8월 12일).

【미군 야수들의 만행】 남조선에서 주민들에 대한 살인, 폭행, 강간, 략탈, 방화 등을 감행하고 있는 미제 살인귀들의 야수적인 만행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욱 우심해지고 있다.

이 20세기의 식인종들은 1962년도에도 승냥이와 같은 야수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남조선 주민들을 쏴죽이고 자동차로 깔아 죽이며 부녀자들을 릉욕하고 무고한 농민을 거꾸로 매달아 곤봉으로 구타하여 피를 토하게 하는 등 치떨리는 만행을 무수히 감행함으로써 인간 백정으로서의 본성을 드러내놓았다. 수 많은 만행들 중 출판물에 반영된 것을 몇 가지 추려서 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살인 만행—미제 야수들은 년초부터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 마구 총질을 하여 무수한 주민을 학살하였다. △ 1962년 1월 2일 미군 헌병 한놈은 림진강에서 낚시질하고 있던 어부를 렵총으로 쏘아 즉사케했다(≪합동 통신≫ 1962년 2월 12일). △1962년 1월 6일 경기도 장안군 진동면 하포리 뒤'산에서 미군 제 1기갑 사단 8련대 디 중대 소속 하사 토니 외 수십명의 미군 야수들은 40명의 나무'군을≪포위 하여…… 흡사 오리 사냥≫하듯 렵총을 란사하여 그중 황 광길, 리 기용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이 야수들은 이에 앞서 1월 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김 부성, 강 정수 등 2명의 나무'군을 렵총으로 쏘아 치명적 중상을 입혔다(≪한국 일보≫ 1962년 2월 10일, 11일, ≪조선 일보≫ 1962년 2월 9일). △1962년 2월 9일 미군 제 7 보병 사단 31련대의 미군 야수 한 놈은 아무 리유없이 조선청년 1명을 ≪엠 원≫총으로 쏴죽였다(≪조선 일보≫ 1962년 2월 12일).

또한 자동차로 길'가의 사람들을 깔아 죽이는 만행도 빈번히 감행하였다.

△1962년 3월 16일 서울 시내 룡산구 한강로 1가 10번지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미친듯이 몰고 가던 미군 야수놈은 교통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가고 있던 임신부 조 정구를 들이 받아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 (≪한국 일보≫ 1962년 3월 17일). △1962년 6월 28일 경기도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야수 한 놈은 의정부 시내에서 자동차를 몰아 질주하다가 조선 소년 김 복규를 깔아 죽이고 도망쳤다(≪경향 신문≫ 1962년 6월 30일). △ 1961년 9월 16일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앞'길로 트럭을 몰고 가던 미군 제 763 공병대 소속 고드메라는 자는 길'가에서 놀고 있던 소년 김 용만을 깔아 죽이고 도망쳤다(≪중도 일보≫ 1962년 9월 17일).

주민들에 대한 폭행—살인 만행과 함께 무고한 주민들에 대한 폭행도 전례없이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하였다. △1962년 5월 29일 경기도 파주에서 미군 제 1 기갑 사단 씨 중대 소속 미 륙군 중위 토마스 엠 월드와 데이비드 더블류 스웬슨 외 수명의 야수들은 동 중대 주변에서 일하고 있던 리 일용 청년을 아무런 리유 없이 붙들어다가 굵은 로프로 목을 졸라매고 몽둥이로 갈겨 실신케 하고서도 부족하여 그를 또다시 벌거 벗겨 전주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질, 구두'발질을 하여 피를 토하게하고 빈사 상태에 이르게 하는 귀축 같은 만행 (세칭 파주 린치 사건)을 감행했다 (≪동화 통신≫ 1962년 6월 1일). △ 1962년 5월 30일에는 경기도 오산 미 공군 기지 소속 헌병 페러슨이 심 더선이란 50세의 농민을 무러대고 붙잡아다 군견을 시켜 30여 차나 물어 뜯게 한 다음 피투성이가된 그를 다시 거리로 끌고 다녔다(≪경향 신문≫ 1962년 6월 8일).

이 외에도 5~6명씩 작당하여 길가는 주민들에 생트집을 걸어 구두'발로 짓밟으며 집단 폭행을 가한다거나 택시 료금을 요구하는 운전수에게 폭행을 하여 중상을 입히는 등의 린치 행위는 비일 비재하였다.

부녀자들에 대한 폭행— △1962년 2월 18일 미군 제 1 기갑 사단

공병대 소속 상병 월리암 그리는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가야리에서 인신 5개월의 신 영숙을 릉욕한 후 구두'발로 마구 차서 치명상을 입혀 락태시켰다 (《한국 일보》 1962년 2월 22일). △1962년 4월 18일 미군 제 1 기갑 사단 5련대 2대대 에이 중대 소속 상등병 제르는 경기도 파주군 능당면 천현리에 사는 강 모라는 조선 녀성을 뒤'산까지 끌고가 구두끈과 새끼줄로 그의 손발을 묶고 입을 틀어 막은 다음 린타하였다(《동아 일보》 1962년 4월 22일). △ 1962년 5월 17일 미군 제 833 경기 중대 소속 1등병 죤슨은 충청 남도 대덕군 북면 장동리에서 조선 녀성 유 춘자를 릉욕한 다음 아무 리유 없이 권총으로 쏴 죽였다 (《동화 통신》 1962년 5월 17일). △1962년 8월 29일 부산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 선박 선원 프란시스 스르비아는 조선 녀성 강 옥자에게 수욕을 채우려다 거절 당하자 이 녀성의 몸을 단도로 찔러 치명상을 입혔으며 비명을 듣고 달려간 염 춘희 녀성도 칼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동화 통신》 1962년 8월 30일).

주민 재산에 대한 략탈, 강도 행위— △1962년 1월 19일 서울시 영등포 역전 로타리에서 미군 강도 4명이 지나가던 택시를 길'가에 쳐박아 놓고 운전수 리 홍우의 돈 6천 500환을 탈취해 가지고 도주하였다 (《조선 일보》1962년 1월 21일). △1962년 3월 20일 충청 남도 서산군 태안면에 주둔한 미군 부대 씨 중대 소속 1등병 투라벌 제이 대그이 외 5명이 동군 산선리 리 동익의 집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고 리 외용이 경영하는 《땐스홀》을 파괴하였으며 김 정원의 상점에 들어가 닥치는대로 상품을 파손하는 강도 행위를 감행했다(《조선 일보》 1962년 3월 24일).

보는 바와 같이 미군은 남조선에서 피에 주린 침략자의 행세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파쑈 도당은 마치 《행정 협정》이 없기 때문에 미제 침략군의 횡포한 만행이 근절되지 않은듯이 떠벌리면서 미제 상전과 《행정 협정》의 체결을 위한 《회담》을 벌려 놓았다.

그러나 어떠한 법령이나 협정으로써 반동적이며 야수적인 미제 침략군의 본성을 변경시킬 수 없으며 그들의 비인간적 만행과 민족적 멸시를 저지시킬 수는 없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몰아 냄으로써만 그들의 야수적 만행과 민족적 멸시를 근절할 수 있다.

문 화

교 육

미제와 박 정희 도당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 속에서 더욱 고조되는 혁명적 진출을 막기 위하여 학원 내의 일체 진보적 요소들을 탄압 말살하는 동시에 악명 높은 《반공 도의 교육》을 감행하고 있다.

《군사 정변》 후 각급 학교들의 학생 단체들과 교원 로조들을 강압 해체하고 수 많은 애국 학도들과 교원들을 검거 투옥한 박 정희 도당은 계속 교원과 학생의 탈을 쓴 테로 분자들과 괴뢰 사복 경찰들을 학원 내에 잠입시켜 《재건 학생회》, 《학생 야외 단속반》 등 어용 도구들을 조작하여 애국 학도들과 진보적 교원들의 일거 일동을 감시 탄압 밀고케 하면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학생 교원들을 숙청 제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원 내에서 군대식 생활 체계와 《기합》의 《활용》을 적극 조장하면서 학생들에게 파쑈적 질서를 강요하는 한편 전쟁 사상을 고취하며 미제의 값싼 대포'밥으로 될 것을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반 민족적인 《반공 사상과 국토 통일의 리념을 고취》한다는 구실 밑에 《승공 신조》라는 것을 조작하여 《조례시, 행사, 례식에서 제창》하게 하였으며 (《동양 통신》 1962년 10월 31일). 또한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을 개편하여 반공 도의 과목을 신설》 (《국제 신보》 지사 1962년 11월 2일)하고 반공 도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지어 군사 《정권》은 반동적인 《산아 제한》을 내용으로 한 《가족 계획 교육》을 한 학기에 고등 학교에서는 5시간, 대학에서는 10시간씩 취급하게 하였다 (《국제 신보》지사 1962년 6월5일).

【《반공 도의 교육》의 강행】 군사 파쑈 도당은 《반공 도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학교 이상의 《교수 과정안》을 더욱 《반공 체제에 알맞게》 개악하였으며 각 대학에는 《반공에 관한 특별 강좌》를 신설하였다. 1961년 10월에는 개악된 《교수 과정안》에 따라 초중, 고등 학교 교원용 《반공 교육 지침서》를 배포하고 이에 엄격히 립각하여 청소년 학생들을 《반공 노복》으로 길러낼 것을 강요하였다.

《지침서》에 의하면 《반공 교육》을 제 1 차적으로 시행하되 《많은 시간을 이에 배당》할 것과 《공산 세계에서의 실태》를 철저히 외곡하여 주입시킬 데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사를 선택 과목으로 돌려 홀시하는 반면 미국을 찬양하는 《세계 문화사》를 필수 과목으로 중대시하며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국어 시간을 줄이고 영어를 가장 많이 배정 (주간 7~8시간씩)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국민 학교용 《도덕》, 《사회 생활과》 교과서를 개악하였다. 한편 《반공 도의교육》을 위한 각종 기구들을 조작 정비하였다.

괴뢰 《문교부》는 1962년 7월 19일 미국 《피버디 교육 사절단》의 후원하에 《대학 교육 련합회》 산하 기구로 《전국 사회 생활과 교육자 협의회》를 조작하고 이

협의회로 하여금 《반공 도의 교육》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 교재 문제들을 연구케 하였다.

9월 11일에는 중 고등 학교에 《학생 지도 위원회》(재정비)를 서울시와 각 도에는 《교외 생활 지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장악 통제케하였으며 이 밖에도 《학원내의 명랑화와 건실한 학풍》을 세운다는 미명 하에 대학 내에 학과 별로 되는 《학생 생활 지도 위원회》를 조작하여 요시찰자와 요주의자로 나누어 학생들을 감시 탄압하고 있다.

군사 파쑈 도당은 《반공 국방 교육》의 일환으로 군사 훈련과 군사적 성격을 띤 각종 훈련을 광범히 실시하고 있다.

대학내에 조직된 《학도 군사 훈련단의 군사 훈련을 제외하고도 1962년 6월에는 《문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생 특수 체육 위원회》를 조작하고 대학생들에게 락하산 훈련을 포함한 군사적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밖에도 군사 파쑈 도당은 《반공 도의 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반공》깜빠니야에 학생들을 광범히 동원시켰다.

【학비 부담의 증대】 군사 파쑈 도당은 증대되는 군사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고 부담》에 의한 교육비 지출을 극도로 억제하고 학생들의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였다.

1962년도에 군사《정권》이 부과한 각급 학교 학생들의 《입학금》과 년간 《수업료》만 보더라도 대학은 11만 2천환~13만 6천환, 고등 학교는 5만 8천환~7만 2천 400환, 중학교는 4만 4천환~6만 3천 200환이였다 (《동화 통신》 1962년 2월 9일). 이는 1961년에 비하여 대학은 3배로, 고등 학교는 5배로, 중학교는 8배로 격증한 것으로 된다.

이외에도 군사 《정권》은 《공납금》의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기성 회비》, 《실험 실습비》, 《재건학생비》, 《책값》 등 거액의 금액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여기에 학교 당국이 부과하는 《교복대》, 《학교 운영비》, 《학급 비》, 《용지대》 등을 포함하면 실로 60~100종의 잡부금들이 학생들에게 부과되고 있다.

군사 《정권》은 《각급 학교 수업료 등 징수 규정》을 조작하며 납입금 납입이 정한 기일을 2개월 이상 초과할 때에는 퇴학시킨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 자녀들의 진학을 가로막고 있다. (《동화 통신》1962년 2월 9일).

과중한 학비 부담으로 근로자들의 자녀들은 학교에 갈 엄두도 못 내거나 간혹 입학했다가도 교문에서 쫓겨나고 있다.

소위 최고 학부라는 서울 대학교의 실정만 보더라도 1962년도 상반 학기에 《등록금》을 못 물어 등교 등록 못한 학생들이 전교생의 35%였으며 하반 학기에는 42%에 달하였다(《동화 통신》 1962년 3월 3일, 《국제 신보》 지사 1962년 9월 3일).

【학교의 페쇄, 진학난】 군사 파쑈 분자들은 1961년 12월에 조작한 《학교 정비 기준령》을 휘둘으면서 더욱 발광적으로 학교들을 페쇄하고 있다.

군사 《정권》이 공식적으로 보도한 바에 의하더라도 《학교 정비 기준령》을 공포한 후 1962년 2월 10일까지 21개의 대학을 페쇄하고 2만 5천 여명의 대학생들을 배움의 길에서 축출하였다. (《동양 통신》 1962년 2월 10일)

2월 17일에는 《국립 학교 설치령 중 개정의 건》을 조작하여 전체 수의과 대학들을 페지하였으며 전북 대학교, 전남 대학교, 부산 대학에서 각각 2개의 단과 대학을 페지하고 충북 대학을 충남 대학에 통합한다는 구실 밑에 페쇄하였다. (《합동 통신》 1962년 2월 17일). 경상 북도에서는 1월 한달 동안에만도 10개의 고등 학교를 강제로 페쇄하였다. 뿐만 아니라 괴뢰 《문교부》는 실업 계통 학교와 중 고등 학교를 감축하기 위한 통합 《원칙》과 그 《방침》을 공포하고 중 고등 학교와 실업 고등 학교들을 시, 군단위로 《통합》한다는 구실 밑에 대량 페쇄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국제 신보》 지사 1962년 6월 8일).

1962년도 각급 학교 졸업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률은 더욱 감소 되였다. 《국민 학교》졸업생들의 상급 학교 진학률은 전년에 비하여 4.8%나 감소되여 40%로 저하되였으며 중학교 졸업생들은 66%, 고등 학교 졸업생들은 16%가 진학한 데 불과하다.

【수학 조건의 악화】 남조선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악화되는 수학 조건에 의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의무 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 학교》들의 사정을 보더라도 《분필도 없고 흑판도 없는 교실, 책상도 걸상도 없는 교실에서 90명이나 모여 앉아》 공부하는 형편에 있으며 그런 교실도 없어 땅바닥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이다.

군사 《정권》이 공식 발표한 바에 의하더라도 《국민 학교》의 부족 교실의 절대수는 2만 4천여개나 된다 (《동화 통신》 1962년 12월 1일).

현재 사용하고 있다는 4만 7천여개의 교실 중에서도 림시 대용 교실과 림시 가교실이 7천 781개, 로후 교실이 1만 7천개, 그 중 위험 상태에 있는 교실이 7천개나 된다(《조선 일보》 1962년 2월 5일).

책상, 걸상의 부족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학생들은 한 교실에 80~120명까지 들어가 한 걸상에 3~4명씩 앉아서 《통조림 수업》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 무안군의 송도, 갈산, 동면, 매화 등 《국민 학교》 들에서는 《정교실 하나도 없이 천막이나 거적대기를 친 가교실에서 10년 동안이나 수업》하고 있다 (《경향 신문》1962년 12월 21일).

교실 부족은 중 고등 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경상 남도만도 부족 교실 수는 소요 수의

절반 이상인 871개나 된다 (《국제 신보》 1962년 1월 28일).

문학 예술

박 정희 파쑈 도당은 《반공을 국시 제 1의》 라는 구호 하에 각종 악법을 조작해내고 일체 민주주의적 문학 예술 창조 활동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한편 문학 예술인들과 단체들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 수행에 리용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이들은 진보적인 경향의 작가 예술인들을 《용공》 이라는 터무니 없는 《죄명》을 씌워 검거 투옥하며 일체 예술 작품의 내용과 무대 행사에 대한 사전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문학 예술에 대한 파쑈적인 통제를 강화하며 문학 예술을 저들의 반동적 목적에 리용하기 위하여 행정 기구 체계도 일부 개편하였다.

그들은 괴뢰 《공보실》을 《공보부》로 승격시키고 종래에 《문교부》 내 《예술과》에서 하던 문학 예술 행정 업무를 《공보부》에 이관하여 《문화 선전국》이라는 새로운 문학 예술 통제 기구를 조작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문학 예술 단체들을 어용화하기 위하여 일체 문학 예술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고 강제로 해체하였다. 1962년 1월 5일에는 《문학 예술 단체 통합》이라는 구실 밑에 《한국 예술 문화 단체 총련합회》라는 어용 단체를 조작하고 그 산하 단체로서 각 부문별로 10개 어용 단체를 조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군사 《정권》은 문학 예술인들을 회유 기만하기 위하여 《신인 예술상》, 《대종상》, 《5월 문예상》, 《문예 현상 모집》 등 각종 시상제를 제정하였으며 반동 예술인들을 총동원하여 《반공》과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비방을 주제로 하는 작품 창작을 적극적으로 장려 조장하고 있다.

예술 단체의 어용화와 함께 군사 파쑈 분자들은 군사 《정권》의 반동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작가 예술인들에게 《국가 재건의 선구자》가 되여야 한다는 기만적 구호를 내걸고 남조선에서 이미 광범한 대중들로부터 배격 받고 있는 반동적인 문학적 사기한들을 긁어모아 온갖 세기말적이며 퇴페적인 문학 예술을 제작하는 데로 내몰았다.

【문학】 박 정희 도당의 파쑈적 문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 진정한 문학은 억제 당하고 있는 반면에 미제에 아부하면서 《반공》과 색정과 허무와 인간 증오 사상을 설교하며 온갖 반동적인 독소를 퍼뜨리는 저렬하고 비속한 문학이 성행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반동 문학은 구미 제국주의 국가들에서 성행하고 있는 각종 부르조아 형식주의와 자연주의 사조 및 그 류파들의 작품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색정주의 문학은 미제가 부식한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 양식》과 결합되면서 청소년 학생들을 오독시키고 있다.

례컨대 단편 《나그네》 (《사상계》 1962년 1호) 에서 작가는 인간을 동물과 같은 위치에 놓고 보며 《색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상의 행복이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전부》라는 동물적인 색정 만능을 설교하고 있다.

또한 조선 녀성의 아름다운 도덕적 품성을 모독하고 처녀와 유부녀의 방탕한 생활을 로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소설 《우수와의 결별》 (《사상계》 1962년 문예 작품 특대호) 등 색정적인 작품을 들 수 있는바 작가는 그것을 생활의 《행복》으로 선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부조리》를 부르짖으며 극도의 허무주의와 인간 증오 사상을 고취하는 실존주의 문학등이 만연되고 있으며 지어 미제와 군사 깡패들에게 매수된 남조선의 일부 악질적인 반동 작가들은 공화국 북반부를 비방 중상하며 동족 상잔의 전쟁을 고취하는 글들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류의 부르조아 반동 작품과는 달리 조국의 통일에 대한 지향을 노래하며 각종 부르조아 형식주의와 자연주의의 문예 사조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서 민족 문학을 건설하려는 지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작품들에는 더는 외세에 의존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조선 사람들끼리 해결하여야 한다는 민족의 자주 정신이 표현되고 있다.

내 조국아 더는 참지 말아다오
더는 잠자지 말아다오
우리의 땅 우리의 하늘
하다못해 터럭 하나라도
우리의 것은
우리의 손으로 만져야 한다.
… … …
그리하여
우리 정부의 손으로
우리들의 기를 꽂아야 한다.
그 하늘 우에 기'발 아래서
합창을 하자. (시 《아아! 내 조국》에서)

이러한 작품들의 기저에는 민족 자주 통일의 지향이 깔려 있다.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또한 파쑈 통치배들의 야수적 폭압 정책에 대한 증오, 현 정권 하에서의 인민들의 생활고와 무권리를 폭로하는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

단편 《월광곡》 (《사상계》 1962년 2호)에서는 이른바 《학제 개혁》에 의한 《정년제》로 말미암아 생계를 잃게된 한 로 교원의 비극적 운명이 그려지고 있으며 단편 《만학 선생》 (《현대 문학》 1962년 5호)에서는 소위 《대학 정비령》에 의하여 영어를 모른다는 리유로 오랜 한문 학자가 해직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고발되면서 동시에 친미파 학장의 거만한 태도가 폭로되고 있는 것등은 그 실례로 된다. 작가는 이 작품들에서 군사 《정권》 하의 남조선 인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진보적 경향의 작품들은 그 내용과 창작 수법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성은 있으나 그것들은 남조선 인민들과 문학 예술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날로 더 큰 힘으로 발전하고 있다.

【영화】 영화 제작도 미제와 군사 《정권》의 반동적 문예 정책으로 말미암아 심한 《위축》, 《저조》, 《침체》 상태에 빠지고 있다. 군사 《정권》이 실시한 《통합》 정책으로 인하여 고리채에 매여달려 간신히 유지해 오던 40개의 중소 영화 제작사와 21개 개의 중소 영화 수입 업체들이 폐쇄되였다 (《한국 년감》 1962년판). 남어지 몇개의 영화 제작소들이라는것도 《바라크》식 창고에 약간의 《스테지》 시설 이 외에는 아무 것도 갖춘 것이 없는 명색뿐인 기업체이거나 완전한 투기업자들이다.

군사 파쑈 도당은 영화 예술에 대한 탄압책으로서 1961년 말에는 《영화 및 공연물 사무 요강》을 조작 공포하고 《국산 영화》의 제작 상영에 대한 검열 및 허가제를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 영화 제작 수는 매년 감소되고 있는바 1962년에는 1959년의 88%에 불과하였다.

군사 파쑈 도당은 1962년 1월 반동적인 《영화법》을 공포하고 《보도 선전 영화》와 《문화 영화》를 예술 영화 상영 전에 반드시 상영할 것을 영화 흥행업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밖에도 《흥행물 검열 사무 요강》 및 《흥행물 검열 기준》등을 조작하여 부패한 남조선 현실과 미제와 군사 《정권》의 반동 정책에 대한 약간의 비판도 허용하지 않으며 공화국 북반부에 대한 동경과 사회주의 진영 및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의 면모를 선전하는 등의 일체 진보적 색채를 띤 영화 제작과 상영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군사 《정권》의 매국적 조치에 의하여 미국 영화의 범람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

1961년에 155편의 수입 영화중 미국 영화는 106편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양키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는 색정주의 영화와 살인과 강도, 타락, 인간 증오와 전쟁 선동, 죽음과 체념을 례찬하는 등의 독소로 가득찬 영화들이 만연되고 있다.

【연극】 군사 파쑈 도당은 《<연극 유신> 이라는 슬로간을 입버릇처럼 부르짖고》는 있으나 남조선 연극계는 날로 부패, 타락, 쇠퇴, 몰락의 한 길을 밟고 있다.

유일한 극단인 《국립 극단》은 항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으며 특히 《군사 정변》 후에는 《거의 착 가라 앉아 버린》 형편에 있다. 소극장 운동이라는 것이 있기는하나 무대가 없어 전혀 활동하지 못하고 있다.

1961년도의 공연 실적을 보면 《국립 극장》에서 겨우 5편의 연극이 1회씩 상영되였을 따름이고 《실험 극장》 (주로 써클 형태) 이라는 데서 3회 공연이 있었을 뿐이다 (남조선 《한국 년감》 1962년판). 창극의 실정은 더욱 한심한바 《가날픈 녀성 국악단 (통채로 3개)에 의하여 그 명맥을 간신이 이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마저 《똑 같은 사극물의 되풀이》, 로 갈수록 《관객을 잃》고 있다.

【음악, 무용】 남조선에서 민족 음악은 쇠퇴 일로를 걷고 있으며 미국의 《쟈즈》나 불란서의 《샹송》, 일본의 류행가 등이 범람하고 있다.

특히 우리 민족의 민요들은 《쟈즈화》되고 있으며 《만보춤》의 반주곡으로 변색되고 있다.

《국민 가요 개창 운동》이요 《건전한 노래 보급》이요 하는 미명 하에 불리우는 노래들은 《거의 미국의 쟈즈나 불란서의 샹송이나 그것의 번역물, 그렇지 않으면 저속한 류행가 따위》로서 남조선은 《흡사 문화적 식민지의 인상을 씻을 수 없게》하고 있다.

1961년도 음악 부문 발표 실적을 보면 교향악 공연이 2회, 합창단 공연이 2회, 기타 독창회 독주회들이 수회 있었을 뿐이다(남조선 《한국 년감》 1962년판).

민족 무용은 거의 그 자취를 감추고 있거나 양키 춤으로 변색되고 있다. 1961년도의 남조선 《무용단》의 공연이란 《림 성남 발레단》의 《쟈즈 발레》 공연이 1회 있었을 뿐이고 소규모적인 개인 발표회가 약 10회 있었다 (남조선 《한국 년감》1962년판).

그중 순 민족 고전 무용 발표회는 단 1회 있었을 뿐이다.

언론 출판

【언론 탄압】 《군사 정변》 후 군사 파쑈 도당은 미제의 예속화 정책과 군사 《정권》의 매국 정책 수행을 위하여 언론계에 대한 류례없는 파쑈적 탄압을 자행하였다.

그들은 《군사 정변》 직후 적용했던 《사전 검열제》를 《자체 검열제》 라는 미명으로 바꾸어 놓고 더욱더 철저한 《보도 관제》를 실시하였으며 량심적인 언론인들을 검거하여 《용공》, 《리적 행위》 등의 죄명을 붙혀 중형에 처하였으며 그중 일부는 학살하는 만행까지 감행하였다. 1962년 6월 3일에는 《사전 검열제 위반》이라는 구실 밑에 《대한 일보》 편집 국장과 정경부 차장을 검거하였으며 6월 4일에는 《동아 일보》가 박 정희의 장기 집권 음모를 폭로하였다 하여 편집 국장을 《군사 재판》에 회부하였다.

군사 《정권》은 이러한 전대 미문의 언론 폭압으로도 언론계를 쥐여 잡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여 언론계는 물론 남조선 인민들의 불만과 반감만을 촉발시켰다.

이렇게 되자 군사 《정권》은 남조선 언론 기관들의 활동을 더욱 질식 상태에 몰아 넣으려는 악랄

한 탄압책으로서 1962년 6월 28일 새로운 《언론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7월 31일에는 그의 《시행 세칙》인 《언론 정화법》을 조작 공포하였다.

이 《세칙》에는 복잡하고 과중한 《시설 기준》을 설정해 놓고 이에 미달한 중 소 언론 기관들은 《정화》라는 구실 밑에 폐쇄하기로 규정하였다. 한편 《세칙》에는 운영 자금을 저리로 장기 대부하며 수입 신문 용지의 관세를 30%로부터 5%로 인하하며 3년 이상 근속 년한을 가진 기자에게 매월 1만원 이상의 보수 기준을 설정하는 등 회유 기만적인 《약속》들이 내포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사 파쑈 도당은 남조선에서 혹심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언론계의 실정을 악용하여 그의 시설 기준을 높여 놓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대다수의 언론 출판 기관들을 대폭 축소하고 반면에 몇개의 언론 기관만을 남기고 그에 자금을 융자하여 이를 경제적으로 예속시킴으로써 그를 어용화하려고 획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세칙》에서 《언론인들의 자격》을 규정함으로써 언론계에서 진보적인 세력들을 몰아 내고 자기들의 충복으로 교체하려는 교활한 음모도 포함시켰다.

군사 《정권》은 또한 《언론 정화법》에서 신문들을 대중 오락지로 변색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더욱 마비시키려고 획책하였는바 《보도 편중의 현 신문 체제에서 탈피》할 것과 종전의 조간 석간의 복간제를 단간제로 하고 지면을 대폭 늘일 것을 규정함으로써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 군사《정권》의 매국 배족 정책, 이로 한 인민들의 생활 참상을 폭로 비판하는 사, 론설과 보도기사들의 게재를 억제하고 퇴폐한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는 수단으로 전변시켰다.

이 《세칙》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 신문들은 조간 석간 중 어느 하나만 발행하게 되였으며 지면을 8면으로 늘리고 절대 많은 면을 광고나 오락에 돌리고 있다.

【언론, 출판계의 실태】 군사 파쑈 도당은 집권 후 229종의 정기 간행물과 616개의 출판사를 페쇄하였다. 1962년 1월 1일 현재 남조선에는 통신 12종, 일간 신문 38종, 주간 신문 33종, 월간 잡지 178종 , 기타 83종, 도합 344종의 정기 간행물이 잔존하고 있으며 언론 출판 활동은 극심하게 위축되여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신문사들은 거의 전부가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정권》의 포악한 세금 수탈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서울 일일 신문》은 1961년 12월 31일에, 《민국 일보》(중앙 신문)는 1962년 7월 31일에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으며 남조선에서 굴지의 신문사인 《서울 신문》(괴뢰 정권 대변지)이나 《한국 일보》까지도 1962년 5월 15일 세금 체납으로 차압을 당하였다. 8월 1일에는 부산의 《민주 신보》가 폐간되였다.

《언론 정책》 발표 당시 남조선에는 《시설 기준》에 도달하는 통신사는 《합동》, 《동양》 통신 두개 뿐이고 신문사는 《조선 일보》, 《한국 일보》, 《동아 일보》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남조선의 대부분의 언론 기관들은 《시설 기준》 미달로 폐간되거나 강제 페합 당할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었다.

신문의 보급 정형을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 도시들에서는 전체 세대의 약 절반, 중소 도시에서는 69.9%, 읍에서는 64.3%, 면에서는 83.7%가 신문을 전혀 보지 못 하고 있다 (《한국 일보》 1962년 6월 25일).

통신사로서는 《합동》, 《동양》 《동화》통신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명 무실한 형편에 있으며 상기 3개 통신사도 현대적인 통신, 시설을 갖추지 못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소식을 대외에 전파하는 통신사로서의 기본 사명을 수행하지못하고 외국 통신들에 완전 압도 당하고 있다.

잡지사의 실정도 마찬가지인바 현재 《사상계》, 《한국 경제》, 《교육 평론》과 기타 도식화된 몇 개 대중 잡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못 하고 있으며 자금난 때문에 《출혈적인 상태를 벗지 못한채 휴업, 페업》하고 있다(《한국 일보》 1962년 8월 4일).

방송은 완전히 어용화되여 군사 《정권》의 선전 수단으로 리용 당하고 있다. 현재 남조선에는 서울 《중앙 방송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 지방 방송국들이 있으나 지방 방송국들은 사실상 보잘것 없는 락후한 상태에 있다. 기타 《문화 방송》, 《기독교 방송》 등 민영 방송이 있으나 이것들도 완전히 군사《정권》의 통제 하에 있다.

남조선 인민 투쟁

1962년에 남조선 인민들은 생존과 민주주의적 자유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미제와 군사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 없이 전개하였다.

미제와 군사 파쑈 무리들은 새생활과 새 제도를 갈망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말살하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식민지 통치 체계를 수습해 보려고 전례 없는 야수적 탄압과 파쑈 테로 통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미제와 군사 파쑈 분자들의 야수적 공세로 하여 남조선 인민 운동은 일정한 우여 곡절을 겪게 되였으나 인민들의 진출은 결코 말살될 수 없었다.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군사 《정권》의 반인민적이며 매국적인 정책의 강화는 남조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에 따라 남조선 인민 운동에서 그의 계급적 성격이 현저히 강화되였을 뿐만 아니라 미제와 그의 주구들을 반대 배격하는 인민 대중의 반제적

기분이 표면화되고 조국 통일에 대한 그들의 애국적 지향이 심화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도 남조선 인민 투쟁은 《군사 정변》 이전 시기와 같이 대중적 투쟁에로 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량적 장성과 함께 그의 요구와 투쟁 형태에 있어서 일련의 새로운 추세를 보여 주면서 부단히 강화 발전되였다.

남조선 출판물들에 보도된 불완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2년에 남조선 인민들은 1961년에 비하여 근 2배로 장성된 860 여 건의 각종 투쟁을 전개하였다. 요구 조건에 있어서도 정치적 요구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였으며 단순한 경제적 요구라 할지라도 그것이 더욱더 군사 《정권》의 략탈 정책을 반대하는 반《정부》적 성격을 농후하게 띠였다. 투쟁 형태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투쟁으로부터 점차 적극적인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인민들의 사소한 집단 행위까지도 혹독한 탄압을 받는 군사 파쑈 통치 하에서 1962년에 100 여 건에 달하는 롱성 파업 등 적극적 형태의 투쟁이 전개되였는바 이는 《군사 정변》 후 동년 말까지의 적극적 투쟁 건수의 2배 이상에 달한다.

종전의 남조선 인민 투쟁은 주로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각 계층 인민들의 광범한 진출이였다면 《군사 정변》 이후 시기 특히 1962년에는 남조선 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압박 받고 착취 받는 로동자, 농민, 도시 빈민들의 투쟁이 비교적 활발한 추세를 보이면서 급속히 장성 발전하였다.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 쟁

미제와 군사 파쑈 분자들의 략탈 정책으로 말미암아 《군사 정변》 후 남조선 인민들의 경제적 처지는 류례 없이 악화되였으며 군사 파쑈 통치의 폭압 속에서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마저도 완전히 말살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1962년에도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군사 《정권》에 의하여 더욱 악화된 민생고와 폭압을 반대하여 계속 투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남조선 인민 투쟁에서 극심한 민생고와 관련하여 생활 조건의 개선을 위한 경제적 투쟁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투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경제 투쟁에 국한하지 않고 다수 경우에 있어서 군사 《정권》의 경제 시책을 반대하여 나섰다.

남조선 로동자들은 1962년에 파쑈 정권의 임금 동결 조치와 임금 삭감 및 소위 《경영 합리화》에 의한 대량 해고 등의 반동적 시책을 반대하며 실업에 대한 대책과 체불 임금의 지불, 임금 인상, 단체 협약 체결, 8시간 로동제의 실시, 로조 활동의 자유 등을 요구하여 부단히 진출하였다.

불완전한 집계에 의하더라도 1962년에 남조선 로동자들은 이러한 당면한 생활상 요구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하여 시위, 파업, 롱성 투쟁을 비롯한 218건의 각종 투쟁을 전개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에서도 그들의 절박한 생활상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바 그들의 경제적 요구의 80% 이상은 군사《정권》의 《임금 동결령》과 해고를 반대하고 체불 임금의 지불, 취업 보장, 퇴직금 및 수당금의 지불,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였다.

로동자들의 투쟁에 있어서는 규모가 비교적 큰 산업 부문 로동자들의 진출이 강화되였다.

1962년에 전체 로동자들의 투쟁 중에서 종업원 100~500 명까지의 기업체 로동자들의 투쟁이 약 30%, 500명 이상 기업체 로동자들의 투쟁이 14%를 차지하였다.

특히 종전부터 비교적 완강하게 투쟁하여 온 부두 하역 및 토건 부문 로동자들과 함께 광업, 철도, 화학 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장성 강화되였다.

1962년에 로동자들의 투쟁은 전년에 비하여 량적으로 뿐만 아니라 투쟁 형태와 요구 조건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띠면서 끊임 없이 발전하였다.

불충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2년에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에서 파업, 롱성 등 적극적 형태의 투쟁은 30 여 건에 달하였다.

1962년 3월과 5, 6월에 걸쳐 충청북도의 《동창 광업소》, 경기도의 《신흥 광산》, 강원 탄광 로동자들이 임금 체불과 중간 착취를 반대하며 《로조》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단행한 롱성, 파업 투쟁은 매우 완강하고 조직적으로 전개되였으며 끝내 요구의 일부를 관철하였다. 또한 《한국 전력 회사》 로동자들도 1961년 12월부터 6개월 간이나 《근로 조건의 개선》, 《8시간 로동제의 실시》, 《부당 해고의 금지》 등을 요구하여 완강히 투쟁함으로써 《단체 협약》 요구를 관철하였다.

《삼화 제철 공업 회사》 로동자 300 여명과 그의 가족 1,000여 명은 그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출동한 괴뢰 경찰과 충돌하면서 4, 6, 9월에 반복하여 임금 체불, 장시간 로동과 강제 해고 및 《로조》 활동의 탄압을 반대하여 단식 투쟁을 배합한 롱성 및 파업 투쟁을 단행하였다.

1962년에 군사 《정권》을 직접 상대로 하여 전개한 로동자들의 투쟁은 총 투쟁 건수의 34%에 달하며 여기에 군사 《정권》 직할이나 다름 없는 《국토 건설장》 로동자들의 투쟁까지 합하면 근 41%나 된다 (1960년에 괴뢰 정권을 상대로 한 투쟁은 22.2% 였다).

경제적 요구와 함께 《로조》 활동의 자유, 어용 《로조》 간부의 배척, 8시간 로동제의 실시, 《단체 협약》의 체결 등 민주주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적지 않게 전개되였다.

1962년 3월 《광주 심양 뻐스 회사》 종업원들이 8시간 로동제의 실시와 《단체 협약》 체결을 요구

하여 투쟁한 데 뒤 이어 5월에는 《한국 려객 주식 회사》 로동자들이 《로조》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투쟁하였으며 6월에는 《단체 협약》의 체결을 요구하여 투쟁을 전개하였다.

남조선 농민들은 토지의 경작권 박탈과 각종 수탈을 반대하며 토지의 재 분배와 제반 영농 조건의 보장, 생활 조건의 개선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여 1962년에 157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민들의 투쟁에서도 빈농과 고농을 비롯한 농촌의 최하층 농민 대중의 진출 기세가 고조되였다.

1962년에 농민 투쟁에서는 토지 수탈을 비롯하여 미곡 강매, 농산물 가격의 동결, 비료 및 공업품 가격의 인상, 세금 인상 등 군사 《정권》의 각종 략탈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 총 투쟁 건수의 근 50%를 차지하였다. 반《정부》적 성격을 내포한 이러한 경제적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소극적인 투쟁으로부터 점차 시위, 롱성 등의 적극적 투쟁으로 발전 되여 갔다. 4월 8일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기리 내 300여 명 농민은 《지역 사회 · 개발》 이라는 미명하에 감행하는 군사 파쑈 도당의 토지 수탈을 반대하여 공사 현장에서 롱성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경상남도 창원군 웅남면 귀곡리 농민 180여 명이 군사 《정권》과 결탁한 지주의 《림야 개간》을 구실로 한 토지 수탈을 반대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경기도 안성군의 미양면과 대덕면의 농민들은 《쓰지도 않은 물값》을 안낸다고 강제 차압을 하려고 달려든 40 여명의 괴뢰 경찰과 대항하여 《그 따위 수세는 물 수 없다》고 하면서 롱성 투쟁을 전개 하였다.

남조선 농민 운동에서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아직 높은 정치적 요구와 밀접히 결합되여 전개되지 못 한 본질적인 약점이 있기는 하나 1962년에 더욱 장성되였다.

1962년 4월 전라남도 령광군 내 소작인들이 지주의 토지를 분배할 것을 요구하여 투쟁한 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지방들에서 토지 분배를 요구하는 투쟁이 전개되였다.

토지에 대한 남조선 농민들의 요구는 그들의 투쟁 구호에도 잘 반영되고 있는바 종래의 막연한 구호 대신 《소작제를 자작제로 개혁 하라》, 《1가구당 1정보 이상 차례지게 토지를 달라》, 《실제적으로 경자 유전 (耕者有田)이 되게 하라》 등 구체적 투쟁 구호를 들고 지주 토지와 《국유지》의 분배를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군사 정변》 직후부터 군사 《정권》의 파쑈적 폭압에 항거하여 나선 청년 학생들은 군사 《정권》의 파쑈 독재가 더욱 강화되고 그의 매국 배족 행위가 일층 로골화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출을 하게 되였다.

남조선 학생들은 학원의 모리 장화와 《대학 정비령》에 의한 대학의 강제 폐쇄 및 《학사 고시제》를 반대하여, 공납금의 인하와 잡부금의 철폐, 교육 시설의 확장 등 수학 조건의 개선과 졸업 후 취업의 보장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군사 정변》 후 학생들의 투쟁은 량적으로는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 건수 보다 적다할지라도 투쟁 형태에 있어서 적극적이였고 요구 조건에 있어서도 강한 정치성을 띠였다.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4.19 2주년 기념 집회가 괴뢰 경찰들에 의하여 저지 당하였으나 그중 일부는 군사 《정권》을 반대 비난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랑독하고 4월 인민 봉기 당시의 코스를 따라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4.19 기념식에서 학생 대표는 《부정과 독재와 싸운 신념과 정의감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며 또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라는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일본 《엔에취 케이》 방송 1962년 4월 19일).

학생들의 반 《정부》 투쟁은 군사 《정권》의 반동적 교육 시책을 반대하는 데서 뚜렷이 표면화되였다.

즉 1961년 9월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과 《부산 대학교》 문리과 대학 및 법과 대학 학생들을 비롯한 기타 일련의 대학 · 학생들의 투쟁으로 남조선의 광범한 사회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대학 정비령》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투쟁은 1962년에 들어 서면서 더욱 적극적인 투쟁으로 발전되였다.

실례로 2월 《전북 대학교》, 《전남 대학교》 들에서는 각각 농과 대학과 공과 대학 폐쇄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4월 4일에는 《동양 의대》 학생 200명과 《덕성 녀대》 학생들이 《대학 정비령 》을 반대하여 동맹 휴학을 단행했고 12월 초에는 전북 문리과 대학생들이 기본학과의 강제 폐쇄를 반대하여 군사 《정권》 당국에 항의문을 들이댄 것 등 많은 대학들에서 롱성 및 동맹 휴학 등이 단행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졸업 후의 취업과 사회 진출을 억제하려는 《학사 고시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10월 8일과 12일에 《서울 대학교》와 《연세 대학교》를 비롯한 시내의 14개의 대학 학생들은 삼엄한 《계엄령》하의 《집회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련일 집회, 학생 대표회를 열고 군사 《정권》 당국에 《학사 고시제》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건국 대학교》 학생 100 여 명은 10월 25일 《파고다》 공원에 모여 《학사 고시제 반대 토론 대회》를 공개적으로 진행한 후 그의 철폐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날의 《학사 고시제》 반대 투쟁에서 체포 구금된 동료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학사 고시제》를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이러한 투쟁은 부산, 마산, 광주, 대전, 제주 등 각 지방 대학들을 휩쓸었다.

남조선 지식인들은 군사 《정권》에 대한 종래의 무언의 반항 태도로부터 점차 공개적인 투쟁 기세를 보여 주면서 파쑈적 교육 문화 정책 특히는 언론 탄압 정책과 장기 집권 책동을 반대하고 군사 파쑈 통치의 철폐를 요구하여 나섰다. 남조선을 방문하였던 극동 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미국의 한 평론가는 남조선 지식인들 중 현 군사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 《5명에 1명도 없》으며 만약 1963년도 이후까지 장기 집권을 한다면 《100명에 한 사람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론평하였다.

《군사 정변》후 생활 처지가 급속히 악화된 소상인, 수공업자 및 도시 빈민들도 종전의 관망적인 태도를 버리고 군사《정권》의 수탈 정책과 그의 제반 파쑈적 시책을 반대하는 투쟁에 점차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군사 《정권》의 로점과 판자'집의 강제 철거에 의하여 《일시에 생업을 잃고》《알 몸둥이로》 거리에 내쫓기게 되는 도시 빈민들과 소상인들은 이를 반대하여 대부분의 경우에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1962년 11월 26일과 27일 서울 보문동과 홍제동 주민들은 판자'집 강제 철거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는바 강제 철거 당한 198세대의 홍제동 내 주민들은 판'자집 철거를 감행하려고 동원된 《경관》들과 일대 충돌을 일으켜 7명의 《경관》과 《구청》 직원에게 부상을 입혔다. 2월에 대구시 서문시장 내의 1천 여 명의 로점 상인들은 《로점 철거 반대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고 투쟁 기금까지 모집하여가면서 싸웠다. 또한 도시 빈민과 소상인들은 군사 《정권》의 세금 수탈과 영업 활동에 대한 각종 제한을 반대하며 극 빈자에 대한 《항구적》인 구제 대책을 요구하여 진출하였다.

남조선의 대다수 민족 부르죠아지들도 영업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군사 《정권》의 파쑈적이며 매국적인 경제 시책을 반대하여 진출하였다. 그들은 군사 《정권》의 《통제 경제 정책》과 그의 수탈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외국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려는 군사 파쑈 도당의 매국 정책과 국내 예속 자본의 압박과 예속을 반대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군사《정권》에 항의하였다.

군사《정권》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불만과 배격 기세는 군사 파쑈 도당의 장기 집권 책동과 관련하여 더욱 표면화되였으며 그들이 소위 《개헌안》을 조작하게 되자 일층 심화되였다.

남조선의 거의 모든 출판물들이 《개헌안》을 반대하여 나섰는바 《동아 일보》는 이를 《정말 죽도 밥도 아닌》《누구에게도 정권을 맡기지 않으려》는 《개헌안》이라고 하면서 그 본질을 폭로하였으며 인민들은 《개헌안》의 《불순한 동기와 저의》(《한국 일보》 1962년 11월 27일)를 규탄하면서 그를 가리켜 《형사 소송법》이라고 락인하였다 (《한국 일보》 1962년 11월 24일). 인민들은 《헌법 개정안》을 민의로 가장하기 위한 《국민 투표》에 대한 군사 파쑈 분자들의 선전 책동을 공공연히 반대하여 나섰으며 《투표》에서 반대와 기권 또는 무효표 등으로 대항하여 나섰다. 례컨대 서울시 룡산구 또는 서대문구 내 《유권자》들은 그의 근 60%가 《투표》에서 기권, 반대, 무효표 등으로 《국민 투표》놀음을 반대하였으며 경기도 강화군 내 일부 지방에서는 유권자들의 76% 이상이 《개헌안》을 반대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2년에 남조선 인민들은 군사《정권》의 파쑈 폭압하에서도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끊임 없이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들의 투쟁은 보다 광범한 대중을 포괄하면서 군사 《정권》의 경제 시책을 비롯한 제반 정책을 반대하는 데로 발전하였다.

미제를 반대하며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과 군사 파쑈 통치배의 매국 배족 행위의 강화는 미 제국주의자들을 일방으로 하고 남조선 인민을 타방으로 하는 량자 간의 민족적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켰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을 일층 격화시켰다. 특히 남조선 주민들에 대한 미제 침략자들의 날로 우심해가는 천인 공노할 학살 만행과 민족적 모욕 행위는 미제 야수들에 대한 남조선 인민의 민족적 격분을 불러 일으켜 마침내 반미 운동 형태로 발전하게 되였다.

1962년 1월 6일 경기도 파주군 내에서 산에 나무하려간 40명의 주민에 대한 미제 야수들의 발포 만행 사건과 5월 29일 《파주 린치 사건》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감정은 완전히 대중적 성격을 띠고 표면화되였다.

거의 모든 남조선 출판물이 미군의 만행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퍼부었는바 《국제 신보》 1962년 3월 8일 사설은 《우리 민족은 미군의 학대를 이 이상 더 참아야 하는가?》라는 표제하에 《신판 나치스의 행위를 방불케 하는 미군 만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하였으며 《민국 일보》(1962년 6월 7일)는 《주한 미군 린치 사건 백서》를 발표하여 1960년 이래의 미군 만행을 력사적으로 폭로하였고, 《경향 신문》은 《인권은 운다》라는 표제하에 1950년 6월 25일 이후 미군이 감행한 만행을 체계적으로 폭로하는 글을 싣고 그의 근절을 요구하였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은 미군 야수들의 살인 만행과 《린치》 사건을 계기로 공개적인 반대 투쟁에 궐기하였다. 6월 6일 《고려 대학교》 2천 여 명의 학생들은 미군의 만행과 민족적 멸시를 반대하여 대중적인 반미 시위를 단행

하였으며 이에 호응하여 6월 8일에는 《서울 대학교》문리과 대학 및 법과 대학 학생 2천 여명이, 6월 9일에는 《대구 대학》 학생 300여 명이 미군의 학살 만행을 규탄하는 반미 시위를 단행하였다. 학생들은 군사 파쑈 도당의 삼엄한 《계엄령》과 가혹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인간이다!》, 《가해자 미군을 엄단하라!》, 《미국 대사 태려 오라!》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가두 시위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련좌 시위를 단행하였다.

학생들의 반미 시위는 그들의 구호와 《결의문》, 《선언문》 등에서 명확히 반영되고 있는 바와 같이 미제 침략군의 학살 만행과 민족적 멸시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울적된 분노의 폭발이였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민족적 자각과 그들의 애국적 투쟁의 발현으로서 광범한 사회계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학생들의 투쟁과 이에 대한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과 사회계의 지지는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들로 하여금 남조선에서 축적되고 있는 반미 세력의 거대한 잠재적 력량에 심각한 공포를 느끼게 하였으며 반면에 인민들에게는 커다란 신심을 부여하였다.

학생들의 반미 시위를 계기로 남조선 각계 각층 인민들 속에서 반미 감정이 더욱 심화되였으며 미제 침략자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투쟁이 각 곳에서 일어났다.

남조선 로동자들 특히는 미군 부대 및 미군 기관 기업체에 고용되고 있는 로동자들은 미제 침략자의 민족적 멸시와 박해를 반대하여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일련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1962년 4월 미군 관하 기업체인 《인천 유류 보급창》 로동자들과 서울에 있는 《유엔 경비 공사》의 경비원들이 《임금 인상》과 《체불 임금》의 즉시 지불을 요구하며 혹사를 반대하여 투쟁한 것을 비롯하여 각지의 미군 부대 및 미군 기관 로동자들이 진행한 투쟁은 비교적 큰 것만 하여도 1962년도에 13건에 달하였다.

특히 60여명의 로동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를 반대하여 4일간이나 롱성 투쟁을 전개한 바 있었던 미국인 기업체 《맥파든 회사》 로동자들은 9월에 또다시 《파외 수당》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가족들과 함께 미국인 《사장》 집에 몰려가 가장집물을 파괴하는 등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농민들 역시 미군의 학살 만행을 항의하며 징발 토지 반환 및 지가 보상을 요구하여 투쟁하였다. 영국 잡지 《이스턴 월드》 (1962년 12월호)지 까지도 남조선 농민들이 《파멸과 불행을 가져다 준 책임이 미국인들에게 있다고 하면서 미국인들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있다고 썼다.

남조선 중소 기업가들은 미국 잉여 상품의 대량 침투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미제의 략탈적 《원조》 정책에 대한 비난의 소리도 높아 가고 있다. 《한국 일보》 (1962년 8월 10일, 10월 12일)는 미국의 《원조》가 빚어낸 남조선 경제의 파탄상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들여 오게 된 것이라기 보다는 미국의 원조가 그것을 반 (半) 강제하다 싶이 했으므로 부득히 그것을 들여 올 수 밖에 없었다. 지금에 와서는 섭사리 그 외존 상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든 것은 미국측이 아니였던가 반문하고 싶다》고 썼으며 《경향 신문》 (1962년 7월 10일)은 미제의 《원조》 정책이 《어떠한 효과를 한국 경제의 구조상 개선에 실현했느냐에 대하여 우선 의구를 갖》게 한다고 비난하였다.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비등되고 있는 반미 기세에 대하여 서방 출판물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바 영국의 아세아 문제 전문 잡지 《이스턴 월드》는 1962년 12월호에 게재한 《남조선에 드리운 그림자》라는 표제의 편집부 론설에서 《남조선에서의 파국적 사태는 남조선 인민들로 하여금 근본적인 변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형식상으로 집권하고 있는 현 정부를 꺼꾸러 뜨리는 것으로써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대한 외국 군대의 점령 제도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고 있》으며 《수년 전의 <반미 감정>은 이제 와서는 명백히 <반미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쓰고 있다. 동 잡지에 의하면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은 수 많은 위협 편지를 날마다 받고 있으며 매달 20~30명의 미국인들이 남조선 인민들에 의하여 살해 또는 부상당하고 있으며 1962년 10월 초에 광주 지방에서는 3일 간의 무장 충돌까지 일어났다. 이 무장 충돌 사건은 군사 파쑈 도당의 《행정적 조치》를 반대하여 일어났으나 《최근 아주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 처럼 인민들의 분격은 미국인들에게 돌려졌》으며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지방 경찰이 이 충돌을 무장 충돌로 전변시킨 인민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다》라고 동 잡지는 지적하였다.

남조선에서 고조되고 있는 인민들의 이러한 반미 투쟁 기세와 함께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조종하에 군사 파쑈 도당과 결탁하여 남조선에 기여 들려는 일제의 재침 책동을 반대 규탄하였다.

남조선의 《동아 일보》 (1962년 9월 7일)는 《경제 협조》라는 미명하에 남조선에 기여 들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우리는 여하한 압력과 우리 경제 사정이 곤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권과 명예를 문'자 그대로 사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경향 신문》 (1962년 10월 3일)은 소위 《일본 방위 주재관》을 남조선에 파견하려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을 반대하여 남조선 학생들도 진출하였다.

10월 23일 《고려 대학교》 학생들은 군사 《정권》의 초청으로 남조선에 기여들어 일본의 재침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일본 교수 다나까라는 자의 강연을 반대하

여 그의 강연 도중 일대 소동을 일으켰으며 10월 27일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그가 류숙하고 있는 《호텔》에 몰려가 그의 파렴치한 강연에 대한 항의문을 제출하고 롱성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사죄문》 까지 받아 냈다.

《한일 회담》과 관련하여 한 서울 시민은 《경향 신문》 에 보낸 투고에서 《우리는 그 가증한 간계를 이 이상 받아 들일 수 없다 …조장된 일인들의 교만을 용서하지 말자<경제 협력> 이니<대한 채관>이니 하는 말도 듣기 싫다.

반세기에 걸친 침략의 소행을 조선 민족은 잊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일 감정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념원하는 그들의 날로 높아 가는 열망과 밀접히 결부되여 있다.

미제는 남조선 인민들의 조국 통일 기운을 말살하려고 군사《정권》을 조작한 후 전대미문의 파쑈 폭압을 가하였으나 인민들의 가슴 속에 불타기 시작한 조국 통일에 대한 열망을 말살할 수는 없었다.

남조선의 한 대학생은 《통일 문제는 비단 우리 대학생층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국민의 고민이며 전국 인민은 한시 바삐 남북이 통일되길 열망하고 있다》 (《사상계》 1962년 4호) 고 썼다.

1962년 5월에 《한국 일보》사가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당장 해결을 요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 것이 《남북 통일》이였는바 이는 《실업자 구제》와 《민생고 해결》 보다도 1.6배나 더 많았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 조선 신문》 1962년 6월 19일).

조국 통일에 대한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에 고무되여 부단히 강화 발전되고 있으며 조국 통일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조국 통일 방안에 의거하는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깨닫고 있다.

4월 봉기에 참가한바 있는 한 학생은 《통치배들은 공산주의자를 배격하고 있으나 같은 선조의 피를 나눈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상론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라고 하였다 (《조선 일보》 1962년 4월 27일).

조선 로동당의 조국 통일 방안이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 광범한 호응을 받고 있는 데 대하여 지어 미국 잡지 《만슬리 레뷰》 (1963년 1호) 까지도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군사 《정권》 의 구호가 아니라 《북조선의 구호 <미 제국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나라를 통일하자!> 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962년도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군사 《정권》의 파쑈 폭압으로 말미암아 일정한 장애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할지라도 일련의 새로운 특징적 현상들을 배태하면서 보다 심각한 정치성과 계급성을 띠고 부단히 심화 발전되였으며 그 어떠한 파쑈 폭압도 생존과 민주주의적 권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재일 조선 공민

재일 조선 공민들의 력사적 지위

현재 일본에는 60 여 만의 재일 조선 공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 일제 식민지 통치자들에 의하여 강제 로동에 끌려 갔거나 또는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하에서 살'길을 잃고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류랑한 사람들이다.

우리 동포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우리 나라를 완전히 강점한 1910년 이후 시기부터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 략탈과 대륙 침략 정책의 강화에 따라 일본으로 끌려가는 조선인들의 수는 증가되였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식민지 초과 리윤을 짜내기 위하여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한 농민들의 토지 강탈을 비롯하여 각종의 강도적 략탈과 착취의 방법으로 조선 인민의 생존 수단을 박탈하였다. 생활 방도를 잃은 조선 사람들은 일본 독점 자본의 상시적인 값싼 로동력의 원천으로 되였다.

한편 일제는 제 1 차 세계 대전 시기 (1914~1918)에 급격히 팽창하면서 로동력의 부족을 겪게 되자 본국에서의 로동력 부족의 타개와 저 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시 살'길을 잃고 헤매는 수 많은 조선 동포들을 일본으로 끌어 갔다. 일본 《내무성 경보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04년에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 229명에 불과하였는데 1920년에는 3만 여 명으로 증가되였다.

일제는 1920년대 이후 특히 대륙 침략과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전시 로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에 《전시 징용 제도》를 실시하고 수 많은 남녀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하여 전선 로무자로 투입하였거나 일본으로 끌어간는바 그 수는 무려 334만 여 명에 달하였다.

일제는 이와같이 끌고간 조선 사람들을 례외없이 탄광, 광산 등 가장 힘들고 고된 로동 부문에 투입하였다. 일본의 공식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로동 재해가 가장 심하던 일본 탄광들에서만 하여도 노예 로동을 강요당한 조선인

로무자들의 수는 40만 명에 달하였다.

일제는 강제로 끌고간 조선 사람들을 문'자 그대로 우마와 같이 혹사하면서도 그들에게 최저 생활비 마저 보장하지 않았으며 갖은 민족적 멸시와 학대를 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수 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서 고역에 지치고 빈궁에 시달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일제는 조선 사람들에 대한 대량 학살 사건을 수차에 걸쳐 조직하였다.

1923년 9월 《관동 대 지진》 때에만 하여도 일제에 의하여 6천여 명의 재일 조선인들이 일본 각지에서 집단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무참히 학살 당하였다.

또한 일제는 군수 공장 건설과 군사 기지 건설 공사 등에 동원되였던 재일 조선인들을 《비밀 보장》이란 구실 하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학살 하였는바 이러한 사건은 부지기수이다.

오늘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인들은 바로 일제의 이러한 악독한 민족적 멸시와 학대 속에서 간신히 생명을 부지한 사람들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으로 조선이 해방되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재일 조선 공민들은 당당한 독립 국가의 공민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은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서 공인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받아야 하며 일본 정부는 과거 일제가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끼친 그 죄악에 비추어 그리고 국제법의 제 원칙과 관례에 따라 응당 재일 조선 공민들에게 외국인으로서의 모든 합법적 권리와 대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재일 조선 공민들의 처지는 조선이 해방된 후에도 개변되지 못하였다. 재일 조선 공민들은 국제법에 규정된 외국인으로서의 응당한 대우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민족적 멸시와 박해, 빈궁과 무권리 속에서 불안정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을 법적 보호 밖에 두고 있으며 그들에게 취업의 권리, 완전한 민족 교육의 권리, 조국에로의 자유로운 래왕의 권리 기타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일본 당국은 해방 후 1949년 9월에 재일 조선 공민들이 자기들의 민주주의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던 재일 조선인 련맹과 재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을 강제 해산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비법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또한 재일 조선 공민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조국의 력사 지리 등을 배워주기 위하여 설립한 각급 조선 학교들을 1948년 4월 《교육 탄압 사건》을 도발한 후 강제 페쇄하였다. 또한 일본 당국은 1947년 5월에 《외국인 등록령》을 발표하고 재일 조선 공민들을 탄압하였으며 그후 수차에 걸쳐 《외국인 등록 갱신》을 실시하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국적을 남조선 괴뢰 《국적》으로 변경시키려는 부당한 행위를 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당국은 재일 조선 공민들로부터 광산권 및 선박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부당한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재일 조선 공민들의 생활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일본 정부는 미제의 지시 하에 《한일 회담》을 벌려 놓고 소위 《재일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를 운운하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의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며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선별》함으로써 더욱 박해를 가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배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자기의 고상한 동포애적 의무로 간주하고 그들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돌려 왔다.

공화국 정부는 1962년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에 대한 일본 당국의 비법적인 박해와 탄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재일 조선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며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을 훌륭한 일'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거대한 관심을 돌렸다.

공화국 정부는 현행 귀국 협정이 1962년 11월 12일에 만료되는 것을 계기로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사업을 파탄시키려던 일본 정부의 부당한 책동을 폭로 분쇄하고 귀국 협정의 기한을 1년간 무수정 연장시켜 재일 조선 공민들로 하여금 계속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장하여 주었다.

또한 공화국 정부는 《한일 회담》에서 소위 《재일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를 운운하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의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려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책동을 반대하고 그들에게 국제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으로서의 대우를 하며 조국으로의 래왕의 자유를 포함한 온갖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완전히 보장할 것을 시종 일관 강력히 주장하였다.

공화국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원조하기 위하여 1963년 3월 16일 4억 144만 원 (일본 화페)을 보내주었다. 이리하여 공화국 정부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자녀 교육을 위하여 1957년부터 1963년 3월까지에 보내준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의 총액은 11차례에 걸쳐 25억 332만 여 원(일본 화페) 에 달한다.

또한 공화국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과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애국적인 사업을 조국 인민들과 같이 높이 평가하여 주었다.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1962년 3월 26일 정령과 9월 7일 정령으로서 8명의 조선 대학 교직원들과 186명의 재 일본 조선인 총 련합회 간부들에게 국기 훈장과 공로 메달을 수여하였다. 이 외에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는 총련의 각급 단체 간부들 425명에게 표창장을, 총련 산하 각 단일 단체 간부들과 조선 학교 후원 단체 일'군들 5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였으며 공화국 고등 교육상은 조선 대학 교직원들과 최우등 졸업생들에게 표창장과 상을, 보통 교육상은 64명의 조선 학교 모범 교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공화국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는 16명의 재일 조선 기자들을 조선 기자 동맹에 가입시켰으며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는 모범적인 재일 조선 청년들에게 《영예 등록》 표창장과 《모범 휘장》을 수여하였고 조선 체육 지도 위원회는 1962년 12월 19일 2명의 재일 조선 체육인들에게 공화국 《체육 명수》 칭호를 수여하였다.

이외에도 공화국 정부는 재일 동포들의 문화 예술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수차에 걸쳐 영화 필림들과 각종 악기들과 각본, 시적들을 보내 주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동포애적 시책과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1962년에도 재일 조선 공민들의 공화국으로의 귀국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였다.

1962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기간에 16 차에 걸쳐 3,479명의 재일 조선 공민들이 자기들의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 귀국하였다. 이리하여 1959년 12월 16일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사업이 시작된 이후 1962년 말까지의 기간에 101차에 걸쳐 총 7만 8,275명의 재일 동포들이 귀국하였다. 그들 중 남자는 4만 1,883명이며 녀자는 3만 6,392명이다. 귀국자들의 95.5%는 남조선 출신이며 귀국자들 중에는 2,394명의 일본인도 포함되여 있다.

공화국 정부는 귀국 동포들에게 그들의 희망과 기술 기능에 따라 공장, 기업소, 협동 농장들과 과학 문화 기관 등에 새 일터를 마련하여 주었으며 과학자들에게는 과학 연구 시설까지 갖추어 주었다.

귀국 동포들은 2만 1천 여호의 현대적인 새 문화 주택을 받았으며 귀국자들의 3분의 1 이상 (37.9%)이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에서 국가로부터 의복, 학용품을 공급 받으며 대학생들은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무료로 공부하고 있다. 또한 귀국자들은 무상 치료를 포함한 광범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바 로력할 수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년로자 492명은 양로원에서 국가 비용으로 부양을 받고 있다.

귀국 동포들은 인민 정권 기관, 사회 단체 그리고 경제, 문화, 보건 기관, 공장, 기업소, 농촌 등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되고 있다.

1962년 10월 8일에 진행된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3명의 귀국 동포들이 영예로운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그리고 약 300명에 달하는 귀국 동포들이 중공업, 경공업 등 각 부문의 책임적 지위에서 사업하고 있으며 기타 많은 귀국 동포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자기들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있다.

귀국자들중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미 8천명에 달하는 귀국 동포들이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궐기하였으며 그중 1,600 여 명이 천리마 작업반원으로 되였다.

또한 귀국 동포들 속에서는 발명, 창의 고안 운동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미 890 여 명의 귀국 동포들이 새로운 기술 혁신안을 내놓았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는 1962년 12월 29일 조국의 륭성 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에서 높은 정치적 열성과 로력적 성과를 올리고 있는 귀국 동포들에게 공화국 훈장과 메달을(국기 훈장 제 1급 2명, 국기 훈장 제 2급 19명, 국기 훈장 제 3급 165명, 공로 메달 707명) 수여하였으며 25명에게는 내각 수상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이리하여 1962년까지 국가 표창장을 받은 귀국자들의 총 수는 국기 훈장 제 1급 3명, 국기 훈장 제 2급 22명, 국기 훈장 제 3급 190명, 공로 메달 942명, 내각 수상 표창자가 36명에 달한다.

자주적 조국 통일과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

재 일본 조선인 총 련합회는 김 일성 수상이 신년사에서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총련 조직을 더욱 확대 공고화하며 조국 앞에 지닌 자기들의 애국적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62년도에 반미 구국 통일 전선과 민족 단합 사업, 학생 수의 증가와 문맹 퇴치 사업, 조선 신보의 독자 증가 사업, 학습 사업, 미 조직 지대의 조직, 조국과의 무역 및 래왕의 실현 등 여섯개 중요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련과 각 단일 단체들은 년초에 각 지역별로 활동가 회의를 소집하고 실천적 투쟁에로 전체 재일 동포들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5월에 있은 총련 중앙 위원회 제 29차 확대 회의는 총련의 조직 사상 사업을 개선 강화하고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여섯개 중요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총련 중앙은 오사까와 아이찌현의 총련 단체들에 대한 집중 지

도 사업을 비롯하여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으로 하부 단체들에 대한 지도 사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총련의 전체 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은 조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과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끊임 없는 배려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반미 구국 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여섯개 중요 과업을 비롯한 제반 애국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 투쟁을 통하여 총련은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확대 강화되고 그 위신은 제고되였으며 재일 조선 공민들은 그 어느때 보다도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되였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여섯개 중요 과업 수행을 위한 투쟁】

반미 구국 투쟁과 민족 단합 사업— 1962년에 전체 재일 조선 공민들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화국 정부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미제와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일층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하였으며 반미 구국 투쟁에 전체 재일 조선 공민들의 단합된 력량을 동원하기 위하여 민족 단합 사업을 광범히 추진시켰다.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의 제의와 호소 그리고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의 강령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소 집회들이 무수히 진행되고 광범한 선전 활동이 전개되였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촉진을 위한 재일 조선 공민들의 각종 군중 집회는 1962년 1월～10월 간에만도 일본 전국에서 5,764회에 걸쳐 진행되였으며 이에는 연 90여 만명이 참가하였다. 군중 대회들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범죄적인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였다.

1962년에 재일 조선 공민들이 전개한 반미 구국 투쟁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투쟁이였다. 1962년 1월 16일 범죄적인 《한일 회담》이 재개된 것과 관련하여 이날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회담》의 즉시 중지를 요구하였으며 서울과 도꾜에 기여든 미 국무성 극동 문제 담당 차관보 해리맨, 대통령 특별 고문 등의 조종 하에 도꾜에서 벌려놓은 소위 제 1 차 《외상급 정치 회담》 (3월 12～17일)을 반대 배격하여 3월 17일 도꾜 (1만 여명 조선 동포 참가)를 비롯하여 일본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군중 집회와 시위를 단행하였다. 특히 1962년 10월 도꾜에서 미제의 조종 하에 일제와 괴뢰 도당 간에 《한일 회담》의 중심 문제인 《재산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려고 책동하자 재일 조선 공민들은 이를 결정적으로 배격하여 10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기간에 7차에 걸쳐 통일 행동을 일본 각지에서 전국적 규모로 전개하였으며 12월 중순부터는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한 12월 13 일부 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는 군중 집회와 대회들이 일본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총련은 재일 동포들의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가리지 않고 민족적 과업인 조국 통일에 그들을 조직 동원하기 위하여 미제를 반대하는 일체 애국 력량을 단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켰다. 총련 일'군들은 민족 단합을 위하여 《민단》 기관들과 《민단 단원》들에 대한 접촉과 해설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특히 조국의 평화적 통일 촉진을 위한 군중 집회들과 범죄적인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수다한 집회들과 통일 행동을 통하여 《민단 단원》들과 중립층 인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62년에 일본 각지에서 《민단》 및 중립적 인사들과의 민족 단합을 위한 간담회와 공동 모임들이 수백회나 조직되였으며 문화인, 과학자, 지식인, 상공인, 등 각 계층에서의 단합 모임들이 추진되였다.

민족 단합 사업은 특히 하층 조직들에서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 결과 재일 동포들 속에서 동포애에 립각한 민족적 단합이 광범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견을 달리하던 일부 재일 동포들까지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에 대한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방안을 지지하고 총련의 민족 단합과 반미 구국 통일 전선 사업에 공명하면서 반미 구국 투쟁에 나서고 있다.

학생 수의 증가와 문맹 퇴치 사업— 재일 조선 공민의 자녀들을 공화국의 청 소년으로서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하며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재일 동포들의 자녀들을 조선인 학교에 인입하여 이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교육 교양하는 사업은 큰 의의를 가진다. 특히 민족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재일 동포들의 자녀가 10 여만에 달하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더우기 그러하다.

1962년에 총련 일'군들과 열성자들이 학생 인입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한 결과 하기 학교에 5천 여명의 학생들이 망라되였으며 2학기부터 354개의 오후 야간 학교(학교 시설이 없는 곳에서 하루 몇시간씩 우리 나라 말과 글 및 력사를 배워 준다) 에 7천 여명의 아동들이 망라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 10월 30일 현재 조선 대학을 비롯한 총련 산하 531개의 각급 학교들에서는 4만 2천 여명의 학생들이 민주주의적 민족 교육을 받고 있으며 수 많은 민족 간부들이 양성되고 있다.

학생들은 공화국의 청 소년으로서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두다 조국과 인민을 위

한 민음직한 일'군이 되기 위하여 자체를 준비하며 학업 성과를 부단히 높이고 있다.

학교들에서 우등, 최우등 70% 쟁취 운동이 광범히 전개되였으며 많은 학교들에서 우등. 최우등생 대렬은 70% 이상에 달하였다.

학생들 속에서는 《모범 학급》 및 《모범 소년단 분단》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바 1962년 8월 현재 이 운동에는 209개 학급 9,279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다.

여름 방학 기간에 1천 여명의 학생들이 《하기 문화 공작대》로서 대중 속에서 활동하였으며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조선 대학 학생들은 자체의 손으로 기숙사를 건설하였으며 많은 고급 학교 학생들이 운동장 정지 사업을 하였다.

교원들은 자체의 정치 사상성과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모범 교원 집단》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는바 이에는 1962년 8월 현재 133개 교원 집단의 547명의 교원이 참가하고 있다.

학교 운영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며 학교 시설을 정비 강화하는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여 1962년에 총 예산 4억 여원으로 14개의 학교가 건설되였다.

이와 함께 교과서 편찬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신 학년도를 앞두고 훌륭한 교과서를 배포하였다.

1962년에 성인 교육 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달성되였다. 일제 식민지 통치의 후과인 10여 만에 달하는 문맹자를 퇴치하는 사업은 큰 정치적 의의를 가지는 사업의 하나이며 재일 동포들의 애국주의 교양 사업과 결부되여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으로 제기되였다.

총련 중앙은 문맹 퇴치 사업을 주로 일반 성인 학교와 재일 조선 청년 동맹의 청년 학교의 두가지 형태를 통하여 국어 학습을 위주로 하면서 애국 전통 교양과 결부하여 애국주의 교양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시켰다. 총련 중앙은 《1분회 1성인 학교》, 《1지부 1청년 학교》의 구호 하에 이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여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1962년에 563개의 성인 학교들에서는 3,876명이 문맹을 퇴치하였고 6,100명의 성인들이 배우고 있었으며 286개의 청년 학교에서는 8,131명의 청년들을 망라시켜 교육을 주었다.

《조선 신보》 독자 증가 사업— 신문 《조선 신보》는 재일 조선 공민들 속에 공화국의 제반 정책을 침투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에서 큰 선전 교양자적 및 조직자적 역할을 놀고 있다.

《조선 신보》는 1961년 9월에 일간으로 전환한 이래 그 독자도 계속 증가되였다.

1962년에 총련은 《조선 신보》의 독자 증가 운동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독자 확대를 위한 통일 행동을 조직하였다.

한편 《조선 신보》의 편집 내용이 개선되고 《조선 신보》 지국장, 분국장, 통신원들의 활약으로 배포 체계가 보다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 《조선 신보》의 독자 증가 지표가 달성되여 그의 독자 수는 총련 결성 이전의 3배 이상으로 장성되였으며 재일 동포들의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2년에 총련의 출판물 활동도 더욱 강화되였다. 총련은 일본 인민들과 전 세계 인민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들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공민들에게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대 내외 정책, 조국 통일의 기본 방침, 공화국의 제반 성과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 남반부 인민들의 참상, 총련의 애국 사업 등을 선전하기 위하여 일간 《조선 통신》(일문)과 주간인 《조선 시보》(일문)와 《인민 조선》(영문)과 월간 일문판 잡지인 《조선 화보》와 《새 세대》 등을 발간하고 있다. 1962년 말 현재 총련은 23종의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였다.

특히 김 일성 수상의 탄생 50주년을 경축하여 다양한 출판 활동이 전개되였으며 《조선 화보》가 창간되고 《김 일성 선집》의 일문판이 발간되였다.

영문 《인민 조선》은 100여개국의 독자들에게 배포되고 있으며 일문 《조선 시보》와 《조선 화보》는 조일 친선과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조국과의 무역과 래왕의 자유를 위한 활동— 재일 조선 공민들은 일본 정부의 방해 책동을 물리치고 조국과의 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미 동해 무역 상사를 창설(1961년)하였다. 재일 조선 공민들은 자기들이 처음으로 보낸 조국 무역 제 1선이 1962년 1월 16일 일본에 돌아 온 후 조국과의 무역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였다. 총련과 재일 조선 공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일본 총 인구의 50%에 달하는 83개의 일본 자치체 의회들로 하여금 총련의 정당한 요청을 의결케 하였으며 일본 정부로 하여금 11월 1일부터 조일 무역을 저애하기 위하여 설정해 놓았던 《강제 바타제》의 철폐와 직접 결제를 실시하게끔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학습을 강화하는 사업— 1962년에 총련은 지도 일'군들의 정치 실무 수준을 높이며 재일 조선 공민들을 김 일성 동지의 사상과 덕성으로 무장 시키며 그들 속에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시키기 위하여 학습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였다.

총련은 재일 동포들에 대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혁명 전통 교양과 밀접히 결부시켜 진행하면서 긍정적 모범으로 부정을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다》라고 하신 김 일성 수상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애국주의 사상과 김 일성 원수의 사상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총련 일'군들과 재일 조선 공민들 속에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학습 열의가 높아졌다.

총련 일'군들은 하루 2시간의 자학습과 1주 1회의 집체 학습을 생활화하고 있으며 매주 1~2회씩 총련 분회, 동포 직장, 소집회들에 나가 담화, 강연 사업들을 진행하며 학습을 지도하였다.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이 강화된 결과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 조국을 사랑하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지고 아름다운 국민적 생활 도덕 기풍이 강화되였다.

재일 동포들은 《조국을 향하여 배우자》라는 구호 하에 우리 나라의 말과 글, 지리와 력사를 배우고 있으며 조국 인민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학습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공화국 공민답게 이름과 문패를 조선 이름으로 고치며 일상 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며 양풍을 반대하고 외모를 단정히 하며 서로 돕고 서로 이끄는 상부 상조의 미풍을 발휘하면서 검박하게 생활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재일 동포들 속에서는 미제와 일본 반동 지배층 및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의 3중의 억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국에 충실하며 백절불굴의 강의한 애국 정신으로 자체를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 정신을 본받으려는 열의가 높아가고 있다.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인민들 속에서》 등 혁명 전통에 관한 서적들이 재일 동포들 속에 광범히 보급되였으며 분회별, 직장별, 계층별로 회상기 학습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의 탄생 50주년 경축 사업을 통하여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과 혁명 전통 교양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수령에 대한 재일 동포들의 흠모의 정은 더욱 두터워졌다.

또한 대중 교양 체계가 보다 확립되고 대중 정치 선전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였다.

각 강연구들에서는 총련 중앙의 강연 재료에 의거하여 월 2회의 강연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였다. 분회 위원 및 선전원들이 발동되여 담화를 위주로 하는 개별 교양 사업도 진행되였으며 《조국 연구실》 운영도 개선 강화되였다.

1962년에 총련은 재일 조선 공민들의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군중 문화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재일 조선인 중앙 예술단은 1962년 한 해 동안에 연 190회의 공연을 통하여 11만 5천 여명의 일본 인민을 포함한 26만 5천 여명의 군중에게 관람시켰으며 2,060회의 조국 영화를 상영하여 55만 1천 여명에게 관람시켰다.

문화 예술인들은 김 일성 동지의 탄생 50주년을 경축하는 작품집 《찬사》, 작곡집 《찬가》의 발간을 비롯하여 수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체육 사업도 급속히 발전하여 《재일 조선인 축구단》은 일본 각지의 원정에서 23전 23승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미 조직 동포에 대한 조직 사업— 총련의 권위와 영향력이 비상히 제고되고 각계 각층 재일 동포들 속에서 총련의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 사업이 강화됨으로써 미 조직 재일 조선 공민들이 계속 총련 조직에 망라되고 있다.

1962년에 총련은 미 조직 동포들을 조사 장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내성 있게 접촉하고 교양한 결과 수만의 미 조직 동포들을 새로 총련 대렬에 인입하게 되였으며 청년 동맹과 녀성 동맹의 대렬도 더욱 확대 공고화되였다.

그리하여 조선 공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일본의 어데를 막론하고 총련과 각 단일 단체의 지도가 미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곳에 총련의 분회가 조직되여 가고 있다.

총련의 조직 대렬을 확대 공고화하기 위하여 총련 중앙은 그의 기층 조직인 분회 사업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고 이 분회를 단위로 하여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62년에 《모범 분회 창조 운동》이 강력히 전개되여 이에는 417개의 분회들이 궐기하였는바 총련 중앙은 10월 15일 제 2차 분회 열성자 회의에서 29개의 분회들에 《모범 분회》 칭호를, 1개의 분회에 《2중 모범 분회》 칭호를 수여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총련은 강유력한 조직체로 꾸려졌으며 재일 동포들 속에서 그의 지도적 위신은 일층 제고되고 일본 인민들로부터도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 일본 당국은 1962년에도 여전히 재일 조선 공민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침해 유린하는 적대 행위를 빈번히 감행하였다.

일본 당국은 1962년 2월 2일 150 여명의 무장 경찰을 동원하여 이바라기 조선 중 고급 학교를 습격하였고 2월 10일에는 총련 대마도 본부를 습격한 것을 위시하여 총련 각급 기관들과 각 단일 단체의 기관들을 불법 습격 수색하며 그의 간부들을 체포하는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일본 당국은 무장 경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오이다현과 아오모리현의 조선인 부락을 습격하고 그들의 가재를 략탈하였으며 10~11월의 《외국인 등록 갱신》을 리용하여 조선 공민들의 국적을 남조선

괴뢰 《국적》으로 변경시키려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10~12월에 오사까에서는 《합동 수사 본부》까지 설치하고 《조선인 사냥》을 한다고 하면서 오사까 조선 고급 학교 학생들을 수차에 걸쳐 체포하는 악랄한 적대 행위를 하였다. 동시에 일본 당국은 조선 공민들의 신변을 보호해 줄 대신에 도리여 그들에 대한 살인 만행을 비호 묵과하고 있다. 1962년 7월에 후꾸오까에서 규슈 조선 중 고급 학교 학생 차 철외(14세)는 《정체 불명》의 일본 청년에 의하여 살해되였으며 11월 3일에는 가나가와 중 고급 학교 학생 신 영철(15세)이 호세이 대학 부속 제 2 고등 학교 학생들에 의하여 타살되였고 17일에는 나가노현 가미이나군에 거주하는 김 여성(32세)이 일본인들에 의하여 학살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 당국은 미제 강점 하의 남조선의 생 지옥에서 살'길을 잃고 일본에 건너가는 조선인들을 비인도적으로 계속 체포하여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에게 넘겨 줌으로써 박해를 받게하고 있는바 일본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남조선으로 강제 송환한 수는 1946년 이후 6만 4천 여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 당국의 차별 정책과 탄압도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공화국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되여 있는 재일 조선 공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약화시킬 수는 없었다.

총련과 재일 조선 공민들은 1962년에도 자기들의 민주주의적 민족적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 당국의 각종 박해와 탄압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총련과 재일 동포들은 이바라기 조선 중 고급 학교에 대한 일본 무장 경찰의 습격 사건(2월)에 대하여 군중적인 항의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일본 경찰 당국으로 하여금 사죄하게 하였으며 일본 해상 보안청의 총련 대마도 본부에 대한 탄압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들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또한 재일 동포들은 대중적 항의로써《등록 갱신》을 기회로 하여 그들에게 비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강요하려던 미제와 일본 반동 지배층의 기도를 파탄시켰다.

애국적인 상공인들은 총련의 방침을 받들고 단결하여 자기들의 기업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였다. 재일 동포 상공인들의 신용 조합은 1962년 9월 현재 4만 8천 여명의 조합원을 망라시키고 있으며 7억 9천 531만원의 출자금과 154억 6천 만원의 예약금을 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일본의 경제 위기와 관련한 자금난을 타개함에 있어서 재일 조선 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총련과 재일 조선 공민들은 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인권을 침범하려는 원쑤들의 그 어떠한 책동도 결코 용허하지 않았다. 이같은 단호한 립장은 귀국 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위한 줄기찬 투쟁에서도 여실히 표시되였다.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7월 6일 각료 회의에서 현행 귀국 협정을 1년간 연장할데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귀국 사업을 파괴하기로 결정하자 7일 성명을 발표하고 귀국 사업을 파괴하려는 일본 정부의 음흉한 정치적 목적을 폭로 규탄하면서 현행 귀국 협정을 그대로 연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7월 19일에는 도꾜와 오사까, 니이가다를 비롯한 일본 각지에서 귀국 협정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는 군중 대회들이 개최되였다.

일본 측의 부당한 고집으로 귀국 협정의 기한 연장을 위한 조일 량국 적십자 대표단 간의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재일 조선 공민들은 10월 23일 이후에 일본 각지에서 5차에 걸쳐 강력한 통일 행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재일 조선 공민들은 자기들의 단결된 투쟁으로써 귀국의 길을 막으려던 일본 당국의 부당한 책동을 분쇄하고 귀국 협정의 1년간 무수정 연장을 쟁취하였으며 귀국의 권리와 귀국의 길을 확고히 고수하였다.

◇ 재일 조선인 단체

재일 조선인 총 련합회(총련)

1955년 5월 26일 재일 조선 민전이 발전적으로 해소되여 재일 조선인 총 련합회로 창립되였다. 총련은 사상, 정견, 신앙 및 사회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총련의 강령과 규약을 지지 승인하는 재일 동포의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전체 재일 조선 공민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고 그의 권리를 옹호하며 그들을 공화국 정부 주위에 총 집결시키는 유일한 조직이다.

총련은 일본 전국에 51개의 지방 본부와 니이가다에 출장소를 가지고 있다.

중앙 상임 위원회 의장 한 덕수
부의장 리 계백
리 심철
로 재호

▶ 재일본 조선 청년 동맹
위원장 김 상권
▶ 재일본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위원장 박 정현
▶ 재일본 조선인 중앙 교육회
▶ 재일본 조선인 교직원 동맹
▶ 재일본 조선 문학 예술가 동맹
▶ 재일본 조선 과학자 협회
▶ 재일본 조선인 언론 출판인 협회
▶ 재일 조선 류학생 동맹
▶ 재일본 조선인 체육 련합회
▶ 조선 중앙 예술단
▶ 재일본 조선인 불교도 련맹
▶ 재일본 조선인 통일 동지회
▶ 재일본 조선인 상공 련합회
▶ 재일본 조선인 신용 조합 련합
▶ 조국 무역 추진 재일본 조선인 위원회
▶ 조선 신보사
▶ 조선 통신사
▶ 조선 화보사
▶ 조선 문제 연구소
▶ 조선 문화사
▶ 조선 청년사
▶ 동해 상사 주식 회사
▶ 조선 총련 중앙 학원
▶ 재단 법인 조선 장학회

자 료

우리 나라 산악, 도서, 하천, 호수

주요 산악 및 령

명칭	높이 m	소재지
백두산	2 744	량강도 삼지연군
북포태산	2 289	량강도 삼지연, 보천, 백암군
남포태산	2 435	량강도 삼지연, 보천군
백사봉	2 099	량강도 운흥, 백암군
두류산	2 309	량강도 백암, 함경남도 광천군
두운봉	2 467	량강도 부전, 풍서군
차일봉	2 506	량강도 부전, 풍서군
북수백산	2 522	량강도 풍서군
송진산	1 146	함경북도 경흥, 웅기군
동정산	2 201	함경북도 연사, 경성군
관모봉	2 541	함경북도 연사, 경성군
궤상봉	2 332	함경북도 어랑, 량강도 백암군
궤산봉	2 277	함경북도 연사, 경성, 어랑군
패상봉	2 139	함경북도 어랑, 량강도 백암군
만탑산	2 205	함경북도 어랑, 길주군
학무산	1 542	함경북도 길주군
칠보산	663	함경북도 명천군
검덕산	2 150	함경남도 광천, 허천군
대덕산	1 447	함경남도 허천, 덕성군
사수산	1 747	함경남도 대흥, 요덕, 정평군
모도봉	1 833	함경남도 대흥, 요덕군
련화산	2 355	자강도 랑림, 량강도 부전, 함경남도 장진군
랑림산	2 184	자강도 룡림, 함경남도 대흥, 장진군
소백산	2 014	자강도 동신, 함경남도 대흥, 평안남도 녕원군
쌍두산	1 284	자강도 중강, 자성, 량강도 후창군
희색봉	2 185	자강도 랑림, 량강도 후창, 신파군
와갈봉	2 262	자강도 성간, 룡림, 랑림군
연덕산	1 730	자강도 위원, 성간, 전천군
백암산	1 823	자강도 위원, 전천군
피난덕산	1 316	자강도 송원군
묘향산	1 909	자강도 희천, 평안북도 향산, 평안남도 녕원군
월기산	1 260	자강도 자성, 화평, 장강군

명 칭	높이 (m)	소 재 지
비래봉	1 470	평안북도 벽동, 창성군
천마산	1 169	평안북도 천마, 대관군
장안산	1 248	평안남도 덕천, 북창군
자모산	559	평안남도 순천, 순안군
북대봉	1 327	평안남도 신양군
구월산	954	황해남도 은률, 안악군
멱 산	656	황해남도 은률, 송화군
불타산	608	황해남도 장연, 태탄군
수대산	432	황해남도 옹진군
수양산	945	황해남도 신원, 벽성, 청단군
장수산	747	황해남도 신원, 재령군
언진산	1 120	황해북도 연산, 수안군
만년산	901	황해북도 신평, 곡산군
자비산	691	황해북도 연탄, 봉산군
정방산	480	황해북도 황주, 연탄, 봉산군
멸악산	816	황해북도 린산, 평산군
송악산	488	개성시 개풍군
두류산	1 324	강원도 천내, 법동, 평안남도 양덕군
령압산	1 123	강원도 판교, 세포군
황룡산	1 268	강원도 안변, 통천군
금강산	1 638	강원도 금강, 고성군
월비산	459	강원도 고성군
수리봉	642	강원도 김화군
1211 고지	1 211	강원도 금강군
854 고지	854	강원도 고성, 금강군
351 고지	351	강원도 고성군
설악산	1 708	강원도 린제, 양양군
오대산	1 563	강원도 홍천, 양양, 평창군
계방산	1 577	강원도 홍천, 평창군
태백산	1 561	강원도 삼척, 경상북도 봉화군
북한산	831	경기도 고양군
운악산	936	경기도 포천, 가평군
관악산	629	경기도 시흥군
계룡산	828	충청남도 공주, 론산군
속리산	1 057	충청북도 보은, 경상북도 상주군
운장산	1 126	전라북도 완주, 진안군
모악산	794	전라북도 완주, 김제군
한나산	1 950	전라남도 제주도
일월산	1 219	경상북도 영양군

명 칭	높이 (m)	소 재 지
보현산	1 124	경상북도 청송, 영천군
팔공산	1 192	경상북도 군위, 영천, 달성군
가야산	1 430	경상북도 성주, 경상남도 합천군
성인봉	984	경상북도 울릉도
덕유산	1 508	경상남도 거창, 함양, 전라북도 장수, 무주군
지리산	1915	경상남도 함양, 산청군
무산령	606	함경북도 회령, 부령군
차유령	914	함경북도 부령, 무산군
마천령	736	함경북도 김책, 함경남도 광천군
후치령	1 335	함경남도 덕성, 량강도 풍산군
부전령	1 445	함경남도 신흥, 량강도 부전군
아호비령	645	평안남도 양덕, 강원도 법동군
지경령	655	평안남도 양덕, 황해북도 신평군
마식령	788	강원도 문천, 법동군
철 령	685	강원도 고산, 회양군
추지령	645	강원도 통천, 금강군
온정령	858	강원도 금강, 고성군
추가령	500	강원도 세포군
대관령	866	강원도 강릉, 평창군
차 령	223	충청남도 례산, 공주군
죽 령	689	충청북도 단양, 경상북도 영주군
리화령 (문경 고개)	548	충청북도 괴산, 경상북도 문경군
추풍령	200	충청북도 영동, 경상북도 김천군
륙십령	734	전라북도 장수, 경상남도 함양군
로 령	265	전라북도 정읍, 전라남도 장성군

주 요 도 서

명 칭	면 적 (km²)	해안선의 연장 (km)	최고 지점의 표고 (m)	소 재 지
제주도	1 857.1	253.0	950	전라남도 제주도
거제도	376.2	281.5	555	경상남도 통영군
진 도	333.4	257.5	485	전라남도 진도군
남해도	297.6	172.5	786	경상남도 남해군
강화도	290.1	99.0	468	경기도 강화군
안면도	86.5	232.5	107	충청남도 서산군
울릉도	72.4	42.0	984	경상북도 울릉도
돌산도	69.5	77.8	465	전라남도 려수군

명 칭	면 적 (km²)	해안선의 연장 (km)	최고 지점의 표고 (m)	소 재 지	
거금도	62.7	53.5	592	전라남도	고흥군
완 도	62.5	33.5	644	전라남도	완도군
금오도	58.8	36.5	382	경상남도	려수군
창선도	54.1	60.0	468	경상남도	남해군
신미도	52.7	85.0	533	평안북도	선천군
자은도	50.1	58.5	364	전라남도	무안군
백령도	46.9	60.0	184	황해남도	옹진군
도초도	45.0	45.5	218	전라남도	무안군
교동도	44.4	38.5	260	경기도	강화군
압해도	40.1	111.5	228	전라남도	무안군
고금도	40.1	54.5	246	전라남도	완도군
미륵도	39.1	65.0	46	경상남도	통영군
비금도	38.9	51.0	255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	37.3	43.0	356	전라남도	무안군
석모도	36.6	36.5	327	경기도	강화군
보길도	34.6	42.5	430	전라남도	완도군
지 도	34.5	55.5	196	전라남도	무안군
청산도	34.3	38.5	352	전라남도	완도군
영종도	33.8	40.1	256	경기도	부천군
초 도	31.3	47.5	352	황해남도	송화군
신지도	30.5	46.5	225	전라남도	완도군
대부도	29.2	58.0	168	경기도	부천군
와라로도	27.9	46.0	395	전라남도	고흥군
순위도	26.4	42.5	173	황해남도	강령군
조약도	25.9	50.0	389	전라남도	완도군
대흑산도	25.2	42.8	378	전라남도	무안군
령흥도	24.5	31.0	151	경기도	부천군
노화도	24.4	46.5	170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도	24.2	44.5	364	전라남도	완도군
가덕도	21.8	36.0	459	경상남도	창원군
덕적도	21.6	36.0	313	경기도	부천군
내라로도	21.5	43.5	268	전라남도	고흥군
평일도	20.9	56.5	235	전라남도	완도군
하의도	20.5	35.0	110	전라남도	무안군
가 도	19.2	35.0	345	평안북도	철산군
마양도	7.1	16.5	179	함경남도	신포시
탄 도	6.9	13.5	303	평안북도	철산군
신 도	6.5	15.0	92	평안북도	룡천군
애 도	1.8	6.5	73	평안북도	정주군

주요 하천 (길이 50km 이상)

하천명	길이 (km)	류역 면적 (km²)	수원지	하구
압록강	790.4	32 063.7	량강도 삼지연군 백두산	평안북도 룡천군
		62 638.7	(중국까지 포함)	
허천강	210.7	4 948.6	량강도 풍산군 명당봉	량강도 혜산시
장진강	261.1	6 976.8	함경남도 장진군 초마대령	량강도 신파군
자성강	105.0	1 625.5	자강도 화평군 가릉령	자강도 자성군
독로강	238.5	5 207.1	자강도 룡림군 웅어수산	자강도 위원군
충만강	137.9	2 378.0	자강도 송원군 광대봉	자강도 우시군
삼교천	129.0	1 400.0	평안북도 천마군 천마산	평안북도 룡천, 광성군
락동강	525.2	23 859.8	강원도 삼척군 함백산	경상남도 김해, 부산시
남 강	186.3	3 492.5	경상남도 함양군 덕유산	경상남도 의령, 함안군
황 강	111.0	1 332.8	경상남도 거창군 지경령	경상남도 합천군
금호강	116.0	2 110.0	경상북도 영일군 구암산	경상북도 달성군
두만강	520.5	10 512.9	량강도 삼지연군 백두산	함경북도 웅기군
		41 242.9	(쏘련 및 중국까지 포함)	
서두수	164.1		량강도 백암군 학장목	함경북도 연사, 무산군
한 강	481.7	34 473.2	강원도 삼척군 대덕산	황해북도 개풍, 경기도 김포군
림진강	254.0	8 117.5	강원도 천내군 두류산	황해북도 판문, 경기도 파주군
북한강	317.5	10 834.8	강원도 금강군 먹포령	경기도 양주, 양평군
대동강	431.1	20 135.5	함경남도 대흥군 랑림산	평안남도 온천, 황해남도 은률군
남 강	193.2	3 954.7	평안남도 양덕군 거차령	평양시 사동, 승호 구역
비류강	150.5	2 013.1	평안남도 신양군 장포령	평안남도 성천군
재령강	129.2	3 670.9	황해남도 신천군 지남산	황해남도 은천, 황해북도 황주군
금 강	401.6	9 885.8	전라북도 장수군 사두봉	충청남도 서천, 전라북도 옥구군
청천강	212.8	9 778.4	평안북도 동신군 석림산	평안북도 운전, 평안남도 문덕군
대령강	150.1	3 634.6	평안북도 천마군 천마산	평안북도 박천, 운전군
구룡강	119.3	1 397.6	평안북도 운산군 원은 내령	평안북도 녕변군
섬진강	212.3	4 896.5	전라북도 진안군 입곡산	경상남도 하동, 전라남도 광양군
례성강	174.3	4 048.9	황해북도 곡산군 대각산	황해북도 개풍, 황해남도 배천군
단천 남대천	161.3	2 404.8	량강도 갑산군 화동령	함경남도 단천군
룡흥강	134.8	3 396.7	함경남도 수동군 기린령	함경남도 인흥, 영흥군
북대천	117.6	1 372.7	함경남도 광천군 두류산	함경남도 광천군
영산강	115.8	2 798.2	전라남도 담양군 룰치	전라남도 무안, 라주군
어랑천	103.4	1 897.9	함경북도 어랑군 궤산봉	함경북도 어랑군
성천강	98.6	2 338.4	함경남도 진흥군 금패령	함경남도 함흥시 룡성 구역
만경강	98.5	1 601.7	전라북도 완주군 원등산	전라북도 옥구, 김제군
길주 남대천	98.5	1 370.5	량강도 백암군 설령봉	함경북도 화대, 김책군

하천명	길 이 (km)	류역 면적 (km²)	수 원 지	하 구
금진강	90.8	914.7	함경남도 홍상군 황봉	함경남도 신상군
안변 남대천	82.0	1 162.4	강원도 세포군 백봉	강원도 안변군
남 강	77.3	690.8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	강원도 고성군
안성천	76.3	1 722.0	경기도 안성군 국사봉	경기도 평택, 충남 아산군
수성천	67.4	888.4	함경북도 청진시 부령구역 차유봉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구역
장연 남대천	67.2	793.2	황해남도 삼천군 차유령	황해남도 장연,룡연군
북청 남대천	66.5	2 055.7	함경남도 덕성군 통팔령	함경남도 신창군
형산강	62.2	1 166.8	경상남도 울산군 두서명	경상북도 영일군
삽교천	61.0	1 619.2	충청남도 홍성군 오서산	충청남도 아산, 당진군
강릉 남대천	51.3	265.2	강원도 강릉군 경당령	강원도 강릉군

주요 호수 (공화국 북반부, * 표시는 자연호; 기타는 인공 저수지)

명 칭	면 적 (km²)	소 재 지		
* 천지	7.81	량강도	삼지연군	
련두평 저수지	17.00	량강도	풍서군	풍서읍
황수원 저수지	17.00	량강도	풍산군	황수원리
내중리 저수지	7.50	량강도	풍산군	내중리
사초평 저수지	2.54	량강도	풍산군	리포리
부전호	22.47	량강도	부전군	한대리
* 서번포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 만 포	6.96	함경북도	웅기군	굴포리
* 적 지	1.61	함경북도	웅기군	적지리
* 장연호	7.48	함경북도	어랑군	룡평리
* 무계호	1.64	함경북도	어랑군	무계리
마양동 저수지	3.88	함경북도	무산군	마양 로동자구
장진호	54.16	함경남도	장진군	갈전리
* 대연호 (큰 본계)	2.96	함경남도	신창군	금호리
* 현금연호 (현금본계)	2.03	함경남도	신창군	강호리
* 통호 (룡연)	1.20	함경남도	신창군	호만포리
* 광포	13.39	함경남도	정평군	동호리
* 하포	4.42	함경남도	인흥군	독구미리
* 범포	1.24	함경남도	인흥군	범포리
가곡 저수지	1.00	함경남도	홍상군	신덕리
배암이골 저수지	1.15	함경남도	신흥군	동흥리
보현 저수지	1.03	함경남도	홍원군	보현리
독로강 저수지	30.00	자강도	만포군	오유리
수풍호	365.00	평안북도,	자강도	
대하 저수지	3.56	평안북도	천마군	대하리

명 칭	면 적 (km²)	소 재 지		
강령 저수지	1.50	황해남도	강령군	부인리
구암 저수지	12.70	황해남도	연안군	홍산리
제 1 저수지	24.22	황해남도	청단군	영산리
제 2 저수지	9.36	황해남도	연안군	청화리
례의 저수지	4.48	황해남도	배천군	오봉리
서흥 저수지	18.62	황해북도	봉산군	구산리
옥련 저수지	1.58	황해북도	개풍군	묵송리
구성 저수지 (풍산)	1.48	평안북도	구성군	중방리
덕상 저수지	1.05	평안북도	태천군	래하리
운전 저수지	2.12	평안북도	운전군	청정리
연풍 저수지	15.95	평안남도	안주군	운흥리
순남 저수지 (재전)	1.89	평안남도	안주군	룡화리
견룡 저수지	7.00	평안남도	순안군	룡이리
자모 저수지	2.18	평안남도	순천군	룡지리
풍정 저수지 (북조압)	11.28	평안남도	증산군	이압리
독자 저수지	2.89	평안남도	증산군	성칠리
좌영 저수지	2.34	평안남도	증산군	성삼리
강서 저수지 (명학)	1.70	평안남도	강서군	학송리
태성 저수지	9.13	평안남도	강서군	태성리
월촌 저수지	2.04	황해남도	은천군	남산리
안서 저수지 (운봉)	2.30	황해남도	은천군	정동리
구월산 저수지	3.87	황해남도	안악군	월지리
서원 저수지	1.14	황해남도	신천군	서원리
신천 저수지 (복우)	1.90	황해남도	신천군	복우리
제신 저수지 (명수)	4.13	황해남도	신천군	동령리
장수 저수지 (안령)	12.08	황해남도	신원군	장금리
상좌 저수지	1.02	황해남도	장연군	산수리
취야 저수지	1.83	황해남도	벽성군	원평리
석담 저수지	2.25	황해남도	벽성군	사현리
수동 저수지 (가대)	1.99	황해남도	태탄군	수동리
은동 저수지	1.23	황해남도	옹진군	진해리
* 동정호	4.97	강원도	통천군	군산리
* 천아포	2.92	강원도	통천군	하수리
* 강동포	2.89	강원도	통천군	강동리
한송 저수지	1.04	강원도	평강군	하송리
봉래호	5.64	강원도	철원군	외학리
부천 저수지	2.31	강원도	고산군	부평리
봉덕 저수지	1.33	강원도	회양군	귀라리
금강산 저수지	1.95	강원도	회양군	내암리

기상 개관

1962년의 기상 조건은 여름철과 가을철 기온이 낮았고 혹심한 가물과 례년에 보기 드문 긴 장마와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년 평균 기온은 례년과 류사하거나 약간 높은 편이였으나 1월, 2월, 5월 및 1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례년보다 낮았으며 겨울철이 비교적 따뜻하였다. 강수 일수와 강수량이 많은 것이 또한 특징적이였다. 년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지방(대동강과 청천강의 상류 산 지대)은 2,100mm 이상에 달하였고 년 강수량이 가장 적었던 지방 (함경북도의 내륙 지방, 자강도의 북쪽 지방)은 750mm 이하였다. 일조률은 여름철에 낮았으며 겨울철과 5월에는 개인 날씨가 계속되여 매우 높았다.

계절별로 볼 때 봄철에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극히 적었으며 늦은 봄과 이른 여름에 걸쳐 혹심한 가물이 있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집중(7월 중순~9월 상순) 되였으며 3개월 이상에 걸치는 긴 장마가 계속되였다. 이 기간에 태풍도 세번 래습하였다. 가을철에 들어 서면서 기온은 급격히 낮아졌으며 가을 첫 서리가 례년보다 일찍이 내렸다.

1962년의 이와 같은 기후 조건은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 말할 수 없이 불리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는 이 시련을 훌륭히 이겨냈다.

【기온】 1962년도 년 평균 기온은 가장 높았던 곳에서 11.4°C로서 평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년 평균 기온을 지역별로 보면 평지대에서 6~12°C이며 백무 고원의 해발 1,100m 이상에서는 년 평균 기온이 0°C 이하였다.

최고 기온은 30~38°C로서 지역적 차이가 비교적 적었고 례년보다 약간 낮은 편이였으며 평균 기온이 높던 남부 평지대가 북부내륙 지대보다 낮은 것이 특징이였다.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북부내륙 지대로서 강계 38.0°C, 만포 37.0°C, 회령 37.6°C였으며 남부 평지대인 평양은 33.9°C였다.

최저 극 기온은 —10~—37°C의 범위로서 지방적 차이가 매우 컸다. 최저 기온이 매우 낮았던 량강, 자강도의 고산 지대의 포태—37.2°C, 중강 —35.0°C였으나 강원도의 고성은 —9.6°C에 불과 하였다.

계절별 기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겨울—비교적 따뜻하였고 특히 1월 평균 기온은 전반적 지역에서 평년보다 1~2°C가 높았는바 지역별로 보면 평양 +1.6°C, 청진 +2.3°C, 혜산 +1.3°C였다.

봄—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서해안에서 0.5°C, 동해안에서 0.2~0.8°C 정도 낮았으며 북부 내륙에서는 평년과 류사했다. 3~4월은 례년보다 0.5~1.0°C 낮았으나 5월은 반대로 0.3~1.0°C 높았다.

우리 나라에서 봄철 기온은 지역적 차이가 작은 편이나 1962년에는 강원도 고성 지방과 량강도 포태 지방의 차는 10°C 이상에 달하였다.

여름—평균 기온이 평년에 비하여 동서 해안에서 0.2~0.5°C 정도 낮았으며 북부 내륙에서는 반대로 0.2~0.4°C 높았다. 평균 기온이 6월은 북쪽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 낮았고 8월에는 비오는 일수가 많아서 낮았으나 7월에는 서해안에서 평년보다 높았으며 동해안에서는 랭한 과정의 영향으로 약간 낮았다.

가을—9월 상순까지 장마가 계속된 후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10~11월의 평균 기온은 전반적 지역에서 평년보다 0.7~1.5°C 낮았다. 그러나 12월에는 례년에 보기드물 정도로 따뜻하였다.

겨울철 평균 기온의 평년과의 차이

	9월	10월	11월	12월
평양	−0.2	−1.1	−0.7	+2.4
해주	−0.5	−0.7	−1.1	+1.5
청진	−0.3	−0.4	−1.1	+1.0
강계	−0.4	−0.7	−0.8	+1.5

1962년의 낮은 기온은 농작물들의 생육 기간의 적산 온도가 적은데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 일 평균 기온 10°C 이상의 적산 온도는 례년의 90%로서 가장 많은 지역에서 3,500°C 정도였고 적산 온도가 적었던 지역인 량강도의 해발 1,500m의 고지대에서 1,100°C 정도였다. 적산 온도가 례년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던 동해안에서는 평년보다 300~400°C 적었다.

일 평균 기온이 10°C 이상되는 시기가 빠른 곳에서는 4월 하순 늦은 곳에서는 6월 하순에 시작되였으며 끝나는 시기는 빠른 곳에서 9월 상순 늦은 곳에서 10월 중순으로서 그의 지속 기간은 75~170일 간이였다. 10°C이상의 적산 온도는 례년에 비해서 200~300°C 적었다.

일평균 기온이 5°C이상 되는 적산 온도는 1,800~4,000°C였다. 그의 지속 기간은 길었던 지방에서 4월 초부터 10월말까지 200일 정도였으며 북부 내륙의 고산 지대에서는 5월 하순부터 9월 하순

까지의 130일 정도였다.

1962년에 기온의 특성과 관련된 일련의 특수 현상들이 있었다.

랭한—1962년도 랭한은 심한 편은 아니였고 농작물에 불리한 정도였다.

1962년 랭한은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걸쳐 있었다. 따라서 동해안 지방의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았으며 비가 내린 일수와 안개 일수가 많아서 일조조건이 매우 불리하였다. 1962년의 랭한은 동해안의 바다에 가까운 지역에서만 심했고 북쪽으로 갈수록 더 심했으며 동해안 내륙에서 기온은 평년과 류사하였다.

서리—1962년도에 서리가 내린 시기는 례년에 비하여 농촌 경리에 불리했다. 봄의 마지막 서리는 서해안 남부에서는 례년보다 일찍 끝났으나 북부에서 늦게 까지 지속되였다. 가을의 첫 서리는 평년보다 7~10일정도 빨랐다.

주 요 지 점 의 서 리

	마지막 서리(봄)		첫 서리 (가을)		서리 없는 기간	
	1962	평년	1962	평년	1962	평년
평 양	5. 5	4. 23	10. 5	10. 12	152	171
해 주	3. 31	4. 5	10. 17	10. 21	199	198
원 산	3. 31	4. 5	10. 13	10. 24	195	201
김 책	4. 16	4. 17	10. 14	10. 22	149	156
중 강	5. 13	5. 12	9. 24	9. 26	133	135

【강수】 1962년도 년 강수량은 례년에 비하여 1.2~1.8배였으며 강수 일수도 평년보다 약간 많았다. 특히 장마철에 년 강수량이 집중되였고 장마가 오래 계속된 것이 특징이다.

년 강수량은 620~2,200*mm*의 범위로서 지역적 차이가 매우 컸다.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청천강과 대동강의 상류로서 동창 2,225*mm*, 북창 2,126*mm*, 강원도 고지대인 세포 2,004*mm* 였다. 강수량이 적었던 지역은 함경북도의 북부 내륙 지방으로서 700*mm* 이하였으며 량강도 일대에서도 1,000*mm* 이하였다.

년 총 강수 일수는 90~160일이였다. 강수 일수가 많았던 지역은 강수량이 비교적 적었던 량강도와 자강도였으며 함경 남북도는 강수 일수가 적은편이였다. 강수량이 많았던 청천강 상류 지방의 강수 일수는 120일 정도였다.

겨울철 강수량은 동해안 지방에서는 많았으나 기타 지방들에서는 례년과 류사했다.

봄철 강수량은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례년의 50~70%에 불과하였다. 봄철 강수량은 60~140*mm*로서 지역적 차이가 컸다. 4월은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으나 3월과 5월 특히 5월의 강수량은 거의 없는 정도로서 평양 1.0*mm*, 원산 1.2*mm*, 함흥 16.1*mm*였다.

여름철 강우량은 매우 많아서 1년 총 강수량의 60~70%로서 례년의 1.5배에 달하였다. 여름철 강우량은 지역적 차이가 매우 컸다. 적은 지방에서는 500*mm*였으나 많은 지방에서는 적었던 지방의 3배 이상인 1,700*mm*에 달하였고 6월은 100*mm* 정도였으나 7월과 8월은 200~900*mm*에 달하였다.

여름철의 이와 같은 많은 강우는 수차에 걸쳐 우리 나라를 통과한 태풍과 관련되여 있다.

강우량과 함께 강우 일수도 많았다. 강우 일수는 6월에 평년 정도였으나 8월에는 가장 많았던 지방에서 22일 간이였다.

가을철 기상 조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강수량이 많았던 점이다. 특히 9월의 강우량은 9월 상순에 우리 나라 중부를 통과한 태풍으로 인하여 전반적 지역에서 100*mm*이상에 달하였다. 평안남도의 산지대와 강원도에서는 9월 강우량이 300*mm* 이상이였는바 가장 많았던 북창에서는 536.5*mm*, 원산에서는 527.8*mm*에 달하였다.

가물—1962년도 가물은 봄철과 초여름에 심하였다. 4월 28일부터 6월1일에 걸친 가물은 기온이 비교적 높고 대기 습도가 낮았으며 개인 날씨가 계속되여 전형적인 봄철 가물의 일기가 한달 이상 계속되였다. 이시기 가물은 거의 전국을 포괄할 정도로 넓은 범위였으며 특히 심했던 지역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남부 지역이였다. 심했던 지역의 가물 기간의 강우량은 10*mm* 이하의 적은 량에 불과하였으며 평양 1.0*mm*, 양덕 4.0*mm*, 남포 0.6*mm*, 사리원 2.4*mm*, 은률 0.5*mm*, 원산 1.2*mm*, 고성 1.9*mm*, 영흥 2.9*mm*였다.

가물 기간에 고온 건조한 공기와 함께 비교적 센 바람으로 증발이 심하여 토양내 수분은 최저 한계에까지 이르렀다.

6월에도 비교적 심한 가물이

주요 지점의 여름철 강우량

(단위—*mm*)

	6월	7월	8월	여름
평 양	131. 1	378. 8	276. 4	789. 3
동 창	115. 7	692. 3	902. 3	1 710. 3
원 산	150. 3	409. 7	474. 0	1 034. 0
강 계	75. 2	290. 4	502. 3	867. 9

있었는바 특히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기간의 가물은 그 이전 시기의 적은 강우로 토양내 수분이 매우 부족한 조건에서 계속되였으므로 역시 심하였다.

장마와 폭우—1962년은 장마가 오래 계속되였고 6회에 걸친 큰 폭우가 있었다. 장마는 6월초에 시작되여 일단 중단 되였다가 7월 9일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가 9월 9일까지 계속되였다.

장마가 계속된 기간은 례년과 류사했으나 장마철을 통해서 비 내리는 일수가 매우 많았으며 내린 비의 량에 있어서도 례년에 드물 정도로 많았다.

장마철 두달 동안의 강수 일수는 40 여일이 였으며 강우량은 년 강수량의 70~80%에 달하였는바 가장 많았던 곳에서는 장마철 동안에 1,8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장마철에 비가 오래 내린 곳에서는 근 한달 동안 계속되였으며 거의 전반 지역에서 10일 정도는 계속되였다.

	기 간	계속 일수	강수량 (*mm*)
동 창	7.17~8. 3	18	665.1
평 양	7.17~7.25	9	178.4
신 계	7.28~8. 9	13	411 0
고 성	7.16~8. 9	25	184.0
청 진	7.26~8. 3	9	204.0
혜 산	7. 2~7.12	11	55.8
강 계	7.14~7.24	11	123.4

1962년도 장마철에는 우리 나라를 통과한 3개의 태풍을 포함한 6회의 큰 폭우가 있었다. 큰 폭우의 기간과 그 중심에서의 강우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 간	폭우 중심 지역	최대 강수량 (*mm*)
7월 9~11일	평북도, 강원도 및 황북도 산지대	신평 358, 회양 246
7월 21~24일	평북도, 황북도	동창 285, 사리원 220
7월 28~31일	평남도 산지대	북창, 녕원 361
8월 1~ 3일	함경남북도	길주 340, 영흥 246
8월 6~ 8일	평북도, 자강도, 강원도	수풍 582, 희천 348
9월 6~ 8일	평남도, 함남도 산지대, 강원도	북창 351, 안변 288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비가 내린 일수는 3~4일이나 그 기간에 내린 강우량은 극히 많았으며 특히 8월 6~8일간에 우리 나라를 통과한 태풍에 의한 폭우로 평북도와 자강도의 산지대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 폭우 중에서 큰 홍수가 있었다.

폭우의 중요한 지표로서 1일 및 2일 최다 강수량이 흔히 리용된다. 1962년도 중심 지점의 1일 및 2일간 최다 강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일	2 일
신의주	222.3	238.4
동 창	266.8	318.5
평 양	180.0	273.7
해 주	154.5	175.8
원 산	267.6	326.7
청 진	116.6	182.4
혜 산	76.8	119.5
강 계	144.4	232.1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하루 사이에 많이 내린 곳에서는 260*mm* 이상, 2일간에는 32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태풍—1962년도에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은 3개 있었다. 1962년 폭우중 8월1~3일, 8월 6~8일 및 9월 6~8일의 폭우는 태풍에 기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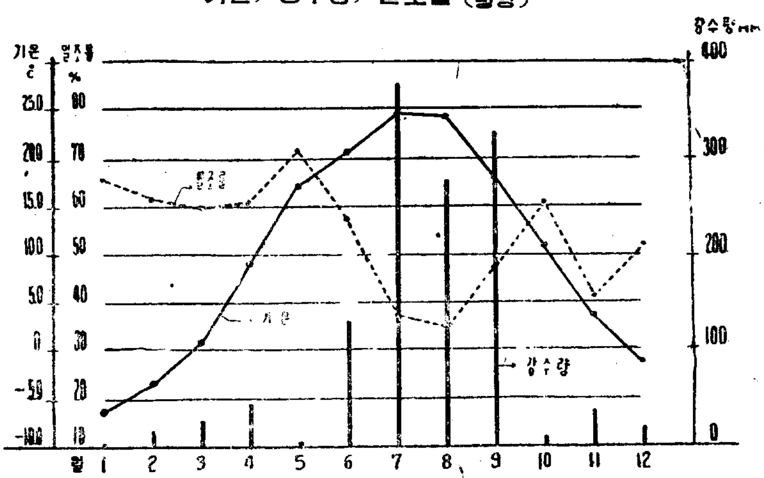
이 3개 태풍은 모두 우리 나라 중부를 횡단하여 우리 나라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일조】 1962년도에 우리 나라 일조 조건은 여름철에 흐린 날씨가 계속되여 일조 시수가 짧았으며 따라서 일조률도 낮았다. 그와 반면에 겨울철과 5월에는 개인 날씨가 계속되여 일조률이 매우 높았다. 년 평균 일조률은 50~60%였으며 일조률이 높았던 달은 겨울 기간과 비가 극히 적었던 5월이였다. 일조 조건이 좋았던 1월과 5월의 평균 일조률은 대부분 지역에서 60~75%였다. 비가 많이 내린 7~8월은 일조 조건이 나빴는바 특히 동해안 북부 지역에서는 7월 일조률이 20% 미만으로 례년에 드물 정도로 낮았다.

우리 나라를 통과한 태풍

통과 기일	통과 경로	기압 (미리바르)
8월 2 ~ 3일	아산만~고성	980
8월 6 ~ 8일	문덕~원산	992
9월 7 ~ 8일	해주~원산	996

기온, 강수량, 일조률 (평양)



1962년 평균 기온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양 덕	−10.9	−5.5	−1.6	7.0	15.1	18.0	22.3	21.8	15.8	7.5	1.1	−3.8	7.2
평 양	−6.6	−3.3	0.7	9.1	17.0	20.1	24.5	24.4	18.4	10.8	3.5	−1.5	9.8
사리원	−5.3	−2.8	1.3	9.3	17.6	20.5	24.8	24.4	18.7	11.4	3.9	−0.8	10.2
신 계	−7.8	−3.9	−0.2	7.9	16.2	19.3	23.6	23.0	17.4	9.9	2.3	−2.9	8.7
해 주	−3.7	−1.3	2.0	8.8	16.2	20.0	24.4	24.2	19.4	12.9	5.4	0.7	10.8
신의주	−6.2	−3.4	1.0	8.2	15.2	19.6	23.7	23.9	18.3	10.8	2.0	−2.3	9.2
구 성	−7.1	−4.5	0.1	8.0	15.3	19.6	23.2	23.0	17.3	9.7	0.9	−3.7	8.5
원 산	−2.7	0.1	2.9	10.2	17.6	18.4	22.2	22.8	18.4	12.0	5.1	1.7	10.7
함 흥	−3.4	−1.5	1.9	9.3	16.3	18.0	21.8	22.2	17.7	11.0	4.1	−1.4	9.7
장 진	−16.3	−13.7	−8.4	1.9	10.0	13.0	17.0	17.2	10.6	2.7	−5.2	−11.5	1.4
대 흥	−12.2	−8.4	−3.6	5.2	12.8	16.7	20.0	19.9	13.5	5.8	−1.9	−7.1	5.1
동 창	−9.1	−6.2	−0.7	7.0	14.8	19.0	22.8	22.7	16.2	7.7	−0.5	−5.4	7.4
청 진	−4.7	−3.6	−0.7	7.0	11.4	14.6	18.7	20.4	16.7	10.1	2.0	−2.2	7.5
김 책	−3.9	−2.0	0.9	6.9	11.5	14.9	19.3	20.7	17.4	10.9	3.5	−0.4	8.3
혜 산	−18.0	−13.9	−6.2	4.3	13.2	16.7	20.6	19.7	12.2	4.3	−5.6	−12.1	2.9
백 암	−16.7	−14.1	−9.9	−0.8	9.3	12.4	16.1	16.0	9.1	1.6	−7.6	−11.0	0.5
강 계	−12.3	−8.0	−1.4	7.6	16.5	19.8	23.5	22.4	15.2	7.3	−1.7	−8.5	6.7
중 강	−16.5	−13.8	−3.9	6.3	15.1	18.9	23.0	21.4	14.1	5.4	−4.0	−11.7	4.5

1962년 극 기온과 적산 온도

	최 고 극 기온	최저 극기온	일 평균 5도 이상		일 평균 10도 이상	
			기 간	적산 온도	기 간	적산 온도
신의주	32.9	− 18.4	9.19~10.13	3 401.5	9.21~10.12	3 367.9
구 성	33.5	− 23.5	9.19~10. 3	3 474.9	9.28~10. 3	3 208.5
동 창	34.8	− 30.0	9.19~10.13		9.30~11.24	
평 양	33.9	− 18.7	9. 5~10.13	3 637.1	9.28~10.12	3 400.5
양 덕	33.2	− 24.2	9.28~10.13	3 030.8	9.30~11.24	2 802.4
사리원	33.4	− 15.6	9. 5~10.13	3 703.8	9.19~10.13	3 580.8
신 계	33.3	− 19.3	9.19~10.13	3 350.1	9.29~10.15	3 270.1
해 주	32.5	− 12.0	9. 5~10. 3	3 883.2	9.28~10.13	3 431.8
원 산	35.7	− 11.5	9. 5~10. 4	3 740.4	5. 4~10.13	3 207.4
함 흥	36.6	− 12.4	9. 5~10.14	3 579.0	5. 4~10.13	3 094.7
장 진	30.4	− 31.1	9. 6~11.24	2 020.1	9.22~11. 8	1 299.3
대 흥	32.3	− 25.4	9.28~10.13	2 696.1	5.18~11.24	2 315.9
청 진	31.7	− 15.5	9.19~10.19	2 848.5	5.18~10.12	2 496.3
김 책	31.1	− 13.3	9. 8~11. 3	3 112.8	9. 9~10.13	2 565.8
혜 산	34.4	− 31.7	9.29~10.13	2 586.1	9.18~10. 4	2 307.6
백 암	30.0	− 29.6	5.18~10. 3	1 809.3	9.28~11. 8	1 133.4
강 계	37.0	− 24.9	9.19~10.13	3 267.3	5. 5~11.23	2 866.6
중 강	36.3	− 35.0	9.19~10.11	3 073.0	5.18~11.23	2 307.6

1962년 강수량과 강수일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년 강수일 수
신의주	0.5	40.0	29.5	94.8	20.0	96.2	422.0	443.5	141.0	12.2	43.7	28.3	1 371.7	97
구 성	3.1	37.1	19.9	65.7	7.8	129.1	654.8	719.4	183.6	9.4	86.4	19.6	1 935.9	110
동 창	5.7	39.1	23.7	67.5	16.4	115.7	692.3	902.3	212.7	36.6	89.8	22.9	2 224.7	112
평 양	4.1	12.6	23.8	48.5	1.0	131.1	378.8	276.4	301.0	7.1	35.7	15.1	1 235.2	95
양 덕	14.5	28.2	41.4	57.5	4.0	140.1	479.9	414.0	402.6	10.1	49.9	13.1	1 655.3	123

1962년 강수량과 강수일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년 강수일 수
사리원	1.9	16.6	12.9	56.3	2.4	118.5	534.7	236.2	272.5	3.4	44.4	18.8	1 318.6	93
신 계	10.1	16.3	21.3	84.6	6.6	156.7	568.0	302.5	211.2	3.1	42.8	7.9	1 431.1	117
해 주	5.9	24.8	10.7	105.4	8.2	85.0	535.5	328.5	211.0	6.4	50.6	10.4	1 382.4	96
원 산	16.6	38.2	62.6	47.8	1.2	150.3	409.7	474.0	527.8	50.6	109.7	27.6	1 916.1	117
함 흥	9.9	17.9	26.7	47.7	16.1	127.4	487.4	494.2	227.9	13.1	144.0	2.1	1 614.4	104
장 진	5.2	13.9	20.6	42.7	27.2	107.0	353.4	516.9	266.3	6.9	53.6	6.7	1 420.2	112
대 흥	6.7	35.1	24.1	50.6	27.9	120.1	479.2	459.8	317.9	14.1	63.7	11.8	1 611.0	125
청 진	5.7	8.3	18.9	34.1	22.8	52.5	172.1	347.2	220.3	1.6	24.3	19.6	927.4	103
김 책	9.1	8.9	13.6	65.9	20.4	56.0	264.9	608.7	125.8	7.7	72.2	20.7	1 273.9	106
혜 산	8.0	8.2	17.4	53.4	18.5	53.5	157.8	333.0	121.1	12.8	24.1	10.8	818.6	138
강 계	5.0	16.8	19.0	50.8	29.0	75.2	290.4	502.3	181.3	22.2	44.1	24.3	1 260.4	122
중 강	3.4	33.4	3.9	41.1	41.1	28.1	150.5	243.8	143.6	8.8	51.6	15.0	764.3	118

1962년 폭우, 장마, 가물

	가장 많이 내린 강우량		오래 동안 내린비			오래 계속된 가물	
	1 일간	2 일간	기 간	일수	강수량	기간	일수
신의주	222.3	238.4	7.27~8. 3	8	151.8	5.17~6. 1	17
구 성	167.7	217.1	7.15~8. 3	20	547.8	5.18~6. 1	16
평 양	181.1	195.0	7.17~7.25	9	178.4	5.16~5.31	16
양 덕	180.0	273.7	7.28~8. 9	13	495.9	5.17~6. 1	16
사리원	173.1	193.0	7.28~8. 8	12	337.4	5.17~5.31	15
신 계	177.5	196.1	7.28~8. 9	13	411.0	5.17~5.31	15
해 주	154.5	175.8	7.17~7.25	9	240.5	5.17~5.30	15
원 산	267.6	326.7	7.26~8. 9	15	343.1	5.17~5.31	16
함 흥	145.4	197.1	7.28~8. 9	13	557.2	5.17~6. 1	17
대 흥	190.5	226.2	7.27~8. 9	14	605.7	5.19~6. 1	14
장 진	170.0	247.1	7.28~8. 8	12	554.4		
청 진	116.6	182.4	7.26~8. 3	9	204.3		
혜 산	76.8	119.5	7.27~8. 3	8	94.9		
백 암	110.2	111.7	7. 4~7.13	10	118.5		
강 계	144.4	232.1	7.14~7.24	11	123.4	6.26~7.5	10
중 강	56.0	71.5	7.17~7.24	8	57.9		

1962년 일 조 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신의주	77.6	76.5	69.7	65.2	75.9	60.5	40.0	47.7	60.2	69.1	55.3	56.2	61.7
동 창	76.2	65.5	60.6	57.1	68.5	55.8	31.9	32.7	56.6	61.9	35.4	53.1	53.9
평 양	66.1	62.4	59.6	60.9	70.7	57.4	37.7	34.4	50.9	61.1	4.15	52.3	54.7
양 덕	63.0	58.8	55.6	58.6	69.3	55.2	40.7	32.4	48.1	59.2	35.4	46.9	51.9
사리원	70.3	68.6	61.3	60.7	76.4	60.4	41.9	46.5	56.0	54.7	46.8	55.4	58.9
해 주	72.9	69.2	56.1	55.0	75.8	51.5	38.5	39.6	51.1	64.9	46.0	56.1	55.8
원 산	74.6	70.2	66.4	61.5	71.0	52.1	30.8	30.1	41.7	65.9	42.7	59.4	54.6
함 흥	75.1	67.7	64.9	57.0	62.3	46.2	28.6	26.9	49.0	63.0	40.1	55.8	53.0
장 진	73.6	62.6	58.2	51.7	60.4	44.6	30.5	34.7	41.3	62.4	44.6	55.0	51.6
청 진	73.8	66.3	58.3	59.5	54.3	41.3	20.3	27.7	47.8	69.9	43.2	54.6	49.7
혜 산	67.5	69.2	64.2	58.2	63.4	58.6	40.0	31.1	43.9	68.0	55.8	58.5	55.6
강 계	63.1	61.3	51.5	55.9	62.0	55.8	37.2	33.9	41.7	60.9	40.4	44.0	50.4

인민 경제 발전 통계

사회 총 생산액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1
사회 총 생산액	100	219	163	355	797	941
		100	75	162	364	429
			100	217	488	576
				100	224	265
					100	118

사회 총 생산액의 인민 경제 부문별 구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1
사회 총 생산액	100	100	100	100	100	100
공업	23.2	35.6	30.7	40.1	57.1	56.3
농업	59.1	40.6	41.6	26.6	23.6	24.8
운수 체신	1.6	2.9	3.7	4.0	2.2	1.9
기본 건설	—	7.2	14.9	12.3	8.7	6.7
상품 류통	12.0	9.4	6.0	10.8	6.0	8.2
기타	4.1	4.3	3.1	6.2	2.4	2.1

국민 소득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1
국민 소득 총계	100	209	145	319	683	810
		100	70	153	328	389
			100	220	470	558
				100	214	254
					100	119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1	1962
공업	100	252	197	386	539	582	605
		100	78	153	214	231	241
			100	196	273	295	307
				100	140	151	157
					100	108	112
						100	104

	1946	1949	1953	1956	1960	1962
철도 운수	100	282	125	309	552	567
		100	44	109	196	201
			100	246	440	452
				100	179	183
					100	103

로동자, 사무원의 화폐 임금의 장성 (%)

	1949	1953	1956	1960	1961	1962
로동자, 사무원의 1명당 년 평균 임금	100	105	165	386	399	403
		100	158	370	381	386
			100	234	242	245
				100	103	105
					100	101

로동자, 사무원 세대의 생계비 구성 (%)

	1956	1958	1960	1961	1962
생계비 총계	100	100	100	100	100
음식비	57.8	49.8	47.3	47.9	46.5
피복비	24.8	30.0	30.9	28.4	29.9
거주비	0.8	0.8	0.7	0.6	0.6
가구류 구입비	2.5	2.9	3.6	4.5	3.8
연료 및 조명비	2.4	2.1	2.3	2.8	3.3
문화 위생비	11.7	14.4	15.2	15.8	15.9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 임금의 장성 (%)

	1949	1956	1959	1960	1962
로동자 사무원의 실[illegible] 임금	100	98	198	203	211

협동 농장원 세대의 생계비 구성 (%)

	1957	1959	1960	1961	1962
생계비 총계	100	100	100	100	100
음식비	77.2	66.4	64.8	57.9	58.9
피복비	14.3	21.4	21.6	24.1	23.8
가구류 구입비	1.9	1.7	1.8	2.1	2.3
연료 조명비	0.5	1.1	4.8	7.8	6.9
문화 위생비	6.1	9.4	7.0	8.1	8.1

* 가구류 구입비에는 거주비가 포함됨

인구의 출생, 사망 및 자연 증가

	1944	1949	1953	1956	1960	1961	1962
인구 1000명 당 출생자 수	31.3	41.2	25.1	31.0	38.5	36.7	41.1
인구 1000명 당 사망자 수	20.8	18.7	18.1	17.6	10.5	11.5	10.8
인구 1000명 당 자연 증가 수	10.5	22.5	7.0	13.4	28.0	25.2	30.3

공업 부문에서의 발명 및 합리화

	1956	1957	1958	1959	1960	1962
제출된 건수	15 716	22 364	36 737	41 760	53 472	64 648
도입된 건수	9 300	14 098	18 912	21 259	28 580	41 440

국영 및 협동 단체 기업소 수 (단위 개)

	1954	1956	1960	1961	1962
국영 및 협동 단체 총계	1 463	1 457	2 897	2 767	2 761
국 영	742	744	2 254	2 129	2 205
그중 도영	184	160	1 752	1 567	1 594
협동 단체	721	713	643	638	556
생산 협동	556	551	488	489	385
수산 협동	165	162	155	149	171

로동자 수에 의한 규모별 국영 공업 기업소의 비중 (%)

	1954	1957	1960	1962
총 계	100	100	100	100
100 명 까지	43.0	36.2	56.5	46.2
101~500 명	38.7	41.3	28.6	37.4
501~1 000 명	12.0	13.4	8.1	8.0
1 001~2 000 명	5.1	7.5	4.1	5.2
2 001~3 000 명	0.8	0.7	1.3	1.5
3 001 명 이상	0.4	0.9	1.4	1.7

공업 총 생산액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1	1962	1962/1953	1962/1956	1962/1961
공업 총 생산액	100	337	216	615	21배	24배	29배	14배	476	120
중앙 공업	100	363	230	722	18배	22배	26배	11배	355	117
지방 공업		100	96	187	17배	17배	22배	22배	1 153	126

공업 총 생산액의 년 평균 증가 속도 (%)

	1947~1949	1954~1956	1957~1960	1954~1960
공업 총 생산액	49.9	41.7	36.6	39.0
중앙 공업	53.7	46.5	25.0	33.9
지방 공업	—	24.8	73.2	50.3
생산 수단 생산 (A)	55.3	59.4	37.7	46.6
소비재 생산 (Б)	42.3	28.0	34.9	31.7

부문별 공업 총 생산액의 장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1	1962	1962 / 1946	1962 / 1961
발전 공업	100	151	40	130	234	258	278	214	108
연료 공업	100	301	34	240	659	709	789	329	111
광석 채굴업	100	398	301	561	14배	16배	15배	274	99
야금 공업	100	388	41	567	17배	20배	23배	412	119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업	100	535	663	21배	99배	120배	145배	681	125
화학 공업	100	310	67	288	13배	16배	24배	819	143
림산 및 목재 가공 업	100	173	137	307	566	656	731	238	116
방직 공업	100	685	10배	21배	72배	78배	99배	480	129
문방구 및 잡화 공업	100	616	556	22배	150배	206배	237배	11배	120
수 산 업	100	779	187	720	19배	18배	21배	287	124
식료품 및 기호품 공업	100	238	149	301	13배	14배	17배	581	132

국영 및 협동 단체 중요 공업 제품 생산량

	단위	1944	1949	1956	1960	1962
발전량	백만kWH	8 137	5 924	5 120	9 139	11 445
석 탄	천 톤	5 740	4 005	3 908	10 620	13 200
철광석	〃	3 106	680	678	3 108	3 336
선철(립철 포함)	〃	481	166	231	853	1 213
강 철	〃	147	144	190	641	1 050
강 재	〃	105	116	133	474	633
세멘트	〃	894	537	597	2 285	2 376
전동기	대	—	668	8 818	40 588	48 879
화학 비료	천톤	512	401	195	561	779
류 산	〃	393	304	109	255	316

	단위	1944	1949	1956	1960	1962
가성 소다	천톤	12	9	6	25	32
카바 이드	〃	152	136	99	125	179
지 류	〃	10	17	26	47	65
직 물 류	천km	1 378	12 842	77 080	189 659	256 167
내 의 류	천매	60	591	2 186	16 380	20 654
양 말	천켤레	1 080	6 617	10 061	27 407	29 428
신 발 류	〃	5 000	5 790	17 532	23 297	23 710
수 산 물	천톤	362	273	365	465	840
소 금	〃	140	280	157	324	421
간 장	kℓ	5 054	17 926	28 042	85 569	115 874
된 장	톤	2 800	—	55 275	100 747	133 938
식물 성유	〃	5 428	8 204	9 078	13 873	27 335

중요 공업 제품 생산량의 장성(%)

	1962/1944	1962/1949	1962/1956	1962/1960
발전량	141	193	224	125
석 탄	230	330	338	124
철 광석	107	491	492	107
선철(립철 포함)	252	731	525	142
강 철	716	727	553	164
강 재	602	547	477	134
세 멘 트	226	443	398	104
전 동 기	—	73배	554	120
화학 비료	152	194	400	139
류 산	80	104	289	124
가성 소다	281	351	530	132
카바 이드	118	131	181	143
지 류	676	384	250	136
직 물 류	186배	20배	332	135
내 의 류	344배	35배	945	126
양 말	27배	445	293	107
신 발 류	474	409	135	102
수 산 물	232	307	230	181
소 금	301	150	269	130
간 장	23배	646	413	135
된 장	48배	—	242	133
식물 성유	504	333	301	197

중요 공업 제품 인구 1인당 생산량

	단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2
전 력	kwн	423	631	132	590	914	1 015
석 탄	kg	136	434	92	450	1 062	1 171
선철(립철포함)	〃	0.3	18	—	27	85	108
강 철	〃	0.5	15	0.5	22	64	93
강 재	〃	1	12	0.5	15	47	56
화학 비료	〃	17	43	—	23	56	69
직 물 류	m	0.3	1.4	2.8	9	19	23
신 발류	켤레	—	0.6	1	2	2.3	2.1
수산 물	kg	—	29	16	47	47	75

공업 상품 생산물의 원가 저하 (%)

	1954	1956	1957	1960	1961	1962
선행 년도 평균 원가에 비한 저하률	11.6	6.7	11.1	4.0	2.1	7.6

농업 기업소 수 (단위 개소)

	1953	1956	1958	1960	1961	1962
국영 농목장 총계	213	188	178	169	172	182
그중						
1) 농업 위원회 직속 농목장	37	49	178	39	41	31
2) 농촌 경리 위원회 직속 농목장	176	139	—	130	131	151
농기계 작업소	15	48	70	89	117	144

경지 면적 (단위 천 정보)

	1946	1949	1953	1956	1960
총 경지 면적	1 860	1 983	1 965	1 899	1 913
논	388	467	478	491	510
밭	1 472	1 516	1 487	1 408	1 403

경지 면적의 지목별 구성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2
총 경지 면적	100	100	100	100	100	100
논	20.9	23.6	24.3	25.9	26.7	27.0
밭	79.1	76.4	75.7	74.1	73.3	73.0
밭중 과 수 원	1.4	1.0	1.1	0.9	2.7	4.1
순 뽕 밭	0.5	0.1	0.2	0.5	1.4	1.4

뜨락또르 대수 및 그의 작업량

	단위	1953	1956	1960	1961	1962
뜨락또르 대수 (15마력 환산)	대	764	2 561	12 500	13 996	15 692
총 작업 면적 (연경 환산)	천정보	127	677	6 869	7 298	9 862
뜨락또르에 의한 총 기경 면적	〃	118	370	1 145	1 278	1 509
총 경지중 뜨락또르에 의한 기경률	%	2.6	10.5	36	45	46

화학 비료의 시비량

	단위	1949	1956	1960	1961	1962
총 시비량	천톤	260	215	307	501	566
정보당 시비량	kg	131	113	160	249	281
논	〃	—	—	248	386	400
밭	〃	—	—	126	215	245

운수 수단의 장성 (%)

	1962/1949	1962/1953	1962/1956	1962/1960	1962/1961
철도 영업 거리	103	112	104	99	99
그중 광 궤	—	117	106	99	99
전기 철도	—	—	396	121	100
기관차 총 수	68	77	84	106	104
그중 전기 기관차	246	267	291	128	119
화 차 총 수	—	260	130	119	115

운수 형태별 화물 순환 및 수송량 장성 (%)

	1962/1946	1962/1949	1962/1953	1962/1956	1962/1960	1962/1961
화물 순환						
철 도	15배	290	499	231	109	100.4
자 동 차	71배	18배	986	488	115	113
선 박	839	585	19배	672	151	125
화물 수송량						
철 도	13배	269	411	239	113	107
자 동 차	384배	61배	40배	975	114	119
선 박	12배	409	10배	353	115	103

운수 형태별 화물 순환의 비중 (%)

	1946	1949	1953	1956	1960	1961	1962
총 화물 순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철 도	95.2	98.0	95.9	96.0	92.7	93.0	92.1
자 동 차	1.3	1.0	3.1	2.9	5.6	5.3	5.9
하천및 해상	3.5	1.0	0.5	0.7	1.4	1.5	1.9
기 타	—	—	0.5	0.4	0.3	0.2	0.1

체신 업무량

	단위	1946	1949	1956	1960	1961
우 편 국	개소	329	431	501	792	807
통상 우편 접수	천통	7 248	43 506	44 915	72 470	82 958
소포 우편 접수	천개	51	264	178	733	997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 (%)

	1962/1949	1962/1954	1962/1956	1962/1961
기본 건설 총 투자액	734	197	185	110
생산적 건설	771	204	185	101
비 생산적 건설	649	179	186	145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구성 1 (%)

	1949	1954～1956	1957～1960	1961	1962
기본 건설 투자 총액	100	100	100	100	100
생산적 건설	70	73	72	80	73
비생산적 건설	30	27	28	20	27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구성 2 (%)

	1954	1956	1960	1961	1962
국가 기본 건설 총 투자액	100	100	100	100	100
건설 및 조립 작업비	65.5	61.3	54.2	50.0	50.0
설 비 비	27.3	24.6	29.7	29.7	30.9
지질 탐사비	1.6	2.8	7.8	8.2	6.5
예비 조사 및 설계 사업비	0.6	2.8	2.7	2.9	2.7
기 타	5.0	8.5	5.6	9.2	9.9

인민 경제 부문별 투자액의 구성 (%)

	1956	1960	1961	1962
기본 건설 총 투자액	100	100	100	100
그중 공 업	53.6	45.9	58.1	55.8
농촌 경리	10.5	12.3	12.7	10.6
운수 체신	7.9	7.4	7.0	6.1
상업 및 사회 급양	1.5	2.5	2.1	0.9
교육, 문화, 보건	6.0	8.4	4.7	4.0
주 택	14.6	15.1	8.9	16.9

주 택 건 설

(단위 1 000m^2)

	1954~1956	1957~1960	전후~1962년 말까지	1960	1961	1962
건설한 주택 총 면적	10 278	11 280	32 571	2 687	2 196	6 129
도시에 건설한 것	4 719	6 216	16 818	1 675	1 394	3 113
농촌에 건설한 것	5 559	5 064	15 753	1 012	802	3 016

조립식 건설의 비중 (%)

	1957	1959	1960	1962
총 계	18.1	30.7	42.8	53.8
산업 건설	8.2	22.6	20.8	26.8
주택 건설	32.4	58.2	59.3	72.6
공공 건설	32.2	30.8	34.2	50.7

종업원 수의 장성

(단위 1 000명)

	1946	1949	1953	1956	1960	1961	1962
평균 재적 종업원 수	260	565	575	808	1 458	1 538	1 739
년말 현재 종업원 수	—	—	628	850	1 506	1 609	1 865
그중 녀성 종업원 수	—	—	165	169	493	521	651

기술자 및 전문가 수

(단위 명)

	1953. 10.10	1957. 9.20	1960. 11.15	1961. 11.15	1962. 11.15
기술자 및 전문가 총수	21 872	73 358	133 466	161 310	183 117
기사	1 837	5 860	11 991	16 220	21 446
기수	6 763	22 429	57 978	66 943	76 662
전문가	—	15 410	26 005	36 237	44 011
중등 전문가	13 272	29 659	37 492	41 910	40 998

천리마 작업반 수 및 그에 망라된 인원 수

	1962년말 현재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참가하고 있는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수여 받은 작업반 수					
			1961년		1962년		장성 %	
	작업반 수	인원 수	반수	인원수	반수	인원수	반수	인원수
계	89 254	2 790 216	8 562	210 615	12 743	365 271	149	177
로동자, 사무원	62 968	1 007 125	7 243	153 649	8 904	183 755	123	120
협동 농장원	17 473	1 177 837	374	27 785	1 986	104 665	531	377
학생	8 813	605 254	945	29 181	1 853	76 851	196	263

상업망 수

(단위 개소)

	1946	1949	1953	1956	1960	1962
상업망 총 수	951	3 365	3 733	5 714	10 633	10 589
그중 상점	951	2 803	3 093	4 777	9 354	9 383
국영 상업	1	1 371	1 628	2 646	7 039	6 894
그중 상점	1	1 095	1 303	2 096	5 816	5 706
협동 상업	950	1 994	2 105	3 068	3 594	3 695
그중 상점	950	1 708	1 790	2 681	3 538	3 677

중요 품종별 류통액의 장성

(대비 가격으로, %)

	1962/1949	1962/1953	1962/1956	1962/1960	1962/1961
식료품	528	736	322	128	114
량곡	343	188	175	97	110
육류	13배	—	755	116	111
수산물	201	15배	275	145	108
식용유	14배	989	13배	388	162

	1962/1949	1962/1953	1962/1956	1962/1960	1962/1961
간 장	421	12배	435	146	111
된 장	—	15배	269	142	115
채 소	40배	27배	743	139	104
비 식 료 품					
기성복	60배	—	12배	144	118
내의류	24배	29배	683	141	109
양말류	622	10배	383	133	107
신발류	422	326	258	115	100

학교 수

(단위 개소)

	1946~1947	1949~1950	1953~1954	1956~1957	1959~1960	1960~1961	1961~1962	1962~1963
학교 총 수	2 731	5 069	4 735	5 452	7 896	8 481	8 470	8 957
그중 대학	4	15	15	19	37	76	92	97

학생 수

(단위 1,000명)

	1946~1947	1949~1950	1953~1954	1956~1957	1959~1960	1960~1961	1961~1962	1962~1963
학생 총 수	1 289	1 969	1 776	2 107	2 470	2 530	2 454	2 638
그중 대학생 수	3	18	11	22	52	97	182	209

교원 수

(단위 명)

	1946~1947	1949~1950	1953~1954	1956~1957	1959~1960	1960~1961	1961~1962	1962~1963
교원 총수	21 089	41 445	41 158	52 434	65 212	70 938	72 716	74 540

문화 시설

	단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1	1962
극 장	개소	2	11	11	13	15	19	19
그의 좌석 수	좌석	1 500	8 304	5 200	9 450	24 317	26 776	26 620
영화관	개소	81	110	112	248	402	425	531
그의 좌석수	좌석	44 900	61 026	35 078	92 345	168 161	219 595	243 935
영화 제작	편	—	29	26	102	182	156	167

보건 시설 및 의사 수

	단위	1946	1949	1953	1956	1960	1961	1962
병 원 수	개소	85	175	329	313	447	483	516
그의 침대 수	대	2 031	6 020	13 829	18 104	32 698	38 859	45 000
의사 및 준의 수	명	1 009	2 131	3 009	5 650	11 919	14 172	15 874
탁 아 소	개소	1	12	64	224	7 626	6 991	6 638
그의 좌석 수	좌석	20	620	2 165	6 538	394 489	457 029	581 964
유 치 원	〃	64	116	19	173	4 470	4 313	5 121

휴양소 및 정양소 수

	단위	1953	1956	1960	1961	1962
휴양소 및 정양소 수	개소	30	66	284	287	360
그의 침대 수	대수	2 625	5 395	22 313	26 555	32 347
휴양 및 정양자 수	천명	36	127	359	393	438

남조선 주요 통계

실업 및 반 실업자의 증대 (단위 1,000명)

	실업 및 반실업자	증가 비률 (%)
1949	895	100.0
1952	1 097	122.5
1953	1 205	133.4
1954	1 324	148.0
1955	2 000	223.4
1956	3 502	391.2
1957	3 800	424.7
1958	4 286	478.8
1959	5 350	597.7

자료 출처; 남조선 《자유 신문》 1954년 10월 4일, 《전남 일보》 1953년 1월 24일, 《서울 신문》 1955년 2월 10일, 1958년 5월 12일, 《충북 일보》 1956년 9월 15일, 《조선 일보》 1959년 5월 30일.

* 남조선 출판물들에 의하면 1960년의 실업 및 반실업자의 수는 600만명, 1962년에 그것은 70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제조 공업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의 저하 (단위 원)

	제조 공업 로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 (ㄱ)	월 평균 생계비 (ㄴ)	실질 임금 지수	ㄱ/ㄴ(%)
1957	2 030	4 800	100	42.0
1958	2 310	5 380	102	43.0
1959	2 340	7 138	78	33.0
1960	2 600	8 200	75	31.7
1961	2 830	9 200	73	30.7

자료 출처; 남조선 《경제 년감》 1959년판,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0년 9월호, 《경제 통계 년보》 1960년, 《조선 일보》 1962년 5월 15일,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2년 12월호.

로동자들의 생계비와 로임의 대비

(단위 원)

	월생계비 (ㄱ)	제조 공업		광 업	
		금액(ㄴ)	ㄴ/ㄱ (%)	금액(ㄷ)	ㄷ/ㄱ (%)
1956	4 352.4	1 890.0	43	2 590.0	59
1957	4 800.0	2 020.0	42	3 160.0	66
1958	5 380.3	2 310.0	43	3 570.0	66
1959	7 138.1	2 340.0	33	3 270.0	46
1960	8 200.0	2 600.0	31.7	3 570.0	43.5
1961	9 200.0	2 830.0	30.7	4 060.0	44.1
1962	—	2 990.0	—	4 550.0	—

자료 출처; 남조선 《경제 년감》 1959년판, 《경제 통계 년보》 1960년, 《조선 일보》 1962년 5월 15일, 《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62년 12월호, 1963년 3월호.

절량 농가의 증대

(단위 만호)

	절량 농호 수	증가 비률 (%)
1954.4	47	100
1955.2	38	84
1956.4	65	144
1957.3	98	218
1961.1	100	222
1962	130	289

자료 출처; 남조선 《조선 일보》 1954년 5월 26일, 《경향 신문》 1955년 3월 26일, 《산업 경제 신문》 1956년 5월 1일, 《합동 통신》 1961년 2월 2일, 《서울 방송》 1962년 3월 9일.

시기별 계층별 절량 농가의 증대

(1961년)

	조사대상(호)	4월 10일 현재		4월말 현재		5월말 현재	
		절량 호수	%	절량 호수	%	절량 호수	%
0.5정보 미만	57	37	65	50	87.7	55	96.5
0.5~1정보 미만	25	4	16	9	36	16	64
1~2정보	3	—	—	—	—	—	
계	85	41	48	59	69	71	83.5

자료 출처; 남조선 《신경제》 1961년 5월호.

주; 본 자료는 《수원 농과 대학》에서 조사한 자료임.

로동 재해

	재해 발생 건수	재해자 수		
		사망	부상	계
1955	—	23	75	98
1956	—	31	145	176
1957	—	92	68	160
1958	—	126	140	266
1960	7 496	175	7 402	7 577
1961	8 284	95	7 947	8 042
1962	12 067	133	13 917	14 050

자료 출처; 남조선 《경제 년감》 1959년판, 《동화 통신》 1961년 4월 4일, 《산업 경제 신문》 1962년 3월 20일, 《한국 일보》 1963년 2월 1일.

농가 부채액의 증대

	부채 총액 (억 환)	농가 1호당 부채액(환)	1호당 부채액의 증가률
1953.5	90	4 036	100
1954.5	180	8 971	222
1956.10	885	40 227	997
1957	1 090	49 089	1 214
1958	1 200	54 500	1 350
1959	1 800	80 700	2 000
1960	1 844	82 690	2 049

주; 1) 1960년도 경기도의 농가 매호당 부채액은 11만 환이였다.

2) 1961년 6월 10일 《군사 정권》은 《농어촌 고리채 정리령》을 조작하여 농민들에 대한 고리채에 의한 봉건적 착취를 법적으로 재 확인하고 그 자신이 고리채의 채권자로 되였다.

자료 출처; 남조선 《재정》 1953년 5월호, 《서울 방송》 1960년 8월 2일, 《동화 통신》 1960년 10월 17일, 《경향 신문》 1960년 10월 18일, 《전북 일보》 1961년 5월 30일.

경작 규모별 농가 부채

(1960년 9월)

	농가 호수 (호)	1호당 부채액 (원금) (환)	농가 부채 총액 (원금) (백만환)	지불 리자 포함한 농가 부채 총액 (백만환)	%
0.5정보 미만	958 170	46 534	44 589	55 055	30
0.5~1정보 미만	688 303	65 813	45 299	55 015	30
1~2정보 미만	474 274	92 712	43 968	52 333	29
2정보 이상	146 699	127 207	18 661	21 175	11
계	2 267 419	67 276	152 515	183 578	100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일보》 1961년 5월 14일.

계층별 용도별 고리채의 리용 정형

(1960년 9월 현재, %)

	농사 자금 기타	생계비	합 계
0.5정보 미만	38	62	100
0.5~1정보 미만	44.7	55.3	100
1~2정보 미만	47.6	52.4	100
2정보 이상	60	40	100

자료 출처; 남조선 《조선 일보》 1961년 5월 14일, 《대구일보》 1961년 8월 28일.

경작 규모별 고리채 의존 정형

	고리채 의존 농가 (%)
0.5 정보 미만	83
0.5~1정보 미만	77
1~2정보 미만	75
2정보 이상	56

자료 출처; 남조선 《조선 일보》 1960년 8월 15일.

리자률 별 부채의 구성

(1960년 12월 현재)

리자률	구성 비률
사 채 총 액	100
무 리 자	15.4
월리 2%미만	0.9
〃 2~5% 미만	18.2
〃 5~10%미만	60.1
〃 10%	4.1
〃 11~15%미만	0.9
〃 15~20%	0.4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일보》 1961년 5월 14일, 《경향 신문》 1961년 5월 14일.

주택 부족의 증가

	주택 부족수(호)	증가 비률(%)
1949	370 000	100.0
1958	520 000	140.5
1959	452 000	122.1
1960	1 037 000	280.2
1961	1 186 000	317.8
1962	1 446 728	390.8

자료 출처; 남조선 《동아 일보》 1959년 6월 9일, 《세계 통신》 1958년 2월 18일, 《조선 일보》 1960년 8월 25일, 《민국 일보》 1962년 1월 1일, 《합동 통신》 1962년 9월 4일, 《산업 경제 신문》 1963년 4월 26일.

서울 시내 주택 부족의 증가

	주택 부족수(동)	증가 비률 (%)
1958	113 551	100
1959	158 443	139. 5
1960	175 739	154. 8
1961	249 613	218. 9
1962	265 574	233. 8
1963	277 348	244. 2

자료 출처; 남조선 《조선 일보》 1959년 11월 1일, 《동아 일보》 1961년 6월 28일, 《국제 신보》 1961년 10월 4일, 《조선 일보》 1962년 1월 6일, 《한국 문화 방송》 1963년 9월 2일.

무의면의 증가

	면수 (개)	무의면 수	무의면의비중
1953	1 475	580	39.4
1954	1 509	563	37.4
1955	1 495	551	37.8
1956	1 495	603	40.3
1957	1 495	581	38.8
1958	1 483	517	34.8
1959	1 484	500	33.6
1960	1 484	564	38.6
1961	1 407	607	43.1
1962	…	700	…

자료 출처; 남조선《합동 통신》 1959년 12월 7일, 《동화 통신》 1960년 11월 5일, 1962년 1월 11일, 1962년 3월 29일, 《한국 년감》 1961년판, 1962년판.

의사의 도시 집중도와 의사대 인구비

(1961년 현재)

	도시	농촌
의사 총수의 지역별 비중(%)	80	20
의사 1명당 인구수 (명)	2 400	13 143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년감》 1962년판, 《세계 통신》 1961년 2월 5일.

장 티브스 및 뇌염의 만연

(단위 명)

	장 티브스		뇌 염	
	발생수	사망수	발생수	사망수
1952	1 352	70	1 221	526
1953	617	21	280	112
1954	353	28	316	148
1955	351	17	2 056	837
1956	619	33	269	124
1957	1 411	71	132	56
1958	…	…	6 897	111
1959	…	…	2 118	696
1960	2 775	121	2 118	451
1961	16 468	507	1 058	366
1962	4 000	228	1 257	376

자료 출처; 남조선 《합동 통신》 1957년 2월 23일, 1962년 8월 18일, 《동양 통신》 1958년 4월 8일, 《한국 년감》 1958년판, 《동화 통신》 1959년 9월 17일, 1963년 7월 5일, 9월 25일, 《세계 통신》 1959년 6월 17일, 《경향 신문》 1960년 8월 24일, 《한국 일보》 1961년 7월 31일, 1963년 7월 24일, 《조선 일보》 1961년 3월 15일, 9월 15일; 1963년 3월 15일, 《국제 신보》 1961년 8월 8일, 《부산 일보》 1962년 9월 4일, 《합동 통신》 1962년 8월 18일.

화 재

	발생 건수	인명 피해 (명)			건물 소실 (동)	피해 총액 (천환)
		사망	부상	계		
1951	1 553	124	290	414	3 749	565
1952	1 566	177	507	684	3 862	965
1953	2 453	136	474	610	14 404	19 836
1954	2 485	168	339	507	9 664	1 712
1955	1 935	122	307	429	1 615	4 581
1956	1 341	109	278	387		1 300 000
1957	1 150	1 460	1 740	3 200	1 915	1 567 580
1958	1 667	112	180	292	2 566	1 708 048
1959	1 558	136	195	331	1 764	1 618 449

	발생 건수	인명 피해 (명)			건물 소실 (동)	피해 총액 (천환)
		사망	부상	계		
1960	1 946	130	287	417	2 901	9 391 318
1961	2 350	…	…	275	417	2 273 000
1962	2 200	1 310	317	448	2 204	2억원

자료 출처; 남조선 《한국 년감》 1956년 판, 《조선 일보》 1957년 7월 13일, 《합동 통신》 1958년 1월 15일, 《부산 일보》 1960년 1월 16일, 《경향 신문》 1963년 4월 3일, 《서울 방송》 1960년 11월 15일, 《동양 통신》1960년 1월 15일, 《한국 문화 방송》 1963년 7월 14일, 《동화 통신》 1962년 11월 28일, 《동양 통신》 1961년 1월 30일, 《서울 방송》 1962년 3월 17일, 1962년 10월 13일,

자동차 및 렬차 사고

	발생 건수	인명 피해 (명)			월 평 균	
		사 망	부 상	계	발생 건수	인명 피해 (명)
1951	1 695	1 294	2 978	4 272	141	356
1952	3 639	2 103	4 995	7 098	303	592
1953	4 921	2 628	6 235	8 863	411	739
1954	5 599	2 561	8 282	10 843	467	904
1955 (1～11)	4 588	1 803	6 385	8 188	382	682
1956 (1～10)	5 241	2 279	6 505	8 784	437	732
1957	4 188	1 663	5 547	7 210	349	601
1958	4 423	1 356	5 712	7 068	369	589
1959	4 909	1 276	6 206	7 482	409	624
1960	6 342	1 402	8 751	10 153	529	729
1961	6 954	1 169	7 222	8 391	579	699
1962	7 699	1 572	6 897	8 469	642	706

자료 출처; 남조선 《서울 신문》 1955년 1월 12일, 《동화 통신》 1957년 11월 18일, 《경향 신문》 1957년 12월 8일 《동양 통신》 1958년 3월 17일, 《합동 통신》 1958년 11월 12일, 1958년 12월 16일, 1962년 1월 18일,《서울 방송》 1960년 10월 28일, 《동아 일보》 1961년 2월 3일, 《국제 신보》 1962년 5월 30일, 《합동 통계 년감》 1962년판, 《전남 일보》 1963년 8월 14일.

폭발물 사고

	발생건수	인명 피해 (명)				발생건수	인명 피해 (명)		
		사망	부상	계			사망	부상	계
1958	387	233	571	804	1961	326	177	519	696
1959	327	483	483	966	1962	787	154	363	517
1960	373	284	437	721					

자료 출처; 남조선 《평남 일보》 1963년 5월 4일.

범죄의 증가

	총 범죄 건수	1일 평균 발생 건수	증가 비률		총 범죄 건수	1일 평균 발생 건수	증가 비률
1950~1954 ①	384 392	291	100	1959	185 518	508	175
1955 ②	106 085	299	103	1960	325 531	892	307
1956	177 505	487	167	1961	715 675	1 961	674
1957	168 265	461	158	1962	723 985	1 984	682
1958	180 527	495	170				

주; ① 1950년 10월~1954년 6월 기간에 발생한 범죄임. ② 1955년도 자료는 1955년 12월 중순까지의 자료.

자료 출처; 남조선 《동양 통신》 1954년 10월 13일, 《합동 통신》 1955년 12월 21일, 《세계 통신》 1958년 2월 9일, 《조선 일보》 1962년 1월 23일, 《대한 일보》 1963년 3월 12일, 《한국 일보》 1963년 7월 10일.

공무원 및 소년, 학생 범죄의 증가

(단위 명)

	공무원	소년	학생	증가 비률 (%)		
				공무원	소년	학생
1957	3 322	15 139	…	100	100	…
1958	4 154	18 690	2 271	125	123.5	100
1959	4 112	24 959	2 933	123.8	164.9	124.8
1960	3 470	31 559	3 570	104.5	208.5	157.2
1961	…	41 800	4 210	…	276.1	185.4
1962	5 184	72 897	4 282	186.2	481.5	188.6

자료 출처; 남조선 《세계 통신》 1959년 1월 5일, 《합동 통신》 1955년 11월 6일, 1959년 4월 12일, 《동양 통신》 1960년 1월 11일, 《민국 일보》 1961년 4월 2일, 《동화 통신》 1963년 2월 21일, 《국제 신보》 1963년 3월 19일, 《한국 문화 방송》 1963년 7월 12일.

기아의 증가

(단위 명)

	년간 기아 총 수		월 평균 기아 수		증가 비률 (%)	
	남조선 전체	그중 부산	남조선 전체	그중 부산	남조선 전체	그중 부산
1955	715	337	60	28	100	100
1956	1 425	441	119	37	199.3	130.9
1957	2 506	529	209	44	350.5	157.0
1958	2 113	468	176	39	295.5	138.9
1959	2 415	477	201	40	337.8	141.5
1960	…	671	…	56	…	199.1
1961	1 837	①957	153	80	256.9	284.0
1962	2 263	…	189	…	316.5	…

주; ①은 1월~10월 기간에 발생한 기아 수.

자료 출처; 남조선 《동아 일보》 1960년 2월 2일, 《부산 일보》 1960년 2월 3일, 8월 27일, 12월 2일, 1961년 12월 14일, 《전남 일보》 1963년 2월 3일, 《동화 통신》 1963년 5월 3일.

행려 병사자의 증가

(단위 명)

	병사자 수	월 평균 사망자 수	증가률(%)
1954	807	67	100
1955	1 022	85	127
1956	1 096	91	136
1957	1 112	93	138
1958	1 249	104	155
1960	1 688	141	210
1961	1 380	115	172
1962 (1~6)	783	131	196

주; 1961년과 1962년은 서울시 내에 한한 것,
자료 출처; 남조선 《보건 세계》 1962년 3월, 《조선 일보》 1962년 7월 17일.

자살자의 증가

(단위 명)

	자살자 총 수	월 평균 자살자 수	증가률(%)
1952	979	82	100
1954	1 431	119	147.2
1956	2 467	206	252.0
1958	3 076	256	314.2
1960	5 033	419	514.1

자료 출처; 남조선 《보건 세계》 1962년 3월호.

서울 시내 자살자의 증가

(단위 명)

	자살자 총 수	월 평균 자살자 수	증가률(%)
1960	613	51	100
1961	757	63	123.5
1962 (1~6)	452	75	147.3

자료 출처; 남조선 《국제 신보》 1962년 11월 20일, 《조선 일보》 1962년 7월 17일.

《국민 학교》 부족 교실의 증가

	소요 교실 수(1)	부족 교실 수(2)	2/1(%)
1954	41 353	17 909	43.3
1955	47 020	18 576	39.5
1956	52 635	22 129	42.0
1957	57 969	25 436	43.9
1958	60 857	25 718	42.3
1959	63 084	27 711	43.9
1960	…	30 597	…
1961	64 652	35 145	54.4
1963	73 704	39 400	53.5

주; 1963년 부족 교실 수에는 《가교실》 수업하기 곤난한 수리를 요하는 교실이 포함되여 있음.

자료 출처; 남조선 《동아 일보》 1959년 10월 28일, 《대한 교육 년감》 1961년판, 《서울 일일 신문》 1961년 3월 5일, 《산업 경제 신문》 1960년 2월 2일, 1961년 11월 6일, 《경향 신문》 1963년 1월 29일.

주요 일지

(1962.1.1~12.31)

1 월

1일 김 일성 수상 신년 축하연에서 신년사.

3일 평양시 서구 지구 공공 건물 건설 트레스트 윤 병권 청년 직장 건설자들 1인 4세대 건설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주택 건설자들에게 경쟁을 호소.

5일 무산 광산에서 철 정광 증산에 기여 할 길이 5천여 메터의 새 용수로 통수 개시 (조선 중앙 통신)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통상 대표 평양 도착(10일 귀국) ▶우리 나라와 불가리야 간에 1962~1965년 간의 통상 협정과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쏘피야에서 조인.

6일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평양 방직 공장 초급당 위원회 확대 회의 진행. 김 일성 동지는 성, 관리국들의 조직 지도 수준을 높이며 공장, 기업소들의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경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에 대하여, 공장 초급당 위원회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교시.

7일 중공업 부문 공무 동력 일'군 회의 (1월 7~10일) 진행,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비의 점검과 계획적인 예방 보수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한 1961년 2월 10일 당 중앙 위원회와 내각 공동 결정*실행 정형 총화 및 대안 전기 공장과 안주 탄광 현지 지도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의 교시를 관철할 데 대하여 토의.

8일 조 중 량국 정부 간의 1962년 상품 교류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수력 채탄 발전 문제에 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과학 기술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대표 파란의 까또비쩨로 출발.

9일 국립 연극 극장 창립 15주년 기념회 진행.

10일 대안 전기 공장 종업원들 1961년 실적의 2배인 1962년 생산 계획을 2개월 앞당겨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에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11일 대안 전기 공장 종업원들의 호소에 호응하면서 황해 제철소 종업원들 전국 야금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강철 고지 점령을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

12일 조선 수산 협회 중앙 위원회가 수재를 입은 남조선 동해안 리재 어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 수산 협회 위원장이 남조선 대한 적십자사 총재에게 전문.

13일 평양 의학 대학 병원 로력 영웅 정 성희 2중 천리마 안과 성원들 근로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봉사성을 더욱 제고할 것을 전국 보건 부문 천리마 작업반원들에게 호소.

15일 민청 중앙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가 민주 청년 동맹 앞에 준 강령적 과업을 실행하기 위한 1962년도 과업에 대하여 토의, 17일까지 진행.

16일 본궁 2.8 비날론 공장 종업원들 대안 전기 공장 종업원들의 호소에 호응하면서 1962년에 1만톤, 가까운 시일 내에 2~3만톤의 비날론을 생산할 것을 결의하고 화학 공장들에 직물 고지 점령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17일 평양 콩크리트 블로크 공장의 블로크 작장 종업원들 1인 57세대 분의 충막 부재 생산 운동을 발기하고 전국 건재 부문에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 파트리스 루뭄바 피살 1주년에 제하여 평양시 근로자들 콩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집회 진행 ▶ 1961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 총화에 관한 중앙 통계국 보도 발표 ▶숙천 농기계 작업소 종업원들 1962년 국가 계획을 2개월 앞당겨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 농기계 작업소 일'군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19일 2.8 마동 세멘트 공장 종업원들 1962년에 76만 톤의 세멘트 생산을 결의하고 전국 세멘트 공업 부문 일'군들에게 6개 고지 점령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본궁 화학 공장에 년산 1천 톤 능력의 디디티 직장 준공(조선 중앙 통신) ▶ 전국 예술 축전 농촌 부문 써클 경연 대회 (1월 8~19일) 페막.

20일 평양 방직 공장 종업원들 1962년도 직물 생산 계획을 118.6%로 초과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 경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23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관한 정령 발표▶우리 나라와 알바니야 량국 정부 간의 1962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및 1962년도 과학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각각 조인▶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에 도착 (2월 7일 귀국).

24일 직총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에서 조선 로동당 제 4 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1962년도 직업 동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26일까지 토의▶보천 림산 사업소 종업원들 전국 림업 부문 일'군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25일 관문군 농촌 건설대 종업원들 1인 5세대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 농촌 건설 대원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26일 김 일성 수상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와 관련하여 큐바 신문 《레볼루시온》 편집국이 제기한 질문에 답변 ▶ 군사 정전 위원회 제149차 회의 진행, 우리 측은 적측의 새 전쟁 도발 책동과 정전 협정 위반 행위를 폭로하고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

27일 무산 광산 종업원들 1962년 계획 보다 10만 톤의 정광 증산을 결의하고 전국 광업 부문 일군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29일 국가 학위 학직 수여 위원회 제 4차 상무 위원회에서 경락의 실태를 발견한 김 봉한 부교수에게 박사 학위 및 교수 학직 수여를 결정.

30일 큐바 혁명을 반대하여 미제가 조작한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를 항의 규탄하며 큐바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 우리 나라와 큐바 간에 1962 년도 상품 교류에 관한 의정서 하바나에서 조인.

2 월

1일 김 일성 수상 김 봉한 교수를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에 축하문.

2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상 수여 위원회에서 과학자 김 봉한과 연극 《붉은 선동원》, 《해바라기》, 《태양의 딸》, 예술 영화 《분계선 마을에서》에 인민상 수여를 결정.

3일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와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에서 기젱가와 콩고의 애국적 력량에 대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야만적 행위를 규탄하면서 기젱가의 즉시 석방을 단호히 요구하는 성명 발표 ▶ 제 2차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에 참가할 조선 대표단 카이로로 출발(27일 귀국).

5일 조 독 량국 정부 간의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7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241차 비서장 회의에서 우리측은 군용 비행기를 우리측 령공에 침입시킨 적측의 도발적 적대 행위에 강력히 항의 ▶ 안주 탄광 종업원들 전국 석탄 공업 부문 일'군들에게 석탄 1천 5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8일 김 일성 수상이 범 문동 수상에게 보낸 선물 전달식 월남 하노이에서 진행.

12일 김 일성 수상의 참석하에 전국 수산 부문 열성자 대회 14일 까지 진행, 제 4차 당 대회가 수산 부문 앞에 제시한 강령적 과업 실행과 1962년 수산물 8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한 대책을 토의.

13일 교통성 운수 부문 선로반장 회의 14일까지 진행, 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2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가 교통성 공무 부문 앞에 제시한 과업 실행 대책을 토의.

15일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미제 조종 하에 조작된 《한일 회담》을 통하여 남조선을 재 침공 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16일 소위 《한일 회담》과 《일본 경제 시찰단》들의 남조선 입국을 반대 배격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 농촌 건설성 제 3 건설 트레스트 종업원들 청단 관개 제 2 계단 공사를 년말까지 끝낼 것을 결의하고 전국 관개 건설 부문 기업소들에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20일 루마니야와 볼가리야를 방문하였던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 귀국 ▶ 우리 나라와 기니아 공화국 간의 1962~1963 년도 문화 교류에 관한 계획서와 1962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코나크리에서 조인.

22일 전국 산림 일'군 회의 24일까지 진행, 1961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총화와 1962년도 과업 집행 대책 토의.

23일 룡연군 협동 농장 종업원들이 년간 계획을 지표별로 초과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전국 국영 농목장 일'군들에게 사회주의 경쟁을 호소 ▶ 우리 나라와 쎄일론 간의 통상 협정 콜롬보에서 체결.

25일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에서 미제의 조종 하에 박 정희 도당이 감행하고 있는 범죄적 《이민》 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 궐기할 것을 호소하는 남조선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26일 조쏘 량국 간의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3 월

1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 인도 공화국 간의 령사 관계 설정 및 령사 대표 교환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2일 우리 나라에서 아동들을 홍역으로부터 보호케할 새로운 능동 면역에 성공 (조선 중앙 통신).

3일 외무성에서 남부 월남 인민들에 대한 미제의 범죄적 침략 정책을 규탄하며 2월 18일부로 발표한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6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3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 8일까지 진행, 《청산리와 강서군 당 지도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실천을 위한 황해남도 당 조직들의 사업 정형에 대하여》 토의.

7일 우리 나라와 말리 공화국 간의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6일)와 1962~1963년도 문화 교류에 관한 계획서를 바마코에서 조인 ▶ 몽고 혁명 청년 동맹 제 14차 대회에 참가할 조선 민청 대표 출발 (23일 귀국).

9일 김 일성 수상, 우리 나라 정부에서 네윈을 수상으로 하는

비르마 련방 신 정부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전문.

10일 벼 재배에 기술적 방조를 줄 조선 농업 기술자들 알바니야로 출발.

11일 김 일성 수상 음악 종합 공연을 관람하시고 음악 발전에 대하여 강령적 교시.

12일 우리 나라와 웽그리야 량국 정부 간의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14일 전국 경공업 부문 기술자 회의 개막, 16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우리 나라의 풍부한 원료 원천에 튼튼히 의거하여 인민 소비품 생산을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하여 토의.

16일 조 쏘 량국 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13주년 평양시 기념회 진행.

20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243차 비서장 회의에서 우리측 대표 적측이 감행한 672번째의 공중 침범 사건에 강경히 항의.

21일 큐바 청년 봉기자 협회 제 1차 전국 대회에 참가할 조선 민청 대표단 출발.

24일 우리 나라와 몽고 간의 1962년도 문화 협조 계획서 울란바또르에서 조인.

30일 우리 나라와 알바니야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2년도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및 경제 대표단과 캄보쟈 왕국 대표단 간에 공동 콤뮤니케 프놈펜에서 조인.

4 월

3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50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남조선에 또다시 해군 함선들을 비법 반입하고 있는 적측의 죄행을 폭로 규탄하고 4개 항목의 요구를 적측에 제기.

5일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0차 회의 개회, 7일까지 진행. 1961년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2년 국가 예산에 관한 문제와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승인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

10일 우리 나라와 체코슬로바키야 간의 문화 협정 실행을 위한 1962년도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11일 우리 나라와 파란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2년도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 우리 나라와 웽그리야 간의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부다페스트에서 조인 ▶ 쏘련 레닌 공산 청년 동맹 제 14차 대회에 참가할 조선 민청 대표 출발 (24일 귀국) ▶조선 과학 영화 촬영소 설치.

12일 중공업 부문 공장 기업소 지배인 회의 진행, 1961년 및 1962년 1.4분기 사업을 총화.

15일 김 일성 동지 탄생 50 주년에 제하여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및 내각에서 공동 명의로된 축하문 발표.

17일 중화 인민 공화국 주재 인도 공화국 림시 대리 대사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 (21일 귀국).

18일 남조선 인민들의 4월 봉기 2주년에 제한 평양시 보고 대회에서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 우리 나라와 루마니야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2년 사업 계획서 부카레스트에서 조인 ▶ 몽고 직맹 제 8차 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출발 (5월 5일 귀국) ▶ 체코 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 도착(28일 귀국).

20일 김 일성 수상 함흥 금속 전구 공장 및 흄관 공장 건설에 원조를 준 독일 기술자들에게 선물, 함흥 금속 전구 공장 및 흄관 공장 조업식 진행 ▶ 브라질 농민 동맹 위원장의 부인 알렉씨나 풀라와 그의 딸 평양 도착.

21일 중화 인민 공화국 주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한 익수 신임장 봉정 ▶위대한 웨.이.레닌 탄생 92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 진행 ▶큐바에서 진행되는 5.1절 기념 식전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출발(5월 29일 귀국).

23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 평양 도착, 24일 동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단장 팽진, 5월 3일 귀국) ▶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남조선 기자 언론인들에 대한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의 범죄적인 탄압을 규탄하는 성명.

24일 김 일성 수상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을 접견 ▶5.1절에 제하여 쏘련, 큐바, 기니아, 말리, 칠리, 아르헨틴 직맹 대표단 평양 도착▶ 서전—조선 친선 협회 대표단 평양 도착.

25일 항일 유격대 창건 30주년 기념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 쏘련에서 진행될 5•1절 기념 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출발 (5월 22일 귀국).

26일 5•1절에 제하여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의 호소문 발표 ▶ 우리 나라와 체코슬로바키야 량국 정부 간의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28일 김 일성 수상께서 자기 희생적 정신을 발휘하여 7명의 녀학생들을 구원한 함경남도 홍상군 포구 협동 농장원 김 정순 동무에게 편지 ▶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51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적측의 거듭되는 무력 증강 행위와 지상 및 해상에서의 도발적인 적대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 중국에서 진행되는 5•1절 기념 행사에 참가할 조선 직맹 대표단 출발 (5월 22일 귀국) ▶ 5•1절에 제하여 일본 및 브라질 직맹 대표단 평양 도착 ▶ 일 미 《안전 보장 조약》 페기 후꾸오까현민 공동 투쟁 회의 대표단 귀국.

30일 평양 역전 광장에서 무궤도 전차 개통식 진행 ▶우리 나라와 중국 간의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북경에서 조인 ▶우리 나라와 알바니야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2년도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5.1절에 제하여 세일론, 인도네시아, 잔지바르 직맹 대표단 평양 도착
▶5.1절에 제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각국 직맹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근로자들의 집회 진행.

5 월

1일 5.1절에 제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 하는 가나 직맹 대표단 평양 도착 (23일 귀국).

2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 중인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 단장 팽 진 동지에게 국기 훈장 제1급을 수여할 데 관한 정령 발표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대표단 토고 공화국 방문 ▶《쁘라우다》 창간 50 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대표 출발 (8일 귀국) ▶1962년도 국제 검사 기관 부문별 콘페렌찌야에 참가할 조선 수출품 검사 기관 대표단 파란 그디니시로 출발.

8일 조쏘 간의 1962년도 문화 및 과학 협조 계획서 모쓰크바에서 조인 (조선 중앙 통신) ▶군사 정전 위원회 제 244 차 비서장 회의에서 적측이 해상 및 비무장 지대에서 감행한 정전 협정 및 규정 위반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측 항의.

11일 우리 나라와 불가리야 간의 1962년도 문화 협조 계획서 쏘피야에서 조인.

14일 평양 예술 대학 창립.

15일 우리 나라 사회 단체들에서 《군사 정변》 이후 미제와 박정희 군사 파쑈 도당이 감행한 죄악을 폭로 단죄하는 성토문 발표 ▶조선 직업 총 동맹과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모조 대표단들의 공동 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와 서전～조선 친선 협회 간의 1962～1963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방직, 피복 및 피혁 공업 로동자 직맹 국제 련합 제 2차 대표자 회의에 참가할 조선 경공업 및 상업 로동자 직맹 대표 부카레스트로 출발 ▶일본 사회당 출신 중의원 의원이며 일조 협회 리사인 이노마다 고조 평양 도착 (21일 귀국) ▶인도네시아 기자 동맹 대표단 평양 도착.

17일 수로 1천리의 청단 관개 제 1계단 공사의 몽리 구역에 대한 급수 개시.

18일 우리 나라와 독일 간의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2년도 사업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말리 녀성 대표단 평양 도착 (21일 귀국) ▶전 싸이프러스 로조 련맹 대표 평양 도착(2 일 귀국).

20일 5천 키로 볼트 암빼아 발전 능력을 가진 장진강 발전소 1호 발전기 시운전 개시.

23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어부 칭호와 어부절을 제정함에 관한 정령 발표 ▶흥남 비료 공장에서 시간당 2천 립방메터 생산 능력 무연탄 가스 생산개시 ▶조쏘 친선 협회와 쏘련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협회, 쏘조 친선 협회 간의 1962년도 협조 계획서 모쓰크바에서 조인 ▶세계 직련 집행 위원회 제 25차 회의에 참가할 조선 직맹 대표단 부다페스트로 출발 (6월 15일 귀국).

25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52 차 회의 진행, 우리측은 적측의 새로운 무기의 비법적인 반입과 비무장 지대에서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군사 정전 위원회 쌍방 경무관 회의에서 우리 측은 공동 경비 구역에서 감행한 적측 헌병들의 도발 행위에 대하여 항의.

28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내각에서 전 인민적 운동으로 가물을 극복하며 당면한 영농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할 데 대한 공동 결정 채택.

29일 년산 2만 4천톤 능력 아오지 화학 공장 메타놀 계통 조업 개시 ▶잠업 기술을 연구할 볼가리야 잠업 기술자 평양 도착.

30일 사회주의 국가 보험 기관 대표자 정기 회의에 참가할 조선 대표단 모쓰크바로 출발 ▶조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12차 회의에 참가할 조선 대표단 모쓰크바로 출발 (6월 6일 귀국).

6 월

3일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대표단 튜니샤 방문.

5일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가입.

7일 미제를 반대하여 궐기한 남조선 학생 청년들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평양시 학생 청년 군중 대회 진행.

8일 라오스 군사 대표단 평양 도착.

10일 루마니야 전국 녀성 대회에 참가할 조선 녀성 대표 출발 (7월 6일 귀국).

11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245 차 비서장 회의에서 적측이 비무장 지대에서 감행한 53건의 정전 협정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우리측 엄중히 항의 ▶군사 정전 위원회 쌍방 경무관 회의에서 공동 경비 구역 우리측 건물에 불법 침입한 인원들을 적측에 인도.

12일 중국 방문 국립 예술 극장 배우들 평양 출발 (7월 24일 귀국) ▶전 인도네시아 로동 조합 중앙 조직 대표단 평양 도착 (7월 2일 귀국).

13일 철도 협조 기구 제 7 차 상 회의에 참가할 조선 교통성 대표단 울란 바또르로 출발.

15일 박 금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 중국 방문 (7월 2일 귀국) ▶일본 총평 화학 산업 로동 조합 동맹 대표단 평양 도착 (25일 귀국) ▶조 중 두나라 과학원 간의 과학 협조에 관한 계획서 북경에서 조인 ▶조선 주재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신임 전권 대사 평양 도착, 6월 18일 신임장 봉정.

16일 사회주의 국가 체신 전문가 회의에 참가할 조선 대표 모쓰크바로 출발 (7월 13일 귀국) ▶일본 전파 뉴스사 대표 평양 도착.

18일 조 몽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2차 회의에 참가할 조선 대표단 출발 (7월 6일 귀국).

20일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1차 회의 6월 21일까지 진행,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 데 대하여 토의하고 대한 민국 국가 재건 최고 회의 및 남조선 사회 정치 활동가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그리고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내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들을 채택 ▶즈나멘쓰끼 형제 기념 국제 륙상 경기 대회에 참가할 조선 륙상 선수단 출발 ▶제15차 세계 체조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조선 선수단 출발 (7월 21일 귀국).

22일 우리 나라 적십자 중앙 위원회에서 조일 량국 적십자 간에 체결된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 연장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적십자사에 전문.

23일 세계 직련 대표단 평양 도착 (7월 7일 귀국).

24일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 행위에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발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 즉시 철거를 위한 투쟁의 날》과 관련한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25일 회령 탄광 기계 공장에서 년산 2천톤 능력의 주강 직장 준공 ▶동해안 수산 부문 열성자 회의 함흥시에서 진행, 낙지 10만톤 생산을 위한 《60일 전투》를 전개할 데 대하여 결의하고 26일 페막.

27일 체코슬로바키야 방문 조선 정부 경제 대표단 출발 (8월 28일 귀국) ▶사회주의 국가 민용 항공 기관 및 외화 기관 전문가 회의에 참가할 조선 대표단 출발.

7 월

1일 신 금단 선수 즈나멘쓰끼 형제상 쟁탈을 위한 국제 륙상 경기 녀자 400메터(6월 30일) 와 800메터 경주에서 세계 기록 수립.

3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246차 비서장 회의에서 우리측 비서장 적측이 지상 및 공중에서 감행한 정전 협정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

4일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와 평화를 위한 세계 대회》에 참가할 조선 대표단 모쓰크바로 출발 (18일 귀국).

5일 조쏘 량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평양시 기념 대회 진행.

8일 이라크 혁명 승리 4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조선 정부 대표단 이라크에 도착(23일 이라크를 출발).

9일 경공업 부문 열성자 회의 개최, 12일까지 진행, 섬유 원료를 최대한으로 탐구 동원하여 직물 고지를 점령하며 경공업 제품의 품종 확대와 질 제고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데 대하여 토의.

10일 조 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평양시 기념 대회 진행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53차 회의 진행, 우리측은 강제 랍치하여 간 우리측 어민들을 즉시 돌려 보낼 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

14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방문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의 사업에 대한 보고 청취.

15일 1962년 상반년 인민 경제 발전 계획 실행 총화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가 계획 위원회 중앙 통계국의 보도 발표.

17일 조월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3차 회의에 참가할 월남측 대표단 평양 도착.

18일 일 조 협회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평양 도착(24일 귀국) ▶서서 문화 일'군들 평양 도착(1일 귀국).

19일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며 남부 월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전국 농촌 경리 부문 지도 일군 회의 21일까지 진행, 농촌 경리 부문 상반년 사업 총화와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사업을 일층 발전시킬 데 대하여 토의.

20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54차 회의 진행. 우리측은 강제 억류하고 있는 우리측 어민들을 하루 속히 돌려 보낼 것을 또 다시 적측에 촉구 ▶제 8 차 국제 항종양 학회에 참가할 조선 대표단 모쓰크바로 출발 ▶큐바 인민 무장 봉기 9주년 기념 식전에 참가할 조선 친선 대표단 출발 (8월 21일 귀국) ▶제 8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할 조선 청년 학생 대표단 출발 (8월 13일 귀국)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건설 상설 위원회 지역 계획 및 도시 건설 분과 제 6차 회의에 참가할 조선 대표단 부다페스트로 출발

23일 조 월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3차 회의 의정서 조인.

25일 칠레 로조 통일 련맹 제 3차 대회에 참가할 조선 직맹 대표단 산챠고에 도착 (8월 31일 귀국) ▶큐바 인민 무장 봉기 9주년 평양시 기념 대회 진행 ▶큐바 사탕 산업 로동자 전국 로조 대표단 평양 도착 (8월 16일 귀국).

26일 조선 주재 체코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 특명 전권 대사 꼬꼬우쉐끄 스따니슬라브 귀국.

27일 조쏘 량국 과학원들 간의 1962년도 과학 협조 계획 모쓰크바에서 조인.

28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1964년 도꾜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남북 조선 유일팀 구성 문제를 토의할 것을 제의하는 전문을 대한 올림픽 위원회에 발송.

30일 전국 건설 부문 관계자 회의 8월 1일까지 진행, 건설을 공업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20만 세대의 주택 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할 대책 토의.

31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247차 비서장 회의에서 우리측 비서장은 공중 및 지상에서 감행한 적측의 정전 협정 및 합의 규정 위반 행위들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조선—파란 기술 협조 위원회 제 4차 대회에 참가할 파란측 대표 평양 도착 (8월 15일 귀국).

8 월

1일 국제 기자 동맹 제5차 대회에 참가할 조선 기자 동맹 대표단 부다페스트로 출발 (21일 귀국).

2일 쏘련 방문 조선 인민군 협주단 배우들 평양 출발 (9월 5일 귀국).

3일 월남 민주 공화국 주재 우리 나라 신임 대사 마 동산 신임장 봉정.

4일 다산 정 약용 탄생 200주년 평양시 기념 보고회 진행 ▶우리 나라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에서 일본 적십자사에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협정을 그대로 1년간 연장하자는 조선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 6월 22일부 제안에 대한 일본 적십자사의 회답 서한과 관련하여 전문 발송.

7일 김 일성 수상의 지도하에 지방 당 및 경제 일'군 창성 련석 회의 8일까지 진행, 《산간 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집행 정형에 대하여》토의 ▶군사 정전 위원회 제 248차 비서장 회의에서 또다시 감행한 적측의 침범 행위에 대하여 우리측 강경히 항의.

8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10월 8일에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전 지역에서 실시함과 관련한 정령과 중앙 선거 위원회를 조직함에 관한 정령을 발표 ▶우리 나라와 월남 민주 공화국 간의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2년도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전국 피복 공업 부문 관계자 회의에서 10월 말까지 공화국의 전체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맵시 있고 질 좋은 외투와 동복, 방한모를 생산 공급할 것을 결의.

9일 우리 나라 주재 쏘련 신임 특명 전권 대사 평양 도착, 8월 13일 신임장 봉정 ▶큐바 기자 대표단 평양 도착 (29일 귀국).

11일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구 조직에 관하여 정령 발표.

13일 우리 나라 의학자들이 동의학에 기초한 새로운 수침 료법으로 세계적인 난치의 병—시신경 위축 환자의 성과적 치료에 성공(조선 중앙 통신) ▶조선 파란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4차 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14일 8·15 해방 17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 진행 ▶군사 정전 위원회 제 249차 비서장 회의에서 우리측 비서장은 간첩들을 우리측 지역에 침입시켰으며 공동 감시 소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또다시 우리측 어민들을 강제 랍치하여 간 적측의 란폭한 행동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

15일 쏘조 친선 협회 대표단 평양 도착 (9월 5일 귀국) ▶이라크 교육 문화 대표단 평양 도착 (22일 귀국) ▶큐바 방문 조선 기자 대표단 출발 (9월 14일 귀국) ▶쏘련 방문 조선 방송 대표단 출발 (9월 14일 귀국) ▶국제 우표 전람회에 참가할 조선 대표단 쁘라가로 출발.

20일 김 일성 수상 년산 8만톤 능력의 제2 중판 압연 직장 건설에서 로력적 위훈을 세운 성진 제강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축하문 ▶조선과 체코슬로바키야 간의 경제 호상 협조에 관한 문건 쁘라가에서 조인.

22일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제 7차 전원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모쓰크바로 출발 (9월 20일 귀국).

23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 제 49차 회의에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전체 조선 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25일 조선 인민군 해병들과 어민들에 의하여 태풍 속에서 구원된 남조선 어민들을 귀향 시킴과 관련하여 조선 중앙 통신사 보도 발표.

27일 김 일성 수상 황남도 신천군 새날 협동 농장 사업을 현지 지도 ▶강선 선거구 강선 제강소 종업원 회의에서 김 일성 수상을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대.

29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55차 회의 진행. 우리 측은 강제 랍치하여 간 어민들을 즉시 그리고 무조건 돌려 보낼 것을 적 측에 촉구.

30일 김 일성 수상 황해 제철소 사업을 현지 지도하시고(29일~30일) 강철 고지 점령을 위한 《120일 전투》의 승리자가 될 데 대하여 교시, 9월 5일 교시 관철을 위한 황해 제철소 종업원 궐기 회의 진행.

9 월

3일 큐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5일 김 일성 수상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추천 받은 각 선거구 선거자들에게 공개 서한, 김 일성 수상 강선 선거구에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것을 승락 ▶조중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5차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출발 ▶국제 철도 협조 기구 제 2 그루빠 회의 평양에서 진행 (11일 폐막).

7일 중국 식물 토양 학자들과 북경 인민 예술극원 대표단 평양 도착.

8일 김 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의 참가하에 년산 1억 8천만 메터의 천을 짤 스프, 인견사 생산 능력의 청진 화학 섬유 공장 준공식 진행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에서 당 중앙 위원회 위원이며 평양시 당 위원장인 김 경석 동지의 서거에 대하여 부고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위원장들의 협의회 진행.

9일 김 일성 수상을 비롯한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의 참가하에 청진 화학 섬유 공장 준공 및 공화국 창건 14주년 경축 청진시 군중 대회 진행.

10일 김 일성 수상 함북도 내 공장 기업소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11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 평양 도착.

12일 김 일성 수상 함흥시 내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13일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준공식 진행.

15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250차 비서장 회의에서 우리 측은 또다시 미제 침략군 측이 공중 및 지상에서 감행한 정전 협정 위반 사건들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

16일 김 일성 수상 강선 선거구 선거자들과 상봉 ▶ 함흥시 만세교 개통식 진행.

18일 우리 나라에 대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물질적 원조의 종결과 관련한 의정서 조인식 평양에서 진행.

19일 큐바 녀성 련맹 제 1차 전국 대회에 참가할 조선 녀성 대표 출발 (10월 16일 귀국).

20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보육원 칭호를 제정함에 관한 정령 발표.

21일 내각에서 농촌 건설대에 근위 칭호를 수여함에 관한 결정 제 51호를 채택 ▶ 년산 1만톤 이상 전선류 생산 능력을 가진 평양 전선 공장 조업식 진행.

22일 내각에서 농작물 추수 작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조직 진행하며 탈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추수 전투 기간》으로 설정할 데 대한 명령 제 41호 시달 ▶조중 량국 간에 과학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 북경에서 조인.

27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56차 회의 진행. 우리측 수석 위원은 9월 5일 우리측 민사 행정경찰 성원들을 살해 랍치한 미국측의 도발적인 무장 공격 행위에 대하여 재차 강경히 항의하고 우리 인원들을 즉시 돌려 보낼 것을 미국측에 촉구.

28일 1인 4세대 운동의 첫 봉화를 든 윤 병권 청년 직장 로동자들 1천 30세대의 주택을 완공하여 년간 계획 완수 ▶ 월남 상업 견학단 평양 도착 (10월 20일 귀국).

29일 중국 방문 조중 친선 협회 대표단 출발 (10월 19일 귀국).

10 월

1일 내무성에서 우리 나라 령해에 불법 침입한 일본 선박 《제 11 다이안마루》와 《제 12 다이안마루》 및 그의 선원들을 석방함과 관련하여 보도.

2일 파란 과학 기술 견학단 평양 도착.

4일 김 일성 수상 남포 유색 압연 직장 건설에 기술적 방조를 준 체코슬로바키야 기술자단 성원들에게 선물 ▶남포 제련소 유색 압연 직장 조업식 진행 ▶쏘련에서 진행되는 1962년도 세계 남녀 배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남녀 배구 선수단 출발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사격 선수단 카이로로 출발.

5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57차 회의 진행. 우리측 수석 위원은 우리측 인원들을 습격 랍치하여다가 계속 불법 억류하고 있는 적측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준렬히 규탄.

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 진행.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383개의 선거구 전체 선거자의 100%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선거자의 100%가 추천된 대의원 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 (10월 10일 선거 결과에 관한 중앙 선거 위원회 보도).

9일 조선 주재 체코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 신임 전권 대사 평양 도착, 10월 11일 신임장 봉정 ▶일조 협회 친선 대표단과 전 일본 민주 의료 기관 련합회 대표단 평양 도착.

13일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조선 체코슬로바키야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7차 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조선 주재 말리 공화국 신임 특명 전권 대사 평양 도착, 16일 신임장 봉정 ▶큐바 통일 혁명 조직 혁명 교육 학교 전국 지도 위원회 위원장과 네팔—조선 친선 협회 대표단 평양 도착.

14일 제1차 전국 대학생 체육 축전 개막, 20일 까지 진행.

15일 아세아 경제 협조에 관한 세미나르에 참가할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대표 콜롬보로 출발.

16일 조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13차 회의에 참가할 쏘련측 대표단 평양 도착 (11월 2일 귀국) ▶내각에서 보통 교육 부문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결정 제 56호를 채택.

17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58차 회의 진행, 우리측 수석 위원은 핵 탄두 발사를 위한 새로운 유도 무기들을 남조선에 비법 반입한 적 측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항의.

18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

화국 헌법 일부 조항들을 수정, 보충, 폐지함에 관한 정령 발표▶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 구성법을 개정함에 관한 정령 발표▶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공훈 벌목공, 공훈 운재공, 공훈 류벌공 칭호와 림업 로동자절을 제정함에 관한 정령 발표.

19일 내각에서 점령한 알곡 500만톤 고지를 공고히하며 1963년 영농 준비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결정 제52호를 채택 ▶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유일팀 구성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이 11월 말 이전으로 이미 제의한 바 있는 판문점이나 평양 또는 서울에서 회담할 것을 대한 올림픽 위원회에 거듭 제의.

20일 내무성에서 간첩 행위로 억류되였던 일본 화물선 《공고마루》와 그 선원들을 석방함과 관련하여 보도 ▶남북 조선 유일팀 구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국 대학생 체육인 대회 진행.

22일 최고 인민 회의 제 3기 제 1차 회의 개막, 23일까지 진행.

23일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새 내각 조직,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 1차 회의에서 김 일성 수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연설 ▶중국 인민 지원군 조선 전선 참전 12주년 평양시 기념 대회 진행 ▶대안 전기 공장에서 년간 계획을 100.1 %로 초과 완수.

25일 우리 나라 정부에서 큐바에 대한 미제의 범죄 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발표 ▶조선 대외 문화 련락 협회와 우리 나라 방문 일조 협회 친선 대표단과의 공동 성명 평양에서 발표.

26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 평양 출발 (11월 6일 귀국), 11월 5일 북경에서 량국 정부 무역 대표단 간의 회담에 관한 공동 보도 발표▶큐바에 대한 미제의 무력 침략을 항의 규탄하며 큐바 인민의 투쟁을 지지 성원하는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쏘련 군대 아.웨.알렉싼드로브 명칭 붉은기 협주단 평양 도착.

27일 군사 정전 위원회 제 251차 비서장 회의에서 우리 측은 지상, 해상 및 공중에서 감행한 적측의 정전 협정 위반 사건들에 대하여 항의 ▶알제리아의 독립 후 첫 민족적 명절 (1954년 11월 1일 불란서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무장 투쟁을 개시한 날)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알지에에 도착.

29일 전국 수산 부문 청년 열성자 회의 진행, 수산물 8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한 최후 돌격전인 동기 어로전에서 청년들의 선봉적 역할을 더욱 높일 데 대하여 토의▶전국 도서 보급 일'군 열성자 회의 진행 ▶조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13차 회의 의정서 평양에서 조인.

30일 중국 축구단 평양 도착 (11월 21일 귀국).

11 월

1일 칠리—조선 친선 문화 협회 대표단과 분란 사회 문화 활동가 대표단 평양 도착 ▶전국 체육 열성자 대회 개막, 2일까지 진행.

2일 불가리야 공산당 제 8차 대회에 참가할 조선 로동당 대표단 출발(21일 귀국) ▶사회주의 10월 혁명 45주년 기념 행사에 참가할 조쏘 친선 협회 대표단 출발 (28일 귀국)▶루마니야 방문 우리 나라 과학 일'군 출발.

6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45 주년 평양시 경축 대회 진행 ▶체코슬로바키야 주재 볼리비아 대리 공사 평양 도착 (15일 귀국).

7일 사회주의 국가 규격화 대표자 회의 제 7차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 출발 (27일 귀국)▶우리 나라 무역 대표단 수단 방문 ▶제 1차 전국 도서관 일'군 학술 연구 발표 회 개최, 8일까지 진행.

8일 김 일성 수상의 참석 하에 대안 전기 공장 당 위원회 확대 회의 개최, 9일까지 진행, 수상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에 의하여 새로운 기업 관리 운영 체계와 공장당 사업 체계가 확립된 이후 11개월 동안에 거둔 사업 성과들을 총화 ▶조선 적십자회와 일본 적십자사 간에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에 관한 현행 협정을 1년간 무수정 연장할 데 대한 합의서 니이가다에서 조인.

12일 김 일성 동지의 참석 하에 평남도내 당 및 농촌 경리 일'군 협의회 개최, 13일까지 진행, 김 일성 수상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가 가지는 커다란 우월성과 위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 앞에 제기되는 과업에 대하여 교시 ▶조선과 아랍 련합 공화국 간에 방송 분야에서 호상 협조할 데 관한 협정 카이로에서 체결▶조선과 일본 간의 정기 선박 배선에 대한 계약 평양에서 체결.

13일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 평양 도착 (24일 귀국), 14일 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 대회 진행. ▶제 100 차 귀국선 청진항 도착, 만 3년 간에 근 8만명의 재일 동포 귀국 ▶대안 전기 공장 종업원들 궐기 회의 진행, 김 일성 수상의 현지 교시를 받들고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이룩할 것을 결의.

15일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제 8 차 대회에 참가할 조선 로동당 대표단 출발 (12월 3일 귀국)▶제 4 차 세계 농업 림업 및 재배원 로동자 대회에 참가할 직맹 대표단 출발 ▶공화국 외무상이 5개 조항의 요구 조건을 제기한 큐바 혁명 정부의 10월 28일부 성명을 통고한 조선 주재 큐바 공화국 대사관의 11월 5일부 각서에 대한 외무성의 회답 각서를 동 대사관에 전달 ▶쏘련 문화 의료 일'군 대표단 평양 도착 (20일

귀국).

17일 군사 정전 위원회 쌍방 경무관 회의 진행, 우리 측은 공동 경비 구역에서 감행되고 있는 적측 경비 인원들의 도발 행위에 항의하고 그와 같은 적대 행위의 즉시 중지를 적측에 강력히 요구.

19일 큐바 민주 법률 중앙 협회 총 비서 평양 도착.

21일 군사 정전 위원회 159차 회의 진행, 회의에서 우리측은 조난 당한 남조선 어민들에게 동포애의 지극한 배려를 돌린 공화국 정부의 인도주의적 조치를 비방 중상하는 적측의 철면피한 모략 행위를 폭로 규탄.

22일 이라크 방문 조선 과학 대표단 출발 (12월 18일 귀국) ▶파란 직맹 제 5 차 대회에 참가할 조선 직맹 대표단 출발 (12월 11일 귀국) ▶류행성 감모 및 비루스성 상기도 질환에 관한 국제 실무 회의에 참가할 조선 과학자 대표 출발.

23일 우리 나라 정부에서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24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비망록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를 발표 ▶조선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와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 간의 공동 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브라질—중국 친선 협회 비서 평양 도착 (29일 귀국) ▶아르젠틴—중국 친선 협회 비서 평양 도착 (29일 귀국).

25일 성진 제강소 1962년도 년간 계획 완수.

26일 외무성에서 미제 침략군의 만행을 폭로 규탄하는 《조선에서 감행한 미군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를 발표 ▶ 우리 나라 과학원과 체코슬로바키야 과학원 간의 1962～1963년도 과학 협조에 관한 계획서 평양에서 조인.

28일 청진 제강소에서 지난 해 실적에 비하여 111%로 장성된 1962년도 립철 생산 계획을 완수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12월 15일 로잔느에서 실무 회담 개최와 관련하여 국제 올림픽 위원회 서기장과 대한 올림픽 위원회에 서한.

29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출판 보도 부문 일'군들에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3.1월간 상을 제정함에 관한 정령 발표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제 12 차 대회에 참가할 조선 로동당 대표단 출발 (12월 18일 귀국) ▶국제 민주 녀성 련맹 리사회 회의에 참가할 우리 나라 녀성 대표단 출발 (12월 18일 귀국) ▶월남 방문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 출발 (12월 10일 귀국)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60차 회의 진행, 우리측 수석 위원은 《사건》을 조작하여 우리측을 함부로 중상 비방하는 한편 우리측 연해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 행위와 비무장 지대 우리측 부분에 총포를 발사한 미제의 죄상을 폭로 규탄 ▶쏘련 방문 우리 나라 군사 대표단 출발(12월 5일 귀국).

30일 과학원 창립 10주년 기념 대회 평양에서 진행.

12 월

1일 조선 기자 동맹 중앙 위원회에서 남조선 언론인들에 대한 군사 파쑈 도당의 폭압을 반대하여 성명 발표 ▶1964년 올림픽 경기 축구 또나멘트에 우리 나라 축구팀 참가를 국제 축구 련맹에서 등록 (조선 중앙 통신).

4일 조선 적십자회 중앙 위원회에서 알제리아 피난민들과 전쟁에서 희생된 유가족들에게 구제 물자를 보내기로 결정 (조선 중앙 통신).

5일 룡성 기계 공장에서 년간 계획을 100.5%로 완수.

6일 조선 민주 법률가 협회에서 미제와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이 소위《헌법 개정안》을 조작 공포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조선 월남 량국 간에 통상 협조에 관한 조약과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하노이에서 조인.

7일 몽고인민 공화국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 도착 (15일 귀국).

8일 김 일성 수상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보내여 온 주은래 총리의 서한에 회답 ▶외무성에서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에서 또다시 《조선 문제》를 토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화국 정부의 단호한 립장을 천명하여 성명 발표.

10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4기 제 5차 전원 회의 14일까지 진행, 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962년도 인민 경제 계획 실행 총화와 1963년도 인민 경제 발전 계획에 대하여 토의.

13일 우리 나라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회담》을 통하여 전 조선 인민의 리익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들을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조몽 량국 간의 1963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평양에서 체결.

15일 김 일성 수상 수산물 80 만 톤 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전투 과업을 기한 전에 초과 완수한 수산 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 협동 조합원들의 로력 성과를 축하하여 축하문.

17일 조선 소말리 정부 간에 무역 대표부를 교환할데 관한 협정을 모가디쇼에서 체결.

19일 루마니야, 민주 ,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방문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 평양 출발.

20일 강선 제강소 년간 계획을 100.1%로 완수 ▶ 유엔 총회 제 17 차 총회에서 또다시 강압 통과시킨 《조선 문제》에 관한 《결정》을 무효로 인정한다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 발표.

21일 김 일성 수상, 2억 5천 만 메터의 직물 고지를 기한 전에 점령한 방직 공업 부문 로동자, 기술

자, 사무원들의 로력 성과를 축하하여 축하문.

22일 중국 방문 우리 나라 문화 예술 대표단 출발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61 차 회의에서 《유—2》 간첩 비행기를 공화국 북반부 지역에 침입시킨 행위를 항의 규탄.

23일 대안 전기 공장 로동자들 년간 계획을 115.3%로 완수.

26일 조선—큐바 단결 위원회 창립 대회 평양에서 진행.

28일 김 일성 수상, 선철 및 립철 120만톤 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기한 전에 초과 완수한 흑색 금속 공업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로력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여 축하문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물에 빠져 생명이 위급하게 된 3명의 소년을 구원한 황남도 청단군 백 중기 학생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 ▶군사 정전 위원회 제 162 차 회의 진행, 우리 측은 해군 함선을 우리 측 연해에 침입시켜 무장 공격을 감행한 미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

29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3.1 월간 상 수상자에 대한 정령 발표.

30일 김 일성 수상, 주택 20만 세대 건설 과업을 수행한 건설 부문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주택 건설을 지원한 협동 농장원들, 모든 부문 근로자들에게 축하문 ▶큐바 혁명 승리 4주년 평양시 기념 대회 진행 ▶국가 학위 학직 인민상 수여 위원회에서 음악 무용극 《밝은 태양 아래》와 무용극 《붉은 기'발》에 인민상을 수여.

남조선 주요 일지

(1962. 1. 1~12. 31)

1 월

2일 괴뢰 《치안국》에서 파쑈적 탄압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 리, 동, 직장별로 《방범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지시 ▶미제 야수들이 어름 우에서 낚시질하고 있는 조선 어민을 렵총으로 쏘아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

6일 군사 《정권》이 언론 및 문화 예술 활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공보 자문 위원회》 구성을 공포 ▶미군 야수들이 림진강 북쪽 산에서 나무하는 무고한 농민 2명을 렵총으로 살해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초종교 국토 건설장》의 로동자 200여 명이 3개월 분의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여 롱성 투쟁을 전개.

9일 괴뢰 《혁명 재판소》에서 《남북 서신 교환》, 《2대 악법 반대》등을 주장한 《사회 대중당》간부 6명에게 5~15년, 《민족 통일 경북 련맹》간부 7명에게 5~10년, 《전남통일 민주 청년 동맹》 간부 1명에게 7년의 징역을 각각 언도.

10일 미군 부대 순찰병이 길가던 무고한 주민 2명에게 총질을 하여 그들을 살상.

12일 군사 《정권》에서 구《민주당》계렬 중심의 《신흥 의렬단》파 이전《한국 독립당》의 군사《정권》 전복 기도 사건을 발표 ▶미 침략군 해병대 제 3 사단이 동해안 주문진 연해에서 《암소 작전》이란 《상륙 작전》 훈련을 감행.

15일 남조선 강점 미 제 1 군단과 괴뢰 륙군 제 6 군단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도발적인 《우박 작전 훈련》을 18일까지 감행

19일 괴뢰 《혁명 재판소》에서 《민족 자주 통일 중앙 협의회》 사무 총장 등 12명에게 5~15년, 《중앙 교원 로조》 간부 5명에게 10~15년의 징역을 《언도》.

23일 군사 파쑈 악당들이 부산, 대구에서 《병역법 위반》이란 《죄》명으로 무고한 청장년 5,428명을 《군사 재판》에 회부하였다고 《대구 방송》이 보도.

26일 괴뢰 《혁명 재판소》에서 《한미 경제 협정》을 반대하였다는 《죄》로 《법 혁신 동지회》와 《경북 사회당》 간부 9명에게 3년으로부터 무기에 이르는 징역을 《언도》.

2 월

1일 외국 독점 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하여 《대한 상공 회의소》 내에 《외자도입 안내소》를 설치.

2일 괴뢰 해군에서 미 해군으로부터 원양 예인함 《도봉호》 1척을 인수.

3일 파쑈 악당들이 《부산 민주 민족 청년 동맹 기획 위원》에게 남북 협상을 주장하였다는 리유로 징역 5년을 《언도》.

4일 서울에 있는 《거양 기업 회사》 로동자들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전개한 끝에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

5일 비무장 지대 남방에서 미군, 타이군, 토이기군 및 괴뢰군의 륙, 해, 공군 병력 7만 5천명이 도발적인 《동기 작전 훈련》 (우박 2호)을 8일까지 감행.

9일 일본 경제 시찰단 도착 ▶남조선 강점 미 제 7 사단 31보병 련대 1보급소 소속 보초병이 《엠완》총으로 무고한 부락 청년 1명을 사살 ▶군사 파쑈 악당들이 《경남북 유족회 사건》등을 조작하여 6명에게 5~15년의 징역을 《언도》.

10일 괴뢰 《문교부》에서 《학교 정비 기준령》을 공포한 후 21개 대학을 페쇄하고 2만 5,510명의 학생들을 축출하였다고 발표.

14일 군사 통치배들이 《중앙 통일 사회당 반국가 행위 사건》, 《경남 사회 통일당 사건》등을 조작하여 20명에게 3~15년의 징역을 《언도》.

15일 남조선 강점 미군 제 7 사

단 본부 보초병이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 생연리에 거주하는 박 모 외 4명에게 사격을 가하여 그중 1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만행 감행.

20일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반민족적인 《해외 이주법안》을 조작(3월 9일 공포)하고 앞으로 5년간에 2만여 세대의 동족을 팔아 넘길 것을 내용으로한 《해외 이주 5개년 계획》 발표 ▶일본의 《한국 광공업 보세 가공 조사단》이 3개월 간에 걸쳐 투자 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기여듦.

22일 괴뢰 《문교부》에서 출판사 245 개를 강제 폐쇄.

3 월

5일 괴뢰 해군이 동해안 일대에서 소위 《무지개》라는 대규모적인 상륙 작전을 감행, 10일까지 계속.

8일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이 괴뢰 륙군 고사포 실탄 사격을 련속 4일간 감행.

9일 남조선 절량 농가 중에서 《긴급 구호 대상 인구》 만도 340여만 명에 달한다고 《서울 방송》이 보도.

10일 군사 통치배들이 한 로인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하여 《반공법》 위반《죄》로 《동아 일보》 기자 3명을 체포 구금.

12일 일본 도꾜에서 범죄적인 《제 1 차 한일 정치 회담》을 17일까지 진행.

15일 박 정희 도당이 《해외 이민 교섭단》을 브라질, 파헤말라, 파라과이, 멕시코 등지에 파견.

16일 소위 《최고 회의》 본 회의에서 군사 《정권》의 영구화를 획책하여 일체 정치 활동을 완전히 봉쇄하는 소위 《정치 활동 정화법》을 조작 공포.

22일 남조선 괴뢰 《대통령》 윤 보선이 《사임》을 성명 ▶ 군사 도당들 박 정희가 《민정 이양》시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 중 개정 법률》을 조작.

23일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해에서 《한 미 합동 소해 훈련》을 감행.

29일 군사 《정권》이 언론, 출판 기관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하여 17개의 악법을 또다시 조작.

30일 소위 《최고 회의 정치 정화 위원회》에서 2 차에 걸쳐 《정치 활동 정화법 해당자》 명단을 발표.

4 월

1일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렘니쩌 4일까지 남조선 방문, 군사 통치배들과 《군사 원조》, 《한미 공동 방위》 문제 등을 밀의.

2일 괴뢰 《국방부》에서 대학생들의 괴뢰군 징집 년한을 만 23세까지 연장 ▶ 군사 통치배들이 어용 《수산 협동 조합 중앙회》를 조작.

3일 군사 《정권》이 《해양 경찰대 설치법》을 조작.

4일 《동양 의학 대학》 약학과 학생 200 여명이 자기들의 대학을 폐쇄한 것을 반대하여 괴뢰 《문교부》 정문에서 롱성 투쟁을 단행, 같은 리유로 서울 《덕성 녀자 대학》 약학과 학생들도 동맹 휴학을 단행.

6일 경상북도 금릉군 감천면 룡호동의 80여명 농민들 물 한방울 주지 않고도 300만환의 수세를 부과한데 격분하여 괴뢰 군청에서 롱성 투쟁 단행 ▶미군 부대 및 기관들에 고용된 조선인 로동자 5만 8,000명이 남조선 강점 《미군 사령관》에게 임금 인상과 퇴직금 지불 및 유급 휴가제 실시 등을 요구.

16일 괴뢰 해군에서 3월 28일 ~4월 16일까지 기간에 4 차에 걸쳐 미제로부터 상륙용 주정 4척과 소해정 및 예인선 각각 1척을 반입.

19일 《서울 대학교》 학생 1,200명이 4.19 2주년을 맞아 선언문을 랑독하고 2년전과 《같은 코스를 잡아》 시위 단행.

21일 군사 《정권》 당국자들이 《인천 사회 대중당 사건》을 조작하고 애국적 인사들에게 《중형》을 언도.

25일 일본 외무성 경제국 차장 나까야마 요시히로 외 4명으로 된 일본 《경제 시찰단》 1주일간에 걸쳐 남조선의 《경제 실정》 조사차 도착.

28일 미 강점군이 1개 전투단 병력을 동원하여 서부 전선에서 도발적인 《게리라 소탕 훈련》을 30일까지 감행.

5 월

2일 괴뢰 《공군 작전 사령부》에서 전쟁 도발을 위하여 《통일 작전》이라는 공군 훈련을 감행.

3일 서울에 있는 제주도 출신 대학생들 해녀를 《수족관》에 넣어 관람료까지 받아 먹는 데 대하여 괴뢰 당국에 항의.

6일 서울시 중구 동자동에서 《미군 통신대 소속》 포돈이란 자가 괴뢰군 하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주민 1명에게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

10일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 비률빈, 타이, 일본등 14개국 괴뢰들이 서울에서 《민족 반공 련맹 림시 총회》를 개최.

11일 남조선 군사 《정권》이 군사 고문단》을 남부 월남에 파견 ▶ 밴 프리트의 인솔하에 미국의 18개 독점들의 사환'군들로 구성된 《미국 민간 실업인단》 남조선 도착.

12일 괴뢰 해군이 《한미 호상 방위 협정》에 따라 미제로부터 예인정》 2척을 인수.

13일 괴뢰군 6군단 전방 부대에서 보병, 전차, 포병 합동 《시범 훈련》을 감행.

15일 군사 《정권》 당국자들이 《대한 일보》기자 김 모를 《정치 활동 정화법 관계 서류》에서 취재하였다 하여 《고등 군법 회의》에 회부.

17일 충청남도 대덕군 북면 장동리에서 미 제833경기 중대 소속 1등병 존슨이란 자가 권총으로 조선 녀성을 사살.

18일 경상남도 마산 시내에 있는 《마산 도자기 회사》 로동자 120명이 임금을 잘라 먹고 집단 해고까지 감행한 기업주의 처사에 격분하여 롱성 투쟁을 단행.

29일 경기도 파주군 운천리에서 미군 제1기갑 사단 제2기갑 전투단 소속 미군 중위 와일드와 스완스 등 미군 야수들이 조선 청년 리일룡의 옷을 벗겨 전주에 꺼꾸로 매달고 구타하여 피를 토하고 실신케 한 《파주 린치 사건》 발생.

30일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포천리에서 미군 제1기갑 사단 본부 제13 통신대 《에이》 중대 소속 미군 1등병 제로지 웨딩이 주민 엄세준을 총으로 쏘아 즉사시킨 야수적 만행을 감행.

31일 남조선 강점 《유엔군》 사령부에서 남조선 전역에 걸쳐 6월 1~8일까지 《반돌격》이라는 대규모적인 《한미 협동 작전》을 감행할 것이라고 발표.

6 월

6일 고려 대학교 학생 약 2천여명이 미군 린치 사건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고 《선언문》과 《결의문》등을 채택한 다음 플랑카트를 들고 시위를 단행.

7일 고려 대학교 학생들 6일에 진행한 시위중 부당하게 체포된 동료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여 동맹 휴학을 단행 ▶ 경기도 파주군 조리면 봉일천리 앞거리로 트럭을 몰고 가던 미 제1기갑 사단 제3 수송대 소속 미군 야수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세 소년을 깔아 1명을 즉사케 하고 2명에게는 빈사의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

8일 서울 대학교의 물리과 대학 및 법과 대학 2,000명 학생들이 집회를 가지고 미군 야수들의 만행을 규탄하며 《파주 린치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 도중 체포당한 고려 대학교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선언문》,《결의문》을 채택한 다음 무장한 괴뢰 경찰, 《헌병대》와 맞서서 교문 밖에서 앉아 버티기 투쟁을 전개 ▶고려 대학교 학생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체포 구금된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한 투쟁 방침을 토의하고 앞으로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12명의 학생 대표를 선출.

9일 대구 대학 2, 3, 4학년 학생 300여명이 《결의문》, 《행동 강령》 등을 발표한 후 무고한 동포들에 대한 미군 야수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구호를 웨치면서 앉아 버티기 투쟁을 진행.

13일 남조선 군사 《정권》이 강탈적인 《통화 개혁》을 강행.

16일 군사 《정권》의 극심한 내부 알륵으로 《내각 수반》이였든 송요찬과 《재무부 장관》이 파면되고 나머지 《각원》들도 전원 《사표》를 제출.

16일 군사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무력 쿠데타》 기도 사건이 발각되여 그 관계자 84명 피검.

22일 경상북도 포항 일대에서 7월 5일까지 도발적인 《황소 작전》이라는 상륙 작전 훈련을 감행.

23일 부산시 령세 주민 200명이 판자'집 강제 철거를 반대하여 부산 《시청》에 몰려가 집단적으로 항의.

28일 괴뢰 《문교부》에서 실업제와 중 고등 학교를 감축하기 위한 통합 《원칙》과 《방침》을 공포 ▶군사 통치배들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하여 《언론 정책》을 공포.

7 월

5일 서울의 동국 대학교 학생 1,500 여명이 대학교 운동장 부지에 군사 《정권》 당국이 《중앙 공무원 훈련원》 청사를 짓는 횡포한 처사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롱성 투쟁을 전개.

6일 서울에 있는 《미구후아돈 보험 주식 회사》에서 강제 해고당한 종업원 60명이 퇴직금과 급료의 즉시 지불 요구서를 괴뢰 《정부》에 들이대고 롱성 투쟁에 돌입.

7일 전쟁 범죄자이며 정탐'군인 밴 프리트가 《실업인 단장》이란 탈을 쓰고 수명의 미제 사환'군을 거느리고 남조선에 또다시 기여듬.

10일 군사 《정권》 《내각 수반》으로 김현철을 임명.

13일 군사 《정권》이 《민국 일보》를 《무기 휴간》.

16일 1962년 1월~6월 말까지 경상남도에서만도 로동자들이 224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고 《부산 일보》 보도.

17일 군사 《정권》 당국이 여름 방학 기간 서울 시내 학생들을 강제로 린근 《사단》에 편입시켜 군사 훈련을 실시.

23일 《인천 대광 직물 합작 회사》의 녀성 로동자 80여명이 입사 보증금의 반환과 체불 임금의 지불을 요구.

25일 군사 《정권》 당국자들이 남조선 사회의 암흑상을 사실대로 보도한 《조선 일보》, 《령남 일보》 기자들과 《대구 일보》의 통신원등 3명을 체포.

26일 부산에서 녀성 약 100명이 시 《사회과》에 몰려가 《쌀을 내라》, 《어린이들과 자모들에 대한 구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

31일 군사 《정권》이 인민들로부터 경찰비를 더욱 짜내기 위한 《제 2차 추가 갱정 예산》 발표 ▶군사 《정권》 당국이 언론계의 활동을 가일층 제한 통제하며 관제화할 목적으로 《언론 정책 시행 세칙》을 발표.

8 월

1일 군사 《정권》 당국의 가혹한 《언론 정책》으로 인하여 《민주 신보》 페간.

2일 《헌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사설을 신문에 게재하였다

하여 《동아 일보》의 론설 위원 황모와 동사 부주필 고 모를 구속.

3일 남조선 《신문 편집인 협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미 구속된 기자들의 즉시 석방을 군사 《정권》 당국에 요구.

10일 미 제 8군 제 7 보병 사단과 일본 큐슈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과 합동하여 포항 일대에서 핵 전쟁 가상 하의 《한미 합동 상륙 작전 연습》을 감행.

14일 군사 《정권》이 《통화 개혁》의 파탄을 미봉해 보려고 《경제 안정 및 물가 대책》을 발표.

21일 서울에 있는 《강남 전기 공업 주식 회사》의 로동자 20여명이 체불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버티기 투쟁 전개 ▶ 미제의 조종 하에 도꾜에서 《한일 예비 회담》을 재개 ▶ 괴뢰 륙군이 21일부터 9일간 동해안 속초와 화진포 간 해상에서 《고사포 사격 훈련》을 감행.

22일 군사 《정권》의 《언론 정화 시책》으로 말미암아 《호남 신문》 재정난으로 폐간.

24일 폭우로 부산 시내에서 약 1천 여 호의 가옥이 침수되고 교통이 두절.

27일 제주도와 울릉도 해역에서 괴뢰군 해군이 27일부터 9월 1일까지 《은하》라고 부르는 대규모적인 작전 훈련을 감행 ▶ 홍수로 전라남도 순천 남강 제방이 파괴되여 순천 시가의 3분의 2가 침수.

29일 판문점 출입 기자들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며 박해하는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유엔군 사령관》 메로이에게 항의.

9 월

1일 괴뢰 해군이 8일까지 《옥포 작전 훈련》을 감행.

4일 군사 파쑈 도당이 괴뢰군 살이를 기피한 15만명의 남조선 청년들을 모조리 《국토 건설단》에 끌어내여 강제 로동을 시킬 것이라고 공포.

5일 살인귀이며 전쟁 범죄자인 테일러가 《군사 원조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조선에 도착.

8일 군사 《정권》 당국이 《병역 기피자》가 28만명 이라고 발표.

10일 《최고 회의》에서 괴뢰군의 《제 1 예비역 복무 기간》을 연장하고 병약자, 년장자까지도 포함한 모든 청장년들을 모조리 괴뢰군에 끌어 넣기 위하여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

12일 《최고 회의》에서 《반공법 및 국가 보안법 개정 법률안》을 조작.

17일 서울 룡산구 주민 1,300여명이 판자'집 212호의 강제 철거를 반대하여 투쟁 ▶ 《한미 행정 협정 체결》을 위한 제 1 차 《실무자 회의》 진행.

21일 《해외 이주자 자격 심사 위원회》에서 남조선 인민들을 해외에 팔아먹기 위한 《해외 이주자 자격 심사》에 착수.

22일 군사 파쑈 도당이 《정부의 요망 사항에 협조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겠다고 위협 ▶ 군사 파쑈 분자들의 언론 탄압으로 하여 《경인 일보》 폐간.

29일 《핵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유도탄》을 반입하였다고 《유엔군 사령부》 대변인 발표.

28일 일본 외무성 관리 4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또 남조선에 기여듦.

30일 군사 파쑈 도당이 《건군 이래 최대급의 보병, 전차, 포, 공군 협동 시범 훈련》 소동을 감행.

10 월

1일 군사 《정권》이 청장년들을 대량적으로 강제 징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 법률》을 조작 공포.

2일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이 부산—진해 지구에서 《한 미 합동 해군 연습》을 감행.

10일 《최고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 법안》을 조작.

11일 군사 《정권》 당국에서 《학사 자격 중앙 고시 시험 요강》을 결정 발표 ▶ 《서울 대학교》, 《연세 대학교》, 《외국어 대학》등 서울 시내 14개 대학 학생 대표 20 여명과 지방 대학 학생 대표들이 모여 반동적 《학사 고시제》의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

12일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이 11월 8일까지 24일 간에 남원강 중류에서 90개 부대를 끌어내여 《핵 전쟁과 화학전, 생리학전, 방사능전 상황》 하의 《진격》이라는 《대 기동 작전 연습》을 감행.

20일 군사 《정권》의 《중앙 정보 부장》 김 종필이 일본 및 미국 행각차 출발.

22일 서울시 괴뢰 경찰이 《학사 자격 고시》를 반대 투쟁한 학생들을 검거, 25일에도 검거 ▶ 전라북도 도민들이 군사 《정권》의 행정 구역 개편을 반대하여 《금산군 충남 편입 반대 전북도 투쟁 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

23일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큐바 《봉쇄 작전》 개시와 관련하여 남조선 강점 미 침략군이 완전히 전투 태세에 들어감.

27일 일본 《법정 대학》 교수 다나까란 자가 과거 36년간 일본은 조선에서 《근대적 산업과 교육을 실시》 하였다고 떠벌린 데 격분한 《고려 대학교》 학생들이 견결한 항의를 제출, 《서울 대학교》 학생들은 두차례에 걸쳐 다나까의 숙소로 밀려가 시위 투쟁을 전개.

30일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이 광주에서 130 여만평의 농토와 330동의 농가를 강제 징발하여 《최신형 제트기의 리 착륙 공군 기지 기공식》 진행.

11

1일 남조선 강점 미군 부대에 고용당한 로동자들 미 침략군 당국에 생계비 기준에 의한 임금 인상과 상여금 증액을 요구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성명서》

를 발표.

3일 남조선 괴뢰 《문교부》에서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학생을 《요 시찰자와 요 주의자로 나누어 특별 지도》케 한다는 미명 하에 《대학생 생활 지도 방안》이라는 파쑈 문건을 조작.

5일 군사 《정권》이 《헌법 개정안》을 조작 공포.

7일 《한일 회담》의 일본측 《실무자》 7명이 남조선 《실정》을 파악하며 군사 통치배들과 《협의》할 목적으로 남조선에 기여듦.

8일 남조선 군사 《정권》이 서독 정부와 매국적인 《한독 투자 보장 조약》을 체결 ▶강원도 황지 본선의 군용 철도 공사장 500여명 로동자들 3개월 간의 체불 임금 즉시 지불을 요구하여 투쟁.

14일 《국가 재건 최고 회의》에서 총 규모 768억 7천만원으로 된 1963년도 《예산안》을 통과.

15일 미제와 군사 통치배들이 전라남도 광산군 《평동 훈련장》에서 보병, 전차, 포병, 공군 《합동 시범 훈련》을 감행.

28일 군사 《정권》은 그들이 조작하려는 《여당》의 명칭을 보도하였다 하여 《한국 일보》기자 4명을 체포 구금, 29일에는 동 신문의 정간을 강요.

29일 미 제 1 기갑 사단의 미군 야수들이 경기도 파주군 문산리에 사는 리 길용에게 총질하여 그를 사살하고 다른 2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만행을 감행.

30일 군사 《정권》의 《정례 각의》에서 남조선 주민 273명을 년내에 브라질에 팔아 넘길 것을 결정.

12 월

5일 《산업 및 경제 부흥상을 시찰》한다는 미명 하에 일본의 《일한 경제 협회 방한 경제 사절단》이 남조선 도착.

6일 서부 독일의 《경제 고문단》이 2년 동안 《상주》할 목적으로 남조선에 기여듦.

9일 미제 침략자들이 남조선 전역에서 도발적인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감행.

10일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를 비롯한 10 여명이 이께다의 《친서》를 가지고 남조선에 기여듦.

16일 군사 파쑈 도당이 남조선 전역에 《정 비상 경계》 실시.

17일 군사 파쑈 도당이 사기 문건인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날조.

25일 괴뢰 정부에서 1963년부터 매년 500명씩 《유휴 로동 인원》이라는 미명 하에 서독의 광산에 보낼 것을 결정.

29일 《최고 회의》에서 《국가 재건 비상 조치법》을 개정하여 현 《최고 위원》들이 《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작 ▶괴뢰 《내각》에서 《임무 태만》이라는 구실 밑에 교원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징계 위원회》를 설치할 데 대한 《사립 학교 교원 징계령》을 공포.

31일 《최고 회의》에서 《정당법》을 조작 공포.

재일 조선 공민 주요 일지

(1962.1.1～12.31)

1 월

12일 1962년도 6개 중요 과업 실현을 위한 총련 도까이 지방 활동가 회의 진행.

16일 총련에서 《한일 회담》 재개를 반대하여 성명 발표 ▶재일 동포들의 첫 무역선 조국에서 생산한 물자를 싣고 요꼬하마항에 도착 ▶총련 도꾜도 본부를 비롯한 각 현 본부에서 학생 인입 통일 행동 개시.

21일 조 일 량 적십자 간 협의회에서 금후 귀국선을 월 2회 배선할 데 대하여 합의.

2 월

1일 총련 중앙에서 히가시 오사까에 대한 집중 지도 사업에 착수(1개월).

2일 무장 경찰이 이바라기 조선 중급 학교를 불법 습격.

6일 《조선 신보》 지국장, 분국장, 통신원 열성자 대회 도꾜에서 7일까지 진행.

8일 조선 인민군 창건 14주년 기념 재일본 조선인 중앙 경축 대회 도꾜에서 진행.

10일 일본 《해상 보안부》 《관세법 위반》이란 구실로 총련 대마도 본부를 불법 수색.

12일 도꾜에서 총련과 《민단》계 음악가들의 합동 음악회 진행.

17일 총련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략 책동을 반대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

25일 우리 나라에서의 경락 연구 성과를 축하하는 재일 조선인 과학자 중앙 집회 도꾜에서 진행.

3 월

1일 3.1 인민 봉기 43주년 기념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도꾜에서 진행 ▶《조국 평화 통일 남북 문화 교류 촉진 재일본 문화인 회의》 주최로 도꾜에서 간담회 진행.

8일 나이가다에서 재일 조선인 어머니 대회 진행.

15일 조선 대학을 비롯한 각 학교들에서 조국으로부터 보내온 교육 원조비와 장학금 전달 감사 집회 진행.

17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략과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재일본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29일 재일본 조선 대학 제 4회 졸업식 진행.

4 월

1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 탄생 50주년 기념 문화 예술 축전 도꾜에서 진행 ▶일본 전국 각지에서 재일 조선인 각급 학교 입학식 진행.

3일 김 일성 수상 탄생 50주년 경축 재일 조선 청년 중앙 집회 도꾜에서 진행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반부 재침과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재일본 조선 상공인 궐기 대회 도꾜에서 진행.

4일 조선 상공 회관 준공.

5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 탄생 50주년 기념 재일본 조선 녀성 중앙 대회, 재일본 언론 출판인 집회 각각 진행.

13일 총련 중앙을 비롯하여 총련 각 현 본부 주최 하에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 탄생 50주년 기념 경축 대회를 일제히 진행.

14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수상 탄생 50주년을 축하하여 재일 조선 청년 학생 중앙 체육 축전 15일까지 진행.

24일 남조선 인민들의 4월 봉기(4,19) 2주년에 제하여 남조선 인민의 반미 구국 투쟁을 지지하는 재일본 청년 학생 중앙 대회 도꾜에서 진행.

25일 항일 유격대 창건 30주년 기념 재일본 조선인 중앙 대회 도꾜에서 진행.

5 월

5일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조선 대학 학생들 자신이 건설한 기숙사 준공, 동 대학에서 준공식 진행.

9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 제 6기 제 33 차 회의에서 《모범 교원》 집단, 《모범 교육회》, 《모범 교원》들에 대하여 표창할 것을 결정.

28일 총련 중앙 위원회 제 29차 확대 회의 31일까지 진행.

31일 조선 대학에서 동 대학 교직원들에 대한 공화국 훈장 및 공로 메달 수여식, 《모범 교원》집단, 《모범 교육회》, 《모범 교원》에 대한 표창식 진행.

6 월

8일 미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반미 구국 투쟁을 지지하는 재일본 조선 대학 학생 궐기 대회 진행.

9일 미제의 만행을 규탄하며 남조선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재일본 조선 청년 학생 궐기 대회 도꾜에서 진행.

18일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투쟁을 지지하는 재일본 조선 녀성 궐기 대회 도꾜에서 진행.

19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에서 남조선에서의 미군 만행을 항의 규탄하며 남조선 인민의 반미 투쟁을 지지하는 재일 동포들의 애국 운동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할 것을 일본 경찰과 경시청에 강력히 요구.

24일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의 보고를 지지하는 재일본 조선인 중앙 대회 도꾜에서 진행.

25일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는 재일본 조선인 중앙 대회 도꾜에서 진행.

29일 최고 인민 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재일본 조선인 과학자 대회 도꾜에서 진행.

7 월

1일 제 8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에 참가하는 재일 조선 청년 학생 대표단 요꼬하마항을 출발.

3일 조선 대학 교사에 대한 1962년도 일본 《건축 년감상》 수여식 도꾜 국제 문화 회관에서 진행.

7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에서 귀국 사업을 금년으로서 폐기할데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각의 결정》을 규탄하며 귀국 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9일 최고 인민 회의 호소를 지지하는 재일 상공인 중앙 대회와 재일본 조선 언론 출판인 대회 도꾜에서 각각 진행.

13일 재일 조선인 교직원 동맹 중앙 위원회 제 44차 회의 14일까지 진행.

17일 도꾜에서 재일본 조선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제 27 차 확대 회의 진행.

19일 도꾜에서 귀국 협정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는 재일본 조선인 중앙 대회 진행. 오사까, 니이가다에서도 진행.

20일 재일본 조선 녀맹 중앙 위원회 42 차 확대 회의 진행.

21일 재일본 조선인 교육회 중앙 리사회 제 25 차 회의 확대 회의 진행.

27일 조국 해방 전쟁 승리, 정전 협정 체결 9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각지에서 재일 동포들 대회, 집회, 강연회, 진행.

8 월

1일 도꾜에서 열린 제 8 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에서 조선 평화 옹호 전국 민족 위원회 대표단 단장인 재일본 조선 대학 리 진규 부총장 연설.

5일 8. 15 해방 17주년에 제하여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에서 전체 재일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6일 《8. 15 해방 17주년 재일 조선인 축하단》 결단식 총련 중앙 회관에서 진행.

15일 일본 전국 각지에서 8.15 해방 17주년 기념 재일본 조선인 대회 진행.

18일 이바라기 조선 중 고급 학교 신축 교사 준공.

19일 《재일본 조선 축구단》 23

전 23승의 빛나는 성과로 1962년 일본 지방 원정 (6월 1일부터)을 결속.

20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에서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우호적 책동을 엄중 항의.

21일 총련 중앙 상무 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한일 회담》의 즉시 중지를 요구.

23일 도꾜에서 총련 중앙 위원회 29차 확대 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재일본 조선인 교육 열성자 대회 25일까지 진행.

9 월

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4주년 기념 재일본 조선인 중앙 경축 대회 도꾜에서 진행.

14일 총련 고문 변호단 결단식 총련 중앙 회관에서 진행.

15일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도꾜에서 진행.

22일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 책동을 배격 규탄하여 총련 중앙과 각 단체 대표들 담화 발표.

26일 총련 중앙에서 일본 자유 민주당 정부 조사회 회장 가야의 발언을 규탄하는 담화 발표.

10 월

6일 일본 전국 각지에서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며 귀국 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는 제 1 차 통일 행동 진행.

13일 재일본 조선 민주 녀성 동맹 창립 15주년 기념 중앙 집회 진행.

15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제 3 기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의 빛나는 승리를 축하하는 재일본 조선인 중앙 대회 도꾜에서 진행 ▶도꾜에서 총련 제 2 차 분회 열성자 대회 16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2중 모범 분회 》, 《모범 분회》들을 표창.

16일 도꾜에서 공화국 훈장 및 메달 수여식 진행.

22일 《한일 회담》을 반대하며 귀국 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는 재일본 조선 상공인 대회 도꾜에서 진행.

23일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며 귀국 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는 재일본 조선인 중앙 대회 도꾜에서 진행.

25일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새 내각을 축하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성대히 진행.

26일 귀국 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여 각지 재일 동포들 일본 적십자 본사와 지부에 계속 항의.

11 월

1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에서 현행 귀국 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여 성명 발표 ▶일본 각지에서 재일 동포들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며 현행 귀국 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는 제 4 차 통일 행동 전개, 5일에는 제 5 차 통일 행동 전개.

8일 총련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의 귀국 협정의 1년간 무수정 연장에 관한 조일 량국 적십자 단체 간의 합의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9일 제 100 차 귀국선을 축하하는 재일 조선인 대회 니이가다에서 진행.

11일 제 100 차 귀국선 니이가다항을 출발.

20일 총련 각 기관에서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의 연설에 대한 학습을 광범히 진행.

24일 일본 각지에서 재일 조선 공민들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제 6 차 통일 행동 치열히 전개.

12 월

2일 도꾜에서 재일본 조선인 상공 련합회 제 14 기 제 4차 리사회 확대 회의 진행.

4일 총련 아이찌 조선 회관 준공식 진행.

8일 일본 각지에서 《한일 회담》을 반대 배격하는 제 7 차 통일 행동 전개.

10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에서 《한일 회담》의 조기 타결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11일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의《영예의 등록》표창과《모범 휘장》 수여식 도꾜에서 진행.

15일 총련 중앙 상임 위원회에서 《한일 회담》과 관련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12월 13일부 성명을 열렬히 지지하여 성명 발표.

16일 미제와 박 정희 파쑈 도당의 《헌법 개정안》 조작과 《국민 투표》를 반대 배격하는 재일 조선인 중앙 대회 도꾜에서 진행.

2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한일 회담》과 관련한 성명을 지지하는 재일본 조선인 중앙 대회 도꾜에서 진행.

국제편

서 술

국제 정세 개관

1962년의 국제 정세는 우리 시대가 국제적 규모에서 격렬한 계급 투쟁이 진행되며 지구상의 모든 피착취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해방 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는 위대한 투쟁의 시대이며 혁명적 폭풍우의 시대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1962년에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 그리고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을 비롯한 혁명적 인민들은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촉진시키는 위대한 투쟁에 합류하였다.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 앞에 극도의 고립과 위기에 빠져들어 가고 있는 제국주의 특히 미제는 자기의 침략적 및 략탈적 본성을 더욱 드러내면서 모험의 길을 택하였는바 이로 하여 국제 정세는 긴장된채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가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대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는바 국제 정세는 사회주의와 민족적 해방 및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력량 편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였다.

1962년의 전반적 국제 정세는 조선 인민의 혁명 위업에 유리하게 발전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과 그 영향력의 강화

세계 인구의 35.5%, 세계 령토의 25.9%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진영은 1962년에도 새로운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력한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우리 인민은 조선 로동당과 김 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하에 6 개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다.

조선 인민은 자력 갱생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함으로써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이리하여 1962년 한 해에만도 공업은 해방후 첫 10년간에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알곡은 해방전 1944년의 2 배 이상이나 되는 500만 톤을 생산하였다.

쏘련 인민은 공산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기 위한 7 개년 계획의 첫 4년 계획을 예견된 39%가 아니라 45%로 초과 완수하였다.

중국 인민은 3년 간이나 계속된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조성된 일시적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면서 총로선, 대약진, 인민 공사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였다.

기타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도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빛나는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는 1957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약 70%의 장성을 보여 주었는바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에 비하여 3배 이상이나 빠른 것으로 된다.

이리하여 세계 공업 생산에서 사회주의 진영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에 37%에 달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은 1962년에 과학 부문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하였다.

군사,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사회주의 진영은 제국주의를 압도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군대는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되였을 뿐만 아니라 최신식 무기와 전투 기술 기재로 훌륭히 장비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적 모험에도 대처하여 섬멸적 타격을 줄 수 있는 력량으로 준비되였다.

제국주의가 자기들의 군사적 《우세》를 믿으면서 제멋대로 타국을 침략하던 때는 이미 영원한 과거로 되였다. 그것은 특히 1962년 9월 9일 중국 인민 해방군 공군 부대가 미국의 《유--2》 간첩 비행기를 격추한 사실만으로써도 능히 증명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급속한 장성은 국제 무대에서 력량 관계를 사회주의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시키고 제국주의 전쟁 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게 하였다.

제반 사실은 날로 장성 강화되는 사회주의 체계가 국제 정세 전반의 추세를 결정하는 결정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는 것과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발악하여도 사회주의 진영을 건드릴 수 없으며 력사 발전의 행정을 저지시킬 수도 없으며 그들의 모든 발악은 오직 자신의 쇠퇴와 멸망을 촉진시킬 뿐이라는 것을 말하여 주었을 뿐이였다.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의 앙양과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과 그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은 가일층 고조되였다. 이 투쟁에 의하여 도처에서 제국주

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파탄되였으며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 붕괴 과정은 더욱 촉진되였다.

특히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아성이며 국제 헌병이며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인 미 제국주의는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더욱더 궁지에 빠져 들어 갔다. 이와 같은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여 준 곳은 극동 및 아세아였다.

1962년에 아세아 인민의 반제 민족 해방 운동에서는 일련의 력사적 승리들이 달성되였다.

1962년 5월 5천명의 미군과 수백대의 비행기 및 땅크들을 메콩강 류역에 투입하여 라오스에서 내전을 확대하며 인도지나 반도를 전쟁의 불바다 속에 잠그려던 미제의 책동은 라오스 애국 력량의 강력한 반격에 의하여 파탄되였다.

라오스 애국 력량의 투쟁과 세계 공정한 사회 여론의 압력에 의하여 미제는 6월에 라오스 련립 정부의 수립에 동의하고 7월에는 라오스 중립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평화, 중립, 민족적 화목 및 통일을 위한 라오스 인민의 숙망이 평화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국내외적 조건이 조성되였다.

이것은 라오스 애국당의 지도하에 라오스 인민이 무장을 들고 장기간에 걸쳐 피흘려 싸운 대'가로 얻어진 승리였으며 라오스를 식민지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무력 간섭을 감행하여 온 미제와 상전의 지원 하에 국내 전쟁을 계속하여 온 사반나케트 도당의 심대한 패배였다.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감행하고 있는 미제를 반대하며 느고 딘 디엠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 제도를 타도하기 위한 남부 월남 인민의 애국적 무장 투쟁은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의 지도 하에 커다란 승리를 달성하였다. 미제는 1만 2천명의 자국 군대와 600대 이상의 비행기를 동원하고 화학 무기까지 사용하면서 《남부 월남을 18개월 이내에 평정하기 위한》 악명 높은 《스태일리—테일러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은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와 인민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완전히 파탄되였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1962년에 330명 이상의 미군과 약 4만명의 남부 월남 괴뢰군을 살상 포로하였으며 61대의 비행기를 파괴하고 약 1만정의 무기를 로획하였다. 인민 무장대를 인민들로부터 고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한 《전략촌》은 인민 무장대의 강력한 진출, 그리고 남부 월남 농민들의 굴함 없는 항거와 그들의 집단 도주로 말미암아 실패되였으며 그것의 3분의 2가 파괴되였다. 《전략촌》은 문'자 그대로 《전투촌》으로 전변되였다.

남부 월남 인민 무장대는 남부 월남 전지역의 75%를 이미 해방하였다.

앙양되고 있는 무장 투쟁의 영향 하에 괴뢰 집단 내부에서는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인민 무장대 편으로 의거 또는 투항한 괴뢰군 병사들의 수는 2만 2,000 여명에 달하였다. 특히 2월 27일 남부 월남 괴뢰 공군 비행사들이 느고 딘 디엠이 웅크리고 있는 대통령 관저를 폭격한 사실은 괴뢰 집단 내부에서 반미 반느고 딘 디엠 기세가 절정에 달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962년 12월 케네디는 《게릴라(인민 무장대)와의 싸움은 매우 힘들다. 특히 남부 월남과 같은 어려운 지형에서는 게릴라 1명에 대하여 10~11명의 미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저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부 월남 인민들의 영웅적 무장 투쟁은 민족적 해방을 위한 모든 인민들의 투쟁의 모범으로 되고 있으며 인민들이 단결하여 싸우면 그 어떤 강대한 적이라도 능히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생동하게 보여 주었다.

인도네시아 인민의 서부 이리안 해방 투쟁에서도 진전이 있었다. 7월 31일 인도네시아 인민의 완강한 투쟁과 세계 사회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화란 식민주의자들은 100여 년간 지배해 온 서부 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 귀속시키는 데 동의하였다.

북부 카리만탄에서도 12월 8일 영국의 식민지 통치와 《말레이시아 련방》 창설 계획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타올랐다.

아세아 대륙의 서남단에 있는 예멘 인민은 9월 27일 외래 제국주의 세력을 국내에 부식시켜 온 봉건 왕조를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예멘 인민은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 및 전복된 왕당파의 무장 침략을 격퇴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였다.

오만 인민들도 영국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무장 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 미제에 의한 일본 령토의 군사 기지화, 미제에 의한 핵 무기의 반입, 《일한 회담》과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의 조작 음모 등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투쟁은 더욱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1월 23일 일본의 42개 정당, 사회 단체들이 《일한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적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연 약 2천만명의 참가 하에 5차에 걸친 전국 공동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밖에도 미국 기지 반대 투쟁을 비롯한 각종 반미 투쟁이 년중 계속 전개되였다.

아세아에서 치렬히 타오른 반제 해방 투쟁의 불'길은 대양주에 남아있는 식민지 서부 사모아도 휩쓸었는바 이 나라 인민은 1월 1일 독립을 달성하였다.

아프리카 대륙 인민들의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은 1962년에 일련의 큰 승리들을 달성하였다.

132년 동안이나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에게 짓눌려 살던 알제리아 인민은 영웅적 무장 투쟁 끝에

7월 1일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날 알제리아에서는 자결에 관한 국민 투표(99.73%가 찬성)가 실시되고 7월 5일은 독립절로 선포되였다.

또한 7월 1일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식민지들인 루안다와 부룬디가, 10월 9일에는 우간다가 각각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1962년 말 현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59개의 나라와 지역중 33 개국이 식민지 통치의 철쇄를 벗어 던지고 독립의 길에 들어 섰다.

아직도 식민지로 남아 있는 포도아령 앙골라, 포도아령 기니아, 카메룬, 모잠비크, 로데시아, 니아살랜드에서도 인민들은 저주로운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마지막 보루를 청산하기 위한 무장 투쟁에 일떠섰다.

물론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 국가 인민들 앞에는 이미 달성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는바 여기서 특히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 긴박한 임무로 제기되고 있다.

1962년도 아프리카 대륙의 반제 민족 해방 운동에서 특기되는 것은 대륙 각국의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 력량의 통일 전선 형성에 대한 강한 지향이다.

2월 초에 진행된 동부 및 중앙 아프리카 해방을 위한 범아프리카 운동 단체 제 1차 년차 회의, 3월 중순에 진행된 제 1차 전 아프리카 농민 회의와 전 아프리카 농민 련맹의 창설, 6월 초에 진행된 아프리카 자유 투사 회의, 6월 중순에 진행된 카사블랑카 헌장 참가국 정치 위원회 회의, 7월 말에 있은 전 아프리카 녀성 대회와 전 아프리카 녀성 기구의 창설 등이 그러한 지향들을 잘 대변하였다.

1962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였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반제 민족 혁명에서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은 큐바 혁명은 미제의 무장 침략 음모, 파괴 암해 공작, 경제 봉쇄 등 반혁명적 책동들을 격파하면서 전진을 계속하였다.

큐바 인민은 미제의 끊임 없는 침략 위협 앞에서 혁명적 경각성을 견지하면서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적들에 대처하였다.

2월 4일 하바나 호세 마르티 광장에서 150만 군중의 참가 하에 진행된 제 2차 큐바 전국 인민 대회는 제 2 하바나 선언을 채택하고 미제의 군사, 경제적 침략 행동을 재때에 폭로 분쇄하였다. 특히 10월에 있은 미제의 대규모적 군사적 위협을 성과적으로 물리침에 있어서 큐바 인민의 영웅성과 불굴의 혁명성은 남김없이 발양되였다.

큐바 혁명의 모범을 따라 반미 반독재 투쟁은 베네주엘라, 과테말라, 콜롬비아에서 더욱 세차게 벌어졌으며 이 불'길은 파라과이와 에쿠아도르에도 타번졌다. 베네주엘라 유격 부대들은 일련의 산악 지역에 유격 근거지들을 창설하고 전국의 20 개 주에서 유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격대의 활동의 영향 하에 6월 2일 베네주엘라에서는 주요 해군 기지인 푸에르토 카벨로에서 해병대들의 반독재 폭동이 발생하였다.

과테말라에서 애국자들은 1960년 무장 봉기 이래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데 1962년에 그들은 수도 과테말라시에서 불과 20 리 떨어진 지점에까지 진출하였다. 콜롬비아의 동부 지방과 안데스 산맥 지대에서도 유격대들이 활동하였다.

이러한 각국의 무장 투쟁은 점차 대륙적인 련합 전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무장 투쟁의 강화 발전과 함께 대토지 소유제를 반대하는 농민 대중의 혁명적 진출도 현저히 강화되였다. 대다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토지 점거, 토지 탈환 등을 위한 폭력 투쟁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진행된 이러한 투쟁들은 미제와 친미 독재 세력들의 통치 기반을 더욱 크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지배 계층 내부의 혼란을 심화시켰다.

1월 18일 도미니카에서 공군 그루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2일 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국민 혁명 위원회》를 전복한 사실, 아르젠틴에서 반동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자 9월 18일에 또 다른 군사 정변이 일어나 정부가 전복된 사실(12월에도 아르젠틴에서는 공군의 반란이 있었다), 7월 18일에 페루에서 있은 군사 정변, 11월 25일 과테말라의 공군 부대들의 반정부 폭동, 11월 1일 혼듀라스에서의 군부의 반정부 무장 반란 등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권과 친미 독재 통치 기반이 불견고하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자기 시대를 다 산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 과정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싸우는 피압박 민족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모든 인민들은 자기들의 생활적 체험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위기 속에서 허덕이는 자본주의 세계 경제,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의 가일층의 강화

사회주의 진영의 전진과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에 의한 전후 40여개의 신생 독립 국가들의 출현, 이로 인한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붕괴와 자본주의 세계 시장의 축소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매우 격화시키였다. 현 시기 자본주의 위기는 경제의 심한 불안정성에서 표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60～1961년 공황이 끝난 후 회복기에 들어서기도

전에 1962년에 다시 생산의 침체, 답보, 하강 등 새로운 공황의 위기에 직면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 제도의 부패와 쇠퇴가 바로 미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공업 총 생산은 1962년 8월부터 년말까지 계속 그 자리에서 답보하였다. 1962년 3.4 분기의 월 평균 강철 생산량은 그해 2월에 비해 36%, 1962년 8월분 금속 광물 채굴량은 그해 3월에 비해 19% 감소되였다.

강철 공업 부문 조업률은 7월에 45%로 굴러 떨어졌으며 그 이후로는 50% 수준을 넘지 못 하였다.

《영국 전국 실업가 협회》가 10월에 발표한 보고에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의 공업은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 영국에서 1962년에 강철 공업 총 생산 능력은 74% 밖에 가동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서부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 전반을 휩쓸었다.

생산의 침체와 계속적인 감퇴는 실업자들의 대렬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미국의 실업률은 1962년에 6.5%로 장성하였으며 일본의 실업자 수는 1천만 명에 달하였다. 영국에서는 실업자가 1947년이래 최고 수준인 90만명을 돌파하였다. 실업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취업자들의 생활도 날을 따라 령락되여 생산과 소비 간의 간격은 더욱 확대되였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생산의 쇠퇴(증감 비률%)

		자본주의 세계 전체	미 국	영 국	서 독	불란서	이태리	일 본
전전	1929~38	0.37	−1.9	2.6	3.3	−1.4	1.4	—
	1937~40	(1938~46) 2.2	3.7	(1938~46) 0.27	—	(1942~45) −7.2	—	6.1
전쟁중	1940~45		4.8		—		—	−9.2
전후	1946~50	8.4	6.4	6.5	(1948~50) 36.4	11.9	(1948~50) 13.0	39.0
	1950~55	5.9	5.3	1.7	12.6	6.6	8.1	15.0
	1955~60	4.4	2.3	1.4	6.8	7.7	8.4	17.1

주; 1. 전후의 것은 전후 경제 발전의 시발점으로 보는 1946년을 기점으로 잡았다.
1945년을 기점으로 하면 1945~1950년의 증가률은 일본이 2.7, 미국이 1.3, 불란서가 23.8이다.
2. 서독의 전전 수'자는 전 독일 수'자.

자료 출처; 일본 잡지 《게에이》 1963년 8월호.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최근 년간 공업 생산의 침체상 (전전에 대비한 증감률%)

	자본주의 전체	그중 공업국	비공업국	미국	서독	영국	불란서	이태리	일본
1958	−2.9	−3.8	6.4	−7.1	2.9	−1.1	4.1	2.9	0.2
1959	10.0	10.0	7.0	12.9	7.2	5.2	3.9	11.3	24.2
1960	7.3	7.4	11.2	2.9	10.7	6.8	11.4	15.2	26.7
1961	3.4	3.4	8.4	1.0	6.0	1.1	5.7	11.0	22.1
1962	5.7	5.8	3.9	7.7	4.9	1.2	8.1	9.9	7.9
1962 1~3	8.5	8.6	5.6	12.1	0.9	−2.0	8.4	13.4	15.8
4~6	7.4	7.4	4.7	8.6	4.70	8.0	8.3	10.5	11.1
7~9	5.0	5.9	5.5	6.0	5.7	1.7	9.1	7.5	4.6
10~12	3.9	3.1	2.2	4.1	5.7	2.1	5.6	8.7	0.8

자료 출처; 일본 잡지 《게에이》 1963년 8호.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1962년 5월 28일 미국에서 주권 시세는 평균 17.8%, 최고 25% 폭락되였다. 6일 동안에 폭락된 주가 총액은 595억 딸라에 달하였는데 28일 하루 동안에 폭락된 가격만 하여도 무려 287억 딸라나 되였다.

뉴욕에서 주권 시세 폭락의 검은 구름은 순식간에 파리에 옮아가 이곳 주권 시세를 5~8%, 본의 주권 시세는 평균 8% 폭락시켰다. 이 구름은 카나다, 일본, 이태리, 벨기, 서서, 화란, 호주 등에도 옮아갔다.

미국 통신이 주권 시세의 대폭락이 《1929년 10월의 대폭락이래 최악의 저락 추세》라고 하면서 《1929년 공황을 방불케 한다》고 한 것은 우연치 않았다. 주권 시세의 폭락은 자본주의 세계 금융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금 및 딸라 보유량이 현저히 축소된 것과 직접적으로 련관되였다. 《미국은 하루에 300만 딸라의 비률로 금을 류실》(미국 상원 금융 위원회 위원장 버드)한 결과 1962년 11월 말에 미국 국고의 금 보유량은 1939년도 이래 최저 수준인 160억 5천 700만 딸라로 저락되였다. 월가의 대변지 《저널 오브 콤머스》까지도 《경제 쇠퇴를 막아 낼 그 어떤 <마술의 공식>도 워싱톤에는 없다》고 한탄하였다.

경제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자본주의 세계에서 로자 간의 모순은 극도로 첨예화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은 로동 운동 력사에서도 류례 없는 투쟁의 한해로 되였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정치적 권리와 처지 개선을 위한 자본주의 국가 로동 계급과 기타 근로자들의 투쟁은 독점 자본가들에게 큰 타격을 가하면서 자본주의 세계를 진동시켰다.

미국에서는 1962년에 3,550건의 파업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상실된 로동일 수는 1961년보다도 280만 로동일이 많았다. 영국에서는 300만 명의 기계 제작공들의 두 차례에 걸친 파업을 비롯하여 2,440 건의 파업이 단행되였는데 이로 인하여 무려 579만 4천 로동일이 상실되였다. 이태리에서 1962년의 파업 참가자 수는 그 전해의 291 만 명으로부터 588만 7천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상실된 로동일은 그 전해의 989만 1천일로부터 2,134만 4천일로 증가하였다.

서부 독일에서도 로동 운동의 새로운 고조가 일어 났는바 1962년 5월 한달 동안에만도 무려 700여만 명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일본에서는 연 3천 800 여만 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한 일곱 차례에 걸친 춘기 공동 투쟁을 비롯하여 각종 파업과 시위들이 일어났다.

불란서의 로동 계급은 드 골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며 처지 개선을 위한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은 더욱 더 많은 군중을 망라하여 보다 완강성과 조직성을 띠고 전개되였으며 정치적 요구와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미국에서 일어난 15 년래 가장 큰 철도 파업과 《록키드 항공 회사》산하 5만 5천 명 기계공들의 전국적 파업, 프랑코의 파쑈 독재 하에서 2개월 간이나 계속된 30만 서반아 근로자들의 파업, 64일 간이나 계속된 불란서 데카즈빌 탄부들의 완강한 갱내 롱성 투쟁, 300만 영국 기계공들의 두차례에 걸친 8년래 최대 규모의 파업, 100만 이태리 금속 로동자들의 전국적 24 시간 파업, 7 차에 걸친 춘기 공동 투쟁을 비롯하여 《안보 조약》과 《일한 회담》반대, 미군 기지 철폐,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일본 근로자들의 투쟁은 대표적 투쟁으로 된다.

근로자들의 투쟁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세차게 전개되였다. 200 만명의 아르젠틴 로동자들의 24시간 총파업(3월)과 400 만 로동자들의 24 시간 총파업(5월), 브라질에서의 300만 근로자들의 정치적 총파업 등을 필두로 하여 라틴 아메리카의 거리 마다에서는 대중적 투쟁의 파도가 쉬임없이 휘몰아쳤다. 라틴 아메리카 로동 운동 발전에서 주목되는 것은 9월 6일 칠리의 수도 산챠고에서 라틴 아메리카 로조 대회가 진행되고 합동 집행 서기국이 창설된 사실이다.

이렇듯 자본의 지배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는 자본의 철쇄를 끊어 버리기 위한 피압박 계급들의 투쟁이 례외 없이 힘차게 전개되였다. 불란서의 《오로르》지가 자본주의 세계는 심각한 《사회적 진통에 휩싸여 있다》고 쓴 것은 의미있는 일이였다.

제국주의 렬강 간의 격화되는 내부 모순과 그에 의한 제국주의 진영의 4분 5렬

1962년에 시장과 세력권을 위한 제국주의 렬강 간의 쟁투가 가일층 격화되였다. 이것 또한 자본주의 위기의 심각성을 잘 반증하여 주었다.

최근 년간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에 의하여 제국주의 진영 내의 세력·관계에는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바 미제를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에는 제 2 차 대전에서 패전하였거나 심히 약화되였던 서구라파 나라들이 대치되였다.

전후 시기 서부 독일, 불란서, 일본, 이태리 등 나라들의 경제 발전 속도는 미국이나 영국의 속도를 훨씬 릉가하였다. 자본주의 세계의 공업 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8년부터 1962년 간에 53.87%로부터 45.1%로 감소된 반면에 서부 독일, 불란서를 비롯한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비중은 12.9%로부터 20.37%로 제고되였다.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일부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

	1938	1948	1953	1958	1960	1962
미 국	34.94	53.87	51.92	46.11	45.38	45.11
서 독	10.29	3.64	6.74	8.94	9.0	9.13
영 국	14.82	11.32	10.18	9.87	9.38	8.81
불 란 서	5.28	3.95	3.94	5.03	4.69	4.80
일 본	3.13	1.0	2.16	3.09	4.09	4.82
서 구 라 파	44.92	30.97	32.16	35.64	34.9	34.8
구라파 《공동 시장》	23.07	12.9	15.97	19.91	19.93	20.37

자료 출처; 쏘련 잡지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 1963년 8월호 부록

자본주의 제국 수출에서 일부 나라들이 차지하는 비중(%)

	1937	1947	1957	1962
자본주의 제국 전체	100.0	100.0	100.0	100.0
미 국	14.2	32.5	20.7	17.3
영 국	11.2	9.8	9.2	8.6
불 란 서	4.1	4.0	5.1	6.0
서 독	10.1	0.5	8.6	10.7
이 태 리	2.4	1.4	2.6	3.8
일 본	5.1	0.4	2.9	4.0

자료 출처; 일본 잡지 《쩅에이》 1963년 8월호

경제 생활에서의 이와 같은 변동은 곧 정치에 반영되였는바 미제의 《명령》과 《지시》가 《손아래 동료》들 속에서 통하지 않게 된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후진 국가들까지를 포함한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경제, 군사적으로 튼튼히 얽어 매여 세계 지배를 위한 결전장으로 내몰려는 미제의 구상은 점차 그 현실성이 약화되고 있다.

전패국인 서부 독일은 미제의 직접적인 지지 하에 이미 군사, 경제적 잠세력을 완전히 복구하였으며 불란서는 전쟁에서 약화되였던 지위를 급속히 회복하고 있다. 불란서의 경제는 군사화의 궤도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핵 무기 제조 분야까지 가지게 되였다. 불란서는 서부 독일과 《제휴》하여 서구라파에서 미, 영 세력을 배제하고 《구라파인의 구라파》를 만들기 위한 《원대한 목표》를 들고 나오고 있다.

《위대한 불란서》를 창건한다고 하면서 드 골은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기도와 미국 자본의 구라파 침투를 극력 반대하고 있으며 서구라파를 예속하기 위한 미제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를 이끌고 《공동 시장》과 치렬한 통상전을 전개하다가 심각한 손실을 당한 영국은 1962년 9월 서구라파에서 자기의 기존 리권과 세력권을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체면 불구하고 《공동 시장》의 문을 두들겼다. 맥밀란은 미국의 지지 하에 《공동 시장》에 가입한 후 그 대'가로 《공동 시장》 내에 미국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맥밀란은 영국의 《독자적 핵 제지력》 창설을 표시하는 전략 폭격기용 《스카이볼트》 미싸일 제작 방침을 포기하고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보존하는 조건 하에서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을 지지하였다.

케네디는 《공동 시장》의 장벽을 허물고 그에 침투하여 지배권을 확립하며 나아가서는 서구라파와 미주를 저들의 독점 시장으로 전변시킬 음흉한 목적 밑에 《대서양 공동체》 창설을 고창하였다.

동시에 미제는 불란서의 《독자적 핵 무력》 창설 기도를 저지시킬 목적 밑에 나쏘의 《다각적 핵 무력》 창설안을 내놓고 우선 영국이 이것을 지지하는 《모범》을 보이게 하면서 불란서의 고립화

를 기도하였다.

낫소 협정과 관련하여 격노한 드 골은 맥밀란을 《배신자》라고 규탄하고 《우리가 바하마의 합의에 찬동하리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선언하였다. 미국이 침투하게 되면 《공동 시장》이 와해되며 나아가서는 《구라파인의 구라파》 창설이 파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드 골은 미국이 기여 들어 올 수 있는 구멍을 막아버리기 위하여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신청을 일축하였다.

서부 독일도 《자신의 핵 방아쇠》를 공공연히 요구하면서 형태 여하를 불문한 나토의 핵 무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더우기 《공동 시장》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불란서와 서부 독일은 서로 자신의 리익을 타산하면서 미, 영 세력과 맞서기 위한 태세를 갖추었다. 그리하여 1963년 초에 불란서는 서부 독일과 《협조 협정》을 체결하고 《파리—본축》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과 특히 미국은 서구라파에 대한 지배력의 약화에 큰 불안을 느끼면서 불란서에 각종 압력을 가하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제국주의 렬강 간의 모순은 미국과 일본 간에도 점차 첨예화되고 있다. 미국과의 예속적인 무역에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일본은 면직물 수입 및 북태평양에서의 어업과 관련한 미국의 차별 정책에 더욱더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한 그들 간의 모순과 충돌은 불가피하며 변화되는 세력 관계에 따라 시장과 투자 장소, 원료 원천의 강탈을 위한 쟁투가 더욱 치렬하게 벌어지리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궁지에 빠진 제국주의와 그에 의한 침략과 전쟁 정책의 강화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 앞에서 파산과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미제는 침략과 전쟁 도발에서 출로를 찾으려고 미친듯이 날뛰였다.

미제는 전면 전쟁과 핵 전쟁을 발광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도처에서 벌리면서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로서의 정체를 남김 없이 드러내놓았다. 특히 미제는 《평화군》이니 《진보를 위한 동맹》이니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이니 하는 허울좋은 간판으로 침략자인 자신의 정체를 가리우려고 책동하면서 침략과 전쟁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케네디 정부는 1962～1963 회계 년도에 도합 520억 딸라를 직접적 군사비로 배당하고 핵 무기의 생산 및 축적에 광분하면서 1962년 4월 25일부터 년말까지에만도 태평양 상의 크리스마스도와 죤스톤도에서 대기권 핵 시험을 30회 이상이나 감행하였다. 미제는 네바다 시험장에서 지하 핵 시험을 1961년 9월 15일부터 1963년 6월 6일까지의 기간에만도 66 회나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미국은 제 2 차 대전 이후 18년 간에 250 회에 걸친 각종 핵 시험을 감행하였다.

또한 미제는 세계 도처에 2천 200 개소의 각종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105만 명의 자국 군대를 이에 파견하고 있다.

미제는 무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데 1962년에 미국의 《상용 무력은 45% 확대되였다》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 또한 펜타곤은 《정규 사단들을 미국 력사상 최대의 중무장을 갖추고 최대의 기동성을 가진 군대로 재편성하고 있으며 원자 전쟁과 함께 세계의 근본적으로 다른 지형에서의 국부적인 비핵 전쟁의 요구에 맞게》(에이피 통신) 개편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제가 온갖 형태의 전쟁 준비와 침략 행동에 매여 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특히 미제는 침략과 전쟁 정책의 예봉을 극동과 아세아에 돌리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여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의 핵 무장에 광분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침략적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할 목적 밑에 범죄적 《한일 회담》을 조속히 타결하도록 일본 군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도당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례컨대 미제는 1962년 5월에 일본 군국주의 두목의 하나인 요시다를, 11월에는 일본 외상 오히라를 워싱톤에 불러다가 《한일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강요하였으며 8월에 벌린 《미일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에서는 《한일 문제》를 중심 의제로 삼게 하였다.

미제가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를 동방 침략의 《돌격대》로 내모는데 급급하고 있는 사실은 1962년 12월 초에 워싱톤에서 열렸던 《미일 무역 경제 합동 위원회》 오찬회 석상에서 케네디가 몇명의 일본 각료들에게 일본이 《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요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미제는 비단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침략의 길잡이로 내몰려고 책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침략의 길에 자신이 더욱 깊이 뛰여들고 있다.

미제는 1962년 벽두부터 남부 월남에서 침략 전쟁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자국 군대와 직승 비행기들을 포함한 각종 전쟁 물자들을 증강하였으며 2월 8일에는 인민 무장대를 반대하는 모든 군사 작전을 지휘하기 위한 《남부 월남 군사 원조 사령부》를 조작하고 그 사령관에 하킨스라는 살인 장군을 임명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남부 월남에서 대규모적인 《소탕 작전》을 감행하여 나섰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미제는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회의를 파탄시킴으로써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방해하려고 책동하였다.

미제는 남부 월남, 라오스

를 중심으로 하여 인도지나 전역에서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저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고 타산하였다. 케네디는 5월 15일 5천 명의 미군을 타이에 파병하는 명령을 발표하였다. 5월 17일에 미 침략 군대의 첫 부대들이 라오스 국경 지대에 배치되였다.

그러나 그후 정세는 미제로 하여금 제네바 의정서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미제는 라오스의 평화와 중립을 입으로는 《지지》하면서도 배후에서는 궁지에 빠진 사반나케트 집단을 구출하고 라오스 애국 력량을 분렬시키며 민족 통일 정부를 파괴하려는 흉악한 책동을 계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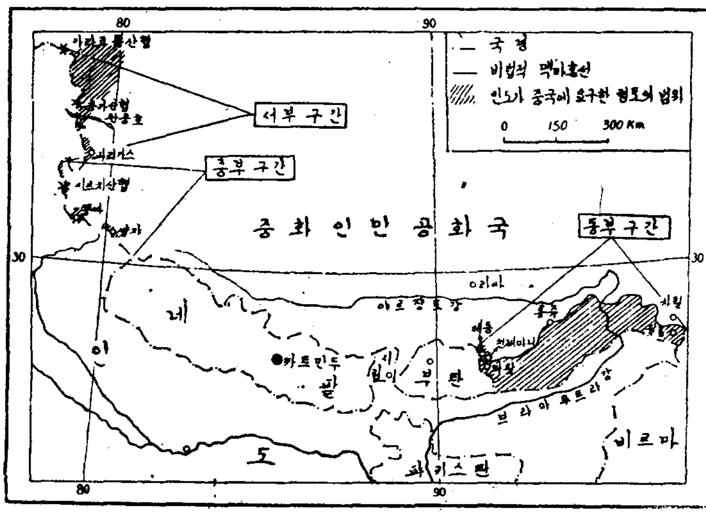
이 밖에도 미제는 쏘련과 중국 령공에 대하여 《유-2》형 간첩 비행기들을 날려 보내는 도발 행동을 감행하였으며 세계의 기타 지역들에서도 도발 행동과 침략을 끊임 없이 감행하였다.

미제의 이 모든 침략과 전쟁 도발 책동들 중에서도 가장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 사건은 중인 국경 분쟁과 소위 《카리브 위기》였다.

중인 국경 문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가장 합리적이며 주동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네루를 두목으로 하는 인도 반동 계층과 그들을 적극 사촉하고 있는 미제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중인 국경 문제는 1962년도에도 해결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첨예한 분쟁에로 확대되였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하여 인도 반동 계층들로 하여금 《반중국》 모험 행동에로 나서게 하면서 아세아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 력량을 분렬 약화시키며 아세아 침략과 전쟁 책동의 결정적 장애로 되는 중화 인민 공화국을 고립, 격파하려고 어리석게 타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과 주장, 미제의 사촉 하에 인도 반동 계층들이 제기하는 팽창주의적 요구에 대한 세계 사회 여론의 공정한 판단 앞에서 파산을 당하였다.



원래 중국 인민과 인도 인민은 총연장 2,000 키로메터나 국경선을 사이에 놓고 수 세기 동안을 살아 왔다.

그러나 중인 국경선은 한번도 공식적으로 확정된 일이 없다. 그것은 과거에 중국이 부단히 외래 침략과 오랜 전란을 겪어 왔고 또한 인도가 장기간 영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 왔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당시 중인 량국 간에는 《맥마혼선》과 같이 영 제국주의자들이 침략을 위하여 날조한 국경선이 존재하는가 하면 중인 량국의 권한이 행사되던 계선에 기초하여 형성된 전통적이며 관습적인 국경이 있었다. 량국 간의 이 전통적인 관습선은 동부에서는 히말라야 산맥 남쪽 기슭을, 중부에서는 히말라야 산맥을 그리고 서부에서는 카라코룸 산맥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티베트의 장족 혹은 장족과 혈연적 련계를 가진 민족들이 살고 있으며 이 지역 자체도 오랜 력사적 시기를 거쳐 중국의 관할 하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중인 쌍방은 오래동안 량국 간의 전통적인 관습선을 존중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오래 전에 출판한 영국 공식 지도에도 이것이 반영되여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이 창건되고 인도가 독립한 후 비로소 중인 국경의 확정 문제가 제기되였다.

이때 인민 중국은 시종일관 량국 간의 전통적인 관습선을 기준으로 하여 호상 양보하는 원칙에서 평화적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947년 인도가 독립을 선포한 후 인도 지배층은 영국이 주장하던 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중인 국경으로 선포하였다.

인도 반동들은 1950년 티베트의 평화적 해방을 방해하다가 실패한 후부터 침략을 강화하면서 비법적인 《맥마혼선》 이남의 중국 령토를 완전히 강점하였다. 이리하여 인도 반동들은 이미 중인 국경 동부의 9만 평방키로메터의 중국 령토와 중부의 2천 평방키로메터의 령토를 강점하고 있으며 중인 국경 서부의 3만 3천 평방키로메터의 중국 령토를 점령하려 하고 있다. 결국 인도 반동 지배층이 요구하는 지역의 총면적은 실로 12만 평방키로메터에 달하였다.

인도 반동 계층들은 이렇듯 령토 팽창을 발광적으로 추구하면서 《반중국》소동을 계속 벌리였는바 1959년 이후 그 회수는 무려 6차에 달하였다. 네루는 300 여차의 연설에서 《제국주의》니 《팽창주의》니 하면서 인민 중국을 중상하였다.

그러나 중화 인민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중인 량국의 친선, 평화적 협상에 의한 호상 간의 분쟁 문제의 해결 원칙을 견지하면서 실제적 해결 방도를 제의하여 왔다.

1959년에 인도 측이 황당 무계한 령토적 요구를 제기하면서 국경 충돌을 도발한 이후 중국 정부는 쌍방의 무장 부대를 전체 중인 국경선 실제적 통제선으로부터 각각 20 키로메터씩 철거시키며 순찰을 중지시킴으로

써 충돌을 방지할 것을 수차 제의하였다. 인도 반동들이 이러한 제의를 거부하자 중국은 국경 지대에서 순찰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량국 수상들의 회담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1960 년 4월 주 은래 총리는 뉴델리를 방문하고 국경 문제의 옳은 해결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인도 반동들은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를 《연약성》의 표시로 간주하고 도발을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중인 국경의 서부 구간에서 1961년부터 특히는 1962 년 4월부터 인도 군대는 부단히 중국 국경 내에 침입하여 새로운 군사 거점들을 설치하였다. 1962 년 6월 20일 인도 국회 하원에서 네루는 《인도는 중국인들의 초소를 위협하는 새로운 순찰 초소들을 설치하였다. 많은 경우에 우리측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인들도 부득불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신문 《블리츠》는 인도가 중국 땅을 점령할 수 있은 것을 국방상 메논이 작성한 《나폴레온식의 대담한 계획에 의하여 달성된 유일 무이한 승리》라고 썼다.

인도 군대는 중국 국경 경비대에 대하여 부단히 도발을 감행하였다.

1962년 6월부터 인도 군대는 《맥마혼선》을 넘어 그 이북인 체동 지역에 침입하고 점령 지역를 확대하였다. 이리하여 중인 국경의 동부와 서부에서 일촉즉발의 엄중한 사태가 조성되였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 하에서도 중국 정부는 최대의 자제력과 인내성을 발휘하면서 군사적 대응 조치를 삼가하는 한편 회담의 방법으로 중인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다.

인도 반동 세력은 중국측의 성의를 무시하고 10월 20일 중인 국경의 전 령역에 걸쳐 대규모적인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중국 국경 경비대의 불가피한 자위적 반격에 의하여 인도 반동 계층의 모험은 심각한 파산을 당하였다. 인도 반동들은 인민 중국 무력의 섬멸적인 타격 앞에서 더는 제멋대로 모험을 되풀이할 수 없게 되였다.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정부는 10월 24일 중인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다음과 같은 3개 조항의 제안을 제출하였다.

1) 쌍방은 중인 국경에서 쌍방 간에 존재하는 실제적인 통제선(1959 년 11월 7일 선)을 존중하며 쌍방의 무력을 이 선으로부터 각각 20키로메터씩 철수하여 격리시킬 것.

2) 인도 정부가 첫 조항의 제의에 동의하는 경우에 중국 정부는 국경 동부 계선의 중국 국경 경비대를 실제적 통제선 이북으로 철수시킬 용의가 있다. 동시에 쌍방은 국경의 중부 및 서부 계선에서 실제적인 통제선을 넘어 서지 않을 데 대하여 담보하자.

3) 중인 국경 문제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량국 수상들의 회의를 열자.

그러나 인도 정부는 최근 년간 비법적으로 강점한 중국 령토를 제것으로 만들 목적 밑에 중국 정부의 이 합리적이고 성의 있는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고 10월 26일에는 오히려 전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11월 4일에는 중국에 대한 침략을 총지휘할 《국방 리사회》를 조직하였다. 인도 반동 세력은 중국과의 《장기전》을 고창하면서 미제에 대대적인 군사 원조를 요청하였다.

11월 2일부터 미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인도에 군수품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령토에 대한 인도 반동들의 침범은 련일 계속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11월 21일에도 성명을 발표하고 11월 22일 0시부터 일방적으로 정화를 실시하며 1962 년 12월 1일부터 중국 국경 경비대가 실제적 통제선으로부터 20키로메터 철수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 성명은 어김 없이 수행되였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11월 28일 중국 측의 이러한 주동적 조치에 인도측이 호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1963년 1월 19일 콜롬보 회의의 제안을 중인 공식 대표 회담의 초보적 토대로서 원칙적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인도 측은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국측의 거듭되는 조치들에 호응할 대신에 미국의 품 안에 더욱 깊이 안기면서 《반중국》 소동을 계속하였다.

미제는 인도 반동들을 아세아 침략에 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고 있다.

《카리브 위기》 1962년 10월 22일 밤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전국 텔레비죤 방송 연설에서 규바 혁명을 교살하기 위한 새로운 엄중한 도발적 계획을 들고 나왔다. 그는 큐바 인민이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 위협에 대처하여 자위를 위한 무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떠들면서 《일체 공격용 군사 장비》들이 큐바로 수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큐바로 가는 모든 종류의 선박들을 엄격히 검색》할 것을 선포하였다.

케네디의 이 명령에 의하여 5개 사단 (후방 부대까지 합해서 10만명)의 무력과 183 척의 군함 (8만 5천 명)이 동원되었으며 1,190대의 비행기가 큐바를 반대하는 침략 행동에 출동할 태세를 갖추었다 (에이피 통신 1962년 11월 29일).

이날 미 국방성은 국내외에 있는 전체 미군 부대들에 《경계 태세》를 취할 것과 미 해병과 해군의 현역 복무 기간을 1년간 연기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검색에 응하지 않는 선박들은 《모조리 격침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큐바에 대한 대규모적인 군사적 위협은 사전에 준비되였다. 이미 1962년 9월에 미국 국회는 케네디에게 15만명의 예비병을 현역으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 권한과 큐바를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미제의 반큐바 무력 봉쇄와 대규모적 침략 위협에 직면하여 큐바 인민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에 궐기하였다. 큐바 전국에는 비상 사태가 선포되였으며 혁명군 부대들과 민병대들은 큐바 수상 카스트로의 총동원령이 내린 즉시로 자기 진지을 차지하였다.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혁명적 구호 하에 700만 큐바 인민은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사람 같이 조국 방위에 궐기하였다.

10월 23일 카스트로는 《미국이 큐바에 대하여 계속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침략자들 앞에서 무장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으며 가소롭고 황당무계한 일인가!》라고 언명하면서 《만약 새로운 직접적인 공격이 감행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카스트로는 케네디가 해적이며 미 제국주의는 큐바 인민의 악독한 원쑤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전 세계 인민의 흉악한 원쑤이라고 락인하였다.

같은 날 쏘련 정부도 큐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도 큐바를 반대하는 미제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들을 발표하였다.

10월 23일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합동군 총사령관은 관하 부대들에 전투 태세를 강화할 것을 명령하였다.

10월 24일 쏘련 내각 흐루쑈브 수상은 영국 《100명 위원회》 위원장 러쎌에게 보낸 서한에서 열핵전쟁 발생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위급 회담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썼다.

10월 23일 유엔 사무 총장 대리 우 탄트가 쏘련은 큐바에 대한 무기 수송을 자원적으로 2~3주일 중지하며 미국은 해상 봉쇄를 2~3주일 중지할 것을 제의하자 10월 25일 쏘련 내각 흐루쑈브 수상은 우 탄트에게 보낸 회답 서한에서 이에 즉각 동의하고 큐바로 가는 선박들이 미제의 봉쇄 구역에 들어가지 말도록 지시하였다고 통고하였다.

그러나 케네디는 큐바에서 군비 확장을 저지시킬 보장이 없다는 구실 밑에 우 탄트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유엔 옵써버단이 큐바에 가서 미싸일 기지를 해체하거나 기지 건설 공사의 중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파렴치한 요구를 내걸었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외국 선박들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면서 큐바에서 미싸일 기지 건설이 《중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저들의 《가일층의 조치가 정당화될 것》이라느니 《큐바의 미싸일 기지들이 자발적으로 철폐되지 않으면 미국은 그것을 파괴할 것》이라느니 하는 오만한 위협에 매여 달렸다.

10월 27일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예비역으로 있는 미 공군의 군대 수송용 24개 비행 대대(인원 1만 4천 여명)를 현역으로 돌릴 것을 명령하였으며 미 해군 고위 장교들은 쏘련의 있을 수 있는 반응 여하에 관계 없이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큐바에 있는 로케트 기지들를 파괴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위협하였다.

10월 28일 흐루쑈브 수상은 케네디에게 보낸 서한에서 《쏘련 정부는 무기 설치장에서의 가일층의 공사를 정지하라는 앞서 발표한 지령 이외에 당신이 공격적인 것으로 묘사한 그 무기들을 해체하며 그것들을 상자에 집어 넣어 쏘련으로 도로 가져올데 대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고 통고하였다. 또한 서한에서 흐루쑈브는 유엔 대표들이 쏘련 무기의 해체를 검증하는데 합의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같은 날 케네디는 흐루쑈브에게 보낸 회답 서한에서 《나는 이 메쎄지를 환영하며 그것을 평화에 대한 중요한 기여로 간주한다》고 썼다.

한편 이날 미 국방성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행동의 그 어떠한 완화를 위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세 발전의 추세 하에서 큐바 혁명 정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해상 봉쇄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큐바에 대한 모든 경제 및 무역적 봉쇄 조치를 중지하며, 모든 파괴 암해 활동을 중지하며, 미국과 푸에르로 리코에 있는 기지로부터의 해적적 공격을 중지하며, 미국 군용기와 군함에 의한 령공과 령해 침범을 중지하며, 관타나모 기지를 반환할 것 등 5개 조항의 요구를 내놓았다.

10월 30일과 31일 우 탄트는 쏘련 미싸일 기지 철수에 대한 《국제 감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하바나에서 카스트로와 회담하였다. 카스트로는 큐바 령토에 대한 여하한 《감시》도 단연 거부하였다.

11월 1일 카스트로는 텔레비죤 방송 연설에서 5개 조항의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는 한 큐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케네디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전략 무기를 철수한다고 하여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왜냐 하면 우리에게는 해체할 수 없으며 결코 해체되지도 않을 먼 사정 거리를 가진 도덕적 로케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적 무기이며 전략적 방위 무기이며 보다 강력한 전략적 공격 무기이다》.

11월 2일부터 26일까지 쏘련 제 1부수상 미꼬얀이 하바나에서

《쿠바 위기》 수습과 관련하여 카스트로와 회담하였다.

한편 뉴욕에서는 쏘련 대표 꾸즈네쪼브와 미국 대표 스티븐슨간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군함들의 《검색》 하에 쏘련 선박들이 쏘련 미싸일들을 쿠바에서 싣고 쏘련으로 돌아갔다.

쏘련 미싸일이 쿠바에서 제거되자 미제는 《일—28》 폭격기도 제거할 것을 요구하여 나섰다.

11월 20일 케네디는 흐루쑈브로부터 쿠바에 있는 《일—28》 폭격기 전부를 30일 내에 철수하겠다는 것과 쿠바에 있는 쏘련 지상 전투 부대들도 《적절히 철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

미제는 《쿠바에 대한 시찰》을 내거는 한편 쿠바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것이라고 떠들어댔다.

11월 29일 쿠바 혁명 정부와 쿠바 통일 혁명 조직 전국 지도부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어떠한 일방적 시찰도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공동 성명은 쿠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은 중식되지 않았다고 언명하고 5 개 조항의 요구가 실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쿠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기도는 쿠바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또다시 파탄되였다. 그러나 미제의 반쿠바 침략 책동은 그 후에도 계속되였다.

미제는 쿠바의 반혁명 분자들과 미국 중앙 정보국 특무들을 동원하여 해적 행위와 파괴 암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미 국가들을 동원하여 쿠바에 대한 정치, 경제적 봉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 인 국경 분쟁의 격화와 《쿠바 위기》는 미 제국주의가 가장 흉악하고 교활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평화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첫째가는 원쑤라는 것을 여지 없이 립증하였다.

× × ×

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 정세는 사회주의와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모든 력량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이것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 전쟁 세력이 《리성을 발휘하여》 력사 무대에서 스스로 물러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종국적 승리가 《평화적》으로 도래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는 세계 도처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계속 미쳐 날뛰고 있다.

미제는 우리 나라 남쪽 땅을 강점하고 조선의 평화를 부단히 위협하고 있으며 라오스와 쿠바 인민을 반대하여 그리고 인도에서 6억 5천만 중국 인민을 반대하여 침략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와 그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평화를 운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찌또를 두목으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적극적으로 미화하면서 대중의 혁명 투쟁을 마비시키며 로동 계급을 타락시키기 위해 더러운 《리론》과 술책에 매달리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화되고 있는 현 시기 찌또 도당의 반혁명적 범죄 행위와 그들의 반맑스주의적 정체를 계속 폭로하는 것은 평화와 제 인민의 계급적 및 민족적 해방을 달성하는 필수 조건으로 된다. 때문에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된다.

현 시기 제국주의 특히 그의 원흉인 미제와 찌또를 괴수로 하는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투쟁하는 인민들의 신성한 전투적 과업으로 되는 동시에 승리의 담보로 된다.

아세아주

중 국

(중화 인민 공화국)

【면적】 959만 7,000 km² (아세아 대륙의 5분의 1 이상) 그중 대만의 면적은 3만 5,759 km²

【인구】 6억 5,663만명(1957년, 홍콩, 마카오 주민 및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 제외)

【수도】 북경 (주민 663 만 명, 1958년 12월)

정 치 중국 공산당의 령도 하에 중국 인민은 100년간의 혁명 투쟁을 통하여 외래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관료 자본주의 통치를 전복하고 장 개석 반동파를 소멸함으로써 인민 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1949년 10월 1일 중화 인민 공화국의 창건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1954년 9월 20일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 1기 제 1차 회의에서 헌법이 채택 공포되였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국가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는 1년에 1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임기는 4년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군대, 화교 대표들로 구성된다. 1959년에 선거된 대표수는 1,226 명이다.

상무 위원회 위원장 주 덕
비서장 팽 진

【중화 인민 공화국 주석】 주석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서 선거되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주석은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그 상무 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령들을 공포한다. 주석은 대외적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을 대표하며 국가 무력을 통솔하며 대사령과 전쟁 상태를 선포한다.

주석 류 소기
부주석 송 경령, 동 필무

【국무원】 국가의 최고 집행 기관이다.

총 리 주 은래
부총리 진 운, 림 표, 등 소평, 등 자회, 하 룡, 진 의, 오 란부, 리 부춘, 리 선념, 섭 영진, 박 일파, 담 진림, 륙 정일, 라 서경, 습 중훈
비서장 습 중훈(겸임)
내무부 부장 증 산
외교부 부장 진 의(겸임)
국방부 부장 림 표(겸임)
공안부 부장 사 부치
국가 계획 위원회 주임 리 부춘(겸임)
국가 경제 위원회 주임 박 일파(겸임)
과학 기술 위원회 주임 섭 영진(겸임)
재정부 부장 리 선념(겸임)
대외 무역부 부장 엽 계장
민족 사무 위원회 주임 오 란부
화교 사무 위원회 주임 료 승지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주임 장 해약

【국방 위원회】 주석 류 소기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1일 상해에서 창건되였다. 최고 지도 기관은 전국 대표 대회이며 그 임기는 5년이다. 당원수 1,272만 명 (1957년 9월)

정치국 위원 모 택동, 류 소기, 주 은래, 주 덕, 진 운, 림 표, 등 소평, 동 필무, 팽 진, 라 영환, 진 의, 리 부춘, 류 백승, 하 룡, 리 선념, 가 경시, 리 정천, 담 진림

정치국 후보 위원 오 란부, 륙 정일, 진 백달, 강 생, 박 일파

정치국 상무 위원회 위원 모 택동, 류 소기, 주 은래, 주 덕, 진 운, 림 표, 등 소평

중앙 위원회 주석 모 택동
부주석 류 소기, 주 은래, 주 덕, 진 운, 림 표
총서기 등 소평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중국의 인민 민주주의 통일 전선 단체로서 1949년 9월에 창립되였다. 현재의 제 3 기 전국 위원회 지도 기관은 1959년 4월 28일에 선거되였다. 명예 주석 모 택동, 주석 주 은래, 비서장 서 빙 **중국 국민당 혁명 위원회** 1948년 1월 창립. 주석 하 향응 **중국 민주 동맹** 1941년 창립. 주석 심 균유(1963년 6월 11일 서거) **중국 민주 건국회** 1945년 11월 창립. 주임 위원 황 염배 **중국 민주 촉진회** 1945년 12월 창립. 주석 마 서륜 **중국 농공 민주당** 1947년 2월 중화 민족 해방 운동 위원회를 현명으로 개칭. 주석 계 방 **중국 치공당** 1925년 조직. 주석 진 기우 **93 학사** 1945년 9월 3일 창립. 주석 허 덕형 **대만 민주 자치 동맹** 1947년 11월 창립 **중화 전국 총공회** 1925년 창립. 회원수 1,630만명 (1957.12). 주석 류 녕일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1949년 5월에 정식으로 성립된 중국 신 민주주의 청년단을 1957년 5월 현명으로 개칭. 서기처 제 1 서기 호 요방 **중화 전국 청년 련합회** 1949년 5월 4일 창립. 주석 류 서원 **중화 전국 학생 련합회** 1949년 3월 창립. 주석 호 계립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부녀 련합회** 1949년 4월 창립. 명예 주석 송 경령, 하 향응, 주석 채 창 **중국 문학 예술계 련합회** 주석 곽 말약 **중화 인민 공화국 과학 기술 협회** 주석 리 사광 **중화 전국 신문 공작자 협회** 주석 오 랭서 **중화 전국 체육 총회** 주석 마 약한 **중국 적십자회** 회장

리 덕전 **중국 인민 세계 평화 옹호 위원회** 주석 곽 말약 **중국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주석 료 승지 **중국 인민 대외 문화 협회** 회장 초 도남 **중국 아세아 아프리카 학회** 회장 주 양 **중국—조선 우호 협회** 회장 [illegible]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3월 17일~4월 16일 간에 북경에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 2 기 제 3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정부 사업에 관한 주 은래 총리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이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상무 위원회 사업 보고와 예산 위원회의 보고를 승인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정부 사업에 관한 보고에 서술된 대외 정책의 총로선과 구체적 방침들, 인민 경제의 조절 및 국내 정치 생활과 관련된 방침, 정책 및 과업들을 일치하게 지지하였다.

3월 23일~4월 18일 간에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제 3 기 제 3 차 회의가 북경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진 숙통 부주석의 사업 총화 보고와 정부 사업에 관한 주 은래 총리의 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지지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9월 24~27일 간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8 기 제 10 차 전원 회의가 북경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인민 공사의 집단 경리를 가일층 공고히하며 농업 생산을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 상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 그리고 각급 당 및 정권 기관의 주요 간부들을 계획적으로 교류할 데 관한 결정, 당의 각급 감찰 위원회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회의는 또한 륙 정일, 강 생, 라 서경을 서기처 서기로 보선하고 황 극성과 담 정을 서기의 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의는 국내외 정세를 토의하고 반제 평화 옹호의 기치, 혁명의 기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맑스—레닌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 들고 제국주의, 각국 반동파 및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장기적인 투쟁을 견결히 진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62년에도 중국 인민들은 미제의 지원과 사촉 밑에 중국 본토에 대한 침공을 감행하려는 장개석 도당의 음모를 반대하는 투쟁을 부단히 전개하였다.

【대외 관계】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대외 정책의 총로선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하에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친선, 호상 원조 및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며, 5개 원칙에 기초하여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과의 평화적 공존을 쟁취하고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각국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을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1962년 6월 15일~7월 2일 간에 박 금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최고 인민 회의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10월 26일~11월 6일까지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고 11월 5일 량국 간의 1963~1967년 간 주요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협정, 1963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 등 4개의 협정 및 의정서들을 조인하였으며 량국 간의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4월 23일~5월 4일 간에 팽 진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7월 6일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는 세계 각국 국회들에 보낸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의 서한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11월 15일 주 은래 총리는 김 일성 수상에게 서한을 보내왔다.

12월 8일 김 일성 수상은 이 서한에 대한 회답 서한을 보냈으며 11월 23일 우리 나라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회답 서한과 성명에서 김 일성 수상과 공화국 정부는 중인 국경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립장과 제안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9월 29일~10월 11일 간에 팽 진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대표단이 월남 민주 공화국을 친선 방문하였으며 9월 23일~10월 17일 간에 원 문효를 단장으로 하는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2월 24일 중국 외교부는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직접적인 무력 간섭을 규탄한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2월 18일부 성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남부 월남에 대한 미국의 무장 간섭을 즉시 중지하며 남부 월남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9일 중국 외교부는 월남 민주 공화국을 중상 비방한 월남 국제 감시 및 관리 위원회의 인도 및 카나다 대표의 《특별 보고》를 배격 규탄하는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6월 4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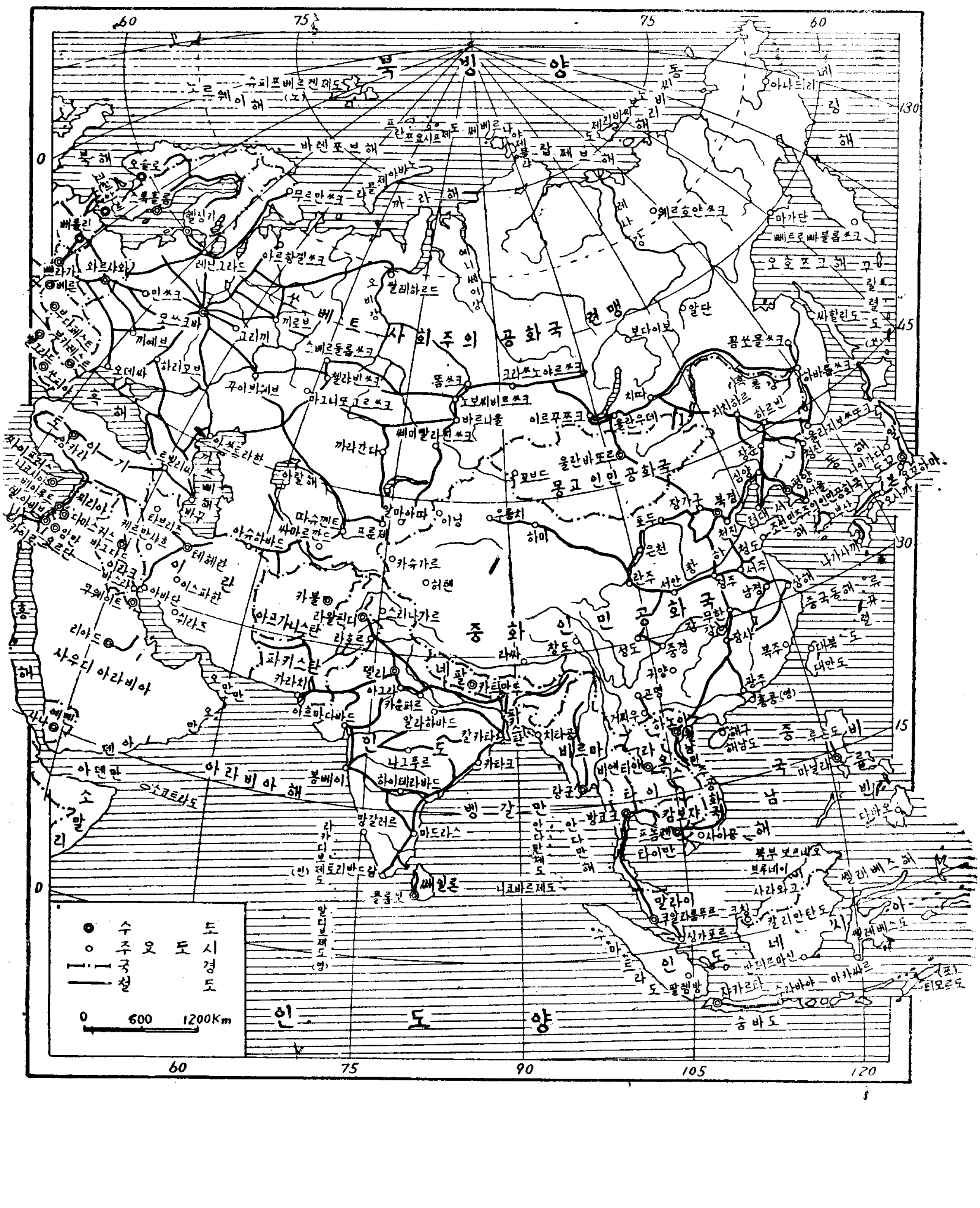
12월 26일에 중국—몽고 국경 조약이 북경에서 체결되였다.

중국 정부는 규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를 신랄히 규탄하고 규바 인민의 자주권을 위한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10월 25일 정부는 규바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도발 행동을 반대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11월 1일 외교부장 진 의는 규바 외무상의 각서 (10월 26일)에 대한 회답 각서를 보냈다.

회답 각서에서 중국 정부는 규바 정부가 제기한 5 개 요구 조건이 전적으로 정당하며 합리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미제의 침략 행위를 반대하고 규바 인민을 지지하여 11월 3~6일 간에 중국 각지에서 시위, 군중 집회가 광범히 진행되였는데 시위에는 500만명, 집회에는 1억 명이 참가하였다.

아 세 아 주



북 빙 양
바렌쯔브 해
까 라 해
오호쯔크 해
베링 해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몽고 인민 공화국
중 화 인 민 공 화 국
아라비아 해
벵갈 만
인 도 양
남 지 나 해
모쓰크바
레닌그라드
울란바또르
이르꾸쯔크
북경
서울
평양
테헤란
카불
델리
봄베이
칼카타
랑군
방코크
사이공
하노이
싱가포르
홍콩
상해
수 도
주 요 도 시
국 경
철 도
0 600 1200Km
60
75
90
105
120

11월 30일 중국 정부는 큐바 통일 혁명 조직과 큐바 정부의 11월 25일부 공동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큐바 인민의 반미 투쟁을 견결히 지지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관계… 중국 정부는 라오스에 대한 미제와 그 추종 국가들의 간섭을 반대하며 독립, 통일, 평화를 위한 라오스 인민들의 애국 투쟁을 시종 일관하게 지지하는 한편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제네바 회의에서 성의 있는 노력을 하였다. 1월 13일 중국과 라오스 간에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과 도로 건설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도로 건설에 관한 협정에서 중국은 중국의 운남성으로부터 라오스의 퐁 살리에 이르는 도로를 무상으로 건설해 주기로 하였으며 12월 2~4일 간에 중국을 방문한 노사방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왕국 정부 대표단과의 공동 콤뮤니케에서 중국은 라오스에 공업 건설을 위한 장기 차관과 기술 및 설비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였다.

8월 27일 주 은래 총리는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의 8월 20일부 서한에 대한 회답 서한에서 캄보쟈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시하누크의 제의를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중국은 서부 이리안 해방을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7월 24일 중국은 3천만 딸라의 차관을 인도네시아에 제공하였다.

10월 12일 북경에서 중국과 파키스탄 정부 간에 국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이 시작되였다. 회담은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량국 간의 국경의 위치와 방향에 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12월 28일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1963년 3월 2일 북경에서 국경 문제에 관한 협정 체결). 이리하여 량국 간의 력사적으로 물려 받은 국경 문제는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였다.

5월 28일 중국—쎄일론 간의 경제 협정을 5년간 연장할 데 대한 문건이 교환되였으며 11월 5일에는 중일 간의 민간 무역을 가일층 발전시킬 데 대한 비망록이 조인되였다. 5월 23일 중국과 수단 간의 첫 무역 협정이 조인되였으며 10월 18일에는 우간다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으며 10월 6일 예멘 아랍 공화국을 승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2년에 중국 정부는 대만을 강점하고 중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며 극동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미제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폭로 규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9월 9일 중국 인민 해방군 공군 부대는 중국 동부 지역 령공을 침범한 미국— 장 개석 간첩 비행기 《유—2》기를 격추하였다. 14일 중국 정부는 미국이 《유—2》 간첩 비행기를 중국에 침입시킨 것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령공과 령해를 부단히 침범하는 미제의 적대 행위에 대하여 1962년 말까지 225차에 걸쳐 엄중 항의하였다. (1958년 9월 7일 이래 1962년 4월 26일까지에만도 261척의 미국 군함들이 144차, 334대의 미국 비행기들이 161 차에 걸쳐 중국의 령해와 령공을 침범하였다.)

1962년 1월 15일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미국 공산당을 탄압하는 미국 정부의 반공 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62년에 에쿠아도르의 이전 하원 의장이며 《인민 행동 운동》의 지도자인 다르(8월), 영령 기아나 인민 진보당 총비서 쟈간 부인 (8월16~9월4일)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인 국경 문제…1962년에 들어 와서도 중국 정부의 거듭되는 평화 제안과 항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도 침략 군대는 중국의 신강 및 티베트 지역에 대한 침략을 부단히 감행하였다. 즉 동부 구간에서 체동과 롱쥬를 침범하였으며 서부 구간에는 43 개의 침략 초소를 설치하였다. 10월 20일에는 드디여 중인 국경의 동부 구간과 서부 구간에서 대규모적인 전면적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은 부득이 자위를 위한 반격을 가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합리적인 조치를 인내성있게 주동적으로 취하였다. 10월 24일 중국 정부는 쌍방 간의 실제적 통제선에서 쌍방의 무력을 각각 20키로메터 철수하며, 쌍방 무력의 접촉을 피하며 무장 충돌을 중지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량국 정부가 공식 대표를 파견하며, 중인 국경 문제를 친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량국 수상들이 또다시 회담할 것 등 3 개 제안을 제기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인도 반동 정부는 계속 중국에 대한 무장 공격을 감행하였다. 중국 국경 경비대의 단호한 자위적인 반격에 의하여 인도 침략군은 심대한 타격(3,968 명의 인도군이 포로됨)을 받고 실제적 통제선 이남으로 패주하였다.

11월 21일 중국 정부는 자기의 3 개 제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① 22일 0시부터 중인 국경 전선에 걸쳐 일방적으로 정화하며 ② 12월 1일부터 1959년 11월 7일 현재의 실제적 통제선에서 20키로메터 철수하며 ③ 중인 국경 지대 인민들의 정상적인 관계를 보장하며 국경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국은 실제적인 통제선으로부터 자기 측의 일부 장소에 민정 검열소를 설치할 것을 선포하면서 인도 정부도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는 3개 조항의 제안을 제의한 성명을 발표 고 이를 실시하였다.

이리하여 중인 국경 사태는 중

쪽측의 주동적 조치에 의하여 완화되였다.

12월 18일 중국 외교부는 중국 주재 인도 대사관에 각서를 보내여 인도 정부가 중국 화교들을 횡포하게 박해하고 있는 데 대하여 또다시 엄중히 항의하고 귀국을 원하는 화교들을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통고하였다.

1963년 1월 19일 주 은래 총리는 반다라나이케의 1월 14일부 서한에 대한 회답 서한에서 콜롬보 회의 제안을 중인 공식 대표 회담의 초보적 토대로서 원칙적으로 접수하였다.

동시에 주 은래 총리는 인도 군대가 현 (1962년 11월 21일) 주둔지를 유지할 데 대한 콜롬보 회의 규정이 서부 구간과 동부 구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경선에 적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국 국경 경비대가 1959년 11월 7일 현재의 실제적 통제선으로부터 20 키로메터 철수하면 인도측이 주장하는 1962년 9월 8일 현재의 실제적 통제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동부, 중부 그리고 인도가 43개의 초소들을 설치했던 서부 구간의 지역들에는 중국 국경 경비대들이 배치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중국은 콜롬보 회의 호소에 호응하며 쌍방의 직접 회담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분쟁 지역으로 되고 있는 동부 구간의 체동 지역과 롱쥬, 중부 구간의 위제, 서부 구간의 43개 침략 초소가 설치되였던 지역에 인도 군대가 들어오지 않는 조건 하에서 민정 검열소도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을 견지하였다. 중인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중국 정부의 공정하고 성의있는 제안과 노력에도·불구하고 인도 반동 정부의 팽창 정책에 의하여 국경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 하고 있다.

1962년에 중국은 111개의 나라 및 지역들과 경제적 련계를 가졌는데 그중 34개 국가와는 정부간의 경제 및 무역 협정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경 제 1962년에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의 총로선, 대약진, 인민 공사의 세폭의 붉은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조절을 중심으로 하는 《조절, 공고, 충실, 제고》의 방침을 더욱 실현하였으며 농업을 토대로 하며 공업을 주도 력량으로 할 데 대한 인민 경제 발전의 총방침을 관철하였다. 또한 인민 공사의 집단 경리를 가일층 강화하고 농업 생산을 발전시켰으며 공업을 농업의 기술적 개조에 우선 순응시키면서 그의 약한 고리를 보강하고 제품의 품종을 확대하고 질을 제고하였다.

이리하여 1959~1961년 간에 계속된 혹심한 자연 재해와 내외의 원수들의 흉책으로 인한 일시적인 난관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을 전면적으로 호전시켰으며 공업과 농업을 더욱 공고하고 견실한 토대 우에 올려 세워 놓았다.

1962년에는 그전 3년 간에 인민 경제에 조성된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달성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인민 경제 조절 사업과 관련한 열가지 과업을 관철하는 데 력량이 집중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에 인민 경제 각 부문 간의 균형 특히 공업과 농업 간의 관계가 더욱 조절되였으며 새로 건설된 공업 기업소들과 관개 시설이 점차 제 능력을 발휘하게 되였다.

중국에는 자연 부원이 풍부한바 석탄과 철광석의 매장량은 세계 제 2 위, 월프람, 주석, 안티몬을 포함한 일련의 금속 및 비금속의 매장량은 세계 제 1 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유의 매장량은 8억 톤에 달하며 동은 20 개 성, 보키사이트는 10 개 성에서 발견되였다.

양자강, 황하, 송화강, 료하 등에는 수력 자원이 풍부하며 산림 면적은 국토의 7.9%를 차지한다.

【공업】 1962년에 공업에서는 농촌 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중공업 부문이 공고 발전되였다. 특히 농기계 생산용 압연 제품들의 품종이 확대되였으며 배수, 관개 시설, 견인용 농기구 및 그 예비품들의 생산 형편이 개선되였다.

1962년에 중공업과 경공업 간의 관계와 중공업 각 부문들 간의 관계가 개선되였다. 중공업이 경공업에 제공하는 원료 및 연료의 량이 증가되였고 이에 따라 경공업 제품의 생산량과 품종이 현저히 장성되고 전반적으로 제품의 질이 제고되였다.

연료 공업에서는 일련의 큰 탄광들이 건설되여 조업을 개시하였다. 회남 탄광에서는 100만 톤의 생산 능력, 산동 신문 탄광에서는 120만 톤의 생산 능력, 북경 교외 구룡산 탄광에서는 60만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탄갱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이 밖에도 수많은 탄광들이 건설되였으며 새로운 기술로 장비되였다. 석유는 제 2 차 5개년 계획에 예견된 생산 과제를 2년간 앞당겨 완수하였다.

1962년에 60종의 새로운 석유 제품이 생산되여 그 품종은 1957년에 비하여 3 배로 확대되였다. 석유 공업 생산량은 1961년에 비하여 110.8%로 장성되였으며 디젤유는 90% 이상 증가되였다.

1962년에 석유 공업은 농촌 경리를 지원하는 과업을 첫 자리에 내세웠는바 1961년에 비하여 리그로인(잘 얼지 않는 연료의 일종)의 생산이 크게 장성되였다.

특히 뜨락또르용 리그로인의 생산량은 같은 기간에 177.2%, 등유는 179.1%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중국은 인민 경제에 소요되는 거의 모든 석유 제품을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되였다.

흑색 금속 및 기계 제작 공업에서는 주로 농업과 경공업 설비 제작을 위한 50 종의 중요한 품종의 강재를 새로 생산하였다. 1962년에 강재는 도합 2,600여종, 기계의 품종은 1,800 여종에 달하였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 화학 비료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150

%로 장성되였으며 40 여만 톤의 질소 비료와 12만 톤의 린 비료를 포함하여 50 여만 톤의 비료가 국가 계획 외에 더 생산되였다. 그리하여 1962년 11개월 간에 농촌에 공급된 질소 비료는 1961년 1년 간에 비하여 60 여만 톤이나 더 많았다. 화학 비료의 품종이 중국 토양 조건과 농작물의 요구에 맞게 확대되고 품종의 구성이 조절되였다. 특히 초산 암모니아 생산의 비중이 높아졌다. 대련, 남경, 길림, 란주, 태원 및 금서 등 6 대 화학 꼼비나트에서 75 개 대상의 확장 및 신설 공사가 진행되였다. 자체의 설비와 기술로 제 1 계단 공사를 끝낸 대규모의 현대적인 상해 오경 화학 공장을 포함하여 새로 건설되여 조업을 개시한 대규모의 화학 공장은 25 개에 달하였다.

염화 비닐을 비롯한 각종 합성 수지와 기타 경공업 원료로 리용되는 화학 제품 생산이 급격히 증가되였다. 염화 비닐 신발, 합성 세척제, 합성 지방산 및 스프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2~3 배로 장성하였다. 중공업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경공업에서는 공업품을 원료로 하는 소비품 생산액이 1961년에 비하여 30% 증가되였다. 경공업품의 질도 현저히 제고되였는바 면사 및 면직 생산에서 1등품의 비중는 전국적으로 95%에 달하였다.

【농업】 농촌 경리 분야에서는 현 농촌 생산 조건에 맞게 생산대의 집단적 소유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급, 생산 대대급을 포함하는 인민 공사의 3급 소유제가 확립되였으며 로력, 토지, 생산 도구 및 생산량을 고착시키고 초과분을 장려금으로 분배하는 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사회주의 분배 원칙이 철저히 관철되였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생산 열의가 앙양되였으며 농업에 대한 전 당적, 전 인민적 지원 운동이 전개된 결과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였다.

전국 토양 지도, 토지 개량 지도 등이 작성되였으며 서북부 중국에서는 이미 60만 헥터의 염기있는 땅이 개량되였다. 벼, 밀, 면화 등 18종의 농작물에 대한 700 여개의 우량종이 광범히 보급되였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도 진척되였다. 1962년에는 전해에 비하여 더 많은 농기계들과 그 부속품, 농기구들이 더 많이 공급되였다. 전국적으로 뜨락또르 대수는 해방전의 1,200 대로부터 10만 대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1962년에 평년 수준을 넘는 좋은 알곡 수확을 거두었으며 축산업이 발전하였다.

1962년에 주요 축산 지역인 내몽고에서 새끼 가축 두수는 전해에 비하여 100만 두 증가하여 900만 두에 달하였으며 신강, 청해, 광서 등 3 개의 주요 축산 지역들에서도 새끼 가축 두수는 10% 증가되였다. 채소와 과실 생산도 장성되였다.

교육, 문화

해방후 1962년까지 90 여만명의 청년들이 각종 대학을 졸업하였다. 이것은 100년 간 옛 중국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의 4 배 이상에 달한다. 대학생과 중학생들의 수는 해방전 최고 수준에 비하여 5 배 이상, 인민 학교 학생은 3 배 이상으로 증가되였다. 교원 수는 해방전의 수배에 달하는 300만 명에 달한다. 해방후 13 년간 새로 건설된 학교의 총 건평은 5,700만 평방메터에 달하였으며 모든 주요 도시와 성, 자치구에 대학이 설치되였다.

1962년까지 2천 여 개의 현 중 몇개의 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1~2 개의 병원이 설치되였다. 그중 규모가 큰 병원은 200~300 대의 침대를 가지고 있으며 작은 병원도 수십대의 침대를 가지고 있다. 현 병원의 침대수는 1957 년에 비하여 1962년에는 2 배 이상으로, 치료 부문 기술 일'군 수는 80% 증가되였다.

【출판】 **통신**—신화 통신사

주요 신문—인민 일보 (공산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공인 일보 (중화 전국 총공회 기관지), 중국 청년보 (공산주의 청년단 기관지), 광명 일보, 대공보, 해방 군보, 북경 일보

주요 잡지—홍기(중국 공산당 기관 잡지), 중국 청년, 중국 부녀, 문예보, 세계 지식, 신 건설, 인민 문학, 해방군 문예

몽 고

(몽고 인민 공화국)

Бүгд Найрамдах Монгол Ардупс

【면적】 153만 5,000 km²

【인구】 101만 8,800 명(1963년 1월 5일 현재)

【수도】 울란 바또르 (주민 21만 7,800명, 1963년 1월 5일)

정 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이 승리한 후 몽고 인민은 몽고 인민당(현재 인민 혁명당)의 령도 하에 1921년 7월 11일 인민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1924년 11월 26일 몽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 인민 후랄】 대 인민 후랄은 최고 주권 기관이다. 현 대 인민 후랄은 제 5 기이며 1963년 6월 9일에 선거되였다. 대의원 수는 270명이며 그의 임기는 3년이다.

외장 르. 쩬드

상임 위원회 위원장 즈. 쌈부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7월 2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유. 쩨덴발

제 1 부수상 드. 몰롬잠쯔

부수상 느. 쟈그와랄, 드. 마이다르, 뜨. 라그차, 쯔. 뿐짜그노로브, 브. 두게르쑤렌

외무상 므. 두게르쑤렌

인민군상 즈. 르하그와쑤렌

무역상 드. 곰보쟈브

【정당, 사회 단체】 **몽고 인민 혁명당** 1921년 3월 1일에 창건된 몽고 인민당이 1924년 8월에 현재 이름으로 개칭되였다. 당원수 4만 3, 902 명 (1961년 4월 1일)

정치국 위원 즈. 쌈부, 유. 쩨덴발, 르. 쩬드, 쯔. 두게르쑤렌, 드 몰롬잠쯔, 느. 쟈그와랄, 드. 마이다르

후보 위원 브. 르함쑤렌, 느. 룸싼람단

비서들 유. 쩨덴발 (제 1 비서),

르. 쩬드(제 2 비서), 쯔. 두게르쑤렌, 브.르함쑤렌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즈. 밤바도르쥬 **혁명 청년 동맹** 제 1 비서 ㅊ.뿌레브쟈브 **녀성 위원회** 위원장 ㅆ.우드왈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ㅊ.치미드 **몽—조 친선 협회** 1960년 8월 12일 창설, 위원장 ㅁ.잠쓰란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1월 25~27일과 1월 29일에 몽고 인민 혁명당 중앙 위원회 제 2차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에서는 《쏘련 공산당 제 22차 대회의 총화와 몽고 인민 혁명당의 과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회의는 조직 문제를 심의하였다. 9월 10일에 진행된 몽고 인민 혁명당 중앙 위원회 제 3 차 전원 회의는 일련의 조직 사상 사업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월 29~30일에 진행된 대인민 후랄 제 4 기 제 3 차 회의는 1962년도 인민 경제 계획을 토의 채택하였으며 1962년도 국가 예산을 승인하였다.

3월 12~16일에 혁명 청년 동맹 제 14 차 대회, 4월 24~28일에 직맹 제 8 차 대회, 5월 15~18일에 작가 동맹 제 3 차 대회가 각각 진행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1962년 10월 15일 몽고 대인민 후랄 상임 위원회는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1962년 6월 21일부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 서한(문헌 참조)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17일 유엔 17 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몽고 대표는 자기 연설에서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폭로하였으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의 외국 군대의 즉시 철거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2월 몽고 정부 통상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12월 13일에는 우리 나라와 1963년도 통상 협정을 체결하였다.

몽고와 우리 나라 간에 1962년도 문화 협조 계획서(3월 24일),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2차 회의 의정서(6월 22일)가 각각 조인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12월 25~27일 유.제덴발 수상이 중국을 방문하고 12월 26일 북경에서 몽고 중국 간의 국경 조약을 조인하였다.

1월 31일 몽고 대인민 후랄은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폭로 규탄하여 세계 각국 국회들에 보낸 1961년 10월 27일부 월남 민주 공화국 인민 회의 호소문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7일 몽고는 쎄브에 가입하였고 6월 7일 몽고 정부는 고공 핵 시험을 진행할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을 항의 규탄하는 성명을, 10월 25일에는 미제의 반큐바 봉쇄 조치를 반대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몽고 대인민 후랄의 초청에 의하여 7월 7~12일까지 유고슬라비야 국회 대표단이, 9월 24~29일에 인도 국회 대표단이 몽고를 방문하였다.

몽고는 1962년에 아프가니스탄(2월 1일), 쎄일론(2월 1일), 이라크(2월 5일), 파키스탄 (7월 6일), 라오스(9월 12일)와 각각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 제

인민 경제에서 목축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가축은 양, 말, 락타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원유, 철, 금, 은, 동, 망간, 텅그스텐 등이 있다.

최근 년간 목축업의 발전과 함께 농촌 경리 분야에서 밀, 사료 작물 재배를 비롯한 농업 생산이 새로운 부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업 분야에서는 연료, 동력 기지들과 일련의 경공업 공장들이 신설 확장되고 있다.

1961년부터 몽고 인민은 인민 경제 발전 제 3차 5개년 계획(1961~1965년)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 1962년에 가축 증식 계획은 103.5%로 수행되였다. 1961년에 비하여 1962년에 국영 부문의 가축 두수는 31% 증가되였다.

1962년에 농업 협동 조합들은 가축 두수의 77% 이상을 차지하였다. 1962년에 당과 정부는 가축 수매 가격을 2.5배 인상하고 수매 체계를 개선하였다.

가축 두수 (단위 1,000두)

	1960	1961	1962
총 두수	23 000	20 393	20 987
그중 국영	475	514	673
농업 협동 조합	16 969	15 969	16 176

1962년에 농업 발전에서 큰 성과가 달성되였다. 파종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114.8%로, 알곡 생산은 2.6 배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국영 농장은 총 파종 면적의 4분의 3과 1,700 대의 뜨락또르, 1,200 대의 콤바인을 가지고 있었다.

파종 면적과 알곡 수확량

	1960	1961	1962
파종 면적 (1,000ha)	265.5	382.2	439.1
알 곡	234.6	334.6	379.5
알곡 수확량 (1,000t)	256.5	125.7	326.2

【공업】 1962년에 공업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14.2%로 장성된 8억 580만 뚜그리크(1940년 가격)에 달하였다. 그중 국영 공업 생산액은 같은 기간에 114.6%로 장성된 6억 6,950만 뚜그리크였다. 생산 수단 생산은 같은 기간에 15.2%, 소비재 생산은 13.4% 장성되 였다.

1962년에 공업 총생산액에서 생산 수단 생산의 비중은 49.8

%(예비적 자료)였다. 제 3차 5개년 계획의 첫 2년 간에 공업 생산의 장성은 계획에 예견된 34.5%를 초과하여 42%에 달하였다.

1962년에 공업 총 생산액에서 국영은 83%, 협동 단체 공업은 17%를 차지하였다. 최근 년간에 공업은 공업 농업 총생산액에서 약 절반을 차지한다. 1962년에 공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에 비하여 4.2% 장성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단위 1,000톤)

	1940	1960	1961	1962
탄	174.1	618.89	743.2	860
전력(100만kWH)	11.5	106.4	123.3	144.8
형석	—	40.3	38.0	37.8
펠트천(1,000 m)	135.9	295.2	406.6	452.5
모직물(〃)	—	229.1	399.3	418
육류	4.8	12.8	16.4	15.2

【대외 무역】 무역 총액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이 약 99%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무역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출의 약 90%는 축산품이며 주요 수출품은 가축, 양모, 모피, 피혁 등이다. 주요 수입품은 기계, 설비 및 화학 제품들과 일용품이다.

【국가 예산】 화폐 단위는 뚜그리크이다. 예비적 통계에 의하면 1962년도 수입은 13억 뚜그리크, 지출은 12억 7,770만 뚜그리크로 집행되였다. 1962년에 5억 520만 뚜그리크가 인민 경제에, 4억 7,080만 뚜그리크가 사회 문화 시책비로 지출되였다.

교육, 문화 1962~1963 학년도에 보통 교육부문 학교는 434개(그중 인민 학교 310개, 7년제 중학교 78개, 10년제 중학교 46 개) 있었으며 이에는 12만 여 명의 학생들이 망라되였다. 이 밖에 국립 종합 대학을 비롯한 수개의 대학 및 전문 학교, 야간 학교들이 있다.

1962~1963 학년도에 각급 학교 학생 총수는 15만 3,000 여 명에 달하며 인구 6 명당 1 명이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1962년도에 새로 20여 개의 유치원, 16 개의 병원이 건설되였으며 침대수는 전년에 비하여 4.6%, 의사 수는 5.5%, 준의 수는 25.2% 증가하였다.

【출판】 통신—몽고 통신사(몬짜메)

신문—우넨 (몽고 인민 혁명당과 정부 기관지), 허델 머르 (직업 동맹 기관지), 잘로쵸딘 우넨 (혁명 청년 동맹 기관지)

잡지—나린 아미드랄 (인민 혁명당 기관 잡지)

월 남

(월남 민주 공화국)

【면적】 32만 8,000 km² (민주 월남 면적은 15만 7,000km²)

【인구】 1,700만 (1963년 민주 월남 주민)

【수도】 하노이(주민 64만 3,576명, 1960년 3월 1일)

정 치 월남 인민은 1945년 8월 혁명을 수행한 후 9월 2일 독립을 선포하고 월남 민주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월남 인민은 1946년 12월부터 불란서의 침략을 반대하여 1954년 7월까지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다. 1954년 7월에 제네바 정전 협정에 의하여 북위 17도선이 남북 간의 림시 군사 분계선으로 되였다.

1959년 12월 31일 제 11 차 인민 회의는 제 2 차 인민 회의에서 채택되였던 헌법을 변동된 정세에 부합되게 수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인민 회의】 최고 주권 기관이다. 임기는 3년이며 대의원수는 362명이다. 현 인민 회의는 제 2 기로서 1960년 5월 8일에 선거되였다.

상임 위원회 위원장 장 정

【주석】 호 지명

부주석 손 덕승

【정부】 현 정부는 1960년 7월 15일에 구성된 후 1963년 1월 7일 일부 개조되였다.

수상 범 문동

부수상 범 웅, 반 계수, 무 원갑, 려 청의, 원 유정

외교 부장 춘 수

국방 부장 무 원갑

내무 부장 반 계수

대외 무역 부장 반 영

통일 위원회 주임 원 문영

국가 계획 위원회 주임 원 유정

【정당, 사회 단체】 **월남 로동당** 1951년 2월 3일에 창건되였다. 전신은 1930년 1월 6일에 창건된 인도지나 공산당이다. 당원수 50만 명 (1960년)

주석 호 지명 제 1 서기 려 순

정치국 위원 호 지명, 려 순, 장 정, 범 문동, 범 웅, 무 원갑, 려 덕수, 원 지청, 원 유정, 려 청의, 황 문환

정치국 후보 위원 진 국배, 문 진용

서기 려 순, 범 웅, 원 지청, 려 덕수, 황 영, 소 우, 려 문량

민주당 총비서 엄 춘암 **사회당** 총비서 원 천 **조국 전선** 명예 의장 호 지명, 의장 손 덕승 **직업 총련맹** 주석 황 국월 **로동 청년단** 제 1비서 원 람 **청년 련맹** 위원장 범 옥석 **녀성 동맹** 위원장 원 씨심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려 정탐 **월남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 손 광벌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인민 회의 제 2 기 제 4 차 회의는 1962년도 국가 계획 및 예산안, 남부 월남 사태에 관한 문제 및 기타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남부 월남 사태와 관-

편하여 세계 각국 국회들에 보낸 월남 민주 공화국 인민 회의 제 2 기 제 3 차 회의(1961년 10월 27일) 호소문에 대한 회답들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6월 중순에 진행된 월남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7 차 확대 전원 회의는 북부 월남에서의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방향 및 과업과 구체적인 조치들을 토의하고 사회주의의 물질 기술적 토대 축성의 제 1 단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들과 제 1 차 5개년 계획에서의 공업 발전을 위한 과업들을 규정하였다.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는 나라의 통일과 인도지나의 평화를 위하여, 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정부(2월 8일)와 인민 회의 제 2 기 제 4 차 회의 (4월 26일)는 남부 월남에서의 《미 군사 원조 사령부》의 조작을 규탄하고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무력 침략 행동을 종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1954년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국들과 유관 국가들에 요청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6월 4일에는 월남 민주 공화국이 남부 월남에 대하여 침략과 파괴 행동을 하고 있는 듯이 날조한 월남 국제 감시 및 관리 위원회의 인도, 카나다 대표들의 《특별 보고》(1954년 제네바 회의 의장들에게 보내기 위하여 작성)를 배격 규탄하여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남부 월남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을 반대 항의하여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노이시에서만도 310차의 군중 대회와 시위 및 회합들이 진행되였으며 여기에는 도합 50만 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300 여통의 항의문과 결의문들을 채택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민주 월남 정부는 남조선에서의 미군의 철거와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7월 16일 인민 회의의 상임 위원회 회의는 세계 각국 국회들에 보낸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차 회의의 서한과 그 관계 문건들을 토의하고 이 서한을 지지하는 회답 서한을 채택하였으며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인민 회의 제 2 기 제 5 차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11차 회의의 조국 통일 방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김 일성 수상이 범 문동 수상에게 보낸 선물 전달식이 2월 9일 하노이에서 진행되였다.

4월 21일 민주 월남 농업부는 김 일성 수상이 선물로 보낸 뜨락또르와 자동차들로 4 개의 월남—조선 친선 뜨락또르 작업반들을 조직하였다.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이 월남을 방문하고 12월 6일 우리 나라와 월남 간의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과 1963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9월 25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는 미국의 《유—2》 간첩 비행기의 중국 령공 침범에 항의한 중국 정부의 9월 14일부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인민을 반대하는 도발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으며 중인 국경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립장을 지지하였다.

9월 24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는 미제가 쿠바를 다시금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3월 12일 월남 민주 공화국과 몽고 간에 친선 및 협조 조약이 체결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월남 민주 공화국은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미제와 국내 반동을 반대하는 라오스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5월 18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는 미군의 타이 상륙이 라오스와 동남 아세아 전역에서 정세를 격화시키기 위한 란폭한 도발 행위로 된다고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 수상 수반나 푸마가 월남을 방문하였으며 12월 4일부터 6일까지 푸미 노사방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 대표단이 월남을 방문하였다. 수반나 푸마 정부의 요청으로 라오스에 파견되였던 월남의 군사 인원들은 제네바 협정에 규정된 날자인 1962년 10월 7일 전으로 완전히 라오스에서 철거하였다.

9월 7일 월남 민주 공화국과 라오스 간에 대사급에서 외교 관계가 설정되였다.

7월 4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는 해방 전에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제로 태평양의 섬들에 끌려간 월남인들의 송환 사업을 재개 (송환 문제에 관한 협정은 1960년 6월에 체결되였으나 불란서의 불성의로 불과 1,500명만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하노이 주재 불란서 정부 대표에게 수교하였다.

12월에는 인도지나 전쟁 기간에 타이로 피난갔던 월남 공민 3만 6천 명을 송환할 데 관한 협정을 타이와 체결하였다(1959년 8월에 체결된 월남인들의 송환 문제에 관한 협정 기한은 1962년 6월 말에 만료되였다).

경 제 월남은 석탄, 철, 주석, 망간, 텅그스텐, 금, 아연, 린산염등 지하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이나라의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고무, 사탕수수, 야자, 호추, 커피등이다. 산림 면적은 토지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월남 민주 공화국에서 제1 차 5개년 계획(1961~1965)의 두번째 해인 1962년에는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시하며 인민 경제의 각 부문들 특히 공업과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데 노력이 경주되였다.

1962년에 국영 경제는 모든 부문 (농업 제외)에서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농가 호수의 87.7%와 파종 면적의 79.3%가 협동 조합들에 망라되었다. 새로운 생산 관계와 경제의 물질 기술적 토대의 점차적 축성에 기초하여 1958~1962년 간의 공업 및 농업 생산액은 매년 평균 10% 이상 증대되였다.

1962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액은 7억 1,000만동에 달하였다. 그중 85.3%가 생산 부문에 투자되였다. 공업 투자액의 89.8%는 생산 수단 생산 부문에 돌려졌다.

【공업】 1962년에 공업 총생산액은 1961년에 비하여 23.2% 증가되였다. 1962년에 공업은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에서 46.7%를 차지하였으며 공업 생산액에서 생산 수단 생산은 37%를 차지하였다.

1962년에는 1961년에 비하여 국영 중앙 공업은 130.2%, 국영 지방 공업은 129.5%, 공사 합영 공업은 120.7%, 수공업은 113%로, 각각 증가되였다. 1962년에 국영 공업은 공업 총생산액의 59.4%, 수공업은 36%(1961년에는 39%)를 차지하였다. 1962년에 기계 제작 공업 총생산액은 1955년에 비하여 25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다른 공업 부문들의 부속 시설 수요의 38%를 충족시켰다. 1962년에 전년에 비하여 흑색 금속은 536.8%, 유색 금속은 108.2%, 화학 공업은 152.6%, 전재는 103%, 식료품은 128.3%로 각각 장성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단위=1,000톤)

	1960	1961	1962
전력(100만 kWH)	256.1	276	338.3
석탄	2 595	2 811.4	3 314.6
세멘트	408	452.6	453.9
린회석	490	576.7	655.7
광물질 비료	51	47.1	109
면직물 (100만m)	76	93.2	57.2*

주; *표는 국영 기업소의 생산량.

1962년에 국영 중앙 공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에 비하여 13.1% 제고되였고 제품의 원가는 7.1% 저하되였다.

【농업】 1962년에 혹심한 자연 재해에도 불구하고 농업 총생산액은 1961년에 비하여 105.5%로 장성하였으며 알곡 총생산량은 570만톤, 그중 벼는 456만 6천 톤에 달하였다.

1958~1962년 간에 농업 생산액은 년 평균 5.3%, 그중 벼는 2.9%, 잡곡은 13%, 공예 작물은 7.3% 증가하였다.

1962년 말에 민주 월남에는 총 농가 호수의 87.7%를 망라한 2만 9,824 개의 농업 협동 조합이 있었다. 그중 농호의 36.9%가 높은 형태의 조합에 망라되였다. 이 해에 국영 농장은 58개 있었으며 토지 면적은 20만 헥타였다.

1962년에 경지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102.5%로 확장되였으며 파종 면적은 320만 1,900 헥타(그중 벼 파종 면적은 241만 3,000 헥타)에 달하였다. 1962년에 관개 면적은 213만 3,000 헥타로 확장되였다. 논의 몽리 면적은 180만 헥타 이상에 달하였다.

1962년에 관개 공사를 위한 국가 투자는 1961년에 비하여 127.3%로 증가하였으며 농업 협동 조합들에 대한 국가의 화학 비료 공급량은 34.2% 증가하였다.

1962년에 대가 가축은 225만 8,000두, 돼지는 423만 9,000 두, 가금은 4,352만 수 있었다.

【대외 무역】 수출품은 쌀, 차, 커피, 주석, 린회석, 수공업품 및 수예품 등이며 수입품은 주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설비, 기계 및 원료 등이다. 1962년에 84개국과 무역 관계를 가지였는데 주요 대상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라오스, 캄보쟈,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이다.

1962년에 대외 무역 총액은 전년에 비하여 10% 증가하였다.

교육, 문화 1962~1963학년도에 학생 총수는 260만명에 달하였다. 그중 초중 학생수는(5~7학년생) 46만명, 고중 학생수(8~10 학년생)는 5만 2,000명, 고등 교육 기관 (11개) 학생수는 2만 5,700명이다. 인구 1만명당 대학생 수는 15명, 전문학교 학생 수는 30명, 중학 및 야간 학교 학생수는 2,400 명이다.

1962년에 기능 및 기술자수는 1958년에 비하여 10배, 중등 기술자수는 17배, 고등 교육을 받은 기술 간부는 12배로 장성하였다.

1962년에 군중 체육 운동에는 400만명의 근로자들과 학생, 청년들이 망라되여 있다.

【출판】 1962년에 7,100만 부의 신문 잡지와 2,780만 부의 도서가 출판되였다.

통신—월남 통신

신문—인민(월남 로동당 기관지), 구국(월남 조국 전선 기관지), 독립(월남 민주당 기관지), 조국(월남 사회당 기관지), 로동(월남 직업 총련맹 기관지), 인민군(월남 인민군 기관지)

잡지—학습(월남 로동당 기관 잡지)

남부 월남

1962년에 남부 월남에서는 《8개월 이내에 남부 월남을 평정》하겠다고 호언 장담한 미제의 악명 높은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이 여지 없이 파탄되고 반면에 미제와 괴뢰 도당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애국 투쟁이 남부 월남 전역에 확대되였다.

1962년 하반년부터 실천에 옮겨진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은 1962년 말까지 남부 월남의 애국 운동을 말살할 것을 예견하였다.

이《계획》은 주민들을 집결시키기 위하여 《전략촌》을 설치하며 애국 력량을 소멸하기 위하여 군사 행동을 강화한다는 2개의 주요 부문으로 구성되여 있다. 이 침략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제는 1962년 2월 8일 사이공에 하킨스를 두목으로 하는 사이공 주둔 《미 군사 원조 사령부》를 설치하고 3천명의 미 군사 고문, 1만 2천명의 미군(륙군 4,500명, 해군

및 해군 륙전대 1,500명, 공군 6천명), 13명의 미국 장군, 1,200명의 장개석 패잔병과 각종 현대적 무기(그중 370여대의 각종 비행기 포함)와 막대한 량의 군사 장비를 투입하여 《선전 포고 없는》 침략 전쟁을 직접 감행하였다.

미제는 1962년 말 현재 디엠 도당의 무력을 40 만명(정규군 20만 5,000명, 민병대 10만명, 보안대 8만 5,000명 포함)으로 증강하고 군사 기지 건설을 발광적으로 진행하였다. 1962년 5월 현재 남부 월남 각지에는 96개소의 군사 기지가 건설되였다.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 미 합동 참모 본부 의장 렘니쩌 등을 비롯하여 1962년에 37 개의 미 군사 사절단이 남부 월남에 기여들어 파탄되는 침략 계획을 수습하며 전쟁을 확대하기에 광분하였다. 미제는 침략 전쟁을 위하여 매일 150만 딸라를 탕진하였다.

미제와 느고 딘 디엠 도당은 1962년에 38만명의 군대, 500대의 각종 비행기, 소형 군함과 수륙 량용 땅크, 각종 《신형 무기》등을 동원하여 인민 무장대에 대한 20여차의 대규모 작전을 감행하였으며 미국 비행기들은 5만회에 걸쳐 남부 월남 인민을 반대하여 출동하였다.

특히 3월부터는 《90일 공격 전투》를 벌려 놓고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까지 파견하여 《살초제 작전》, 《근거지 소탕 작전》 등의 인민 학살 만행을 지휘케 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와 괴뢰 도당은 1962년에만도 1천여차에 걸쳐 애국 력량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감행하였다. 1963년 1월 10일 하킨스가 발표한 바에 의하여도 미제와 느고 딘 디엠 도당은 1962년에 3만명의 인민을 학살하였고 1만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그리하여 1954년 이래 1962년까지 14만명의 애국자들이 학살되였으며 100만명의 인민들이 체포되였다(그중 65만명이 악형으로 불구자가 되였다). 지어 6천 여명의 아동들까지 체포 구금하였다.

미제와 느고 딘 디엠 도당은 주민들과 애국 력량을 격리시켜 그들을 손쉽게 소멸하여 보려고 《전략촌》 건설을 발광적으로 추진시켰다.

1962년 4월 남부 월남 《국민의회》는 《전략촌》 건설을 《국책》으로 결정하고 1962년 중으로 1만 7,116 개 촌 중 1만 6,332개의 촌에 《전략촌》을 건설하여 100만명의 주민을 수용할 것을 획책하였다. 괴뢰 도당은 느고 딘 누(느고 딘 디엠의 동생)를 두목으로 하는 《전략촌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중부와 남부에는 《전략촌 시찰 위원회》를 창설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제는 별도로 미국 대사관, 《남부 월남 사절단》과 《군사 원조 고문단》의 대표들로써 《전략촌 특별 위원회》를 조작하였으며 《전략촌》 건설을 위하여 1962년에 5,000만 딸라의 《원조》를 느고 딘 디엠 당국에 제공하였다. 이리하여 미제와 느고 딘 디엠 도당은 70만명의 주민들을 《전략촌》에 몰아 넣었다. 지어 미제는 남부 월남 인민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유독성 화학 물질까지 사용하는 살인귀적 만행을 감행하였는바 1962 년 말까지 미제와 괴뢰 도당의 공군은 근 50차에 걸쳐 이를 살포하였다.

그러나 남부 월남 인민들은 민족 해방 전선의 령도 하에 산악 지대와 농촌, 그리고 도시에서 완강한 무장 투쟁과 정치 투쟁을 전개하여 미제와 느고 딘 디엠 도당의 침략 계획을 파탄시키고 그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62년에 인민 무장대는 5만 165명의 미제 침략군과 괴뢰군을 죽였으며 5,064명의 적병을 포로하고 61 대의 직승기와 추격기를 격추하였으며 각종 비행기 100여대를 격상하고 1만여 점의 각종 무기를 로획하였다. 그리하여 적들의 군사 작전은 파탄되였다.

특히 《전략촌》 설치 계획을 파탄시키는 투쟁은 남부 월남 애국 운동에서 최고로 되는 그리고 다방면적인 의의를 가지는 투쟁이였다.

남부 월남의 애국 력량은 미제와 괴뢰 도당이 설치한 3천개의 《전략촌》 중 1,600개를 파괴하였으며 파괴된 《전략촌》을 복구하면 이를 다시 파괴하는 반복적인 투쟁을 치렬하게 전개하였다. 이리하여 1만 7,162개의 농촌 중 1962년 말 현재 1만 3,424개 농촌을 해방(4,441개 농촌은 완전 해방)시켰으며 수 많은 《전략촌》들을 애국 투쟁의 거점으로 전변시켰다.

약 70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해방 지역에서는 민주 개혁이 실시되였으며 인민들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서는 일대 전변이 일어나고 있다. 농민들은 1962년까지 미제와 괴뢰 도당에게 빼앗겼던 65만 헥타의 토지를 찾았으며 10만 1,275 헥타의 토지를 개간하였다. 농민들이 납부하는 소작료는 년 수확고의 8~20%로 감소되였다. 해방 지역에는 매개 부락에 진료소가 설치되였으며 각지에 설치된 수 많은 문맹 퇴치반과 중소 학교들에서는 50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40종의 신문과 17종의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미제와 느고 딘 디엠 도당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농촌과 산간 지대로부터 도시로, 원쑤들의 중심지로 확대되였으며 투쟁 규모도 1961년에 비하여 더욱 커졌다.

1962년 첫 9개월 간에만도 연 250여 만명이 농촌으로부터 도시에 밀려 들어 미제와 느고 딘 디엠과 정면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600만 명이 미제의 《전략촌》 건설을 반대하는 군중적 운동에 참가하였다. 35만 명의 로동자, 도시 근로자들이 생활 처지의 개선과 민주주의적 권리를 요구하여 투쟁하였으며 3만 2천명의 학생(남부 월남의 대학생, 중학생 총수의 4분의 1)들이 미제와 느고 딘 디엠을 반대하는 정치 투쟁 대렬에 들어섰다. 민족 자본가들은 미제의 《원조》와 느고 딘 디엠 일가의 경제적 독점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승려들과 불교도들은 디엠 도당의 《종교 차별 정책》을 반대

하며 신앙의 자유를 요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괴뢰군 병사들과 괴뢰 정권내 관리들 속에서까지도 미제와 느고 딘 디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부단히 높아졌는바 2월 27일에는 괴뢰군 비행기들이 느고 딘 디엠의 관저를 폭격하며 기총 소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62년에는 3만 6천 명의 느고 딘 디엠 도당의 장교, 병사들이 인민 무장대에 들어왔거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1962년 말까지 애국 운동을 말살하겠다던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은 완전히 파탄되고 미제와 괴뢰 도당은 헤여날 수 없는 위기에 빠져 들어갔다.

1962년 7월 20일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은 남부 월남 문제 해결을 위한 4개 조항의 제안을 내놓았다.

제안에서 민족 해방 전선은 미국 정부가 남부 월남에서 무장 침략 정책과 무장 침략 행위를 중지하고 미 《군사 원조 사령부》를 해체하며 미국과 그 추종국 및 동맹국들의 일체 군대, 군사 인원들과 전쟁 물자를 철수할 것과 남부 월남에 대한 모든 유관측들은 남부 월남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정신에 따라 남부 월남 전 지역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회복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남부 월남의 모든 정당, 각계 각층 대표들로 구성되는 민족 통일 정부를 수립하며 남부 월남은 평화와 중립적인 대외 정책을 실시할 것 등을 제기하였다.

정 치 **【괴뢰 정부】** 대통령 겸 국방상 느고 딘 디엠, 외무상 부 반마우(정부의 불교 정책에 항의하여 1963년 8월 22일 사임)

【정당, 사회 단체】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1960년 12월 20일에 창설되였다. 미제와 느고 딘 디엠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와 인민 탄압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부 월남의 애국적 력량을 총집결한 광범한 반미 구국 투쟁 통일 전선체이며 남부 월남의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하고 있다. 전선은 23개의 정당 및 사회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전선 및 그 산하 단체들은 9개의 국제 기구에 가입하고 있다. 위원장 원우수 **인민 혁명당** 1961년 초에 창설된 남부 월남에서의 최초의 맑스-레닌주의 정당이다. **국가 혁명 운동당** 1954년 10월에 성립된 친미 반동 정당이다. 위원장 범 문유 **급진 사회당** 1961년 7월에 창설된 애국적 인테리를 망라한 정당이다. **사회당, 사회 민주당, 공화당, 대월당, 민주 집단.**

경제, 사회 남부 월남의 경제는 미제의 무력 간섭으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파괴되였다. 1962년에 미제는 2억 딸라에 달하는 경제 《원조》를 통하여 남부 월남 경제에 대한 지배를 더욱 강화하였다.

열대 지방에 속하는 남부 월남은 산림과 기타 자원이 풍부하며 생산 조건도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미국 잉여 농산물의 투매, 미제의 군사 기지화 정책, 《전략촌》의 설치등으로 기본 경제 부문인 농업 생산은 위기에 처하여 있다.

경지 면적은 1945년의 325만 9,658 헥타로부터 1962년에는 250만 헥타로 축소되였다. 주요 농작물인 벼와 고무의 생산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1961~1962년에 알곡 생산량은 전년도에 비하여 10%, 그중 벼 생산량은 17% 감소되였다. 1962년에 고무 생산량도 전년에 비하여 20% 감소되였다. 같은 기간에 사탕수수는 4 분의 1로, 담배는 3분의 1로 각각 그 생산량이 감소되였으며 물소 총두수는 6.7%, 돼지는 10.8%, 양은 10%, 닭은 32.4% 감소되였다.

원래 락후하던 민족 공업은 미제의 잉여 상품 투매 정책과 미국 독점 자본의 침투로 더욱 혹심하게 파괴되였다.

민족 공업의 주요 부문인 제당 공업과 방직업 중 3분의 2는 이미 휴업하고 있다. 다만 느고 딘 디엠 일가가 투자(실제상 미국 자본)한 일련의 기업소들과 외국 자본과 남부 월남 관료 자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련의 기업소들만이 유지되고 있다. 무역과 재정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주요 수출품이던 쌀은 오히려 1962년에 10만톤 수입하였으며 1962년 상반년 고무 수출은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12.4%나 감소되였다.

예산의 90%가 군사비에 지출되고 있으며 1961년 12월부터 1962년 6월까지의 화폐 발행고는 10% 증가되였다. 화폐 가치는 계속 저하되였는바 딸라에 대한 피아스터의 환률은 1961년의 1대 90으로부터 1962년에는 1대 102로 되였다(공식 환률은 1딸라 대 35 피아스터). 세금 징수액은 1961년의 98억 피아스터로부터 1962년에는 105억 피아스터로 증가되였다.

200만의 학령 아동이 취학하지 못 하고 있으며 150만명 이상의 실업자가 거리를 헤매고 있다.

생계비는 부단히 폭등하고 있으며 도매 물가는 매년 12%의 비률로 올라가고 있다. 농민들은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치의 20~30% 밖에 차지하지 못 하고 있으며 기아와 보건 설비의 불비로 그들의 평균 수명은 25~30세에 불과하다. 매년 페병으로 죽는 사람만도 6만명에 달한다.

라 오 스

(라오스 왕국)

Royaume du Laos

【면적】 23만 6,800 km^2

【인구】 300만명(1961년)

【수도】 비엔티안(주민 11만명)

정 치 **【국왕】** 사방 바타나(1959년 11월 즉위)

【국회】 왕실 의회(의원 12명)와 국민 의회(의원 59명)의 량원제이다. 임기는 각각 5년이다.

【내각】 1962년 6월 11일 민족

통일 정부(련립 정부)가 수립되였다.

련립 정부는 12명의 상과 7명의 국무상으로 구성되는데 애국당 4명, 중립파 7명, 우익 4명, 사반나케트 집단의 지지를 받는 소위 비엔티안 중립주의자 4명이다.

수상 겸 국방상, 재향 군인상, 사회 문제상 수반나 푸마(중립파), 부수상 겸 경제 및 계획상 수파누봉(애국당), 부수상 겸 재정상 푸미 노사방(우익), 외상 퀴님 폴세나 (1963년 4월 1일 국내 반동에 의하여 피살).

【정당, 사회 단체】 애국당 파테트 라오 전투 부대 성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진보적 정당으로서 1956년 1월 16일에 정식 창건되였으며 1957년 11월에 합법적 정당으로 되였다. 위원장 수파누봉, 총비서 푸미 봉비치트 라오스 련합당 1958년에 자본가, 지주, 이전 정부 관리, 장교 및 일부 인테리들로 구성되였다. 위원장 수반나 푸마 평화, 중립, 민족적 화목 및 통일 옹호 위원회 1960년 10월 31일 애국당, 평화 및 중립 정책 옹호 위원회, 쿠데타 위원회, 청년 단체, 애국적 국회 의원, 현 정부의 주요 관리, 각 민족, 각 계층, 승려 및 왕족의 대표들로 창설되였다. 명예 위원장 수반나 푸마, 수파누봉, 위원장 펜 퐁사반 평화 및 중립 정책 옹호 위원회 위원장 퀴님 폴세나(1963년 4월 1일 반동들에 의하여 피살) 인민 사회당 극단적 친미 분자들과 군벌들로 조직된 《라오스 민족 리익 옹호 위원회》에 기초하여 1960년 4월에 조직, 지도자 푸미 노사방

【주요 사건】 1962년 6월 11일 라오스 세 관계측 지도자들의 협의의 결과 림시 련립 정부가 구성되였다.

림시 련립 정부 구성 문제는 1961년 10월 힌 호프 회담에서 합의를 보았으나 미제와 노사방 도당의 방해 책동으로 지연되여 왔었다.

민족 통일 정부는 6월 23일 정부 정강을 발표하고 통일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 정강에 의하면 림시 민족 통일 정부는 대내적으로 라오스 왕국의 독립, 통일, 중립, 자주권 및 령토 완정을 견결히 수호하며 인민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며 1957년 국민 의회에서 비준된 공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법령과 선거법을 회복하며 인민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평화적 공존의 5개 원칙을 견지하며 평등과 라오스의 독립 및 자주권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 우선 린방과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키며 어떤 군사 동맹이나 쁠럭에도 참가하지 않으며 라오스 령토 내에 어떤 외국의 군사 기지 설치도 허용하지 않으며 세아토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한편 1961년 12월 이래 휴회했던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 회의가 1962년 7월 2일 제네비에서 재개되였다.

7월 23일 회의는 라오스의 중립에 관한 선언과 그 부속 의정서에 조인하고 페막하였다 (1962년판 조선 중앙 년감 참조).

6월 24일 라오스 전역에 정화가 선포되였으며 7월 4일에는 정화와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며 군사적 및 행정적 통합 문제들을 연구할 합동 정화 위원회, 군대 통합 위원회, 행정 기구 통합 위원회가 설치되였다.

8월 27일 정부는 성, 중앙급 기관들을 정식으로 인수함으로써 중앙급에서의 통합이 이룩되였다.

9월 21일 라오스 행정 기구 통합 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정치범들을 9월 25일부터 15일 이내에 석방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11월 27일 라오스 정부는 총병력 3만명 (각 파에서 1만명씩 제공)으로 구성되는 통일된 민족군의 편성과 각파에서 동일하게 제공되는 6,000명의 국가 경찰의 구성과 1,200명의 비엔티안 경찰을 조직할 데 대한 일반적 합의를 보았다.

이밖에 세 관계측 간의 국가 화페의 통일과 통일적인 재정 예산의 작성, 상품 수송과 려객의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비엔티안과 히엥 쾅 간의 민용 항공로의 복구 등에 관한 문제들에서 초보적인 합의가 달성되였다.

대외적으로 라오스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불가리아, 루마니야, 민주 독일 등 일련의 사회주의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라오스 인민의 압력에 못 이겨 12월 세노 군사 기지를 라오스에 이양하는 데 동의하였다.

수반나 푸마 수상은 1962년 7월부터 8월까지 미국, 불란서, 일본을 려방하였으며 6월에 콩 레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군사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쏘련, 몽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11월부터 12월에 걸쳐 푸미 노사방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왕국 정부 대표단이 쏘련, 중국, 민주 월남 등을 방문하고 각각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라오스 왕국 대표단과 중국 간에 발표된 공동 콤뮤니케에 의하면 《중국 측은 라오스 측의 요청으로 라오스 왕국에 일정한 공업 건설을 위한 장기 차관을 제공하며 기술 및 설비를 공급하는 데 동의하였다.》

중국은 라오스의 요청에 의하여 라오스에 주는 무상 원조로서 중국 운남성 국경에서 라오스의 퐁 살리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하여 주었다.

수반나 푸마 정부의 요청으로 라오스에 파견되였던 민주 월남의 군사 인원들은 제네바 협정에 규정된 날자인 1962년 10월 7일 전으로 완전히 라오스에서 철거

하였다.

미제는 1962년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면서 라오스에 대한 침략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1962년 10월 7일까지 자기의 모든 군사 인원들을 라오스로부터 철수시키게 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계속 끌어 들였다.

애국 력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62년 12월 현재 900 여명의 미 군사 인원들과 7천 여명의 타이, 일본, 비률빈, 남부 월남, 장 개석 잔당 등 추종 국가 군대들이 라오스에 남아 있었다.

미제는 사반나케트 도당 군대를 정화후 2만 여명으로부터 불과 몇개월 동안에 6만 3천명으로 증강하고 사반나케트 도당의 장교 1천명과 특공대 수천명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타이 및 기타 지역에 있는 미 군사 기지로 파견하였다.

미제와 사반나케트 집단의 군대들은 부단히 애국 력량에 대한 도발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미 군용기는 8월에 57차, 9월에 23차에 걸쳐 애국 력량 관할 하의 지역을 침범하였다.

또한 미제는 애국 력량을 반대하여 나서도록 중립파 내 일부 불견실한 자들을 적극 추동하였다.

사반나케트 도당은 련립 정부 수립후 약 반년 동안에 44차나 해방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라오스에서 미제와 사반나케트 도당의 책략으로 의연히 긴장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경 제 라오스는 봉건적 관계가 지배적인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민의 약 95%는 농업에, 약 2%는 공업에 종사한다.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 주로 불란서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발전소, 제재소, 주석 채굴, 정미소의 대부분).

주석, 연, 동, 금, 은, 철, 망간, 무연탄, 보석 등 지하 자원과 산림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이 자원들은 아직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철도는 없으며 신작로의 총연장은 약 3,800키로메터에 불과한데 우기에는 그 절반 이상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토지는 지주 및 관료배들에게 장악되여 있으며 주요 농작물은 벼이다.

벼의 재배 면적은 75만 헥타로서 전 경지 면적의 95%를 차지한다. 벼의 년 생산량은 약 50만톤인바 식량은 자급 자족 못하여 매년 약 2 만톤의 쌀을 수입한다. 이외에 옥수수 (1만 5,000~2만톤), 면화(800톤), 담배 (1,000톤), 커피 (200~300톤), 아편 (100톤), 고무 등이 생산된다. (괄호내 수'자는 년 생산량)

가축으로는 1958년에 물소 50만 두, 황소 30만 두, 돼지 70만 두 있었다.

공업은 대부분이 락후한 수공업에 기초하고 있다. 비엔티안과 사반나케트 등 비교적 큰 도시에 소형 발전소가 있으며 제재소, 정미소, 제빙 공장, 선박 수리 공장 그리고 약간의 합판 공장, 세멘트 공장 등이 있을 뿐이다.

국가 재정 예산은 매년 거액의 적자를 내고 있는바 외국의 《원조》 특히 세출의 60%를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보충하고 있다. 1954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에서는 3억 5천만 딸라, 불란서에서는 1955년~1960 년 8월까지 28억 프랑의 《원조》를 받았다.

대외 무역은 주로 불란서,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석, 담배, 커피, 피혁, 면화, 고무 등을 수출한다. 최근 년간 라오스의 무역에서는 불란서의 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미국의 비중이 커가고 있다.

주민의 95%는 문맹자이다. 1960년 이전에는 초등 학교까지 합하여 전국에 74 개의 교육 기관이 있었다.

【출판】 통신—라오 프레스

신문—라오 하크사트 (애국당 기관지), 로드 오브 뉴트랄리티 (중립파 계통), 라오 데일리 뉴스 (사반나케트 계통)

캄 보 쟈

(캄보쟈 왕국)

Royaume du Cambodge

【면적】 18만 1,000 km²

【인구】 574만 9,000 명 (1962년 8월)

【수도】 프놈 펜(주민 40만 3,500명)

정 치 【의회】 왕실 의회 (상원)와 국민 의회(하원)로 구성된 량원제이다. 국민 의회의 임기는 4년이며 의원수는 77명이다. 왕실 의회 의원 수는 24명이다.

【국가 원수】 노로돔 시하누크

【정부】 현 내각은 1962년 10월 6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겸 내상 노로돔 칸톨, 외상 휏트 삼바트, 국방상 론 놀

【정당, 사회 단체】 인민 사회 동맹 (집권당) 1955년 3월에 성립. 왕족들과 대상인, 일부 인테리들로 구성되여 있다. 위원장 노로돔 시하누크 민주당, 자유당

【주요 사건】 1962년 6월 10일 캄보쟈 국민 의회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다른 정당과의 경쟁 없이 단독적으로 출마한 인민 사회 동맹원들이 90% 이상의 지지표를 획득함으로써 국회 전 의석을 독점하였다.

시하누크는 1962년 6월 20일 새 국민 의회에서 한 연설에서 《1963년도 국가 예산 세출의 증대가 불가피하며 또한 남부 월남과 타이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바 새 의회는 이 두가지 곤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언급하고 수상 취임을 사퇴하였다.

그후 내각은 과도 정부 형식으로 존속되다가 10월 6일 노로돔 칸톨을 수반으로 하는 새 내각이 조직되였다. 노로돔 칸톨은 10월 6일 자기 정책 선언에서 캄보쟈는 계속 중립을 견지하며 캄보쟈를 소멸하려는 적대 세력의 기도에 경각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62년에 미제는 타이와 남부

월남을 리용하여 캄보쟈의 중립을 파괴하고 그를 침략적 세아토에 끌어 넣으려고 캄보쟈에 대한 각종 적대 행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1962년 1~8월 간에만도 미제와 타이 및 남부 월남 군용기들이 191 회(그중 타이 비행기 81 회)나 캄보쟈 령공을 침범하였으며 8월 15일에는 미 군사 고문 10 명의 지휘 하에 타이군 400 여명이 캄보쟈의 령토를 불법 침범하였다. 이러한 침략 행위와 관련하여 8월 17일 시하누크는 캄보쟈의 중립과 령토 완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보증하여 줄 것을 제네바 회의 (1962년 7월) 참가국들에 요청하고 이러한 목적을 가진 국제 회의 소집을 제의하였다.

1962년 3월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및 경제 대표단이 캄보쟈를 방문하였으며 3월 30일 량국 간에는 총령사관을 호상 교환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동년 7월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프놈 펜에 설치되였다.

1962년에 캄보쟈는 알바니야(9월), 큐바(10월)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에서 외국 자본은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바 1960년에 외국 투자액은 39억 5, 100만 리엘이였다. 불란서 자본은 고무 생산의 약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

토지 리용률은 매우 낮다. 가경지는 220만 헥타에 달하고 있으나 경지 면적은 약 150만 헥타이다. 그중 벼 재배 면적이 약 80%를 차지한다. 주요 농작물은 벼, 고무, 호쁘, 옥수수 등이며 어업, 림업 및 축산업도 경제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62~1963년도 벼 생산량은 170 만 톤(평가)이며 년 평균 고무 생산량은 3만 톤, 어획고는 13만~15 만 톤에 달한다.

1961년에 소는 120 만 6,000두, 돼지는 23 만두, 가금은 280만 수 있었다.

공업은 매우 락후하며 수공업의 령역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캄보쟈에는 2,059개소 (1961년)의 수공업적인 중소 기업소가 있는데 대부분은 농산물 가공 공장, 목재 공장, 정미소, 도자기 공장 등이다. 이외에 중국, 체코슬로바키야의 원조에 의하여 건설된 제지 공장, 방직 공장, 합판 공장, 화력 발전소 등이 있다.

대외 무역은 계속 수입 과를 내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 목재, 축산물이다. 1962년에 쌀(30만톤)과 고무(4만톤) 등의 수출액은 총수출액의 약 70%를 차지하였다.

주민의 대다수가 불교도이며 50% 이상은 문맹자이다.

【출판】 통신—캄보쟈 보도사

신문—네아크 체아토 니움(정부계), 라데페쉬 두 캄보제 캄보쟈(공보성 기관지)

일 본

【면적】 36만 9,635 km²

【인구】 9,530만 명 (1962년 12월)

【수도】 도꾜 (주민 1,035만 1,008명, 1963년 5월 1일)

정 치 일본은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한 후 미제의 점령 통치 하에들어 갔다. 일본에 대한 미제의 강점은 1951년 9월에 조작된 쌘프랜씨스코 단독 《강화 조약》에 의하여 합법화되였다. 1960년 1월 19일에 침략적 신 일미 《안전 보장 조약》이 조인된 후부터 일본 군국주의는 미제의 대륙 침략의 《돌격대》로 급격히 전변되고 있다.

【천황】 히로히도(1926년 12월 25일 즉위)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이다. 중의원 의원 수는 467 명, 임기는 4년이다. 1961년 1월 28일 현재 중의원 의석은 공산당 3, 사회당 144, 자유 민주당 301, 민주 사회당 16, 무소속 3으로 되여 있다. 의장 기요세 이찌로

참의원 의원 수는 250 명, 임기는 6년인데 그중 반수는 3년 마다 개선된다. 1962년 7월 1일 선거 결과 공산당 4, 사회당 66, 자유 민주당 142, 민주 사회당 11, 동지회 7, 무소속 20으로 되여 있다.

의장 마쯔노 쯔루헤이

【내각】 1960년 7월 19일에 성립되였다. (1963년 7월 18일 개조)

수상 이께다 하야또,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 대장(재정)상 다나까 가꾸에이, 건설상 고오노 이찌로, 통산상 후꾸다 하지메, 농림상 아까기 무네노리, 국무상(방위청 장관) 후꾸다 도꾸야스, 문부상 나다오 히로끼찌, 법무상 가야 오끼노리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2년 7월 22일 창건되였다. 중앙 위원회 간부회 의장 노사까 산조, 서기장 미야모도 겐지 **사회당** 1945년 11월에 성립되였다. 도시와 농촌의 중소 부르조아지, 인테리, 사무원 및 일부 로동자들과 수공업자들 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원장 가와까미 죠따로, 서기장 나리다 도모미 **자유 민주당** 1955년 11월 15일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성립되였다. 현 집권당으로서 대독점 자본가, 지주, 관료, 군국주의자 및 부농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총재 이께다 하야또 (현 수상), 부총재 오노 반보꾸 **민주 사회당** 사회당에서 떨어져 나온 우익 분자들로 1960년 1월에 구성되였다. 자유 민주당을 추종하고 있다. 위원장 니시오 스에히로 **록풍회, 로동 조합 총 평의회**(총평) 1950년 7월 12일에 성립된 일본 최대의 로조이다. 의장 오다 가오루 **일조 협회** 1950년에 성립되였다. 리사장 하다나까 마사하루 **전 일본 로동 조합 회의**(전로), **전국 산별 로동 조합 련합회** (신 산별), **전 일본 농민 조합 련합회, 일본 평화 위원회** 회장 히라노 요시따로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일본 협의회** 리사장 야스이 가오루 **일본 아세아 아프리**

카 단결 위원회, 민주 청년 동맹 (공산당의 령도 하에 있다)

【주요 국내 사건】 1962년에 일본 정부는 일본 군국주의의 재무장 및 핵 무장에 광분하는 동시에 《고도 성장》의 구호 하에 근로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였다.

특히 일본을 미국의 핵 전략 체계에 적응한 미제의 핵 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미일 반동들의 책동이 로골화하였는바 이것은 일본 인민의 반미 투쟁을 격발시켰다.

1962년 3월 일본 평화 위원회가 호소한 《군사 기지 반대 투쟁 강화 월간》은 미군 기지 반대 투쟁의 새로운 양양을 가져 왔다. 3월 25일에는 10만의 군중들이 큐슈 이다쯔께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포위하고 시위와 집회를 단행하였다.

그후 기지 반대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치렬히 전개되였다. 10월 21일에는 일본 최대의 미군 기지인 요꼬다, 미사와를 포함한 전국 20 여개의 미군 기지들의 주변에서 100만의 군중들이 일대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일본 림시 국회가 개막되던 날인 12월 8일에는 4만명의 시위자들이 《군사 기지를 철폐하라》고 웨치면서 국회를 포위하고 투쟁하였다.

특히 2월에 미 법무 장관 로버트 케네디가 일본에 발을 들여 놓는 순간부터 일본에서는 《양키는 물러가라!》는 노호한 웨침들이 터져 나왔다.

일본 인민의 전통적인 춘기, 추기 공동 투쟁에서도 미군 기지의 철수와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다.

자유 민주당은 일본 인민의 반미 투쟁이 격렬해지자 9월 4일 《기지에 관한 기본법》을 작성하고 이 투쟁을 진압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일본 전국에서 오끼나와의 일본 복귀 운동이 강화되였는바 이 투쟁의 압력 하에 3월 9일 중의원은 《오끼나와 및 오가사하라도에 대한 행정권의 회복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2년에 이께다 정부는 파쑈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책동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진보적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2월 9일 자유 민주당은 두 차례(1961년)에 걸쳐 국회에서 강압 통과시키려다가 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봉착하여 부득불 보류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적 폭력 방지 법안》의 재판인 《민주 질서 유지법》을 국회 토의에 상정하려다가 또다시 인민들의 강력한 진출로 그 기도를 좌절 당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경찰력 외에도 4,970개 그루빠의 16만 2천명 이상의 깡패들을 사촉하여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테로를 감행하고 있는데 3월 20일에는 일본 평화 위원회 청사가 이들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 소각 당하였다.

4월 22일 고베에서는 약 100명의 경찰이 공산당 지방 단체 청사를 비법 수색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60명의 경찰이 일본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를 습격하고 수색하였다.

7월 1일에 참의원 선거가 실시되였는바 관권과 금권으로 자유 민주당이 《다수표》를 획득하고 계속 집권하게 되였다.

새 이께다 정부는 근로 대중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였다.

12월 18일 이께다 정부는 7만 6천명 이상의 탄부들을 대량 해고할 것을 예견한 《석탄 공업 합리화 법안》을 중의원에서 강압 통과시켰다.

이에 격분한 탄광 로동자들은 정부의 반동적 조치를 반대하여 7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7차나 대중적인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 투쟁에는 매번 10만명 이상의 탄부들이 참가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에 이께다 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계속 적대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미제를 등에 업고 남조선 군사 파쑈 분자들과 결탁하여 《한일 회담》을 조속히 결속지으려고 하면서 남조선에 대한 재침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이께다 정부는 3월 12~17일 《제 1차 한일 정치 회담》을 거쳐 8월 21일부터 《한일 예비 회담》을 재개하였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대일 배상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조일 량국 간의 력사적인 미해결 문제들과 전 조선 인민의 리익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남조선 군사 파쑈 도당과의 비법적인 공모의 방법으로 처리해 버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9월에 미국을 방문한 일본 외상 오히라는 미 국무 장관 러스크와 《일한 문제를 중심 의제》로 하여 밀담한 후 미국은 《한국이라는 매장》을 일본에 내맡겨야 한다고 망발하였으며 10월 23일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 법정 대학 교수 다나까라는 자는 파렴치하게도 《일본은 36년 간에 걸쳐 한국에서 근대적 산업과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일제의 조선 강점을 합리화하려 하였다.

1962년에 《한일 회담》의 조속한 결속과 경제 침략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일본 자유 민주당 부총재 오노 반보꾸를 단장으로 하고 국회 의원, 외무성 고관들로 구성된 대표단 (12월)을 비롯하여 《실정 조사》라는 명목 밑에 각종 대표단이 꼬리를 물고 남조선에 기여 들었다.

또한 도꾜에서 발간되는 신문들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 《방위청》에서는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면 곧 서울에 〈방위 주재관〉을 상주시킬 것》을 결정하고 《38도선 일대의 미묘한 군사 정세 파악》과 《한국군의 무기 수리와 보급, 한국 조종사 등의 위탁 훈련, 공동 작전》등 남조선에 대한 광범한 군사 침략 계획을 추진시켰다.

일본 정부는 재일 조선 공민들을 《한일 회담》의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려고 책동하면서 그들에게 《한국 국적》을 강요하는

한편 그들의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으로의 귀국을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6월 14일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정상적인 관계 설정을 위한 한일 회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협정이 연장되여야 한다는 제의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재일 조선 공민들을 남조선 괴뢰들과의 정치적 흥정의 미끼로 삼으려는 흉악한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으며 7월 6일 일본 정부 각료 회의는 현 귀국 협정을 폐기하려는 부당한 결정을 채택하고 귀국 협정의 기한을 1년간 무수정 연장할 데 대한 우리 측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제의를 거부하였다 (조일 량국 인민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1월 8일 일본 측은 부득이 우리 측의 제의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일 량국 간의 무역 정상화를 요구하는 량국 인민들의 투쟁으로 일본 정부는 11월 1일부터 우리 나라에 대한 《강제 바타제》를 철폐하고 직접 결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정기 무역 항로가 개설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3월 9일 중의원은 쏘련 정부에 구릴 렬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구릴 렬도에 대한 령토권을 부당하게 주장하였다.

일본 정부는 미제에 발맞추어 장개석 도당을 적극 지지하는 반면에 인민 중국에 대한 적대 정책을 공개적으로 추구하였다. 12월 6일 이께다는 《일미 무역 경제 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중국 《봉쇄》에 관한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9월 21일 유엔 제 17차 총회에서 일본 외상은 유엔에서의 중국의 대표권 문제에 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명치 못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라고 떠벌리면서 인민 중국의 합법적 권리 회복을 반대하였다. 12월 6일 이께다는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이 《인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용의를 십분 유지고 있다》고 하면서 인도 반동 계층을 지지하였다.

미국 및 기타 서방 국가와의 관계… 4월 6일 중의원은 《가리오아》(점령지 구제 자금)와 《에로아》(점령지 경제 부흥 원조 자금)에 의한 부채 4억 9천만 딸라를 미국에 반환할 데 대한 《협정》을 강압 통과시켰다.

2월 4~6일 간의 미 법무 장관 로버트 케네디의 일본 방문과 요시다 시게루 (5월), 외상 오히라 (9월)의 미국 방문들을 통하여 미 일 반동들은 《한일 협상의 급속한 타결》을 촉구하는 한편 다른 편으로는 면제품을 비롯한 일본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 제한 및 일본에 대한 미국 상품 강매 정책을 둘러싼 일미 독점체들 간의 모순의 완화를 시도하였다.

1962년에 《일미 무역 경제 위원회》 제 2차 회의(12월 3~5일), 《일미 안전 보장 협의 위원회》 (8월 1일), 《일미 문화 교육 위원회》가 있었다. 이 회의들에서 일미 반동들은 아세아 침략 흉계와 일미 군사 동맹의 경제적 지반을 공고화하는 문제, 미제의 침략적 목적에 일본의 과학 문화를 종속시키며 숭미 반공 사상을 일본 인민들에게 부식시키는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일본 수상 이께다(11월 4~25일)는 외상 오히라(9월 18일~10월 7일)와 서구라파 나라들을 순차로 행각하면서 일본의 대 서구라파 무역의 확장 문제와 《경제 협조 및 개발 기구》에의 일본의 가입 문제를 토의하였다.

경제 일본 경제는 전후 미제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급격히 재생 발전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제의 발전은 미국 경제에의 종속의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립성이 없고 원료와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높다.

일본의 공업은 면화, 양모, 린광석의 100%, 철광석의 92.3%, 원가의 98.1%(1960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년간 수입 총액에서 원료의 비중은 65%이다.

미제에 의하여 복구된 일본 독점 자본은 미제가 제공한 각종 명목의 《원조》 그리고 《특수 주문》에서 얻은 리윤, 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야만적 착취에 의거하여 1955년에 이르러서는 자기 세력을 완전히 재편성하고 국내에서 독점의 기초를 축성하였다. 미제와 일본 반동 지배층의 지지 밑에 생산의 집적과 집중이 급격히 강화되고 고정 자본의 갱신(1955년부터 매년 60~80억 딸라 투하)이 계속된 조건 하에서 대외 팽창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일본 독점 자본은 경제적 팽창을 실현할 목적 밑에 1961년부터 《경제 고도 장성 정책》을 내걸고 《국민 소득 배증과 10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제기하였다. 일본 정부와 독점 자본은 국가 및 민간 자본을 동원하여 1959~1962년간에만도 7조 7,985억원을 설비 투자에 돌렸다.

이러한 결과 생산 능력에서 막대한 과잉이 조성되고 저임금 정책과 실업자의 격증으로 국내에서 지불 능력 있는 수요는 급격히 감소되였다. 이리하여 생산과 소비 간의 모순은 일본에서 첨예화되였다. 게다가 미제의 대일 무역 차별 정책, 미제에 의한 대 중국 무역의 금지, 구라파 《공동 시장》 성원국들과의 격렬한 경쟁, 외화 부족으로 인한 동남 아세아 나라들에 대한 무역 감소 등은 일본의 상품 시장 앞에 엄중한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 독점 자본과 상품의 일본 침투가 강화되고 있는 사정은 일본 경제의 위기를 더욱 중대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외자 도입법》이 나온 1950년부터 1962년 9월까지 19억 3,626만 3천 딸라의 외국 자본이 일본에 투입되였는데 그 중 90%는 미국 자본이다.

미제의 압력에 의하여 일본 정부는 1953년부터 《무역 및 외환의 자유화》를 실시한 결과 미국 독점 자본을 위주로 하는 외국 자본의 침투가 급격히 강화되고 있

다. 1960년 4월부터 1962년 9월까지의 2년 6개월 간에 그 금액은 10억 1천만 딸라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그 이전 11년 간에 일본에 투입된 외국 자본 총액을 릉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1962년 10월부터 《무역 및 외환의 자유화》를 88%로 높혔다.

전후 두 차례 (1953~1954년, 1957~1958년)의 경제 위기를 겪은 일본 경제에는 1962년부터 또다시 과잉 생산 공황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공업】 1962년 상반기에 불안정 상태에 있던 공업과 광업, 생산 총 지수는 7월부터 현저한 하강선을 긋기 시작하였다.

1962년 9월에 광업, 강철, 기계, 화학, 섬유, 세멘트 등 부문과 기타 부문에서의 생산의 하강 정도는 1957~1958년 위기의 수준에 접근하였다. 유색 금속, 고무, 방직, 제지 및 팔프 등 부문의 생산도 4.5%~7.9% 감소되였다. 1962년에 면사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12.3%, 면직물 생산은 4% 감소되였다.

제조업 부문에서 조업률은 1962년 3월에 87%였던 것이 6월에는 82%, 9월에는 70%로 떨어졌다. 강철 공업 부문의 10대 회사들은 1962년 초에 30년래 처음으로 37대의 평로의 작업을 중단하였으며 그후 또다시 30~35%의 축소를 결정하였다. 방직 부문의 조업 단축은 60년래 최저 수준인 36.6%에 달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0	1961	1962
전력(10억kWH)	115.5	123.3	137.5
석탄(100만톤)	51.1	54.5	54.4
철광(〃)	2.8	2.9	2.4
선철(〃)	11.9	15.8	18.0
강철(〃)	22.2	28.3	27.5
압연제품(〃)	16.1	20.4	20.8
세멘트(〃)	22.5	24.6	28.8
면사(1,000톤)	581	559	502
인견사(〃)	143	141	137
면직물(10억m^2)	3.2	3.4	3.1

1962년에 일본에서 도합 1,779개의 기업소가 파산하였는데 파산된 기업소들의 부채 총액은 1,840억원에 달하였다.

【농업】 경지 면적은 전국 령토의 16.4%, 방목지는 7.4%, 산림은 65%이다. 일본에서는 소농 경리의 령락과 토지의 부농 수중으로의 집중 과정이 촉진되고 있다. 1960년 2월에 일본의 농호 수는 605만호였는데 1960년 12월에는 599만호로, 1961년 12월에는 589만호로 축소되였다.

일본에서 1960~1962년 간의 리농가 수는 16만호에 달하였다. (1951~1960년의 10년 간에는 12만호). 일본 농업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가일층 촉진시킨 것은 1961년에 채택된 《농업 기본법》이다.

일본의 농업은 주민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1962년에만도 251만 4,571톤의 밀과 19만 4,432톤의 쌀을 수입하였다. 일본에서 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은 전전 시기에 비하여 1960년에 17%나 떨어졌다.

주요 농작물의 파종 면적 및 수확 정형

	파종 면적 (1,000헥타)		수확량 (1,000톤)	
	1961	1962	1961	1962
벼	3 300	3 285	15 524	16 255
밀	649	…	1 781	1 733
보리	692	612	1 976	1 717
감자	217	215	3 848	3 675
고구마	327	…	6 333	6 217
차	49	…	84	…

1962년 2월에 대가축은 333만 3,850만두 (그중 젖소는 100만두)였으며 말은 54만 6,700두, 돼지는 403만 2,740마리, 가금은 9,001만 마리였다.

【대외 무역과 경제적 팽창】 1961년에 비하여 1962년도 일본의 수출은 16.1% 증가되고 수입은 2% 감소되였으나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다.

1962년에 동남 아세아 및 구라파에 대한 수출과 중국 및 쏘련과의 무역이 강화되였다. 서구라파에 대한 1962년의 수출 증가는 25%, 그중 영국에 대한 수출은 67%, 《공동 시장》 성원국에 대한 수출은 29% 증가하였다.

수입이 감소된 것은 주로 원료 수입의 감소에서 초래되였는바 파철은 53.4%, 원면은 22% 감소되였다.

대외 무역
(단위 100만 딸라)

	1961	1962
수출	4 236	4 916
수입	5 810	5 637
적자	1 574	721

1962년 4.4분기에 일본의 대미 면제품 수출액은 전년 같은 분기에 비하여 42.8% 감소되였다.

일본의 해외 투자액은 1957년 말의 3억 600만 딸라로부터 1962년말에는 15억 4,300만 딸라로 격증(1961년 보다 3억 1,770만 딸라 증가)하였는바 그 주요 대상 지역은 동남 아세아와 중근동 및 라틴 아메리카이다.

동남 아세아 나라들에 지불하고 있는 총 10억 딸라의 전쟁 배상(1962년 말까지 4억 딸라 지불)과 이에 따르는 7억 딸라의 소위 《경제 협력 협정》은 일본 독점 자본의 동남 아세아 팽창을 위한 주요한 방도로 되고 있다.

【재정 예산】 1962 회계 년도 (1962. 4.1~1963.3.31)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조 4,268억 원에 달하여 전년도 보다 24.2% 증가하였다. 예산에서 세금 수입은 수입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는바 주민들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률은 1961년의 20.7%로부터 1962년에는 22.3%로 높아졌다.

예산에서 직접적 군사비는 2,0

85억 원(7억1,053만 딸라)으로서 전년보다 280억 원이 증가하였다. 여기에 전년 조월액과 《시설 공급비》 및 《미군 군사 고문단비》 64억 원을 합하면 1962년도 군사비는 2,557억 원에 달한다.

군 사 1950년 7월 8일에 7만 5,000 명으로 정식 발족한 일본 《자위대》는 미제의 직접적인 비호 하에 급속히 확장되였다. 1962년에는 륙해공군 합하여 27만 1,000명(륙군 18만 3,000명, 해군 3만 600명, 공군 3만 7,600명)에 달하였다. 해군과 공군 성원의 85%, 륙군의 55%가 과거 일본 《황군》 복무자들이다. 특히 장관급의 76%, 좌관급의 56%, 위관급의 30%가 과거 일본 《황군》 출신이다.

미제의 비호 하에 이께다 정부는 《제 2차 군비 확장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62년에 핵 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는 동시에 인민 탄압을 위한 《치안 행동 체제》를 일층 강화하였다.

6월부터 나라시노, 가스미우라, 다께야마, 이루마 등 4개소에 유도탄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9월 초에는 92 개의 《나이크—아젝스》 형 유도탄을 미국으로부터 반입하였다. 또한 6개 관구대와 4개의 혼성 려단으로 되여 있던 륙상 《자위대》를 8월 15일까지 13개의 미국식 준 원자 사단으로 개편하였다.

일본 본토에는 1962년말에 313 평방 키로메터에 달하는 250 개의 미 군사 기지가 있었으며 이에 5만 2,000명 (그중 륙군 5,000명, 공군 3만 2,000명, 해군 1만 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미제는 8월 28일에 요꼬스가항에서 18 척의 구축함을 일본에 양도하였다.

1962년 3월에 일본의 고등 경찰은 약 2,000명, 일본 공안 조사청 《조사원》은 1,385명(그중 1,126명은 공산당과 청년 단체들 및 재일 조선인 총련합회의 활동을 《조사》하는 데 종사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5억 3,1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이였다.

사 회 일본의 계급 구성을 보면 로동자와 사무원이 주민의 44%, 농민이 38%, 도시 중간 층이 16%, 독점 자본가가 0.09%이다.

일본 근로자들은 일 미 독점체들의 2중적 착취 하에 날로 빈궁화되고 있다. 1962년에 소비 물가는 1961년에 비하여 12% 올랐다. 특히 주요 식료품 가격은 32%, 의류 가격은 44%, 철도 운임은 10% 올랐다. 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로동자 세대수는 1962년 1~7월에 평균 취업자들의 30.2%를 차지하였다.

로동자들은 자본주의적 《합리화》로 인하여 대량 해고 당하고 있으며 로동 재해로 인하여 수다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

1962년에 《석탄 공업 합리화 법안》에 의하여 4만 8,000명의 탄부들이 해고 당하였다. 1962년 11개월 동안에만도 일본 전체 광업 부문 로동자의 10%에 해당하는 1만 2,000명이 해고 당하였다. 일본의 완전 및 반실업자는 1,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1962년에 탄광들에서만도 6만 1,530건의 불상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40여만 명의 로동자들이 사망 또는 불구자로 되였다. 공식 자료에 의하면 최근 7년 간에 일본 공업 부문에서 로동 재해 건수는 30% 증가하였으며 재해로 인하여 일본의 기업소들에서는 매일 평균 20명이 사망하고 있다.

1962년에 각종 교통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1,140명, 부상 당한 아동들의 수는 5만 4,500여명에 달하였다.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이 전파된 결과 일본에서는 1962년에 소년 범죄가 16만 3,000건이나 발생하였다.

일본에서는 161만명의 결핵 환자, 150만명의 정신 병자가 있으며 300만 명의 성병 환자가 있다. 성병 환자들 중에는 20~24세의 미혼 남녀들이 압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출판】 통신—교도 통신, 지지 통신. 신문—아까하다(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사히 신붕, 마이니찌 신붕, 요미우리 신붕, 상교 게이자이 신붕 잡지—젠에이(공산당 리론 잡지) 쥬오고롱, 세까이슈호

오끼나와

【면적】 2,388 km^2(류큐 제도 전체)

【인구】 88만 1,900명(1960년 10월 1일)

【행정 중심지】 나하(주민 11만명)

일본 령토인 오끼나와는 1945년 6월 23일 미제에 강점되였고 1951년에 조작된 미 일 단독 《강화 조약》에 의하여 그 강점이 합법화되였다. 1952년 4월 1일 미제는 《류큐 정부 헌장》을 공포하고 《류큐 렬도의 미국 민정부(군정을 의미)의 포고령 및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소위 《류큐 정부》를 조작하였다. 그러나 1952 년 4월 27일 단독 《강화 조약》이 발효하게 되자 미제는 《류큐 정부》의 모든 권한을 거세하고 대통령 행정 명령(1957년 6월 5일 공포)에 의하여 오끼나와의 행정, 립법, 사법 등 모든 실권을 고등 판무관(미 제 9군단 군단장인 캐라웨이 중장이 1961년 2월부터 겸임)이 장악하였다.

1962년 3월 20일 공포된 케네디의 《개정 행정 명령》은 미국 고등 판무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류큐의…여하한 법률도 무효로 하며 어떠한 관리도 직무에서 파면할 수 있다》고 다시금 천명하였다.

미제는 오끼나와 강점후 10여억 딸라를 투입하여 이 섬을 아세아 침략을 위한 최대의 핵 전쟁 기지로,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기지로 전변시켰다.

1962년 5월에 미제는 오끼나와에 32개의 발사대를 가진 4개의 《메이스—비》 로케트 기지의 건설을 끝내고 7월에는 핵 무기 저

재 전투기《에프 105—디》1개 련대를 새로 배치하였다. 이 밖에도 오끼나와에는 8개의《나이크 헤리쿨레스》형 로케트 기지, 8개의《호크》형 로케트 기지등 도합 20개의 로케트 기지가 있으며 나하에는《유—2》간첩 비행기 기지와 제 7함대의 기지가 있다. 오끼나와에는 4만 6천명 (륙군 1만 4천여명, 해군 1만 9천여명, 공군 1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미군은 총경지 면적의 44%를 군사 기지로 략탈하였다.

케네디는 오끼나와의 일본 귀속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1962년 3월 오끼나와에 대한《신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 여기서 그는 미국이 오끼나와에 대한《통치를 계속하는 것이 군사상 절대 필요하다》고 오끼나와의 강점 의도를 로골적으로 들어내놓았다.

【반미 운동】 오끼나와의 일본 귀속과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여 전개한 오끼나와 인민과 일본 본토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은 류큐 립법원으로 하여금 2월 1일 오끼나와의 통치권 반환을 미국에 요청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으며 일본 중의원 (3월 9일)과 참의원 (3월 14일)에서도 부득불 오끼나와 통치권의 반환을 요구하는《결의》를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오끼나와 인민들은 4월 8일부터 오끼나와의 일본 귀속을 위한 투쟁 월간을 설정하고 일미 단독《강화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날인 4월 27일에는 7만 여명이 들고 일어나《양키는 물러가라!》고 소리 높이 웨치면서 군중 대회와 시위를 단행하였다. 1962년 11월《아사히 신붕》이 진행한《여론 조사》에 의하면 오끼나와 주민의 93%가 오끼나와의 일본 귀속을 요구하였다.

11월에 있은 립법원 선거에서 인민당을 비롯한 민주 력량이 총투표수의 48.7%를 쟁취하였으며 반동적 자유 민주당은 41.9%로서 5석을 상실하였다.

【경 제】 오끼나와의 기간 산업은 농업과 수공업인데 벼, 밀, 고구마, 사탕수수 등이 주산물이다.

비 률 빈

(비률빈 공화국)

Republic of the Philippines

【면적】 29만 9,404 km²

【인구】 2,747만 8,000명 (1960년)

【수도】 마닐라 (주민 150만명)

정 치 비률빈은 침략적 세아토의 성원국이며 미제의 동남 아세아 침략의 군사 전략 기지로 되여 있다. 비률빈은 1961년 7월 말라이, 타이와 침략적《동남 아세아 국가 련합》을 형성하였다.

비률빈은 미국과《군사 기지 협정》(1947년 4월),《군사 원조 협정》(1947년 3월),《호상 방위 조약》(1951년 8월) 등을 체결하였다. 협정들에 의하여 미국은 비률빈 령토 상에 23개의 륙해공군 기지들을 설치하고 있으며, 비률빈 무장 부대들을 지휘하고 있다.

1962년에 비률빈 정부는 미제의 지시 하에 작성한《유격전》계획에 따라 자국 인민들 뿐만 아니라 타국 인민들을 반대하는 데 리용할《비상 부대》를 조직하고 남부 월남과 라오스에 대한 침략 전쟁에 파견하였다.

1962년 초 마카파갈 대통령이 7천만 페소의 미국 담배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하여 미국과의 관계는 악화되였다. 5월 비률빈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미 국회는 돌연히 비률빈의 전쟁 배상금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비률빈은 독립 기념일을 7월 4일 (미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날)로부터 6월 12일(1898년 비률빈이 서반아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날)로 변경하였다. 이렇게 되자 8월 24일 미 국회는 7,300만 딸라의 배상금을 비률빈에 지불할 데 대한《전쟁 보상 법안》을 통과하였다.

영국과는 북부 보르네오의《령토권》문제로 인한 알륵이 있다. 비률빈 대통령의 제의(1962년 6월 22일부 각서에서)에 의하여 1963년 1월 28일~2월 1일 간에 런던에서 북부 보르네오의《령토권》에 대한 영국—비률빈 외상 회담이 진행되였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쌍방은 다만 앞으로의 해명을 위한 일부 문건들을 교환하였을 뿐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 하였다.《말레이시아 련방》구성에 대해서도 합의를 못 보았다.

【국회】 량원제이다. 상원의 의원수는 24명, 임기는 6년이고 하원의 의원수는 102명, 임기는 4년이다.

【정 부】 대통령 디소다드 마카파갈 (1961년 11월 14일 선거, 임기는 4년), 부대통령 겸 외상 엠. 마누엘 뻴라에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 11월 7일 창건되였고 1957년에 비법화되였다. **자유당** 1946년에 조직되였으며 봉건 지주와 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마카파갈 **국민당** 부르조아지와 지주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가르시아 **민족주의 공민당** 1957년 창건, 반미 기분을 가진 부르조아, 지주, 중간 계층의 리익을 대표하는 당이다. 지도자 타나타.
전국 로동 련맹.

경제, 사회 비률빈은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미국 독점체들은 광업과 야자 및 마닐라삼 재배 등 주요 경제 명맥을 쥐고 있다. 미국과 비률빈이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미국인은 비률빈인과 동등하게 비률빈의 자연 부원을 개발하며 공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60년에 비률빈에 대한미국 투자액은 약 8억 딸라에 달하였다.

인구의 75%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경지는 1,400만 헥타이나 토지는 몇명의 대지주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으며 농민 중 3분의 2 이상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다. 1962년(예비적 자료)에 주요 농산물들인 야자씨

는 131만 4,000 여톤, 사탕은 150만 2,000 여톤, 담배는 6만 6,000톤, 벼는 390만 9,000 톤, 옥수수는 119만 4,000 톤, 커피 및 코코아는 4만 6,000톤 생산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 석탄, 망간, 금, 크롬 등이 있다. 산림 자원도 풍부한바 산림 면적은 전국 륙지 면적의 약 60%를 차지한다.

공업은 국민 총생산에서 15~17%를 차지한다. 가공 공업으로는 사탕, 야자, 담배 공업들이 있을 뿐이다.

주요 수출품은 사탕, 야자, 야자유, 마닐라삼 등이며 무역 대상국은 일본, 미국, 영국, 서독 등이다.

1962년 상반년의 재정 적자는 5억 8,900만 페소에 달하였으며 1962년 6월의 물가는 년초보다 75~100% 등귀하였다. 실업자 및 반실업자는 400만명에 달한다.

【출판】 통신—비률빈 보도사

신문—마닐라 타임스, 데일리 미러, 마닐라 크로니클, 프리 프레스, 마닐라 불레찐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공화국)

Republic of Indonesia

【면적】 190만 4,345 km² (그중 서부 이리안 41만 2,781 km²)

【인구】 9,708만 5,348명 (1961년 12월, 그중 서부 이리안 인구는 75만 8,396명)

【수도】 쟈카르타 (주민 297만 3,052명, 1961년 12월)

정치 인도네시아는 림시 인민 협상 회의, 협조 국회, 최고 자문 리사회, 지방 립법 회의 및 지방 행정 기관들에서 나사콤(공산주의자, 민족주의자, 종교 그루빠 등 세 조류의 정치 세력) 협조를 실현하고 있다.

【대통령】 수카르노

【림시 인민 협상 회의】 1960년 9월 15일 성립되였다.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헌법 제정, 대통령 선거, 주요 국가 방침들을 결정한다. 임기는 5년이다. 협조 국회 의원 279명, 각 지역 대표 90명, 직업별 각 단체 대표 241명, 계 610명으로 구성된다.

의장 하이룰 살레흐

【협조 국회】 1원제이며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단순한 립법 기관이다.

1960년 6월 25일에 성립되였고 대통령이 임명한 28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채택된 법안은 대통령의 비준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다. 의원수는 정당 대표 130명(그중 공산당 30명, 국민당 44명, 회교 승려 협회 36명, 기타 6개의 정당 20명), 직업별 대표 153명. 의장 아루디 까르디 위나따

【최고 자문 리사회】 1959년 8월 15일 대통령의 자문 기관으로서 설치되였다. 대통령이 지명한 정치계 대표 12명, 지방 대표 8명, 군인을 포함한 직업별 단체 대표 24명으로 구성된다. 의장 수카르노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3월 6일 수카르노 대통령을 수상으로 하여 1명의 제 1상, 8개 부문의 부제 1상, 34명의 각료들로 구성되였다. 매개 부문은 부제 1상들이 지도한다.

제 1상 쥬안다, 외무 및 대외 경제 부제 1상 수반드리오, 내무 관계 (3개 성으로 구성) 부제 1상 수하르죠, 국방및 안전 관계 (7개 성으로 구성) 부제 1상 나수티온, 생산 관계 (6개 성으로 구성) 부제 1상 수프라요기, 분배 관계 (5개 성으로 구성) 부제 1상 레이메나, 재정 관계 (3개 성으로 구성) 부제 1상 노토 하미프로죠, 인민 복리 관계 (6개 성으로 구성) 부제 1상 룰야디 죠요마르토노, 특수 관계 부제 1상 루슬란 아부둘가니

【정당, 사회 단체】 수카르노 대통령은 1961년 4월 15일과 7월 27일 10개의 정당을 승인하고 4개의 정당을 승인하지 않을 데 대한 문건에서 명하였다. **공산당** 1920년 5월 23일에 창건되였다. 산하에 유력한 진보적 사회 단체들을 망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제 1 야당이다. 1962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림시 제 7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당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 당 강령 재검토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고 이를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그 밖에 경제 문제에 관한 보고, 로동 운동에 관한 보고, 청년 운동과 녀성 운동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새로운 중앙 위원회 선거가 진행되였다. 당원수 250 만 명, 위원장 디. 엔. 아이디트, 제 1 부위원장 루꾸만, 제 2 부위원장 뇨또 **국민당** 1927년 7월 3일에 성립되였다. 사실상의 집권당이며 민족 자산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당으로서 대내적으로 민족 자본의 옹호와 《인도네시아식 사회주의 건설》을 제창하며 대외적으로는 평화적 공존 정책과 중립주의를 주장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있다. 위원장 알리 사스트로아미죠요 **회교 승려 협회** 1952년 5월 마시우미당에서 분리되여 독립적인 당으로 발족하였다. 좌우파로 분렬되여 있다. 회교 신자들을 기초로 하고 지주, 부농 및 회교도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당이다. 회교를 기초로 하는 민족 국가의 건설을 주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중립, 식민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위원장 이담 하리드 **기독교당**, **무르바당**, **인도네시아당**, **민족 전선** 1960년 1월 12일 수카르노 대통령의 민족 전선 조직 조례에 의하여 결성되였다. 민족 민주주의 혁명의 완수, 서부 이리안 회복을 위하여 국민의 총력량을 집결할 목적으로 조직된 대중적인 정치적 조직체이다. 민족 전선은 10개의 모든 정당들, 모든 대중 단체들 그리고 륙해공군과 경찰의 전체 무력 등 2천 만 이상을 망라하고 있다. 위원장 수카르노 **전인도네시아 로동 조합 중앙 련**

맹(소브시) 1946년 11월 29일에 성립, 세계 직련 성원이다. 맹원 320 만명, 위원장 느요노 **민주 통일 로조**(국민당 계통), **농민 전선** 진보적인 농민 단체이며 640 만명의 농민들을 망라하고 있다.

녀성 운동 협회 1950년 6월에 성립되였다. 국제 민주 녀성 련맹의 성원이다. 맹원수 150 만 명 **인민 청년 동맹** 1945년 11월 10일 성립되였고 세계 민주 청년 련맹의 성원이다. 맹원수 150 만명 **평화 옹호 위원회**, **인도네시아—조선 친선 협회** 위원장 쌀루꾸 뿌르보디닝 그라드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1월 7일, 3월 8일, 5월 14일의 3 차에 걸쳐 제국주의자들의 사촉 하에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반대하는 반란 도당들에 의한 수카르노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반란 도당들에 대한 일대 소탕 작전을 전개하였다.

서부 이리안 문제—인도네시아의 령토인 서부 이리안을 화란의 식민지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켜 인도네시아에 귀속시키기 위한 투쟁은 1962년에도 계속 전개되였다.

1962년 1월 3일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의 통치 하에 있게 될 서부 이리안주를 창설할 데 관한 포고를 발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새 주는 통일된 인도네시아의 범위 내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향유하게 된다. 1월 4일에는 서부 이리안 해방을 위한 작전 구역 군 사령부가, 10일에는 전국에 6개의 공군 구역 사령부가 창설되였다.

1월 24일 내각은 18세로부터 40세까지의 공민들의 총동원에 관한 법안과 민간 방위 단체를 설치할 데 관한 법안을 승인하였다. 또한 모든 화란인 기업소들을 몰수하여 국가의 소유로 만들었으며 5월 29일부터는 인도네시아의 석유, 가스 및 그 제품들을 화란과 서부 이리안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 인민들은 정부의 조치를 적극 지지하면서 서부 이리안 강점을 계속 유지하려는 화란 식민주의자들과 그를 지원하는 미제를 반대 규탄하였다. 2월 5일 쟈카르타에서 대학생들은 미국 대사관에 돌입하여 반미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도꾜(일본)의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은 일본 주재 화란 대사관을 습격하였다. 3월 2일 쟈카르타에서 민족 전선 중앙 위원회와 148개 정당, 사회 단체들이 서부 이리안 해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서부 이리안에 상륙한 인도네시아의 무장 인원들은 서부 이리안 유격대들과 협동하여 4월 이래 테미나부인, 와이게오, 가그, 파크파크 등 여러 지역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화란 식민주의자들은 인도네시아 인민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여 부득이 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측은 이 회담에 응하되 반드시 서부 이리안의 관리권을 인도네시아에 이관하는데 기초해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였다.

3월에 진행된 인도네시아—화란 회담은 서부 이리안 통치를 유지하려는 화란측의 부당한 립장으로 말미암아 3일만에 결렬되였다.

7월 12일 워싱톤 부근에서 화란과 인도네시아 간의 예비 회담이 재개되였고 8월 15일 량국 간의 정식 회담에서 서부 이리안 문제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협정에 의하면 서부 이리안은 1962년 10월 1일부터 유엔의 관리를 받게 되며 1963년 5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의 관리 하에 넘어 가게 된다.

이 협정과 함께 서부 이리안에서 군사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유엔 본부가 12월 2일 발표한 바에 의하면 1,596명(그중 파키스탄군 1,000명, 미군 99명)의 유엔군이 서부이리안 관리를 위해 진주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부 이리안의 앞으로의 관리를 위하여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외무상 수반드리오를 서부 이리안 담당상으로 임명하였으며 9월 23일에는 서부 이리안 건설을 위하여 1962년 10월부터 1963년 5월까지의 과도기에 서부 이리안에 주둔하게 될 《개발대》와 《림시 관리대》를 조직하였다. 9월 24일에는 서부 이리안 개발 기금을 창설하였다.

【대외 · 관계】 인도네시아 림시 인민 협상 회의 의장 하이를 살레호는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1 차 회의의 서한과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를 폭로 규탄한 6월 24일부 우리 나라 외무성 비망록을 지지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인도네시아 림시 인민 협상 회의 지도부가 조선 민주의 리해 관계와 관련되는 문제들은 조선 인민 자신의 력량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하면서 타국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은 배제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62년 12월 18일 유엔 17 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대표는 미제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 표결시에 기권하였다.

6월 인도네시아 기자 동맹 대표단과 전 인도네시아 로동 조합 전국 평의회 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2월 19일 수카르노는 서부 이리안 해방 3군 사령부 창건 1주년 기념 군중 대회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북부 보르네오 인민들을 지지하도록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2월 쟈카르타에서는 북부 보르네오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북부 보르네오 혁명과의 전국 단결 위원회가 결성되였다.

5월 9일 정부는 불란서가 서부 이리안으로 파송되는 화란 비행기를 위하여 뉴칼레도니아도의 불란서 공군 기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각서를 불란서 정부에 보냈다.

2월에 인도네시아 군사 대표단, 5월에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여 경제 및 군사 원조 문제를 토의하였다. 7월 인도네시아 정부의 초청으로 쏘련 내각 제 1 부수상 미꼬얀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7월 24일 공동 콤뮤니케 발표).

7월 24일 인도네시아는 중국으로부터 3천만 딸라의 차관을 받았다. 2월 14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잉여 농산물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 제 인도네시아는 농업국이다. 국민 총 생산에서 농업은 대략 75%를 차지하며 주민의 약 70% (그중 토지 없는 농민이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주석광의 주요 생산국이며 동남 아세아에서 가장 큰 원유 생산국이다. 보키사이트, 석탄 등도 상당한 규모에서 채굴되며 망간, 니켈 및 금, 은, 금광석, 류황도 생산된다.

1961년에 경제 발전 8 개년 계획에 착수하였으나 서부 이리안 문제로 하여 수행하지 못 하였다.

【공업】 공업에서 중요한 것은 채굴 공업과 농산물 가공 공업이다. 가공 공업 생산은 국민 총생산에서 약 10% 차지한다.

소규모 공업과 농촌의 수공업은 국내 시장을 위한 소비품의 중요 생산 부문으로 되고 있다.

국유화된 공업은 농산물 가공품과 소비품, 주로 수입 원료에 의거하는 소비품을 생산한다. 자금의 결핍과 외화 부족으로 인한 수입 원료와 수입 기계의 결핍은 공업 발전을 방해하고 있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단위1,000톤)

	1961	1962①
석유	21 270	22 400
주석	18.5	17.5
보키사이트	419.4	477.5 ②
석탄	564	305.3
망간	13.5	—
세멘트	445	—

주;①은 1962년 예비적 자료
② 1~8월 간의 생산량.

공장들의 조업률은 자재와 부속품 수입을 위한 외화 부족과 낡은 설비, 전력 부족 및 수송난으로 매우 낮다.

1963년 1월 제 1상 쮸안다가 언명한 바에 의하면 공업 생산은 10년 전의 3분의 1 밖에 안되며 비농업 부문의 설비 가동률은 25%에 불과하다. 특히 경공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방직 공업 생산은 원료의 부족으로 전년에 비하여 38% 저하되였으며 서부 쟈바와 북부 수마트라에 있는 방직 공장들은 50% 폐쇄되였다.

【농업】 인도네시아에는 2개의 영농 체계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수출을 위한 농장 생산이며 다른 하나는 주로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자작농 체계이다.

고무를 제외한 수출품의 대부분이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생고무, 차, 종려 커피, 코코아, 벼, 키니네, 야자, 사탕, 담배 등이다.

고무는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 수입의 기본 원천이다. 고무는 세계 생산의 약 35%를 차지한다.

주요 농작물 생산량
(단위 1,000톤)

	1961	1962(예비적 자료)
쌀	8 268	9 500
코프라	1 300	910
사탕	962	955
차	65	66
커피	117	100
생고무	643	650
담배	81	82

농업도 해마다 생산이 감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수입하고 있다. 1962년에 쌀은 100만톤 이상 수입하였다.

사탕수수의 재배 면적도 감소되였다. 국영 농장의 사탕수수 재배 면적은 6만 5,000 헥타르로서 1957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작농의 그것은 1957년의 2만 6,000헥타르로부터 1962년에는 1만 헥타르로 감소되였다.

축산업은 쟈바와 마두라, 동부의 일부 지역들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60년에 소는 780만 8,000두, 염소 및 면양은 774만 2,000두, 돼지는 188만 두 있었다.

【대외 무역】 인도네시아에서는 9개의 국영 무역 회사가 총수입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중요한 상품 수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 대외 무역은 국가 세입의 60%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생고무, 주석, 석유, 코프라, 담배, 종려유, 차 등이다. 특히 차는 수출 총액의 약 45%를 차지한다.

무역은 주로 미국, 쏘련,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비르마, 구라파 공동 시장 성원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962년 대외 무역에서 수출은 감소되고 수입은 증가되여 무역 적자는 7억 딸라 내외에 달하였다.

【재정】 1962년에 서부 이리안 해방을 위한 군사비의 증대, 대외 무역 악화 등으로 예산 적자는 389억 루피아 (1961년에는 166억 5,000만루피아)로 증대되였다.

1962년 국가 예산에서 군사비는 80%를 차지하였으며 서부 이리안 군비만 하여도 230억 루피아 (5억 1,000만 딸라)에 달하였다.

통화량은 전년에 비하여 1962년에는 2배로 증가하여 1,250억 루피아(27억 딸라)에 달하였다.

인도네시아는 1950년 이래 12년간 외국으로부터 약 20억 6,000만 딸라의 경제 및 기술 원조를 받았다(그중 미국으로부터 5억 3,900만 딸라, 쏘련으로부터 3억 6,900만 딸라).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바 쟈카르타의 물가는 1955년을 100으로 하여 1962년 말에는 1758로, 1961년 1월의 가격에 비하여 1962년 11월 말에 소비재 가격은 420% 등귀하였

는데 임금은 30% 인상된데 불과하였다.

【출판】 통신— 안타라 통신, 페르스 비로 인도네시아(피 아이 에이)

신문—하리안 라캬트(공산당 기관지) 와르타 빼리타 (국민당 기관지), 메르데카 (정부 기관지), 빈탕티무르(진보적인 인사들이 운영하는 신문)

영령 보르네오

영령 보르네오는 사라와크와 북부 보르네오의 두개의 직할 식민지와 《보호령》인 브루네이로 구성되여 있다. 이 나라들의 실권은 영국 총독이 장악(브루네이는 고등 판무관)하고 있다.

제 2 차 대전후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계속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북부 보르네오, 사라와크, 브루네이를 포함한 《련방》 조작을 음모하였으나 이 지역 인민들의 반대에 봉착하여 실현하지 못 하였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자기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며 이 지역들에서 앙양되는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이 지역을 침략적 군사 블럭인 세아토와 련결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식민지 통치 기구인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 음모를 추진시키고 있다 (말라이 참조).

그러나 《련방》 조작 음모는 이 지역 인민들의 견결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1962년 12월 8일 브루네이 인민들은 《련방》 조작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위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2만 5천명에 달하는 북부 보르네오 민족 해방군은 많은 도시를 점령하고 도처에서 식민지 통치 기관들과 경찰서들을 습격하였다.

민족 해방군은 농촌들을 장악하였으며 인민들의 지지 하에 북부 칼리만탄 혁명 정부 (수상 아자하리)를 조직하고 독립을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브루네이 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북부 보르네오 주둔 영국 사령관을 교체(12월 16일)하였으며 3만여명의 군대와 10여척의 군함을 파견하여 애국자들과 진보적 정당,사회 단체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사라와크(직할 식민지)

【면적】 12만 2,000 km²

【인구】 74만 5,000명(1960년)

【행정 중심지】 쿠칭(주민 15만명)

사라와크는 락후한 농업 국가로서 주민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하며 매년 약 5만톤의 쌀을 수입한다. 주요 농산물은 고무, 벼, 후추, 사고 (남방 식물의 일종) 등이다.

고무 재배원은 10만 헥터에 달한다. 사라와크에는 외국 독점체들이 경영하는 5개의 대규모적인 고무 재배원이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원유 (년산 약 5만 5,000톤), 금, 보키사이트, 및 린회석이 있으며 산림 부원이 많다.

최근 년간 민족 해방 운동이 전개되면서 인민 련합당 (1959년 6월 성립), 국가 통일당(1960년 성립), 농민 협회 (1961년 6월 성립) 등 정당들과 단체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 있다. 집권당은 사라와크 련맹과 국민당이다.

북부 보르네오 (직할 식민지)

【면적】 7만 6,112 km²

【인구】 45만 4,000명

【행정 중심지】 제슬톤 (주민 2만 1,070명)

북부 보르네오의 많은 지방 토착민들은 아직도 원시 공유 제도 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주민들의 기본 직업은 농업, 림업, 어업 등이다.

주요 농산물은 고무, 벼, 야자, 옥수수 등이다. 비옥한 땅은 영 식민주의자들의 고무 재배원으로 빼앗겼다. 1959년에 고무는 1만 6, 477톤 생산되였다. 벼 년 생산량은 3만 5,000톤 내외이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한다.

산림 부원은 영국 회사 《브리티쉬 보르네오 팀버 회사》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석유, 철, 금등이 있으나 거의 미개발 상태에 있다.

제슬톤 부근에는 침략적 세아토 참가국들인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 3개국의 대 군사 훈련 기지가 있다.

정당으로는 북부 보르네오 련맹(봉건 상층부의 리익을 대변하고 있는 집권당), 련합당, 자유당, 민주당, 바수마마근당 등 우익 정당들이 있다.

브루네이

【면적】 5, 765 km²

【인구】 8만 4,000 명

【행정 중심지】 브루네이(주민 1만 8,200 명)

경제의 기본은 석유(년산 500만톤) 채취업이다. 석유 로동자는 전체 로동자 수의 4분의 3에 달한다.

석유는 주로 쎄리아 대유전에서 채취된다. 석유 채굴권은 영국 석유 회사에 장악되여 있다.

천연 가스 채취량은 년산 16억~17억 립방메터에 달하는바 이는 전부 수출된다.

주요 농산물은 쌀, 야자, 고무 등이다.고무 재배원은 1만 2,120 헥터이며 매년 1,000여톤 수출한다. 식량의 3분의 2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당으로는 석유 로동자들을 많이 망라하고 있는 인민당이 있다. 인민당은 영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북부 칼리만탄 민족 해방 투쟁을 직접 조직 지도하고 있으며 1962년 8월에 실시된 의회 선거(33개의 의석중 16석만 선거)에서 16석 전부를 차지하였다.

1962년 12월 영 식민지 당국에

의하여 비법화되였다. 집권당은 브루네이 련맹이다.

타 이

Thailand

【면적】 51만 4,000 km²
【인구】 2,900만명 (1962년 말)
【수도】 방코크 (주민 157만명, 1962년 7월)

정 치 타이는 군주제 국가이며 침략적 세아토(본부 소재지 방코크) 성원국이다. 타이는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으며 현재도 자기의 침략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켜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 최근 년간 타이는 라오스, 캄보쟈,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기지로 리용되고 있다.

【국왕】 푸미폰 아둘랴디트 (1950년 5월에 취임)

【제헌의회】 1959년 2월 5일 국왕이 임명한 24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여 있다.

【내각】 1959년 2월 9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사리트 타나라트(군 최고 사령관), 외상 타나트 코만

【정당, 사회 단체】 1958년 10월 20일 군사 정변 후 일체 정당들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공산당(1942년 12월 2일에 창건)1947년 11월부터 지하로 들어갔으며 1952년 11월에 정식 비법화 되였다.

【주요 사건】 타이 반동 집단은 미제의 사촉 하에 《공산주의 활동》을 《박멸》한다는 구실 밑에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1962년 8월 9일 타이 제헌 의회는 체포된 애국자들을 무기한으로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특별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12월 27일에는 《공산주의 활동》을 한다고 의심되는 인물들을 체포하며 무기한으로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군사 당국에도 부여하였다. 사리트 타나라트의 집권 이래 1962년 7월까지 1,080명의 애국자들이 체포 투옥 학살되였다.

타이 반동 지배층은 1962년에 전쟁 준비를 발광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라오스와 캄보쟈를 반대하는 침략을 더욱 적극화하였다.

5월 21일 타이 수상 사리트 타나라트는 총 연장 5,440 키로메터에 달하는 군용 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2월에는 방코크로부터 타이 동북부에 이르는 군사 전략 도로를 건설할 데 대하여 미국과 합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 공병들이 타이에 기여들었다. 타이는 미국으로부터 1962년에도 각종 비행기와 땅크 등 막대한 무기와 1961년의 2배에 해당하는 5천만 딸라의 군사 원조를 받았다.

5월 17일에는 라오스 침략을 위한 1,800명의 미 해병대의 타이 상륙을 비롯하여 영국 제트기 중대, 뉴질랜드 락하산 중대 등 세아토 성원국 구력을 끌어 들였다. 1962년 7월 현재 타이 주둔 미군 수만도 약 5천 명에 달하였다.

타이 정부는 3월 16일 라오스 인민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에 3개 대대를 파병한 것을 비롯하여 1962년에 10개 대대의 군사 인원을 참가시켰다. 타이는 캄보쟈의 중립과 령토 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캄보쟈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8월 15일 400명의 타이 군대가 캄보쟈 코콩주의 하트레트 지역을 침범한 것을 비롯하여 국경 침범 사건을 빈번히 일으켰다. 캄보쟈군 총사령부의 발표에 의하면 1962년 1월부터 8월까지에 타이 비행기들은 81회나 캄보쟈 령공을 침범하였다.

경 제 타이는 주민의 8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업과 림업이 국민 소득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업(1961년 어획고 30만 5,600톤)도 있다. 나라의 경제 명맥은 미제에 장악되여 있다.

경지 면적은 전 령토의 12%인데 총 경지 면적의 93%가 논이다. 타이 경제의 기본인 벼는 1962년에 890만톤, 고무는 17만톤 (1960년) 생산되였다.

공업은 빈약하며 전 인구의 2.3%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공업은 국민 소득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광업, 방직, 세멘트, 제재, 식료 공업 등이다.

군사비의 증대로 1962년의 재정 적자는 전년의 2배인 8억 9,300만 바트, 부채 총액은 1962년 5월 현재 109억 1,000만 바트에 달하였다. 반동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인민 수탈을 강화하고 있다. 1962년의 세금 수탈은 1958년의 35억 2,900만 바트의 근 2배인 69억 1,500만 바트에 달하였으며 그것이 예산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에 60%로부터 93%로 높아졌다.

미제의 원료 가격 인하 정책에 의하여 1962년 11개월 간에만도 타이의 무역 결손액은 1961년의 근 10배인 20억 바트에 달하였다. 무역 결손은 주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오는바 1956~1961년 간에 그것은 년 평균 12억 5,000만 바트에 달하였다.

인민 생활은 매우 비참하다. 생계비 지수 (1953년=100)는 1962년 1.4 분기에 127.9에 달하였으며 쌀값은 1961년에 비하여 15% 올랐다. 1962년 12월 현재 타이에는 80만명의 결핵 환자들이 있다. 인구의 4분의 1이 문맹자이며 95% 이상이 각종 종교를 믿는 몽매한 나라이다.

【신문】 사톤 세지, 타이 프레스(정부 대변지), 시암 라트(왕 측근지)

말라이 련방

Federation of Malaya

【면적】 13만 1,287 km²
【인구】 690만명
【수도】 쿠알라 룸푸르 (주민 47만 5,000명)

정 치 말라이는 1957년 8월 31일 영 련방 내에서 《독립》한 립헌 군주국이다. 1957

년 10월 3일에 체결된 《대외 방위 및 호상 원조 협정》에 의하여 영국은 말라이에서 군대의 무기한 주둔권과 군사 기지를 가지게 되였다.

반동적인 라흐만 정부는 1962년에도 타이와 호주 군대까지 끌어 들여 말라이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말라이 민족 해방군(1949년에 공산당의 령도 하에 정식 성립)과 진보적 력량을 반대하는 군사 행동과 탄압 정책을 계속 감행하였다. 12월 16일에는 말라이 전 지역에서 검거 선풍을 일으켜 인민 사회주의 전선 성원들을 비롯한 진보적 인사들을 체포하였으며 또한 파쑈적인 《보안법》에 근거하여 공산당의 문건들을 압수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라흐만 정부는 동남 아세아에서 영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기의 팽창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침략적인 《말레이시아 련방》을 조작하기에 날뛰였다. 이미 1961년 5월 27일 《말레이시아 련방》 창설을 제기한 라흐만은 그의 조작을 위하여 1962년 7월 영국을 방문하고 영국 수상 맥밀란과 2주일 간에 걸쳐 회담한후 7월 31일 《말라이, 싱가포르, 브루네이, 사라와크, 북부 보르네오로 구성되는 말레이시아 련방 구성에 관한 협정》을 조작하였다. 《협정》에 의하면 1963년 8월 31일에 《말레이시아 련방》을 정식 형성하기로 되여 있다.

라흐만 반동 정부는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무장 침략을 공공연히 지지하여 느고 딘 디엠 도당에 군사 인원과 전쟁 물자들을 비법적으로 제공하였으며 남부 말라이의 조호르에서 남부 월남 괴뢰군들의 소위 《게리라전》 훈련을 실시케 하고 있다.

【국가 원수】 사이에드 푸트라

【국회】 상원은 임기 6년, 하원은 임기 5년이다. 현 의회는 1959년 8월 19일 첫 총 선거에 의하여 성립되였다.

【내각】 1961년 2월에 성립되였다. 수상 아브들 라흐만 푸트라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 4월 30일 창건되였다가 1948년부터 비법화되였다. 말라이 민족 해방 투쟁을 령도하고 있다. 총비서 진 평 **마화인 련맹** 집권당 련합으로서 1955년 4월에 봉건 귀족, 지주 및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세 개의 당 즉 민족 련합 기구, 화교 협회 및 말라이 인도인 대회당으로 구성되였다. 그러나 매개 당은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련맹은 보수적이고 친 식민주의적이다. 지도자 아브들 라흐만 **인민 사회주의 전선** 로동당과 인민당의 련합 조직으로서 1958년 2월에 구성되였다.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을 반대하고 있다. 지도자 아흐마드 보에스타만 (1963년 2월 말라이 당국에 의하여 검거) **범 말라이 회교당, 말라이 인민 진보당, 통맹당**

경제, 사회 말라이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산물은 고무, 쌀, 종려유, 차 등이다. 경제의 주요 명맥은 외국 자본 주로 영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총 투자액의 3분의 2를 주석 채굴과 고무 재배에 투자).

말라이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주석의 60%, 고무의 70%, 야자 재배의 대부분은 영국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1962년에 주석 생산은 5만 9,600톤(예비적 자료)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제 1 위를 차지하였다.

비옥한 토지는 영국 독점 자본, 추장, 지주들에게 장악되여 있으며 거의 절반의 농민들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경지 면적은 214만 1,200 헥터, 그중 고무 재배원은 약 66%를 차지한다.

고무는 국민 소득의 40%를 차지한다. 1962년에 고무는 76만 7,300톤, 벼는 1961년에 96만 5,000톤 생산되였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 하고 있다.

1962년에 고무 및 주석은 이 나라 수출 총액의 60%와 20%를 각각 차지하였다.

1962년에 말라이에서는 년말에 있은 1만 4,000명의 철도 로동자들의 파업을 비롯하여 95건(1961년보다 37건 증가)의 파업이 있었으며 파업 참가자 수는 23만 2,000 여명에 달하였다. 실업자 수는 1961년 말 현재 47만 8,000명이였다.

싱가포르

State of Singapore

【면적】 741 km²

【인구】 168만 7,000명 (1961년) 중국인이 총인구의 76%를 차지한다.

【수도】 싱가포르 (주민 154만 9,000명)

정 치 싱가포르는 1824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946년 4월 영국의 《직할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5월에 싱가포르는 영 련방 내의 자치국으로 되였다.

싱가포르는 말라이, 영국과 함께 《대내 안전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립법 회의의 해산 및 헌법 폐지권과 국방 및 대외 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이 위원회의 영국 대표에게 있다.

싱가포르는 영국의 가장 큰 해공군 기지이며 극동 주둔 륙해공군 총사령부의 소재지이며 침략적 세아토의 요충지이다. 싱가포르 해군 기지에는 4만 5,000명의 영국 해군이 주둔하고 있다.

1962년에 리 관유 반동 정부는 영국의 조종 하에 《말레이시아 련방》을 조작하기에 날뛰였다. 리 관유 반동 정부는 1962년 9월 1일 《싱가포르의 말레이시아 련방 참가》 여부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국민 투표를 실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리 관유 반동 정부는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을 반대하는 진보적인 세력을 탄압하고 대대적인 검거를 감행하였다.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앙양되였다. 12월 23일 싱가포르에서는 브루네이 무장 봉기를 지지하며 《말레이시아 련방》을 반대하는 1만명의 군중 시위가 있었다.

【정부】 1959년 6월 5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리 관유

【정당, 사회 단체】 인민 행동당(집권당) 화교를 중심으로 하여 조직된 부르죠아 정당이다. 당수 리 관유 인민 련맹 집권당 중의 하나이며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을 적극 찬동하고 있다. 위원장 림 유복 사회주의 전선 1961년 9월에 인민 행동당에서 탈당한 일부 당원들이 조직한 당이다. 당은 식민주의의 철폐와 통일 독립된 말라이 국가의 창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을 반대하고 있다. 위원장 리 슈쑈 로동당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영국 군사기지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위원장 다위드 마살 인민 련합당, 인민당, 련합 민주당, 통일 인민당, 싱가포르 로조 평의회 4만명 이상의 성원을 가진 가장 큰 로조 단체이다.

경 제 싱가포르는 국제 무역 중심지의 하나이며 중계 무역이 이 나라 경제의 기본으로 되고 있다. 싱가포르 경제는 영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1962년에 싱가포르의 대외 무역은 8억 3,000만 말라이 딸라 (전년보다 1,300만 말라이 딸라 증가) 이상의 결손을 보았다.

비 르 마

(비르마 련방)
Union of Burma

【면적】 67만 7,950 km²

【인구】 2,066만 2,000명 (1961년 6월)

【수도】 랑 군 (주민 82만 1,800명, 1958년)

정 치 1947년 10월에 독립한 비르마는 1948년 1월 4일 련방을 형성하였다.

1958년에 네 윈은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1960년 2월 일 제 3 차 총선거에서 반파쑈 인민 자유 련맹《결백파》의 압도적 승리로 제2차 네 윈 내각이 물러나고 동년 4월 4일 우 누를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다시 수립되였다.

1962년 3월 2일 비르마군 총사령관이며 참모총장인 네 윈은 또다시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군인들로서 혁명 리사회를 조직하였다.

3월 9일 혁명 리사회는 행정, 립법 및 사법권을 동 리사회 의장인 네 윈에게 부여하였다.

1961년 5월에 우리 나라와 총령사 관계가 설정되여 현재 랑군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설치되여 있다.

【대통령】 네 윈 (1962년 3월 2일 취임)

【정부】 1962년 3월 2일 수립되였다

수상 겸 국방상, 사법상, 재정상 네윈, 외상 우 티 한

【정당, 사회 단체】 비르마 공산당 1939년 8월에 창건되였다. 1946년 2월 공산당 내에 분파가 조성되여 타킨 탄 툰을 수반으로 하는 비르마 공산당과 홍기 공산당으로 분리되였다. 비르마 공산당은 현재 비법화되여 있다. 비르마 사회주의 로선당 비르마 혁명 리사회 정강(1962년 4월 30일 발표) 실현을 목적으로 1962년 7월 5일에 조직되였다. 위원장 네 윈 비르마 통일 로동당 1962년 12월 1일 비르마 로동자당(1950년 창건)과 인민 동지당(1949년 창건)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위원장 타킨 치트 마웅 인민 진보당 1959년에 창건, 당의 대다수 성원은 진보적 인테리들로 구성되여 있다. 회담의 방법에 의한 국내 전쟁의 중지, 평등과 자결권에 기초한 민족적 문제의 해결을 강령적 목표로 내놓고 있다. 위원장 우 아웅 므인트 비르마 련방당 반파쑈 인민 자유 련맹이 분렬된 결과 이 련맹의 《결백파》가 중심이 되여 1960년 3월에 조직되였다. 위원장 타킨 티 반파쑈 인민 자유 련맹 1958년 3월 반파쑈 인민 자유 련맹이 분렬된 후 《견고파》를 중심으로 조직되였다. 위원장 우 바 쉐 비르마 사회당 1939년 소부르죠아 인테리들로 조직되였다. 이 당은 《공산주의 보급을 반대하는 효과적인 장벽》으로 될 아세아 사회당 대표자 회의 창설의 주요 발기자의 하나이다. 총 비서 우 바 쉐 비르마 민족 단결 전선 1955년 11월에 창립되였다. 위원장 우 아웅 탄 비르마 로동 조합 대회, 농민 단결 협회, 전국 학생 동맹, 녀성 자유 련맹, 평화 옹호 위원회, 비르마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주요 사건】 1962년 3월 2일 네 윈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혁명 리사회를 조직하였다. 네 윈은 3월 3일 헌법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해산하였으며 이전 수상 우 누와 정부 각료들을 체포하였다. 3월 4일 네 윈은 3개 정당(련방당, 반파쑈 인민 자유 련맹, 민족 단결 전선)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혁명 리사회의 정책과 목적을 천명하고 각 정당들이 혁명 리사회와 협력하여 국가 건설에 참가할 것을 희망하였다. 동시에 제국주의와 결탁하는 사람은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4월 30일 비르마 혁명 리사회는 비르마에서의 이른바 《사회주의 길》 이란 정책 선언을 발표하였다. 정책 선언에는 농업, 공업 등 주요 생산 수단에 대한 국유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5월 7일 네 윈은 《4월 30일부 정책 선언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족 전선을 구성할 것을 3개 정당들에 호소하였으며 7월 4일 비르마 혁명 리사회는 단일 정당 결성안을 발표하였다. 7월 7일 랑군 대학생 약 2천명이 야간 통행금지에 대한 새 합숙 규정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에서 16명이 죽고 수다한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7월 9일 혁명 리사회는 6개 대학을 폐쇄하였다.

12월에 학생들은 7월에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 합숙 규정의 변경, 학생들의 합숙 위원회 구성권 승인 등 6개 항목의 요구 조건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7월 11일 혁명 리사회는 반란 및 국가 반역죄를 취급할 특별 범죄 재판소 설치에 대한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11월 19일 랑군에서 영국의 비르마 강점 17주년과 관련하여 10

여 개 정당 및 대중 단체 대표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중인 국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립장을 지지하며 남조선, 큐바,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대외적으로 비르마 정부는 《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총령사관을 호상 교환할 데 대한 합의에 의하여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1961년 6월부터 랑군에서 사업하고 있다.

1962년 12월 유엔 17차 총회에서 비르마 유엔 대표는 남조선 일방만을 유엔 총회에 참가시키자는 미국 결의안에 기권하고 남북 조선 대표를 동시에 참가시키자는 쏘련 결의안에 찬성하였다.

1962년에 비르마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우 누 시기에 약속된 4억 챠트의 원조를 계속 받았으며 300 여 명의 기술자들을 초대하여 기술적 방조를 받았다. 비르마는 유엔에서 중국의 합법적 지위 회복을 지지하고 있다.

4월 비르마 정부는 미국 《포드 재단》, 《아세아 기금》, 풀브라이트 등 미국의 민간 《원조》를 전면적으로 거부할 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석유 탐사 허가를 연장해 줄 데 대한 미국 석유 회사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11월 17일 비르마 정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여 이 나라로부터 상품 수입을 금지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경제, 사회 비르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민의 80 %가 농업에 종사한다. 1960년 국민 총생산에서 농업 및 림업은 51%, 상업은 27. 2%, 공업은 15. 2%를 차지하였다.

독립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결과 경제에서 영국의 세력은 현저히 약화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중요 공업 부문인 석유 공업과 림업은 계속 외국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농업에서는 봉건 유제가 아직 현저하게 남아 있다.

농업에서 기본 작물은 쌀이며 세계적으로도 주요 쌀 수출국의 하나이다. 1961~1962년도에 벼 총 파종 면적은 1,082만 5,900 에이커였다.

지하 자원은 원유, 연, 아연, 주석, 월프람, 탕그스텐 등이다. 그중 원유는 주요 산물이다.

독립 후에 세멘트, 기계 수리, 제탕 공업 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나 아직도 락후한 설비와 수공업적 기술에 기초하고 있는 정미, 제재, 가내 수공업 등이 주되는 부문으로 되여 있다.

대외 무역에서 주요 수출품은 쌀, 두류, 면화, 목재, 생고무, 광물등인바 그중 쌀은 총수출액의 70% 이상 (1961년 10월~1962년 6월까지 150만톤 수출)을 차지한다. 주요 수입품은 식료품, 석유 제품, 기계, 금속 제품, 화학 제품 등이다.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말라이, 일본, 영국, 중국, 쏘련, 체코슬로바키야 등이며 주요 수입국은 인도, 일본, 영국, 중국, 동구라파 국가들이다.

1962년에 비르마에서 첫 국가 통신사가 창설되였다.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 85%가 불교도이다. 주민의 반수는 문맹자이다.

【출판】 신문—뱅가드, 파스, 만달레이 피플, 미러, 랑군 데일리, 버만, 가디언, 만다의 데일리

네 팔

(네팔 왕국)

Nepal

【면적】 14만 700km²
【인구】 938만 8,000명 (1961년)
【수도】 카트만두 (주민 약 20만)

정 치 네팔은 립헌 군주국이다. 1960년 12월 15일 네팔 왕 마헨드라는 정당들을 금지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다.

1962년 12월 16일 왕은 새 헌법을 선포하였다. 헌법에는 《당이 없는 참사회 (지방 정권 기관)의 민주주의적 체계》를 규정하였다.

1962년에 네팔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인도 반동 지배층의 사촉을 받은 네팔 반동들의 국경 침범 사건이 빈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네팔과 인도와의 관계는 긴장되였다.

3월 22일 쟈낙푸르에서는 마헨드라 왕의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으며 2월 7일에는 반란군이 3개의 국경 도시를 점령하고 180명의 병사들을 포로하는 사건이 있었다. 1961년 12월부터 1962년 8월까지만도 반동들의 무장 습격과 략탈 행동으로 100명의 주민들이 죽었으며 정부군과 반동들 간에는 수차의 대규모적인 교전들이 벌어졌다.

네팔 정부는 이 《폭행》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수차에 걸쳐 인도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1월 23일 네팔 외상은 인도에 가 있는 민족 반역자들의 두목들을 즉시 네팔에 넘겨 줄 것을 인도 정부에 요구하였다.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네팔 왕 마헨드라는 량국 간의 관계를 토의하기 위하여 인도를 방문하였으나 그 후에도 이러한 사건들은 계속되였으며 량국 간의 관계는 개선되지 못 하였다.

9월 22일 네팔 왕국은 콤뮤니케를 발표하고 네팔 반민족 분자들이 인도에 기지를 두고 인도로부터 각종 원조 및 협조를 받고 있으며 무장을 완전히 갖추고 네팔에 기여들어 방화, 략탈 및 살인 등의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러한 범죄적 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타협도 할 용의가 없다는 네팔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네팔 왕국의 초청에 의해 3월 6~16일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네팔을 방문하고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국왕】 마헨드라 비르 비크람 샤흐데바 (1955년 3월에 즉위)

【중앙 참사회】 1원제이며 립법권을 행사한다. 의원들은 선거되며 일부 (총수의 15%를 초과 못한다)는 국왕이 임명한다. 중앙 참사회에서 채택되는 일체 법령은 왕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

【내각】 국왕이 내각을 조직하며 수상 및 부수상을 임명한다. 현 내각은 1963년 4월 2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툴시 기리, 부수상 겸 외상 바하두르 다파즈.

경제 네팔은 락후한 농업국이며 인구의 95%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라나 봉건 왕조 (1951년 인민들의 무장 봉기로 전복됨)의 후예들과 봉건 지주들이 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202만 헥타이며 중요 농작물은 벼, 밀, 옥수수, 두류, 마령서 등이며 그 밖에 황마, 담배 등 공예 작물도 재배된다. 식량은 기본적으로 자급 자족한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 동, 아연, 연, 석탄, 금, 석유, 대리석 등이 있으나 거의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다.

공업은 락후하며 소규모의 농산물 가공 공장과 경공업 공장 등 약 20여개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민족 경제의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네팔 정부는 1962년부터 3개년 (1962~1964) 계획에 착수하였다. 계획 기간에 정부는 우선적으로 교통 운수를 발전시키며 수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바 총 투자액 5억 8,600만 루피중 이에 2억 2,300만 루피를 배당하였다. 총 투자액중 4억 8,000만 루피는 외국의 《원조》로 충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밀, 쌀, 황마, 목재, 피혁 등이며 주로 인도와 무역한다.

철도의 총 연장은 130 키로메터이며 자동차 도로는 약 380 키로메터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인도교와 불교를 믿으며 문맹자는 주민의 91%에 달한다.

인 도

(인도 공화국)

Republic of India

【면적】 294만 8,389km²

【인구】 4억3,800만(1961년 3월)

【수도】 델리 (주민 264만 4,000명, 1961년)

정치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는 영 제국주의자들의 분할 정책에 의하여 1947년 8월 15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두개 《자치령》으로 분할되였으며 1950년 1월 26일에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인도는 영 련방 성원국이다.

【대통령】 대통령은 상하 량원 의원들과 각 주의 하원 의원들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 원수이나 수상이 국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임기는 5년이다.

사르바팔리 라드하크리쉬나(1962년 5월 13일 취임)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은 최고 250명으로 구성되며 각 주의 하원 의원들에 의하여 선거된다.(그중 12명을 대통령이 임명)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의원들중 3분의 1을 개선한다. 하원은 최고 520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현 하원은 1962년 2월 제 3 차 총선거에서 선출되였다. 1962년 말 현재 하원 의석 분배는 국민 대회당 369석, 공산당 34석, 자유당 26석, 인민당 14석, 인민 사회당 12석, 기타 49석.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4월 9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겸 외상 쟈와하를랄 네루, 재정상 모라르지 데사이, 내상 랄 바하두르 샤스트리, 국방상 야쉬완트라오 발완트라오 챠반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에스.에이.당게 (총비서 남부디리파드는 1963년 2월 12일 사임) **국민 대회당** 1885년 창건된 인도 부르조아지들의 정당이며 현 집권당이다. 전국 위원회 위원장 다. 산지바야 **자유당, 인민당, 인민 사회당, 전 인도 로조 대회** (공산당 계), **인도 전국 로조 대회** (국민 대회당 계), **전 인도 농민 협회, 인도 전국 녀성 련맹, 전 인도 청년 련맹, 전 인도 학생 련맹, 인도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인도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인도—조선 친선 협회**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2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제 3 차 총선거가 실시되였다. 선거 결과 인도 국민 대회당이 계속 집권하게 되여 4월 9일 네루의 신 정부가 구성되였다.

1962년도 인도 국내 정세는 인도가 도발한 중인 국경에서의 전면적인 공세로 말미암아 극도로 긴장되였다. 인도 정부는 10월 20일 중인 국경 전역에서 전면적 공격을 개시한 후 나라를 전시 체제로 개편하고 국내의 진보적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였다. 10월 26일에 정부는 전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으며 같은 날 《인도 방위법》을 공포하고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 인권의 정지, 일체 파업의 금지, 보도 관제등 광범한 권한을 자기 수중에 집중하였다.

인도 정부는 전쟁 준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11월에 내각에 국방 생산성과 경제 및 국방 통제성등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였으며 10월에는 《국방 기금》, 《국방 공채》 및 《국방 저금》, 《황금 공채》 (11월)등 각종 방법으로 인민들에 대한 수탈을 강화하였다.

인도 정부는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을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국내에서 반중국 소동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다. 정부는 인도 전역에서 중국을 반대하는 시위, 군중 집회들을 조직하는 한편 출판물들과 각종 선전 수단들을 반중국 소동에로 돌렸다. 11월 20일에는 중인 국경 지방인 아쌈주와 서부 벵갈주의 5개 현에서 화교들과 중국인 혈통을 가진 사람

들을 전부 구류할 것을 명령하고 화교들을 체포 또는 집단적으로 수용소에 억류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인도 정부의 공식 보도에 의하면 10월 20일 이후 11월 26일까지만도 2,000여명의 화교들이 체포되였다. 12월 15일 정부는 라사와 상해에 있는 인도 총령사관을 폐쇄한다고 발표하는 동시에 칼카타와 봄베이에 있는 중국 총령사관들을 폐쇄하도록 중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인도 인민들 속에서는 정부의 반중국 깜빠니야와 세금 증가, 물가 인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이 앙양되였다.

델리 방직 로동자들 속에서는 《중 인 간의 전쟁은 자본가와 로동자 간의 전쟁》이라는 팜프레트가 배포되였다. 1962년 12월 15일부 《힌두스탄 스탠다드》지에 의하면 인도 인민들 속에서는 《중국은 인도에 대하여 전쟁을 도발한 바 없으며 인도 정부는 물가 등귀를 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인민들의 주의를 딴데로 돌리기 위하여 중국이 인도에 대하여 전쟁을 발동시켰다는 구호를 내놓고 있다.》는 선전이 진행되고 있다.

로동자들의 파업과 시위는 전국에서 매일과 같이 전개되였다.

1962년 7월 19일 항구 도시 마드라스에서 3만명의 군중들이, 7월에는 안드라주와 구제라트주에서 40만 농민들이 시위를 하였으며 8월 30일 봄베이에서는 5만명의 방직 로동자들이 시위를 단행하였다. 10월 18일에는 800명의 시위자들이 네루 관저를 포위하고 정부를 반대하는 구호를 웨쳤다. 그들은 생계비의 앙등 방지, 정부내 탐오 금지, 로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이 시위자들에게 발포하여 15명의 녀성들을 포함한 18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대외 관계】 1962년 3월 1일 우리 나라와 인도 간에 령사 관계가 설정되였으며 우리의 총령사관이 뉴 델리에 설치되였다.

5월 15일 인도와 쏘련 간에 전기 기계 공장 건설을 쏘련이 원조할 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6월 14일에는 화학 공장 및 제약 공장 건설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1월에 쏘련은 석유 개발용으로 7,000만 루피의 차관을 인도에 제공하였다. 7월 인도 군사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1962년도 인도의 대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변은 중인 국경 지대에서의 대 규모적인 무장 충돌이였다. 중국 령토에 대한 인도 군대의 침범 사건은 1962년에 들어서면서 더욱 빈번해 졌으며 그 규모도 확대되였다. 10월 12일 네루는 중국 군대를《소탕》하라는 명령을 인도 군대에 하달하였으며 10월 20일에는 드디여 중인 국경에서 전면적인 대규모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인도의 공격은 중국 국경 경비대의 자위적인 반격에 의하여 참패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중인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합리적인 제의를 거부하고 부당하게도 《1962년 9월 8일 계선》까지 중국이 물러설 것을 고집하는 한편 전쟁 준비에 광분하면서 중인 국경 지역에서 계속 침범 사건을 도발하였다.

중인 국경에서의 대규모적 공격을 감행한 후 인도는 미제를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막대한 군사 《원조》를 받아 들이기 시작하였다. 11월 14일 인 미 간의 1958년 무기 판매에 관한 협정에 대한 보충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협정에 근거하여 《원조 물자》에 대한 《시찰》이라는 명목하에 《미 군사 대표단》이 인도에 주둔하게 되였다. 인도에 대한 군사 원조를 증대하며 중 인 국경 분쟁을 확대할 목적으로 11월에 미 극동 관계 국무 차관보 해리멘을 두목으로 하는 미국 대표단, 영 식민지상 샌디스를 비롯한 영국 대표단, 미 기동 부대 사령관 아담스를 두목으로 하는 미국 군사 대표단 등 서방 국가 군사 대표단들이 련'이어 인도 방문하였다.

11월에는 미국 대형 수송기 2대와 미 공군 인원 200명이 인도군을 국경 지대에 수송하기 위하여 인도에 도착하였다. 10월 이후 약 두달 동안에 인도는 미제를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자들로부터 1억 2천만 딸라의 군사 원조를 받았으며 12월 케네디—맥밀란 회담이 있은후 또다시 1억 2천만 딸라의 《긴급 군사 원조》를 받게 되였다.

1963년 1월 31일 인도 정부는 《대공 방위 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미, 영, 카나다 및 호주 공군 장교들로 구성된 련합 대표단을 받아 들였다.

미제의 조종 하에 카슈미르 문제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2월 27일부터 량국 간의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인도 반동 지배층은 네팔에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 네팔에서 비법화된 네팔 국민 대회당 망명자들을 사촉하여 현 네팔 정부를 반대하는 무장 폭동을 일으키게 하였으며 티베트의 라사와 네팔 수도 카트만두 간의 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네팔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 이리하여 량국 간의 관계는 악화되였다. 1962년 4월 네팔 왕이 인도를 방문하였으나 량국 간의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인도는 민족적 독립을 위한 콩고 인민의 투쟁을 탄압하며 콩고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방조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6일 현재 5,723명의 군대를 콩고에 파견하고 있다.

경제 인도는 아직도 락후한 농업국으로 남아 있다. 총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1960~1961년 공업 농업 총생산액에서 절대적 광공업은 15.5%, 농업은 72.2%를 차지하였다.

농촌에서는 봉건적인 토지소유제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 경제는 소수 국내 독점 자본가들과 외국 독점 자본의 수중에 집중되여 있다.

1961년 3월 말 현재 10명의 대자본가들이 인도의 전체 개인 공업의 약 70%를 통제하고 있었으며 관료 자본은 137개의 회사와 52억 4,400만 루피 즉 인도 전체 주식 회사 자본 총액의 30.4%를 장악하고 있었다.

외국 자본의 투자액은 부단히 증대되고 있다. 개인 기업에 대한 투자 총액은 1955년의 45억 6,100만 루피로부터 1960년 말에는 69억 500만 루피로 증가되였다.

인도의 제 2 차 5개년 계획은 극심한 외화난과 물가 등귀 등으로 인하여 투자면에서 볼 때 계획은 80%, 물가 등귀를 고려하면 60% 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1962년도는 인도 제 3 차 5개년 계획의 두번째 해였으나 계획의 목표는 현저히 미달되였다. 6월에 난다 계획상이 국회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제 1년도 (1961~1962) 총지출액은 목표의 168억 루피에 대하여 114억 8,000 루피에 불과했으며 제 2년도 (1962~1963)에는 193억 7,000만 루피 대신에 144억 6,000만 루피로 감소될 것이 예견된다.

인도 정부는 중 인 국경 충돌을 배경으로 하고 경제에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하여 경제를 급속히 군사화하고 있다. 1963년 1월 18일 네루는 국가 개발 위원회 상설 위원회에서 연설하면서 《인도 발전 계획》의 50%는 국방 부문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부문에 돌려질 것이라고 말하였다.

【공업】 인도에서 공업은 최근 시기 비교적 발전되여 왔다. 그러나 이 공업 발전은 주로 투자의 확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투자의 대부분은 외국의 원조에 의거함으로써 인도 경제를 더욱 외국 자본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인도 부르죠아지들은 군수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방대한 리윤을 얻으려고 책동하고 있는바 군수 공업 총생산액은 1961~1962년도의 4억 1,880만 루피로부터 1962~1963년도에는 5억 8,000만 루피로 증가되였다.

1962년도에 들어서면서 공업은 더욱 부진 상태에 처하였는바 그 원인은 주로 외화 결핍, 원료, 전력, 석탄 등의 부족, 운수 부문의 긴장성에 기인되였다. 인도 관방 조사에 의하면 75종의 공업 설비 리용률은 2~61%이며 기타 30종의 리용률은 65~75%에 불과하다. 1961~1962년도 공업 장성률은 전년도의 11%로부터 3.4%로 저하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1	1962
전력(억kWH)	191	214.8
석탄(100만t)	56	61
선철(1,000t)	4 646.6	2 691
강철(1만t)	405	508
세멘트(100만t)	8.2	8.6
황마제품(1,000t)	970	1 187
면직물(100만m)	4 702	4 561
사탕(100만t)	2.7	2.8
질소 비료(1,000t)	98.7	142.2
류안 비료(〃)	53.8	62.9

【농업】 경지 면적은 약 1억 4,708만 헥터로서 농촌 토지 총면적의 45%를 차지한다. 농업은 극히 락후한 상태에 처해 있다. 봉건적 토지 소유제가 여전히 지배적인바 농가 총 호수의 75%를 차지하는 빈농이 전체 경지의 12.5% 밖에 소유하지 못 하고 있으며 반면에 4% 밖에 안 되는 대지주들이 전 경지 면적의 34%, 8.5%의 부농들이 31.5 %를 차지하고 있다.

관개 면적은 전체 경지의 17% 밖에 되지 못 하며 1962년도 시비량은 계획의 53만 5,000 톤에 비하여 40만 4,000 톤 수준에 머물었다.

이러한 토지 문제의 미해결과 락후한 영농 방법, 매년 심한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생산이 증가되지 못 하고 있으며 매년 300만~40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100만t)

	1960~1961	1961~1962
벼	33.66	33.61
밀	10.8	11.6
사탕수수	10.447	9.732
유종자	6.52	6.82
면화(10만포대)	53.9	45
황마(〃)	40.00	62.69

【대외 무역】 주요 수출품은 차, 면직물, 마제품, 광석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기계, 설비, 면화 등이다. 주요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일본이며 최근 년간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도 현저히 발전되였다. 쏘련과의 무역은 1955~1962년 기간에 500% 증가하였다.

【재정】 중앙 정부의 재정 예산은 국고 예산과 자본 예산으로 구분된다. 국고 예산의 주요 수입 원천은 주로 세금이며 지출은 국가 기관 행정비와 국방비이다. 자본 예산의 주요 수입 원천은 외국 《원조》, 공채 등이며 지출은 국영 기업에 대한 투자 및 각 주에 대한 대부이다.

1962~1963년도 예산은 원래 계획에 의하면 세입 138억 330만 루피, 지출 138억 1,650만 루피, 적자 720만 루피였으나 그후 증가되여 150억루피, 152억 2,310만 루피 및 2억 2,060만 루피로 되였다.

인도 예산에서 군사비 지출은 1962~1963년도에 45억 루피로서 총 지출의 29%였는데 1963~1964년도에는 86억 7,400만 루피 즉 총 지출의 46% 이상으로 증가된다.

인도는 방대한 적자 예산을 메꾸기 위하여 더욱 더 미국 《원조》에 의거하고 있는바 1949~1962년 7월까지 65억 9,800만 딸라 (314억 2,000만 루피)의 미국 《원조》를 받았으며 1962년도에는 5억 8,000만 딸라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 인도는 현재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고 있는바 1956~1961년 기간에 외화 보

유량은 76억 4,000만 루피로부터 4억 2,000만 루피로 감소되였으며 1963년 1월 현재 1억 7,000만 루피 밖에 남지 않았다.

사 회 1961~1962년도 국민 소득 장성은 계획에 예견했던 5%의 절반도 못되는 2.2%였다.

인도 계획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인도 전체 인구중 매월 평균 수입이 7~21.5 루피 밖에 안되는 사람이 60%나 되는 반면에 전체 인구의 10% 밖에 안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 국민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인도에서 최소한의 식량을 보장하자면 월 35 루피가 필요하다).

최근 반중국 깜빠니야의 결과 물가는 1962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7% 등귀하였다. 인도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1962년에 실업자는 전년에 비하여 30% 증가하였다.

인구 약 300만되는 칼카타의 인민 생활 형편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면 로숙하는 자 20만, 거지 1만 9,000, 빈민굴에 사는 자 70만, 퐁 환자 30만, 페병 환자 60만, 기아 상태에 빠진 자 약 100만이다.

【출판】 통신—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인디아(피 티 아이), 인디안 프레스 에이전씨(아이 피 에이)

신문—3개의 독점 집단이 1961년에 43개의 신문 즉 전체 인도 신문의 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스와디 나타(공산당 기관지), 뉴 에이지(공산당 월간 잡지), 나브 파라트(국민 대회당 기관지), 인디안 엑스프레스,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힌두스탄 스탠다드, 힌두스탄, 스테이쯔맨

방송은 올 인디아 레이디오가 독점하고 있다.

파키스탄

(파키스탄 공화국)

Republic of Pakistan

【면적】 94만 4, 824 km²

【인구】 9,381만명 (1961년 2월)

【수도】 라왈핀디(주민 34만명, 1961년)

정 치 파키스탄은 침략적 군사 뿔럭인 세아토와 쎈토의 성원국이며 1959년에 미국과 《쌍무 군사 협정》, 《우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은 쏘련, 중국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 및 통상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의원수는 156명(동, 서 파키스탄에서 각각 75명, 의원중 녀성 6석)이며 임기는 5년이다. 현 국회는 1962년 5월에 진행된 선거 결과 6월 8일에 성립되였다.

【정부】 1962년 6월 13일 새 헌법이 발표된 후 첫 대통령 내각이 구성되였다.

대통령 겸 국방상 아유브 한
외 상 알리 부토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됨에 따라 1948년 인도 공산당으로부터 분리되여 창건되였다. 1954년 7월 이후 비법화되였다. 1958년 10월 정변으로 일체 정당, 사회 단체는 해산되였다가 1962년 7월부터 정당 활동이 재개되였다. 해산 전에는 **공화당, 인민 련맹, 회교도 련맹, 민족 인민당, 로동당, 천민 련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로동 조합 련맹, 로동 련맹** 등이 있었다.

【주요 사건】 1962년 3월 1일 새 헌법이 발표되였다. 헌법에는 계속 정당 활동이 금지되여 있다.

새 헌법에 따라 5월 초에 첫 국회 선거가 진행되였으며 6월 8일에 진행된 국민 의회 제 1 차 회의에서 대통령 아유브 한은 1958년 10월 8일 군사 정변 당시 선포되였던 계엄령을 해제하였으며 대통령 직위에 다시 취임하였다.

6월 13일 새 헌법에 기초하여 첫 대통령 내각이 구성되였다. 7월 15일 국민 의회에서는 정당법안을 채택하고 정당의 회복과 신당 조직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신당의 목표, 입당 자격은 제한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동 16일 대통령은 정당법을 비준하였으며 정당 활동은 재개되였다.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2월 27일부터 1963년 5월 16일까지 6차에 걸쳐 인도와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5월 16일 량국은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는 최종 콤뮤니케를 발표하고 회담을 끝마쳤다.

중국과는 12월 친선적인 협의의 방법으로 중국의 신강 지역과 그와 린접한 파키스탄의 실제적 통제 지역 간의 국경선에 관한 합의를 보았으며 1963년 3월 2일 중국—파키스탄 국경 협정에 조인하였다.

9월 24일 대통령 아유브 한이 미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인도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군사 원조 문제를 둘러싸고 파키스탄과 미, 영 간의 모순이 격화되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에 대한 군사 원조가 결국은 파키스탄을 반대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하면서 미, 영에 대하여 비난하고 있으며 9월 29일 미 국무 장관 러스크가 소집한 세아토 외상 회의에는 참가조차 하지 않았다.

경제, 사회 파키스탄은 락후한 농업국이며 인구의 8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954년 군사 뿔럭에 가담한 이래 년년히 증가되는 군사비 부담과 봉건적 생산 관계의 구속, 외국 자본의 침투 등으로 파키스탄의 경제 형편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경제의 주요 부문은 영국, 미국, 서독 등의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1961년 2월 파키스탄 공업상이 말한 바에 의하면 외국의 투자 총액중 미국이 27%, 영국이 25%, 서독이 22%를 각각 차지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천연가스, 크롬광, 우라늄광, 석탄, 철광 등이 있다.

1959년에 국민 소득에서 공업은 약 12%를 차지하였다.

가공 공업으로는 방직, 제당, 제지, 담배, 세멘트, 성냥 공업 등이 있을 뿐이다. 1962년에 석탄은 89만 2, 000 톤, 석유는 47만 톤, 세멘트는 137만 3,000톤,

면직물은 6억 6,280만메터, 황마 제품은 28만 6,400톤, 사탕은 18만 4,600 톤 생산되였다.

국민 소득에서 농업 총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9%에 달한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으며 서부 파키스탄에서는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지주가 총경지의 53% (지주들이 통제하고 있는 정부 소유까지 합하면 80%), 동부 파키스탄에서는 인구의 15%를 차지하는 지주가 토지의 63%를 소유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황마, 면화, 차, 밀, 쌀, 보리, 담배 등이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큰 황마 생산국이며 년산 최고 120만 톤 (1952~1953년)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총생산량의 약 70~75%를 차지하였었다.

1961~1962년에 면화는 32만 7,000톤, 벼는 1, 537만 6,000톤, 1961년에 밀은 384만 7, 000톤, 차는 2만 3,000 톤, 담배는 8만 5,900 톤 생산되였다.

대외 무역은 국민 소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관세 수입은 국고 수입의 3분의 1~2분의 1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황마, 면화 (수출액의 약 80%), 차, 양모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미국, 일본, 서독, 인도 등이다.

파키스탄은 1960년 7월부터 제2차 5개년 계획(1960~1965)을 실시하고 있는데 계획에 예견된 총투자액 190억 루피중 약 100억 루피는 국내에서, 80억 루피는 외국의 원조, 차관, 투자 등으로 해결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961년 현재 문맹자는 전체 인구의 84. 7%이며 실업자는 동부 파키스탄에서만도 478만명에 달한다.

【출판】 **통신**—파키스탄 련합 통신사 신문—돈(정부 계통), 파키스탄 타임스, 이브닝스타, 리더, 쟝, 자민다르, 뉴 월드, 임로제

쎄일론

Ceylon

【면적】 6만 5,610 km²

【인구】 1,016만 7,000명 (1961년)

【수도】 콜롬보 (주민 45만명)

정 치 쎄일론은 1795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48년 2월 4일 《영련방》 내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6년 4월에 현 집권당인 쎄일론 자유당의 솔로몬 반다라나이케 정부가 수립되였다. 1959년 솔로몬 반다라나이케 수상이 암살된 후 1960년 7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승리한 결과 자유당 내각이 성립되고 반다라나이케 수상의 미망인인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가 세계 최초의 녀성 수상으로 되였다.

쎄일론 정부는 대내적으로 소위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목표로 개량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총독】 윌리암 코팔라빠 (1962년 3월 1일 취임)

【국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 수는 30명 (그중 반수는 총독이 임명)이고 임기는 6년인데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하원 의원 수는 157명 (그중 6명은 총독이 임명)임기는 5년이다.

【내각】 현 내각은 1960년 7월 23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헌법상 규정에 의하여 국방상, 외무상을 겸임), 무역, 상업, 식량, 항행상 티. 비. 일랑가라트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43년 7월 3일 창건. 위원장 에스. 에이. 위크레마싱게, 총비서 피터 케이네만 **자유당** (집권당)싱할족 민족 부르조아지의 리익을 대변한다. 농민들 속에 일정한 지반을 가지고 있다. 당수 시리마보 반다라나이케, **통일 국민당** 매판 부르조아지의 정당이다. 당수 두들레이 세나나야케 **련방당** 타밀족 부르조아지의 정당이다. 타밀족의 지위 문제를 들고 정부와의 《비협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961년 4월 18일 이 당을 비법화하였다. **혁명 평등 사회당, 평등 사회당, 민주당,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일랑가라트네 **쎄일론—조선 친선 협회** 1961년 10월 창설, 위원장 라트네 데샤프리아 세나나야케 **로동 조합 련맹**

【주요 사건】 1962년은 년초부터 국내 정세가 긴장되였다.

1961년 말부터 시작된 부두 로동자, 은행 종업원, 방송국 기타 많은 부문의 로동자들의 파업이 계속되였으며 1962년 1월 5일에는 110만명의 로동자들이 참가한 24 시간의 전국적 총파업이 단행되였다. 로동자들은 생활 조건의 개선과 함께 비상 사태의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부두 로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군대 투입을 반대하였다. 로동자들의 파업은 경제 기타 여러 부문을 마비시켰다. 정부와의 타협 조건이 성립되여 파업은 3월에야 끝났다.

1962년 1월 27일 밤 현 정권을 전복하려는 일부 군대 및 경찰 두목들과 반동 세력들이 조작한 반 정부 쿠데타 음모가 적발되였다. 쎄일론 정부는 1월 28일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주모자들을 체포하였다. 2월 19일 쎄일론 하원은 반정부 쿠데타 음모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사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령을 채택하였으며 3월 3일에는 반 국가 활동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에 특별 권한을 부여할 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3월 1일 쿠데타와 관련된 이전 총독이 해임되였다. 4월 6일에는 1961년 4월 17일부터 실시하여 오던 비상 사태 (공식 용어 제정 문제로 련방당이 정부와의 비협조 운동을 전개한 것과 관련하여 선포)의 일부 규정이 폐지되여 신문에 대

한 검열, 시위, 집회, 결사의 금지 등이 해제되였으나 수색, 압수, 검거에 관한 규정 및 총독의 전권 등에 관한 규정들은 계속 효력을 가지며 비상 사태는 계속되였다.

쎄일론 정부는 식민주의 후과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62년 여름 (4월부터 6월까지) 쎄일론 정부는《석유 회사 법안》(1961년 5월 5일 국회에서 채택)에 근거하여 쎄일론에 있는 미, 영 석유 회사들의 일부 기업 설비들을 국유화하였다(법안은 접수한 재산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규정). 이렇게 되자 미국은 쎄일론에 실제적으로 이관된 재산 뿐만 아니라 미국 석유 회사의 소위《상업 명예》와《잠재적인 영업 손실》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하였다. 또한 석유법에 규정된 배상의 지불 절차가 국제법에 위반된다고 생억지를 쓰면서 국제 기구의 중재를 요구하였다. 1963년 1월 초에 미 국무성은 2월 1일부터 쎄일론에 대한《원조》를 정지하겠다고 하면서 압력을 가하였다.

쎄일론 정부는 1963년 1월 18일~2월 6일까지 4 차에 걸쳐 미 석유 회사와 배상 문제에 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인 2월 8일 미국은 쎄일론에 대한《원조》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선포하였다.

미국의 란폭한 압력과 간섭 행위에 대항하여 쎄일론 정부는 같은 날 (2월 8일)미국과의 배상 회담을 중지하며《쎄일론 석유 법안》의 규정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2월 1일 쎄일론에 있는 영국의 마지막 군사 기지인 윌러신라가 폐지되였으며 3월 31일에 베디팔라에 있는 영 해군 방송국이 쎄일론에 이관되였다. 9월에는 쎄일론 공군에서 외국인《교관》과《고문관》을 배제할 데 대한 정부 결정이 채택되였다.

1962년 1월에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및 친선 대표단이 쎄일론을 방문하였으며 2월 23일에는 우리 나라와 쎄일론 간에 통상 협정이 체결되였다.

12월에 콜롬보에서는 쎄일론의 발기에 의하여 중인 국경 분쟁 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키기 위한 6개국(인도네시아, 캄보쟈, 비르마, 아랍 련합 공화국 및 가나)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 결정에 의하여 쎄일론 수상 반다라나이케가 1962년 12월 말부터 1963년 초에 걸쳐 북경 및 델리를 방문하여 이 나라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경제, 사회 쎄일론은 차, 고무 재배를 위주로 하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인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지 면적은 145만 5,200 헥타인데 그중 3분의 1에서는 차, 고무 및 야자가 재배된다. 1962년에 차는 21만 2,000톤, 고무는 10만 4,000톤, 야자유는 10만 4,000 톤 (수출), 쌀은 68만 4천톤 생산되였다. 쎄일론의 쌀 생산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매년 소비량 82만 톤) 1962년에 49만 9,830톤의 쌀을 수입하였다.

공업은 극히 낮은 수준에 있는바 인구의 8.6%가 이에 종사하며 기업소의 근 80%는 차, 고무, 야자 등의 가공 공장들이다.

1961년에 전기는 3억 6,400만 키로왓트시, 세멘트는 8만 2,000톤, 직물은 약 940만 평방메터 생산되였다.

쎄일론의 경제는 아직도 외국 자본 특히 영국 자본에 많이 장악되여 있다. 그러나 쎄일론은 외국 자본을 점차 구축하면서 자기의 민족 경제를 건설하려는 강한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1956~1960년 기간에 영국 자본은 차 재배에서 46%로부터 41.8%로, 고무 재배에서는 34.8%로부터 15.6%로 각각 감소되였다. 쎄일론 정부는 4~6월 기간에 쎄일론에 있는 미, 영 석유 독점 회사들의 연유 공급소 및 송유관 등 설비 179개를 몰수하여 쎄일론 국영 석유 회사를 창설하였다(4월 28일).

쎄일론 정부는 7월에 민족 경제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3개년 계획 (1961~1962년도부터 시작)을 작성하였다. 계획 기간에 공업 및 농업 부문에 18억 7,700만 루피, 그중 공업 및 운수에 13억 1,500만 루피가 투자된다. 계획 기간에 쎄일론 정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에 많이 의거하면서 방대한 공업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바 이미 야금 공장, 방직 공장, 다이야 공장, 뜨락또르 수리 공장, 비료 공장, 원유 가공 공장등이 건설되고 있으며 세멘트 공장이 확장되고 있다.

경제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무역이다. 대외 무역은 총 국민 소득의 약 32%, 관세 수입은 국가 재정 수입의 약 48%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차, 고무, 야자이며 수입품은 쌀, 면직물, 기계류, 사탕, 건어등이다.

주요 대상국은 영국, 인도, 중국, 쏘련, 미국, 일본 등이다. 최근년간 미제의 상품 투매 정책으로 인하여 쎄일론의 무역은 큰 타격을 받았다. 1961년에 고무 수출에서만도 전년에 비하여 1억 8,000만 루피가 감소되였다. 무역 결손으로 1961~1962년도 예산에서 적자는 약 5억 5,000만 루피에 달하였다. 재정 적자를 메꾸기 위한 수입 통제가 실시되고 있다.

교육은 1945년 10월부터 무료이며 초등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였으나 교육 체계는 통일되여 있지 않다. 대학으로서는 유일한 종합 대학인 국립 쎄일론 대학외에 두개의 불교 대학이 있다.

주로 싱할족은 불교, 타밀족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 **통신**—프레스 트라스트 오브 쎄일론

신문—란카디파 쎄일론 데 일리 뉴스, 쎄일론, 옵써버, 디나미나 쟈나타, 실루미나, 리나카란

말 디 브

The Sultanate of Maldive Islands

【면적】 298 km²
【인구】 10만 명 (1959년)
【수도】 말레 (주민 8,000명)
【추장】 알 아미르 모함메드 파리드 디디
【수상】 아브라힘 나시르 (1957년 12월 취임)

말디브는 쎄일론 서남쪽 640키로메터 떨어진 인도양 상에 있다. 이 나라는 1,200 개의 섬들로 형성되여 있으나 그중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약 200여개이다.

말디브는 립헌 군주제 국가이다.

말디브는 1887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쎄일론에 있는 영국 식민지 당국의 관할 하에 있었다. 1948년 쎄일론이 독립한 이래 말디브는 영국의 《보호》하에 놓이게 되였으며 대외 관계는 영국 정부에 의하여 처리된다.

1960년 2월에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영국은 30년간 (1956년부터 계산) 말디브의 간도 기지를 비롯한 기타 군사 시설들의 사용권을 강탈하고 여기에 자기의 공군과 해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오래 전부터 어업과 대외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 해운업은 이 나라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과실, 어류 등이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왕국)
Afghanistan

【면적】 65만 5,000 km²
【인구】 1,300 만 명(1959년)
【수도】 카불 (주민 약 31 만명)

정 치 아프가니스탄은 립헌 군주국이다. 회교가 정치, 경제, 사회 령역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왕은 회교 교주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국왕】 모하메드 쟈히르 샤흐(1933년 즉위)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은 50명이며 국왕이 종신 임기로 임명한다. 하원인 국민 의회 의원은 173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3월 13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모함메드 유수프 (외상 겸임), 제 1 부수상 겸 재정상 아브둘라 말렉야르

경제, 사회 아프가니스탄은 락후한 농 목축국이며 주민의 90%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190만~200만 헥타이나 대부분이 지주들에게 집중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벼, 옥수수, 과실, 면화, 사탕 (1961년에 2,000 톤 생산), 채소등이다. 알곡은 년산 370만톤 내외이며 면화는 년산 약 2만톤, 과실은 년산 4만톤에 달한다.

목축업에는 약 400만 명 (그중 200 만 명은 반농 반목축업에 종사)이 종사하고 있다.

주요 가축으로 면양, 염소, 소, 노새, 말, 락타 등이 있으며 양모의 년 생산량은 약 8,000톤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금, 동, 석탄, 우라늄, 은, 철, 연, 흑연, 석면, 운모, 류황, 대리석 등이 있으나 아직 광범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공업은 수공업이 위주이며 최근 년간 기계, 방직, 제탕 공장 등 현대적인 공업 기업소들이 약간 건설되였다.

수공업 로동자는 약 20만 명, 산업 로동자는 약 10만 명이다.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부대 조건 없는 원조를 환영하고 있으며 1954년부터는 외자 도입법을 발표하고 외국 자본을 국내 자본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1962년부터 농업 및 공업 생산을 증대하며 인재의 양성 및 자연·부원의 개발을 위한 제 2차 5개년 계획 (1962~1966년)에 착수하였다. 계획 기간 총 투자액은 제 1 차 5개년 계획의 2.7배에 해당하는 445억 아프가니에 달하는바 그중 70.3% (제 1 차 5개년 계획의 3.4배)는 경제 발전에 지출된다. 정부는 자금의 57%를 외국의 《원조》로 충당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면화, 양모, 과실등이다. 무역의 80%는 파키스탄을 통하여 실현되였다. 1961년 9월 이래 파키스탄과의 외교 관계의 단절로 국경이 페쇄된데 대처하여 아프가니스탄은 1962년 1월 2일 이란 령토를 통하여 무역할 수 있도록 이란과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2 학년도에 학생 총수는 26만 여명이며 각급 학교 총수는 도합 1,500여 개이다.

【출판】 통신—바크타르 통신사
신문—이슬라 (정부 기관지), 아니스 헤워드

이 란

(이란 왕국)
Kingdom of Iran

【면적】 164만 5,000 km²
【인구】 2,300만명 (1960년)
【수도】 테헤란(주민 약 200만명)

정 치 이란은립헌 군주제 국가이다. 침략적 쎈토 성원국이며 1959년 5월에 미국과 쌍무 군사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란의 모든 기관은 2만명에 달하는 미국인 고문들의 통제 하에 있으며 이란 정부는 그의 유지비로서 매년 2~3 억 딸라를 지출하고 있다.

1962년에 들어서면서 인민들의 반정부 투쟁이 앙양되였다. 1월 21일 약 6,000명의 테헤란 종합대학 학생들이 아미니 정부의 사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1월 22일에는 민족 전선이 아미니 정부를 타도할 것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에 뒤'이어 각지 학생들과 인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전개하였다. 반정부 시위의 파도는 불란서, 서독, 영국, 오지리, 서서, 미국등 해

외에 있는 류학생들에까지 파급되였다.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반정부 투쟁과 경제 정책의 실패로 하여 7월 18일 아미니 정부는 드디여 사직하고 알람 정부가 수립되였다. 알람 정부는 대내적으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침략적 군사 쁠럭인 쎈또에 충실할 것을 선포하였다.

12월 6일 수천명의 테헤란 종합 대학 학생들은 1953년 반정부 폭동 시에 희생된 3명의 학생들을 추모하는 군중 대회에서 정치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즉시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반정부 시위를 단행하였다.

1962년 9월 1일, 11일에 테헤란의 서부 지역과 테헤란 지역에서 이란 력사상 가장 강한 지진이 수차 일어났으며 이로 말미암아 2만여명이 사망 또는 부상 당하였다.

【국왕】 모하메드 레자 팔레비 (1941년 9월 즉위)

【국회】 량원제이다. 상원은 60명, 하원은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1961년 1월에 사기와 협잡의 방법으로 선거된 국회는 인민들의 강력한 압력에 의하여 5월 9일 해산되였다.

【내각】 1962년 7월 21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아사둘라 알람, 외상 아빠스 알람

【정당, 사회 단체】 이란 인민당 전신은 이란 공산당이다. 1941년 9월 20일에 성립되였다가 1949년에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리자 라드마니쉬 민족 전선 1949년에 성립되였다. 쎈또로부터의 이란의 탈퇴, 중립 정책의 실시, 인민들의 합법적 권리의 옹호를 주장하고 있다. 7월 20일 정부는 《선동죄》라는 구실 밑에 민족 전선 지도자들을 수다히 체포하였다. 국민당(마르돔당) 집권당, 1957년 5월에 성립되였다. 대지주, 대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아사둘라 알람 국가당(멜류당) 대지주, 대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마누첼 에그발 로동당, 제 3세력당, 이란당, 범이란당

경제, 사회

이란은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민의 약 85%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국왕, 대지주, 승려, 고리 대금업자들이 농경지의 80~85%를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 없는 농호 수는 총 농호 수의 60%에 달한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쌀, 사탕, 양모, 면화, 차, 담배 등이다. 1962~1963년에 밀은 261만 3,000톤, 사탕은 17만 1,300톤 (1961~1962), 면화는 9만 톤, 담배는 1만 3,500톤 생산되였다.

석유(매장량 9억 2,740만톤), 철, 석탄, 동, 망간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1962년에 석유는 6,500 만톤(중근동 제 3위) 채취되였으며 1,700만톤이 가공되였다. 석유 채굴권은 《국제 석유 회사》, 《범미 석유 회사》등 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1963년 3월 현재 이란에 투자된 미국의 사자본 총액은 2억 딸라(대부분이 석유 공업에 투하됨) 이상에 달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1960년에 2,800만톤 수출), 면화, 실과 등이다. 대외 무역에서는 서방 독점체들의 투매 정책으로 인하여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

이란은 1962년에 미국 고문의 지휘 하에 비행장, 항구, 도로 등 군사 기지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다. 매년 국가 예산의 50~60%가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다.

이란은 세계적으로 생계비가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인데 그 지수는 매년 약 20%씩 등귀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초막에서 살고 있다. 주민의 60% 이상이 문맹자이다. 이란 로동자들의 하루 로임은 10~12리알(빵 1kg값은 10리알)에 불과하다.

이라크

(이라크 공화국)

Republic of Iraq

【면적】 44만 4,442 km²

【인구】 708만 5,000명 (1960년)

【수도】 바그다드 (주민 108만 6,000명)

정 치

1958년 7월 14일 카셈이 지도한 군사 정변의 결과 파이살 왕조가 전복되고 공화국이 선포됨과 함께 카셈 정권이 수립되였다. 대외적으로 카셈 정부는 중립 정책을 실시하면서 1959년 3월 24일 《바그다드 조약》에서 탈퇴하였다. 동년 5월 30일에는 42년간 이라크를 강점하고 있던 영국 군대를 철수시켰으며 파운드 지역에서 탈퇴하였다. 동시에 미국과 체결하였던 3개의 예속적인 협정을 폐기하였다. 한편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 친선 협조 관계를 맺았다. 우리 나라와는 1959년 7월 23일 통상 및 지불 협정과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카셈 정권은 초기에 대내적으로 일련의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집권 후 1년이 지난 때로부터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 력량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가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카셈 정권은 점차 인민들의 지지를 상실하게 되였다. 한편 카셈 정권 내에서는 아랍 련합 정책을 둘러 싸고 친 아랍파 민족주의자들과 카셈 지지자들 간의 대립이 있었으며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바아스당을 중심으로 한 반정부 음모 책동이 빈번해 지고 외래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강화되였다. 1959년 3월 바아스당이 일으킨 모술 반란, 1959년 10월 카셈 암살 미수 사건, 카셈 정권의 탄압을 반대하며 민족 자결을 요구하여 1961년 11월에 일으킨 쿠르드 종족의 반란, 청년 학생들의 《카셈 타도 운동》 등이 련이어 일어 났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카셈 정권의 정치적 위기는 날을 따라 심화되였다.

카셈은 불안정한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며 인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1961년 말부터 1962년 초에 걸쳐 《대사령》을 실시하였으며 년초부터 신 헌법

을 작성하고 국회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3월 24일에는 형식상 《헌법 초안 작성 위원회》를 조직하였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카셈 정부는 민족적 자치를 요구하는 쿠르드족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 정책을 실시하였다. 4월 23일 바그다드에서 쿠르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한 1,500명의 시민들에게 사격을 가하였으며 7월에는 쿠르드족 (민족 자치를 위하여 1961년 9월부터 투쟁)들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군사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라크 무력의 70%를 동원).

7월 이라크 혁명 승리 4주년 기념 행사에 우리 나라 정부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11월에는 우리 나라 과학 대표단이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한편 8. 15 해방 17주년 기념 행사에 이라크 교육 문화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6월 21일 이라크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는 6. 25 12주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나라의 자주적 평화 통일 방안을 지지하였으며 미제 침략군의 철거를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2월 유엔 17 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이라크 대표는 《남조선에서의 유엔군 철수가 조선의 통일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라크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5월 24일), 몽고 (9월 25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쿠웨이트의 령토권을 주장하는 이라크는 쿠웨이트와 외교 관계를 설정한 일본(4월), 미국 (6월), 레바논 (5월) 등 나라 대사들을 이라크에서 추방하였다.

7월 13일 이라크 정부는 미, 영계 상사의 19 개 지점를 폐쇄하였으며 9월에는 43개의 외국인 상사를 폐쇄하였다.

1963년 2월 8일 친 나쎄르 장교 집단이 아랍 부흥 사회당과 합세하여 군사 정변을 일으켜 카셈 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전국 혁명 리사회】 립법권과 군 최고 사령관의 권한을 행사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한다.

의장 아브델 케림 무스타파(대좌)

【대통령】 아브델 살람 모하메드 아레프 (1963년 2월 8일 취임)

【내각】 현 내각은 1963년 5월 12일 구성되였다.

수상 아흐메드 하싼 엘 바드르 (준장), 부수상 겸 내상 알리 실레흐 사아디, 국방상 살레흐 마흐디 아마슈 (소좌), 외상 할레드 후세인 쉐비브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현재 비법화되였다. **아랍 부흥 사회당**(일명 바아스당, 씨리아 참조)

경 제 이라크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5% 이상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농민들 중에서 소작인들의 수는 50% 이상이며 70만의 농민은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 하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벼, 면화, 참깨, 대추 등이다. 1962년에 밀은 108만 5,500 톤, 보리는 112만 5,000톤, 벼는 약 10만 톤, 면화는 9,000 톤(1961년), 대추는 33만 톤 수확되였다.

목축업은 중근동 국가들 중 비교적 발전되였으며 농업에서 기본적인 부문의 하나로 되고 있다. 1961년 7월 현재 양은 570만두, 염소는 170 만두, 소는 90만두, 말은 20만두, 당나귀는 50만두, 락타는 5만두 있었다.

공업에서는 원유 채굴이 위주로 되고 있다. 원유 매장량은 33억 5,300만톤 (자본주의 세계 원유 매장량의 7.2%)이며 1962년에 4,802만 1,000 톤 생산하였다.

석유 채취는 년산 10만~20만 톤의 생산 규모를 가진 국영 석유 회사인 《하네킨》 석유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미, 영, 불, 화란이 참가한 《이라크 석유 회사》와 2개의 그 산하 기업소들인 《모술》, 《바스라》 석유 회사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다. 《이라크 석유 회사》는 이라크 령토의 98%의 지역에서 원유 개발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라크 석유 회사》는 매년 투자 총액의 약 2배에 달하는 평균 4억 6천만 딸라의 리윤을 얻고 있다. 이라크에 있는 외국 석유 회사들로부터의 석유세 수입은 1962년에 2억 1,163만 딸라에 달하였는바 이것으로 이라크는 국가 예산 지출의 45%를 충당하였다. 1961년에 이라크에서는 공업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연, 류황, 린산염, 방사성 광물 산지들이 발견되였다.

이라크에는 총 43만 키로왔트의 능력을 가진 4개의 화력 발전소와 10개의 중소규모의 화력 발전소가 있다.

가공 공업의 중요한 부문은 방직, 식료, 피혁, 건재 공업 등이다. 기업소들의 57.2%는 20명 미만의 로동자를 가지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대추, 가축, 보리, 양모, 수공업 제품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 미, 서독, 쏘련, 중국, 아랍 국가들이다.

1962년초 이라크의 총 학생수 100만명 중 대학생 수는 1만 5,000명이다. 주민의 90%가 문맹자이다.

씨 리 아

(씨리아 아랍 공화국)

Syrian Arab Republic

【면적】 18만 7,000 km²

【인구】 456만 1,000명 (1961년 10월)

【수도】 다마스커스 (주민 37만 2,000명)

정 치 씨리아는 1958년 2월 21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에 의하여 애급과 통합하여 아랍 련합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1년 9월 28일에 있은 씨리아에서의 군사 정변 후 씨리아는 아랍 련합 공화국에서

탈퇴하여 씨리아 아랍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전국 혁명 리사회】 1963년 3월 8일의 군사 정변이 있은 후 조직되였다.

의장 루아이 엘 아타씨(씨리아군 총사령관)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3월 9일 구성되였다. 수상을 비롯한 대다수의 각료들은 아랍 부흥 사회당원이다.

수상 살라흐 엘 비타르 (바아스당원)

【정당】 1958년 이래 일체 정당 활동은 금지되고 있다.

씨리아 공산당 1936년 씨리아 레바논 공산당으로 창건되였다가 1958년 11월 씨리아 공산당과 레바논 공산당으로 각각 분리되였다. 총비서 할레드 바그다슈

바아스당(아랍 부흥 사회당) 1953년에 아랍 부흥당(1943년 창건)과 아랍 사회당(1950년 창건)이 합당하여 씨리아에서 창건되였다. 본부는 씨리아에 있고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에는 지부를 가지고 있다. 주로 소부르죠아 인테리들로 구성되여 있으며 청년, 학생들과 군 부대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당은 어떠한 완성된 리론이나 강령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서양으로부터 페르샤만에 이르는》 통일 아랍 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주요한 정치적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당은 《아랍 통일, 자유, 사회주의》라는 정치적 구호를 내걸고 있으나 아랍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 진보 및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장애를 조성하며 민주 력량 특히 공산당을 적대시하고 있다. 현재 당은 3개의 파로 분렬되여 있다. 위원장 미쉘 아플라크

【주요 사건】 1961년 9월 정변 이후 씨리아 국내 정세는 극히 불안정하였다.

1962년 3월 28일 씨리아군 최고 사령관이였던 자흐레딘의 지도 하에 륙군이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

군 최고 사령부는 대통령을 해임시키고 수상을 포함한 정부 각료들을 체포하였다. 4월 13일 군 최고 사령부는 대통령 쿠드시를 다시 대통령 직에 복귀시켰으며 쿠데타 지도자들은 제네바로 망명하였다. 4월 17일 이전 내각의 보건상이였던 엘 아즈메흐를 수반으로 하는 림시 정부가 구성되였다. 9월 13일에는 엘 아즈메흐 내각이 사임하고 9월 17일 할레드 엘 아젬을 수상으로 하는 우익, 좌익 및 중간파로 구성된 새 내각이 조직되였다. 수상 아젬은 완전한 중립적 외교 정책을 실시할 것을 언명하고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친선 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내용으로한 정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6일 5명의 친 나쎄르파 정당 활동가들은 쿠드시 대통령에게 애급과의 재통합을 요구하는 성명을 제출하였다. 8월 초에는 친 나쎄르파들의 반정부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여 음모에 가담한 자 150 여 명이 체포되였다.

1963년 1월과 2월에는 다마스커스를 비롯한 국내 각 지역들에서 친 나쎄르파 세력들의 반정부 음모가 련'이어 일어 났다. 3월 3일에는 디아브 엘 하리리가 지도하는 전선 부대에서 반정부 폭동이 발생하였다. 1월 말~2월 초에 정부 내에 있던 아랍 부흥 사회당 계렬 각료를 비롯한 9명의 상들이 사임한 결과 아젬 정부의 위기는 극도에 달하였다.

3월 8일 루아이 엘 아타시를 비롯한 씨리아의 륙군내 친 나쎄르파 장교들은 아랍 부흥 사회당과 합세하여 군사 정변을 일으켜 아젬 정부를 전복하고 3월 9일 살라흐 엘 비타르를 수반으로 하는 신 내각을 구성하였다.

3월 14일 수상 비타르는 방송 연설에서 《씨리아를 아랍 련합 공화국 및 이라크와의 련맹에 포함시키는 것을 자기의 주되는 과업으로 선포》하였다.

경제, 사회 씨리아는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농업은 총 국민 소득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년간 계속된 심한 한재로 농업 생산량은 1957년에 비하여 1960년에는 67%로 감소되였다.

1962년에 주요 농산물인 밀은 137만 4,000톤, 보리는 79만 8,000톤, 면화는 15만 7,000톤, 사탕무우는 8만 1,000톤, 포도는 25만 4,000톤, 올리브는 8만 7,000톤, 담배는 7,600톤 생산되였다.

목축업은 씨리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사료난으로 가축 두수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1960년에 면양은 350만두, 염소는 75만두, 소는 40만두 있었다. 또한 육류는 3만 5,000톤, 우유는 35만톤, 양모는 6,500톤 생산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린산염, 연, 동, 안찌몬, 천연 가스, 석유 및 기타 유용 광물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가공 공업으로는 주로 수공업과 반 수공업적인 방직, 식료, 세멘트, 피혁, 착유, 비누, 유리 공업 등이 있는바 그중 방직 및 식료 공업이 비교적 발전되였다.

1962년에 도합 108개의 상업 및 공업 회사(총 자본 1억 4,350만 씨리아 파운드)가 있었다.

공업 생산은 애급과 통합되였던 시기(1958~1961년)에 애급 상품의 범람으로 상당히 감소되였다. 1961년에 전력은 4억 3,000만 키로왓트시, 세멘트는 54만 톤, 면사는 9,900톤, 도직물은 17만 2,000메터 생산되였다.

대외 무역은 주요 수출품인 농산물의 감소로 인하여 계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면화 (수출액의 80%), 밀, 보리, 양모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서독, 불란서, 영국, 이태리, 쏘련, 체코슬로바키야, 아랍 국가 등이다.

실업자는 약 20만명에 달한다. 문맹자는 주민의 30~35%를 차지한다. 주민의 85%가 회교도이다.

레 바 논

(레바논 공화국)

Republic of Lebanon

【면적】 1만 400 km²

【인구】 200 만명(1962년)

【수도】 베이루트(주민 50만명)

정 치 레바논은 1943년 12월 불란서 위임 통치로부터 독립하였다. 1958년 5월 인민들의 항쟁으로 미제에 추종하는 샤문 정부가 붕괴되고 현 대통령이 집권하였다. 1961년 12월 31일 제국주의자들의 사촉을 받은 인민 사회당의 쿠데타 음모 사건이 있었다.

【국회】 1원제이다. 의원 수는 99명이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현 국회는 1960년 6월에 선거되였다.

【대통령】 푸아드 쉐하브 (1958년 7월 취임)

【내각】 1961년 10월 31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라치드 카라메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 씨리아 레바논 공산당으로 창설된 후 1958년 12월에 레바논 공산당과 씨리아 공산당으로 각각 분리되여 독립적인 당으로 되였다. 현재 비법화되여 있다. **아랍 해방당** 1947년 성립, 레바논 북부의 회교도들과 지주, 자산 계급의 리익을 대표한다. 레바논의 중립과 아랍 련합 공화국 간의 협조 정책을 주장한다. **파랑게당** 천주교도들의 정당이다. **사회주의 진보당** 이스람교도들로 구성되여 있으며 레바논의 군사 쁠럭 참가를 반대한다. **인민 사회당** 이전 씨리아 인민당에서 분리되였다. 레바논, 씨리아, 이라크 및 요르단의 통합을 제창하며 아랍 련합 공화국을 적대시한다 **민족 전선** 레바논의 각 민족주의 정당들과 교파들의 련합 조직이다. **평화 옹호 위원회, 로동 조합 련합회**

경제, 사회 인구의 약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국민 소득에서 상업(주로 이라크, 요르단, 씨리아의 중계 무역)은 45%, 농업은 20%, 공업은 15%를 차지하고 있다. 레바논 경제에서 외국 자본은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전국 총 투자액에서 외국 자본은 93%를 차지하며 공업과 공공 사업중 50%는 불란서 자본이 차지한다. 약 27만 헥터에 달하는 경지 면적 중 8만 헥터가 110명의 대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되여 있다.

농산물의 60%가 과실이고 20%가 채소이다. 알곡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귤, 포도, 사과, 밀(1961년에 3만 5,000톤), 담배 및 감자이다.

공업은 락후하며 로동자는 약 12만명이다. 식료 가공, 방직 피복, 담배, 세멘트, 제혁 공업 등 소규모적인 수공업이 주로 되고 있다. 1962년에 직물은 1,120만 메터, 올리브유는 2,000톤, 신발은 40만켤레, 사탕은 4,000톤 생산되였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문화가 비교적 발달한 나라이다. 대학은 3개이며 신문은 30 여종에 달한다. 농민들은 수입의 절반을 지세로 수탈 당한다. 로동자들은 매일 10~14시간의 로동을 강요 당한다.

요 르 단

(요르단 왕국)

Hashimite Kingdom of Jordan

【면적】 9만 6,610km²

【인구】 175만 3,000명(1961년말)

【수도】 암만 (주민 25만명)

【국왕】 아브둘라 이븐 후세인(1953년 5월 즉위)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 25명 (국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8년, 매 4년 마다 반수씩 개선한다), 하원 (1962 년 11월 24일 선거) 의원은 60명, 그 임기는 4년이다.

【내각】 수상 후세인 벤 나쎄르 (국방상, 외상, 내상 겸임)

정 치 제 2 차 세계 대전 말까지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있었다. 1946년에 독립 왕국으로 되였으나 영국의 세력이 강하게 남아 있다.

요르단 정부는 일체 정당과 로조의 활동을 금지하고 파쑈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렬강에 추종하고 있다.

요르단은 1962년 8월 29일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량국 군대들의 합동군 사령부를 설치하며 두 나라의 경제적 통합을 이룩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2년 10월 8일 요르단은 영제국주의자들의 사촉 하에 예멘 왕당파를 지지하여 사우디 아라비아 군대와 함께 청소한 예멘 공화국에 대한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요르단에서 왕정을 반대하는 기운이 격화되자 영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후세인 왕정을 부추기기 위하여 자기 군대들을 요르단에 파견하였다. 1963년 4월 27일에는 3만 6천명의 영국 군대가 요르단에 상륙하였다.

【정당, 사회 단체】 1957년 4월 이래 일체 정당 활동이 금지되여 있다. 금지되기 전에는 **공산당**(총비서 푸아드 나싸르), **민족 전선, 국가 사회당, 아랍 부흥 사회당, 아랍 제헌당** 등이 있었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업의 기본 부문은 목축업과 알곡 생산이다. 국토의 약 10분의 1이 경지이고 기타는 사막이다.

봉건적인 토지 소유 관계로 하여 농산물 생산은 극히 낮다. 유목민은 5만명, 반 유목민은 12만명에 달한다.

주요 산물은 담배, 올리브유, 진주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린회석, 철, 석유 등이 있다.

국토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원유 개발권은 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1962년에 공장수는 6,887개, 그의 종업원수는 2만 4,000명에 불과하였다. 공장의 65%는 식료 및 방직 공장이다.

1962~1963년도 예산 지출의 절반 이상이 군사비에 충당되였다. 재정 적자는 외국의 《원조》로 메꾸고 있다.

주민의 75%에 달하는 농민들은 년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지주에게 빼앗기고 있으며 로동자들은 12시간 이상의 고된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문맹자는 주민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주민의 대다수는 회교도이다.

이스라엘
State of Israel

【면적】 2만 700km² (1949년 아랍 국가들과의 정전선에 의한 것, 1947년 11월 29일의 유엔 결정에 의하면 1만 4,000km²)
【인구】 217만 (1961년)
【수도】 예루살렘(주민 17만명)

정부 기관의 일부는 텔 아비브 (인구 40만명)에 있다.

정 치 영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있던 팔레스티나에 아랍 국가와 유태인 국가를 수립할 데 대한 1947년 11월 27일부 유엔 결정으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였다.

이스라엘은 유태인 국가로서 존립 첫 날부터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도구로서 부단히 아랍 국가들을 반대하는 침략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62년 10월에 미제는 애급, 씨리아, 요르단과 접한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12개의 로케트 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루빠를 이스라엘에 파견하였다.

【대통령】 이쯔하크 벤쯔비 (1957년 재선되였는데 1963년 4월 23일 사망)

【의회】 1원제이다. 의원 수는 120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내각】 1963년 6월 24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레비 에슈콜, 외상 골다 마이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1년에 창건된 팔레스티나 공산당인데 1948년 10월 이스라엘 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총비서 사무엘 미쿠니스 **로동당** (마파이당) 집권당이며 유태인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다비드 벤 구리온 **통일 로동당** (마팜당), **자유당, 진보당, 민족 종교당, 공산주의 청년 련맹, 평화 위원회, 유태인 로동자 총 련맹, 민주 부녀 련맹**

경 제 락후한 농업국이다. 경제는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미제는 아랍 국가들을 반대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리용하기 위하여 경제, 군사적 《원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불모지이며 농민은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약 40만 헥타이다. 주요 농산물은 귤, 밀, 옥수수, 담배 등이다. 1961년에 밀은 5만 4,000톤, 담배는 2,300톤 생산되였다. 식량은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입하고 있다.

공업으로는 다이야몬드 연마 공업, 식료 가공 공업, 담배 공업 등이 있다.

수출품은 주로 귤, 다이야몬드 등이다. 무역 대상국은 미, 영, 토이기, 서독 등이다. 1962년도 군사, 경찰비 및 특수 봉사비 지출은 1961년의 4억 6, 000만 파운드로부터 7억 1,500만 파운드로 격증하였다.

1955~1961년 간에 자본가들의 수입은 362%나 증가되였다. 이스라엘 전체 로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만명의 로동자들이 1954~1962년 간에 로동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었거나 불구가 되였다. 완전 실업자는 약 5만명, 불완전 실업자는 10여만 명이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
Kingdom of Saudi Arabia

【면적】 160만 km²
【인구】 700만명 (1959년)
【수도】 리야드(주민 35만명, 정부 소재지), 메카(주민 25만명, 종교 성지)
【국왕】 사우드 이븐 아브둘 아지즈 알 파이살 알 사우드 (략칭 사우드, 1953년 11월에 즉위)
【정부】 현 정부는 1962년 10월 31일 구성되였다. 수상 파이살(외상 겸임)

정 치 제 1차 대전 전까지 오토만 제국의 속령 (헤자즈, 네지드)으로 있었다.

대전 후 이븐 사우드 (네지드의 왕)는 자기 령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헤자즈를 정복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였다. 1932년에 국명을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이라 정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결합된 봉건 왕국이다. 이 나라에는 정당도 국회도 없다. 이 나라 군대는 미국제 무기로 무장되여 있으며 미국 군사 전문가에 의하여 훈련되고 있다. 1951년부터 미국은 다란 비행장을 채용하여 이를 신형 무기로 장비된 군사 기지로 전변시켰다. 1962년 4월에 이 비행장은 형식상으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이관되였다. 10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령토상에 미국의 중거리 지상 대 지상 유도탄을 설치할 데 관한 비밀 협정이 체결되였다. 요르단과는 1962년 8월 29일 합동군 사령부를 설치하며 경제적 통합을 이룩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예멘에서의 군사 정변에 의하여 군주 제도가 전복되자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지원 하에 군주제를 복귀시키려고 예멘 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개시하였다. 미제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미국 비행사들이 직접 조종하는 분사식 전투기들을 공급하고 예멘을 침공하였다. 예멘 사태와 관련하여 아랍 련합 공화국과는 일체 민간 항공을 철폐(10월)하고 11월에는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사회 사우디 아라비아는 봉건 및 씨족 제도의 잔재가 농후하게 남아 있는 락후한 반 유목, 반 농업국이다. 대부분이 사막과 초원 지대이기 때문에 전국 경지 면적은 국토 면적의 약 15%에 불과하며 식량은 국내 수요의 약 10% 밖에 충족시키지 못 한다.

주요 농산물은 대추, 담배, 옥수수, 밀, 보리 등이다. 목축업은 비교적 발전되였으며 주민의 절반이 이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가축은 락타, 양, 말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금, 은, 동, 철광들이 있는바 그중 석유는 이 나라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석유 매장량은 약 67억톤으로서 자본주의 세계 총 매장량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채유권은 미국의 《아라비아 미국 석유 회사》 (아람코), 《케티 석유 회사》, 일본의 《아라비아 석유 회사》 및 기타 이태리의 석유 회사 등에 장악되여 있다.

또한 사우디 아라비아에는 미국 회사들이 건설한 송유관이 있으며 라스 타누라에는 미국의 석유 가공 공장이 있다. 《아람코》는 1933년부터 1999년까지 이 나라 면적의 절반 이상의 지역에서의 석유 채굴권을 략탈하였으며 매년 6억 딸라 이상의 순 리윤을 짜내고 있다. 1962년에 석유는 7,500만톤 생산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담배, 가축이며 석유는 매년 약 100 만톤 수출된다.

인민 생활은 아주 락후하며 로동자들의 임금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미국인 임금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주민의 90% 이상이 문맹자이다.

쿠웨이트

State of Kuwait

【면적】 1만 5,500 km²
【인구】 32만 1,621 명(1961년)
【수도】 쿠웨이트 (주민 약 12만명)
【추장】 아브둘라 아스 살림 아스 사바흐 (1950년 1월 29일 추장으로 됨)
【정부】 1963년 1월 30일 신 내각이 구성되였다.
수상 사바흐 아스 살림 아스 사바흐

정 치 1871년에 쿠웨이트는 오토만 제국의 일부분으로 되였고 1899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중근동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의 압력 밑에 영국은 1961년 6월 19일 이 나라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25일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대한 령토권을 주장하자 영국은 이를 《좋은 기회》로 하여 7월 1일 쿠웨이트의 독립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 나라에 대한 무장 간섭을 감행하였다.

쿠웨이트는 1961년 7월 20일 아랍 련맹에 가입하였다. 8월 12일 쿠웨이트와 아랍 련맹은 아랍 련맹 성원국 (이라크는 제외)이 쿠웨이트에 군대를 파견하여 영국 군대와 교체할 데 대한 협정에 정식 조인하였다. 아랍인 군대가 쿠웨이트에 파견되자 10월 9일까지 영 침략군의 마지막 그루빠가 물러 갔다. 그러나 영국은 계속 대외 관계에서 쿠웨이트를 대표하며 그 령사 사무를 집행하고 있다.

경제, 사회 석유 채취업이 쿠웨이트의 주요 경제 부문이다. 주민의 20%가 석유 로동자이다. 석유 매장량 (85억톤)은 세계 제 1위이며 1962년도 채취량은 9,300만 톤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3위를 차지하였다.

석유 공업은 완전히 미, 영 석유 독점체들이 장악하고 있는바 석유의 대부분은 미, 영 련합 회사인 《쿠웨이트 석유 회사》 (1934～2009년 간의 석유 개발권 탈취)가 채취하고 있다.

1958년에 이 회사의 순 리윤은 약 2억 4,800만 딸라에 달하였다. 쿠웨이트 석유는 영국 석유 수요량의 49%를 충족시키고 있다.

토지는 족장들과 상인들에게 독점 당하고 있다. 해변의 주민들은 어업과 진주 채취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 석유 자본가들은 매년 미국인 석유 로동자들로부터 평균 4,500딸라를 착취한다면 쿠웨이트 로동자들로부터는 4만 딸라나 착취해 내고 있다.

바레인 제도

(바레인 추장국)

Sheikdom of Bahrain

【면적】 598 km²
【인구】 15만 2,000명 (1961년)
【수도】 마나마 (주민 6만 1837명)
【추장】 술만 빈 하마드 알 할리파 (1942년 즉위)

페르샤만에 있는 수개의 섬으로 구성된 추장국이다. 1861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여 있으며 영국인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이 서로 바레인에 대한 령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바레인 제도에는 영국의 공군 및 해군 기지들과 미국의 해군 기지가 있다. 1959년에 독립을 요구하며 아라비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주장하는 바레인 민족 해방 전선이 창설되였다.

바레인 제도에는 석유 자원이 풍부하다. 그 매장량은 1958년 말에 5천만톤으로 추산되었으며 1962년에 225만톤이 채취되였다. 석유 채취 기업소들과 년산 1천만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석유 가공 공장들은 미국의 《바레인 석유 회사》(1940년부터 1995년까지의 채유권 탈취)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야자, 종려, 포도, 귤 등이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바레인 제도는 진주 생산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자국 화폐는 없고 인도의 루피를 사용하고 있다. 바레인은 매년 수입의 70%를 재수출한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 영, 인도, 일본이다.

카 타 르

(카타르 추장국)
Sheikdom of Qatar

【면적】 2만 2,000 km²
【인구】 4만명
【행정 중심지】 도하 (주민 2만 7,000명)
【추장】 알리 빈 아브둘라 알 타니

카타르는 페루샤만의 남쪽 해안에 있는 영국 보호령이다.

추장은 형식상의 통치자에 불과하고 사실상으로는 영국인 정치 주재관이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카타르의 아리사반에는 미 해군 기지가 건설 중에 있다.

카타르에는 석유 자원이 풍부하다. (매장량은 3억 5천만톤) 1962년에 880만톤의 석유가 채취되였다. 석유 가공은 영국, 불란서, 미국 합동 자본인 《카타르 석유 개발 회사》 (2010년까지 채굴권 획득)이 독점하고 있다.

농촌 경리로는 채소, 과수 및 축산업이 약간 있을 뿐이다. 카타르에서는 진주가 채굴된다.

화폐는 없고 인도의 루피를 사용하고 있다.

많은 주민들이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

예 멘

(예멘 아랍 공화국)
Yemen Arab Republic

【면적】 19만 5,000 km²
【인구】 500만명
【수도】 사나 (주민 약 6만명)

1962년 11월 1일 대통령 살랄은 사나를 수도로, 타이즈를 제 2 수도로 결정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정 치 예멘은 1517~1632년과 1849~1919년의 2차에 걸쳐 토이기에 정복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 후인 1923년에 예멘은 독립하였으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계속 받았다.

영국은 예멘의 남부 지역을 자기들의 직할 식민지와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또한 영국은 1934년에 예멘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국경 문제를 가지고 교전하고 있는 틈을 리용하여 예멘과 40년을 기한으로 하는 불평등한 《사나 조약》을 체결하고 침략을 계속했다.

미제는 제 2차 대전후 영국과 예멘 간의 모순을 리용하여 1947년 5월 100만 딸라의 크레지트를 미끼로 예멘의 봉건적 통치배들을 매수하여 석유 채취권을 획득하였으며 1958년에는 예멘의 산악 지대에 4개의 전파 탐지 장치의 설치를 강요하였다.

예멘은 1958년에 아랍 련합 공화국과 함께 아랍 국가 련방을 창설하였다가 1961년 12월 26일에 탈퇴하였다.

1962년 9월 27일 예멘 왕국 륙군 참모 총장이였던 살랄 (현재 대통령) 지휘 하의 군사 정변으로 봉건 군주 제도가 전복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공화국이 선포된 후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예멘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이전 예멘 왕의 숙부 하싼 (이전 예멘 유엔 대표)을 뉴욕으로부터 예멘에 끌어다 내란을 도발케 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을 사촉하여 직접 예멘에 대한 무력 간섭을 감행케 하였다. 영 제국주의자들은 예멘 왕당파들에게 다량의 무기를 공급해 주는 한편 직접 예멘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으며 미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다란에 있는 미 군사 기지에서 비행기로 간섭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해 주었다.

예멘 인민들은 정부군과 함께 국내 도처에서 왕당파들과 외래 간섭자들의 침략을 격퇴하면서 독립을 수호하고 있다. 1962년 11월 2일에는 북부 하라드 지방에 기여든 5천명의 사우디 아라비아—요르단 군대를 물리치고 3천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예멘 수상 아브둘라 살랄은 자기의 성명들 (1962년 9월 28일, 10월 2일, 11월 1일)에서 예멘 혁명의 중요 목적이 《굴욕, 노예제도, 빈궁 및 질병을 종식》시키며 나라의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천명하였으며 예멘 아랍 공화국의 《독립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 관계를 설정》하며 제국주의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우리 나라와는 1961년 1월 11일 무역 및 지불 협정과 무역 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1963년 3월 9일에는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 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군사 정변후 예멘과 아랍 련합 공화국과의 관계가 밀접하여졌다. 1962년 11월 1일 대통령 살랄은 예멘에서의 신 정부 구성과 림시 헌법의 선포는 《아랍 련합 공화국과의 통합을 선포하는 서막으로 된다》고 언명하였다. 동 11월 10일에는 량국 간에 공동 방위

조약이 체결되였다. 알제리아와는 12월 6일 재정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와는 10월 1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예멘 주재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를 추방하였으며 11월에는 사우디 아라비아 상업 은행 지점들을 폐쇄하였다. 10월 12일에는 예멘에서의 미국 회사들의 석유 채굴 사업을 중지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963년 4월 13일 대통령은 예멘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헌법(림시)의 실시를 선포하였다. 헌법에는 예멘 아랍 공화국을 《아랍 민족의 불가분의 일부》로 선포하였으며 회교를 국교로 규정하였다.

【대통령 리사회】 국가의 최고 기관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부문의 모든 정책을 수립한다. 의원수는 24명이며 의장은 대통령이 겸임한다. 1963년 4월 18일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대통령】 아브둘라 살랄 (1962년 9월 28일 취임)

【집행 리사회】 법률 및 조례, 예산, 경제 계획 등을 작성하며 대통령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정부】 1962년 10월 31일 구성되였다.

수상 아브둘라 살랄, 부수상 겸 외무상 아브델 라흐만 알 베이다니

경제, 사회 주민의 95% 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한다.

총 경지 면적은 500만~550만 헥타이나 군사 정변 전에 대부분의 토지는 왕족, 추장 및 지주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었다. 혁명 후 정부는 왕실 가족 및 그의 충복들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였다.

주요 농작물은 수수, 보리, 옥수수, 커피, 면화, 과실, 담배 등이다. 알곡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수는 년 평균 약 90~120만톤 생산된다. 이외에 야자, 종려 등도 재배된다. 커피의 년 생산량은 약 4,200톤, 면화는 2,000톤 내외에 달한다. 주요 가축으로는 면양, 염소, 락타 등이 있다.

공업은 극히 미약하다. 전기는 몇개 도시에서만 디젤 발전기에 의하여 전등용, 방송용으로 공급된다.

금, 은, 저탄, 망간, 철, 연, 흑연, 석유, 석탄, 류황, 석회석 등 자원이 있으나 아직 광범히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현대적 공장으로는 소규모의 탄약 공장, 제분 공장, 방직 공장, 비료 공장 등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수공업이 비교적 발전되였다.

운수 수단으로는 락타가 위주로 되고 있다.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호데이다 항구가 건설되였고 중국의 원조에 의하여 사나와 호데이다 간의 도로가 건설되였다.

수출품은 커피, 피혁, 면화 등이다.

군사 정변 이전에 예멘에는 자격을 가진 예멘인 의사가 1명도 없었으며 교원들의 대부분은 초등 교육 밖에 받지 못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1개의 중학교와 4개의 초급 학교가 있었다. 인구의 약 90%는 문맹자이다. 예멘 정부는 이와 같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육 발전 10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수년간 초등 교육과 교원 양성 사업에 기본적인 주의를 돌리며 비종교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 교육 체계를 창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0월 8일 예멘 정부는 모든 병원에서 무상 치료제를 실시할 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오 만

(오만 회교 교주국 및 마스카트 술탄국)

【면적】 21만 2,400 km²

【인구】 55만명

【수도】 니즈와(오만 회교 교주국 수도, 주민 4,000명)

마스카트 (마스카트 술탄국의 행정 중심지, 주민 5,500명)

【회교 교주】 갈리브 빈 알리

【술탄】 사이드 빈 타이무르

정 치 오만은 18세기 말부터 영국 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되였다.

1913년 오만 내륙 지방 인민들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고 오만 회교 교주국을 수립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때부터 오만에는 두개의 국가 즉 독립적인 오만 회교 교주국과 영국의 괴뢰 국가인 마스카트 추장국으로 분렬되였다.

1951년 12월 영국이 강요한 불평등 조약에 의하여 마스카트 추장국에서의 실권을 영국 정치 주재관이 장악하게 되였다. 1955년에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마스카트 추장국을 사촉하여 오만 회교 교주국을 반대하는 내란을 도발케 한 후 직접 오만 회교 교주국에 대한 무장 간섭을 개시하였다.

1957년 중기부터 영국 무장 간섭자들과 그의 괴뢰 마스카트를 반대하는 오만 인민들의 무장 투쟁이 시작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오만 인민은 전후 5차에 걸쳐 굴복을 요구한 영국의 회담 제의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1962년 1월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오만의 마시라섬을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고 8천명의 군대를 상륙시켰으며 10월에는 오만에 6천명의 군대를 상륙시켰다.

미제는 오만 인민을 학살하기 위하여 나토의 비행기들과 무기들을 영국에 제공하였다. 1962년에 오만에서는 5만 여 명의 민족군과 1만 여 명의 유격대들이 영국 침략군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었다.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주요 농산물은 야자, 알곡, 채소, 포도 및 대추)과 유목업(락타)이다. 연해들에서는 어업도 하고 있다.

석유 산지들이 발견되였으나 채굴권은 《이라크 석유 회사》의 분회사인 《오만 석유 회사》가 탈취(1937년부터 75년간)하였다. 1958

년에는 미국 석유 회사가 오만의 다파르 지구의 석유 채굴권을 획득하였다. 국내에서는 봉건적 관계가 지배하고 있으며 씨족 제도의 잔재가 유지되고 있다. 대추, 어류 등을 수출한다. 무역 대상국은 인도, 파키스탄, 영국 등이다. 자국 화폐는 없고 인도의 루피를 사용하고 있다.

아 덴

아덴은 여러 섬으로 구성된 영국의 직할 식민지와 두개의 보호령(서부 아덴 보호령, 동부 아덴 보호령)으로 구성되여 있다.

【면적】 약 29만 km^2 (그중 직할 식민지 207 km^2)

【인구】 80만 5,000명 (그중 직할 식민지 15만 5,000명, 1960년)

【행정 중심지】 아덴 (주민 9만 9,000명)

정 치 원래 예멘의 령토였던 아덴은 1839년 영국에 강점되였으며 1937년에 영국의 식민지와 보호령으로 되였다. 식민지들은 영국인 총독의 통치하에 있으며 립법 회의가 있다.

보호령들에는 명목상 추장이 있으나 실권은 영국인 주재관에게 있다. 영 식민주의자들은 아덴에서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되자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 지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1959년 2월 서부 보호령의 일련의 토후국들을 기본으로 하여 《남아라비아 련방》을 조작하였다.

1962년 8월 영국 정부와 아덴 식민지 대표들 간에 아덴 식민지를 《남 아라비아 련방》에 포함시킬 데 대한 협정이 체결되였으며 9월 26일에는 아덴 립법 회의에서 이를 강압 통과시켰다. 1963년 1월 16일 영국과 《남 아라비아 련방》은 아덴 식민지를 《련방》에 병합할 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련방》의 대내외 관계, 국방 등 중요 문제들은 영국인 총독에게 장악되여 있다.

《남 아라비아 련방》을 반대하는 아덴 인민들의 투쟁이 치렬히 전개되였는바 1962년 9월 3일에는 아덴시에서 수천명의 시위가 단행되였으며 9월 24일에는 수백명 인민들의 폭동이 일어났다.

폭동 군중들은 무장 경찰들과 충돌하였으며 련방을 지지하는 통일 국민당 청사에 불을 질렀다.

영국은 아덴을 중동 침략 정책 수행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삼고 여기에 대규모적인 해공군 기지들을 설치하고 있다.

경제, 사회 아덴은 아세아와 구라파를 련결하는 중요한 전략 기지이며 연료를 공급하는 중근동의 가장 큰 항구 중의 하나이다.

아덴항에서는 매달 평균 500척의 배들이 연료를 공급 받고 있다. 1961년에는 2,800만 톤의 각국 선박들이 아덴항을 출입하였다. 아덴항 근처에는 년산 500만 톤 능력을 가진 영국의 큰 정유 공장이 있다.

식민지 주민들은 주로 부두, 원유 정제 공장 등에서 로동하고 있다. 보호령 주민들은 주로 소금 생산, 어업, 축산업 및 농업(기장, 커피, 과수, 면화 재배 등)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는 봉건 령주들과 종족의 귀족들이 장악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6만 1,500 헥타이다.

주민의 반수 이상은 문맹자이다.

토 이 기

(토이기 공화국)

Republic of Turkey

【면적】 77만 6,980 km^2

【인구】 2,941만 8,000 명 (1962년 10월 20일)

【수도】 앙카라(주민 64만 6,000명)

정 치 토이기는 침략적 군사 쁠럭인 나토와 쎈토의 성원국으로서 대내적으로는 파쑈 정책을 실시하며 대외적으로는 미제의 침략 정책에 추종하고 있다.

토이기에는 120 여 개의 미 군사 기지가 있으며 그중 60 개에 달하는 공군 기지에만도 1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1962년에 미국은 토이기에 2개의 《쥬피터》 로케트 기지를 건설하였다.

토이기는 1961~1962 회계 년도에 미국으로부터 1억 8,027만 딸라의 군사 원조를 받았다.

1962년 10월 8일 수상 이노뉴는 감금 중에 있는 450 명의 이전 친미 독재자 멘데레스 정권의 관리들에게 《특사》를 실시할 데 대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8일에는 258명을 석방하였다.

한편 정부는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는바 1962년에 출판 보도 부문 일'군만도 273 명을 공판하였다.

1962년에 이노뉴 정부와 그의 반동 정책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과 항거는 증대되여 반정부 시위들과 파업들이 각지에서 일어났다.

10월 9일 멘데레스 정권의 관리들에게 《특사》를 실시하려는 정부의 반동 조치에 항의하여 이스탐불 종합 대학 학생들은 집회를 열고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같은 날 앙카라시에서도 청년들이 이러한 시위를 단행하였다.

5월 3일 앙카라에서는 7,000명 건설 로동자들이 실업을 반대 항의하여 《수상은 사직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기타 도시들에서도 광업 로동자, 방직, 담배 공장 로동자, 철도 종업원들이 생활 조건 개선을 요구하여 시위와 파업에 참가하였다.

【국회】 국회는 상하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은 187명, 임기는 6년이다. 하원 의원은 450명,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제말 규르셀

【정부】 1962년 6월 25일에 구성

되였다.

수상 이스메트 이노뉴, 외상 페리둔 케말 에르킨

【정당】 **공산당** 1920년 11월에 창건되여 1923년부터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공화 인민당** (집권당) 1923년 창건.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이스메트 이노뉴 **정의당, 주민당, 신 토이기당, 공화 민족 농민당**

경제, 사회 주민의 약 77%는 농업에, 8%는 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가이다. 토지의 80% 이상은 지주, 농업 자본가들이 장악하고 있다. 매년 30만의 농민들이 리농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알곡, 락화생, 사탕 (1961년에 47만 톤 생산), 공예 작물, 과실, 담배 (1961년에 12만 6,300 톤 생산) 등이다.

석탄, 철, 동, 석유, 크롬 (매장량은 자본주의 세계 제 1위) 등이 풍부하며 주요 공업은 채광업이다. 1962년에 석유는 54만 톤 생산되였다. 이 밖에 식료 가공, 담배, 방직 공업 등이 있다. 경제적 난관으로 하여 1961～1962 회계 년도에 이스탐불 (토이기에서 가장 큰 도시) 에서만도 358개의 회사가 파산되였다.

토이기 군대는 50만명이나 되며 나토 성원국 중 세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국가 예산의 50% 이상은 군사비에 충당되고 있는바 1962～1963년도 군사비는 25억 5,600만 리라였다. 토이기는 매년 15억 리라의 외국 부채를 불고 있다.

1962년에 생계비는 1938년에 비하여 10 배로 폭등하였다. 1962 년도에 실업자는 400만 명에 달하였으며 주민의 83%는 반 기아 상태에 있었다.

1962년에 토이기에서의 미군 만행 건수는 500 여 건에 달하며 교통 사고는 1만 건 발생하여 1,822 명이 죽었다. 등록된 문둥병 환자만도 2만명, 결핵 환자는 60만명에 달한다. 1만 2,588 개소의 주민 지대에는 학교란 전혀 없고 미취학 아동 수는 113만 5,000 명에 달하고 있다. 주민의 70% 이상이 문맹자이다.

싸이프러스

(싸이프러스 공화국)

Republic of Cyprus

【면적】 9,250 km²

【인구】 58만 1,000 명 (1961년) 그중 희랍족 80%, 토이기족 18%이다.

【수도】 니코시아(주민 8만 6,300 명)

정 치 1961년 8월 16일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였다. 1959년 2월 조인된 《쮸리히 협정》에 의하여 싸이프러스는 희랍, 토이기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기로 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희랍과 토이기 군대가 독립 직전에 싸이프러스에 진주하였다.

1961년 3월 13일 싸이프러스는 영 《련방》에 가입하였다. 영국은 1960년 7월 1일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싸이프러스에 주권을 가진 99평방 마일에 달하는 군사 기지와 30 개의 지구를 관리하고 있으며 1962년에 싸이프러스에 핵무기를 반입하고 전파 탐지소를 건설하였다.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으로 된다.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희랍계 주민 중에서, 부대통령은 토이기계 주민 중에서 선출된다.

대통령 마카리오스 대주교 (1960년 8월 16일 취임)

【의회】 의원수는 50명 (희랍계 35명, 토이기 계 15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현 의회는 1960년 7월에 선거되였다.

【정부】 대통령과 부대통령이 행정권을 행사한다. 내각 성원은 희랍계 7 명, 토이기계 3명으로 구성된다.

【정당】 **로동 인민 진보당** 전신은 1926년에 설립된 공산당이다. 1941년에 현명으로 개칭. 싸이프러스의 완전 독립과 외국 군사기지의 철폐를 요구하여 투쟁한다. 총비서 파파이아노우 **애국 전선** 부르죠아지와 교회의 리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지도자 마카리오스 **민족 련맹, 민주 련맹, 전 싸이프러스 로동자 동맹** (세계 직련 가입), **통일 민주 청년 조직**.

경제, 사회 주민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나 대부분이 고농이다. 전국의 경지 면적은 40만 4,680 헥타이며 주요 농산물은 밀, 면화, 보리, 귀밀, 포도, 귤 등이다. 주요 지하 자원은 크롬, 석, 동, 석면 등이다. 광석은 주로 서구라파 국가들에 수출된다.

구라파주

쏘 련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면적】 2,240만 3,000 km^2

【인구】 2억 2,300만 명(1963년 1월 1일 현재)

【수도】 모쓰크바 (주민 629만 6,000명, 1962년 1월 1일)

정 치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 (1917년)이 승리한 후 1922년 12월 30일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이 형성되였다. 현재 이에는 15 개의 가맹 공화국, 20개의 자치 공화국, 8개의 자치주가 있다. 쏘련 헌법은 1936년 12월 5일에 채택되였다.

【쏘련 최고 쏘베트】 련맹 쏘베트와 민족 쏘베트로 구성되여 있으며 임기는 각각 4년이다. 현 최고 쏘베트는 제 6기로서 1962년 3월 18일에 선거되였다. 련맹 쏘베트 대의원은 791명, 민족 쏘베트 대의원은 652명이다.

상임 위원회 위원장 엘. 이. 브레쥬네브

련맹 쏘베트 의장 이. 웨. 스삐리도노브

민족 쏘베트 의장 야. 웨. 빠이웨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4월 25일 구성되였고 동년 12월과 1963년 3월에 일부 변동되였다.

수상 엔. 에쓰. 흐루쑈브

제 1 부수상 아. 엔. 꼬씨긴, 아. 이. 미꼬얀, 데. 에프. 우쓰찌노브

부수상 웨. 에. 딤쉬쯔, 까. 엔. 루드네브, 데. 에쓰. 뽈랸쓰끼, 아. 엔. 쉘레삔, 뻬. 엔. 로마꼬, 이. 떼. 노비꼬브, 엠. 아. 레쎄치꼬, 엘. 웨. 쓰미르노브

대외 무역상 엔. 에쓰. 빠똘리체브

외무상 아. 아. 그로미꼬

국방상 에르. 야. 말리놉쓰끼

인민 경제 최고 쏘베트 위원장 데. 에프. 우쓰찌노브(겸임)

인민 경제 쏘베트 위원장 웨. 에. 딤쉬쯔(겸임)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뻬. 엔. 로마꼬(겸임)

당 및 국가 검열 위원회 위원장 아. 엔. 쉘레삔

국가 대외 경제 련락 위원회 위원장 에쓰. 아. 쓰까치꼬브

국가 대외 문화 련락 위원회 위원장 에쓰. 까. 로마노브쓰끼

국가 안전 위원회 위원장 웨. 에. 쎄미쟈쓰뜨느이

【정당, 사회 단체】 **쏘련 공산당** 1903년에 창건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수 971만 여명(1961년 10월 1일 현재)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위원 엘. 이. 브레쥬네브, 게. 이. 워로노브, 에프. 에르. 꼬즐로브, 아. 엔. 꼬씨긴, 아. 뻬. 끼릴렌꼬, 오. 웨. 꾸우씨넨, 아. 이. 미꼬얀, 엔. 웨. 뽀드고르느이, 데. 에쓰. 뽈랸쓰끼, 엠. 아. 쑤쓸로브, 엔. 에쓰. 흐루쑈브, 엔. 엠. 슈웨르니크

후보 위원 웨. 웨. 그리쉰, 샤. 에르. 라쉬도브, 까. 떼. 마주로브, 웨. 뻬. 므쟈바나제, 웨. 웨. 쉐르비쯔끼, 엘. 엔. 에프레모브

중앙 위원회 비서국 성원 엔. 에쓰. 흐루쑈브(제1 비서), 에프. 에르. 꼬즐로브, 뻬. 엔. 제미체브, 엘. 에프. 일리이쵸브, 오. 웨. 꾸우씨넨, 베. 엔. 뽀노마료브, 이. 웨. 쓰삐리도노브, 엠. 아. 쑤쓸로브, 아. 엔. 쉘레삔, 아. 뻬. 루다꼬브, 웨. 이. 뽈랴꼬브, 유. 웨. 안드로뽀브, 웨. 엔. 찌또브

쏘련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웨. 웨. 그리쉰 **레닌 공산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에쓰. 빠. 빠블로브 **쏘련 청년 단체 위원회** 위원장 뻬. 엔. 레쉬또브 **쏘련 녀성 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뽀바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협회 련맹** 리사회 상무 위원회 위원장 엔. 웨. 뽀뽀바 **전 련맹 정치 및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위원장 니꼴라이 쎄묘노브 **쏘련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엔. 에쓰 찌호노브 **쏘련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위원회** 위원장 엠. 뜨루쑨-자제 **작가 동맹** 제 1비서 까. 페진 **쏘련 기자 동맹** 위원장 뻬. 아. 싸쥬꼬브 **쏘련 적십자 및 적반월 협회 련맹** 집행 위원회 위원장 게. 아. 미쩨레브 **쏘조 친선 협회** 위원장 엔. 엔. 오르가노브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3월 18일 쏘련 최고 쏘베트 제 6기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유권자의 99.95%가 참가하였으며 찬성 투표률은 련맹 쏘베트 대의원 선거에서 99.47%, 민족 쏘베트 대의원 선거에서 99.60%였다.

4월 23~26일 최고 쏘베트 제 6기 제 1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를 선거하고 내각을 구성하였다. 회의에서는 새 헌법 초안 작성 위원회가 구성되였다.

12 월 10~13일에 진행된 최고 쏘베트 제 6기 제 2차 회의에서는 1963년도 인민 경제 계획과 국가 예산 문제 및 현 국제 정세와 쏘련의 대외 정책에 관한 문제가 심의되였다.

3월 5~9일에 진행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농촌 경리를 개선하기 위한 당의 과업》에 관한 문제가 토의되였으며 4월 19일에는 꼴호즈와 쏩호즈의 생산 발전에서 농학자 및 기타 전문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당 및 내각 공동 결정이 채택되였다.

11월 19~23일에 있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쏘련의 경제 발전과 인민 경제에 대한 당의 지도》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는 지역적 원칙에 의하여 조직된 당 기관들을 중앙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생산적 원칙에 의하여 개편하기로 하고 당 중앙 위원회에 공업 및 건설 지도국과 농업 지도국을 설

치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공업과 농업에 대한 당적 지도가 완전히 별개의 당 위원회들에 의하여 실현되게 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당중앙 검열 위원회와 내각의 국가 검열 위원회를 폐지하고 단일한 당—국가 검열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17일 흐루쑈브를 비롯한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이 쏘련 문학 예술 활동가들과 현 시기 쏘련 문학 예술의 동향과 과업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담화하였다.

8월 11일과 12일에 우주 비행선 《워쓰또크 3 호》와 《워쓰또크 4 호》가 발사되였다.

두 비행선은 집단적 우주 비행을 성과적으로 수행(3호는 지구 주위를 64 회, 4 호는 48 회 이상 공전)하고 8월 15일 예정 지점에 착륙하였다. 우주 비행선은 쏘련 우주 비행가 니꼴라예브와 뽀뽀비치가 각각 조종하였다.

대기 상층부와 우주 공간의 물리학의 연구를 위하여 3월 16일 ~12월 23일까지의 기간에 쏘련은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 1호부터 12호까지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였다.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태평양 수역에로 새로운 종류의 다계단 운반 로케트의 시험 발사가 진행되였으며 11월 1일에는 처음으로 화성 방향으로 우주 로케트 《마르쓰 1호》가 발사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1962년 11월 29일~12월 5일간에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부수상인 김 광협 동지를 단장으로 한 우리 나라 군사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7월 중순 쏘련 최고 쏘베트 량원 의장은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6월 21일) 서한을 지지하여 회답 서한을 우리 나라에 보내왔다.

1962년에 조쏘 량국 간에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에 관한 의정서(2월 26일), 조쏘 량국 간의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 (5월 7일), 조쏘 량국 과학원 간의 1962년도 과학 협조 계획서(7월 27일), 조쏘 친선 협회와 쏘련 대외 친선 및 문화 련락 협회, 쏘조 친선 협회 간에 1962년도 문화 협조 계획서(5월 23일)가 조인되였다.

6월에는 모쓰크바에서, 10월에는 평양에서 조쏘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12, 13 차 회의가 각각 진행되였다.

8월에는 조선 인민군 협주단이 쏘련을 방문하고 순회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쏘련 군대 《붉은 기》 협주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순회 공연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5월 14~20일 흐루쑈브를 단장으로 한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불가리아를, 6월 18~25일에는 루마니아를 방문하였다.

2월 26~28일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는 독일 문제, 국제 문제, 량국 간의 관계 문제 및 경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8월 28일 얄타에서 흐루쑈브와 울브리히트와의 회담에서는 국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걸쳐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제 1 비서 안또닌 노보뜨느이(10월 29~31일), 불가리야 공산당 제 1 비서 또도르 집꼬브(11월 2~3일) 파란 통일 로동당 제 1비서 고물까(11월 3~4일), 웽그리야 사회로동당 제 1 비서 까다르 야노쉬(11월 7~9일)가 각각 쏘련을 방문하고 흐루쑈브와 회담하였다.

1962년에 쏘련 공산당 대표단이 월남 민주 공화국(2월), 웽그리야(4월), 체코슬로바키야(5월), 불가리야(9월), 파란(1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10월)을 각각 방문하였다.

8월 27일~9월 2일 큐바 통일 혁명 조직 전국 지도부 성원이며 공업상인 게바라가 쏘련을 방문하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는 쏘련이 큐바에 금속공장 건설을 원조하며 군사 원조를 제공할 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쏘련 정부 지도자들이 기네아, 가나, 말리, 모로코(1월 5~22일)와 인도네시아 및 인도 (7월 20~25일)를 각각 방문하였다.

말리 공화국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5월), 세네갈 공화국 수상 마마두 디아 (6월), 남부 월남 민족 해방 전선 대표단(7~8월)이 쏘련을 방문하고 각각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8월 25일 쏘련 정부는 중립과 령토 완정을 위한 국제 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의 제의를 지지하였다.

7월 25일 쏘련 내각 제 1 부수상 미꼬얀이 네루와 회담하고 중인 국경 문제와 인도에 대한 쏘련의 경제 원조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인도 국방성 대표단이 쏘련의 초음속 제트 비행기 구입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쏘련을 방문하였다. 쏘련 정부는 1955년부터 1963년 4월까지 50억 루피에 달하는 원조를 인도에 주기로 약속하였다. 1962년에 쏘련은 인도에 군용 비행기를 공급하였으며 인도의 군용 비행기 제작 공장 건설을 방조하여 주기로 하였다.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9월 11일 쏘련 농업상 뻬쎈을 단장으로 하는 쏘련 농업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3월 8일에는 워싱톤에서 쏘련과 미국간에 1962~1963 년간 과학, 기술, 교육,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9월 5일 쏘련 외무성은 남화태에 대한 미국 간첩 비행기 《유—2》의 침범 행위에 항의하는 각서를 주쏘 미국 대사관에 전달하였다.

9월 24일～10월 4일에는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 위원장 브레쥬네브, 4 월 16～21 일에는 쏘련 외무상 그로믜꼬가 유고슬라비야를 방문하였고 유고슬라비야 련방 인민 회의 대표단 (6～7월), 경제 대표단(7월)과 찌또(12월 4～21일)가 쏘련을 방문하였다.

《카리브 위기》문제… 10월 22일 미제가 큐바에 대한 봉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쏘련 정부는 10월2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6일 흐루쑈브는 큐바로 항행하고 있는 쏘련 선박들에 미제가 선포한 차단 지역에 들어 가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 10월 28일 흐루쑈브는 미국 대통령 케네디에게 보낸 서한에서 쏘련 정부가 큐바에서 무기 설치장 건설을 중지하며 미국이 《공격적》이라고 간주하는 무기를 철수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통고하고 이를 유엔 대표가 확인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후 쏘련은 큐바로부터 전략적 로케트와 《일—28》형 폭격기를 철수하였다. 11월 2～26일 미꼬얀이 큐바 카스트로 수상과 회담하기 위하여 큐바에 체류하였다.(국제 정세 개관 참조)

독일 문제…1962년 초부터 쏘미 간에는 독일 문제와 관련하여 외무상 그로믜꼬와 주쏘 미국 대사 톰슨, 흐루쑈브 수상과 톰슨, 미 국무 장관 러스크와 주미 쏘련 대사 도브릐닌, 그로믜꼬와 러스크, 그로믜꼬와 케네디 간에 수차의 회담들이 진행되였다.

8월 22일 쏘련 국방성은 쏘련 정부 결정에 준하여 베를린 주둔 위수 사령부를 페지할 데 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1962년에 쏘련은 알제리아(3월), 다호메(6월 5일), 세네갈(6월 15일), 부룬디(10월 1일), 우간다(10월 18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리하여 쏘련이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나라는 84 개 국에 달하였다.

경 제

쏘련은 철, 망간, 석탄, 원유, 동, 연, 아연, 니켈, 보키사이트, 탕그스텐, 운모, 카리염 등의 탐사된 매장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쏘련의 철 매장량은 383억 톤(1958년 말)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의 매장량과 같으며 미국의 매장량의 11 배에 달한다. 석탄 매장량은 세계 매장량의 약 57%인 8만 6, 690억 톤 (1959년 초)이며 수력 자원은 세계 수력 자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 면적은 10억 헥타, 목재 자원은 500 억 립방메터로서 세계 산림 자원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5억 헥타로 보며 주요 작물은 밀, 옥수수, 감자, 콩, 해바라기, 사탕무우, 면화, 대마 등이다.

1962년에 로동자, 사무원 수는 6,840만 명에 달하였다.

【공업】 1962년에 공업 제품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총체적으로 9.5%,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10% 이상, 소비재 생산은 7% 각각 증가되였다.

공업 생산 장성 속도

	7개년 계획 통제 수'자에 예견된 것	실제 달성한 것
1958	100	100
1959	107.7	111.4
1960	117	122.1
1961	127	133.3
1962	139	145

1961년에 비하여 1962년에 흑색 및 유색 금속 공업은 9%, 연료 및 전력 공업은 8%,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은 15%, 화학 공업은 15%, 건재 공업은 9%, 목재, 제지, 목재 가공 공업은 5%, 경공업 및 문화 생활 용품 공업은 4%, 식료품 공업은 9% 증가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0	1961	1962
전력(억kwH)	2 922.7	3 270	3 690
석탄(100만t)	513	…	517
원유(100만t)	147.9	166	186
가스 (100만 m^3)	45 303	60 900	75 200
선철 (1,000t)	46 757	50 900	55 300
강철(〃)	65 293	70 700	76 300
압연품(〃)	50 956	55 200	59 200
광물성 비료 (1,000t)	13 867	15 300	17 300
금속 절삭 기대 (1,000대)	155.6	164	176
자동차(〃)	523.6	555	578
뜨락또르(〃)	238.5	264	287
세멘트 (1,000t)	45 520	50 900	57 300
종이 (〃)	24 208	2 600	2 800
면직물 (100만m^2)	4 838	4 900	4 900
모직물(〃)	438.5	455	469
견직물(〃)	675.2	683	787
가죽신발 (1 00만켤레)	419.3	442	456
사탕가루 (1,000t)	6 363	8 400	7 800
동물성기름(〃)	737	894	940
식물성 기름 (〃)	1 586	1 700	2 000

1962년에 약 4천 종의 새로운 주요 기계, 설비, 기구들과 생산의 자동화를 위한 약 1,300 종의 각종 새로운 설비들이 설계 제작되였으며 약 350 여 종의 낡은 기계, 설비, 기구들이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였다.

1962년에 약 420만 건의 발명 및 창의 고안과 합리화 제안이 제기되였으며 그중 270 여만건이 생산에 도입됨으로써 국가에 약 16억 루블의 리익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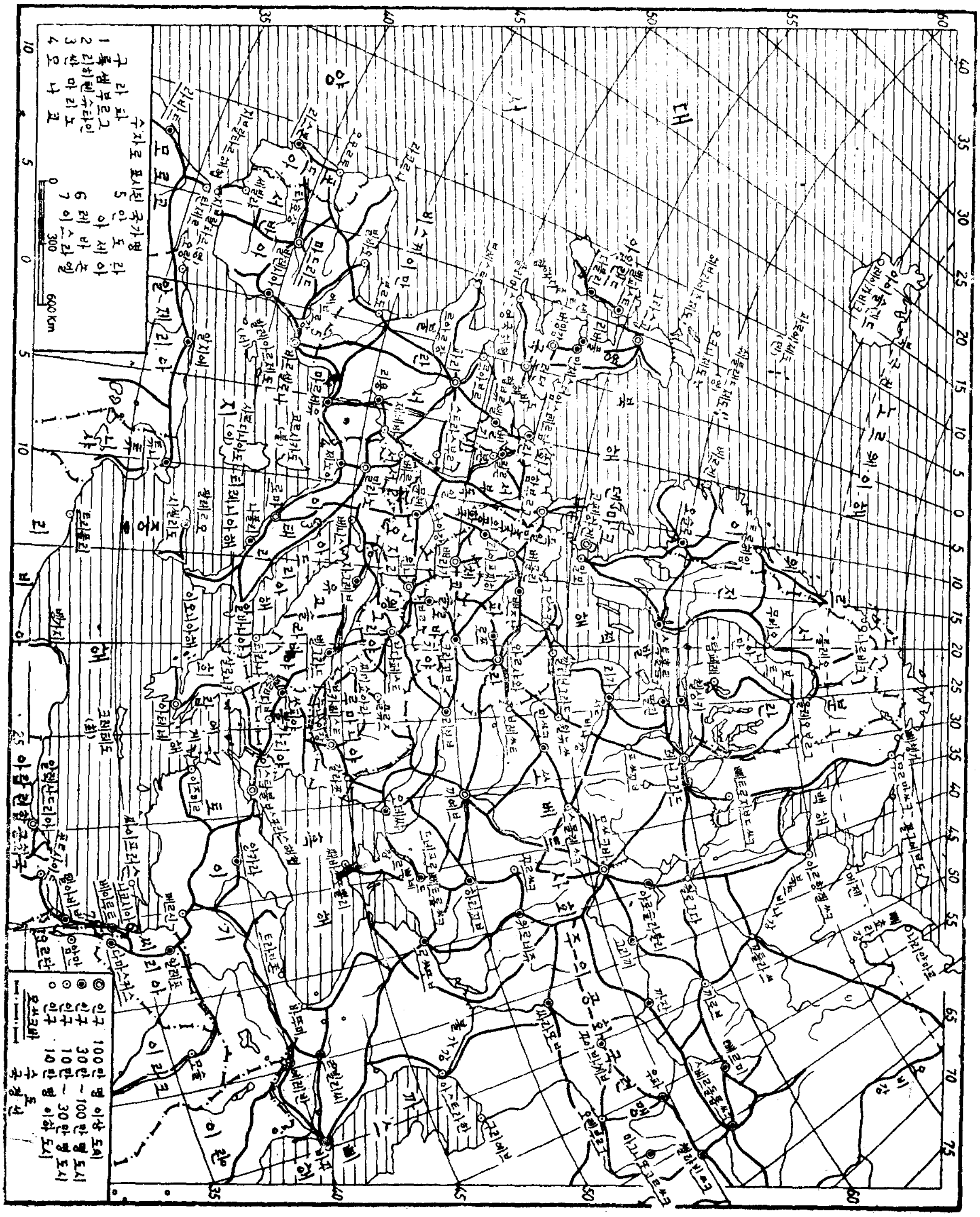
쏘련에서는 전국적으로 270만 명 이상의 로동자, 기사, 기수들이 생산 합리화 및 발명 운동에 직접 참가하여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59년부터 7 개년 계획 수행에 착수한 이후 4년 동안에 기술적 진보에 이러저러한 형태로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수는 약 60% 증가하였다.

7 개년 계획의 첫 4년 동안에 발명 및 합리화안의 도입으로 얻은 절약액은 이미 60억 루블 이상에 달하였다.

1959～1962년 기간에 쏘련에서는 3,700 여개의 새로운 대규모 공업 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며 그 결과 공업에서는 전후 여러 차례의 5 개년 계획 기간에 조성된 총 생산 능력을 릉가하는 새로운 생산 능력이 조성되였다.

1962년 한 해 동안에만 하여도 약 800 개의 대규모 공업 기업소

구라파주



1 룩셈부르그
2 리히텐슈타인
3 싼마리노
4 모나코
5 안도라
6 레바논
7 이스라엘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인구 30만~100만 명 도시
인구 10만~30만 명 도시
인구 10만 명 이하 도시

들이 조업을 개시하였다. 그 중에는 1년에 440 만 톤의 선철을 생산할 수 있는 용광로 4 기와 평로 8 기 그리고 4 개의 압연기가 들어 있다.

쏘련에서는 1928년부터 1937년까지의 10 년 간에 수행한 것과 같은 량의 기본 건설 작업을 단 1 주일 간에 수행하고 있다.

1962년에 공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도에 비하여 6% 장성되였다.

【농촌 경리】 1962년에 농작물 총 파종 면적은 2억 1,600 만 헥타로서 전년에 비하여 1,140만 헥타가 증가되였다. 그중 알곡 및 두과 작물의 파종 면적은 1억 3,590만 헥타였다.

1962년 초에 쏘련의 농촌 경리 부문에는 약 220만 대의 뜨락또르(15 마력으로 환산하여)가 있었다.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만톤)

	1961	1962
알곡 그중	138.0	147.5
밀	66.5	70.6
옥수수	24.3	23.3
두류 그중	4.0	7.6
완두	2.2	5.3
면화	4.5	4.3
해바라기	4.8	4.8
사탕무우	50.9	47.2
감자	84.3	68.8

1962년에 전년에 비하여 대각 가축 두수는 470만 두(그중 젖소는 160만 두), 돼지는 300만 두, 면양 및 염소는 180만 두 증가되였다.

가축 두수(1963년 1월 1일 현재, 단위 100만 두)

	총두수	그중 꼴호즈, 쏩호즈 및 기타 국영 경리
대각가축 그중	86.8	62.4
젖소	37.9	21.8
돼지	69.7	53.6
면양과염소 그중	146.3	111.0
면양	139.7	109.9

【대외 무역】 1962년도 대외 무역 총액은 110억 8천만 루블에 달하였는바 이는 전년에 비하여 111.5%의 장성으로 된다. 1961년에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액은 대외 무역 총액의 66.4%를 차지하였다.

【재정】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2년에 수입은 847억 루블, 지출은 827억 루블로서 수입 초과액은 20억 루블이였다.

1962년에 사회주의 경리로부터의 예산 수입액은 745억 루블이였다.

교육, 문화

1962년에 로동자, 사무원 수는 260 만 명이나 증가하여 년평균 6,840만 명에 달하였다. 생산 부문에 배치된 로동자 및 기술자, 전문가들의 수는 년간에 10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1962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보통 교육 학교는 24%, 학년전 아동 교육 기관은 33% 증가되였다.

1932년에 전국적으로 8년제 의무 교육이 실시되는 한편 10년제 학교를 11년제 생산 교육 학교로 개편하는 사업이 계속되였다.

1962년에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6,000만 명이 각종 교육 체계에 망라되였는바 보통 교육 학교 학생 수는 4,200만명 (전년도에 비하여 300만명 증가)이였고 대학 및 중등 전문 교육 기관 학생 수는 560만 명이였다. 그중 대학생 수는 290만명(전년도에 비하여 300만명 증가)이였다.

1962년에 80 여만 명이 중등 학교를 졸업하였는바 그중 절반 이상은 생산에서 유리됨이 없이 로동자 및 농촌 청년 학교들에서 중등 교육을 받았다.

1962년에 77만 명의 각종 전문가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 진출하였는바 그 중 31만 9,000 명은 고등 교육을 끝마친 사람들이며 12만 명은 기사들이다.

1962년에 생산에서 유리됨이 없이 공부하는 체계에 망라된 학생 수는 약 700만 명이였는데 그중 약 400만 명은 로동자 및 농촌 청년 학교에서, 300만 명은 고등 및 중등 전문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였다.

1932년말 현재 과학 기관들과 고등 교육 기관들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 일'군 수는 45만 명에 달하였다.

1962년에 영사기 수는 11만 9,000 대에 달함으로써 전년에 비하여 5,000 대가 증가하였으며 관람자 수는 1억 명이 증가하여 약 40억 명에 달하였다.

【출판】 **통신**-따쓰 통신, 노보쓰찌 보도사

주요 신문—쁘라우다 (쏘련 공산당 기관지), 이즈베쓰찌야(정부 기관지), 뜨루드(직맹 기관지), 쏘베트쓰까야 로씨야(쏘련 공산당 로련국 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레닌 공청 기관지), 크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성 기관지), 리쩨라뚜르나야 가제따(쏘련 작가 동맹 기관지), 에꼬노미체쓰까야 가제따(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주간지), 모쓰꼬 뉴쓰, 쏘베트쓰까야 꿀뚜라, 쩰쓰꼬에 호쟈이쓰또보

주요 잡지—공산당원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리론 잡지), 당 생활(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당 생활 리론 잡지), 력사 제 문제, 경제 제 문제, 철학 제 문제, 언어학 제 문제, 문학 제 문제, 세계 경제와 국제 관계, 국제 생활, 신시대, 10월, 쏘련 녀성, 신 세계, 별

파 란

(파란 인민 공화국)

Poland People's Republic

【면적】 31만 1,730 km²

【인구】 3,048만명(1962년말 현재)

【수도】 와르샤와(주민 118만 9,000명, 1963년 1월 1일 현재)

정 치

파란은 1944년 7월 22일에 히틀러 강점에서 해방되였다. (이날이 파란 재생의 날이다) 해방과 함께 파란 민족 위원회가 조직되였는데 이 위원회는 1944년 12월

31일에 림시 정부로 재조직되였다. 현행 헌법은 1952년 7월 22일 립법 회의 (쎄임)에서 채택되였다.

【쎄임】 현 쎄임은 1961년 4월 16일에 선거되였다. 대의원 수는 460 명이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의 장 체슬라브 빈꼐흐

국가 쏘베트 위원장 알렉싼드르 자와드쓰끼

【내각】 현 내각은 1961년 5월 18일에 구성되였으며 그후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수상 유제프 찌란께비치

부수상 스쩨판 이그나르, 뾰뜨르 야로쉐비치, 제논 노바끄, 에우게뉴스 쉬르, 율리안 또까르쓰끼, 지그문드 와뇨우까, 프란찌쉐크 와니올까

국가 직속 계획 위원회 위원장 쓰쩨판 옌드리흡쓰끼

민족 보위상 마리안 쓰삐할쓰끼

내무상 블라디쓸라브 위하

외무상 아담 라빠쯔끼

대외 무역상 위똘드 뜨름뻐친쓰끼

【정당, 사회 단체】 통일 로동당 1948년 12월에 로동당과 사회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수 139만 7,000명 (1962년 말 현재)

정치국 위원 유제프 찌란께비치, 에드와르드 게레끄, 블라지쓸라브 고물까, 쓰쩨판 옌드리흡쓰끼, 제논 끌리슈꼬, 이그나찌 로가-쏘빈쓰끼, 에드와르드 오하브, 아담 라빠쯔끼, 마리안 쓰삐할쓰끼, 알렉싼드르 자와드쓰끼

비서국 성원 블라지쓸라브 고물까 (제 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위똘드 야로씬쓰끼, 제논 끌리슈꼬, 블라지쓸라브 마뜨빈, 에드와르드 오하브, 리샤르드 스첼레쯔끼, 블레슬라브 야쓔크, 아르뚜르 쓰따레비치

통일 농민당 총 위원회 위원장 쓰쩨판 이그나르 민주당 위원장 체슬라브 빈꼐흐 인민 통일 전선 전국 위원회 위원장 알렉싼드르 자와드쓰끼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이그나찌 로가-쏘빈쓰끼 사회주의 청년 동맹 제 1비서 마리안 렌께 농촌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유.레이흐마 녀성 련맹 위원장 알리찌야 무쌀로바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쓰따니슬라브 꿀친쓰끼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4월 16~18일 파란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10 차 전원 회의는 《기계 공업에서 4차 전원 회의 결정을 실현할 데 대하여》를, 12월 17~18일에 있은 제 11 차 전원 회의에서는 《고등 교육과 과학 연구 사업에서의 기본 과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각각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1962년 8월 쎄임 의장은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지지하여 최고 인민 회의 최 원택 의장에게 회답 서한을 보내 왔으며 12월 유엔 제 17차 총회 정치 위원회 회의에서 파란 대표는 조선 문제 토의 시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를 참가시킬 데 대한 쏘련의 제안에 찬성하였다.

11월 26일~12월 1일에 진행된 파란 직맹 제 5 차 대회에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4월 11일 평양에서 우리 나라는 파란과 1962년도 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계획서에 조인하였으며 8월 13일에는 조선 파란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4 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0월에는 파란 과학 기술 견학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관계 … 1962년 11월 4일 고물까가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10월 16~20일에는 고물까를 단장으로 하는 파란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하고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한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6~15일 민족 보위상 마리안 쓰삐할쓰끼를 단장으로 하는 파란 인민군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파란 인민 공화국 외무상 아담 라빠쯔끼가 6월 11~16일에 큐바를 방문하였다. 10월 25일 파란 인민 공화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조성된 카리브 위기와 관련하여 미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영웅적 큐바 인민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였다.

1962년에 루마니야 로동당 대표단 (10월), 독일 민족 보위상 호프만을 단장으로 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군사 대표단 (6월)이 파란을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1962년에 총비서 죤 골랜을 단장으로 하는 영국 공산당 대표단 (9월), 다호메 부대통령 (6월), 브라질 외상 (5월 14~17일), 세네갈 수상 마마두 디아 (6월 15~18일)가 각각 파란을 방문하였다. 파란 외무상 아담 라빠쯔끼가 11월 19~24일에 유고슬라비야를 방문하였다.

파란은 1962년에 알제리아 (5월), 라오스 (6월), 나이제리아(5월), 소말리(7월), 캄보쟈(7월), 씨에라 레오네(11월), 파키스탄 (12월)과 외교 관계를 새로 설정하였다.

경 제

주요 자원은 석탄, 갈탄, 니탄, 원유, 천연 가스, 철, 아연, 동, 니켈, 류황, 소금, 카리염 등이며 주요 농산물은 맥류, 감자이다. 산림 면적은 국토의 20.5%에 달한다.

파란은 1961년부터 제 5개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바 계획에 의하면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은 52% (년 평균 8.7%), 농업 생산고는 22% (년 평균 4.1%), 국민 소득은 40.6%, 인구 1인당 소비는 23% 장성된다.

1962년에 1,011억 즐로띄가 인민 경제의 사회화된 부문에 투자되였는데 투자 총액의 약 49% (492억 즐로띄)가 공업에 돌려졌다. 1962년에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적 쎅또르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754만 9천 명에 달하였다.

【공업】 1962년에 공업 생산 계획은 100.8%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8.4% 증가되였다. 1962년에 금속 공업은 1961년에 비하여 108.6%, 기계, 전력, 운수 공업은 115.6

%, 화학 및 고무 공업은 115.5 %, 유리 공업은 112.7%, 제지 공업은 106.7%, 방직 공업은 103.2 %로 각각 장성되였다. 1962년에 파란의 조선소들에서는 총 배수량 30만 톤에 달하는 57척의 선박이 건조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37	1960	1962
전력(10억kWH)	3.6	29.3	35.4
석탄(100만t)	36.2	104.4	109.6
선철(〃)	0.8	4.6	5.3
강철(〃)	1.5	6.7	7.7
세멘트(〃)	1.3	6.6	7.5
금속 절삭 기대 (1,000대)	4.2	22.3	24.8
뜨락또르(〃)	—	7.7	12.6
자동차(〃)	23	32.4	38.5
면직물(100만m)	325	665.6	692.9
신발(100만켤레)	—	82.4	93.1

1962년에 파란에서는 도합 369개의 주요 공업 대상들이 늘어났다. 1962년에 원가는 약 0.5% 저하되였다.

【농업】 1962년에 농업 생산은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하여 전년보다 8.5% 감소되였다.

1962년에 파종 면적은 1,520만 헥타였다 (전년도 보다 8만 헥타 축소).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만톤)

	1959	1960	1962
4대 작물(밀, 쌀보리, 귀밀, 보리,)	14.1	15.1	13.4
감자	35.7	37.7	37.8
사탕무우	5.9	10.2	10.1

1962년 6월 현재 대가축 두수는 959만 두, 돼지는 1,361만 7천 두, 양은 325만 1 천 두, 말은 265만 7천 두 있었다.

1962년에 농촌 경리에는 8만 4,500 대의 뜨락또르가 있었으며 1962년 6월 현재 농민 경리의 65.8%, 국영 경리의 92.9%가 전기화되였다. 1962년말 현재 2만 7,900개의 농업 크루쇼크에 106만 3,000 명이 망라되여 있었다. 농업 협동 조합 수는 1962년 말 현재 약 1,600개 있었다. (1961년 말 현재에는 1,889 개)

국영 농장은 전체 농지의 12%에 달하는 240만 헥타를 관할하고 있으며 수매에서 알곡의 약 30%, 유지 작물의 40% 이상, 우유의 약 20%를 차지하였다.

【대외 무역】 1962년에 수출 총액은 66억 즐로띄, 수입 총액은 75억 즐로띄로서 전년에 비하여 수출은 9.5%, 수입은 11.8% 장성하였다.

1962년에 파란은 151개의 나라 및 지역들과 무역을 하였다. 1962년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은 대외 무역 총액의 63.5%인 91억 2,200만 즐로띄 (1961년에는 60.9%)에 달하였다.

교육, 문화

1962~1963 학년도에 초등 학교 학생 수는 511만 7,300 명, 전문 학교 학생 수는 33만 9,400 명, 기술 학교 학생 수는 119만 6,200명, 대학생 수는 18만 8,700명에 달하였다. 대학생들 중 야간 대학생 수는 1만 6,000명이며 통신 대학생 수는 4만 9,500 명이였다. 파란에는 2만 7천명의 과학 일'군들이 있다.

【출판】 통신—파란 통신 (빠쁘)
주요 신문—뜨리부나 류두(통일 로동당 기관지), 젠니크 류도븨 (통일 농민당 기관지), 지제 와르샤븨 (국가 쏘베트 기관지), 글로쓰 빠라찌 (직맹 기관지), 슈딴다르 믈로듸호 (청년 동맹 기관지), 즐네쥬 뮐노스찌(인민군 기관지),
잡지—노웨 드로기 (통일 로동당 정치 리론 월간 잡지), 지제 빠르띠 (통일 로동당 월간 잡지)

체코슬로바키야

(체코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

Czechoslovakia Socialist Republic

【면적】 12만 7,859 km²

【인구】 1,389만 9,000 명(1962년 12월 말 현재) 그중 체코인 963만 7,000 명, 슬로바키야인 426만 2,000명

【수도】 쁘라가 (주민 106만명)

정 치

1945년 5월 9일 체코슬로바키야는 히틀러 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고 동년 7월 민족 전선 정부가 수립되였다. 1960년 7월 11일 민족 회의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국명을 《체코슬로바키야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민족 회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대의원 수는 300 명이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의장 즈데네크 피를링게르

슬로바키야에는 최고 민족 주권 기관인 슬로바키야 민족 회의가 있다. 민족 회의는 국방, 외교 및 대외 무역을 제외한 민족적 혹은 지방적 성격을 띤 문제들에 한하여 립법권을 가지며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 안또닌 노보뜨느이 (1957년 11월 19일 취임)

【정부】 수상 윌리암 쉬로끼

부수상 야로미르 돌란쓰끼, 오따까르 쉬무네크, 류드밀라 야끕쪼바, 얀 삘레르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알로이쓰 인드라

외무상 와쯜라브 다위드

내무상 류보미르 슈뜨로우갈

민족 보위상 보구미르 룸쓰끼

대외 무역상 프란찌쉐크 크라이체르

【정당, 사회 단체】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1921년 5월 14일에 창건되였고 1948년 6월에 사회 민주당과 합당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수 168만 819 명 (1962년 10월 1일 현재)

상무 위원회 위원 까렐 바찔레크, 즈데네크 피르링게르, 윌리우쓰 돌란쓰끼, 이르쥐 겐드리흐, 드라호미르 꼴데르, 요제프 레나르드, 안또닌 노보뜨느이, 오따까르 쉬무네크, 윌리암 쉬로끼

상무 위원회 후보 위원 알렉싼드르 둡체크, 류드밀라 야끕쪼바, 안또닌 까뻬크

비서들 안또닌 노보뜨느이(제 1비서), 이르쥐 겐드리흐, 드라호미르 꼴데르, 울라지미르 꼬우쯔끼, 브로노 꾈

레르, 와쯜라브 쓸라비크

비서국 성원들 이르쥐 겐드리호, 드라호미르 꼴데르, 울라지미르 꼬우쯔끼, 브르노 껠레르, 안또닌 노보뜨느이, 와쯜라브 쓸라비크, 후란찌쉐끄 주뻬까, 안또닌 끄르체크

인민당 위원장 요제프 쁠로이가르 **사회당** 위원장 알로이쓰 네이만 **슬로바키아 부흥당** 위원장 요제프 끼쎌르이 **슬로바키아 자유당** 위원장 옘.자꼬비치 **민족 전선** 15개 정당 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통일 전선 조직이다. 중앙 위원회 위원장 안또닌 노보뜨느이, **혁명 직맹 운동** 중앙 평의회 위원장 프란찌쉐크 주뻬까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위원장 울라지미르 웨드라 **녀성 동맹,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얀 무까르좁쓰끼

【주요 국내 사건】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2월 6일과 7일 량일 간에 걸쳐 1962년도 농촌 경리의 과업, 1962년도 인민 경제 발전 국가 계획, 쏘련 공산당 제 22 차 대회와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11월 전원 회의의 결정 실행 결과와 관련한 정치 깜빠니야 행정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통보들을 토의하였다.

1962년 12월 4~8일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제 12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의 활동과 우리 사회주의 사회의 금후 발전의 주요 방향들에 대하여》라는 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당 중앙 검사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당 중앙 기관들을 선거하였다. 대회에 앞서 진행된 당 중앙 위원회 4월, 7월, 11월 전원 회의들에서는 12차 대회 준비 문제를 토의하였다. 7월 전원 회의에서는 대회에 제출하게 될 두 개의 문헌 《우리의 사회의 사회의 가일층의 발전 전망에 관하여》와 새 규약 초안을 전당적 및 전인민적 토의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1962년에도 체코슬로바키야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으며 중립국 감독 위원회의 성원으로서 계속 자기의 대표를 파견하여 조선 정전의 공고화와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8월 3일 체코슬로바키야 민족 회의 외교 위원회는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토의하고 미군의 남조선 강점을 종식시키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할 데 대한 조선 인민의 정당한 요구를 지지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8월 6일 체코슬로바키야 민족 회의 상무 위원회는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야는 우리 나라와 4월 26일에 1962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4월 11일에는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 8월 21일에는 경제 호상 협조에 관한 협정, 10월 14일에는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7 차 회의 의정서를 조인하였다.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관계…1962년 10월 안또닌 노보뜨느이를 단장으로 하는 당 대표단, 5월에는 민족 회의 대표단, 4월에는 당 견학단(20일간)이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다. 6월 19일 민족 회의 대표단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한편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5월), 쏘련 공산당 대표단(5월), 미꼬얀(1월), 몽고 외무상(6월), 파란 정부 경제 대표단(2월)이 각각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1962년에 아프리카 나라들과의 접촉이 강화되였는바 6월에는 말리 정부 대표단, 케니아, 뉴니샤(4월), 말리(7월)의 국회 대표단들과 다호메와 세네갈(6월), 나이제리아(10월)의 친선 사절단이 체코슬로바키야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체코슬로바키야 정부 무역 대표단이 1월에 말리를, 3월에 나이제리아를, 6월에 기니아를 각각 방문하였고 문화 대표단이 4월에 브라질, 볼리비아, 멕시코를 각각 방문하였다. 민족 회의 대표단이 1월 말에 비르마와 쎄일론을, 7월에 영국을 각각 방문하였고 정부 대표단이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당 대표단이 5월에 이태리를 방문하였다.

1962년에 체코슬로바키야는 라오스(9월), 다호메(6월)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제 자원으로는 석탄, 갈탄, 철, 망간, 흑연, 주석, 동, 우라늄 등이 있으나 풍부하지 못하며 주요 농산물은 맥류, 옥수수이다. 산림 면적은 전 국토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야는 고도로 발전된 공업 국가이다.

제 3 차 5 개년 계획(1961~1965년)의 두번째 해인 1962년에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439억 크로네가 투자되였다. 1962년에 사회주의 쎅또르의 기업소(협동조합 제외) 종업원 수는 전년도보다 3.1% 장성된 515만 4천 명에 달하였다.

【공업】 1962년도 공업 총생산 계획은 98.9%로 수행되였다. 그러나 1962년의 공업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약 6.2%로 장성하였으며 전쟁전 1937년의 4.7배에 달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37	1961	1962
전력(10억kWH)	4.1	27.0	28.7
석탄(100만t)	16.7	26.4	27.2
갈탄(〃)	17.5	62.1	65.2
선철(〃)	1.7	4.97	5.17
강철(〃)	2.3	7.04	7.6
세멘트(〃)	1.3	5.3	5.7
승용차(1,000대)	12.6	58.8	64.3
화물 자동차(〃)	2.0	15.6	15.5
뜨락또르(〃)	0.2	27.8	32.4
면직물(100만m)	377	467	478
견직물(〃)	31.0	73	75
신발(100만켤레)	55	83	85
사탕(1,000t)	…	1 036	928

1962년에 《사회주의 로동 브리가다》 칭호 쟁취 운동에는 8만개의 집단이 궐기하였으며 이에는 88만 6,394 명의 근로자들이 망라

되였다. 1962년에 공업 생산 장성의 52%는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의하여 달성되였다.

1962년에 로동자 1 명당 전력 소비량은 1961년의 1만 1,600 키로왓트시로부터 1만 2,200 키로왓트시로 장성되였다.

【농업】 1962년에 일기 조건의 불리로 해서 농업 생산 계획은 88%로 수행되였고 농업 생산량은 전년도 보다 6% 감소되였다.

1962년에 농촌 경리에는 67억 크로네 (그중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 45억 크로네)가 투자되였다. 농촌 경리의 기술적 토대는 기계화의 새로운 수단들로써 보충되였는바 1만6,000대의 뜨락또르와 2,000 여대의 곡물 꼼바인 및 기타 많은 농기계들이 공급되였다.

1962년에 한 헥타당 밀은 24.3 쩬뜨네르(1쩬뜨네르는 100키로그람), 쌀보리는 20.3쩬뜨네르, 귀밀은 20.1쩬뜨네르, 보리는 25.2 쩬뜨네르 수확되였다. 년간을 통하여 총 면적 5만 7,000헥타의 토지가 개량되였는바 그중 1만 8,000헥타에는 관개 체계가 도입되였다. 1962년 말에 국영 농장과 통일 농업 협동 조합에는 전체 경지의 91.8%가 속해 있었다.

【대외 무역】 1962년에 체코슬로바키야는 110개의 나라들과 무역하였다. 무역 총액은 전년보다 5% 장성되였는바 수출액은 158억 크로네, 수입액은 149억 크로네였다. 1962년 무역 총액에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74.2%(1961년에는 68.3%)를 차지하였다.

1962년도의 수출 총액에서 기계 및 설비의 수출액은 48%(1961년에는 44.6%)였으며 연료, 원료 및 재료의 수입은 수입 총액의 51%(1961년에는 53.8%)를 차지하였다.

【재정】 1962년 예산 수입은 1,233억 2,200만 크로네, 지출은 1, 232억 100만 크로네였다. 수입에서 사회주의적 경리로부터의 수입은 86.8%, 세금 및 기타 수입은 13.2%를 차지하였으며 지출의 86%가 인민 경제와 사회 문화 시책에 배정되였다.

교육, 문화 1962년 말 현재 89만 9, 000명의 전문 및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서 일하였으며 그중 17만 2, 000명은 대학 졸업생들이다. 1962~1963년도에 대학생 수는 12만 4,182명인데 그중 32.3%는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였다.

【출판】 **통신**—체떼까(체코슬로바키야 통신)

신문—루데 쁘라보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기관지), 스보보드네 슬로보(사회당 기관지), 리도바 데모크라찌예 (인민당 기관지), 쁘라우다 (슬로바키야 공산당 기관지), 쁘라쩨(직맹 중앙 평의회 기관지), 믈라다 프론따(청년 동맹 기관지)

잡지—노바 미슬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중앙 위원회 리론 잡지), 쥐보뜨 스뜨라느이(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잡지), 메지나로드늬 지즈니 (체코슬로바키야 정치 및 과학 지식 보급 협회 잡지)

웽그리야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Hungary People's Republic

【면적】 9만 3,030 km²

【인구】 1,007만 1,000명(1963년 1월 1일 현재)

【수도】 부다페스트 (주민 180만 7,299명, 1960년 1월)

정 치 웽그리야는 1945년 4월 4일 히틀러 파시즘의 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9년 8월 18일 국가 회의에서 채택된 헌법에 기초하여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국가 회의】 최고 주권 기관이며 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현 국가 회의는 1963년 2월 24일에 선거되였으며 대의원 수는 340명이다.

외 장 로나이 샨도르

상임 위원회 위원장 도비 이슈트반

【로농 혁명 정부】 현 정부는 1963년 3월 21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까다르 야노쉬

부수상 아삐로 안딸, 페헤르 라이오쉬, 포크 예네, 깔라이 지율라

국무상 묘니흐 페렌쯔

내무상 빠삐 야노쉬

국방상 찌네게 라이오쉬

외무상 뻬쩨르 야노쉬

무역상 인쩨 예네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아이따이 미끌로쉬

【정당, 사회 단체】 **사회 로동당** 1956년 11월 1일에 창건되였다. 전신은 1948년 6월 14일 웽그리야 공산당 (1918년 11월에 창건)과 웽그리야 사회 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당원 수 51만 1, 965명 (1962년 11월 현재, 후보 당원 포함)

정치 위원회 위원 아삐로 안딸, 비쓰꾸 벨라, 페헤르 라이오쉬, 포크 예네, 가슈빠르 샨도르, 까따르 야노쉬, 깔라이 지율라, 꼬모친 졸딴, 묘니흐 페렌쯔, 네메쉬 제쉐, 로나이 샨도르, 쇼모지 미끌로쉬, 씨르마이 이슈트반

후보 위원 아이따이 미끌로쉬, 브르찌오 야노쉬, 찌네게 라이오쉬, 쵸쩨르끼 라이오쉬, 빌꾸 빨, 니예르쉬 레쉐

비서국 성원 까따르 야노쉬 (제 1 비서), 비쓰꾸 벨라, 네메쉬 제쉐, 네메뜨 까로이, 니예르쉬 레쉐, 씨르마이 이슈트반

애국 인민 전선 전국 리사회 위원장 깔라이 지율라 **직업 동맹** 전국 리사회 위원장 쇼모지 미끌로쉬 **공산 청년 동맹** 제 1비서 꼬모친 졸딴 **녀성 전국 리사회** 위원장 에르데이 라쓸로네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11월 20~24일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제 8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까따르 야노쉬의 사업 총화 보고와 중앙 검사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 신소 위원회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당 중앙 위원회 총화 보고, 중앙 검사 위원회 보고, 제 8 차 대회와 관련한 테제 및 당 규약 초안을 승인하였으며 당

중앙 기관들을 새로 선거하였다.

3월 28~30일 웽그리야 사회로동당 중앙 위원회 확대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농촌 경리의 형편 및 당면 과업과 절박한 대외 정책 문제를 토의하였다.

6월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상임 위원회는 의무 교육제를 6년제로부터 10년제로 개편할 데 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1962년 11월에 진행된 웽그리야 사회 로동당 제 8 차 대회에 김 익선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11월 21일 회의에서 축하 연설을 하였다. 7월 26일 국가 회의 외교 위원회는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 서한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웽그리야는 우리 나라와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 협정(3월)을 체결하였으며 문화 교류 계획서(4월)에 조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11월 8~9일 까다르 야노쉬를 비롯한 당 및 정부 지도자들이 쏘련을 방문하고 쏘련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8월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인민 의원 대표단이 웽그리야를 방문하였으며 11월에는 웽그리야 군사 대표단이 불가리야를 방문하였다.

2월에 웽그리야 국가 회의는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규탄하며 월남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2월 웽그리야 국가 회의는 제 2 차 큐바 전국 인민 대회에서 채택된 선언을 지지하는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10월에 웽그리야 정부는 미국 정부의 반 큐바 봉쇄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도발 행위를 즉시 철회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11~12월에 웽그리야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단장 부수상 깔라이 지울라)이 기니아, 가나, 다호메, 말리, 나이제리아, 모로코, 알제리아 등 아프리카의 7 개 나라를 방문하고 이 나라 대표단들과 각각 회담을 가지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웽그리야는 57 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바 1962년에 다호메 (6월), 라오스(9월), 탄가니카 (11월)와 새로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 제

주요 자원은 보키사이트, 석탄, 철, 원유, 망간등이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등이며 국토의 93%는 경지, 목장, 초원, 과수원이다.

웽그리야는 1962년에 제 2 차 5개년 계획의 두번째 해에 들어섰다. 계획 기간에 사회주의 공업 총 생산액은 48~50% 장성할 것인바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51~53%, 소비재 생산은 42~44% 장성하게 된다. 농업 총 생산액은 그 이전 5개년 간의 평균 수준에 비하여 22~23%의 장성을 예견하고 있다. 이 기간에 국민 소득은 36%, 인구 1인당 실질 수입은 16~17% 장성하게 된다.

1962년에 1961년보다 약 8% 증가된 480억 포린트가 기본 건설에 투자되였다.

웽그리야에서 사회주의 경리 형태는 국민 소득의 96%, 공업 총 생산액의 98%, 농업에서는 경지의 96.4%를 차지하고 있다.

제 2 차 5개년 계획의 첫 2년 간에 국민 소득은 14%, 공업 생산은 약 20% 장성되였다. 공업 생산 장성의 약 3분의 2는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의하여 달성되였다.

【공업】 1962년에 공업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9% 장성되였다. 이리하여 제 2 차 5개년 계획에서 1962년에 계획하였던 것 보다 2% 더 장성하였으며 전전 1938년 수준을 5.8 배로 릉가하였다.

1962년에 1961년에 비하여 중공업 (채굴 공업 제외)은 10%, 경공업은 5%, 식료품 공업은 8% 장성되였다. 화학 공업은 16%, 기계 제작 공업은 11% 장성되였다. 특히 공작 기계, 기구 제작 및 통신 기계 생산이 급속히 장성(24%)되였으며 이 3개 부문이 기계 제작 공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1년의 20%로부터 1962년에는 22%로 제고되였다.

1962년도의 공업 총 생산에서 중공업의 비중은 1961년의 66.6%로부터 67.3%로, 경공업은 24%로부터 23.5%로, 식료품 공업은 9.4%로부터 9.2%로 변화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1	1962
각종 탄(100만톤)	28.2	28.6
보키사이트 (〃)	1.4	1.5
전 력(10억 kWH)	8.4	9.1
선 철(1,000톤)	1 306	1 381
강 철 (〃)	2 053	2 332
압연 강재(〃)	1 446	1 610
알루미늄 (〃)	51	53
선 반 (대)	2 685	2 835
화학 비료(1,000톤)	657.3	776.7
세멘트(100만톤)	1.6	1.7
면직물(100만m²)	256.1	272.5
모직물 (〃)	29.8	30.2

1962년에 국가 공업 부문의 종업원 수는 119만 6,000 명이였다.

【농업】 1961년에 사회주의 개조가 기본적으로 끝난 농촌 경리에서는 1962년 9월 말 현재 117만 4 천 이상의 농호가 4,022 개의 협동 조합에 망라되여 있었다.

1962년에 알곡 작물의 파종 면적은 566만 4천 홀드 (1홀드=0.575 헥타)였다. 1962년에 농업생산 계획은 랭해와 홍수 등 불리한 일기 조건으로 하여 미달되였으나 옥수수, 채소, 감자, 사탕무우 등 일부 농작물은 1961년 생산 실적보다 훨씬 장성되였다.

1959년부터 1962년 간에 약 250억 포린트의 국가 자금이 농촌 경리에 투자됨으로써 사회주의

파종 면적과 주요 농작물 생산량

	1962년 파종 면적 (1,000헥타)	생산량 (1,000톤) 1951～1960년평균	1961	1962
밀	1 095.2	1 899	1 936	1 959
쌀보리	231.7	507	297	233
보리	548	785	984	1 144
옥수수	1 301.1	2 723	2 715	3 240
사탕무우	125.4	2 265	2 356	2 653
감자	208.8	2 196	1 630	1 882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일층 강화되였다. 농촌 경리의 기계화도 진척되였다. 1962년에 7,700 대의 뜨락또르와 5,500 대의 뜨락또르용 보습, 1,100대의 콤바인 및 기타 농기계들이 농촌에 공급되였고 1962년 말 현재 뜨락또르수는 5만 대에 달하였다.

국영 농장들에서 알곡 수확은 완전히 기계화되였으며 협동 농장들에서는 4분의 3이 기계화되였다. 농촌 경리의 화학화도 진척되여 1962년에 경지 1 정보당 화학 비료의 시비량은 221키로그람에 달하였다.

1962년 3월 현재 대가 가축은 198만 7천 두, 돼지는 640만 9천 두, 양은 285만 두 있었다.

【대외 무역】 1962년 대외 무역 총액은 1961년에 비하여 10% 장성된 265억 포린트에 달하였다. 계획에 비하여 수입은 약간 미달되였으나 수출은 2.3% 초과 수행되였다.

1962년에 기계 설비는 수출에서 36.1%, 수입에서 30%, 연료, 원료는 수출에서 22.3%, 수입에서 55.7%, 일용품은 수출에서 21.9%, 수입에서 4.7%, 식료품 및 식료 공업용 원료는 수출에서 19.7%, 수입에서 9.6%를 각각 차지하였다.

1962년에 웽그리야는 100개의 국가 및 지역들과 무역을 진행하였는 데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무역이 무역 총액의 72.5%를 차지하였다.

【재정】 화폐 단위는 포린트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 예산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다.

국가 예산
(단위 1억 포린트)

	1960	1961	1962
수입	677.13	759.87	844
지출	674	757.24	838

교육, 문화 1961～1962 학년도에 8년제 인민학교 졸업생은 14만명에 달하였으며 1962～1963 학년도에는 전체 주민의 20%에 해당하는 200만명의 학생들이 각급 학교들에서 공부하고 있다. 1962년에 고등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전년에 비하여 26% 더 많은 6만 7,300 여 명으로 증가되였다. 이외에도 약 22만 명의 성인 근로자들이 중학교와 대학 야간 학부들에서 공부하고 있다. 기업소들에 조직되여 있는 《로동자 아까데미야》에서 근로자들은 1～2 년간 그들의 취미에 맞는 기술과 자연 과학 지식들을 배우고 있다.

【출판】 **통신**－웽그리야 통신

신문－네프싸바드샤그(사회 로동당 기관지), 네프 싸바(직맹 기관지), 마쟈르 넴제트(애국 인민 전선 기관지) 마쟈르 이피유샤그(공청 기관지)

잡지－따르쇼돌미 쎄레(사회 로동당 정치 리론 잡지), 빠르쯔 엘레뜨 (사회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루마니야

(루마니야 인민 공화국)
Rumania People's Republic

【면적】 23만 7,500 km²

【인구】 1,875만 명 (1963년 1월 1일 현재)

【수도】 부카레스트 (주민 약 135만 4,000명)

정 치 1944년 8월 23일 히틀러 파시스트 기반에서 해방된 루마니야 인민은 1945년 3월 6일 인민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7년 12월 30일 루마니야 인민은 군주제를 청산하고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대 민족 회의】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다. 1961년 3월 5일 465 명의 대의원이 선거되였다.

의장 슈쩨판 보이쩨크

【국가 쏘베트】 1961년 3월 21일 대 민족 회의 제 4 기 제 1 차 회의에서 대 민족 회의 상임 위원회를 국가 쏘베트로 개칭하였다.

위원장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

【내각】 현 내각은 1961년 3월 21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제 1 부수상 게오르게 아뽀쓰뗄
부수상 에밀 보드너라슈, 빠뜨레 보릴라, 알렉싼드루 비틀레쟈누, 알렉싼드루 모기오로슈
부수상 겸 내무상 알렉싼드루 드레기치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가스똔 마린
외무상 꼬르넬리우 메네쓰꾸
무력상 레온찐 쌜레쟌
대외 무역상 고구 레굴레쓰꾸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48년 2월에 공산당(1921년 5월 8일 창건)과 사회 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당원 수 90만 이상 (1962년 4월 현재)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 끼부 쓰또이까, 게오르게 아뽀쓰뗄, 에밀 보드너라슈, 빠뜨레 보릴라, 니꼴라에 챠우쎄쓰꾸, 알렉싼드루 드레기치, 알렉싼드루 모기오로슈,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

정치국 후보 위원 두미뜨루 꼴리우, 레온떼 레우뚜, 레온찐 쌜레쟌, 슈쩨판 보이쩨크, 알렉싼드루 비틀레쟈누

비서국 성원 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 (제 1비서), 니꼴라에 챠우쎄쓰꾸,

미하일 달랴, 끼부 쓰또이까
인민 민주주의 전선,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이싸끄 마르띤 **근로 청년 동맹** 제 1비서 뜨로핀 비르질 **녀성 전국 리사회** 위원장 마리야 로쎄띠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4월 23~25일 루마니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 회의는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 분야에서 당이 진행한 사업을 총화하고 농촌 경리의 집단화가 완성된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부합되게 농촌 경리의 지도를 개편할 데 대한 제안을 심의하였다. 4월 27~30일에 진행된 대 민족 회의 림시 회의는 농업 집단화의 완성 및 농업 지도의 개편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농촌 경리에 대한 과학적이고 유일적인 지도를 보장할 목적으로 농촌 경리 최고 쏘베트와 주 및 구역 농촌 경리 쏘베트를 창설할 데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다. 농촌 경리 최고 쏘베트는 내각의 한 기관으로서 정부 성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 위원회를 가지며 주 및 구역 농촌 경리 쏘베트는 인민 쏘베트 기관으로서 생산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기술자, 관리 일'군, 모범 일'군들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5월 17일 농촌 경리 최고 쏘베트 창설 회의가 진행되였다.

5월 루마니야 로동당과 내각은 농업 기업소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농업 전문 간부들을 재배치할 데 대한 결정과 농업 교육을 개선 발전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조치에 의하여 1962년 말 현재 고등 교육을 받은 2만 명의 농업 전문가 중 76%가 직접 생산에 참가하게 되였다. (1962년 초에는 41%)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1962년 12월 14일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 정치 위원회에서 조선 문제 토의시 루마니야 대표는 남조선으로부터의 외국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였다.

1962년에 우리 나라와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2월 16일), 1962년도 문화 교류 계획서(4월 18일)가 조인되였으며 우리 나라 정부 통상 대표단(12월), 녀성 대표단 (6월), 과학 일'군(11월)이 루마니야를 방문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엔. 흐루쑈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6월 18~25일), 발테르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9월 15~19일)이 각각 루마니야를 친선 방문하였다. 방문 기간 루마니야 당 및 정부 지도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각각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게오르게 게오르기우 데스와 이온 게오르게 마우레르가 인도네시아(10월 1~12일), 인도(10월 12~20일), 비르마(10월 20~22일)를 친선 방문하였으며 방문 기간 공동 성명 또는 공동 콤뮤니케를 발표하였다.

루마니야 대표단은 인도네시아와 경제적 및 기술적 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킬 데 관한 의정서와 1963~1965년을 기한으로 하는 장기 통상 협정에 조인하였다. 9월 3~13일 부수상 알렉싼드루 븨를레쟈누를 단장으로 하는 14명의 경제 사절단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6월 25일 다호메 공화국 부대통령 수루 미간 아피티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 사절단이 부카레스트에 도착하였다. 11월 8일 루마니야는 유고슬라비야와 령사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2년에 루마니야는 라오스(11월), 모로코 (2월), 다호메(6월)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경 제 루마니야에는 원유(매장량과 채취량에서 구라파 제 2 위), 천연 가스 (세계에서 제 4 위, 그 순결도는 99.8%), 소금, 석탄, 금, 철이 풍부하며 망간, 연, 아연 등도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사탕무우 등이다. 특히 옥수수 생산에서는 구라파 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은 국토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인민 경제에 대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은 1961년에 비하여 12%나 더 많은 320억 레이 (농업 협동 조합들의 자금으로 된 투자를 제외)였는데 그중 공업에 170억 레이 이상, 농업에 49억 레이, 운수에 28억 레이가 투자되였다.

【공업】 1962년도 공업 총 생산 계획은 101.9%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총 생산액은 1961년에 비하여 14.7%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17.5%, 소비재 생산은 10.2% 장성되였다.

1960~1962년 기간에 공업 총생산은 55% 장성하였는바 매년 평균 장성 속도는 국가 계획에 예견된 13%가 아니라 15.8%였다. 1962년 공업 생산은 전쟁전 수준을 6.6배로 증가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38	1960	1961	1962
전력 (10억 kWH)	1.13	7.6	8.63	10.1
원유 (100만t)	6.6	11.5	11.6	11.9
천연 가스 (1억m³)	3	6.5	7.2	8.4
석탄 (100만t)	2.8	8.2	8.7	9.58
선철 (1,000t)	132.7	1 014	1 099	1 511
강철 〃	284	1 806	2 127	2 451
압연품 〃	318	1 255	1 518	1 667
세멘트 〃	510	3 054	3 308	3 489
뜨락또르 (1,000대)	—	17	20	21.5
면직물 (100만m²)	104	248	282	296
신발 (100만켤레)	—	30.2	31.0	32.4
사탕 (1,000t)	95	391	422	432

1962년에 4만 5,000건의 창의 고안과 합리화안이 생산에 도입되여 국가에 약 4억 3천만 레이의 리익을 주었다. 제품의 원가는 1961년에 비하여 약 2.5% 저하되였다.

【농업】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할 데 대한 제 3차 당 대회의 과업은 거의 4년간이나 앞당겨 1962년 봄에 완성되였다.

혹심한 한발로 옥수수의 수확이 감소되였기 때문에 밀 생산량이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도 알곡 총 생산량은 1961년보다 감소되여 약 970만 톤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934～1938년간의 평균 생산량(801만 5,700톤) 보다 170만 톤이나 더 많다.

축산업 발전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달성되였는바 국가는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 협동조합들에 거의 10억 레이를 대여하였다. 1962년 초에 대각 가축은 470만두, 돼지는 466만두, 양은 1,228만두, 가금은 4,469만 마리있었다.

1962년 말에 농업에서는 5만 6,500 대의 뜨락또르, 5만 2,600 대의 뜨락또르 파종기, 2만 8,400 대의 곡물 콤바인이 있었다.

그리하여 뜨락또르 대당 평균 경지는 1959년에 270 헥타였는데 1962년에는 170헥타였다.

1962년에 경작과 파종 및 곡물 수확의 기계화는 국영 농장들에서 거의 100%,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는 65%에 달하였다.

사회주의적 경리 부문은 경지의 96%를 망라하고 있다.

1962년에 농업 협동 조합들은 6,400 개로부터 5,600개로 통합되였으며 이에는 320만 1천호와 900만 헥타 이상의 농지가 망라되여 있다. 국영 농장은 경지의 14%를 가지고 있으며 농산물 수매에서 밀의 38%, 해바라기씨의 14%, 채소의 26%, 육류의 27%, 양모의 17%, 우유의 41%를 차지하였다.

【대외 무역】 1962년에 루마니야는 87 개 나라들과 무역하였다. 1962년의 대외 무역 총액은 전년보다 7% 장성된 105억 레이에 달하였다. 특히 기계 설비의 수출량은 1959년에 비하여 2.5배로 증가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이 나라 무역 총액의 약 70%에 달한다.

【재정】 1962년 국가 예산에서 수입은 789억 9,000만 레이, 지출은 777억 9,000만 레이였다. 예산 수입에서 사회주의적 경리로부터의 수입은 94.4%를 차지하였다.

교육, 문화 1962년에 국가는 교육 부문에 50억 레이를 지출하였다. 이해부터 전반적인 8년제 의무 교육이 실시되였다. 1962년에는 초등 교육 부문의 1～7 학년 학급들에서만도 1938년보다 100만 명이나 더 많은 학생이 공부하였다.

최근 2년 간에 보통 교육 부문 학교와 사범 학교의 교원수는 1만 3,500명, 고등 교육 부문 교원수는 2,200명 이상이 늘었다.

1962～1963 학년도에 각급 학교 학생 총수는 전 학년도에 비하여 8% 증가된 336만명, 그중 대학생수는 9만 8천명, 전문 기술 학교 학생 수는 21만 1,600명이였다. 주민 1만명에 대학생수는 54명이였다.

일부 기업소들에 창설된 인민 종합 대학들에서는 4만 1천명 이상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들중 대부분이 로동자들이다.

1962년에 약 80만 명의 농업 협동 조합원들과 국영 농장 및 뜨락또르 임경소 일'군들이 3년제 농업 및 축산 기술 학교에 입학하였다. 1962년 말 현재 2만 3,300개의 도서관이 있었다.

【출판】 **통신** —루마니야 통신 (아제르 쁘레쓰)

신문—쓰끈떼아 (루마니야 로동당 기관지), 루마니야 리베라(대민족 회의 기관지), 쓰끈떼아 띠네레뜰루이(근로 청년 동맹 기관지), 문까(직맹 기관지)

잡지—로삐따 데 클라쎄 (루마니야 로동당 정치 및 리론 잡지)

볼가리아

(볼가리아 인민 공화국)

Bulgaria People's Republic

【면적】 11만 1,030 km²

【인구】 804만 6,000명 (1962년 12월 31일 현재)

【수도】 쏘피야 (주민 69만 8,494명, 1962년 말 현재)

정 치 볼가리아는 1944년 9월 9일 독일 파쑈 기반에서 해방된 후 1946년 9월 15일에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인민 회의】 최고 주권 기관이며 임기는 4년이다. 1962년 2월 25일 대의원 197명이 선거되였다.

상임 위원회 위원장 지미뜨르 가네브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11월 27일 구성되였다.

수상	또도르 쥡꼬브
제 1부수상	쥡꼬 쥡꼬브
제 1부수상 겸 농촌 경리 쏘베트 위원장	개오르기 뜨라이꼬브
부수상	쓰딴꼬 또도로브, 이완 미하일로브, 따노 쫄로브, 뻰쵸 꾸바진스끼
당 및 국가 검열 위원회 위원장	보리쓰 웰체브
내무상	지꼬 지꼬브
인민 보위상	도브리 드쥬로브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아뽀쓰똘 빠쉐브
외무상	이완 바쉐브
대외 무역상	이완 부지노브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891년에 사회 민주당으로 창건되였다. 1903년 이후 사회 민주 로동당으로 불리워오다가 1919년 5월 25일 공산당으로 개칭되였다. 당원수 52만 8,674명, 그중 후보당원 2만 2,413명 (1962년 8월현재)

정치국 위원 보얀 빌가라노브, 보리쓰 웰체브, 지미뜨르 가네브, 미뜨꼬 그리고로브, 또도르 쥡꼬브, 쥡꼬 쥡꼬브, 이완 미하일로브, 옌쵸 쓰따이꼬브, 쓰딴꼬 또도로브

후보 위원 지미뜨르 지모브, 따노 쫄로브, 뻰쵸 꾸바진쓰끼

비서국 성원 또도르 쥡꼬브 (제 1비

서),보얀 뻴가라노브, 미뜨꼬 그리고로브,보리쓰 웰체브, 나쵸 빠빠조브,러체자르 아브라모브, 이완 뻬리모브

조국 전선 전국 리사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엔쵸 쓰따이꼬브 **인민 농민 동맹** 총비서 게오르기 뜨라이꼬브 **직업 동맹** 중앙 평의회 위원장 쓰또얀 규로브 **지미뜨로브 공산 청년 동맹** 제 1 비서 이완 아바지예브 **민주 녀성 위원회** 위원장 라자 또도로바 **대외 친선및 문화 련락 위원회** 위원장 예까쩨리나 아브라모바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2월 25일 인민 회의와 도, 시, 구역 및 농촌 인민 위원회 선거와 인민 판사 및 참심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유권자 총수의 99.71%가 참가하였다. 3월 16일 인민 회의 제 4 기 제 1 차 회의에서는 안똔 유고브를 수상으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11월 인민 회의 제 4기 제 2 차 회의에서는 또도르 집꼬브를 수상으로 하는 내각이 구성되였다.

11월 5~14일 불가리야 공산당 제 8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중앙 위원회 총화 보고, 중앙 검사 위원회 총화 보고, 1961~1980년 불가리야 인민 공화국 발전을 위한 지시 초안 그리고 당 규약 초안을 토의하였고 새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5월 8~9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제 4 차 5개년계획(1961~1965년)의 기본 지표들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제 4 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중앙 위원회 지시문을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공산당 중앙 위원회와 내각은 2월에 포도 재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7월 30일부터 육류, 우유, 란류 및 기타 농산물의 수매 가격과 소매 가격을 인상할 데 관한 결정과 철도 운수의 가일층의 발전과 이 부문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9월 21~22일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과학 기술적 진보를 실현하며 과학 연구 사업과 설계 사업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제들과 당 규약 초안을 토의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우리 나라와 불가리야 간에 일련의 경제 문화 협정들이 체결되였는바 쏘피야에서 1월 5일에 1962~1965 년 간의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5월 11에는 문화 교류 계획서가 각각 조인되였다. 9월 28일에는 평양에서 조—불 기술 협조 위원회 제 5 차 회의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5월 14~20일 흐루쑈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불가리야를 방문하였으며 이에 앞서 4월에는 불가리야 사상 일'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쏘련 공산당 비서 레오니드 일리쵸브가, 9월에는 끼릴렌꼬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당 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한편 11월 2~3일에는 불가리야 공산당 제 1 비서 집꼬브가 쏘련을 방문하고 흐루쑈브와 회담하였으며 6월에는 쓰딴꼬 또도로브를 단장으로 하는 불가리야 정부 경제 대표단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7월에 또도르 집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불가리야 당 및 정부 대표단이 루마니야를, 6월에는 도브리 드쥬로브를 단장으로 하는 군사 대표단이 체코슬로바키야를 각각 방문하였다.

4월 18일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여 전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월남 민족 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불가리야 인민 회의 성명이 발표되였으며 10월 24일에는 미제의 큐바 침략 책동을 반대하는 정부 성명이 발표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10월 불가리야 내각 부수상 집꼬 집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유고슬라비야를 방문하고 량국 간의 장기 경제 협조에 관한 의정서에 조인하였으며 6월에는 량국 간에 과학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 7월에는 니슈와 지미뜨로브그라드 간의 도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62년에 불가리야는 유고슬라비야와 11회에 걸쳐 20만명 이상이 동원된 량국 국경 지대 주민들의 상봉 모임이 조직되였다.

불가리야는 1962년에 쎄일론(6월 10일), 다호메(6월 25일), 씨에라 레오네 (7월 22일)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이리하여 1962년에 57 개 국과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경 제 주요 자원은 석탄 (매장량 43억 4,000 만톤), 철(매장량 3억 톤), 연 및 아연(합쳐서 매장량 1억 1,200 만톤), 동, 망간, 은, 금, 석유 등이다.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옥수수, 사탕무우, 담배, 포도, 면화, 과실 등이다.

불가리야는 인민 정권 기간에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되였다. 1961년에 국민 소득에서 공업은 49%, 농업은 24%를 차지하였다 (1939년에는 공업이 15%, 농업이 65% 였다).

불가리야는 1962년에 제 4차 5개년 계획 수행의 두번째 해에 들어섰다. 1962년에 인민 경제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에 비하여 12% 증가인 8억 4,900만 레브에 달하였다.

【공업】 1962년에 공업 생산 계획은 103.4%로 초과 수행되였으며 공업 생산액은 전년에 비하여 111.1%로 장성되였다. 1962년에 생산 수단 생산의 비중은 1939년의 22.6%로부터 49.5%로 제고되였다. 1962년에 공업은 전쟁전 한 해 동안에 생산하던 것을 21일간에 생산해 내였다.

1962년에 공업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에 비하여 7.6% 장성되였으며 공업 생산 장성에서 72%는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에 의하여, 28%는 종업원 수의 장성에 의하여 이룩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50	1960	1961	1962
전력(100만 kWH)	—	4 657	5 406	6 043
각종 탄(100만t)	—	17.1	18.6	20.8
선철 (1,000t)	3.1	192	206	218*
강괴 (〃)	5.1	253	340	422
압연 강재(〃)	6.1	193	271	330
연 (〃)	2.8	40.4	41.0	44.0
질소 비료(〃)	—	84	88	94
세멘트 (〃)	602	1 586	1 749	1 893
면직물 (100만m)	83	218	226	243
채소 통조림 (1,000t)	23	155	164	173
과실 통조림 (〃)	25	123	159	176

주; *는 평가 수'자

【농업】 1962년에 기후 조건이 몹시 불리하였으나 농업 생산액은 1961년에 비하여 2.3% 증가하였다. 1962년에 경지의 51% 이상이 알곡 작물에 돌려졌다. 이해에 밀은 205만 6천 톤 (전년에 비하여 1.4% 증가), 옥수수는 157만 8천 톤(1961년에는 142만 4천 톤) 생산되였으며 쌀보리와 보리의 생산은 전년보다 감소되였다. 또한 담배는 9만 7천 톤, 해바라기 씨는 35만 4천 톤, 포도는 100만 톤, 도마도는 78만 3천 톤 생산되였다.

1962년에 농업 기업소들은 4만 8천 대의 뜨락또르 (15마력 환산), 9천대 이상의 콤바인를 가지고 있었으며 경지 약 100 헥타당 1대의 뜨락또르가 차례졌다.

1962년 초에 대각 가축은 158만 2천 두, 양은 1만여 두, 돼지는 233 만 1천 두, 가금은 2,280만 마리 있었다.

1952년에 1,020 개의 로력 농업 협동 조합이 있었으며 한 개 조합당 평균 경지 면적은 4천헥타였다.

【대외 무역】 1962년에 수출은 9억 120만 레브, 수입은 9억 1,320만 레브였다. 1962년에 볼가리야는 84 개 국과 무역을 진행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액은 이 나라 무역 총액의 82.6%를 차지하였다. 이 해에 식료품의 수출액은 수출 총액의 30%, 기계 및 설비는 수출액의 15%, 수입액의 45.3%를 차지하였다.

【재정】 1962년 1월 1일부터 레브의 금 함유량이 순금 0.759548 그람으로 제고되였다. (환률은 1 루블=1레브 30쓰또찐까).

교육, 문화

1962년에 대학은 해방 전의 5개로부터 20개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에 대학 교원은 418명으로부터 약 4,000명으로 증가하였다. 1962～1963 학년도 학생수는 전년에 비하여 7,300 명이 증가한 156만 명이였으며 그중 대학생 수는 전년보다 1만명이 더 증가한 7만 1,000명이였다.

1962년에 고등 교육을 받은 7,000명의 전문가들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배치되였다. 1962년에 농학 기사는 3,563명, 축산 기사는 1,986명, 수의사는 1,000 명이였다.

【출판】 **통신**—볼가리야 통신

신문—라보뜨니체쓰꼬 젤로 (공산당 기관지), 오쩨체쓰뜨벤 프론트(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및 조국 전선 리사회 기관지)뜨루드(직맹 기관지), 나로드나 믈라데즈(지미뜨로브 공청 기관지), 노보 브레메(공산당 리론 잡지)

알바니야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Albania People's Republic

【면적】 2만 8,748km²

【인구】 172만 7,000명 (1963년 6월 현재)

【수도】 티라나(주민 약 12만명)

정 치

알바니야 공산당 (현재 로동당)의 정확한 령도 하에 이태리 및 독일 파시스트 강점자들과 국내 반역자들을 반대하여 전개된 5년간에 결친 알바니야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쏘베트 군대의 력사적 승리에 의하여 알바니야는 1944년 11월 29일에 해방되였다. 1946년 1월 11일에 알바니야는 인민 공화국을 선포하였고 동년 3월 14일에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인민 회의】 현 인민 회의는 제 5기로서 1962년 6월 3일에 선거되였다. 대의원 수는 214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의장 메다르 슈뽈라

상임 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7월 16일에 성립되였다.

수상 메흐메트 쉐후

제 1 부수상 스피로 콜레카, 베키르 발루쿠, 마누슈 무프티우

부수상 코쵸 테오도시, 아브딜 켈레지

인민 보위상 베카르 발루쿠 (겸임)

국가·계획 위원회 위원장 코쵸 테오도시(겸임)

내무상 카드리 하즈비우

외무상 베하르 슈뽈랴

무역상 키쵸 느겔라

【정당, 사회 단체】 **알바니야 로동당** 전신인 공산당은 1941년 11월 8일에 창건되였다. 1948년 11월 18～22일 간에 진행된 공산당 제 1 차 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개칭되였다. 당원 수 5만 3,659명 (그중 후보 당원 2,857명, 1961년 2월 현재)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엔베르 호쟈, 메흐메트 쉐후, 휴스니 카포, 베키르 발루쿠, 고고 누쉬, 스피로 콜레카, 리타 마르코, 마누슈 무프티우, 라미즈 알리아, 하키 토스카, 아딜 챠르챠니

후보 위원 필로 페리스테리, 코쵸 테오도시, 카드리 하즈비우 페트리트 두메

비서국 성원 엔베르 호쟈 (제 1비서), 휴스니 카포, 리타 마르코, 라미즈 알리아, 하키 토스카

민주주의 전선 로동당 지도 하에 있는 대중적 사회 정치 단체로

서 1942년 9월 16일 뻬자에서 창건되였다. 성원은 약 70만명, 전국 위원회 상무 위원회 위원장 엔베르 호쟈 **직업 동맹** 맹원 15만 3,000여명 중앙 평의회 위원장 고고 누쉬 **로동 청년 동맹** 전신인 공산주의 청년 련맹(1941년 11월 23일 창건)과 인민 청년 련맹(1943년 9월에 조직된 반파쑈 청년 단체)이 합동하여 로동 청년 동맹으로 되였다. 맹원수 12만 2,000여명. 위원장 토디 류보냐 **녀성 동맹** 1943년 9월에 창립, 맹원수 24만 여명, 위원장 비토 카포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메다르 슈틀라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6월 3일 인민 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는 전체 유권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투표 참가자의 99.99%가 민주주의 전선 립후보자들에게 찬성 투표하였다. 7월 14~17일 인민 회의 제 5 기 제 1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인민 회의 각 위원회들과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를 각각 선거하고 내각 구성을 승인하였다.

7월 18~19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9 차 전원 회의는 간부 양성과 선발 사업을 개선할 데 관한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마누슈 무프티우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0월 26~28일에 진행된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농업 생산의 부단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들에 관하여》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1월 28일 알바니야 인민들은 독립 선포 50주년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21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및 내각은 알바니야 독립 선포 50주년을 성대히 경축할 데 대한 공동 결정을 발표하였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7월 14~17일에 진행된 인민 회의 제 5 기 제 1 차 회의에서는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지지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월 23일 우리 나라와 알바니야 량국 간의 1962년도 상품 류통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 과학 기술 협조 위원회 제 5 차 회의 의정서가 각각 조인되였으며 3월 30일에는 1962년도 문화 협조 계획이 조인되였다. 8월 14일 알바니야의 두레스 항에서 우리 나라가 알바니야에 선물로 보낸 뜨락또르 전달식이 진행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11월 28일 알바니야 독립 선포 50주년 경축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하지 레쉬는 중인 국경 문제에 대한 제국주의자들과 인도의 반동 및 수정주의자들의 추악한 공모를 규탄하고 중인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1월 21일부 중국 정부의 제의를 적극 지지하였다. 1962년에 알바니야 조국 보위 후원회 대표단(4월), 알바니야 중국 친선 협회 대표단(11월), 알바니야 문화인 대표단(10~11월)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중국—알바니야 우호 협회 대표단 (9~10월), 중국 과학 기술 협조 대표단(11~12월)이 알바니야를 방문하였다.

3월 5일 알바니야 정부는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로골적인 간섭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서 알바니야 정부는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2월 18일부 성명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평화 애호 력량은 단결을 강화하여 제국주의의 마수를 꺾어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0월 26일 알바니야 정부는 큐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 행동을 규탄하고 큐바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1962년에 알바니야는 모로코(2월), 캄보쟈(9월)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정부 통상 대표단이 에티오피아(9월), 말리 (10월), 모로코(10~11월) 등 일련의 아프리카 나라들을 방문하였으며 아랍 련합 공화국, 이라크, 모로코, 기니야와 통상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 제 석유, 크롬광, 동, 석탄 등 지하 자원 등이 풍부하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밀, 벼, 면화, 담배, 올리브, 포도, 귤 등이며 목축업도 발전하였다.

알바니야 인민은 제 3 차 5개년 계획 (1961~1965)의 두번째 해인 1962년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2년에 국민 소득은 전년에 비하여 약 8% 증가하였으며 로동자 수는 약 5% 장성하였다.

【공업】 1962년에 공업 생산 계획은 100.7%로 수행되였으며 공업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6.4% 증가하였다. 1962년에는 전년에 비하여 원유는 11.4%, 석탄은 12.6% 크롬광은 13.1%, 동은 54.5%, 철은 18.5%. 전력은 8.7% 금속 가공 공업은 18.5% 장성하였다. 1962년에 특히 기계 제작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였는바 부속품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123.3%로, 새로운 기계와 설비들의 생산은 199.1%로 장성하였다.

1962년에 1만 건 이상의 창의 고안 및 합리화 안이 생산에 도입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단위 1,000톤)

	1955	1960	1961	1962
원유	208.1	727.5	770.3	784.9
석유 가공	83.8	369.2	385.0	406.9
갈탄	194.6	290.6	289.1	300.9
전력 (100만KWH)	85.3	194.3	227.4	242.1
동광	24.5	81.5	80.5	135.9
철광	—	255.0	358.5	425.1
크롬광	122.1	289.1	232.5	251.3
면직물 (100만m)	18.6	25.2	26.0	27.1
모직물 (1000m)	636	1 198	1 231	1 261

【농업】 불리한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알곡 생산량은 전년에 비하여 약 107%로, 담배는 약 3배로, 채소는 106%로 장성되였다. 1961년 농업 생산고는 1938년의 2배로 장성되였다.

농업 생산의 구성도 변하였다. 곡물과 축산물 생산은 증대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에서 곡물 생산은 1938년의 30.9%로부터 1961년에는 21.6%로, 축산물 생산은 50.7%로부터 30%로 저하되였으며 과실 생산은 6%로부터 13%로, 공예 작물 생산은 2%로부터 8.3%로 증대되였다. 1962년에 경지는 2.5%, 그중 과수원은 12%, 포도원은 11.7% 확장되였다.

1961년에 사회주의, 경제 부문에는 농지 면적 (123만 1,300 헥터)의 85.2%인 104만 9,200 헥터가 망라되여 있었다. 그중 국영 경지의 면적은 28만 5천 헥터 (23.2%), 농업 협동 조합의 면적은 76만 3,500 헥터 (62%)였다. 1962년 초에 알바니야에는 1,263 개의 농업 협동 조합이 있었다.

1962년에 뜨락또르는 전년에 비하여 25% 장성되여 약 5,900 대에 달하였다. 콤바인은 6.7%, 탈곡기는 32% 장성되였다.

【대외 무역】 1962년도 대외 무역에서 90.4%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차지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력청, 철광석, 동, 담배, 어류 통조림, 과실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공업 설비, 운수 및 농기계 등이다.

교육, 문화

1962~1963 학년도에 일반 교육 학교 학생 수는 전 학년도에 비하여 9.1%, 중등 기술 학교 학생 수는 20.1% 장성되였으며 대학생 수는 125.8%의 장성인 약 1만 1,700명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주민 5명에 1명의 학생이 있었다. 1962년에는 전년도 보다 38.4%가 더 많은 1천명이 대학을 졸업하였다.

1962년에 고등 교육을 받은 기술자는 6천명, 중등 전문 교육을 받은 기술자는 2만 1,600명, 숙련 로동자는 9만 5천명 있었다.

1962년에 영화관 수는 전년에 비하여 102.6%, 상연 회수는 101%, 관람자 수는 102.4%로 장성되였다.

【출판】 통신—알바니야 통신(아따)

신문—제리 이 포풀리트 (로동당 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 전선 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 청년 동맹 기관지), 푸나(직업 동맹 기관지), 루프테타리(인민군 기관지)

잡지—루가 에 파르티스 (로동당 리론지), 슈키프타리야 에 레 (녀성 동맹 기관지), 넨도리 (작가 예술가동맹 기관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German Democratic Republic

미, 영, 불, 제국주의자들은 1945년의 포츠담 협정을 파괴하고 독일을 분렬하는 정책을 추구하면서 1949년 9월에 서독 단독 국가를 조작하고 재군국화의 길로 나아갔다.

서부 렬강에 의한 독일의 분렬 책동을 반대하여 독일 인민은 단호한 구국 대책을 수립하였다.

1949년 5월 30일에 동부 독일에서 진행된 제 3 차 인민 대표 대회에서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였고 10월 7일에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면적】 10만 7,834 km²

【인구】 1,712만 5,000명 (1962년말)

【수도】 베를린(면적 884Km² 그중 민주 지구—403 km², 민주 지구 주민 107만 1,775명, 1960년말)

정 치

【인민 의원】 400명의 대의원과 66명의 협의권을 가진 베를린 대표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인민 의원은 제 3기로서 1958년 11월 16일에 선거되였다.

의장 요한네스 디크만

【국가 쏘베트】 1960년 9월 12일에 임기 4년으로 인민 의원 회의에서 선거되였다.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내각】 현 내각은 1958년 12월 8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오토 그로테볼

제 1부수상 윌리슈토프

부수상 겸 외무상 로타르 볼쯔

부수상 겸 국가 계획 위원회 위원장 에리히 아펠

부수상 겸 대내외 무역상 율리우스 발코브

부수상 겸 보건상 막스 제프린

부수상 브루노 로이슈네르, 막스 주르비에르, 파울 숄쯔, 알렉산데르 아부슈, 그레테 비트코브스키

인민 경제 쏘베트 위원장 알프레드 노이만

민족 보위상 칼하인쯔 호프만

내무상 칼 마론

국가 안전상 에리히 밀케

【민족 보위 리사회】 1961년 9월26일 인민 회의에서 채택된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위원장 발테르 울브리히트

【정당, 사회 단체】 **독일 사회 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독일 공산당과 사회 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되였다. 당원 및 후보 당원 수 160 만명(제 6차 당 대회 당시)

중앙 위원회 정치국 위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파울 프렐리히, 오토 그로테볼, 쿠르트 하게르, 에리히 호네케르, 브루노 로이슈네르, 헤르만 마테른, 에리히 뮤켄베르게르, 알프레드 노이만, 알베르트노르텐, 윌리슈토프, 발테르 울브리히트, 파울 페르네르, 헤르베르트 바른케

정치국 후보 위원 에리히 아펠, 헤르만 아크센, 칼—하인쯔 바르츠, 게오르그 에발드, 게르하르트 그류네베르그, 베르네르 야로빈스키, 균테르 미타그, 마르가레떼 뮬레르, 호르스트 진데르만

비서국 성원들 발테르 울브리히트 (제 1비서), 게르하르트 그류네베르그, 쿠르트 하게르, 에리히 호네케르, 균테르 미타그, 알베르트 노르텐, 파울 베르네르

민주 농민당 위원장 에른스트 골텐바움 **기독교 민주 동맹** 위원장 아우구스트 바하 **자유 민주당** 위원장 막스 주르비에르 **민족 민주당** 위원장 로타르 볼쯔 **자유 독일 직업 총**

동맹 위원장 헤르베르트 바르케, 자유 독일 청년 동맹 제 1 비서 호르스트 슈만, 민주 녀성 동맹 위원장 일제 틸레 민주주의 독일 민족 전선 전국 리사회 위원장 에리히 코르렌스 평화 옹호 위원회 위원장 발테르 프리트리히 독일 통일 문제 위원회 위원장 막스 주르비에르

【주요 국내사건】 1962년 1월인민 의원 회의에서는 전반적 의무 병력제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2월 민족 보위 리사회는 이 법령에 근거하여 첫 복무 적령자들인 1940~1943년생 청년들을 소집할 데 관한 명령을 발표하였다.

3월 21~23일 독일 사회 통일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발전을 위한 몇가지 문제》와 1962년도 인민 경제 계획, 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 사업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3월 27일 민주주의 독일 민족 전선 전국 리사회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력사적 과업과 독일의 미래》라는 문건을 발표하였고 6월 16~17일에 진행된 동 전선 전국 대회에서는 이 문건을 만장 일치로 채택하였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독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1962년까지 100여건의 구체적인 제안과 량 독일 국가 간의 호상 리해의 개선과 접근을 위한 50여건의 제안을 내놓았다.

8월 22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베를린 주둔 쏘련 위수 사령부의 폐지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뒤이어 민족 인민군 헬무드 포페 소장을 베를린 위수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1962년에도 민주 독일 정부는 민주 독일을 반대하는 서부 렬강과 서독 복수주의자들의 책동을 폭로 규탄하였다.

1962년에 서독과 서부 베를린 복수주의자들은 경계선에서 무장 침범, 방화, 살인, 폭발, 철도 파괴, 경계선 시설 파괴 등 수많은 도발 행동을 감행하였는바 1962년 첫 8개월 간에만도 민주 독일 경비 대원들에게 80차 이상이나 발포하였다. 이와 같은 각종 도발 행동에 대하여 민주 독일 정부는 6월, 7월, 8월 6일, 8월 9일, 8월 16일에 서부 렬강과 서부 독일 당국에 항의를 제기하였다. 2월 1일에는 민주 독일에 간첩과 암해 분자들을 파견할 목적으로 동부 베를린의 볼란크슈트라쓰 철도역 밑에 지하도를 굴설(높이 1.5m, 너비 1.2m, 길이300m)한 것과 관련하여 서부 베를린 주둔 불란서 군 사령관에게 항의문을 제출하였다.

10월 독일 민주주의 인민 의원 상임 위원회는 서부 독일 련방군의 원자 무장을 반대하며 대독 강화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한 비망록을 발표하였으며 정부는 12월에 동서 량 독일 간에 련방을 창설하고 통일적인 민주 국가를 창설하기 위해 두 독일 국가의 점차적인 접근을 실현할 필요성을 강조한 성명을 유엔에 제출하였다.

7월 독일 사회 통일당 중앙 위원회와 자유 독일 직총 지도부는 본의 재군국화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행동 통일을 보장할 것을 서부 독일 로조와 전체 서부 독일 로동 계급에게 호소하였다.

한편 7월에 민주 독일 정부는 민주 독일을 반대하는 서부 베를린으로부터의 범죄 행동을 폭로하는 문건을 각국 정부들에 발송하고 평화를 반대하는 서부 베를린으로부터의 범죄 행위에 세계 사회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대외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9월에 독일 인민 의원 상임 위원회는 세계 각국 국회들에 보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1차 회의 서한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13일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 최용건 위원장은 민주 독일 인민 의원 의장 요한네스 디크만의 9월 3일부 서한에 대한 회답 서한을 보내였다. 회답 서한에서 최 용건 위원장은 서독 복수주의자들의 모험적인 전쟁 도발 행동을 규탄하고 서독군의 핵 무장 정책을 반대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근로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9월 11~18일 에르미쉬 루이제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함흥시 건설에 대한 독일의 원조 총결 및 평양 종합 인쇄 공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1962년에 우리 나라와 1962년도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협정(2월), 문화 및 과학 협조에 관한 협정 실행을 위한 1962년도 사업 계획서 (5월)를 조인하였으며 8월에는 통상 및 항행에 관한 조약의 비준 문건을 교환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울브리히트를 단장으로 하는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쏘련(2월 26~29일과 11월초), 체코슬로바키야(5월 14~19일), 루마니야(9월 15~19일)를 방문하였으며 8월 28일에는 알타에서 울브리히트와 흐루쑈브 간의 회담이 있었다.

8월에는 민주 독일 인민 의원 대표단이 웽그리야를, 2월에는 정부 무역 대표단이 알바니야를 방문하였다.

한편 쏘련 공산당 대표단 (10월), 쏘련 정부 대표단(3월), 체코슬로바키야 민족 회의 대표단 (6월), 고물까를 단장으로 하는 파란 정부 대표단 (10월)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각각 방문하였다. 10월 26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쏘베트 회의는 큐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와 관련하여 성명을 채택하였다.

기타 나라들과의 관계… 3월에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쏘베트 회의에서는 민주 독일과 아랍,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의 관계 문제를 토의하였다. 11월 28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경제 대표단이 아랍 련합 공화국을, 11월 7일에는 교육성 및 직맹 대표가 유고슬라비야를 각각 방문하였다. 한편 라오스 군사 대표단 (5월),

다호메 공화국 부대통령 수루 미간 아피티를 단장으로 하는 친선 대표단 (6월), 말리 국회 대표단 (8월) 등이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1962년 현재 약 170개의 국제 단체들에 가입하고 있다.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은 1962년에 비르마(3월), 캄보쟈(3월), 이라크(5월)와 령사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 제 민주 독일은 고도로 발전된 공업 국가로서 이미 갈탄 생산에서 세계 제 1위, 화학 제품의 인구 1 인당 생산은 세계 제 2 위, 전력의 인구 1 인당 생산은 영국, 불란서, 서독을 릉가하고 있다.

주요 지하 자원은 갈탄(매장량 약 400억 톤), 카리염, 동, 우라늄 등이고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감자, 콩, 사탕무우 등이다.

현행 인민 경제 계획은 7 개년 계획(1959～1965)인데 1963년 1월에 진행된 독일 사회 통일당 제 6 차 대회는 현행 7 개년 계획을 중단할 것을 예견하는 1964～1970년 7 개년 계획을 승인하였다.

1962년에 157억 마르크가 인민 경제에 투자되었는데 그것은 지도적 공업 부문인 화학 공업과 기계 제작 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였다.

【공업】 1962년에 공업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6.1%, 그중 생산 수단 생산은 6.9%, 소비재 생산은 3.3% 장성하였다. 화학 공업은 1962년에 전년보다 7.8%, 기계 제작 공업은 9.1% 장성하였다.

1962년에 루베나우에서의 발전소 건설, 《슈와르제 품페》 갈탄 콤비나트의 가일층의 확장 및 리자시에 있는 제강 및 압연 공장의 확장 등을 비롯한 600 개의 공업 기업소들의 개건 및 신설 공사가 진행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50	1961	1962
전력(억kWH)	195	425	452
갈탄(100만t)	137	237	246.8
선철(1,000t)	337	2 031	2 076
강철(1,000t)	999	3 444	3 623
세멘트(100만t)	—	5.3	5.4
면직물(100만m^2)	74.4	264	284

1962년에 창의 고안 및 발명 건수는 1961년에 비하여 20% 증가하였다. 국영 공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1961년에 비하여 8.4% 장성하였으며 국영 중앙 공업에서 원가는 2.8% 저하(10억 마르크 저하)되였다.

【농업】 1962년에 불순한 기후 조건과 1961년의 흉작으로 인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은 개선되였다. 알곡 생산은 1961년보다 현저히 높았고 1957～1961년 평균 수확고보다 약간 높았다.

주요 농작물 수확고 (단위 1,000t)

	1961	1962
알 곡	4 842.6	5 937
두 류	35.4	43.7
유지 작물	179.3	184
감 자	8 429.6	13 284

1962년에 축산업은 농업 생산에서 약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이해에 축산물 생산은 1961년의 흉작으로 하여 계획을 미달하였다. 1962년 말 현재 대가 가축은 450만 8천 두(그중 젖소 209만 2천 두), 돼지는 804만 5천 두 있었다.

1962년초에 사회주의적 농업 기업소들은 8만 9,900대의 뜨락또르, 1만 800 대의 화물 자동차, 9,200대의 곡물콤바인, 7,800대의 감자 콤바인과 4,100대의 사탕무우 콤바인을 가지고 있었다. 1962년에 농기계 임경소(뜨락또르의 90% 소유)는 599개소 있었다.

종합적 기계화 작업의 비중은 알곡, 유지 작물 및 두류 수확에서 50.7%, 감자 수확에서 27.1%, 사탕무우 수확에서 72.1%였다.

1962년 중기에 농촌 경리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농지의 93.2%에 달하였다. (그중 농업 협동 조합은 전체 농지의 85.6%(

【대외 무역】 1962년에 대외 무역액은 1961년에 비하여 6% 증가한 199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1962년에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은 이 나라 무역 총액의 78%를 차지하였다.

교육, 문화 1962～1963 학년도 대학 및 전문 학교 학생수는 27만 3,000 여 명에 달하였으며 그중 신입생 수는 7만 6,000 여명에 달하였다. 대학생 총수의 약 95%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약 100 만 명의 근로자들이 로동하면서 인민 대학들과 공장 및 농촌 아까데미야 교육망들에서 공부하고 있다.

대학 및 전문 학교 졸업생 수는 1961년의 약 4만 9,000 명으로부터 1962년에는 6만 6,000명으로 증가되였다. 1962년 현재 사회주의 경제 분야의 기업소들과 기관들에서 일하는 대학 및 전문 학교 졸업생 수는 40만 명이며 그중 30 %는 녀성들이다.

1961～ 1962년도 공연 기간에 극장 관람자 수는 1,390만명, 영화 관람자 수는 2억 1,900 만 명에 달하였다.

【출판】 통신—아데엔

신문—노이에스 도이췰란트 (사회 통일당 기관지), 쏘찌알리쓰찌세 데모크라티(국가 쏘베트 및 내각 기관지), 노이에 짜이퉁 (기독교 민주 동맹 기관지), 데르 모르겐 (자유 민주당 기관지), 나찌오날 짜이퉁 (민족 민주당 기관지), 데르 프라이에 바우에르(민주 농민당 기관지), 트리뷰네 (자유 독일 직총 기관지) 융게 벨트 (자유 독일 청년 동맹 기관지)

잡지—아인하이트(사회 통일당 월간 정치 잡지), 노이에르베그 (사회 통일당 당 생활 잡지)

서부 독일

(독일 련방 공화국)

German Federal Republic

【면적】 24만 8,000 km^2

【인구】 5,397만 5,000 명

【행정 중심지】 본 (14만 3,000명)

정치 **【대통령】** 하인리히 류브케 (임기 5년, 1959년 9월 15일 취임)

【국회】 상하 량원제이다. 하원인 련방 의회 (1961년 9월 10일 선거)는 임기 4년의 의원 499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상원인 련방 참의원은 각 주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단순한 협의 기관으로서 의원수는 45명 (그중 결의권이 없는 서부 베를린 대표 4명 포함)이다.

【내각】 1962년 12월 11일에 개조되였다. 수상 콘라트 아데나우어, 부수상 겸 경제상 루드비히 에르하르트, 외상 게르하르트 슈뢰데르, 내상 헤르만 훼헤르, 국방상 아우에 폰 하쎌

【정당, 사회 단체】 **독일 공산당** 1918년에 창건되였다. 1956년 8월 17일 비법화되였다. 중앙 위원회 제 1 비서 막스 라이만 **기독교 민주 동맹** 1945년 7월 23일에 설립되였다. 집권당으로서 대독점체들과 대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위원장 콘라트 아데나우어 **사회 민주당**, **자유 민주당**, **전 독일당** **기독교 사회 동맹** **독일 평화 동맹**

【국내 사건】 1962년에 서독 군국주의자들은 나라의 파쑈화와 핵 무장에 광분하면서 이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탄압하기 위하여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2월 2일 련방 의회는 병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데 대한 정부의 법안을 승인하였다. 련방 참의원은 3월 16일 이 법안을 승인하였다. 3월 초에 서독 정부는 주민들을 강제 로동에 동원하기 위한 《의무 로동 법안》을 채택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18세부터 65세의 남성, 18세부터 55세의 녀성들은 어느 때든지 강제 로동을 당하게 되였다.

10월 중순 서독 내상은 주민들에게 군사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을 목적한 정부의 소위 《주민들의 민원자 방어법》을 공포하였다.

11월 30일 련방 참의원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이른바 《비상 법안》을 승인하였다.

서독 군국주의자들의 재군국화와 파쑈화를 반대하는 인민 운동이 더욱 앙양되였는바 6월 초에 독일 공산당은 전원 회의를 열고 아데나우어 정부의 군국주의 로선을 변경시키며 평화를 위한 투쟁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전체 근로자들에게 호소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9월 1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서독 복수주의 군대의 핵 무장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단행되였다. (10월 8일에는 오베르하우젠시에서도 진행)

아데나우어 도당은 10월 26일 나토의 군사 기밀의 폭로를 운운하면서 경찰을 동원하여 함부르그에서 발행되는 잡지 《슈피겔》의 편집부를 습격하고 그 성원들을 체포 투옥하였다. 《슈피겔》에 대한 서독 군국주의자들의 탄압 조치를 반대하는 진출은 서독 각 계층 인민들을 포괄하고 강력히 전개되였는바 그의 압력하에 11월 20일 슈트라우스를 비롯한 아데나우어 정부의 각료 15명은 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정부 위기가 조성되였다. 20여일의 정부 위기 끝에 12월 11일 기독교 민주 동맹과 자유 민주당의 련합 정부가 형성되였다.

11월 29일부터 개시된 서부 독일 나치츰 피해자 련맹에 대한 서독 군국주의자들의 도발적 재판을 반대하여 광범한 인민이 진출하였다.

독점 자본의 공세를 반대하며 생활 처지의 개선을 위한 서독 근로자들의 투쟁은 앙양되였다. 1월 23일 바덴 뷰르템베르그주내 7개 도시의 금속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사회적 권리를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 파업에 앞서 서독 남부 지대의 약 50만 야금 로동자들이 항의 군중 대회를 가지였다. 5월 8일 서독 자르의 12개 탄광 로동자 4만 5천명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1주일 간이나 파업을 계속하였다. 9월 3일 쉴레스비히 훌슈타인, 하부 삭소니아 및 함부르그 지방에 있는 11개 제지 공장 로동자들도 파업을 단행하였다. 10월 17일 하부 삭소니아와 헤쎈 및 라인 베스트팔리아주에서는 정부의 반인민적 농업 정책을 반대하는 8천 여 명의 농민들의 시위가 단행되였다.

【대외 관계】 1962년에 서독 군국주의자들은 불란서 제국주의자들과의 결탁을 강화하면서 핵 무장 정책을 발광적으로 추구하였다.

6월 이전 서독 국방상 슈트라우스는 미국을 방문하고 케네디를 비롯한 미국의 고위 전쟁 상인들과 대독 강화 조약 체결을 반대하며 서부 베를린 강점 제도를 유지할 데 대한 문제, 반항공 로케트, 반땅크 로케트, 땅크 및 기타 무기들을 량국이 공동으로 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 핵 및 재래식 전술 무기를 포함한 각종 무기로 나토 특히 서독 복수주의 군대의 핵 무장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11월 13~15일 아데나우어가 워싱톤을 방문하고 량국 간의 《협조》 문제와 서부 베를린에 대한 서방 3렬강의 점령 제도의 유지, 영국의 구라파 《공동 시장》 가입 문제, 그리고 쿠바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며 나토를 강화할 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본 정부는 미제의 요구대로 10월 8일부터 쿠바에로의 자국 선박들의 물자 수송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2년에 서구라파에 대한 미, 영 세력의 침투를 반대하여 서독은 불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였다. 2월 15일 아데나우어는 불란서 대통령 드 골과 서독의 바덴에서 회담하고 서구라파에서 미, 영 세력을 배제하고 저들이 령도권을 장악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7월 2~6일에 아데나우어는 불란서를 방문하고 드 골과 《본—파리축》을 형성하기 위

하여 군사 분야에서 《협조》를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문제와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를 토의하였다. 9월 4~9일에는 드 골이 본을 방문하고 량국이 군사 분야 특히 핵무기 분야에서 적극 《협조》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이에 앞서 1월 초에 서부 독일과 불란서 국방상들은 량국이 직승 비행기, 수직 리륙 비행기, 표준 땅크 설계 문제 등 무기 생산에서 구체적인 《협조》를 진행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10월 초에도 량국 국방상들이 이 문제를 토의하였다. 4월 7일 이태리의 카데나비아에서 아데나우어는 이태리 수상과 회담하고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정치 통합》에 찬의를 표시하였다.

서독과 일본 군국주의자들 간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서독 국회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9월)하였고 11월 초에는 일본 수상 이께다가 본을 찾아 갔다.

서독 대통령 류브케가 11월 말 인도를 방문한 데 뒤'이어 12월 12일 서독 정부는 인도에 4억 7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였다.

경제 전후 서독 경제는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하에 급격히 회복되여 이미 전전 수준을 릉가하였다. 그러나 서독 경제의《기적적》 장성을 자극하던 고정 자본 투자는 이미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여 1962년에는 1961년 수준에서 답보하였다. 특히 1962년도 하반기 이후 강철, 기계, 정밀 기계, 화학 공업, 방직, 피혁 등 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감소되였는바 그것은 서독에서 설비 가동률의 저하가 엄중한 정도에 도달한 때문이다. 서독에서의 경제적 침체는 주권 시세의 저락에서도 반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1960년 8월의 높은 수준으로부터 수차 폭락하여 1962년 9월에는 평균 지수가 42%나 떨어졌다. 서독 경제의 《기적적》 장성을 가져오던 수출 무역은 대외 시장에서의 서독 상품의 경쟁력의 악화로 말미암아 점차 축소되고 있다. 경제적 침체에 따라 독점체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와 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에서 그 출로를 찾고 있는데 특히 그것은 《공동 시장》 성원국들에 대한 략탈의 강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후진 국가들에 대한 발광적인 경제적 침투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리하여 대독점체들의 리윤은 계속 증대되였는바 서독 대 회사들의 리익 배당금은 1961년의 23억 마르크로부터 1962년에는 25억 마르크로 증가되였다.

【공업】 1962년은 서독 공업의 장성률이 그전 4년 간에 비하여 가장 낮은 해였다. 1962년의 기계 및 야금 공업에서 생산 장성률은 1961년의 8.6%로부터 1962년에는 3%로 떨어졌다. 강철 공업의 조업률은 1961년의 91.7%로부터 1962년에는 82.3%로, 1962년에 강재에 대한 주문은 195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리하여 1961년에 비하여 1962년에 강철은 2.5%, 선철은 4.6%, 압연 제품은 1.2% 생산이 감소되였다. 1962년에 선박에 대한 주문은 전년보다 45% 축감되였고 선박 건조액은 전년보다 5% 감소되였다. 석탄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1962년에 160만톤이나 감소되였다. 1962년에 석탄 공업 《합리화》 계획에 의하여 년간 1,020만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24개의 탄광들이 폐쇄되였다. 석탄 체화량은 1,100만톤에 달하였다. 방직 공업도 침체하였는바 1962년에 5분의 1 이상의 면방직 공장들이 문을 닫았으며 공장들의 설비 가동률은 1962년에 51% 밖에 안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59	1961	1962
전력 (10억kWH)	99.9	122	133.2
석탄 (100만t)	125.6	142.7	141.1
선철 (〃)	18.4	25.4	24.2
강철 (〃)	25.3	33.5	32.6
압연제품 (〃)		21.9	21.6

【농업】 독점체들과 대지주들이 서독 경지의 거의 전부를 독점하고 있다. 총 농가 호수의 0.7%에 불과한 지주가 경지의 근 30%를 차지하고 있다. 서독 정부의 농업 《구조 개선》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의 집중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 있다. 1961년 말에 5헥터 미만의 경지를 가진 농장은 1960년 말 보다 3만 4천개 감소되였고 한개 농장당 평균 경지 면적은 1949년의 6.95 헥터로부터 8.26 헥터로 확대되였다. 특히 1962년에 중소농민들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농민 수는 8만 2천명이나 감소되였다. 1961~1962년에 농민들의 부채액은 15억 마르크에 달하였는바 이것은 농민들의 3년 6개월 간의 수입액과 같다.

1962년에 서독에서 밀은 463만 1천톤, 쌀보리는 296만 2천톤, 보리는 374만 4천톤, 옥수수는 4만 3천톤, 귀밀은 234만 7천톤, 감자는 2,509만톤 생산되였다. 1962년에 서독의 대각 가축은 1,335만두 (그중 젖소는 591만두), 돼지는 1,686만 마리 있었다.

【대외 무역】 수출 증가를 보이던 서독의 대외 무역도 점차 정체 상태에 빠져 1962년에 수입은 12% 증가하였으나 수출은 4% 증가하였을 뿐이였다. 수출에 비하여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결과 무역 흑자는 1961년의 66억 1,500만 마르크로부터 1962년에는 34억 7,500만 마르크로 떨어졌다. 무역 흑자의 감소는 《공동 시장》 성원국들과의 무역 흑자가 1961년의 24억 서독 마르크로부터 1962년에는 20억 서독 마르크로, 《자유 통상 지대》 성원국들과의 무역 흑자가 58억 서독 마르크로부터 53억 서독 마르크로 떨어진 반면에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같은 기간에 26억 서독 마르크로부터 32억 서독 마르크로 증대된데 기인한다. 라틴 아메리카와 아세아 나라들 및 기타 나라들과의 무역은 1961년에 10억 5천만 서독 마르크의 흑자를 냈는데 1962년에는 10억 8천만 서독

마르크의 적자를 내였다. 1962년에 외화 보유액은 전년에 비하여 5억 1,700만 서독 마르크나 감소되였다.

서독은 각종 《원조》의 명목으로 1962년 말 현재 후진 국가들에 62억 서독 마르크의 자본을 수출하였다.

군 사 서부 독일 복쑤주의 군대의 재무장 특히 핵 무장은 1962년에도 미제의 지지 하에 급속히 추진되였다. 서부 독일 군국주의자들은 핵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하여 미제의 《다각적 핵 무력》창설 계획이나 영국의 《다국가적 핵 무력》창설안이나를 불문하고 다 지지해 나서는 립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서독 군대 총 수는 40만 2천명에 달하고 있는바 그중 륙군은 25만 4천명, 공군은 9만 3천명, 해군은 2만 8천명, 지상 방위 부대는 2만 7천명이다. 서독의 함선 수는 200척 이상에 달하고 있다.

서부 독일에는 나토 및 《서구 동맹》 참가국들의 군사 기지가 30개나 있는데 그중 20개 이상이 미국의 기지이다.

서독 군국주의자들은 1962 예산 년도에 군사적 목적에 지출된 160억 마르크 외에도 148억 서독 마르크를 전쟁 준비에 지출하였다.

사회, 문화 군비 경쟁과 경제의 군사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서부 독일 근로자들의 생활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서부 독일에서 1961년 10월부터 1962년 9월까지의 1년 간에 생계비는 평균 3.5% 등귀하였다. 1958년부터 1963년 1월까지의 기간에 주택 사용료는 26.5%, 교통비는 13.2%, 음료 가격은 11% 각각 등귀하였다. 서독에는 집 없는 사람이 30만명이나 있으며 약 200만 세대의 주택이 부족되고 있다.

1962년에 서독 탄광들에서 로동 사고로 인하여 약 660명의 로동자들이 희생되였는데 이것은 1961년 보다 200명이 더 많은 수자이다. 2월 7일 서독 자르 지방의 뷜크링겐에 있는 탄광에서는 폭발 사고로 단번에 110명의 로동자들이 죽고 85명이 중상을 입었다. 1962년에 교통 사고 건수는 100만건 이상에 달하여 전후 최고 기록을 냈다. 이로 말미암아 1만 4,123명이 죽고 41만 3,457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독 군국주의자들의 비호 하에 서독에는 86개의 파쑈 및 반유태인 단체들이 있으며 그 성원은 3만 5,400명이라고 공표되고 있다. 이 파쑈 단체들은 46종에 달하는 파쑈적 신문과 잡지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총부수는 16만부에 달하고 있다.

【출판】 통신—데페아

신문—프라이에스돌크 (독일 공산당 기관지), 디 벨트, 텔레 그라프, 댜트 쿠리에르, 프랑크푸르테르 룬트샤우,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도이췌 폴크스 짜이퉁

잡지—비쎈 운트 타트 (독일 공산당 리론 잡지), 노이에 게젤샤프트 (사회 민주당 리론 잡지)

유고슬라비야

(유고슬라비야 사회주의 련방 공화국)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면적】 25만 5,804 km²
【인구】 1,895만 8,000명(1962년 12월 31일)
【수도】 벨그라드 (주민 58만 8,200명, 1963년 2월)

정 치 유고슬라비야는 1945년 5월 히틀러 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고 동년 11월 29일 련방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그러나 1948년 6월 20일 《유고슬라비야 공산당 사태에 관하여》라는 공산당 및 로동당 보도국 결의에 천명된 바와 같이 찌또 도당은 맑스—레닌주의로부터 리탈하면서 자본주의를 복구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찌또 집단은 대외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포기하고 소위 《쁠럭 불가담》정책을 선포하였다.

찌또 집단은 1951년에 미제와 《호상 방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2년 후에는 침략적 나토의 부속물인 발칸 조약을 조작하였다.

찌또 집단은 저들의 수정주의 로선을 1958년 4월에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으로 성문화하였으며 1963년 4월 7일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국명을 《유고슬라비야 사회주의 련방 공화국》이라고 붙이였다.

【련방 인민 의회 (쓰꿉쉬나)】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의 련방 인민 의회는 각각 120명의 대의원을 가진 5개의 의원 즉 련방 의원, 경제 의원, 교육 문화 의원, 보건 사회 복리 의원, 행정 정치 의원으로 구성된다. 7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민족 의원도 있다. 각 의원의 대의원은 2년 마다 절반씩 개선된다. 현 련방 인민 의회는 1963년 6월에 선거되였다.

의장 에드와르드 까르델리

【대통령】 4년 기한으로 련방 인민 의회에서 선거되며 오직 1기만 더 재선될 수 있으나 현 대통령 찌또(1963년 6월 30일 4대 대통령으로 피선)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대통령은 군사 최고 사령관을 겸한다.

【련방 집행 위원회 (정부)】 위원장 페.쓰땀볼리츠, 외무 관계 국무상 꼬챠 뽀뽀비치

【정당, 사회 단체】 공산주의자 동맹 1919년 4월 창건된 공산당을 1952년 11월에 개칭하였다. 총 비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사회주의 근로자 련맹 1953년 2월에 인민 전선을 개칭하였다. 위원장 라자르 꼴리쉐쓰끼, 총비서 밀레티제 뽀뽀비치

【주요 사건】 국가 생활의 전반에 걸쳐 자본주의를 복구하고 나라의 경제를 제국주의 《원조》의 희생물로 전변시킨 결과 1962년에는 그 파국적 후과가 전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찌또 집단 자체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4월 7일 유고슬라비야 부대통령은 련방 인민 의회에서 한 경제 보고에서 유고슬라비야는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고 공업 확장의 속도는 굼떠졌으

며 농업 생산은 침체되였고 수입은 수출을 훨씬 초과하여 지불 발란스의 적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비는 올라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5월에 유고슬라비야 쓰쁠리트시 군중 대회에서 찌또는 《우리들에게는 래일에 가서 페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저러한 기업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업소들에서 실현할 수 없는 과잉 생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6월에 유고슬라비야 고급 정치 학교 대표단과의 담화에서 찌또는 유고슬라비야에서는 《임금 차이가 아주 불가능한 정도의 비률에 도달하였다》고 하면서 례컨대 《로동자들은 리익 배당금에서 2천 지나르를 받는데 기타 사람들(기업소의 지도자들—편집자주)은 8만 지나르를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찌또는 《절대 다수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구매력이 낮다》고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사람들 속에서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찌또는 《일부 사람들은 만약 형편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덧붙였다.

【대외 관계】 1962년에도 찌또 집단은 소위 《적극적 공존》과 《쁠럭 불가담》을 고창하면서 사회주의와 민족 해방 운동, 국제 로동 운동과 공산주의 운동의 파괴를 위하여 날뛰였다.

8월 7일 미국 기자 피어슨과 한 담화에서 찌또는 세계의 기본 모순들을 묵살하고 제국주의의 침략적 및 략탈적 본성을 가리우기 위하여 《세계에서 경제 문제로 하여 싸우던 시기는 이미 과거지사로 되고 말았으며》 《오늘의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더는 식민지가 아니며 렬강들이 분할을 위하여 다투는 령토가 아니다》 그리고 《발전된 나라들의 생산력 발전은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므로 그들에게는 재부를 획득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을 정복할 필요가 없는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 자체로서도 충분한 수량의 재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찌또는 《경제적 통합은 우리의 전망》인데 《정치적 통합은 경제적 통합에 뒤'이어 실현된다》고 떠들어댔다.

이렇듯 찌또 도당은 우리 시대를 대립되는 두 사회 체계의 투쟁의 시대인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내부적 통합》이 일정에 오른 시대로,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민족 해방 혁명의 시대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공존》의 시대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제국주의가 붕괴되는 시대인 것이 아니라 다만 《생산력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로 묘사하였다.

찌또 도당은 1963년 4월에 채택한 새 헌법에서 《온갖 형태의 구체적 협조를 확립하고 발전시키며》 《다방면적인 정치, 경제 및 문화적 협조를 진행하며》 《세계 모든 인민들의 자유로운 공동 체를 창설》하는 것이 《대외 정책의 종적인 목적》이라고 하였다.

찌또 집단은 1962년에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공개적인 적대 정책을 추구하면서 제국주의 특히 미제에 적극적으로 복무하였다.

찌또 집단은 미제의 사촉 하에 인도 반동들이 감행한 중국 령토에 대한 계속되는 무력 공격에는 눈을 감고 중인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주동적이며 인내성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인민 중국을 침략자로, 중인 충돌의 도발자로 묘사하면서 중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인도와의 현 국경 분쟁을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유엔 유고슬라비야 대표단 단장 뽀뽀비치) 《북경의 조건들은 인도에 대하여 말할 때 접수될 수 없는 것》(유고슬라비야 신문 《뽈리찌까》)이라고 떠벌렸다.

1962년 10월 미제에 의하여 조성되였던 카리브해 위기 때 찌또 도당은 미제를 침략자로, 전쟁 방화자로 규탄할 대신에 쿠바가 《미의 정책에서 일면성》을 가지고 미국을 대한 데서, 《쿠바 혁명이 미국의 골치'거리로 된데》 원인이 있는 듯이 떠벌렸다. 찌또 집단은 쿠바가 《국제 시찰》을 접수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였으며 쿠바의 정당한 5개 조항의 요구를 쿠바 위기 해결에 대한 장애로 간주하고 쿠바가 《난관을 조성하였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유고슬라비야 찌또 수정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에 대한 이러한 배신 행위의 대'가로 제국주의자들 특히 미제로부터 각종 찬사와 거액의 뢰물을 받고 있는바 1962년과 1963년 1월에만도 미국, 불란서, 이태리, 기타 서방 국가들로부터 3억 731만 딸라의 차관과 기타 종류의 《원조》를 받았다. 그중 미국으로 부터는 1억 493만 딸라를 받아 먹었다.

1962년에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 위원장 브레쥬네브(10월), 쏘련 외무상 그로미꼬(4월), 파란 외무상 라빠쯔끼(11월)가 유고슬라비야를 방문하였으며 찌또(12월), 유고슬라비야 국회 대표단(6~7월)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찌또 집단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천사》의 행동으로 분식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 시기 더욱 빈번히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 특히 무장 투쟁은 《열핵 전쟁》을 초래한다고 위협하면서 투항과 굴복을 설교하며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인민들 호상 간의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떠들고 있다.

경제, 사회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이른바 《사회주의》 건설에서 유고슬라비야가 마치 《독특한 길》이나 걷고 있은 것 처럼 묘사하면서 유고슬라비야를 제국주의 특히 미제의 종속물로 전락시키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와 미국 출판물들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후 10년 간 유고슬라비야는 미국과 그 통제 하에 있는 《국제 부흥 개발 은행》, 《국제 통화 기금》 및 기타 서방

국가들로부터 수십억 딸라의 《원조》를 받았다. 특히 이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약 35억 딸라의 《원조》를 받았다. 1951~1959년간 유고슬라비야의 《련방 투자액》 중에서 이 《원조》가 무려 70%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출판물들은 유고슬라비야에 대한 《원조》의 목적이 《유고슬라비야를 서방 경제 세계에 끌어 들》이고 나아가서는 《서방 정치 세계에 끌어 들》이는 데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찌또 집단은 국내에서 자본주의를 복구하고 있는바 그의 주장은 《사회주의와 국가 소유는 두개의 량립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야에는 개인 기업소가 11만 5천개나 되는데 그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경제 기업소 법규》에 의하면 《기업 자치》를 한다는 공장, 기업소는 국가 기업소가 아니며 그 기업소의 재산이 설사 국가 재산을 받았다 하여도 국가 소유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에서는 《리윤 추구가 생산을 자극》(까르델리)하기 때문에 생산의 무정부성이 지배하고 있는 데 이 때문에 1962년 첫 5개월 동안에만도 295개의 기업소들이 파산을 당하였다.

1962년에 공업 생산은 전년에 비해 13%의 《장성》을 예견하였는 데 사실상 아무런 전진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문에서 생산은 감퇴되였다. 1962년에 1961년에 비하여 석탄 채굴은 2%, 야금 공업 생산은 3%, 건재 생산은 18%, 고무 제품 생산은 2%, 담배 생산은 23% 각각 저하되였다.

또한 농업이 《행정 지도에서 벗어 나게 하며 각종 경제 세력들의 자유로운 경쟁의 기초 우에서 농업을 발전》(또도로비치)시키는 방침에 따라 실시된 1953년 3월의 《협동 조합 재산 관계와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을 개편할 데 관한 법》에 의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이 해체되였으며 1960년에는 《토지 사용법》에 의하여 토지의 매매, 소작, 고용 로동이 허용되였으며 부농에 의한 토지의 집중이 법적 보장을 받았다. 그 결과 1961년 5월 현재 개인농은 전체 농호의 98% 이상, 경지 면적의 91.3%를 차지하였다.

농촌 경리에서 계급 분화도 심화되고 있으며 소작이 성행하고 있으며 생산의 감퇴가 의연 계속되고 있다. 1961년 5월 현재 빈농, 고농의 호수는 전체 개인농 호수의 70%였는데 그들의 토지 소유는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38%에 불과하였으며 부농은 전체 개인농 호수의 13.6%였는데 그들의 토지 소유는 전체 개인 소유의 39%나 되였다. 고리대, 토지 임대, 고용 로동의 채용 등은 보통 현상으로 되고 있으며 고용농과 리농자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962년에 밀 수확량은 351만 톤으로서 1959년보다 62만톤 감소되였다. 국내의 년간 밀 소요량은 450 만톤인데 부족량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사들여 보충하고 있다.

대외 무역에서는 만성적 결손이 계속되고 있는데 1962년에는 그것이 590억 지나르에 달하였다.

1962년 첫 4개월 간의 월 평균 실업자수는 27만 8,000명이였는데 이는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24.5%의 증가로 된다.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외국으로 떠나가고 있다.

1962년 첫 5개월 간에 상품 판매 가격은 24%나 등귀하였으며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25%나 저하되였다. 생계비는 1962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에 비하여 16%나 올랐다.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사회 문화 령역에 《서방식 문화》, 《미국식 생활 양식》을 부식시키고 있다. 예술 분야에서는 《추상파》가 성행하고 있으며 퇴폐적인 미국 영화가 영화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출판】 통신—따뉴그, 유고 프레쓰

신문—꼼무니쓰트 (공산주의자 동맹 기관지), 보르바 (사회주의 근로 인민 동맹 기관지)

잡지—쏘찌알리잠 (공산주의자 동맹 리론 잡지)

오지리

(오지리 공화국)

Republic of Austria

【면적】 8만 3,849 km²

【인구】 707만 3,807명 (1961년 3월)

【수도】 윈나(주민 162만7,566명)

정 치

오지리는 제 1차 세계 대전 후 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39년 독일에 병합되였다가 1945년 히틀러 독일의 패망 후 쏘, 미, 영, 불 4개 국의 공동 관리 하에 있었다. 1955년 5월 15일 대오 국가 조약이 조인되고 동년 10월 26일 국회는 오지리의 영구 중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그후 오지리 반동 지배층은 중립을 위반하면서 1956년 4월 침략적 나토와 련결된 《구라파 리사회》에 참가하였고 1960년 5월에는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에 가입하였다.

【대통령】 아돌프 쉐르프 (1963년 4월 28일 재선)

【의회】 의회는 련방 의회 (상원, 각 주 대표로 구성)와 국민 의회 (하원 의원 165명)로 구성된다. 1962년 11월 18일에 진행된 선거에서 인민당은 79석, 사회당은 78 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내각】 알폰스 고르바흐를 수상으로 하는 인민당과 사회당의 련립 내각은 1962년 11월 선거후 사직하였다. 인민당과 사회당 간에 의석 배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 대립되여 4 개월 간의 정부 위기가 있은 후 1963년 3월 말에 겨우 신 내각이 구성되였다.

수상 알폰스 고르바흐

외상 브루노 크라이스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 3일에 창건되였다. 1956년 7

월 15일 사회 로동당과 합당하였다. 위원장 요한 코플레니히 **인민당**(집권당) 1945년 창건, 독점자본가, 지주 및 부농의 리익을 대표하며 카톨릭 교회와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당** 1945년 창건, 전신은 사회 민주당이다. **자유당** 1956년에 창건된 극우익의 파쑈 정당이다. **평화 옹호 위원회, 로조 련합, 민주 녀성 련맹**

경제, 사회 오지리는 공업과 농업이 비교적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이다. 생산과 자본은 매우 집중되여 있다. 《자본주의적 《국유화》 기업은 공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 철광석, 흑연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흑연의 생산은 세계 제 1위이다. 공업은 철강, 섬유, 제지, 전기 기계, 화학 공업 같은 분야가 발전하였다. 공업 인구는 총인구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선철은 212만 톤, 강철은 298만톤, 석유는 164만톤 생산되였다.

경지 면적은 163만 9천 헥타이며 총 인구의 약 2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5헥타 미만의 농호가 전체 농민의 50%에 달하며 그들은 전체 경작 면적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전체 농호의 1%에 불과한 대지주가 45.7%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쌀보리, 감자, 옥수수이다. 1962년에 농업 생산은 전년보다 감소되였으며 알곡생산은 230만 톤이였다. 이해에 밀은 70만 6천톤, 쌀보리는 46만 7천톤, 보리는 55만 7천톤, 귀밀은 33만 2천톤, 옥수수는 19만 3천톤, 감자는 321만 4천톤 생산되였다.

1962년 5월 9일부터 4일간에 걸쳐 20만 이상이 참가한 파업을 비롯하여 1962년에 20만 7,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생활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에 참가하였다. 파업으로 인하여 500만 이상의 로동 시간이 상실되였다. 1962년 무역 적자는 72억 쉴링에 달하였다.

【신문】 외스테르라이히쉐 폴크스 슈팀메(공산당 기관지), 윈나 짜이퉁(정부 기관지), 외스터르라이히쉐 노이에 타게스 짜이퉁(인민당 기관지), 아르바이테르짜이퉁(사회당 기관지)

희 랍

(희랍 왕국)

Kingdom of Hellas

【면적】 13만 2,562 km²

【인구】 838만 8,553명 (1961년 3월 31일)

【수도】 아테네(주민 185만 2,709명)

정 치 희랍은 립헌 군주국이다. 1948년에 예속적인 《마샬안》을 접수하였고 1952년에는 침략적 나토에 참가하였다. 1962년 3월 2일 국회는 구라파 《공동 시장》에 가입할 데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다.

【국왕】 파울 1세 (1947년 4월 1일 즉위)

【의회】 1원제로서 임기는 4년이며 의원 수는 300명이다. (현 의회는 1961년 10월 29일에 실시된 협잡 선거에 의하여 구성)

【내각】 1963년 6월 19일 파도 내각이 성립되였다.

수상 겸 외상 파나요티스 피피넬리스, 국방상 필리프 드라구니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에 창건되였으며 1947년 10월에 비법화되였다. 위원장 아포스톨로스 그로조스 **통일 민주 좌익당** 1951년에 창건된 진보적 야당이다. 위원장 파살리드스 **국민 급진당**(집권당) 미국 자본과 결탁한 대자본가들과 지주의 리익을 대표하는 반동 정당이다. 위원장 카라만리스 **로동 총 련맹, 전국 청년 통일 동맹, 평화 옹호 위원회**

【주요 사건】 1962년에 희랍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파쑈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계속 미제의 침략 정책에 추종하였다.

희랍의 림시 국회 립법 위원회는 7월 11일 회의에서 국내 민주 력량에 대한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 조치》에 관한 새로운 반동적 법안을 강압 통과시켰으며 이 법안 중 가장 반동적인 조항인 제 7조는 격론 끝에 7월 17일 회의에서 겨우 통과되였다. 이 조항은 1947년에 채택된 희랍 공산당 금지에 관한 제 509호 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며 희랍 공산당의 합법화를 위한 일체 행동과 그의 구호 및 결정들의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3월 2일 희랍 국회는 희랍이 구라파 《공동시장》에 가입할 데 대한 협정을 비준하였다.

3월 8일 희랍 국방상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희랍은 지중해의 크레레도에 나토의 유도탄 훈련소를 설치하는 데 동의하였다. 이 섬에는 3개의 나토 군사 기지가 있다.

9월 1일 미 부대통령 죤슨이 희랍을 방문하였는데 그는 최고 수준의 군사비를 유지할 것을 희랍 정부에 강요하였으며 미국이 최신형 무기와 년간 1억 딸라에 해당하는 군사 장비를 희랍에 제공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962년에 희랍 인민들은 1961년 10월의 국회 《선거》의 무효, 희랍 공산당의 합법화, 《비상법》의 철폐, 정치범들의 시급한 석방, 외국 자본에 의한 경제의 예속 및 근로자들의 생활에 대한 자본의 공세 등을 반대 배격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12월 15일 희랍 인민들과 세계의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마놀리스 글레조스가 석방되였다.

1962년 희랍에서는 정부의 반동 정책을 반대하여 185건에 46만 4,830명 (5.1절 투쟁까지 합하면 80만명)이 참가한 파업 투쟁이 있었다.

경제, 사회 희랍은 락후한 농업 국가로서 주산물은 담배, 포도, 올리브, 밀 등이다. 경지 면적은 전국 령토의 20%에 불과하며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있다. 1962년에 밀은 169만 2,000톤, 포도는 13만 2,000톤, 담배는 9만톤 생산되였다.

주요 자원은 철, 대리석 등이

며 공업에서는 식료 가공업과 방직 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아브기》지 보도에 의하면 1962년에 외국 자본은 희랍에 3억 드라크마 좀 넘는 자본을 투자하였는데 리윤으로는 2억 200드라크마를 짜내 갔다.

국가 부채액은 1962년 말에 약 128억 6,800만 드라크마에 달하였다. 인민들에 대한 세금 수탈은 1955년의 120억 드라크마로부터 1961년에는 220억 드라크마로 증대되였다.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곤난한 형편에 처하여 있다. 12세 미만의 아동들 중 5만 여명이 각이한 중로동에 참가하고 있다. 희랍에는 47만 1,000명의 완전 실업자와 100 여만명의 반 실업자가 있다. 1959~1962년 간에 21만 5,000 명의 희랍인들이 일터를 찾아 해외로 떠났다.

1961년 현재 10세 이상의 주민들 중 122만명이 문맹자다.

분 란

(분란 공화국)
Republic of Finland

【면적】 33만 7,009 km²

【인구】 452만 3,000명 (그중 농촌 지역 265만 9,690명, 1962년 2월 현재)

【수도】 헬싱키 (주민 47만 7,500명 1962년 12월 현재)

정 치 분란은 1939년 11 월과 1941년 6월의 2차에 걸쳐 쏘련을 침공하였다가 패배 당하였다. 1947년 2월 10일 분란은 쏘련과 강화 조약을 체결하고 1948년에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 조약을 맺았다.

【의회】 1원제로써 의원은 200명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 (1962년 2월 15일 재선, 임기는 6년)

【내각】 수상 아흐티 카라얄라이넨 (농민 련맹), 외상 벨리 메리코스키 (분란 인민당), 국방상 아르보 펜티(농민 련맹)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 9월 28일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아이모 알토넨, 총비서 빌레 페씨 인민 민주 동맹 1944년 공산당과 좌익 사회 당원들의 발기로 창설된 대중적인 민주주의적 사회 정치 단체이다. 위원장 지.엘.쿨로, 총비서 엔네 농민련맹 (집권당) 1906년에 창설되였으며 농촌 자본가와 대지주의 리익을 대표한다. 사회민주당, 인민당, 민족 련합당, 분란 중앙당, 로농 총동맹, 민주 녀성 동맹

【주요 사건】 1962년 2월 5~6일 량일 간에 걸쳐 국회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 결과는 총 의석 200석중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정당이 89석, 농민 련맹을 비롯한 부르죠아 정당이 111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4월 13일 아흐티 카라얄라이넨을 수상으로 하는 련립 내각이 성립되였다.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헬싱키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140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 하에 제 8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진행되였다.

1963년 1월 1일 화폐 개혁이 실시 되였다. (이전의 100마르카는 새 화폐 1마르카에 해당)

경 제 주요 자원은 철광, 동광 및 연광 등이고 주요 농산물은 맥류, 감자 등이다. 경제의 주요 부문은 제재, 제지 및 팔프 공업 등이다. 산림 면적은 국토의 70% 이상이다. 주민의 60%가 림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국가 수입의 약 70%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

1962년에 공업 생산의 장성률은 1961년의 10%로부터 1962년에는 4.5%로 저하되였다. 1962년에 전력은 111억 키로왓트시, 강철은 31만 3,100톤, 베니야판은 42만 800 립방메터, 종이는 173만 8천톤 생산되였다.

1962년에 농업은 흉작으로 인하여 밀은 42만 1천톤, 쌀보리는 10만 1천톤, 보리는 27만톤, 귀밀은 61만 6천톤, 감자는 95만톤 생산되였다.

서 전

(서전 왕국)
Kingdom of Sweden

【면적】 44만 9,200 km²

【인구】 754만 2,459명 (1961년 말)

【수도】 스톡홀름 (주민 80만 3,600명)

정 치 서전은 중립국으로서 조선 정전 중립국 감독 위원회에 자기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서전은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 참가국이나 1962년에 구라파 《공동 시장》에 준 가맹국으로 가맹할 것을 신청하였다.

【국왕】 구스타브 6세 아돌프 (1950년 10월 즉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임기 8년의 의원 151명 으로 구성되며 하원은 임기 4년의 의원 231명으로 구성된다. 공산당은 상원에서 2석, 하원에서 5석을 차지하고 있다.

【내각】 현 내각은 1960년 9월에 성립되였다.

수상 타개 에를란데르, 외상 토르스텐 닐쏜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7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힐딩 하그베르그 사회 민주당 (집권당) 위원장 타게 에를란데르, 인민당, 보수당, 로조 중앙 련맹, 민주 청년 동맹, 녀성 동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경 제 광물, 림산 및 수력자원이 풍부하며 제지 및 목재 가공, 야금, 조선 공업 등이 발전하였다. 1962년에 전력은 406억 키로왓트시, 철광석은 2,100만톤, 선철은 182만톤, 강철은 361만톤, 종이는 241 만톤 생산되였다. 1962년에 자본주의 국가 조선공업에서 서전의 비중은 10%를 차지하였다.

농업은 경지가 적은 관계로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나 목축업은 발전되여 있다. 1962년에 밀은 86만 4,000 톤, 쌀보리는 17만 1,000톤, 보리는 96만

7,000톤, 귀밀은 97만4,000톤 생산되였다. 1962년에 대외 무역 결손은 9억 9,200만 크로나였다.

노르웨이

(노르웨이 왕국)

Kingdom of Norway

【면적】 32만 3,917 km²

【인구】 365만 5,000명 (1963년 1월 1일 현재)

【수도】 오슬로 (주민 47만 8,000명)

정 치 노르웨이는 1940년 4월 9일 히틀러 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쏘련의 대독 전승에 의하여 해방되였다. 노르웨이는 1948년에 《마샬안》을 접수하고 1949년에는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다. 1962년 4월 28일 노르웨이 국회는 《공동 시장》에 정식 성원국으로 가입하는것을 승인하였다.

【국왕】 올라프 5 세(1957년 즉위)

【의회】 량원제로서 임기 4년의 의원 150명으로 구성된다. 하원 의원은 112 명, 상원 의원은 38명이다.

【내각】 수상 에이나르 게르하르드센, 외상 하르바르드 랑게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3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에밀 레블리엔 사회 인민당 1961년 4월 16일 결성. 원자 무기 반대, 군사 블럭 탈퇴 등을 주장. 위원장 크누트 레프스네스 로동당 (집권당) 1887년에 성립되였다. 이 당은 부르죠아지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사회 민주당, 보수당, 기독교 인민당, 로조 련합, 공산 청년 동맹, 녀성 동맹

경 제 경제의 주요 부문은 해운업, 림업, 어업이다. 국토의 24.2%가 산림 면적이고 불과 2.6%가 경지 면적에 속하는바 식량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주식 자본에서 외국 자본은 약 15%를 차지한다. 그중 43%는 미국, 36%는 [illegible] 자본이다. 외래 자본의 80%이상은 화학 공업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그밖에 지방(脂肪), 야금, 금속 가공, 채광, 전력, 제지, 식료 공업 등에도 외국 자본이 투자되고 있다.

알루미늄 생산은 서구라파에서 불란서 다음의 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알루미늄은 22만 6,000톤, 선철은 210만톤, 강철은 220만톤, 세멘트는 140만톤, 종이는 80만톤 (1961년에는 82만 5,000톤), 어획고는 1961년보다 19만 9,000톤 감소된 111만톤이였다. 1962년에 밀은 20만 300톤, 보리는 34만 2,700톤, 귀밀은 10만 6,700톤 생산되였다.

1962년에 대외 무역 결손액은 48억 6,700만 크로네였다.

나토의 요구에 따라 노르웨이의 군사비 지출은 해마다 증가되였는바 1962년에 직접적 군사비만 하여도 12억 8,600만 크로네였다.

아이슬랜드

(아이슬랜드 공화국)

Republic of Iceland

【면적】 10만 3,000 km²

【인구】 18만 58명 (1961년 12월 1일 현재)

【수도】 레이캬비크(주민 7만 2,270명)

정 치 아이슬랜드는 1944년에 덴마크에서 떨어져 나와 동년 6월 17일 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1년에는 미국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미국의 군사 기지 건설을 허용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임기는 4년 의원수는 60명 (그중 상원 20명)이다.

【대통령】 아스게이르 아스게이르쏜 (1960년 8월에 3선)

【내각】 수상 올라푸르 토르스 (독립당), 외상 구드뭄두르 구드문드쏜 (사회 민주당)

【정당, 사회 단체】 통일 사회당 1938년에 공산당과 사회 민주당 좌파가 련합되여 조직되였다. 위원장 에이나르 올게이르 독립당, 진보당, 사회 민주당, 로조 련합, 아이슬랜드 조선 문화 련락 위원회

경 제 경지 면적은 전 국토의 0.5%에 불과하며 식량의 대부분은 수입한다. 경제의 주요 부문은 어업이다. 어업은 국민 총 생산액에서 25%, 수출에서 어류 및 가공 제품은 95%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어획고는 82만톤이였다. 1962년 어선 총톤수는 7만 4,613톤이였다.

영 국

(대브리텐 및 북 아일랜드 련합 왕국)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면적】 24만 4,100 km²

【인구】 5,267만 5,094명(1961년 4월)

【수도】 런던 (주민 834만 6,000명)

【국왕】 녀왕 엘리자베스 2세 (1952년 2월 6일 즉위)

정 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왕족, 귀족, 승려 등 989명의 의원으로, 하원은 임기 5년의 의원 630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현 의회는 1959년 10월에 진행된 총선거에 의하여 성립되였다.

【내각】 1959년 10월 14일에 성립되여 그후 수차 개조되였다.

수상 해롤드 맥밀란 (국가 재정 위원회 위원장 겸임), 외상 알렉산더 흄, 국방상 피터 소니크로프트 영 련방 및 식민지상 던캔 샌디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7월 30일에 창건되였다. 당원수 3만 4,372명(1963년 4월), 당 위원장 프랭크 스탠리, 총비서 존 골랜 보수당 (집권당) 19세기 중엽에 조직된 독점 자본가와 대지주들의 정당이다. 당수 해롤드 맥밀란 레이버당 전형적인 개량주

의 및 기회주의 정당이다. 당수 해롤드 윌슨

자유당 보수당과 동일한 립장을 취하고 있다. 당수 죠 그리몬드

로동 조합 콩그래스 지도부는 로동 귀족들에 장악되여 있다.

공산 청년 동맹, 평화 옹호 위원회

【국내 사건】 맥밀란 정부는 1962년에 자국 내에 조성된 어려운 정치 경제적 형편을 타개해 보려고 실패의 운명을 지닌 반인민적 《긴축 계획》을 계속 완고히 실시하면서 근로 인민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2월 2일에 영국 재정상은 1962년에도 임금 《동결》 정책을 계속할 것을 제의하는 반동적 《백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7월 중순에 영국 정부는 60개의 탄광들을 페쇄하며 2만 여 명의 탄부들을 해고시킬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영국이 구라파 《공동 시장》에 가입하기 위하여 자국의 석탄 공업을 희생시켜 서부 독일 석탄 공업에 리익을 주는 동시에 자국의 석유 독점체들의 배'속을 채워 주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뒤'이어 8월 중순에는 타산이 안 맞는다는 구실 하에 앞으로 5년 동안에 수 많은 철도 간선과 12개의 철도수리 공장을 페쇄하고 2만명을 해고할 것을 예견한 《철도 축소 계획》을 발표하였다.

10월에 정부의 관리, 기업주 및 우익 로조 대표들로 구성된 정부의 중요 기관인 《경제 발전 전국 리사회》는 기업소들에서 로동 강도를 훨씬 높일 것을 예견하는 《경제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또한 영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욱 착취하며 인종 차별을 강화할 목적으로 《망명 제한에 관한 법안》을 발표하였는바 1월 14일 련던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시위가 전개되였다.

6월에 정부의 비호 하에 련던에서 《국가 사회 운동》이라는 파쑈 단체가 출현하였다. 이 파쑈 악당들은 련던과 기타 도시들에서 수차에 걸쳐 모임을 가지고 파쑈 사상을 고취하였다.

맥밀란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은 근로자들의 강력한 항거와 반대에 봉착하였다.

2월 5일과 3월 5일의 두 차례에 걸쳐 300 만명의 기계 제작공들은 임금의 《동결》 정책을 반대하여 8년래의 최대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것을 필두로 하여 1962년에 영국에서는 2,440건의 파업이 단행되였다.

맥밀란 정부는 자국에 조성된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기만적 조치로서 7월 13일과 16일의 2차에 걸쳐 대대적인 내각 개조를 실시하였다. 이를 간파한 야당들은 7월 17일 맥밀란 정부의 사직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 안은 7월 26일 하원에서 진행한 표결에서 253표 대 351표로 부결되였다.

10월 10~13일 련던에서 보수당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 진행 과정은 영국의 현 집권당인 보수당이 더욱더 《랭전》과 반인민적 정책에 매여 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대회에서 외상 흄은 《힘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힘은 세계 정책에서 기본 요소로 남아 있다》고 떠들어 댔다. 대회에서는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최종적으로 찬동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10월 1~5일 브라이튼에서 영국 레이버당 제 61차 년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우익 지도부는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반대하는 로조 단체들의 발의를 각종 책략과 기만 술책으로 거부하고 《공동 시장》의 조건부 가입을 찬동하는 《선언문》을 강압 통과시켰다.

11월 3일 련던에서 영국 공산 청년 동맹 제 24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및 영국 청년들의 생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대표들은 보수당 정부가 국제 문제들에서 미국에 추종하고 있는 사실, 수만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으나 보수당 정부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옥 건설에 광분하고 있는 사실을 규탄하였다.

【대외 관계】 맥밀란 정부는 미국에 계속 굴종하면서 《랭전》과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켰으며 자기의 식민지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는데 발광하였다.

대독 강화 조약의 체결을 반대하며 서부 베를린에 대한 점령 제도를 유지하려는 영국 정부의 시도는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다. 맥밀란과 아데나우어 간의 회담 (1월) 및 미영 국방상들 간의 회담(6월)들에서 쌍방은 《어떠한 환경 하에서도 베를린에서의 동맹국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결의》하였다

영국 정부는 제네바 18개국 군축 회의에서 미국과 같은 립장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영국의 크리스마스도를 핵 시험장으로 전변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핵 시험을 감행하였다.

11월 27일 중인 국경 분쟁을 격화시킬 목적으로 영국은 인도에 무기를 무상으로 대여할데 관한 서한을 인도에 수교하였다.

10월 23일 영국 정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케네디의 반큐바 봉쇄 조치를 《전폭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카리브해 위기를 격화시켰다.

6월 17일에 사이공에 기여든 영국 《군사 사절단》은 디엠 도당으로 하여금 남부 월남 애국자들에 대한 탄압 조치를 강화케 하며 《토벌》 작전을 감행케 하는데 적극 방조하였다.

영국 정부는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의 압력 밑에 자기의 이전 식민지들인 쟈마이카 (8월 6일), 트리니다드—토바고 (8월 31일)의 독립을 인정하고 아덴을 반자치국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와 함께 날로 확대되는 민족 해방 운동을 말살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는 7월 31일 말라이 수상 라흐만을 런던에 불러다 놓고 소위 《말레이시아 련방》 조작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련방》에는 말라이의 11개 주와 싱가포르, 브루네이, 사라와크 및 북부 보르네오가 망라되게 된다. 《말레이시아 련방》은 이에 망라되는 나라들에 형식상 《독립》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이 지역들에대한 식민지 통치 지위를 강화하며 모든 반동 세력을 집결하여 진보적 력량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싱가포르 38개 로조들의 콤뮤니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3월 2일 남극 해상에 새로운 식민지 《영국의 남극 령지》를 설치할 데 관한 법령을 승인하였다.

영국 정부는 또한 2월 16일 영령 기아나에서 인민의 지지를 받는 체디 쟈간의 합법적 정부를 전복하며 이 나라의 독립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반동들을 사촉하여 일대 반정부 소동을 일으켰다.

1954년 인도지나에 관한 제네바 회의 공동 의장국인 영국은 극동 방위 통합 사령부 (11월 28일 발족)를 설치하는 한편 라오스와 남부 월남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타이에 자국 공군 부대를 급파하였다. 그의 첫 부대는 5월 5일 방콕크에 도착하였다. 이 밖에도 영국은 자주, 식민지들에 비밀 파쑈 단체들을 조직하며 군대를 파견하여 인민 탄압에 광분하였다.

맥밀란 정부는 《공동 시장》에 가입하여 서구라파에서 지도적 지위를 유지해 보려고 브류셀 회담에 자기 대표단을 파견하여 왔으나 1963년 1월 23일에 열린 회담에서 그 기도가 완전히 실패를 당하였다.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신청은 불란서와 서독을 비롯한 《공동 시장》 성원국들의 반대를, 받았으며 영 련방 성원국들로부터도 반대를 받았다.

11월 14일 런던에서 맥밀란은 일본 수상 이께다와 량국 간의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에 조인하였다.

미국은 핵 《방아쇠》를 자기 수중에 계속 장악하고 자금 부담은 《동맹국》들에 들씌우기 위한 《다각적 핵 무력》 창설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영국은 핵 《방아쇠》를 핵 소유 렬강들이 공동으로 통제하며 핵 무기를 자의로 사용할 것을 예견하는 《다국가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립되는 두개의 《계획》을 둘러싸고 미, 영 간에 심각한 알륵이 로출되였다. 특히 그것은 12월 18~21일 간에 진행된 낫소 회담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국제 정세 참조).

경 제 주요 자원은 석탄, 철광 등이며 기타 공업 원료는 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은 보잘 것 없으며 식량의 6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경제 명맥은 독점 자본가들에게 장악되여 있으며 생산과 자본의 집중 과정이 촉진되고 있다.

1954~1956년 간에 통합된 회사들의 수가 매년 약 300개였는데 1960년부터 1961년 초까지의 기간에는 매년 약 700개로 되였다. 1962년에 중소 상공 회사들의 파산 건수는 4,638건에 달함으로써 전후 최고 기록을 내였다.

영국 정부는 만성적인 침체 상태에 있는 경제를 구출해 보려고 1961년 7월에 《긴축 계획》을 발표한 후 1962년에 들어와서도 국가 투자를 증대시키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영국 경제는 더욱더 침체 상태에 빠져들어 갔으며 위기는 심화되였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1962년에 국민 총생산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0.3% 감소되였으며 야금, 선박 건조, 기계 제작 및 기타 일련의 기간 공업 부문에서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되였다. 1963년 1월에 영국 공업 련맹이 조사한데 의하면 717개의 회사중 68%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되였다.

【공업】 1962년에 공업 총 생산은 1961년에 비하여 겨우 1% 장성하였다. 1962년도에 강철은 전년에 비하여 7.2%, 선철은 8% 감소되였으며 야금 공업의 가동률은 년말에 70%에 불과하였다. 1962년 1·4 분기의 선박 건조량은 1945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년간 선박 건조량은 36만 8천 톤 감소되였다. 특히 방직 공업 생산은 3%, 면직물은 15.6%, 그리고 모직물은 6.2% 각각 감소되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	1960	1961	1962
전력(10억kwн)	132.5	142	156.8
석탄 (100만t)	197	193	200
선철 (100만t)	16.0	15.0	14.1
강철(〃)	24.7	22.4	20.8
승용차(1,000대)	1 353	1 004	1 249
세멘트(100만t)	13.4	14.4	14.2
면직물(100만m)	1 183	1 132	956
모직물(100만m)	322	321	301

【농업】 농업 생산은 국민 총생산의 4%에 불과하다. 농촌 인구의 70%가 농업 로동자이다. 1962년에 경지는 450만 헥타였다. 1962년에 알곡 수확고는 1,100만 톤에 달하였다.

주요 농작물의 수확량
(단위 1,000톤)

	1960	1961	1962
밀	3 054	2 614	3 689
보리	4 335	5 052	5 854
귀밀	2 096	1 843	1 775
감자	7 342	6 282	6 763
사탕무우	7 330	6 031	5 960

【대외 무역】 주요 수출품은 기계, 직물, 화학 제품, 석탄 및 석유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공업 원료, 식량, 육류, 목재, 펄프 등이다. 영국은 매년 수입 초과를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과잉 생산과 주민들의 구매력의 저하 간의 모순 해결의 출로를

해외적 진출을 강화하는데서 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1962년에 수출은 예견한 8% 대신에 겨우 3%의 장성을 보았을 뿐이였다. 또한 영국은 서구라파에서 세력권 확장을 목적으로 《공동 시장》 가입을 촉구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대외 무역액 (단위 100만 파운드)

	1961	1962
수출	3 682	3 792
재수출	158	158
수입	4 398	4 495
적자	558	545

【재정】 영국의 회계 년도는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3월 말로 끝난다. 영국의 예산은 정부의 군비 경쟁 정책의 강행으로 말미암아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영국의 금 및 외화 보유액은 1961년 12월 31일 현재 11억8,500만 파운드였는데 1962년 말에는 10억 2천만 파운드로 떨어졌다.

군 사 영국은 핵 무기 생산을 비롯한 군비 경쟁에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다. 1952~1961년 간에 영국은 155억 파운드의 군사비를 지출하였으며 1962~1963 회계 년도의 군사비 지출은 18억 1,000만 파운드에 달하였다. 영국은 지난 15년 간에 로케트 무기의 생산을 위하여 근 8억 파운드를 탕진하였다. 영국의 군비 확장 계획은 자국 인민의 강력한 반대와 심한 재정난 그리고 《독자적 핵 타격력》을 마련하지 못 하도록 영국에 압력을 가하며 서구라파 무기 시장에서 영국을 축출하려는 미제의 책동으로 하여 심한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자국 령토를 미국과 서독의 군사 기지로 제공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를 반대하는 전략 기지로 전변시키고 있다. 영국에는 30 개소의 미 군사 기지가 있으며 3만 5천명의 미 군이 주둔하고 있다. 또한 홀리로흐만은 미국의 《폴라리스》핵 잠수함 기지로 리용되고 있다.

사 회 영국에서 실업은 큰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1963년2월현재 실업자 수는 1940년래의 최고 수준인 93만 3천명이 였다. 임금 《동결》 정책으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임금은 올라가지 못하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1주일 간에 10 파운드 이하의 임금을 받는 로동자들의 수는 취업 인구의 42%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생계비는 계속 등귀하고 있다.

1958년부터 1961년까지의 기간에 집세는 40%, 연료비는 30%, 수송료는 27% 각각 등귀하였다. 1962년 10개월 간에 생계비는 4.5% 등귀하였다.

영국에서 집 없이 거리를 헤매는 세대가 60만에 달하고 있다. 영국에서 1961년에 80만 6,900건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는데 1962년에는 8.8% 증가하였다.

【출판】 통신—로이터, 프레스 아소시에이숀, 브리티쉬 유나이티드 프레스

신문—데일리 워커 (공산당 기관지), 타임스, 데일리 텔레그라프 앤드 모닝 포스트(보수당 기관지), 가디언 (자유당계), 데일리 엑스프레스(보수계), 데일리 메일(보수계), 데일리 헤랄드(레이버당 기관지), 데일리 미러(레이버당계), 월드 뉴스(공산당 주간지)

잡지—막시즘 투데이(공산당 월간 리론 잡지)

아 일 랜 드

(아일랜드 공화국)

Irish Republic

【면적】 7만 8,283 km²

【인구】 281만 5,000 명 (1961년 말)

【수도】 더블린 (주민 58만 4,000 명)

정 치 영국의 일부였으나 1921년 자치령으로 되였다가 1937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49년 영 련방에서 탈퇴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60명, 하원 의원은 47명,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에이몬 데발레라 (1959년 6월 취임, 임기 7년)

【내각】 수상 오드네일르 (1963년 3월 임명)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62년 3월 17~18일에 진행된 아일랜드 로동자 련맹 제 4 차 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개칭되였다. 총비서 마이클오 리르덴 자유당 (집권당) 지도자 에이몬 데발레라 레이버당, 《아이레 공화군》, 신페인 아이레 로동련맹

경 제 경제의 주요 부문은 농업이다. 영국, 미국, 서독, 일본 자본과 결탁한 독점체들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주민의 40%가 농민이며 농산물의 수출이 수출 총액의 60% 이상(1959년)을 차지한다. 공업의 주요 부문은 담배, 목재, 제지 및 방직 공업이다.

덴 마 크

(덴마크 왕국)

Kingdom of Denmark

【면적】 4만 3, 042km²

【인구】 452만 9,000명(1959년)

【수도】 코펜하겐 (주민 96만명)

정 치 1940년 4월 히틀러 독일에 강점되였다가 1945년 5월 5일 해방되였다. 덴마크는 1948년에 예속적인 《마샬안》을 접수하고 1949년에는 침략적 나토에 인입되였다. 1960년 3월에는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에 참가하였다. 1961년 12월 발찍해 지역에 서독—덴마크 합동 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왕】 프레데리크 9세 (1947년에 즉위)

【의회】 1원제로서 4년의 임기를 가지는 의원 179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내각】 수상 옌스 크라그 (1962

년 9월 취임), 외상 페르 헤크그루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9년에 창건되였다. 1962년 코펜하겐에서 제 21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위원장 크누드 예스페르센 사회 민주당(집권당), 농민당, 로조 련합, 공산 청년 동맹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농목축업이다.

경지 면적은 전국 면적의 73%인 310만 헥타이다. 토지는 주로 지주들에게 집중되여 있다. 농업 인구의 반수 이상에 달하는 농업 로동자와 소농민 경리는 토지 면적의 15.7%를 차지한데 불과하다.

지하 자원은 적다. 공업의 주되는 부문은 식료, 금속, 방직, 선박 건조, 제지 공업 등이다. 자본이 고도로 집중되였으며 200명의 대기업가들이 60종의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공동 시장》 참가국들의 공동 농업 정책으로 말미암아 덴마크의 농산물 수출은 위협을 당하게 되였다.

1962년에 농산물 수출액은 17억 2,900만 크로네였으며 어획고는 77만 톤이였다.

1962년에 세금은 1961년보다 24% 증가하였으며 1962년 첫 10개월 간에만도 식료품 가격은 11.8%, 담배는 13.9%, 치료비와 약값은 11.1%, 영화 및 극장 관람료는 19.4% 각각 등귀하였다.

9월에 있은 가축 도살장 로동자들의 해고를 반대하는 파업 투쟁, 10월에 있은 기계 제작 공장 로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위한 파업 등 생활상 처지 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이 계속되였다.

특히 덴마크에서 자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반대하는 운동이 확대되였는바 6월에는 각지에서 덴마크의 《공동 시장》 가담 반대 투쟁 위원회들이 창설되였다.

화 란

(화란 왕국)

Kingdom of Netherlands

【면적】 3만 2,400 km²

【인구】 1,188만 404명(1963년 1월 1일 현재)

【수도】 암스테르담 (주민 87만 2,428명)

정 치 화란은 립헌 왕국이다.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고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다. 1957년에는 구라파 《공동 시장》과 《유라톰》에 참가하였다. 화란 식민주의자들은 1962년 8월 15일에 서부 이리안을 인도네시아에 이관할 데 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인도네시아 참조)

【국왕】 율리아나 녀왕 (1948년 즉위)

【의회】 상하 량원제이다. 상원 의원은 75명이고 임기는 6년이다. 하원 의원은 150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현 의회에서 공산당은 상원에서 2석, 하원에서 3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내각】 수상 드 퀘이, 외상 요제프 룬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에 창건되였다. 1962년 9월 1일에 진행된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총비서의 직을 중앙 위원회 위원장직으로 개편하였다. 위원장 파울 데 그로트(당 기관지 《드 바르 헤이트》) 로동당 1946년에 창건된 반동 정당이다. 천주교 인민당 1945년에 창건된 부르죠아지의 정당이며 집권당이다. 반혁명당, 기독교 력사 동맹, 자유 민주 인민당

경제, 사회 비교적 발전한 공업 농업 국가이다. 주요 공업은 선박 건조, 전기 기계 및 식료 공업 등이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을 위주로 하며 이는 농업 생산의 약 3분의 2,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취업 인구중 농업에 19.8%, 공업에 34.2%, 기타 봉사업에 46%가 종사한다. 1962년에 석탄은 1,160만 톤, 강철은 210만 톤 생산되였다. 밀은 60만 3천 톤, 쌀보리는 33만 9천 톤, 보리는 43만 1천 톤, 귀밀은 46만5천 톤생산되였다. 1962년 말 현재 대각 가축은 352만두, 돼지는 31만 6천두 있었다.

1962년 6월 30일 487개의 기업소들에 외국 자본이 투하되였다. 1962년에 수출 총액은 166억 길다, 수입 총액은 194억 길다로서 28억 길다의 적자를 내였다.

화란 정부는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바 1962년도 군사비는 20억 6,100만 길다에 달하였다.

벨 기

(벨기 왕국)

Kingdom of Belgium

【면적】 3만 507 km²

【인구】 922만 8,729명(1961년 12월 31일)

【수도】 브류쎌(주민 139만 8,329명)

정 치 1949년에 벨기는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고 1950년에는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다.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파산된 식민지적 리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벨기 정부는 자국 《후견령》이였던 루안다와 부룬디가 1962년 7월 1일 독립을 쟁취한 후에도 《벨기인을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자기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려고 획책하면서 락하산 부대를 재로 끌여 들였다. 벨기는 8월 1일까지 루안다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되여 있었으나 비밀 협정을 체결하고 계속 남아 있게 되였다.

1962년에 벨기 인민들은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반정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는바 7월 벨기 야금공들의 2개월 간에 걸친

파업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리에주 지역 농민 1만명을 비롯하여 각지 농민들의 파업도 광범히 전개되였다.

【국왕】 보도앙 1세(1951년 1월 17일 즉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175명, 하원은 220명이다. 임기는 4년 이다.

【내각】 수상 테오 레페브르, 부수상 겸 외상 파울 앙리 스파크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9월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에르네스트 뷔르넬 기독교 사회당 (집권당), 자유당, 로동 총 련맹

경제, 사회 석탄, 철, 아연 등 자국내의 자원과 식민지들에 대한 략탈에 의거하여 공업은 비교적 발전하였다. 1962년에 석탄은 2,120만 톤, 선철은 680만 톤, 강철은 730만 톤 생산 되였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60%에 해당하며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다. 식량은 국내 수요의 4분의 3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 대 공국)

Grand Duchy of Luxemburg

【면적】 2,586 km²

【인구】 39만 9,000명 (1960년)

【수도】 룩셈부르그(주민 8만명)

정 치 룩셈부르그는 립헌 군주제 국가이다. 1948년에 《서구 동맹》에, 1949년에는 침략적 나토에 가담함으로서 중립적 지위를 포기하였다. 룩셈부르그는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다. 1957년에는 《로마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구라파 《공동 시장》 성원 국으로 되였다.

【국왕】 샤를롯테 녀왕(1949년 즉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15명 (녀왕이 임명하며 임기는 종신), 하원 의원은 52명(임기 6년, 3년 마다 반수를 개선)이다. 하원에서 공산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다.

【내각】 수상 겸 재정상 피에르 베르네르, 부수상 겸 외상, 국방상 우제느 샤우스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6일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도미니끄 우르바니 기독교 사회당 (집권당), 사회 로동당, 민주당, 자유 로조 련맹

경 제 공업이 발전한 나라이다. 강철 생산은 공업 총생산액의 70%,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인구 1인당 선철과 강철 생산량에 있어서 세계 제 1위이다. 1962년에 선철은 360만 톤, 강철은 410만 톤 생산되였다. 농업은 락후하며 경지 면적은 국토의 약 54%이며 주산물은 밀, 감자, 포도 등이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한다.

불란서

(불란서 공화국)

French Republic

【면적】 55만 1,208 km²

【인구】 4,620만 명(1962년 1월 1일)

【수도】 파리 (주민 303만 5,000명)

정 치 불란서는 1944년에 히틀러 독일의 강점에서 해방되였다. 전후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참가하였고 1950년에는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가담하였다. 1954년에는 《파리 협정》에 조인하였고 1963년 1월 24일에는 서부 독일 군국주의와 《협조 협정》를 체결함으로써 《본—파리 축》을 형성하였다. 1958년 6월 1일에 집권한 드 골은 파쑈적인 《제 5 공화국》을 수립하고 《제 4 공화국》의 《불란서 련합》을 《불란서 공동체》로 개조하였다.

【대통령】 샤를르 드 골(1959년 1월 8일 취임, 임기 7년)

【국회】 국민 의회(하원)와 참의원(상원)의 량원제이다.

1962년 11월에 진행된 국민 의회 선거에서 공산당은 총의석 482석 중 41석을 차지하였다. 참의원은 의원 301명으로 구성되는 데 3년 마다 3분의 1이 개선된다. (그중 공산당 출신 14명) 4월에 선거 되였다.

【내각】 현 내각은 1962년 12월 6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죠르쥬 퐁피듀, 외상 모리스 크브 드 뮈르빌, 국방상 피에르 메스메르, 내상 로제 프레이, 재정상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알제리아 담당 국무상 쟝 드 브로글리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12월 29일에 창건되였다. 당원수 약 50만명, 총비서 모리스 토레즈, 부총비서 발데크 로쉐 **《새 공화국 옹호 투쟁 동맹》** 1958년 9월 28일 조직된 드 골의 당이다. **사회당** 총비서 기 몰레 **급진 사회당** (급진파 및 급진 사회주의자 공화당) 지도자 펠릭스 가이야르 **인민 공화 운동당** 위원장 앙드레 콜란,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항쟁 동맹** 위원장 프랑소아 미테랑 **로동 총 련맹** 공산당의 지도 하에 있는 최대의 로조 단체이다. 서기장 브노아 프라숑 **전국 로동 련맹, 공산 청년 동맹** 총비서 폴 로랑 **전국 학생 련맹, 녀성 동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주요 국내 사건】 1962년에 드 골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

4월 14일 드브레 정부가 사직하고 15일 퐁피듀를 수상으로 하는 새내각이 조직되였다. 국회의 활동을 마비시키고 드 골의 개인 독재를 강화할 것을 목적한《헌법 개정안》을 둘러 싸고 정치 정세는 첨예화 되였다. 10월 5일 국민 의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한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절대적 다수표로 가결됨으로써 퐁피듀 정부는 붕괴되였다. 그러나 드 골은 10월

6일 국민 의회를 해산하고 11월 18일과 25일에 국민 의회 선거를 실시하였다. 선거 결과 12월 6일 퐁피듀 내각이 다시 조직되였다.

10월 28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결과 그것은 겨우 통과되였다. 투표자의 37.75%가 반대하였으며 약 23.03%가 기권하였다.

파쑈적 개인 독재를 강화하려는 드 골의 흉계는 우익 세력들의 반항까지 일으켰는바 그 단적인 표시가 7월에 있은 드 골 암살 음모 사건이다. (이것은 1961년 9월 이래 다섯번째의 암살 음모 사건이다).

정치적 위기는 드 골의 파쑈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더욱 격화되였다. 2월 8일 《비밀 무장 조직》의 파쑈적 도량과 그를 지지하는 드골의 반동 정책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시위가 파리에서 진행되였다. 이에 뒤'이어 13일에는 2월 8일의 시위에서 희생된 8명의 반파쑈 투사들의 장례식이 100만명의 파리 근로자들의 참가하에 진행되였다. 이날 전국에서는 희생된 반파쑈 투사들을 추모하여 총파업이 단행되였다.

3월 12일에 파리 지구의 근로자들 250 여 만명이 《비밀 무장 조직》의 테로 행위를 반대 항의하여 단시간 총파업과 군중 대회를 진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철도의 운행이 중단되고 모든 전신망들과 라지오 및 텔레비존 방송이 중단되였다.

불란서 남부의 아베이롱현에 있는 데카즈빌 탄전의 2,200명 탄부들은 1961년 12월 20일부터 64일간 영웅적인 갱내 투쟁을 단행하였다. 투쟁의 발단은 불란서가 《구라파 석탄 및 강철 공동체》에 인입된 결과 산생된 후과를 로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고 드 골 정부가 아베이롱현의 일련의 탄광들을 3년간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있었다. 불란서 전국의 근로자들은 련대 파업과 파업 지원 사업으로 계급적 단결을 표시하였다.

【대외 관계】 1962년에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알제리아 인민의 영웅적인 무장 투쟁 앞에서 또하나의 심대한 패배를 당하였다. 드 골 정부는 3월 18일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 대표단과 정화 협정에 조인하고 3월 19일부터 알제리아에서 식민지 전쟁을 중지하였다. 이것은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에게 가해진 심대한 타격이 였다. 때문에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정화 협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비밀 무장 조직》을 사촉하여 알제리아에서 계속 긴장 상태를 조성하기에 급급하였다.

7월 중순 드 골 정부는 자기의 식민지였던 퐁디쉐리, 카리칼, 마에 및 야나옹을 인도에 넘겨 줄데 대한 협정을 승인하였다.

한편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카메룬에서 민족 해방군을 반대하여 8 만명의 무력을 투입하고 군사 행동을 계속하였다.

1962년에 서구라파 《령도권》 문제를 둘러 싸고 불란서 제국주의와 미,영 세력 간의 쟁탈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되였다. 서방 제국주의 간의 알륵과 모순은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신청, 나토의 《다각적 핵무력》 창설 문제를 둘러 싸고 심각히 로출되였다.

《위대한 불란서》를 꿈꾸는 드 골은 경제적으로는 《공동 시장》을 리용하며 군사적으로는 《독자적 핵 무력》창설 구호를 들고 나오면서 구라파에서 미,영의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불란서는 1963년 1월 28일과 29일에 브류쎌에서 진행된 《공동 시장》 성원국 회의에서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나섬으로써 영국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한편 드 골은 서독 군국주의자들과의 결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데나우어와 수차에 걸쳐 회담(2.15, 7.2～6, 9.4～9)을 하였다. 1963년 1월 21일과 22일에 파리에서 진행된 회담을 통하여 《불란서—독일 조약》을 조작하고 침략적인 《본—파리 축》을 형성하였다.

경제 드 골 집권 후 자본의 집중 과정이 더욱더 촉진되였는바 불과 8개의 금융 집단이 불란서의 경제 명맥을 장악하고 있다. 불란서 독점체들은 《공동 시장》 내외에서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정 자본의 확장 및 갱신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리윤의 감소, 설비 능력의 과잉 (주로 낡은 설비들), 주권 시세의 불안정성, 금융 기관들의 투융자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고정 자본의 투자는 벌써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불란서 독점체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와 군비 경쟁의 방법으로 출로를 타개하려 하고 있다.

불란서에는 서구라파에서 미영의 자본과 상품을 몰아 내고 자기의 경제적 지배권을 보존하기 위한 배타적인 경제 로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불란서에 대한 미국의 투자 총액은 1950년의 2억 1,700만 딸라로부터 1962년에는 10억 딸라로 증대되였다.

【공업】 1962년에 공업 생산은 약간의 상승을 보이였으나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하였다. 흑색 야금, 선박 건조, 기계 제작 공업 그리고 석탄, 피혁 공업 등은 침체 상태에 빠졌다. 야금 공업은 1962년에 전후 시기 처음으로 생산 감퇴를 보이였는데 선철은 4.1%, 강철은 2.3%, 압연 제품은 2.8% 각각 생산이 전년 보다 떨어졌다. 석탄 생산 지수는 1952년을 100으로 할때 1962년에 96이였다.

주요 공업 제품 생산량

	1960	1961	1962
강철(100만t)	17.3	17.6	17.2
압연강(〃)	13.1	13.5	13.1
선철 (〃)	14.3	14.8	14.2
철광석(〃)	66.9	66.6	66.3
석탄 (〃)	56.0	52.4	52.4
석유 (〃)	2	2.2	2.4

【농업】 전국의 근 45%가 경작에 가능한 지대이다. 그중 3%가 포도원이다. 농업 총 생산액에서 축산은 64%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의 약 2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중 4.2%에 불과한 대지주(50 헥터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전체 경지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밀, 포도, 육류를 제외한 농산물 생산은 감소되였다. 옥수수는 1961년에 비하여 1962년에 수확이 34%나 감소되였다. 《공동 시장》 성원국들 가운데서 가장 큰 농산물 생산국인 불란서는 밀 생산을 확장하면서 이것을 이 경제 뿔럭 성원국들에서 능히 실현할 수 있다고 타산하였으나 1962년에 판매용 밀 300만톤 중 120만 톤을 실현하였을 뿐이였다. 그것은 불란서가 요구하는 농산물 가격이 기타 자본주의 세계 농산물 가격보다 훨씬높은데 기인하였다. 이로부터 정부는 자본주의적 농장 경리로 전변시켜 농산물 생산비를 저하시킨다는 방침 밑에 대 지주들에게 재정적 방조를 주면서 금후 10년 간에 중 소농 경리들을 80 만호나 청산할 파업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0톤)

	1960	1961	1962
밀	11 000	9 570	13 770
쌀보리	417	340	360
보리	5 720	5 410	5 920
귀밀	2 800	2 590	2 600
옥수수	2 600	2 683	1 760
감자	14 900	14 894	13 165
포도	61.8	46.7	73.5

1962년 말에 대각 가축은 2,068만 두 (그중 젖소 1,016만 두), 돼지는 907만 6천 두에 달하였다.

【대외 무역】 주요 수출품은 식료품, 공업 제품이며 수입품은 주로 공업 원료와 기계류인데 1962년도 불란서의 대외 무역은 매우 저조하였다.

1962년에 수출량의 장성률은 2%였는바 1959년에 장성률은 20%, 1960년에는 17%였다.

이것은 《공동 시장》 성원국들에 대한 농산물 판매량의 감소와 프랑 지역 통상 특히 알제리아와의 통상 관계에서의 변화와 크게 관련되였다. 그 대신 수입량의 장성률은 1961년도의 8%로부터 1962년에는 14%나 장성되였다. 이것은 《공동 시장》 성원국들로부터 기계 설비와 대중 소비품을 막대하게 사들인데 기인하였다.

대외 무역 (단위 억 프랑)

	1960	1961	1962
수출	339	357	363.56
수입	310	330	363.65
차액	+29	+27	−0.09

군 사 알제리아 전쟁이 종식된 후에도 불란서 정부는 군비 경쟁, 특히 핵 군비 경쟁을 발광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2년에 불란서는 186억 프랑의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1961년에는 178억 프랑이였다). 불란서 정부는 《독자적 핵 무력》 창설을 위하여 핵 무기 발전에 계속 막대한 재정을 퍼부으면서 5월 1일에는 사하라에서 다섯번째로 핵 시험을 감행하였다.

7월 11일 불란서 정부는 륙해공군을 통합하였던 종전의 총참모부를 페지하고 국방 총비서처를 설치하는 등 군사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9월 21일에는 1969년까지의 기간을 포괄하는 《장기 군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불란서 군대를 70만명으로 증강하여 핵 무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불란서 제국주의자들은 서독 군국주의자들과 군사적 결탁 축 《본—파리축》 형성을 서두르면서 접촉을 강화하였다. 《본—파리축》은 1963년 1월에 조인된 불란서 서독 《협조 조약》으로 나타났는데 이 《조약》에 의하여 불란서와 서독은 호상 상대국의 령토상에서 군사 연습을 진행하며 서로 《협조》하여 군사 전략 도로 및 철도, 군수품 창고와 비행장 등 군사 시설들의 건설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로 하였다.

사 회 군비 경쟁으로 오는 무거운 조세 부담, 독점체들의 가혹한 착취로 말미암아 불란서 근로자들의 생활 형편은 더욱 악화되였다.

최근 12 년간에 불란서에서는 생계비는 2배로 등귀하였다. 1958~1962년 간에 직접세는 47%, 간접세는 58% 등귀하였다.

불란서 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수'자에 의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82만 8천 세대의 주택이 부족하다. 교육 문화는 쇠퇴 일로를 걷고 있는바 100 여 만의 학령 아동들이 교실 부족과 교원 부족으로 취학하지 못하고 있다. 1963년도 예산에서 교육비는 총 예산 지출의 1.4%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 해에 드 골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며 로동 조건과 생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그처럼 광범하게 벌어진 것이다.

공식 자료에 의하여도 1962년에 1,884 건의 파업으로 말미암아 상실된 로동일은 190만 일에 달하였다.

1962년에 자동차 사고로 1만 112명이 생명을 잃고 22만 9,779 명이 부상을 입었다.

【출판】 통신—에이 에프 피 통신, 신문—유마니테 (공산당 기관지), 아방가르드(공청 기관지), 포퓰라르드 파리(사회당 기관지), 리베라숑(무소속), 콩바(드골계), 피가로(인민 공화당 기관지), 몽드(외무성 측근 부르조아 신문), 오로르(급진 사회당계), 쥬르날 오피셸(정부 기관지)

서 서

(서서 련맹)

Schweizerische Eidgenossenschaft

【면적】 4만 1,288 km²

【인구】 547만 명 (1961년 6월)

【수도】 베른(주민 16만1,000명)

정 치 서서는 1815년 윈나 회의에서 영구 중립국으로 승인되였다. 그러나 제 2 차 대전 후 서서는 중립을 위반하고 《마샬안》을 접수하고 《구라파 지불 동맹》, 《구라파 경제 협조 기구》에 참가하였으며 1956년 6월에는 미국과 《원자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2년 9월에는 구라파 《공동 시장》 준가맹국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하였다.

【련방 의회】 량원제로서 국민 의회(하원)는 196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4년이다. 주 평의회 (상원)는 44 명의 의원 (매주에서 2 명씩 선출)으로 구성되며 그 선출 방법과 임기는 각 주에서 결정된다.

【내각】 련방 평의회라고 부른다. 국민 의회와 주 평의회의 합동 회의에서 선출되는 각료 7 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이 가운데서 매년 륜번제로 대통령이 선출된다.

대통령 (1963년도)윌리 슈푸엘레르, 외상 프리드리히 와렌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 사회주의자 그루빠들이 합동하여 1944년에 조직되였다. 총비서 에드가르 워오그, **급진 민주당**, **카톨릭 민주당**, **사회 민주당**, **평화 옹호 위원회**, **로조**, **련맹**

경제, 사회 기계 제작 공업이 비교적 발전하고 있는바, 주민의 약 45%가 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시계를 비롯하여 정밀 기계 제작 공업은 세계에서 유명하다. 농업에는 주민의 21%가 종사하며 농경지는 전국 토지 면적의 6.7%에 불과하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감자 등이다. 축산 수입은 전체 농업 수입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시계, 레스, 자수품이다. 1962년 무역 적자는 34억 570만 서서 프랑으로서 전년보다 5억 8,320만 서서 프랑이 많다.

이 태 리

(이태리 공화국)

Republic of Italy

【면적】 30만 1,226 km²

【인구】 5,046만 3,762 명(1961년 10월)

【수도】 로마 (주민 204만 8,847명, 1960년 12월)

정 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임기 6년의 의원 256 명, 하원은 임기 5년의 의원 596 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대통령】 이전 대통령 그론키의 임기가 1962년 5월 11일에 끝나는 것과 관련하여 5월 2일부터 대통령직 쟁탈전을 위한 투표전이 10 차에 걸쳐 진행된 후 세니가 겨우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였다.

안토니오 세니(1962년 5월 피선)

【내각】 인민들의 반파쑈 투쟁으로 1962년 2월 2일 제 3 차 판파니 내각이 붕괴되고 기독교 민주당, 사회 민주당, 공화당의 소위 《좌익—중간》 정부가 동년 2월에 수립되였다. 현 내각은 1963년 6월 21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죠반니 레오네(기독교 민주당), 부수상겸 외상 아틸리오 피치오니, 국방상 쥴리오 안드레오티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1일에 창건되였다. 1962년 2~8일 간에 걸쳐 이태리 공산당 제 10 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사회주의로 가는 로상에서의 로동 계급의 통일》, 당 규약 개정 문제 등이 토의되고 새 지도 기관이 선거되였다. 총비서 팔미로 똘리아티 **사회당**, **기독교 민주당** 1926년 무쏠리니 정권에 의하여 해산된 이태리 인민당의 후신으로 1943년에 재 조직되였다. 대독점 자본가와 대지주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사회 민주당** 사회당에서 탈퇴하여 1951년 4월에 결성된 우익 사회주의자들의 정당이다. **자유당**, **급진당**, **민주당**, **사회 운동당**, **로동 총련맹**, **공산 청년 련맹**, **녀성 동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경제, 사회 이태리는 공업—농업 국가로서 자원은 비교적 적다. 주요 자원은 보키사이트, 아연, 연, 수은, 대리석 등이다. 석탄과 철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62년에 강철은 950만 톤, 선철은 360만 톤, 세멘트는 2,020 만 톤, 알루미늄은 8만 1,200 톤, 석유는 180만 7,600 톤 생산되였다.

농업은 경지 면적의 축소, 농업 생산의 감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등이다. 1962년에 농업은 혹심한 가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바 피해 총액은 3,000억 리라를 초과하였다.

1962년에 밀은 952만 톤, 귀밀은 59만 7,200 톤, 옥수수는 326만 톤, 벼는 65만 톤 생산되였다.

1962년에 무역 적자는 1961년에 비하여 33.6%나 증가된 8,689억 리라에 달하였다.

이태리 지배층은 침략적 나토가 강요하는 전쟁 정책에 추종하면서 막대한 재정 예산을 군사비에 돌리고 있다. 1962~1963 회계 년도에는 그전 회계 년도에 비하여 560억 리라가 더 많은 7,940억 리라를 배당하였다.

정부의 반동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태리 인민들의 생활난은 더욱 혹심해졌다. 1962년 1월부터 1963년1월까지의 1년 동안에 생계비는 8.1%나 올랐다.

공식 자료에 의하여도 1962년에 3,652 건의 파업으로 인하여 2,134만 4천 로동일이 상실되였으며 이 파업들에는 588만 7,000 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이는 1961년에 비하여 파업 참가자수는 297만 7천명, 상실된 로동일수는 1,145만 3천일이 증가한 것으로 된다.

【출판】 **통신**—안사 (아젠찌야 나찌오날라 스탐파 아쏘치아타) ·

신문—우니타(공산당), 안바티(사회당), 가제타 델리 포폴로(기독교 민주당), 쥬스티찌아(사회 민주당)

바티칸

(바티칸시 국가)
State of Vatican City

【면적】 0.44 km²
【인구】 1,000 명
【법왕】 파울 6세 (1963년 6월 21일 피선)
이태리 수도 로마 시내에 있는 나라로서 국가의 일체 권한은 법왕에게 집중되여 있다.
바티칸은 로마 카톨릭교의 중심으로서 카톨릭교가 전파되여 있는 국가들 특히 이태리의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사회주의 진영을 극력 적대시하고 있다. 바티칸은 미국 및 서서 은행들에 120억 딸라를 예금하고 있다.

싼 마리노

(싼마리노 공화국)
Republic of San Marino

【면적】 61만 km²
【인구】 1만 4,000 명(1957년)
【수도】 싼 마리노 (주민 2,500 명)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60 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정부】 정부는 의회 의원 10명으로 구성되며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인 2 명의 섭정은 의회에서 선출된다.
【정당】 공산당 1921년에 창건되였다. 1959년 의회 선거에서 공산당은 26%의 투표를 받아 16석을 차지하고 있다. 총비서 가스뻬로니 기독교 민주당, 사회 민주당
이태리의 중부에 있는 나라로서 주민들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산물은 밀, 포도주, 옥수수, 과실, 축산물, 석재 등이며 특히 술과 우표가 유명하다. 우표 수입과 관광업 수입이 국가의 주요 수입 원천으로 되고 있다. 주요 수출은 술, 양모, 가죽 및 도자기 등이다.

리히텐스타인

(리히텐스타인 공국)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면적】 157 km²
【인구】 1만 6,280 명 (1959년)
【수도】 바두쯔(주민 3,000 명)
【국왕】 프란쯔 요세프 2세(1938년 7월 25일 즉위)
【의원】 의원은 15 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정부】 수상 알렉산더 프리크
서서와 오지리 간에 있는 립헌 군주국이며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축산업이 비교적 발전하였으며 발전소와 방직 공장도 있다. 대외 관계는 서서가 대행하며 서서 화폐가 통용되고 있다.

모 나 코

Monaco

【면적】 1.49 km²
【인구】 2만 400 명(1956년)
【수도】 모나코(주민 2,000 명)
【국왕】 레니에 3세(1949년 5월 즉위)
【의회】 의원은 18 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불란서 동남부 지중해에 면한 곳에 있는 립헌 군주국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람지이다. 관광객은 년 평균 약 65만 명에 달한다. 몬테카를로의 카지노에는 《공설 도박장》이 있다. 관광업과 도박장으로부터의 수입이 국가 수입의 중요 원천으로 된다.

안 도 라

(안도라 공화국)
Republic of Andorra

【면적】 453 km²
【인구】 6,000 명(1957년)
【수도】 안도라 (주민 1,400명)
【의회】 임기 4년의 의원 24명으로 구성된다.
불란서와 서반아의 국경 피레네 산맥에 있는 나라로서 주산업은 목축업, 담배 가공업이다. 관광업이 주요한 재정 수입의 원천이다.

서 반 아

Spanish State

【면적】 50만 3,486 km² (발레아르, 카나리아 량 군도를 포함)
【인구】 3,012만 8,000명(1960년)
【수도】 마드리드 (주민 230만 명)
정 치 서반아는 19세기 후반기부터 영, 독, 미 제국주의 세력의 침습을 받아 왔다.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직전에 와서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였다.
1931년 4월 14일에 서반아 인민은 왕정을 전복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6년 2월 총선거에서 인민 전선이 승리하였고 그 결과 련립 정부가 구성되였다. 동년 7월 프랑코 도당이 내란을 도발하였다.
프랑코 도당은 독일과 이태리의 파쑈 분자들의 직접적 무력 간섭의 도움을 받아 1939년에 서반아 공화국을 파괴하고 정권을 탈취하였다.
정권을 탈취한 프랑코 도당은 파쑈 독재를 수립하고 인민들의 일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가혹한 테로 통치를 감행하였다. 프랑코 서반아는 1954～1959년 간에만도 10억 딸라의 《원조》를 받고 경제적으로 미국에 예속되였다.
프랑코 서반아는 1953년 9월 미국과 군사 기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62년 2월에 미국의 군사 기지 건설과 《군사 경제적 원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같은 달 불란서와도 《군사》 협조 《계획》을 작성하였다.
프랑코 도당은 정권 장악 후 2

0여년간 가혹한 류혈적 탄압으로써 파쑈 통치를 연장하여 왔는바 이 기간에 마드리드의 군사 재판소에서만도 10만 여건에 달하는 정치 사건을 취급하였으며 6만명 이상의 애국자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였다. (5만명에 사형 집행)

이에 대하여 인민들은 강력한 항의로 대답하였는바 1958년 5월 5일의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의 반독재 시위, 1959년 6월 17일의 전국적 파업, 1962년 2월의 대학생들의 시위 등이 바로 그에 대한 주요한 증거로 된다.

1962년도 서반아 인민은 프랑코 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용감히 진행하였다.

4월 23일 아스투리아의 7만명의 탄부들이 개시한 총파업 투쟁의 불'길은 국내 각지에 급속히 파급되여 프랑코 독재를 반대하는 근로 대중의 광범한 반정부 투쟁으로 전변하였다. 프랑코 파쑈도당은 전국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3만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탄부들을 일터에 복귀시키려고 야수적 탄압을 감행하였다.

서반아 공산당은 프랑코 독재 정권의 파쑈 테로의 공세와 관련하여 5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근로자들과 프랑코 제도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자기들의 경제적 및 정치적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넘어가며 용감한 탄부들 및 야금공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며 모든 수단을 다하여 독재자를 전복할 것을 호소하였다.

【의회】 1원제이며 의원은 560명 (절반 이상을 정부가 임명)이다.

【정부】 대통령 겸 수상 프랑시스코 프랑코, 외상 페르난도 마리아 카스티엘라

【정당, 사회 단체】 팔랑헤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의 활동은 1939년부터 금지되여 있다. 공산당 1920년 4월 15일 창건되였다. 중앙 위원회 위원장 돌로레스 이바루리, 총비서 산챠고 카릴리오 팔랑헤당 (집권당) 당수 프랑코

경제, 사회 석탄(88억 톤), 철(19억 톤), 연(120만톤), 원유 등 광물 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며 특히 황철광 매장량은 세계 제 6위이다. 경제의 주되는 부문은 농업으로서 국민 소득의 태반과 수출 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1959년 프랑코 정부가 외국 투자를 장려하는 법령을 채택한 후 서반아에 대한 외국 투자가 현저히 증대되였다. 1962년의 외국 투자액은 전년에 비하여 64%의 증가인 6,608만 딸라에 달하였다. 그 미국 투자가 30%를 차지하였다. 농업에서는 봉건적 대토지 소유제가 지배하고 있다. 농업 인구의 82.3%에 해당하는 493만 여명의 농민들이 총경지 면적의 10.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농업 인구의 0.86%에 불과한 지주들이 53.5%의 경지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맥류, 올리브, 포도 등이다.

미제의 침략 정책에 추종하여 프랑코 정부는 1962~1963 회계년도 군사비 총액을 188억 5,000만 페세타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1962년에 생계비는 5.7%, 식료품 값은 7.7% 등귀하였다.

포 도 아

(포도아 공화국)
Republic of Portugal

【면적】 9만 2,200 km² (아조레, 마데이라 군도를 포함)

【인구】 919만명

【수도】 리스본(주민 83만 명)

정 치 포도아는 광범한 식민지 (총면적 약 210만 km², 인구 1,300만 여명)를 소유하고 있다. 이 식민지들에서 최근 년간 앙양되는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식민지 통치 체계를 유지해 보려고 포도아 식민주의 자들은 식민지 전쟁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 살라자르 정부는 앙골라에 파견한 《원정 부대》를 1961년 초의 1만명으로부터 1963년 초에는 6만명으로 증가하고 학살 만행을 자행하고 있으며 (앙골라찬조) 포도아령 기니아에서는 《초토화》 전술까지 서슴 없이 감행하고 있다. 살라자르 독재 정부는 파쑈 통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62년에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애국자들을 아무런 재판 없이 3년까지 감금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마음대로 연장할 수 있는 파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의회】 1원제로서 의원 12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아메리코 데우스 토마스 (1958년 6월 8일 취임)

【내각】 1962년 12월 3일에 개조되였다. 수상 안토니오 데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외상 알베르트 프랑코 데 노게이라

【정당, 사회 단체】 사라자르의 국민동맹(집권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비법화되여 있다. 공산당 1921년 3월 31일에 창건되였고 1926년부터 비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총비서 알바로 쿤할 민족 민주주의 운동 (반파쑈 통일 전선체), 통일 민주 청년 동맹

경제, 사회 포도아는 구라파에서 가장 락후한 농업국의 하나이다. 나라의 경제 명맥은 미, 영, 불, 서독 독점 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공업 제품 생산은 1962년에 전반적으로 3% 감소되였다. 주요 농산물은 맥류, 옥수수, 올리브, 포도 등이며 코르크 생산은 세계 제 1위를 차지한다. 약 6,000명의 대지주들이 전국 농경지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156만 9,000명의 농업 인구 중 약 113만명은 전혀 토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1962년에 옥수수, 콩, 벼의 수확이 감소되였으며 올리브유 생산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아프리카주

아랍 련합 공화국
United Arab Republic

【면적】 99만 4,300 km²

【인구】 2,706만 4,000명(1961년)

【수도】 카이로(인구 344만 5,000명)

정 치 애급은 1517년에 토이기의 침략을 받아 오토만 제국의 일부로 되였다가 1718～1801년 불란서에 점령 당하였다. 1869년 수에즈 운하 개통과 동시에 영국의 세력이 침입하기 시작하여 애급은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들어 갔었다. 1922년 2월 애급 인민들의 반제 투쟁의 압력에 의하여 영국 지배층은 애급을 《독립 왕국》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2년 7월 23일 군사 정변에 의하여 파르크 왕조가 전복되고 나쎄르가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1953년 6월 18일 애급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8년 2월 애급은 씨리아와 련합하여 아랍 련합 공화국을 형성하였으며 동년 3월 예멘 왕국도 이 련방에 가담하였다.

1961년 9월 28일 씨리아가 아랍 련합 공화국으로부터 탈퇴하였으며 동년 12월 예멘과의 련방도 해체되였다.

아랍 련합 공화국은 악명 높은 《아이젠하워주의》를 견결히 반대함으로써 자기들의 민족적 자유를 수호했으며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중근동 침략 도구의 중앙 조약 기구(쎈토)를 단호히 배격함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

아랍 련합 공화국은 카사블랑카 회의 성원국이다. 우리 나라와는 1958년에 문화 협정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1961년에는 총령사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1963년 8월 24일에는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대리 대사급 외교 대표를 교환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국민 의회】 1960년 7월에 성립되였다. 립법권을 행사한다.

【대통령 리사회】 1962년 9월 28일에 성립되였다. 대통령 리사회는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국가의 전반적 정책을 결정하며 이 정책의 집행과 행정 리사회 사업을 통제한다. 대통령 리사회는 5명의 부대통령들과 행정 리사회 의장을 포함하여 도합 12명으로 구성된다. 의장 가말 아브델 나쎄르

【행정 리사회】 (내각) 행정 리사회는 국가의 최고 집행 기관이며 행정 기관으로서 1962년 9월 28일에 성립되였다. 행정 리사회는 25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리사회 앞에 책임진다.

의장. 알리 사브리

【정당, 사회•단체】 **아랍 사회주의 동맹** 1962년 7월 14일 인민 력량 전국 대회에서 채택된 《민족 행동 헌장》에 의하여 창건되였다. 아랍 련합 공화국의 유일한 정치 조직이다. 위원장 가말 아브델 나쎄르

공산당을 비롯한 기타 일체 정당들의 활동은 금지되여 있다.

로조 련맹 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로동자들의 파업권을 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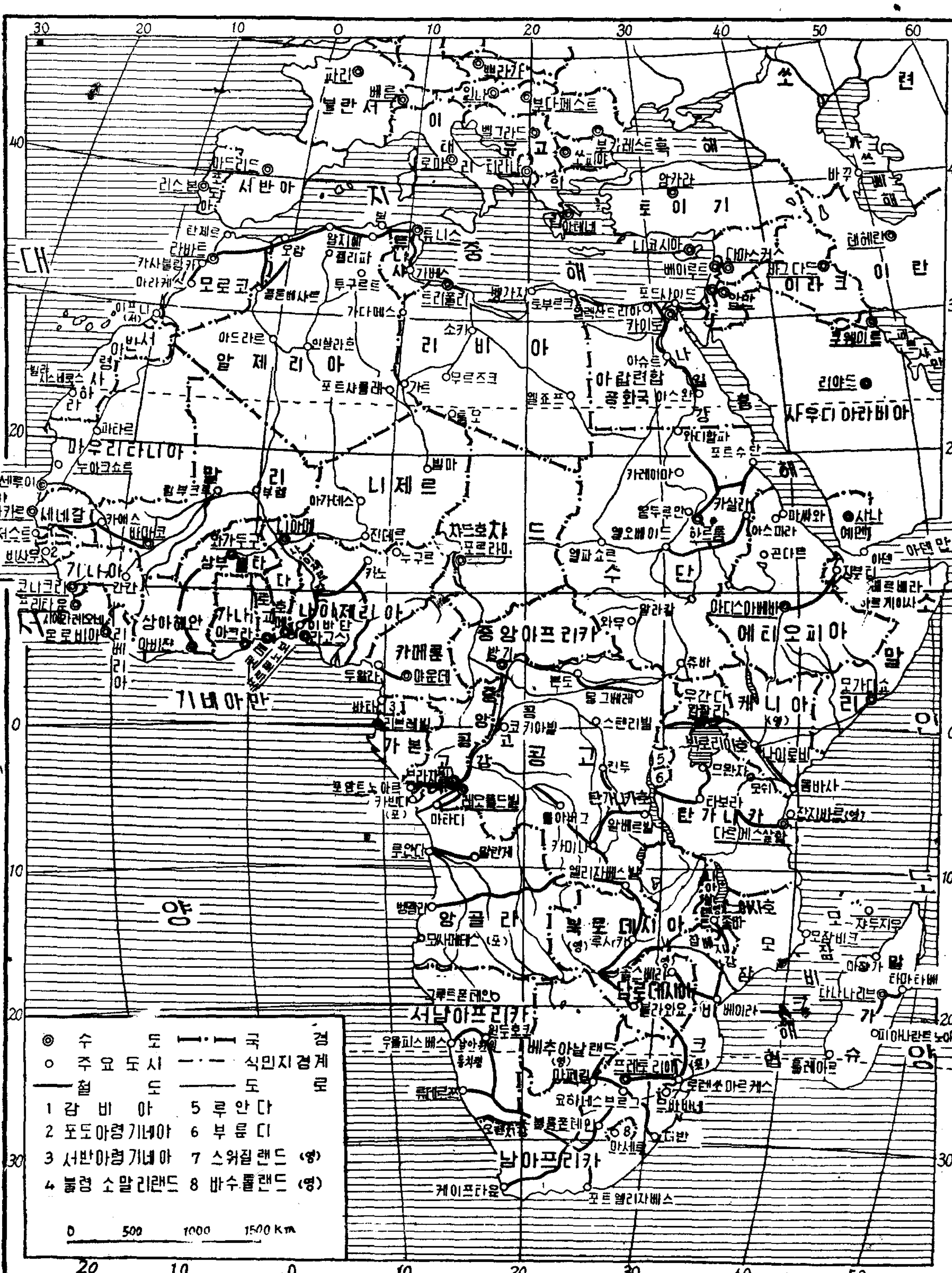
【주요 사건】 1962년 3월 정부는 토지를 국유화 당한 봉건 지주, 재산을 몰수 당한 자본가, 투옥된 야당 당원들이 앞으로 10년간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9월 28일 나쎄르는 대통령 리사회, 행정 리사회를 조직할데 대한 포고문과 헌법 선언을 발표하였다. 헌법 선언에 의하여 정식 헌법이 채택될 때까지 대통령이 국가 수반으로 되며 대통령 리사회와 민족 방위 리사회를 지도하며 군대의 최고 사령관을 겸임하며 행정 리사회 성원들을 임명한다. 5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인민 력량 전국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나쎄르가 제기한《아랍 사회주의》 리론을 내용으로 한 새 국가 헌법인 《민족 행동 헌장》이 채택되였다. 헌장은 새 정당인 아랍 사회주의 동맹의 창설을 선포하였다. 나쎄르는 동맹의 성격을 특징지으면서 《이것은 반동을 고립시키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력량을 단합할 것을 자기 목적으로 내세운 새로운 정치 단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목적을 민족 련맹(아랍 사회주의 련맹의 전신)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반동들이 이 조직에 기여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10월 28일 나쎄르는 아랍 사회주의 동맹 최고 집행 위원회를 조직할 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11월 1일에 소집된 아랍 사회주의 동맹 집행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6개월 이내에 동맹 조직을 완성하며 그의 첫 대회를 1963년 5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12월 7일 나쎄르는 아랍 사회주의 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규정한 《아랍 사회주의 동맹 헌장》을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와는 11월 12일 방송 분야에서 호상 협조할 데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2월 유엔 17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미제가 조작한 《조선 문제에 관한 결

아 프 리 카 주



◎ 수 도
○ 주요도시
철 도
국 경
식민지경계
도 로
1 감 비 아
2 포도아령기네아
3 서반아령기네아
4 불령 소말리랜드
5 루 안 다
6 부 룬 디
7 스위질랜드 (영)
8 바수톨랜드 (영)
0 500 1000 1500 Km
대 서 양
중 해
소 련
이 란
이 라 크
토 이 기
서 반 아
불 란 서
리 비 아
알 제 리 아
모 로 코
니 제 르
말 리
차 드
수 단
에 티 오 피 아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나이제리아
가나
기니아
세네갈
마우리타니아
케 니 아
콩 고
앙 골 라
북로데시아
모 잠 비 크
남아프리카
서남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련합 공화국
기네아만
카이로
알제
튜니스
트리폴리
라바트
카사블랑카
다카르
아크라
라고스
레오폴드빌
엘리자베스빌
나이로비
아디스아바바
하르툼
케이프타운
요하네스브르그
마다가스카르
파리
마드리드
리스본
아테네

의》표결 시에 아랍 련합 공화국 대표는 기권하였다.

6월 아랍 련합 공화국 경제 대표단이 쏘련, 중국, 파란, 불가리아 등을 방문하고 통상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4월 동 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부터 2,000만 딸라의 차관을 접수하였다. 5월 28일 나쎄르는 쩸토가 《약간의 회교국들을 유인하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쩸토를 규탄하였다.

12월에는 알제리아와 경제 및 무역 관계 조절 합동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11월 6일 예멘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무장 간섭을 반대하여 아랍 련합 공화국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11월 10일 예멘과 호상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아랍 련합 공화국은 예멘에 자기 군대를 파견하여 예멘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의 무력 간섭에 대항하여 나섰다. 11월 12일에는 예멘이 아랍 련합 공화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필요한 100만 애굽 파운드에 달하는 무리자 차관을 예멘에 제공하였다.

2월 아랍 련합 공화국 정부는 남 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여 이 나라와의 일체 경제 및 통상 관계를 단절하였다.

경제, 사회 아랍 련합 공화국에는 석유, 철광, 린산염, 망간, 석탄, 연, 아연, 크롬, 은, 동, 석면, 석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착취로 말미암아 경제는 발전되지 못하였다.

아랍 련합 공화국은 독립후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영불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했고 그 밖에 나라의 경제에서 큰 지배력을 가지고 있던 미 영을 비롯한 외래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일련의 기업소들과 농장들을 국유화하였다. 아랍 련합 공화국이 형성된 후 국가 자본과 대금융 재벌, 대부르조아지가 급속히 장성되였다.

1952년에 애굽의 본국 회사는 2만 6,639개, 총자본은 1억 8,300만 애굽 파운드였는데 1960년 5월에는 회사 3만 9,438개에, 총자본은 3억 1,741만 애굽 파운드로 증가되였다.

아련에서는 쏘련의 원조로 10년 간을 기한으로 하는 방대한 아스완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이미 1계단 공사가 끝나고 2계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아련은 1952년부터 1962년 8월까지 6억 4,525만 1,000딸라의 미국 《원조》를 받았다.

1962년 1.4분기만 하여도 아련은 2억 47만 6,000딸라의 미국 《원조》를 받았다.

아련은 미국과 서독의 자본가들에게 투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나라들과 《2중 세금 방지 협정》을 체결 (1959년)하고 있다.

공업 부문에서는 경공업이 위주로 되여 있으며 공업 로동자 수는 약 70만명이다. 공업에 대한 투자액은 1952년의 200만 애굽 파운드로부터 1962년에는 1억 1,000만 애굽 파운드에 달하였다.

1962년 공업 총생산액은 1961년에 비하여 11% 장성된 8억 2,300만 애굽 파운드에 달하였다.

1962년에 석유 공업에는 7,270만 애굽 파운드가 투자되였으며 430만 톤의 원유가 채취되였다. 1962년에 망간광은 3만 6,000톤 생산되였다.

전국에 년산 도합 36만 5,000톤의 능력을 가진 4개의 야금 공장 (3,000명이 종사)이 있다.

1962년 상반년에 선철은 9만 1,382톤, 강괴는 8만 3,594톤, 강철은 6만 2,399톤 생산되였다.

경공업은 주로 면방직, 제지, 담배 공업이다. 면방직 공업은 공업 총 생산액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1960년에 면사는 10만 5,000톤, 면직물은 5억 5,000만 메터 생산되였다.

농업은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이에는 1,400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투자는 1951년의 330만 애굽 파운드로부터 1961~1962년도에는 거의 3,200만 애굽 파운드에 달하였다. 총경지 면적은 약 260만 헥터이다. 주요 농산물은 면화(자본주의 세계 제 1위), 벼, 밀, 옥수수, 보리 등이다.

면화는 농업 생산의 중심이며 농업 생산액의 30~40%를 차지한다. 면화 재배에는 농민의 70~75%가 종사한다. 1962년에 면화는 47만 4,000 톤, 밀은 155만 1,000 톤, 벼는 125만 톤, 담배는 2만 3, 600 톤, 옥수수는 169만 톤 (1960년), 사탕은 31만 3,000톤 (1961~1962) 생산되였다.

군사 정변 후 정부는 1962년 8월까지 10년 간에 250만 페단 (1페단은 0. 42 헥터)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유상 분배하였으며 15만 8,000 페단의 새 땅을 개간하였다.

정부는 1962년에 회교의 제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접수할 데 대한 법령 (2월)과 외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령 (12월)을 발표하였다. (외국인들은 14만 1, 151페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70% 이상의 농민은 여전히 토지를 못 가지고 있으며 약 1만의 대토지 소유자들은 소작료의 형태로 농업 수입의 11%를, 자본주의적 대농장주들은 농업 수입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대외 무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면화 생산과 수출용 공업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한편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수입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수출품은 면화(수출 총액의 80%), 면직물, 원유(1962년에 150만 톤 수출), 린산염, 망간 등이다. 수출의 79%를 국가가 장악하고 있다. 수입품은 공업화에 필요한 생산 수단과 일부 공업용 원료이며 국가가 그것을 장악하고 있

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쏘련, 서독, 중국, 영국 등이다.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 후 1962년까지 6년간 이 운하로부터의 수입은 2억 5,000만 애급 파운드에 달하였다.

국내에는 약 30만의 실업자가 있다. 1962년에 알곡 제품 가격은 9%, 육류와 어류는 7%, 우락 제품은 3% 등귀하였다.

1962～1963 학년도부터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240개의 학교들이 정부의 통제 하에 들어갔다. 전국에 소학교는 1만 여개 있으며 대학은 5개 있다. 1962년도에 73만명이 각급 학교에 입학하였으며 학생수는 약 300만명에 달하였다. 그중 대학생 수는 8만 7천 명이였다. 주민의 90%는 회교도이며 기독교도는 약 7%에 불과하다.

【출판】 통신—중동 통신, 아랍 통신

신문—《알 아흐람》(정부 기관지), 《알 굼후리아》(정부 대변지)

리 비 아

(리비아 왕국)

Kingdom of Libya

【면적】 175만 9, 540 km²

【인구】 125만명(1960년 현재)

【수도】 트리폴리 (주민 17만 2,000 명)와 벤가지 (주민 7만 5,000명)의 두 개의 수도가 있는데 정부는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정 치 이태리의 식민지 통치를 받아오던 리비아는 1951년 12월 24일 독립하여 련합 왕국으로 되였다. 리비아는 1953년 7월 영국과 《우호 동맹 조약》을, 1954년 9월에는 미국과 기지 협정을 체결하고 이 나라들에 군사 기지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협정들에 의하여 영국은 리비아에 매년 375만 파운드의 《원조》를 제공하며 리비아 군대를 훈련시키는 등으로 20년간 군사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리비아에 아프리카에서 최대의 원자 폭격 기지를 건설하였으며 1만 2천 여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1963년 4월 27일 국왕은 련방제를 폐지할 데 대하여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리비아 련합 왕국은 리비아 왕국으로 개칭되고 통일 정부를 가진 중앙 집권화된 국가로 되였다.

【국왕】 모함메드 이드리스 엘 세누씨

【국회】 상 하 량원으로 구성되여 있다. 상원 의원은 24명이고 임기는 8년이다. 하원 의원은 55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하원 의원은 1960년 1월에 선거되였다.

【정부】 1963년 3월 20일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상 모히에딘 피키니

【정당, 사회 단체】 정당은 없고 사회 단체로서 트리폴리에 리비아 로동 총련맹과 키레나이카 로동 총련맹이 있다.

경제, 사회 국토의 대부분(85% 이상)이 사막이고 농업에 리용할 수 있는 토지는 1,400만 헥타이다. 주민의 80%가 락후한 반농 반유목 생활을 한다.

주요 농산물은 올리브, 야자, 포도, 담배, 락화생 등이다. 곡물의 년 평균 생산량은 11만 톤인데 1961년에 보리 생산량은 5만 4,000 톤, 밀은 2만 5,000 톤이였다. 목축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예비적 자료에 의하면 1960년 1월에 리비아에는 약 273만두의 면양과 염소, 17만 두의 락타가 있었다.

공업은 보잘 것 없으며 일부 수공업적인 식료, 방직 및 제혁 공업이 있을 뿐이다. 공업 총 투자액에서 외국 자본은 75%를 차지한다. 1962년 말 현재 21개의 외국 석유 회사가 238개의 유정에서 석유를 채취(50년 기한으로 조차)하고 있는데 그중 14개 회사는 미국 회사이고 나머지는 영, 불, 이태리, 서독, 일본 독점체들의 것이다. 1962년 5월에 리비아 정부는 석유법을 제정하여 석유를 개발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을 높였다. 1962년에 리비아에서는 925만 톤(아프리카 제 2위)의 석유가 채취되였다. 이 밖에도 철, 린회석, 동, 석, 망간 등 지하 자원이 있으나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락화생, 올리브유, 가축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이태리, 영국, 미국, 서부 독일이다.

인민 생활은 극히 곤난하며 문화 수준도 매우 낮다. 전국적으로 병원은 3개 밖에 없으며 주민의 94%가 문맹자이다. 회교가 국교로 되고 있으며 국어는 아랍어이다.

튜 니 샤

(튜니샤 공화국)

Republic of Tunisia

【면적】 12만 5, 130 km²

【인구】 415만 8,000명(1963년)

【수도】 튜니스 (주민 69 만명)

정 치 1881년부터 튜니샤는 불란서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6년 3월 20일에 독립하였다. 1957년 7월 25일 군주제가 폐지되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58년 6월 튜니샤 정부와 불란서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불란서군은 비제르타를 제외한 튜니샤의 전역에서 철수하였다.

1961년 7월 비제르타의 불란서 침략군은 튜니샤를 반대하는 침략 행동을 감행하였다. 같은 해 9월 18일 튜니샤와 불란서 간의 회담에서 불란서군을 5일 이내에 원 진지로 철수시키는 데 합의를 보았다.

비제르타 기지로부터의 불란서군의 철거를 위한 튜니샤 인

민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란서는 비제르타에 1만 5천여 명(1961년 5월 현재)의 군대를 계속 주둔시키고 있으며 비제르타에서의 불란서군의 철거 문제와 관련한 튜니샤 정부와의 회담을 지연시키고 있다.

미제는 비제르타 군사 기지에 침략적 나토의 군용 창고를 건설하고 있다.

1962년 7월에는 비제르타 사건과 관련하여 단절되였던 불란서와의 외교 관계가 회복되였다.

6월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대표단이 튜니샤를 방문하였다. 12월 18일 유엔 17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튜니샤 대표는 미제가 조작한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 표결 시에 기권하였다.

【국민 의회】 의원 수는 90 명이고 그의 임기는 5년이다. 1959년 11월 8일 선거에서 네오 데스투르당이 의석을 전부 차지하였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내각 수반이다.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 (1959년 11월 8일 피선). 국무상 겸 국방상 베히 라드함, 외상 사도크 목캐템.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에 불란서 공산당 튜니샤 지부로 창건되였다가 1934년에 독자적인 정당으로 되였다. 1963년 1월 8일 정부에 의하여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모함메드 엔나파 **네오 데스투르당** 1934년에 성립되였다. 자산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는 현 집권당이다. 위원장 하비브 부르기바 **로동자 총 련맹** 네오 데스투르당의 영향 하에 있는 로조 단체이다.

경제, 사회 튜니샤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업 인구는 총인구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전국 총생산액에서 농업은 80%, 공업 및 광업은 20%를 차지한다. 이 나라의 주요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불란서 독점 자본은 55만 헥터의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린산염의 88%, 철광의 88%, 연광의 60%를 차지하고 아연의 채굴권을 독점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400만 헥터이다.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올리브, 포도, 담배 등이다.

올리브는 농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올리브 나무는 2, 400 여만 본이나 된다.

1958년에 올리브유 생산은 세계 제 3 위로서 12만 5,000 톤에 달하였다. 1962년에 밀은 40만 8,000 톤, 담배는 2, 000 톤 생산되였다. 경제에서 목축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1958년에 소는 56만 3,000두, 말은 8만 1,000두, 면양은 341만 두 있었다. 튜니샤는 145만 8, 000 헥터의 산림 지대를 가지고 있다.

린산염, 아연, 주석, 연, 석유, 석탄, 철, 우라늄 등 지하 자원도 풍부하다. 1960년에 린산염은 210 만톤, 철광은 103만 3,200 톤, 연광은 2만 8, 000톤 생산되였다.

광업과 식료 가공 공업은 약간 발전되였으나 기타 공업은 매우 락후하다.

튜니샤 정부는 3 개년 계획(1962~1964년)을 채택하고 2억 7,400만 디나르의 투자를 예견하고 있으나 그의 절반 이상은 외국의 《원조》(미국, 서독, 이태리 등)에 의존하고 있다.

1962년 7월 튜니샤는 1962 ~ 1964년 간에 1억 8,000만 딸라의 차관을 받을 데 대하여 미국과 합의를 보았다. 최근 년간 미국 독점체들도 튜니샤에 침투하고 있는바 《결프 석유 회사》는 수만 평방 키로메터의 면적을 조차지로 획득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린산염, 연, 철광, 올리브유, 밀 등이며 주요 대상국은 불란서, 서독, 이태리 등이다.

1962년 대외 무역에서 입초액은 4,220만 2,000 디나르로서 튜니샤 독립 후 최고의 무역 적자를 내였다.

실업자는 30만명 이상이며 주민의 90% 이상이 문맹자이다.

알제리아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People's Democratic
Republic Algeria

【면적】 220만 5,000 km²

【인구】 1,037만 5,000명(1961년 1월)

【수도】 알지에 (주민 80만명)

정치 알제리아는 1830년부터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강점 하에 들어 갔다. 알제리아 인민들은 132년간에 걸치는 불란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영웅적인 민족 해방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1954년 11월 1일부터는 알제리아 인민의 무장 투쟁이 개시되였으며 그후 민족 해방군이 조직되였다. 1958년 9월 9일 민족 해방 전선은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를 조직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9월 19일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가 정식 창건되였다.

알제리아 인민들의 무장 투쟁에 의하여 련속 심대한 패배를 당하게 되자 1959년 9월 16일 드골은 알제리아에 《자결권》을 부여할 데 대한 기만적인 성명을 발표하는 한편 전쟁을 계속 확대하기에 광분하였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80만의 병력을 알제리아에 투입하고 매일 30억 프랑을 알제리아 전쟁에서 탕진하였다.

반면에 알제리아 민족 해방군은 조직 초기의 3천명으로부터 15만명의 정규군과 10만의 민병대를 가지게 되였으며 전국의 3분의 2의 령토를 해방하였다.

궁지에 빠진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1960년 5월 25 ~ 29일의 멜랑 회담, 1961년 5월 20일 ~ 6월 13일의 에비앙 회담, 동년 7월 22 ~ 26일의 류그랑 회담에 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불란서는 회담에서 석유를 비롯

한 지하 자원이 풍부한 사하라를 알제리아에서 떼여 내여 이 나라를 분할하며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의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립장을 주장함으로써 회담을 파탄시켰다.

1962년에 들어서면서 알제리아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더욱 결정적인 단계로 발전되였고 불란서 인민을 비롯한 전 세계 인민들의 항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자 불란서는 다시 회담에 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62년 2월 11 ~ 19일에 서서와의 국경 부근의 불란서 지역에서 알제리아와 불란서 대표단 간의 비밀 회담이 진행되였고 뒤'이어 3월 7 ~ 18일 에비앙에서 량국 대표단 간의 비밀 회담이 진행되였으며 불란서 정부는 3월 18일 알제리아의 정화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협정에 의하면 정화 이후 3~6개월 간의 과도기에 알제리아 자결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하며 투표 결과 알제리아 인민이 완전 독립의 길을 택하는 경우에 《알제리아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자기의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게》 되며 또한 불란서는 호상 독립을 존중하며 량국 간의 리익을 존중하는 기초 우에서 호상 관계를 수립하며 정화후 3년 내에 불란서 군대가 계단 별로 철수하며 불란서 감옥에 있는 알제리아 애국자들을 석방하기로 되여 있다.

협정에 의하여 3월 19일 정오부터 알제리아 전역에서 7년 4개월만에 모든 전투 행동이 중지되였다. 3월 21일에는 1955년 10월 22일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에게 비법적으로 체포된 벤 벨라를 비롯한 5명의 민족 해방 전선 지도자들이 석방되였다.

3월 30일 알제리아—불란서 협정의 효과적인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알제리아 림시 행정부 (구라파인, 알제리아 회교도 출신, 민족 해방 전선 대표등 11명으로 구성)의 사업이 개시되였으며 불란서 고등 판무관은 자기의 통치권을 림시 행정부에 정식 이양하였다.

7월 1일 알제리아에서 자결에 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였다. 유권자의 99.29%가 독립하는 데 찬성 투표하였다. 투표 결과 7월 3일 알제리아는 정식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된 알제리아에는 림시 정부 지도부 내의 의견 상이로 하여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조성되였다.

1962년 6월 30일 림시 정부가 민족 해방군 총참모부 내 3명의 성원을 파면한 것을 계기로 표면화된 림시 정부 수상 벤 헤다를 일방으로 하고 부수상 벤 벨라를 타방으로 하는 두 파 간의 의견 상이는 알제리아 민족 해방 전선 혁명 민족 위원회 정치국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화되였다. 두 파 간의 의견상이는 민족 해방군 내에서 무장충돌까지 발생하여 국내 전쟁이 일어날 위협한 단계에까지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새로운 무장 간섭의 위협성도 조성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가 조성됨과 관련하여 알제리아 인민들은 내란을 방지하고 민족적 통일을 이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나섰다. 그리하여 두 파 간의 수차에에 걸치는 회담의 결과 8월 2일에는 림시 정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정치국(7월 22일 설치)에 이관하였으며 9월 4일에는 량파 군대 간의 전투 중지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이로써 2개월 여에 걸친 의견 상이는 해결되고 수차 연기되여 오던 민족 회의 선거가 9월 20일 진행되였다. 선거 결과 과도기 기간 정권을 행사해 오던 림시 행정부는 자기의 권한을 민족 회의에 이양하였다. 9월 25일 민족 회의는 알제리아를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하였으며 9월 26일에는 벤 벨라를 수상으로 하는 정부가 구성되였다.

9월 28일 벤 벨라 수상은 토지 개혁이 《모든 알제리아 정책을 좌우》하게 되며 알제리아 민족 해방군을 알제리아 민족 인민군으로 재 편성하며 대외 정책 분야에서 쁠럭 불가담의 중립 정책을 실시하며 불란서와 호상 평등한 협조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신 정부 정강을 발표하였다.

10월 3일 알제리아 정부는 11월 1일을 공화국의 민족적 명절로 기념할 것을 결정하였다.

10월 16일 정부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인 없는 농업용 재산의 매매를 방지하였으며 동산 및 부동산의 매매 및 대부에 관하여 외국과 체결되였던 계약들의 무효를 선포하였으며 실업 문제를 해결할 데 대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12월 3일 알제리아 정부는 국가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민 형사 재판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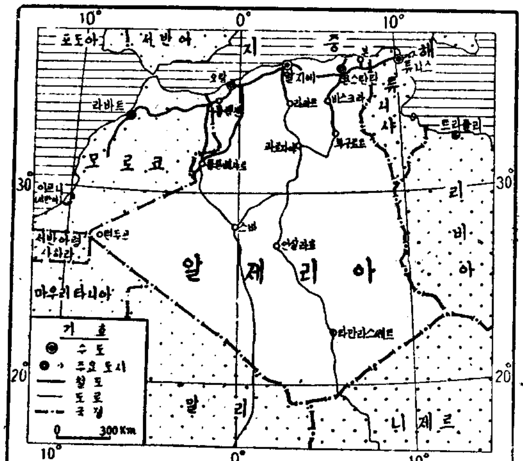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비호 하에 알제리아의 민족적 독립을 극력 반대하는 《비밀 무장 조직》(략칭 오 에이 에스, 1961년 2월 조직)은 정화후 더욱 악랄한 행동을 감행하였다. 극단적 식민주의자들은 3월 19일 알제리아에 있는 불란서인들에게 정화 협정을 반대하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3월 23일 오랑에 있는 은행을 습격하여 알제리아 력사상 가장 큰 은행 강도 행위를 감행하였다. 5월 2일에는 알제리아 전역에서 테로 행동을 감행하였는바 알지에에서만도 230 여명을 살상함으로써《알지에 력사에서 최대의 희생자》를 냈다. 또한 6월부터 전면적인 초토화 작전을 감행하여 학교, 병원 및 기타 공공 건물을 파괴, 소각하는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괴 활동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알제리아 독립이 불가피하게 실현된다는 것을 인정한 《비밀 무장 조직》 두목들과 일부 분자들은 해외로 도피하고 일부 분자들은 체포 처형되였다. 이로써 《비밀 무장 조직》은 진압되였다.

11월 1일 우리나라 정부 대표단

은 알제리아의 민족적 명절 경축 행사에 참가하였다.

1962년 12월 18일 유엔 17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알제리아 대표는 미국의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 표결 시에 기권하였다.

벤 벨라 수상은 10월 6～15일까지 유엔 가입 의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였으며(10월 8일 유엔에 정식 가입) 10월 16～18일 쿠바를 방문하였다.



귀국 후 벤 벨라 수상은 쿠바 혁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10월 25일 민족 해방 전선 정치국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를 침략적 행동으로 규탄하고 쿠바 인민에게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15일 에비앙 협정에 근거하여 이전 불란서군 공군 기지인 메종 블라슈 비행장이 알제리아에 이관되였다.

11월 30일～12월 4일 알제리아 정부 대표단이 처음으로 불란서를 방문하고 알제리아에 있는 불란서인들에 대한 문제와 알제리아에 주는 불란서의 장기 및 단기 원조에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알제리아는 1962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약 20개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민족 회의】 1962년 9월 20일 첫·민족 회의가 구성되였다. 의원수는 196명, 임기는 1년이다.

【대통령】 아흐메드 벤 벨라(1963년 9월 15일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

【정부】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정부를 지도한다.

제 1 부수상 후아리 부마딘

제 2 부수상 모함메드 사이드

제 3 부수상 비타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에 창건되였다. 1962년 11월 29일 알제리아 정부의 모든 정당들의 해체 조치에 의하여 다시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라르비 부할리 **민족 해방 전선** 1954년 8월에 조직된 《단결 및 행동 혁명 위원회》가 후에 민족 해방 전선으로 개칭되였다. 알제리아의 유일당이다. **로동 총동맹, 화교도 대학생 총동맹, 알제리아—쿠바 친선 위원회**

경제, 사회 장구한 불란서 식민지 통치로 인하여 알제리아는 불란서의 상품 판매시장과 원료 공급지로 전락되였었다.

알제리아 주민들의 82%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농업 생산은 국민 소득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680만 헥터이다.

주요 농산물은 포도 (농업 총 생산액의 3분의 1), 채소, 귤, 올리브 등이며 밀, 면화, 옥수수, 보리 등도 생산된다. 포도 재배 면적은 40만 헥터에 달하며 그의 3분의 2를 불란서 독점체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포도 생산량의 90%는 불란서에 수출된다.

1962년에 알곡은 222만 6,000톤, 포도주는 1,050만 헥터 리터, 귤은 40만톤 생산되였다. 1962년 현재 가축은 82만두(그중 대가 가축은 18만두)있었다.

알제리아에는 철, 린산염, 류황, 연, 아연, 동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특히 사하라의 석유 매장량은 30～60 억톤에 달한다. 공업 및 광업 생산은 국민 소득에서 25～27%를 차지한다.

1962년에 석유는 2,000만톤, 철광석은 238만 5,000톤, 린산염은 42만 5,000톤, 연광은 1만 3,000톤 생산되였다. 가공 공업은 빈약하며 통조림, 비료, 농기구, 제유, 제분, 담배 공장 등이 약간 있을 뿐이다.

대외 무역은 주로 불란서와 진행되고 있다. 독립 전에 불란서 상품은 관세 없이 알제리아에 수입되였으며 알제리아에서 불란서로 수출되는 상품 가격은 세계 시장 가격보다 25%나 낮았다. 이로부터 불란서는 매년 500억 프랑의 리윤을 짜냈다.

주요 수출품은 포도주(수출 총액의 약 3분의 1), 석유, 귤, 올리브유 등이다.

독립전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알제리아에서 경지 면적의 32.4%, 총 산림 면적의 70%, 공업, 광업 및 교통 운수의 90%, 대외 무역의 전부를 독점하였다.

1942년부터 알제리아에 침투한 미국 독점체들은 불란서 회사의 주권 구입 및 합동 회사의 설치 등 방법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1959년 미국의 록펠러, 모르간 재벌은 불란서에 강요하여 사하라에서 4만 2,000 평방 키로메터의 석유 탐사 및 채굴권을 빼앗았다. 이리하여 알제리아에서 불란서 다음 가는 략탈자로 등장하였다.

독립후 알제리아 정부는 외국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며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1962년 11월 19일 벤 벨라 수상은 발전소, 광산, 대외 무역을 국유화할 것이며 모든 중요 공업을 포괄하는 국영 부문과 국가가 참여하는 공영 부문 및 사영 부문 등 3개의 쎅또르가 있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0월 알제리아 정부는 독립전 구라파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농장들을 국가 농장으로 만들데 대한 결정을 발표하고 11월에 첫 국영 농장을 설치하였다. 또한 토지 개혁을 실시할 때까지 공유지를 우선 토지 없는 농민, 전상자 유가족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조직되였다.

장기 간의 식민지 통치와 전쟁으로 인하여 인민 생활은 극히 령락되였다. 농민들의 년 수입은 2만 프랑 밖에 안된다(구라파인 로동자들의 매년 수입은 500만 프랑). 실업자는 200만명에 달하며 40만명의 알제리아인들이 불란서에서 고역에 시달리고 있다.

문맹자는 80%에 달하고 200만의 미취학 아동이 있다. 12월 알제리아 교육 개혁 최고 위원회는 불란서어 대신 아랍어를 도입하는 등 교육 개혁을 위한 전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1963—1964 학년도부터 교육에 도입할 준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모 로 코

(모로코 왕국)

Kingdom of Morocco

【면적】44만 5,577 km²

【인구】1,280만 6,000명(1962년)

【수도】라바트 (주민 22만 5,000명)

정 치 모로코는 불란서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56년 3월 2일 독립을 달성하였다. 같은해 4월에 서반아령 모로코가 모로코 왕국에 귀속되였다.

【국왕】 물레이 하싼 2세 (1961년 3월 3일 즉위)

【국회】 량원제이다. 하원 의원은 144 명이고 그의 임기는 4년이다. 상원의 임기는 6년 (3년마다 절반씩 개선)이다.

1963년 5월 17일 첫 국회(하원) 선거가 진행되였다. 총의석 144석중 립헌 제도 옹호 전선이 69석, 독립당이 41석, 인민 력량 전국 련맹이 28석, 무소속이 6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현 정부는 1961년 6월 2일 성립된 후 1962년 10월 18일 일부 개편되였다. 수상 하싼 2세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에 불란서 공산당 지부로 창건되였고 1943년에 독자적 정당으로 되였다. 1960년 2월부터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알리 야타 **립헌 제도 옹호 전선** 1962년 11월 국왕이 모로코의 첫 헌법을 발표하였을 때 그를 지지하여 조직되였다. 지도자 아흐메드 레다구에디라 **독립당**(이스티클랄당)1944년에 창건되였으며 대지주와 상업 및 산업 자본가의 리익을 대표한다. 이 당은 경제에 대한 외국 자본의 통제를 반대하며 현 정부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인민 력량 전국 련맹** 국왕을 반대하며 아랍 련합 공화국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을 것을 원하고 있다. **민주 립헌당, 인민 운동당**

【주요 사건】 1962년 12월 7일 모로코 최초의 헌법 초안에 대한 국민 투표가 실시되였다. 국민 투표 결과 82.44%로서 헌법이 정식 통과되였다. 헌법에는 모로코가 립헌 군주국으로서 회교를 국교로 하며 아랍어를 정식 민족어로 사용할 것 등이 규정되여 있다.

3월 3일 모로코 왕 하싼 2세는 자기의 즉위 1주년 기념 식전에서 모로코가 쁠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며 카사블랑카 헌장과 카사블랑카 회의의 모든 중요한 결의들에 충실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또한 그는 아프리카에서의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기 위하여 행동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모로코 정부는 은행, 보험 회사 등 일부 중요한 경제 부문과 불란서 통제 하에 있는 발전소 및 철도 회사들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5월에는 우편, 전신 기관들에서 모국어인 아랍어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경제, 사회 모로코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국민 소득에서 농업은 약 40%, 공업은 25 ~ 30%를 차지하고 있다. 가경지는 1,500만 헥타(경작지는 500만 헥타)이고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촌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지주와 부농들이 전국 토지의 50%를, 불란서인들이 100만 헥타의 가장 비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농업 생산에서 평균 65%는 농산물이며 35%는 축산물이다. 주요 농산물은 보리, 밀, 옥수수, 쌀, 과실, 올리브 등이다. 1961년에 밀은 44만 6,000 톤, 보리는 47만 5,500 톤, 옥수수는 10만 6,500 톤, 벼는 1만 500 톤 생산되였다. 1961년에 양은 920만 두, 염소는 500만 두, 소는 250만 두, 당나귀는 110만 두, 락타는 18만 9,000 두 있었다.

모로코는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다. 린산염 생산량은 세계 제 2위, 코발트 매장량은 세계 제 3위, 망간 매장량은 세계에서 제 5위를 차지한다. 1961년에 린산염은 800만 톤, 코발트광은 1만 2,900 톤, 망간은 41만 3,900톤, 연광은 11만 7,100 톤, 철광석은 136만 6,000 톤, 석유는 7만 1,300 톤 생산되였다.

경제 명맥은 불란서, 미국, 벨기, 서반아 독점체들이 틀어쥐고 있다. 전국의 대소 400여 개의 공장, 광산들 중 73 개의 대소 광산들과 300여 개의 공장들은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다.

미제는 《원조》라는 미명 하에 모로코에 침투하고 있는바 1961년에는 2,000만 딸라의 《원조》가 투입되였다. 모로코 정부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대외 무역은 주로 불란서 독점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대외 무역에서는 2% 밖에 안되는

외국 상인들이 전체 상업 리윤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실업자는 약 20만명이며 문맹자는 주민의 93%이다.

이 프 니

【면적】 1,900 km²

【인구】 약 7만 명

【행정 중심지】 시드 이프니

이프니는 모로코 령토의 서남쪽 끝에 위치하며 대서양에 면해 있다.

1860년에 서반아는 원래 모로코 령토인 이프니를 강점하였다. 1956년에 모로코가 독립한 이후 이프니 인민들은 일치하게 모로코에의 귀속을 요구하여 부단히 투쟁하고 있다. 서반아 식민지 당국은 이를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있으며 1958년에는 이프니를 서반아의 한개 《주》로 만들었다.

주민의 대다수는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맥류와 과실 등이다.

서반아령 사하라

【면적】 27만 3,000 km²

【인구】 약 7만 명 (그중 유목민 약 3만 명)

【행정 중심지】 빌라 시스네로스

모로코의 서남쪽에 있으며 세기아 엘 함라(면적 8만 3,000 km²)와 리오 데 오로(면적 19만 km²)의 두 지역으로 나뉘여 있다.

1916년에 사하라에 식민지 통치 제도를 수립한 서반아는 이 지역에 군사 기지들을 설치하고 서부 련강 지배층들의 지지 하에 자유와 해방을 위한 사하라 인민들의 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그러나 1958년초에 서반아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사하라 인민들의 폭동이 일어났고 1961년 3월에는 사하라와 남부 모로코 간의 접경 지역에서 《사하라 항쟁 투사》들이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서반아 군대와 석유 탐사소(프랑코 정부와의 합의하에 미국 석유 회사들이 설치)들을 습격하고 탐사소에 있는 외국인들을 체포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목축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가축은 락타, 염소, 면양이며 농산물로는 쌀, 옥수수 등이 있다. 주요 수출품은 가축, 물고기 등이다.

마우리타니아

(마우리타니아 회교 공화국)

The Islamic Republic of Mauritania

【면적】 108만 6,000 km²

【인구】 73만 명 (1959년 추계)

【수도】 누아크쇼트(주민 2,000명)

정 치 1920년 이래 불란서 식민지로 되였던 마우리타니아는 1960년 11월 28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6월 19일 마우리타니아는 대외 정책, 국방, 경제 분야에서 불란서와 《협조》할 데 대한 예속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

【국민 의회】 의원은 40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1961년 5월 20일에 선포된 새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으로 된다.

대통령 모크타르 오울드 다다 (1961년 8월 20일에 당선)

【정당】 마우리타니아 련합당 (현 집권당) 1958년에 마우리타니아 진보 련맹과 마우리타니아 협상당이 합쳐서 성립되였다. 1960년 2월이 당은 마우리타니아의 독립과 국가 령토의 완정을 주장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지도자 모크타르 오울드 다다 마우리타니아 전국 련맹(1959년 5월 성립), 마우리타니아 민족 부흥당

경제, 사회 마우리타니아는 극히 락후한 농목축업 국가이다. 경제의 기본 부문은 목축업(주민의 4분의 3이 이에 종사)이며 해안 지대에서는 어업 (1962년 어획고 7,100 톤)도 한다. 1959년에 대가 가축은 약 130만 두, 양과 염소는 500만 두, 락타는 30만 두 있었다. 농산물로는 수수, 좁쌀(년산 10만 톤) 등이 생산된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한다.

지하 자원은 아직 광범히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마우리타니아에는 철광(매장량 1억 2,500만 톤, 년 생산량 600만 톤)과 동광(매장량 50만 톤, 년 생산량 2만 톤) 생산 기지가 있으나 외국 독점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을 불란서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매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주민의 95%가 문맹자이다. 학령 아동의 93%가 학교에 못 가고 있다.

말 리

(말리 공화국)

Republic of Mali

【면적】 120만 4,000 km²

【인구】 441만 명(1962년)

【수도】 바마코(주민 27만 5,000명)

정 치 1895년 불란서에 강점되여 식민지로 있던 말리(수단)는 1958년 11월 24일 《불란서 공동체》 내의 《자치 공화국》으로 되였다. 1959년 4월에 수단과 세네갈이 통합하여 말리 련방을 형성하였고 1960년 6월 20일에는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0년 8월 20일 세네갈의 탈퇴로 련방은 해체되였으며 1960년 9월 22일 수단 공화국은 나라 이름을 말리 공화국으로 개칭하였다.

말리는 쁠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의 통일과 민족 해방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는 1960년 10월에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기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도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임기는 5년이다. 의원 수는 80명이며 전원 수단 련맹 당원들이다.

1962년 4월 24일 의장과 4명의 부의장을 선거하였다.

의장 마하마네 아라산 하이다라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모디보 케이타

【정부】 현 정부는 1962년 9월 17일에 구성되였다. 대통령이 국방상과 외무상을 겸임하고 있다.

계획화, 경제 및 재정 조절 담당 국무상 장마리 꼬네, 사법상 마데이라 케이타, 내상, 공보 및 관광상 우스만 바

【정당, 사회 단체】 수단 련맹당 말리의 유일한 정당이며 집권당이다. 1946년 10월 아프리카 민주 련맹의 지역별 지부로서 성립되였으며 1948년에 수단 련맹당으로 발족하였다. 총비서 모디보 케이타 로동자 전국 련맹 총비서 바마두 시소코

【주요 사건】 1962년 9월 10일부터 12월까지 수단 련맹당 제 6차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당의 대내외 정책 문제들을 토의하고 정치 문제에 관한 결의, 조직 문제에 관한 결의, 경제, 사회 문제에 관한 결의와 당 규약을 채택하였으며 모디보 케이타를 비롯한 19명의 새로운 정치국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대회 보고에서는 민족 간부 양성 사업에서 오직 조선과 월남의 경험만이 말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하면서 그 경험을 섭취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치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수단 련맹당은 《식민주의, 제국주의 및 신 식민주의를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해방을 위한 모든 인민들의 투쟁을 무조건 지지한다는 것을 다시금 성명》하였다.

6월 30일 국회 전원 회의는 경제적 독립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7월 1일부터 말리가 불란서의 서부 아프리카 화폐 동맹에서 탈퇴하며 말리 공화국의 화폐 단위로서 말리 프랑이 사용된다고 발표하였으며 화폐 발행권을 가지는 말리 은행을 설립할 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7월 20일 말리 민족 화폐 발행을 위한 정부 조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한 국내 반동들의 반정부 음모가 발생하였다.

말리 정부와 인민들의 투쟁으로 반동들의 파괴 음모는 폭로 분쇄되였으며 이를 계기로 말리에서 처음으로 군중 심판이 진행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7월 23일 수단 련맹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인민 재판소를 창설할 데 대한 결정과 제국주의자들과 국내 반동들의 파괴 음모를 폭로하기 위한 군중 대회를 진행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파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들로 조직된 경각성대와 농촌 봉사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졌다.

8월 15일 바마코에서 《공화국의 수호를 위한 민족적 투쟁의 날》을 기념하여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으며 5만 여명이 《식민주의를 타도하라》는 구호판을 들고 시위를 단행하였다.

말리는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1962년 12월 18일 유엔 17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말리 대표는 《조선 문제》 토의에 남북 조선 대표를 초청하자는 쏘련의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를 초청하자는 결의안에 찬성 투표하였다.

1962년 2월 22일부터 3월 6일까지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이 말리를 친선 방문하였으며 3월 6일 상품 호상 납입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3월 7일에는 바마코에서 1962~1963년도 문화 교류에 관한 계획서가 조인되였다. 5.1절을 계기로 직맹 대표단이 호상 교환되였으며 5월에는 말리 녀성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5월과 6월에 걸쳐 모디보 케이타가 쏘련과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하였으며 1월에는 국회 의장 하이다라가 쏘련,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웽그리야를 친선 방문하였다. 말리는 7월 26일 쏘련과 경제 원조 협정, 11월 9일 중화 인민 공화국과 경제 기술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일련의 주요 협정들을 체결하고 대표단들을 호상 교환하였다. 한편 모디보 케이타는 서독을 방문(6월)하였으며 2월 21일 불란서와 경제, 재정 및 문화 협정을, 4월에는 미국과 일련의 경제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말리는 아프리카 통일의 구호하에 니제르, 씨에라 레오네, 세네갈, 상아 해안 등 몬로비아 성원국들과도 관계 발전을 위한 일련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 사회 말리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경제는 농업과 목축업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업은 창설 초기에 처해 있다. 국민 총 생산물 중에서 공업의 비중은 약 2%에 불과하다.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식민지 통치의 후과가 농후하게 남아 있다.

주요 농산물은 조, 쌀, 기장, 수수, 락화생, 면화, 카리떼(열대 유지 식물), 삼 등이다.

1962년에 경지 면적은 전년에 비하여 40% 증가되여 190만 5,000헥타에 달하였으며 기본 식료 작물인 기장과 수수의 파종 면적은 전체 파종 면적의 거의 75%를 차지한다. 벼의 파종 면적은 1960년에 18만 5,000 헥타, 락화생 파종 면적은 년 평균 18만 8,000헥타, 면화 재배 총 면적은 2만 6,000 헥타이다.

1961년에 벼는 19만톤, 조는 80만톤, 옥수수는 17만톤, 락화생은 12만톤, 면화는 1만 6,000톤, 카리떼는 20만톤 생산되였다. 1962년도에 단위당 수확고는 전년에 비하여 30% 제고되였다. 1961년 말 현재 소는 336

만 3,000두, 당나귀는 29만 2,200두, 말은 10만 5,550두, 양은 718만 8,000두 있었다.

공업으로는 자동차 및 선박 수리 공장, 락화생 착유 공장, 면화 공장과 소규모의 기계 공장, 가구 공장 등이 있을 뿐이다. 큰 공장이라야 로동자가 100~300명 정도이며 대부분 공장들은 로동자 10~20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외국의 원조로 방직 콤비나트, 세멘트 공장, 광산 뷰로, 철도, 농기계 공장, 건재 공장, 벽돌 공장과 수개의 도살장들이 건설되고 있다.

말리 정부는 독립 후 경제에서의 식민주의 후과를 청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독립후 자금 은행, 수출입 상사, 광산 뷰로, 운수 회사, 인민 발전 은행 등 21개 기관을 창설하고 철도 회사를 비롯하여 니젤 회사(대농장), 바마코 대려관 등을 국유화함으로써 주요 경제 명맥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국유화된 공장과 농장 지도자들을 말리인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불란서 기술자들을 축출하고 있다.

1962년 7월 1일부터는 민족 화폐인 《말리 프랑》을 발행하고 발권 은행을 설립하였으며 9월 22일에는 국민 채권을 발행하였다.

1962년 9월 국민 의회에서는 5개년 계획(1961~65)의 두번째 해인 1962~1963년도 계획을 채택하였다.

1962~1963년도에는 5개년 계획 총투자액의 22%에 해당하는 2,585만 2,000 말리 프랑이 투자되는바 그중 550만 7,000말리 프랑은 도로, 항구 및 체신 부문의 건설 및 보수에 투자된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투자》라는 구호하에 사무원들과 주민들을 건설 사업에 적극 동원시키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락화생(년 5만 6천톤), 면화(년 4천 톤), 벼(년 2만톤), 기장(년 2만톤) 등 농산물과 가축(대각 가축 10만두) 등이다.

무역은 주로 불란서 프랑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 년간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무역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962년에 500개의 교실이 증설되였으며 학생 수는 5,600 여명이 증가되였다. 1962년 말 현재 학령 아동 중 12%가 취학하였다. 대학은 없고 바마코에 공업 기술 학교가 하나 있으며 1962년 11월에 바마코에 말리—기니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고등 사범 학교가 개교되였다. 주민의 97%가 문맹자이다.

세 네 갈

(세네갈 공화국)

Republic of Senegal

【면적】 19만 7,161 km^2
【인구】 293만 명 (1961년)
【수도】 다카르 (주민38만 3,000명 1961년)

정 치

불란서의 식민지였던 세네갈은 1958년 11월 25일 불란서 《공동체》내의 공화국으로 되였다. 1959년 4월 4일 수단 공화국과 말리 련방을 형성하였다가 1960년 8월 20일 련방으로부터 탈퇴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세네갈은 불란서 《공동체》에 가입하고 있으며 대외 정책, 경제, 재정, 무역, 국방 등 분야에서 실제상 불란서의 통제를 받는 예속적인 협정을 불란서와 체결(1960년 4월 4일)하고 있다.

세네갈은 몬로비아 회의 참가국이며 다카르에는 불란서 군사기지가 있다.

1962년 12월 17일 대통령과의 정책상 의견 대립으로 수상 마마두 디아가 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12월 18일 국민 의회는 디아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였고 12월 19일에는 셍고르 대통령이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12월 18일 국민 의회 결정에 의하여 1963년 3월 3일에 실시된 국민 투표의 결과 미국식 대통령 책임제의 정권 형태로 변경할 데 대한 헌법 개정안이 채택되였다.

【국민 의회】 일원제이며 의원수는 80명,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레오폴드 세다르 산고르(1960년 9월 5일 당선, 임기는 7년)

【정당, 사회 단체】 **세네갈 진보 련맹**(집권당) 총비서 레오폴드 세다르 산고르. **아프리카 독립당** 1957년 9월 성립. 나라의 진정한 독립을 요구하는 진보적 정당이다. 1960년 8월 1일 비법화되였다. 이 당은 1962년 12월 2일 니제르 사와바당, 카메룬 인민 동맹과 함께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데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제 1비서 마제쿠드 디오프 **세네갈 전국 로조 련맹**

경제, 사회

이전 불령 서아프리카 지역 중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이기는 하나 인구의 95%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1961년 현재 전체 로동자수는 약 10만명에 불과하였다. 경제는 불란서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최근 년간 미국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세네갈은 유명한 락화생 산지로서 그 재배 면적은 전 경지 면적의 약 40%(80만 헥터)를 차지하며 전국 인구의 3분의 2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1961년에 락화생 생산량은 95만 톤(세계 제 4위)이였다. 기타 농작물로는 벼, 밀, 옥수수, 면화 등이 생산된다. 1961년에 벼 재배 면적은 1만 8,000 헥터였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 한다. 목축업도 하며 수산업도 어느정도 발전되여 있다. 1961년에 어획고는 9만 6,300 톤이였다.

세네갈에는 기타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하여 비교적 대규모적인 착유 공업이 있으며 제분, 정미, 어류 통조림 제조 및 신발 공장 등도 있으나 대부분은 수공

업적인 중소 규모의 공장들이다. 1962년 현재 공업 기업소 수는 320개였으나 종업원 수는 2만 7천 명에 불과하였다. 의복, 메리야스, 담배, 세멘트는 국내 수요의 80%, 신발은 65%를 충족시키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린광이 풍부하며 1960년에 그 생산량은 60만 톤이였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이다. 1961년에 주요 수출품인 락화생 및 그 제품의 수출액은 수출 총액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카르에는 종합 대학이 있다.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17%이다.

감 비 아

【면적】 1만 367 km²
【인구】 28만 9,000명 (1959년)
【행정 중심지】 바더스트(주민 2만 1,500 명)

정 치 감비아는 영국의 식민지와 보호령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여 있다.

최근 년간에 감비아에서 앙양되고 있는 민족 해방 운동에 직면한 영국은 1961년 5월과 7월에 진행된 감비아 제헌 회의에서 감비아에 자치 정부를 수립할 데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2년 4월 27일부터 식민지와 《보호령》에 내부 자치를 실시할 데 대한 《신 헌법》이 실시되였다.

5월에 의회 선거가 진행되고 자치 정부 (수상은 인민 진보당의 쟈와라)가 수립되였다. 의석 32석중(전체 의원 수는 36명인데 4명은 지방 추장이 임명) 인민 진보당이 18명, 련합당이 13명을 차지하였다.

정당으로서는 인민 진보당, 련합당, 민주당 등이 있다. 이 정당들은 모두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독립후의 국가 제도에 대하여서는 각각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 이상은 농업에 종사하며 주산물은 락화생이다. 경지 면적은 22만 1,000헥타이며 그중 락화생 재배 면적은 9만 헥타 이상이다. 락화생 년 생산량은 3만~4만 톤에 달하며 락화생은 수출 총액의 96~98%를 차지한다.

지하 자원은 미개발 상태에 있으며 현대적 공업은 없고 수공업으로서 제유, 도자기, 제혁, 방직 공업 등이 있는 정도이다. 매년 약 6,000 톤의 식량을 수입한다. 주민의 95% 이상이 문맹자이며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20% 미만이다. 원주민 출신의 의사는 2 명뿐이다.

포도아령 기니아

【면적】 3만 6,125 km²
【인구】 56만 5,000명 (1959년)
【행정 중심지】 비사우 (주민 약 2 만명)

정 치 포도아령 기니아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에 있다.

1879년부터 포도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2년에 포도아령 기니아에는 현대적 무기로 장비된 1만 명의 군대와 경찰이 배치되여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 3천명 이상의 이 나라 자유 투사들이 감옥과 수용소들에 감금 당하고 있다.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포도아령 기니아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1961년 8월 3일 (이 나라 부두 로동자들이 식민지 경찰에 의하여 학살된 3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하여 더욱 고조되였다. 이 때로부터 투쟁은 새로운 단계 즉 직접적인 행동의 단계에 들어섰다. 1962년에 민족 해방 투쟁은 북부와 중부에서 더욱 강화되였는데 6월에는 이 지역 인민들이 카쉐오에 있는 행정 중심지를 습격하고 무장한 식민지 군대 및 경찰들과 투쟁하였다. 이 나라 애국자들은 나라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다.

정당으로서는 반식민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는 포도아령 기니아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과 포도아령 기니아 및 베르데갑 제도 해방 운동이 있다.

경제, 사회 농업을 주로 하며 주요 농산물은 락화생, 코코아, 종려유, 피혁, 쌀 등이다. 락화생 년 생산량은 약 5만 톤, 코코아는 약 1만 4,000 톤, 종려유는 1,000톤, 쌀은 1,500톤이다. 최근 년간 미국 세력이 침투하여 석유 자원 탐사 및 채굴권을 장악하고 있다.

글을 아는 사람은 겨우 3 천명에 불과하며 전국에 병원은 1 개 있을 뿐이다.

베르데갑 제도

【면적】 4,033 km²
【인구】 19만 4,465 명
【행정 중심지】 프라이아 (주민 3,575 명)

베르데갑 제도는 서부 아프리카의 베르데갑 서쪽 대서양에 있는 군도로서 1495년에 포도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1년에 포도아 정부는 베르데갑 제도를 《해외주》로 선포하고 파쑈적인 총독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년간 포도아령 기니아 및 베르데갑 제도 아프리카인 독립당의 영향 하에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되고 있다.

공업으로는 소규모의 제당, 양주, 제염 및 어류 가공 공업이 있을 뿐이며 주요 농산물로는 피마주, 커피, 게자, 귤, 사탕수수, 옥수수, 담배 등이 있다.

기니아

(기니아 공화국)
Republic of Guinea

【면적】 24만 7,000 km^2
【인구】 300 만 명(1960년)
【수도】 코나크리 (인구 11만 2,500명)

정 치 1895년 이래 63년간 불란서 식민지 통치 하에 있던 기니아는 1958년 10월 2일 독립을 쟁취하고 공화국 . 선포하였다. 기니아 정부는 대내적으로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며 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토대를 축성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모든 반제 평화 애호 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면서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주의 청산과 아프리카의 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는 1958년 10월 8일에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60명(전원 기니아 민주당원)의 의원으로 구성되여 있다. 임기는 5년이다. 의장 디알로 사이프라에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며 군 사령관을 겸한다. 임기는 7년이다. 현 정부는 1963년 1월 1일 개조되였다. 대통령 세쿠 투레, 사법, 재정 및 검열상 디알로 사이플라에, 민족 보위 및 국가 안전상 호데바 케이타, 외상 란사나 뻬아보기, 경제 발전상 이스마일 투레.

【정당, 사회 단체】 기니아 민주당 기니아의 유일당이며 집권당이다. 1947년 5월 17일 《아프리카 민주 련맹》의 지방 지부로서 조직되였다가 1958년 11월 19일 독립적인 정당으로 발족하였다. 농민, 로동자, 인테리, 소부르죠아지들로 구성되여 있다. 당원 약 80만명, 총비서 세쿠 투레 전국 로조련맹 1945년에 조직, 위원장 카바 마마디

【주요 사건】 1962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기니아 민주당 제 6차 대회가 소집되였다. 대회는 총비서 세쿠 투레의 정치 보고와 경제 및 사회 문제, 당 조직 문제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고 정치 결정, 경제 결정, 사회 결정과 새로운 당 규약을 채택하였으며 세쿠 투레를 비롯한 17명의 정치국 위원들을 선거하였다(종전의 위원들이 재선됨).

정치 결정에서는 기니아의 적극적 중립 정책을 재천명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모든 형태, 외국 군사 기지, 군사 쁠럭 및 군사 동맹의 청산과 제 2 차 세계 대전의 잔재를 청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 결정에는 민족 공업을 창설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의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되여 있다.

한편 정부는 국가 기관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며 중앙의 많은 권한을 지방에 넘겨 주기 위한 지방 분권화를 실시하였다.

국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자본과 전 국가의 자본을 결합시키는 방침에 따라 4월 5일 국민 의회는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한 자본 투자법을 채택하였다.

10월 15일 코나크리에서 진행된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법률가 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세쿠 투레는 《오직 인민들의 단호한 투쟁에 의해서만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니아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였다. 12월 유엔 제 17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기니아 대표는 《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 철거 문제만을 토의하는데 두 조선 대표를 초청》하자는 쏘련 결의안을 지지하면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대표를 초청하자는 결의안에 찬성 투표하였고 미국 결의안에는 기권하였다.

2월 7일부터 22일에 걸쳐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이 기니아를 방문하였으며 2월 20일에는 1962~1963년 문화 교류에 관한 계획서와 1962년도 상품 교류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한편 4월 24일부터 5월 16일까지 기니아 전국 로조 련맹 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62년에 기니아는 쏘련, 중국,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대표단들을 교환하였으며 일련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미국과는 5월 7일 대외 원조 협정, 5월 31일 기술 협정을 비롯한 일련의 협정들을 체결하였다.

10월 세쿠 투레는 미국을 방문하고 케네디와 미국의 《원조》 문제 및 평화군 파견 문제에 대하여 회담하였다. 4월에 기니아는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국제 통화 기금》에 가입하였다.

1962년에 기니아는 나이제리아, 토고, 에티오피아, 수단, 모로코, 세네갈, 씨에라 레오네 등 국가 수뇌자들과의 호상 방문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통일과 아프리카 수뇌자 회의 소집 문제 등을 토의하였으며 이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였다.

경제, 사회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외국 자본이 경제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 불란서 자본은 1,500 개의 대재배원중 900개를 독점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 작물인 바나나의 전체 생산을 장악하고 있다. 보키사이트와 철광석 채취는 미, 영, 불, 서독 등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기니아 정부는 외국 독점체들의 경제적 지배를 제거하고 경제의 자주적 발전의 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주요 산업들을 국유화하였다.

1962년도에 《서 아프리카 석유 공급 회사》, 《서 아프리카 살로 회사》 및 개인 은행 (불란서 대은행의 지점) 보험 회사들을 국유화하고 대외 무역에 대한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는등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농업을 중심적으로 발전시켜 식량 문제를 해결하며 농업 발전에 적응하게 공업과 교통 운수(도로, 비행장, 항구 시설의 현대화)를 발

전시킬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년 경제 발전 계획 (1960. 7～1963. 7)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간의 투자액 500억 기니아 프랑 중 265억 기니아 프랑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차관에 의존하고 있다. 기니아 정부는 공업, 농업 및 대외 무역 분야에서 우선 국가적 부문과 협동 조합 부문을 발전시킬 것을 표방하고 있다. 1962년 현재 기니아에는 300 개의 국영 상점, 200 개의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여 있으며 뜨락또르 대수는 독립후 4 년간에 2배로 증가되였다.

1961년에 주요 농산물인 쌀은 32만 톤, 감자(고구마)는 12만 5,000 톤, 옥수수는 6만 톤, 마니오크(카사바 전분)는 35만 톤, 락화생알은 9,000톤, 바나나는 7만 2,000톤, 종려는 2만 4,000 톤, 커피는 1만 5,000 톤 생산되였다. 또한 소는 135만 두, 염소 및 면양은 70만 두 있었다.

주요 산업은 채취 공업인데 아직 전반적으로 개발되지 못하였다.

주요 광물은 보키사이트 (매장량 약 6억 톤), 철광석 (매장량 25억 톤), 철반로, 금강석 및 금 등이다.

기니아에는 1 개의 수력 발전소, 6개의 화력 발전소가 있으며 1962년 1월에 2 개의 수력 발전소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 두 발전소들이 조업하면 총 발전 능력은 2만 키로왓트에 달하게 된다. 동력 공업은 모두 국유화되여 있다.

가공 공업으로는 중소 규모의 농산물 가공 공장, 비누 공장, 제유공장 및 알루미늄 공장(1 개는 국유화, 3 개는 외국인 소유)이 있을 뿐이다.

1962년에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로 방송국, 병원, 통 조립 공장, 제재 공장, 성냥 공장, 담배 공장, 공업 대학 등의 건설이 진행되였다. 또한 미국, 서독, 불란서 등 나라의 자본들이 침투하여 보키사이트를 개발하며 수력 발전소, 기와 공장 등의 건설을 진행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보키사이트, 철광석, 철반로, 락화생, 차, 종려피혁, 바나나(수출액의 4분의 1), 파인애플 등이다. 1961년도 수출액은 151억 7,527만 6,000 기니아 프랑, 수입은 179억 9,300 만 기니아 프랑으로서 28억 1,772만 기니아 프랑의 적자를 내였다.

기계 설비, 연료, 식량, 일용 필수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주요 무역 대상은 프랑 지역과 쏘련, 중국, 체코슬로바키야, 파란,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미국, 영국, 서독, 불란서, 이태리 등이다.

기니아 정부는 독립후 식민지 문화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불란서 교회에 속한 69 개의 사립 학교를 국유화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교회의 통제를 종식시켰다. 학생 수는 1958년의 4만 2천 명으로부터 1961년에는 12만 5천 명으로, 인민 학교 수는 248 개로부터 642 개로 증가되였다.

1962년 현재 21 개의 병원, 10 개의 진료소, 158개의 간이 진료소, 36개의 모성 및 유아 보호소들이 있다. 의사는 주민 1만 8,500명에 1 명이 차례지고 있다.

주민의 85%가 문맹자이다. 1970년까지 모든 성년들이 읽고 쓸 수 있도록 문맹 퇴치 운동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다.

씨에라 레오네
Sierra Leone

【면적】 7만 2,326 km²
【인구】 245만 명(1959년)
【수도】 프리타운(주민 10만명)

정 치

씨에라 레오네는 1861 년부터 영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다. 씨에라 레오네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의 압력으로 영국은 1960년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된 《제헌 회의》에서 씨에라 레오네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회의에서는 영국의 강요에 의하여 독립 후에 량국이 《호상 협조》 및 《방위 조약》을 체결할 것이 결정되였다. 《방위 조약》에는 영국이 씨에라 레오네 령토 내에 공군 및 해군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여 있다. 씨에라 레오네는 1961년 4월 27일 《영 련방》 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5월 5일 미국과 《경제 및 기술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씨에라 레오네는 몬로비아 회의 참가국이다.

1962년 3월 29일 씨에라 레오네 국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을 반대하여 이 나라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것을 정부에 위임하는 법령을 발표하였다.

【국회】 1962년 5월에 하원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총 62석 중 인민당이 28석, 《진보 독립 운동》과 전국 인민 대회당이 20석, 무소속이 14석을 차지하였다.

【총독】 모리스 도르만 (1961년 4월 27일 취임)

【정부】 현 정부는 1962년 5월에 성립되였다.

수상 밀톤 마르가이

【정당, 사회 단체】 인민당(집권당) 1951년 성립, 영국과의 협조를 주장한다. 당수 밀톤 마르가이 전국 인민 대회당 1960년 9월에 성립된 야당이다. 인민 민족당, 통일 진보당, 《진보 독립 운동》, 로조 리 사회(국제 자유 로련에 가입한 반동 로조)

경제, 사회

씨에라 레오네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3만 6,617 평방 키로메터이며 알곡 년 생산량은 25만 톤 내외에 불과하므로 식량은 수입한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코코아, 종려씨, 락화생, 생강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철광석 년

생산량은 150 만톤), 금강석, 크롬, 금 등이 풍부하다. 채광업은 《씨에라 레오네 개발 회사》를 비롯한 영국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최근 년간 미국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다.

공업은 매우 락후하다. 몇개의 착유 공장, 정미소, 가구 공장 등이 있을 뿐이다.

대외 무역도 영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수출품은 금강석(수출 총액의 약 50%), 철광석, 크롬광, 종려씨, 코코아, 커피, 생강 등이다. 1962년에 철광석은 198만 3,000톤, 금강석은 115만 7,000카라트, 크롬광은 9,400톤 수출되였다.

1962년 9월 20일 씨에라 레오네 정부는 《10 개년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다. 총 투자액은 1억 2,700만 파운드를 예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문의 개인 기업에 참가하며 외국 차관을 얻을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인민 생활은 매우 빈곤하다. 농민들의 년 평균 화폐 수입은 겨우 3파운드에 불과하다. 학령 아동의 86%가 취학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대부분은 문맹자이다.

리베리아

(리베리아 공화국)

Republic of Liberia

【면적】 11만 1,400 km²

【인구】 250만명 (1958년)

【수도】 몬로비아 (주민 약 6만명)

정 치 1847년 7월 26일에 독립은 하였으나 사실상 미국 식민주의자들의 통제 하에 있다. 전국 인구의 1% 밖에 안되는 미국에서 이주하여 온 흑인의 후손들이 특권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범한 토착 아프리카인들은 노예적 처지에 있다. 1955년에 비로소 정부는 토착 아프리카인들에게도 국가의 정치 경제 생활에서 일정한 지위를 차지하게 한다는 《통일 정책》을 공포하였다.

리베리아는 몬로비아 회의 참가국이다.

【국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10명, 그의 임기는 6년이고 하원 의원은 39명 (그중 12명은 토착 아프리카인),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윌리암 타브맨 (1959년 5월 6일 네번째로 련임).

경제, 사회 경제 명맥은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으며 미국 딸라가 통용되고 있다.

인구의 75～9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이 나라 경제의 기본인 고무인바 그의 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커피, 종려, 바나나, 락화생, 코코아 등도 생산된다.

지하 자원으로는 철 (매장량 3억 3천만톤), 금강석, 망간, 흑연, 보키사이트, 우라늄, 동, 아연, 운모 등이 있다.

이 나라 경제의 기본인 고무 생산량에서 미국의 《파이아스톤 타이야 및 고무 회사》는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광석의 탐사권과 채굴권은 미국 자본인 《리베리아 광업 회사》와 《리베리아 미국 서전 광업 회사》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수출품은 고무, 철광석, 금광석이고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서독, 벨기, 화란, 영국이다.

미국 독점체들의 략탈로 인민 생활은 매우 빈곤하다. 주민 5만～7만 5천명당 의사는 한 사람뿐이고 말라리야 환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문맹자는 주민의 90%에 달한다.

상아 해안

(상아 해안 공화국)

Republic of the Ivory Coast

【면적】 32만 2,500 Km²

【인구】 330만명 (1961년)

【수도】 아비쟌(주민 25만명)

정 치 상아 해안은 1887～1889년에 불란서에 강점되여 그 식민지로 있다가 1960년 8월 7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59년 5월 상아 해안은 다호메, 상부 볼타, 니제르와 함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소위 《협상 회의》를 결성하였다.

1961년 4월 24일 불란서는 대외 정책, 국방, 경제, 문화 모든 부문에서 아프리카 신생 국가들의 자주권을 제한하는 예속적 《협조 협정》을 상아 해안과 체결하였다. (상세한 것은 1962년판 년감 참조).

1961년 5월 31일 국민 의회에서 처음으로 군대를 창건할 데 대한 법안이 채택되였다.

상아 해안은 종전에 불란서 식민지였던 12 개의 국가들로 조직된 아프리카—말가슈 동맹의 성원국이며 몬로비아 회의 참가국이다.

1960년 9월 20일 유엔에 가입하였다.

【국민 의회】 의원은 70명,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펠릭스 우푸에 보아니(1960년 11월 27일 당선, 외상을 겸임).

【정당, 사회 단체】 아프리카 민주련맹 1946년 10월에 이전 불란서령 서 아프리카 및 적도 아프리카의 12개의 주요 정당들로서 조직되였다.

1951년 까지 진보적인 역량으로서 아프리카의 단결과 반식민주의 투쟁을 주장했으나 그 이후부터 식민주의자들과의 타협 정책을 제창하고 있다.

현재 8개국 (상아 해안, 니이제르, 상부 볼타, 챠드, 다호메, 가본, 중앙 아프리카, 콩고(전 중앙 콩고)에 지부를 가지고 있다.

본부는 아비잔에 있다. 당수 우푸에 부아니 상아 해안 민주당(현 집권당) 1945년 성립, 아프리카 민주 련맹의 지부, 일부재배원 소유자들과 민족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표한다. 당수 우푸에 보아니 민족 해방 위원회 1958년 9월에 성립되였다.

상아 해안의 진정한 독립을 주장한다. 로조 련맹

경제, 사회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경제는 락후하며 주민의 9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960～1961년에 커피 재배 면적은 50만헥터, 생산량은 18만 5천톤이고 코코아의 재배 면적은 27만 헥터, 생산량은 9만 4천톤이였다. 커피 재배원의 98%와 코코아 재배원의 90%는 아프리카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그 수출은 불란서 회사에 독점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생산량은 아프리카 제 1 위, 세계 제 3위) 코코아 (생산량은 세계 제 4위), 바나나, 종려, 목재 등이며 벼, 옥수수, 면화 등도 재배한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강석 (1962년에 28만 3,900 카라트 생산) 망간, 석유, 철 등이 있으며 공업으로는 방직, 담배, 양주, 커피, 코코아 등 가공 공장이 약간 있을 뿐이다.

공업, 은행, 대외 무역은 불란서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후 미국은 상아 해안에 적극 침투하였는바 석유 채취업을 중심으로 일련의 기업소들에서 미국 자본은 30～50% 차지하고 있다.

대외 무역에서 주요 수출품은 커피 (수출 총액의 약 78%) 코코아 (1961～1962년에 8만 2천톤 수출) 바나나, 금강석 (1962년 41만 4,200 카라트 수출) 이며 주요 대상국은 불란서이다.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가난하다. 1961년에 로동자 수는 약 18만 1천명 (그중 농업 로동자 8만 명) 있었다.

학령 아동의 30% 밖에 취학하지 못하며 전국에 3개의 병원이 있을 뿐이다. 불어를 국어로서 통용하고 있다.

상부 볼타

(상부 볼타 공화국)

Republic of the Upper Volta

【면적】 27만 4,000 km²

【인구】 440만 4,000명 (1962년)

【수도】 와가두구 (주민 6만 3,000명, 1960년)

정 치 상부 볼타는 1895～1901년 간에 불란서에 강점된 이래 그 식민지로 있다가 1960년 8월 5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4월 24일 상부 볼타는 대외, 경제 정책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불란서와 체결하였다. 그와 동시에 상부 볼타는 불란서를 수위로 하는 《공동 방위》 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자기 령토에서 불란서 군사 기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불란서 공동체로부터의 탈퇴를 확인하였다.

1962년 3월 대통령은 상부 볼타에서의 불란서 군대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상부 볼타 민족군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상부 볼타는 아프리카—말가슈 동맹 성원국이며 몬로비아 회의 참가국이다.

【국민 의회】 의원 수는 75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모리스 야메오고

【정당, 사회 단체】 민주 통일당 (집권당) 아프리카 민주 련맹 (상아 해안 참조)의 지부, 지도자 모리스 야메오고 흑 아프리카 로동자 총련맹 상부 볼타 지부

경제, 사회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 특히 불란서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경제 부문은 목축업인바 약 200만 두의 대각 가축과 300만두의 양 및 염소가 있다. 토지는 (166만 헥터) 비옥하며 모두 경작지로 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황폐화되였다. 주요 농산물은 수수 및 기장 (1960년에 58만 6천톤 생산), 옥수수 (1960년에 7만톤)조, 벼, 락화생 등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망간, 동우라늄 등이 있으나 개발되지 못하였다.

공업은 락후하며 몇개의 가공 공장이 있을 뿐이다. 주요 수출품은 가축(수출 총액의 46%), 어류, 락화생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 가나이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낮다. 매년 약 25만명의 농민들이 가나, 상아 해안 등 린접 국가들에 품팔이하러 간다. 학령 아동의 6%만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주민의 95%가 문맹자이다.

가 나

(가나 공화국)

Republic of Ghana

【면적】 27만 3,780 km²

【인구】 710만 (1963년 1월 2일 현재)

【수도】 아크라 (39만명)

정 치 1957년 3월 6일에 영국 식민지 황금 해안과 영국 후견령 토고가 통합하여 자치령인 가나를 형성하였다가 1960년 7월 1일에 독립적인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영 련방의 성원국으로 남아 있다. 가나는 카사블랑카 헌장 조인국이다.

【민족 회의】 1명의 의장과 112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정 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며 군 총 사령관이다. 대통령 크와메 느크루마 (1960년 7월 1일 취임) 외상 코죠 보치오.

【정당, 사회 단체】 인민 대회당 (1951년부터 집권) 영 련방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비 폭력의 방법으로서 자유를 쟁취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위원장 크와메 느크루마 **련합당**(6개 야당으로 련합) 아산디 지구와 북부 지구 추장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친서방적인 당이다. **로동 조합 대회**(세계 직련에 가입) 총 비서 존 떼떼가 **농민 련합 리사회, 녀성 전국 리사회**

【주요 사건】 1962년 10월 2일 느크루마는 민족 회의에서 가나의 대내 정책은 아프리카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자체 경제를 창설하는 것이며 대외 정책은 식민주의로부터의 아프리카 대륙의 해방과 통일에 이바지하며 쁠럭 불가담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7월 29일 인민 대회당 제 11차 년차 회의에서 7개년 계획을 위한 새 강령을 채택하였다. 강령에는 주요한 생산 수단들의 국유화, 완전한 취업의 실시, 중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 무상 치료제 실시 및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여 있다.

가나 민족 회의는 9월 8일 크와메 느크루마 대통령을 종신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9월 11일 추장제에 기초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제도는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나에서 유일당제를 실시할 데 대한 제안을 채택하였다.

1962년에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느크루마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이 3차 (8월 1일, 9월 9일, 9월 20일)에 걸쳐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약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8월 29일 가나 외상 아코 아제이와 공보상이 체포되였으며 9월 22일 아크라 지역에 비상 사태가 선포되였다.

느크루마 암살 기도를 규탄하여 8월 3일과 4일 그리고 17일 전국 각지에서 인민들의 시위가 단행되였다. 시위자들은 《음모자들을 처단하라》, 《제국주의 고용자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으라》고 웨쳤다. 9월 15일에는 아크라에서 정부의 반제 정책을 지지하여 10만 명의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였다.

4월에 가나 정부는 륙군 내에 있던 영국인 장교 60명을 해임하였다.

12월 18일 유엔 17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 표결 시에 가나 대표는 기권하였다.

가나는 3월 9일 알제리아와 외교 관계를 설정하였다.

경제, 사회 가나 경제는 광업이 위주로 되여 있다.

가공 공업은 락후하며 광업이 약간 발달된 정도이다. 독립후 가나 정부는 경제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부단히 강화하며 외래 자본 특히 영국 자본에 대한 나라의 경제적 의존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가나에는 4개의 경리 형태 즉 국영, 합영, 협동, 개인 경리 형태가 있다. 기간적 경제 부문들 즉 코코아를 비롯한 농산물의 수매 및 수출, 철도 운수, 전력, 방송, 무기 제조, 체신 및 음료수 공급과 기타 편의 시설들은 국가가 장악하고 있다. 공업 기업 부문에 있는 국가-사자본 합영 기업소에서는 자본의 60%를 국가가 장악하고 40%만 외국 회사에 배정하고 있다. 협동 경리는 주로 농업과 일용품 부문의 소 생산자들이 외국 독점체들의 영향을 피하기 위하여 자본을 통합하는 형식으로 조직되여 있다.

1961년 10월에 1,750개의 각종 협동 조합들이 있었다. 농업에서는 령세농 경리가 지배적이며 봉건적 잔재가 남아 있다. 주민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파종 면적은 530만 헥터(전 령토의 22%)이다. 주요 농산물은 코코아이며 그밖에 락화생, 옥수수, 수수, 기장, 바나나, 커피, 야자, 생고무 등이 있다.

코코아 재배 면적은 48만 헥터이며 그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세계 제 1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나 국민 소득에서 40%를 차지한다. 가나 인구의 5분의 2가 코코아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1962년에 코코아는 40만톤 생산되였다. 지하자원으로는 금강석 (생산량은 세계 제 3위), 금, 망간광(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 제 3위), 보키사이트 등이 있다. 금 채굴은 영국 광업 회사에, 망간은 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1959년에 완공된 년산 6천톤 능력의 알루미늄 공장 자본의 60%도 카나다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1961년에 외국 자본은 약 2억 1,500만 영 파운드였는데 그 중 영국이 2억 파운드, 미국이 500만 파운드, 불란서가 400만 파운드, 서독이 100만 파운드를 차지하였다.

가공 공업은 극히 미약하며 소규모의 식료품, 일용품, 건재, 금속, 비료 공장 등이 있다.

림업도 발전되고 있으며 원목 생산은 년 180만 립방 메터에 달한다.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1961~1962년에 43만 4,900톤 수출), 목재, 금강석, 금, 보키사이트, 망간광 등이다. 수출 총액에서 원료는 94%를 차지하는데 그중 농산물은 60%, 원목은 9%, 광석 및 정광은 6%, 금 및 금강석은 18%이다.

무역 대상국은 쏘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영국 미국, 불란서, 서독 등이다.

정부는 내부 축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출을 증가하고 수입 상품을 극도로 제한하며 일부 원료 상품을 가공 상품으로 교체하고 수출 품종을 확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나 정부는 경제에 대한 통제의 기본 수단의 하나로서 공업화 토대 축성을 위주로 하는 제 2차 5개년 계획 (1959~1964)을 실시

하여 왔으나 자금난으로 이를 중지하고 1963년부터는 농촌 경리 발전을 위주로 하는 새 7개년 계획 (1963~1969년)에 착수하였다.

1962년도에 의사수는 400명이였다. 전체 주민이 종교를 믿는다. 그중 배물교는 60%, 기독교는 30%, 이스람교는 10%를 차지한다. 공식 용어는 영어이다.

【출판】 통신—가나 통신사
신문—가나 타임스(정부 기관지) 이브닝 뉴스(인민 대회당 기관지)

토 고

(토고 공화국)
Republic of Togo

【면적】 5만 6,600km²
【인구】 152만 명(1962년)
【수도】 로메(주민 약 7만 명)

정 치 불란서 후견령이던 토고는 1960년 4월 27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4월 9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실바누스 올림피오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였다.

대통령 올림피오는 경제 분야에서 《문호 개방 정책》과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창설을 주장하였으며 부대 조건 없는 외국의 원조를 환영한다고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였다.

올림피오는 사하라에서 감행된 불란서의 원자탄 시험을 반대하였으며 불란서의 통제 하에 있는 아프리카—말가슈 동맹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한편 몬로비아 회의의 조직을 발기하였다.

올림피오는 1962년 3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토고에서의 미국의 개인 투자를 보호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1~1962년에 토고는 13억 5천만 아프리카 프랑의 미국 《원조》를 받았다.

토고는 불란서와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1960년 9월 20일 유엔에 가입하였다.

1962년 5월 4일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대표단이 토고를 방문하였으며 12월 18일 유엔 17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토고 대표는 《조선 문제에 관한 15개국 결의안》의 표결 시에 기권하였으며 남북 조선 대표 초청에 관한 문제 표결 시에는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다.

1963년 1월 13일 군사 정변(이전 불란서군 내의 토고인들)에 의하여 올림피오는 살해되고 정부 각료들은 체포되였다. 1월 17일 독립전 수상이며 다호메에 망명해 있던 니콜라스 그루니쯔키가 림시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의 해산과 1961년 4월에 제정된 헌법의 폐기를 선포하였다.

그는 아프리카의 단결, 아프리카 말가슈 동맹과의 제휴를 선언하였다. 올림피오의 집권 후부터 악화되였던 가나와의 관계는 군사 정변 이후 개선되였다. 1월 21일 가나와 외교 관계가 설정되였고 2월 1일부터는 량국 국경이 개방되였다.

2월 그루니쯔키는 가나를 방문하고 량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할 데 대한 회담을 진행하였다.

【대통령】 니콜라스 그루니쯔키(1963년 5월 10일 취임) **부대통령** 안두완 메아트치

【정당, 사회 단체】 **토고 진보당**(집권당) 당수 니콜라스 그루니쯔키 **통일당** 경제의 자주적 발전과 간부의 아프리카인화를 주장하는 민족주의 정당이다. 당수 살해된 실바누스 올림피오 **북부 주민 및 추장 동맹** 당수 안두완 메아트치 **《쥬벤토》당** (주요 야당) 적극적인 《자립 정책》을 실시하며 《아프리카 합중국》을 창건할 것을 주장한다. 당수 아나니 산토스 **토고 인민 민주 동맹** 불란서 독점 계층과 련계를 가지고 있다. **토고 전국 로조 련맹**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주민의 90%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 가경지는 211만 헥타이나 경지 면적은 그것의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보면 1961년에 마니오크(남방 식물의 일종)는 66만 6,900톤, 쌀은 9,500톤, 기장 및 수수는 4만 9,900톤, 옥수수는 7만 800톤, 락화생은 1만 1,400톤, 코코아는 8,900톤 종려유는 1만톤이였다.

공업은 극히 락후하며 약간의 타면 공장과 착유(종려유 생산) 공장들이 있을 뿐이다.

최근 년간에 철광, 보키사이트, 크롬, 흑연 등이 발견되였으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 하고 있다. 주요 지하 자원은 린산염인데 거의 전부가 불란서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1962년 1~10월 기간에 린산염은 13만 여톤 생산되였다. 토고에서의 투자 총액 약 30억 아프리카 프랑 중 80%가 외국 자본에 속한다. 코코아, 커피는 수출 총액의 64%에 달한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이다. 1961년에 불란서는 토고 수출의 63%를 차지하였다.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락후하며 학령 아동들의 취학률은 30%에 불과하다. 인구의 95%는 문맹자이다.

다 호 메

(다호메 공화국)
Republic of Dahomey

【면적】 11만 5, 800 km²
【인구】 205만 명(1961년)
【수도】 포르토노보 (주민 5만 8 00명)

정 치 1960년 8월 1일 다호메는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4월 24일에는 파리에서 방위, 대외정책, 경제 및 기타 분야에서 불란서와 《협조》할 데 대한 예속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0년 10월 20일 유엔에 가입하였다.

1961년 7월 1일 다호메는 300년간 포도아의 강점 하에 있던 산쥬안 바프피스타를 회복하

였다.

다호메는 이전에 불란서 식민지였던 12 개 국가로 구성된 아프리카—말가슈 동맹 성원국이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임기는 5년이다.

【정부】 현 정부는 1960년 12월 30일 구성되였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유베르 마가(1960년 12월 11일 당선)

【정당, 사회 단체】 통일당 1960년 11월 창건 (현 집권당) 1961년 3월 25일 아프리카 민주 련맹 (상아 해안 참조) 의 지부로 되였다 불란서와 협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부르죠아 민족주의 당이다. 흑 아프리카 로동자 총련맹, 아프리카 기독교 근로자 련맹

경제, 사회 원주민의 9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 국이다. 국민 총생산에서 농촌 경리는 52%, 공업은 8%를 차지한다. 주로 종려를 재배하며 기타 농작물로는 락화생, 면화, 커피, 옥수수, 바나나 등이 있다. 1960년에 약 30만두의 대각 가축과 60만두의 양 및 염소가 있었으며 1961년에 어획고는 3만 8,000 톤이였다.

경제는 외국 자본, 주요하게는 불란서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공업은 락후하며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는 불과 2만 2천 명에 불과하다.

지하 자원은 개발되지 못 하였으며 전국에 4개의 종려유 가공 공장과 15개의 락화생 가공소, 5개의 타면 공장과 비누 공장, 수공업 기업소들이 있을 뿐이다. 주요 수출품은 종려유와 종려씨로서 이는 수출액의 약 70%를 차지 한다.

기타 락화생, 커피도 수출 한다. 주요 대상국은 불란서 (80%)이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의 착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물화 수준은 극히 낮다.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29%에 불과하다.

니 제 르

(니제르 공화국)

Republic of Niger

【면적】 118만 9,000 km²

【인구】 287만명 (1960년말)

【수도】 니아메 (주민 4만 명)

정 치 1908년부터 불란서의 식민지였던 니제르는 1960년 8월 3일 《불란서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1년 2월 11일 《불란서 련방》에서 탈퇴하고 동년 4월 24일 불란서와 예속적인 《협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니제르는 상아 해안, 상부 볼타, 다호메와 함께《협상 회의》의 참가국으로 되여 있으며 몬로비아 회의 참가국이다.

【국민 의회】 의원수는 60석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으로 된다. 대통령 하마니 디오리 (1960년 11월 9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

【정부】 1960년 12월 31일에 조직되였다. 정부의 전체 각료는 니제르 진보당원이다. 대통령이 수상, 외상, 국방상을 겸임

【정당】 니제르 진보당 아프리카 민주 련맹 (상아 해안 참조)의 지부이며 현 집권당이다. 지도자 하마니 디오리 사와바당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진출하고 있다. 1959년 10월에 비법화되였다. 지도자 지지보 바카리 니제르 전국 로동 련합회 (현 정부를 지지한다)

경제, 사회 주민의 94%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 (주로 불란서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불란서 독점체는 42만 7,000헥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가축의 수매 및 판매권도 장악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락화생과 면화이며 쌀, 옥수수, 수수 등도 생산된다. 1958년에 락화생 파종 면적은 32만 4,000 헥타였고 그 수확량은 16만 8,000톤이였다. 1960년에 대각 가축은 350만두, 면양과 염소는 680만두 있었다.

지하 자원은 금, 망간, 우라늄, 철, 석, 석유 등이다.

최근 년간에 미국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는바 1959년에 미국 석유 회사 《스탠다드 오일 캄파니 오브 뉴 저시》는 35만 5,000 평방 키로메터의 지역에서 석유 탐사를 진행할 수 있는 리권을 탈취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락화생 (수출 총액의 80%)과 가축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 나이제리아이다.

학령 아동의 3.5%만이 취학하고 있으며 주민의 98%는 문맹자이다.

챠 드

(챠드 공화국)

Republic of chad

【면적】 128만 4,000 km²

【인구】 272만 1,300명 (1960년)

【수도】 포르라미 (주민 9만 4,000명)

정 치 1950년 8월 11일 챠드는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날 챠드는 대외 정책, 국방, 경제, 재정, 문화, 기술 분야에서 불란서와 《협조》할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챠드의 자주권을 현저히 제한하고 있다.

챠드는 아프리카 말가슈 동맹의 성원국이다.

챠드는 1960년 9월 20일 유엔에 가입하였다. 1962년 1월 18일 챠드 정부는 반식민주의 정당들인 아프리카 민족당과 《아프리카 사회주의 운동》 그리고 기

타 정치 단체들을 해산시켰다. 1962년 4월 14일 챠드 국회는 헌법을 채택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다. 의원은 84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현 국민 의회는 1962년 1월 28일 대통령에 의하여 해산된 후 3월 4일 새로 선거되였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프란수아 톰발바예 (1962년 4월 22일 재선, 수상, 국방상을 겸임)

【정당,사회 단체】 챠드 진보당 챠드의 유일한 정당이며 현 집권당이다. 아프리카 민주 련맹 (상아해안 참조)의 지부이다. 위원장 프란수아 톰발바예

경제, 사회 챠드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목화, 쌀, 락화생 등이다. 목화 재배를 비롯한 경제의 기본적인 명맥은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에 장악되여 있다. 1961년에 목화 생산량은 3만 4,800톤이였다. 이 나라 경제에서 목축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1960년에 대각 가축은 400만두, 면양 및 염소는 450만두 있었다.

공업은 락후하며 24개의 타면 공장 이외에 2개의 현대적 가축 도살장, 2개의 제유 공장과 기타 가공 공장 등이 있을 뿐이며 1961년에 가공 공업 부문의 로동자는 1,700명에 불과하였다.

1961년에 목화 섬유는 3만 4,700톤, 목화씨 기름은 42만 리터, 락화생유는 33만 5천 리터, 육류는 7,700톤 생산되였다. 지하 자원은 거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대외 무역은 9개의 외국 상사(주로 불란서)들이 지배하고 있으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이다. 수출품은 면화 (수출의 약 80%), 육류, 가축, 피혁 등이다.

챠드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여 있는 실업자가 약 2만명 있다. 주민의 90%는 문맹자이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 련방)

Federation of Nigeria

【면적】 87만 9,000 km²

【인구】 3,647만 3,000명 (1962년)

【수도】 라고스 (주민 35만명)

정 치 1960년 10월 1일에 나이제리아는《영 련방》내에서 독립하였다. 1961년 6월 국민 투표에 의하여 영국의 후견령이던 북부 카메룬이 나이제리아에 편입되였다.

1962년 1월 21일에 나이제리아는 영국과 체결(1960년 5월)한 예속적인《방위 협정》을 폐기하였다. 1962년 9월 24일 련방 의회 합동 회의에서 팔레와 수상은 나이제리아 정부는 정치적 및 군사적 동맹을 위한 구라파 경제 단체들과는《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동맹을 맺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962년 12월 18일 유엔 제 17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나이제리아 대표는 미제가 조작한《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표결 시에 기권하였다.

【련방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 의회는 44명, 하원 의원은 312 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련방 총독】 느남디 아지키웨(1960년 11월 16일 취임)

【정부】 1961년 7월 17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아부바카르 타파와 팔레와

【정당, 사회 단체】 나이제리아 국민 회의 1944년에 성립된 나이제리아 및 카메룬 국민 회의가 현명으로 개칭되였다. 동부 나이제리아 집권당이다. 민족 부르죠아지와 부농의 리익을 대표한다. 북부 인민 대회당 북부 나이제리아 집권당이다. 봉건 령주의 리익을 대표한다. 영국, 미국과의 밀접한 련계를 주장하고 있다. 행동파 1951년에 정식 성립되였다. 련방 정부를 반대하는 당이며 서부 나이제리아의 집권당이다. 나이제리아 청년 대회당 1961년 가을에 라고스에서 제 1차 대회를 가졌다. 강령에는《과학적 사회주의에 토대하여 나이제리아의 사회주의 건설》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나이제리아 사회주의 로동당 1963년 4월 16일 창건되였다. 당은 첫 성명에서《과학적 사회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제국주의, 신식민주의 및 그의 나이제리아인 주구와의 투쟁을 진행한다》고 지적하였다. 지도자 툰지 오테그베예 독립 로동 대회 나이제리아 로조 대회가 국제 자유 로련에 가담하기로 결정한 데 반대하여 1962년 5월 5일 결성 로조 대회, 청년 대회, 전국 학생 동맹

경제, 사회 주민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종려유 (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 제 1 위), 코코아(자본주의 세계 제 3 위), 락화생, 담배, 면화 등이다. 1961년에 담배는 1만 3,600 톤, 면화는 3만 4,000 톤 (1960~1962) 생산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니오븀(자본주의 세계 제 1 위), 주석, 석유, 석탄, 탕그스텐, 금, 은, 연 등이 있다.

1962년에 주석은 8, 300 톤 (예비적 자료), 석유는 330만 톤 생산되였다.

광물 자원의 대부분은 영국 독점체에 장악되여 있다. 미국 독점 자본은 최근 년간 연, 아연 및 원유 채취업과 가공 공업에 대한 침투를 강화하고 있다.

공업은 매우 락후한바 식료 공장, 방직 공장등 약간의 가공 공장이 있을 뿐이다.

주요 수출품은 종려씨, 종려유, 코코아, 락화생 등이다. 특히 종려씨와 종려유의 수출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1 위, 코코아 (1961~1962년에 19만 8, 000 톤 수출), 락화생은 제 3 위를 차지한다.

나이제리아 로동자들의 임금은 영국 로동자들의 임금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 농민들의 1년간 수입은 영국 로동자들의 1주일간 임금의 절반도 안된다. 3세 이하의 어린이들의 사망률은 5%에 달한다. 전체 주민의 95%가 문맹자이다.

카 메 룬

(카메룬 련방 공화국)
The Federal Republic of Cameroun

【면적】 52만 270 km²
【인구】 409만 7, 000 명 (1960년)
【수도】 야운데 (주민 5만 7, 700명)

정 치 1884년부터 독일의 침략을 받아온 카메룬은 독일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16년 영, 불 군대에 강점되였다. 1946년부터는 유엔 후견령으로 되여 영국과 불란서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였다.

불령 카메룬은 1960년 1월 1일 독립하여 카메룬 공화국으로 성립되였다.

영령 카메룬에서는 유엔 제 14 차 결의에 의하여 1961년 2월 11~12일에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 각각 국민 투표가 실시되였다. 투표 결과 북부 지역은 1961년 6월 1일 나이제리아에 편입되였으며 남부 지역은 동년 10월 1일 카메룬 공화국에 편입되였다. 이리하여 카메룬은 련방 공화국으로 형성되였다.

카메룬은 1960년 11월 13일 불란서와 예속적인 《협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불란서는 카메룬의 외교 인원의 편제 작성과 훈련을 《협조》하며 외교 사절을 파견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카메룬을 대표하며 카메룬 군대의 훈련과 장비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카메룬은 계속 프랑 지역에 남아 있으며 불란서어를 공식 용어로 통용하고 있다.

카메룬은 아프리카—말가슈 동맹의 가장 적극적인 성원국들 중의 하나이다.

불란서 강점군의 철거와 분렬된 카메룬의 통일을 위하여 카메룬 인민들은 무장 투쟁 (1956년부터 전개)을 전개하고 있다.

1962년에 민족 해방군 (1959년에 조직)은 6만 여 명으로 장성되여 전국의 3분의 1에 달하는 지역에서 불란서 군대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민족 해방군은 1962년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만 하여도 33 차에 걸치는 공격을 진행하여 140 여명의 불란서 군대를 살해하였다.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카메룬에 8만 4, 000 명 이상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 나라 인민들의 무장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 미제는 그것을 지지하여 불란서 침략군의 무장의 50%를 공급해 주고 있다.

【국민 의회】 의원수는 100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현 의회는 1960년 4월 10일에 선거되였다.

【정부】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 동시에 련방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련방 성원국 중 같은 나라에서 선출될 수 없다.

대통령 아흐마두 아히죠(1960년 5월 당선)

【정당, 사회 단체】 **카메룬 인민 동맹** 1948년 4월 10일 창건되였고 1955년 7월 불란서 당국에 의하여 비법화되였다. 농민, 도시 로동자, 인테리들로 구성된 이 련맹은 이전 불령 카메룬에서 특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민족적 독립과 통일을 위한 투쟁 강령을 제기하고 반제 민족 해방 운동을 령도하고 있다. **카메룬 련맹**(집권당) 정부 정책을 지지하며 카메룬 인민 동맹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1958년에 조직되였다. 북부 지구의 봉건 추장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카메룬 통일당, 국민 행동당, 카메룬 민주당, 카메룬 사회당, 카메룬 로동자 총련합회, 카메룬 민주 녀성 련맹, 카메룬 민주 청년 련맹**

경제, 사회 카메룬 경제는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말미암아 발전하지 못 하였다.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한다.

주요 농산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락화생, 고무, 종려유, 옥수수, 수수, 쌀 등이다.

1962년에 코코아는 8만 5,000 톤, 커피는 4만 7,000 톤, 바나나는 16만 톤, 원면은 3만 7,000 톤, 고무는 8만 톤 생산되였다.

금, 주석, 석유, 연, 찌딴, 월프람, 모리브덴, 망간, 보키사이트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나 아직 미개발 상태에 있다.

카메룬 령토의 절반 이상은 열대 림이며 유용한 목재가 많이 생산된다. 카메룬에는 40 개의 제재 공장이 있으며 매년 25만 톤의 목재를 생산한다.

공업은 락후하다. 국민 소득에서 공업 생산의 비중은 약 15%에 불과하다. 현대적인 공장으로는 불란서 회사 소유인 년산 4만 8,000 톤 능력의 알루미늄 공장과 고무 공장이 각각 1 개 있으며 기타 몇개의 소규모 가공 공장이 있을 뿐이다.

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면화, 목재 등이다. 1962년에 코코아와 커피 수출은 총 수출액의 40%에 달하였으며 목재는 27만 톤 수출되였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 일본, 루마니야, 이태리 등이다.

카메룬 로동자들의 임금은 불란서 로동자 임금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도시에서는 주민 1만명에 의사 1명, 농촌에서는 10만명에 1 명의 의사가 차례지고 있다. 주민의 94% 이상이 문맹자이다.

중앙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면적】 61만 7, 000 km²

【인구】 178만 4,000 명 (1961년)

【수도】 방기 (주민 8만 2,000명)

정 치 1885년 이래 불란서의 침략을 받아 오다가 식민지로 전락된 우방기 샤리는 1960년 8월 13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 이름을 중앙 아프리카로 개칭하였다.

【정부】 대통령이 국가 원수인 동시에 정부 수반이다. 현 정부는 1961년 1월 5일에 개조되였다.

대통령 다비드 다코

【정당, 사회 단체】 **흑 아프리카 사회 해방 운동** (집권당) 아프리카 민주 련맹의 지부(상아 해안 참조), 중앙 아프리카가 《불란서 공동체》내에 남아 있을 것을 주장한다. 위원장 다비드 다코 **중앙 아프리카 민주 해방 운동** 불란서와의 협조 정책을 반대한다. 1960년 12 월에 비법화되였다. **적도 아프리카 총 로조 중앙 아프리카 지구 로조 련맹**

경제, 사회 면화와 커피의 재배를 위주로 하는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경제의 주요 명맥은 불란서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면화 파종 면적은 약 16만 헥터이며 27 만 명이 이에 종사한다. 1960년에 면화는 2만 6,000 톤, 커피는 7,100 톤 생산되였다. 이밖에 락화생, 벼도 생산된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금강석, 석, 연, 철, 망간 등이 있으나 금과 금강석을 제외하고는 거의 미개발 상태에 있다. 금은 1961년에 9만 5,000카라트 생산되였다.

가공 공업으로는 정미 공장, 정유 공장, 타면 공장 등이 약간 있을 뿐이다.

주요 수출품은 면화, 커피, 금, 금강석 등이다.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인바 불란서는 이 나라 수출의 65%, 수입의 60%를 차지한다.

인민 생활은 매우 락후하며 주민의 90% 이상이 문맹자이다.

수 단

(수단 공화국)
Republic of Sudan

【면적】 250만 5,823 km²

【인구】 1,210 만 9,000 명(1961년)

【수도】 하르툼 (주민 13만 명)

정 치 1899년 《협정》에 의하여 수단은 영국과 애급의 공동 관리 하에 있었으나 실제상으로는 영국 식민지로 되였다. 장기간에 걸친 반식민주의 투쟁의 결과 1955년 12월 수단은 독립을 선포하고 1956년 1월 1일에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58년 11월 17일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의회와 모든 정당 및 사회 단체들이 해산되고 최고 군사 위원회와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이날 최고 군사 위원회는 최고 주권 기관으로서 립법, 사법, 행정, 군대 통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는 중립 정책을 실시하며 아랍 국가들과는 우호 관계를 맺으며 외국 자본과 외국의 원조 및 차관을 환영한다는 대외 정책 방침을 발표하였다.

1962년 11월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이 수단을 방문하였다. 1962년 12월 유엔 제 17 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조선 문제》토의시 수단 대표는 미국 결의안에 기권하였다.

【최고 군사 위원회】 1958년 11월 10명의 장교들로 구성되였다.

위원장 이브라힘 아뿌드

【정부】 대통령, 수상 겸 국방상 이브라힘 아뿌드, 외상 아흐메드 헤이르

경제, 사회 총인구의 85%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업은 영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기형적으로 발전되였는바 주로 목화와 아라비아 고무 재배에 치중되고 있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한다. 경지 면적은 252만 헥터이다. 비옥한 토지는 국내 봉건 지주들과 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목화 재배 면적은 총경지 면적의 40%를 차지하며 그 생산량은 1961~1962년에 20만 9,000톤이였다.

목화 수출에서 얻는 수입은 매년 예산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아라비아 고무의 년 평균 생산량은 4만 톤으로서 세계 생산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러나 영국 자본이 목화와 아라비아 고무의 재배를 독점하고 있다.

목축업도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1960년 (예비적 자료)에 대각 가축은 690만 두, 락타는 200만 두 있었다.

공업 기업소로서는 약간의 타면 공장과 방사 및 방직 기업소들과 1 개의 세멘트 공장이 있을 뿐이다. 금, 동, 철, 우라늄, 석유 등 지하 자원이 있으나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수단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1962년 2월 영 파운드 지역으로부터 탈퇴하였으며 9월에는 경제 및 사회 발전 10개년 (1961~1971) 계획을 작성하고 260개 대상의 건설을 예견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면화(수출 총액의 70%), 면화씨, 아라비아 고무(년500만 영 파운드)등이며 대상국은 영국, 아랍 련합 공화국, 이태리, 서부 독일, 불란서 등이다. 1958~1960년에 수단은 미국으로부터 약 4,500만 딸라의 경제 《원조》를 받았다. 하르툼에 유일한 종합 대학이 있을 뿐이며 인구의 80%는 문맹자이다. 회교가 국교로 되고 있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왕국)
Empire of Ethiopia

【면적】 118만 4,320 km²(그중

에리트리아 12만 4,320 km^2)

【인구】 약 2,200만 명 (그중 에리트리아 인구 117만 여명, 1960년 추산)

【수도】 아디스 아베바 (주민 40만 명)

정 치 에티오피아는 립헌 군주 국가이다.

1950년 12월 2일부 유엔 결정에 의하여 1952년 9월 15일 에리트리아 (자치 정부가 있다)가 에티오피아에 편입되여 련방을 형성하였다. 에티오피아에는 미국의 군사 기지가 있으며 정부의 주요한 기관 (외교, 재정 포함)에는 미국인 고문과 《전문가》들이 있다. 이 나라 군대는 1950년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다. 에티오피아는 몬로비아 회의 참가국이다. 소말리와는 령토 분쟁 문제를 가지고 있다(소말리 참조).

【국왕】 하일레 셀라시에 1 세 (1930년 11월 2일 즉위)

【의회】 량원제이다.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105 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하원은 21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정부】 현 정부는 1961년 4월에 개조되였다.

수상 아클릴로 하브트 월드

【정당】 에티오피아에는 정당이 없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자연 경제가 지배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나라의 경제는 봉건적 생산 관계 및 씨족 제도의 잔재와 자본주의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특징된다. 경지 면적은 약 800만 헥터이나 대부분은 국가와 대 지주들 및 교회에 장악되여 있다. 방목지는 4,718만 헥터, 산림 면적은 3,038만 5,000 헥터에 달한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유지 작물, 커피, 바나나 등이다. 커피의 재배 면적은 10만 헥터이고 년 생산량은 약 4～6만 톤이다.

축산업은 이 나라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 가축은 소, 양, 염소 등이다.

백금, 황금, 은, 석면, 류황, 운모, 연, 린산염, 우라늄 등 지하 자원이 있으나 충분히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공업은 주로 수공업이다.

수출품은 커피(수출 총액의 60%), 피혁, 두류 등이며 주요 대상국은 미국, 이태리, 영국 등이다. 전후 미국 자본의 침투가 강화되고 있는바 미국 《국제 협조처》의 자료에 의하면 1952～1961년 간에 에티오피아는 9,917만 3,000 딸라의 미국 《원조》를 받았다.

인민 생활은 매우 락후하며 주민의 95%가 문맹자이다.

소 말 리

(소말리 공화국)

Republic of Somali

【면적】 63만 7,593 km^2

【인구】 약 210만 명 (1961년)

【수도】 모가디쇼 (주민 약 10만 명)

정 치 1960년 7월 1일 이태리 후견령 소말리 (1960년 7월 1일 독립)와 영령 소말리 (1960년 6월 26일 독립)가 합치여 소말리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60년 7월 22일 량 지역은 련합 정부를 구성하였다. 1961년 6월 20일에는 국민 투표가 실시되여 헌법이 채택되였으며 대통령이 선거되였다.

소말리 정부는 소말리에서의 식민주의 후과의 청산과 자체의 경제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고 있다.

1962년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나라 정부 무역 대표단이 소말리를 방문하고 량국 간에 무역 대표부를 교환할 데 관한 협정을 체결(12월17일) 하였다. 12월 18일 소말리 대표는 유엔 제17 차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미국이 조작한 《조선 문제에 대한 결의》의 표결에서 기권하였다.

소말리는 쏘련, 중국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경제 및 문화적 련계를 가지고 있다. 1962년 11월 수상 쉐르마르크는 《알 굼후리아》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소말리에서의 《해군 기지의 건설을 요구한 미국의 제의를 거부하였다》고 말하였다.

1962년 쉐르마르크는 미국, 이태리를 방문하였다.

소말리는 제국주의자들의 분할 통치의 결과 조성된 령토권 문제로 하여 에티오피아 및 케니아와 분쟁하고 있다. 소말리는 불령 소말리와 에티오피아의 오가데 지방을 자기 나라에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케니아 북부 지방에 거주하는 소말리인들에게 자결권을 부여할 것과 이 지방을 소말리에 넘길 것을 영국에 요구하고 있다.

1963년 2월 20일에 소말리와 케니아 국경에서 영국과 소말리 간의 무장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년 2월 24일 모가디쇼에서 5만 명 시민들의 대규모적인 반제 시위가 단행되였다. 시위자들은 미, 영, 불 대사관들과 에티오피아 대사관을 습격하였다. 소말리—케니아 국경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 1962년 6월 17일 소말리 정부는 영국 정부에 항의 각서를 보냈으며 1963년 3월 14일에는 영국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영국 대사관 성원들을 추방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국민 회의】 의원 수는 121 명이며 그중 남부 (이전 이태리 후견령)에서 88 명, 북부(이전 영령)에서 33명이 선출된다.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아덴 아브둘라 오스만 (이전 이태리령 소말리 민족 회의 의장, 1961년 7월 6일 취임)

【정부】 현 정부는 청년 련맹당과 민족 동맹 통일당의 련립 정부로서 1961년 7월에 구성되였다.

수상 아브디 라쉬드 알리 쉐르마르크(청년 련맹당), 부수상 아브디 하싼 보니 (민족 동맹 통일당), 외상 아브들 라히이싸 모하무드

【정당, 사회 단체】 청년 련맹당 (주요 집권당) 1943년에 이전 이태리 후견령 소말리에서 성립, 친서방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당수 아덴 아브둘라 오스만 **민족 동맹 통일당**(집권당의 하나) 1960년 9월 27일 이전 영령 소말리의 민족 동맹과 통일당이 통합되여 성립, 반둥 회의 정신을 지지하며 외국 군사 기지를 반대한다. 당수 오말 아스카르 헤르시 **소말리 련맹**(야당)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과의 련계 강화, 민족 경제의 창설을 주장한다. 기타 진보적인 야당으로서 **독립 립헌당, 민족 련맹, 민족 통일 전선**(당수 마리아노)등이 있다. **로동자 련합회** (남구), **로조 련합회** (북구)

경제, 사회 소말리는 주민의 85%가 유목 생활을 하는 락후한 농 목축국이다. 남부 지역에서는 주민의 40%가 유목 생활을 하며 30%는 반농 반유목 생활을 한다. 순농업 인구는 20%이다. 북부 지역에서는 90%가 유목 생활을 하며 5%만이 농사를 하고 있다. 인구 1인당 8 마리의 가축이 차례진다. 그러나 물의 부족과 독충의 피해로 하여 목축업 발전에 장애를 받고 있다.

가축으로는 락타(1958년에 남부에 130만 두, 북부에 300만 두 있었다) 소, 면양, 염소 등이 있다.

물이 부족(년 강수량은 300mm 정도)한 관계로 농업 발전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관개와 우물 파는 문제를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다.

가경지는 800만 헥터에 달하나 그 중 겨우 50만 헥터만이 농경지로 리용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사탕수수, 목화, 바나나, 락화생 등이다.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등은 이태리인의 대 재배원에서 생산된다.

지하 자원으로는 망간, 연, 동, 석, 록주석, 석유, 운보 등이 풍부하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1961년 2월에 첫 석유 산지가 발견되였다. 동년 5월 미국은 소말리에서 7년 간의 석유 탐사권을 탈취하였는데 석유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40년간 석유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를 장악하였다.

약간한 가공 공업 (제유, 제탕)이 있으나 영, 미, 이태리 자본가들에게 장악되여 있다.

주요 수출품은 바나나이며 기타 피혁, 면화 등도 수출된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이태리, 영국, 미국, 쏘련 등이다.

소말리에는 철도가 없다.

주민의 90% 이상이 문맹자이며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소말리는 고유한 민족어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자체의 문'자가 없으며 교육과 출판물에서는 영어, 이태리어,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다. 1962년에 정부는 전문 기관을 설치하고 자기 나라 문'자를 만들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령 소말리

【면적】 2만 3,000 km²

【인구】 6만 7,300명 (1959년)

【행정 중심지】 지부티 (주민 3만 1,300명)

불령 소말리는 원래 소말리의 일부분이였다. 1882년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은 지부티에서 거주권을 획득한 후 점차 전 령토를 불란서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58년 9월에 채택된 불란서 신 헌법에 의하여 소말리는 식민지로 되였다.

최근 년간 불령 소말리에서는 《불령 소말리 민족 운동》의 영향 하에 불란서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독립과 통일을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경제는 목축업이 위주이며 해안 지대에서는 어업과 제염업을 한다. 주요 생산물은 소금이다. 소금의 년 생산량은 약 6천~7천 톤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고, 운모, 류황, 석유 등이 있다.

공업 제품과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서반아령 기니아

【면적】 2만 8,051 km²

【인구】 19만 8,663 명(1958년)

【행정 중심지】 산타 이사벨(주민 약 2만명)

서반아령 기니아는 카메룬의 남쪽과 기니아만에 있는 여러 섬들로 구성되여 있다.

15세기 말에 포도아의 식민지로 되였다가 1778년에 서반아에 강점된 이래 그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다.

주민의 대다수는 원시적인 농업과 야생 종려 채집에 종사하고 있으며 구라파인들이 코코아, 커피, 바나나, 담배, 사탕수수 등을 재배한다.

서반아 독점체들이 수출의 90%, 수입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과실 및 채소, 목재 등이다.

산 토메도, 프린시페도

【면적】 964 km² (산 토메도 824 km², 프린시페도 140 km²)

【인구】 6만 3,337 명 (1958년)

【행정 중심지】 산 토메 (주민 3,200 명)

산 토메도와 프린시페도는 아프리카의 서해안 기니아만에 있는 작은 섬이다. 1485년에 이 섬에 침입하였던 포도아는 그후 아프리카인들에 의하여 일단 구축되였다가 19 세기에 다시 이 섬들을 강점하였다. 1951년에 포도아 정부는 이 섬들을 《해외주》로

선포하고 총독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정당으로는 민족적 독립을 주장하는 **산 토메도, 프린시페도 해방 위원회**가 있다.

포도아 식민지 회사들과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야자, 종려, 바나나 등이다.

주민들의 사망률은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한다. (그중 아동 사망률은 90%)

가 본

(가본 공화국)

The Gabon Republic

【면적】 26만 7,000 km²

【인구】 45만 명 (1960년)

【수도】 리브르빌 (주민 2만 5,000명)

정 치 장기간 불란서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0년에 완전히 그 식민지로 되였다. 가본은 1960년 8월 17일 《불란서 공동체》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날 가본은 국방, 대외 정책, 전략 원료, 경제, 재정, 해운, 민용 항공, 고등 교육 등 분야에서 가본의 자주권을 현저히 제한 당하는 예속적인 《협조 협정》을 불란서와 체결하였다.

《협정》에 의하여 가본의 대외 정책은 《불란서—가본 위원회》가 결정하게 되였으며 불란서는 군대 주둔권과 군사 기지 설치권을 계속 가지게 되였다. 또한 불란서는 화폐 발행권과 불란서인 회사의 면세권 등을 탈취하였다. 헌법은 공식 용어를 불란서어로 규정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63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1961년 2월 12일 《비상 사태》 하에서 선거가 진행되였다.

【대통령】 레온 므바 (1961년 2월 12일 선출, 임기는 5년) 대통령이 수상, 사법상을 겸임

【정당】 **가본 민주 련맹** (집권당) 지도자 레온 므바 **가본 민주 및 사회 련맹** 지도자 쟌 오밤 **가본 민주 통일당** 1958년 6월에 성립,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불란서 공동체》에서 탈퇴하여 독립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자 수자트

경제, 사회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 결과 가본의 경제는 락후하다. 경제의 주요 부문은 림업과 광업인바 림업은 불란서 자본에, 광업은 불란서, 벨기, 카나다, 화란, 미국, 서독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철, 망간, 우라늄, 금, 금강석 등이 있다. 프란스빌 부근에는 3억 톤에 달하는 질 좋은 망간광 매장지가 있다. 1962년에 석유는 82만 7,000 톤, 우라늄 정광은 1,100 톤, 금은 500 키로그람, 천연 가스는 800만 8,000 m³, 망간광은 23만톤(첫 4 개월분) 생산되였다.

불란서의 《적도 아프리카 석유 회사》는 1962년에 80만 톤 이상의 석유를 략탈하였다.

주요 농산물은 목서, 코코아,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락화생 그리고 목재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목재와 석유이다.

생활 형편은 매우 곤난하다. 수입의 절반을 세금으로 략탈 당하며 주민의 90%가 문맹자이다.

카 빈 다

【면적】 7,770 km²

【인구】 4만 6,277 명 (1940년)

카빈다는 콩고와 앙골라의 접경 지대인 대서양 연안에 있는 포도아 식민지이다. 최근 년간 카빈다에서는 자기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급격히 앙양되고 있다. 1960년 9월과 1961년 7월에는 포도아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대시위가 단행되였다.

1963년 초부터는 카빈다의 무장한 폭동군들이 포도아 군대와 견결한 무장 투쟁을 진행하였다.

주민의 대다수는 식민주의자들의 코코아 재배원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코코아, 종려유, 락화생 등이다.

콩 고

(콩고 공화국)

Republic of the Congo

【면적】 34만 2,000 km²

【인구】 79만 4,600 명 (1959년)

【수도】 브라자빌 (주민 10만 7,000 명)

정 치 1960년 8월 15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날 콩고는 국방, 경제, 고등 교육, 재정 및 대외 관계 문제에 대한 불란서의 통제를 유지하는 예속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 1961년 3월 2일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1960년 5월 국민 의회는 언제든지 단체들을 해산시킬 수 있는 반동적인 법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애국적인 단체들이 해산되고 진보적인 인사들이 체포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다. 의원은 61명이며 임기는 5년이다.

【대통령】 풀베르트 율루 (수상, 내상 및 국방상을 겸임)

【정당, 사회 단체】 **아프리카 리익 보호 민주 련맹** (집권당) 국민 의회에서 51석을 차지, 위원장 풀베르트 율루 **아프리카 사회주의 운동, 전 아프리카 근로자 련맹.**

경제, 사회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림업에 종사한다. 경제의 기본은 림업 (수출 총액에서 목재는 50%를 차지)이며 산림 면적은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제의 주요 명맥은 불란서 독점 자본에 장악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동, 연, 철, 망간, 석유 등이 있다.

1959년에 금은 114 키로그람, 연은 8,700톤, 석유는 5만톤 (1960년) 생산되였다.

농산물은 쌀, 옥수수, 락화생, 코코아, 담배, 목서, 사탕수수 등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문맹자이다.

콩 고

(콩고 공화국)
Republic of Congo

【면적】 234만 4,932 km²

【인구】 1,479명 (1962년)

【수도】 레오폴드빌 (38만 9,547명, 1960년)

정치 콩고는 1908년 11월 벨기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장구한 기간 콩고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에 의하여 콩고는 1960년 6월 30일 독립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콩고가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콩고의 정치, 경제, 군사적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1960년 7월 6일 레오폴드빌에 있는 콩고 병사들은 콩고군을 통솔하고 있는 벨기 장교들의 축출을 요구하는 애국적인 투쟁을 일으켰다. 이를 구실로 7월 8일 벨기 정부는 콩고에 대한 무장 간섭과 침략 행동을 감행하였다. 콩고를 오래전부터 노리고 있던 미제의 책동에 의하여 7월 14일 유엔 안보 리사회는 콩고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고 15일 《유엔군》을 콩고에 파견하여 벨기 식민주의자들과 합작하여 애국적 콩고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중요 도시와 항구들을 점령하였다. 9월 5일 미제와 벨기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대통령 카사부부는 파트리스 루뭄바를 수상 직에서 비법적으로 해임시켰으며 9월 14일 륙군 참모장인 모부투 도당이 군사 정변을 일으키고 국회를 폐쇄하였으며 국회 의원들과 정부 각료들, 애국적인 인사들을 체포 구금하였다. 동시에 사회주의 진영 국가 외교관들과 애급, 가나 등 외교 대표들을 축출하였다. 미제와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1961년 1월 18일 쏨베 도당을 사촉하여 파트리스 루뭄바 수상과 애국자들을 학살케 하는 한편 1961년 8월 2일 아둘라를 수상으로 하는 반동적인 중앙 정부를 조작하였다.

【주요 사건】 1962년에도 카탕가 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자들 호상간의 투쟁이 의연히 계속되였다. 벨기, 영국, 불란서 등 구 식민주의자들은 카탕가의 자칭 대통령으로 된 (1960년 7월 11일) 쏨베로 하여금 미국의 압력과 공격을 극력 배격케 함으로써 카탕가에서의 경제적 리권을 고수하려 하였다. 미국은 《유엔군》을 조종하여 《콩고 통일》이란 명목 밑에 카탕가를 아둘라 정부의 관할 하에 통합시키고 벨기, 영국, 불란서 등 구 식민주의자들을 카탕가로부터 구축함으로써 콩고를 완전히 강점하려 하였다.

미제의 지시 하에 《유엔군》은 콩고 주둔 이래 두차례 (1961년 9월, 12월)나 카탕가를 진공하였으나 쏨베 도당의 완강한 반항과 벨기, 영국, 불란서의 강력한 반대에 봉착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미국은 아둘라와 쏨베 도당 간에 회담을 진행하도록 막후에서 조종하였으나 이렇다할 결과도 얻지 못하였다.

미국은 1962년 8월 20일 유엔 사무 총장 우 탄트로 하여금 《콩고 통일 방안》을 발표케 하였다. 이 《방안》은 카탕가에서의 광산 세금을 아둘라 도당과 균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유엔의 통제 하에 통일적인 군대를 조직하고 통일적인 화폐를 제정하며 새로운 《련방 헌법》을 작성할 것과 이 조항을 리행하기 위하여 쏨베와 아둘라 간에 회담을 진행하며 쏨베가 이 제안들을 거부하거나 태공한다면 쏨베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하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무력까지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압력 밑에 벨기, 영국, 불란서도 이에 동의를 표명하였으나 내면적으로는 쏨베로 하여금 3월 18일, 5월 21 ~30일, 9월 19일에 있은 아둘라와의 회담에서 통일적인 군대, 세금 수입의 균등한 분배 등 조항을 견결히 반대케 하고 카탕가의 특수한 지위를 고집하게 하였다.

미국은 더욱 강경한 수단을 취하였는바 1962년 12월 14일 유엔 당국으로 하여금 17개국에 카탕가에 대하여 무역 제재 조치를 실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경제적 봉쇄를 가하게 하였다. 한편 12월 21~27일 루이스 트루맨을 두목으로 하는 《군사 사절단》을 콩고에 파견하여 콩고 실정을 조사케 하였으며 카탕가 공격을 위한 《유엔군》의 공중 수송 장비를 제공하였다.

이리하여 12월 27일 밤 《유엔군》은 카탕가의 엘리자베스빌을 공격하였고 1963년 1월 3일에는 광산 중심지 쟈도트빌을 점령하였다. 련'이어 카탕가의 교통 중심지, 군사적 요충지 등을 점령하고 콩고 전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콩고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문을 장악하고 있는 《카탕가 은행》을 아둘라에게 이관하였다. 콩고에는 50개의 미군 비행장이 설치되였으며 1962년 12월 26일 현재 콩고 주둔 유엔군 총병력 수는 1만 8,918명에 달하였다. 구 식민주의자들은 우선 쏨베로 하여금 미국에 《항복》케 하고 현 위기를 타개할 방도를 찾지 않으면 안되였다.

1월15일 쏨베는 부득히 《카탕가의 분리를 종식》시킨다는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카탕가의 통합은 실현되였으나 결코 미국을 일방으로 하고 벨기, 영국, 불란서를 타방으로 하는 신구 식민주의 간의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 아둘라 도당은 1962년 1월 15일 루뭄바 수상의 합법적 정부의 계승자인 기젱가를 연금하고 1월 16일에는 기젱가를 부수상 직에서 파면시킨다고 발표하였다. 1월 20일 기젱가는 유엔군의 비행기로 레오폴드빌에 압송된 후 콩고강 하구 무인도인 불라벰바 섬에 감금되였다. 5월 7일 아둘라는 기젱가가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준비하였다는 터무니 없는 죄명을 날조하여 국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였다.

1962년에 아둘라 도당의 반 인

민적인 친미 반동 정책과 콩고에서의 신 구 식민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콩고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였다.

1962년 7월 17일 카탕가에서 1만명의 아프리카인 부녀들이 《유엔군》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10월 10일 콩고 민족 운동당, 아프리카 단결당, 발루바카트당 아프리카 민족 통일당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콩고의 《현 위기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국의 간섭》과 콩고 인민의 참가 없이 《콩고의 장래 문제를 결정하려는 유엔의 간섭》을 규탄하였다.

11월 27일에는 콩고 국회 전물앞에서 기젱가를 비롯한 애국자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대규모적인 반미, 반 정부 시위가 단행되였다.

11월 28일 콩고 하원 회의에서는 99명의 의원 중 50명이 아둘라 정부의 사직을 요구하였으며 12월 21일에는 기젱가의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안과 미국 《군사 사절단》의 콩고 파견을 침략 행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 밖에도 임금 인상과 생활 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시위 파업 등이 광범히 전개되였는바 4월 3일에는 콩고 각지에서 9만 명 근로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국회】 1960년 5월 22일 처음으로 하원 137명, 상원 84명으로 된 국회가 구성되였다. 1960년 9월 14일 모부투 도당에 의하여 폐쇄되였다가 1961년 7월 27일 재개되였다. 하원 의장 조세프 릴리부르 (1963년 3월 16일 당선)

【대통령】 조세프 카사부부

【정부】 1961년 8월 2일 조각, 1963년 4월 15일 개조

수상 씨릴 아둘라

【정당, 사회 단체】 **루뭄바 민족당** 1961년 8월 루뭄바가 지도하던 콩고 민족 운동당(1958년 10월에 창건)과 안뚜완 기젱가가 지도하던 아프리카 단결당 (1959년 3월에 창건)이 통합하여 형성되였다. 이 당은 현 정부를 반대하며 콩고의 진정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창립 당시 림시 위원장 안뚜완 기젱가 **아바코당** 1948년 성립 당시는 콩고의 독립을 주장하였으나 독립후 이당 상층부는 콩고의 분렬을 조성하였으며 루뭄바의 합법적 정부를 반대하였다. 당수 카사부부(현 대통령) **코나카트당** 카탕가의 부족과 봉건 추장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벨기 독점체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독립후 콩고의 분렬 책동을 감행하였다. 당수 쏨베 **발루바 카트당** 발루바족의 리익을 옹호하며 쏨베 도당을 반대한다. **아프리카 민족 통일당, 전국 로조 련합회, 콩고 전국 청년 련맹**

경제, 사회

콩고는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하여 《중부아프리카 보석》, 《세계 원료 창고》로 널리 불리워지고 있다.

특히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자원이 풍부하다. 매장량에서 자본주의 세계 제 1위인 우라늄, 동, 석, 금강석을 비롯하여 망간, 월프람, 은, 탄탈, 라듐, 코발트 연, 아연, 게르마늄, 카드욤, 철 등이 있다. 콩고 지하 자원의 80%는 카탕가주에 집중되여 있다.

카탕가주의 광물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본다면 동은 8%, 석은 14%, 금강석은 60%, 코발트는 75%, 라듐은 100%이다. 콩고는 산림 (전 령토의 절반) 자원이 풍부하다. 콩고 경제의 주되는 부문은 채광업이다.

경제 명맥은 외국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콩고에서 가장 큰 경제적 리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은 벨기인바 1957년에 콩고의 외국 독점 자본중 벨기는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콩고의 경제적 명맥을 틀어쥐고 있는 벨기, 미국, 영국의 공동 투자로 설치된 《유니옹 미니에르》 회사는 동, 코발트, 월프람, 아연, 우라늄, 게르마늄, 라듐의 채취업을 독점하고 있으며 콩고 광물 생산의 75%, 철도의 53%, 전력의 87%를 장악하고 있다. 1959년에 이 회사는 47억 프랑의 리윤을 짜냈다.

1955년 6월 미국과 벨기 간에 체결된 10년을 기한으로 하는 《원자능 협정》으로 미국은 우라늄광을 완전히 독점하였으며 석, 타듐, 월프람 채취의 50%, 코발트 생산의 거의 전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 자본은 경공업, 건축 공업, 원료 가공 공업 등에도 침투되였다. 1960년에 미국의 투자액은 6억 딸라로서 벨기 다음 가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1959년에 동은 28만 2,094톤, 금강석은 1,480만 카라트, 망간광은 38만 6,184톤, 아연은 6만 9,972톤, 금은 10.8톤 생산되였으며 1961년에 코발트는 8,324톤 주석은 8,100톤 생산되였다.

가공 공업으로는 정유 공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소규모의 식료품, 비누, 방직 공장 등이 있을 뿐이다. 국민 소득에서 가공 공업은 7.5% (1956년 현재)를 차지한다.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1억 3,650만 헥타에 달하며 그중 가장 비옥한 5,200만 헥타는 7개의 외국 회사들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종려씨, 야자유, 종려유(생산량은 세계 제2위), 면화, 담배, 고무이며 이밖에 차, 삼, 옥수수, 벼 등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비중이 큰 공예 작물은 식민주의자들의 재배원들에서만 생산된다. 1959년에 종려유는 24만 5,200톤, 면화는 6만톤 (예비적 자료), 쌀은 16만5,000톤, 옥수수는 33만 3,000톤, 사탕은 3만 1,000톤 (1961~1962년) 생산되였다.

콩고 수출품의 대부분은 광물 및 농업 원료이다. 주요 수입품은 광산 기계, 설비, 소비품, 미국 잉여 농산물 등이다.

1961년에 수출은 50% 감소되였으며 매월 평균 1,200만 딸라의 적자를 내였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벨기, 미

국, 영국, 불란서, 서독 등이다.

아둘라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콩고에서는 경제 생활에서의 혼란, 대중적 실업과 빈궁이 증대되고 있다.

1963년 초 현재 전체 로력자 수의 약 50%가 실업 상태에 있었으며 1962년에 물가는 1961년에 비하여 15%나 등귀하였다. 아프리카인들은 하루 한끼로 연명해 가고 있으며 가중한 로동과 영양 부족으로 각종 질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유아 사망률은 50%에 달한다.

우 간 다

Uganda

【면적】 24만 3,410 km² (그중 3만 5,431 km²는 호수와 소택지)

【인구】 684만 5,000명 (1961년)

【수도】 캄팔라 (4만 3,000명)

정 치 영국과 독일 간의 쟁탈 대상으로 되여 온 우간다는 1896년(부간다는 1894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독립을 위한 우간다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영국은 1961년 10월 우간다 제헌 회의에서 우간다에서의 내부 자치를 거쳐 독립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2년 6월 런던에서 진행된 우간다 문제에 대한 제 2차 회의에서는 우간다의 4개 주가 각각 련방 성원으로 되며 광범한 자결권을 가진다는 것과 독립 후에도 우간다는 영 련방의 성원으로 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1962년 3월 1일 우간다에서 내부 자치 정부가 수립되였으며 4월 25일 국회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 결과 인민 대회당이 37석을 차지함으로써 집권당으로 되였다.

1962년 10월 9일 우간다는 독립을 선포하였다. 우간다는 행정적으로 4개의 주 즉 부간다주(부간다 왕국), 북부주, 동부주, 서부주(서부주에는 부니요로, 안콜레, 토로 왕국이 있다)로 구분되여 있다. 4개 왕국중 가장 큰 부간다에는 왕, 의회 및 정부가 보존되여 있다.

1962년 10월 9일 수상 밀톤 오보테는 우간다 정부가 중립을 견지하며 아프리카에서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주의 정부와 《중앙 아프리카 련방》을 인정하지 않으며 구라파 공동 시장》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1월 우간다 정부는 《인종주의적이며 식민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와의 관계 유지를 원치 않는다 》는 성명을 발표하고 포도아와 일체 관계를 단절하고 포도아 령사관을 페쇄하였다.

12월 우간다 정부는 《아프리카 인들은 백인들의 방조 없이는 자기 나라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남로데시아에서 떠벌린 미국 상원 의원 알렌 엘렌더가 우간다에 기여드는 것을 거부하였다.

1963년 2월 21~3월 3일 간에 박 세창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정부 친선 대표단이 우간다를 방문하고 3월 2일 외교 관계 설정 및 외교 대표부 교환에 관한 공동 콤뮤니케에 조인하였다.

【국회】 의원수는 91명이다. 그중 82명을 주민들이 선거하며 9명을 국회 의원들이 선거한다. 부간다는 총 의석 중 24석을 차지한다.

【정 부】 수상 밀톤 오보테

【정당, 사회 단체】 **인민 대회당** 1959년에 창건된 집권당이다. 북부 및 동부 주들에 지반을 가지고 있다. 이 당은 경제적 독립과 경제 발전, 국가 기관의 아프리카인화 그리고 적극적인 쁠럭 불가담 정책을주장하며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위원장 밀톤 오보테 **민주당** 1956년에 창건되였다. 부간다와 서부 주의 일부 주민 계층, 주로 카톨릭 교도들 속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당수 베네딕토 키와누카 **민족당** 1961년 부간다에서 성립되였다. 전국적인 강령은 없으며 부간다의 국가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간다 로조 대회** 위원장 루안데 (우간다 인민 대회당 부위원장 겸임).

경제, 사회 우간다는 주민의 9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업 생산액은 국민 소득에서 75%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토지는 왕과 지방 관리, 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면화와 커피이며 기타 차, 사탕, 담배, 옥수수, 수수, 기장, 고구마 등도 생산된다. 면화, 커피, 차, 사탕등은 주로 영국인 농장에서 재배된다. 면화와 커피 재배 면적은 경지 면적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매년 커피는 약 8만톤, 면화는 약 6만톤 생산된다. 1961~1962년에 사탕은 10만 3,000톤, 담배는 2,100톤 (1962년) 생산되였다.

축산업은 우간다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우간다에는 약 350만 두의 대각 가축과 372만 4,000두의 염소 및 양이 있었다.

1961년에 담수어의 어획고는 6만 1,200 여 톤에 달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린광, 철광, 동, 연, 주석, 코발트, 월프람광, 탕그스텐, 망간, 금등이 풍부하다. 또한 수력 자원도 풍부하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가장 큰 린산지이며 린광은 년산 40만톤에 달한다.

가공 공업으로는 제탕, 제분, 방직(1개소), 제재 공업등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외국인들 특히 영국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면화이며 이는 총 수출액의 약 90%를 차지한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일본, 서독, 미국, 카나다등이다. 영국은 1961년 수출 총액의 40%, 수입 총액의 20%를 차

지하였다.

독립후 우간다 정부는 외국 독점체들의 경제적 지배를 제거하고 자주적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축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농촌에서는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거나 공동으로 생산물을 처리하는 등의 협동 조합들이 조직되였다. 1962년 이 조합들에는 30만명이 망라되였다.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의 임금은 백인 로동자 임금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주민의 3분의 1이 각종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다.

루안다 공화국과 부룬디 왕국

Republic of Rwanda
Kingdom of Burundi

【면적】 루안다 2만 6,338 km²
　　　부룬디 2만 7,838 km²
【인구】 루안다 260만 명
　　　부룬디 210만 명
【수도】 루안다 키갈리
　　　부룬디 우숨부라

정 치 루안다 우룬디는 1896년에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고 1922년부터는 벨기의 《위임 통치령》으로 되였다. 1946년 12월 유엔 결정에 의하여 1962년 2.4 분기 말까지 벨기의 《후견령》으로 있었다. 벨기 식민주의자들은 무력 탄압, 종족 간의 충돌, 기만적인 개혁 등으로 이 나라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독립을 요구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2년 6월 26일 유엔 후견 리사회는 루안다 우룬디를 두개의 국가로 독립시킬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7월 1일 루안다 우룬디는 루안다 공화국과 부룬디 왕국으로 각각 독립을 선포하였다.

【루안다 공화국 대통령】 그레고이레 카이반다
【부룬디 국왕】 므와미 므왐부짜
부룬디 수상 느겐단둠뻬

【정당】루안다에서 활동하는 주요 정당으로는 **루안다 민족 동맹**(1957년 9월에 창건, 봉건 종족의 상류 계급의 리익을 대표하며 독립전에 루안다 우룬디에서의 벨기군의 철거와 독립을 요구하였다) **민주 련맹** (벨기의 후견을 반대하며 독립을 주장하였다), **파르메후투당** (독립전 벨기 후견의 존속을 주장한 반동적인 정당이다. 당수 그레고이레 카이반다)이 있다. 부룬디에는 부룬디의 독립적인 군주 립헌 정부의 수립을 주장하는 **부룬디 민족 민주당**, **부룬디 청년 로동 민주당** 등이 있다.

경제, 사회 루안다와 부룬디는 락후한 농 목축 국가이다.

경제 명맥은 벨기 독점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로는 커피, 면화 담배 (1962년에 1,400톤 생산), 종려 등이다. 귀족과 대지주, 벨기 독점체들이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고 커피와 면화를 재배하고 있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하고 있다.

목축업이 비교적 발전되였으나 벨기 식민주의자들이 커피와 면화 재배를 확대하기 위하여 목장을 없앤 결과 가축 두수는 최근 년간에 상당히 감소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금, 주석, 월프람등이 있으나 광물 채취는 벨기의 《루안다—우룬디 광업 회사》에 장악되여 있다. 공업은 락후하며 제 2차 대전 후에 소규모의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 공장이 건설되였다.

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바 대외 무역은 콩고를 통하여 실현된다.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낮다. 농노제가 청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 로동이 성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주민이 매일 한끼를 먹고 지낸다. 인민들의 빈궁을 리용하여 벨기 및 미국 독점체들은 원주민들을 강제 모집하여 콩고 카탕가주의 광산 로동자로 팔아 넘겼다.

케 니 아

Kenya

【면적】 58만 2, 600 km²
【인구】 867만 6, 000명 (1962년)
【행정 중심지】 나이로비 (주민 28만 8, 500명, 1959년)

정 치 케니아는 1895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가 1920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영 식민주의자들은 케니아와 그 부근 일대에서의 식민지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케니아에 대규모적인 군사 기지와 《동부 아프리카 사령부》를 설치하고 케니아에서 대량적인 학살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1930년에는 《사회 안전 보장법》, 《구루법》등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케니아 인민들의 민족해방 운동을 탄압하였다.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케니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은 1952년 《마우 마우》 (반식민주의 애국 단체)가 령도한 케니아 농민들의 대규모적인 무장 투쟁이 있은 후부터 대중적으로 전개되였다.

1930년 3월에는 케니아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이 성립되였으며 그 령도 하에 케니아의 즉시 독립을 요구하는 투쟁이 더욱 치렬히 전개되였다. 1962년에는 독립을 요구하는 군중 시위와 파업 등이 광범히 단행되였는바 4월부터 10월까지만도 150 회 이상의 파업 투쟁이 있었다. 6월 19일 백인들이 경영하는 7 만여개의 커피 농장 로동자들의 파업, 이를 지지하여 단행한 나이로비 자동차 회사 로동자들의 동정 파업, 차 재배원의 8천명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등은 영 식민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농민들은 빼앗긴 땅의 반환을 요구하여 투쟁하였으며 각 지방들에서는 《토지 자유군》, 《자유 전사 조직》등 농민들의 반제 무장 조직

들이 허다히 조직되였다.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1962년 7월 영국—케니아 회담에서 영국은 총선거 실시 후에 케니아가 내부 자치를 실시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영국은 회담에서 케니아의 독립 날자를 토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1963년 4월 18일 런던에서 케니아의 새 헌법이 발표되였다. 헌법에 의하면 케니아에서 내부 자치 실시 후에도 총독은 인종법에 의해서 이미 부여되여 있는 경찰 부대와 《비상 권한》의 행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포함하여 국방, 외무 및 국내 치안에 대한 권한을 계속 장악하게 된다.

특히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케니아 인민들 간에 분쟁과 불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케니아를 7개 구역으로 분할하였다.

1963년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의회 및 지방 자치 기관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 결과 아프리카 민족 동맹이 승리를 쟁취하였으며 죠모 케니아타가 초대 수상으로 지명되였다. 이리하여 1963년 6월부터 내부 자치가 실시되였다.

【의회】 량원제이며 하원은 117석, 상원은 41석이다. 1963년 5월 18~26일 간에 실시된 의회 선거 결과 하원에서 민족 동맹은 64석, 민주 동맹은 32석, 아프리카 인민당이 8석을, 상원에서는 민족 동맹이 18석, 민주 동맹이 16석, 아프리카 인민당이 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정부】 자치 정부는 1963년 5월 30일 14명으로 구성되였다.

수상 죠모 케니아타

【정당】 **케니아 아프리카 민족 동맹** 1960년 3월 성립, 케니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운동을 령도하고 있다. 위원장 죠모 케니아타 **케니아 아프리카 민주 동맹** 1960년 6월 성립, 우익적인 민족주의 정당이다. 위원장 로날드 노가라 **아프리카 인민당** 우익적인 민족주의 정당이다. 기타 구라파 이주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련합당, 신 케니아당, 케니아 련맹** 등이 있다.

경제, 사회 케니아는 주민의 96%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비옥한 땅은 총인구의 1% 밖에 안되는 구라파 이주민들에게 빼앗기고 있으며 600만의 아프리카인들은 전국 면적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척박한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백인들은 매인당 평균 240헥타의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인들에게는 평균 3헥타의 척박한 토지가 차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차, 사이잘삼 (이상 세 작물은 동부 아프리카 3개국에서 제 1위), 면화, 아마, 담배, 제충국(세계 총 생산량의 70%) 이다.

주요 농산물의 94%는 백인들의 농장과 재배원에서 생산된다.

1958년에 제충국은 3,800톤, 커피는 2만 3,400톤, 사이잘삼은 4만 6,000톤 생산되였다. 해안 지대에서는 어업도 하는바 1960년에 어획고는 1만 2,600톤에 달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천연 소다, 소금, 동, 석면, 흑연, 석고 등이 있으나 모두 영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이 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커피, 차, 사이잘삼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서독, 미국이다

인민 생활은 극도로 령락되고 있다. 동일한 로동을 하면서도 아프리카인은 구라파인들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지어는 50 분의 1 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는다. 1962년에 케니아에는 약 75만명의 실업자가 있었다.

1962년 11월 영 식민지 당국이 축소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폐결핵 환자는 10만명, 문둥병 환자는 3만 5천명에 달한다. 케니아인들의 평균 수명은 35 내지 40세이다. 유아 사망률은 50% 이상에 달한다. 의사 1명이 평균 9,700명을 담당하고 있다.

탄가니카

(탄가니카 공화국)

Tanganyika

【면적】 93만 9,400 km²

【인구】 956만명 (1962년)

【수도】 다르에스 살람(주민 12만 8,732명)

정 치 탄가니카는 1961년 12월 9일에 영《련방》내에서 독립하였으며 1962년 12월 9일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국민 의회】 1원제이며 의원수는 81명이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아프리카 련맹이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 쥴리우스 캄바라제 니에레레(1962년 12월 9일 취임)

【정 부】 1962년 12월 9일 14명의 각료로 구성되였다.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내각 수반을 겸임한다.

【정당. 사회 단체】 **아프리카 민족 련맹**(집권당) 1954년 7월에 성립되였다. 모든 애국 력량을 망라하고 있는 통일 전선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당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행정 기구의 아프리카인화를 위한 투쟁을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당원수 100만명 (1961년)위원장 니에레레 **범아프리카 민족 독립 운동** 1961년 1월에 성립되였다. 반제.반식민주의 투쟁에서 전체 아프리카인들이 단합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로동 총련맹, 전국 녀성 동맹**

【주요 사건】 1962년 11월 1일 전국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였고 12월 9일에는 이전 수상 니에레레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되였으며 신 정부가 구성되였다. 같은 날 탄가니카는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2월 10일 국회 제 1 차 회의에서 한 정강 연설에서 니에레레는 인종 차별 및 식민주의의 악습을 종식시키며 전통적인 민족 문화를 보호 발전시키며 서방 문화를 배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

였다. 또한 그는 민주주의적 정권 기관들의 창설을 예견하며 어떠한 폭력에도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탄가니카는 1962년에 영국의 식민지 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2월 17일 국회는 1,300명에 달하는 영국 행정 일'군들을 아프리카인들로 교체하며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아프리카인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에 정부는 9개 지역에서 영국식민주의 경찰을 청산하기 위하여 경찰 간부들을 아프리카인들로 교체하였다.

9월 6일 수상 카와와는 모든 공식 행사와 연설들에서 동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언어인 스와힐리어를 사용하기로 정부가 결정하였다고 말하였다.

대외적으로 탄가니카 정부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바 정부는 2월에 탄가니카에서 벨기가 관리하는 시설들을 1963년 말 이전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각서를 벨기 정부에 보냈으며 6월에는 인종주의적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를 반대하여 이 나라로부터의 상품 반입을 금지하였다.

9월 24일 정부는 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남 로데시아 애국자들에게 정치적 피난처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12월 4일에는 아프리카인을 모욕한 미 상원 의원의 입국을 거절하였다.

경제, 사회 탄가니카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농업이 국민 소득의 60%를 차지한다.

경제 명맥은 외국 독점체 특히 영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인 사이잘삼 생산은 자본주의 세계 생산량의 61%를 차지하나 이는 모두 외국 자본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그중에서도 영국 자본은 75%를 차지한다. 1960년에 사이잘삼은 20만 8,200톤, 면화는 3만톤 (1961 ~1962), 커피는 2만 6,600톤, 사탕 원료는 3만 5,000톤 (1961년), 유지 작물은 4만 2,100톤 생산되였다.

금강석, 금, 은, 연, 주석, 석탄, 월프람, 마그네사이트, 운모, 석고, 동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광업은 비교적 발전되였으나 그것은 외국 자본에 독점 당하고 있다.

1960년에 금강석은 53만 6,700 카라트(1카라트는 0.205 그람), 금은 10만 7,000온스(1온스는 2만 8,350그람), 은은 61만 4,300 온스 생산되였다.

가공 공업은 매우 락후하며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삼, 제분, 통조림, 피혁 등 공장이 있을 뿐이다.

주요 수출품은 사이잘삼, 면화, 커피, 피혁 등 농산물과 금강석, 금, 연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 등이며 우간다 및 케니아와도 밀접한 통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농업 특히 축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경제 발전 제 1차 3개년 계획 (1962~1964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지출되는 자금 2,400만 파운드의 대부분은 외국 자본으로 해결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인민 생활은 락후하며 각종 질병이 만연되고 있다. 주민의 대다수는 문맹자이며 학령 아동의 취학률은 40%이다.

잔지바르

【면적】 2,657 km²

【인구】 30만 7,000명 (1960년)

【행정 중심지】 잔지바르(5만 7,923명)

정 치 잔지바르는 아프리카의 동쪽 인도양 상에 있는 잔지바르와 펨바의 두개 섬으로 구성되여 있다. 1897년에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된 이래 잔지바르 인민들은 민족적 독립을 요구하여 장기간 투쟁하여 왔다. 특히 최근 년간 투쟁이 고조되자 1960년 영국 정부는 약간의 《헌법 개혁》을 실시하고 1961년 6월에 선거를 실시하여 잔지바르에 《책임 정부》를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선거 결과 민족당과 아프리카 사라지 련맹당이 각각 10석, 펨바 인민당이 3석을 차지하였으나 영 식민주의자들을 배경으로 하는 펨바 인민당 당수를 수상으로 하는 펨바 인민당과 민족당의 련립 정부가 수립되였다.

1962년 3월부터 4월 초에 런던에서 진행된 잔지바르 《제헌 회의》에서 영국은 1962년에 독립할데 대한 잔지바르 각 정당 대표들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였다. 한편 영국 식민지 당국은 잔지바르 민족당 총비서를 비롯한 잔지바르 애국자들을 비법적으로 체포(5월 5일)하였으며 진보적인 출판물들을 탄압하고 있다.

【립법 회의】 의원 31명중 23명은 선거하며 8명은 영국 식민지 당국이 임명한다.

【정부】 1961년 6월 선거후 성립되였다. 수상 무함메드 샴레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62년 7월 창건되였다. **민족당** 1955년 성립되였다. 잔지바르의 즉시 독립과 영국《련방》에서의 탈퇴를 요구하는 반제 민족주의 정당이다. 총비서 아브둘 라흐만 모함메드 **아프리카 사라지 련맹당** 1956년 성립되였다. 외국 투자를 환영하며 1960년부터 잔지바르의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1959년에 민족당과 통일 전선을 형성하였다. **펨바 인민당** 1960년에 아프리카 사라지 련맹당에서 분리하여 성립되였다. 영 《련방》 내에서의 독립을 주장한다. 당수 무함메드 샴레 **공산 청년 동맹** 1962년 7월 창건, **펨바 로동 련맹**

경제, 사회 영국 자본이 경제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로 정자수(향료)와 야자수를 재배한다. 경지 면적은 6만 4,600 헥타이다. 정자수 재배 면적은 3만 2,000 헥타이다. 정자 향료의 생산량은 8천~2만 톤으로서 세계 생산량의 약 82%를 차지한다. 야자수 재배 면적은 3만

2,292헥타이며 코프라는 년 평균 1만 2,000톤～1만 5,000톤 생산된다.

주요 수출품은 향료(총 수출액의 80%)와 코프라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며 학령 아동의 불과 28%가 취학하고 있다.

앙 골 라

【면적】 124만 6,700 km²
【인구】 455만명 (1959년)
【행정 중심지】 루안다 (주민 20만명, 1960년)

정 치 앙골라는 1885년 포도아의 식민지로 전락되였다. 장구한 기간 앙골라 인민들은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특히 1924년, 1925년에 단행된 무장 봉기, 1939년의 반식민주의 폭동, 1948～1949년의 봉기 등은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을 극도로 불안케 하였다.

포도아 정부는 식민지 통치를 은폐하기 위하여 1951년에 앙골라를 포도아의 《해외주》로 선포하고 파쑈적인 총독 통치를 실시하고 있다. 앙골라 인민들은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 당하였으며 모든 민주주의적인 정당들은 비법화되였다. 1899년에 조직된 강제 로동법이 현재까지 계속 실시되고 있다. 또한 1957년초에 포도아 정부는 앙골라에 파쑈적인 《국가 정보 및 치안 경찰》을 설치해 놓고 앙골라 인민에 대한 학살과 잔인 무도한 만행을 감행하고 있다.

1961년 2월부터 1962년 말까지에만도 8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앙골라 인민을 학살하였다. 또한 소위 《국가 안전법》에 의하여 수많은 앙골라 인민들을 재판도 없이 무제한 억류하고 있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은 앙골라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자기의 《원정 부대》를 앙골라에 계속 증파하는 한편 1962～1963년에는 자국 군사비를 무장 투쟁이 일어나기 전해인 1960년에 비하여 4배로 증가하였다.

앙골라에 있는 포도아 군대는 1961년 2월 폭동 당시의 1만명으로부터 6만여명으로 증가되였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침략적 나토 성원국들의 적극적인 지원 밑에 비행기와 포를 비롯하여 최신식 무기들을 대량적으로 앙골라에 투입하였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의 파쑈적인 탄압과 학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년간에 앙골라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급속히 앙양되였다.

1961년 2월 4일 루안다 (앙골라 행정 중심지)에서 무장 투쟁이 일어난 후 인민 무장대들은 북부 산림 지역에 유격 근거지를 두고 계속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1963년 2월까지 2년 간에 인민 무장대는 2천 여명의 적을 살상하였으며 3만 평방 마일의 지역을 해방하였다. 해방 지역에는 민사 및 군사 행정부와 농촌 위원회, 로조, 청년 단체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 있다.

1962년 7월 앙골라 인민 해방 운동 위원장 마리오 데 안드라데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살라자르 파쑈 정권과는 앙골라에 독립을 부여할 데 관한 어떠한 회담도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앙골라 인민에게 남아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포도아 식민주의자들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무장 투쟁이다》라고 강조하였다.

12월에 진행된 인민 해방 운동 제 1차 대회는 앙골라 민족 해방 운동을 일반적인 대중 봉기로부터 무장 투쟁에로 이행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앙골라 민족 해방군》을 창설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앙골라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의 한사람인 에두아르도 (알제리아 주재 앙골라 상임 대표)는 1963년 5월 24일 앙골라 민족 해방군에는 3만명 이상의 전투원들과 훈련 받고 있는 8천명의 보조군인이 있다고 말하였다.

앙골라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앙골라의 2대 정당이며 서로 대립되고 있는 인민 해방 운동과 인민 련맹이 지도하고 있다. 인민 해방 운동은 포도아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통일 전선을 형성할 것을 인민 련맹에 수차 제기하였다. 그러나 인민 련맹은 민족적 력량을 분렬하는 데로 나아갔다. 1962년 4월 인민 련맹 지도자들은 민주당 지도자들과 공동으로 앙골라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며 콩고의 레오폴드빌에 소위 림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인민 해방 운동과 앙골라의 기타 많은 정치 조직들은 인민 련맹의 홀덴 로베르토가 조직한 림시 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인민 해방 운동은 림시 정부를 승인하지 말 것을 아프리카의 모든 독립 국가들에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들은 림시 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정당, 사회 단체】 **앙골라 인민 해방 운동** 1956년 12월에 창립된 진보적 정당으로서 앙골라의 민족 해방 운동을 령도하고 있다. 이 당은 가나, 기니아, 말리, 모로코, 알제리아 등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의 정부 및 정당들과 련계를 가지고 있다. 당 본부는 콩고의 레오폴드빌에 있다. 위원장 마리오 데 안드라데 **인민 련맹** 1958년에 창립되였다. 이 당은 명확한 강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당 창건 초기에는 다만 평화적 해방관을 제기했으나 앙골라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됨에 따라 점차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미국의 사회 및 반 정부 단체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다. 위원장 홀덴 로베르토 **전국 로동자 련합회**

경제, 사회 앙골라의 경제 명맥은 포도아, 미국, 영국, 벨기, 서독 등 식민주의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농업과 광업은 이 나라 경제의 주되는 부문이다. 개간지는 전국

로지 면적의 2% 밖에 안된다. 150만 헥터의 좋은 땅은 포도아인 이주자들의 수중에 있다.

주요 농산물은 식민주의자들의 재배원에서 생산되는 커피, 사이잘삼, 사탕 수수와 아프리카 인들이 생산하는 면화, 락화생, 옥수수, 두류 등이다. 1959년에 커피는 9만 500톤, 락화생은 2만 1,000톤, 옥수수는 35만톤 생산되였다.

목축업은 비교적 발달하였다. 1958년에 소는 121만 7,245 두, 면양은 11만 8,782 두 있었으며 1961년 어획고는 24만 1,500 톤이였다.

앙골라에는 금강석 (생산량 세계 제 4 위), 금, 석유(1962년에 50 만톤 생산), 동, 망간, 갈탄, 석고, 운모, 연, 아연, 철, 우라늄, 월프람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영국과 포도아의 합작 회사인 《앙골라 금광석 회사》는 앙골라 총면적의 90%의 지역에서 금강석 채굴권을 독점하고 앙골라인 1만 7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가공 공업으로는 소규모의 어류, 기타 농산물 가공 공장들이 있을 뿐 매우 락후하다.

주요 수출품은 금강석, 커피, 삼, 어류, 옥수수, 사탕, 종려, 락화생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포도아, 미국, 영국, 서독 등이다.

앙골라에서는 주민 2만 6천 명당 1 명의 의사가 차례지고 있다. 최근 60년 간에 인구는 600만 명으로부터 455만명으로 감소되였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중 99%는 문맹자이다.

북로데시아

【면적】 75만 2,000 km²
【인구】 246만 명 (1960년 말)
【수도】 루사카 (주민 8만 3,750 명)

정 치 1891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된 북로데시아는 1953년 10월 23일 《중앙 아프리카 련방》 (남로데시아 참조)에 강압적으로 편입되였다.

련방에서의 탈퇴와 독립을 요구하는 북로데시아 인민들의 투쟁은 1961년에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였던 무장 투쟁에 뒤이어 계속 치렬히 전개되였다. 이에 당황한 영국은 1963년 3월 29일 북로데시아가 《련방》에서 탈퇴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로데시아의 실권은 총독에게 장악되여 있다.

1962년 10월 30일 영 식민주의자들이 조작한 《신 헌법》에 기초하여 립법 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그러나 영 식민주의자들은 자기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려고 모든 백인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반면에 250만명의 아프리카인들에 대해서는 9만 5,000 명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신 헌법》은 또한 45 명으로 구성되는 립법 회의 선거에서 인구상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인들과 구라파인들이 각각15 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나머지15 명의 《공동》 립후보자 명단에 들어 있는 아프리카인 립후보자 들은 아프리카인 선거자들의 투표수에는 관계 없이 구라파인 선거자들로부터 10%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하는 경우에만 당선되게 규정하였다.

【립법 의회】 1962년 10월 30일에 실시된 선거에 의하여 립법 의회 총 의석 45 석 중 34명(1명은 사망으로 공석)으로 구성되였다. 《공동》립후보자 명단에 등록된 10석이 필요한 표수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거에서 통일 련방당은 15석, 통일 민족 독립당은 14석,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당은 5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62년 10월에 실시된 선거 결과 12월 14일 통일 민족 독립당과 민족 대회당이 련합하여 북로데시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인이 참가한 내각을 구성하였다.

【정당, 사회 단체】 북로데시아 통일 민족 독립당 1959년 11월에 성립, 련방의 해체를 요구하며 북로데시아의 정치, 경제적 독립을 주장한다. 위원장 케니스 카운다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당** 1947년에 성립되였다. 헌법 개혁과 비폭력적 방법으로 점차 독립할 것을 주장한다. 위원장 할리 느쿰불리 **자유당; 통일 민족 자유당, 아프리카 민족 독립당, 로조 련맹**

경제, 사회 북로데시아는 채광업이 발전된 나라이다. 국민 소득의 80%는 채광업에서 얻고 있다. 광물 자원으로는 동, 철 (매장량 60억 톤), 연, 아연, 코발트, 망간, 우라늄 등이 있다. 동의 매장량은(약 8억 톤)자본주의 세계 총 매장량의 5분의 1, 수출량은 제 1 위를 차지하며 북로데시아 수출 총액의 약 93%와 국가 총수입의 85%를 보장한다.

1962년 동 생산량은 56만 5,000 톤 (자본주의 세계 제 2 위)에 달하였다. 그러나 동의 채굴권은 8 개의 영, 미 동광 회사에 독점되여 있다. 기타 채광업도 영, 미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영국은 북로데시아의 동의 60%, 코발트의 70%, 우라늄의 전부를 략탈하고 있다. 미국은 제 2차 대전 후 영국의 세력을 배제하면서 점차 자기의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 자본인 《로데시아 영, 미 회사》와 미국 자본인《로데시아 선광 트레스트》등 독점체들은 매년 2억 파운드의 리윤을 짜내고 있다.

농업은 락후하다. 전국 경지 면적중 가장 비옥한 400만 헥터는 인구의 3% 밖에 안되는 백인들의 수중에 장악되였으며 1,400 만 헥터의 척박한 토지는 총 인구의 97%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이 경작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담배, 옥수수, 락화생등이다. 수익성 높은 담배는 백인들만 재배할 수 있게 규정되였다.

영국 식민지 당국의 가혹한 략탈과 착취, 인종 차별 정책으로 인하여 아프리카인들의 생활은 여지 없이 령락되였다. 같은 로동에 종사하면서도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의 임금은 백인 로동자 임금의 20분의 1 밖에 안되며 사고로 인

한 사망률도 2배나 더 많다.

남로데시아

【면적】 38만 9,300 km²
【인구】 311만명 (1960년 말)
【수도】 솔스베리 (주민 약 26만 6,000명)

정 치 남로데시아는 19세기 70년대부터 영국, 독일의 침략을 받았으며 1895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 세계 대전후 아프리카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이 급속도로 앙양되자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 23일 북로데시아와 니아살랜드를 남로데시아에 병합하여 《로데시아 및 니아살랜드 련방》 (략칭 〈중앙 아프리카 련방〉)을 조작하였다.

영 식민주의자들의 《련방》 조작 목적은 정치적으로 백인들이 적은 북로데시아와 니아살랜드를 남로데시아의 통제 하에 넣어 백인들의 통치를 유지하는 동시에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경제적으로는 니아살랜드의 렴가의 로동력 (아프리카인)과 북로데시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남로데시아의 비교적 발달된 공업과 련결시킴으로써 식민지 수탈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련방》 구성 초기부터 3개국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에 부닥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1953년 1월에 반동적인 《련방 헌법》을 제정하고 《련방》 선포 이래 《사회 질서 유지법》, 《전복 활동 진압법》, 《아프리카인 류동 제한법》등 60여종의 인종주의 법령을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인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도 박탈하였다.

1962년에도 식민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기에 계속 날뛰였다. 1962년 5월 영 식민지 당국은 솔스베리 지역에서 아프리카인들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군중 대회와 집회를 3개월간 금지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동맹을 비법화하고 이를 반대 항의하는 군중들을 군대까지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10월에는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동맹 위원장 느코모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을 체포하였다. 그러나 로데시아 및 니아살랜드 인민들의 《련방》에서의 탈퇴와 독립을 요구하는 단호한 투쟁에 의하여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니아살랜드와 북로데시아가 《련방》에서 탈퇴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립법 의회】 현 립법 의회는 영국 정부가 1961년 6월 13일에 발표한 《신 헌법》에 근거하여 1962년 12월 15일에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조작되였다. 총 65석 중 《로데시아 전선》이 35석, 통일 련방당이 29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현 정부는 1962년 12월 17일 구성되였다. 수상 윈스톤 필드

【정당, 사회 단체】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동맹** 아프리카인 국민대회 (1957년 성립), 민족 민주당 (1959년 12월 성립)이 비법화된 1961년 12월 17일에 결성, 《련방》의 해체와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령도하고 있다. 1962년 9월 20일 비법화되였다. 위원장 조쥬아 느코모 **《로데시아 전선》** 극단적 식민주의자들과 인종주의자들의 정당이다. 당수 윈스톤 필드 **통일 련방당** 백인 자본가들과 도착 자본가 및 대농장주들로 구성되여 있으며 인종 차별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1962년 4월 19일 해체, 당수 로이 웰렌스키 **범아프리카 사회 동맹**

경제, 사회 남로데시아는 《중앙 아프리카 련방》에서 공업이 비교적 발전한 나라이다.

지하 자원은 매우 풍부하다. 서부 번키 탄전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탄전의 하나이며 석탄 매장량은 40억 톤에 달한다. 그밖에도 철광(매장량 2억 5,000만 톤), 크롬(매장량 5,000만 톤), 동, 리듐, 석, 니켈, 안티몬, 우라늄 등이 있다. 채광 공업은 영국을 비롯한 외국 독점체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영국 회사들은 철, 니켈, 안티몬의 100%, 크롬의 50%, 석의 85%를 채굴하고 있으며 석탄, 석면의 채취업도 독점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미국 독점체들은 점차 석유, 크롬, 리듐의 채취 부문에 침투하였는바 1958년 미국의 투자액은 약 8,300만 딸라였다.

1962년 남로데시아의 외국 투자 총액은 3억~3억 7,500만 파운드에 달한다.

농업도 비교적 발전하였다. 1930년 식민지 당국이 발표한 《토지 분배법》에 의하여 총 인구의 7% 밖에 안되는 백인들은 전국 경지 면적의 53%, 식민지 당국이 12%를 탈취하고 있는데 이는 인구의 93%에 달하는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보다 18배나 더 많은 것이다. 식민주의자들이 경영하는 약 6,000개의 대 재배원들과 농장들에서는 이 나라의 주요 농산물인 담배 (농업 총 생산액의 60~80%), 옥수수, 차, 면화, 락화생 등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 담배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미국, 남아프리카 및 서독이다.

광산 기업소들에서의 아프리카 로동자들의 임금은 백인 로동자들의 20분의 1밖에 안된다. 아프리카인들의 매월 임금은 6파운드 (네 식구의 매월 최저 생활비는 15파운드)이다. 문맹자는 전국 인구의 80%에 달한다.

니아살랜드

【면적】 12만 4,000 km²
【인구】 286만 명 (1960년 말)
【행정 중심지】 좀바 (1만 7,690명)

정 치 19세기 말부터 영국, 독일, 포도아의 침입을

받아 온 니아살랜드는 1891년 5월 15일 정식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고 1953년 10월 《중앙 아프리카 련방》에 강압 편입되였다. (남로데시아 참조) 니아살랜드 인민들은 《련방》의 구성을 견결히 반대하였으며 그후 《련방》에서의 탈퇴와 독립을 요구하여 계속 투쟁을 전개하였다.

니아살랜드 인민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0년 7월 25일부터 8월 4일에 걸쳐 런던에서 진행된 《제헌 회의》에서 영 식민주의자들은 하는 수 없이 립법 회의 선거를 실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1961년 8월 혹심한 탄압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였으나 말라위 대회당은 28석 중 23석을 차지하였다.

《련방》에서의 탈퇴와 독립을 요구하는 니아살랜드 인민들의 계속되는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2년 11월 런던에서 진행된 《제헌 회의》에서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첫 단계로 헌법을 개정하고 《행정 회의》를 대신할 수상제 내각을 조직하며 다음 단계는 새 헌법을 제정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영국은 《보호령 특수 문제》를 운운하면서 구체적인 독립 날자는 결정하지 않고 약 1년간 《과도기》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1962년 12월 19일 영국은 부득이 니아살랜드가 《중앙 아프리카 련방》에서 탈퇴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3년 2월 1일 니아살랜드에는 내부 자치제가 실시되였으며 자치 정부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영국 총독은 정치, 경제적 특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

【립법 회의】 1961년 8월에 선거되였다. 총 의석 28석 중 말라위 대회당이 23석, 통일 련방당이 5석을 차지하였다.

【정부】 1963년 2월 1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헤스팅그스 반다

【정당, 사회단체】 **말라위 대회당** 1959년 9월 30일에 성립되였다. 중앙 아프리카 《련방》으로부터의 탈퇴와 독립을 주장한다. 위원장 헤스팅그스 반다 **국민 대회 해방당** 1958년 성립, 헌법 개정을 통하여 자결권을 얻을 것을 주장한다. **공화당** 1960년 7월 6일에 성립. 비 폭력적 방법을 통하여 《련방》에서 탈퇴할 것을 주장한다. **기독교 민주당, 니아살랜드 로조 대회**

경제, 사회 니아살랜드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총인구의 0.3% 밖에 안되는 백인들이 전국 경지 면적의 85% 이상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영국 남아프리카 회사》는 100만 헥타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차, 면화, 담배, 락화생, 쌀, 커피 등이다. 담배 (년산 10만톤)와 차 생산은 아프리카에서 제 1위이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면, 보키사이트, 동, 석탄, 금, 철, 망간, 운모, 흑연, 니켈, 백금 등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나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출 작물은 차, 담배, 커피, 면화 등이다.

영국 식민주의자들의 인종 차별 정책과 가혹한 식민지 통치로 인민 생활은 곤란한 형편에 놓여 있다. 아프리카인 로동자들의 임금은 월 평균 1파운드 (4명의 식구를 가진 세대의 최저 생활비는 매월 15 파운드이다)에 불과하다. 니아살랜드의 아프리카인 아동들은 12세만 되면 로동을 강요 당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학령 아동의 3분의 2가 취학하지 못 하고 있다.

모잠비크

【면적】 79만 3,030 km²

【인구】 630만 명 (1959년)

【행정 중심지】 로렌스 마르케스 (주민 약 10만 5,000 명)

정 치 모잠비크는 1700년 이래 포도아의 《보호국》으로 되여 있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은 모잠비크인들을 포도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1917년부터 《동화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로착 로동자 조례》에 의하여 18세 이상의 남자 로동자, 12세부터 18세의 소년 로동자와 녀성 로동자들에게 《통행증》을 가지고 다닐 것을 강요하고 있다. 모잠비크에서 원주민들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 당하고 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엄격한 검열제가 실시되고 있다.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모잠비크에 5만명에 달하는 군대를 파견하고 있다. 식민지 당국은 이미 설치된 10개의 군사 기지 외에 5개의 새로운 군사 기지를 미제를 괴수로하는 나토 군사 블럭의 자금으로 건설하고 있다.

식민지 당국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최근 년간 민족 해방 운동이 앙양되고 있는바 1962년 6월에는 모잠비크 민족 민주 동맹과 모잠비크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이 《독립을 시급히 쟁취하기 위하여 나라의 민족적 력량을 단합할 것》을 목적으로 《모잠비크 해방 전선》 (최고 리사회 위원장 에두아르도 몬들라네)을 결성하였다.

【정당】 **모잠비크 민족 민주 동맹** 1960년 초에 망명자들이 탄가니카에서 창건하였다. 위원장 아델리네 그왐베, 당원수 23만 명, 1962년 4월 그왐베는 《독립을 위한 투사들은 무기를 들고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모잠비크 아프리카인 민족 동맹**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 정당, 위원장 엠 몰레.

경제, 사회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약간의 어업도 있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면화, 야자, 옥수수, 차, 담배 등이다. 아프리카인들의 90% 이상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으며 비옥한 토지는 포도아 식민주의자들과 영국 독점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면화, 사탕 수수,

야자 생산을 독점한 포도아의 12개 회사가 소유한 토지 면적은 320만 헥터 이상에 달한다. 1963년에 사탕 (원료)은 17만톤, 담배는 2,300톤 생산되였으며 어획고는 3,300톤 (1961년)에 달하였다.

석탄, 철, 보키사이트, 금, 은, 석, 동, 운모, 석유등 자원이 풍부하나 석탄, 보키사이트, 석, 운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개발 상태에 있다.

최근 년간 미국 독점체들이 급속히 침투하여 광물의 탐사 및 채취권을 탈취하고 있다. 미국의 《모잠비크 하이만 석유 회사》의 《조차지》만도 12만 평방 키로메터에 달한다.

매년 10만 명의 모잠비크 원주민들이 징발되여 남로데시아의 광산과 탄광들에서 강제 로동을 당하고 있다. 주민의 99%는 문맹자이며 아프리카인들 중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는 약 90 명에 불과하다. 유아 사망률은 약 2분 1에 달한다.

서남 아프리카

【면적】 82만 3,876 km²

【인구】 57만 2,000명 (1960년)

【행정 중심지】 윈드호크 (1만 3,000명, 1961년)

정 치 서남 아프리카는 1915년 7월에 남아 련방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강점당하고 1920년 12월 17일 《국제 련맹》의 결정에 의하여 남아 련방 (현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임 통치령》으로 되였다.

1949년 남아 련방은 《사무 수정 법안》을 채택하여 서남 아프리카를 실제상 자기 수중에 장악하였다.

1960년 유엔 15차 총회는 서남 아프리카를 유엔의 후견 관리 하에 넘길 것을 남아프리카에 요구하였으나 남아프리카는 계속 서남 아프리카를 자기들의 다섯번째 주로 간주하고 혹심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립법 회의】 18명의 백인들로 구성되여 있다.

【정당】 서남 아프리카 민족 동맹 서남 아프리카의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민족주의 정당이며 남아프리카 통일 전선에 참가하고 있다. 위원장 엠 제이 코종귀

오밤보 인민당 오밤보족을 대변하고 있으며 민족 동맹과 련계를 가지고 있다. 1960년부터 남아프리카 통일 전선에 참가하고 있다. 기타 백인들의 정당으로서 **국민당, 통일 국민당**이 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광업과 목축업이며 해안 지대에서는 어업 (1961년 어획고는 35만 3천 톤)도 한다.

경제의 명맥은 미, 영, 남아프리카 백인들의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금강석 (세계 생산량의 3%) 및 바나듐 (세계 생산량의 약 10%) 연 (세계 생산량의 3~4%) 등이 풍부하며 동, 망간, 우라늄도 채굴된다.

유용 광물의 매상고는 매년 약 3,000만 파운드에 달한다. 금강석 채굴 회사의 주권의 80% 이상은 영국 독점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제 2 차 세계 대전 후에는 미국 독점체들이 침입하여 영국, 서독 자본을 구축하고 동, 아연 등의 채굴권을 장악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인종 차별 정책에 의하여 서남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공직에서 일할 수도 없으며 공민권도 선거권도 없고 척박한 《보류지》로 추방 당하고 있다. 1962년에 50여 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은 2,000만 헥터도 못 되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7만 2,000 명의 구라파인들은 약 4,000 만 헥터를 차지하고 있었다.

원주민 로동자들의 임금은 최저 생활비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도 못 된다.

베추아날랜드

【면적】 71만 2,000 km²

【인구】 33만7,000 명 (1959년)

【행정 중심지】 마페킹 (주민 6,870 명)

베추아날랜드는 19세기 초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았다. 1885년 영국은 베추아날랜드의 남부 지역을 식민지로, 북부 지역을 《보호국》으로 선포하였다.

영국은 1960년 12월 30일 베추아날랜드에서 식민지 통치 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 헌법》을 선포하고 립법 회의 (31~35명의 의원중 21명은 선거하고 남어지는 영국 당국이 임명) 와 행정 회의 구성을 규정하였다.

베추아날랜드에는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적 정당인 **베추아날랜드 인민당** (총비서 모짜마이 므포)이 있다. 1962년 12월 28일부터 1963년 1월 3일간에 진행된 이 당 제 2 차 년차 회의는 베추아날랜드의 모든 정당 대표들이 참가하는 제헌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경제 형편은 락후하다. 주요 경제 부문은 목축업이다. 목축업은 국민 소득의 75%를 차지하며 개인 소 생산자 총수의 95%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쌀, 옥수수, 수수, 콩 등이다.

주요 광물은 석면이며 기타 약간의 금, 은도 생산된다. 주요 수출품은 축산품과 석면이다.

스위질랜드

【면적】 1만 7,366 km²

【인구】 25만 9,000 명 (1960년)

【행정 중심지】 므바바네 (주민 약 2,000 명)

스위질랜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령토 내에 있는 영국 식민

적이다. 19세기 초부터 영국의 침략을 받아온 스워질랜드는 1906년에 영국의 《보호국》으로 정식 선포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은 혹독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1962년 2월 므바바네에서 영국의 세 《보호령》(스워질랜드, 바수톨랜드, 베추아날랜드)의 정당들이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목적으로 범아프리카 단결 대회 (민족주의 당들의 통일 전선)를 형성하였다. 여기에는 바수톨랜드 아프리카인 대회당, 스워질랜드 진보당, 베추아날랜드 인민당들이 망라되였다.

경제의 주요 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고 경제 명맥은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독점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총경지 면적의 60%에 달하는 비옥한 토지는 전 인구의 1.5%에 불과한 식민주의자들에게 략탈 당하고 있으며 총인구의 98%에 달하는 아프리카인 주민들은 척박한 《보류지》(총 경제 면적의 3분의 1)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수수, 락화생, 감자, 목화, 담배 등이다. 1958년에 소는 49만1,679두, 염소는 16만 5,354 두, 양은 3만 2,127두, 돼지는 1만 2,245두 있었다.

스워질랜드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4대 석면 산지의 하나이다. (1958년에 3만 726톤 생산)

기타 자원으로는 중정석, 금, 로듐 등이 있다.

주요 수출품은 석면이다. 인민들의 생활은 매우 곤란하다. 주민의 약 6분의 1은 식민주의자들의 농장에서 농업 로동을 하고 있다. 광산 로동자들의 임금은 백인들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주민의 80～85% 이상이 문맹자이다.

바수톨랜드

【면적】 3만 344 km²

【인구】 68만 5,000명 (1960년)

【행정 중심지】 마세루 (주민 약 5,500 명)

바수톨랜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령토 내에 위치하고 있는 영국의 《보호령》 이다.

영국 정부는 바수톨랜드 인민들의 앙양되는 민족 해방 운동의 압력에 못 이겨 1959년 9월 바수톨랜드에 《자치권》을 주었으며 1960년 2월에 《국민 회의》 선거(의원 80 명 중 40 명은 영국 당국이 임명하고 40 명만 간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를 실시하고 《새헌법》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국방, 외교, 국내 치안 등 모든 실권은 여전히 영국 고등 판무관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정당으로는 공산당 (1962년 5월 5일 창립) 과 바수톨랜드의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 인민 민족 대회당, 민족당이 있다.

장기간의 식민지 통치로 경제는 극히 락후한 상태에 있다. 자연 부원은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업이란 전혀 없고 농사는 아직 원시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체 농호의 7%는 토지를 전혀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압도적 다수 주민들이 2～4 에이커의 작은 땅뙈기에 매달리고 있다.

옥수수, 수수, 밀 등이 생산되나 식량은 주로 수입하고 있다.

주요 축산품인 양모의 년 생산은 약 700 만～800만 폰드에 달한다.

혹심한 빈궁과 토지 부족으로 이 나라 인민들은 해마다 일 자리를 찾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나 가는바 1959년에 만도 그 수는 8만 3천명에 달하였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면적】 122만 3,000 km²

【인구】 1,700만명 (1963년6월말)

【수도】 프레토리아 (주민 35만 1,000명), 의회 소재지 케이프타운 (주민 75만 2,000명)

정 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구라파 이주민들의 후손인 백인들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류례 없는 혹독한 인종 격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의회】 백인만으로 상, 하원을 구성하고 있다. 상원 의원 54명, 하원 의원 160명이다.

【대통령】 찰스 스워드 (1961년 5월 31일 취임)

【정부】 1960년 6월에 조각, 수상 헨드리크 버워드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되였고 1950년 6월 비법화되였다. 국민당 (현 집권당) 화란계 백인들의 농장주와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으며 주요 세력은 북부에 있다.

이 당은 인종 격리, 인종 차별 정책을 주장하는 극 반동적인 정당이다. 지도자 헨드리크 버워드 통일당 영국계 백인 자본가들의 리익을 대표하고 있다. 국민당의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인종 격리는 주장하고 있다. 《남 아프리카 민주주의자들의 대회》 인종 평등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구라파인들의 조직, 1962년 9월 비법화되였다. 남아프리카 통일 전선 1960년 3월 샤프빌 사건 후 정부의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여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남 아프리카 최대의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 당), 남아프리카 인도인 대회, 범 아프리카주의자 대회(아프리카 민족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나 진보적인 백인들과의 협조를 주장) 서남 아프리카 민족 련맹, 서남아프리카 오밤보 인민당 등이 련합하여 형성, 남아프리카 로조 대회 (유일한 아프리카인 로조)

【주요 사건】 1962년 5월 버워드 정부는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군중적 운동을 탄압하기 위하여 《파괴 활동 금지법》을 공포하였다.

4월 9일에는 1960년에 비법화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대 진보

적 정치 단체들인 아프리카인 민족 대회와 범아프리카주의자 대회의 활동을 1년간 더 연장한다고 공포하였으며 6월 27일에는 민족 대회당의 총 비서를 비롯한 수 많은 애국자들을 체포하였다.

9월에는 인종 차별 정책을 반대하는 백인 이민들의 진보적 조직인 《민주주의자들의 대회》를 비법화하였다. 반동 정부는 원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2년에 군사비를 1961년보다 67%나 더 증가하였다.

1962년에 인민들 속에서는 정부의 《파괴 활동 금지법》을 신랄히 반대 항의하는 수 많은 시위와 군중 대회들이 진행되였다.

5월 28일 요한네스부르그에서 비트바터스랜드 종합 대학의 시위가 있었으며 30일에는 이곳에서 8 천여 명의 시위가 있었다. 이밖에도 두르반 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군중 대회들이 진행되였으며 《파괴 활동 금지법》을 규탄하는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6월 8일에는 아프리카인들과 백인 인종주의자들 간의 충돌 사건이 있었다.

인종주의를 반대하였다는 《죄명》으로 체포된 아프리카인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은 도처에서 일어났다.

프레토리아에 있는 중앙 형무소에서의 폭동(9월 30일), 퀸스타운에서의 폭동(12월 13일)을 비롯하여 케이프타운에서의 폭탄 폭발 사건(10월 15일), 고압 전주 파괴 사건, 전화선 절단 사건, 철도 선로 파괴 사건 등이 있었다.

또한 아프리카인들의 지하 무장 단체들인 《움코트 위 시쉐》, 《우콘트 베 시즈베》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항하라》는 구호 하에 도처에서 맹렬한 반정부 투쟁들을 전개하였다.

경제, 사회 금, 금강석, 우라늄 및 석면 매장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석탄 (매장량 2,050 억톤) 등도 풍부하다.

채광업은 아프리카에서 제 1위이나 남아프리카의 백인들과 외국 자본이 장악하고 있다.

1961년에 금은 712.3톤, 금광석은 375만 카라트, 석탄은 3,960만톤, 석면은 16만 2,000톤, 망간광(예비적 자료)은 140만톤, 크롬광은 89만 8,000톤 생산되였다.

농업은 국민 소득의 약 15%를 차지하며 전국 인구의 65%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전국의 87%의 토지는 백인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인들은 《인종 집단 구역법》에 의하여 척박한 땅에 강제 이주당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밀, 면화, 담배 등이다.

1961년에 밀은 88만 5,000톤(구라파인 농장에 한함) 생산되였으며 어획고는 65만 7,300 톤이였다.

수출품은 금, 금강석, 동, 석면 등 광물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미국, 서독이다.

버워드 정부는 《통행증법》, 《종족 격리법》, 《공산주의 진압법》 등 70여 종의 악법을 조작하여 매년 50 만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체포하고 있다. 또한 도시들의 《백인화》에 관한 법령으로써 유색인들은 천막 수용소들에 강제 수용된다. 매년 1만 2천 여 명이 폐결핵으로 죽으며 1만 여명의 아이들이 영양 부족으로 죽는다.

1세부터 4세까지의 아프리카인 유아 사망률은 백인 유아 사망률의 25 배나 된다.

쎈트 헬레나도

【면적】 122 km²

【인구】 4,760 명 (1958년)

【행정 중심지】 제임스타운 (주민 약 1,700 명)

쎈트 헬레나도는 아프리카의 서쪽 남대서양 상에 있는 작은 섬이다. 1502년 포도아인이 발견하였다. 1663년 화란이 이 섬을 점령하였으며 1651년 이후에는 영국이 강점하였다. 영국은 1673년에 이 섬을 식민지로 정식 선포하고 총독 통치 제도를 수립하였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경지는 3,500 헥타이며 주요 농산물은 대마, 아마, 채소, 과실 등이다. 가축으로는 소와 양이 있다.

말 가 슈

(말가슈 공화국)

Malagasy Republic

【면적】 59만 2,000 km

【인구】 529 만 8,000 명 (1960년)

【수도】 타나나리브 (주민 24만 8,000명)

정 치 1896년에 불란서의 식민지로 전락된 말가슈(이전 마다가스카르 섬)는 1960년 6월 26일 《불란서 공동체》 내에서 독립하였다. 이날 말가슈는 국방, 외교, 재정, 경제, 교육 등 분야에서 불란서와 《협조》할 데 대한 예속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 협정에 의하여 불란서는 말가슈의 군사 기지들을 자유로 사용하고 있으며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말가슈는 《아프리카—말가슈》 동맹 성원국이다.

이 동맹 (1961년 9월 11일 말가슈 수도 타나나리베에서 창설)은 불란서와의 협조를 주장하는 이전 불령 서부 및 적도 아프리카의 12 개국이 외교 정책과 협조 관계의 모든 령역에서 행동 통일을 가하기 위하여 조직되였다.

1962년 3월 28일 이 동맹 참가국 수뇌자 회의에서는 유엔 내에 아세아 아프리카 뿔럭과 대립되는 《아프리카—말가슈 동맹 상설 서기국》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9월 10일 회의에서는 카사블랑카 회의 성원국들과의 접근 문제, 구라파 《공동 시장》 가입 문제 등을 토의하였다.

【의회】국민 의회와 참의원의 량원제이다. 국민의회 의원은 107명, 참의원 의원은 54명이다.

【대통령】 필리베르 치라나나

【정부】 1960년 10월 10일에 조직되였다. 대통령이 수상과 국방상을 겸임하고 있다.

【정당, 사회 단체】 **사회 민주당** (집권당) 1958년 9월 드골 헌법을 찬성하였으며 불란서와의 《협조》를 주장한다. 위원장 필리베르 치라나나 **독립 대회당** 1958년 5월 성립, 이 당은 불란서—말가슈 《협조》 협정의 수정, 식민주의 잔재 청산, 국민 의회의 개조를 주장한다. 현 정부를 지지하는 당으로서는 **민족 혁신당**, **인민 사회당**이 있다. **로조 련합회** (세계 직련에 가입) **민주 청년 협회**(세계 민청에 가입)

경제, 사회 경제의 명맥은 불란서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불란서 독점체들은 1,000만 헥터의 토지를 략탈하였으며 무역과 금융업을 장악하고 있다.

1961년의 국민 소득(약 5억 딸라)에서 농업과 목축업은 50% 이상, 상업 및 봉사 분야는 30%, 공업은 3% 미만을 차지하였다.

주민의 약 92%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경지는 180만 헥터이며 주요 농산물은 쌀, 감자, 커피, 락화생 담배, 옥수수, 향료 등이다.

1961년에 벼는 120만톤, 감자는 105만톤(1960년), 담배는 4,500톤, 커피는 5만 5,000톤(1960년), 사탕 원료는 8만 7,000 톤 생산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갈탄 (매장량 10억 톤), 력청 (매장량 6,000만톤), 흑연(1959년에 1만톤 생산) 금, 철, 동, 니켈, 우라늄, 망간광 등이 있다. 공업은 락후하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을 가공하는 소 규모적인 식료 공장과 제당, 정미 공장이 약간 있을 뿐이다. 해안 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1960년에 4만 193 톤)향료, 담배, 쌀, 흑연, 운모 등이다. 무역 대상국은 불란서 (수출의 근 3분의 2, 수입의 약 4분의 3), 미국, 알제리아, 영국, 서독 등이다.

농민들의 1일 수입은 0.5 키로그람의 쌀 값도 못 된다. 학령 아동의 46%가 취학하고 있을 뿐이며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다.

레유니옹

【면적】 2,511 km²

【인구】 33만 5,000 명(1960년)

【행정 중심지】 쌍 데니스 (주민 약 4만 2,000 명)

레유니옹은 말가슈 공화국의 동남 인도양 상에 있는 섬으로서 1643년 이래 불란서의 식민지이다.

1962년 10월 레유니옹 부두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10%) 요구를 거부한 기업주들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여 3 주일간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모든 항구들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다. 주민들은 식료품과 의연금을 보냄으로써 파업 로동자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정당으로서 **레유니옹 공산당**이 있다. 불란서 공산당의 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에 독립적인 정당으로 성립되였다. 제 1 비서 뻬르게스

주민의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농업 로동자는 2만명이며 총 경지 면적은 7~8만 헥터이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이며 그 재배 면적은 총 경지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6천 헥터이다. 1960년에 사탕 생산량은 21만 7,778 톤이였다.

수출액의 90% 이상은 사탕과 알콜이다.

실업자는 4만 명에 달하며 주민의 60%는 문맹자이다. 원주민의 수명은 24세이고 유아 사망률은 1,000명 당 160 명이다. 병원은 하나 뿐이며 주민의 5분의 1은 결핵 환자이다.

모리샤스도

【면적】 2,090 km²

【인구】 62만 1,000 명 (1959년)

【행정 중심지】 포트 루이스 (주민 10만 4,016 명)

인도양 상에 있는 작은 섬이다. 1511년 포도아 인에 의하여 발견된 후 화란, 불란서에 강점되였다가 1903년에 영국 식민지로 되였다.

경제의 기본은 사탕 수수 재배이다.

공업은 제탕업뿐이다(사탕 생산량은 1959년에 58만톤이 였다). 사탕 및 사탕 제품의 수출액은 1958년 수출 총액의 98%를 차지하였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세이셸 제도

【면적】 404 km²

【인구】 4만 3,149명 (1959년)

【행정 중심지】 빅토리아 (주민 약 1만 명)

서부 인도양 상에 있는 작은 섬으로서 불란서 (1756년), 영국(1794년)에 강점되였다가 1903년 정식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주민의 대다수는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작물은 야자 (1958년에 약 7천 톤 생산), 향초 등이다.

대외 무역은 주로 영 련방 국가들과 진행한다.

미 주

카 나 다

Canada

【면적】 998만 547km²
【인구】 1,889만 6,000 명 (1963년 4월 1일)
【수도】 오타와 (주민 34만 5,400 명, 1960년)

정 치 카나다는 1867년에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받았으며 1931년에는 영 련방의 자치령으로 되였다. 제 2차 대전 후에 미국은 카나다에 대한 팽창을 강화하였다. 카나다는 1949년에 침략적 나토에 가담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 침략군과 함께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다. 1957년에 카나다는 미국과 련합 반 항공 사령부를 설치하고 미제와 침략적인 군사 조치 실현에서 밀접한 련계를 취하고 있다. 카나다는 영 련방의 성원으로서 영국과의 련계도 강화하고 있다.

【총독】 디.바니에 (1959년 9월 취임)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은 총독이 임명하는 종신 의원 102 명으로 구성되고 하원은 임기 5년의 의원 265명으로 구성되는데 1963년 4월 8일에 선거되였다.

【정부】 현 내각은 1963년 4월 22일에 조직되였다.

수상 레스터 피어슨, 외상 파울 마르틴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6월에 창건되여 1943년부터 로동 진보당이라고 부르다가 1959년 10월에 공산당으로 개칭하였다. 위원장 팀 버크 .총 비서 레슬리 모리스 자유당 친미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표한다(집권당). 당수 레스터 피어슨 진보 보수당 독점 자본의 리익을 대표한다. 당수 존 디펜베이커

경제, 사회 카나다는 자본주의적으로 발전한 공업—농업 국가이다. 석유, 가스, 철광석, 금, 은, 석면, 동, 아연, 연, 알루미늄 등 지하 자원이 풍부하다. 산림은 전국 면적의 49%를 차지한다.

경제 명맥은 국내 독점체와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카나다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180억 딸라에 달하는바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투자액을 릉가하는 것이다.

1962년에 동은 34만 2,000 톤 (평가), 연은 13만 6천 톤, 니켈은 19만 5,000 톤, 선철은 480만 톤, 강철은 730 만 톤, 전력은 1,160억 키로와트시, 석유는 3,400 만 톤, 석탄은 800 만 톤 생산되였다.

경지 면적은 국토의 8%이며 총 인구의 2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감자, 담배 등이다.

1962년에 밀은 1,517만 8,000톤 보리는 361만 2,000톤, 귀밀은761만 1,000톤, 옥수수는 81만 3,000톤, 담배는 8만 톤 생산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밀, 원유와 광물, 신문 용지, 목재, 면직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 설비, 자동차와 부속품들 및 방직 원료 등이다.

1962년 대외 무역에서 수입액은 62억 5,800만 딸라, 수출액은 63억 4,800만 딸라에 달하였다.

금 및 외화 보유량은 1960년 10월의 21억 1,600만 딸라로부터 1962년 5월 말에는 14억 9,300 만 딸라로 감소되여 최근 10년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962년에 회사 파산 건수는 전년에 비하여 19.8% 증가인 3,185 건에 달하였으며 회사 파산으로 인한 손실액은 1억 4,745 만 2,000 카나다 딸라에 달하였다.

【출판】 통신— 카나디안 프레스 신문—카나디안 트리뷴 (공산당 기관지)

미 국

(아메리카 합중국)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면적】 936만 4,000 km² (알라스카의 면적 151만 9,000km²와 하와이의 면적 1만 6,700km² 포함)

【인구】 1억 8,700만 명 (1962년 8월 현재, 인구중 흑인이 10% 즉 1,900만 명이고 원주민인 인디안은 20~30만 밖에 남지 않았다.)

【수도】 워싱톤 (주민 88만 명)

정 치 1492년 미주 대륙이 발견된 후 구라파에서 이주해 온 백인 식민주의자들이 흑인 원주민들을 대량적으로 살륙 략탈하여 나라를 만들었다.

미국 식인종들이 18 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감행한 대규모적인 인디안 살륙 전쟁만도 110 여차에 달한다. 19세기 말 20 세기초에 자본주의로부터 제국주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미제의 침략과 략탈의 본성은 더욱 악랄하여졌다. 미제는 멕시코에 대한 침략 전쟁 (1846~1848년), 알라스카와 하와이의 강탈, 서반아로부터 푸에르르 리코와 비률빈을 탈취하기 위한 서반아와의 전쟁 (1898년), 그후 큐바와 파나마 운하

지대의 강점등 도처에서 침략과 략탈을 감행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에서 비대해진 미제는 전후 세계 지배를 위한 야망을 품고 모험적인 군사 도발과 간섭을 일삼았는바 미제에 의한 조선 전쟁 도발, 사회주의 국가들과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을 반대할 목적으로 나토를 비롯한 각종 군사 블럭의 조작, 1956년의 중동 침략, 웽그리야 사건, 1958년의 레바논, 요르단에 대한 침략, 1961년 베를린 위기, 남부 월남과 라오스에 대한 침략과 간섭, 콩고에서의 침략 행동과 큐바에 대한 침략 행위, 조선에서의 계속되는 정전 협정의 위반 등 그 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전후의 모든 사실은 미제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아성으로, 최대의 국제적 착취자로, 국제 헌병으로서 의연히 전 세계 인민의 공동의 원쑤로, 불구 대천의 원쑤로 남아 있으며 그 어떤 《평화》와 《원조》의 가면도 그의 침략과 략탈, 전쟁과 살륙의 장본인으로서의 정체를 결코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미제는 지금 서독과 일본 군국주의의 핵 무장에 날뛰고 있으며 남부 월남에서 피묻은 손을 거두지 않고 있으며 큐바를 반대하여 카리브 해역에서 계속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미제는 국내에서 진보적 력량에 대한 박해를 더욱더 로골화하면서 인종 격리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으며 나라를 파쑈화의 길로 내몰고 있다.

【국회】 상하 량원제인데 1962년 11월 6일에 중간 선거가 실시되였다. 상원 의원은 정원 100명으로서 임기는 6년이며 2년 마다 의원의 3분의 1이 개선된다. 상원에서 민주당은 68석, 공화당은 32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상원 의장 (부대통령이 겸임) 린든 비. 존슨 (민주당). 하원 의원은 435명, 임기는 2년이며 전원이 동시에 개선된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259석, 공화당은 176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하원 의장 죤 매코맥 (민주당)

【정부】 대통령은 정부 수반이며 그의 임기는 4년이다. 륙해공군 최고 사령관의 직무를 겸하고 있다.

대통령 죤 에프. 케네디 (1961년 1월 20일 취임)

국무 장관 딘 러스크
국방 장관 로버트 에스. 맥나마라
사법 장관 로버트 에프. 케네디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 5월에 아메리카 공산당과 공산주의 로동당이 단일한 정당으로 통합되였다. 전국 위원회 위원장 엘리자베스 걸리 플린, 총비서 거스 홀 **민주당** 지도자 죤 에프. 케네디 (당수격이다), 아들라이 스티븐슨, 린든 존슨, 전국 위원회 위원장 죤 베일리 **공화당** 지도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챠드 닉슨, 넬슨 록펠러, 전국 위원회 위원장 윌리암 에드위드 밀러 **에이 에프 엘 씨 아이 오 합동 로조** (미국 로동 련맹—산업별 로동 조합) 독점 자본에 매수된 상층 지도부는 근로자들의 리익을 공개적으로 배반하고 있다. 회원 약 1,250만명 (1961년) 위원장 죠지 미니, **미국 나치스당, 미국 군단, 전국 유색 인종 발전 촉진 협회, 평화 위원회**

【주요 국내 사건】 미국 지배층은 1962년에 근로 인민에 대한 착취와 탄압을 강화하면서 대독점체들의 리익을 옹호하였다.

1월 11일 케네디는 국회에 제출한 《일반 교서》에서 허울 좋게도 《경제를 강화》하며 《인플레와의 투쟁》을 진행하며 《미국의 전진을 위하여》 도시 건설을 추진시키며 《민권을 옹호》할 듯이 장광설을 늘어 놓았다. 1월 18일에는 1962～1963 회계 년도 《예산 교서》를, 1월 22일에는 《경제 보고》를, 1월 25일에는 《통상 교서》 등을 련이어 발표하였다. 이 교서들에서 케네디는 침체 속에서 허덕이는 미국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 보려는 일련의 《시책》들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케네디의 이러한 호언장담은 한갓 인민들에 대한 기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미국의 현실은 다시 한 번 확증하여 주고 있다.

1961년 6월 5일부터 미국 공산당에 대하여 《외국의 앞잡이》로써 등록할 것을 강요한 케네디 행정부는 1962년 년초부터 미국 공산당에 대한 압력과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12월 17일 워싱톤 련방 재판소는 미국 공산당이 《맥카란법》을 위반하였다고 생트집을 쓰면서 유죄 판결을 언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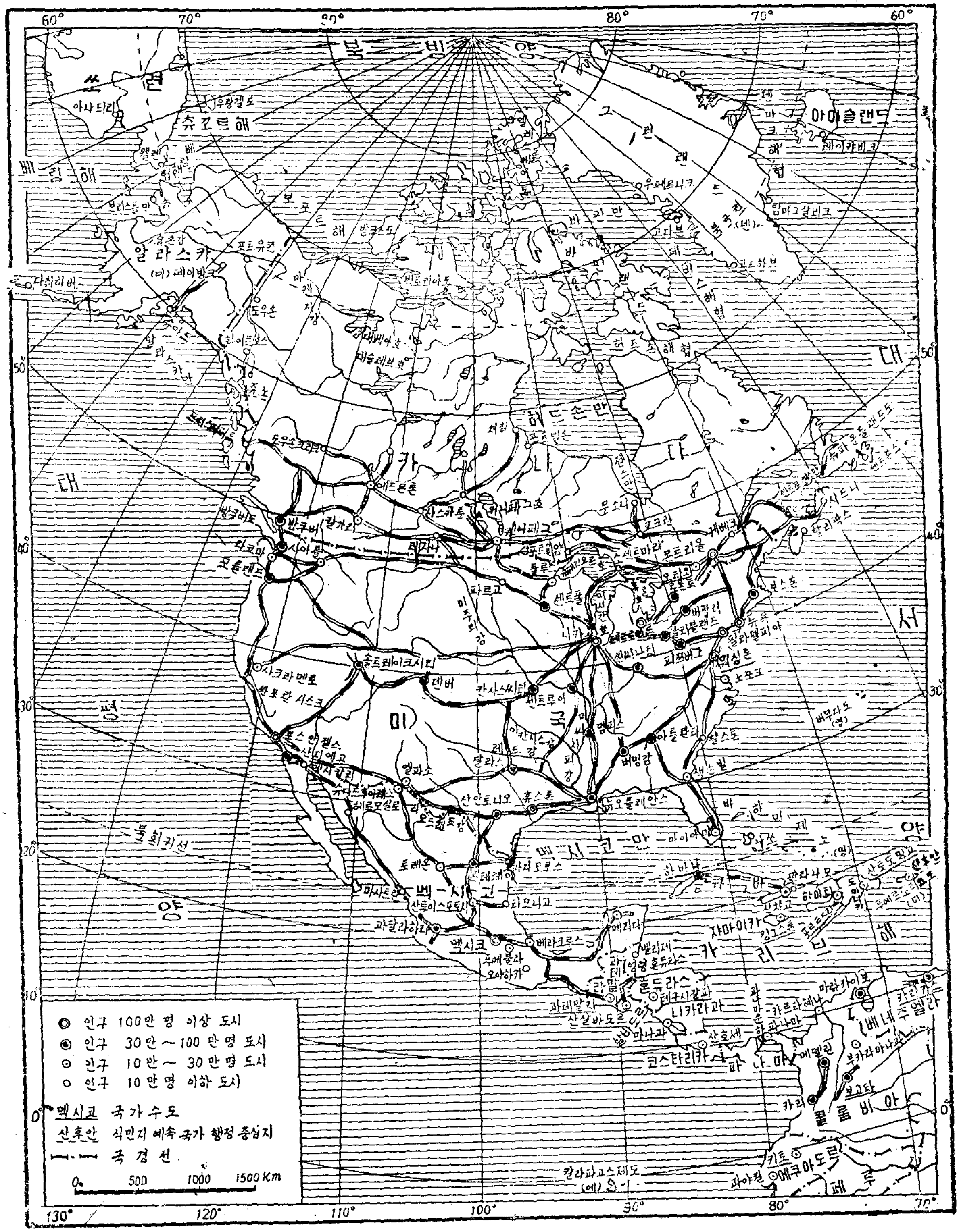
케네디는 자유와 평등을 위하여 싸우는 1,200만 흑인들에 대한 혹독한 인종 차별 정책을 계속 실시하였다.

1962년에 미국 지배층의 반동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앙양되였다. 특히 미국 공산당에 대한 박해와 케네디 정부의 전쟁 및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1월 15일 뉴욕, 필라델피아 등 각 지방에서 온 200 여명의 녀성들이 워싱톤에 모여 평화를 옹호하며 케네디의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서명 수집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2월 3일 2천 여명의 회원을 망라하고 있는 미국 과학자 련합회 리사회는 대기권 내에서의 핵무기 시험 재개의 금지를 요구 하였다. 2월 8일 뉴욕에서 1천여명 시민의 참가 하에 평화, 공민의 자유, 인종 평등 등을 요구하는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다. 2월 11일 워싱톤에서 군비 경쟁과 핵 시험을 반대 항의하는 미국 학생들의 항의 행진이 개시되였으며 2월 25일에는 뉴욕에서 1,200 명의 반파쑈 투사들이 집회를 가지고 케네디의 파쑈화 정책을 규탄하였다. 또한 6월 20일에는 케네디의 군비 경쟁 정책과 핵 무기 시험에 항의하여 워싱톤에서 시위 투쟁이 전개되였다.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미국 근로자들은 미국 당국의 온갖 탄압을 박차면서 완강하

북 미 주



북 빙 양
그 린 랜 드
아이슬랜드
알라스카
카 나 다
허 드 손 만
미 국
멕 시 코
멕 시 코 만
카 리 브 해
대 서 양
태 평 양
베 링 해
쏘 련
콜 롬 비 아
베네주엘라
에쿠아도르
페 루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인구 30만～100 만 명 도시
인구 10 만～30 만 명 도시
인구 10 만 명 이하 도시
멕시코 국가 수도
산후안 식민지 예속 국가 행정 중심지
국경선
0 500 1000 1500 Km

고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케네디는 6월 15일에 있은 《리퍼블리크 항공 회사》 산하 기업소 종업원 9천명의 파업과 12월 3일 록키드 항공기 제작 회사와 인터나슈널 기계공 로조 간의 쟁의에 《타프트—하틀리법》을 발동시키는 횡포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근로자들의 투쟁을 멈춰 세울 수는 없었다.

3월 16일 미국 서해안 해원들의 파업이 단행되여 12개 해운 회사들의 작업이 중지되였으며 4월 11일에는 4만명에 달하는 뉴욕 교원들이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900 여개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단되였다. 《판 아메리칸 월드》 항공 회사에 종사하는 1만 8천명 종업원들의 파업 (6월 23일), 뉴욕에서 4만명의 병원 직원들의 파업 (7월 17일), 9천명에 달하는 미국 잠수함 건조 로동자들의 파업 (7월 18일)도 완강하게 진행되였다.

8월 30일 미국에서는 16년래 가장 큰 철도 파업이 단행되였다. 11월 28일에는 《폴라리스》 유도탄과 비행기 그리고 기타 무기들을 생산하고 있는 《록키드》 항공 회사 관리 당국을 반대하는 로동자들의 전국적 파업이 단행되였으며 이에 따라 케이프 캐나베랄 시험장에서 1만 5천명의 기계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12월 23일 태평양 연안과 멕시코만의 8만명 부두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하였으며 12월 25일에는 미국의 부두 로동자 6만명이 전국 해운 로조의 지지 하에 강력한 파업을 전개하였다.

12월 8일 뉴욕에서 《뉴욕 타임스》, 《데일리 뉴스》, 《뉴욕 월드 텔레그람 앤드 선》 및 《뉴욕 저널 아메리칸》 신문사들의 약 2만명의 인쇄공들이 임금 인상과 로동시간의 단축 등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로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9월 미국에서는 또한 농산물 및 축산물 가격의 인상을 요구하여서와 목점제품의 착취를 반대하여 1930년 이래 가장 대규모적인 농민들의 투쟁이 전개되였다. 1962년 한해 동안에 임금 인상, 로동 조건의 개선, 로조의 권리,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미국 근로자들의 투쟁에는 125만명이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상실된 로동일 수는 1,900만 일에 달하였다.

【대외 관계】 미제는 1962년에 《평화》의 가면 뒤에 숨어 전쟁 및 침략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였다. 케네디는 세계 제패의 야망에 사로 잡혀 《전면 전쟁》과 핵 전쟁 준비에 《최우선권을 부여》하면서 《국부 전쟁》과 《특수 전쟁》을 계속 벌려 놓았다.

남조선 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한 책동…미제는 1962 회계 년도에 극동 8개국에 대한 군사 《원조》 총액 8억 9,784만 딸라중 2억 8,144만 딸라(약 34%)를 남조선에 배정하고 《국부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라크로스》를 비롯한 기타 전술용 유도 무기들을 끌어 들였다. 미제는 종전에 남조선 강점 미군에게만 제공하였던 대전차 유도탄까지도 괴뢰군에 제공하였다. 미제는 조선에서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1962년에 남조선에서 1961년에 비해 17차나 더 많은 53차의 군사 연습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에 또다시 《조선 문제》를 비법 상정하고 남조선 괴뢰들을 유엔 총회에 초청할 데 대한 《결의안》을 조작하는 한편 12월 18일 정치 위원회 회의에서는 《조선 문제》에 관한 《15개국 결의안》을 비법적으로 채택케 하였다.

극동과 아세아 침략을 강화하기 위한 책동… 미제는 아세아 침략의 《돌격대》로 삼고 있는 재생된 일본 군국주의의 핵무장에 광분하는 동시에 《한일 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키며 그들을 골간으로 하는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기에 급급하였다.

1962년에 남부 월남과 라오스에 대한 미제의 침략이 더욱 강화되였다. 미제는 2월 8일 사이공에 《남부 월남 미 군사 원조 사령부》를 설치하고 남부 월남에서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확대하기에 광분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스테일리—테일러 계획》은 남부 월남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파산되고 말았다.

미제는 남부 월남을 포함하여 동남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10일 비률빈의 바기오에서 《극동 지역 안전 회의》와 《아세아 국가 주재 미국 대사 회의》를 벌려 놓았으며 하와이의 호노룰루에서 네차례나 《미국 고위 정책 회의》를 벌려 였고 10월 8일에는 호노룰루에서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의 참가하에 미 군사 및 외교관들의 회의를 열었다.

미제는 라오스의 노사방—분움 도당을 사촉하여 1961년 11월부터 《승리 공세》를 벌리게 하고 라오스의 애국 력량을 일거에 말살하려고 덤벼들었으나 그들의 기도는 완전히 파탄되고 말았다.

1962년 5월에 라오스 반동들이 무옹싱, 남타 등 군사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들을 련이어 상실하게 되자 이에 당황한 미제는 5월 12일 미국의 전체 륙해공군에 동남아 지역에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하고 타이에 자국 군대를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라오스 애국 력량의 견결한 투쟁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밑에 6월 11일 라오스에서는 련립 정부가 수립되고 7월 23일에는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회의에서 라오스의 중립에 관한 선언이 조인되였다.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는 미제의 책동…8월 30일 미국의 《유—2》 간첩 비행기는 유즈노—싸할린쓰크 동쪽 65키로메터 지점에서 쏘련 령공을 침범했으며 9월 9일에는 장 개석 도당의 미국제 《유—2》 간첩 비행기가 화동 지역의 중국 령공을 침범하였다.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미

제의 침략 행위는 특히 인민 중국을 반대하는 부질 없는 전쟁 소동과 도발 책동에서 특히 로골적으로 나타났다.

미제는 1962년에 장개석 도당으로 하여금 《중국 본토 침략》을 대대적으로 떠벌리게 하는 한편 중국 령해와 령공을 부단히 침범하였다. 1962년 말까지 중국 남해의 중국 령해에 대한 미국 군함들과 군용기들의 침범 행위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엄중 경고를 발표한 수는 225건에 달하였다.

미제는 또한 중인 국경 문제를 리용하여 인도 반동 계층들에게 군사적 《원조》를 적극 제공하였다. 케네디가 네루에게 인도에 대한 무기 《원조》를 확약한 후 11월 2일부터 인도에 대한 대대적인 무기 공급를 시작하였다. 또한 케네디는 인도에 대한 군사 《원조》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극동 담당 미 국무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인도에 파견하였다. 11월 23일에는 160명의 미국 비행사들이 인도에 도착하여 12대의 미국 분사식 수송기 《씨—130》으로 중인 국경에 접한 인도의 아쌈주 지방에서 인도 군대들과 함께 무기 수송에 복무하였다.

1962년에 베를린 문제를 둘러싼 미제의 책동이 또한 로골화되였다. 1962년에 미제는 그 앞잡이들을 사촉하여 동서 베를린 경계선 상에서 민주 독일을 반대하는 도발 행동을 계속하였다. 9월 26일에는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가, 9월 25일에는 미국 대통령의 《특별 고문》 반디가 서부 독일에 기여들어 서독 당국자들과 민주 독일을 반대하는 도발 행동을 강화할 《대책》을 모의하였다. 10월 10일 《미 륙군 협회》에서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미국은 필요하다면 어느 때든지 핵 무기를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떠벌렸으며 같은 날 미 하원은 서부 베를린에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점령 제도를 유지할데 대한 결의를 통과시켰다.

3월 2일 케네디는 4월 하반기에 태평양 상에서 대기권 핵 시험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년말까지에만도 30회 이상의 핵 시험을 감행하였으며 네바다 시험장에서는 1957년 이래 70회나 지하 핵 시험을 감행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제 2 차 대전후 1962년 말까지 약 200회의 각종 핵 시험을 감행하였다.

민족 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미제의 책동…미제는 아세아에서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들에서도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며 식민지의 멍에를 또다시 들씌워 보려고 흉악하게 책동하였다.

케네디는 2월 3일 큐바 상품의 수입을 2월 7일부터 금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8월 24일에는 미국 해적선들이 하바나시를 함포 사격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7월부터 8월 말까지의 기간에만도 미제는 150회에 달하는 반큐바 침략을 감행하였다. 9월 20일 미국 상원은 필요한 경우에 큐바에 대하여 군대를 사용할 권한을 케네디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9월 26일에는 큐바를 반대하는 미국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10월 15일에는 카리브해 일대에서 도발적인 대 군사 연습을 감행하였다.

미제의 반큐바 소동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자기의 침략적 기구들을 통하여서도 로골적으로 감행되였다. 1월 3일 미 국무성은 큐바가 서반구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고 중상한 반큐바 《백서》를 《미주 국가 기구》 성원국들에 배포하였다. 1월 22~31일에는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를 벌려 놓고 이 기구를 큐바 내정에 대한 간섭에 리용하려고 획책하였으며 10월 2일 워싱톤에서는 미제의 조종 하에 큐바를 반대하는 새로운 조치를 토의하기 위하여 《미주 국가 기구》 참가국 외상들의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였다.

10월 22일 케네디는 전국 텔레비존 방송을 통하여 큐바에 대한 봉쇄를 실시하며 큐바로 수송되는 일체 《공격용 군사 장비》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겠다고 폭언함으로써 《카리브 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영웅적 큐바 인민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의 견결한 투쟁으로 미제의 전쟁 도발 책동은 저지되였으며 《카리브 위기》는 일시 사라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큐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은 계속되였다. 10월 27일 미 국방성은 미국 비행기들이 계속 큐바를 침공할 것이라고 언명하였으며 뒤이어 10월 31일 미국은 큐바에 대한 봉쇄와 공중 시찰을 계속할 것을 명령하였다. 11월 10일 미제는 큐바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아르젠틴 및 도미니카 함선들로 《해군 특별 부대》를 창설했으며 11월 20일에는 큐바에 대한 해상 봉쇄는 《해제》하나 큐바를 침략하지 않을데 대한 《보증》을 거부한다고 떠벌렸다.

12월 12일에는 파나마에서 중미 국가 외상 회의를 진행하고 큐바를 침략할 목적 밑에 《중미 방위 리사회》를 조작할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미제는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혁명의 불'길을 끄려고 직접적인 무장 간섭 책동과 함께 반동적 군부를 사촉하여 《정변》을 조작케 하였는바 3월 29일에는 아르젠틴에서, 7월 18일에는 페루에서 새로운 주구들로 교체하였다. 도미니카에서는 1962년 한해 동안에 무려 3차에 걸치는 《군사 정변》을 조작하였다.

제국주의 렬강들과의 관계…1962년에 미제와 서구라파 렬강들 특히 불란서와의 모순과 알륵이 격화되였다.

그것은 특히 영국의 구라파 《공동 시장》 가입 신청, 나토의 핵 무장 문제 등을 둘러 싸고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구라파 《공동시장》 및 나토 참조)

경 제 전후 4 차의 경제 공황을 겪은 미국 경제는 1962년 후반기부터 또다시 경제적 침체 속에 빠져 들어 갔다. 만성적 조업 단축, 생산 감퇴, 방대한 실업군의 항시적 존재, 과잉 생산 위기의 지속 등을 막아보려고 케네디는 군사비 지출 규모를 더욱 확장하는 한편 다른 편으로는 외상 판매, 대부 등 형식으로 소비를 인공적으로 자극하려 하였으나 이것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없었으며 그것은 오직 근로자들을 독점체들의 채무 노예로 더욱 든든히 얽어 매였을 뿐이였다.

1962년에 미국 근로자들의 부채액은 1961년에 비하여 9.7% 증가되였다. 계속되는 위기와 침체로 하여 자본주의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바 1948년에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에서 54%를 차지하였던 미국의 공업은 1962년에는 43.6%로 떨어졌다.

【공업】 1962년 1~6월 간에 공업 생산은 무기력한 상승 단계를 거쳐 하반년부터는 또다시 하강선을 긋기 시작하였다. 1962년 3.4분기의 월 평균 강철 생산량은 2월에 비하여 36%, 8월분 금속광 채굴량은 3월에 비하여 19% 각각 감소되였으며 내구성 소비품 공업과 기타 일부 공업 부문의 생산도 대폭 감소되였다.

공업 생산 지수

(1957~1959=100)

	1962	1962			
		1.4	2.4	3.4	4.4
총 지 수	118	116	118	120	119
채취 공업	105	104	105	106	105
야금 공업	105	115	110	98	99
일반 기계 제작 공업	120	113	120	123	122
전기 기계 제작 공업	129	125	130	129	129
전재 업공	111	105	111	114	112
방직 공업	115	115	116	117	113
피혁 공업	102	102	104	102	100

생산의 침체는 일련의 공업 부문에서의 조업 단축을 불가피하게 초래하였다.

최근 년간 계속 66% 이하로 내려가 있던 강철 공업의 조업률은 1962년 3.4 분기에는 53%로 떨어졌으며 1962년 9월에 가공 공업에서의 조업률은 83%, 화학 공업과 세멘트 공업 부문에서는 80%로 떨어졌다. 생산의 침체와 함께 1957~1958년의 공황 이래 도매 가격도 계속 호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 시세는 1962년 5월 28일 《암흑의 월요일》 이래 수차 폭락되여 미국 경제에 심각한 혼란과 타격을 주었다.

1962년에 투자는 주로 상업, 금융 등 부문에 돌려졌으며 제조업에서의 강철, 자동차, 화학, 석유, 석탄, 전기, 기계 등 부문에 대한 투자는 그전 2년 간에 비하여 침체 또는 감소되였다.

【농업】 1962년에 정부가 강압 실시한 파종 면적 축소 정책으로 말미암아 밀 파종 면적은 16%, 옥수수는 2%, 보리는 4% 과각 감소되였다.

그 결과 1962년에 수확 면적은 1961년에 비하여 3%가 감소되여 1909년 이래 최저 수'자인 1억 1,600만 헥터로 떨어졌다.

밀 파종 면적의 축감에 따라 수확은 12% 감소되였으며 그 결과 1962년에 식량용 알곡 작물의 수확은 전체적으로 8% 감소되였다. (1962년에 밀 생산은 전년에 비하여 389만 톤 감소)

1962년에 케네디 행정부의 반동적 농업 정책으로 인하여 소농 경리의 파산 과정이 더욱 촉진되였다.

1962년 현재 전국의 농장 수는 340만 개였는데 이것은 5년 전에 비하여 23%, 10년 전에 비하면 34%나 각각 축감된 수'자이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00 만명 이상의 농촌 인구가 파산을 당하고 있으며 중소 농장들은 날로 령세화되고 있다.

【대외 경제 관계】 케네디는 1962년 10월 《통상 확대법》을 채택하고 미국의 과잉 상품 실현 방도를 찾았으나 년간을 통하여 수출액은 겨우 3% 증가된데 불과하였다.

그것도 구라파 시장과 일본 시장의 위축 등으로 하반년도에 들어서는 판로난이 더욱 강화되여 수출이 감소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1962년 하반년도에 미국의 수출은 상반년도 보다 4%나 낮았으며 1961년 하반년도에 비해서는 3%가 낮았다.

1962년에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불 발란스의 적자는 22억 딸라에 달하였다. 이 해에 미국의 금 보유량은 10억 딸라나 감소되여 년말 현재 금 보유량은 1939년 이래 최저 수준인 160억 5,700만 딸라로 떨어졌다.

【예산 및 재정】 1962년에 미국 정부는 경제의 침체를 소생시키며 인공적인 경기 자극을 꾀하면서 예산 편성에서 군사적 지출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1962~1963년 예산에서 직접적 군사비만도 527억 딸라에 달하였는바 이는 1961년도 군사비 보다 10%의 증가였다.

군사비 지출의 증대, 침략과 전쟁 정책의 강화로 예산 적자는 1961~1962 회계 년도에 63억 딸라, 1962~1963 회계 년도에 88억 딸라에 달하였다. 1962년에 국가 및 개인 부채 총액은 도합

1만억 딸라를 능가하였다.

군 사 미제는 침략과 전쟁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1954 회계 년도부터 1963 회계 년도에 이르는 10년 동안에 미제는 군사비로 약 4천억 딸라를 탕진하였다.

케네디는 현재 약 270만을 헤아리는 미국의 륙해공군 병력도 부족하여 15만 명의 예비병을 더 소집할 데 대한 법안을, 1962년 9월에 상 하 량원에서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미 륙군 당국은 10월 30일 6천명의 신병을 징집할 데 대한 《징병법》을 발표하였다. 현재 미제는 100만명 이상의 침략 군대와 핵무기를 비롯한 최신 무기들을 90개의 각이한 나라들과 지역들에 설치한 2,200개의 군사 기지들과 군사 대상들에 배치하고 있다.

사 회 증대되는 군사비의 지출로 인하여 1962년 9월 현재 미국의 매개 세대는 매년 직접 및 간접세로 2,500 딸라를 부담하고 있다

최근 20년 간에 미국의 개인 소득세(직접세)는 44.8배로 격증하였다.

한편 케네디 정부가 채화 상품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주민들에 대한 외상 판매를 장려한 결과 1962 년에 주민들의 부채액은 도합 56억 딸라나 증가하여 633억 딸라에 달하였다.

미국에서 실업 문제는 최대의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바 케네디 자신도 《1947년부터 1962년까지의 기간에 실업이 17%나 증가하고 1962년에는 완전 실업자가 400만, 반 실업자 수는 270만명에 달하였다》고 비명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 수'자가 극도로 축소된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1962년에 미국에서 범죄 건수는 1961년 보다 6%가 증가한 204만 8,370건에 달하였다. 미국에서의 범죄 건수의 증가률은 주민 장성률의 4배 이상에 달하며 평균 1분 동안에 4건의 범죄 건수가 등록되였다. 1962년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4만 1천명이 죽고 150만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300만명이 부상 당하였다.

【출판】 통신—에이피, 유피아이

신문—데일리 워커 (공산당 기관지), 뉴욕 타임스, 뉴욕 데일리 뉴스, 월 스트리트 저널

잡지—폴리티칼 아페어즈 (공산당 월간 잡지), 만슬리 레뷰, 유 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라이프, 룩

멕 시 코

(멕시코 합중국)
Republic of Mexico

【면적】 196만 9,000 km²

【인구】 3,462만 5,902명(1960년)

【수도】 멕시코 (주민 463만 명)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60 명이고 임기는 6년이다. 하원 의원은 162명이고 임기는 3년이다.

【대통령】 아돌포 로페스 마테오스 (임기는 6년, 1958년 12월 1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9년 9월에 창건되였다. 인민 사회당, 혁명 조직당 (집권당), 국민 행동당, 인민 옹호 투쟁 전선, 로동 총동맹,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

경제, 사회 경제의 주되는 부문은 농업과 광업이다. 인구의 5분의 3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밀, 면화, 커피, 사탕이다. 공업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발전한 나라인데 특히 은 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적 명맥은 미국 독점 회사들에 장악되여 있다.

1961년에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은 8억 2,200만 딸라였는데 그중 가공 공업에 대한 투자액은 4억 1,400만 딸라였다. 미국은 류산, 농약, 염료 등 화학 공업 부문의 거의 전부를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력 생산의 약 70%, 연 생산의 64%, 동의 73%, 아연의 76%, 은의 41%, 금의 20%를 각각 장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면화 수출의 전부와 타면 공업의 70%, 커피의 수매 및 가공, 수출 부문 그리고 농기계와 비료의 수입을 장악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면화, 커피, 광물이고 기계 및 설비품, 강철, 자동차, 화학 공업 원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1961년에 수입은 11억 4,300만 딸라, 수출은 9억 3,700만 딸라로서 적자는 2억 600만 딸라였다.

1962년 3월 멕시코 로농 총동맹은 멕시코에서 대토지 소유제를 철폐하고 토지를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며 로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성명에서 애국 전선을 형성할 것을 각계 각층 주민들에게 호소하였다. 5월 멕시코의 저명한 농민 지도자 루벤 하라밀리오가 야수적으로 살해된 것과 관련하여 공산당, 인민 사회당, 인민 옹호 투쟁 전선 및 기타 정당, 사회 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하고 살인 주모자들을 처단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한편 멕시코 공산당과 기타 사회 단체들은 공산당의 지도자 다비드 시케이로스의 석방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현재 멕시코는 꾸바와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전 인구의 54%가 문맹자이며 약 300 만의 학령 아동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 공화국)
Republic of Guatemala

【면적】 10만 8,900 km²

【인구】 375만 9,000 명 (1960년

【수도】 과테말라(주민 43만 7,000

명)

정 치 **【국민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66명이며 임기는 4년이다.

【정부】 1963년 3월 30일 정변을 통하여 알프레도 엔리크 페랄타 아주르디아 (이전 국방상)가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정당, 사회 단체】 로동당 1949년에 창건된 공산당이 1952년에 현 명으로 개칭되였다. 1954년에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베르나르도 알바라도 몬존 민족 해방당, 민족 민주 운동당, 기독교 민주당, 혁명 통일당, 민족 혁명당, 로동 조합

경제, 사회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인구의 2.2%에 불과한 지주들이 전국 토지의 70.5%를 소유하고 있다. 국토의 3분의 2는 산악 지대이고 주요 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면화 등이다. 이 나라의 경제 명맥은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최근 5년간 과테말라에 대한 자본 투자 총액은 22% 증가하였다. 미국 회사인 《유나이테드 과실 회사》가 이 나라에서 짜내는 리윤은 년 1억 딸라에 달한다.

커피 (총 수출의 약 80% 차지), 바나나, 면화 등을 수출하며 식료품과 기타 소비품을 수입하고 있다. 인민들의 생활 형편은 매우 비참하다. 주민의 평균 수명은 22세이며 75%가 문맹자이다.

과테말라에 대한 미국 독점체들의 식민지적 지배와 원시적 략탈, 친미 독재 정권의 반인민적 정책은 인민들의 투쟁을 격발시키고 있다.

1962년 2월 초에 과테말라의 동북부에서 청년 군인들로 《11월 13일》 유격 전선이 조직되였으며 3월에는 이 나라의 중심부에서《10월 20일》 유격 전선이 조직되였다. 《11월 13일》 유격 전선은 이디고라스 친미 독재 정권을 규탄하고 그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계속할 결의를 표명한 투쟁 강령을 발표하였다. 투쟁 강령에는 경제적 독립, 토지 개혁 및 공업화의 실현,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부의 수립,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수호자로서의 정부군의 재편성, 경찰 기구의 개편 그리고 법률, 교육 및 기타 분야들에서의 개혁의 실시를 위하여 투쟁할 결의가 표명되였다.

2월 6일 애국적 군인들과 인민들은 이지발라주 모랄레스와 바나네라에서 정부군과 미국인 기업소들에 대한 무장 공격을 개시하였으며 26일에는 과테말라의 혁명 무장 유격대가 2개의 방송국을 점령한 후 방송을 통하여 이디고라스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에 궐기할 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3월 13일과 16일 그리고 21일에 수도에서 수천 명의 인민들이 이디고라스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강력한 시위와 파업을 단행하였다. 시위자들은 무장 경찰과 치렬한 류혈전을 전개하였다. 4월 16일에는 수도에서 또다시 이디고라스의 사직을 요구하는 강력한 반정부 시위가 단행되였다. 시위자들은 거리에 자동차들로 바리케트를 구축하고 은행 건물들에 폭탄을 던졌다.

3월 25일 과테말라 로동당은 이디고라스 친미 독재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혁명 투쟁을 강화할 것을 과테말라 인민에게 호소하였으며 3월 중순에는 또한 과테말라 학생 협회가 미제의 내정 간섭을 규탄하고 현 정권의 해체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반정부 투쟁은 군대 내에서도 폭발되였는데 11월 25일 과테말라의 공군 부대들은 대통령 이디고라스의 관저 및 호위처 본부와 수도에 있는 정부군 병영들에 대하여 기총 소사와 폭격을 가하였다.

과테말라 인민들과 군대들의 강력한 진출은 이디고라스 정부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이런 정황 하에서 이디고라스 정권을 부지해 나가기 힘들게 되자 미제는 1963년 3월 30일 군사 정변을 일으켜 다른 정권을 들어 앉혔다. 이 《정부》는 헌법을 정지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한편 국내에 비상 사태를 선포하였다.

혼듀라스

(혼듀라스 공화국)

Republic of Honduras

【면적】 11만 2,088 km²

【인구】 190 만 명(1960 년)

【수도】 테구시갈파(주민 12만명)

정 치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58 명이고 임기는 6년이다. (1957년 9월 23일 선거)

【대통령】 라몬 빌레다 모랄레스 (1957년 12월 21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54년에 창건되였다. 1956년부터 비법화되였다. 자유당(집권당), 민족주의당, 민족 개량 운동당, 혁명 민주당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 국가로서 취업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토지는 전체 인구의 5.2%에 불과한 지주들에게 집중되여 있고 75% 이상의 농민들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면화 등이다.

바나나 농장들과 공업, 체신 및 철도의 대부분은 미국 회사인 《유나이테드 과실 회사》와 《스탠다드 회사》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이며 수출의 90%는 농산물이다. 전체 인구의 70%가 문맹자이다.

1962년에 혼듀라스에서는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이 강화되였다.

9월 5일과 6일에 테구시갈파에서 로조 단체, 학생 및 진보적 인사들이 시위를 단행하고 미군 장교들의 지휘 하에 감행된 '군사 연습을 반대 항의하였고 뒤'이어 기타 주요 도시들에서 수천매의

남 미 주



카 리 브 해
태 서 양
대 평 양
베 네 수 엘 라
콜 롬 비 아
에 콰 도 르
브 라 질
볼 리 비 아
파 라 과 이
우 루 과 이
아 르 헨 티 나
칠 리
페 루
보고타
카라카스
리마
라파스
아순숀
부에노스아이레스
몬테비데오
산챠고
리오데자네이로
상파울로
싸르바도르
레시페
마나오스
아마존 강
포크랜드제도
마젤란해협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인구 30만—100만 명 도시
인구 10만—30만 명 도시
인구 10만 명 이하 도시
보고타 국가 수도
조지타운 식민지 예속국가 행정 중심지
국 경 선
0 400 800 1200 km

반미 빠라들이 살포되였다.

12월 1일에는 이전 대좌 막심 빼샤라노의 지도하에 반정부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서부에 있는 쫄로몬카구아시를 점령하였다.

영령 혼듀라스

British Honduras

【면적】 2만 2,957 km²
【인구】 9만 1,000 명(1960년 1월 1일)
【행정 중심지】 벨리제(주민 3만 953 명)

면적의 92%는 산림 지대이며 경지 면적은 약 20만 헥터에 불과하다. 주산물은 목재, 야자, 바나나, 쌀, 콩 등이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하고 수입하고 있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과 미국이다.

살바도르

(살바도르 공화국)

Republic of El Salvador

【면적】 3만 4,278 km²
【인구】 261만 3,000 명 (1960년)
【수도】 산 살바도르 (주민 39만 명, 1959년)

정 치 【의회】 1원제로서 의원 수는 54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 훌리오 리베라 (1962년 7월 1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9년에 성립되였으나 1932년에 비법화되였다. 민주 통일 혁명당, 전국 행동당, 《4월 5월 혁명》당, 독립 민주당, 로동자 련합 총회, 대학생 련합 총회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으로서 전체 주민의 7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경제 부문은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토지는 비옥하나 인구의 4%에 불과한 대 지주가 커피 재배지의 58%를 장악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재배 면적 13만 헥터), 면화, 옥수수, 사탕, 콩, 쌀 등이다. 금, 은, 동, 철, 석유, 석탄, 연 등 지하 자원도 있으나 대부분 미개발 상태에 있다. 년산 커피는 약 9만 3,000 톤, 면화는 약 4만 톤 생산된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수출 총액의 87%), 면화 등이며 밀, 밀가루, 연유, 세멘트, 비료 등을 수입한다. 주요한 무역 대상국은 미국이다.

미국 독점체들의 략탈로 인하여 살바도르 인민의 생활 형편은 매우 곤난하다. 사망자 100명 중 60명이 기아로 오는 것이라는 한 가지만으로도 그것은 실증된다.

의사는 주민 6천 명에 1명이 차례지고 있으며 전 인구의 절반이 문맹자이다.

1962년에 살바도르 인민의 반미 반독재 투쟁이 어느 때보다도 치렬히 전개되였다.

5월 중순 살바도르 대학생 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4월 29일의 기만적인 선거 끝에 집권한 신 대통령 훌리오 리베라가 《다만 군부와 미국 대사관의 지지만을 받고 있으며 인민 대중의 의사를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미 국무성의 조종하에 있는 현 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을 야당계 단체들에 호소하였다.

리베라 정부의 매국 정책에 분격한 살바도르 인민들은 수도를 비롯한 국내 도처에서 투쟁에 일떠섰다. 5월 6일 정부군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5천 여명의 살바도르 로동자들은 수도 산 살바도르의 중심 거리들에서 시위를 단행하고 미국 정부와 살바도르 군사 독재 정권을 규탄하는 동시에 꾸바 및 과테말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시위자들은 《자유》광장에서 군중 대회를 진행하였는 데 연설자들은 독재 정권과 그의 비호자인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단합할 것을 국내의 모든 민주주의 력량에 호소하였다.

6월 초 살바도르 《4월 및 5월 혁명》당 지도부는 일련의 정당 대표들과의 회합에서 케네디의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이 《계획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을 통제하며 착취하기 위하여 미제가 리용하는 새로운 가면》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앞서 기사 및 건축가 련맹은 이 계획에 의하여 미제가 제공하는 차관이 략탈을 목적한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6월 12일 수 천 명의 수도 시민들은 미제의 침략적인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 책임자가 살바도르에 기여든 것을 반대 항의하여 미국 전람관 앞에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6월 20일에는 8천 여명의 수도 시민들이 군중 집회를 열고 이 《계획》을 배격 규탄하였다.

9월 15일 10만 명의 수도 시민들이 꾸바 혁명을 지지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시위자들은 꾸바를 반대하는 반동적 친미 군부의 행동을 규탄하였는바 이 시위는 살바도르 력사에서 가장 큰 대중적 진출이였다. 24일에는 혁명 행동 통일 전선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반꾸바 책동을 단호히 반대 항의하였다.

9월에 독재 정부는 앙양되는 반미 반독재 투쟁을 말살하여 보려고 《반공법》을 조작 발표하였다.

니카라과

(니카라과 공화국)

Republic of Nicaragua

【면적】 14만 8,000 km²
【인구】 145만 명 (1960년)
【수도】 마나과 (주민 23만명)

정 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16명이고 하

원은 42명이다. 임기는 각각 6년이다.

【대통령】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 (1957년 2월 3일 피선)

【정당, 사회 단체】 **사회주의당** 전신은 공산당이다. 1948년 이래 비법화되여 있다. **민족주의 자유당** (집권당) 지도자 소모사 **전통 보수당, 독립 자유당, 근로자 총련맹**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으로서 전체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커피 및 락화생 생산의 4분의 3은 1천 개의 농장들에 집중되여 있다.

경제 명맥은 미국의 《유나이테드 파실 회사》와 소모사 일가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면화, 사탕수수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면화 등이며 수출 대상국은 주로 미국이다.

니카라과는 미국 독점 자본의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 있는 동시에 미제의 반큐바 책동의 기지로 되여 있다.

1959년 5월 이래 국내에서는 반미 반독재 무장 투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1962년에는 농민들의 진출이 강화되였는바 4월 1일 니카라과의 촌발레스주에서 무장한 농민들이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를 점거하였다. 치난데그주에서도 농민들의 무장 투쟁이 전개되였다.

코스타 리카

(코스타 리카 공화국)

Republic of Costa Rica

【면적】 5만 1,000 km²

【인구】 117만 3,000명 (1960년)

【수도】 산 호세 (주민 15만명)

정 치 【의회】 의회는 1원제로서 의원은 45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프란시스 오를리츠(1962년 2월 4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인민 전위당** 1930년에 창건된 공산당이 1943년에 개칭되였다. 총비서 마누엘 모라 발베르데 **민족 해방당**(집권당), **민족 공화당, 민족 련맹당, 사회당, 근로자 총련맹, 큐바 혁명의 벗 코스타 리카 협회**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이 미국에 예속되여 있으며 취업 인구의 과반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바나나, 코코아, 사탕, 담배 등이다.

미국 회사인 《유나이테드 파실 회사》는 이 나라 경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 독점 자본은 코스타 리카에서 외국인 경영 기업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금, 은, 철, 석유, 망간, 류황 등 지하 자원은 미개발 상태에 있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담배, 사탕 등이다.

미국의 혹심한 략탈과 착취로 인하여 코스타 리카 인민들의 생활은 극히 어려운 형편에 있다. 실업자는 6~7만명에 달한다.

1962년에 코스타 리카에서는 미제의 략탈 및 간섭 행위를 배격 규탄하며 미국에 추종하는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강력히 전개되였다. 7월 24일 코스타 리카 사회계는 정부가 소위 《중미 국가 경제 공동체》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코스타 리카 로동 총련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 《공동체》는 실업군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의 도움으로 제국주의자들은 중미 국가들에서의 혁명적 진출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련합》을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폭로 규탄하였다. 9월 초 코스타 리카 바나나 재배 로동자 통일 련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자국 정부가 미제에 굴종하여 큐바에 대한 미국의 침략 정책을 지지한 것을 항의 규탄하였다.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도 강화되였다.

8월 중순에 코스타 리카의 태평양 연안 남부 근로자 통일 련맹의 주최로 16개 농민 단체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자유 농민 대표 회의》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하며 대농장주들을 청산할 진정한 토지 개혁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8월 말에 훌피로에서 남 코스타 리카 농민 련맹의 주최로 진행된 농민 집회에서도 국회에 제출한 정부의 기만적인 토지 개혁 법안을 규탄하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토지 개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파 나 마

(파나마 공화국)

Republic of Panama

【면적】 7만 4, 470 km²(파나마 운하 지대는 제외)

【인구】 105만 3,000명 (1960년)

【수도】 파나마 (주민 30만명)

정 치 【국민 의회】 1원제로서 의원은 53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로베르토 치아리(1960년 10월 1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인민당** 전신은 공산당인데 1943년에 개칭하였다. 1953년부터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루벤 다리오 소우자 **전국 반대파 련맹**(집권당), **로동 조합 총련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경 제 국가 경제의 주도적 부문이 미국 자본에 지배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이고 식량은 매년 국내 수요의 60%를 수입하고 있다.

주요 지하 자원은 금, 철, 수은, 류황, 석유 등이다.

아동들의 사망률은 53%에 달하고 있다.

파나마 인민들은 파나마 운하의 귀속을 요구하며 미제의 지배를 반대하는 투쟁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파나마 운하 지대】 면적은 1,432

km²(그중 륙지 면적 952 km²), 운하의 길이는 81.3km, 깊이는 12m(제일 깊은 곳), 너비는 91.5 m(제일 좁은 곳)이다.

큐 바

(큐바 공화국)
Republic de Cuba

【면적】 11만 4,500 km²

【인구】 709만 9,100명(1961년 10월)

【수도】 하바나 (주민 115만 8,000명)

정 치 큐바 인민은 16세기 초부터 서반아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신음하다가 1898년 미 서 전쟁의 결과 미국의 지배 하에 들어 갔다. 큐바에서 공화국이 성립되고 미국 강점자가 물러간 것은 1902년이였다. 그러나 미국 침략자들은 1903년에 큐바에 강박하여 관타나모를 저들의 군사 기지로 전변시키고 큐바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였다. 1933년에 미제의 주구 바티스타는 정변을 통하여 정권을 장악하고 파쑈 테로 통치를 실시하였다. 원쑤들의 여하한 탄압도 미제와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큐바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을 막지 못 하였다.

1953년 7월 26일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큐바의 애국자들은 바티스타 독재의 요새 《몽카다》 병영에 대한 첫 무장 습격을 단행하였다. 《7.26》 무장 봉기는 비록 실패는 하였으나 반미 반독재의 첫 무장 투쟁으로서 큐바 인민의 력사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1956년 11월 2?일 82명의 무장 봉기자들이 멕시코로부터 큐바 해안에 상륙하여 씨에라 마에스트라 산중에 무장 유격 근거지를 설정하고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영웅적 투쟁을 또다시 개시하였다. 6천명으로 장성한 카스트로 봉기군은 1958년 여름부터 수도 하바나에 대한 진격을 개시하였다.

카스트로 봉기군은 1959년 1월 1일 수도 하바나에 돌입하여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1월 3일 큐바 공화국 혁명 정부를 수립하였다.

큐바 혁명 승리 후 미제는 큐바 인민을 반대하는 군사, 경제적 봉쇄와 간섭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조국이냐 죽음이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는 전투적 구호 하에 단결된 큐바 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

【대통령】 오스왈도 도르티코스 토르라도(1959년 7월 17일 취임)

【혁명 정부】 수상 피델 카스트로 루쓰

부수상 겸 혁명 무력상	라울 카스트로
공업상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외상	라울 로아
무역상	마누엘 루사르도 가르시아
로동상	아우구스트 마르티네스 산체스
농업상	페드르 미레트
보건상	마챠도 반투라

【정당, 사회 단체】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7월 26일운동》, 인민 사회당 및 《3월 13일 혁명 지도부》가 통합되여 1962년 3월 8일에 조직된 통일 혁명 조직을 1963년 초에 개칭하였다. 전국 지도부 제 1 비서 피델 카스트로, 제 2비서 라울 카스트로

비서국 성원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오스왈도 도르티코스, 블라스 로카, 에밀리오 아라고네스

혁명 로동 총련맹 서기장 라사로 페니아 **공산주의 청년 동맹** 1962년 3월 30일 청년 봉기자 협회를 개칭하였다. 총비서 조엘 이글레시아스 **녀성 련맹, 혁명 방위 위원회**

【주요 국내 사건】 1962년 3월 8일 큐바 통일 혁명 조직(현재의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지도자들의 회의에서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하여 25명으로 구성된 큐바 통일 혁명 조직 전국 지도부를 정식으로 창설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동 결정은 통일 혁명 조직이 맑스—레닌주의 조직이며 큐바의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인민의 혁명적 주권의 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7월 26일 큐바 인민 봉기 9주년 산챠고 경축 운동 대회에서 카스트로 수상은 전체 큐바 인민은 훌륭히 장비된 100만의 무장대오로 되였으며 큐바에서는 옛 시기가 영원히 과거지사로 되였다고 지적하고 《큐바 인민은 자력으로 조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 누구도 하루 사이에 풍족한 생활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한 생활은 긴장된 노력과 완강한 사업을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2월 6일 혁명 정부는 사회 보험 회사들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 로동자 구락부의 창설에 관한 법령, 유치원에 관한 법령, 물가에 관한 법령 등을 승인하였다. 사회 보험 회사들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은 일체 보험 기관들을 국가에 넘길 것과 로동시에 불구자로 되였거나 앓게 된 모든 로동자들에게 사회 보험을 적용할 것을 예견하였다.

2월 큐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지도부는 큐바의 새로운 경제 발전의 계획에 립각하여 경제 기구의 개편을 위한 기타 모든 국가 기관들의 사업을 통제할 목적을 가진 경제 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혁명 정부는 안토니오 누니에스 히메네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큐바 과학원 전국 위원회를 창설할 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8월 17~18일 하바나에서 약 2천명의 대표들의 참가 하에 큐바 사탕수수 협동 조합원 전국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현 큐바의 생산적 수요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적응하게 협동 조합을 인민 농장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5일 혁명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필수품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의류, 신발, 직물 및 철물 제품을 판매하는 데, 중 개인

상업 기업소들을 국유화할 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이에 의하여 약 5,500개의 대, 중 상업 기업소들이 국유화되였다).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1962년에 큐바 혁명 정부와 인민은 미제의 악랄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반대하여 긴장된 투쟁을 전개하였다.

2월 4일 하바나에서 150만 군중의 참가 하에 제 2 차 큐바 전국 인민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카스트로 수상은 《제국주의자들은 이 인민을 압살하며 다시금 자기의 지배에 복종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결코 큐바 혁명을 압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전선에서 그들에게 대항할 것인바 우리의 무력을 강화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다. 만약 제국주의자들이 또다시 우리 나라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총과 단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들을 반대하여 싸울 것이다》고 확고한 결의를 천명하였다. 대회는 미제와 그 추종국들이 1월 22~31일 간에 벌린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서 조작한 반큐바 《선언》에 대처하여 《제 2 하바나 선언》을 채택하였다. 《제 2 하바나 선언》은 큐바 혁명의 의의와 목적을 강조하는 동시에 큐바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2월 5일 미제의 새로운 침략 계획과 관련한 큐바 혁명 정부의 항의를 토의하는 유엔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큐바 대표는 미국의 자금과 장교들에 의하여 고용병들이 미국 특히 플로리다와 그 밖에 도미니카, 푸에르토 리코, 니카라과, 과테말라 및 파나마에 있는 군사 기지들에서 훈련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큐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책동을 규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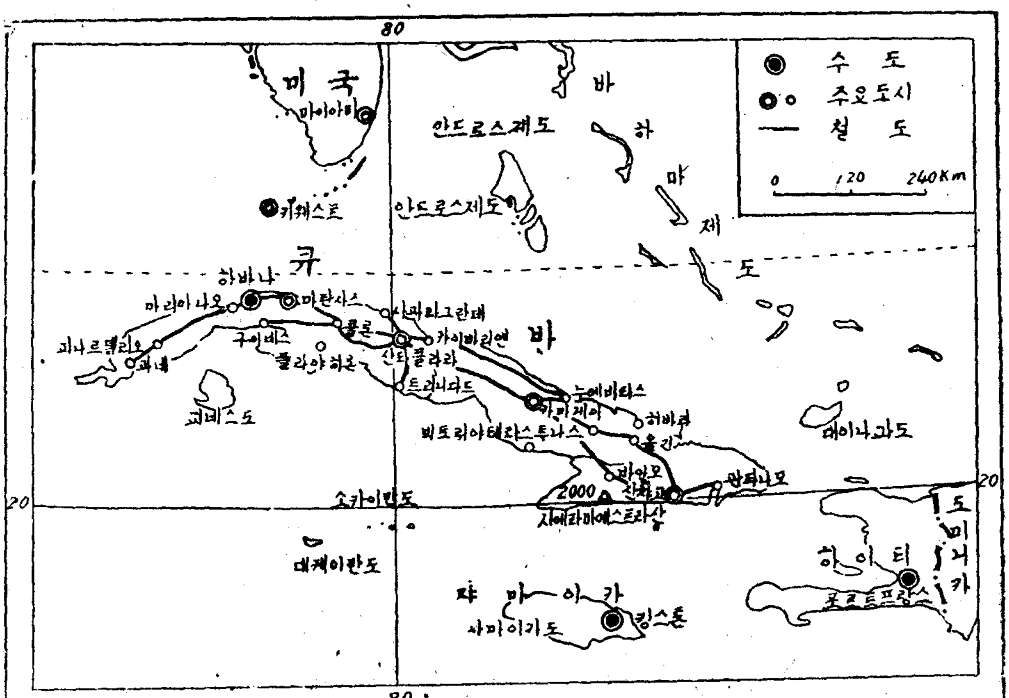
3월 14일 미제의 반큐바 침략 책동과 관련한 큐바의 제소에 의하여 열린 유엔 안전 보장 리사회에서 큐바 대표는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서 미국의 압력 밑에 채택된 《선언》과 결정이 큐바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 준비로 된다고 규탄하면서 만일 미제가 또다시 큐바를 반대하는 간섭 행동을 감행한다면 큐바 인민은 자기 조국을 목숨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7월에 수도 하바나와 기타 도시들에서는 큐바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간섭과 도발이 강화되고 있는 정세에 대처하여 큐바 정규군과 민병대의 방조자로 되는 인민 보위대가 《조국 보위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전투적 구호 하에 로동자, 사무원들로 조직되였다.

10월 22일 큐바에 대한 미제의 해상 봉쇄와 관련하여 큐바 전국에는 비상 사태가 선포되였다. 큐바 혁명군과 민병들은 총동원령의 하달과 함께 각기 맡은 조국 보위 초소에 배치되여 림전 태세를 견지하였다.

10월 28일 큐바 혁명 정부는 큐바에서 로케트 무기를 철수할 데 대한 쏘련 정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큐바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케네디가 말한 《담보》들은 그가 해상 봉쇄의 철회와 함께 큐바 정부가 제기한 5개 조항의 요구를 리행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만 현실성을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5개 조항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봉쇄와 미국이 우리 나라를 반대하여 세계 도처에서 감행하고 있는 경제적 및 통상적 압력의 모든 조치들을 중지시킬 것.



2. 모든 파괴 활동, 공중 및 해상을 통한 무기 및 폭발물의 투하와 투입, 고용병들의 침입 조직, 간첩 및 파괴 분자들의 파견, 즉 미국 령토와 일부 그의 충실한 추종국 령토들로부터 감행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을 중지시킬 것.

3. 미국과 푸에르토 리코에 있는 기지들로부터 감행되고 있는 해적적 공격들을 중지시킬 것.

4. 미국 군용기와 군함에 의한 우리의 령공과 우리의 령해에 대한 모든 침범을 중지시킬 것.

5.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철폐하고 미국이 강점하고 있는 이 큐바 령토를 반환할 것.

큐바 인민은 혁명 정부의 5개 조항의 요구 조건을 적극 지지하면서 미제의 발악적 침략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미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 애호 국가들과 인민들은 큐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동을 항의 규탄하며 큐바 인민의 투쟁과 큐바 혁명 정부의 5개 요구 조건을 지지하여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62년 10월 30~31일 간에 유엔 사무 총장 대리 우 탄트가 큐바에 설치되여 있는 쏘련 유도탄 기지 철거에 관한 유엔 감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큐바를 방문하였으며 11월 2~20일 간에는 미꼬얀이 큐바를 방문하고 카스트로 수상과 회담하였다. (국제 정세 개관 참조)

그러나 큐바 혁명 정부는 유엔이나 적십자사의 시찰 문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10월 28일에 제기한 5개 조항의 요구를 견지하였다.

11월 25일 큐바 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전국 지도부와 혁명 정부는 케네디의 11월 20일 부 《성명》과 관련한 공동 성명에서 큐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음모를 폭로 규탄하고 5개 조항의 요구 조건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1962년 10월 25일 우리 나라 정부는 큐바에 대한 미제의 범죄 행위를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15일에 우리 나라 외무성에서는 5개 조항의 요구 조건을 제기한 큐바 혁명 정부의 성명을 지지하여 조선 주재 큐바 공화국 대사관에 각서를 수교하였다. 이에 앞서 1월 30일 하바나에서 큐바 혁명 정부는 우리 나라와 1962년도 상품 교류에 관한 의정서를 조인하였으며 11월 19일 큐바 민주 법률 중앙 협회 총비서가 우리 나라를 친선 방문하였다. 6월 17일에 하바나 교외에서는 큐바—조선 친선 농업 생산 협동 조합이 창설되였다.

경 제 큐바에는 원유, 니탄, 철광, 니켈, 크롬, 망간 등 유용 광물이 풍부히 매장되여 있으나 미제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개발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큐바는 사탕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단작 경리 국가로 전락되였다.

큐바에서는 1959년 5월에 토지 개혁이 실시되여 46만 5,000 카발레리아 (전국 경지의 70%)의 토지가 몰수되여 약 15만 호의 토지 없는 농민들에게 분여되였다. 이리하여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 소유 관계는 청산되였다.

1962년 말에 큐바에서 사회주의 경제 형태에는 인민 농장이 289개, 사탕수수 전문 농장이 590개, 국영 농목장이 850개, 협동 농장이 292개가 들어 있었다. 이리하여 농업에서는 경지의 약 절반이 사회주의 경제 형태에 망라되여 있다.

큐바 정부가 실시한 산업 국유화에 의하여 1960년 말까지 미국 독점체들의 소유였던 12억 딸라에 달하는 800여 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인민의 소유로 전변되였다. 이리하여 1962년 말에 큐바에서 공업 생산액의 90 %이상이 국가 또는 기타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에 의해서 보장되였다.

1962년 말에 도매 상업의 거의 전부, 소매 상업의 40~50%가 국가 수중에 장악되여 있었다.

물가와 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961년에 새 화폐를 발행하는 조치가 취하여졌으며 대외 무역에 대한 국가적 통제도 확립되였다.

큐바에서 제반 개혁과 경제 건설은 미제의 부단한 경제 봉쇄와 무력 침략 책동 속에서 진행되였다. 1963년에 큐바 정부는 1963~1965년 계획에 착수하였다.

1963~1965년 계획이 해결할 중심 문제는 《농산 및 축산의 증가》와 《수출량과 품종의 확대》 그리고 1966~1970년에 실현될 《보다 급속한 공업화의 기초 축성》이다.

1958년부터 1962년에 이르는 기간에 미제의 군사, 경제적 봉쇄 및 도발이 계속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30% 이상 장성하였다.

【공업】 1962년에 공업 총생산량은 1958년에 비하여 22%(평가) 증가하였다. 1962년에 강철 생산량은 혁명 전의 10배에 달하였다.

공업 제품 생산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 말에 55%였는바 거기서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제탕 공업이다. 1962년에 161 개소의 제탕 공장들에서 약 3,700만 톤의 사탕수수를 가공하여 490만 톤의 사탕을 생산하였다.

1962년에 큐바에서는 원유 산지와 함께 세계 굴지의 니탄 산지가 발견되였다. 니켈광 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 3위, 그 매장량은 5억 톤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니카로에 있는 선광장에서만도 년 1만 6천~1만 7천 톤의 니켈 정광이 생산되고 있다. 철광 매장량은 30억 톤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동광도 채굴되고 있다.

새로운 공업 부문으로는 비료, 석유 공업이 창설되였다. 합성수지 공업은 각종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1962년에 3개의 금속 가공 기업소들이 개건 확장되여 그 능력은 수배로 제고되였으며 산차고, 시엔 푸에고스, 마리엘 등지에서

대규모 발전소들이 건설되고 있다.

【농업】 1962년에 쿠바에서는 극심한 한발이 있었기 때문에 사탕수수 생산은 감수를 보았으나 벼와 목화는 풍작을 보았다. 쿠바 정부는 1962년에 처음으로 사탕수수 수확에 기계들을 도입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1,000톤)

	1958	1962
사탕수수	47 983	36 692
담배	58.3	59
커피	31.5	58
옥수수	155	257
벼	225	320
면화	0.05	18

교육, 문화 혁명 정부의 인민적 시책으로 쿠바 인민의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특히 인민 교육 분야에서 달성된 성과인바 1961년 이 나라는 문맹에서 완전히 벗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문맹자가 없는 첫번째 나라로 되였다. 1962년 9월에 쿠바에서 인민 학교 학생수는 51만명으로서 혁명 전의 2.5배로 증가하였으며 중학교 학생수는 9만명, 기술 학교 학생수는 2만명이였다. 기타 7만명의 학생이 중학교 수준의 교육망에서 기술과 농업, 상업을 배우고 있다.

1962년에 쿠바의 각 대학에서는 7만명의 학생들이 교과서, 식비, 의복, 주택, 무상 치료들을 국가로부터 보장 받으면서 공부하였다.

1962년에 쿠바에서는 4만 5천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 체계에 망라되였다.

1962년에 쿠바에서는 16개의 중앙 및 주 혁명 교양 학교와 332개의 초급 혁명 교양 학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1만 4천명 이상의 학생들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학습하였다. 1961년 1월에 창설된 이래 이 학교들에서 1962년 9월까지 4만 1천명이 학습하였다.

쿠바 정부는 1962년에 보건 분야에 8,900만 페소를 지출하여 진료소, 병원, 료양소 및 휴양소들을 건설하였는바 이 금액은 1961년보다 1,700만 페소가 더 많은 것이였다. 한편 근로자들의 사회 보장금 및 모성들과 기타의 보조금으로 1억 6,800만 페소를 지출하였다.

【출판】 통신—프렌사 라티나 (라틴 아메리카 통신사)

신문—노티시아스 데 오이(사회주의 혁명 통일당 기관지) 레볼루시온 (혁명 정부 기관지) 멜리아(공산 청년 동맹 기관지)

자마이카

Jamaica

【면적】 1만 1,400 km²
【인구】 160만 6,546 명(1960년)
【수도】 킹스톤(주민 38만명)

정 치 쿠바의 남쪽 카리브 해상에 있는 섬 나라로서 17세기 중엽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에 영국 식민주의자들은 자마이카와 기타 서인도 제도로써 《서인도 련방》을 형성하였다. 1961년 9월에 진행된 국민 투표에서 자마이카 인민들은 《서인도 련방》으로부터의 탈퇴와 독립을 요구하였다. 1962년 2월 런던에서 진행된 헌법 문제에 관한 영국—자마이카 대표들의 회의에서 영국 정부는 영 련방의 테두리 내에서 자마이카에 독립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였다. 같은 해 4월 국회 선거가 진행되였고 8월 6일에는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정부】 수상 알렉산드르 부스타멘테

경 제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코코아, 담배 등이다. 주요 지하 자원은 보키사이트(매장량은 5억~6억톤, 채굴량은 자본주의 세계 채굴량의 약 10%), 린회석, 연, 아연 등이다. 광산들과 농산물 가공 공장들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미국 독점체들에게 장악되여 있다.

하 이 티

Republic of Haiti

【면적】 2만 7,800 km²
【인구】 355만 5,000 명(1960년) 주민 중 95%는 흑인이다.
【수도】 포르토 프란스(주민 20만명)

정 치 하이티는 1492년부터 서반아 식민지로 있다가 1697년부터는 불란서 식민지로 되였다. 하이티 인민들은 1804년에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을 몰아 내고 1806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하이티는 세계에서 첫 흑인 공화국으로 되였다.

1915년에 미국은 하이티를 강점하고 그를 자기의 식민지로 전변시켰다. 1934년에 미국은 반미 운동과 인민들의 압력에 못 이겨 이 나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62년 1월에 있은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서 하이티 대표는 미제의 압력에 못 이겨 쿠바를 《미주 국가 기구》에서 《축출》할 데 대한 결의에 찬성하기는 하였으나 회의 과정에 쿠바에 대한 어떠한 제재 조치도 《하이티는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하이티의 이러한 립장에 대하여 미제는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지하였으며 현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계기로 자기에게 충실한 다른 괴뢰를 정권에 앉히기 위해 하이티에 대한 간섭을 로골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21 명이고 임기는 6 년이다. 하원 의원은 37 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대통령】 에프 듀발리에 (임기는 6년, 1937년 10월 취임)

【정당, 사회 단체】 인민 통일당 1934년에 창건된 공산당의 후신으로서 1951년에 비법화되였다. 《하이티 혁명 해방 전선》

민족 통일당 지도자 듀발리에 **하이티 전국 해방 운동, 전국 로동 총련맹**

경제, 사회 하이티는 락후한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농업 국가이다. 주민의 90%가 농업에 종사한다.

경지는 전국 면적의 3분의 1이며 주요 농산물은 커피, 사이잘삼, 바나나, 코코아, 사탕, 면화 및 담배이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하며 수입한다.

이 나라 경제 명맥은 미국 독점 자본(이 나라에 투자된 외국 자본의 70%를 차지)에 장악되여 있다. 미국 《하이네이 회사》는 하이티의 철도, 조선소 및 제탕 공장들을 장악하고 있으며 또한 2만 3,000 헥터에 달하는 사탕수수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 하이티의 풍부한 보키사이트와 아연광 및 전력 생산과 대외 무역도 모두 미국인 회사에 집중되여 있다. 이 나라 수출의 약 3분의 2와 수입의 4분의 3이 미국과 진행되고 있다.

1960년에 실업자는 15만 명에 달하였으며 주민의 85%가 문맹자이다.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Republic of Dominica

【면적】 4만 8,700 km²

【인구】 320만 5,000명 (1962년)

【수도】 산토 도밍고 (47만 7,782명, 1960년)

정치 **【대통령】** 후안 보슈 (1962년 12월 20일 피선)

【국회】 량원제이며 상하 의원들의 임기는 각각 5년이다.

【정당, 사회 단체】 **인민 사회당** 전신은 1942년에 창건된 공산당인데 1946년에 개칭되였다. 1947년 8월에 비법화되였다. **《민족 공민 동맹》, 《도미니카 혁명당》, 도미니카 해방 운동 《6월 14일 혁명 운동》, 로동 련맹**

경제, 사회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이 나라의 주되는 산업인 사탕수수 재배는 국민 소득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코코아, 커피, 바나나, 담배 등이 생산된다. 식량은 자급 자족하지 못한다. 농업을 포함한 경제의 주요 부문을 미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16개의 제탕 공장 중에서 9개가 미국 자본에 속해 있다.

금, 은, 동, 철, 철반토, 석유 등 지하 자원은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업은 주로 농산물 가공을 위주로 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전체 수출의 60%를 차지) 사탕, 커피, 코코아, 담배 등이다. 대외 무역도 미국의 독점 하에 있다.

인민들은 무권리와 기아에서 헤매고 있다. 학령 아동의 절반이 공부를 못 하고 있으며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다.

1962년에 도미니카 인민들은 1월 18일 미제가 사촉한 쿠데타를 통하여 집권한 새로운 친미 독재 정권의 반인민적인 테로 통치와 미제의 침략적인 간섭 행위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다.

2월 27일 인민 사회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인민들에 대한 괴뢰 정부의 탄압을 통렬히 규탄하는 한편 미제의 새로운 간섭을 적시에 분쇄하기 위하여 전체 인민이 동원되고 굳게 단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3월 30일 북부의 항구 도시인 플라타시에서 친미적인 본넬리 독재 정권을 반대하여 수천명의 주민들이 시위를 진행하였다. 12월 19일 수도에서는 《도미니카 정부가 실시하려는 총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한 진출》로서의 반정부 무장 폭동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에 당황한 반동 정부는 무장 경찰을 급히 동원하여 폭동자들을 탄압하려고 날뛰였으며 경찰은 최루탄까지 사용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2월 15일 수도에서는 학생 련맹, 로동 련맹, 기타 단체 성원 수백명이 참가한 강력한 반미 시위가 단행되였다. 시위자들은 거리에 나타난 양키들에게 돌멩이 벼락을 안기고 대통령 궁전 앞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워 버렸다. 5월 2일 산챠고시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간섭과 침략 정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진행되였는데 시위자들은 이 도시에 있는 미국 공보원 건물에 밀려가 창문의 유리들을 모조리 까부셨다. 이날 산토 도밍고에서도 반미 시위가 있었다. 7월 7일 2,500명의 수도 주민들은 《양키들은 돌아가라!》, 《양키 제국주의는 우리의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다》 등의 구호판들을 들고 미국 대사관을 향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생존의 권리와 생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투쟁도 또한 힘차게 전개되였다. 7월 26일 정부 기관 종업원들과 26개 로동 조합 산하 로동자들은 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을 반대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파업자들은 공공 건물들에 돌멩이를 던졌으며 《체이스 만하탄 은행》 건물의 유리창들을 마사버렸다. 10월 6일 도미니카의 8개 제탕 공장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정부계의 《엘 카리브》 신문사 종업원들은 로무자를 부당 해고한 관리측의 처사에 항의하여 10월 5일부터 각각 파업을 단행하였다.

농민들도 착취와 굴욕을 반대하는 투쟁에 무장을 들고 진출하였다.

12월 28일 도미니카 남부의 농촌 지구 바르마 소라에서 수천명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무장한 농민들과 정부군 간에 류혈적인 충돌이 있었다. 이러한 투쟁은 년중 도처에서 일어났다.

인민들의 반미 반독재 투쟁의 앙양은 정부의 정치적 위기를 격심하게 만들었는바 그것은 군사 쿠데타에 의한 빈번한 정권 교체로 표시되였다.

1월 16일 미제의 사촉 하에 무력상 에체바리아를 두목으로 하

는 트루힐로 도당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16일 전에 구성되였던 《군사 정변》을 전복하였으며 2일 후인 18일에는 공군 장교 그루빠들의《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푸에르토 리코

(푸에르토 리코 자유 련방)

Commonwealth of Puerto Rico

【면적】 8,900 km²

【인구】 235만 2,000명 (1960년)

【수도】 싼 후안(주민 42만 4,000명)

정 치 푸에르토 리코는 1898년에 미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이 나라는 1952년 7월 25일《자치국》으로 되였다.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32명, 하원 의원은 64명, 임기는 각각 4년이다.

【총독】 루이스 무노스 (1960년 4차로 피선)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4년 9월에 창건되여 1944년에 해산되였다가 1946년에 재건되였다. 위원장 쥬안 싼토스 리베라 인민 민주당 (집권당), 국민당, 독립당, 청년 독립운동, 로동 총련맹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국이다.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커피, 담배, 과실 등이며 금, 주석, 은, 연, 동, 대리석 등 지하 자원도 풍부하다. 미국은 이 나라 자원과 토지의 80%를 장악하고 있으며 푸에르토 리코 령토의 13%를 자기의 군사 기지로 리용하고 있다. 미국은 푸에르토 리코 수출의 95%, 수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로동자들의 매인당 평균 수입은 미국 로동자 수입의 4분의 1에 불과하며 특히 농업 로동자들의 임금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낮다.

실업자 수는 7만~9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3~5만명이 일자리를 구하여 해외로 떠나고 있다.

미제는 푸에르토 리코에서 식민지 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책동을 감행하고 있다. 1962년에 미제는 푸에르토 리코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국민 투표》를 조작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음모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반항을 불러 일으켰다. 9월에 푸에르토 리코 공산당은 성명에서 미국의 이러한 간악한 음모를 폭로 규탄하면서 미국의 기만 술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것을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푸에르토 리코 청년 독립 운동 제 1 차 전국 대표자 회의는 성명을 발표하고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있는 미국 정부의 괴뢰들을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공동의 원쑤라고 규탄하였다. 7월에 수도 싼 후안 부근에 있는 베가 바하시에서 미국 문화의 침습을 반대하는 시위가 단행되였다.

트리니다드—토바고

Republic of Trinidad and Tobago

【면적】 5,128 km²(그중 트리니다드 4,828 km²)

【인구】 85만 9,000명 (1961년)

【수도】 포트 오프 스페인(주민 9만명)

정 치 트리니다드—토바고는 카리브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1797년까지 서반아의 식민지로, 1802년부터 165 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이 나라 인민들은 장구한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 끝에 1862년 8월 31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정부】 수상 윌리암스

경 제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코코아, 바나나, 야자, 귤 등이다. 주요 지하 자원은 석유, 피치 등이다. 석유는 이 나라 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석유는 690 만 톤 생산되였다.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 공화국)

Republic of Venezuela

【면적】 91만 2,000 km²

【인구】 759만명 (1961년)

【수도】 카라카스(주민 약 112만명)

정 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52명, 하원 의원은 133명이며 임기는 각각 5년이다.

【대통령】 로물로 베땅쿠르(1959년 2월 13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7년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헤수스 파리아 민주 행동당 (집권당), 공화 민주 련맹, 기독교 사회당, 《좌익 혁명 운동》당 1960년 4월 민주 행동당과 분렬되여 조직되였다. 석유 공업의 국유화, 대토지 소유제의 청산을 주장하며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있다. 위원장 안토니오 델가도 로자노

【주요 사건】 미제와 베땅쿠르 친미 독재 정권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는 베네주엘라 인민들의 투쟁은 1962년에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무장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4월 11일 자동 무기로 무장한 투사들이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수도 카라카스에서 3개의 방송국을 공격하고 수명의 정부군을 살상하였다. 5월 4일 베네주엘라에서 가장 큰 해군 기지인 카루파노시에서 해군 륙전대 병사들이 반정부 폭동을 일으켰다. 봉기자들은 도시를 점령하고 현 베땅쿠르 정부를 반대한다고 선포하였다. 이 폭동에는 카루파노에서 50키로메터 떨어져 있는 카리피로시의 근위대도 가담하였다. 봉기군은 투항하라는 정부의 최후통첩을 물리치고 폭동에 가담할 것을 기타 해군 부대들에 호소하였다.

이 폭동 이후 정부를 반대하는 봉기군과 정부군 간의 무장 충돌이 수도를 비롯한 기타 도시들에서 련이어 일어났다. 수도 카라카스의 일련의 지역들에서는 무장한 주민들과 경찰 간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팔콘주에서는 수개의 빨찌산 부대들이 경찰 부대와 6시간에 걸쳐 전투를 진행하였다. 6월 2일 카라카스에서 얼마 멀지 않은 푸에르토 카벨로 해군 기지에서 약 1,200명의 군대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카파데항의 주민들은 애국 려량에 합류하여 정부

군과 3일 동안 격전하였다. 폭동군은 이 기지의 해군 사령관을 포로하였으며 감방에 감금되여 있던 800명의 정치범들을 석방하였다. 폭동군의 일부 그루빠들은 폭동에 합류한 시민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서 유격 부대를 조직했다.

군대들의 무장 폭동에 뒤'이어 6월에 공산당을 비롯한 국내의 혁명적인 정당들로 조직된 《민족 해방 전선》의 지도 하에 민족 해방군이 창설되였다. 이것은 베네주엘라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에서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 민족 해방군 창설 이후 유격 투쟁은 전국 도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였다. 팔콘주를 비롯한 일련의 지방에는 이미 《베네주엘라의 자유로운 령토》라고 불리우는 유격 근거지가 창설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진출에 당황한 반동 지배층은 파쑈적 탄압에 날뛰였다. 5월 10일 베탕쿠르 대통령은 공산당과 《좌익 혁명 운동》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이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들을 점령할 것을 명령하였다.

또한 정부는 10월 8일 헌법상의 담보를 페지할 것을 재차 발표하고 진보적 신문들을 페간하며 수많은 애국적 인사들을 검거 투옥하는 등 만행을 수 없이 감행하였다.

그러나 반동 지배층은 인민들의 진출을 막을 수 없었다. 투쟁은 더욱 고조되였다. 무장대들은 백주에 정부 청사, 방송국, 경찰서들 그리고 미국인 상업 회의소, 미국인 백화점, 미국 기관들을 점령 또는 폭파시키고 정부군과 경찰들을 도처에서 습격 소탕하였다. 1963년 2월 13일 민족 해방군 소부대는 베네주엘라 북방의 공해 상에서 베네주엘라 화물선 《안조아테구이》호를 나포하였다. 이 사건은 베네주엘라 지배층에게 일대 혼란을 주었으며 베네주엘라에 있는 미국의 리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되였다. 미제는 이 화물선을 돌려 세우려고 비행기와 함대까지 동원하여 위협하였으나 배는 항로를 변경시키지않고 브라질에 무사히 입항하였으며 작전은 성공하였다.

베네주엘라 인민들은 또한 큐바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옹호하고 있으며 큐바 혁명의 성스러운 위업을 항상 고무 지지하고 있다. 1962년 10월 3일 베네주엘라 인쇄 공업 일'군 3,000 여명은 회의를 열고 만일 미 제국주의자들이 큐바를 반대하는 새로운 군사적 모험을 개시한다면 베네주엘라 근로자들은 구체적인 행동을 개시하여 《큐바 인민의 권리를 옹호할 우리의 확고 부동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면서 계급적 련대성을 표명하였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되는 분야는 농업과 광업이다. 원유와 철광석이 풍부한 나라로서 석유 매장량 및 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 제 2 위, 수출량은 제 1위이며 그의 수출액은 국가 총수입의 60%를 차지한다. 철광석 매장량은 20억톤에 달하며 기타 금, 석탄, 망간, 니켈, 수은, 류황 등 자원도 풍부하다. 기후는 온화한 편이고 토지가 비옥하다. 베네주엘라는 유리한 자연 경제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독점 자본의 침투와 지배 계층의 반인민적 매국 정책으로 인하여 락후한 반식민지적 처지에 놓여 있다.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에 대한 전체 투자액의 60%를 베네주엘라에 투자하였으며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로부터 략탈하는 리윤 총액의 25%를 베네주엘라에서 짜내고 있다. 미국 석유 회사는 이 나라 원유 생산의 59%, 원유 채굴 조차지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석유는 1억 6,700만톤, 철광석은 1,330만 톤, 금강석은 517만 6천카랏트 (1카랏트=0.205그람) 생산되였다.

농업은 극히 락후한 형편에 있다. 이 나라에는 1,700만 8천헥타의 방목지와 목장, 그리고 160만 헥타의 경작지가 있다. 그러나 이 광대한 토지의 80%는 극소수의 대지주와 미국 회사들에, 장악되여있다. 주요 농산물은 커피, 코코아이며 기타 밀, 담배, 사탕, 면화, 쌀 등도 생산된다.

주요 수출품은 석유, 철광, 커피, 코코아 등인데 석유와 철은 총 수출의 97%를 차지한다. 미제의 가혹한 략탈과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으로 인하여 인민들은 빈궁과 질병, 무권리 속에서 살고 있다. 실업자수는 60만명에 달하며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며 농촌에는 아무런 의료 시설도 없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공화국)

Republic of Colombia

【면적】 113만 9,200 km²

【인구】 1,413만 2,000명 (1960년)

【수도】 보고타(주민 112만 명)

정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80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하원 의원은 148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 레온 발렌시아 길레르모 (1962년 8월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30년 7월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화이트 힐베르토 비에라 자유당, 자유 혁명 운동당, 로동 련맹, 전국 농업 로동자 련맹 1962년 10월 콜롬비아 전국 농민 대회에서 창설되였다. 통일 로조 위원회

【주요 사건】 1962년에 콜롬비아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반미 반정부 투쟁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11월 콜롬비아 공산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금융 기관들의 요구와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에 근거하여 작성된 자국 정부의 반동적 경제 계획을 폭로 규탄하였다.

10월 6일 콜롬비아 공산 청년 동맹 중앙 집행 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의 추악한 정책을 폭로하

였으며 이 《계획》을 선전하려고 싸다니는 모스코스타는 자를 콜롬비아에서 즉시 축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5일에는 보고타에서 모스코스의 《방문》을 반대 항의하여 시위가 진행되였다.

10월 1일에는 미국 독점체 《스탠다드 오일》 산하의 《인터내슈널 석유 회사》 로동자들이 해고된 24명의 자기 동료들을 복직시킬 것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한편 미국인이 경영하는 《텍사스 페트롤룸 회사》 산하 기업소 로동자들의 2주일에 걸친 파업과 《포트랜드 금강석 회사》 세멘트 공장 로동자들의 83일 간에 걸친 파업 투쟁은 임금 인상을 비롯한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관철하였다. 12월 6일 사마카지역 탄부들도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 투쟁을 계속 하였다.

12월 17일에 폐막한 콜롬비아 석유 로조 련맹 제 6차 전원 회의는 모든 외국인 소유 회사들을 국유화하고 국영 콜롬비아 석유 회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10월 콜롬비아 농민 대회가 진행되였는 바 대회에서는 로동자, 농민의 통일과 《땅을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 하에 토지 개혁을 실시할 것을 예견하는 기본 원칙들에 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외국 독점체들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농업 로동자들에게 분배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콜롬비아 인민들의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점차 무장 투쟁의 형태로까지 확대 발전하였는 바 콜롬비아 인민 무장대들은 이 나라의 16개주들 중 11개 주에서 활동하였으며 동부 지방과 안데스 산맥 구역을 장악하였다.

1962년 12월 말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미국의 반큐바 고용병 2천명이 군사 훈련을 받고 있었다.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이 나라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3%에 불과한 지주가 경지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민의 60%가 토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주산물은 커피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 제 2 위)이고 기타 바나나, 사탕수수, 면화 등도 생산된다. 콜롬비아는 미국의 원료 가격 인하 정책으로 1961년까지의 7년 동안에 12억 딸라의 손해를 보았다. 이것은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으로 콜롬비아에 준 미국의 차관의 8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주요한 자원은 석유 (1962년도 생산량은 720만 톤), 석탄, 금, 백금 등이다.

나라의 자원은 미국 독점체들과 국내 대자본가, 대지주들의 수중에 들어 있다. 미국 독점 자본가들은 특히 원유 채취의 85%를 장악하고 있다. 공업에서는 경공업이 위주이며 여기에서는 약 27만명의 로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국가 채무는 6억 9, 800만 딸라에 달한다.

1962년에 지불 발란스의 적자는 1억 1, 100만 딸라에 달한다. 1962년 11월에 진행된 화폐의 평가 인하로 말미암아 콜롬비아의 페소 가치는 24%나 폭락하였다. 미국 독점체들에 나라의 경제가 예속된 결과 인민들의 경제적 처지는 매우 한심하다. 1962년 말에만도 생계비는 5.8%가 올랐다. 주택 부족 수는 28만 세대이다. 아동 사망률에 있어서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주민의 50%가 문맹자이며 학령 아동의 50%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영령 기아나

【면적】 21만 4,970 km²
【인구】 55만 9,000명 (1960년)
【수도】 죠지타운(주민 12만명)

정 치 영령 기아나는 1814년에 영국 식민지로 되였다. 영국은 이 나라 인민들의 앙양된 민족 해방 운동의 압력 하에 1953년부터 부득이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헌법을 허용하였다. 동년 4월에 실시한 의회 선거 결과 인민 진보당의 쟈간을 수상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였다. 쟈간 정부는 일련의 민주주의적 개혁 강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당황하여 영 식민주의자들은 동년 10월 무력으로 이 정부를 전복하였다. 1957년 8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인민 진보당이 재차 승리하고 쟈간 정부가 또다시 수립되였다.

영 식민주의자들은 즉시적인 독립을 요구하는 쟈간 정부와 기아나 인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960년 런던에서 《헌법 제정 회의》라는 것을 벌려 놓고 국방과 대외 정책을 저들이 계속 장악할 수 있게 한 기만적인 새 헌법을 조작해 냈다. 새 헌법에 기초하여 1960년에 실시된 국회 선거에서 미 영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방해 책동은 수치스럽게 패배 당하였다.

민족적 독립을 위한 기아나 인민의 강력한 진출에 직면하여 영 제국주의자들은 1961년 여름 기아나의 《내부 자치》를 인정하고 그 후 독립을 부여할 데 대한 회의를 여는데 동의하였다. 같은 해 독립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런던에서 진행된 회의는 식민지 통치를 계속하려는 영국의 부당한 고집으로 11월에 실패로 끝났다.

1962년 2월 16일 미 영 제국주의자들은 저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고 있는 야당들과 기타 반동들을 사촉하여 반정부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식민주의자들의 음모는 쟈간 정부 주위에 단결된 기아나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진압되였다.

【정부】 수상 겸 발전 계획상 체디 쟈간

【정당, 사회 단체】 인민 진보당

1950년에 성립되였다. 자산 계급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도자 체디 쟈간 인민 민족 대회 1955년 인민 진보당에서 떠러져 나온 우파로 조직되였다.

경 제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며 주요 농산물은 사탕수수, 쌀(1960년에 12만 6,100톤 생산), 야자, 커피, 코코아 등인데 그 재배 면적은 전체 경지의 75%에 달한다. 전 령토의 87%가 산림 지대이다.

보키사이트, 금강석, 금, 철, 망간, 운모 등 광물 자원도 있다. 특히 보키사이트 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에서 제 2위이다.

주요 수출품은 사탕, 보키사이트, 망간, 쌀, 목재, 금, 금강석인데 그 중에서도 사탕과 보키사이트는 수출액의 약 75%를 차지한다.

경제의 주요 명맥은 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는바 사탕수수 생산의 98%는 17개의 영국인 회사들에 독점되여 있으며 사탕 생산의 70%도 영국 독점 회사들에 장악되여 있다.

화란령 기아나

(수리남)

【면적】 14만 2,822 km²

【인구】 24만 600명 (1958년)

【행정 중심지】 파라마리보 (주민 10만 명)

1667년에 화란 식민지로 되였다. 전후에 미제는 화란령 기아나에 대한 경제적 침투를 강화하는 한편 이 나라에 공군 기지를 설치하고 있다. 1962년 4월 미국은 화란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 지역을 제 맘대로 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면적의 90%는 무인 지대이며 보키사이트, 금 등 자원이 풍부하다. 주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은 쌀,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담배, 코코아 등이다. 보키사이트 생산량은 자본주의 세계 제 1위인바 그 대부분은 미국 독점체에 장악되여 있다.

불령 기아나

【면적】 약 9만 km²

【인구】 3만 2,000 명 (1959년)

【행정 중심지】 카얀느 (주민 1만 3,000명)

불란서 식민지로서, 불란서인 총독의 관리 하에 있다.

농업이 위주이고 주산물은 쌀, 옥수수, 사탕수수, 바나나, 코코아, 커피 등이다. 보키사이트, 철, 유색 금속 및 희유 금속 등 광물 자원이 매장되여 있다.

브라질

(브라질 합중국)

United States of Brazil

【면적】 851만 6,000 km²

【인구】 7,500만 명 (1963년)

【수도】 브라질리아 (주민 약 15만 명)

정 치 **【대통령】** 죠안 굴라르트 (1961년 9월 취임)

1961년 9월부터 실시된 의회 책임제를 페지하고 1963년 1월 9일부터 대통령 책임제가 복구되였다.

【국회】 상하 량원제로서 1962년 10월 7일 하원 의원 전원, 상원 의원 3분의 2가 선거되였다.

【정부】 현 내각은 1963년 1월 24일에 구성되였다. 외상 헤르메스 리마, 국방상 아마우리 크루엘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2년 3월 2?일에 창건되였다. 1962년 2월 프레스테스를 비롯한 반당 수정주의자들을 축출하고 당을 재조직하였다. **사회 민주당** 위원장 아마랄 페이소토 **로동당** 위원장 굴라르트 **공화당**, **사회 진보당**, **민족 민주 련맹 로동 총 련맹**,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 **큐바 혁명 옹호 협회**

【주요 사건】 1962년에 브라질에서는 미제와 그와 결탁한 브라질 반동들을 반대하는 진보적 력량의 진출이 강화되였다.

2월 16일 리오 그란데 도 술주 정부는 1927년에 특권을 획득하여 이 주의 전화 업무를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텔레포니카 나쇼날》 전화 회사를 몰수하였다. 5월에 브라질의 광업 및 동력성은 나라의 유용 광물과 동력 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 사업을 오직 브라질 인민들에게만 허용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8월 국회 하원은 브라질에 투하된 외국 자본에 의해서 얻어진 리윤의 해외 송금을 투하된 자본의 10% 이하로 제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미제와 그 비호 하에 있는 브라질의 반동 우익 세력들은 진보적 력량을 반대하는 횡포한 공세를 취하였다. 이것은 6월 26일 국회 선거(10월)와 관련한 내각 총사직을 계기로 더욱 첨예화되였다. 굴라르트 대통령은 네베스 내각 사직후 자주적 대외 정책 실시를 주장하는 외상 단타스를 새 내각 수상으로 임명할 것을 국회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미제에 추종하는 사회 민주당과 민족 민주 련맹 출신 의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회에서 대통령의 제안은 채택되지 못 하였다.

미제는 1962년 1월부터 4월까지만도 《관광단》, 《기술자》의 명목으로 브라질에 간첩 암해 분자 3천명을 투입하고 《정변》 음모를 꾸미였다.

브라질의 진보적 력량은 미제와 국내 반동들의 《정변》 음모를 반대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부 수립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6월 26일 브라질 국회 의원 100여 명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앞으로 수립될 정부가 토지 개혁과 기타 개혁들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7월 5일 리오 데 쟈네이로에서 로동자들은 민주주의적 정부의 수립을 요구하여 24시간 총파업

을 단행하였다. 브라질 공업 로동자 련맹의 호소에 호응하여 파업은 국내의 모든 주요 공업 중심지들에 파급되였다.

7월 2일 국회는 사회 민주당 출신인 상원 의장 안드라데를 수상으로 임명하였는바 그는 자기의 신복들로 신 내각을 구성하였다. 굴라르트 대통령은 이 내각을 《반동적》인 것이라고 락인하고 비준을 거절하였다. 대통령의 거부에 의하여 안드라데는 수상직을 물러났다.

9월 14일 상원은 대통령 책임제를 복구할 데 대한 국민 투표의 실시를 거부하였는바 이에 항의하여 자주적 외교 정책을 실시하던 브로샤도 다 로챠 정부(7월 초에 취임)가 사임하였다.

조성된 정세 속에서 굴라르트 대통령을 지지하는 브라질 제 1, 제 2 및 제 3 군은 경계 태세를 취하였으며 대통령을 지지하여 로조 지도부가 9월 14일에 선포한 브라질 근로자들의 총파업은 여러 주들을 휩쓸었다.

대중 투쟁의 압력 하에 국회는 1963년 1월 6일에 대통령 책임제를 복구하느냐 국회 책임제를 존속시키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국민 투표를 실시하며 하원 의원들의 비준을 받지 않고 림시 정부를 구성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령을 비준하였다. 굴라르트 대통령은 에르메스 리마를 수상으로 하는 림시 정부를 구성하였다.

10월 7일 국회 상 하원과 지방 관리 기관 선거가 진행되였다. 일련의 지방들에서 인민 출신 립후보자들이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1962년에 조세의 삭감, 생활 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며 지주들의 가혹한 착취를 반대하여 자기들이 점거한 땅을 수호하기 위한 브라질 농민들의 투쟁은 점차 무장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1962년 3월 파라나주에서는 대토지 소유자들을 반대하여 궐기한 농민들이 무장을 갖추고 두개의 대농장을 점거하였다. 이와 같은 투쟁은 4월에도 계속되였다. 6월에는 파야스주에서 이러한 무장 진출이 있었는바 고용 농업 로동자들은 농촌 부락들을 습격하여 대토지 소유자들의 주택들을 파괴해 버렸다. 4월 파라나주 농민 협회 지도자가 지주들에 의해 살해된 것과 관련하여 파라나주와 부근의 수개 주의 3만 5천명 농민들은 항의 시위를 단행하였다. 《5.1》절을 계기로 하여 쿠리타바에서 4천명의 농민, 학생 및 로동자들이 《토지 개혁을 요구한다》, 《농민을 살해하는 테로분자들을 처단하라》는 표어를 높이 들고 시위를 단행하였다.

생활과 권리를 위한 브라질 로동 계급의 투쟁은 년중 그칠 사이 없이 단행되였는바 7월 30일에는 브라질 최대의 커피 수출항구인 산토스에서 약 2만명의 부두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7월 5일 리오데 자네이로의 4개 교외 도시에서는 기아를 반대하는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였다. 수천명의 봉기자들은 상점, 식당, 창고, 빵 공장 및 배급소들을 습격하였는데 이때 인민들에 항거해 나선 상인들을 포함하여 42명이 죽고 700 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제, 사회 공업이 비교적 발전하였으나 경제의 명맥은 외래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자원은 철(매장량 160억톤), 석탄(매장량 50억톤), 망간(매장량 6,500만톤), 원유, 우라늄이다.

외국 자본은 브라질 자동차 공업의 69%, 제약 공업의 69%, 자동차 부속품 생산에서 57%를 통제하고 있다.

1962년에 석유는 430만 톤, 석탄은 230만 톤, 강철은 290만 톤, 선철은 210만톤, 금강석은 35만 카랏트 (1카랏트=0.205g) 생산되였다.

경지의 80% 이상은 주민의 2%에 불과한 대지주에 장악되여 있다. 브라질은 세계 커피 수출에서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커피, 면화, 사탕, 목재, 철광, 석유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과 서독이다.

미제에 의한 원료 가격의 폭락으로 브라질의 무역 결손은 1961년의 5,700만 딸라로부터 1962년에는 2억 2,900만 딸라로 격증하였다. 브라질은 1962년까지 23억 5,700만 딸라의 대외 부채를 걸머지고 있다.

브라질은 1961년에 1954년보다 36만톤이나 더 많은 커피를 수출하였으나 수입은 2억 3천만 딸라나 감소되였다.

물가가 부단히 등귀하고 있는바 근로자들의 수입은 물가 등귀를 따르지 못 하고 있다. 1962년에만도 생계비는 52% 등귀하였다.

브라질에서 빈부의 차이는 아주 크다. 브라질의 동북부 도시들에 있는 빈민들은 세계적으로 제일 비참하다. 브라질에서 주택 부족수는 200만 내지 300만 세대를 헤아리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문맹자이고 특히 농민들 속에서의 문맹자는 80%에 달한다. 전체 아동의 58%가 미취학자이다.

에꾸아도르

(에꾸아도르 공화국)
Republic of Ecuador

【면적】 27만 700m^2

【인구】 439만 6,300명 (1960년)

【수도】 키토(주민 29만 9,900명)

정 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45명, 임기는 4년이다. 하원 의원은 75명, 임기는 2년이다.

【대통령】 아로세메나(1961년 11월 7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6년 5월 16일에 창건되였다. 총비서 페드로 사이토 **보수당, 급진 자유당, 사회 통일당, 인민 혁명 운동** (통일 전선체), **근로자 련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혁명 청년 련맹, 큐바 혁명의 벗 협회

【주요 사건】 1962년에 에쿠아도르 인민들은 생존의 권리와 처지 개선을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7월 11일 제분 공장 《아리나스 델 에쿠아도》 로동자들은 로동 조건의 개선과 해고된 동료들의 복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파업자들은 공장 건물을 점거하였다. 26일에는 에쿠아도르에 있는 《유나이테드 과실 회사》와 기타 회사들에서 일하는 과실 운반공들 1천여명이 로동 조건의 개선과 로조의 권리 존중을 요구하여 파업에 돌입하였다. 교원들의 파업은 특히 이채를 띠였는바 7월 14일 에쿠아도르의 여러 지역에서 교원들은 임금의 즉시 지불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였다. 피친차주 교원들이 시작한 파업은 16일에 와서 크로파히 침보라크, 에스메랄다스 주들의 교원들이 합류함으로써 전국의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수업이 중단되였다. 교원들의 파업은 그후 계속 되였는바 9월 초에는 마나비주 공립 학교 교원들, 8월 28일에는 과야킬의 국립 학교 교원들이 상술한 요구 조건을 내 걸고 파업을 단행하였다. 교원들의 파업은 국내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다. 7월 16일 과야킬에서 수백명의 로동자들은 전국적인 교원들의 파업을 지지하여 군중 집회를 진행하였다. 9월 21일 해고를 반대하여 일어난 과야킬 대부 은행 분점 사무원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며 수천명의 과야킬 은행 사무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이 파업으로 말미암아 과야킬에서 은행 업무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다. 1962년에 정부의 농업 정책을 반대하며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도 또한 세차게 전개되였다. 3월 27일 에쿠아도르의 텡굴 지방에서는 미국의 《유나이테드 과실 회사》 산하 농장에서 일하는 1천여명의 농민들이 농장주들에게 복무하는 경찰서를 습격하였다 농민들은 농장의 토지를 즉시 무상 분배할 것과 토지 개혁을 비롯한 기타 기본적인 개혁들을 실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4월 21일 코로파시주에서 약 800명의 농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22일에는 퉁그라브주에서도 정부의 농업 정책을 반대하는 1천 명의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농민들의 이러한 투쟁은 특히 미국인 소유 농장에서 빈번히 일어났다. 2월 11일 과야킬 근교에 있는 미국인 소유 대 바나나 농장 농업 로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고 농장을 점거하였으며 8월에는 미국인이 경영하는 《솔레다드》 농장의 농업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항구적인 일'자리의 보장을 요구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에쿠아도르에서는 미제의 침략과 략탈 정책을 규탄 배격하는 목소리가 날로 드높아 가고 있다. 9월 28일 에쿠아도르 공산당은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미제의 통제로부터 나라를 해방시키고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8월 30일 키토에서는 미제의 략탈을 규탄하는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에쿠아도르 인민에게 빈궁을 가져다 주는 미국의 《진보를 위한 동맹》 계획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12월 1일 에쿠아도르 로동 총 련맹은 《뱅가드》지에 발표한 론설에서 미국 《평화군》은 간첩 단체라고 단죄하고 자국 령토로부터 《평화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 하였다. 9월에 진행된 과야스주 로동자 련맹 제 8 차 대회에서 이 련맹의 지도자 산도발은 《우리의 주되는 원쑤인 미제와 봉건 세력은 우리 앞에 커다란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미제의 침략성을 폭로 규탄하였다.

경제, 사회 에쿠아도르는 락후한 농업국이다. 전국토의 약 75%가 산림 지대이며 경지 면적은 전 국토의 약 4.5%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호수의 1%에 불과한 지주들에게 40% 이상의 농지가 집중되여 있다. 나라의 주요 경제 명맥은 외국 자본 특히 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바나나, 커피, 사탕, 쌀 등이며 주요 자원은 석유, 금, 은, 동, 철, 석탄, 류황 등이다. 주요 수출품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쌀인 데 바나나 수출은 세계 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의 약 50%가 문맹자이다. 학령 아동의 과반수가 학교에 다니지 못 하고 있다. 매년 2만 명의 어린이들이 죽는다.

페 루

(페루 공화국)

Republic of Peru

【면적】 124만 9 000 km²

【인구】 1,085만7,000명(1960년)

【수도】 리마 (주민 131만 5,500 명)

정 치 【대통령】 니꼴라스 린들레이 로뻬즈

【정당, 사회 단체】공산당1928년에 창건되였다. 제 1 비서 라올 아코스타 프라티스트 민주 운동, 인민당, 인민 행동당 민족 련맹, 혁명 동맹당, 민족 해방 전선 로동 총 련맹

【주요 사건】 1962년 7월 18일 페루에서 미제의 사촉 하에 반동적 군부 계층들은 6월 10일에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사기 행위》가 있었다는 리유로 군사 정변을 일으켜 프라도 정부를 전복하고 《군사 혁명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날 군사 파쑈 도배들이 《취임식》을 위하여 정부 청사에 나타났을 때 그들을 반대하는 폭동이 발생하였다. 폭동에 참가한 1천 여 명의 인민들은 《우리는 우리의 민권을 원한다.》고 웨치면서 경찰차에 돌을 던졌다. 이날 페루 공산당은 성명을 발표하

고 대통령 선거에서 사기 행위를 감행한 집권당인 인민당을 규탄하는 동시에 군사 정변을 일으킨 군부들이 인민당의 부정 선거에 대한 인민의 반감을 군사 정변의 실현에 리용하고 있다고 경각성을 높일 것을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군사 정권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은 날로 커갔으며 국내 도처에서 투쟁이 앙양되였다. 7월 21일 페루의 북부 지방에서 약 1만 2천 명의 제탕 공장 로동자들이 군사 정권을 반대하여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23일에는 35만 명의 맹원을 망라하고 있는 페루 로동총련맹의 군부의 군사 정변을 반대 항의하여 총파업을 개시하였다.

진정한 자유와 권리, 생활 개선을 위한 근로자들의 투쟁은 주로 미국 고용주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일관되였다. 8월 9일 남부 페루에 있는 미국의 동 회사 소속 《로케팔라》 동광 로동자 4천 명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으며 14일에는 미국 회사《그레이스 캄파니》의 전국 로동자 련맹 산하의 2만 명의 페루인 로동자들이 전국적 범위에서 파업을 단행하였다. 12월 17일 수도 리마 근처의 라 오로야에서 1만 5천명의 광부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파업자들은 경찰들의 가혹한 탄압을 물리치면서 각 도시를 계속 점거하고 5개의 대 연료 땅크에 불을 질러 그중 일부를 폭발시켰다. 이파업에 뒤'이어 생활상 권리를 위한 페루 근로자들의 투쟁은 더욱 더 확대되였다. 농민들의 투쟁도 또한 강력히 전개되였다. 1962년 1월 1일 페루의 호닌주에 있는 산 후안촌의 1 200명 농민들은 6천 헥터의 빼앗겼던 땅을 미국인 회사 소유인 대농장에서 탈환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년중 계속 전개 되였다. 인민들의 이러한 기세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인민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1963년 3월에 또 다시 군사 정변을 조작하여 새로운 친미 군사 정권을 내세웠다. 3월 3일 군사 정변을 일으킨 륙군상 린들레이는 이전 군사 정권의 독재자 고도이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 들어 앉았다.

경제·사회 주요 산업은 농업및 광업으로서 주민의 약 70%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경지 면적은 169만 5,723 헥터인데 대 농장주, 중소 지주 및 카톨릭교 회가 총 경지 면적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토지 없는 농민은 86%에 달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면화, 사탕, 양모, 피혁, 커피, 쌀 등이며 식량은 자급 자족 못 한다. 주요 광물은 연, 아연, 동, 은, 석유, 바나쥼 등이며 특히 바나쥼 생산량은 세계 제 1 위이다. 1962년에 석유는 290만 톤, 동은 14만 6천톤, 아연광은 22만 7 천톤 생산되였다.

경제의 주요 명맥은 외국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이 나라 수입 총액의 약 44%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세로 데 파스코》회사는 동 채굴의 80%, 연, 아연 채굴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광물, 석유, 면화, 사탕, 양모, 등이다.

주민의 60%가 문맹자이며 학령 아동의 50%가 학교에 다니지 못 하고 있다.

볼리비아

(볼리비아 공화국)
Republic of Bolivia

【면적】 110만 km²

【인구】 약 350만 명

【수도】 라 파스 (주민 35만 5,600명)

정 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17명이고 하원 의원은 68명이다.

【대통령】 빅토르 파스 에스텐소로 (임기 4년, 1960년 8월 16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대에 창건되였다가 1950년 1월에 재건되였다. 제 1 비서 마리오 몬제 민족 혁명 운동당 (집권당), 볼리비아 사회주의 파랑헤당, 공산주의 청년 련맹, 로동 총 련맹,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주요 사건】 1962년에 볼리비아 인민은 반미 반독재 투쟁과 쿠바를 지지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인민들 속에서 앙양되는 반미 투쟁의 압력에 의하여 9월 3일 칠리와 국교를 단절하고 《미주 국가 기구》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같은 날 국회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무장 간섭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현재 볼리비아는 쿠바와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경제, 사회 경제의 주요 부문은 광업과 농업이다. 주민의 80%가 농업에 종사한다. 토지의 70~80%는 농촌 인구의 8~10%에 불과한 지주들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농산물은 옥수수, 밀, 보리, 감자,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국내 식량 수요의 50~7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주석(1962년에 2만 1,700 톤 생산), 탕그스텐, 안티모니 생산은 세계 굴지의 수준에 있다. 대외 무역에서 총 수출액의 98%는 광물 (그중 주석이 약 70% 차지)인데 그중 66%는 미국에, 31% 정도는 영국에 수출되고 있다.

196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만도 볼리비아는 미국의 주석 투매 정책에 의하여 130만 딸라의 손실을 입었다.

파라과이

(파라과이 공화국)
Republic of Paraguay

【면적】 40만 6,800 km²

【인구】 181만 6,890명 (1962년 11월 1일)

【수도】 아순시온(주민 약30만 명)

정 치 **【의회】** 1원제로서 의원 수는 60명이고 임기는 5

년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 기관으로서 19명으로 구성되는 국무회의가 있다.

【대통령】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1963년 2월에 3차로 피선)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8년에 창건되였고 1947년에 비법화되였다. 총비서 오스카르 크레디트 **국가 공화당**(집권당) 유일한 합법적 정당으로서 미국 독점체와 밀접한 련계를 가진 대부르죠아지와 지주의 리익을 대표한다. **민족 해방 통일 전선** 1959년 4월 우루과이에 망명한 파라과이인들로써 조직되였다. 이 전선에는 공산당, 2월당, 자유당 및 기타 민주주의적 인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지도자 파트리씨오 로페스

경제, 사회 농업과 목축업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의 75%가 이에 종사하고 있다. 전체 농지의 70%는 외국 및 국내 지주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으며 농촌 주민의 70%가 농지의 1% 밖에 차지하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의 《라 푸네》 석유 회사만도 600만 헥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주산물은 면화, 담배, 사탕, 옥수수, 쌀, 육류, 목재 등이다. 식량은 매년 수입하고 있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유, 철, 망간, 동, 석회석, 대리석 등이 있으며 공업으로서는 가공 공장이 몇개 있는데 불과하다. 주요 수출품은 목재(수출액의 40～50%), 면화, 피혁, 육류 등이며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과 아르젠틴이다.

농촌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은 전체 농호의 97%에 달하고 있으며 기근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아동 사망률은 63%에 달하고 있다. 주민 1만명에 겨우 1명의 의사가 차례지고 있다. 주민의 약 60%가 문맹자이다.

1962년에 파라과이에서는 스트로에스네르 독재 정권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과 대중 운동이 앙양되였다. 2월 파트리씨오 로페스가 지도하는 민족 해방 통일 전선의 유격대는 토사리오시에서 20마일 떨어진 이타쿠루비를 점령하였으며 6월에는 산애스타니슬라오를 점거하였다.

우루과이

(우루과이 동방 공화국)
Republic of Uruguay

【면적】 18만 6,900 km²
【인구】 270만 명
【수도】 몬테비데오(주민 95만 명)

정 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31명, 하원 의원은 99명이다. 임기는 각각 4년이다.

【국가 회의】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의장 에두아르도 비크토르 아에도 (1962년 11월 25일 재선)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에 창건되였다.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 **콜로라도당**(집권당), **블랑코당, 사회당 공민 동맹, 공산 청년 동맹 좌익 해방 전선, 큐바 지지 전국 련합 위원회, 근로자 통일 로조 중앙**

【주요 사건】 생활과 권리를 위한 우루과이 근로자들의 투쟁은 1962년에 치렬히 전개되였다. 7월에 우루과이에서는 물'가의 급격한 등귀와 대량적 해고를 반대하는 각 부문 로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다. 수도 몬테비데오의 운수 로동자들이 물'가 등귀를 반대하여 파업을 단행하였다. 그 결과 뻐스 운영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한편 야금 로동자들은 해고 당한 동료들의 복직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7월 15일에는 수도에서 수천명의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로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여 국회 청사 앞에서 군중 집회를 진행하였다. 9월에는 당국의 탄압 조치를 반대하여 궐기한 로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의 표시로 24시간 총파업이 단행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우루과이 경제의 주요 부문들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10월 26일 우루과이 국회는 인민 대중들의 강력한 압력에 못 이겨 《좌익 해방 전선》 성원들이 제출한 일련의 법안(로동자들에게 파업권을 보장하며 앓는 기간 건설 로동자들에게 수당금을 지불할 것 등을 규정)을 채택하였다.

우루과이 반동 지배층은 파쑈적 탄압의 방법으로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 력량에 대한 공세를 취하였으나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막을 수 없었다. 7월 19일 수천명의 인민들은 몬테비데오에서 반파쑈 시위를 단행하였으며 8월 8일에 120 여 개 정치 단체들의 발기로 수도에서는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다. 7월 우루과이 공산당, 《종합 대학 위원회》, 《인테리 및 예술인 위원회》, 《10월 26일 운동》 및 기타 일련의 진보적 단체들이 좌익 해방 전선 창설의 기초로 되는 좌익 력량 정치 전선을 창설하였다.

2월에 우루과이에서 있은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에서 정부 대표단이 큐바를 반대하는 《결의》에 찬성한 것과 관련하여 수도 몬테비데오를 비롯한 전국 각처에서 이를 규탄하는 군중 대회와 시위가 단행되였다. 2월에 몬테비데오의 종합 대학 운동장에서 진행된 대규모의 군중 대회 참가자들은 큐바 혁명을 반대하는 결의에 찬성 투표한 우루과이 외상을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1월 23～24일에는 수도에서 약 3천명의 군중들의 참가 하에 큐바를 지지하는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으며 4월 19일에는 우루과이 종합 대학에서 큐바 지지 전국 련합 위원회와 《큐바 혁명 지지 우루과이 인테리 및 예술인 위원회》 주최로 큐바 혁명을 지지하는 군중 대회가 진행되였다.

경제, 사회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국이다.

주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농산물은 밀, 보리, 옥수수, 쌀, 황마 등이다. 국토의 60%는 목장이다. 목축업에

리용되는 땅의 50% 이상이 대토지 소유자들의 수중에 장악되여 있다.

금, 은, 동, 연, 망간, 철 등 광물 자원과 화강암, 대리석, 석회석 등 건축 자재가 풍부하다. 공업은 보잘 것 없고 육류, 석유 공업등이 약간 있는데 주로는 미, 영 자본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수출품은 랭동 육류 및 육류 통조림과 모피, 피혁 등이다.

생활비는 부단히 등귀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12만명에 달한다.

아르젠틴

(아르젠틴 공화국)

Republic of Argentina

【면적】 280만 8,000 km²

【인구】 2,095만 6,000명 (1960년)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주민 385만명)

정 치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42명, 임기는 6년인데 3년에 3분의 1씩 개선된다. 하원 의원은 192명이고 임기는 4년이며 2년에 반수를 개선한다.

【대통령】 호세 마리아 귀도 (1962년 3월 29일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18년에 조직된 국제 사회주의 당이 1920년에 개칭되였다. 1959년 4월에 비법화되였다. **비타협 급진 공민 동맹**(집권당), **페론당, 보수당, 기독교 민주당, 사회당, 진보 민주당, 로동 총련맹, 청년 단체 전국 위원회, 전국 평화 옹호 위원회, 큐바와의 련대성 위원회**

【주요 사건】 1962년에 아르젠틴에서는 미제의 간섭과 친미적 군부 계층들의 쿠데타 그리고 군부 내 각파들의 충돌로 인하여 나라의 정치적 위기와 혼란이 극심하였다.

3월 18일 아르젠틴에서 국회 및 주 지사 선거가 진행되였는데 이 선거에서 야당인 페론당은 비합법적 상태에 있는 공산당, 사회당 등 진보적 단체들의 지지 하에 압도적으로 승리(22개 주 중에서 11 개주의 지사직과 국회 의석중 43석 획득)함으로서 집권당인 비타협 급진 공민 동맹과 프론디시 정부의 친미적이며 반인민적인 폭압 정책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미제와 그의 지지를 받는 군부 계층들은 선거 결과에 극도로 당황하였다. 군부 계층들은 대통령 프론디시를 강박하여 페론당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선거 결과를 무효로 선포케 하였다. 프론디시의 이러한 조치에도 만족할 수 없었던 군부 계층들은 미제의 조종 하에 3월 28일 군사 정변을 조작하고 프론디시를 정권에서 내쫓은 다음 당시 상원 의장이던 귀도에게 정권을 넘겨 주었다.

귀도 정부는 공산당과 페론당을 비롯한 진보적 력량을 탄압하였으며 9월 6일에는 3월에 선거된 국회를 해산할데 대한 결정까지 채택하였다.

귀도 정부의 이러한 파쑈적 폭압 정책은 광범한 근로자들과 사회계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아르젠틴 공산당은 4월 26일과 5월 말에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권의 반동성을 폭로 규탄하면서 한데 뭉쳐 군사 독재 정권을 타도할 것을 전국 인민에게 호소하였다. 5월 22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민들은 국회 의사당 주위에 몰려와 《독재를 타도하라!》고 절규하면서 시위를 단행하였다. 4월 20일 저녁 수도 교외에 주둔하고 있던 아르젠틴 륙군의 일부 군부대들도 선거 결과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군부 지도자들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1962년에 귀도 정부를 반대하며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의 수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 기세는 날로 높아 갔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반동적 군부 계층들은 정권 야욕으로부터 출발하여 빈번히 충돌하였다.

9월 18일 륙군상 사라비아가 현 정권을 반대하는 고급 군사 지휘관들을 해임한 것을 계기로 엄중한 내란이 발생하였다. 이 결정이 있은지 수시간 후에 온가니아 장군의 지휘하에 있는 3만 명의 군대들이 정부군을 대항하여 진출하였는데 이들은 9월 23일 정부군을 압도하고 승리하였다.

이 내란으로 말미암아 21일 륙군 사령관을 포함하여 내각까지 사직하였다. 22일 귀도 대통령은 온가니아 장군을 림시 륙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아르젠틴 정치 정세는 이로써 결코 안정되지 못 하였다. 12월 11일 귀도 대통령에 의하여 해임 당한 공군 사령관 알시나는 사임하기를 거부하고 일부 항공 부대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1962년에 생활 처지의 개선을 위한 아르젠틴 근로자들의 투쟁도 전국적인 규모에서 치렬히 전개되였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년중 4차에 걸쳐 단행된 25만 명의 철도 로동자들의 총파업은 아르젠틴 지배층에게 큰 타격으로 되였다. 이 파업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업 중심지들에서 작업이 중단되였으며 철도 운행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파업은 12월 11일 드디여 로동자들의 승리로 끝났다. 이날 아르젠틴 정부는 임금을 20%, 파업 기간에 지불하지 않은 보조금을 80% 각각 인상하여 지불하며 체포하였던 로동자들을 석방하는 등 파업자들의 요구를 부득이 충족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8월 1일에는 또한 로동 총련맹이 선포한 48 시간 총파업이 전국에서 개시되였다. 파업자들은 생활비에 적응한 임금 제정, 완전 취업의 보장, 체불 임금의 지불 등을 요구하여 완강히 투쟁한 결과 자기들의 요구를 성취하였다. 또한 4월과 9월에는 임금 인상과 권리를 요구하는 부두 로동자들의 대규모적인 파업이 단행되였으며 기타 건설 로동자들과 이

나라의 주요 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도 부단히 단행되였다.

아르젠틴 인민들은 미제를 규탄 배격하며 큐바 혁명의 위업을 지지 성원하는 운동을 강력히 진개하였다. 4월 4일 코르도바 대학 학생들은 자기 대학을 방문한 미국 대사가 교실로 들어 오려고 할 때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큐바 만세!》라고 웨치면서 그를 몰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타고 온 자동차에 돌멩이를 던지고 차에 꽂혀 있던 미국 기'발을 찢어 버렸다. 4월 5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종합 대학 학생들은 개학식에 앞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규탄하며 큐바 혁명을 지지하는 시위를 단행하였다. 5월 아르젠틴 총 경제 협합회 대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평화를 위한 식량 계획》이 미주 국가들에 혼란을 조성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배격 규탄하였다.

2월 초 아르젠틴에서는 미제를 반대하기 위하여 14개 청년 및 로조 단체들의 참가 하에 아르젠틴 청년 단체 전국 위원회가 창설되였으며 6월에는 공산당을 비롯한 기타 사회 단체들이 망라된 《큐바와의 련대성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이 단체들은 큐바와 외교 관계를 단절한 그리고 큐바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위를 도우려는 아르젠틴 지배층의 처사를 반대하는 투쟁을 년중 완강히 진행하였다.

10월에 아르젠틴 로조는 큐바에 대한 《양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준비가 강화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큐바 혁명에 대한 련대성을 강화할 것을 아르젠틴의 로동 계급과 로조 단체들에 호소하였다.

경제, 사회 농업 및 목축업을 위주로 하고있다.

경지 면적은 3천만 헥타이다. 토지는 대 지주들과 외국 회사들에 장악되여 있기 때문에 80%의 농민은 토지를 못 가지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밀, 옥수수, 면화, 담배, 락화생이다. 축산물로서 양모가 유명하다. 양모 수출은 세계 제 2위이며 생산량의 약 60%는 미국에 수출되고 있다.

지하 자원에서 주되는 것은 석유 (1962년 생산량 1,350만톤), 석탄, 천연 가스, 철, 연 등이다. 공업은 남미에서 비교적 발전한 나라로서 육류, 전분, 석유 부문이 발전하였으며 기타 강철, 제당, 세멘트, 연초 공업도 있다.

이 나라의 자원은 미, 영을 비롯한 외국 독점 자본에 략탈 당하고 있다. 1958~1961년 기간에 외국 독점체들이 아르젠틴에서 짜낸 순 리윤은 3억 1,400만 딸라에 달하였다. 1962년에 아르젠틴에서 파산 당한 기업소 수는 1961년에 비하여 371%로 증가하였다. 1962년 4월 말에 대외 부채액은 26억 2,030만 딸라에 달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양모, 곡물, 육류, 피혁 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미국, 영국, 서독인데 무역 적자는 1962년에 1억 3,500만 딸라에 달하였다.

1962년 12월에 이 나라의 생계비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31.7% 등귀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주택이 50만 세대나 부족되고 있다.

칠 리

(칠리 공화국)
Republic of Chile

【면적】 74만 1,767km²
【인구】 762만 7,000명 (1960년)
【수도】 산챠고 (주민 188만명)
【의회】 량원제로서 상원 의원은 45명이고 임기는 8년이다. 4년마다 반수를 개선한다.

정 치 하원 의원은 147명이고 임기는 4년이다. 공산당은 하원에서 16석, 상원에서 4석을 차지하고 있다.

【대통령】 흐르헤 알레싼드리 로드리게스(1958년 11월 취임)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2년에 창건되였다. 사회당, 민주당, 반제 급진당, 인민 행동 전선, 공산 청년 동맹, 근로자 통일 로조 중앙, 칠리 로동 통일 련맹, 칠리 조선 친선 협회 1962년 8월 13일 창설되였다. 위원장 모칠레스 (급진당 출신, 국회 의원) 평화 옹호 전국 위원회

【주요 사건】 1962년에 칠리에서는 미제의 침략적인 간섭과 략탈 음모를 반대하며 큐바 혁명을 지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계속 치렬히 전개되였다.

1월 15일 산챠고에서 칠리 대학생들은 반미 시위를 단행하고 칠리에 있는 미국 정보 기관 건물에 돌을 던져 유리창들을 파괴하였다. 시위자들은 《큐바는 좋고 양키는 나쁘다.》고 웨치면서 행진하였다. 5월에 칠리 공산 청년 련맹과 사회당 산하 청년 단체는 공동의 원쑤인 미제를 반대하는 큐바 청년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강력한 청년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2일 산챠고에서는 반미 시위가 진행되였는바 시위자들은 산챠고시에 있는 미국 공보원 건물에 밀려가 창문의 유리들을 까부셨다. 11월에 빅토리시에서 로동자들은 《평화군》의 탈을 쓰고 기여든 양키들을 축출하였다.

로동 조건의 개선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투쟁도 또한 년중 계속 완강히 진행되였다. 4월 7일 미국인 회사 《브라덴 쿠페》에 속해 있는 칠리의 테니엔트 동광 로동자 5천명은 임금 인상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을 선포하였으며 칠리 수도 근방 코피야코시에서는 년초부터 개시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탄부들의 파업이 4개월간 계속 진행되였다. 11월 19일에는 100만명의 칠리 근로자들이 로조 통일 련맹의 호소에 의하여 물'가의 등귀를 반대 항의하여 총 파업을 단행하였다. 12월 말에는 칠리 전국 해원들이 정부의 부당한 경제 정책에 항의하여 24 시간 총 파업을 단

행하였는데 이 날 칠리 해안의 모든 선박들의 운행이 정지되였다.

경제, 사회 주요 산업은 농업 목축업 및 광업이다. 경지 면적은 600만 헥타이며 주산물은 맥류, 담배, 콩, 감자 등이다. 칠리에서는 1695개의 대 농장들이 경지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칠리에는 초석이 풍부한데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 생산량의 95%(년산 150만 톤)를 차지하고 있다. 1962년에 동은 55만 6천톤(평가 수'자)생산되였다. 금, 은, 코발트, 연, 망간 등이 생산된다. 공업은 비교적 발전한 편이나 거의 미국의 독점하에 있다 미국은 특히 동 생산의 95%, 전기 공업의 68%를 장악하고 있으며 방직 공업의 23%는 외국 자본의 통제 하에 있다.

주요 수출 품은 동, 초석 등이고 기계류와 석유 등을 수입한다. 칠리 대외 무역의 60%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 1953년에 비하여 물가는 1962년에 15.9배로 뛰여 올랐다. 칠리에서 부족되는 주택은 55만 세대에 달하고 있다. 1963년 3월에 시작된 새 학년도에 취학 못한 아동들은 50만 명이나 되였다.

대양주 및 량국

호 주

(호주 련방)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면적】 770만 4,800km²

【인구】 1,070만 5,000명 (1962년)

【수도】 캔베라(주민 5만 1,642명, 1960년 3월 현재)

정 치 영 련방 내의 독립국으로서 영국 녀왕이 임명하는 총독에 의하여 통치된다.

호주는 미제의 침략 및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고 있다.

호주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 쁠럭들인 《안쥬스》 동맹(1951년)과 세아토(1954년) 성원국이며 미제가 도발한 조선 침략 전쟁에 직접 참가하였다.

【총독】 라일 (1961년 취임)

【의회】 량원제이며 상원 의원은 60명,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개선한다. 하원 의원은 124명이며 임기는 3년이다.

【내각】 1961년 12월 22일 자유당과 지방당의 련립 내각이 구성되였다.

수상 로버트 지. 멘지스 외상 지. 바위크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에 창건되였다가 1940년에 비법화되였다. 위원장 이르. 딕슨 총비서 엘.엘 샤키 **자유당** 현 집권당이다. 1931년에 레이버당 우익과 국민당이 합하여 호주 통일당을 결성하였다가 1944년에 현명으로 개칭하였다. 금융 및 공업 독점체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당수** 멘지스 **지방당** 대지주 및 목장주들의 리익을 대표하는 현 집권당이다. 지도자 멕웬 **레이버당** 1890년대에 성립된 개량주의적 정당이다. **민주 로동당 로조 리사회** (1921년에 성립) **유레카 청년 련맹** (1941년에 성립된 진보적인 청년 조직이다.) **녀성 롱맹, 평화 위원회**

【주요 사건】 1962년 2월에 호주는 2척의 구축함과 수백명의 장병들 그리고 《밀림전 전문가》들을 남부 월남에 파송하였으며 그후 5월에 있은 미 국무 장관 더스크와의 《비밀 회담》 실천을 위하여 계속 자기의 군대를 남부 월남에 파견하였다. 또한 인도에 무기 및 군수품들을 제공하여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지원하였으며 말라이에 자국 군대들을 파견함으로써 말라이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는데 직접 참가하였다.

1962년에 호주 인민들은 외국 군사 기지의 철페 특히는 미국의 《유—2》 간첩 비행기들이 호주에 기지를 두고 있는데 항의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9월에 호주 부두 로동자 로조 시드니 지부는《유—2》간첩 비행기의 범죄적 비행에 항의하며 호주에 군사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외국과의 협정들을 페기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정부에 보냈다. 12월 16일에는 멜보른에서 미국의 군사 기지를 반대하여 5천 명의 군중들이 《유—2》 간첩 비행기들이 배치되여 있는 라버톤을 향하여 시위를 단행하였다.

로동자들 속에서는 생존의 권리와 임금 인상, 로동 조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이 강화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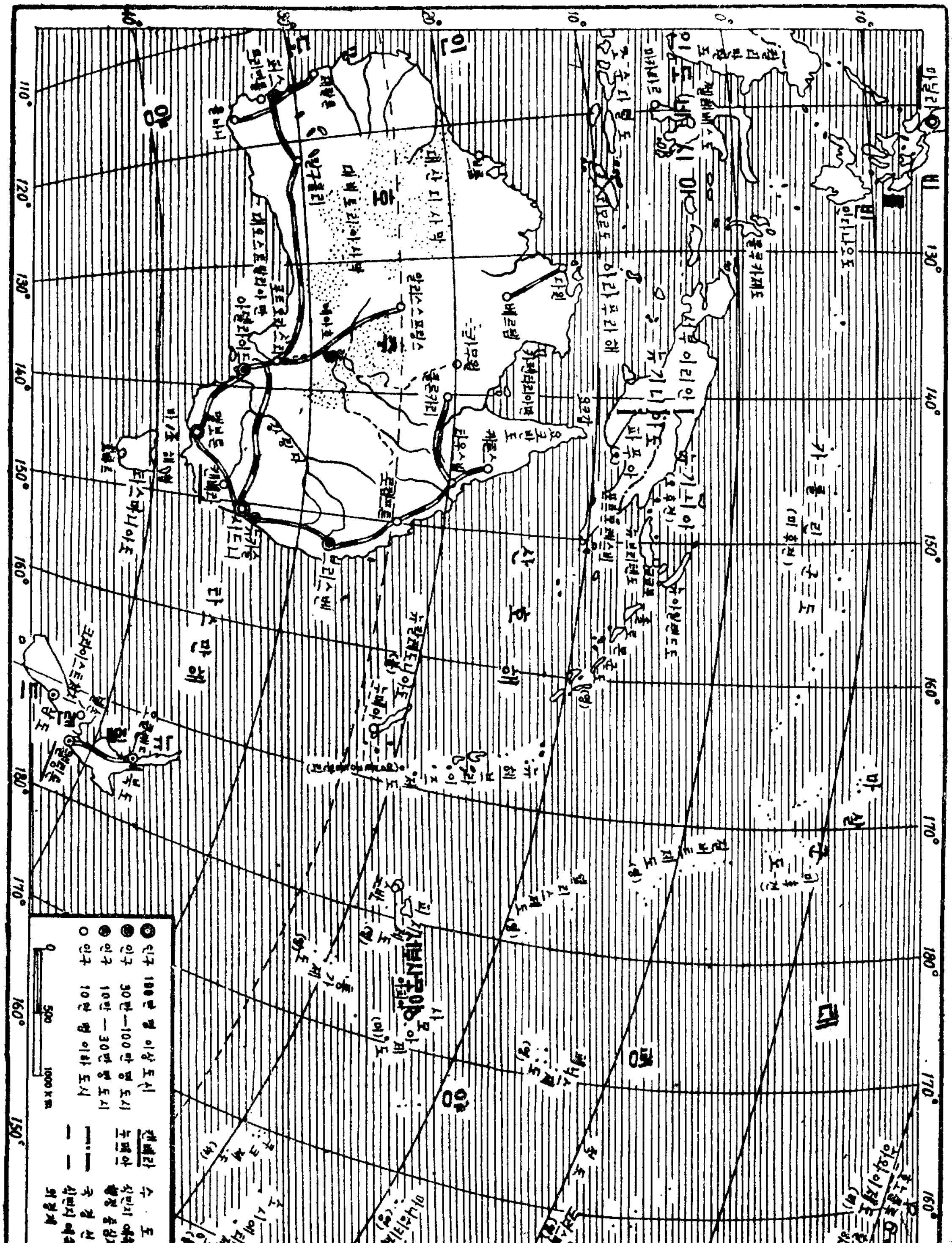
4월 10일 호주의 전체 부두 로동자들이 로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을 반대하여 파업하였으며 그 결과 46개의 부두들에서 상하선 작업이 중지되였다. 9월 6일에는 1만 2천명의 시드니 운수 로동자들이, 10월 15일에는 호주의 전체 항구에서 2만명의 부두 로동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다. 10월 15일에 단행한 파업의 결과 시드니와 멜보른 항구에서만도 67척의 선박이 항행 중지 상태에 빠졌다.

경제, 사회 주요 경제 부문은 농 목축업이다.

양 두수는 세계에서 제 1위다. 1962년 3월 31일 현재 양은 1억 5,771만 4,000두, 대각 가축은 1,806만 7,000두, 돼지는 163만 3,000두 있었다.

1961～1962년에 밀은 670만

대 양 주



3,000톤, 양모는 77만 1,000톤(1962~1963년도 예비적 자료)생산되였다. 그러나 경제의 주요 명맥은 국내 독점 자본가와 미국 독점체들에 장악되여 있다.

주요 지하 자원은 석탄 및 철이며 기타 연, 아연, 금, 은등도 풍부하다.

1961~1962년에 석탄은 2,490만톤, 강철은 410만톤 생산되였다.

주요 수출품은 양모, 밀, 육류, 사탕, 피혁, 연, 흑색 금속등이다. 주요 무역 대상국은 영국, 미국 및 일본 등이다.

1962년에 호주에서는 교통 사고로 2,508명이 죽고 6만명이 부상 당하였다. 1963년 2월 현재 실업자는 11만 2,000명 있었다.

【출판】 통신—호주 련합 통신사(에이. 에이. 통신)

신문—트리뷴 (공산당 기관지), 썬데이 모닝 헤랄드(독점 자본가들의 대변지)

뉴질랜드
Dominion of New Zealand

【면적】 26만 8,700 km²

【인구】 252만 1,000 명(1962년 12월 31일 현재)

【수도】 웰링톤 (주민 14만 4,900명)

정 치 영 련방 내의 자치국이다. 뉴질랜드는 침략적 군사 쁠럭인 《안쥬스》와 세아토의 성원국이며 미제의 조선 침략 전쟁에 참가하였다.

【총독】 코브햄 (1957년에 취임)

【의회】 1원제이며 의원수는 80명, 임기는 3년이다.

【내각】 1960년 12월 12일에 구성되였다.

수상 겸 외상 케이트 홀리오크

【정당, 사회 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되였다. 위원장 윌리암스, 총비서 브이. 지. 윌콕스 **국민당** 현 집권당이다. 자본가와 목장주들의 리익을 대표한다. **로동당** 로조 회원들과 소농, 자유업자, 지식 분자들에 기초하고 있으나 령도권은 우익 분자들에 장악되여 있다. **사회 신용당, 로동 련맹, 진보 청년 동맹**(로동 청년과 진보적인 청년 지식 분자들의 단체), **녀성 동맹, 평화 리사회**

경제, 사회 농업과 목축업이 위주이며 양모 생산은 세계에서 제 3위를 차지한다.

1961년 1월 31일 현재 대각 가축은 599만 2,000두, 돼지는 66만두, 양은 4,848만 5,000두(1961년 6월말)있었다. 1962~1963년도에 양모는 27만 4,000톤, 육류는 77만톤(1961 농업 년도) 생산되였으며 1962년(평가)에 밀은 26만 7,000톤 수확하였다.

지하 자원으로는 석탄, 금, 은 등이 있다.

가공 공업은 주로 경공업이며 그중 축산물 가공업이 위주로 되고 있다.

1962년 첫 9개월 간에 석탄은 52만 6,700톤, 갈탄은 143만 8,000톤, 전력은 59억 900만 키로왓트시 생산되였다.

경제의 명맥은 외국 독점 자본가들에게 장악되여 있는바 뉴질랜드에 투하된 외국의 총 투자액 중 영국은 64%, 호주는 20%, 미국은 12%를 차지하였다.

주요 수출품은 양모, 빠터, 육류 등 축산물이다. 무역은 영국, 미국, 호주, 불란서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부 사모아
Western Samoa

【면적】 2, 946 km²

【인구】 약 10만 7,000 명(1960년 6월)

【수도】 아피아

정 치 서부 사모아는 호주 동쪽 서남 태평양 상에 있는 사모아 제도의 서쪽 절반을 차지하는데 사모아도와 우폴루도를 비롯한 작은 도서들로 구성되여 있다.

서부 사모아는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뉴질랜드의 위임 통치령으로 있다가 1947년부터 유엔 후견령으로서 뉴질랜드의 관할하에 있었다.

1927년 서부 사모아에서는 대중적 반제 민족 해방 단체인 《마우》가 발족하여 외래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사모아인들의 완강한 투쟁으로 1961년 5월에 국민 투표가 진행되였고 1962년 1월 1일 독립이 선포되였다. 그러나 동부 사모아는 계속 미제의 강점 하에 있다. 사모아 인민은 나라의 인공적 분렬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정부】 수상 피아메 마따파 파우무이나 물리누우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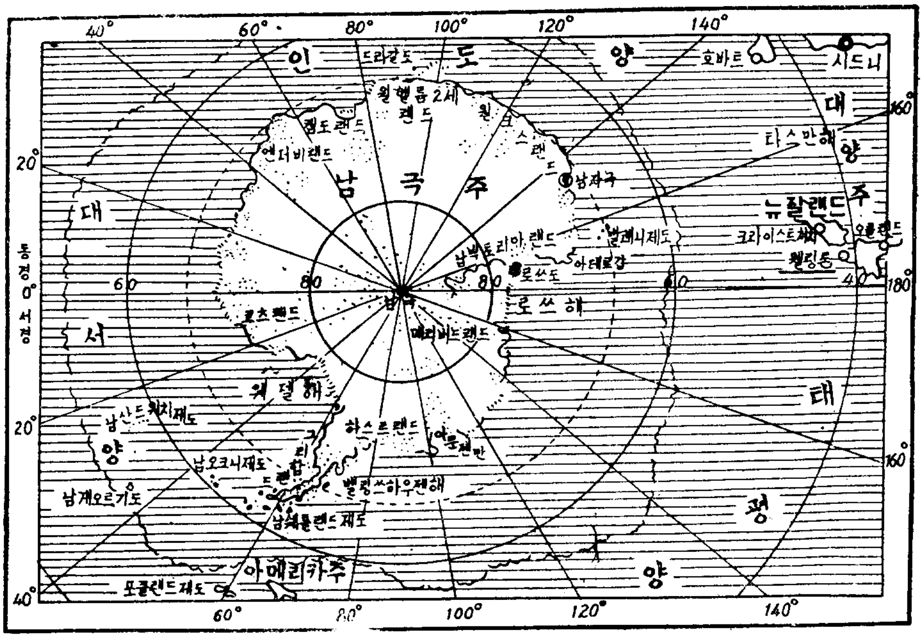
경제, 사회 락후한 농업 국가이다. 좋은 토지는 영국인들의 코코아 농장으로 되고 있다. 주산물은 야자, 바나나, 코코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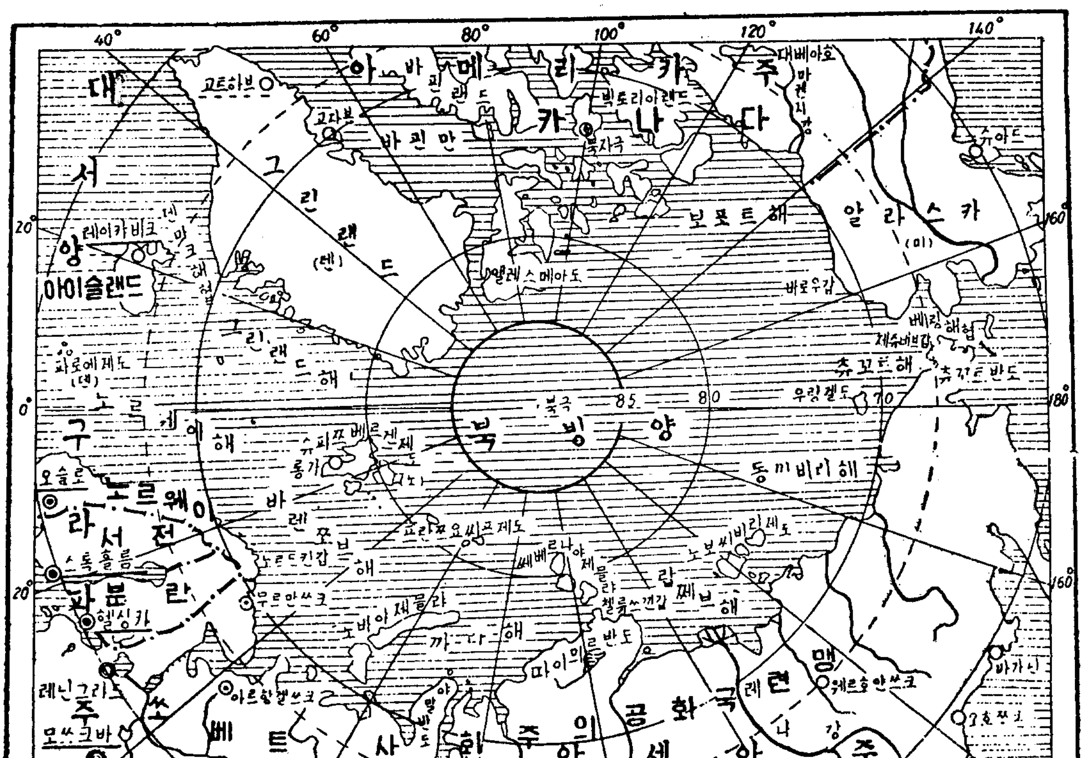
남 극

【개관】 1958년 7월 남극 관계 12개국 대표 회의에서 남위 60°이남을 남극으로 결정하였다. 남극 대륙의 해안선의 길이는 1만 3,000 키로메터 이상이며 면적은 약 1,401만 평방 키로메터인바 이는 구라파 대륙과 미국의 면적을 합한 것과 같다. 남극 대륙은 해발 평균 2천~3천 메터의 높이를 가진 구릉 지대로 되여 있으며 도처에 약 4,500~6,000 메터의 높이를 가진 산맥들이 솟아 있다. 남극의 83%는 어름과 눈으로 덮혀 있으며 어름의 평균 두께는 1,800메터이며 최고는 4,480메터에 달한다. 이 곳의 눈과 어름은 세계의 눈과 어름 총량의 10분의 9에 해당한다.

1819~1921년에 이 대륙이 발견된 후 오늘까지 대륙의 비밀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남극 및 북극


인 도 양
드라갈도
윌헬름2세 랜드
퀸모드랜드
엔더비랜드
남 극 주
남자극
호바트
시드니
타스만해
대 양 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오클랜드
웰링톤
발레니제도
아데르갑
로쓰도
로 쓰 해
남빅토리아랜드
코츠랜드
메리버드랜드
웨델해
남산드위치제도
남오크니제도
하스트랜드
벨링쓰하우젠해
남쉐틀랜드제도
남게오르기도
포클랜드제도
아메리카주
대 서 양
태 평 양
동경 0° 서경


아 메 리 카 주
바핀랜드
고드하브
고다브
바 핀 만
카 나 다
북자극
빅토리아랜드
대베아호
마켄지강
그 린 랜 드 (덴)
보 포 트 해
알 라 스 카 (미)
슈아드
레이카비크
덴마크해협
아이슬랜드
엘레스메아도
바로우갑
베링해협
그린랜드해
데슈네브갑
추코트해
추코트반도
파로에제도 (덴)
북극
우랑겔도
노르웨이해
북 빙 양
슈피쯔베르겐제도
롱가
동씨비리해
오슬로
노르웨이
스톡홀름
바렌쯔해
노르드킨갑
프란쯔요씨프제도
노보씨비리제도
헬싱키
무르만쓰크
노바야제믈라
세베르나야제믈랴
첼류쓰낀갑
랍쩨브해
까라해
마이미르반도
레닌그라드
모쓰크바
아르항겔쓰크
쏘 베 트 사 회 주 의 공 화 국 련 맹
레나강
베르호안쓰크
바가닌
대 서 양
아 세 아 주

1958년 1월에 관측된 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메터 암반 우에 2,450메터 두께의 대륙빙이 있는데 그 우에 약 30메터의 눈과 어름이 쌓여 있는 해발 2,750메터에 달하는 지점이다.

【기후】 영구성 동결 기후로서 년 평균 기온은 섭씨 령하 30°이다. 가장 따뜻한 계절(11～1월)에는 기온이 섭씨 령하 5°, 가장 추운 계절 (6～7월)에는 령하 60°까지 내려간다.

1960년 8월 24일 밤 쏘련 남극 탐사대의 관측소는 기온이 88°3′까지 내려갔다는 것을 등록하였는데 이것은 지구 상에서 처음 관측된 최저 기온이다. 풍속은 초당 100메터이다. 1년에 1차의 주야 변화가 있는데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낮이며 3월부터 9월까지는 밤이다. 남위 50°이상의 전 지역은 년간을 통하여 거의 매일 같이 폭풍이 불며 아데리 해안에서는 1년에 300일은 풍속이 30메터 이상에 달한다.

【자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따늄, 우라늄, 석탄 등의 자원이 매장되여 있다. 남부 빅토리아 지역에서는 100만 평방 키로메터에 달하는 석탄 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조류로는 펭긴이 있으며 고래, 옷도세이 등 해수 등도 있다. 최근 년간 이 대륙 해안에서는 해마다 평균 4만 마리의 고래가 잡히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잡히는 고래 총량의 10분의 9에 해당된다. 식물류는 300종 이상 발견되였다.

【관측】 현재 남극에서는 국제 지구 물리학 년도의 계획에 따라 세계 많은 나라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56년 2월 첫 쏘련 관측소인 《미르느이》가 남극에 설치되였다. 대개 이때로부터 파란, 미국, 영국, 불란서, 호주, 벨기, 뉴질랜드, 노르웨이, 일본, 아르젠틴, 칠리, 남 아프리카 공화국 등 나라들이 남극에서 관측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62년부터는 체코슬로바키야 학자들도 관측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1959년 12월 1일에는 남극 탐사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12개국 대표들이 남극을 평화적 목적에만 리용할 데 대한 30년 조약을 체결하였다.

1961년 7월 10일부터 두 주일간 호주 수도 캔베라에서 제 1차 남극 조약 회의가 개최되였다.

회의에서는 남극에서의 원자력 장치 및 기술에 관한 정보 교환, 과학 조사, 통신, 원정시 협력할 데 대하여 가맹국 정부들에 대한 권고안이 채택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상설 서기국은 설치하지 않고 각국 륜번제의 문서국을 만들어 항상 외교적 경로를 거쳐 련락을 가질 것이 결정되였다.

쏘련 과학자들은 지구 자기극을 연구하였으며 남극의 많은 지역의 첫 지도를 작성하였다.

쏘련 지구 물리 학자 와씰리 빠스뚜호는 남극 대륙 연구에 기여할 15개의 기후도를 작성하였다.

2천만분의 1과 4천만분의 1 축도로 작성된 이 지도들 중에서 6개의 지도는 1년간 각이한 시기의 남극의 기온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남극의 면적에 대한 조사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최신 자료에 의하면 남극 면적은 1 401만 3,000 평방 키로메터로 측정되였다. 1895년부터 1955년까지의 기간에 각국의 학자들은 이 대륙의 면적에 대한 20개의 안을 내놓았다.

쏘련의 《미르느이》 관측소에는 600키로왓트의 출력을 가진 발전소가 있으며 대형 비행기가 리륙 및 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도 있다.

쏘련은 1959년까지 《미르느이》 관측소 외에 7개의 기지를 설치하였으며 1960년에는 표류하는 어름 우에 3개의 림시 기상 관측소를 설치하였다. 1961년 11월에는 제 7 차 남극 종합 탐사대가 남극으로 출발하였는바 그들은 새로 2개의 기지 외에 표류하는 어름 우에 자동 관측소를 증설하였다.

1963년 1월 초에는 1년 전에 중지되였던 꼼쏘몰쓰까야 관측소가 사업을 개시하였다.

북 극

【개관】 북위 66° 30′ 이북을 북극 지방이라고 한다. 면적은 2,500만 평방 키로메터, 그중 약 1,435만 평방 키로메터는 북빙양이 차지하고 있으며 아세아, 구라파, 북미의 3 대륙의 북쪽 일부들과 그린랜드의 대부분과 북극해가 북극 지방에 속한다. 북극의 대부분은 약 3메터 두께의 어름에 덮혀 있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 곳은 5,219 메터이다.

【기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보다 따뜻하다. 겨울(1～3월)의 평균 기온은 극 중심지에서 섭씨 령하 40°, 북극 연안은 령하 30° 이다. 여름 (7～8월)의 평균 기온은 극 중심지에서 섭씨 0°, 대륙 연안에서는 5°～9°이다.

북극에서는 1년중 179일은 밤이 계속되며 남어지는 낮이다.

강수량은 년간 200～400미리에 불과한데 저온으로 인하여 습도가 높다. 대기의 상태는 년중 불안정하다. 최근 년간 온도가 높아져 기온이 온화해 지고 있다.

【주민】 약 12만명이 살고 있다. 주요 민족의 거주 지역과 인구는 다음과 같다.

동부 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앙게바 지방 및 그린랜드에 걸친 지방에는 에스키모족 (약 4만명). 서부 씨비리와 노바야 제믈랴에는 싸모에드족 (약 2만명), 동부 씨비리에는 뉴크치족, 알라스카와 카나다 북부에는 아메리카 인디안족, 구라파주의 북방에는 랍프족이 살고 있다. 그 외에 소수의 백인들이 살고 있다.

【자원】 석탄, 석유 등이 풍부하며 철, 동, 금, 은, 백금, 주석 등도

매장되여 있다.

남쪽 바다에는 어류가 많고 륙지에는 백곰과 여우를 비롯한 짐승들이 살고 있다.

1960년 봄에 쏘련 과학 아까데미야 고 생태학 조사단은 1억년 이상으로 추산되는 화석 식물 표본을 약 400종 수집하였다.

【관측】 북극권 내에 령토를 가진 쏘련, 미국, 카나다, 노르웨이가 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 해양, 지구 물리, 생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37년 5월 21일 쏘련의 북극 탐험가 빠빠닌을 비롯한 탐사대가 북극 중앙 지대에 도착하여 《북극 1호》 표류 과학 탐측소를 설치하고 274일간에 걸쳐 표류하는 어름 우에서 세계 최초의 북극 탐사를 개시하였다.

쏘련 과학자들은 지구의 북부 기상에 주는 북극권 기상의 결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북극해에 난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베링 해협에 원자력 땜을 건설할 데 대한 문제와 또한 바이칼호와 북극해를 련결하는 수리 건설 사업과 북극해의 북동 항로의 개설을 연구하고 있다. 또한 지구 물리학적 현상들의 합법칙성, 그 현상들의 발생 및 변화를 구명하는 고대 지구 물리학 연구의 결과 약 5억년 전에는 지리학적 극들이 현재의 적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는 등 흥미있는 사실을 확정하였다.

쏘련은 북극에 21개의 탐사대, 4개의 연구소, 1천개의 극 관측소를 설치하고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쏘련 원자 쇄빙선 《레닌》호의 건조는 북극 연구 사업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1961년에는 《레닌》호와 신 쇄빙선《모쓰크바》호를 주력으로 하는 북극 조사 선단이 증강되였다.

북극은 아세아, 구라파 및 미주 등 대륙을 련결하는 최단 항로이며 군사 경제상 중요하다.

미국은 이런 점을 리용하여 북극 지대에까지 공군 기지망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 기구 및 국제 회의

국제 련합 기구

(유엔)

United Nations—UN

【성립】 1945년 4월 25일에 미국 쌘프랜씨스코에서 열렸던 련합국 회의에서 세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 공고화, 모든 국제적 분쟁 문제들의 평화적 조정, 국가들 간의 우호 관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기구로서 창설되였다(기구 헌장은 10월 25일 발효).

【성원】 110개국 (1962년 12월 현재).

총회 제 17차 회의에서 트리니다드—토바고, 쟈마이카, 부룬디, 루안다, 알제리아, 우간다가 유엔에 가입하였다.

【기구】 총회 (전체 성원국으로 구성), 안전 보장 리사회(쏘, 미, 영, 불 및 중국의 5개 상임 리사국과 6개의 비 상임 리사국으로 구성), 경제 사회 리사회(18개국으로 구성), 후견 리사회 (14개국으로 구성), 국제 재판소, 사무국

총회 보조 기관—제 1(정치) 위원회, 특별 정치 위원회, 제 2(경제 재정) 위원회, 제 3(사회, 인도, 문화) 위원회 제4 (후견) 위원회, 제 5(행정 예산) 위원회, 제 6(법률) 위원회

전문—기구 유엔 교육 과학 문화 기구(유네스코), 유엔 식량 및 농업 기구, 국제 로동 기구, 세계 보건 기구, 만국 우편 련맹, 국제 전신 련맹, 국제 민용 항공 기구, 세계 기상 기구, 국제 통화 기금, 국제 부흥 개발 은행, 국제 금융 공사, 국제 원자력 기구, 정부간 해운 사업 협의 기구.

사무 총장 우 탄트 (비르마, 1962년 11월 30일 총회 제 17차 회의에서 피선)

본부 소재지 뉴욕

【사업】 총회 제 16차 회의 후반 회의는 1962년 1월 15일~6월 28일 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2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휴회). 회의에서는 앙골라 문제, 큐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침략 및 간섭과 관련한 큐바의 제소, 벨기 후견령 루안다 우룬디의 장래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총회 제 17차 회의 전반 회의가 9월 18일~12월 21일 간에 걸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의 외국 군대 철거에 관한 제의,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의석 회복 문제, 핵 및 열핵 무기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 조인을 위한 회의 소집에 관한 제의 등이 토의되였다.

<조선 문제> —1962년 12월 11~18일 간에 열린 17차 총회 정치 위원회 회의에서는 미제에 의하여 비법적으로 상정된 《조선 문제》가 토의되였다.

12월 8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은 유엔 총회에서 《조선 문제》를 비법적으로 토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유엔은 그의 헌장과 원칙에 비추워 <조선 문제>를 토의할 권리가 없》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금번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년례 보고>를 강압적으로 토의케 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독이며 유엔을 계속 침략의 도

구로 악용하려는 음모이다》라고 지적하고《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자기 대표의 참가없이 조선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제멋대로 조작되는 어떠한 결정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를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정치 위원회 12월 11일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남조선 군사 《정권 대표》만을 유엔 총회에 초청할데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고 강압 채택케 하였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결의안》에 반대 투표하였으며 26개국이 기권하였다.

12월 12일 회의에서 쏘련 대표는 《남조선으로부터 외국 군대를 철거시킬데 관한》쏘련의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12월 18일 총회 정치 위원회는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조선 문제》에 관한 《15개국 결의안》을 비법적으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안》은 《유엔 한국 통일 부흥 위원단》의 사업을 계속시키며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식민지 군사 기지로 확보할데 대한 미제의 침략적 야망을 드러내놓은 것이다. 이 《결의안》에 11개국이 반대 투표하였으며 26개국이 기권하고 8개국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12월 20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강압 통과된 《조선 문제》에 관한 《결정》의 무효를 선언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화 인민 공화국의 합법적 의석 회복에 관한 문제—제 17차 총회 10월 30일 회의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의 대표권 문제에 관한 표결이 진행되였는데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권리 회복을 지지하여 42개국 (1961년에는 36개국) 이 투표하였다. 미제는 거수기를 발동시켜 이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였다.

꾸바 문제— 제 16차 총회 정치 위원회 회의에서 2월 5일부터 15일까지 미제의 새로운 침략 계획과 간섭 행동의 결과로 조성된, 국제 평화 및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반대하는 꾸바의 항의가 심의되였다. 회의에서 루마니야와 체코슬로바키야 대표단들은 꾸바 내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미제는 자기의 추종국들을 사촉하여 이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꾸바 침략에 대한 야망을 다시금 드러내놓았다.

꾸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안전 보장 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 제출된 꾸바 결의안은 뿐따 델 에스떼 회의에서 미제의 강압에 의하여 조작된 조치들의 부당성을 상기시키면서 안보 리사회가 비법적인 이 조치들을 저지시키는 대책을 우선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과 그 추종 국가들은 다수표로써 이 결의 안을 부결하였다.

10월 23~26일에 걸쳐 진행된 안전 보장 리사회 회의에서 꾸바에 대한 미국의 봉쇄 조치와 관련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꾸바 수상 피델 카스트로는 유엔 사무 총장 대리 우 딴트에게 보낸 11월 15일 및 19일부 서한에서 꾸바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5개 조항의 요구를 제시하는 한편 꾸바에 대한 《국제 시찰》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식민지 문제—제 16차 총회 2월 30일 회의에서 앙골라 인민에 대한 탄압 조치와 무장 행동을 신랄히 규탄하며 또한 인민에게 인권과 기본 자유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포도아 식민주의자들의 행위를 규탄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45개국 결의안이 찬성 99표, 반대 2표 (서반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기권 1표(불란서)로 채택되였다.

제 17차 총회 12월 14일 회의에서 앙골라와 기타 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포도아 정부의 무력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제 16차 총회 6월 28일 회의에서 루안다 우룬디를 구분하여 두 개의 독립 국가 즉 루안다와 부룬디를 창설하며 1963년 8월 1일 이전으로 루안다와 부룬디로부터 벨기 군대를 철거시킬 것을 예견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38개국 결의가 절대 다수표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남로데시아에 대한 영국의 정책을 규탄하며 인종주의적인 현행 《헌법》을 페기하고 신 헌법을 작성하기 위한 제헌 회의를 조속히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였다. 제 17차 총회에서는 영국이 남로데시아의 짐바브웨 아프리카 인민 동맹당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아세아 아프리카 36개국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제 17차 총회에서는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을 권고하는 34개국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와르샤와 조약)

【성립】 구라파 사회주의 국가들은 서부 렬강 지배 계층들이 독일 군국주의를 재생시키며 재군국화되는 서부 독일을 침략 뿔럭인 《나토》에 인입시킬 목적으로 《파리 협정》을 비준함으로써 새 전쟁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정세 하에서 침략적인 나토와 기타 침략적 군사 뿔럭에 대처하여 1955년 5월 14일 파란의 와르샤와에서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본 조약은 평화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의 안전과 그의 민족적 독립 및 국가 주권의 공고화를 지침으로 하는 방위적인 성격을 띤 조약이다.

【성원】쏘련,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루마니야, 불가리야, 웽그리야, 알바니야

【기구】 지도 기관은 정치 협상 위원회(정부 성원이나 혹은 특별히 임명된 대표가 매개 나라를 대

표한다)이고 보조 기관으로서 상설 위원회와 합동 서기국이 있다.

합동군 총 사령관 아. 아그레치꼬 원수 (쏘련)

합동군 총참모장 쁘. 이바또브 대장(쏘련)

부사령관들은 체약국 무력 대표들로 임명된다.

본부 소재지 모쓰크바

【사업】 1962년 6월 7일 모쓰크바에서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정치 협상 위원회 회의가 조약 참가국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대독 평화 조정 문제에 대한 쏘련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회담에 관한 쏘련 외무상 아. 아. 그로믜꼬의 통보를 청취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의에서는 강화 조약의 체결과 이 기초 우에서 서부 베를린 점령 제도를 청산하며 자유 도시 서부 베를린의 창설을 통하여 대독 평화 조정을 달성하는 것이 구라파 안전의 리익과 또한 전반적 평화의 리익에 부합된다는 것이 일치하게 확인되였다.

회의에서는 서부 렬강이 제 2 차 세계 대전의 잔재들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려 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는 히틀러 독일을 반대하여 싸웠으며 대독 강화 조약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들로 하여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그와 같은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특히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결의에 충만되여 있다고 선언하였다.

1962년 10월 23일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합동군 총사령관 그레치꼬 원수는 큐바를 반대하여 미국 정부가 취한 도발 행동과 관련하여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군대 대표들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합동군 군인들과 함대들의 전투 태세를 강화할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합동군 총 사령부의 훈련 계획에 따라 1962년 4월 웽그리야에서 웽그리야, 루마니야 및 쏘련 군부대들과 참모부들의 참가 하에 군사 연습이 진행되였다. 또한 1962년 10월 상순에 파란의 서부 연해 지역과 민주 독일의 북부 지역에서 쏘련,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파란 군대 각 병종 부대들의 군사 훈련이 진행되였으며 10월 중순에는 루마니야의 동남부에서 수개 사회주의 국가 군대들의 병종 군부대들이 참가한 군사 연습이 진행되였다.

아랍 련맹

League of Arab States

【성립】 1944년 9월에 있은 아랍 외상 회의에서 채택된 《알렉산드리아 의정서》의 원칙에 기초하여 1945년 3월 22일에 성립되였다. 련맹은 아랍 국가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성원국들의 독립과 주권을 수호하며 식민주의를 배격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성원】 아랍 련합 공화국, 씨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예멘(성립 당시 가맹), 리비아 (1953년 3월 가맹), 수단(1956. 1월 가맹), 모로코, 튜니샤(1958년 10월 가맹), 쿠웨이트 (1961년 7월 가맹), 알제리아(1962년 8월 가맹).

【기구】 최고 기관인 리사회와 정치, 경제, 문화 등 특별 위원회들과 서기국이 있다.

서기장 모함메드 아브델 할레크 하수나(아랍 련합 공화국)

본부 소재지 카이로

【사업】 1962년 2월 26일 카이로에서 진행된 리사회 회의는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는 알제리아 인민들에 대한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알제리아 인민을 반대하는 불란서 식민주의자들을 규탄하였다.

1962년 3월 31일~4월 4일에 걸쳐 사우디 아라비아의 리야드에서 련맹 리사회 제 37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이스라엘 문제, 알제리아 공화국 창건, 오만, 남부 예멘 및 기타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씨리아를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위협》에 직면하여 아랍 국가들의 공동 방위 조약을 리행할 데 대한 결의, 알제리아 정부에 물질적 정신적 원조를 계속 줄데 대한 결의, 오만 인민들에게 재정적, 물질적, 원조를 줄데 대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1962년 6월 18일 카이로에서 리사회 특별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는 알제리아 사태를 토의하고 알제리아의 독립과 령토 완정에 대한 어떠한 침범도 반대하여 투쟁할 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회의는 또한 알제리아를 분할하기 위하여 이 나라에 기지를 설치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항의 규탄하며 극단적 우익 분자들의 테로 행위를 청산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불란서 정부에 요구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1962년 9월 13일 카이로에서 리사회 제 38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아랍 련합 공화국이 씨리아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씨리아의 제소와 관련한 의견 상이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는 아브델 할레크 하수나를 련맹 서기장으로 재선하였다.

경제 위원회 회의가 1962년 5월 30일~6월 7일 카이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봉쇄 정책을 실시하며 아랍 및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경제적 협조를 강화할 데 대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 또한 투자, 상품 교류, 운수 수단의 리용 등 경제적 협조를 강화할 것을 예견한 아랍 경제 통일 리사회를 창설할 데 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 토)

North Atlantic Trearty Organization—NATO

【성립】 미, 영, 불 등 12개 서방 국가들이 1949년 4월 4일 워싱톤에서 조인한 《북대서양 조약》 (1949년 8월 24일 발효)에 의하여 성립되였다.

나토는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며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탄압하며 서구라파를 통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 동맹이다.

나토 내에서 최근 년간 령도권 문제를 둘러 싸고 성원 국가 간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성원】 미, 영, 불, 카나다, 이태리, 화란, 벨기, 룩셈부르그, 노르웨이, 덴마크, 포도아, 아이슬랜드(조인시 참가국), 희랍, 토이기(1952년 4월 참가), 서부 독일(1955년 5월 참가)의 15개국.

【기구】 최고 기관은 리사회(외상 또는 국방상, 재정상 등 관계 각료로 구성되며 회의는 매년 2, 3차 소집)이며 보조 기관으로서 상설 리사회 (가맹국 대표 1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상시 소집된다), 사무국, 군사 위원회 (최고 군사 기구로서 성원국 총참모장들로 구성되며 매년 1차씩 회의를 진행한다) 등이 있다.

사무 총장 디르크 스띄게르 (화란)

구라파 통합군 사령관 겸 나토군 사령관 렘니쩌(미국)

본부 소재지 파리

【사업】 1962년 2월 20일에 진행된 나토 리사회 특별 회의에서 미 국무성 정책 가획국 책임자 월트 로스트우는 《쿠바를 미주 국가 기구로부터 축출한 푼타 델 에스테 회의》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미국은 이 회의를 통하여 《쿠바에 대한 무기 및 전략 물자의 수출을 일체 금지할 것을 나토 성원국들에 요구하면서 쿠바와의 통상을 금지케 하려고 시도하였다.

5월 4~6일에 아테네에서 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군축 문제, 독일 및 베를린 문제, 나토의 핵 무장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회의는 《베를린에 관한 1958년 12월 16일부 선언에서 제시된 원칙들을 고수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서부 베를린 점령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는 나토의 침략적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회의에서는 특히 《동맹의 전체 성원국들로 하여금 나토 방위에서 핵 무기의 역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절차를 설정할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폴라리스 핵 로케트를 장비한 원자력 잠수함 5척을 나토에 제공하며 미국이 나토 관할 하의 독자적인 해군을 창설할 의향이라고 지적하고 그 대신 상용 무력을 증강할 것을 기타 나토 성원국들에 요구하였다.

이것은 핵 무기 문제에서 미국이 일정한 양보를 할 것처럼 보임으로써 기타 성원국들의 불만을 무마하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다. 불란서 외상 뮤르빌은 미국안에는 《어떤 새로운 내용》도 없으며 《지금과 꼭 마찬가지로 핵 무기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권을 미국의 수중에 위임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안을 반대하였다.

12월 13~15일 파리에서 리사회 정기 회의가 진행되였다.

콤뮤니케에 의하면 나토 참가국 대표들은 미국의 《쿠바 위기 처리에 만족을 표시》하였으며(10월 22일 상설 리사회 특별 회의는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봉쇄와 관련한 케네디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베를린을 계속 점령할 데 대한 《서방의 결의를 천명》하였다.

또한 콤뮤니케는 나토가 핵 및 재래식 분야에서 모두 《충분한 무력》을 유지하여야 한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일련의 문제를 둘러 싸고 나토 성원국들 간의 모순과 알륵이 발로되였다.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서구라파 국가들이 군사비를 현재의 2배로 증가시키며 병력을 100만 명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였는데 영국, 서독, 이태리 등 일련의 나토 성원국들은 이를 반대하였다.

회의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불만을 무마해 보려고 나토의 《다각적 핵 무력》을 창설할 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으나 이 문제 역시 나토 성원국들로부터 랭대를 받았다. 콤뮤니케에서도 이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는 12월에 영국 수상 맥밀란과의 낫소 회담에서 영국과 나토 국가들에 《폴라리스》 잠수함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미국이 통제하는 나토 《다각적 핵 무력》 창설 계획을 발표하였는바 이 계획과 관련하여 나토 국가들 간의 모순이 더욱 첨예화되였다.

핵 독점을 견지하며 서구라파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제는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이미 영국이 1960년 미국과 공동으로 발전시켜 온 《스카이볼트》 계획을 포기하고 미국의 《다각적 핵 무력》 계획을 접수하며 영국의 독자적 핵 무력을 미제의 통제 하에 둘 것을 영국에 요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란서가 영국의 본을 따라 독자적 핵 타격 력량을 나토 앞에 내 놓도록 할 계략을 세웠다.

12월 31일 케네디는 팜비치에서 《허다한 동맹국들과의 마찰이 발생》하며 지어 《일부 신경 과민한 동맹국(불란서를 가리킴)》에 죄 짓는 위험이 있더라도 그를 무릅쓰고 1963년에는 서방에 대한 《더욱 강경한 령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구라파에서 핵 독점을 유지하려고 발광

하였다.

드 골은 《불란서가 독자적 핵 타격을 가지지 않는 한 불란서의 존재란 생각할 수 없다》고 하면서 12월 22일 《추호도 주저함이 없이 강경한 대외 정책을 실시할》 것을 다짐하였다.

불란서 정계에서는 《세계를 핵무기를 가진 귀족과 보병 노릇을 하는 농노로 갈라 놓으려는 미국의》 수'법을 규탄하였다.

케네디는 《서방 동맹이 붕괴되여 개별적인 제지 력량으로 되기 시작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력량을 약화하는 불균형적 상태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가슴 아프게 보고 있다》고 팜비치에서 탄식하였다.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

(세아토)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SEATO

【성립】 미제의 책동 밑에 1954년 9월 8일 마닐라에서 조인된 《동남 아세아 집단 방위 조약 및 태평양 헌장》에 의하여 조작되였다(1955년 2월 19일 발효).

세아토는 아세아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며 동남 아세아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탄압하며 이 지역의 독립 국가들을 예속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제의 침략 쁠럭이다.

【성원】 미, 영, 불, 호주, 뉴질랜드, 타이, 비률빈, 파키스탄

【기구】 리사회 (최고 기관으로서 성원국 외상들로 구성되며 년 1회 이상 개최된다)와 그 밑에 방코크 주재 성원국 대사들로 구성되는 대표 리사회와 군사 고문단이 있으며 사무국에는 《파괴 활동》 방지 위원회, 군사 위원회, 경제 위원회 등이 있다.

사무 총장 포트 사라신 (타이)

본부 소재지 방코크 (타이)

【사업】 세아토는 1962년에도 라오스와 남부 월남에 대한 침략 책동을 강화하며 동남 아세아에서의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기 위하여 끊임 없이 책동하였다.

1962년 5월 2~4일과 10월 16~17일 간에 방코크에서 진행된 군사 고문관 회의들에서는 주로 라오스와 남부 월남에 대한 침략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5~6월에는 라오스에 대한 군사적 간섭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아토 성원국들인 미, 영, 호주, 뉴질랜드, 비률빈이 침략 군대를 타이에 파견(불란서는 거부)하였으며 미제는 동남 아세아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아토 내에 《특별 작전 기구》를 설치하였다.

1962년에 세아토 성원국들 간의 의견 대립과 모순은 더욱 격화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아토의 기능은 마비 상태》에 빠졌고 와해 상태에 처했다는 것을 서방 출판물들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아토 내에서의 의견 대립과 모순은 성원국 내의 서부 렬강과 타이, 비률빈, 파키스탄 등 아세아 성원국 간에 나타나고 있다. 아세아 성원국들은 곤난한 시기에 자기들을 《소홀히》 대한다고 서방 국가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

타이와 비률빈은 세아토의 침략 책동에 소극적으로 대한다고 영국과 불란서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으며 미제 호전광들은 세아토가 무기력하게 된 책임이 영, 불에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불란서는 미제의 사촉 하에 문제 토의에서의 일치 가결 원칙을 다수 가결제로 교체하자는 타이와 비률빈의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타이는 플레아 비하른 사원 령유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 (6월 15일)시 캄보쟈의 편을 들었다고 불란서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였고 나아가서는 불란서 상품 거부 운동을 포함한 반불 깜빠니야를 전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북부 보르네오 령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과 비률빈 간의 의견 대립도 표면화되였다.

파키스탄은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에 대한 군사 원조를 급속히 증강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세아토 성원국들 간의 리해 충돌로 인한 대립과 모순으로 말미암아 3월에 열리기로 되였던 세아토 리사회 회의는 수차에 걸쳐 회기를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 내에 끝내 열리지 못하였다.

중앙 조약 기구

(쎈토)

Central Treaty Organization—CENTO

【성립】 1955년 11월에 《바그다드 조약》이 조작되였다. 1959년 3월 24일 이라크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자 동년 8월 19일 기타 성원국들은 《바그다드 조약》 기구를 《중앙 조약 기구》 (쎈토)로 개칭하였다. 쎈토는 나토 및 세아토와 련결된 미제의 침략 도구이다.

【성원】 토이기, 파키스탄, 이란, 영국 (미국은 정식 성원국은 아니나 정치 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들에 들어 있으며 사실상 쎈토를 통제하고 있다)

【기구】 상설 리사회는 최고 기관으로서 가맹국의 수상 또는 외상으로 구성되며 년 1회 소집된다. 그 밑에 군사, 정치, 경제, 《파괴 활동》 방지 등 4개 위원회와 서기국이 있다.

사무 총장 할라트바리

본부 소재지 앙카라

【사업】 1962년 4월 30일~5월 1일에 런던에서 각료 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쎈토 성원국 대표들과 《옵써버》로 미 국무 장관 러스크가 참가하였다. 회의후 발표된 콤뮤니케에는 쎈토

성원국들의 군사력을 강화할 데 대한 문제가 주요하게 지적되였으며 또한 쎈토 성원국들 간의 고주파 무선 통신망, 이 나라들에서의 비행장, 항구, 철도망 등 군사적 목적을 위한 건설 사업들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강조되였다.

회의에서 러스크는 《공산 침략으로부터의 방위》를 운운하면서 《미국은 이 지역 성국원들에 대한 방대한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 계획을 약속하였다》고 떠벌렸다.

회의에서는 합동군 사령관 임명 문제를 둘러 싸고 성원국 간에 심각한 모순이 발로되였다. 미제의 배후 조종 하에 파키스탄, 토이기는 이 침략 쁠럭의 정식 성원국도 아닌 미국의 장군을 쎈토 합동군 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여 나섰는데 이것은 쎈토 내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영국의 반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리사회 전에 있은 군사 위원회에서와 리사회 회의에서 토의되였으나 성원국들 간의 의견 대립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였다.

미주 국가 기구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OAS

【성립】 1948년 4월 30일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회의는 《미주 국가 기구 헌장》에 조인하고 《범미 련맹》 (1890년 4월 14일 성립)을 《미주 국가 기구》로 개조하였다. 이 기구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미제의 지배를 확립하며 이 나라들에서 앙양되고 있는 반미, 반독재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미제의 침략 도구이다.

【성원】 라틴 아메리카 나라 20개국

【기구】 최고 기관인 미주 국가 회의(5년에 1차 소집), 자문 기관인 미주 국가 외상 회의, 상설 기관인 리사회, 구체적 기술 문제들을 해결하는 특별 회의 등이 있다.

본부 소재지 워싱톤

【사업】 1962년에 《미주 국가 기구》는 미제에 의하여 큐바에 대한 《집단적 간섭》을 강화하며 큐바 혁명을 말살하기 위한 도구로서 적극 리용되였다.

1962년 1월 22~31일까지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미주 국가 기구 제 8 차 외상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21개 성원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큐바에서는 도르티코스 대통령이 단장으로 참가). 미제는 이 회의에서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로 하여금 큐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케 하고 그들을 큐바에 대한 《집단적 제재》 조치에 가담케 하며 나아가서는 큐바를 반대하는 대규모의 집단적 무장 간섭에 이 나라들을 내몰려는 범죄적 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회의 벽두부터 큐바와 큐바를 지지하는 일련의 미주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패배를 당하였다.

미국의 지시에 따라 콜롬비아 등 추종 국가들이 큐바를 《제재하는 강력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데 대한 결의안들을 내놓았으나 브라질을 비롯한 일련의 국가 대표들의 반대를 받아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자 미제는 《미주 체계》의 모든 기구로부터의 큐바의 축출, 큐바와의 통상 중지, 큐바 침략을 위한 《특별 안전 위원회》의 설치 등 4개 항목의 《방안》을 내놓았다.

이것도 반대를 받게 되자 러스크는 《타협안》을 조작하여 회기를 예정보다 2일 간이나 연기하면서 집요하게 《막후 공작》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회의에서는 미국이 당초에 노린 목적과는 달리 큐바의 현존 제도를 《범 미주 체계의 사상과는 량립될 수 없는》 것으로 비난하는 《선언》과 큐바를 미주 국가 기구로부터 《축출》할 데 대한 《결의》가 필요한 최소 한도의 찬성 투표로 겨우 채택되였다.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구의 4분의 3을 망라하고 있는 브라질, 멕시코, 칠리, 볼리비아 등 이 대륙에서 가장 큰 6개 국가들이 큐바를 미주 국가 기구로부터 《축출》하는 데 찬성 투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큐바 대표는 회의에서 모든 결의들에 반대 투표하였다.

큐바 인민들은 2월 4일 수도 하바나에서 제 2차 전국 인민 대회를 진행하고 미제와 그 추종자들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조작한 범죄적인 반큐바 음모 책동을 규탄하고 피로써 쟁취한 혁명을 끝까지 고수 발전시킬 데 대한 자기의 확고한 결의를 표명한 제 2차 하바나 선언을 채택하였다.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를 전후하여 라틴 아메리카 각국에서 큐바에 대한 미제의 간섭을 규탄하고 큐바 인민에 대한 련대성을 표시하는 각종 형태의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10월 2~3일 간에 워싱톤에서 미주 국가 기구 외상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미제는 중미 및 카리브 지역 10개 국가들의 군사 동맹을 조작하며 자기가 이미 감행하고 있는 큐바에 대한 경제 및 통상 봉쇄 조치에 미주 국가들을 적극 참가시키며 볼리비아, 브라질, 칠리, 멕시코 및 우루과이 등 5개국으로 하여금 큐바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케 하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이러한 흉악한 기도는 회의 첫날부터 브라질, 멕시코, 칠리 등 가장 큰 나라들과 기타 나라 외상들의 반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회의는 《구속력》을 가진 아무런 결정도 채택하지 못하고 다만 《서반구의 안전을 공고화하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느니,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보았다»느니, 《꾸바와의 통상에 자기 나라의 선박을 리용하는 문제를 검토하는데 합의를 보았다»는 등 빈말로 엮어진 콤뮤니케를 발표하였을 뿐이다.

회의는 브라질, 멕시코, 칠리 대표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조치도, 타국의 내정에 대한 불간섭 정책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콤뮤니케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 미주 국가 기구 리사회 10월 23일 회의에서는 꾸바에 있는 미싸일 기지들을 즉시 해체하며 꾸바에로의 소위 《공격용 무기 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무력을 사용할 데 관한 미 국무 장관 러스크의 결의안이 강압 채택되였다. 11월 22일 회의에서는 꾸바의 소위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미주 국가들에로의 자금 송달» 정형을 《조사»하며 이 《조사»에 착수하는 데 1만 1천 딸라를 할당할 것을 결정하였다.

《미주 국가 기구»는 반꾸바 책동에서의 엄중한 의견 불일치로 하여 《1962년에 가장 불안정한 한 해를 보내였으며» 미제의 침략 도구로서 더욱 더 집요하게 리용 당함으로써 가장 치욕스러운 한 해를 보내였다.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Совет Экономической Взаимопомощи—СЭВ

【성립】 1949년 1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쏘련, 체코슬로바키야, 파란, 웽그리야, 루마니야, 불가리야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경제 회의 결정에 의하여 성립되고 동년 4월에 활동을 개시하였다.

【성원】 쏘련, 체코슬로바키야, 웽그리야, 파란, 루마니야, 불가리야, 알바니야 (1949년 2월 가입),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950년 9월 가입), 몽고 (1962년 6월 가입).

【기구】 리사회 총회(최고 기관), 리사회 집행 위원회(성원국들의 내각 부수상들로 구성됨), 리사회 성원국 대표자 협의회, 리사회 서기국

소재지 모스크바
총비서 엔 파제예브

【상설 위원회】

흑색 야금 상설 위원회
유색 야금 상설 위원회
화학 공업 상설 위원회
석탄 공업 상설 위원회
원유, 가스 상설 위원회
기계 제작 상설 위원회
전력 상설 위원회
원자력의 평화적 리용 상설 위원회
건설 상설 위원회
식료 및 경공업 상설 위원회
운수 상설 위원회
농업 상설 위원회
대외 무역 상설 위원회
경제 문제 상설 위원회
기술 협조 조절 상설 위원회
군수 공업 상설 위원회
과학 연구 사업 조절 상설 위원회
규격화 연구소
통계학 연구소
재정 상설 위원회

자기의 기구들을 통하여 중요 경제 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한 후 성원국들에 대한 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성원국 정부가 비준한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성원국들 간의 쌍무 협정과 기타 협약의 체결에 의하여 실시된다.

창설 초기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의 활동은 주로 리사회 성원국들의 대외 무역 활동을 조절하는데 기본을 두었으나 1954년부터는 성원국들의 인민 경제 계획을 호상 조절하는 데로 이행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게 중요한 생산 부문에서 성원국 대표들이 참가하는 경제 및 과학 기술 상설 위원회들을 창설하였다.

【사업】 1962년 6월 6일부터 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성원국 당 제 1비서 및 정부 수석 회의에서는 리사회 성원국들 간의 경제적 협조와 생산의 전문화 및 협동화를 더욱 강화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의하여 금후 리사회는 성원국들의 인민 경제 전망 계획과 현행 계획들에 대한 조절 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는바 우선 1980년까지의 각 성원국들의 인민 경제 계획에 대한 조절 사업을 진행하며 생산의 전문화 및 협동화를 촉진시키며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키며 매개 성원국들이 5개년 계획 마지막 2년 또는 그 이후 시기에 예견한 채취 및 가공 공업 부문 기본 투자를 조절하게 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쎄브를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1962년 12월 14~20일 간에 부카레스트에서 진행된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제 17차 전원 회의와 동년 12월 16~20일 간에 진행된 쎄브 집행 위원회 제 3 차 회의에서는 이 기구의 1962년도 사업에 대하여 토의하고 쎄브 성원국들 간의 1965년 이후 시기의 기본 투자에 관한 문제, 연료 발란스 문제, 뜨락또르 및 농기계 생산 전문화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또한 회의들에서는 환자—금융 분야에서 쎄브 성원국들의 협조를 강화할 데 대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환자—금융 문제 상설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집행 위원회에서는 개별적 기계 및 설비 생산의 전문화와 1965년까지 전문화된 제품의 호상 납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 무역에서 다각적 결제 체계 수립과 사회주의 국제 은행을 창설할 데 관한 문제, 성원국들 간의 현행 가격 설정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경제적 근거가 있는 한 계약 가격을 정정할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가격 수정은 종합적인 성격을 띠여야 한다고 성원국들에 권고하였다. 가격 수정은 1957~1961년간의 세계 시장 평균 가격에 기초할 것을 권고하였다.

철도 협조 기구

【성립】 1956년 6월 쏘피야에서 있은 제 1차 사회주의 국가 철도상 회의에서 성립되였다.

【성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알바니야, 웽그리야, 불가리야, 체코슬로바키야, 루마니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파란, 몽고, 월남 민주 공화국.

【기구】 철도 상 회의 (최고 기관으로서 매년 1회 소집), 철도 운수 위원회 (철도상 회의 휴회 기간의 집행 기관), 10개의 상설 분과 위원회, 자동차 운수 및 도로분과 위원회가 있다.

위원장 헨리크 론쥐께비치 (파란)

본부 소재지 와르샤와

【사업】 사회주의 국가 철도 협조 기구 제 7차 상 회의가 1962년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울란바또르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철도 협조 기구 위원회 사업 보고, 기술 경제적 문제들과 기타 문제들을 토의하고 국제 운수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이 분야에서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과학 기술적 협조와 철도, 자동차 운수 및 도로 운수의 기술적 개선에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일련의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성립】 1956년 6월 12일 북경에서 성립되였다.

【성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 몽고

【기구】 전원 회의와 비서처, 해양 어업, 어업 자원 보호 분과 위원회들이 있다. 전원 회의는 매년 가맹국들의 수도에서 돌번으로 열린다.

위원장 허 덕행(중국)

본부 소재지 북경

【사업】 태평양 서부 어업 연구 위원회 제 7차 전원 회의가 1962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쓰크바에서 진행 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성원국 대표단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1961~1962년도 위원회 사업 보고와 성원국들이 제출한 54건의 학술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1962~1963년도 어업, 해양학 및 호소학 연구 부문에서 각국의 협조를 강화할 데 관한 건의와 1962~1963년도 위원회 및 전문 분과 위원회들의 사업 계획을 채택하였다.

련합 원자 핵 연구소

Объединенный Институт Ядер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성립】 1956년 3월에 성립되였다.

【성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쏘련, 중국, 몽고, 파란, 체코슬로바키야, 웽그리야, 루마니야, 불가리야, 알바니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월남 민주 공화국

【기구】 전권 대표 위원회, 학자 리사회, 재정 위원회가 있다.

소장 드미뜨리 블로힌쩨브

본부 소재지 두브나

【사업】 1962년 5월 두브나에서 학자 리사회 제 12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반년간 련합 원자 핵 연구소의 학자들이 진행한 과학 연구 사업들과 련합 핵 연구소 내의 고 에네르기 실험실에서의 4년 간의 사업 경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1962년 11월 20~24일 두브나에서 학자 리사회 제 13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62년도 사업이 총화되였으며 연구소의 금후 연구 활동 계획이 제시되였다.

구라파 《공동 시장》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성립】 구라파 《공동 시장》은 1957년 3월 25일 이태리의 로마에서 불란서, 서부 독일, 이태리, 벨기, 화란, 룩셈부르그의 6개국 대표들이 구라파 《공동 시장》 창설에 관한 조약 (로마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성립되였다. 동 조약은 195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고 1959년 1월 1일부터 《공동 시장》의 경제 통합 제 1단계가 개시되였다.

《공동 시장》은 자본주의 세계 시장의 축소,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형성의 강화의 결과 산생된 제국주의 모순의 산물로서 서독과 불란서가 서구라파에서 미영의 세력을 구축하고 령도권을 장악하려는 배타적인 쁠럭이다. 《로마 조약》에 의하여 《공동 시장》은 관세및 수출입 제한의 철폐, 비 성원국들에 대한 통일적인 관세 및 무역 정책의 적용, 성원국들 간의 로동과 자본와 자유로운 류동, 농업 및 운수 분야에서의 공동 정책의 실시 등을 예견하고 있다. 즉 《공동 시장》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외적으로는 관세 장벽을 높이 쌓아 올리며 성원국들 간에는 온갖 제한 조치를 철폐함으로써 경역 내의 시장을 《단일화》하여 독점체들에게 최대한의 리윤을 보장하자는 것이며 《공동 시장》을 창설함으로써 자본주의 지반과 《나토》의 경제적 기초를 강화하며 사회주의 진영, 민족 해방 운동,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로동 운동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반혁명 세력들의 공동 진출을 용이케 할 뿐만 아니라 후진 국가들에 대한 략탈과 예속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기구】 리사회 (6개국의 상급

로 구성되는 정책 결정 기관), 구라파 위원회 (집행 기관), 경제 사회 위원회 (자문 기관)가 있다.

【성원】 불란서, 서부 독일, 이태리, 벨기, 화란, 룩셈부르그

· 준 가맹국—희랍 (1962. 3.2)

가맹 신청국—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사업】 1962년 1월 14일 《공동 시장》 참가 외상 및 농업상들의 회의에서 1962년 7월 1일부터 공동 농업 정책을 실시할 데 관하여 합의를 보고 《공동 시장》의 제 2 단계 (첫 단계는 1961년 말로 끝났다)로 이행하기로 결정하였다. 4월 5일에 진행된 《공동 시장》 참가국 농업상들의 회의에서 공동 농업정책 실시와 관련한 규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5월 15일 각료 리사회에서는 7월 1일부터 공업 제품에 대한 《공동 시장》 성원국 경역내 관세를 제 5차로 10% 인하할 것을 승인하였으며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5% 인하할 것을 승인하였다.

《공동 시장》의 경제 통합 과정이 추진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서방 제국주의 렬강 간의 시장 재분할을 위한 쟁투가 급격히 표면화되게 되였다.

《자유 통상 지대》를 형성하여 《공동 시장》에 맞서려던 영국의 기도가 완전한 파산을 당하게 되자 영국은 1962년 9월 《공동 시장》가입을 정식 신청하였다. 영국이 《대영 제국》의 체면도, 영 련방 성원국들의 리해 관계의 희생도 무릅쓰고 《공동 시장》에 가입하려는 목적은 《공동 시장》의 대외 관세의 장벽을 뚫고 서구라파 시장에 침투함으로써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며 서구라파에서의 령도권을 유지해 보려는데 있다.

한편 미제는 《공동 시장》에 영국을 들여 보내고 내부에서 영국을 통하여 불란서를 고립시키는 동시에 불란서와 서독 간의《협조》를 파괴하고 《무역 확대법》 (1962년 10월에 채택된 것으로서 현행 관세률을 10% 인하시킬 일반 권한과 미국 및 《공동 시장》 성원국을 합하여 세계 무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케네디에게 부여하고 있다)에 기초하여 외부적으로 《공동 시장》의 관세 장벽을 깨뜨리고 서구라파에 더욱 깊이 침투할 것을 타산하였다. 이것은 서구라파를 계속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미국과 그러한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서구라파 국가들 간의 모순을 첨예화시켰다.

미국이 서구라파 국가들로부터의 판유리 및 융단의·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한 《보복 조치》로서 6월 4~5일에 진행된 각료 리사회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합성 및 인조 섬유와 와니스를 포함한 다섯 종류의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영국은 《공동 시장》에 가입함에 있어서 영 련방《특혜 관세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고집하였으나 《공동 시장》 성원국들은 영국이 《로마 조약》의 조항을 무조건 접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5월 28~29일 브류셀에서 진행된 《공동 시장》 참가국 및 영국 각료 회의에서는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공업 제품에 대한 영 련방 《특혜 관세》의 점진적 철폐 (1970년 1월 1일 이후는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공업 제품이 영국 시장을 포함한 《공동 시장》에 수입되는 경우 전면적으로 《공동 시장》의 대외 관세의 적용을 받는다)에 관한 타협안에 합의를 보았다.

불란서는 영국이 《로마 조약》을 접수하고 준 회원국으로 《공동 시장》에 가입하며 불란서의 《령도권》에 기초한 《구라파의 정치적 통합》을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에 앞서 실현할 것을 고집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란서는 《공동 시장》과 서구라파에서 령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불란서의 농산물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 시장》에 《특혜 관세제》에 의한 저렴한 가격으로 영 련방 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불란서와 서부 독일은 영 련방과 기타 영국 식민지들에 침투하기 위하여 영 련방의 《특혜 관세제》의 철폐를 집요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불란서는 미국 농산물의 수입을 배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공동 시장》을 미, 영에 대항하는 《제 3 세력》으로 전변시킬 것을 고집하였다.

이런데로부터 5월 28일과 29일 량일 간에 브류셀에서 진행된 구라파 《공동 시장》 참가국과 영국 간의 각료 리사회, 12월 24일에 끝난 브류셀 회담 1963년 1월의 브류셀 회담 및 불란서와 영국 수뇌자들 간의 회담에서 영국은 《공동 시장》 가입 목적을 달성하려고 발악적으로 노력하였으나 1963년 1월 29일 불란서의 반대로 끝내 실패를 당하였다.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성립】 1959년 11월 20일 서전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서전, 노르웨이, 덴마크, 오지리, 서서 및 포도아 간에 조인된 《소 자유 통상 지대》 창설에 관한 조약에 기초하여 1960년 5월 3일 정식 성립되였다.

이 기구는 서독과 불란서의 주관하에 있는 구라파 《공동 시장》에 대항하며 영국이 서구라파에서 자기의 리권을 유지하며 령도권을 장악할 목적으로 결성된 배타적인 경제 쁠럭이다.

조약에는 《공동 시장》과는 달리 점차적으로 가맹국의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 및 기타 통상 장벽을 철폐하며 《자유 시장》 등 경제적 련계를 설정함으로써 쁠럭을 강화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 영 련방 국가들 간에서 독점하고 있는 자기의《특혜 관세제》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서구라파 대륙 시장에서 서독 및 불란서와 동일한 지위를 확보 하려는 것이다.

【기구】 각료 회의(최고 기관), 리사회, 서기국, 자문 위원회 등이 있다.

본부 소재지 제네바

【사업】 1962년 6월 21~22일 코펜하겐에서 《구라파 자유 통상 지대》 각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공동 시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10월 31일부터 지역내 관세를 또다시 10% 인하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회의 진행 과정에서는 동 기구의 관세 인하 계획을 촉진시킬 필요성을 둘러싸고 분렬이 로골화되였다. 영국, 서전 및 서서는 관세를 10% 더 인하하는 데 찬성하였으나 덴마크, 노르웨이 및 오지리는 《이를 의문시》하였던 것이다. 1962년에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는 《공동 시장》 가입을 신청하였다.

세계 평화 리사회

The World Council of Peace

【성립】 1949년 4월 20~25일 간에 파리와 쁘라가에서 동시에 진행된 제 1차 세계 평화 옹호 대회에서 상설 위원회로 조직되였다가 1950년 11월 16~22일 와르샤와에서 열린 제 2차 세계 평화 옹호 대회에서 창건되였다.

【성원】 세계 평화 리사회는 76개의 국가 및 지역과 8개의 국제 기구 대표 500명으로 구성되여 있다.

【기구】 리사회, 뷰로, 집행 위원회, 서기국이 있다.

집행 위원회 위원장 죤 버널(영국)

본부 소재지 윈나, 기관지 《평화 옹호》, 《세계 평화 옹호 리사회 통보》.

【사업】 1962년 3월 17~18일에 윈나에서 진행된 집행 위원회 회의에서는 1962년 7월 모쓰크바에서 열릴 《전반적 군비 철폐 및 평화를 위한 세계 대회》의 준비 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군비 철폐 문제에 대한 호소문과 결의 및 알제리아에 관한 성명을 채택하였다.

1962년 10월 26~29일 서전의 스톡홀름에서 리사회 상설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큐바를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 행동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국제적 위기와 관련하여 모든 평화 애호 력량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

The Organization For The Afro—Asian peoples Solidarity

【성립】 1957년 12월 26일부터 1958년 1월 1일까지 카이로에서 열렸던 제 1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회의에서 창설되였다. 1960년 4월 코나크리에서 열렸던 제 2차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회의에서 명칭을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기구로 개칭하였다.

【성원】 아세아, 아프리카 60여개 나라들의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위원회들이 망라되여 있다.

【기구】 정기 회의 (2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 및 상설 서기국이 있다.

서기장 유세프 세바이 (아랍 련합 공화국)

본부 소재지 카이로

기 관지 《지놀》

【사업】 1962년 1월에 아세아 아프리카 단결 기구 상설 서기국은 1962년 1월 25일 나이제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 열리는 아프리카 독립 국가 회의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기여할 것을 호소하면서 반제 투쟁의 어떠한 약화도 인민들에 대한 새로운 고통만을 의미할 것이며 제국주의와의 어떠한 타협도 인민의 리익을 배반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3월 14일 상설 서기국은 라오스와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침략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4월 중순에 상설 서기국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요와 지시에 의하여 개시된 《한일 회담》은 조선을 분렬된채로 남아 있게 하며 이 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함으로써 일본의 군국화를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한일 회담》과 일본 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 항의하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여 단호하게 나설 것을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5일 상설 서기국은 조선에서의 미제의 강도적 전쟁 도발 12주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국을 신랄히 규탄하였으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였다.

성명은 미제의 침략 정책이 조선의 통일을 저애하는 주되는 장애물이며 전 세계 특히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의 화근이라고 지적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몰아내며 조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애국적 투쟁을 지지할 것을 각국의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 단결 위원회들과 사회 단체들,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및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0월 하순에 상설 서기국은 큐바를 봉쇄할 데 대한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결정은 미 제국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침략과 전쟁 정책의 뚜렷한 표현이며 평화 애호적이며 자유 애호적인 세계 인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공격이라고 규탄하고 큐바 인민의 정의의 애국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산하 위원들과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 및 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세계 직업 련맹

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s—WFTU

【성립】 1945년 9월 25일~10월 9일 파리에서 57개국 6,700만 명의 맹원을 가진 65개 민족 직맹

대표 215명의 참가 하에 진행된 창립 대회 10월 8일 회의에서 규약을 채택함으로써 성립되였다.

【성원】 39개국 민족 중앙 조직으로 구성되여 있으며 맹원 수는 1억 1,950만 6,800명 (1961년 말 현재)

【기구】 대회 (최고 기관으로서 4년에 1차 소집), 총리사회 (대회 휴회 기간의 지도 기관으로서 세계 직련에 가입하고 있는 모든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며 2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 (총리사회 휴회 기간의 지도 기관으로서 매년 2차 소집), 집행 뷰로 (세계 직련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며 집행 위원회 휴회 기간의 사업을 담당), 서기국 (1명의 서기장과 9명의 서기로 구성)이 있다.

위원장 레나토 비토씨(이태리)

서기장 루이 싸이양(불란서)

본부 소재지 쁘라가

기관지 세계 직맹 운동

【산하 산별 직맹】 세계 직련 산하에는 11개의 산별 직맹이 있다.

국제 금속 및 기계 로동자 직맹

국제 광산 로동자 직맹

국제 화학 및 섬유 로동자 직맹

국제 농업 및 림업 로동자 직맹

국제 건축,목재 및 건재 로동자직맹

국제 운수,항만 및 어업 로동자 직맹

국제 방직, 피복, 피혁 및 모피 로동자 직맹

국제 식료,담배,음료 공업 및 호텔, 카페,레스토란 로동자 직맹

국제 상업 일'군 직맹

국제 공무원 직맹

세계 교원 직맹

【사업】 1962년 5월 31일~6월 2일 부다페스트에서 집행 위원회 제 5 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국제 정세와 제 5차 세계 직맹 대회에서 채택된 행동 강령 및 결의 실행에 관한 문제, 근로 녀성들의 문제에 관한 제 2 차 국제 회의 준비, 서기국 구성 변동에 관한 제의 및 기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6월 1일 오전 회의에서 우리 나라 직맹 대표단 김 왈룡 단장이 현 정세 하에서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할 데 대하여 연설하였다.

회의는 평화와 군비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여 전 세계 근로자들과 직맹들에 보내는 호소문, 남부 월남 및 라오스 사태에 대한 성명, 서부 이리안 해방을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의 투쟁과 관련한 성명, 서반아 근로자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여 전 세계 근로자들과 직맹들에 보내는 호소문, 알제리아 로동 총련맹과 알제리아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축하 편지 등 일련의 문건들을 채택하였다.

1962년 12월 14~17일 라이프찌히에서 세계 직맹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구라파 경제 공동체의 활동과 독점체들의 정책의 경제적 및 사회적 후과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기타 사업—세계 직련은 1962년 3월에 6.25 12주년과 조선 정전 협정 체결 9주년에 제하여 전 세계 근로자들과 직맹들이 조선 근로자들과 인민에게 강력한 련대성을 표시할 것을 호소하여 각국 직맹 단체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5월에는 《한일 회담》과 일본 군국주의의 남조선 침투를 반대하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 침략 군대의 철거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로동자들과 인민들에게 강력한 련대성을 표시할 것을 호소하여 각국 직맹 단체들과 국제 산별 직맹들에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6월 22일 세계 직련 서기국은 6. 25 12주년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제의 남조선 강점이 조선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최대의 중요 장애물이며 남조선 인민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재난과 고통의 화근이라고 지적하고 1억 2천만 맹원들의 이름으로 미제의 전쟁 도발 책동과 그 만행을 규탄하면서 남조선의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세계 민주 청년 련맹

World Federation of Democratic Youth—WFDY

【성립】 1945년 11월 10일 63개국의 청년 대표 437 명 참가 하에 런던에서 진행된 세계 청년 대회에서 창건되였다.

【성원】 세계 97 개국의 1억 100만명 (1960년 말 현재)

【기구】 최고 기관은 대회이고 대회 밑에 집행 위원회,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피에르 피에랄리(이태리)

기관지 세계 민청 (11 개 어로 출판)

본부 소재지 부다페스트

【사업】 1962년 8월 10~16일에 걸쳐 와르샤와에서 세계 민주 청년 련맹 제 6차 대회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약 100 개 국가에서 200개 이상의 산하 단체들을 대표하는 약 600명의 대표들과 방청자들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련맹 집행 위원회의 사업 보고와 조직 문제 및 련맹 규약 개정 초안에 관한 보고를 청취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일반 결의를 비롯하여 남조선과 남부 월남 정세에 관한 결의를 포함한 아세아 문제에 관한 7개의 결의, 아프리카 나라 정세에 관한 11 개의 결의, 라틴 아메리카 문제들에 관한 14개의 결의,구라파 나라들에 대한 4개의 결의가 채택되였다.

조선에 관한 결의에서 대회는 남조선에서의 미제 침략 정책과 학살 만행을 견결히 규탄하고 미 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은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인민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 조선적 자유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시킬 데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에 대

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결의는 또한 6. 25를 계기로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 침략군의 철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 및 청년들과의 국제적 주간을 조직할 것을 련맹 서기국에 위임하며 조선 인민과 청년들의 정의의 투쟁에 적극적인 국제적 련대성을 표시할 것을 전 세계 청년들과 그들의 조직들에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남부 월남 해방 청년 동맹이 동 련맹 성원으로 승인되였다.

1962년 1월 10~13일 부카레스트에서 련맹 뷰로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련맹 제 6차 대회 소집에 대한 결의, 남조선 정세에 관한 결의를 비롯한 일련의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결의는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야수적 탄압과 학살 만행을 단죄하고 6.25를 계기로 미제 침략군의 철거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세계적 깜빠니야를 전개할 것을 전 세계 학생들과 청년 단체들에 호소하였다.

3월 8일 련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남조선 재침 책동을 반대하며 미군의 즉시 철거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조선 청년들과 조선 인민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할 것을 전 세계 청년들에게 호소하였다.

4월 련맹 서기국은 남조선 인민들의 4월 봉기 2 주년에 제하여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며 박정희 군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국제 학생 동맹

International Union of Students —IUS

【설립】 1946년 8월 쁘라가에서 48개국 학생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된 제 1차 세계 학생 대회에서 창설되였다. 동맹은 학생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며 평화, 민족적 독립, 민주주의적 교육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국가들의 민주주의적 학생 조직들을 단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원】 60개국의 63개 학생 단체(1962년말) 약 370만명을 망라

【기구】 최고 지도 기관인 대회(2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매년 2차 소집) 및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이르쥐 쁘리깐 (체코슬로바키야)

본부 소재지 쁘라가

기관지 세계 대학생 소식 (월간)

【사업】 1962년 8월 18~29일 간에 레닌그라드에서 국제 학생 동맹 제 7차 대회가 우리 나라 대표를 비롯한 90개 단체 대표들과 방청자들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대회는 국제 학생 동맹 집행 위원회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전 세계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조선에 관한 결의들을 비롯한 일련의 결의들과 제의 및 전문들을 채택하였다.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대회는 미 제국주의의 남조선에 대한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미제 침략군대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결의는 또한 조선을 어떠한 외국의 간섭없이 조선인 자신의 손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조선 자유 선거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시킬데 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립장을 전적으로 지지하였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남북 간에 호상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며 남조선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거한 이후에 남북 조선 병력을 각각 10만 명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남조선 당국에 제의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최고 인민 회의의 제의를 환영하였다.

대회는 6월 25일을 계기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며 자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 및 학생들과의 국제적 련대성 주간을 조직할 것을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에 위임하였다. 대회는 국제 학생 동맹에 15개국 학생 단체들을 새로 받아들이고 동맹의 새 지도 기관을 선거하였다.

1962년 5월 18~23일 간에 쟈카르타에서 집행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평화와 반둥 원칙의 승리와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교육의 개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아세아 학생들과의 국제적 련대성을 위한 국제 학생 동맹 활동의 강화, 1961년 11월 집행 위원회 이후 동맹이 진행한 사업과 레닌그라드에서 소집되는 제 7차 대회 준비, 헬싱키에서 진행되는 제 8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준비를 위한 국제 학생 동맹의 활동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회의 참가자들은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 특히 미 제국주의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아세아, 아프리카 학생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남조선에 관한 결의에서 집행 위원회는 조선의 분렬과 남조선 인민들과 학생들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고 남조선 인민과 학생들에 대한 미제와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의 야수적 만행을 견결히 항의 규탄하였다. 결의는 또한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의 기간을 남조선으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들 및 학생들과의 국제적 련대성 주간으로 설정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계기로 조선 인민과 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할 것을 전 세계 학생들과 그의 단체들에 호소하였다.

동맹 서기국은 1962년 1월 13

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학생들과 그 단체들에 《한일 회담》을 반대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과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의 즉시 철거를 위한 조선 인민들과 학생들의 투쟁에 국제적 련대성을 표시할 것을 호소하였다.

4월 16일 동맹 서기국은 남조선 인민들의 4월 봉기 2주년에 제하여 남조선에서 감행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과 박 정희 군사 파쑈 도당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전 세계 학생들과 그 단체들에 보내는 서한을 발표하였다.

국제 민주 녀성 련맹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WIDF

【성립】 1945년 12월 1일 파리에서 진행된 제 1차 국제 녀성 대회에서 창설되였다.

【성원】 80 여개 국가의 2억 이상의 녀성을 망라(1962 년)

【기구】 최고 지도 기관인 대회(4년에 1차 소집), 리사회 (매년 1회 소집), 뷰로,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유제니 코통 (불란서)
서기장 카르멘 잔티 (이태리)
본부 소재지 베를린
기관지 세계 녀성

【사업】 1962년 3월 23~25일 윈나에서 군비 철폐를 위한 세계녀성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 문제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세계 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제네바 군비 축소 회담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세계 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대회는 핵 시험 중지를 위한 민족적 또는 국제적인 행동을 지지하기 위한 이니샤티브를 취할 것을 모든 녀성들에게 호소하였다.

리사회 회의가 1962년 12월 7~11일 베를린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각국 녀성 단체 대표들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회의는 1963년 6월 모쓰크바에서 소집되는 세계 녀성 대회 준비 문제를 토의하였으며 국제 민주 녀성 련맹 사업 계획 초안을 심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 침략 군대의 철거를 요구하며 나라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녀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 것을 호소하는 각국 녀성 단체들에 보내는 전문이 채택되였다.

뷰로 회의가 1962년 1월 19~23일 말리의 바마코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아프리카 녀성들의 역할에 관한 보고, 아프리카 녀성들을 동원함에 있어서의 녀성 단체들의 역할에 관한 보고, 사회에서의 아프리카 녀성들의 역할에 관한 보고, 인종 차별을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아프리카 녀성들의 역할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 결의를 채택하였다.

일반 결의에서 대회는 외국의 압박으로부터 아프리카를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아프리카 녀성들의 투쟁을 지지할 것과 평화를 유지하며 녀성들의 권리와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신구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공동 투쟁에서 통일을 강화할 것을 전세계 녀성들에게 호소하였다.

국제 민주 법률가 협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IADL

【성립】 1946년 10월 파리에서 결성되였다.

협회의 목적은 법을 평화 옹호에 복무시키며 법률학의 발전, 각국의 법률가들 및 법률 단체들 간의 접촉의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데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63 개 국의 단체들과 법률가들

【기구】 최고 기관은 대회이고 리사회, 상설 위원회, 서기국

명예 위원장 디.엔.프리트(영국)
위원장 피에르 코트(불란서)
루돌프 비스뜨리쯔끼 (체코슬로바키야), 페렐라 (세일론)
서기장 조에 노르만 (불란서)
본부 소재지 브류쎌

【사업】 1962년 4월 5~7일 쁘라가에서 진행된 서기국 회의는 일련의 국제 사변들의 법적 측면들에 대하여 토의하고 남부 월남에 관한 결의문, 라오스에 관한 결의문, 푼타 델 에스테 회의에 관한 선언들을 채택하였다.

6월에 서기국은 5월 말에 파주에서 감행된 조선 청년에 대한 미군 야수들의 폭행을 반대 항의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미군 사령부는 다른 나라 인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으며 인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박탈하는 군사 정권을 수립하고 있으며 평화에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계 과학자 련맹
World Federation of Scientific Worker—WFSW

【성립】 1946년 7월에 창립되였다. 련맹의 목적은 각국 과학자들간의 단결을 도모하며 과학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22 개국의 20만 이상의 과학자들이 망라.

【기구】 최고 기관인 대회 (3년에 1차 소집), 집행 리사회와 집행국이 있다.

위원장 에스 포웰(영국)
본부 소재지 런던

【사업】 1962년 9월 13~15일에 걸쳐 모쓰크바에서 제 7차 대회가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약 300 명의 과학자들의 참가 하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세계 과학자 련맹의 활동, 평화와 진보 및 국제적 협조의 강화를 위한 과학자들의 앞으로의 투쟁 과업과 관련된 문제들을 심의하였다.

대회는 일반 결의와 과학 연구에서 후진 국가들에 원조를 줄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새 계

도부를 선거하였으며 큐바와 불란서 과학자 동맹을 련맹 성원으로 받아들였다.

1962년 10월 17~20일에 쁘라가에서 집행 위원회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지리학 년도 계획, 지구 외기층에 대한 연구, 생물학 계획 특히 유기체들과 식물에 미치는 방사성의 영향에 대한 연구 등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결의를 채택하였다.

국제 기자 동맹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Journalists—IOJ

【성립】 1946년 6월 코펜하겐에서 성립되였다.

【성원】 27개 국의 28 개 기자 단체

【기구】 최고 기관인 대회(4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와 서기국이 있다.

위원장 쟝 모리스 에르망(불란서)

서기장 이르쥐 메이쓰네르 (체코슬로바키아)

본부 소재지 쁘라가

기관지 민주 기자

【사업】 제 5차 대회가 1962 년 8월 6~10일에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50 개 국 대표 190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국제 기자 동맹 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남조선 기자들에 대한 박해에 관한 결의, 기자들의 륜리에 관한 결의, 직업적 활동으로 인한 기자들에 대한 박해에 관한 결의, 기자들의 사회적 및 직업적 문제에 관한 결의, 국제 기자 동맹의 활동에 관한 결의들과 단결에 대한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이라크, 말리,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 멕시코 및 큐바의 그루빠들을 동맹 성원으로 받아 들일 데 대한 집행 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였으며 남부 월남의 진보적 민주주의적 기자 그루빠와 에쿠아도르 및 아르젠틴의 기자 단체들의 가입 신청을 심의하고 만장 일치로 이를 접수하였다.

대회는 국제 기자 동맹의 규약을 일부 개정하고 국제 기자 동맹에 사진부를 창설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지도부를 새로 선거하였다.

1962 년 1월 13~15 일 하바나에서 국제 기자 동맹 집행 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동맹의 활동에 관한 보고와 보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관한 보고를 청취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남조선 군사 통치배들에 의하여 희생된 남조선 《민족 일보》 사장 조용수에게 국제 기자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6월 1일 국제 기자 동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미제와 남조선 군사 파쑈 통치배들이 남조선의 애국적이며 진보적 기자들을 계속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는 데 대하여 항의하였다.

12월 국제 기자 동맹은 남조선 기자들에 대한 체포와 신문 및 잡지들의 발행 금지를 반대하여 남조선 당국에 항의문을 보내였다.

국제 방송 및 텔레비죤 기구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Radiodiffusion et Television—OIRT

【성립】 1946년 6월 28일 브류쎌에서 성립, 이 기구는 세계 평화와 인민들 간의 친선과 문화적 련계를 강화하는 데 라지오, 텔레비죤 및 방송 수단들이 리용되도록 하며 선진 방송 기술을 보급하는것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성원】 우리 나라를 비롯한 23 개 국의 방송 기관들.

【기구】 총회 (2년에 1차 소집), 행정 리사회 (매년 1차 소집), 4개의 위원회, 총서기처가 있다.

본부 소재지 쁘라가

【사업】 1062년 9월 28일~10월 2일에 걸쳐 베를린에서 행정 리사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 프로들을 교환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인민들간의 호상리해를 촉진시키며 《랭전》을 청산하기 위하여 기타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 국제 단체 및 민족 단체들과 백방으로 협조할 자기의 용의를 표시하였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IOC

【성립】 1894년 6월 파리에서 있은 제 1차 국제 체육 대회는 고대 희랍에서 4년에 1차씩 진행하던 올림픽 대회를 회복하기로 결정하고 국제 올림픽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성원】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6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여 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국가 및 지역의 올림픽 위원회 수는 104개이다.

【기구】 최고 기관인 위원회 (1년에 1차 소집), 집행 위원회가 있다.

위원장 브란데지 (미국)

서기장 옷토 마이에르(서서)

본부 소재지 로잔느(서서)

【사업】 1962년 6월 4~7일 간에 걸쳐 모쓰크바에서 7명의 집행 위원회 대표를 포함하여 45명의 위원들의 참가 하에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59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6월 5일 회의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를 잠정적으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새 성원으로 가입시킬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동시에 위원회는 《만약 9월 1일까지 <한국 올림픽 위원회>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과의 유일팀 구성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1964년에 열리는 《도꾜 올림픽 대회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인들이 독자적으로 출전하도록 허락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몽고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 올림픽 위원회들을 국제 올림픽 위원회의 새 성원으로 받아들일 데 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12월 20일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이 1964년 도꾜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조선의 유일팀 구성에 관한 합의를 탐구하기 위하여 1963년 1월 24일 로잔느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63년 1월 24일 로잔느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의 참가 하에 김 종항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 대표단과 남조선측 대표단 간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남북 조선 올림픽 위원회 대표들은 제 18차 국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남북 조선 유일팀 구성 문제를 토의하고 국가 문제, 대표단 단장 선출 문제와 같은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우리측 대표의 적극적인 노력과 포용력 있는 태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측 대표는 기'발 문제에서 부당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유일팀 구성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한 토의를 회피하였다. 그리하여 기'발 문제는 부득불 2월 7일의 국제 올림픽 위원회 집행 위원회 회의에서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일임하였다.

1963년 2월 7일과 8일에 진행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집행 위원회 회의에서 남북 조선 유일팀의 기'발에 대한 두개의 권고안이 채택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는 이에 동의를 표시하였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15일이라는 기한을 설정하고 그때까지 남조선 측이 기'발 문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꾜 올림픽 경기 대회에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체육인들만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카사블랑카 헌장 참가국 회의

1961년 1월 4~7일 아랍 련합 공화국, 기니아, 가나, 말리, 모로코, 알제리아 및 리비아 대표들의 참가 하에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카사블랑카 헌장이 채택되였다.

카사블랑카 헌장 참가국들은 군사 쁠럭들에 가담하지 않으며 식민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아프리카의 정치 경제적 통일을 이룩하고 아프리카 나라들 간의 협조를 강화할 것을 자기 정책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위원회, 경제 위원회, 군사 위원회 및 문화 위원회들이 조직되여 있다.

성원국은 아랍 련합 공화국 기니아, 말리, 가나, 알제리아, 모로코의 6개국이다.

정치 위원회 회의 1962년 6월 15~18일 간에 걸쳐 아랍 련합 공화국의 수도 카이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모로코, 아랍 련합 공화국, 기니아, 말리의 국가 원수들과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 수상 그리고 가나 외상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전반적인 국제 정세 및 아프리카의 통일에 관한문제, 아프리카에서의 반식민주의 투쟁에 관한 문제 등을 토의하고 콤뮤니케와 알제리아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콤뮤니케는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와 인민이 달성한 승리를 특히 만족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콤뮤니케는 통일 독립을 위한 콩고 인민의 투쟁, 자결을 위한 앙골라 인민의 투쟁, 령토 완정을 위한 모로코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고 남 아프리카에서의 인종 차별 정책과 남북 로데시아 및 니아살랜드 인민들에게 강요된 중앙 아프리카 련방을 견결히 배격 규탄하였으며 루안다 우룬디 인민에게 독립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콤뮤니케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함에 있어서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 것을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들에 호소하였으며 모든 나라들의 반제 민족 력량을 단합하여 통일 전선을 형성할 것을 아프리카의 모든 정당들에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문화, 경제, 정치면에서 헌장 조항들을 실천할 데 대한 조치들을 심의하였다.

1962년 1월 20~21일에 아크라에서 진행된 **외상 회의**는 카사블랑카 헌장 국가들과 토의 없이 일방적으로 라고스 회의 의정이 결정되고 이 회의를 위한 모든 준비 사업들이 진행된 것과 알제리아 공화국 림시 정부가 초청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라고스에서 열릴 아프리카 국가 수뇌자 회의를 뽀이코트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 위원회 제 2차 회의(3월 26일~4월 2일, 카이로)와 제 3차 회의(8월 7~10일, 라바트)는 헌장 참가국들 간의 통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와 제국주의 경제 쁠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특히 구라파《공동 시장》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주는 파국적 영향을 저지시킬 데 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는 아프리카 공동 시장을 창설할 데 대한 결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군사 위원회 제 3차 회의가 1962년 8월 23일 모로코의 마라케슈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아프리카 련합 총사령부의 창설 문제를 토의하였다.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1962년 2월 12~15일 카이로에

서 제 2차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50개국의 작가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서의 작가들의 역할에 대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시킴에 있어서의 번역의 역할,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에서의 민족 문화의 공고화 및 아세아, 아프리카 독자성의 발전에 대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력사의 재검토 및 그들의 문명의 광범한 선전,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 작가들의 처지 및 그들의 작품들의 보다 광범한 발표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의 연구 등 5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의 민족적 독립과 민족 경제를 계속 파괴하며 문화적 침략을 감행하고 있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한결 같이 규탄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들이 단합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는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를 비롯하여 일반 결의, 전 세계 작가들에게 보내는 격문, 아세아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민족 문화와 번역의 역할에 관한 결의들, 남부 월남에 관한 결의 및 기타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조선에 관한 결의에서 대회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과 작가들의 투쟁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대회는 남조선의 애국적 인민 및 작가들에 대한 미제와 군사 파쑈 도당의 파쑈적 테로 및 박해를 규탄하고 남조선 작가들에게 창작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대회는 조선을 외국의 간섭이 없이 조선 인민 자신에 의하여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평화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는 조선 인민의 주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으로부터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세아 아프리카 23개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집행 위원회를 설치하며 제 3차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반적 군비 철폐와 평화를 위한 세계 대회

1962년 7월 9~14일 간에 모스크바에서 전반적 군비 철폐와 평화를 위한 세계 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1961년 12월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세계 평화 리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소집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121개 국가, 지역 및 단위들에서 온 2,400여명의 대표, 옵써버 및 래빈들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세계 평화 리사회 집행 위원회 위원장 존 버날의 보고를 청취 토의하였다.

7월 12일 전원 회의에서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이 연설하였다. 그는 자기 연설에서 전반적인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제국주의와의 완강하고 견결한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계 평화 애호 력량은 굳게 단합하여 제국주의 전쟁 세력에 대한 경각성을 높여 이들의 침략 기도를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며 그들의 전쟁 도발 책동과 군비 경쟁을 철저히 파탄시켜야 한다고 언명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 인민은 평화를 위한 전 세계 인민들의 투쟁 대렬에 확고히 서서 우리 조국 남반부로부터 미제 침략군을 몰아 내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함으로써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 위업에 적극 기여할 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대표단 단장의 연설을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조선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절대 다수 대표들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대표들은 미제를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는 평화의 가장 큰 원쑤라고 강조하고 군비를 확장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는 미제의 죄행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군비 철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세계 인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채택하였다.

제 8 차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세계 대회

제 8차 원자 및 수소탄 금지 세계 대회가 1962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12개국과 8개 국제 단체들을 대표하는 250명의 대표들과 옵써버들, 그리고 1만 여명의 일본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호소문은 원자 무기의 시급한 금지와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과 타국 령토상에 있는 일체 군사 기지들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남조선, 대만, 라오스, 남부 월남 및 기타 아세아 지역에서 미군을 즉시 철거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호소문은 또한 국제적 련대성을 강화할 것과 원자 및 수소탄 금지를 위한 운동의 주위에 광범한 평화 력량을 단합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핵 전쟁 준비를 저지시키며 민족적 독립과 전반적인 평화의 확립을 위하여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할 것을 강조하였다.

세계의 면적과 인구의 변동

	1919				1961			
	면적		주민		면적		주민	
	100만 km²	%	100만명	%	100만 km²	%	100만명	%
전 세계	135.4	100	1 777	100	135.4	100	3 017	100
그중								
사회주의 진영	2.17	16.0	138.0	7.8	35.1	25.9	1 072	35.5
기타 세계	113.7	84.0	1 639	92.2	100.3	74.1	1 945	64.5

세계 국가별 면적과 인구

	면적 km²	인구		비고
		단위 1,000명	기준 년도	
사회주의 진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220 741	10 789	1960	
쏘련	22 403 000	223 000	1963.1	
중화 인민 공화국	9 597 000	656 630	1959	
월남 민주 공화국	157 000	17 000	1963.	
몽고	1 535 000	1 018.8	1963.1	
파란	311 730	30 480	1962	
체코슬로바키야	127 859	13 899	1962.12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07 834	17 125	1962	
웽그리야	93 030	10 071	1963.1	
루마니야	237 500	18 750	1963.1	
불가리야	111 030	8 046	1962.12	
알바니야	28 748	1 727	1963	
큐바	114 500	7 099.1	1961.10	
군사 블럭 (북대서양 조약 기구, 동남 아세아 조약 기구, 중앙 조약 기구) 참가국				
미국	9 364 000	187 000	1962.8	
영국	244 100	52 675	1961.4	
불란서	551 208	46 200	1962.1	
벨기	30 507	9 229	1961.12	
화란	32 400	11 880	1963.1	
룩셈부르그	2 586	399	1960	
카나다	9 960 547	18 896	1963.4	
이태리	301 226	50 464	1961.10	
노르웨이	323 917	3 655	1963.1	
덴마크	43 042	4 529	1959	
포도아	92 200	9 190	1961	
아이슬렌드	103 000	180	1961.12	

	면 적 km²	인 구		비 고
		단위 1,000명	기준 년도	
희랍	132 562	8 389	1961.3	
토이기	776 980	29 418	1962.10	
서부 독일	248 000	53 975		
호주	7 704 300	10 705	1962	
뉴질랜드	268 700	2 521	1962.12	
타이	514 000	29 000	1962	
비률빈	299 404	27 478	1960	1946.7.4
파키스탄	944 824	93 810	1916.2	1947.8.14
이란	1 645 000	20 678	1961	
기타 나라들				
라오스	236 800	3 000		1945.9.15
캄보쟈	181 000	5 749	1962.8	1953.11.9
일본	369 635	95 300	1962.12	
인도네시아	1 904 345	97 085	1961.12	1945.8.17
사라와크	122 000	745	1960	
북부 보르네오	76 112	454		
브루네이	50 765	84		
말라이	131 287	6 900		1957.8.31
싱가포르	741	1 687	1961	
비르마	677 950	20 662	1961.6	1948.1.4
인도	2 948 389	438 000	1961.3	1947.8.15
네팔	140 700	9 388	1961	
세일론	65 610	10 167	1961	1948.2.4
말디브	2 980 000	100	1959	
아프가니스탄	655 000	13 000	1959	
이라크	444 442	7 085	1960	
시리아	187 000	4 561	1961.10	
레바논	10 400	2 000		
요르단	96 610	1 753	1961	1946.3
이스라엘	20 700	2 170	1961	1948.5.14
사우디 아라비아	1 600 000	7 000	1959	
쿠웨이트	15 500	226	1957	1961.6.19
바레인 제도	598	152	1961	
카타르	22 000	40		
오만	212 400	550		
예멘	195 000	5 000		
아덴	290 000	800		
싸이프러스	9 262	581	1961	1960.8.16

	면 적 km²	인 구 단위 1,000명	기준 년도	비 고
아랍 련합 공화국	994 300	27 064	1961	
리비아	1 759 540	1 250	1960	1951.12.24
튜니샤	125 130	4 158	1963	1956.3.20
알제리아	2 205 000	10 375	1961.1	1962.7.3
모로코	445 577	12 806	1962	1956.3.2
이프니	1 900	70		
서반아령 사하라	273 000	70		
마우리타니아	1 086 000	730	1959	1960.11.28
말리	1 204 000	4 410	1962	1960.6.20
세네갈	197 161	2 980	1961	1960.8.20
감비아	10 367	289	1959	
포도아령 기니아	36 125	565	1959	
베르데갑 제도	4 033	194		
기니아	247 000	3 000	1960	1958.10.2
씨에라 레오네	72 326	2 450	1959	1961.4.27
리베리아	111 400	2 500	1958	
상아 해안	322 500	3 300	1961	1960.8.7
상부 볼타	274 000	4 404	1962	1960.8.5
가나	273 780	7 100	1963.1	1957.3.6
토고	56 600	1 520	1962	1960.4.27
다호메	115 800	2 050	1961	1960.8.1
니제르	1 189 000	2 870	1960	1960.8.3
챠드	1 284 000	2 721	1960	1960.8.11
나이제리아	879 000	36 473	1962	1960.10.1
카메룬	520 270	4 097	1960	1960.1.1
중앙 아프리카	617 000	1 784	1961	1961.8.13
수단	2 505 823	12 109	1961	1956.1.1
에티오피아	1 184 320	22 000	1960	
서반아령 기니아	28 051	199	1958	
산토메도 프린시페도	964	63	1958	
가본	267 000	450	1960	1960.8.17
꽁고 (브라자빌)	342 000	795	1959	1960.8.15
꽁고 (레오뽈드빌)	2 344 932	14 797	1962	1960.6.30
우간다	243 410	6 845	1961	1962.10.9
케니아	582 600	8 676	1962	
소말리	637 593	2 100	1961	1960.7.1
불령 소말리	23 000	67	1959	
탄가니카	939 400	9 440	1961	1961.12.9

	면 적 km²	인 구		비 고
		단위 1,000명	기준 년도	
잔지바르	2 657	307	1960	
앙골라	1 246 700	4 550	1959	
북로데시아	752 000	2 460	1960	
남로데시아	389 300	3 110	1960	
니아살랜드	124 000	2 860	1960	
모잠비크	783 030	6 300	1959	
베추아날랜드	712 000	337	1959	
스위질랜드	17 366	259	1960	
바수톨랜드	30 344	685	1960	
남아프리카 공화국	1 223 000	7 000	1963.6	
서남 아프리카	823 876	572	1960	
센트 헬레나도	122	48	1958	
말가슈	592 000	5 298	1960	1960.6.26
레유니옹	2 511	335	1960	
모리샤스도	2 090	621	1959	
세이셸제도	404	44	1959	
루안다 공화국	26 338	2 600		1962.7.1
부룬디 왕국	27 838	2 100		1962.7.1
카빈다	7 770	46	1940	
유고슬라비야	255 804	18 958	1962.12	
오지리	83 849	7 074	1961.3	
분란	337 009	4 523	1962.2.12	
서전	449 200	7 542	1961년말	
아일랜드	78 283	2 815	1961년말	1949.4.18
서서	41 288	5 470	1961.6	
바티칸	0.44	1	1952	
싼 마리노	61	14	1957	
리히텐스타인	157	16	1959	
모나코	1.49	20	1956	
안도라	453	6	1957	
서반아	503 486	30 128	1960	
푸에르토 리코	8 900	2 353	1960	
멕시코	1 969 000	34 626	1960	
과테말라	108 900	3 759	1960	
혼듀라스	112 088	1 900	1960	
영령 혼듀라스	22 957	91	1960.1	
쌀바도르	34 258	2 613	1960	
니카라과	148 000	1 450	1960	

	면 적 km²	인 구 단위 1,000명	기준 년도	비 고
코스타리카	51 000	1 173	1960	
파나마	74 470	1 053	1960	
하이티	27 800	3 555	1960	
도미니카	48 700	3 205	1962	
쟈마이카	11 400	1 607	1960	1962.8.6
트리니다드-토바고	5 123	859	1961	1962.8.30
베네주엘라	912 000	7 590	1961	
콜룸비아	1 139 200	14 132	1960	
영령 기아나	214 970	559	1960	
화란령 기아나	142 822	241	1958	
불령 기아나	약 90 000	32	1959	
브라질	8 516 000	75 000	1963	
에쿠아도르	270 700	4 396	1962	
페루	1 249 000	10 857	1960	
볼리비아	1 100 000	약 3 500		
파라과이	406 800	1 817	1962.11	
우루과이	186 900	2 700		
아르젠틴	2 808 000	20 956	1960	
칠리	741 767	7 627	1960	
서부 사모아	2 946	107	1960.1	1962.1.1

주; ① 조선의 인구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구에 한함 ② 월남 인구는 월남 민주 공화국의 인구에 한함, ③ 이스라엘 면적은 1949년 아랍 국가들과의 정전선에 의한 것 ④ 비고란의 수'자는 제2 차 세계 대전 후 독립한 나라들의 독립 년 월 일 ⑤소말리의 독립일은 소말리 공화국의 독립 날'자 ⑥ 라오스의 독립일은 라오스 림시 항쟁 정부가 수립된 날'자.

대륙의 면적

	면 적 1,000km²		면 적 1,000km²
아세아 주	43 836	구라파 주	10 500
아프리카 주	30 310	호주 및 대양주	8 557
북 미 주	24 242	남극	13 176
남 미 주	17 855	총계	148 476

주요 호수

	면적 km²	깊이 m	소재지
스페리오르호	82 400	393	북미주(미국및카나다)
빅토리아호	69 400	80	아프리카 주
아랄해	65 500	68	아세아 주 (쏘련)
휴론호	59 600	228	북미주(미국및카나다)
미시간호	58 000	281	북 미 주(미국)
탄가니카호	32 900	1 435	아프리카 주
바이칼호	30 500	1 741	아세아 주(쏘련)
니야사호	30 800	706	아프리카 주

주요 산악

	높이 m	소재지
초몰룽그마산 (에베레스트산)	8 848	중국 히말라야산맥
쵸고리산	8 611	인도 카라코룸산맥
킨천 장가산	8 585	인도 히말라야산맥
다울라기리산	8 172	네팔 히말라야산맥
낭가파르바트산	8 126	히말라야 산맥
울루그무즈 타그산	7 723	쿤룬 산맥
티리츠-미르산	7 690	인도 힌두쿠스산맥
궁가산	7 590	중국
쓰딸린봉	7 495	쏘련 파미르 고원
승리봉	7 439	쏘련 천산 산맥
일리암푸산	7 014	볼리비아
아콘카과산	6 960	안데스 산맥
한쩬그리 봉	6 995	쏘련 천산 산맥
오호스델 살라도	6 885	아르젠틴안데스산맥
일리마니	6 882	볼가리야안데스산맥

주요 강하

	길이 km	류역 면적 1,000km²	소재지		길이 km	류역 면적 1,000km²	소재지
미씨시피강	6 230	3 248	북미 주	콩고강	4 640	3 690	아프리카주
나일강	6 450	3 690	아프리카	메콩강	4 500	810	아세아 주
아마존강	6 480	7 050	남미 주	흑룡강	4 350	1 843	아세아 주
양자강(장강)	5 530	1 726	아세아 주	레나강	4 320	2 416	아세아 주
황 하	4 840	745	아세아 주				
라플라타강	4 700	3 194	남미 주	나이제르강	4 160	2 092	아프리카주

주요 바다

	면 적 km²	가장 깊은 곳 m		면 적 km²	가장 깊은 곳 m
태평양	179 679.000	10 960	흑 해	423 000	2 245
산호해	4 791	9 140	발찍해	412 000	463
중국남해	3 447 000	5 420	인도양	74 917 000	7 450
베링해	2 304 000	4 773	아랍해	3 683 000	5 203
오호쯔크해	1 590 000	3 658	안다만 해	602 000	4 171
중국 동해	752 000	2 700	홍 해	450 000	2 604
일본해	978 000	4 036	북빙양	13 100 000	5 220
대 서 양	93 363 000	9 218	바렌쯔브해	1 405 000	600
카리브해	2 754 000	7 241	노르웨이해	1 383 000	3 860
지중해	2 505 000	4 594	그린랜드해	1 205 000	4 864
북 해	544 000	463			

세계 각국 화폐 환률 (1963년 7월 1일 현재)

국가명	화폐 단위	루블(쏘련)	국가명	화폐 단위	루블(쏘련)
중 국	100원	45.00	네 팔	100루피	11.90
월 남	100동	30.60	쎄일론	100루피	19.00
몽 고	100뚜그리크	22.50	아프가니스탄	100아프가니	2.01
파 란	100즐로띄	22.50	이 란	100리알	1.19
루마니야	100레이	15.00	이라크	1디나르	2.52
체코슬로바키야	100크로네	12.50	레바논	100파운드	29.01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100마르크	40.50	이스라엘	100파운드	30.00
웽그리야	100포린트	7.67	씨리아	100파운드	22.26
불가리야	100레브	76.92	에티오피아	100딸라	36.00
알바니야	100레브	1.80	애 급	1파운드	2.59
큐 바	1페소	0.90	리비아	1파운드	2.52
일 본	1 000원	2.51	모로코	100디르함	17.78
캄보쟈	100리엘	2.57	가 나	1파운드	2.52
비르마	100캬트	18.97	기니아	1 000프랑	3.65
인도네시아	100루피아	1.97	말 리	1 000프랑	3.65
인 도	100루피	18.97	수 단	1파운드	2.59
파키스탄	100루피	18.97	뛰니스	1디나르	2.14

국가명	화폐 단위	루블(쏘련)	국가명	화폐 단위	루블(쏘련)
소말리	100쉴링	12.60	분 란	100마르크	28.13
영 국	1파운드 스터링	2.52	덴마크	100크로네	13.05
아이슬랜드			서 전	100크로네	17.33
오지리	100쉴링	3.48	노르웨이	100크로네	12.58
유고슬라비야	1 000디나르	1.20	서 서	100프랑	20.82
벨 기	100프랑	1.80	미 국	1딸라	0.90
불란서	100프랑	18.37	카나다	1딸라	0.84
서 독	100마르크	22.63	아르젠틴	100페소	0.65
이태리	1 000리라	1.45	멕시코	100페소	7.22
화 란	100굴덴	25.00	우루과이	100페소	5.55
희 랍	100더르함	3.02	호 주	1파운드	2.01
토이기	100리라	10.00	뉴질랜드	1파운드	2.50

올림픽 경기표

차 수	장 소	년 도	참가자수	참가국수	경기 종목
1	아테네(희랍)	1895	485	13	10
2	파 리(불란서)	1900	1 066	20	14
3	쎈트루이스(미국)	1904	469	10	13
4	런 던(영국)	1908	2 647	22	21
5	스톡홀름(서전)	1912	3 282	28	15
6	베를린(독일)	1916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진행 못함		
7	앙트워프 (벨기)	1920	2 691	29	20
8	파 리 (불란서)	1924	3 092	44	20
9	암스테르담 (화란)	1928	3 900	46	17
10	로스안젤스 (미국)	1932	1 408	38	17
11	베를린 (독일)	1936	4 069	49	22
12	헬싱키 (분란)	1940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진행 못함		
13	런 던 (영국)	1944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진행 못함		
14	런 던 (영국)	1948	5 000	58	19
15	헬싱키 (분란)	1952	5 871	69	19
16	멜보른 (호주)	1956	5 400여명	77	29
17	로마 (이태리)	1960	7 000여명	86	18

경기 기록

1962년 12월 31일 현재 올림픽 경기 및 세계 선수권 대회를 통하여 수립된 중요한 개인 경기 기록은 다음과 같다.

륙상 경기 종목

	종 목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남 자	100메터	10초2	10초0
〃	200 〃	20초5	20초5
〃	400 〃	44초9	44초9
〃	800 〃	1분46초3	1분44초3
〃	1 500 〃	3분35초6	3분35초6
〃	5 000 〃	13분39초6	13분35초0
〃	10 000 〃	28분32초2	28분18초2
〃	마라손	2시간15분16초2	2시간15분16초
〃	4×100메터계주	39초5	39초1
〃	4×400 〃	3분02초2	3분02초2
〃	110메터장애	13초5	13초2
〃	400 〃	49초3	49초2
〃	3 000메터장애물	8분34초2	8분30초4
〃	20키로메터경보	1시간31분27초	
〃	50 〃	4시간25분47초	
〃	주광도	8메터12센치	8메터31센치
〃	주고도	2메터16센치	2메터27센치
〃	봉고도	4메터70센치	4메터49센치
〃	삼단도	16메터18센치	17메터03센치
〃	포환던지기	19메터68센치	20메터07센치
〃	원반던지기	59메터18센치	62메터44센치
〃	창던지기	85메터71센치	86메터74센치
〃	철추	67메터10센치	77메터66센치
〃	10종경기	8,392점	8,683점
녀자	100메터	11초5	11초2
〃	200 〃	23초4	22초9
〃	800 〃	2분04초3	2분01초2
〃	4×100메터계주	44초5	44초3
〃	80메터장애	10초7	10초5
〃	주광도	6메터37센치	6메터62센치
〃	주고도	1메터85센치	1메터91센치
〃	포환던지기	17메터32센치	18메터55센치
〃	원반던지기	55메터10센치	58메터98센치
〃	창던지기	55메터98센치	59메터98센치

력기 기록

	종 목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최경량급 (56kg까지)	추 상	105키로그람	116키로그람
〃	인 상	107.4 〃	101.5 〃
〃	용 상	135 〃	139.5 〃
〃	종 합	345 〃	352.5 〃
차경량급 (60kg까지)	추 상	120 〃	124 〃
〃	인 상	110.0 〃	118.5 〃
〃	용 상	142.5 〃	150.0 〃
〃	종 합	372.5 〃	375.0 〃
경량급 (67.5kg)	추 상	125.0 〃	135.0 〃
〃	인 상	122.5 〃	130.5 〃
〃	용 상	155.0 〃	161.0 〃
〃	종 합	397.5 〃	415.0 〃
중량급 (75kg까지)	추 상	140 〃	146 〃
〃	인 상	132.5 〃	138 〃
〃	용 상	170 〃	171 〃
〃	종 합	437.5 〃	440 〃
경중량급 (82.5kg)	추 상	140 〃	157.5 〃
〃	인 상	132.5 〃	146.5 〃
〃	용 상	180 〃	180.5 〃
〃	종 합	447.5 〃	465 〃
차중량급 (90kg)	추 상	157.5 〃	159.5 〃
〃	인 상	142.5 〃	146 〃
〃	용 상	177.5 〃	190 〃
〃	종 합	475.5 〃	480 〃
최중량급 (90kg이상)	추 상	180 〃	188.5 〃
〃	인 상	155 〃	164 〃
〃	용 상	202.5 〃	211 〃
〃	종 합	537.5 〃	550 〃

수영 기록

	종 목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남자	자유영	100메터	55초2	53초6
〃	〃	400 〃	4분18초3	4분13초3
〃	〃	1500 〃	17분19초6	17분11초0
〃	배 영	100 〃	1분01초9	1분01초3
〃	평 영	200 〃	2분34초7	2분29초6
〃	나비영	200 〃	2분12초8	2분09초7
〃	계 영 (자유영)	4×200메터	8분10초2	8분10초2

	종 목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남자	계 영(혼영)	400×100m	4분05초4	4분01초6
녀자	자유영	100 m	1분01초2	59초5
〃	〃	400 〃	4분50초6	4분44초5
〃	배 영	100 〃	1분12초9	1분09초0
〃	평 영	200 〃	2분49초5	2분48초0
〃	나비영	100 〃	1분09초5	1분07초3
〃	계 영(자유영)	4×100m	4분08초9	4분08초9
〃	계 영(혼영)	4×100 〃	4분41초1	4분40초1

속도 빙상 기록

	종 목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남자	500 m	40초2	39초8
〃	1 500 〃	2분10초4	2분06초3
〃	5 000 〃	7분51초3	7분34초3
〃	10 000 〃	15분46초6	15분33초0
녀자	500 〃	49초5	44초9
〃	1 000 〃	1분34초1	1분31초8
〃	1 500 〃	2분25초2	2분19초0
〃	3 000 〃	5분14초3	5분06초6

주: 세계 기록 남자 500, 5 000, 10 000, 녀자 1 000 메터는 1963년에 수립된 기록들임.

자전거 기록

	종 목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남자	1000 m	1분07초27	1분06초27
〃	500 〃	29초8	
〃	5000 〃	6분15초4	
〃	100 km (도로단체)	2시간14분33초	
〃	175 km (도로단체)	4시간20분37초	
녀자	1 km		1분17초9
〃	5 〃		7분03초3
〃	10 〃		14분27초0
〃	20 〃		29분2초6
〃	100 〃		2시간49분59초7
〃	1시간 경주		41키로347메터
〃	200 m		12초3
〃	500 〃		32초2
〃	64 km		1시간53분56초
〃	4000메터(개인)		4분55초4

사격 기록

종 목	사격자세	올림픽 기록	세계 기록
자유 선택 보총(300m)	꾸려	381	388
〃	엎드려	397	395
〃	서서	365	371
〃	종합	1 138	1 147
소구경 보총(3×4)50m	꾸려	394	388
〃	엎드려	388	391
〃	서서	373	376
〃	종합	1 147	1 157
소구경 권총(50m)		560	566
속도 권총(25m)		587	592
흙비둘기 사격	경기	192	198

무선 통신 기록 (1분간)

종 목		부 문	세계 기록
남자	수'자	기록수신	215자
〃	〃	타자수신	235자
〃	〃	송신	94.8자
〃	문자	기록수신	220자
〃	〃	타자수신	260자
〃	〃	송신	130.6자
녀자	수'자	기록수신	210자
〃	〃	타자수신	250자
〃	〃	송신	95.8자
〃	문자	기록수신	210자
〃	〃	타자수신	245자
〃	〃	송신	125자

스키 기록

종 목		국제 기록	비 고
남자	15km활주	49분 39초	제7차 올림픽 경기
〃	30 〃	1시간42분26초	1961년 세계선수권 대회
〃	50 〃	2시간50분27초	제7차 올림픽 경기
〃	계주(4×10)	2시간18분45초	제8차 올림픽 경기
녀자	5km 활주	20분09초	1961년 세계선수권 대회
〃	10 〃	38분11초	제7차 올림픽 경기
〃	계주(3×5)	1시간04분21초4	제8차 올림픽 경기

도량형 환산표

길 이

센치메터	메터	키로메터	인치	푸트	야드	마일	척 (尺)	리 (里)
1	0.01	0.00001	0.39370	0.03281	0.01094	—	0.033	—
100	1	0.001	39.370	3.28083	1.09361	0.00062	3.3	0.0025
100 000	1 000	1	—	3280.8	1093.6	0.62137	3 300	2.5463
2.5400	0.02540	—	1	0.08333	0.02777	—	0.8382	—
30.480	0.30480	—	12	1	0.33333	—	1.0058	—
91.440	0.9144	—	36	3	1	—	3.01752	—
160.930	1609.3	1.60934	63360	5280	1760	1	5310.8	4.0978
30.303	0.30303	0.00030	11.930	0.99419	0.33140	—	1	—
392 727	3 927.3	3.9273	154620	12885	4295	2.44029	12960	10

면 적

평방 메터	아 르	헥 타	평방키로	평방푸트	평방야드	에이커	평방마일	평방척(尺)	평(坪)	반(反)
1	0.01	0.0001	0.000001	10.764	1.1960	0.000247	—	10.890	0.30250	0.001008
100	1	0.01	0.0001	1 076.4	119.60	0.024711	0.000039	1 089.0	30.250	0.10083
10 000	100	1	0.01	—	11 960	2.4711	0.003861	108 900	3 025.0	10.083
0.092903	0.000929	0.000009	—	1	0.11	—	—	1.0117	0.02810	—
0.83613	0.008361	0.000084	—	9	1	—	—	9.1055	0.25293	—
4046.8	40.468	0.40468	0.004047	43 560	4 840	1	0.00156	—	—	4.0804
2 589 900	25 899	258.99	2.5899		3 097 600	640	1	—		261.15
0.091827	0.000918	0.000009		0.98841	0.10982	—	—	1	0.02778	—
3.3058	0.033058	0.000331	0.000003	35.583	3.9637	—	—	36	1	0.00333
991.74	9.9174	0.099174	0.000992		1 186.1	0.24506	0.000382	10 800	300	1

용적 및 체적

립방센치메터	립방데시메터	립방메터	립방 인치	립방푸트	립방야드	갈 론	립방척(尺)	승 (升)	석(石)
1	0.001	0.000001	0.061024	0.000035	—	—	0.00004	—	—
1 000	1	0.001	61.024	0.03531	—	0.26417	0.03594	0.55435	—
1 000 000	1 000	1	61 024	35.315	1.30795	264.17	35.937	—	5.5435
16.387	0.01638	0.000016	1	—	—	—	—	—	—
28 317	28.317	0.02831	1 728	1	0.03704	7.4805	1.0176	15.698	0.15698
764 529.8	764.53	0.76453	46 656	27	1	201.97	27.475	423.83	4.2383
27 826	27.826	0.02783	1 698.1	0.98274	0.03670	7.3509	1	15.426	0.15426
1 803.9	1.8039	—	110.08	0.063704	—	0.47654	0.064827	1	0.01
180 390	180.39	0.18039	11 008	6.3704	0.23668	47.654	6.4827	100	1

중 량

그람	키로그람	톤	온스(상형)	파운드(상형)	돈 (匁)	근(斤)	관(貫)
1	0.001	—	0.03527	0.00220	0.26667	0.00167	—
1 000	1	0.001	35.273	2.20462	266.67	1.66667	0.266067
1 000 000	1 000	1	—	2204.62		666.7	266.67
0.06480	—	—	0.00229	0.000743	0.01728	0.00108	—
28.350	0.02835	—	1	0.0625	7.5600	0.04725	—
453.6	0.45359	0.000454	16	1	120.957	0.75600	0.12096
3.75	—	—	0.32277	0.00827	1	—	
600	0.6	0.0006	21.164	1.32277	160	1	0.16
3 750	3.75	0.00375	132.28	8.26723	51 000	6.25	1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파업 운동의 장성

(단위 100만명)

	1958	1959	1960	1961	1962
자본주의 세계 전체	25~27	35~37	54~58	50~53	56~62
제국주의 국가	13.5	16.0	43~46	41~43	42~44
라틴아메리카	9~10	18~20	9~10	7~8	13~17
아세아(일본 제외)	2.0	1.0	1.5	1.0	1.0
아프리카	0.4	0.3	0.4	1.0	0.3

출처; 쏘련 《쁘라우다》 1963년 4월 30일호.

일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파업 운동

	1961	1962
미 국		
파업 참가자 수 (1,000명)	1 450	1 250
상실된 로동일 수 (1,000일)	16 500	19 210
영 국		
파업 참가자 수 (1,000명)	779	4 441
상실된 로동일 수 (1,000일)	3 046	5 794
서 독		
파업 참가자 수 (1.000명)	21	79
상실된 로동일 수 (1,000일)	64	450

		1961	1962
이태리	파업 참가자 수 (1 000명)	4 866	6 115
	상실된 로동일 수 (1 000일)	16 150	47 210
벨 기			
	파업 참가자 수 (1 000명)	19	20
	상실된 로동일 수 (1 000일)	92	222
화 란			
	파업 참가자 수 (1 000명)	515	800
	상실된 로동일 수 (1 000일)	350	752

출처; 소련 《신시대》 1963년 18호

자본주의 제국에서 실업의 증대

	일 본	미 국	카나다	영 국	서 독	불란서	이태리
1946	590	2 270	160	374	—	57	1 324
1947	370	2 142	108	480	588	46	1 620
1948	240	2 064	111	310	592	76	1 742
1949	380	3 395	141	308	1 230	131	1 673
1950	440	3 142	185	314	1 580	153	1 615
1951	390	1 879	126	253	1 432	122	1 721
1952	470	1 673	156	414	1 379	129	1 850
1953	450	1 870	162	342	1 259	180	1 947
1954	590	3 578	250	285	1 221	184	1 959
1955	680	2 904	245	232	928	160	1 913
1956	630	2 822	197	257	761	112	1 937
1957	520	2 936	278	313	662	81	1 757
1958	560	4 681	432	457	683	93	1 759
1959	580	3 813	373	475	480	140	1 689
1960	430	3 931	448	360	237	130	1 546
1961	390	4 806	469	341	161	111	1 407
1962	400 (3월)	4 007	391 (3월)	463	142	125	...
1963.4	720	4 063	549	605	...	...	

출처; 《유엔 통계 년감》 및 《유엔 통계 월보》 (《일본 게에이》 1963년 8월 호에서).

국제 주요 일지

(1962.1.1~12.31)

1 월

1일 남부 월남에서 맑스—레닌주의적 당인 인민 혁명당 성립. ▶서부 사모아 독립 선포. ▶포도아에서 반정부 폭동 발생, 살라자르 정권 국내에 《비상 상태》선포.

5일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제네바 국제회의 재개. ▶큐바 혁명 승리 3주년 경축 행사에 참가한 400명의 라틴 아메리카 각국 대표들이 큐바 혁명을 지지할 것을 각국 인민들에게 호소하는 공동 성명 발표.

6일 파리의 5만 명 시민들이 불란서의 진보적 력량에 대한 파쑈 분자들의 습격과 도발을 반대 항의하여 시위 단행.

9일 영국 수상 맥밀란이 서독 수상 아데나우어와 본에서 회담 진행, 나토 뿔럭을 《제 4 핵 타격력》으로 개편시킬 데 대한 문제, 서독 주둔 영국군 유지비 문제 등을 토의하고 공동 콤뮤니케 발표.

10일 부카레스트에서 세계 민주 청년 련맹 뷰로 회의 13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남조선 정세에 관한 결의 채택.

11일 미 국회 87 차 후반기 회의에서 케네디 《일반 교서》를 제출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하며 군비 경쟁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

12일 멘 통신 보도에 의하면 영국 군대가 요르단에 있는 마프라크 기지에 상륙, 통신은 이것이 중동 국가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적 음모의 일환으로 된다고 보도.

13일 큐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국제 기자 동맹 집행 위원회 15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남조선 민족 일보 사장 조 용수에게 국제 기자상을 수여할 것을 결정. ▶국제 학생 동맹 서기국이 《한일 회담》을 반대. ▶콩고 주둔 《유엔군》이 안뚜안 기젱가를 체포.

15일 북경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경제 대표단과 알바니야 인민 공화국 정부 경제 대표단 간의 회담에 관한 콤뮤니케 발표. ▶유엔 총회 제 16 차 회의 후반기 회의 재개 (의정 앙골라와 콩고 문제).

17일 이태리 수상 판파니와 영국 수상 맥밀란이 런던에서 회담, 주로 서부 베를린 문제와 《공동 시장》 문제들을 토의.

18일 도미니카에서 공군 그루빠들의 쿠데타 발생, 1월 16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던 《국민 혁명 위원회》 전복. ▶케네디 국회에 1962~1963 회계 년도 예산 교서를 제출.

19일 토론토에서 카나다 공산당 제 17 차 전국 대회 22일까지 진행. ▶제네바에서 라오스의 세 관계측 지도자 (수반나 푸마, 수파누봉, 분 움)회담 진행, 회담에서 라오스 민족 통일 정부 구성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

20일 이태리의 40만명 방직 로동자들 임금 인상 투쟁에서 승리, 기업주들이 18%의 임금을 인상하는데 동의.

22일 케네디 경제 보고를 국회에 제출.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미주 국가 기구 제 8 차 외상 회의》 31일까지 진행, 회의는 미제의 압력 밑에 큐바를 미주 국가 기구의 모든 기관으로부터 축출할 데 대한 결의를 강압 채택, 라틴 아메리카 주민의 70% 이상을 망라한 6개국이 기권.

23일 일본의 42개 정당, 사회 단체들이 《일한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 ▶큐바의 하바나에서 라틴 아메리카 인민 대표 회의 26일까지 진행.

25일 케네디 통상 교서를 국회에 제출. ▶나이제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 몬로비아 회의 (1961년 5월 성립) 참가국들의 수뇌자 회의 30일까지 진행.

30일 쁘라가에서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국방상 회의 2월 1일까지 진행.

2 월

1일 미국 사법 장관 로버트 케네디 아세아 (남부 월남,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와 구라파 등을 30일까지 행각.

2일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베바에서 동북 및 중앙 아프리카 해방을 위한 범 아프리카 운동 단체 제 4 차 년차 회의 9일까지 진행.

3일 케네디가 2월 7일부터 큐바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것을 명령.

4일 하바나 호세 마르티 광장에서 150만 명 참가 하에 제 2 차 큐바 전국 인민 대회 진행, 대회에서 제 2 하바나 선언 채택.

5일 300만 명의 영국 기계 제작 및 선박 건조 로동자들 정부의 임금 《동결》 정책을 반대하여 최근 8년 래의 최대의 24시간 파업 단행.

7일 서독 바바리아에 있는 10개의 대기업소들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2만 1천여명의 로동자들 경고 파업 단행.

8일 미국 국방성이 남부 월남에 대한 직접적인 무장 간섭을 감행하기 위하여 사이공에 소위 《남부 월남 미 군사 원조 사령부》를 조작.

9일 200만의 파리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반파쑈

시위자들에 대한 드 골 당국의 학살 만행을 규탄하여 총파업, 군중 대회, 시위들을 단행.

10일 흐루쑈브 수상이 3월 14일 제네바에서 개막되는 18개국 군축 위원회 회의를 수뇌자급에서 진행할 것을 미, 영 및 기타 성원국들에 제의, 14일 미, 영이 이를 거부.

11일 불란서—알제리아 간의 예비 회담 19일까지 진행.

12일 카이로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50개국 대표 참가 하에 제 3 차 아세아 아프리카 작가 대회 15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13일 불란서 군경에 의하여 살해된 8명의 반파쑈 시위자들 (2월 8일)의 장례식에 참가한 근 100만명의 파리 시민들이 총파업 단행.

15일 이태리 전국에서 약 300만명의 농업 로동자들과 소작농들이 토지 개혁의 실시를 요구하여 3일 간의 투쟁 진행.

16일 영령 기아나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사촉 하에 체디 쟈간의 합법적 정부를 반대하는 반동들의 소동 발생.

17일 재일본 조선인 총련합회에서 남조선에 대한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략 책동을 반대 규탄하는 성명 발표.

18일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가 남부 월남에서의 미제의 무력 침략과 미 《군사 원조 사령부》의 조작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쏘련 정부가 큐바에 대한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는 성명 발표.

20일 일본 로동자들 550만명이 전국적인 제 1 차 춘기 공동 투쟁 진행.

21일 불란서 데카즈빌 탄부들 64일 간의 갱내 롱성 투쟁에서 승리. ▶흐루쑈브 18개국 군축 위원회를 수뇌자급에서 진행할 것을 케네디와 맥밀란에게 제의, 25일 케네디는 이를 거절하고 외상급에서 진행할 것을 주장.

22일 토이기 수도 앙카라에서 반정부 군사 쿠데타 발생.

23일 유엔 총회 제 16 차 회의 후반 회의 종료.

24일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부 성명 발표, 성명에서 월남 민주 공화국 정부의 립장을 지지하고 남부 월남에 대한 미제의 무장 간섭을 규탄.

25일 불가리야에서 인민 회의 선거 진행

26일 모쓰크바에서 흐루쑈브와 발테르 울브리히트 27일까지 회담.

27일 사이공에서 남부 월남 괴뢰《공군》 비행사들이 느고 딘 디엠 대통령 궁전을 폭격.

28일 도꾜에서 1만여명이《일한 회담》을 반대하여 군중 대회와 홰'불 시위 진행.

3 월

1일 우간다 (영국 식민지)에서 《내부 자치》실시.

2일 비르마군 총사령관이며 참모총장인 네 윈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 ▶케네디가 4월 하반기에 태평양상에서 대기권 핵 시험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

3일 100만명 이상의 일본 근로자들이 제 2 차 춘기 공동 투쟁 진행.

5일 모쓰크바에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9일까지 진행, 회의에서는 농촌 경리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 ▶영국에서 300 여만명의 기계 제작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로동 시간 단축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24시간 파업 단행.

6일 인도네시아 내각 개조.

8일 하바나에서 큐바 통일 혁명 조직 지도자들의 회의 진행, 회의에서 피델 카스트로를 비롯한 25명으로 구성된 지도부를 창설. ▶싸이프러스 근로 인민 진보당 제 10 차 대회 11일까지 진행.

9일 과야킬에서 에쿠아도르 공산당 제 7 차 대회 14일까지 진행.

10일 미제가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확대할 목적으로 비률빈의 바기오에서 《극동 지역 작전 회의》와 《아세아 국가 주재 미국 대사 회의》 14일까지 진행.

12일 파리 지구의 불란서 근로자들 250 여 만명이 《비밀 무장 조직》의 테로 행위를 반대 항의하여 파업과 군중 대회를 진행.

13일 산챠고에서 칠리 공산당 제 12 차 대회 18일까지 진행.

14일 18개국 군비 축소 위원회 회의 제네바 나숑 궁전에서 개막.

15일 세계 직련이 6.25 12주년에 제하여 조선 근로자들과 인민들에게 강력한 련대성을 표시할 것을 각국 직맹 단체들에 호소. ▶쏘련이 제네바 18개국 군축 위원회에 엄격한 국제 관리 하에서 전반적이며 완전한 군비 철폐에 관한 새로운 조약 초안과 쏘련 정부의 비망록을 제출.

16일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을 발사. ▶불가리야에서 안똔 유고브를 수상으로 하는 새 내각 성립. ▶알제리아와 불란서 대표들 간의 예비상 회담 (7일부터 시작)에서 정화 협정에 조인, 19일 알제리아 전역에서 정화 선포.

18일 쏘련에서 최고 쏘베트 선거 진행.

20일 500만명 이상의 일본 근로자들이 정부의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며 로동 조건과 생활 조건의 개선 및 민주주의적 권리를 위한 각종 형태의 공동 투쟁 전개. ▶아크라에서 제 1 차 전 아프리카 농민 회의 22일까지 진행, 회의는 전 아프리카 농민 련맹을 창건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 ▶서부 이리안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네시아—화란 간의 비밀 예비 회담 워싱톤 근교에서 22일까지 진행.

22일 큐바 통일 혁명 조직 전국 지도부에서 비서국과 기타 위원회들의 구성에 관한 결의들을 발표.

23일 아르젠틴에서 약 200만의 공업 로동자들이 3월 18일에 있

은 선거 결과를 무효로 선포하기 위하여 5개 주의 행정권을 박탈하는 정부의 전횡을 반대 항의하여 24시간 총파업을 단행. ▶오지리의 윈나에서 60여 개국의 대표 참가하에 군비 축소를 위한 세계 녀성 대회 25일까지 진행.

25일 튜니스에서 튜니샤 공산당 제 7차 대회 29일까지 진행.

27일 북경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 2 기 제 3차 회의 4월 16일까지 진행, 대회는 정부 사업에 관한 주 은래 총리의 보고를 토의.

28일 일본에서 550만의 근로자들을 망라한 100여개의 산별 로조가 제 4 차 춘기 공동 투쟁 전개. ▶씨리아 륙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

29일 아르젠틴의 반동적 군부가 쿠데타를 조작하고 정권을 장악. ▶런던에서 영, 불, 이태리 및 서독이 우주 공간 로케트 제조를 위한 구라파 기구를 설치할데 대한 협정에 조인.

4 월

5일 일본 근로자들 전국적인 제 5 차 춘기 공동 투쟁 전개.

6일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2호》를 발사.

8일 불란서에서 알제리아 문제와 관련한 국민 투표 실시. 90.78%가 알제리아 정화 협정을 지지.

10일 300여만명의 일본 근로자들이 제 6 차 공동 투쟁을 전개.

11일 뉴욕의 4만명 교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거부한 당국에 항의하여 파업.

13일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부에서 1961년 12월~1962년 3월 간에 인도 정부와 교환한 22건의 각서와 1960년 12월 중인 량국 관원들의 중인 국경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발표.

14일 불란서 드브레 내각 사직, 15일 조르쥬 뽐삐듀가 신 내각 구성.

15일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자유의 날》을 기념.

16일 쏘련 외무상 그로믜꼬가 21일까지 유고슬라비야를 공식 방문.

17일 일본 근로자들 제 7 차 춘기 공동 투쟁 전개. ▶《공동 시장》 참가국 외상들이 《구라파의 정치적 통합》 문제에 관한 회담 진행.

18일 산 호세에서 코스타 리카 인민 전위당 제 9 차 대회 진행.

21일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부가 인도 군대의 국경 침범 행위에 항의하여 인도 정부에 각서 전달.

23일 쏘련 최고 쏘베트 회의 25일까지 진행, 회의는 브레쥬네브를 위원장으로 하는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를 선거, 흐루쑈브를 수상으로 하는 쏘련 정부 구성.

24일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3호》를 발사.

25일 쟈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공산당 림시 제 7 차 대회 30일까지 진행. ▶미국 호전광들이 태평양 상의 크리스마스도 및 죤스톤도에서 대기권 핵 시험 재개 ▶아르젠틴의 300만 이상의 로동자, 사무원을 망라하는 로동 총련맹이 대통령 선거 무효 선포를 반대 항의하여 총파업 단행.

26일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4호》를 발사. ▶기니아의 수도 코나크리에서 전 아프리카 청년 대회 5월 1일까지 진행, 대회에서 전 아프리카 청년 대회를 창립하기로 결정. ▶세계 각국 인민들 미제의 핵 시험을 항의 규탄.

27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령해 및 령공 침범과 관련하여 200차로 미국에 엄중 경고. ▶미국이 태평양의 크리스마스도 구역에서 두번째의 대기권 핵 시험을 감행.

30일 중국 정부가 인도 군대의 국경 침범을 항의하여 인도 정부에 각서. ▶국제 레닌상 수여 위원회에서 1961년도 《인민들 간의 평화의 공고화에 대한》 국제 레닌상 수상자들을 발표. ▶런던에서 침략적 쎈토 리사회 회의 5월 1일까지 진행.

5 월

1일 세계 직련이 일본 군국주의의 남조선 침투를 반대할 것을 각국 직맹 단체들과 국제 산별 직맹들에 호소. ▶불란서가 사하라에서 지하 핵 시험을 감행, 이로써 불란서는 5 차의 핵 폭발 시험을 감행.

3일 아테네에서 침략적 나토 각료 리사회 춘기 회의 6일까지 진행.

6일 라오스 애국 무력이 전략적 요충인 남타시를 해방.

8일 모쓰크바에서 쏘련과 인도네시아 간의 무기 협정 체결. ▶캔베라에서 침략적인 안쥬스 조약 기구 제 11 차 각료 리사회 9일까지 진행.

10일 베네주엘라 대통령이 공산당과 《좌익 혁명 운동》을 비법화.

10일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동남 아세아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를 취하라고 륙해공군에게 명령.

12일 민주 독일 당 및 정부 대표단이 19일까지 체코슬로바키야를 방문. ▶흐루쑈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이 20일까지 볼가리야를 방문.

15일 불란서에서 35만 철도 로동자들의 전국적인 24시간 총파업 단행. ▶케네디 1,800명의 미군을 타이에 파견할데 대한 성명 발표, 미군 17일 타이에 상륙.

16일 방코크에서 침략적 세아토 리사회 대표 회의 진행.

18일 월남 민주 공화국 외교부장이 미군의 타이 상륙을 반대 항의하여 성명 발표. ▶인도네시아의 쟈카르타에서 국제 학생 동맹 집행 위원회 회의 23일까지 진행, 남조선에 관한 결의를 비롯한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

20일 라오스 왕국 정부가 미군의 타이 진주를 규탄하는 성명 발표. ▶서부 이리안 해방을 위한

인도네시아 인민과의 국제적 단결의 날.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 금년 중에 서부 이리안을 해방할 것이라고 언명.

21일 서반아 전국에 파급된 파업 투쟁이 프랑코 제도를 반대하는 대중적 정치 운동으로 전환되여 계속 확대.

28일 200만명의 이태리 고용농 및 농업 로동자들이 새로운 단체 계약과 토지 분배를 요구하여 48시간 총파업 단행.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코쓰모쓰—5호》 발사. ▶뉴욕 주권 시장에서 주권 시세 폭락 (30일까지).

29일 아르젠틴의 약 400만명 로동자들이 기아와 실업을 반대하여 24시간 총파업 단행.

31일 코펜하겐에서 세계 직련 집행 위원회 제 25차 회의 6월 2일까지 진행.

6 월

3일 알바니야에서 총선거 진행.

4일 쏘련 신문이 고공에서 핵폭발을 감행하려는 미국의 시도와 관련한 쏘련 정부의 성명을 게재.

5일 모쓰크바에서 진행중인 국제 올림픽 위원회 제 59 차 회의에서 우리 나라 올림픽 위원회를 잠정적으로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 가입시킬 것과 9월 1일까지 남조선 측이 유일팀 구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올림픽 위원회를 조선 대표로 인정하기로 결정. ▶가나 수도 아크라에서 아프리카 자유 투사 회의 7일까지 진행.

6일 모쓰크바에서 경제 호상 원조 리사회 참가국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 7일까지 진행, 회의에는 성원국 공산당 및 로동당 제 1 비서들과 정부 수반들이 참가.

7일 모쓰크바에서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정치 협상 위원회 회의 진행. ▶유엔 총회 제 16 차 회의 뉴욕에서 재개.

12일 라오스 캉 카이에서 세 관계 측 지도자들이 수반나 푸마를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 림시 련립 정부 구성에 관한 일반 협정에 조인.

15일 카이로에서 카사블랑카 헌장 참가국 정치 위원회 회의 18일까지 진행.

16일 베를린에서 민주주의 독일 민족 전선 전국 대회 17일까지 진행, 대회에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력사적 과업과 독일의 미래》라는 문건 채택.

18일 흐루쑈브를 단장으로 하는 쏘련 당 및 정부 대표단 25일까지 루마니야를 방문. ▶중국 정부에서 인도 군대가 《맥마혼선》북부 지역에 침입하여 중국 티베트 지역의 평화적 주민들에게 발포한 엄중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도 정부에 강력히 항의. ▶카나다 하원 선거 진행.

19일 울란 바또르에서 사회주의 국가 철도 협조 기구 제 7 차 상회의 22일까지 진행, 김 회일 교통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 참가. ▶미 국무 장관 러스크가 25일까지 불란서, 서독, 이태리, 영국을 방문.

24일 라오스 왕국 정부의 첫 각의에서 정화에 관한 합의 달성. ▶하바나에서 《인민의 평화 및 자주권 옹호 운동》 큐바 전국 회의 진행.

25일 라오스의 신 련립 정부가 타이 령토에의 미군 배치를 반대 항의하여 성명. ▶몬테비데오에서 우루과이 공산당 제 18차 대회 7월 2일까지 진행.

30일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코쓰모쓰—6호》 발사.

7 월

1일 루안다 공화국과 부룬디(이전 우룬디) 왕국 독립 선포. ▶알제리아에서 자결에 관한 국민 투표 실시, 99.73%의 공민이 독립을 찬성. ▶일본 참의원 선거 진행.

2일 제네바에서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14개국 회의 반년 간의 휴회 끝에 재개. ▶큐바 공화국 혁명 무력상 라울 카스트로 쏘련 방문. ▶서독 수상 아데나우어가 구라파의 정치적 통합과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및 베를린 문제를 드 골과 토의하기 위하여 5일까지 불란서를 방문.

5일 알제리아 림시 정부 7월 5일을 독립절로 발표.

6일 중화 인민 공화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 위원회에서 세계 각국 국회에 보낸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지지하는 결의 채택.

8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인도 군대의 신강 지역 침범 행위에 대하여 인도 정부에 엄중 항의.

9일 라오스에 관한 제네바 14개국 회의 전원 회의에서 수반나 푸마 정부가 제출한 중립에 관한 선언 채택. ▶모쓰크바에서 전반적 군비 철폐와 평화를 위한 세계 대회 14일까지 진행.

10일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 신강 지역에 대한 인도 군대의 새로운 침범 사건을 항의하여 인도 정부에 각서.

13일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부에서 인도 군대의 계속되는 도발 행동에 항의하여 인도 정부에 각서. ▶영국에서 재정난과 보충 선거에서 보수당의 패배로 하여 대대적인 내각 개조, 16일도 재차 개조.

14일 알바니야 인민 회의 제 5 기 제 1 차 회의 7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새 내각 구성을 승인,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서한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 ▶일본 수상 이께다가 자유 민주당 총재로 재선.

16일 중국 정부가 중국의 티베트 알리 지역에 3개의 초소를 증설하고 무장 침공을 감행한 인도 군대의 도발 행동에 항의하여 인도 정부에 각서. ▶제네바에서 18개국 군비 축소 위원회 1개월간의 휴회 후 재개.

17일 카이로에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34개국 대표 참가 하에 진행된 경제 발전

문제에 관한 회의 폐막 (10일간 진행). ▶제 3 차 이께다 내각 성립. ▶페루에서 군사 정변 발생, 인민들이 군사 정변을 반대하여 시위 단행.

20일 일본 후꾸이에서 동해를 평화와 친선의 바다로 전환시키기 위한 회의 개막. ▶미국 대통령 나토 최고 사령관 노스태드의 사표를 수리, 후임으로 렘니쩌를 임명. ▶수카르노 대통령의 초청에 의하여 쏘련 제 1 부수상 미꼬얀 24일까지 인도네시아 방문.

21일 7월 2일에 재개된 라오스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네바 회의 폐막, 라오스의 중립과 관련한 선언과 그의 부속 의정서를 채택.

22일 쏘련 정부에서 미국의 계속되는 핵 시험에 대처하여 최신형 핵 무기 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데 관한 성명 발표. ▶중국 정부가 중국 국경 초소에 대한 인도측의 무장 공격에 항의하여 인도 정부에 각서.

26일 웽그리야 국가 회의 외교 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차 회의 서한을 지지하는 결의문 채택. ▶라오스 련립 정부 수상 수반나 푸마 31일까지 미국 방문, 케네디—수반나 푸마 공동 콤뮤니케 발표.

27일 탄가니카 수도 달 에스 살람에서 전 아프리카 녀성 대회 진행, 대회에서 전 아프리카 녀성 기구의 규약 채택.

28일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7호》를 발사.

29일 분란 수도 헬싱키에서 제8 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8월 6일까지 진행, 우리 나라 예술단 31개의 금메달을 비롯한 많은 메달을 쟁취. ▶콩고 수상 아둘라가 콩고의 분렬을 합법화하기 위한 《련방》 조작을 발표.

30일 인도의 구지라트주에서 20만명의 주민들이 정부의 세금 정책과 교육 정책 및 물가 인상을 반대하여 군중 대회와 시위 진행. ▶100만명의 이태리 금속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로조 활동의 자유를 요구하여 전국적인 24시간 파업 단행.

31일 인도네시아와 화란 간에 서부 이리안 문제의 해결에 대하여 합의 도달. ▶런던에서 《말레이시아 련방》(말라이, 싱가포르, 브루네이, 사라와크 및 북부 보르네오로 구성) 조작에 관한 영국과 말라이 량국 수상 간의 회담 종료, 1963년 8월 31일 이 《련방》을 조작하기로 합의.

8 월

1일 도꾜에서 제 8 차 원수폭 금지 세계 대회 6일까지 진행. ▶아르젠틴 로동자들 로동 총련맹의 호소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경제적 요구를 옹호하기 위한 48시간의 총파업 6일까지 단행. ▶케네디가 46억 7,200만 딸라의 《대외 원조 법안》에 서명.

2일 알제리아 지도자들 간의 회담 종료.

6일 카리브해에 있는 쟈마이카가 영 련방 내에서 독립을 선포. ▶부다페스트에서 국제 기자 동맹 제 5 차 대회 10일까지 진행.

7일 알제리아 림시 정부가 일체 권한을 알제리아 민족 해방 전선 정치국에 이양.

8일 체코슬로바키야 민족 회의 상임 위원회에서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 서한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10일 캄보쟈 국가 원수 시하누크가 우리 나라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제 11 차 회의 서한을 지지하여 최고 인민 회의 의장에게 회답 서한. ▶와르샤와에서 세계 민주 청년 련맹 제 6 차 대회 16일까지 진행.

11일 쏘련에서 사람을 태운 우주 비행선 《워쓰또크—3호》 발사. ▶케네디 7월 1일부터 시작된 회계 년도에 국방비로 481억 3,624만 7천 딸라를 지출할 데 대한 법안에 서명.

12일 쏘련에서 사람을 태운 우주 비행선 《워쓰또크—4호》 발사.

14일 서독에서 45만명의 철도 로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생활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여 투쟁 진행.

15일 쏘련의 우주 비행선 《워쓰또크—3호》와 《워쓰또크—4호》 우주 비행을 끝마치고 성과적으로 착륙. ▶인도네시아와 화란이 서부 이리안을 1963년 5월 1일에 인도네시아의 주권 하에 이관할 데 관한 협정에 조인.

18일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8호》 발사. ▶레닌그라드에서 국제 학생 동맹 제 7 차 대회 29일까지 진행.

22일 쏘련이 베를린 주둔 쏘련군 위수 사령부를 폐지.

24일 쏘련 정부가 서부 베를린에서의 파쑈 분자들의 만행에 항의하여 미국 정부에 각서. ▶일본 로동 조합 총평의회 제 19 차 대회 28일까지 진행.

25일 큐바 혁명 정부가 24일 밤 하바나를 포격한 미제의 도발 행동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27일 에르네스트 게바라를 비롯한 큐바 통일 혁명 조직 전국 지도부 대표단이 9월 2일까지 쏘련을 방문, 쏘련이 큐바에 경제적 및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데 관하여 합의.

29일 요르단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량국 군대의 련합 사령부를 설치하기로 결정. ▶페루 공산당 제 4 차 대회 9월 2일까지 진행.

31일 카리브해에 있는 영국 식민지인 트리니다드—토바고가 독립을 선포.

9 월

4일 쏘련 정부가 미국 정부에 미국 간첩 비행기 《유—2》의 쏘련 령공 침범을 항의. ▶불란서 대통령 드 골이 9일까지 서독을 공식 방문하고 파리와 본간의 통합 문제를 토의.

6일 칠리 수도 산챠고에서 라틴 아메리카 로조 대회 9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합동 집행 서기국 창설을 결정.

7일 18개국 군비 축소 위원회

휴회.

9일 중국 인민 해방군 공군 부대가 중국 동부 지역 령공을 침범한 장 개석 도당의 미국제 《유—2》 간첩 비행기를 격추.

12일 영 련방 수상 회의 런던에서 19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영국의 《공동 시장》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

13일 미국 상원이 15만의 예비병을 현역으로 소집할 데 대한 비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 채택 (하원에서는 24일 채택). ▶모쓰크바에서 세계 과학자 련맹 제 7 차 정기 총회 15일까지 진행.

14일 브라질에서 약 300만명이 참가한 정치적 총파업 16일까지 단행.

15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20일까지 루마니야를 방문.

17일 베를린 주둔 쏘련군 위수 사령부의 해체와 관련한 따쓰의 성명 발표. ▶말리 공화국에서 모디보 케이타를 수상으로 하는 새 정부 구성.

18일 뉴욕에서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 개막.

20일 미국 상원이 필요한 경우에 큐바 침략을 위하여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케네디 대통령에게 부여하기로 결정. ▶알제리아에서 민족 회의 선거 진행.

21일 중국 정부에서 인도 군대가 소위 《맥마혼선》 이북에 있는 중국의 체동 지역에 비법적으로 침입하는 도발 행동을 감행한 것에 항의하여 성명 발표. ▶아르젠틴에서 군사 반란(18일 발발)과 관련하여 내각 총사직, 24일 폭동군의 승리로 내란 종결.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8 기 제 10 차 전원 회의 27일까지 진행. ▶쏘련 최고 쏘베트 상임 위원회 위원장 브레쥬네브 유고슬라비야 방문. ▶뉴욕에서 일본 외상 오히라와 미 국무 장관 러스크와의 회담에서 남조선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문제 등을 포함한 국제 문제들을 토의.

25일 하바나에서 큐바와 쏘련 간에 어항 건설에 관한 협정과 해양 어업 분야에서 협조할 데 관한 협정 조인. ▶알제리아 민족 회의에서 알제리아를 《민주 인민 공화국》으로 선포.

26일 벤 벨라가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수상으로 피선.

27일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코쓰모쓰—9호》 발사. ▶예멘 륙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왕을 타도하고 공화국을 선포.

10 월

1일 큐바 혁명 정부가 9월 26일 미 국회에서 큐바 혁명을 반대하는 《공동 결의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 성명 발표. ▶루마니야 국가 쏘베트 위원장 게오르기우 데스와 내각 수상 이온 마우레르가 인도네시아 (10.1~11), 인도 (10.12~20), 비르마 (10.20~22) 를 방문. ▶인도네시아—화란 간의 8월 15일 협정에 의하여 유엔이 서부 이리안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 ▶도꾜에서 이른바 《아세아 민족 반공 련맹》 제 8 차 대회 5일까지 진행.

2일 워싱톤에서 큐바를 반대하기 위한 새로운 침략 조치를 토의하기 위하여 《미주 국가 기구》 참가국 외상들의 비공식 회의 3일까지 진행, 멕시코, 브라질, 칠리 대표들이 큐바에 대한 미국의 간섭 계획을 반대.

3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중인 국경 문제를 즉시 무조건 토의할 것을 제의하여 인도 정부에 각서.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정부가 무장 봉기를 개시한 날인 11월 1일을 민족적 명절일로 기념하기로 결정.

5일 불가리아 정부 대표단이 12일까지 유고슬라비야를 방문. ▶불란서 국민 의회에서 불신임안 통과로 퐁피듀 내각 붕괴, 6일 드골이 국민 의회를 해산.

6일 캄보쟈에서 노로돔 칸톨 신 내각 성립. ▶미국 하원이 39억 2,890만 딸라의 《대외 원조》 예산을 승인 (10월 2일 상원에서 승인). ▶알제리아 수상 벤 벨라가 19일까지 미국을 방문.

7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9월 16일이래 인도 정부와 교환한 10건의 각서 발표. ▶브라질에서 총선거 진행.

8일 사우디 아라비아와 요르단 군대들이 예멘에 침입.

9일 우간다가 독립을 선포. ▶미 대통령 케네디와 불란서 외상 뮤르빌이 백악관에서 회담 진행, 회담에서 베를린 문제와 큐바, 라오스 및 콩고 사태에 관하여 의견 교환.

10일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합동군 총사령부의 훈련 계획에 의하여 파란의 서부 지역과 민주 독일 북부에서 쏘련, 민주 독일, 파란 군대들의 합동 군사 훈련 진행. ▶미국 하원이 서부 베를린에서 《필요하다면 무력을 포함한 어떠한 수단》으로도 점령 제도를 유지할 데 대한 결의안을 통과. ▶이태리에서 야금 및 기계 제작 로동자 약 100만명이 물질적 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10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3일간의 파업 진행.

11일 카이로에서 제 38 차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20일까지 진행,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40개국의 사격 선수 600명이 참가, 경기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은메달 5개와 동메달 3개를 쟁취.

15일 기니아 수도 코나크리에서 제 2 차 아세아 아프리카 법률가 회의 21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미제의 남조선 강점을 규탄하는 조선 문제에 관한 결의 채택. ▶고물까와 유제프 찌란께비치를 비롯한 파란 당 및 정부 대표단이 20일까지 민주 독일을 방문. ▶미제가 카리브해에서 도발적인 대규모 군사 연습 감행.

16일 쏘련에서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태평양

수역의 2개 지역에서 신형 다계단 운반 로케트 시험 계획을 발표. ▶알제리아 민주 인민 공화국 수상 벤 벨라 17일까지 큐바를 방문. ▶방코크에서 침략적 세아토 군사 고문관 회의 제 17 차 회의 17일까지 진행.

17일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10호》 발사. ▶중국 정부가 인도 비행기의 중국 령공 침범을 항의하여 인도 정부에 각서.

19일 일본의 여러 정당, 사회 단체들이 망라되고 있는 일미 《안전 보장 조약》 반대, 평화 및 민주주의 옹호 국민 회의 지도부 회의에서 《일한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공동 투쟁을 강화하기로 결정.

20일 아침 7시 인도 군대가 티베트와 신강 지역에 대하여 대규모적인 전면 공격을 개시. ▶중화 인민 공화국 국방부 대변인 인도 군대의 침공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성명에서 중국 측은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여 인도 군대에 강점된 자기의 령토를 탈환하는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언명.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11호》 발사.

21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인도 군대의 대규모적 공격에 항의하여 인도 정부에 각서. ▶일본에서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미 군사 기지 철페를 요구하며 《일한 회담》을 반대하는 공동 투쟁 전개.

22일 도꾜에서 《일한 회담》을 반대하며 귀국 협정의 무수정 연장을 요구하는 재일본 조선 상공인 대회 진행.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전국 텔레비죤 방송 연설에서 큐바에 대한 봉쇄 실시와 큐바로 수송되는 일체 《공격용 군사 장비》에 대한 검색을 실시할 것을 발표.

23일 큐바 수상 카스트로가 미제의 해상 봉쇄와 관련하여 전국에 전쟁 상태를 선포하고 총동원령을 발포. ▶미제의 큐바 봉쇄와 관련하여 쏘련 정부 성명 발표. ▶케네디의 반큐바 무봉쇄 조치와 관련하여 와르샤와 조약 참가국 합동군 총사령관이 합동군 군인들과 함대들의 전투 태세를 강화할 것을 결정. ▶유엔 사무 총장 대리 우 탄트가 흐루쑈브와 케네디에게 서한, 서한에는 큐바에 대한 쏘련의 무기 수송을 자원적으로 2~3주일 중지하며 미국은 큐바로 향하는 선박들을 검색할 데 관한 수송 차단 조치들을 2~3주일 중지할 것을 제의.

24일 쏘련 내각 수상 흐루쑈브가 영국의 《100명 위원회》 위원장 러쎌에게 보낸 회답 서한에서 미제의 반큐바 조치와 관련하여 《고위급 회담이 유익하다》고 지적. ▶중국 정부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성명에는 중인 량국 수상들 간의 회담 진행과 쌍방 군대들이 자기쪽으로 각각 20 키로메터씩 철수할 것을 제의. ▶류 소기 주석과 주 은래 총리 중인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와 관련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13개국 지도자들에게 서한 발송.

25일 미제의 도발적 반큐바 봉쇄 조치를 반대하여 조선, 중국, 파란, 웽그리야, 몽고, 체코슬로바키야 등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성명 발표.

26일 흐루쑈브 우 탄트에게 보낸 회답에서 그의 10월 23일부 제의에 동의하고 큐바행 쏘련 선박들의 선장들에게 차단 지역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하였다고 지적, 케네디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한 발송. ▶인도 대통령이 중인 국경 분쟁과 관련하여 《비상 사태》 선포. ▶서전 수도 스톡홀름에서 세계 평화 리사회 상설 위원회 회의 29일까지 진행.

27일 큐바 수상 카스트로 미국 비행기들이 계속 큐바 령공을 침범할 것이라고 한 27일부 미 국방성의 횡포한 선언에 대처하여 큐바 령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기들을 추락시킬 것을 명령. ▶흐루쑈브 토이기에 있는 미국 로케트의 철수와 교환 조건으로 큐바에서 쏘련 로케트를 제거하는데 동의한다고 케네디에게 서한. ▶케네디가 흐루쑈브에게 회답 서한, 케네디는 토이기에 있는 나토의 기지를 철페하라는 흐루쑈브의 제의를 거부하고 《유엔의 효과적인 알선하에 큐바에 있는 공격 미싸일 기지 공사를 그만두게》할 것과 큐바에서 공격용 무기 체계를 제거하며 금후 큐바에 그러한 무기를 도입하지 않을 것을 흐루쑈브에게 요구.

28일 흐루쑈브는 케네디에게 보낸 회답 서한에서 쏘련 정부는 《당신이 공격적인 것으로 묘사한 그 무기들을 해제하며 그것을 상자에 집어 넣어 쏘련으로 도로 가져 올 데 대한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 ▶큐바 정부는 큐바에 관한 흐르쑈브의 서한에 대한 케네디의 회답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성명은 5개 조항의 요구 조건을 제기. ▶케네디는 유엔 사무 총장 대리 우 탄트가 큐바를 방문하는 2일간만 큐바에 대한 무력 봉쇄를 중단하기로 결정.

29일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인도에 대한 무기 원조를 확약하는 서한을 네루에게 전달, 11월 2일부터 인도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무기 공급 시작.

30일 유엔 사무 총장 대리 우 탄트는 쏘련 유도탄 기지 철거에 관한 유엔 감시 문제를 토의하고저 하바나에 도착, 큐바 수상 카스트로와 31일까지 회담 진행. ▶유엔 총회에서 미제의 조종 하에 유엔에서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권리 회복 문제를 부결.

13일 미국이 큐바에 대한 봉쇄와 공중 정찰을 계속할 것을 명령. ▶아브둘라 알레 살랄을 수상으로 하는 예멘 신 정부 구성.

11 월

1일 큐바 수상 피델 카스트로가 텔레비죤 방송 연설, 연설에서 10월 28일부 성명에서의 5개 항목의 요구를 재천명. ▶쏘련에서 화성 방향으로 우주 로케트 《마르쓰—1호》 발사.

2일 쏘련 제 1 부수상인 미꼬얀

이 11월 26일까지 큐바를 방문.

3일 중국과 네팔 간에 국경선 확정 사업 완료.

4일 요르단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호상 방위 조약》 체결. ▶인도가 중국에 대한 침략 전쟁을 총지휘할 《국방 리사회》를 조직. ▶주 은래 총리 중인 국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3개 제안에 응할 것을 호소하여 네루에게 서한. ▶일본 수상 이께다가 11월 25일까지 서독(11.5~8일), 불란서 (11.8~12일), 영국 (11.12~14일), 벨기(11.15~17일), 이태리 (11.17~19일), 화란을 방문.

5일 불가리야 공산당 제 8 차 대회 14일까지 진행. ▶이태리에서 150만명의 고용농과 농업 로동자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단행.

7일 인도에서 인민 탄압을 목적한 《방위령》과 《예비 구속법》에 근거하여 공산당원들을 대대적으로 검거.

8일 큐바에서 무기를 반출하는 쏘련 선박들에 대한 미국 군함의 《검색 작전》 10일까지 진행.

10일 미 국방성이 큐바에 대한 봉쇄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아르젠틴, 도미니카 함선들로 《해군 특별 부대》를 창설.

14일 서독 수상아데나우어가 16일까지 미국을 방문.

15일 주 은래 총리가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에게 서한. ▶가스트로 수상이 유엔 사무 총장 대리 우 탄트에게 서한, 서한에서 카스트로 수상은 큐바에 대한 어떠한 일방적인 시찰도 거부한다는 것을 재천명.

19일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 23일까지 진행, 회의에서 쏘련의 경제 발전과 인민 경제에 대한 당의 지도에 관한 문제를 토의. ▶불가리야 인민 회의 제 4 기 제 2 차 회의 진행, 또도르 쥡꼬브를 수상으로 선거. ▶큐바 수상 피델 카스트로 유엔 사무 총장 대리 우 탄트에게 서한, 서한에서 쏘련 정부가 《일—28》 비행기들을 철수하는 것이 회담의 성과적 진행과 위기의 조정에 유리하다고 인정한다면 큐바 혁명 정부는 그러한 결정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

20일 웰그리야 사회 로동당 제 8차 대회 24일까지 진행.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흐루쑈브로부터 큐바에 있는 《일—28》 폭격기 전부를 30일내에 철수하겠다는 것과 큐바에 있는 쏘련 지상 전투 부대들도 《적절히 철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발표. ▶미국 정부가 큐바에 대한 해군 봉쇄는 해제하나 큐바를 침략하지 않을데 대한 보증을 거부. ▶일본에서 《핵 무기 금지, 군사 기지 철폐, 《일한 회담》 분쇄, 전반적 군비 축소 촉진, 아세아 평화 쟁취 일본 대회》 22일까지 진행.

21일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성명 발표, 성명은 22일 0시부터 일방적으로 정화하며 1962년 12월부터 중국 국경 경비대가 1959년 11월 7일에 중국과 인도간에 존재한 실제적인 통제선으로부터 20키로메터 철수할 것이라고 지적. ▶쏘미간의 합의에 따라 쏘련 정부가 전투 태세 강화에 대한 명령을 취소.

22일 중국 국경 전 지역에서 중국이 주동적으로 정화.

23일 일본 평화 위원회 전국 리사회 확대 회의에서 《일한 회담》 반대 투쟁 강령 작성.

24일 제 4 차 국제 농업 및 림업 로동자 직맹 대회에서 조국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조선 정세에 관한 결의 채택.

25일 큐바 통일 혁명 조직 전국 지도부와 큐바 혁명 정부 공동 성명 발표, 성명은 미국과 그 공모자들이 반큐바 책동 근거지에 대한 시찰을 접수하지 않는한 큐바는 어떠한 시찰도 접수하지 않을 것이며 제국주의 침략을 끝까지 배격할 것이라고 언명. ▶과테말라에서, 공군 부대의 반정부 폭동 발생.

26일 9월 7일이래 휴회하였던 제네바 18개 국 군비 축소 위원회 회의 재개.

27일 일본 사회당 제 22 차 대회 29일까지 진행. ▶영국과 인도간에 《무기 무상 대여 협정》체결.

28일 일본 사회당 중앙 집행 위원회에서 《일한 회담》을 반대하는 결의를 채택. ▶주 은래 총리가 중국측의 정화 및 국경 경비대 철수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하여 네루에게 서한. ▶미국의 《폴라리스》 유도탄과 비행기, 각종 무기를 생산하는 《록키드》 항공 회사를 반대하여 1만 5천명의 미국 기계 로동자들이 전국적 투쟁 전개.

30일 유엔 총회에서 우 탄트를 유엔 사무 총장으로 선출.

12 월

1일 혼듀라스에서 막심 베쟈라노(이전 대좌)의 지도 밑에 반정부 무장 반란 발생.

2일 인도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서 중인 국경 문제와 관련하여 네루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는 결의 채택. ▶로마에서 이태리 공산당 제 10 차 대회 8일까지 진행.

3일 워싱톤에서 제 2 차 《일미 무역 경제 위원회》 5일까지 진행.

4일 체코슬로바키야 공산당 제 12 차 대회 8일까지 진행. ▶인도 공산당 전국 위원회 위원장 당게가 중인 국경 분쟁에서 인도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쏘련, 런던, 파리, 쁘라가, 부다페스트, 와르샤와, 로마 및 기타 구라파 나라 수도들을 방문.

5일 큐바 혁명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필수품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의복, 신발, 직물, 철물들을 판매하는 대중 상업 기업소들을

국유화할 데 관한 법령 채택.

6일 큐바에 있던 42대의 쏘련 《일—28》 폭격기 철수 완료.

8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이 《일한 회담》의 중지, 군사 기지들의 철페, 일미 《안전 보장 조약》 페기 및 핵 무기 금지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할 데 대한 호소문 발표. ▶영령 브루네이에서 독립을 요구하며 말레이시아 련방 창설을 반대하는 무장 폭동 발생. ▶400만명의 일본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와 《일한 회담》을 반대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제 3 차 전국 공동 투쟁 개시.

9일 중국 외교부가 중인 국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평화 애호적 조치들에 대한 인도 정부의 립장을 명백히 할 것을 요구하여 인도 정부에 비망록 전달. ▶탄가니카가 공화국을 선포.

10일 쏘련 최고 쏘베트 제 6 기 제 2 차 회의 13일까지 진행. ▶쎄일론의 수도 콜롬보에서 중인 국경 분쟁의 평화적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아세아, 아프리카 6개 국(쎄일론, 캄보쟈, 비르마, 아랍 련합 공화국, 인도네시아, 가나) 회의 12일까지 진행.

11일 서독 수상 아데나우어가 《슈피겔》 잡지 사건과 관련한 3주일 간의 위기후 신 련립 내각 구성. ▶런던에서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와 영국 국방상 소니크로프트 회담 진행, 회담에서 쌍방은 중거리 미싸일 스카이볼트의 개발 문제를 토의. ▶유엔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조선 문제》 18일까지 토의. ▶중국 외교부 인도 비행기의 중국 티베트 령공 침범 사건에 항의하여 인도 정부에 각서. ▶미국 공산당에 대한 재판 개시.

12일 유엔 총회 정치 위원회에서 쏘련 대표 조린 《남조선으로부터의 외국 군대의 철거에 관하여》 연설. ▶아르젠틴 공군 반란 진압. ▶파나마에서 중미 국가 외상 회의 진행, 큐바를 반대하기 위한 《중미 방위 리사회》조작에 관한 협정 조인.

13일 파리에서 침략적 나토 리사회 정기 회의 15일까지 진행.

14일 일본 각지에서 4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한 회담》과 일본 정부의 반동 정책을 반대하여 제 5 차 공동 투쟁 전개. ▶중국 《인민 일보》가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는 단결하여 우리의 공동의 원쑤를 반대하자》라는 사설 게재. ▶희랍의 민족적 영웅 마놀리스 글레소스 석방. ▶불란서 대통령 드 골과 영국 수상 맥밀란이 불란서의 랑부이에서 16일까지 회담 진행, 콤뮤니케에 의하면 《공동 시장》 6개 국간의 현 협상 정형 토의.

16일 네팔에서 새로운 헌법을 발표.

18일 낫소에서 케네디와 맥밀란 간의 회담 진행.

21일 유엔 총회 제 17 차 회의 페막. ▶미국과 큐바간에 1961년 4월의 큐바 침공시 포로된 1,113명을 보상금 5,300만 딸라에 해당되는 식량 및 의약품과 교환하기로 합의, 24일 수송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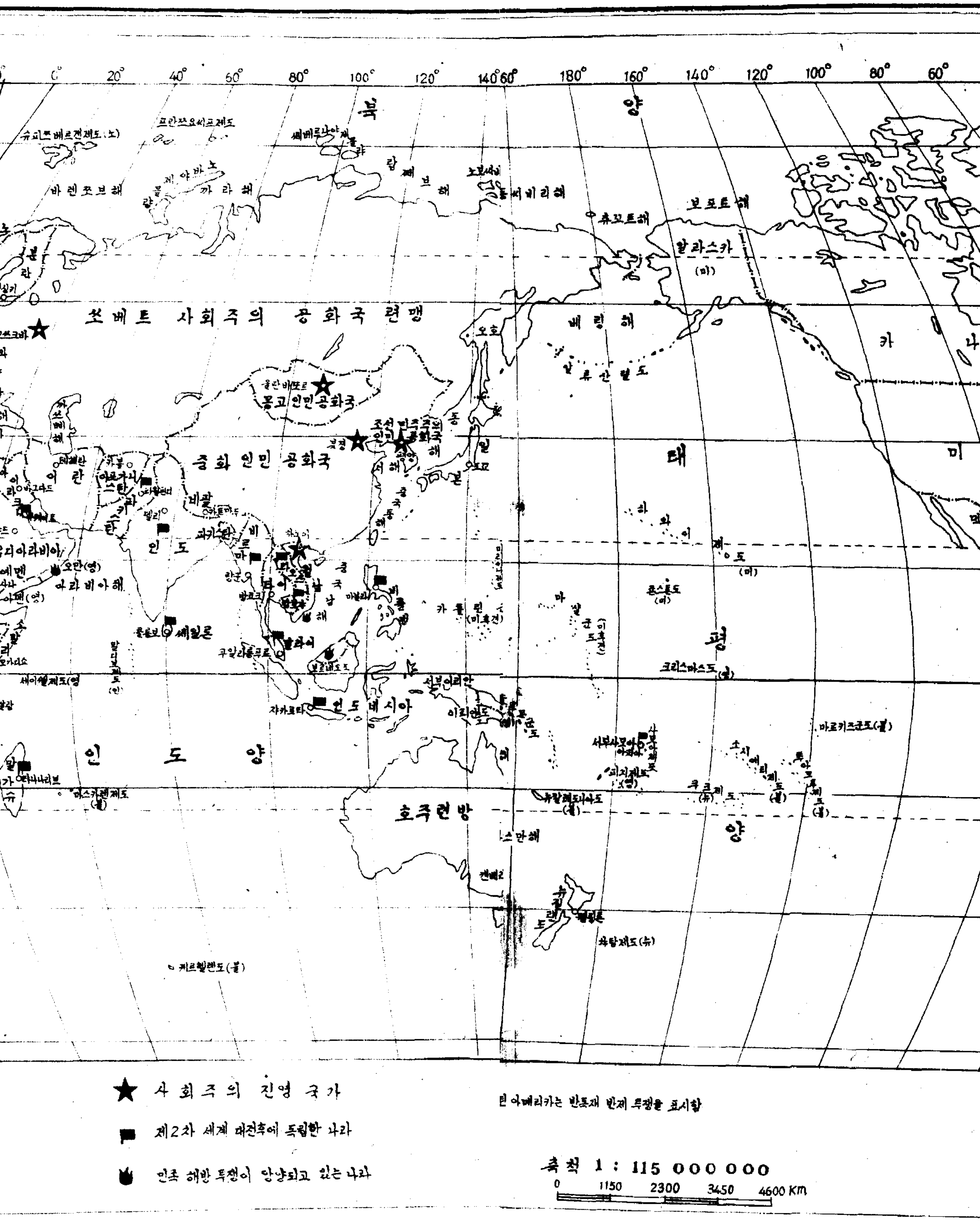
22일 쏘련에서 인공 지구 위성 《꼬쓰모쓰—12호》 발사.

25일 중국—몽고 국경 조약에 조인하기 위하여 몽고 인민 공화국 내각 수상 유. 쩨덴발 27일까지 중국 방문, 26일 북경에서 국경 조약 체결.

28일 중국과 파키스탄 간에 국경 확정 문제에 합의를 보고 콤뮤니케 발표.

30일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교부가 12월 19일부 인도 외무성의 비망록에 대한 회답을 발표.

31일 중국 《인민 일보》가 《톨리아티 동지와 우리와의 의견 상이》라는 표제의 사설 게재.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련맹
몽고인민공화국
울란바또르
중화 인민 공화국
북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도
세일론
인도네시아
호주련방
바렌쯔브해
까라해
랍쩨브해
동시비리해
보포트해
알라스카
베링해
알류산렬도
북
양
태
평
양
인
도
양
아라비아해
카
나
미
하와이제도
크리스마스도
뉴질랜드
사회주의 진영 국가
제2차 세계 대전후에 독립한 나라
민족 해방 투쟁이 앙양되고 있는 나라
축척 1 : 115 000 000
0
1150
2300
3450
4600 Km

조선 중앙 년감 (1963년 판)

1963 년 12 월 20 일 인 쇄
1963 년 12 월 25 일 발 행
발행소 조 선 중 앙 통 신 사
발행인 조선 중앙 년감 편집 위원회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ㄱ—330806, 발행 부수 7,500부, 값 5원 50전

정 오 표

페지	단	행	틀림	옳음
19	1	24	사회주의 국가 간의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203	2	31	66	없음
204	2	26	836	839
250	1	26	7.4%	2.6%
259	표		1963년도 남조선 도매 물가 동태	1963년도 남조선 도매 물가 동태 (1960=100)
261	3	44	11993	1963
273	3	25	33 68 22 87	33 684 22 870
274	1	42	빈농가	비농가
277	3	5	명이으로	명이 결핵으로
434	2	25	1만 4,656 카라트	1,465만 6천 카라트
509	3	15	정치 대회	정기 대회